

# 헤딩턴의 존 브라운 목사의 조직신학

존 브라운 저자

## 목차

### 제 1 권: 종교의 규제 기준에 관하여

- 자연법에 관하여
- 법의 불충분성에 관하여
- 구약과 신약에서 계시된 종교의 기준에 관하여

### 제 2 권: 만물의 저자, 대상, 목적이신 하나님에 관하여

- 하나님의 이름, 본성, 속성에 관하여
- 삼위일체 안의 위격들에 관하여
- 하나님의 예정에 관하여
-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예정 실행에 관하여

### 제 3 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종교적 관계의 언약적 유대에 관하여

- 행위언약에 관하여
- 은혜언약에 관하여

### 제 4 권: 은혜언약의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 그리스도의 중재적 위격에 관하여
- 그리스도의 일반적·특별 직무에 관하여

- 그리스도의 상태: 겸손과 영화

#### 제 5 권: 은혜언약의 주요 복에 관하여

-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하여
- 칭의에 관하여
- 입양에 관하여
- 성화에 관하여
- 영적 위로에 관하여
- 신자의 영화에 관하여

#### 제 6 권: 은혜언약의 외적 경륜에 관하여, 법, 복음 등

- 하나님의 법에 관하여
-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하여
- 은혜언약의 제정된 예식에 관하여

#### 제 7 권: 은혜언약이 집행되는 교회 또는 사회에 관하여

- 기독교 교회의 본성, 구성, 교제에 관하여
- 교회의 권세와 그 권세가 존재하는 주체들, 머리와 직분자들에 관하여
- 교회 재판소들과 그 신적 권위, 역할, 징계에 관하여

----

## 신학도들에게 보내는 글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얻고자 이 자연 및 계시 종교에 대한 요약된 개관을 작성하였다. 여러분 중 여러 이의 바람에 따라 이 책을 이제 출간한다. 읽히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게 하려 만든 만큼, 이 책은 추가적인 설명을 제외하니 지금은 건조하고 간결하게 보일 수 있다. 또 분명 어떤 표현들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의미로 읽힐 수도 있을 것이다.

여러분을 성경에 능숙케 하여, 성령의 자명하고 양심을 지배하는 증언으로 우리 거룩한 종교의 여러 조항을 능히 변호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물을 하나님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 익숙해지도록, 많은 성구를 인용하여 여러분의 기억에 담아 두도록 힘썼다. 하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인격 등에 관한 주요 조항들이 여러 다른 조항을 통해 추적되는 방식으로 신성한 진리들의 광범위한 연관성을 드러내었다. 하찮거나 지역적이거나 잠자는 논쟁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또한 내가 알기로, 진리의 대적들을 불공정하게 묘사하거나 무분별하게 답한 적도 없다.

사람의 속임수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을 가르치는 동안 여러분의 양심이 증언할 것이다. 나의 주된 관심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대한 것들을 새기는 데 있었다. 이제 내가 천천히 영원한 상태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려 하니,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한다. 만일 그분의 영광과 여러분 자신의 그리고 청중들의 영원한 구원을 바란다면,

### 1. 여러분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확실히 하라.

나는 점점 더 분명히 본다.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 앞에 죽음과 출현에 합당하다는 것을.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났는가? 위로부터 태어나고, 성령으로 난 자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착한 행실을 위하여 지음 받은 자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창조물인가? 옛것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새로워졌는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습관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고 설교하며 마음으로 교제하는 할례 받은 자인가? 여러분은 육체나 자기 의로움, 학식, 말솜씨, 노력과 근면, 은사와 은혜에 자신을 두지 않고, 모든 형태의 자아에서 비워져 마음이 가난하며, 모든 성도 중 가장 작은 자이며, 하나님의 모든 자비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며, 심지어 자신 눈에 죄인 중에 죄수인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그의 아들을 계시해 주셨는가? 강한 손길로 가르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탁월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음으로 여기고, 그를 얻고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자신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를 얻고, 그의 부활의

능력과 고난의 교제를 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높으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힘쓰는가? (요 3:3,5-6; 엡 2:10; 고후 5:17; 갈 6:15; 빌 3:3; 마 5:3; 마 16:24; 엡 3:8; 창 32:10; 딤후 1:15; 갈 1:15-16; 빌 3:7-14)

만일 은혜 없는 설교자나 복음 사역자가 된다면, 그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가! 성경을 펼칠 때마다 양심은 두 배 더 큰 저주를 여러분에게 내린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은 스스로 엄중한 기소장을 작성하는 것과 같다. 다른 사람 죄를 논박하거나 책망할 때, 자기의 죄는 더 커질 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선포할 때마다 반역이 더해지고, 그 법은 여러분이 저지른 배반의 끔찍한 증인이 된다. 그 위협을 전하고 지옥의 형벌을 언급할 때, 여러분 자신을 지옥에 맡기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유업을 스스로 상속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탁월함과 충만과 사랑과 수고를 말할 때, 그것을 밟아 무시하는 것이다. 그분의 언약과 복음을 입에 올릴 때, 그것들을 훼손하고 사람들 발에 짓밟힌 자로 만드는 것이다. 영적 체험을 말할 때는 은혜의 성령을 모욕하는 것이다. (히 10:29)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칭찬하고 죄인을 새 언약의 교제에 초대할 때, 여러분은 속으로 그들을 배신하며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칼로 찌르고, 입맞춤으로 배신하며, 마음속으로 “이것이 상속자이자 하나님이다. 와서 그를 죽이자!”라고 외치는 것과 같다. (삼하 3:27; 삼하 20:10; 눅 22:48; 마 21:38; 막 12:7; 눅 20:14) 하나님의 법과 복음의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자신에게는 그 뒷면을 돌려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남에게 전하는 복음은 여러분에게는 숨겨져 있고, 죽음의 냄새요 죽음에 이르는 냄새이며 눈에 장막이 남아 있고, 이 세상 신이 마음을 가렸기 때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여러분의 모든 지식은 저주받은 자만심이며,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으면, 여러분 처지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천하에서 구원받기 가장 어려운 자는 은혜 없는 떠난 목사일 것이다. 그의 양심은 죄책감으로 무겁게 눌러 마치 뜨거운 쇠로 지져진 듯 무감각해졌고, (딤후 4:2) 복음의 남용으로 마음이 굳어졌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이여, 나의 모든 가르침, 성령의 권면, 여러분의 독서, 묵상, 설교, 복음적 원리, 고백, 기도가 덧과 올가미가 되어 여러분 중 누군가를 손발이 묶인 무익한 종으로 만들어 어두운 곳에 던져버리고, (마 25:30) 모든 성경과 책들의 내용, 모든 은사와 겉으로 보이는 은혜들이 양심 속에 박혀 마치 연료나 기름처럼 되어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에 영원히 타오르게 할 것인가! 하늘 문 앞에 잠시 세워져 다른 이를 그리로 인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언하며, 구원의 길을 보이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구속자의 천상 안식에 이르는 길을 밝히는 일을 하다가, 자신의 등불은 영원한 어둠 속에 꺼지고 “너희는 나를 떠나라. 내가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라. 불법 행하는 자들아!” (마 7:23) 라는 심판을 맞이할 것인가? 내가, 모든 교회가 결국 여러분을 죄된 대적자로 보고,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대한 배신자로 정죄하며 가장 엄중한 방식으로 영원히 밀어낸 구렁에 가라앉게 해야만 하는가! 바로 그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피의 무게 아래, 죽임당한 진리와 깨달음, 은사, 복음 사역, 그리고 사람들의 영혼 무게 아래에서 말이다!

## 2. 여러분의 목회 사역을 위한 적절한 준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고 이를 늘리기 위해 힘쓰라.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질 것이다.

예수께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셨는가? 여러분은 천국의 신비를 분명히 아는가? 자기 마음의 좋은 보물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어 가르칠 능력이 있는가? 약한 자에게 복음의 심오한 신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기쁘거나 두려운 사물을 적절하고 감동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민첩성은 어떠하며, 그것들을 연구하는 근본적인 성향은 어떠한가? 무한히 중요한 일에 헌신한 이처럼 말이다. 설교단에서 명백하고 엄숙하며 질서 정연하고 진지한 태도로 하나님의 진리를 청중의 양심에 단단히 심어줄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은 자기 체험한 진리와 영감 받은 성구를 얼마나 장착하여 목회 사역에 들어갔는가? 하나님의 법, 죄, 사탄, 하나님의 버림과 두려움에 관한 진리들 중 어느 것의 증거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느껴 보았는가? 영광스러운 복음의 선언, 약속, 제안, 초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먹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맛보고 보았는가? 어떤 영감의 진리와 성구에 대하여 “우리가 그렇게 믿었기에 말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보고 듣고 생명의 말씀을 맛보고 만진 것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노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공책에 깊이 체험한 마음을 기록하는 설교자는 삼중으로 복되다! (요 20:22; 마 13:22; 마 13:12,52; 딤후 3:2; 딤후 1:9; 딤후 2:2; 사 50:4; 사 49:2; 렬 15:16; 고후 4:13; 요 1:1-3; 요 8:34)

## 3.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부터 받은 목회 사역의 부르심이 진실하며 명백한지 주의하라.

그것 없이는 사역에 적절히 고무되거나 격려받을 수 없으며, 신적 성공을 바랄 수도 기도할 수도 없고, 충실하려 할 때 직면할 어려움을 제대로 견디지도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령으로부터 보내심 받지 않고, 외적으로 허가서와 소명, 안수가 정상적으로 갖추어졌어도 사역한다면, 여러분은 전반적으로 신성모독하는 도둑이자 강도이며,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속이는 위선적 사절이자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자일 뿐으로, 그들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 그렇다면 어떤 인도와 지원, 도움과 격려, 보상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은 이 명예를 스스로 취한 것인가? 아니면 아론처럼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으며, 기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반드시 전해야 할 책임을 여러분에게 부과하셨는가?

## 4. 직분에 들어가거나 수행하는 목적이 오직 순수하고 이기적이지 않음을 반드시 확실히 하라

그가 섭리를 따르도록 강력히 결단하게 하시고, 빵 한 조각을 먹거나 육체적 안락이나 명예를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 직무에 들어가는 모든 이기적이고 부정한 행위를 피하게 하였을 때, 과연 그가 당신에게 성령을 불어넣어 주어 멸망하는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깊은 연민과 그러한 고된 일을 감당할 자신 없음에 대한 깊은 자각, 그리고 만일 주님께서 당신을 영혼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시려면 당신을 성결하게 하사 그 일을 감당할 만하게 하실 것이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충만하게 하였는가? — 혹 섭리로 인해 당신이나 부모가 기울었던 다른 부름이 막혔으며, 교육 과정 중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마음에 불타올라 성령으로 얹매여, 기꺼이 가난과 비방, 세상의 미움을 감수하며 그의 이름과 영광, 그리고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도록 강권받았는가? — 당신의 영혼에 강력히 새겨진 하나님의 신탁들은 무엇이며, 그것들은 어떻게 당신을 그의 일로 이끌고 격려하였는가? —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분은 어떤 형식으로 위임하셨는지 아는가? 이방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려 죄 사함과 믿음으로 성결케 된 자들 가운데 유업을 받게 하려 하였는가, 아니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무겁게 하여 눈을 가리려 하였는가? (렘 23:21-22, 32; 사 49:1-2; 렘 1; 겔 2-3; 겔 33; 마 10; 눅 6; 눅 10; 요 10; 행 1; 히 5:4; 롬 10:15; 고전 1:17; 고전 9:16; 행 26:17-18; 사 6:8-9)

당신은 결코 빵 한 조각을 먹기 위해 제사장 직분을 택하지 않았고, 각자가 자기 이익만을 바라지 않았으며, 위대한 것을 구하지 않았고,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으며, 사람들의 재산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구하여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영원한 복지를 얻게 하려 하였고, 자신의 영예나 안락, 세속적 이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백성의 일을 구하였으며, 사람의 영예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의 영광, 곧 영혼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힘썼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고난이나 위험이 있어도 이 목적을 끝까지 추구하기로 결심하였음을 고백하는가? (렘 45:5; 삼상 12:3; 행 20:33; 사 56:11; 딤후 4:10; 고전 9:12,16; 고후 7:2; 고후 11:9; 고후 12:13-14; 고후 6:4-19; 빌 2:21; 살전 2:4-9; 요 7:18)

#### 5. 목회 사역의 본질과 범위, 중요성에 대하여 당신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음을 확실히 하라

목회 사역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신비와 다채로운 은혜의 청지기로서 충성할 것이 요구된다. 당신은 영과 많은 겸손으로 주를 섬기며 그의 아들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하나님께 회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과 교훈, 책망, 격려를 숨기거나 피하지 말아야 하며, 모욕과 박해, 배고픔과 벌거벗은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묶이고 심지어 죽음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연약한 자의 허물을 참으며 함께 기도하여 주의 말씀이 자유롭게 행하여지고 영광 받으며, 당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 제공되어 청중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힘써야 한다. 경외와 떨림으로 일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을 알거나 자랑하고,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말며, 크고 명확한 언어와 성령의 증거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자유로이 주신 것을 전하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가르치는 말을 사용하고,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대조하며,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안에서 승리하며, 아는 지식의 향기를 모든 곳에서 나타내어 구원받는 자와 멸망하는 자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나타나야 한다. 정직함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 말하며, 은밀한 부정을 버리고, 속임수를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진리를 타락시키지 말고 각 사람의 양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분명히 나타내라. 자신을 전파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주를 전파하며, 교회를 위하여 종이 되어 늘 그의 죽음을 몸에 지니고 그의 생명이 당신 안에서 나타나게 하라.

주의 공포를 알고, 심판의 날에 당신과 듣는 이가 주께 행실 전체에 대해 보고해야 함을 깊이 각성하여, 그의 무한 권위에 숙연해지고 그의 사랑에 의해 제약되고 불타며 사람들을 설득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들의 양심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며, 필요에 따라 목소리를 달리하고 모든 방법으로 자신을 돌이켜 모든 사람에게 맞추어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라. 거룩한 질투로 그들을 지키고 정절한 처녀로써 그리스도께 맞추며, 그가 그들의 마음속에 형성될 때까지 진통하라.

주의 받은 사역을 주의 깊게 살피고, 주어진 은사를 일깨우며, 독서와 권면, 교훈에 전심을 다하고, 자신과 전하는 교리를 꾸준히 지켜 당신과 청중 모두를 구원하라. 영혼을 위하여 깨어서 하나님께 보고할 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고, 적시에 각 사람에게 분배하며, 밤낮 눈물로 모든 사람을 신실하게 권면하고 특히 젊은이를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힘써라.

육신을 따라가거나 육적 무기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모든 상상과 생각과 정동(affections)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 대화의 목적을 그분으로 삼고 믿음과 사랑으로 올곧은 말의 형태를 굳게 지키며 세상 일에 얽매이지 말며 주와 그 일과 포로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어려움을 견디고 택함 받은 자들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게 하려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를 하라.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분의 비난을 짊어지고 천사와 사람 앞에서 고난의 광경이 되어 환난 중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양 떼를 먹이라. 성령께서 감동자로 삼으신 양 떼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으로 양육하며 모든 인내와 교훈으로 책망하고 권면하라.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세속적 이득을 위한 부정한 이득이나 더 많은 사례를 구함이

아니며, 하나님의 유업에 대한 주인이 아니라 양 떼의 본보기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없는 양심을 훈련하며, 선한 양심으로 모든 일에 정직히 살기를 원하며, 신앙심을 단련하고 친절하고 이기심 없으며 거룩하고 공정하며 티없으며, 대화와 사랑과 믿음과 청결함에 있어 신자의 신중한 본보기가 되어라.

젊은 욕망을 피해 의와 평화와 믿음과 사랑을 좇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가르치고  
어리석고 배우지 못한 질문과 헛소문을 피하며, 가장 위험한 덧인 사악한 논쟁과 세속주의에서 도망하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믿음의 좋은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움켜잡으며 복음의 진리와 목회 직분을 굳게  
지키고, 신속하거나 외람없이 않게 충실한 자들에게 맡겨 다른 이들을 가르치게 하라.

마침내 주 안에서 충실히 수고하여 거짓 교사들을 시험하고 반박하며, 범죄자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거나 추방하고, 허물에  
빠진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회복하며 그들을 불에서 끄집어 내고, 육체에 더럽혀진 옷을 미워하며 그들의 죄를  
묵인하거나 함께하지 말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당신의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를 바라며, 날마다 힘이  
더하여지기를 바란다. (겔 2:7; 겔 3:9,17-21; 겔 33:7-9; 사 58:1; 렘 1:17-18; 렘 15:19-20; 미 3:8; 말 2:6-7; 마  
10:16-39; 마 19:28-29; 마 20:25-28; 마 23:3-12; 마 24:42-51; 마 28:18-20; 행 18:24-28; 행 20:18-35; 행  
24:16; 행 26:16-23; 고전 2:1-5,9,12-13; 고전 1-5; 고전 9; 고전 12-14; 고후 2-6; 고후 10-13; 롬 1:9,16; 롬  
9:1-2; 롬 10:1; 롬 12; 롬 15; 갈 1:8-16; 갈 4:19; 엡 3:7-9; 엡 4:11-15; 엡 6:19-20; 골 4:7,17; 골 1:23-29; 골  
2:1-2; 살전 2-3; 살전 5:12; 딤후 1-3; 히 13:7,17-18; 벧전 4:10-11; 벧전 5:1-4; 유 22-23; 계 2-3; 계  
11:3-7; 계 14:6-11)

## 6. 당신의 영을 잘 살피고 주를 배반하지 않도록 경계하라

목회 직분에 나아가거나 수행할 때 온갖 부지런함으로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잠 4:23).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바라라(유 21). 만일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의 어린 양과 양무리를 신실하게  
먹일 수 있겠는가? 아, 얼마나 많은 귀중한 설교와 권면과 교훈이 차갑고 육체적이며 무관심한 설교자의 마음을 통과하면서  
훼손되고 독이 되는가!



만일 당신이 주의 두려움, 죄의 쓰라림, 이 세상의 허무함과 영원의 중요성, 그리고 예수의 흘리신 사랑이 양심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사로잡는 능력에 대해 깊은 체험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진지하고 진심으로 전할 수 있는가? 만일 그리스도에 대한 지배적인 사랑에 의해 당신의 마음이 영원한 것을 향해 굳게 고정되지 않고, 평화와 거룩함을 간절히 따라가도록 강력히 움직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극악무도한 배반을 저지르지 않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참된 행복과 그것을 얻는 참된 길을 선포할 수 있겠는가? 만일 당신의 은혜가 생생히 유지되지 않고 허리가 띠를 띠지 못하며 등불이 꺼져 있고 모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격려받지 않는다면, 당신의 거룩한 직무가 얼마나 냉담하고 육체적이며 시들었겠는가?

당신의 사명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죽지 않는 자이지만 멸망하는 사람들의 영혼 사이에서 영원한 중대한 일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면, 그 직분의 영예와 특권이 매우 귀중하다면, 당신은 얼마나 말할 수 없이 생생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의지해야 하는가?

자기 부인,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에 대한 열렬한 사랑, 그의 영광에 대한 사욕 없는 배려, 영혼에 대한 자비, 신중함, 충실함과 부지런함, 겸손과 거룩한 열정, 마음과 행실의 영성, 질서, 소박함, 열정, 온화함과 엄격함의 적절한 조화—이 모든 것이 그 사역의 모든 부분에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거룩한 일을 섬기는 동안에도 당신의 욕망이 이기고 그것에 져 있다면, 당신은 당신이 돌보는 가장 연약하고 부주의한 성도들보다도 진실하고 생생한 기독교 신앙이 적은 것이다; 만일 악한 불신의 마음이 두렵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을 멀리하게 하고, 그 강력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 자신이나 당신의 무리에게서 거부된 채로 당신이 무관심하게 살아간다면, 당신과 그들의 상황은 얼마나 처참한가! 만약 당신의 내재하는 교만이 당신의 교우, 옷차림, 음식, 심지어 설교 본문, 주제, 순서, 언어까지 선택하도록 허락된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생각을 지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망신 주고 파괴하며, 마치 연극 무대처럼 설교를 허황된 장식과 상상으로 꾸며 날카로운 그의 화살을 부드러운 비단으로 무디게 하거나 숨긴다면; 만약 그것이 당신의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표정, 말투, 행동을 형성한다면; 또는 이후의 칭찬 때문에 도취되거나 자만하거나, 당신의 수고가 경시되어 슬프고 분노하게 한다면, 그 위험과 당신 청중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가! 교만에서 비롯되고 학문과 근면, 거룩함의 명성에 의해 부추겨지는 목회 사역이 어떻게 사단의 이익에 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가—만약 교만이 허락되어 당신이 자신과 다르거나 당신보다 뛰어난 이들의 인격을 질투하거나 상처 내며, 지위가 낮은 자들의 그리스도인 권면을 마지못해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죄악과 위험은 얼마나 두려운가! 교만이 허락된다면 그것은 음주나 음행만큼이나 기독교인의 성품과 양립할 수 없다.—당신이 종파적 다툼으로 인해 종교의 어떤 원칙이나 실천을 취하거나 고수한다면, 형제들 사이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증한가! [잠 6:19]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 교회의 평화와 번영을 경시하며, 교회가 받는 모든 고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행위는 얼마나 잔인하고 비그리스도적인가! 상대를 정당하게 속이거나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 드러내면서도, 무례한 태도로 악마의 변호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시겠는가?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배우거나 선포하는 데 게으르다면—노력이나 비용을 아끼기 위해 고정된 사역이 없는 이를 돕거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과 인류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꺼린다면, 당신의 비열함은 얼마나 크고 위험은 얼마나 엄청난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목회자로 세워 사역하게 하신 이유가, 당신으로 하여금 나태하게 시간을 낭비하거나 헌신한 시간을 헛되이 쓰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진리를 숨기거나 훼손하고, 그의 이익을 배신하며, 인간 영혼을 굶주리거나 살해하게 하려는 것인가? 당신의 백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양들이 아닌가? [행 20:28] 당신은 과연 그분의 특별한 소유와 유산을 파괴하고 그의 죽음의 목적을 좌절시키려 감히 시도하겠는가? 예수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죽었는가?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그의 영광을 증진하는 데 작은 수고나 비용도 아끼겠는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위해—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면, 당신은 그분의 영으로 자아와 교만, 게으름, 세속적이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자신과 듣는 자를 구원하는 데 거절하겠는가? 당신 자신의 구원과 수많은 영혼의 구원이 당신의 충실함과 부지런함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지옥의 권세와 세상의 세력이 당신의 사역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당신이 넘어짐으로 그리스도 곧 당신의 주와 그의 교회 위에 승리하려 할 때, 당신과 이 모든 일에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람들의 수많은 눈이 집중되어 있을 때, 왜 당신은 영원한 것들—천국과 지옥, 예수의 인격, 직무, 의, 사랑과 값없는 구원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할 때 그것들의 중요성에 대해 가장 진지하고 깊은 감명을 받지 않는가? 아마도 당신이 마지막 설교를 전하면서, 당신 앞과 사방에 수백 혹은 수십의 멸망하는 영혼이 죽기 쉬운 삶의 가느다란 끈 위에 매달려 지옥으로 떨어질 준비를 하며, 이미 악마의 손에 잡혀 마치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 못으로 함께 가기 위해 막 떠나려는 영혼들이 있고, 복음으로 인해 멸망당하고 저주받아 일부는 당신의 책임으로 멸망한 영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당신은 연구하는 모든 부분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발행하는 문장마다 깊은 관심의 눈물이 섞이지 않는가? 많은 청중이, 그중 일부는 다시는 당신을 듣지 못할 이들이며, 곧 지옥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이들이며, 그들의 필요를 생각할 때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멸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벧후 2:12], “불타는 화덕에서 구해 주십시오” [속 3:2]라고 절규하는데, 왜 당신은 헛된 방문, 불유익한 대화, 무용한 독서, 불필요한 잠에 시간을 낭비하는가?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는 동안 어떤 청중이 영원한 불꽃 속에 떨어져 자신의 구원을 증진하지 못한 당신을 평생 저주하기 시작한다면 어떠랴? 예수께서 그들의 피를 당신 손에서 요구하시려 일어나실 때, 그 영광을 위해 주어진 그 지식이 낭비된 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울 것인가! 그 편안함이 수많은 사람의 멸망을 초래한 것이 얼마나 끔찍한가! 세상에 순응하거나 무익한 대화를 허락하여 청중을 죄 가운데 지옥으로 잠들게 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교만이나 사치로 자비를 제한하거나 당신을 부채에 몰아넣은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가! 사랑하는 제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진리와 교회의 모든 제도와 특권, 수많은 자들의 영원한 구원, 그리고 현재와 미래 시대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의 무한히 귀중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맡겨졌으니, 예수님처럼 그분께 모든 일에 충실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주님의 일을 속이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 교육한 부모들, 당신을 준비시킨 교사들, 당신이 공부한 신학원들, 당신이 들인 공부의 세월, 당신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들, 인간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말씀과 행위들, 당신의 직무를 인도하고 주입하며 강제하는 하나님의 모든 신탁, 명령, 약속, 경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 예언자, 충실한 사역자들의 모든 모범, 성경의 모든

장과 서재의 모든 책, 당신이 맺은 모든 언약, 모든 설교, 타인에게 전한 모든 교훈, 실행한 모든 훈계, 받은 모든 부양, 누리거나 기대하는 모든 명예, 부모·교사·목사·관료의 태만에 대해 당신이 하는 모든 증언, 개혁을 위한 모든 서약과 결심, 하나님께 드린 모든 기도가 주님의 날에 당신을 고발하는 증인으로 일어날 것이다!

## 7. 시기적절한 진리의 전파

7.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꾼으로서, 청중의 능력과 필요, 특별한 상황에 따라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여 각각에게 때에 맞는 분량을 열심히 전하라. 주제 선택 시 자신의 편안함, 기호, 명예가 아니라 영혼의 필요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준으로 삼아라. 종교의 주요 항목을 중점적으로 다루라: 복음의 근본 신비를 청중의 능력에 맞게 낮추고 그들의 양심에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중생, 칭의, 성화를 강력히 가르치라—이는 모든 은사, 학문, 수고를 요구할 것이다. 청중의 귀를 간지럽히거나 환상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확신시키고 마음을 밝히며 정동(affections)을 끌어당기고 의지를 새롭게 하여, 복음에서 그들에게 자유롭게 제공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와 의, 성화, 구속의 주로 받아들이고 향유하도록 설득하고 능하게 하라. 율법을 깨진 언약으로, 구원의 복음으로, 그리고 삶의 규범으로 설교하며, 그 내용뿐 아니라 적절한 순서와 연계성도 다루어야 한다. 이들이 제대로 연결될 때에 하나님의 귀중한 진리가 참된 광채와 영광을 드러낸다. 율법과 복음을 불찰로 혼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당신과 청중 모두에게 무한한 위험이다. 거룩함의 의무를 설교할 때 특히 조심하라. 모든 가르침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기초로 하고, 그리스도의 모범과 사랑, 의, 은혜로 강화해야 한다(엡 4-6; 골 3-4; 뱀전 3-4). 『복음과 안식일 저널』(Diction. art. Gospel and Sabbath Journal)을 참조하라.

## 8. 고백과 충성의 서약

8.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공개 증인이 되어 그의 훼손된 진리를 고수하고 전파하며, 우리 교회와 나라에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히 기념하고,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끔찍한 배교를 범한 데 대해 증언하고 애통하기로 서약했다. 당신의 고백에서 분별 있고 정직하며 변함없고 충실하라. 나는 이제 죽음에 이르렀으나, 우리 탁월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문답, 교회정치 서식을 진심으로 만족하며, 이 언약들을 마음으로 지지한다. 이 언약들은 우리 조상들이 엄숙히 자신과 자손을 묶어 그 안에 담긴 교의와 의무를 고백하고 실천하기로 한 것이다. 나는 분리파 세력이 하나님의 일임을 믿지만, 나 자신과 다른 이들이 그것을 슬프게도 잘못 처리하고 망신시켰다고 본다. 아, 교만과 열정, 이기심,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혼의 영적 세움을 등한시한 무관심이 얼마나 자주 승리했는가! 아, 우리에게 부족했던 온유함,

부드러움, 거룩한 열정, 자기 부인, 진심 어린 죄책감, 우리와 직접 연결된 영혼에 대한 자비, 혹은 기성 교회에 남아 예수를 위한 두드러진 증인이 된 이들에 대한 자비여, 아쉽다! 아, 우리는 이웃보다 더 나은 기도와 설교, 삶을 살기 위해 주로 애쓰지 못했다.—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려 애쓰되, 새로움에 대한 탐닉은 경계하라. 지금 새롭다 여겨지는 대부분의 것은 오래전에 정당히 반박되어 새 표현으로 재포장한 옛 오류에 불과하다. 까다로움, 다툼, 세상적인 관심 등으로 인해 이 일에서 하나님의 일을 가법게 여기게 하지 말라. 내가 틀리지 않았다면, 교회는 두려운 배교와 혼란의 구름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마 10:22; 마 24:13; 막 13:13]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관을 주시리라. 그러나 누구든 물러나면 하나님의 영혼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히 10:38]

## 9. 복음 안에서의 권면과 신뢰

9.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과 목회자로 받은 복된 권면을 항상 붙들고 그것으로 살라. 모든 필요를 그리스도께 맡기라. “내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중에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9]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는 너희를 돌보신다.” [벧전 5:7] “너희 모든 짐을 그에게 맡기라, 그가 너희를 붙드시리라.” 만약 당신의 거룩한 사역이 잘못된 처리로 인해 더 큰 죄악을 초래한다면, 그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는 아버지께 대언자이신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요한일서 2:1] 그는 너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요한일서 2:2; 요한일서 4:10] 만일 행할 길을 자주 몰라 당황한다면, 그가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판단 중에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그 길을 배우리라.” 하셨다.[시편 25:9] — “내가 네게 가르치고 네가 갈 길을 알려주리라. 내 눈이 네게 머물러 네게 인도하리라. 맹인을 아직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리라.”[이사야 42:16] — 만일 거친 길과 능력 부족으로 몹시 낙심한다면, 그는 말씀하시기를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찾으나 없으며 목마름에 허마져 곤두박질할 때, 나는 여호와요 그들을 들으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높은 곳에 강을 열리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임이라. 네 힘을 더하리라.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곤충 같은 야곱아.”[이사야 41:14]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너를 돕겠노라. “새롭고 날카로운 타작 도구를 만들어 산들을 타작하게 하리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함에서 온전히 드러나리라. 네가 쇠약한 날에는 네 힘도 쇠약하리라.”[신명기 33:25] — 네 고난이 많더라도 그는 말씀하시기를 “물을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물들이 너를 넘치지 못하리라. 불을 걸을지라도 너는 타지 아니하며, 불꽃이 네게 붙지 아니하리라.” — 네 소득이 적고 궁핍하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라. “그는 부요하였으나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었으니 그의 궁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요하게 되었느니라.”[고린도후서 8:9] 그는 자기 씨, 곧 자기

영혼의 수고를 보고 만족하리라.[이사야 53:11] 그가 약속하시기를 “나는 그의 양식을 풍성히 하며 그의 가난한 자들에게 빵으로 만족케 하리라.”[시편 132:15] “그의 제사장들의 영혼도 기름진 것으로 만족케 하리라.” 그리스도와 특별한 교제와 영혼을 얻는 데 성공하는 삶이 가장 기쁘고 풍요롭다. — 네 수고가 적다 해도 더욱 부지런히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라.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데살로니가전서 4:13] 거세한 자가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마른 자에게 물을 퍼붓고 마른 땅에 강물이 흐르게 하리라. 네 씨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네 자손에게 내 복을 부어주리라. 씨가 그를 섬길 것이며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리리라.”[시편 72:19]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자신과 모든 충실한 종들의 증언을 믿으라. 내 증언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다. 그리스도만큼 친절한 주인은 없고, 그리스도만큼 기쁘고 유익한 섬김은 없으며, 그리스도만큼 충만하고 만족스러우며 영원한 상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일을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목표하고 종결하자.

## 제 1 권. 자연적·계시적 종교의 규제 기준에 관하여

### 제 1 장 자연법에 관하여

자연법은 그것을 부과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에 복종하는 인간,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에 필연적으로 부합해야 하므로, 이를 적절히 이해하려면 이들을 주의 깊게 고찰해야 한다. 우리 자신, 곧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존재부터 시작하면 우리는 분명한 본질적 속성이 포함되지 않은 실체(substance)를 상상할 수 없다.—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반성함으로써 생각이라는 단순한 개념을 얻고 이를 통해 정신을 생각하는 실체로 이해하며, 감각으로는 몸을 단단하고 확장된 실체로 인식한다. 이렇게 정신과 몸의 본질적 속성을 알지만 양자의 내적 구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적어도 정신과 몸 모두의 존재에 대해서는 동등한 확신을 가진다.—다만 우리는 물질의 외면에 더 자주 주의를 기울이므로 그 본질을 더 잘 이해한다고 착각하기 쉽다. 내면의 의식과 주변 사람들의 행위를 관찰함으로써 인간의 영혼이 인지, 판단, 추리, 그리고 관념을 기억·유지하는 능력을 지닌 정신임을 인식한다.—또한 의지, 선택, 욕망, 기쁨 혹은 싫어함과 증오의 능력을 가지며, 적어도 신경을 통해 몸의 외부 일부를 움직이는 힘과 주변 대상이 희귀하거나 선하거나 악할 때 그로부터 감각 인상을 받는 능력을 지녔다.—그러나 우리의 이해력과 의지가 영혼의 서로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능력을 행사하는 동일한 영혼임을 상정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은 몸과 가장 밀접히 결합되어 있으나 그 결합 양식은 알 수 없다. 뇌와 신경의 움직임이 정신에 관념을 일으키고, 영혼의 정서가 몸에 운동을 자극한다. 몸의 나쁜 상태는 종종 정신이 규칙적이고 활발히 작용하는 것을 방해한다. 수면, 뇌의 광기 혹은 일부 신경 장애는 정신 활동을 무질서하게 한다.—반대로 강렬한 사고는 몸의 민감하고 즉각적인 감각 능력을 저해한다.—그러나 인간 영혼이 다양한 영적 능력을 지닌 정도가 다른지, 또는 인간 간 능력 차이의 원인이 몸의 구성과 기후 차이인지 알 수 없다. 영혼이 뇌에 즉시 결합하여 그곳에 거하는지—뇌에는 1.

감각 신경이 모두 종결되고 2. 감각 박탈 질병들의 자리가 있으며 3. 뇌의 경미한 장애가 영혼 작용을 약하거나 불규칙하게 하며(정신박약·광인 사례), 4. 신경 절단 시 뇌에 가까운 부위만 감각 유지, 5. 뇌가 손상되거나 중상 시 생명 중단 — 또는 영혼이 심장에 결합해 거하며 그곳에 생명의 마지막 흔적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떤 학자들은 물질적 대상에 관한 모든 관념이 감각에서, 정신적 대상에 관한 관념이 반성에서 발생하며 후자는 전자의 오류를 바로잡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선천적 관념은 없으며 관련 감각 기관의 작용 없이는 감각적 관념을 얻지 못한다고 본다. 반면 다른 이들은 모든 관념이 우리 정신에서 유래하며 감각과 반성은 관념을 자극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본다.—확실한 것은 우리 정신이 몇몇 기본적인 인식 공리들(예: 동시에 존재하고 존재하지 못함, 없는 것을 줄 수 없음, 하나님의 존재 등)을 반드시 인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동일 대상의 동일한 외적 특성이 사람이나 시간에 따라 다른 관념을 유발하기도 한다. 어떤 이에게 즐겁고 아름다운 것이 다른 이 또는 같은 이의 다른 시간에 불쾌할 수도 있다. 일부는 인간 영혼은 실제 사고 없이 존재하지 못하고, 몸은 확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과 같으며, 영혼 스스로를 깨우거나 사고를 촉발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정 기간 동안 사고를 멈출 수 있는데, 깊은 잠, 심각한 뇌졸중·마비, 관념이 적은 영아의 다량 수면이 예다. 확실한 것은 현존하는 죽음 상태에서 영혼은 몸에서 분리된 듯한 순간(예: 꿈)일수록 사고가 더 미흡하고, 인격적 동일성은 지속된 사고 의식이나 동일 행위 연속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누구도 태내 생활이나 출생 순간을 의식하지 않으나 여전히 동일한 사람임은 변함없다. 인격 동일성은 본질적으로 본질적 특성이 동일한 신체와 결합된 동일 영혼에 근거한다.—가장 박학한 이들도 자신에 대해 아는 바가 적으며,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려운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내 약하고 불분명한 인식을 하나님의 무한한 탁월함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 인간 기억과 정동, 정신 습관

인간 기억력은 관념을 회상하거나 유지하는 지적 능력으로, 관념을 빠르게 회상하고 강력히 유지할 때 좋다고 한다. 기억력 상태는 건강, 수면 여부 등에 크게 좌우된다. 젊거나 활발하며 특별한 쾌감이나 고통을 동반한 관념일 때 기억력이 가장 좋다. 오히려 관념과 동반된 쾌감이나 고통은 시간 또는 지속성 지각을 더 짧거나 길게 느끼게 한다. 머리에 심한 타격이 가해져 뇌가 손상되면 모든 이전 관념이 지워져 경험한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인간 영혼의 정동(affections)은 대상에 대해 호의적이거나 적대적인 마음가짐으로서, 두려움이나 기쁨 등 여러 감정을 포함한다. 정동은 감각이나 반성, 회상된 관념이나 다가오는 선악에 대한 인식에서 생기거나 작용하며, 의지로 자극하거나 억제할 수 없으며 신체 내부 기관이 의지로 통제받지 않는 것과 같다.—사랑, 증오, 기쁨, 슬픔, 소망, 두려움, 경이, 놀라움

등이 있으며, 이는 자극하는 대상이 우리에게 선악, 희귀함, 두려움 등으로 나타나는 방식과 그 정도, 그리고 그 대상이 현재, 부재, 미래인지에 따라 다르다.

후천적 정신 습관은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의지하는 데 익숙하고 손쉬운 태도로서, 특정 생각과 의지의 빈번한 반복으로 형성된다. 기억이 회상된 관념과 인과 관계, 선호 관계 등의 관계 인식을 자주 제공하며, 이에 따른 동기가 쉽게 제시되기에 정신 습관 형성에 크게 영향을 준다. 따라서 기억력이 약화되거나 손상되면 일반적으로 정신 습관도 약화된다.

## 의지의 자유

의지의 자유는 ① 특정 대상에 대해 불가역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자연적 자유, ② 신체나 정신에 강제적 구속이 없어 선택에 방해받지 않는 외적 자유, ③ 이성의 명령대로 행하려는 우세한 성향인 철학적 자유, ④ 상위자의 명령이나 금지로부터 벗어나 행위를 조절받지 않는 도덕적 자유로 구분된다.—우리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의식은 우리가 본래 자신의 인식과 성향에 따라 선택하거나 행동할 자유가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서도 한 대상을 다른 것보다 자주 선호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상벌을 주시는 것은 우리 의지의 자유가 분명함을 드러낸다.

인간의 영혼은 각자의 몸과 결합하는 바로 그 행위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다. 사람은 자신이 육체를 갖기 전의 상태를 기억해 본 적이 없으며, 설사 그랬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영혼은 매우 활발히 활동해야 했을 것이다. 생성 물질의 동물체들 속에 선존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러한 존재나 그로부터 인간의 몸이 형성되었다는 것은 결코 입증된 바 없으며, 만약 입증하려 한다면 신생아 한 명이 잉태될 때마다 수백만 영혼이 질식하거나 소멸하는 것을 가정해야 한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하며 미래 상태에서 존재하고 작용한다.

1. 영혼은 비물질적이다. 심지어 가장 사소한 대상에 대한 생각조차 아무리 형태와 환경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물질로부터 나올 수 없다.
2. 공정성은 사람들을 그들이 덕이 있거나 악한 대로 행복하거나 불행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따라서 현재 이 세상에서 의인과 악인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거의 없으므로, 모든 사람은 그 행위에 대해 상을 받는 미래의 영원한 상태가 있어야 한다.

3. 이 삶에서 덕에 따르는 내적 기쁨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악인을 번성케 하고 의인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현재의 섭리를 충분하고 명백하게 정당화하지 못한다.
4. 선한 사람들은 특히 고난 중에, 미래의 영원한 보상을 기대하며 덕을 장려받는다.
5. 인간의 영혼은 큰 향상을 이룰 수 있는 능력으로 형성되었고, 행복을 열렬히 갈망하므로 단지 이 세계에서 일시적이고 거의 동물적인 상태를 위해 형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없다.
6. 사람들은 자신에게 별다른 행복이 약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이며 때로는 보편적으로 미래의 상태의 존재를 믿어왔다. 이 믿음은 그들의 우상숭배, 영매술 등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다.
7. 사람들의 양심은 주로 미래의 상벌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시키는데, 이에 상응하는 어떤 것도 전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공정성, 진실성과 모순된다.
8. 만약 미래의 상벌의 상태가 없다면, 악인들은 신속히 의인을 살해하여 그들의 보상을 빼앗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악을 빨리 행하거나 스스로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징벌을 피하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적 보존으로 그들이 서로의 보상을 빼앗거나 스스로 피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하나님의 존재의 명백성

1. 모든 민족, 이방인, 유대인, 마호메탄, 기독교인이 모두 창조하시고 보존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에 일치하게 동의한다. 가장 둔한 호텐토트인, 살다니안인, 그린란드인, 캄차카인, 그리고 야만적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조차 가장 세밀한 관찰 결과 이 믿음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가장 덜 보이는 곳과 사람들은 거의 짐승에 가까운 정도로 무지한 자들이며, 이는 이것이 이성의 불가분의 요소임을 명백히 드러낸다. —만약 이 확신이 정당하지 않다면, 어떤 두려움, 상상, 교육의 편견이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 모든 시대의 취향에 맞을 수 있었겠는가? 한 왕자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이를 강요할 수 있었겠는가? 왕자들이 언제 어디서 모여 이를 고안하고 확립했는가? 혹은 왕자나 사제가 이 믿음을 국가의 술책으로 경계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 강요했다면, 그 자신들은 어떻게 이를 믿었겠는가?
2.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 존재에 대한 자연스러운 인상이 있다. 즉, 무한한 완전성을 지닌 존재에 대한 불분명한 관념과, 그 표현된 조건을 이해할 때 즉시 그 존재의 진리를 받아들이려는 태도가 있다. 이 인상은 부정적인 정동과 육체적 이익 때문에 반대 신념에 기울어진 자들의 마음에서도 진리 자체의 힘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



3. 만물의 창조는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나타낸다. 세계 어디서나 관찰되는 무수한 변화와 다양한 상호 의존성은 그곳 존재물들이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으며, 존재할 수 없음을 드러낸다. —그들은 무(無)로부터 스스로 자신을 출현시킬 수 없고, 어떤 고의 없는 우연이 우리의 세계처럼 경이롭고 잘 연결된 체계를 형성하거나 정돈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비록 물질이 영원하다고 터무니없이 상상한다 해도, 그것은 스스로 그 형태를 바꿀 수 없으며 생명이나 이성을 생산할 수 없다. 무슨 존재도 자기가 내재적으로나 잠재적으로 갖지 않은 것을 부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상의 다양한 경이로운 생물 형태와 그 위치가 목적과 용도에 정확히 부합하는 점, 우리 몸의 정밀하고 놀라운 기계적 구조와 운동, 특히 우리 영혼의 능력—무한한 선을 향한 욕구와 몸과의 밀접한 결합 및 불가해한 작용—을 고려할 때, 우리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지닌 창조자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비록 매우 긴 동물의 연속적 생산을 상상할 수 있으나, 동물들이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 생산을 할 수 있다고는 상상할 수 없으며, 그 연속적 생산이 진정한 영원성까지 이르거나 자존적이고 자족적이며 전능하고 무한히 현명하고 자비로운 창조자의 작용 없이 개시될 수 있다고는 더욱 상상할 수 없다. —또한 세상의 시작에 관한 전승이 인류 전반에 걸쳐 존재해 온 점도 주목할 만하다.

4. 만물을 섭리하며 다스리시는 일—천체의 운행이 우리의 지구와 주민들에게 가장 유리하도록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음—운석, 바람, 비, 눈, 우박, 증기, 천둥 등의 정밀한 균형과 조절—여름과 겨울, 파종과 수확, 낮과 밤의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순환—식물의 놀랍고 다양한 형성—거의 모든 곳에서 동물 몸의 병을 치유하는 가장 효과적인 약초의 번식—아름답지만 하나도 정확히 갖지 않은 거의 무한한 동물과 식물의 다양성—가장 현명하게 보금자리를 준비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며 건강을 유지하고 새끼를 보호하며 먹이를 구하는 동물들—어류와 조류가 해당 시기와 장소에 맞춰 놀랍고 긴 이주를 하는 것—바다나 육지에서 짐승들이 인간의 안전, 생계, 편안함에 적합한 거리를 두고 서식하는 것—해로운 다산 동물을 억제하고 유익한 덜 다산 동물을 크게 증식시키는 것—사람의 얼굴, 목소리, 필체를 사회적 이익에 최적인 방식으로 다양화하는 것—남성과 여성의 수가 매우 균형 있게 유지되는 것, 특히 전쟁, 항해 등으로 남성의 생명이 보통 더 위태로운 경우에도—세상이 인구를 필요로 할 때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그 필요가 사라지면 줄이는 것—거의 모든 곳에서 기후대에 맞는 식량, 의복, 약, 연료 등이 제공되는 것—사회, 정부, 평화, 전쟁, 무역 등 인간 사회의 일을 당사자들의 육체적 정책과 다른 방식으로, 때로는 정반대로 관리하는 것—유대교와 기독교 교회의 신비롭지만 다양하고 비슷한 건립, 보존, 다스림—이 모든 것은 세계와 그 안의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무한히 지혜롭고 인내하며 선한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드러낸다.

5. 세상에 일어난 기적적 사건들—홍수로 지구가 범람함[창 6:17]—언어 혼란[창 11:7]—소돔과 인곤 도시가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불탔[창 19:25]—이집트 재앙[출 9:14]—홍해가 갈라짐[출 13:18]—하늘에서 만나가 내림[출 16:35]—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옴[신 8:15]—태양의 이동이 멈춤[수 10:13]—불의 격렬함이 꺼짐[단 3:25]—배고픈 사자의 입이 닫힘[단 6:27]—죽은 자가 살아남[막 5:42 등]—자연적 치료 없이 절망적 질병이 나옴[왕하 5:14]—도시나 민족이 멸망하기 전에 공중이나 지상에 나타난 무서운 환상들[왕하 6:17]—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없게 입증한다.

6. 하나님의 존재는 사건 발생 훨씬 전에 발표된, 매우 구체적이고 세밀한 예언들이 정확히 성취된 데서도 명백하다. 즉, 인류 전체에 관한 예언, 노아, 롯, 아브라함의 후손들, 가나안인, 시리아인, 아시리아인, 갈대아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아랍인, 터키인,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신약 교회에 관한 예언들이다. 이 예언들은 각기 해당 기간에 정확히 성취되었으며, 현재 세계에 수천 건의 입증 가능하고 감각적인 증거가 존재한다. 이러한 예언들은 세상의 전지하며 무한히 현명하고 전능한 통치자 외에는 달리 나올 수 없다.

7. 하나님의 존재는 윤리적 타락이 지나쳤을 때 개인과 특히 민족들에게 가해진 무서운 벌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옛 세상의 대홍수[창 6:17],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창 19:25], 파라오와 그 신하들에게 내린 재앙들[출 9:14], 산헤립과 그의 군대의 멸망[역대하 32:22; 사 37:36], 가나안인, 유대인, 시리아인, 아시리아인, 갈대아인, 페르시아인, 이집트인, 그리스인, 로마인, 사라센인, 터키인, 타타르인 등 여러 민족의 멸망이 있다.

8. 하나님의 존재는 범죄 사실을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거나 처벌하거나 제지하지 못할 때에도 양심에 상처를 입히는 두려움과 공포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로마 황제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 등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설득하려 애쓰면서도 천둥이나 어둠 속에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한 사실이 그렇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존하며 다스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존적이고 독립적이며 절대 영원하다. 그 자신 외의 모든 것의 원인이기에 어떤 존재로부터 생성되거나 그 존재들에 의존할 수 없다. 그는 모든 존재보다 먼저 존재했고 모든 존재에게 존재를 주었으며, 그러므로 자신과 각 존재에 대해 전적으로 자족하며 완전하다. 그중 누구도, 특히 늦게 발생하고 열등한 존재에 크게 의존하며 몸과 마음의 형태와 기질이 매우 번덕스러운 인간이 그분의 창조와 통치에 이득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며 절대적으로 영원하신 분이기에, 자신 안에 변화의 원리를 가질 수 없다. 모든 다른 존재의 존재, 본질, 그리고 작용이 그로부터 유래되었으므로, 어느 존재도 하나님에게 그분의 변화나 변화를 초래할 수 없다.—하나님이 한때 부족하여 하나님이 아니었음을 가정하지 않으면, 그가 더 나아지도록 변화될 수 없다. 부족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게 되지 않으면, 그가 더 나빠지도록 변화될 수 없다.—두 경우 모두 동등하게 불합리하다.

### 하나님의 전능하심

1. 약함의 어떤 징후도 결코 보이신 적이 없다.
2. 수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붙드시며 다스리신다. 심지어 강력한 피조물들까지도.
3. 그의 능력의 영향력으로, 그의 의지 행위 안에서조차 모든 것을 무에서 창조하셨다; [SC 9; WCF 4.1; LC 15] 그리고 그 능력으로 그들을 붙드시며 다스리신다.
4. 그의 능력은 그 자신 안에서 제한될 수 없는데, 그가 자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피조물의 모든 권능은 그에게서 나오며 그에게 종속되어 있고,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 그의 동시적 영향력 덕분에 완전한 효력을 지닌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권능을 행사하거나 유지할 수 없으며, 그렇다면 하나님이 되어버리거나 하나님을 신성에서 박탈하는 것이 된다.—어떤 결과도 하나님의 뜻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 하나님의 무한성

1. 스스로 존재하며 독립적이시기에, 모든 면에서 가능한 한 크시다.
2.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의존하므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탁월성에 한계를 정할 수 없다.
3. 모든 피조물을 붙들고 다스리는 것은 필연적으로 그가 모든 곳에 임재하심을 요구한다.
4. 영원으로부터 존재하시기에, 그의 본성은 기간에 있어 무한하며, 따라서 모든 다른 탁월성에서도 무한해야 한다.
5.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는 필연적으로 무한한 지혜, 능력, 선함이 요구되었다;—무에서 존재에 이르는 거리가 무한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무한함에 대한 믿음은 낙담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분을 부지런히 묵상하도록 강력히 격려한다,—우리로 하여금 그분에 관한 중요한 진리와 즐거운 진리를 많이 알게 하며, 비록 그분을 완전하고 종합적으로 알 수는 없을지라도.

## 하나님의 불가해성

1.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매우 불완전한 지식만을 가진다,—우리 영혼이나 몸이 무엇인지;—둘이 어떻게 결합되고 서로 작용하는지;—우리의 관념이 어떻게 기억 속에 저장되고 회상되는지;—우리가 항상 생각하는지 여부;—꿈이 어떻게 생성되는지;—인간 자유와 관련된 모든 난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우리 신경이 광란에서 영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우리가 어떻게 호흡하는지;—우리 혈액과 근육의 움직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 오히려 우리는 어떤 피조물의 내적 실체나 모든 성질조차 분별하지 못한다.—하나님의 무한한 탁월성에 대해 포괄적인 개념을 가진다는 희망은 얼마나 불합리한가!
2. 하나님의 완전함은 피조물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며, 그 사이에 유사성이 조금이라도 있을지라도 그렇다.
3. 하나님은 그의 자존, 절대적 영원성, 그리고 확실한 편재성, 그리고 자기로부터 행하도록 정해진 존재 등에서 우리와 무한히 다르며 우리의 이해를 무한히 초월한다.
4. 우리의 어떤 이성도 창조나 일반 섭리의 행위에 전혀 나타나지 않은 수많은 탁월성이나 완전함이 하나님 본성 안에 있을 수 있음을 반박하지 못한다.

## 하나님의 단일성

1. 자연의 빛은 신이 여러 분임을 나타내지 않는다.
2. 창조와 섭리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현저한 설계의 통일성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다스리시는 분이 한 분임을 명백히 증명한다.
3.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무한한 탁월함을 소유하시므로, 다른 독립된 탁월함은 허락되지 않는다.
4. 무한한 완전함을 지닌 한 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다스리기에 충분하므로, 다른 존재가 필요 없으며, 그리하여 자기 존재성을 지닌 다른 신성도 없다.
5. 하나님이 불변하시므로, 그와 동등한 권능이나 지혜를 가진 경쟁자나 라이벌은 있을 수 없다.

## 하나님의 영(spirit)성

1. 만물을 창조하시기 위해 반드시 스스로 움직이셔야 했다.

2. 각각의 피조물과 전체 형상은 설계와 형성에 깊은 사고가 작용했음을 명백히 드러낸다.
3. 어떤 물질도 그러한 사고를 산출하거나 우리가 발견하는 사고하는 존재를 형성할 수 없다.
4. 영적이고 무형의 실체만이 모든 곳에 존재하여 만물을 붙들고 다스릴 수 있다.—그러므로 하나님은 가시적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나, 그 본질은 가시적이지 않으며, 인간의 어떤 정동(affections)도 하나님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1. 두려움이나 슬픔 같은 일부 정동은 악함과 현재의 행복이 불완전함을 내포하기 때문이다.
2. 우리의 정동의 자극이나 작용은 불가분하게 우리의 동물적 본성의 어떤 동요와 연결되어 있다.

#### 하나님의 절대적 지식

1. 그는 무한한 영이시므로, 무한히 광대한 이해력을 지녀야 한다.
2. 그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붙들며 다스리시므로, 자신의 탁월함과 영향력의 총만함과 각 조건, 그리고 필요와 유익에 알맞게 영향을 가장 적절히 조절하는 방식을 반드시 알고 계신다.
3. 그가 무지하다고 상상하는 것은 신성에 합당하지 않은 불명예이다.—하나님은 미래의 우연한 일들도 아신다.
  1. 만약 미리 알지 못한다면, 그의 지혜와 지식은 사건들이 발생함에 따라 점차 확장되어야 하며, 이는 그의 무한성과 불변성과 모순된다.
  2. 정확히 알지 못하면, 자주 행하는 정확한 예언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3. 모른다면, 섭리적 조정과 관련된 모든 것은 이성적 피조물 자유 의지나 단순한 우연에 의존해야 한다.
  4. 현명한 사람들이 미래를 예견할 수 있다면, 어떻게 전지한 무한히 지혜로운 창조자이자 보존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있겠는가?

####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1. 창조에서 모든 것을 복잡하고 다양한 목적에 가장 적합하게 명백히 형성하셨다.
2. 섭리에서 모든 것은 중요한 목적들을 성취하고 증진시키도록 관리되며, 큰 사건은 가장 가능성 낮은 수단으로 이뤄진다.

3. 그가 행하는 일에 어리석음이나 판단력 부족은 전혀 없다.

#### 하나님의 거룩하심

1. 그의 이성적 피조물 가운데 실질적인 미덕이 발견되며, 반드시 그에게서 기원한다.
2. 거룩함은 이성적 피조물의 최고의 완전함으로, 자신에게 행복을 주고 타인에게 사랑받으며 유용하게 한다.
3. 모든 것의 관계를 완전히 아시는 하나님은 무지로 인해 거룩함에서 벗어날 수 없다.
4. 무한히 능력 있으신 하나님은 거룩함을 소유하고 추구하는 데 방해받을 것이 없다.
5. 완전한 행복을 자신 안에 가지셨으므로, 도덕적 악을 허용해 얻을 것도 없다.
6.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함에 대한 유혹이 없으며, 신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가장 불쾌한 반성을 자초하지 않고는 결코 도덕적 올바름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허용할 수 없다.

####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

1. 이 세상에서 많은 선과 자비로운 본능이 그의 피조물 가운데 발견된다.
2. 섭리 가운데 무수한 친절의 사례가 그의 피조물에 나타난다.
3.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한 선이 나오지 않을 나쁜 것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이 도덕적 악을 허용했다면 거기서 선을 이끌어 하셨다는 증거가 없다.
4. 이 세상에 나타난 모든 악은 사람들이 자유 의지를 남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도덕적 악을 들여오면, 그에 따르는 형벌적 악은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에 실제로 이익이 되는데, —범죄자 처벌이 국가의 이익에 필수적인 것과 같다.
5.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행복하게 만들 의무가 없더라도, 선하시고 무한히 선할 수 있다. 법관이 모든 백성을 자식이나 상속자로 삼지 않아도 매우 선하고 자비로울 수 있듯이.
6. 이성은 도덕적·형벌적 악이 전혀 없는 광범위한 창조 영역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세상이 최악된 인간에게 현재 상태로도 충분히 선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7. 자비와 선함은 이성적 존재의 영광이며 신성의 영광이기도 하다.

8. 자족적인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에게 원인 없는 고통을 줄 이유나 유혹이 없으며, 그 완전함과 행복은 그런 경향이나 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님의 공의

1.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붙들기에 필연적으로 그들을 단독 최고 통치자로 다스릴 권리가 있으며, 인간과의 모든 관계에서 완전하게 공의로우시다.
2. 그가 부과한 법은 인간이 원래 완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법뿐이다.
3. 따라서 공평은 하나님이 최고 통치자로서 인간의 덕과 악에 따라 자비하거나 엄격하게 대우하는 것을 요구한다.
4. 어떤 유혹도 없으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을 더럽히고 자신을 완전히 불명예스럽게 만드는 불공정한 행위를 행할 수 없으며, 이는 신성과 전적으로 양립 불가능하다.
5. 다양한 경우에서 덕 있는 자는 상을 받고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
6. 하나님의 일부 섭리 처분이 악한 자에게 유리하고 덕 있는 자에게 불리해 보여도, 우리는 종종 사람들의 실제 성품을 오해하며, 안락함, 부, 명예에 더 많은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7. 이 삶에서 섭리의 불균형은 미래 영원한 보상으로 충분히 균형을 맞출 수 있다.

### 하나님의 진실성

1. 하나님은 완전하게 참되시며, 모든 선언에서 성실하고, 모든 약속과 위협에 변함없이 신실하시다.
2.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과 피조물에 대한 선함과 공평함이 그러한 정직성과 충실성을 요구한다.
3. 모든 진실, 참됨, 충실함, 또는 그러함을 승인하는 마음과 양심의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한다.
4. 하나님에게는 위선, 거짓, 배신의 유혹이 없으며, 만약 그분이 그런 행위를 허용한다면, 이는 신성을 완전히 부정하는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본질 및 양자 간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로 하여금 그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이 목적에 적절히 종속된 상태에서, 우리의 생명, 건강, 명예, 쾌락, 혹은 이익을 증진하거나 유지하는 것도 의도되고 추구되어야 한다. 우리의 행위의 궁극적 목적에 적합한 최고선은 필연적으로 그 자체로 바람직해야 하며, 모든 악으로부터의 구원과 가능한 한 최대의 행복을 포함한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모든 합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진정으로 탁월한 모든 면에서 소유자를 완전하게 만드는 충분한 것이어야 하며, 무한한 가치와 유용성을 지녀 모든 사람이 동시에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실패하거나 잃을 우려가 전혀 없도록 명백히 영원해야 한다.

따라서 재물은 이 최고선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 자체로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사람을 덕 있고 행복하게 하지도 않으며, 그것의 향유가 확실하거나 영속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세속적 명예 역시 이 최고선이 될 수 없는데, 그것은 명예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라기보다 타인의 상상에 존재하고, 그 향유가 우리를 더 낮거나 안전하게 만들지도 않으며, 확실하거나 영속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육체적 쾌락 또한 이 최고선이 될 수 없는데, 그것들은 종종 우리의 참된 명예와 유용성과 상충하며, 우리 몸을 쇠약하게 하고 마음을 약화시키며 타락시킨다. 지식도 그 자체만으로는 사람을 덕 있고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것은 수많은 실제적 악들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그 지속성도 확실하지 않다. 심지어 덕 자체도 최고선이 될 수 없는데, 비록 덕이 우리 마음을 향상시키고 세상에서 더 유용하게 만들지만, 내적·외적 여러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면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한히 완전하고, 그 자체로 바람직하며, 모든 이성적 존재를 행복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며, 결코 쇠퇴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최고선임이 명백하다. 그의 온전한 향유는 모든 악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모든 선을 소유하는 것을 포함하며, 필연적으로 우리를 덕과 명예와 행복에 있어서 완전하게 만든다. 우리 자신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그리고 창조자·보존자·통치자로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의존성에 관한 앞서의 지시들을 통해, 도덕적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선언된 뜻만이 우리의 모든 성품과 행동, 종교적·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기준이자 규범임이 분명하다. 세상에는 그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합법적 권위가 없으며, 인간의 법이나 약속은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종속되지 않는 한 자신이나 타인을 구속할 수 없다.

## 자연법과 덕



하나님의 본성의 완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 혹은 동료 창조물과 맺은 관계에 합당하게 존재하고 행동하기를 반드시 원하신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이치에 맞고, 품위 있으며, 유익하고, 영예로운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 매우 적합하고 필요한 행위도 다른 상황에서는 부적절하거나 심지어 악덕일 수 있다. 건강할 때 적합한 것이 고통스럽거나 위태로운 때에는 불법이 될 수 있고, 필요한 자기방어의 의무가 다른 경우에는 범죄가 될 수 있다. 법을 제정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며 군대를 조직하는 등의 행위가 통치자에게는 의무이지만, 사인에게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 된다.

사람의 이성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성품, 생각, 말, 행동의 도덕적 적합성을 나타내는 이 뜻은 자연법이라 불린다. 이에 부합하여 존재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통 덕이라 하며, 반대로 부합하지 않는 것을 악덕이라 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덕을 자신과 동료 창조물에 대한 의무만을 의미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종교라 부르기도 한다. 우리의 행위가 진정 덕스럽기 위해서는 1) 도덕적 적합성, 나아가 특정 행위의 도덕적 적합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2)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을 동기로 그 도덕적 적합성에 따라 행하려는 의지가 형성되어야 하며, 3) 그 행위는 자유롭고 선택적으로, 정동(affects)(정동)과 기쁨을 동반하여 시행되어야 하며, 4)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수행된 선한 행위는 덜 덕스럽지 않으나, 내적 반대가 전혀 없을 때 가장 덕스럽고, 5) 선한 행위 수행 시 자기중심적인 시각이 적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 타인의 진정한 선에 대한 고려가 클수록 더 덕스럽다. 이와 같이 행위가 진정 덕스럽기 위해서는 덕스러운 원리나 습관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올바른 동기여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적절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옳은 목적을 향해야 한다.

### 자연법이 요구하는 덕과 종교적 실천

자연법이 하나님에 관해 요구하는 덕과 종교적 주요 실천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을 행위의 이유와 본보기로 명상하기, 2) 무한한 완전성을 지니신 분으로 영혼과 몸을 다하여 경배하기, 3) 무한히 사랑스럽고 자비로우신 분이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4) 그의 다양하고 다채로운 섭리를 관찰하고 인정하며 이에 부응하여 행동하기, 5) 그의 현명하고 선한 전적 뜻에 순응하기, 6) 하나님의 권능, 지혜, 선하심을 신뢰하고 생각하기, 7) 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힘쓰고, 무한히 완전하신 하나님을 도덕적 탁월성에서 본받으며, 그의 호의와 향유에 우리의 참된 행복이 전적으로 달려 있음을 인식하기, 8)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추가적인 뜻의 선언을 성심껏 듣고, 믿고, 받아들이며, 순종하기이다.

### 인간에 관한 덕

인간에 관한 덕은 개인적 덕과 사회적 덕으로 나뉜다. 개인적 덕은 다음과 같다.

I. 유용한 지식을 마음속에 채우는 데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II. 도덕적·형벌적 악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환경과 행동을 자주 점검하고 성찰해야 한다.

III. 자신의 몸이 실제 보존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결코 결핍하지 말아야 하며, 고기, 음료, 편안함, 쾌락에 과도하게 탐닉하지 말아야 한다.—자살은 순간적이든 점진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모든 경우에 심히 중대한 범죄이다. 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경외심의 결여를 드러내고, 교회와 국가에서 구성원을 잃게 하여 해로운 본보기를 남기며, 산 자의 친족들에게 고통과 불명예를 초래하고, 어려움을 견딜 능력이 부끄럽게도 미약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행위로 죽음에 이르고 영원한 비참함에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다.—고문, 불명예, 음란한 폭행을 피하려는 의도로 자살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 정당한 이유로 고문과 불명예를 인내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덕의 사례이며,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참고 견디는 것은 법과 정의, 국가의 복지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실제의 폭행에 의한 고통은 양심이나 인격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므로 덕의 시련으로 견뎌야 한다.—과식, 즉 과도한 식사, 적절한 식욕이 없이 먹거나, 지나친 욕망이나 쾌락을 위해 식사하거나, 부적절하게 미식을 탐닉하는 것은 동물적인 악덕으로서, 사람들은 마치 영혼이 없는 것처럼 살며 점차 몸을 해치고 마음을 마비시키고,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치며, 자신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가난한 자나 친족에게 가야 할 것을 빼앗는다.—과음, 즉 지나치고 자주, 광범위하게 술을 마시면 과식의 모든 악을 포함할 뿐 아니라, 격분된 정서, 비밀 폭로, 이웃 욕설, 하나님과 종교에 대한 모독, 신성 모독적인 욕설과 저주, 다툼, 부정행위, 불성실, 살인으로 이어진다.

IV. 우리의 정동(affections)(정동)을 적절히 관리하고, 자연적인 정동 내에서도 악덕적인 것들을 죽이는 데 크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는

1) 경탄이 포함된다. 경탄은 희귀하거나 경이로운 것으로부터 일어나며, 명상과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이끌거나, 유용한 것을 기억하게 하여 적절한 공부에 몰두하도록 돕는다면 유익하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사소한 것을 따르도록 하거나, 더 유용한 대상이나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이나 유용한 대상을 참신함 때문에만 칭찬할 때 해롭다.

2) 사랑은 마음을 대상과 연합시키고 친절과 즐거움을 갖게 하며,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대상에 고정하여 영혼을 용감하고 기쁘게 한다. 그러나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혹은 같게 여기거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랑하거나, 피조물을 최고의 선으로 여기거나, 나쁜 것을 사랑하거나, 적절한 정도 이상으로 좋은 것을 사랑하거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데 장애가 되는 태도, 자기 소유를 과대평가하거나 이웃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얻으려 하거나, 자신의 욕망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타인의 아침에 쉽게 넘어갈 때, 이는 범죄가 된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고정되고 상호적이면 우정이라 하며, 상호간의 공감, 도움, 보조, 위로를 크게 증진한다. 친구는 탁월성과 유용성을 명확히

확신하고 선택해야 하며, 낮은 자, 불경자, 타락자, 무례한 자, 말 많은 자, 이기적 자, 탐욕적 자, 야심가, 방탕한 자, 변덕스러운 자, 다투기 좋아하는 자, 싸움 잘하는 자, 변덕스러운 자는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한다. 친구를 정한 후에는 그들의 행복을 기뻐하고, 칭찬할 점을 승인하며, 안전한 것은 허용하고, 필요 시 최선의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며, 합법적 일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려 노력하고, 비밀을 신중히 지키며, 위협을 친절하고 시기적절하게 경고하고, 잘못을 충실히 꾸짖으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매우 자비롭게 판단하고, 뒤에서 불필요하게 비판하지 않으며, 새 친구 때문에 옛 친구를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아야 한다.—명예나 권력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야망이라 부르는데, 허황된 칭찬에 취해 교만하게 하며, 다툼을 자주 일으키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천박하고 잔인하며 부정직한 방법에 빠지게 한다. 재물을 얻으려 지나치게 탐하는 것은 탐욕이라 하고, 유지하려 지나치게 애쓰는 것은 구두쇠라 한다. 이 두 형태 모두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놓고 섭리에 불만을 나타내며, 이웃의 권리를 빼앗거나 보류하여 해를 끼치고, 자신의 영혼을 고통받게 하거나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과 신뢰, 그리고 이웃에 대한 모든 사랑과 정의를 반대한다. 이로 인해 많은 어리석음과 파멸이 발생한다.—육체적 혹은 지적 쾌락에 대한 지나친 탐닉은 큰 교만과 이기심, 비열함을 드러내며, 종종 우리 자신이나 이웃에게 심대한 해를 입힌다.

3~6. 기쁨과 슬픔, 희망과 두려움은 적절한 대상에 고정되고 적절한 정도일 때 덕스럽다.

7.

불행한 자들에 대한 연민은, 그들이 겪는 고통이 실수에서 비롯되었거나, 선천적인 연약함에서 기인했거나, 진실한 사랑과 우정에서 비롯된 경우에 생긴다. 이러한 연민은 적절한 대상에 공감하여 적절한 방식으로 그들을 돕고 위로할 때에만 덕스럽다.

8. 수치는 비난이나 경멸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되며, 죄, 경솔함, 무분별함, 또는 우리 성품과 세계적 환경에 부적합한 행위로 인해 얼굴이 붉어지게 할 때, 또한 의를 위해 필요한 고난을 기꺼이 감내하며 선행에 부지런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끌 때 덕스럽다.

9. 경쟁심은 덕스러운 성품이나 행동에서 다른 이와 동등하거나 우위에 서고자 하는 욕망일 때 선하다. 그러나 이웃의 덕, 명예, 부, 즐거움 또는 기타 이점을 시기하거나 원망할 때에는 가장 악하고 혐오스럽다. 이는 타인의 명예나 행복을 자신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삼으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현명하며 공정하고 선한 은혜의 분배를 비난하고, 우리의 본성적 체질을 낭비하며, 자신이나 타인을 살해하도록 유혹한다.

10. 증오심은 죄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 한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에 반하는 것이며, 우리의 마음에서 사랑, 온유, 겸손, 인내를 몰아내고, 이웃에게 경멸과 모욕, 그리고 살해의 위험한 근원이 된다.

11. 하나님에게 행해진 모욕이나 교회 또는 국가에 대한 상처에 대해, 우리 처지에 맞고 적절한 방식으로 표출되는 분노는 선하다. 그러나 실제이거나 추정된 개인적인 상처에 대한 분노는 영혼의 연약함과 비열함을 드러내고, 고통스러운 두려움과 걱정, 책략으로 마음을 채우며, 모욕과 상처를 용서하고 악에 대해 선으로 갚는 즐거움과 존귀한 명예를 빼앗고, 종종 무질서와 위험으로 우리를 몰아넣는다.

12. 분노는 그것이 악에 향하고 악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지 않는 한 범죄적이다. 특히 분노가 격노, 격분, 분노 폭발로 치달을 때 그러하다. 죄된 분노는 교만, 의심 많은 기질, 과도한 신뢰, 이기적이며 육체적인 정동에서 비롯되며,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몸을 일그러뜨린다. 사소한 일에도 촉발되어 살인, 신성모독, 그와 유사한 끔찍한 해악으로 이어진다.

13. 교만이 정동 중 하나라면, 가장 해로운 정동이다. 교만은 덕이나 다른 선에서 비롯되거나, 무지와 자기에에서도 자극받는다. 교만은 우리를 이웃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높이려 하며, 모든 반대자를 끌어내리려 한다. 또한 무모함, 오류, 거만함, 완고함, 건방짐, 절망, 심지어 자살에까지 강하게 유혹한다. 완고함은 탁월함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인물, 원칙, 관행에 완강히 집착하는 교만의 형태이다. 이는 항상 악하며 무지와 자만을 드러내고, 대개 자신의 반대자를 악의적으로 박해하도록 사람들을 몰아간다.

#### 영혼과 육체의 해 예방을 위한 규칙

V. 나태로 인한 영혼이나 육체의 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자신이 가진 지식, 능력, 재산, 성향에 맞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진실한 행복을 증진하는 정직하고 유익한 일을 늘 선택하여 부지런히 종사해야 한다.

VI. 무모하게 어려운 일이나 위험한 일을 서둘러 시작하지 않기 위해, 타인에게 지나친 존경을 기대하거나 받은 상처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자신에 대해 겸손한 생각을 길러야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의 부족함, 약점, 어리석음, 허물을 자주 진지하게 되새겨야 한다.

이 여섯 가지 규칙은 신중, 사려, 절제, 정절, 용기, 만족, 온유, 절도, 근면, 겸손이라는 개인 덕목들을 대표한다.

## 사회적 덕목

사회적 덕목은 다음과 같다.

1. 동료 인간에게 괴로움이나 해를 끼칠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심스럽게 참거나 예방하거나 제거하는 것(단, 더 큰 선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할 때는 제외).
2. 각자의 처지에서 그들의 진정한 복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

이 덕목은 이타적이라 할 때, 자기보다 타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비인간 동물에 대한 인도도, 모든 형태와 정도의 잔혹함을 삼가는 사회적 덕목에 포함된다. 이로써 우리는 모두에게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그 피조물과 창조와 섭리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동료들에게 적절한 관심을 나타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절한 상냥함을 갖고 우리 식량을 위해 이 동물들을 도살할 수 있다.

1. 그로써 보다 중요한 동물인 인간의 행복이 증진된다.
2. 도살된 동물들은 보다 신속하고 고통 없이 죽임을 당한다.
3. 이를 보상하기 위해 많은 동물이 보다 친절하게 대우받고 섬세하게 먹이를 제공받아 더욱 양호한 식품이 된다.

4. 먹을 수 있는 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그 고기의 맛이 우리 미각에 즐거움을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먹기 위해 죽이는 것을 허용하심을 나타낸다.

5. 만약 어느 동물도 식용으로 죽임당하지 않는다면, 수가 지나치게 증가하여 우리의 생존 수단을 빼앗거나 건강과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덕목은 인간에게 훨씬 강한 친절을 요구하며, 공공복지가 특정 개인을 처벌해야 할 때를 제외하고는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을 증진하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1. 인간의 생명은 그것을 보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고 대중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명분 없이는 빼앗길 수 없을 만큼 귀중하다.

2. 자연 본능은 심히 타락하지 않은 이상 절대 필요하지 않은 인간 혈흘림을 공포로 피한다.

3. 미친 상태가 아닌 이상, 누구도 자신의 생명이나 건강이 빼앗길길 원하지 않는다.

4. 부당하게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그와 그의 친척, 이웃이 생명을 지킴으로써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이익을 빼앗는 일이다.

사회적 덕목은 모든 사람에게 재산에 대해 공평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가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기를 합리적으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행하도록 요구한다. 단, 아래 사항을 밝혀둔다.

1. 소유나 계약으로 재산이 확정되기 전에, 누구나 자신이 최초로 발견한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전체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면, 최초 점유자는 그 필요에 처한 이들에게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필요가 있는 이가 현재 점유자로부터 적절한 물자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들은 정당하게 필요한 일부를 취할 권리가 있다.

2. 인류 사이에 재산의 평등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각 개인은 자신의 합법적인 노력과 산업의 결실을 누려야 하며, 일부가 다른 자보다 부유한 것은 공공에 해가 아니라 이익이다.

3. 누구나 필요하거나 기회가 있을 때 공유물(빛, 공기, 바닷물, 야생동물 등)이나 이전 소유자가 포기한 것을 점유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오래된 권리를 재생시키는 것은 다툼, 위증, 전쟁을 초래하므로 삼가야 하며,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처방이나 그럴듯한 근거에 의해 자신 앞으로 된 타인 소유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잘못 아니다.

사회적 덕목은 우리의 행위 전반에서 진리와 정직함을 엄격히 지킬 것을 요구한다. 생각, 말, 행동은 서로 일치해야 하며, 또한 그것의 대상과도 일치해야 한다.

1. 말에서 진리를 엄격히 지키면 상호 신뢰와 행복이 크게 증진된다.

2. 말에서 진실이 없으면 담화는 부적합하고 무익하며 함정이 된다.

3. 거짓말, 허위, 모호한 말과 행동은 모두 선한 이들에게 치욕으로 여겨졌다. 자연법은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본성 및 영광과 인류의 안전과 행복에 반하기 때문이다. 만일 거짓말이 어느 한 경우에 허용된다면, 변장, 사기, 위증 등도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속은 신중하고 정확하게 지켜져야 한다.

1. 진리와 정직함은 우리가 약속한 모든 일을 진심으로 의도해야 함을 요구한다.

2. 약속을 받은 자는 그 약속에 대한 권리를 획득한다.

3. 따라서 그들의 자발적 동의 없이 그것을 빼앗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4. 서면, 선서, 봉인된 약속에 기초한 재산이 불확실하면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여 사람들 사이 신뢰가 파괴된다.

5. 우리의 약속 위반은 이웃으로 하여금 우리가 진실하지 않거나 변덕스럽다고 의심하게 만들며, 명성과 사회적 유용성을 해친다.

그러나 부정한 수단으로 얻은 약속은 모든 경우에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며, 이성이 부족한 자가 하거나 죄를 약속하는 경우 절대 구속되지 않는다.

인간에 대한 약속과 선서, 하나님께 대한 서원을 어기는 것은 매우 중대한 죄이다.

1. 이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심각히 남용하는 것이며, 약속, 선서, 서원 행위에 내포된다.
2. 이는 서원이 하나님께 드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극심한 경멸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인과 보증인으로 모신 엄숙한 약속을 비참하게 모욕하는 수단이다.
3. 위증이 허용된다면 모든 상호 신뢰는 곧 붕괴한다.
4. 위증자들은 모든 민족에서 인간 사회의 해악과 치욕의 근원으로 여겨져 왔다.

또한 공화국에서 선거 시 매수나 위증 혐의를 영리하게 회피하거나, 교회에서 신앙고백 전부를 믿거나 지키지 않으면서도 엄숙히 서명하는 자들도 마찬가지로 부정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약속이나 계약이 조건부라면, 한쪽의 중대한 위반은 상대방을 의무에서 해방시킨다.

사회적 덕목은 오직 결혼한 상태에서만 인류 번식을 허용한다.

1. 만일 여성이 공공재가 된다면, 남녀 간 다정하고 충실한 우정은 사라지고, 남녀는 짐승과 같이 전락할 것이다.
2. 이는 심한 질투와 분쟁을 야기한다.
3. 자녀의 번식과 건강을 크게 저해한다.
4. 임산부 여성에게 큰 위험과 곤란을 초래한다.
5. 자녀를 적절히 부양하고 교육하는 일이 방치되어 자녀는 죽거나, 기껏해야 야생인과 같이 자라게 된다.
6.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수 없게 되어, 절제와 성실한 근면에 대한 중대한 동기와 격려가 사라진다.



그에 따라, 결혼을 방해하거나 결혼의 명예를 훼손하는 육체적 욕망의 모든 형태는 극히 중대한 죄악으로서 혐오되고 죽어야 한다. 이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 영혼, 육체, 성품에 대한 불명예이며, 우리의 재산을 낭비하는 근원이자 우리 자신과 후손에 대한 간접적 살인이며, 악행의 공범자들 간에 다툼과 증오를 일으키는 원인이고, 음란이 저질러지는 이들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커다란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주며,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무신론적이거나 불결한 대상에 이교적으로 매달리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간음에서 사람들은 이웃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하며 명예로운 것을 빼앗는 가장 중대한 부정을 저지르며, 결혼 서약을 극히 비열하고 허위로 파기하며, 가족에 불안과 혼란을 초래하고, 우상숭배, 살인, 그리고 모든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도록 유혹한다. 문명화된 국가에서는 간음이 사형으로 처벌된 바 있으며, 실제로 두 사람을 동시에 영혼과 육체와 가족에 극심한 해를 끼치는 범죄에 얹히게 하므로 어떤 면에서는 살인보다 더 심각하다.

따라서 결혼한 자들은 그들의 배우자와 자녀의 행복을 간절히 증진시켜야 하며, 한 번에 오직 한 명의 아내나 남편만을 두어야 한다.

1. 하나님께서 섭리로 인류의 남녀 수를 근접하게 유지하시므로, 일부다처제는 거세, 자가 오염, 수간, 짐승과의 성행위 혹은 이와 유사한 혐오스러운 행위를 불가피하게 초래한다.
2. 다처제를 원하는 이들 사이에 가족 내 다툼을 촉진한다.
3. 새로운 애인이 연속적으로 생기면 남편의 정동이 아내에게 충분히 집중되는 것을 방해한다.
4. 아내의 다수가 인류의 공동 복지에 필요한 번식을 저해한다. 솔로몬은 그의 천 명의 아내 중 자녀가 매우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

## 결혼과 가정의 중요성

결혼은 개인, 가족, 국가의 복지뿐 아니라 미래 상태의 행복에 크게 의존하는 중요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1. 미성년자나 이성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해 결혼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자는 결혼해서는 안 되며,
2. 생식 능력이 부족한 자는 동등한 조건인 자와 결혼하지 않는 한 결혼해서는 안 되며,

3. 배우자나 자녀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는 혐오스러운 질병에 감염된 자는 결혼해서는 안 되며,
4.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했거나 이전 배우자의 사망이나 고의적인 이별이 명확하지 않은 자는 결혼해서는 안 되며,
5. 너무 가까운 친척 간에는 결혼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이전 관계의 의무를 혼란스럽게 하며, 세상에 우정의 확장을 방해하고 여러 다른 부적절함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크게 의존하며, 부모와 자녀의 행복이 그 결혼 관계의 적절성에 크게 달려 있으므로, 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 반드시 부모와 상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결혼은 사망, 간음, 혹은 고의적인 이별로만 해소될 수 있으므로, 부모나 타인에 의해 억지로 강요받거나, 신중한 숙고와 인간의 궁극적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상의하지 않고 맺어져서는 안 된다.

#### 가정 내 덕목과 교육

사회적 덕목은 친족 간에 가장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정동을 요구한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류에 유익하도록 부드럽고 정성껏 교육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어머니가 자녀를 직접 젖 먹여야 한다.

1. 어린 아이들은 자립할 수 없어 방치하면 죽게 된다.
2.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수록 부모를 사랑하고 복종하며 부모에게 명예와 위로가 되기 쉽다.
3. 신중하고 정성 어린 자녀 교육은 교회와 국가의 공공 복지에 대단히 중요하다.
4. 교육이 전적으로 타인에게 맡겨지면 매우 심하게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의 유산 분배는 나이가 아니라 공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한 아이가 남자이거나 다른 형제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다는 이유로 부모 재산 대부분을 독점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일반적으로 장남이 가장 많은 몫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장남이 재산을 관리하는 데 가장 능숙하고 나머지 아이들의 보호자 및 지도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남이 명백히 악하다면 상속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자신을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며, 공경하고, 모든 합법적 명령에 복종하고, 중요한 일에는 반드시 상의하며, 필요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 가정 내 하인은 보조 자녀로 간주되어 적절한 교육, 임금, 친절하고 온화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주인을 공경하고 복종하며 성실하고 부지런히 봉사해야 한다.

부정직이나 다른 범죄에 대한 처벌로 노예가 된 자는 합법적으로 노예로 살 수 있으며, 전쟁 포로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정복자에게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에게 전쟁을 일으켜 노예를 얻거나 노예 매매 거래를 장려하는 행위는 전적으로 무자비하며, 올바른 이성과 인간성에 충격을 주며, 그러한 상인들에게 동료 인간의 영혼과 육체의 피를 본성적으로 짊어지게 한다.

## 시민사회와 정부 형성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1. 재산이나 해로운 행위에 관한 분쟁이 가정 간에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2. 일부 공통적인 결정 규칙이 확립되어야 한다.
3. 이러한 분쟁은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은 한 명 또는 복수의 판사나 중재인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4. 이 판사들은 결정의 적절한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시민사회와 정부를 형성할 때,

1. 원래 부모는 하나님 아래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자녀의 유일한 통치자였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정부 형태이다.
2. 누구도 선천적으로 상속의 일부가 아니므로, 연장자가 자식들에 대한 통치권을 반드시 물려받지는 않는다.
3. 그래서 각 가족은 독립된 작은 주권 또는 국가가 되어 부모가 통치자가 되었다.
4. 가정 간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가족이 더 큰 사회를 형성하였다.

5. 소규모 사회 간 분쟁이 여러 소규모 사회의 결합을 야기하였다.
6. 따라서 어떤 공통의 중재자에게 권력과 권한이 부여되어야 했으며, 그가 잘 관리하면 사람들이 점차 복종하게 되었다.
7. 자연권이 없는 이들이 통치권을 갖게 되자, 복종하는 이들은 이들에게 생명과 자유, 재산 보호의 약속을 요구하였다.
8. 야심 있는 자들이 힘이나 속임수로 통치권을 확보하면, 복종자들은 그 정복자에게 최선의 복종 조건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통치자와 피통치자 사이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원 계약이 형성되었는데, 부모가 자녀를 통치하는 경우만 예외이며, 이것이 인간 사회 모든 정부의 기초이다. 그리고 어떤 가정에서든 장남이나 다른 자식에게 무조건적 권력이나 타인의 재산, 생명, 자유를 절대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자 통치자로서 모든 시민 정부의 주권자이다. 피통치자와 통치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력만 가지며,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피통치자의 의지나 통치자의 양심이 아닌, 최고 통치자인 하나님의 법이 인간이 제정하는 모든 법의 궁극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인간의 시민적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창설자이자 최고 통치자인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시민 복종과 정부의 궁극 목적이어야 한다. 이에 반하는 주장은 필연적으로 깊은 무신론을 내포한다. 모든 인간은 본래 평등한 자유 상태에서 태어나므로, 그들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일반 복지를 증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복종하는 한도 내에서 법률에 복종할 의무만 가진다.

1. 오직 하나님만이 어떤 사회를 다스릴 자연권을 갖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통치권을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권력은 진짜 권력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법을 위반하는 법률을 제정할 권한도 없다.
2. 거의 모든 부모는 자발적 계약으로 자신 또는 자녀를 무제한 복종에 묶지 않으며, 만약 그러한 계약을 체결해도 무효다.[1] 부모는 자신이나 자녀의 생명이나 자유를 처분할 권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치자가 사회의 일반 복지에 해롭거나 최고 통치자인 하나님께 불명예가 되는 명령을 내리면 거역해야 한다. 만약 통치자가 습관적으로 잔혹하고 폭군적이라면, 상황이 허락하는 한 저항하고 폐위시켜야 한다.

1. 대다수 국민의 정동이 크게 이탈하면 혁명이 큰 위험이나 피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
2. 적절한 상황에서 폭군 군주에 저항함으로써 국가들은 임박한 파멸에서 생명과 자유를 지켜왔다.
3. 그러한 저항이 신중하게 이루어지면 다른 통치자들에게 국민 학대를 경계하라는 유효한 경고가 된다.
4. 혼합 정부에서는 왕이 의회를, 의회가 왕을 국가의 공동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저항하는 때가 저항의 정당성과 용이성이 가장 명확한 경우다.

그러나 군주들은 많은 이례적이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며 신하들에게 속기 쉽고, 그들의 진의를 파악하거나 신하들이 들여다보기 어려우며, 저항이 보통 많은 유혈과 비참함을 초래하므로, 피통치자는 통치자의 행위를 최대한 호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절대 필요하고 성공 전망이 확실할 때에만 폭력적 수단을 취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정복이 시민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를 확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1. 왕들이 주변 군주들과의 영구적인 전쟁을 막기 위해 특정 나라를 정복할 수 있으나, 그 주민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복종하지 않는 한 복종 의무는 없다.
- 2.

더 이상의 고통과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정복자가 정당한 군주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능력이 생길 때까지 합법적으로 복종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 충성 서약이나 충의 서약을 강요하는 것은 사람들의 양심을 심각하게 함정에 빠뜨리며, 강요자 측에 거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3. 정당한 군주가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 영구적인 점유와 온순한 복종은 정복자와 그 후계자에게 일종의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는 이전에 통치했던 가문이 오래된 권리를 다시 주장하여 국가를 파멸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4. 일반적인 경우에 정복자는, 이전에 폭력이나 사기로 점유했던 자들로부터 빼앗은 것을 정당한 군주에게 회복시켜야 한다.

5. 경미한 절도나 개인적 상해를 혐오하고 처벌하면서도, 민족을 약탈하거나 노예화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를 승인하거나 찬양하는 것보다 더 터무니없는 일은 없다.

## 정치 체제 및 정부 형태에 대한 관점

유대 민족의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님은 시민사회들이 자기 상황에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는 정부 형태를 세우도록 허락하시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에서만 허용하신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는 어떤 정부 형태도 절대적으로 완전하지 않다. 만약 왕들이 완전히 현명하고 덕이 있다면, 왕의 의지만이 통치의 유일한 규칙인 절대군주제가 최선일 것이다. 그러나 고위직에 있는 대부분 사람이 매우 불완전하고 결점 없는 자는 없으므로,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력을 맡기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 이로 인해 절대군주제가 시도된 곳마다 억압과 폭정이 일반적으로 만연해졌다.

몇몇 주요 인물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는 귀족정체(아리스토크라시)와 성년 남성이 일반적으로 통치하는 민주정체는 교묘한 이들의 음모에 개입할 여지를 너무 많이 남기고, 업무 처리가 지나치게 느리며, 정부 사무가 지나치게 개방되고, 분쟁 해결이 매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왕·귀족·평민이 공동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혼합 군주제가 가장 적합해 보인다. 그리고 왕 선출 제도는 때로 부적절한 인물의 등장을 막을 수 있으나, 음모와 당파질이라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제한된 계승제가 여러 경우에 더 나은 대안이다.

불완전한 통치자의 독단적이고 임시적인 의지는 매우 불안정하고 불안정한 통치 기준이므로, 모든 문명 사회는 성립 시점 또는 성립 후에 스스로 법을 제정해 그 법에 따라 다스려지려 한다.

## 인간 법과 자연법

인간 법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문명 사회가 묵시적으로 채택하는 국제법으로서, 대사를 학대하지 않고, 포로는 죽이지 않고 교환하거나 몸값을 받아야 하며, 전쟁 중에는 비무장한 여성·어린이·기타 사람을 학대하거나 살해해서는 안 되며, 전쟁 물자 외에는 사유 재산을 압수해서도 안 된다는 규정 등이 이에 포함된다.

2. 금수품의 상륙·항해·적화 및 하역, 깃발 게양과 내림 등에 관한 해상법.
3. 한때 로마 제국에서 공적이고 영구적인 권위를 가졌던 민법(성문법).
4. 정복한 고트족이 유럽 대부분에 도입하여 상급자와 신하의 관계를 규정한 봉건법.
5.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등의 유구한 관습법과 최고사법원 법령으로 구성된 국가법.
6. 도시와 자치시의 면책 특권을 규정하는 시법(자치법).
7. 상인·장인 등 특정 집단의 특권과 상호 행위를 규정하는 사회법.
8. 고대 교부와 교황, 공의회에 결정으로 형성된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회법은 고대 랍비들의 가르침으로 형성된 탈무드가 현대 유대인에게 교회법 역할을 하는 것과 유사하다.
9. 개신교 교회법으로서, 신조·교리·공식·교회법·총회 결의 등을 포함하며, 국가 최고 권위가 채택하는 범위 내에서 민법이 된다.

이 모든 인간 법은 사람의 내면적 태도에 이르지 못하며, 보상이 거의 없거나 없고, 영적·영원한 보상이나 처벌이 부속되지 않으므로, 무한히 덜 중요하며, 하나님에게서 직접 명령되어 나오는 자연법에 종속되어, 자연법과 상충하지 않는 한에만 복종해야 한다.

### 사형과 형벌에 관한 원리

인간 생명은 매우 소중하며, 그 손실은 회복할 수 없으므로, 범죄에 적합한 다른 형벌이 있거나 사회의 공익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사형은 절대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일부 악인은 사형으로 처벌해야 한다.

1. 공동체의 평화를 신중하게 보존해야 할 경우, 평화 파괴자는 제거해야 한다.
2. 사형이 위협이나 집행되었음에도 일부 악인은 국가 복지와 하나님, 즉 최고 통치자의 명예에 반하는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다.
3. 재산·자유·명예의 상실은 타인의 귀중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에 상응하지 않는다.

4. 끔찍한 범죄가 엄격히 처벌되지 않으면 범죄가 더욱 빈번해진다.

따라서 범죄자 처형은 공공의 범죄 억지 효과를 위해 가능한 한 공개적이고 엄숙하게 집행해야 한다. 때로는 무고한 이가 유죄자와 함께 명예와 재산을 잃는 일도 필요하다. 국가 안전과 악행에 대한 보다 확실한 억지를 위해 반역자의 자녀가 부모 재산을 박탈당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역의 인상을 깊이 심어 반역자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국가에 감행하지 못하게 한다.

## 자기 방어와 전쟁 윤리

자기 방어의 경우 사람은 공격자를 죽일 권리가 있다. 그러나 결투는 불법적이며 살인 행위로서 고대 고트족의 야만성의 잔재이다. 결투는 가장 혐오스러운 교만과 정욕을 드러내며, 시민 권력을 거만하게 넘겨받아 스스로 복수하며, 이웃이나 친구를 살해하고자 광적으로 자기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무릅쓴다.

공평성과 공공 복리에 부합하여 피할 수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남의 생명을 빼앗아 영원한 고통 속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 전쟁은 한쪽에게 합법적이고 필요하지만 결코 양쪽 모두에게 정당하지는 않다.

1. 일부 사람은 너무나 불공정하여 자신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하려면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수밖에 없다.
2. 다른 이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폭력 가해자는 공공 사회의 해악이며, 그들을 제지하거나 제거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타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중대한 분쟁이나 결과가 따르는 경우에는 절대 긴박한 필요 없이 전쟁을 시작해서는 안 되며, 재산을 지키고 되찾기 위해 온화한 방법을 최대한 시도한 후에야 전쟁을 감행해야 한다. 그러나 때로는 공격받기 전에 무장하고 무자비한 적의 영토를 선제 공격하여 추가 피해를 막는 것 또한 합법적일 수 있다. 이는 마치 미친 사람을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묶어두는 것과 같다.

개인은 불법 점령이나 급습, 혹은 국가 법질서가 혼란에 빠진 시기에 자발적으로 무장할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은 한쪽에서는 항상 불법적 살육 행위이며, 양쪽 모두 그러한 경우도 많으므로, 누구든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그 정당성에 대해 공정하고 충분한 검토와 확신이 있어야 한다. 상급자의 명령이라도 분노나 살인을 신성화할 수 없다. 합법적 전쟁일지라도 폭력과 유혈은 가능한 한 최소화해야 하며, 적을 속이기 위한 행진이나 전투 회피 등의 불확실한 수단은 허용될 수 있으나, 거짓말·거짓 약속·서약은 항상 금지된다.

또한 휴전·조약·통행 보장 위반, 대사나 사절에 대한 해악 행위, 반역자 혹은 장군을 배신하거나 암살하도록 고용하거나 그들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는 비열하고 악하며, 종종 전쟁을 장기화하거나 더욱 격렬하게 만든다.

### 치안관의 권위와 종교 정책

치안관은 권력과 권위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으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국가 복지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권력을 행사해야 하기에, 하나님 외에 다른 종교를 합법적으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모욕하는 거짓 종교를 권위 있게 허용할 수도 없다. 그것은 장려자와 수용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도덕을 부패시키며 국가 평화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명예훼손·절도·살인·간통 등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그러나 덕망 있는 본보기와 정통하고 신실한 교사에 대한 적절한 장려,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신중하고 선한 법률 제정을 통해, 치안관은 자기 영토 내에서 참된 종교의 공개적인 고백과 실천을 증진시키고, 공개적인 모욕 행위는 적시에 적절히 억제하거나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에게, 특히 진정한 성결을 전제로 하는 종교 행위를 어떤 형태의 시민적 처벌로도 강요해서는 안 된다.

1. 참된 종교는 주로 외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적절한 상태와 활동에 있다.
2. 강제적 압박은 진리를 설득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을 굳게 하여 공정한 검토를 방해한다.
3. 따라서 참된 신앙심을 이끌지 못하고 종교적 위선자만 양산한다.

4. 사회에 해로우며, 이는 명령자 뜻에 반하는 내용을 양심상 옳다고 확신하는 이들이, 순응하면 양심의 고통을 견뎌야 하고, 거부하면 자신과 가족의 파멸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강제는 타인들로 하여금 폭력만이 그들의 견해에 반대하는 수단이라는 인상을 갖게 하여, 탄압받는 이들의 지지자를 늘리거나 공공질서 혼란과 국가 내란을 초래할 수 있다.

### 종교와 덕의 증진을 위한 의무

종교와 덕의 보편적 증진을 위해 모든 사람은

1.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활용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 그리고 그 관계를 주의 깊게 읽고 듣고 묵상하는 데 헌신해야 한다.
2.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타인에게도 같은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중하고 엄숙한 외적 예배를 최대한 규칙적이고 경건하게 드려야 한다.
3.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4. 사회적 성향에 맞게,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이 직접 정하거나 공동체 합의로 정한 때에, 하나님께 사회적으로 예배드리기 위해 모여야 하며, 이는 어떠한 시민 업무도 방해하거나 중단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5. 모든 사람은 남녀, 부부, 부모, 자녀, 형제자매, 주인과 종, 치안관과 피치안관, 교사와 학생, 법률가, 의사, 군인, 장인, 상인, 부자·가난한 자, 귀족·평민, 원주민·외지인, 노인·청년, 육체와 정신, 재산과 관계 면에서 번영하거나 고통받는 상황에 따라, 각자에게 특별히 부합하는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6.

종교와 덕의 현재적·미래적 이익, 그리고 악덕의 손해는 신중히 숙고하고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 생애에서 신중한 종교와 덕의 함양은 인간의 건강과 명예를 증진시키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이후의 성찰과 그것을 지속함에 있어 미래 보상에 대한 합리적 희망은 가장 실질적이면서도 은밀한 만족을 준다. 그리고 개인에게 유익한 것은 반드시 전체 사회에 유익하다. — 사적 악덕을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거나, 도덕적 개혁이 타인의 일반적 자존심과 방탕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파멸시킬 것이라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왜냐하면,

1. 악덕이 낳았거나 낳을 수 있는 가장 큰 선은 덕에 의해 이루어진 선보다 결코 크지 않다. 도박, 음주, 음란, 또는 방탕에 소비되는 돈이 덕의 발명과 실천을 통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순환될 수 있는가?
2. 돈의 유통과 근면한 이들의 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종교와 덕은 인간이 그 지위에 맞고 소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더라도 여러 사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3. 절제와 기타 덕으로의 일반적 개혁은 수천 명의 개인과 가정의 불명예와 파멸, 나아가선 영원한 멸망까지 막을 수 있다. 도박, 음주, 음란 등에 소비되는 시간과 돈은 아이들이나 타인을 유용한 일에 양성하는 데 훨씬 더 잘 쓰일 수 있다.
4. 영광과 부를 누리는 많은 이들이 그 속에서도 불행하며, 오직 덕 있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빈곤 속에서도 훨씬 더 행복할 수 있다.
5. 절제 있고 덕 있는 사람들은 악덕하고 타락한 자들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신중하며 용기 있게 자국의 복지를 지키고 증진할 것이다.
6. 국가와 기타 사회는 종종 덕에 의해 위대하고 강력해졌으나, 악덕으로 인해 약해지고 파멸되었다.

미래 세계에서 종교적이고 덕 있게 살고 죽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할 것이며, 악덕한 자들은 불행할 것이다.

1. 하나님은 참된 종교와 덕을 사랑하시고, 무절제함과 악덕을 미워하시며 영원히 그러실 것이다.
2. 현세에서 종교와 덕에 따르는 즐거움과 이익, 그리고 악덕에 따르는 불행은 미래 세계에서 상응하는 어떤 것을 예고한다.
3. 하나님이 이 생애에서 덕 있는 자와 명백한 악인에 대해 보이시는 겉보기의 작은 차이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여금 내세에서 훨씬 더 큰 차이를 기대하게 한다.

#### 법의 불충분함: 자연법과 자연의 빛의 한계

법의 불충분함, 특히 사람들을 참되고 영속적인 행복으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연의 법과 자연의 빛의 부족함에 대하여. 앞장에서 불완전하게 제시된 자연법은 현재 사람들이 누리는 자연의 빛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자연법은 하나님만이 포괄적으로 아는 법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와 형태를 낱알이 아시는 분에게는[히 4:13] 변함없고 확고하며

영구적이고 어디서나 유효한 법이다. 자연의 빛은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의무를 인간이 실제로 인식하는 지식이다. 이는 인간의 각기 다른 능력, 기회, 성향에 따라 매우 다양하여, 신적 계시의 도움이나 개선이 전혀 없는 타타르, 아프리카, 아메리카 및 여러 섬 지역에서는 일부 짐승의 통찰력과 거의 다르지 않게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고지식을 가장한 이들은 이것을 충분하며, 심지어 인류가 참된 덕과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떠받들었다. 계시로 그들의 이해가 확장되고, 종종 기독교에 최고의 존중을 표하는 척하면서도, 가장 불성실한 태도로 기독교 권위를 훼손하고 조롱하게 만들려 한다. — 심지어 자연종교의 근본 원리들을, 그 계승성 때문에 공격하기도 한다.

내가 아는 한, 데이이즘적이며,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이자 무신론적인 작가 가운데, 로드 허버트와 그의 표절자인 블론트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자연법 또는 자연종교 체계를 제시한 자가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탁을 내용이나 표현 방식 면에서 우스꽝스럽게 만들려는 방향하고 교활하며 오만한 시도로만 만족했다. 그들의 수많은 모순과 기이함을 일일이 논하는 것은 이곳에 적절치 않다. 우리는 틴달의 『창조만큼 오래된 기독교』에서 발췌한 그들의 주요하거나 보편적인 주장들만 검토할 것이다.

즉,

1. 자연의 빛은 인간을 그 본성에 맞는 모든 덕과 행복으로 완전히 인도하는 데 결코 부족함이 없다.
2. 무한히 지혜롭고 완전하며 불변하는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자연의 빛은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불변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계시는 불필요하며, 어쩌면 편견을 제거하는 데에만 필요할 것이다.
3. 자연의 빛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롭고 지혜롭고 선하며 자비로우며, 스스로 행복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 아무것도 만들거나 유지하지 않으며 어떠한 피조물에게도 예배를 요구하지 않고, 오로지 그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행하는 이로 인식한다.
4.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선함으로 인해, 인간 행동의 적합성을 규율하는 이 자연법을 모든 인간에게 각자의 환경에 따라 심어주고 충분히 알게 하신다.
5. 이 자연법의 의무는 미래의 상벌이라는 제재가 아니라, 이 생에서 인간의 행위나 그 반성에 따르는 쾌락과 고통으로만 강제된다.

이들의 오래 유명한 우두머리의 신조는 불신과 무신론의 혼합체이다. 그러나,

I. 우리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자연법이 무엇인지 명확하고 일관되게 밝히지 못하며, 그것을 이성, 감정, 도덕 감각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미각이 단맛과 쓴맛을, 시각이 흑과 백, 미와 추를 구분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선과 악, 덕과 악덕을 분별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1. 이것은 결코 법이라 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과 인간 모두 이 법 아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 권한은 어디서 오는가? 집행자가 없다면 어떻게 순종하거나 위반할 수 있는가? 위반할 수 있다면 적절한 제재가 없는 것이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하나님 자신이 이 자연법의 대상자라면, 그의 대리인인 양심은 사람들의 위반을 처벌할 수 없다. 그리고 각 개인이 동시에 두 명의 인격을 지니지 않는 한, 자신의 본성은 동시에 판사로서 처벌하고 피고로서 처벌받을 수 없다. — 더욱이 어떤 악덕에 익숙해질수록 내적 양심의 가책은 줄고 쾌락은 커질 수 있다. 만약 이 생애의 쾌락과 고통이 자연법에 부과된 모든 상벌이라면, 그 위반이 더 많고 심할수록 오히려 덜 처벌받거나 더 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 인간 법률은 이 결함을 보완하지 못한다. 그것들은 극히 일부의 중대하고 공공연한 위반에만 미치며, 실행 과정에서도 명백히 악행을 저지르는 자보다 덕 있는 자에게 더 가혹하게 작용하기도 한다. — 교양과 학문이 발달한 아테네에서 명성과 진정한 탁월함을 갖춘 사람은 얼마나 적으며, 그들이 얼마나 쉽게 추방, 투옥, 혹은 사망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는가?

2. 만약 각자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도덕 감각, 정서, 또는 이성이 법이라면, 계시의 영향 없이 이들이 사는 다양한 사회에서의 행위 양태는 그것이 일관성을 결여하거나 매우 모호하여 사람들이 거의 알지 못함을 드러낸다. 고대 독일인과 시베리아인들은 거의 근세에 이르기까지 갓 태어난 아기를 강, 호수, 연못에 던져 수영하면 키우고 가라앉으면 죽이는 방식으로 양육 여부를 결정했다. 고대 암몬인과 다른 민족은 물록과 다른 우상에게 자녀를 태워 바쳤다. 아프리카 지아가족은 대다수 아기를 죽였고, 어느 여왕은 외아들을 절구에 찧고 그 물질로 몸을 바르기도 했다. 카프르족은 여전히 숲에 아기를 내버리며, 반면 다른 다수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양육하려는 내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 고대 켈트족과 갈족의 여러 민족은 낯선 이에게 매우 친절했다. 몇몇 스키타이 민족은 손님을 살해하고, 자신과 다른 부족의 사람을 한 명 이상 살해하지 않은 자에게 결혼이나 축제 참여를 허락하지 않았다. 엄숙한 연회에서 살해한 이의 두개골로 술을 마시기도 했다. 고대 갈족, 그리스인, 스페인인, 이집트인, 카르타고인 및 기타 여러 민족은 우상에게 인신공양을 했다. 비교적 최근 멕시코인들은 한 사원 봉헌식에서 6만 4,000 명을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고대 고트족, 색슨족 등 다수는 자신이나 타인의 손에 의한 격렬한 죽음이 미래의 행복, 특히 상류층의 그것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었다. 고대 갈족 등은 재산권을 힘에 근거해 주장하며,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권리가 정당하다고 여겼다. 스파르타인은 교묘한

도둑질은 무죄라고 보았다. 교양 있는 로마인은 사랑하는 왕자 겸 장군 게르마니쿠스를 구하지 못한 신들을 벌하기 위해 신전을 헐었다. 현명한 중국인은 우상에게 청한 은총을 받지 못하면 법정에 제소하여 은혜를 빌기 위해 바친 선물을 반환받으려 한다. 고대 이집트인은 식물, 고양이, 개, 악어, 점박이 황소 등 많은 것을 숭배했으며, 오늘날 많은 아프리카인도 유사한 행동을 한다. 박식한 그리스인들은 약 3만 명의 신을 받들었고, 로마인들은 그 수를 알 수 없다. —이 모든 이들이 자기 내면에 우리와는 전혀 다른 자연법, 도덕 감각, 정서, 또는 이성을 가졌단 말인가? 야간에 낯선 이와 손님을 목숨 걸고 보호하면서도 주간에는 그들을 기꺼이 죽이려 하는 야생 아랍인들은 밤과 낮에 서로 다른 자연법을 따르는가? —이처럼 이상한 이성, 정서, 도덕 감각이 발견된 것은 평민과 같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조차 아니다.

아니다: 스파르타의 유명한 입법자 리쿠르구스가 남색과 교묘하거나 대담한 도둑질을 허가했다고 전해지며, 소크라테스가 신성모독적인 욕설을 자주 했고 남색을 행했으며, 이익을 위해 음탕한 친구들에게 아내를 매매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는 단일신을 믿었음에도 재판관 앞에서 고국 신들을 인정한다고 고백했고, 임종에는 그들에게 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다. 플라톤 또한 남색을 행했고 악명 높은 거짓말쟁이였다. 유명한 카토 중 한 명은 로마인의 악랄한 카르타고 파괴를 주도했고, 또 다른 카토는 로마인이 명예롭게 보호해야 할 어린 키프로스 왕의 왕국을 악랄하게 약탈하였으며, 방탕한 클로디우스의 희생물이 되어 결국 자살했다. 철학자 키케로는 딸이 죽었을 때 분노하여 “나는 신들을 미워한다”고 외쳤으며, 필리피 전투에서 패한 덕망 높은 브루투스는 “오래도록 덕을 좇아왔으나 결국 그것은 허망한 이름임을 알았다”고 탄식했다. 모든 미덕으로 유명한 세네카는 극도로 탐욕스러웠고 네로가 어머니를 살해하도록 부추겼으며, 선한 이들과 자신조차 본성상 선한 신들보다 뛰어나며, 신들은 본성적으로 선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로 선하다고 믿었다. 총명한 블라우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처럼 최고의 지혜와 지식을 자처하는 현대 불신론 의사들조차 자연법이 요구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듯하다. —덕이란 도덕적 본능에 따라 행동하는 것인지, 사람들이 스스로 덕을 실천하고 남들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이끄는 것이며, 그것이 합리성이나 유익함과 관계가 있는지, 혹은 이성과 진리 혹은 현실 상황에 따라 행동하는지, 내적 느낌에 따른 것인지, 혹은 아름다운 것을 행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불신론의 대표자 중 한 명인 휴메는 아마도 하나님도, 천국도, 지옥도 믿지 않았으며, 덕을 자연적 기호에 유용하고 쾌적한 것으로 보았다. 예컨대 튼튼한 어깨나 잘생긴 다리, 심지어 교만과 간통에도 덕이 있다고 평가했다.<sup>3</sup> 이 허구의 자연법은 사람들의 마음에 제대로 된 인상을 남기지 못한다. —위와 같은 수많은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 사람들은 이 모든 결정적인 힘에 깊이 감동하거나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비열하고 무서우며 해롭고 부자연스러운 행동에서 쾌락을 찾는 듯하다. 계몽된 이집트인, 그리스인, 로마인들의 숭배와 전쟁 행동 대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만약 인간 본성이 여전히 선하고 타락하지 않았다면, 이 완전한 자연법이 인간의 심장에 새겨져 있음에도, 그렇게 많은 외적 유인에도 단 한 명이라도 실제로 덕을 연구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이 법칙의 결정적 영향력이 얼마나 미미한지를 보여준다. 만약 인간 본성이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면, 인간의 도덕적 감각, 정동, 이성도 그에 맞춰 무지와 타락한 성향으로 부패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참된 덕과 영원한 행복에 관한 적절하고 확실한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는가? —우리 이성이 도덕적 감각이나 정동을 충분히 보조할

것이라는 주장은 헛된 일이다. 불신론자 셔프츠버리 경은 “거의 누구도 사유하지 못하며, 사유하는 이들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생각을 잘 이끈다”고 지적했다.—자유롭고 심오한 사고를 자처하는 이들보다 이성에 반하는 행동을 더 선명히 하는 이는 없다. 이성 절제를 건강한 덕으로 강조하는데,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독주잔을 들거나 혐오스러운 창녀와 함께 명예, 재산, 건강, 심지어 생명까지 걸고 모험을 하는가?—이성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말씀을 듣고 기도와 찬양으로 마음을 쏟는 것이 더 덕스럽고 명예로운 길이라 권고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가 돼지처럼 꿀꿀거리고 술독에 빠지거나 토사물에 뒹구는 것을 더 좋아하는가?—이성은 정직과 예절을 당연히 요구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가 신성한 계시와 그리스도의 공인된 종들을 공격하면서 최저급의 악행, 극도의 거짓말, 명백한 자기 모순, 심각한 모욕을 자행하는가? 나아가 미래의 상과 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적 권위의 사슬을 끊어 덕의 동기를 약화시키고 악덕을 조장하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인간 법과 교육이 도덕적 감각이나 정동을 도와 덕으로 인도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허망하다. 인간 본성이 부패하였다면 인간의 법과 교육도 이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불신론자들이 주장하듯 하나님이 자연법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들에게는 적절한 권위가 없다.—더구나 인간 법은 외적 행위에만 미치며, 덕의 본질이나 구성 요소, 덕에 대한 상급이나 악덕에 대한 벌은 관여하지 않는다.—이 모든 법, 교육, 그리고 하나님의 외적 섭리와 덕을 증진하는 경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명백히 악덕하게 행한다.—기독교 법이 신자들을 악으로부터 제지하지 못한다는 항변도 허망하다; 하나님 계시에 따르면 그것은 신자로 불리는 소수의 마음에 불완전하게나마 새겨져 있을 뿐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그 이름을 가진 다수가 자기 신앙에 오명을 남기며, 특히 불신론자들과 그 동조자들이 기독교를 모욕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비열하게 그것을 자처하고 그 확증 성례에 참여하는 일이 있는 것이다.<sup>4</sup> 이 불신론적 자연법은 잘못된 교육이나 관습에서 비롯된 편견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방안도, 그 가능성도 제공하지 않는다. 내 도덕적 감각이나 정동, 이성이 진정 부패하였다 해도 이를 입증하기란 불가능하다. 자연법이 내 마음에도, 이웃의 마음에도 새겨져 있다면, 그가 내 도덕 감각이 자신의 것보다 덜 순수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만약 내가 내 도덕 감각이 부패했다고 인정한다면, 동일한 자연법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나 인간이 내 잘못을 바로잡을 권한이 어디 있겠는가? 하나님이 탁월한 선과 지혜를 바탕으로 내 오류를 바로잡을 권능을 가졌더라도, 내가 기꺼이 혹은 고의로 스스로를 타락시켰다면 그가 내 판단과 악한 성향을 바로잡을 것임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은혜롭게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해도, 그 지혜와 선함, 권능과 권위를 충분히 입증하는 신적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그 사자들을 믿겠는가? 만약 그런 증거가 제시된다면 나는 이미 단순한 자연법을 벗어나 계시 체계로 들어선 것이다.—이 난처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의무임을 알고 수행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는 얼마나 부조리한가! 인간이 게으름이나 악행에 빠져 스스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의무를 마음대로 줄일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셈이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그런 행동을 그의 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받아들이고 그 자체로 인간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인가? 인간이 자기 멋대로 절대 완전한 자연법을 축소하거나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부자연스러운 욕망과 도둑질, 살인, 파, 양파, 황소, 뱀, 고양이, 개 등 송배를 덕으로 받아들이야 하는가?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것들을 합법적이고 선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II. 불신론적 자연법의 빛이 모호하고 약하며 불완전하거나 모순됨이 분명해진 후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거나 절대적으로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다.—왜 완전한 원인에서 비롯된 모든 결과가 절대적으로 완전해야 하는가? 클로디우스, 카틸리나, 티베리우스, 네로, 헬리오가발루스가 소크라테스, 에픽테토스, 안토니누스처럼 덕스럽고 완전해야 하는가, 같은 무한히 지혜롭고 완전한 하나님이 그들을 모두 창조했으니? 모든 피조물이나 심지어 모든 인간이 무한히 혹은 동일하게 완전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공동의 조상인 하나님이 그러하기 때문인가? 태어나지 않은 유아가 부모만큼 완전한 남녀인가? 도둑과 살인자, 창녀와 음탕한 남자가 무한히 완전한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완전한가?—아니다, 법은 그 자체로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 있어도 특정 상황에서는 인간 행복을 증진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을 수 있다.—비록 인간의 상황과 하나님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인간에게 처음부터 그의 모든 뜻과 생각을 전부 드러낼 자연적 의무가 있을까? 주인이 종에게 처음 일을 맡길 때 가능한 모든 지시를 즉각 주어야 할 의무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변함이 없더라도, 인간은 이 관계를 불완전하게 인지하거나 편견이나 실수로 그 의무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이 새로운 교훈이나 자극을 주어 올바른 의무 수행을 돕도록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의 뜻의 새로운 계시를 주의 깊게 받아들이고 이를 경시하는 자에게 불만을 표시할 수도 있지 않은가?—인간의 상황이 처음과 달라졌다면, 이에 맞는 새로운 의무도 필요하지 않은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지만 병자에게 필요한 식사와 음료가 있듯이.—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형성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새로운 의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아 마땅하지 않은가?—수많은 피조물의 변화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절대 완전하고 불변하는 존재라면, 왜 인간의 상황에 맞춘 임시 법을 제정하지 못하는가?—만약 하나님이 그의 통치자로서 지혜롭게 백성에게 새로운 법이나 지시를 내리거나, 적어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새로운 방식으로 명령한다면, 그는 전제군주라고 할 수 있는가?—III. 이미 증명되고 기꺼이 인정되는 바, 타락하지 않은 자연의 빛은 하나님의 지혜, 능력, 선하심, 공평성 및 몇몇 다른 완전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자연의 빛이, 현재 부패한 상태에 있는 모든 인간이 지니고 있음에도, 그토록 강력한 악한 성향과 습관을 가운데서 이에 대해 적절한 통찰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하다.—누가 지혜로운 이집트인들, 박식한 갈대아인들, 총명한 그리스인들, 그리고 계몽된 로마인들이 얼마나 두려울 정도로 그들의 상상 속에서 헛되이 되었는지 모를까? [롬 1:21]—그리고 최소한 가장 다수로서 자연법이 특별히 그들에게 맞추어져야 했으며 그들 역시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었으나, 그들의 신들을 매우 다수로 여기며 그중 다수를 잔인함, 부도덕, 도둑질, 저열한 복수 및 기타 혐오스러운 죄악의 절대적 괴물로 생각했고, 스스로 그런 죄악을 즐겼다는 사실을.—만약 현대의 시베리아인, 캄차카인, 호튼토티족, 파타고니아인들의 종교관념이 계시에 거의 부패하지 않았다면—또는 고대의 사비인, 마기인, 헬레니스트들의 종교관념을 모두 모았다면, 얼마나 훌륭한 신학 체계가 될까?—몇 천이나 되는 신들은?—얼마나 많은 우스꽝스러운 의식들이 원숭이, 잔인한 호랑이, 더러운 암태지에 더 닮았지, 이성적 존재가 자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과는 거리가 먼가?—그런데 어떻게 인간 내면의 자연법이 태양, 달, 별들의 무한한 능력, 지혜, 선함, 공평함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을까—또는 그들이 분명히 신으로 숭배했으며 참 하나님 대신 삼았던 얼룩 소, 뱀, 개, 고양이, 부추, 양파, 돌,



장대 등과 같은 것을 두고?—오히려 우리 불신자 학자들이 이토록 불공정하게 남용하는 계시에 조금도 빗지지 않았다면, 그들의 지식은 일부 짐승들의 지식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을 것이다. 자연의 빛이 결코 하나님께서 그분의 법을 범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증명한 적은 없다.—하나님의 일반 섭리 중에 인내의 여러 사례가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들을 멸망에 맞추어 준비하시면서도 오래 참으실 수 있다는 점을 알겠는가? [롬 9:22]—사람들이 아직 본래 상태에 있다면 그들은 불행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비의 적합한 대상이 될 수 없다.—만약 그들이 본래 상태에서 타락했다면, 반드시 그들은 무한한 주권자의 법에서 벗어났으며, 그분의 영광과 피조물의 일반 선이라는 무한히 중요한 목적을 등한시켰기 때문이다.—그러므로 그들의 죄악은 무한히 중대하다.—그렇다면 자연의 빛은 하나님이 완전한 정의에 대한 충분한 만족 없이 무한한 죄를 용서하실 것이라는, 혹은 그들이 부패한 본성, 즉 하나님께 적대적이며 만물 중 가장 속이는 자요, 절망적으로 악한 자 [렘 17:9]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행할 경우에도 완전한 행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제공하는가?—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위엄과 영광 또는 자신과 피조물에 대한 무한한 공평을 짓밟고서라도 배반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인가?—지혜, 선, 공평과 일치된 권세를 가진 관료가 회개하는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고 영예를 베풀 수 있는가?—거의 모든 이교도가 희생 제물을 드린 사실은 그들의 양심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려면 그들의 죄에 대한 적절한 속죄가 있어야 한다고 지시함을 명백히 증명하지 않는가?—한편, 계시에 가장 적게 접한 지역들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모두 현명하지만 야만적인 짐승에 지나지 않았고, 사람들의 지식은 계시에의 직접적 접근과 발전에 비례하여 늘어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갈대아인들, 이집트인들, 페니키아인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 켈트인들, 중국인들, 인도인들, 혹은 기타 민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인간 본성 및 도덕적 덕성에 관한 모든 적절한 관념은 계시의 확산된 불꽃으로부터 비롯되었거나 부활된 것으로 여겨진다. 자연법이나 자연의 빛은 하나님이 피조물의 최고의 행복을 만들고 다스릴 때 자신의 영광을 전혀 또는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 결과 이성적 피조물이 모든 행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 목적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없으며, 각자의 성향대로 행동해도 하나님이 불쾌해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는다.—만약 인간의 행복을 최대한 증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고 유지하며 통치하는 데 있어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이라면, 왜 그분의 무한한 능력, 지혜,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목적은 크게 좌절되고 인간 대부분은 불행한가?—왜 아프리카, 타르타리아, 그린란드, 아메리카, 그리고 브리튼 섬의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행복하고 존귀하며 건강하고 지능적이고 유용하지 않은가?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작품임에도.—그분은 그들에게 자유 의지를 주었지만 그들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다스리지 못하는가? 아니면 악독한 제사장들이 그분의 자비로운 의도, 현명한 계획, 전능한 권능을 좌절시켰는가?—장래 세계에서의 구원적 교정이 인간이 이 생에서 자신이 자초한 고난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주장은 헛되다.—만약 하나님께서 죄악에 완강히 매여 죽는 자들에게 장래에 은혜를 낭비하는 것을 어리석다고 여기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또는 그분이 그런 자들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기로 결정하셨다면?—만약 인간이나 그 밖의 어떤 것이 그의 이 생애에서 주된 혹은 유일한 목적을 증진하려는 모든 노력을 무산시킬 수 있다면, 왜 영원히 무산시키지 못하겠는가?—아니, 인간 행복을 극대하는 것이 그의 주된 혹은 유일한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그분은 무한한 능력, 지혜, 선함과 일치하여 인간이 조금이라도 불행하도록 허락할 수 있겠는가?—따라서 인간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데 있어 하나님의 주된 목적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완전하심을 나타내는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그렇다면 그 중요한 목적을 방해하거나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는 무한히 중하다.—그렇다면 인간이 그 목적이나 그에 의존하는 자신의 영원한 복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가?—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경멸하고, 자신—세계의 무한한 창조주이자 유지자, 통치자—를 살해하려는 시도로 보고, 모든 피조물이 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복지와 존재를 파괴하려는 일을 방관하실 것인가?—아니, 설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 세계 창조와 다스림의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 해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에서 그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할 의무가 있다.—친구가 자유로이 우리의 필요를 제공할 때 자신의 영광을 주된 목적으로 삼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감사의 표시로 그분의 영광을 주로 고려하는 것은 의무일 수 있다.

#### IV. 자연법과 계시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이 무죄한 이성적 피조물에게 자연법을 충분히 알리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은 지체 없이 인정한다. 그러나 그분이 현재 인간 상태에서 그것을 완전하고 명확하게 알리거나 그럴 의무가 없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었다. 만약 그분이 그것을 충분히 알리도록 의무가 있다면, 자연적 인상이 소실되었을 경우 계시를 통해 그것을 회복시키지 않겠는가?

#### V. 미래의 상급과 형벌, 그리고 자연법

덕에 대한 미래의 상급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연적 관계가 아니라 계약적 합의에 근거한다면 그것이 자연법의 강제라고 입증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악에 대한 미래의 형벌이 자연법의 형벌적, 더 나아가 주된 형벌적 제재가 아니라는 것은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하나님께서 자신이나 피조물에 대한 정의를 위해 그들을 파멸시키려 하는 공통의 적대자에게 진노를 표하지 않으실 수 있는가?—그분이 자신의 무한한 탁월함을 진정으로 여긴다면, 흉악한 신성모독자, 잔인한 살인자, 탐욕스러운 도둑을 가장 덕스럽고 경건한 자들과 차별 없이 총애로 대하실 수 있겠는가?—그분이 죄에 대해 무한히 불쾌해하신다면, 원하시는 때와 장소와 방법으로 죄를 벌하지 않으실 수 있겠는가?—누가 죄 있는 자에 대한 인내의 한계를 정할 권리나 능력이 있겠는가?—그들이 죽을 때까지 계속 죄를 지으면 장래에 벌을 받지 않겠는가?—그들이 할 수 있는 한 오래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도 가능한 한 오래 벌하지 않으실까?—무한한 완전성과 권위에 반하고, 무한히 중요한 목적에 반하며, 무한히 귀중한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로서 죄가 무한히 중하다면, 무한하지 않은 처벌이 어떻게 적절할 수 있겠는가?—또한 유한한 존재에게 무한한 형벌이 아닌 방식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 영원한 저주 외에는?—만약 하나님의 정의가 그러한 형벌 집행을 요구한다면, 그것이 다른 피조물에게 어떻게 유익할지 알아볼 필요가 없다. 그러나 누가 미래의 죄인에 대한 형벌이 경건한 자들의 영원한 행복을 얼마나 증진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선하심에 대한 기쁨 어린 감동을 얼마나 깊게 심어줄지, 또는 세상에서 그것들을 경시한 불경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한 우월성을 영원히 입증하는 데 얼마나 만족을 줄지 알겠는가?—나아가 미래의 고난을 단지 구원적 교정으로 간주하더라도, 설령 그것이 아마도 혹은 가능성만 있다고 해도, 자연법은 인간에게 미래의 기간을 준비하여 음식, 의복, 주거를 제공하라고 명령하며, 그들이 결코 누리지 못할지라도 그 준비를 하라고 지시한다. 또한 모든 알려진 적절한 수단을 다하여 고난을 예방하거나 피하도록 명령한다.

### 제3 장 구약과 신약 성경에 포함된 계시된 종교 기준의 가능성, 바람직함, 필요성, 적합성, 합리성, 신뢰성, 신적 권위, 그리고 내용에 대하여

I.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계시는 인간에게 가능하다.—지혜와 지식이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알지 않을 수 없다.—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한꺼번에 드러내야 할 필요도 없으며,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야 할 의무도 없다.—그가 종교와 관련된 것들을 드러내야 할 필요가 예술과 과학과 관련된 것들을 드러내야 할 필요보다 더 크지 않으며, 그가 적합하다고 보는 대로 하신다.—그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이 처음에는 진정한 미덕과 행복을 촉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드러내게 영향을 미친다 해도, 왜 그 이후에 보다 뛰어난 행복을 촉진하는 새로운 계시를 하지 말아야 하겠는가?—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주위 사람들과 소통할 능력을 주셨다면, 자신에 관한 생각을 소통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만약 그가 모든 피조물에게 자신의 무한한 완전성의 표식을 새기셨다면;—만약 그가 모든 피조물에 구별되는 형태, 색깔, 표정, 목소리 따위를 표기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문체, 서술 방식을 주셨다면, 어떻게 인간에게 자신의 마음을 그의 것임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계시하지 못하겠는가?—만약 그가 자연법에 자비로운 추가를 하신다면, 왜 그러한 추가가 그 신성한 권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 위에 받아들여지지 못하겠는가?—그리고 왜 이 계시를 받기 전 매우 무지했던 사람들이, 그 명백한 조항들과 통제되지 않은 기적과 권능을 통해 그 신성한 권위를 깨닫고 각성되지 못하겠는가?—이 계시가 자연법이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도 않고, 자연법이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면, 왜 자연법 혹은 우리가 누리는 자연의 빛이 드러내지 않은 어떤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겠는가? 혹은 자연법이 요구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금지하지 못하겠는가?—그리고 계시가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자연법이 하나님의 것임을 증명하는 것보다 수학적 증명이 더 필요하겠는가?

## II. 하나님으로부터의 초자연적 계시는 바람직하다

자연법은 사람들이 창조된 상태에 머무는 동안에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데 완전히 충분했지만—죄가 들어와 사물을 어지럽히면서 그것이 충분하지 않게 되었을 수 있다. 무지는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죄책감은 그들의 양심을 두렵게 하며, 악덕한 성향은 그들의 의지와 정동(affections)을 왜곡했다.—그들의 영적 구조 전체가 매우 약해져서 자연법조차 알거나 순종하도록 자극하고 능력 있게 하는 보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그리고 인간의 가르침과 자극이 유용할 수 있다면, 신적인 것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만약 그것들이 제공된다면, 왜 그것들을 흔쾌히 감사히 받고 실천하지 않겠는가?—이성만으로도 사람들이 충분히 경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이성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가장 경건이나 미덕의 모습을 보여 주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 의무와 이익에 관해 어느 정도 알더라도, 더 많은 지혜와 지식이 그들을 더욱 미덕 있고 유익하며 행복하게 만들지 않겠는가? 무신론자들이 이성을 지닌 가장 명철한 아만인이 소크라테스, 에픽테토스, 안토니누스, 세네카 등만큼 유익하고 행복할 것이라 주장할까?—사람들이 상당한 정도로 자기 의무를 알고 있더라도, 실천하는 데 자극과 지시가 필요하지 않겠는가?—건전한 이성만으로도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며 그의 피조물을 다루는 방법을 지도할 수 있지만, 타락한 이성은 그렇지 못하다.—이성만으로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원수로 만든 후에 그의 우정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게다가 만약 이성만으로 사람이 미덕과 행복으로 올바르게 인도되고 적절히 자극된다면, 왜 소크라테스, 플라톤, 키케로, 세네카 그리고 같은 성격의 무수한 이들이 그들의 값비싸고 지루한 가르침으로 세상을 괴롭혔겠는가?—사람들의 타고난 하나님의 선의가 그들의 이성을 충분히 도와 미덕에 이르고 행복으로 이끈다는 주장은 어리석다. 전 세계 곳곳에 그런 무신론, 불경건, 악의가 만연한데 타고난 선의를 말하는 것은 어리석다.—철학이 인류의 오류를 고치거나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똑같이 터무니없다.—이교 철학자 중 극소수만이 도덕 교사임을 자처했다.—그들 중 도덕 교사가 된 자들도 이웃에게 가르침을 시작하는 신적 권위를 제시하지 못했다.—그들 가운데 우상 숭배, 수간죄,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만연한 다른 악습에 대해 비판하는 강의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리고 도덕에 관한 그들의 강의를 그들 자신의 행실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경우도 거의 없었다.—그들은 결코 온 마음과 영혼과 정신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더 높은 덕목들을 다루지 않았다.[레 19:18] 그들은 하나님의 탁월성, 권위, 자비에서 비롯된 진정한 덕목에 대한 주된 동기나, 말할 수 없이 큰 행복과 고통의 미래 영원성에 관한 명확하고 분명한 관점을 동원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강화하지 않았다. 그들은 불안정하거나 완전한 미덕이라도, 죄악된 결함에 대한 완전한 속죄 없이는 하나님이 이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증거를 주지 못했다.—그들의 견해는 또한 너무 다양하여, 아무도 거기서 무엇이 미덕이고 혹은 악덕인지 확실히 배울 수 없었다.—그리고 지금도 순결, 정직, 자비, 혹은 진지한 경건의 아름다움에 관한 철학적 설교가 난봉꾼, 강도, 무신론자 모임에 얼마나 적은 개혁을 가져올지 상상해 보라! 자연의 빛 자체가 우리 진정한 지속적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여전히 분명히 가리켜도, 우리의 게으름, 정욕, 편견, 뿌리 깊은 악습은 진리를 공정하게 탐구하는 데 아주 부적합하게 만든다. 대부분 사람은 세속적 일과 다양한 관계 때문에 자연종교 원리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낼 수 없다. 그런 고된 작업을 실제로 착수하거나 성공한 사람은 소수이다.—그들이 얼마나 찾아봐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행복의 미래 상태가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줄 수 없었다.—이 둘은 미덕의 완전성, 심지어 어느 정도의 미덕이나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 반드시 알려지고 확고히 믿어져야 하는 것이다.—위대한 천재가 미덕과 행복에서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무지하고 반대에 편견을 가진 이들에게 자신의 발견을 분명하고 효과적으로 펼칠 수 있겠는가?—그가 어떤 양심을 두렵게 하는 권위로 가르침을 선언할 수 있겠는가? 혹은 어떻게 그 가르침을 강요할 수 있겠는가?—비록 관헌의 권력이 그를 지지한다고 해도, 그 권력은 외적인 행위에만 미치고 진정한 미덕의 형식과 본질에는 전혀 미치지 않는다.—더 말할 것도 없이, 소크라테스, 플라톤 및 다른 이교 철학자들이 자신들의 의문을 해결하려는 신적 계시를 열망했던 것; 이교도, 무함마드교도, 유대인, 기독교인들 사이에 수많은 계시 주장들; 심지어는 병든 우리 몸을 위해 섭리적으로 제공된 약물의 준비는, 병든 마음의 의약인 계시가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는 것을 증명한다.—자연법을 이해하고 순종하게 하거나 적어도 그렇지 않으면 얻기 어려운 행복을 더 많거나 더 쉽게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이성이 신적 계시의 권위를 검토하는 데 필요하나, 그렇다고 계시 자체가 불필요하거나 무용하다는 것은 아니다. 이 심사 과정에서도 계시는 우리의 이성을 자극하고 돕는 데 유용하다.—예술과 학문을 배우는 모든 방법에서 이성인 심판자이자 관리자지만, 그것들이 불필요하거나 무용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이성 자체도 이를 통해 크게 향상된다.—계시의 신성 권위에 대한 외적 증거는 무신론자의 마음에 충격을 주어 그가 하나님이 계시를 확신하고 자연종교 원리를 주의 깊게 살피게 하며, 이로써 계시 신성의 내적 증거를 검토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기적으로 증명되고 예언의 성취는 선한 사람들의 이전 믿음, 즉 하나님의 불변하는 목적과 오차 없는 현명하고 전능하신 섭리를 굳건하게 한다.—몇몇 계시 교리의 신성에 관한 내적 증거와 계시자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메신저임을 증명하고 신뢰를 얻게 하는 기적은, 사람들이 그들의 다른 교리를 처음엔 내적 증거를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받아들이도록 보증한다.—계시는 빛과 함께 오며, 자연법이 마음의 동의나 의지의 동의를 얻기에 충분한 것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마음의 동의나 의지의 동의를 구할 수 있기에, 자연법에 대해 특별히 통찰력이 있어야만 계시를 받아들일 자격이 있다고 볼 필요도 없다.—이성이 계시의 뜻을 발견하는 데 매우 유용하나, 그렇다고 이성이 계시의 심판자이자 근거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이는 내 입으로 먹이를 가져오는 손이 바로 먹이 그 자체거나, 금광에서 금을 발견하는 눈과 금을 캐내는 손이 금의 원인이나 본질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무의미하다.—오히려, 신성 계시에 대한 참되고 구원의 믿음은 단지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지 않고, 전능하신 성령에 의해 우리 마음에 능력 있게 적용되어 드러나는 그 자명한 빛과 능력에 근거한다.

**III. 현재 인류의 상태와 조건에서 참된 미덕과 행복으로 인도하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초자연적 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1. 지금 인류가 타락한 상태에 있으며, 원래 지녔던 선함의 대부분이 결핍되어 있음이 명백하다.—다수의 민사법, 그 제재, 수많은 법적 담보, 채권, 영장, 선서, 약속, 그리고 자물쇠, 열쇠 등의 다수는 인류를 악에서 제지하는 데 그 필요성과 어려움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한다. 이런 모든 제지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선보다 훨씬 더 많은 악이 존재한다.—모든 나라의 역사, 심지어 가장 문명화되고 계몽된 나라도, 악의, 기만, 분쟁, 전쟁, 살인, 강도, 야만적 혹은 변덕스러운 우상 숭배, 미신 이외의 것이 거의 없다.—고트족, 훈족, 타타르, 아프리카 및 아메리카 야만인의 연대기는 거의 잔혹, 잔인, 강도, 살인 등에 관한 이야기만 가득하며, 계시의 빛이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지 못했다.—만약 인간 본성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왜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내적 양심의 가책과 시간적·영원한 형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누구든지 자연법에 가장 반하는 죄를 범하는가?—만약 사람이 타락한 성향을 가졌다면, 그들은 그렇지 않은 완전히 거룩하고 공정하며 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을 수 없다.

2. 만약 인간이 그런 부패한 상태에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에 기초하고 그의 무한 탁월성의 사본인 자연법의 위반으로, 창조와 섭리의 무한히 중요한 목적에서 벗어난 행위로 낙원에서 타락했다는 뜻이다.—따라서 그들의 죄악은 객관적으로 고려될 때 무한히 중대하며, 무한한 형벌 외에는 감당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탁월함과 법이 경멸받고 미움받으며 짓밟힐 때, 또는 자신의 피조물이 학대와 상처를 입을 때, 범죄자들에게 정당한 형벌을 집행하지 않으면 자신에 대한 적절한 존중을 발견할 수 없다.—덕과 미덕의 모든 매력과 보상이 결코 끌어당기지 못한, 그의 탁월함과 친절로도 유혹하지 못하고, 그의 위엄과 권위, 정의로도 위엄을 느끼지 못하는 비열한 자들을 벌하는 것은 결코 천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마땅한 일이다.

3. 그들의 범죄가 극악무도할수록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무한하여 한 번에 견딜 수 없다면, 그 처벌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그들의 본성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처벌 가운데서도 더욱 범죄할 것이다.—설사 그들의 본성이 한 번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피조물들이 온 마음과 혼과 생각과 힘을 다해 진노하시고 정죄하시며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막 12:30; 눅 10:27] 어떻게 그들의 본성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저주와 그 집행 아래서 유지될 수 있겠는가? 타락한 인간은 따라서 어떤 무한하고 전능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그들의 죄에 대해 범죄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만족을 드리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그의 형상에 합당하도록 회복시키지 않는 한 영원히 그들의 죄악과 비참함에 머물러야 한다.—그런 구원자는 오직 한 신성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하며, 이 인격들이 호의롭게 합의하여 그중 한 인격이 그 어려운 일을 맡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무한한 만족이 요구되는 죄에 대하여 회개가 배상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만약 회개가 사람에게 대한 범죄에 충분한 배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인류 사회를 파괴할 것이다. 가장

비열한 반역자, 살인자, 강도라도 감옥에 썩거나 교수대에 매달리기보다 회개를 가장할 것이고, 그의 마음을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죄악된 욕망에 지배받는 사람이 하는 회개는 죄 자체에 대한 진정한 증오를 내포하지 않고, 그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분노나,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의로우셔서 죄를 처벌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과 분노에 불과하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배상이 될 수 있겠는가?—미래의 상태에서 유한한 피조물이 지는 고통이 결코 무한한 만족에 이를 수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런 고통이 인간의 죄성이나 비참함을 조금이라도 없앤다는 증거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만약 창조 이후 거의 끊임없이 고통받은 수백만의 이성적 피조물들이 있음에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4. 만약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회복하는 적절한 방법을 발견하셨다면,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 한 신성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함을 신적으로 계시받지 못한다면, 이성만으로는 죄인 구속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은폐된 구원의 방법은 무죄하고 신적인 구속자가 우리를 대신하여 처벌받고, 우리의 유죄를 그를 통해 정당화하는 하나님의 정의를 충분히 변호하지 못한다.—구속의 방법이 계시되어야 우리가 그것을 숙고하고 기꺼이 수락하며, 우리의 구속자를 알고 그의 축복을 받으며 감사의 마음을 자연법이 규정하지 않은 적절한 의무 행위로 나타낼 수 있다.—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과 매우 다르게 행동하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 인간 앞에서 옳음을 변호하는 데에도 필요하다.

#### IV. 인류 구원에 관한 계시의 조건

인류 구원에 관한 어떤 계시도 그 신적 권위 또는 하나님의 기원이라는 충분한 내적·외적 증거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중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내적 증거에 대하여,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성에 어울리지 않거나 자연법과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자연법을 해명하고 확인하며, 특히 주요 교리에서 인간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나님의 인류 구속에 관한 새롭고 중요한 신비를 드러내며; 죄 사함과 미래의 행복에 대해 자연법이 전혀 또는 거의 희미하게 암시하는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주요 진리들 중 일부는 보통의 왜곡 없는 독자도 쉽게 인식할 정도로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지혜롭고 거룩하며 의롭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신실한 분으로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주고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을 강력하게 억제하며;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견고한 덕을 증진시키는 완전한 통일성을 지녀야 한다.—외적 조건으로는 최초 계시를 전한 이들이 빼어난 덕행을 지니고 그 가르침을 실천적으로 보여주며; 주요 설파자가 자신이 요구한 덕행의 완벽한 본모습을 제시하고; 그와 하위 설파자들이 자신들과 타인을 부당하게 믿게 만들 정도의 세속적 명예, 권력, 부, 영향력을 지니지 않아야 하며; 최초의 출판 혹은 중요한 부흥 시기에 공개적이고 명확하며 통제되지 않는 기적들이 있어 출판자의 하나님의 사명임을 증명하고 인류가 그 메시지에

주목하여 검토하고 수용하도록 했으며; 주요 설파자들이 그들의 사역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정과 보호를 받았어야 한다.—이 계시는 인간이 필요로 하거나 견딜 수 있을 때 점진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하나님의 신적 표징, 성질, 방식을 상세히 검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주로 공개되어야 하며; 주요 공개는 인간의 마음과 행동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고, 민족과 교회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들과 함께 일어나 그 날짜와 기타 환경이 후대 검증에 더 개방적이어야 한다. 주요 역사는 적과 아군 모두가 입증해야 하며;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그것을 한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장소로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달하는 데 남다른 보살핌을 보였어야 하며; 기적이 너무 자주 반복되면 그 힘이 약해지므로 정확하게 성취된 많은 예언이 기적을 대신해야 한다.—이교도, 무슬림, 로마교회 계시는 이러한 바람직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적 계시의 특성으로 검증하면 명백히 거짓임이 드러난다. 그러나 그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관한 진정한 계시의 존재를 암시한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처럼 많은 이가 계시를 위조하려 하겠는가?—하지만 우리 성경에 담긴 계시는 이러한 기준이나 다른 적절한 특성으로 더 엄밀히 조사할수록 그것의 탁월함과 적합성, 신적 권위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 V. 구약과 신약 성경의 내용과 이성

구약과 신약 성경의 내용은 이성과 완전히 부합한다. 사실, 한 신성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교리, 도덕적 악의 기원, 하나님의 자비, 구속의 방법, 효과적 부르심, 칭의, 성화, 영광의 영생,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인간과의 연합과 교제,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 하는 경배, 인생 고난과 죽음 두려움에 대한 참된 위로의 근거, 일반부활과 최후심판의 확실성과 형식 등 주요 교리는 순수 이성으로 밝혀낼 수 없다. 오히려 이성은 그것들이 가장 깊고 복잡한 탐구를 초월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엄숙한 의식과 완전한 증거와 함께 그것들을 계시하는 일이 부적절할 것이다.—하지만 그런 교리가 신적 계시로 드러날 때, 각각은 완전히 올바른 이성과 일치한다.

우리 성경에 계시된 한 신성 안 세 인격의 신비는 인간 이성이 탐구하거나 이해하는 데 가장 큰 한계를 지니지만, 그럼에도 완전히 합리적이다. 무한 총만한 무한 실체가 동시에 여러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은 유한하고 피조된 실체에게 불가능한 것과 달리 전적으로 합당하다. 한 수적 혹은 개별적 신적 실체가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한 서로 다른 여러 인격 안에 존재하는 것, 또는 정확히 세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의 이유는 하나님 존재의 자존재, 비계승적 영원성, 절대적 무한성 같은 성질들만큼 이성에 더 이상 이해 불가능하지 않다. 순수 이성은 한 신성 내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단서조차 제공하지 않지만,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수많은 탁월성이 있을 수 있다고 강력히 암시한다.—창조와 섭리의 행위에서 하나님의 세 인격 존재에 대한 명백한 흔적이 없지만, 이성은 그것이 참일 수 있음을 제한한다.



이성과 경험은 인간이 저마다의 손으로 낸 흔적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실제 탁월성, 경건, 자비와 같은 덕성을 가진다고 증언한다. 피타고라스, 플라톤, 트리스메기스투스, 일부 중국 철학자들이 남긴 한 신성 내 세 인격에 관한 어렵פות한 흔적들 역시 의심 없이 계시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이 신비가 이성과 양립함을 보여 준다. 나의 이성엔 무한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한히 더 잘 아시므로,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자기 묘사들을 기꺼이 믿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한다.—더 나아가, 이 신비로운 한 신성 내 세 인격의 실존이 없으면 타락하여 비참한 인간의 구속은 절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신적 인격이 보내는 자이자 보내심을 받은 자, 채권자이자 채무자, 법적 심판자이자 정죄받은 범죄자, 벌하는 자이자 벌받는 자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연의 작품에서 어떤 징후도 발견하지 못하는 완전함이 하나님께 있다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든 인류 개개인을 저주하는 것이 합당하겠는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전체 또는 일부를 그 타락한 상태에서 회복시키려 하신다는 가정을 전제로 할 때, 이성엔 중보적 계획 전체가 계시되었을 때 단지 이성엔 부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대다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전부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매우 합당하다고 판단한다.—죄에 대한 무한한 만족이 용서를 사는 데 필수적이므로, 오직 무한한 인격만이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그렇다면 삼위일체의 둘째 위격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 우리의 본성을 취하는 것은 얼마나 이치에 맞는가? 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밀하게 하며, 또 우리의 모범으로서 무결하고 고귀한 덕의 길을 본보이고, 무엇보다 죄를 범한 바로 그 본성 안에서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고 변호하는 일을 하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모든 것이 인류 회복엔 필수적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의 신성한 보증인의 영광은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비례하여 증진된다.—이성과 경험 모두 타락한 인류를 실제로 회복할 수 있는 더 쉬운 방법은 없었다고 증언한다.—이집트인, 갈대아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인도인, 골족의 모든 철학, 유대인과 그 회심자들의 값비싼 의식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온갖 구속과 엄중한 징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점점 더 악해졌으며 속이고 속았다.[딤후 3:13]—이러한 구속 방식을 통해 하나님과 중보자의 영광은 충분히 확보되고 찬란하게 드러난다.—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본래 그 자신의 것이므로, 그는 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꺼이 그 생명을 아버지의 공의에 내어드렸다. 그는 그의 죽음으로 인해 자신이나 세상에 아무런 손해도 입히지 않았다. 낮아지고 고난 받고 수고한 대가로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모든 것 위에 영원한 영광과 존귀를 받았다.—비록 사악한 사람들이 도구적으로 그의 생명을 빼앗았으나, 스스로 자발적으로 생명을 내어준 행위가 그의 고통과 죽음을 인간 죄에 대한 온당한 속죄로 만들었다.—이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빛나게 드러난다.—그가 죄인들을 적절하고 충분한 만족 없이 행복하게 하였다면, 사람들은 그의 율법 위반을 거의 죄로 여기지 않아 점점 더 범죄하도록 조장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들의 모든 죄를 그들의 보증인으로 세운 아들에게 온전히 벌하시고 법적으로 그들의 죄를 전가하였을 때, 어떻게 사람들이 그가 무죄한 자를 미워하고 죄인을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오히려 그는 무한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셔서

부정을 미워하시며, 법적으로 죄를 담당한 자신의 아들이 벌 받지 않고 넘어가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심이 드러난다.—이 속죄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사랑이 사람에게 존귀하게 나타나고 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이로 말미암아 중보자를 위하여 죄 사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 자신으로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 은혜이다.—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재나 의식적인 태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가치함과 하나님의 무한한 위대함과 거룩함으로 인해 죄인과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호의적 교제를 가지지 않으심을 뜻한다.—이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연약함, 죄책, 오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고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한다.—또한 이는 우리 죄 많고 비참한 상태에 맞춘 하나님과의 효과적인 교제 수단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자유롭게 제공함을 보여 준다.—그렇다면 이성은 어떻게 모든 사람이 이런 구속 계획, 이런 중보자, 이런 대리, 이런 중재가 하나님에 의해 마련되고 확립된 영원하고 상상할 수 없는 행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영원한 저주를 자진하여 감수하도록 가르칠 수 있겠는가?—이처럼 합리적인 구속 계획을 전제로 한다면, 그 구속 계획이 의도된 각 사람은 구속자의 구원 머리 안에서 특별히 택함을 받아야 하며, 그가 맡은 모든 사람을 영원한 복락의 동참자로 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그들의 죄가 구속자의 약속과 본성 취임의 결과로 그에게 전가되고 만족되었으므로, 그들이 보증인과 남편으로서 그와 연합함에 따라 그의 대신 이루어진 의는 법적으로 그들의 공로로 인정되며, 의롭다 하심, 입양, 성화, 영적 위로, 영원한 영광의 모든 복이 그 안에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고 이성은 요구한다.—성경에 나타난 이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오해를 함축하지 않는다. 인간의 지체, 정동, 정열, 행위 등은 단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배려로 하나님께 전가된 것으로, 그렇지 않으면 불가지론자 콜린스가 정당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할 것"이기에, 비유적이고 영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하나님은 결코 불거룩하신 분으로 묘사되지 않는다.—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완악하게 하시거나 속이셨다고 할 때, 이는 다만 그들이 스스로 완악하고 속이도록 허락하시거나, 사탄과 사악한 동료들로 인하여 완악해지고 속임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뜻이다.—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자신을 속였다고 고발한 것은 아마 그의 불신앙과 정념에서 나온 언어로, 혹은 그의 말을 "당신이 나를 설득하였고, 나도 설득되었노라(즉 예언하였다)"고 번역할 수도 있다(예 20:7). 하나님은 형벌의 악을 초래하셨으나 악 자체의 근원은 아니시다(암 3:6; 사 45:7).—하나님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다. 애굽에서 나온 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 약속하지 않으셨다.—그들의 광야 체류와 멸망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 이행이 정당히 지연되거나 중단된 것에 불과하다.—그들의 자손이 가나안을 점령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고 부당하게 비난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다(민 14:34). 성경에 승인된 어떤 것도 자연법에 반하지 않는다. 유대 율법은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금지했고 특히 음주와 부모 불순종을 금하였다(신 29:19; 신 21:18-21). 모든 음행과 부정을 강력히 금지했다.—제사장 딸이 음행하거나 간음, 근친상간, 소도미, 수간 등 죄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해졌다. 젊은 여성이 더럽혀져 이를 숨기거나 아내가 은밀히 간음하면 치욕스런 죽음을 면하지 못했다(레 18; 레 20; 신 12:20-21; 민 5).—노예를 더럽힌 자는 몸값을 지불하고 징계를 받았다(레 19:20-22). 서술은 여호와와 회중에서 제외되었다(신 18:1-8).—정직과 자비가 강력히 권장되었으며, 사람들은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원수의 소와 나귀도 친절히 대하며, 낯선 자와 과부, 고아를 돌보아야 했다(출 22:21-22; 레 19:10 등).—사실 일부 율법은 독특하고 모호하였으나, 이는 더 명확한

율법들에 의해 해석되어야 하며, 간결한 역사에서 여러 내용이 누락되어 그 의미와 적합성을 완전히 밝히지 못했음을 감안해야 한다.—하나님은 인간 생명의 절대적 주권자이시기에,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이는 단지 아브라함의 신앙과 순종을 시험하고 존중하려는 목적이었으며, 시험이 완료되었을 때 즉시 그 행위를 중단시키고 복을 내리셨다(창 22; 히 11:17-19).—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명령받았을 때, 그들이 수년간 겪은 고된 노역에 대한 보상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부를 애굽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상실한 것이므로 요구(빌림이 아님)하고 취한 것은 매우 합리적이다(출 3:22; 출 12:35-36).—미디안인, 가나안인, 아말렉인이 간음, 우상 숭배, 살인으로 생명과 재산을 하나님의 공의 아래 잃었으므로,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빼앗을 자를 정할 완전한 권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일을 맡긴 것은 적절했다. 이는 그들이 그러한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민 25; 민 31; 신 7; 레 18; 레 20; 수 6-12; 민 21; 사 4; 출 17; 삼상 15).—하나님의 위임 아래 비네하스, 에후드, 엘리야, 에후가 죄인들을 처벌하거나 적으로서 행동한 것은 정당했다(민 25; 사 3; 왕상 18; 왕하 1; 왕하 2:24; 왕하 9:7-8).—우상 숭배, 신성 모독, 주술은 만국의 왕이시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대역죄이므로, 이를 사형으로 다스린 것은 매우 적절했다. 만약 이러한 형벌이 유대인을 이러한 추악한 죄악에서 효과적으로 막았다면, 유대인과 인근 이방인 모두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며 수많은 고통을 예방했을 것이다.—하나님은 자녀를 부모의 죄에 대해 벌하지 않으시지만, 자녀가 그 죄에 연루되었거나 스스로 다른 죄로 형벌을 받을 만할 경우에는, 부모의 죄 때문에 특정 형태로 형벌을 받기도 한다(출 20:5).—고라의 무죄한 자녀들은 그의 벌을 받지 않았다. 다만, 아비람, 아간의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멸망한 것은 아마 그들도 죄에 동참했기 때문일 것이다(민 26:10-11; 민 16:27-33; 수 7:24-25). 기브온 사람들이 교수형 당한 사울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헌신된 외국인들을 사울이 배반적으로 살해한 일을 악하게 옹호한 자들인 듯하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그들의 합법적 약속을 위반하지 말라는 특별한 경고였다(삼하 21:1-9).—포경하지 않은 히브리 아이들은 분별력에 이른 후에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인 포경을 거절하여 경멸하지 않는 한 죽음에 이르지 않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됨'은 단지 그의 교회에서 제외됨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창 17:10-14).—그러나 자녀들이 부모 죄의 형벌에 고통받는 일이 자주 있음은 확실하다.—이는 국가 반역자의 재산 물수와 같이 인간의 손에 의한 경우도 있고, 홍수, 지진, 화재, 대학살, 국가나 도시의 멸망 같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도 그러하다. 또한 보통의 경우에도 자녀들은 부모의 게으름, 낭비, 기타 악행과 불량 교육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고통을 자주 겪는다. 분노와 원망은 성경에서 엄격히 금지된다(잠 25:21; 롬 12:17-21; 마 5:45-48; 눅 6:26-36).—엘리아와 엘리사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명령을 받고 우상 숭배와 신성 모독에 관여한 주모자만 처벌하였으며, 경건한 자를 살해한 자가 있다면 세속 권력에 의해 사형당할 만한 일이었다(왕상 18:19-40; 왕하 1:9-12; 왕하 2:24; 왕하 9:7-8).—예레미야는 박해자들의 멸망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다른 이들을 위한 경고로 예언하였다(렘 11; 18; 20; 28-29; 36; 44). 여러 시편 표현 역시 원망 어린 소원이 아니라 다윗의 불굴의 적, 특히 그의 모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가침 적들에게 임할 엄한 형벌 예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더욱이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특별한 왕이셨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이러한 심판 청원들은 그에게 적절한 보호와 구제를 요청하는 합리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시 5-7; 35; 40; 57; 59; 64; 70; 79; 109; 140).

유대인들은 보다 일관된 외적 섭리의 영향 아래 살았으며, 우리처럼 미래의 상벌에 관한 뚜렷한 계시를 받지 못했기에, 특히 악행의 주모자들에게 외적인 엄격함을 행사하는 일이 어떤 경우에는 더 필요했다. 사무엘과 예레미야는 거짓을 말한 적이 없고 단지 계시할 필요가 없는 것을 숨겼을 뿐이다(삼상 16:1, 5; 렘 38:26-27). 이집트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이 수월하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도 없다(출 1:19). 라합은 자신의 나라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불가피한 멸망을 보고 자신과 친구들의 안전을 도모했을 뿐이다. 그녀가 히브리 정탐꾼들에 관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받아들인 믿음 때문에 칭송받는다(히 11:31). 성경은 어리석거나 터무니없는 것을 결코 명령하지 않는다. 옙과 아합에 대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는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하나님은 가인, 발람 등과 대화하시는 것처럼 사탄과도 대화하실 수 있다(옙 1-2; 왕상 22). 호세아의 결혼도 비유적일 수 있고, 혹은 인격이 훌륭한 여인과 결혼했으나 결혼 후 음란하게 된 경우이거나, 음녀였으나 현저히 회개한 여인과 결혼한 경우일 수 있다(호 1; 3). 이사야가 벌거벗고 맨발로 행한 것은 그가 겹옷과 신발을 벗은 것에 불과하다(사 20). 에스겔이 예루살렘을 묘사한 기와를 포위하고 430 일간 옆으로 누워 거름으로 구운 거친 빵을 먹는 것 등 예언자들의 상징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이상하지 않았으며, 백성이 이를 이상하게 여겼다면 오히려 그들을 경각심에 더욱 적합하게 만든 것이다(겔 4-5; 8; 12; 21; 24; 렘 13; 18-19; 35 등). 그리스도의 비유들은 청중을 속이려는 목적이 아니라, 특히 고대와 동방의 관습에 따라 그들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쉽게 기억하며, 수용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신중히 숙고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칼과 다툼은 그리스도의 세상 오심의 엄밀한 목표나 적절한 결과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의 구원의 가르침을 거부함으로써 생긴 결과일 뿐이다(마 10:34; 눅 12:49). 그는 결혼을 자발적으로 철폐하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거세를 결코 허용하지 않았다(마 19:12). 가난한 자가 행복하고 부자가 불행하다고도 선언하지 않았으며, 특정 근거 아래 자연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경우에만 그러한 진술을 했다.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경우에 따라 자연의 빛에 부합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순종하는 행위라면 하나님은 그들이 손해 보게 두지 않는다. 상처를 용서하는 것은 중국의 유명한 철학자 공자가 권장한 높은 차원의 자비다. 더욱이, 그리스도의 표현이 보통 그들에게 잘 알려진 것들을 가리켰기에 우리보다 훨씬 명확했다(눅 11-12; 15-16; 마 19; 5-7; 18). 성경에서 긍정적 예배 제도가 그 밖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완전성에 반하거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 1. 긍정적 제도에 대한 이해

1.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인지하거나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한 제도를 제정할 충분한 이유를 아신다. 그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인간을 창조했기에, 그 의지에 기초한 법률을 정하여 인간의 순종을 시험하는 것은 매우 합당하다. 만약 세상의 권세자들이 백성의 복리를 위해 본질적으로 절대 필요하지 않은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면, 절대적이고 무한한

권세를 가지며 지혜와 선하심이 무한한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영광과 직결된, 특히 종교 문제에 관한 몇몇 긍정적 법을 제정할 수 있다. 이는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상상력이나 선택에 맡기기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2. 유대인의 의식들은 출애굽 이후 대부분 제정되었고(렘 7:22-23), 도덕적 의무와 동등한 중요성으로 명령된 적 없으며(호 6:6), 본질적으로 나쁘다고도 평가되지 않는다. 다만 유대인들의 관행과 그리스도 부활 이후에도 지속한 준수는 강하게 비판받는다(호 11:12; 사 1:11-15, 29:13, 66:3).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행되었을 때 이 의식들은 그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영구하고 공개적으로 기념하였다. 그들은 이방인과 구별되어 추악한 우상 숭배와 미신에 대한 열정을 억제했고, 어떤 불분명한 유대 의식은 이러한 미신적 의식에 암시를 주었을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에서 보호하는 데 기여했다. 일부 의식은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을 나타내며, 그들을 주권자로서 두려워하는 하나님 아래에서 그들의 일을 규제했다.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인격, 직무, 신분, 왕국과 축복에서 예표하며, 그를 갈망하고 그의 성품을 바르게 검토하고 맛있게 준비하도록 했다. 이 의식들의 부담은 죄책감을 증대시키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일깨워 약속된 구원자와 그의 편안한 명예를 간절히 바라게 했다. 제정된 의식들 가운데 위험한 것은 없었다. 할례는 은혜 언약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언약을 확증해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했고, 아마 청결, 건강, 다산을 증진했다. 대부분 금지된 고기는 더운 기후에서 건강에 해로웠다. 많은 정결 의식이 건강과 활력을 증진시켰다. 제한된 음식은 악덕 전염을 피하도록 상징적으로 가르쳤다. 거룩한 제사는 좋은 것을 예표하고 죄에 대한 반성과 겸손을 촉진하며 제사장을 유지하는 데 쓰였다. 속죄 제사는 범죄자에게 부과된 벌금의 역할을 했다. 인간 희생은 철저히 금지되었다. 레위인은 가나안의 12 분의 1 을 소유할 권리가 있었으며, 성스러운 일을 맡다 보니 들에서 농사짓거나 세상 일을 할 수 없었으므로, 형제들로부터 곡식의 십일조를 그들의 공적 봉사의 대가로 받는 것이 적합했다. 기독교의 긍정적 제도는 매우 적고 명백히 함리적이다. 이성인 사회적 성향을 지닌 인간이 사회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이를 위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한다. 고대의 안식일은 주 제칠일로,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심을 기념하고, 행위 언약에서 일과 휴식 질서를 나타낸다. 기독교 안식일은 주 첫날로, 그리스도 부활을 기념하며 은혜 언약에서 휴식, 위로, 봉사의 질서를 상징한다. 이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함으로 하나님은 그 날들에 인간의 필요와 자비를 위한 예배를 중단하는 것을 허용한다. 종교는 인간의 주요 사업이자 특징이므로, 정기적이고 정식으로 임명받은 목회자가 이를 설명하고 주입하며, 다른 이들을 가르치고 감시하여 미덕을 증진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 구약과 신약 모두 교회 교리, 예배, 규율, 통치에 자신들의 발명된 법이나 의식을 도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적·특별한 규정을 설명하고 주입하며 적용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청중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교리와 규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밀하게 시험하도록 권면한다. 목회자의 유지비용 부담은 청중에게 지워지며, 통상 목회자를 시험할 능력이 있거나 지녀야 할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부과된다. 교회 직분자는 세속 권세를 사적으로 횡령하거나 피통치자 위에 영적 군주로 행세하는 것이 명백히 금지된다. 신약의 성례는 둘뿐이며 이해하기 쉬운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이시며 하셨으며 하실 일을 명확히 기념한다. 성례는 그리스도의 영적

정화와 양육을 우리 영혼에 나타내고 확증하며 적용한다. 물, 떡, 포도주(포도주가 없으면 다른 음료) 등 이 물질적 상징물은 어디서나 구할 수 있다.

## 2. 긍정적 제도의 신학적 의의

3. 하나님이 자신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본질적으로 종립적인 몇몇 긍정적 제도를 제정하는 것은 그분의 온화한 통치와 무한한 선하심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만약 하나님께서 피통치자들에게 무관심한 어떤 것도 금지하거나 요구하고, 자신의 예배를 우리의 감각에 더욱 엄숙하고 인상 깊게 하기 위한 몇 가지 예식을 제정할 권한이 없었다면, 그는 무한히 높고 최고인 통치자라기보다는 오히려 노예일 것이다.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피통치자들을 돕기 위해 몇 가지 교육적 보조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비추어 충분히 유익할 수 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이 그 방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긍정적 제도는 자연계의 수천 가지 사물과 마찬가지로 매우 유익할 수 있다. 하나님이 긍정적 제도를 일시적으로 제정하셨더라도, 그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폐지하지 않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불변성과 충돌하지 않는다. 계절의 변화,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의 교대도 마찬가지이다. 이 긍정적 제도들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표시하는 가장 두드러진 분노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무한한 관용을 예배 형식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면, 그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부적절한 생각을 촉진할 수 없다.

4. 이러한 긍정적 제도들은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명확히 드러내며,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자연법 준수에 자극하고 도우므로 자연법의 권위나 존엄을 훼손하거나 미신으로 대체하지 않는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류 복리를 위하여 제정된 것이기에 독단적이거나 전제적일 수 없다. 내가 창조주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해서 이성의 적이거나, 미덕 증진을 위해 그가 정한 수단을 사용한다고 해서 미덕의 적이거나, 자연법을 잘 지키기 위해 그의 지시를 따른다고 해서 자연법의 적인가? 성경은 자연법을 긍정적 제도를 위해 내어팽개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준수는 자연법이 요구하는 의무보다 훨씬 못하거나, 절대적으로 도덕적이고 덕 있는 것을 증진하는 범위 내에서만 의미 있다(호 5:6; 6:6; 고전 6:13; 골 2:20; 갈 5:6, 6:15; 벧전 3:21; 롬 2:28-29). 하나님이 직접 제정한 예배 예식을 준수하는 것이 어떻게 인간의 발명품 준수로 유인하거나 반드시 그것을 도입하는 일인가? 하나님보다 예배 의식을 더 잘 아는 존재가 어디 있으며, 그의 자기중립적인 의식 제정이 인간의 유사한 발명을 배제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제정한 의식은 인간이 그것을 우상 숭배적으로 존중하는 일을 더 효과적으로 막지 않는가? 하나님 축복을 청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분의 제도를 버리고 어리석고 거룩하지 않은 인간 발명품을 도입하는 것이 온당한가? 예배 의식 제정 권한이 무한히 지혜롭고 강력하며 주권적인 하나님보다 연약하고 악한 인간에게 있어야 하는가?

5.

이와 같은 긍정적 제도들뿐 아니라 모든 다른 축복들도 사람들이 남용하여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나, 그것이 그 제도들 자체를 해롭다고 만들지는 않는다.—놀랍지 않은가! 무한히 은혜로우신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분을 본받도록 인도하는 제도들에 대한 존중이 어찌 하찮은 일로 서로를 저주하고 멸망시키도록 필연적으로 이끄는가?—하나님의 규례에 대한 열심이 어찌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발명품에 대해 사람들을 맹목적인 독단자로 만들 수 있는가?—연대마다 하나님의 제도에 열렬히 붙잡는 사람들과 그것들을 경멸하는 사람들 중 누가 더 맹렬한 박해자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규정된 예식을 열렬히 지켰던 것이 로마와 독일의 황제들, 페르시아, 프랑스, 심지어 영국의 왕들, 사부아 공작 등으로 하여금 기독교인, 왈도파, 개신교인 등을 맹렬히 박해하게 만들었는가?—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충분한 증거 아래 하나님의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찌 악마적 혹은 인간적 미혹을 받아들이게 하는가? 쿼커 교도들이 하나님의 긍정적 제도를 거부하는 이들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미혹에 취약하지 않은가?—이 하나님의 긍정적 규례들은 자연법을 지키는 데 실제로 도움이 되는데, 어찌 그것들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짐이 되고 불행하게 만드는가?—인생의 모든 이점에는 상응하는 위험이 따르지만, 사람들이 그러한 도움을 남용한다면 적절한 벌이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합리적 존재들이 이성을 남용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내적 고통과 유사한 위험에 처하고 다음 세상에서 영원한 멸망까지 받을 위험이 있기에 짐승보다 더 불행한가?—명백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제도들은 그에 관한 고통스러운 의심에 아무도 노출시키지 않는다.—심지어 그 제도를 집행하는 자들의 권위도 대부분 쉽게 분별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 [마 7:20]—그리고 시간, 장소 등 여러 환경이 증명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자연법의 많은 법들도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우리의 불신자들이 믿고 행하는 것들 중 상당수는 증명의 적절성이 훨씬 덜 확실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 성경 계시의 합리성과 명료성

성경에 담긴 계시는 그 내용뿐 아니라 그 형식에 있어서도 합리적이다. 그들이 의존하는 주요 교리들은 일부 혹은 여러 구절에서 너무도 명백히 선언되어, 성령의 영향 아래 진지하게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원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덜 중요한 몇몇 진리는 모호하게 제시되어, 가장 학식이 높은 자들도 하나님의 앞에서 그 무지함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계시의 친구들이 서로 다른 견해도 불구하고 서로 자비를 베푸는 계기가 된다.—중요한 진리 중 거의 하나도 한 구절에서 완전히 선언되지 않았기에, 사람들이 주제를 다루는 모든 구절을 탐구하고 신중히 비교해야 할 의무가 있다.—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성취가 결코 방해받거나 모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많은 예언들이

상당히 모호하게 설정되었으며, 한 구절과 다른 구절을 열심히 탐색하고 비교하도록 하기 위해 일부 명령들이 완전히 명확하지 않은 것도 적절하다. 어떤 암시들은 명백한 필요 없이 반복되며, 유대인들에게 더 유용할 수 있는 덜 중요한 어떤 것들이 더 명확히 계시된 경우도 있다. 호메로스와 다른 유명 작가들의 저작들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계시의 가르침은 규칙적 명제로 제시되지 않고 수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는다. 그러나 자연법의 법칙들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유클리드의 하참은 명제 몇 개는 계시나 자연법 어느 쪽보다 더 증명 가능하다.

계시는 도덕의 규칙을 느슨하게 제시하지 않고, 각계 각층의 사람들, 즉 법관과 피치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주인과 종 등 모두에게 지침을 제공한다.—계시는 사람들을 자기 나라의 민법과 형법 아래에 있다고 가정하며, 무한한 지혜로 체계화한 일반 규칙들을 제시하여 모든 개별 사례에 적합하도록 한다. 또한 방대한 분량 때문에 모든 구체적 의무까지 상세히 다룰 수 없다. 성경의 많은 비유적·우화적 표현들은 그것의 고대성을 드러내며,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본문이 진정한 원본임을 입증한다.—유대인과 그리스 사람들이 익숙한 사물에서 차용되어 이러한 비유에 익숙한 자들에게 가장 명백하고 인상적으로 내용을 전한다.—모호해 보이는 부분은 다른 곳에서 더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다. 우리의 불신자들은 호메로스, 키케로, 퀸틸리아누스, 오시안 등의 작품이 비유적 언어가 풍부하다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여기지 않는다.—주석가들과 신학자들이 여러 본문의 뜻을 두고 논쟁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계시의 모호성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교만, 편견, 그리고 새로움에 대한 갈망 때문이었다.—그런데 우리 이교도 학자들도 거의 모든 자연법 조항에 관해 스스로 논쟁하지 않았는가? 그들은 최고의 선과 모든 인간 행위의 주된 목적에 관해 280 가지가 넘는 견해를 갖지 않았는가? 신학자들도 성경 구절 하나에 그렇게 많은 해석을 덧붙인 적은 없다.—성경은 체계적인 형식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나, 일부 바울 서신은 그에 가깝다. 그런 형식은 저자이신 하나님의 위엄에도, 또 일부 사람들의 미약한 인식 능력에도 적합하지 않다.—그럴 경우 사람들은 성경 구절을 탐구하고 비교하는 데 애쓰지 않을 것이며, 다양한 신학적 진리의 다채로운 연결을 즐기지도 못하고, 인간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진리를 적절히 표현할 수도 없으며, 여러 역사적 사실로 유용하게 설명하지도 못한다. 성경에 담긴 계시는 그 제시 방식에서도 합리적이다.

### 계시의 역사적 증거와 신뢰성

세상에 악이 만연하자 하나님은 이에 대항해 초자연적 신탁과 계시를 늘리셨다. 세상 초기에 계시는 적었고, 받는 이들은 수백 년을 살았기에 기억에 의존했다. 계시가 점차 확장되고 수령자들의 수명이 줄어들자, 그것은 보다 효과적인 보존과 전파를 위해 기록으로 남겨졌다. 점진적으로 주어진 계시는 사람들이 그 증거를 갈망하게 하고, 특히 약속된 메시아가 그 완전한 빛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성육신 이전에는 많은 약속과 예언, 징표가 주어져 사람들이 메시아를



분별하고 영접하도록 준비시켰다.—대부분의 계시는 기적이나 엄중한 섭리에 의해 무리를 깨우거나, 평화롭고 조용한 때에 교회가 특별한 위로와 교훈을 필요로 하는 시기와 장소에 주어졌다.—신약 전체가 출판될 때 세상은 은혜로운 기적과 그것을 거부한 유대 민족이 받는 참혹한 재난으로 광범위하게 각성되었다. 이처럼 성경에 담긴 계시는 내용, 형식, 제시 측면에서 모두 합리적이다.

그러나 일단 신적 권위의 적절한 표지가 있는 교리가 계시되면, 설사 그 합리성을 완전히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악하고 부패한 이성이 뚜렷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아시고 계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어떤 선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이성적 이해에 부합하는지 연구하고 확인할 때까지 믿음을 보류하는 것은 끔찍한 건방짐이다. 저명한 불신자 볼링브룩이 훌륭하게 지적하길, “만약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면, 가장 낮은 지적 수준의 피조물들이 무한한 지혜의 계획을 꿰뚫고, 그 깊이를 측정하며, 신비를 드러낸다고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 광기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VI. 성경에 담긴 계시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 그 여러 부분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하나를 받지 않고서는 전체를 받을 수 없다.—각 부분이 서로의 신뢰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신약에는 구약의 예형적이고 문자적 예언들의 성취 역사가 담겨 있으며, 각 성경에도 이전 예언들의 상당한 역사적 성취가 있다.—따라서 우리가 예언을 믿으면 그 성취의 역사도 신뢰할 만하므로 받아들여야 하며, 성취 역사를 받아들이면 예언을 조작된 것으로 거부할 수 없다.

신약의 사건들이 현시대와 가장 가까우므로 먼저 그 신뢰성을 살펴보자.—기독교가 현대의 발명이 아니라 약 1700 년 전에 시작되었음은 로마의 클레멘스,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저스틴 순교자, 이레네우스, 타티안 등의 기독교인들뿐 아니라 타키투스, 스웨토니우스, 티베리우스 세레누스, 플리니우스 젊은이, 에픽테토스, 켈수스, 포르피리우스, 히에록레스,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율리안 등 이교도들에 의해 증언된다.—파일라투스 당시의 기록도 존재했으며, 타키투스, 스웨토니우스, 람프리디우스, 포르피리우스, 켈수스, 히에록레스, 플리니우스, 유대인 요세푸스 등도 예수가 당시 생존하며 추종자 무리를 이끈 인물임을 언급한다.—그처럼 많은 이들이 예수의 자기부인적 종교를 고백한 것은 그가 존재했음에 대한 충분한 확신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당시 많은 작가들은 다른 주제를 다루며 예수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고, 그것에 관한 많은 작품은 회복 불가능하게 소실되었다.

어떤 주요 기독교 출판자들이 우리 신약 성경에 포함된 저작들로 표제된 책을 썼다는 것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그 시대가 기록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했기에, 당시 열렬한 기독교인들이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추종자들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상상하기 어렵다.—AD 200 년 이전에 활약한 바르나바, 클레멘스 로마누스, 헤르마스, 이그나티우스, 파피아스, 저스틴 순교자, 디오그네투스 등과 스미르나, 리용, 비엔느 교회, 고린도의 디오니시우스, 타티안, 헤게시푸스, 멜리토, 이레네우스, 아테나고라스, 밀티아데스, 테오필루스, 판테누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 폴리크라테스, 콰드라투스, 아리스티데스, 아폴리나리우스, 심마쿠스 등의 저작에서 신약 성경 구절 인용이나 암시가 다수 발견된다.—히브리서, 베드로후서, 요한 2·3 서, 유다서도 주로 개인이나 유대인에게 쓰였으며 교회들에 의해 나중에 공적으로 알려졌다나 초기 기독교 작가들이 인용하거나 인정한 것으로 확인된다.—AD 150 경 기독교를 맹렬히 반대한 켈수스도 신약의 수많은 구절을 인용하여 조롱하려 노력하였다.—더욱이 대부분의 책들이 기독교회 때문이거나 교회에 보내진 것이기에 위조되거나 변조되기 어려웠다.—사도적 원본임을 충분히 입증받기 전까지 임시 의심을 품었고, 위조 산문을 열심히 거부했으며, 영감받은 책들과 주된 교사들의 저작들을 명확히 구분하는 등, 충분한 증거 없이는 신적 영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분명히 보였다.—사도적 위작이라 할 수 있는 바울과 데클라의 외경이 발견되면 즉시 인근 교회들에 경고하여 속임수를 방지하였다.—그들은 성경에 대해 매우 열성적이어서 가장 극심한 고문 아래에서도 책을 파괴하거나 넘기지 않았다.—가장 악랄한 적들도 그 진본성을 다투려 하지 않았다.

모세가 유대교의 광범위한 형태를 도입하였고, 이는 기독교가 자리 잡기 전 가나안 땅에서 1500 년간 지속되었다는 사실도 명백하다. 필로, 요세푸스, 그리고 약 1600~1700 년 전에 활동한 여러 유대인 작가들과 스트라보, 저스틴, 플리니우스 장로, 타키투스, 유베날리스, 롱기누스, 누메니우스, 칼키디우스, 오르픽 시편, 디오도루스, 마넛토, 케레몬, 아폴로니우스, 리시마코스, 헤르미푸스, 디온 카시우스, 필레몬, 폴레몬, 아피온, 프톨레마이오스, 헬라니쿠스, 필로코루스, 카스토르, 탈루스, 폴리히스토르 등 이교도 작가들도 모세나 유대의 고대사를 언급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구약성경과 동일한 명칭과 내용을 가진 성서들을 소장하고 있었다.

신약성경에는 이 성서들을 모세와 선지자들, 또는 모세와 선지자들 및 시편으로 일반적으로 구분하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눅 16:29, 31; 24:27, 44; 행 26:22; 28:23; 요 1:45). 또한 구약성경에서 사사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리고 아마도 역대기, 룻기, 전도서, 아가 서를 제외한 모든 책들에서 인용문이 확인되며, 후자의 구절들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암시가 존재한다. 요세푸스, 멜리토, 오리겐, 아타나시우스, 에피파니우스, 예로니무스 등 사도시대 근처에 살던 교부들도 구약성경의 모든 책을 어느 정도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목록을 남겼으며, 룻기는 사사기에 포함시키고 느헤미야를 에스라의 제 2 권으로 간주하였다.

모세의 열정과 충실함은 그가 직접 수많고 중요한 율법을 기록하게 한 동기가 되었다. 고대 이교도 작가들도 그가 책을 저술했다는 점을 충분히 증언한다. 후대 성경 구절들 또한 그가 우리 성경에 기록된 다섯 권의 책을 쓴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대하 23:18; 단 9:11, 13; 말 4:4; 막 7:10; 12:19; 눅 16:29, 31; 20:28, 37; 24:27, 44; 요 1:45; 5:46-47; 행 26:22; 28:23). 구약과 신약 양쪽 기록은 충실히 전승되었으며, 구약 성서는 고대 히브리어 또는 갈대아어 원본의 순수성을 증명하는 충분한 징표를 갖추고 있다. 탈무드와 기타 유대 문헌에서는 우리 히브리어 성경과 동일한 구절들이 다수 인용되고 있다. 번역본 역시 동방 기원의 흔적을 여럿 간직하고 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세속적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은 선지자들을 통해 성경을 감시해 왔으며, 만일 성경의 어떠한 변조가 시도되었다면 반드시 발견되었을 것이다. 약 3000 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과 유다 두 진영으로 분열되어 서로를 적대했는데, 만약 상대측이 하나님 율법이나 모세, 사무엘, 다윗 등 애호하는 선지자들의 기록을 훼손했다면 거센 비난과 폭로가 이어졌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간 직후, 황폐한 땅에 정착한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의 책 사본을 확보하였고, 오늘날까지도 히브리어 원본과 대체로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의 적대와 다툼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조하려는 시도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약 2000 년 전에는 그리스어 번역본이 출판되어 널리 퍼졌는데, 이는 대체로 히브리어 성서와 일치한다. 특히 약 1800 년 전에 작성된 온켈로스의 문자적 갈대아어 주석본은 이 책들을 변개로부터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유대인의 악행을 비판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 성경 원문에서 단 한 구절도 분실하거나 변조했다는 비난은 하지 않았다. 유대인과 기독교인 간에 지금까지 이어진 적대감은 어느 쪽도 거룩한 원문을 변질시키는 것을 부끄러움 없이 감행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약 200 년 전 한 로마 가톨릭 인쇄공이 'hu'를 'hi'로 바꾸려 하자(창 3:15), 유대인과 기타 이들이 유럽 각지에서 거센 항의와 소란을 일으켰다. 만약 유대인들이 성경을 변조하려 했다면, 반드시 자국 민족의 악행이 드러나는 구절이나 나사렛 예수 대신 약속된 메시아를 숨기려는 구절에서 시도했을 텐데, 그러한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기독교가

확산된 후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오류를 지지하기 위해 성경을 해석하려 했지만, 원문을 순수하고 온전하게 보존하려는 열정은 오히려 대단하였다.

서기 500 년경, 당시 교부들의 전반적 무지 속에서라도 마소라 라비들이 문자의 하나하나를 세고 표시하며 그 어떤 문자도 잃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열심히 지켰다. 기독교인들이 구약이나 신약의 원문을 변조했다는 것은 전혀 믿기 어렵다. 너무나도 많은 사본들과 독자, 청중, 심지어 분파가 존재하여 한 사람이 모든 수천 사본과 여러 독자의 기억에 동시에 동일한 변화를 심어 넣지 않는 이상 변조는 불가능하다.

5 세기에 마케도니우스가 변조를 시도했을 때, 경보는 즉각 울려 퍼졌으며 소수의 변조된 사본은 발각되어 수정 혹은 파기되었다. 치열한 종파들은 신앙에 관한 증거를 성경에서 찾고자 했기에, 누군가 성경을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면 엄청난 비난과 고소가 이어졌을 것이다.

호모우시온(Homoousion), 호모이우시온(Homoiousion), 메테르 테오우(Meter Theou), 필리오케(Filioque)와 같은 신학적 용어들은 우리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또한, 서기 600 년 이전 그리스도교 교부들의 저작에는 우리 성경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 수많은 성경 인용이 남아 있어, 만약 모든 성경 사본이 소실된다 해도 거의 완전한 내용 복원이 가능하다.

사도들이 모두 서거했다더라도 성경 정경이 완성되기 전에 자필 원고가 존재하고 널리 알려졌을 가능성은 크다. 서기 2 세기 시리아 안티오키아의 테오필루스, 프랑스의 이레나이오스, 카르타고의 테르툴리아누스, 이집트의 클레멘스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일한 거룩한 책들을 인용하였다. 이는 이들 서적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전역의 모든 기독교 교회에 펼쳐져 있었음을 증명한다.

서기 3~4 세기에 작성된 11 개의 정경 목록 중 7 개가 현재 우리 성경과 일치한다. 오리겐(210 년경)은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제외하고 모두 갖추었으며, 에우세비우스(315 년경)는 모두 포함했으나 야고보서, 유다서, 베드로후서, 요한 3 서에 대해 일부 의심을 표명하였다. 키릴(346 년경)과 서기 364 년 라오디게아 공의회는 묵시록만 제외하였다.

아타나시우스(315 년경), 나지안제누스(375 년), 예로니무스(382 년), 루핀(390 년), 아우구스티누스와 394 년 카르타고 공의회도 모두 포함하지만, 해당 공의회 문서는 일부 외경 서적에 과도한 권위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성서 필사자들은 인쇄공들처럼 무오한 영감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기에, 수많은 사본을 서로 비교할 때 다양한 이본 발견은 불가피하다. 우수한 히브리어 사본 몇 점을 비교한 결과 구약에 800~1000 개 이본이 알려졌다. 약 600 개 사본을 비교한 케니콧 박사는 이보다 훨씬 많은 수천 개의 이본을 밝혔고, 약 125 개 사본을 비교한 밀 박사는 신약에서 수천 개의 이본을 찾아냈으며, 쿠스터와 벵엘리우스가 이를 다듬었다. 이본 수집은 이 성서들을 영감된 책으로 채택한 기독교인들의 열정과 성경 검토의 증거이며, 때로는 새로움에 대한 갈망과 부정확한 번역본이나 중요도가 적은 사본, 때로는 단순한 비평적 편집성향까지 겹쳐 수많은 이본이 모였다.

한편, 비교적 정확한 여러 사본을 신중히 대조하는 방법은 책 교정에 탁월한 수단이다. 테렌티우스 라틴 원고에는 약 2 만 건의 이본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모든 라틴 고전 중 가장 정확한 것으로 평가된다. 만약 125 개 사본을 비교했다면 이본 수는 5 만 건에 이르렀을 것이다. 테렌티우스 작품은 우리 신약성경보다 약 3 분의 1 크기이다.

우리 성경의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사본에서 발견된 이본들은 신앙의 핵심 조항을 단 한 번도 훼손하지 않으며, 반대되는 오류도 성립시키지 않는다. 주로 문자, 강세, 점 등 사소한 부분에 국한된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경 필사자들이 사소한 실수를 하도록 허락하시면서도 중대한 오류로부터 보호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책의 전달 기간이 길다고 해서 신뢰성이 감소한다고 보는 것은 어리석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성경의 안전한 전달은 호메로스,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제노폰 등 그리스 고대 역사가들의 전승보다 만 배 이상 신뢰할 만하다. 이들 역사가들은 2000 년 넘게 그리스 사회를 현재와 매우 다르게 묘사하였지만 그 원본 신뢰성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다. 따라서 성경 역시 마찬가지이다.

예언이 정확히 성취된 사실은 성경의 신적 기원을 더욱 입증한다. 화려하게 장식된 성경 사본도 현존하는 사본이나 선지자 및 사도의 자필본으로부터 유래하지 않은 여타 사본과 동등한 권위를 지닌다. 어느 필사자도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 정본을 비교하여 10 분의 1 또는 20 분의 1 도 채 신중히 교정하지 않은 경우가 없다.

사적인 문서에서 이익이나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사본의 사본을 공인하지 않는 법률가들이 있지만, 이는 가장 공개적이고 변조 불가능한 문서의 사본이 정본으로 인정을 못 받을 이유가 될 수 없다. 만약 그랬다면 세상 모든 고대 문서와 현대 문서들의 대부분은 위조로 인정되어야 하는데, 원본을 제시하거나 원본을 보았다는 서약을 할 수 있는 자는 드물기 때문이다.

묵시록의 전승이 구두나 문서화되었든 간에 그 자체로 변화 가능하거나 불확실하며 이해 불능 또는 무용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어(死語)는 그 의미가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언어들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고 그 단어들의 의미가 더 변하기 쉽다고 가정하더라도, 논쟁 중인 구절이나 용어의 의미는 성경이 기록된 시대까지 추적할 수 있다. 또한 몇몇 단어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거나 필경자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계시가 신뢰할 만하지 않거나 신적 권위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 이는 인간 저작물에 아주 작은 실수가 있거나 우리가 그것들을 잘못 이해했다고 해서 그것들을 전혀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과 같다. 필경은 계시를 손상시키기는커녕 소크라테스, 플라톤 등의 가르침뿐 아니라 계시의 안전한 전달을 위한 매우 탁월한 수단이다.

우리의 계시된 종교는 단순한 음성에 근거하지 않는다. 우리 가슴에도 무신론자들처럼 자연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뜻을 전달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소통하지 않으실 이유가 무엇인가? 철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의 신탁을 탐독함으로써도 그와 같은 확실한 지식을 얻지 못하겠는가? 성경을 올바르게 번역하기 위해 언어와 각 민족의 관습에 대한 숙련이 필요하다면, 자연법에 관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세네카, 에픽테토스, 안토니누스 등의 가르침을 영국 독자나 청자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숙련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계시의 번역자들이 몇몇 단어의 의미에 관해 의견이 다르다면, 자연법을 탐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가 요구하는 덕목의 형태, 동기, 방식, 목적에 관해 훨씬 더 큰 이견이 존재한다. 비록 일반 백성은 성경 번역의 정확성을 판단하지 못할지라도, 특히 거짓을 밝히는 데 관심 있는 이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오히려 성경의 합리성, 신뢰성, 신적 권위는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번역도 그것을 감출 수 없다. 내가 계시의 안전한 전달 과정을 정확히 추적하지 못할지라도, 상식은 내가 이해하는 번역에서 담긴 내용의 합리성, 신뢰성, 심지어 신적 권위를 분별하게 한다. 그리고 계시가 신뢰할 만하며 안전하게 전달되었고, 우리의 공적 번역이 올바르다는

점의 불가피한 증거는, 지금까지 엄청난 지성과 학식을 자랑하는 불신론자들이 그것들에 맞서 내놓은 것이 오직 불성실하고 한심한 꾀변뿐이라는 데에 있다.

계시는 성직자들이 믿고 전파한다고 해서 자연의 빛이 그들의 소유로 인해 해를 입는 것보다 더 상처받지 않는다. 계시는 모든 개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보게 하며,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라고 요구한다. 그것은 성직자의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종교에 강제하지 않고, 진리의 계시와 적용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밝히고 이끈다. 그리고 단순 수치로 보면, 무비판적 추종자는 불신자들 사이보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더 많지 않다.

우리 성경에 기록된 사실과 가르침은 본질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이 서술한 많은 사건에 직접 관련되었으며, 그 사실들이 아직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할 때 기록을 출간했다. 그들의 단순한 서술과 자신과 친구들의 부끄러운 과오를 기록하는 데서 최대의 정직함을 드러낸다. 그들은 저작에서 결코 세속적 이익을 바라거나 목표로 삼은 적이 없으며, 만일 무언가를 위조했다면 자신의 평판을 파괴했을 것이다. 그들이 기록한 많은 사건들은 너무나 비범하여 완전한 증거가 없으면 도저히 신뢰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 이익과 명예가 큰 유혹이 되어 그것을 부인하고 거절하며 자기 치욕이자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의무에 묶이게 하는 바로 그 민족이 그 보고를 굳게 믿었다.

모세의 신적 입법은 그 시대의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이며 많은 다른 사건의 기초로서, 그의 인격과 서술은 가장 명확하고 완전하게 확립되어 있다. 그는 언제나 가장 정직하고 사심 없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는 자신이 친족 간의 혼인 혈통임을 솔직히 기록하고, 이스라엘 구원자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부름에 반대했으며,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복하는 발언도 하였다(출애굽기 3-4 장, 6 장; 민수기 11 장, 20 장). 비록 그가 이집트의 왕자, 아니면 왕이 될 수도 있었고, 히브리 동족의 대가로 자신의 가문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거부했고, 그의 아들들은 단지 레위인으로만 남겼다. 그는 사랑하는 민족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심술궂고 불평하며 폭력적으로 반역하는 괴물로 묘사하고, 자신이 죽은 뒤 그들이 더 악하고 불행하게 될 것을 예언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세의 저작에 끈질기게 매달리게 했는가? 어떻게 단지 환상 속에서 그와 약 200 만에서 300 만에 이르는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이 이집트 땅이 열 가지 무서운 재앙 — 물이 피로 변함, 개구리, 이, 파리, 가축 전염병, 종양,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의 죽음 — 을 입었으며, 홍해가 갈라져 그 가운데를 안전히 건넜는데 그들을 쫓던 이집트 군대는 모두 익사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시내산에서 가장 무서운

번개와 천둥을 목격하고, 하나님 자신이 가장 엄숙한 태도로 십계명을 선포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40 년간 아라비아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와 반석에서 솟은 물로 먹으며 옷과 발이 닳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반복된 불평이 가장 무서운 재앙으로 벌받았다는 것은? 아니면 이 놀라운 사건들에 대한 완전한 확신 없이는 감사하는 기념으로 가장 값비싼 제사와 가장 부담스러운 예배 의식을 기꺼이 오랜 기간 준수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 유대인들이 이방 이웃에게 그들의 계시를 숨기려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베로수스, 아비데누스, 헤카타이오스, 헤시오도스, 헤로도투스, 크세노폰, 니콜라스-다마스케누스, 폴리히스토르, 그리고 경우에 따라 산코니아토조마조 등은 인류 창조와 타락, 주기적 시간 구분, 거인, 대홍수, 바벨탑, 소돔과 주변 도시 멸망, 할레,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센나케리브, 느부갓네살, 고레스 등에 관한 놀라운 단서를 제공해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 계시의 창시자이자 주된 주제이다. 구약의 유형과 예언에 부합하여 그는 메시아로 나타났으며, 우리의 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었다. 그의 외형은 초라하고 비천했으나, 사가랴, 시므온, 안나, 세레 요한, 심지어 천사들과 하나님 자신도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의 구세주로 공언했다. 그는 자신이 그러함을 선언했을 뿐 아니라, 놀랍고 권위 있는 가르침, 거의 셀 수 없는 자비로운 기적, 죽음에서의 부활과 하늘로의 승천, 제자들에게 신령한 성령의 기적적 부어주심, 그 후 복음의 확산과 이에 반대하는 유대인 적대자들과 살인자들의 참혹한 멸망,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예언대로 정확히 이루어짐으로써 그 사실을 온전히 확증했다.

가장 무서운 반복적 모욕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행동은 거룩하고 해가 없으며 더럽혀지지 않았다[히 7:26], 너무나 자비로워서 유다, 유대인의 공소인, 빌라도, 헤롯조자 그에게 흠잡을 데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복음서 기자들의 그의 성격에 대한 묘사는 매우 정직하고 단순하면서도, 우리 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이자 우리를 위한 보증인이신 그분께 어울리도록 웅장하고 숭고하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시고, 순종하며, 고난당하고, 죽으셨다는 사실은 아무리 놀라워도 세상에 그러한 유사한 본보기조차 없으며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교육받지 못했고 천성적 능력이 약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꾸며냈다는 것보다 이성이 더 믿을 만하다. 그의 부활은 기독교 체계에서 가장 중심적인 요소이며, 나머지 모든 것을 증명한다. 부활은 적군, 친구, 천사,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이후 사건들의 모든 증거에 의해 뒷받침된다.



수많은 사람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리는 것을 보았다. 군인들은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다. 많은 이가 그의 시신이 납작한 바위에서 파낸 새 무덤에 조용히 안장되는 것을 목격했다. 그 무덤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었고 큰 돌이 유대 통치자들에 의해 엄숙히 봉인되었다. 강한 경비가 있어 그의 죽은 몸을 치우려는 친구들의 어떠한 시도도 막았다. 3 일째 이른 아침에 심한 지진과 천사의 출현이 경비를 공포에 몰아넣어 달아나게 했다. 그 사이 그의 몸은 사라지고 무덤에 있던 옷만 정돈된 채 남아 있었는데, 마치 일부러 옮겨진 것처럼 보였다. 예루살렘의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나 시민들에게 나타났다.

경비들이 보고 들은 사실을 유대 통치자들에게 알리자, 그들은 큰 뇌물을 주어 진실을 은폐하고 예수 제자들이 자고 있을 때 그의 시신을 훔쳤다고 주장하게 했다. 이는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어떻게 그들 중 누군가가, 아니 어떻게 모두가 그렇게 중요한 감시 중에 잠들 수 있었겠는가? 만약 모두 잠들었으면 누가 언제 그의 시신을 훔쳐 갔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는가?

반복되는 경고와 예측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활의 진실을 믿는 데에 제자들은 너무나 극도로 저항하였다. 그들은 거의 그의 몸이 무덤에 없다는 사실, 천사들의 증언, 형제들의 증명, 심지어 자기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조차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의 반복적인 나타남과 그들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마침내 성령이 그들에게 기적으로 임하심이 의심할 여지를 없애주었다. —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많은 실망, 모욕, 증오와 위험에 속였다고 해서 그에게 강한 분노와 적의를 품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갑자기 기적을 행하고, 영을 분별하며, 여러 언어를 말하고, 소크라테스와 그의 모든 철학 형제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종교와 덕에 대해 담론할 수 있게 된 자신들을 발견하였으며, —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작은 시험에도 그를 버리고 부인했던 이들이 그의 대의 앞에서 죄만을 두려워하는 열정과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되었음을 보고, — 그들은 세상의 명예나 이익, 쾌락의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손실, 모욕, 증오, 빈곤, 박해와 죽음을 향해 나아갔으며, —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에서, 며칠 후에 가장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그의 부활을 선포하며, 유대의 통치자들과 백성들을 자신들의 약속된 신성한 메시아를 살해한 죄로 고발하였다. — 육적인 권력이나 영향력이 전혀 없었으며 절대적으로 경멸받던 그들이었음에도, 가장 강한 의심과 가장 충분한 기회를 가지고 있던 많은 무리들이 그들의 보고를 굳게 믿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살해한 자임을 인정하며 겸손히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간청하였다. — 유대의 통치자들은 온갖 공모와 악의와 분노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를 반박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직 선포자들을 투옥하고 매질하며 협박하고 살해하는 것만을 행하였다. 이 설교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하였으며, 상식으로는 그들이 속았다고 여길 수 없다. 그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스승과 수차례 모임과

대화를 자신들의 상상으로 착각했을 수 있으며, 단순한 상상만으로 그토록 뚜렷하고 고유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을 평생토록 확신할 수 있었겠는가? 그들이 어떻게 성령의 기적적인 은사와 은총을 실제로 소유했다고 환상할 수 있었겠는가? 탁월한 학식과 지혜를 가진 다소 사울이라는 자가 자신이 결코 배우지 않은 언어들을 알게 되었고, 사도적 권능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방금 전까지 미워하고 열심히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대의와 지체들을 위해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열정을 품게 되었다고 스스로 꿈꿀 수 있었겠는가? 그들의 고상한 가르침과 신중한 행동은 그들 중 누구도 사기에 속을 정도의 어리석은 이들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보여 준다. — 그들의 행위에서 두드러지는 성실함, 순수함, 자비심, 그리고 덕성의 징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영혼의 존엄을 훼손하는 거짓을 꾸밀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충분히 입증한다. 증오와 모욕, 투옥과 고문, 폭력적 죽음, 양심의 꾸짖음,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라는 확실하고 유일한 전망이 그들에게 힘을 실어 거짓과 불확실한 것을 전파하게 했을까? 그 설교자들은 많은 수였으며,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는 수만 명의 추종자가 있었다. 반복되는 설득, 협박, 고문 등에도 불구하고, 비밀 누설에 매우 서툴렀던 그들 중 누구도 어떤 사기도 폭로하려 하지 않았다. — 실제로 유다는 스승을 배신했으나 곧 회개하며 공개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엄숙히 주장한 뒤, 자신의 악행에 대한 절망적 확신 아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나님 뜻을 인간에게 전한 자들이 모두 무흠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 베델의 늙은 선지자 발람과 가야바가 악한 자였음을 인정한다(민수기 22-24 장; 열왕기상 13 장; 요한복음 11 장). 이들도 일시적인 영감과 자연의 영구적 빛을 누렸을 수 있다. 그러나 성경 필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인다. 심지어 그들의 적들도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충성스럽게 준수한 것 외에는 비난하지 못하였다. 그들의 실패에 대한 기록은 성경 자체와 종종 그들의 솔직하고 진솔한 기록에서 나온 것이다. 다윗이나 솔로몬은 직접적 계시의 최초 전달자는 아니었다. 또한 여러 결점이 진리의 선포자나 증인이 되는 데 배제 요건이 되지 않는다. —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교회를 방문하는 것에 관한 부적절함을 놓고 다툰 일도 그가 틀렸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 그가 자신이 원하는 만큼 거룩하지 않음을 고백하고 완전한 거룩함 외에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그를 그리스도를 위한 설교자와 증인으로 부적합하게 하지 않는다(사도행전 15 장; 로마서 7 장).

## VII. 성경의 신성한 영감

우리 성경에 담긴 계시는 신성하게 영감된 것으로, 무한히 지혜롭고 거룩하며 공의롭고 선하며 진리이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 옛적에 하나님은 시나 산 등에서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출애굽기 19-34 장; 레위기 1-27 장; 민수기 1-36 장; 신명기 22 장). —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는 환상과 꿈으로 말씀하셨다(창세기 12-13 장; 22 장; 26 장; 28 장; 31-32 장; 35 장; 37 장; 46 장; 욥기 4 장; 이사야 6 장; 에스겔 1-11 장, 40-48 장; 다니엘 7-12 장; 아모스 7-9 장; 스가랴 1-6 장).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 필자들에게 전해지는데, 이는 그들에게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을 오류 없이 가르쳤고, 그들이 알고 있던 신성한 지식을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하였으며, 그

개념을 표현할 적절한 단어를 인도하였다. 하나님은 그들 자신의 언어와 자연적 능력의 사용을 허락하면서도 그들을 그 능력을 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인도하셨다. 그리고 그의 영감에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며 성화시키는 영향도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없다.

성경 영감에서는 필자들이 스스로 이성과 판단을 행사하는 데 동참하는 가운데(시편 45:1; 마가복음 12:36; 누가복음 1:3; 베드로전서 1:11), 성령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그들이 쓰도록 격려하였다(베드로후서 1:21).
2. 각자 자연적 재능과 교회의 필요에 맞는 몫을 정하였다(베드로후서 1:21; 마태복음 25:15).
3. 그들의 마음을 밝게 하여 전할 진리를 명확히 깨닫게 하였다(예레미야 1:11-16, 13:9-14; 에스겔 4:4-8; 아모스 7:7-8, 8:2; 스가랴 1:19, 21; 4:11-14; 5:6; 다니엘 10:1,14; 9:22-27; 8:15-19; 12:8,11; 베드로전서 1:10-11; 에베소서 3:3-4; 요한복음 16:13). 그러나 이것은 열두 사도에게 한꺼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마가복음 4:34; 누가복음 24:17, 45; 요한복음 20:22; 사도행전 2:4; 10:9-15; 28:34), 아마도 바울에게는 한꺼번에 주어졌을 것이다(고린도후서 12 장).
4. 그들이 쓸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여긴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억력을 강화하고 새롭게 하였다(요한복음 14:26).
5. 방대한 사실들 가운데에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내용과 쓰지 말아야 할 내용을 분별하여 지도하였다(요한복음 20:30-31; 21:25; 로마서 15:4; 고린도전서 10:6-12; 4:23-24).
6. 기억 속에 저장된 이미지와 아이디어를 필자들이 스스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목적과 용도로 불러일으켰다. 이에 아모스는 무리나 양 떼나 밭의 비유를 사용하고, 바울은 자신의 학식을 활용하였다(사도행전 17:28; 고린도전서 15:33; 디도서 1:12).
7. 계시의 순수한 내용 전부를 즉시 마음에 제시하고 새겼다(이사야 46:9-10; 41:22-23; 45:21). 이는 과거(창세기 1 장, 2 장), 미래, 그리고 신비(디모데전서 3:16)에 관한 것이었다.
8. 각 저자를 내용, 단어, 배열 면에서 오류 없도록 감독하였고, 모든 저자를 연관 지어 일정 시점에서 전체 성경이 교훈과 교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준비되도록 하였다(디모데후서 3:15-17).

일부는 성령의 영감을 암시와 감독으로 구분하는데, 암시는 비밀스럽고 신비하며 미래의 진리를 오류 없이 전하도록 인도하였고, 감독은 필자들이 이미 알던 내용에서 중대한 실수를 피하도록 보호하며 자신들이 최선으로 판단한 방식으로 표현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러나 이 감독만을 영감의 전부로 인정한다면,

1. 명백한 성경 언어에서 진실하다고 여기는 수천 가지가 사소한 실수일 수 있다.
2. 설득력 있고 명확하며 확실한 성령의 증거도 필자들의 사소한 실수라는 이유로 쉽게 부정될 수 있다.
3. 필자들이 단어 선택을 자유로이 했다면 성경의 의미는 전적으로 불확실해질 것이다.

선지자와 사도들은 매우 적절한 생각을 가졌을 수 있으나 그 생각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데 적절한 말을 사용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오류 있는 자들은 언제든지 성경의 단어들이 영감을 받은 생각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자신들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말로 대체할 수 있다. — 바울은 일부 혼인 문제에 대해 자신이 아니라 주님 혹은 자기가 아닌 주님이 인도했다고 암시하지만, 이는 예수께서 육신을 지니신 날에 명확하게 가르치신 바를 뜻한다(고린도전서 7:10, 12). 몇몇 표현은 고정된 의미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사소한 상황에 관해 너무 단정하지 말라는 교훈이다(요한일서 6:19; 베드로전서 5:12).

성경 영감에 관해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1. 성경에 수록된 모든 문장을 하나님을 저자라 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악마나 인간에 의한 수많은 좋지 않은 표현과 몇몇 좋은 표현도 포함되어 있으며, 오직 그들의 무오류한 기록과 평가만이 신적 영감이다.
2. 성경 각 부분은 서로 연관되고 상호 지지한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구약 전체를 승인하였고, 신약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어렵게 표현한 것을 더욱 명확히 한다. 따라서 모든 구절, 장, 책마다 신적 권위의 모든 표지가 동일하게 드러날 필요는 없다. 일부 본문은 다른 더 중요한 본문의 부수적 소개나 해설에 불과하다. — 그러나 구약과 신약이 적절히 연결되었을 때 신성한 영감임은 명확하다.

첫째, 내용 자체가 신성한 영감을 요한다. 그 안에 기록된 창조와 부분적 홍수 역사 등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신적 삼위일체의 신비, 은혜의 언약,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 육신 입음과 지위, 우리의 연합과 의롭다 하심, 입양, 성화, 영적 위로, 영원한 복락이 선포된다. 제시된 종교 체계는 순수하고 자비로우며 영적이고 광범위하여 하나님만이 고안하고 정할 수 있다.

그분은 자신을 어디에나 현존하시며 무한히 완전하고, 능력 있으며, 지혜롭고, 거룩하며, 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진실되고 신실하신 분으로 나타내신다. — 무한히 은혜로우시면서도 의를 사랑하는 연인이시고, 불의를 반드시 미워하시는 엄격한 증오자이시며, — 우리의 자비로운 창조자이자 보호자이며, 오직 독생자의 무한히 귀한 순종과 죽음을 통해 무한히 자비로우신 구속자이심을 나타내신다. — 그분은 우리에게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그를 알고, 믿으며, 신뢰하고, 경외하며, 우리 아버지이자 친구이며, 남편이자 구세주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업으로 삼을 것을 요구한다. — 또 현재와 영원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자신께 의지하고 간구하며, — 다시 태어나 산 소망을 가진 자녀로서(벧전 1:3), 그리고 우리 자신과 하늘에 속한 유산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은 자로서(롬 8:17), 그가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순종할 것을 요구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이 참으로 개선되고, 덕과 행복 속에서 완성될 수 있음을 가르친다. —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의, 거룩함, 구속의 근원이며, 참된 거룩함의 실질적 뿌리이자 원천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하며 행하면서, 불경건과 세상적 욕망을 거부하고, 절제와 의로움과 경건 가운데, 인내하며, 만족하며, 즐겁게 생활하라고 배운다. — 또한 그의 말씀과 성령과 피를 통해 모든 이기적이고 죄된 성향을 죽이고, 그분이 계신 위의 것들에 마음을 두며, 세상을 심판하실 그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분을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며,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고 가능한 모든 관계와 지위에서 마땅히 행할 의무를 다하며, 모든 악의와 시기과 증오와 복수 및 다른 악의적 정서들을 버리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여 악에 대해 선을 베풀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배운다. 이러한 보편적 순수과 자비의 법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는 권위로 제정되었고, 하나님만이 그 광범위한 요구를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분별하고 금지할 수 있는 죄들을 금지한다.

신성한 본성, 약속, 위협, 자비, 심판, 특히 구속 사역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친절과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적 관계, 그리고 세상적·영적·영원적 다방면의 유익에서 비롯한 덕을 향한 가장 강력한 동기와 악덕을 멀리하게 하는 동기들이 현명하게 제시되고 열렬히 권면된다. — 경건과 덕의 모든 실천을 인도하고 격려하며 가능케 하는 가장 탁월한 수단들이 가장 신중하고 권위 있게 확립되었으며, — 우리 구속자 그리스도의 본보기와, 그 안에서 하나님이 화목하시고 그를 통해 세상과 자신을 화목하게 하신 모습이 가장 완전하고 매력적인 모범으로 제시되어 있다(출 20:1-17; 레 18-20; 신 4-25;

마 4-27; 롬 6; 롬 12-15; 엡 4-6; 골 3-4; 살전 1-5; 딤후 2-3; 히 12-13; 약 1-5; 벧전 1-5; 벧후 1-3; 요일 1-5; 계 2-3).

## 성경 계시의 특징과 권위

2. 이러한 점들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방식은 명백히 신성하고 지혜로우며, 자비로우면서 장엄하다. 그 계시는 인류의 필요나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창 3; 창 12; 창 17; 창 22; 창 28; 창 46; 창 49; 출 3-34; 레 1-27; 민 1; 민 5-6; 민 8; 민 15; 민 17-19; 민 28-29; 신 4-33; 욥 1-10; 계 22). 중재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만족, 그분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새 언약으로 주신 것, 그리고 십계명의 법과 관련된 주요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최대의 엄숙함으로 선포하셨다(마 3:17; 마 17:5; 출 20:1-17). 이러한 진리들과 기타 많은 진리들이 매우 평이하고 간결한 문체로 전해지지만, 그 표현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숭고함과 위엄이 깃들어 있다. —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라는 권위 아래 법령, 약속, 위협 등이 선포되며, 특히 시편, 욥기, 예레미야 애가, 이사야서 등에서는 저자의 존엄성, 주제의 본질, 청중의 상태에 매우 적합한 놀라운 문체가 구사된다.

3. 성경의 분명한 목적은 인간을 겸손케 하고, 사랑하는 욕망과 죄된 행위에서 개혁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데 있다. 어떤 선한 천사나 인간도 성경에서 묘사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인 척할 엄두를 내지 못하며, 악한 천사나 인간도 자신의 사악한 성향과 명예, 이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을 발명하고 출판하며 그렇게 열렬히 강요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성경의 진정한 저자이시거나 기고자이셔야 한다.

4. 성경의 내용은 인간 본성의 부패한 욕망에 극히 반하면서도 아무런 결탁 없이, 매우 다양한 계층과 시대, 장소의 여러 인물에 의해 기록되고 출판되었다. 그런데도 그 모든 부분이 내용과 목적 면에서 놀라운 조화를 이루어, 저자들이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틀림없이 인도받았음을 명백히 증명한다. 성경의 부분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어느 하나의 교리나 법조차 전체를 수용하지 않고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예언, 역사, 법도, 교리, 약속과 위협은 서로를 해설하거나 확증한다.

주의 깊은 독자는 곳곳에서 동일한 사실들이 암시되거나 기록되거나 예비되어 있음을, 동일한 구원의 교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되거나 기정사실로 가정되어 있음을, 동일한 미덕의 규칙과 예시 및 동기가 나타나 있음을, 동일한 자비의

약속과 공정한 위협이 모순 없이 제시됨을 발견할 수 있다. 만약 어느 지점에서라도 모순으로 보이는 것이 있다면, 면밀한 비교를 통해 그 불일치로 보이는 구절들이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서로 다른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각각 다르게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이는 결코 모순이 아니다. 만약 필경사나 인쇄공이 실수로 글자 하나, 숫자 한 자, 혹은 표점을 바꿨다 해도, 그것이 성경이나 다른 책의 권위를 무효화하거나 모순으로 간주될 수 없다.

5. 필경인들의 결백한 인격은 성경의 신성한 기원과 권위를 더욱 증명한다. 그들은 어디에서나 최대한의 정직성과 무사욕성을 드러내며, 자신의 약점과 죄까지 솔직히 밝힌다. 그들은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세상에서 어떤 이득도 얻지 못하고 오직 고난과 환난만 입었다. 그들 자신의 원칙에 따르면, 속임수를 쓴 사람과 사기꾼은 저 세상에서 영원한 멸망 외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그들의 작품 내용과 형식은 그들 능력을 훨씬 초월한다. 예언을 제외하고, 무학한 이들이 어떻게 이처럼 고상한 지혜, 경건, 덕의 체계를 세웠겠는가? 사탄에게 영감을 받은 악인들이 어떻게 그러한 신비롭고 장엄하며 거룩한 체계를 발명, 출판, 전파하며 열렬히 실천할 수 있겠는가? 또 독생자의 성육신과 순종, 고난과 죽음에 관한 기록이 실제 사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처럼 단순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정직하게 작성될 수 있었겠는가?

6. 하나님의 경이로운 보존은 구약과 신약 성경이 사라지거나 변질되지 않고 지켜진 사실에서 더욱 드러난다. 수많은 저명한 문서들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잊힌 반면, 성경은 보존되었다. 성경은 부분적으로 가장 오래된 책들보다도 먼저 기록되었으며, 사탄과 무수한 도구들이 강력한 속임수와 힘으로 성경을 증오하고 멸절시키고 변조하려 했음에도, 하나님은 그의 자비와 지혜로 그 순수성을 지켰다. 하나님은 도덕법 원판과 모세 율법 원본을 지성소에 보관하게 하시고, 모든 히브리 왕들에게 율법 사본을 작성할 것을 명하시고, 공적·사적 낭독과 자녀 교육을 명하며, 율법을 가진 이들 간의 상호 견제 체제를 만드시는 등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으로 안전하게 보존케 하셨다. 끔찍한 심판으로 엔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시리아-그리스 군주,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등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멸절시키기 위해 성경 사본을 모두 파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이를 제지하셨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이나 명예를 조금이라도 부인하거나 훼손하지 않으려 목숨을 내건 이들을 놀라운 방식으로 붙드시고 위로하셨다.

7. 성경에 기록된 교리와 사실을 확증하고, 최초 선포자들의 신성한 위임을 증거하기 위해 오직 하나님의 무한한 권능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이 행해졌다. — 특히 모세와 사도 시대처럼 새로운 예배 형식이 도입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은 중요한 계시를 명확히 구별하는 표징으로 나타내어 사람들이 주목하게 하셨다. 이런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은 이성이 지지하는 무수히 많은 통제된 기적들이었다. — 이성과 경험은 거짓을 입증하려고 무제한 기적이 허용될 것이라 보지 않는다. 성경을 확증하는 기적들은 모든 입증 조건을 갖추었으며, 거의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모두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계획되었다. 율법과 저주로 인한 본성의 위배에 알맞게,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많은 기적들은 두렵고 진노에 찬 성격을 띠었다(출 7-14; 민 16; 열상 17-18; 열하 1-2). 복음의 정신과 일치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행한 기적들은 주로 자비롭고 선의를 지닌 것이었다(마 4; 마 8-21; 막 1-11; 눅 4-19; 요 2-21; 행 3-20; 행 28). 대부분의 기적은 공개적으로 일어나 친구와 적 모두가 충분히 조사할 기회를 가졌으며, 섭리의 정황들이 이를 크게 뒷받침하였다. 그중 다수는 홍해와 요단강을 안전하게 건넌 것,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로 사십 년간 산 것과 바위에서 나온 물, 해가 멈추거나 거꾸로 움직인 사건, 적은 양의 떡과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인 일, 죽은 자나 매장된 자의 부활 등, 상식적으로 증인들이 이를 잘못 보았거나 무한한 힘보다 못한 권능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건이었다. 복음의 뿌리 깊은 원수인 유대인과 이방인의 일부마저 이 기적들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증언한다. 그리고 그 기적들이 가장 순수하고 자비로운 종교를 확증하기 위해, 대부분은 탁월한 경건과 덕망을 지닌 이들에 의해 행해졌음이 분명하다.

기적 존재를 반대하는 인간의 일반적인 경험이 긍정적 증거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주장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모든 증인이 기만당했다고 보는 것이 그 기적들이 실제 발생했다고 보는 것보다 더 개연성이 높은지 숙고해야 한다. — 첫째, 기적은 인간의 일반 경험에 반하는 일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부정적 증거는 긍정적 증거에 비해 거의 무력하며, 단지 진술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주장한 것을 관찰하지 못했다고 말할 뿐이다. 만약 두 명의 신뢰받는 인물이 내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죄를 지었다고 증언한다면, 수백억 명이 내가 그런 말과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해도 그것을 능가하지 못한다.

만약 부정적 증거가 시간과 장소에 관하여 긍정적 증거와 직접적으로 반대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효력이 없다. 수백만 인류가 진실로 증언할 수 있다. 자신들은 한 번도 얼어붙은 물을 본 적 없으며, 과도한 추위 아래에서 자석이 그 영향력을 바꾸는 것을 관찰한 적 없으며, 어떤 동물이 백 조각으로 잘려 나갔을 때 그 종류의 동물 수백 마리로 번식하는 것을 본 적 없으며, 백인이나 흑인을 본 적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실제로 목격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려야 하는가? 기적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그 시대와 장소에 살지 않았던 수천 수억 명이 결코 그것을 본 적 없다고 해서, 그 시대와 장소에서 그것이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사람들이 그것을 결코 보거나 느끼지 못했다고 결론 내려야 하는가?

#### 기적에 대한 하나님의 권능과 인간 감각의 신뢰성



3. 하나님이 모든 것의 무한히 강력한 창조자이자 주관자라면, 그분은 자신이 정립한 제 2 원인들의 일반적 작용을 통제함으로써 쉽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그분의 무한한 권능의 개입을 요구하는 기회와 목적이 있다면, 이성온 그분의 지혜와 선하심이 그것을 발휘하도록 결정하실 것임을 가르친다.

4. 하나님이 스스로의 개입을 신성하게 표시할 능력이 없고, 인간의 감각이 모든 경우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모든 인간 교제가 무너지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러한 감각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현실성에 대해 충분한 판단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에스쿨라피우스, 베스파시아누스, 아드리아누스, 또는 안센주의자 아베 파리에게 귀속된 기적들과 성경의 기적들을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처음 세 사람에게 귀속된 기적들은 오로지 이방인들의 전언에만 기록되었으며, 그들은 세속적 이익에 의해 그들을 야적하려 했을 수 있다. 아폴로니우스에게 귀속된 기록은 그의 죽음 이후 약 백 년 후에야 형성되었는데, 기록자가 과장된 문체로 썼고 소설로 가득 채웠다고 고백하는 비밀 회고록에서 나온 것이며, 복음주의적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와 맞서기 위해, 낭만적인 여성 후원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아폴로니우스의 적은 제자들 중 아무도 기적을 행할 능력을 그에게서 받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아베 파리 또는 그의 무덤에 귀속된 기적적인 치유들은 다만 그를 존경하는 이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며, 병의 위기가 자연 원인의 순서에 따라 발생하고, 아베 파리의 권능에 대한 강한 상상력과 자연 치료법 사용과 결합되어 일부 진정한 치유가 일어났을 수 있다. 반면, 다른 많은 사례는 관청의 조사로 단순한 사기임이 드러났다.

### 기적 증명의 한계와 계시의 확증력

기적이 증명될 수 없는 교리를 확증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1. 정식으로 입증 가능한 것만이 인정되어야 한다면, 자연법 중 얼마나 적은 부분만 알려지고 복종해야 하겠는가? 혹은 왜 자연법을 확정하는 것만큼 계시의 교리를 확정하는 데 정식 입증이 요구되어야 하는가?
2. 만일 인간 사이의 모든 일상사가 정식 입증 없이 확정된다면, 하나님 또한 정식 입증 없이 더 그들의 능력과 경험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계시를 확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3. 어떤 것의 이성적 합리성에 대한 입증이 그 신성한 기원이나 직명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공공 예배에서 매주 이들을 지키는 것이 이성에 어긋난다고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를 요구한다고 결론지어지는 않는다. 계시의 신성을 표시하려면 입증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

4. 일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계시를 받았음이 확실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것의 신성한 기원을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없으면 그것은 인류 전체에 쓸모가 없다.

5. 계시는 인간이 이성과 외적 감각을 갖춘 존재임을 전제로 하므로, 기적적 현현은 사명이나 교리의 신적 권위를 보여주는 유일한 증거로 취급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 완전성과 덕의 자연 법칙에 부합하는 것과 조화를 이루는 증거이다. 이것이 악한 정신에게 더욱 강력한 인상을 주어 편견을 꺾고 주의를 끌며, 그리하여 교리 자체 내적 증거력을 증대시키고 이끈다.

6. 교리가 하나님 완전성과 우리와의 관계에 따라 조화될 때, 우리는 자연의 물리적 원인을 모르거나 창조된 능력을 검증할 수 없다는 무지 때문에 기적적 현현에서 속임을 당할 위험에 처하지 않는다. 악령이 하나님을 극도로 미워하는 인간들에게 유익하거나 하나님께 합당한 체계를 세우기 위해 기적을 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언자와 사도처럼 경건하고 덕 있는 사람들이 사탄과 결탁해 기적을 행하거나 속임수를 쓰지도 않을 것이다. 선한 영은 사기를 확증하기 위해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는다. 무한히 지혜롭고 능력 있으며 선하신 하나님이 무통제 기적으로 인해 그의 이성적 창조물이 오류로 유인당하게 내버려 두지도 않는다.

7. 성경에 기록된 기적의 대부분은 위조될 수 없었다.

8. 성경 계시에 의한 인류 개혁 계획과 그 명백한 성공은 그 신성한 기원을 연속적으로 입증하는 기적이다. 오직 신적 사명의 확실한 증거만이 모세로 하여금 주 6 일에 광야에서 전 민족에게 이틀치 만나가 항상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위험을 무릅쓰고 주장하게 했을 것이다. 또한 가나안에서는 6년째에 발이 항상 두 배의 수확을 내고, 이로 인해 7일에는 만나를 채집하지 말고, 7년째엔 밭을 경작하지 말라는 영구 법을 제정하게 했을 것이다. 또한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사방의 적으로부터 보호할 가장 확실한 확신만이 모세로 하여금 여행할 수 있는 모든 남자가 1년에 세 차례씩 고국을 떠나 거룩한 축제를 지키게 명령하게 했을 것이다. 또한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명백한 허가가 있어야 아론 가문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제사직을 수행할 충분한 수의 남자가 항상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했을 것이다. 그들이 언급한 배타적 결함도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게 했을 것이다. 또 그들은 소국에서 금기된 육류와 주님께 바쳐야 할 모든 예물을 제외하고도 그 많은 백성을 충분히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 희망했을 것이다. 오직 신적 제도 증거와 신적 영향이 수반되어야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부담스러운 의식을 견뎌낼 수 있었을 것이다(출애굽기 16; 레위기 25; 신명기 15; 출애굽기 23; 출애굽기 34; 레위기 21-23; 레위기 11; 레위기 1-6; 민수기 18; 민수기 28-29). 기독교 계획과 그 성공은 더욱 경이롭고, 신적 허가와 영향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없으면 연약하거나 문맹인 몇몇 사람이 세속적 영향 전혀 없이 온 세상을 개혁하는 계획을 세울 수 있었겠는가? 그것이 그들의 성향 깊숙이 뿌리내리고 모든 민족의 광범위한 관습과 오랫동안 확증된 법률 위에 굳건히 세워졌겠는가? 그리고 그것을 폭력이나 사기로 전하지 않고 자신들이 참이라고 생각하거나, 사기꾼이라면 거짓임을 알았던 것을 단지 선언함으로써 전했겠는가? — 교활한 자들이나 심지어 가장 무지한 사람들도 자신들의 영웅으로 어찌 불명예스러운 고난을 그의 대표적 특징으로 삼은 이를, 늘 멸시 받아 왔고 최근에는 같은 도둑 두 사람 사이에서 처형당한 저명하고 천한 범죄자로서 그 조국 사람들의 만장일치 비난과 고통 속에 십자가에 못 박힌 이를

선택할 수 있었는가? 그가 우리 본성 안에 하나님이 아니고, 제자들의 신뢰를 확대하여 그들을 현세적·영원한 비참으로 이끌었다면, 그가 그들을 따를 때 이 세상에서 십자가, 증오, 투옥, 고문,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 하고, 내세에서는 그의 대의를 부정적으로 증진한다면 영원한 멸망 외에는 아무 소망도 허락하지 않았다면? — 대규모 개혁을 위한 악랄한 기획자들이 어떻게, 그 영웅이 불명예스럽게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장소에서, 또 그 수주 내에, 심지어 그 무리들 한가운데에서,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그를 하나님 아들이자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참된 메시아라 선언할 수 있었겠는가? — 가장 깊은 빈곤, 잔인한 증오, 악의적 비방, 수많은 적들의 인간 이하 박해 속에서 그들은 어찌 열정과 엄청난 노동, 끊임없는 기쁨으로 그 일을 계속하며 세속적 부나 명예에 전혀 탐내는 모습 없이 해낼 수 있었겠는가? — 어떻게 고도로 이성적이고 품격 있으며 덕을 성취하는 교리와 법 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었는가? 그것이 가장 유명한 이방 철학자들의 모든 산물보다 훨씬 훌륭했는가? — 이들 극소수가 대부분 문맹 설교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지상 어떤 권력의 도움이 없거나 격려도 없이, 분노한 유대인의 교활함과 분노와 권력, 전성기를 누리던 로마 제국의 자존심, 정책, 권력, 학문의 교만, 무지의 완고함, 증오, 편견, 욕망, 유대인과 이방인의 고정된 성향, 깊이 뿌리박힌 관습, 장기간의 법률을 어떻게 이겨냈으며, 모든 위험, 손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사후 수년 만에 복음이 로마 제국 거의 모든 구석과 그 주변 지역에서 전파되었으며, 수많은 이들이 모든 소중한 것을 위태롭게 하면서도 기꺼이 믿고, 굳건히 부착하며, 즐겁게 실천했는가? 얼마나 놀라운가, 1700 년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박해와 많은 신자들의 신성 모독, 많은 성직 지도자의 비열한 무관심이나 악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이 거의 모든 중요 국가에서 마음과 삶을 개혁하고 풍속을 문명화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는가?

9. 성경이 수백 수천 년 전에 그 성취나 징후가 나타나기 이전에 가장 상세하게 제시한 전형적이고 문자 그대로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보다 성경이 신적 영감과 권위를 더 명백히 증명하는 것은 없다. 예언은 특히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무한한 가능한 사건들을 확실히 내다보고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나고 어떤 사건은 일어나지 않을지를 알고 결정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예지와 결정은 세계의 전지전능한 통치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성경은 자신이 저자임을 분명히 보여 주기 위해 예언들로 가득 차 있으며, 그 정확한 성취는 이후 기록된 영감 받은 역사와 다른 역사서에서 기록되고 있다. 성경의 거의 모든 역사적 구절은 사전에 예언된 사건을 기록한 것이다.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교회에 관한 구약의 유형과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세계의 시작부터 끝까지의 교회와 민족의 역사는 신중한 독자들에게 아담과 노아의 후손들, 가나안인, 아말렉인, 암몬인, 모압인, 에돔인, 블레셋인, 이집트인, 에티오피아인, 시리아인, 아시리아인, 갈대아인, 페르시아인, 그리스인, 로마인, 사라센인, 타타르인, 고트인, 훈인, 터키인, 특히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 신약 교회,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관한 성경 예언의 성취를 거의 다 나타내거나 나타낼 것이다. — 예언 성취에서 비롯된 이 증거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것이

일어나고 관찰될수록 명료성과 힘이 더욱 증가한다. — 유대 민족의 흠여짐과 비참함이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지속된 것;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복음의 진전, 지속, 그리고 성공; 가톨릭의 오랜 지배와 종교 개혁 시기의 부분적 반란; 로마 및 터키 제국의 과거와 현재 상태; 아시리아, 갈대아, 아라비아, 페니키아, 가나안, 이집트 등의 현재 상태가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 모두는 일상에서 기적이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이고 인상적인 증언이다. — 특히 눈여겨볼 점은, 우리의 구주가 비할 데 없는 행동, 기적, 가르침, 제도에서 그의 신성한 성격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유대인 경멸자들의 비참함과 복음교회의 확산에 관한 그의 예언이 현저하게 성취되어 그의 신성을 드러냈으며, 이 성취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 요세푸스가 거의 기적적으로 보존되었다는 것이다. 성경에 언급된 참된 예언자가 발한 예언은 결코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다. — 그러나 예언에서 조건이 명시되거나 암시되는 경우, 그것은 예언이라기보다 경고에 가깝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취될 필요가 없다.

### 역사와 예언의 성취

바로 그 순간, 아담이 금단의 열매를 먹은 순간에 그는 법적·영적으로 죽었으며, 그의 시간적·영원한 죽음이 그와 그의 후손과의 언약 체결 범위 안에서 시작되었다(창 2:17). — 하나님은 다윗에게 단지 경고만 하셨다. 사울이 올라올 때까지 그곳에 머물면 게일라 사람들이 그를 넘길 것이라는 경고(삼상 23:12). — 엘리사의 벤하닷에 관한 선언은 “너는 반드시 살리라”는 뜻이며, 영어 번역에 따르면 그의 병이 치명적이지 않다는 의미에 불과하다. 실제로 그는 병으로 죽지 않고 하사엘이 질식시켜 죽였다(왕하 8:10). —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40 일 내에 멸망할 것이라는 위협만 받았다(욥 3). — 위협이 보편적이지 않거나 맹세로 확증되지 않는 한 대체로 회개 시 예외가 포함된다. 홀다의 예언대로 요시아는 하나님과 양심의 평화를 누리며 죽었고, 그 민족을 멸망시킨 전쟁 이전에 죽었다(왕하 22:20). — 여호야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으나 나귀처럼 묻혔다(렘 22:18-19, 36:30). — 시드기야는 리블라에서 눈이 멀었고 바빌론으로 갔으며, 그곳에서 죽어 친구들에 의해 명예롭게 장례되었으나 그의 장례 기록은 없다(렘 34:4-5). — “마지막 날들”은 일반적으로 미래 시기 또는 우리 구주 승천 이후 시기, 혹은 유대 교제도 말년을 의미한다(창 49:1, 뎀후 3:1, 요일 2:18). — 이는 유대 민족을 심판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오심이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그분의 오심이 아니다. 사도 시대 신자들은 그 심판적 강림이 자기 시대에 있을 것이라는 기대 권한을 갖고 있었다(마 24; 살후 2:2). —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지체이며, 재림 때 그의 동료 지체들이 살아 있을 것을 믿었다(고전 15:51-52; 살전 4:15,17).

### 성경 권위와 성령의 작용

10. 위와 같은 논증들 혹은 유사한 논증들은 반대자들을 침묵시키며 구약과 신약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이성적으로 확신시키기에 충분하나, 오직 성령의 능동적 적용이 우리의 마음과 양심, 심령 속에서 그 생명력과 빛과 능력으로 자가 증명되면서만 진심 어린 구원의 확신을 낳는다. — 이렇게 적용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빛과 권위, 확신하며 소생·성결·위로시키는 능력을 지녀, 우리의 눈을 감거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무감각과 무관심으로 남아 있을 수 없게 하며, 모든 영혼 능력이 그에 감응되어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증거 가운데서와 전능하신 영향 아래 있게 한다(살전 1:5; 2:13; 요 6:63; 롬 23:29). 따라서 어떤 기적이나 외적 증거 없이도 계시의 초대 수용자 다수가 단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씀만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사 1; 말 4; 롬 23:28-29, 31; 고전 14:24-25; 히 4:11-12; 살전 2:13; 요 7:17, 10:3-4; 행 13:48, 51).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진정하고 본질적인 근거이며 이유이다. 이리하여 성경의 신적 영감과 권위를 단지 이성적 증거로 이해하고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으면서도 구원의 확신으로 진심 믿지 못하는 많은 학식 높은 자들과는 달리, 성령의 적용을 받은 약한 지성을 지닌 자들은 성경을 단호하게 믿어 영원한 구원을 단 하나의 문장에 의지하고, 그 속의 작은 진리라도 부인하기보다 온갖 고난을 인내하며 즐겁게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 태양이 그 자신의 빛과 열로 존재함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증명하는 현상은 이와 같은 성경 권위에 대한 증거를 상징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함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

## 무신론자 반론과 반박

이제 이전에 예상하거나 제거하지 못한 무신론자들의 성경 신적 기원과 권위에 관한 반론들을 다루어야 한다.

**반론 1. “구약과 신약에 담긴 계시를 아는 사람이 너무 적으므로, 모두에게 선택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답 1.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선택시다고 해서 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미워하거나 악용함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동등한 행복을 주셔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방탕한 자들을 그들이 검소하고 덕스럽게 산 사람들만큼 부유하고 건강하며 존귀하게 하셔야 할 필요도 없다. — 사실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부유하게 하거나, 명예롭게 하거나, 육체와 정신이 건강하게 하거나, 자비롭고 만족스럽게 하거나, 심지어 자연법을 동등하게 알게 하지 않는다.

2. 사람이 게으름이나 악한 성향으로 아담과 노아 시대에 생존자 모두에게 주어진 계시를 잊거나 멸시하거나 왜곡하거나 몰아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명확하고 순수하며 완전하게 보존해 주셔야 하는가? 그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거기에 무언가를 덧붙여야 하는가? 법제정자가 모든 국민의 방마다 법령을 공포하지 않는 것이 폭군인가? 국민이 게으르거나 악해서 매년 연말마다 법을 반복 공포하지 않고, 그들이 받은 정보에 따라 벌을 집행한다면 그것이 폭군인가?

3. 계시가 많은 민족 사이에 만연한 무지와 야만성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원인은 계시의 부재가 아니라 그들 내면의 부패, 나쁜 교육과 잘못된 본보기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적절한 약물이 질병과 조기 사망을 종종 예방할 수 있으나, 그러한 병과 죽음의 원인은 약 부족이 아니라 몸속의 근원적 부패나 외부 폭력이다.

4. 분명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 더 나아가 다수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심으로써 무한한 선하심을 더욱 찬란히 드러내셨다. 계시는 자연법의 빛으로 주어진 모든 특권을 각자가 유지하도록 허락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별다른 것을 더하지 않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무수한 복을 허락하며, 이로써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연법의 빛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 준다. — 우리의 자비로운 무신론자들은 모든 인류가 영원히 불행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일부라도 행복하기를 바라는가?

**반론 II. “나사렛 예수는 당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일반적 소문과 기대를 보고 그 기회를 붙잡아 자신이 바로 그라고 주장했다.”**

대답. 그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의 특성을 검토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정해진 시기에 나타났다. 그러나 그가 그 때 육체적 욕망과 기대에 완전히 반하는 고상하고 영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고대 예언들과 완전히 부합하여 그의 정직성과 참된 메시아 됨을 강하게 드러냈다. 특기할 만한 점은, 그 성격을 내세운 모든 다른 자들은 유대인의 희망과 육체적 욕망에 최대한 맞춰 자신의 출현과 주장을 꾸몄다는 사실이다.

**반론 III.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라면,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평등한 선하심 때문에 창조 후 4000 년이 지나서야 육체로 오신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

대답 1. 하나님은 한 사람도 창조하지 않았거나 구주가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무한히 선하실 수 있다. 게다가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대한 평등한 친절은 여러 차례 입증되었듯 사실이 아니다.

대답 2. 만일 예수께서 인류 타락 직후 또는 훨씬 빨리 육체로 오셨다면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이 훨씬 덜 드러났을 것이다. 그분의 절대적인 필요성과 은혜의 넘침이 덜 명확했을 것이다. — 홍수, 불과 유황의 파괴, 열 가지 재앙, 포로, 황폐, 철학자, 기적적 능력을 지닌 선지자, 하나님의 수차례 두려운 출현조차 세상을 개혁하지 못해 점점 더 타락했음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 또한 사람들이 그분의 오심을 충분히 경고받지 못하거나 그 자격을 검증할 준비가 안 되었을 것이다. 그의 가르침, 기적, 죽음, 부활을 증언할 많은 사람이 없었거나, 그의 반대자와 살해자가 충분치 않았을 것이다. 그의 복음이 많은 반대 가운데서도 신성을 분명히 드러내며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많은 고집 센 유대인의 적들도, 그를 거부한 데 따른 말할 수 없이 참담한 고통을 통해 그의 메시아 됨을 공공적이고 영구적인 증인으로 나타내 주는 민족도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반론 IV. “예수 그리스도는 학식 있고 현명한 사람들을 아니라, 자신이 쉽게 속일 수 있는 약하고 단순한 사람들을 사도와 대리인으로 택했다. 부활의 증인도 소수의 그런 사람들이었다. 예루살렘 거리를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산헤드린 앞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이 문제는 의심할 여지 없이 끝나고 지위 높고 신뢰받는 이들의 증언도 확보되었을 것이다.”

대답 1. 사도 중 가장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성공적이었던 바울의 사례는 그들이 모두 단순하고 무지하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러했다면, 오히려 사기를 조장하기에 더욱 부적합하였다. 그들은 조로아스터, 아폴로니우스, 그리고 다른 사기꾼들처럼 사람들, 특히 위대하고 부유한 자들의 정동(affections)에 스며들 수 없었다. 그들은 오히려 사기를 폭로할 자로서 존중과 믿음 대신 도처에서 경멸과 박해를 받았으며, 신의 도움 없이는 그런 비할 데 없이 고귀한 교리와 도덕 체계를 형성하거나 지옥과 땅으로부터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놀랍게 승리하도록 만드는 데 더욱 무능하였다.

2. 그가 부활 후에 유대 지도자들과 공공장소에 나타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다시 그들의 잔인함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일이었다. 그의 기적, 교리, 행위로 충분한 메시아 증거를 제시한 후에 그들은 그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제공한 부활 증거를 억누르기 위해 온갖 지혜를 짜내고 주머니를 털었다. 그런 완고한 범죄자들이 하늘의 특별한 총애를 받고 복음의 존경받는 전파자가 될 자격은 없었다.—그들은 곧 영혼을 감화시키는 기적적이고 마음을 정복하는 성령의 확실한 증언을 받게 될 터인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살아난 몸을 보는 것보다 천 배는 더 설득력이 있다.—결국, 그의 부활 소식의 발생과 초창기 전파에 세속적 영향이 개입했다면,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는 그 확산과 성공에 덜 명백히 나타났을 것이다.

#### 반론 V. 메시아에 관련된 고대 상징과 예언을 이해하는 유대인들의 소수 신앙 문제

반론 V. “메시아에 관련된 고대의 상징과 예언을 이해하는 유일한 민족인 유대인들 중 소수만이 나사렛 예수를 믿었고, 그를 사기꾼으로 여겼다.”

답변. 이 점이 바로 고대 상징과 예언을 확인시켰으며, 그를 진정한 메시아로 지정하였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열시받고 거부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 명백히 예언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세상 출현 목적이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이므로, 정반대의 행동은 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한 악행이 없었다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온 민족 앞에서 그의 메시아 됨과 복음의 진리를 증언하는 비참한 증인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그들이 위장된 모든 메시아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향 때문에 그를 거부한 것이 더욱 두드러진다.

#### 반론 VI. 계시의 증거와 믿음의 역할

반론 VI. “계시의 사실은 전적으로 믿음에 의존하는데, 이는 가장 낮은 수준의 증거이다.”

답변 1. 그러나 믿음은 가장 흔한 증거이며 폭넓은 수용 능력에 가장 적합하다. 직관이나 합리적 증명이 아니라 타인의 증언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인간 관계를 운영하고, 국가를 통치하며, 소송을 결정하고, 세상 지식을 얻으며,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사람과 장소와 교역한다.

답변 2. 성경의 신뢰성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시대를 초월한 친구와 적들의 가장 강력한 증언에 의존하며, 오차 없는 하나님의 자명한 증언에 의존하는데, 이 증언은 증명 자체보다 더욱 명확하고 강력하다.



## 반론 VII. 성경 내 분열과 계시의 출처 문제

반론 VII. “영감을 받은 책의 수, 의미, 그리고 그 안의 교리와 규율에 관한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신다 하더라도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답변 1. 지난 약 1600 년 동안 진정으로 영감받은 책들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논쟁이나 의심을 품지 않았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가질 만한 많은 자들이 위경(위서)의 신적 권위를 다투지 않았다.

답변 2. 그리스도인들 간의 분열은 자연의 빛을 찬양하는 자들의 분열을 반사하는 것이며, 이는 성경 예언의 성취이다. 또한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이 성경을 원래의 완전성과 순수성으로 보존하는 데 유용하게 작용하며, 어느 경쟁하는 당사자도 성경 내 사기를 발견하지 못한 점이 그 진리를 확증한다.

## 반론 VIII. 기독교 계시와 신도들의 도덕성 문제

반론 VIII. “특히 기독교 계시는 세상을 개혁하지 못했다. 그 가장 저명한 신도들조차 기본적으로 명백한 규율—상호 발 씻기, 돈을 빌려주고 이자 받기, 피 흘려 죽인 동물의 고기 섭취, 맹세—를 습관적으로 경시한다. 정직한 저자들조차도 대부분 성직자를 극악한 악인으로 묘사하며, 많은 신도들을 이교도보다 악하다고 표현한다.”

답변 1. 계시된 종교를 믿는 많은 신도들, 특히 무신론자 학자들이 포함되는데, 이들이 기본 교리와 법규를 습관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참 그리스도인들조차 요구되는 완전성에 이르지 못한다.

답변 2. 지적된 규율들은 결코 기본적이거나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었다. 예컨대 발 씻기는 더운 지방에서 신발을 신지 않고 걷는 이들이 낯선 자에게 베푸는 친절의 일부였으며, 이는 형제에 대한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를 상징한다(요 13:15; 딤후 5:10). 피 흘린 동물의 고기 섭취 금지와 피의 섭취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도시와 성전이 파괴되기 전까지 부당한 의식에 대한 열성을 가졌으므로 그들을 배려해 일시적으로 허락된 것이었다(행 15:20,29). 기독교 법은 증언과 자기 서약에 필요한 맹세를 금지하지 않았으며, 헛되거나 거짓된 맹세, 그리고 일상 대화나 피조물에게 하는 맹세만 금지하였다(마 5:33-37; 약 5:12).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 이웃으로부터 감염되지 않도록 교역이 드물었고, 희년마다 재산이 원소유주에게 돌아갔으며, 하나님은 가난한 자간에는 이자 수취를 금했으나 타인에게에는 허락했다(신 23:19; 레 25:36-37). 그리스도인들은 지금도 가난한 자에게 이자 받는 것을 부당하게 여긴다.

답변 3. 기독교가 제대로 뿌리내린 모든 지역에서 우상숭배와 야만성이 비례하여 근절되었고 인류애, 정직, 자비가 그 자리를 찾다. 역사는 확실히 성직자의 범죄를 기록하지만, 대체로 소란한 문제아에 국한되며, 조용히 그리스도를 따른

다수를 간과한다. 게다가 악명 높은 성직자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대다수였다. 기독교 작가들은 때때로 신도들의 잘못을 부풀려 그들이 부끄러워하도록 만들었으며, 그리스도인 최악과 이교도 최고를 비교한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독교가 성직자와 신도 중에 이교도 최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랑스러운 인물을 배출했다는 점이다.

답변 4. 만약 그리스도인들의 타락 때문에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철학과 자연법 연구의 전성기였던 그리스와 로마의 끔찍한 타락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시아 북동부, 아프리카 남부, 미국 등지에서 자연의 빛에만 의존하는 참된 제자들이 영국의 악한 그리스도인들보다 도덕적으로 훨씬 나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답변 5. 이 반론은 오히려 기독교 계시가 신성한 출처임을 입증한다. 이 반론은 성경이 예언한 대로 성직자와 신도들의 상태를 정확히 묘사한다(딤후 3:1-6, 13; 딤후 4:3-4; 딤후 4:1-3; 행 20:29-30; 살후 2:3-12; 계 13; 계 17; 마 24; 벰전 2-3; 유 4-19). 또한 이 악한 자들이 결코 자신의 성향과 행위에 계시를 맞추려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계시를 보호하기 위해 확실한 제약으로 그들을 제어하시는 것이 분명하다.

우리 성경에 담긴 계시의 신적 권위를 입증하는 위 증거들로 미루어, 에즈드라, 토빗, 유딧 등 위경 서적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

1. 하나님의 신탁을 보관하는 일은 유대인에게 위임되었으며(롬 3:2; 시 147:19-20), 그들은 이 책들을 신적으로 영감받은 것으로 수용하거나 인정할 적 없으며, 항상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여겼다. 실제로 말라기 자신이 세레 요한이 오기 전까지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말 4:4-5).

2. 신약 성경에는 이 책들에 대한 승인이나 인용이 전혀 없다.

3. 이 책들의 저자들은 스스로를 선지자나 영감받은 자가 아니라 오류가 있을 수 있는 인간으로 암시하며 독자의 용서를 구한다(에클레시아스티쿠스 1:1,3,5; 1 마카베오 9:27; 2 마카베오 2:24,27; 2 마카베오 13:39).

4. 이 책들은 우리가 정경으로 인정하는 책들에서 발견되는 신적 지혜, 위엄, 선함, 거룩함의 특징이 없다.

5. 모두에 단점이나 하나님의 신탁과 모순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멜리토, 오리겐, 유세비우스, 아타나시우스, 키릴, 나지안젠, 에피파니우스, 암필로키우스, 터툴리안, 루피누스 필라스트리우스, 예로니무스 및 라오디게아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같은 고대 교부들과 공의회에서 정경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다. 분명히 내가 아는

한에서는 악명 높은 트렌트 공의회를 제외하고는 승인받지 못했으며, 플로렌스 공의회는 사실상 공의회가 아니었다. 이 책들은 중세기에 교회의 어둠과 무지 속으로 빠져들기 전까지는 거의 인정받지 못했다.

성경에 언급된 야서서, 주의 전쟁 등 여러 책은 현재 전해지지 않으며 적어도 옛 이름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내용이 현재 우리에게 전해지는 성경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이 신적인 영감으로 쓰인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1.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구약 기록물 전부가 보존되었음을 확신시킨다(마 5:18; 눅 16:29,31; 눅 24:27,44; 롬 15:4).
2.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용하도록 예정된 책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 지혜와 선함에 어긋난다.
3. 유대인들의 성경에 대한 열정으로 인해 어떤 책도 잃어버리기가 거의 불가능했으며,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어떤 책을 잃거나 훼손한 것을 비난한 적이 없다.

구약은 현재 의례적 형식이나 엄격한 사법법 준수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시된 진리와 도덕적 의무를 가르치는 한, 그 효력은 세상 종말까지 지속된다.

1. 그리스도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온 것이다(마 5:17,19).
2. 구약 성경은 신약에서 규범으로 권장된다(눅 16:29,31; 요 5:39; 롬 15:4; 딤후 3:15-17; 벡후 1:19; 행 17:11; 행 26:22; 마 22:29).
3.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록은 신약 교회의 기초이다(엡 2:19-20).
4. 인류 창조, 인간 타락,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지식은 구약 성경에 깊이 의존한다(눅 16:16; 눅 24:27,44; 요 1:45; 행 10:43; 행 13:47; 행 26:22; 행 28:23; 롬 10:4; 롬 3:21; 고후 3:3,7; 엡 2:19-20).

하나님의 진리가 오직 기억하기 쉬운 소량만 드러났던 때에는,—그 진리의 주요 교사들이 수백 년 동안 생존하며 다수에게 그것을 전할 기회가 있었고,—세상에 미혹이 덜 알려졌던 시절에는,—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만 그 뜻을 나타내셨다.—그러나 그의 계시가 너무 광범위해져서 사람들의 기억만으로는 모두 유지하기 어려운 때,—교사들의 수명이 현저히 단축된 때,—특별한 백성이 크게 번성한 때,—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마음을 나타내는 빈도를 줄이고자 할 때,—그 계시를 더 잘 보존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들을 기록하는 것이 필요해졌다.—기록자들은 스스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명령하셨기에 썼다(출 17:14; 출 34:27; 신 31:19; 사 8:1; 사 30:8; 렘 30:2; 렘 36:2; 겔 43:11; 단 12:4; 합 2:2; 계 1:11-19; 계 14:13; 계 2-3; 사 6:9; 마 28:19).—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라는 신성한 위임이 반드시 기록을 요구하지는 않았으며, 성령께서 그들을 지시하고 결정하지 않는 한 아무도 글을 쓰도록 구속받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성경의 일부를 전혀 기록하지 않았다.

### 교회의 역할과 성경의 권위

교회는,

1. 하나님의 신탁을 지키고 수호하는 자(롬 3:2)이다.
2.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지휘하고 드러내는 자(사 30:21; 담전 3:15)이다.
3. 그것을 적대자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자(담전 3:15)이다. 다만, 그곳에 언급된 진리의 기둥과 터는 교회가 아니라 담전 3:16 에 나타난 경건의 위대한 신비를 가리킬 수도 있다.
4. 성경 내용의 설교자이자 선포자(고후 5:18-20; 롬 10:15,17)이다.
5.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자(행 13:15-41,47; 느 8:8)이다.—그러나 성경은 교회로부터 권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얻는다.

1. 교회는 성경에 기초하여 모든 권위를 부여받았으므로 하나님 자신보다 더 큰 권위를 성경에 부여할 수 없다(엡 2:20; 요 5:39; 행 17:11).
2. 만약 교회의 권위를 근거로 성경을 믿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교회의 권위 아래 두는 것으로(행 4:19; 5:29; 요 20:29,31; 사 8:20; 대상 20:20) 부당하다.

3.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토대로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인간의 지혜와 진실성에 기반한 인간적인 믿음에 불과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 되어 고전 2:5; 고후 4:2; 1:24; 살전 1:5; 2:13 에 어긋난다.
4. 심지어 그리스도와 사도들도 그들의 권위를 성경을 통해 시험받게 했다(요 5:39; 갈 1:8-9; 벡후 1:16-19; 행 17:11; 26:22).
5. 그럼 성경 권위는 어느 교회에 기인하는가? 고대 교회인가, 현대 교회인가? 전체 교회인가, 특정 교회인가? 교황인가, 공의회인가? 가톨릭 신자들조차 명확히 알지 못한다.

### 성경의 명료성과 이해 가능성

성경은 명료하고 분명하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의 여러 구절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계시되어 있으므로([고신양고 1:7]) 적당한 지성을 갖춘 모든 진지한 탐구자는 부지런히 깊이 숙고함으로써 이를 이해할 수 있다.

1. 하나님 자신이 성경이 분명함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셨다(신 30:11-14; 고후 4:2-4; 롬 16:26).
2. 성경은 단순한 자들을 위한 등불과 빛으로 비유된다(시 19:7-8, 119:105,130; 잠 6:23, 1:4; 벡후 1:19).
3. 모든 성인은 비록 약하더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라 명령받았다(요 5:39; 눅 16:29,31; 행 17:11; 신 6:6-9; 사 8:20, 34:16; 계 1:3; 시 1:2, 119:97-100; 마 22:29).
4. 빈번한 반복, 풍부한 설명, 그리고 일상적인 사물에서 끌어낸 다양한 비유와 상징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셨음을 보여준다. 실패할 수 없는 계획이었다.—그러나 성경에 담긴 신비들은 유한하고 약한 우리의 마음으로 완전히 이해될 수 없으며, 특히 역사와 예언 부분에는 구원의 핵심과 직접 관련이 적은 난해한 구절들이 있다(벡후 3:16; 계 5:1,3). 따라서 이를 이해하려면 적절한 수단들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 게다가 가장 명료한 구절들도 성령의 특별한 조명 없이는 영적이고 구원적으로 이해될 수 없다.
1. 사람들이 지상에 머무는 동안에는 영적 맹인이 마음 가운데 지배한다(고전 2:14; 고후 3:5,14; 4:4; 엡 5:8; 계 3:17-18; 시 119:18, 139:6; 73:22; 잠 30:2-3).

2.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 그리고 성도의 기도 속에서 이 특별한 조명은 하나님 마음을 구원적으로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함을 드러낸다(시 25:8-9,14; 시 119:18,27,33-34; 사 48:17, 54:13, 59:21, 29:18, 24, 50:4; 눅 24:45; 요 6:44-45; 고전 2:10,12; 고후 4:6; 엡 1:17-18, 3:14-19; 요일 2:20,27; 요 16:7-14, 14:26; 잠 1:23).

### 성경의 규범성과 교훈적 기능

성경의 명확한 말씀뿐 아니라 그로부터 합당하게 도출되는 결과들 또한 우리의 믿음과 행위의 규범에 포함된다.

1. 모든 성경은 교리와 교육, 책망과 위로에 유익하며, 이러한 목적은 추론을 통해서만 얻어진다(딤후 3:16-17; 롬 15:4; 요 20:31).
2.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이 이성적인 피조물들에게 그들의 이성적 능력에 맞는 방식으로 말씀하시며, 말씀에서 합리적으로 추론 가능한 의미를 반드시 의도함을 요구한다(잠 8:4; 고전 10:15; 2:15).
3. 성경은 그 의미를 찾기 위해 탐구되어야 한다(사 34:16; 요 5:39; 행 17:11; 잠 2:2-4; 시 1:2; 119:97).
4.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종종 성경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근거로 논증했다(마 22; 롬 3; 롬 9-11; 갈 3-4; 히 1-13).

우리의 성경 결과 도출에 있어서 이성은 텍스트 안에서 그것들을 식별하고 끌어내는 도구일 뿐, 그것들을 믿는 근거가 아니다—이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성경 지식 습득의 도구임에도 그것이 자신이 곧 믿음의 근거가 아닌 것과 같다. 명확한 말씀과 그로부터 도출된 필수 결과까지 포함하는 성경은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있어 완전하고 충분한 규범이며, 장차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 믿고 행해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1. 성경은 완전하여 모든 필요에 부합하며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적합하다(시 19:8-9; 요 20:31; 요일 5:13; 롬 15:4; 딤후 3:15-17; 시 119:97-100; 갈 6:16).
2. 성경에 조금이라도 첨가하거나 빼는 것을 엄히 금지한다(신 4:2, 12:32; 갈 1:8-9; 계 22:18-19).
3. 사람의 믿음이나 종교적 행위에 관한 모든 교리적 전통은 하나님께서 명백히 책망하고 거부하셨다(마 15:2-3,9; 사 8:20; 고전 4:6).—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에 명시적이지 않으나, 그 핵심과 하나님에 관한 모든 필수 사항은 성경에 있다(요 21:25; 요 20:31).—데살로니가인들에게 고수할 것을 요구한 전통은 신약의 대부분이 기록되기 전 당시에

사도 설교와 서신에서 전달된 신앙 교리와 생활 규범이었다(살후 2:15; 3:6).—디모데에게 맡겨진 신탁은 구두 전통이 아니라 복음과 바른 말씀의 형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설교에 적합하도록 주신 뛰어난 은사였다(딤후 1:13).

로마 가톨릭 및 유대인 전통은 그 기원과 전승이 불확실하며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히 불일치하므로 신뢰할 가치가 없다.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신탁에 새로운 계시를 더해선 안 된다.

1.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들이 개인적 사건이나 의무에 관한 사적인 암시를 받을 수 있으나, 교회의 인도자로서의 개인적 성령의 영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갈 1:8-9; 살후 2:2; 행 18:28; 사 8:20).—심지어 하나님의 개인적 암시도 보통 성경 안에서 전달된다.

2. 사탄과 우리 마음의 간교함으로 인해 개인 계시는 우리 자신에게도 매우 불확실하며, 타인에게는 더욱 불확실하다(렘 17:9; 잠 28:26; 고후 11:14; 2:11; 살후 2:9-10; 마 24:24).—개인 계시 권위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들의 견해와 행위가 성경과 상반되어 미혹의 영에 이끌리는 자들이다.

3. 성경은 높은 경지의 종교적 성취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의 등장을 명백히 예고한다(마 7:15; 24:11,24; 행 20:29-30; 살후 2:8-9; 딤후 4:1-3; 딤후 3:2-6,13; 요일 4:1; 2:18).

### 예상 가능한 반론에 대한 답변

1.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이고 살아 있으며 능력이 있으나, 사람들의 마음 부패로 인해 죽은 문자로 전락할 뿐이다(롬 7:6,14; 히 4:12; 고후 3:6).

2. 성령에 관한 성경의 약속은 사도 시대의 특별한 이끌림과 그 이후 다른 시대에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반적 사역 모두에 해당하며, 또한 때로는 비유적 언어로 표현된다(골 2:28; 행 2:16-18; 롬 8:16; 살전 5:19; 요 14:26; 16:14; 요일 2:20,27; 5:6).

성경의 완전성은 사도 이후 초기 교회 아버지들이나 저자들이 신앙과 행위 규범에 끼친 어떤 교훈도 배제한다.

1. 이들 아버지 모두는 오류 가능성이 있는 인간들이며, 자주 견해를 바꾸었다. 가장 신중한 아우구스티누스조차 자신의 오류를 철회하는 책을 썼다.

2. 특히 방대한 저작에서 서로, 나아가 자신과도 종종 모순된다.
3.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독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믿거나 따르지 말라 권고했다.
4. 그들에게 귀속된 여러 저작은 실제로 그들의 것이 아니며, 저작 또한 필경자들의 무지, 부주의, 악행으로 심히 훼손되었다.—이러한 이유들은 교황이나 공의회 결정도 신앙 규범의 일부로 수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근거가 된다.

### 성경의 공개성과 보편적 접근

성경은 영생에 이르는 오직 하나뿐인 믿음과 행위의 규범이므로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공개적이고 개인적으로 읽혀야 한다.

1. 주님은 모든 연령과 신분의 모든 성인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하고 격려하며(신 6:6; 11:19; 17:18-19; 31:11-12; 수 1:8; 사 8:20; 34:16; 눅 16:29,51; 요 5:39; 시 1:2; 뎁전 4:13; 계 1:3; 행 17:11), 성경을 알지 못하는 자를 책망하신다(마 22:29; 호 4:6, 8:12; 사 27:11).
2. 성도의 검증된 실천은 성경 읽기를 본보기로 삼는다(느 8:3,6,8; 눅 4:16; 행 13:27; 15:21; 17:11; 8:28; 뎁후 3:15).
3.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고 정하셨으며(히 2:1; 롬 1:2; 엡 3:9), 성령이 언급한 여러 용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수적이다(뎁후 3:15-17; 롬 15:4; 요 20:31; 엡 6:17; 고후 3:4; 뎁전 1:23; 2:2; 시 119:9,11; 뎁후 3:1; 유 3; 요일 1:4; 2:26; 5:13).
4. 예언자, 제사장, 재판관이라는 성도의 직분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철저히 알아야 함을 요구한다(시 105:15; 뎁전 2:5,9; 고전 2:15; 6:2).
5. 성경은 원래 당시 하나님과 백성이 이해하던 언어들로 기록되었으며, 이를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명확히 작성한 것으로서 현재에도 모두가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되어야 한다[고신양고 1.8].

실제로 적그리스도가 교회에 나타나기 전까지, 성경은 번역되고 읽히도록 세심한 주의가 기울여졌다.



성경의 모든 본문은 교훈, 지시, 책망, 위로 등의 다양한 목적에 적용될 수 있다(딤후 3:16-17; 롬 15:4). 많은 본문은 먼저 유형(type)과 그 다음에 실상(antitype)과 관련된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유대인은 유형적인 민족이므로 그 역사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복합적인 의미를 가진다. 많은 예언은 유대 민족, 기독교 교회, 천국 상태에서 여러 단계에 걸쳐 성취되며, 앞선 단계들이 후속 단계를 나타내는 유형이나 보증에 해당한다. —또는 교회와 국가 모두에 관하여. 『솔로몬의 노래』 및 유사한 우화(allegories)에서는 성령에 의해 의도된 영적인 것들이 유일한 의미이며, 상징들은 단지 그것들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어떤 성경 구절도 엄격하게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 성경 해석의 원칙

1.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롭도록 하기 위해 적합하게 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딤후 3:15; 시 19:7; 시 119:97-100).
2. 변함없는 순수성과 명료성이 같은 본문이 여러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음을 증명한다(시 12:6; 벰전 2:2).
3. 어느 본문도 개인적 해석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성령께서 확실히 의도하신 의미만을 부여해야 한다(벰후 1:20-21; 벰후 3:16; 고후 2:17). —사도들이 때로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하거나 인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 의미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유형적인 것과 관련되어 다른 단계에서 성취되거나, 사도의 주제에 맞춘 인용이거나, 거의 유사한 표현으로 암시한 것일 뿐 실제 인용이 아닐 수 있다.

모든 사람, 특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신중한 판단력을 가지고 스스로 성경의 의미를 판단할 권리가 있다(cf. WCF 20.2). 이를 행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명령하신 것이며, 그렇지 않고서는 성경을 읽거나 듣는 일이 영혼에 유익할 수 없다(행 17:11; 고전 2:15; 고전 10:15; 고전 7:23; 고후 4:2; 히 5:14; 갈 1:8; 요일 4:1; 살전 5:21; 롬 15:4; 요 5:39; 사 34:16). 교회 지도자들은 성경의 의미를 판단하여 타인에게 선포하고 적용할 확정적이고 공적 목회 권한을 가진다(말 2:7; 마 28:19-20; 딤후 2:15-16; 딤후 4:2; 느 8:8; 행 2:29,36,39; 행 8:35; 행 20:20-21,24,27-32; 고전 15:1,3-4,11-12; 고전 4:1-2; 고전 2:4-5; 고전 1:24; 고후 1:24; 히 5:12; 고전 14:29,32-33). —그러나 아무 인간도, 교회, 교부, 교황, 또는 공의회도 성경의 의미에 관해서 무오한 심판자나 종교 논쟁의 최고 결정자가 아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만이 유일한 최고이자 무오한 심판자이다.

1. 모든 교회와 공의회는 피조물이고, 교황과 교부도 오류를 범하며 서로 또는 스스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아 때로는 판단 대상이 되기도 한다[WCF 31.4]. 죽은 뒤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없다.
2. 성경은 지상에 그러한 무오한 심판자가 있음을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3. 하나님의 명령과 그리스도 및 사도들의 모범은 신앙과 행위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마다 성경 자체에 호소할 것을 요구한다(신 17:10; 사 8:20; 사 34:16; 눅 16:29,31; 요 5:39; 요일 4:1; 벧후 1:19; 행 17:11; 약 4:11-12; 마 23:8-10; 마 4:2-10; 마 22:29-33; 요 5; 요 7-8; 요 10; 눅 24:27; 행 15:15-20; 행 18:28; 행 26:22).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성경을 판단 기준에서 벗어난 죄로 정죄받았다(마 15:3,9; 마 22:29).

### 인간 이성의 역할과 한계

인간 이성은 성경의 신적 권위를 검증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적들이 성경을 부인하거나 부패시키거나 왜곡하려 할 때 그것을 변호하며, 성경에 담긴 신비를 해석하고, 서로 비교하거나 심지어 자연법과도 대조할 수 있다. 철학, 자연사 등에서 얻은 암시로 신의 진리를 밝히고, 어떤 의미가 상식이나 다른 성경 구절과 배치되는지를 가려내는 데 인간 이성은 도움을 준다(마 7:15; 마 16:6; 골 2:8; 살전 5:21; 히 5:14; 행 17:11; 고전 2:15; 고전 10:15; 고전 11:13; 갈 3:15-17; 딤후 3:16; 딤후 1:9). 그러나 인간 이성은 계시의 어느 부분을 믿고 행할지 결정하는 무오한 기준이나 성경의 의미를 이해하는 무오한 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속받지 못한 이의 이성은 완전히, 구속받은 이의 이성도 부분적으로 어둡고 부패했기 때문이다(엡 4:17-18; 롬 1:27-28; 롬 8:7-8; 롬 17:9; 엡 5:8; 고전 2:14; 고전 1:19,21; 고전 3:19-20; 신 29:4; 고후 4:3-4; 고후 3:5,14-15; 고후 11:3; 고전 13:12).
2. 계시의 신비는 우리의 이성을 훨씬 초월하며 이해 불가능하다(고전 1:19-20; 고전 2:9; 고전 3:18-19; 롬 11:33; 딤후 3:16; 요 1:18; 마 16:17; 마 11:25).
3. 하나님은 종교적 신앙이 인간 권위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자 계시에 근거하도록 하셨다(신 4:1; 사 8:20; 요 5:39; 요 20:31; 딤후 3:15; 롬 10:14-17; 살전 2:16; 벧후 1:19; 행 17:11; 고후 1:24; 고후 4:2; 고전 2:4-5).

그러나 우리의 종교는 여전히 합리적인 예배이다. 유대인의 의식처럼 육체적이고 외적인 예배가 아니라,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이성을 은혜롭게 행사하는 영적인 예배이다(롬 12:1). 성경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적절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의 능력 있는 조명과 인도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많이 드리며, 말씀을 우리 마음에 효과적으로 적용해주시도록 구하는 것(시 119:18; 엡 1:18-19; 엡 3:14-19).
2.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진실하고 간절한 열망으로 주의 깊게 자주 읽고 묵상하며, 양심을 활짝 열어 순종하여 믿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요 5:39; 행 17:11; 시 1:2; 시 119:97-100; 딤후 4:13,15; 마 6:22).
3. 성구들끼리 서로 참고하고 보완하도록 신중하게 비교하며, 특정 본문에 복음 진리의 유추와 총체적 체계, 그리고 문맥에 부합하는 의미 외에는 부여하지 않는 것(롬 12:6).
4. 이해하거나 설명하려 하는 책과 본문의 경우와 목적을 주의 깊게 살펴 붙이는 의미가 그에 알맞도록 하는 것.
5. 가장 명확하고 충분한 이유가 없으면 문자적 참된 의미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부가 말하는 영적 의미를 임의로 부여하지 않으며, 명백히 우화적인 본문에 육체적 의미를 결코 부여하지 않는 것. —모든 본문에서 영적 유익은 끌어낼 수 있고 끌어내야 하지만, 분명한 역사적 본문을 신비적 의미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역사가 유형과 관련될 때는 유형의 역사와 실상의 신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6. 특히 성경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가 탁월한 빛과 강조로 드러나는 원어를 이해해야 한다. —원어를 읽지 못한다면 최상의 번역본과 주석의 각주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7. 성경 언어의 비유적 표현과 언급된 관습, 종파, 직분 등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8. 특히 역사와 예언을 이해하기 위해 지리적 지식과 민족 및 교회사에 관한 상당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9. 본문에 대한 일반적 지식에 안주하지 말고, 본문에서 가장 주된 내용과 핵심을 부지런히 찾아야 하며, 이는 때로 ‘~에’, ‘~로’, ‘때’, ‘그러나’, ‘그러므로’ 등과 같은 사소한 조사나 접속사 하나하나에 대한 정확한 주의를 달려 있다.
10. 신중하되 맹목적이지 않은 확고한 주석, 특히 가장 복음적이고 실천적인 주석을 읽어 본문끼리의 연관성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11.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임을 진지하게 기억해야 한다. 영혼의 영원한 구원이 성경 말씀에 담겨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성경을 단순히 이론적이거나 철학적으로 읽는 것은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는 데 있어 거의 최악이다.

## 성경 전체 구조와 계시 내용

대체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뉜다. 구약은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시기 이전에 출간되어 그를 유형적으로 나타내며,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신으로 오셔서 순종과 고난 가운데 자신을 낮추시고, 부활과 승천 후 하나님께 높임받으심을 나타내어 출간되었으며 더욱 명확하고 영적이며,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향한다. —양쪽 성경 번역본에서는 일반적으로 먼저 가장 명료한 역사서가 나오고, 다음에 교리서가 있으며 이들의 내용으로 해석이 필요한 본문이 많고, 마지막으로 대체로 난해한 예언서가 있으며 앞선 두 부류에서 해석해야 한다.

내용상 성경에 담긴 계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역사: 도시와 나라의 과거 상황과 하나님과 인간의 행위를 나타냄.
2. 예언: 장래에 일어날 것을 예고함.
3. 교리: 하나님의 완전성, 인격, 목적, 사역; 천사의 속성, 상태, 직무; 인간의 무죄, 타락, 회복, 영원한 상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기원, 체결, 당사자, 부분, 관리 등 본질을 드러냄.
4. 율법: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 대한 의무의 본질과 부분 및 구원의 수단을 제시하고 제정함.
5. 약속: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뜻을 나타냄.
6. 저주와 경고: 율법 위반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교정을 뜻함. 이 두 가지는 예언과 관련되며 율법의 제재로서 기능한다. 많은 경우 조건적이며, 약속은 약속 대상자의 선한 상태나 행위를 전제로 하고, 경고는 계속된 불회개를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취를 기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약속과 경고는 모든 민족과 시대에 공통적인 복과 재앙에 관한 상설적 성격이며, 다른 일부는 특정 시기, 대상, 사회에 한정된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동등하게 참되나(시 12:6; 시 19:9; 시 119:128; 잠 30:5), 중요성 면에서는 동등하지 않다(마 23:23; 막 12:30-34). 어떤 진리는 구원 받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믿으며 실천해야 하는 근본 진리들이지만, 어떤 것은 이 의미에서는 근본적이지 않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근본 진리와 비근본 진리가 혼재하여 어느 쪽에 속하는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도 하다.

드러난 종교의 근본 교리는 성경에 명백하고 실제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은 될 수 없다는 점은 확실하다(딤후 3:15-17; 고전 1:24-25; 마 11:25; 히 5:11-14; 히 6:1-2). 또한 분명하다. 1.

모든 진리 중 그 지식 없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명을 향한 회개, 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을 수 없는 진리는 근본적 진리임이 분명하다. 히 11:6; 히 12:14; 딤후 2:11-12; 막 16:16; 롬 10:14; 요 17:3; 요 5:23-24 및 요 10:30; 요 1 서 2:23; 요 2 서 9.

### 근본적 진리의 범주

2. 성경에서 영원한 구원이 부수된 것으로 인정된 진리와 무지나 불신앙이 연결되어 영원한 멸망이 따르는 것으로 나타난 진리도 근본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다. 요 1 서 4:2-3; 요 8:24; 요 3:18,36; 롬 10:3,9-10; 갈 1:8-9; 갈 2:19-21; 갈 5:2,4; 고전 15:14.

3. 성경에서 기초로 제시하는 모든 진리, 곧 그리스도의 종보자적 인격, 직무, 위상에 관한 교리는 근본적 진리로 분류되어야 한다. 고전 3:11; 엡 2:20; 마 16:16,18; 딤후 3:15-16; 고전 1:24; 고전 2:2; 빌 3:8; 고전 15:14; 딤후 2:8.

4. 다른 근본 진리들을 알거나 믿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모든 진리 또한 근본적 진리로 여겨야 한다. 예컨대 하나님의 선포하신 우리의 죄성과 비참함에 관한 지식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알고 그분을 구주로 믿기 위해 필요하다. 요 1 서 1:8,10; 딤후 1:15; 마 9:13; 마 18:11; 계 3:17-18; 호 13:9.

하나님께서 근본 진리의 정확한 목록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엄밀히 근본적이지 않을지라도 기초에 매우 가까운 진리들이 있고, 교회의 발전 단계에 따라 근본적 진리가 될 수도 있었거나 되었던 진리들도 있으며,

모든 계시의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며 적절한 자리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근본 진리가 무엇인지 가리려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종교 지식 연구를 소홀히 하고 게으르게 만들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근본 진리를 정확히 확정하는 일은 필요도, 유익도, 안전도, 가능성도 없다.

그럼에도 확실한 것은 기독교 신앙 전체가 단순히 마음의 상태나 하나님의 명령 준수, 약속에 대한 희망 그 자체에 머무르지 않고, 교리의 정통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1.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계명과 약속 외에도 무의미하지 않은 여러 진리를 명백히 계시하셨다. 롬 1-11; 갈 1-4; 고후 5; 엡 1-4; 골 1-2; 히 1-10 등.

2. 계시된 종교 원리에 관한 지식과 사고의 건전함은 성경에서 종교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명령되고 권고되며 약속되고 간구되었다. 딤후 2:4; 요 1 서 3:23; 요 1 서 2:23; 요 17:3 및 요 20:31; 딤후 3:15; 딤후 2:8; 딤후 1:1; 요 1 서 9-10; 사 1:3; 사 27:11; 호 4:6; 살후 1:8; 고후 4:3-4; 사 11:9; 사 29:18,24; 벴후 1:2; 골 2:2; 골 3:16; 엡 1:18; 엡 3:17-19; 엡 4:14.

3. 하나님 계명에 대한 순종이나 약속에 대한 희망은 그에 관한 바른 인식과 다른 신적 진리에 대한 참된 믿음 없이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롬 10:9-10; 롬 14:23; 히 11:6; 요 6:29,39-40.

4. 복음의 근본 진리에 완강히 반하는 견해를 고수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으며 영원한 멸망에 처함을 성경이 선포한다. 딤후 3:10; 요 1 서 2:22-23; 갈 1:8-9; 갈 5:20.

## 성찰

성찰. 나의 영혼아, 지금 깊이 명상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유언이 내 유산이며, 내가 소망을 두는 말씀인가? 이것이 나의 영원한 생명의 신성한 증서인가? 지금도 나의 양식이며 마음의 기쁨인가? 내 입맛에 꿀보다 달고 큰

전리품보다 더 기쁘게 하는가? 낮이나 밤이나 집 안이든 길에서든, 누울 때나 일어날 때 나와 대화하는 나의 고문자인가? 나는 그 즐거운 내용을 참으로 이해하는가? 그 크고 귀한 약속들을 믿는가? 순례의 집에서 새 노래로 그것을 찬양할 수 있는가? 말하거나 쓸 때 이 말씀이 내게 가리워진 죽은 편지가 아닌가? 아니면 실로 하나님의 자증적이며 영과 생명으로 충만하여 살아 있고 능력 있어 내 골수와 관절을 쫓개는 말씀인가? 어떤 구절들이 특히 내 영혼을 감동시켰으며, 어떻게 감동시켰는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 마음에 숨긴 말씀이 무엇인가? 받은 약속은 무엇이며 그것들을 예수와 그 아버지의 무한한 은혜의 은행에서 나의 부유한 담보로 굳게 붙들었는가? 떠나가는 영혼에 위로가 될 것을 무엇으로 쌓아두었는가? 내 영혼아, 말씀의 능력을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신성한 진리를 선포하거나 전파하려 감히 나서지 말라! 슬프도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언약을 마치 악하게 말하지 않는가? 내 마음이 “이것이 나의 구원이요 내 모든 소망이다”라고 말하기 전인데, 어찌 예수의 심판대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으랴! 내 영혼아 깊이 수치심을 가져라! 오랫동안 이 성경의 거울을 즐기면서도 돌이켜보지 않고, 그 안에서 예수와 그의 구원을 너무나 적게 바라보았음을! 내 집에 이 무한한 구속적 사랑의 살아 있는 솟 같은 보물이 있음에도 내 마음은 거의 움직임도 없고 녹지도 않으며 불타지도 않았음을! 이 풍성히 차려진 식탁에서 오랜 기간 예수의 살과 피, 하나님의 충만을 두었으나 거의 주가 은혜롭다는 사실을 맛보지 못했음을! 구속을 가져오는 예수의 보혈과 무한하고 영원한 선하심과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득 쥐고 있으나 내 마음은 여전히 공허함을! 그의 본성과 사역을 묵상하기 전에 말씀을 믿고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야 하며, 그 기초 위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전부시다”라고 계속 고백해야 한다.

## 제 2 권: 하나님, 모든 종교의 창조자요 대상이며 목적

### 하나님 본성 또는 완전함

성경은 인류가 하나님을 그분의 창조와 섭리의 역사로 알게 되었다고 전한다. 시 19:1-6; 롬 1:19-20,32; 롬 2:14-15; 행 14:15-17; 행 17:23. 또한 하나님 존재를 엄숙히 확증하며 그 이름, 본성, 완전성, 위격, 목적 및 사역을 드러낸다.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붙여진 고유 이름은 다음과 같다.

- 엘(EI): 능력과 권능이 충만한 하나님(창 17:1; 사 9:6)
- 엘로아(Eloah): 경배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창 1:1; 시 45:6-7)
- 샤다이(Shaddai): 전능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창 17:1; 출 6:3)
- 엘리온(Eljon): 비교할 수 없는 탁월성, 절대 주권, 가장 높은 하늘에 거하심(시 50:14; 56:2)

- 아돈(Adon): 만물의 위대하신 주, 붙드시는 분, 심판자(시 110:1; 16:2)

- 야훼(Jah): 자기 존재와 피조물에 생명 주심, 자신과 피조물의 행복에 완전하게 어울리는 이름(출 15:2; 시 68:4; 130:3; 사 26:4)

- 에헤예(Ehjah, “나는 나니” 또는 “내가 될 자”): 자존성과 절대 독립, 불변하는 영원성, 백성에 대한 충분하심(출 3:14; 계 1:4,8)

- 여호와(Jehovah): 자존, 절대 독립, 끊이지 않는 영원성,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약속을 성취하심(창 2:4,7-8,16,19,21-22; 3:1; 10:9-10; 12:1,4,7)

이 이름은 세상 초기부터 알려졌다(창 4:1; 9:26; 5:29; 14:22; 15:7; 24:7). 족장들이 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특별한 약속의 성취를 통해 그 이름의 적합성을 명백히 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이다(출 6:3). 이 이름은 사람이나 사물 이름에 부분적으로 포함되어 있을 때 여호와와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단독으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적용된다.

1. 오직 그분만이 여호와이시다(시 83:18; 사 37:20; 45:5-6).

2. 이 이름은 하나님의 고유한 구별된 이름이며(사 42:8; 출 15:3; 호 12:5; 암 5:8), 그의 크고 두려운 이름이다(시 99:3).

3. 이 이름이 나타내는 탁월함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며(시 96:5; 사 44:24), 천사가 여호와 혹은 주로 표기되는 경우 이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며, 여호와의 사자임을 의미한다(창 16:13; 18:13 등).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주(Kurios)”라 부르는데, 이는 그분의 자존성과 만물을 세우시고 다스리는 권위를 뜻한다. 또한 “하나님(Theos)”이라 부르는데, 창조자이자 만물을 관통하며 다스리는 존재임을 나타낸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엘과 엘로아처럼 단순히 권능이나 직분이 아니라 신성 본질을 대표한다.

1. 권력과 권위를 가진 모든 이가 참 하나님은 아니다(고전 8:5-6).

2. 하나님은 본질상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며, 이는 우상과 구별하려는 것이다(갈 4:8).

3. 하나님은 그의 권능이 피조물을 형성하거나 다스리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셨다(롬 1:20; 16:26; 시 90:2).



4. Theotes 또는 Theiotes(신격, 신성)는 권능이나 직분이 아니라 신성 본질을 뜻한다(행 17:29; 롬 1:20; 골 2:9).

5. 피조물은 명확한 한계가 붙지 않으면 하나님이라 불리지 않는다. 천사와 관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의 위엄, 지혜, 권능, 정의를 닮아 하나님이라 불린다(시 97:7; 82:6; 요 10:34; 출 4:16; 7:1; 22:28). 우상과 악령, 혹은 인간의 욕심은 참 하나님 대신 숭배받기에 하나님이라 불린다(시 115:4; 고후 4:4; 빌 3:19).

하나님은 또한 남자, 사자, 반석 등 비유적인 이름들로 표현된다. 신성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 외에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등 신격 내 특정 위격을 지칭하는 이름도 있다(마 28:19; 고후 13:14). 하나님과 타자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도 이름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온 땅의 끝들을 창조하신 분”(사 40:28), “사람을 보존하시는 분”(욥 7:20) 등이 그것이다.

열방의 왕, 예레미야 10:7. 만군의 주님, 그분께는 자연의 하나님으로 귀속된다.—또한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자 아버지로서, 에베소서 1:3; 베드로전서 1:3; 요한복음 20:17; 고린도후서 1:3.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출애굽기 3:6.—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자 거룩하신 분, 사무엘하 23:3; 이사야 48:17.—성도들의 왕, 요한계시록 15:3.—자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3.—자비의 하나님, 시편 59:17.—은혜의 하나님, 베드로전서 5:10.—평화의 하나님, 로마서 16:20; 고린도후서 13:11; 히브리서 13:20.—구원의 하나님, 시편 68:20.—기도를 들으시는 분 등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귀속된다.

##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에 관하여 하나님은 가장 순수한 영(spirit)으로서 지성과 의지를 가지며, 어떤 신체적 부분이나 정동(affections) 또는 열정도 없다.

1. 그분은 명백히 영으로 묘사된다, 요한복음 4:24; 민수기 24:2; 사사기 3:10; 에스겔 11:24; 고린도후서 3:17-18; 또한 영들의 조성자이시며 하나님이자 아버지로 묘사된다, 민수기 16:22; 히브리서 12:9; 스가랴 12:1; 누가복음 24:39.

2. 그분은 전적으로 무형(incorporeal)이고 보이지 않음으로 묘사된다, 욥기 10:4; 9:11; 4:16-17; 23:3-4,8; 이사야 40:18; 신명기 4:15-16; 출애굽기 33:20; 요한복음 5:37; 1:18; 로마서 1:20,23; 디모데전서 1:17; 6:16; 히브리서 11:27.

3. 불멸의 생명이 그분께 귀속된다, 신명기 33:40; 예레미야 10:10; 고린도후서 6:16; 데살로니가전서 1:9; 디모데전서 1:17; 4:10; 6:16; 사도행전 14:15; 로마서 1:23; 요한계시록 1:18; 창세기 16:13; 시편 18:46. 이 생명은 그분이 피조물들이 누리는 자연적 혹은 영적 생명을 주시고 보존하심으로 나타난다, 사도행전 17:25-29; 시편 36:9; 디모데전서 6:13; 로마서 4:17; 요한일서 5:20; 요한복음 5:21,25-26,28; 14:19.

4. 영적인 사고와 의지 행위가 그분께 귀속된다, 시편 33:11; 40:5; 139:2; 147:4-5; 92:3; 이사야 55:8; 예레미야 29:11; 시편 115:3; 요한계시록 4:11; 다니엘 4:35; 이사야 46:10; 14:24,27; 에베소서 1:11; 빌립보서 2:13; 로마서 9:16,18.

5. 권능, 지혜, 거룩, 정의, 선함, 진리, 인격들, 목적들, 그리고 이후에 그분께 귀속됨이 증명되는 행위들은 그분을 가장 순수한 영으로 조화롭게 드러낸다.—성경에서 그분에게 귀속된 신체적 부속물들은 단지 그분의 영적 완전성과 행위의 교훈적인 상징일 뿐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려한 것이다, 호세아 12:10.—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분께 귀속된 모든 정동(affectations), 즉 욕망, 기쁨, 희망, 두려움, 슬픔, 분노 등의 열정도 이해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항상 연약적 관계 방식으로 인간과 다루셨으므로, 이러한 정동들 중 상당수는 그 언약들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을 친구 혹은 적으로 나타내려는 의도이다. 그리고 그분께 귀속된 듯 보이는 변화들은 실은 우리가 행위 언약 아래에서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변화를 의미한다.

##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완전함, 혹은 탁월함은 그분 영적 본질이나 본성의 본질적이고 절대적으로 불가분한 특성이다. 이는 전달 가능한 속성과 전달 불가능한 속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달 가능한 것들은 피조물 가운데서도 약하지만 무한히 불완전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다(예: 지식, 지혜, 권능, 거룩, 정의, 선함, 진리). 전달 불가능한 것들은 그의 피조물

가운데 그 어떤 유사성도 없는 것들이다(예: 자존, 절대적 독립, 절대적 단순성, 무한, 연속하지 않는 영원, 불변성, 필연적 일체성, 그리고 삼위 일체의 세 인격으로서의 존재).

## I.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그가 대상들을 식별하는 지적 완전성이다.—그는 모든 것을 아신다, 시편 147:5; 요한복음 21:17; 요한일서 1:5; 3:20; 히브리서 4:13; 욥기 34:21-22; 36:4-5; 시편 94:7-10; 139:4-7; 예레미야 23:24.—그는

1. 자신의 무한한 완전들과 신비한 목적들 모두를 아신다, 마태복음 11:27; 요한복음 1:18; 10:15; 고린도전서 1:10; 예레미야 29:11; 사도행전 15:18.

2. 모든 피조물을, 크고 작고 실제로 혹은 가능하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아신다, 시편 147:4; 마태복음 10:30; 사도행전 15:18; 신명기 29:29; 욥기 12:22; 28:8,10,24; 26:4-6; 24:1; 34:21-22; 역대상 16:9; 잠언 15:3; 시편 33:13-15; 11:4; 138:6; 예레미야 23:24; 디모데후서 2:19.

3. 모든 피조물의 행위들, 선하고 악한 모든 것을 아신다, 잠언 5:21; 15:3; 욥기 34:21-22; 시편 69:5; 90:8; 139:7-13; 33:13-18; 34:15; 1:6; 56:8; 느헤미야 1:7; 사무엘상 2:3; 예레미야 16:17; 32:19; 이사야 26:7; 하박국 1:13.

4. 인간 마음의 모든 숨겨진 속성과 생각 혹은 욕망을 아신다, 창세기 6:5; 히브리서 4:12-13; 시편 139:1-4; 7:9; 38:9; 역대상 28:9; 사무엘상 16:7; 신명기 31:21; 잠언 15:11; 16:2; 21:2; 누가복음 16:15; 아모스 4:13; 예레미야 17:5,9-10; 16:17; 사도행전 1:24; 요한계시록 2:23; 로마서 8:27; 역대상 6:30; 요한복음 2:24-25; 고린도전서 4:5.

5. 모든 미래의 것을 아신다, 시편 139:3-4; 이사야 45:20-21; 41:21-24; 42:9; 46:9-10; 예레미야 29:11; 다니엘 2:20-22; 사도행전 15:18. 이로 인해 대부분의 미래를 예언하셨다, 창세기 3:14-19; 6:9; 9; 12-13; 49; 레위기 26; 신명기 27-33 등.

6. 일어나지 않은 가능한 사물들 간의 연관성도 아신다. 즉 그분의 능력이 무엇을 산출할 수 있는지, 어떤 상황이 다른 것에 어떻게 의존하는지를 아신다, 에스겔 3:6-7; 마태복음 11:21,23.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

1. 필연적으로 그분 자신으로부터, 시편 147:5; 요한일서 1:5; 다니엘 2:20-22.

2. 직관적으로, 단순한 한 번의 직관에 의해, 우리가 어떤 사고나 연상 과정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서 4:13; 욥기 28:23-28.

3. 대상이나 교사로부터 어떤 지시나 교육과 독립적으로, 이사야 40:13-14; 로마서 11:33-34; 욥기 40:2.

4. 본성, 수, 속성, 조건에 관해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아신다, 요한일서 1:5; 이사야 40:21; 시편 147:4; 139:12-14.

5. 무오류하게, 마태복음 5:18; 이사야 14:24,26-27; 사도행전 15:8; 시편 139:1-4; 11:4.

6. 불변적으로, 창조된 대상들이 아무리 변해도 모든 변화는 그의 주권적 의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5:18; 이사야 46:10.—그러나 조건적인 그의 의지 선언들은 예언과 엄밀히 구별되어야 한다, 사무엘상 23:11-12; 요나 3.

## II.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1. 그의 행위에 가장 적절한 목적을 제시하는 것, 로마서 11:36; 잠언 16:4; 이사야 43:21.

2.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 사무엘하 14:14.

3. 적절한 시기와 장소라는 환경 속에서 그 수단으로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것, 갈라디아서 4:4; 에베소서 1:10; 에스겔 16:8; 28:25-26; 29:21.

4. 옳은 규칙이나 계획에 따라 행동하도록 인도하는 것, 에베소서 1:11; 이사야 46:10; 예레미야 29:11, 이는 그의 지혜라고 불린다.

하나님은 지혜롭다.

1. 성경은 분명히 그가 지혜롭다고 선언한다, 욥기 12:13,16; 36:4-5; 38-39; 28:12,22-28; 잠언 8; 로마서 11:33-34; 이사야 40:13-14; 다니엘 2:20; 고린도전서 1:21-25; 3:18; 에베소서 3:10; 디모데전서 1:17; 유다서 25; 로마서 16:27.

2. 그는 피조물들에게 많은 지혜를 준다, 열왕기상 3:12; 4:29; 에스라 7:25; 욥기 35:10-11; 36:22; 38:16; 잠언 2:6-7; 8:12; 전도서 2:26; 에베소서 3:10; 야고보서 1:5; 이사야 28:26; 욥기 32:8; 마태복음 16:17; 이사야 48:17; 29:24; 예레미야 31:34.

3. 그의 지혜는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드러난다.

1. 그의 목적들에서, 시간과 영원을 아우르는 모든 사건의 완전하고 정확한 계획을 세우며 모든 것을 주된 목적과 부차적 목적과 완벽히 일치시키는 데에서, 이사야 40:13-14; 46:10; 14:26-27; 에베소서 1:8-11.

2. 만물을 창조한 데에서, 잠언 8:22-31.—놀라운 피조물들의 다양성에서, 씨앗, 본능, 부속, 능력, 식물, 감각, 이성 존재들에서,—성향, 양, 형태, 음성 등에서, 시편 104:24; 창세기 1.—그 아름다움과 질서, 그리고 위치와 움직임에서, 전도서 3:11.—각 목적에 알맞은 적합성에서, 그리고 거의 무한한 형태로 사물들을 서로 연결한 데에서, 호세아 2:21-22.

3. 그분의 섭리에서,

1.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위 및 움직임을 각 순간의 정해진 목적에 정확히 맞추어 붙들고 통치하는 데에서, 히브리서 1:3; 에베소서 1:11.

2. 두렵고 위협적인 섭리가 가장 영광스럽고 즐거운 사건으로의 도입 역할을 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 사라의 오랜 불임은 민족 다수의 어머니가 되는 도입이었다. 야곱의 수치스러운 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음으로 이어졌다; 그의 씨름과 절름발이 됨, 값진 축복의 수령, 창세기 21; 28; 32.—끔찍한 악행, 두려운 슬픔과 고통, 그리고 지속적인 곤경은 요셉의 영광스러운 발전과 야곱과 그 자손들의 이집트 입성 및 행복을 도입했다, 창세기 37-47. 이집트의 압제 아래 이스라엘 백성의 극심한 고난과 사울 왕 등 아래 탄압은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과 행복을 도입했다, 출애굽기 1; 여호수아 24; 사무엘상 4-31; 사무엘하 1-10; 역대상 11-29; 열왕기상 1-10.—극심한 무지와 악은 마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속죄, 그리고 복음의 확산을 준비한 것 같다, 로마서 1-3; 5:20-21; 디도서 3:3-5.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인성에 대한 박해와 살인은 사람들의 구원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요한복음 11:47-52. 극악무도함과 더러움의 세력과 발전은 마치 하나님께서 은혜와 탁월한 경건한 삶을 부여하신 것 같다, 로마서 5:20-21; 사도행전 9:22,26; 갈라디아서 1:12-24; 고린도전서 15:9-10; 데살로니가전서 2:1-10; 고린도전서 6:10-11.

3. 도구인 악인의 서로 상반되거나 악한 목적들 가운데서도 그분 자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을 이루는 데에서, 이사야 10:5-12; 44:28; 45:1-5.—예를 들어 이집트인들이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스라엘을 내쫓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루도, 분 단위도 어김없이 이루기 위해 그들을 내쫓으셨다, 출애굽기 12:41-42 와 창세기 15:13-16 비교.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의도와 달리, 전쟁과 기타 사건으로 인해 가나안의 인구조사가 늦춰졌고, 이로 인해 동정녀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와 신성한 아기를 낳고 그와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윗의 후손이며 베들레헴 시민으로 공식 황실 명부에 등재되는 일이 이루어졌다, 누가복음 2; 마태복음 2; 미가 5:2; 이사야 11:1.

4. 한 행위 안에서 다수의 목적을 촉진하는 데에서. 예를 들어 요셉을 노예로 판 사건은 이집트인과 그 이웃들이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구원했고, 야곱의 자녀들에 대한 죄된 방임을 바로잡았으며, 요셉의 영예를 촉진했고, 그의 아버지 가문이 이집트로 들어가도록 이끌었다, 창세기 37-47; 시편 105.

5. 매우 멀리 떨어진 목적들을 촉진하는 데에서. 발락이 발람을 고용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하고 그 예언이 동방 여러 나라에 그리스도의 미래 성육신에 관한 소문을 퍼뜨렸다. 약 1500 년 후 동방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그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들의 선물은 그와 그 어머니, 그리고 책봉된 아버지가 이집트 망명 중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 쓰였다, 민수기 22-24; 마태복음 2.

6. 가장 교활한 적들을 쉽게 제압하고 그들의 가장 격렬한 반대가 오히려 그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게 하는 데에서, 잠언 21:30; 시편 33:10; 욥기 5:12-13; 12:16-20; 이사야 29:14; 고린도전서 1:20,25,27. 예를 들어 바로의 마음 완고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일을 더욱 영광스럽고 하나님답게 만들었다.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때 유대에 대한 위협적 침입은 유대인들의 영광과 부요함으로 귀결되었다, 역대하 20; 이사야 33:3,7; 36; 37.

7. 사건들의 정확한 시기. 반역자들이 모두 죽고 가나안 입성이 허락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억제되었으며,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고 그들이 내분으로 스스로 쇠약해질 때까지 진입이 늦춰졌다, 민수기 14:26; 창세기 15:16; 사사기 1.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인류를 구원할 필요가 완전히 명백해질 때까지 지연되었다.—반복적이고 광범위한 경고가 그에 대한 충분한 기대를 일으킬 때까지;—유대인들이 그를 박해하고 살해할 만큼 약해질 때까지;—그리고 그들이 노예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인의 권세 아래 떨어질 때까지, 갈 4:4; 마 2:27; 요 5:19. 교회 또는 그 참된 성도들은 그들의 고난이 극한에

이르기 전에는 좀처럼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지 못한다, 미 4:10; 시 12:5; 신 32:36; 사 33:10; 사 41:17-18; 단 12:1; 시 142:4-5; 시 124; 행 12:6-14; 계 11:7-15.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섭리적 통치에서 비이성적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데서 나타난다.

1. 그들을 인도하여 세계의 일반적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목적을 이루게 하심에, 잠 16:4; 시 104; 시 148.
2. 그들의 다양한 본능에 맞게, 그들 자신의 의도 없이 인도하심에.
3. 수단과 도구가 모든 영광을 차지하는 듯 보이지만 그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리시는 데서, 롬 11:36; 계 4:11-13.— 이것은 인간 통치에서 더욱 풍부히 나타난다.

1. 인간의 본성, 상태, 양심, 위로에 적합한 법을 주시는 데서, 롬 7:12,14; 딤후 1:8; 시 19:7-10; 시 119.
2. 그 법을 순종할 충분한 능력, 성향, 도움을 주시는 데서, 단 그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가 방해하지 않는 한, 빌 2:12-13; 빌 1:6; 사 26:12; 살후 1:11.
3. 그들의 상태에 맞는 적절한 동기와 격려를 제공하시는 데서, 사 55:1-7; 렘 3; 호 14; 고전 15:58; 히 10-13.
4. 그의 뜻을 놀랍도록 적절히 그들에게 암시하시는 데서.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시기 전 오랫동안 약속과 모형으로 제시되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몇몇 경시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는 그가 예견한 대로 교황주의자들이 그녀를 우상화할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는 특히 베드로의 결점을 책망하고 기록하였는데, 그가 예견한 대로 그들은 대담하게 그를 교회의 무오한 머리로 고백할 것이다.” 무죄한 칭의가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믿음으로 받는다는 교리는 주로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 전해졌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 교리가 특별히 왜곡되고 부정될 것을 예견하였다, 요 2:4; 눅 11:27-28; 마 12:48-49; 마 14:31; 마 16:22-23; 마 26:34-35,69-75; 눅 5:8; 요 13:6-10; 요 18:19; 요 18:11; 요 19:26; 요 21:20-22; 갈 2:11-14; 롬 1-10.



5. 그들의 죄악성을 제한하고, 자신께 영광과 그들에게 유익을 가져오며, 죄의 분노와 권세가 자멸함으로써 자유 은혜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데서, 시 76:10; 롬 5:20-21.

6. 그들의 상태, 본성, 처지에 관한 모든 변화의 수단과 경향, 심지어 시기가 조화롭게 그분이 죄를 질책하심을 나타내고 은혜의 무한한 풍성함을 드러내는 데서, 롬 5:12-21; 살후 1:6-11; 행 22:6; 딤후 1:11-17; 고전 8-10; 갈 1:15-16,22-23; 엡 1:3-10; 엡 2:1-10.

그러나

4.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속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는 구속자의 인격에서 나타난다.

1.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하실 하나님 아들이자 신성의 중간자가 되신 그를 택하셨고, 이를 통해 파견과 작용의 질서가 신성 본질의 실존 질서와 일치하게 하셨다, 요 3:16; 롬 8:16-17; 사 61:1; 사 48:16.

2. 그의 유한성과 무한성이 어떠한 혼란, 합성, 대립도 없이 한 인격 안에서 기쁘게 일치한 데서, 딤후 3:16; 렘 31:22; 사 7:14; 사 9:6; 속 13:7; 요 1:14; 빌 2:6-7.

3. 중보 직분을 부여하시어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무한히 잘 촉진하시도록 하신 데서, 사 49:1-9; 사 42:1,8; 사 61; 사 1:3; 빌 2:6-13; 눅 2:10-14; 엡 3:21; 뱌전 4:11.

4. 그 겸손과 영화의 상태의 형식과 순서가 우리의 죄책, 오염, 비참한 상태와 하나님의 각 신격의 언약 및 영광에 무한히 부합하는 데서, 눅 2:10-14; 빌 2:6-11; 눅 24:26; 히 2:10; 히 13:20.—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으로 우리의 구속을 획득하신 데서 나타난다.

1. 신성의 완전성 중 겉보기 불일치하는 면을, 그가 거하시는 분의 낮아짐과 죽음으로 조화시키신 데서, 시 85:10; 마 3:15; 히 2:10; 골 2:9.

2. 동시에 죄에 대한 가장 큰 미움을 표현하시고 죄인들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을 나타내신 데서, 롬 5:6-10; 롬 3:24-26; 롬 8:3.
  3. 그리스도와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무한한 진노를 실행하신 데서, 마 3:17; 마 17:5; 사 53:10; 요일 4:9-10.
  4. 그리스도의 치욕, 수치, 고난과 죽음이 중보자로서 그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우리에게 영광, 행복, 생명의 위대한 수단이 된 데서, 빌 2:6-11; 히 2:8-10; 사 53:10-12; 롬 5:9-11, 15-21.
  5.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들을 멸시하고 학대하며 살해한 것이 죄악을 마침내 끝내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이 세상에서 사탄의 지배를 파괴하는 수단이 된 데서, 단 9:24; 요일 3:5-6, 8; 뱀전 2:24; 뱀전 3:18; 계 5:9.
  6. 이로써 그의 모든 완전성이 가장 이상한 수단을 통해 자기 영광을 증진하게 하신 데서.—의로움은 무죄한 메시아를 벌하면서 죄인들에게 용서, 평화, 행복을 공급하고, 자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에게 두려운 형벌을 내리어 하나님의 대적자이며 지옥의 상속자인 이 죄인들에게 영원한 은총을 부여함.—구속의 선포에서도 나타난다.
- 
1. 구속의 보고들이 우리의 필요와 그것들이 의도되고 정해진 목적에 정확히 부합한다, 딤후 1:15.
  2. 선포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히 1:1.
  3. 교회의 유아기 또는 성숙기에 맞게 발표 형식이 조정되어 더 영적이거나 덜 영적이었다, 히 1:1; 히 10:1; 요 1:17; 골 2:17.
  4. 하나님의 아들의 성육신과 속죄에 관한 불완전한 암시가 이방인들 사이에 보존 또는 전파되어 복음의 확산과 믿음의 확립에 기여하였다, 행 17:23.
  5. 하나님은 계시의 주요 사실들이 독특하게 증명되도록 특별히 주의하셨다.
  6. 더 알려진 신성한 진리의 선언은 매우 적시에 이루어졌는데, 모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충분히 반추할 수 있을 때 발표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보고는 부활 후 50 일에 발표되어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며, 페이스티벌에 참석한 14 개 민족 사람들이 이를 듣고 전파할 기회를 가졌다, 행 2.
  7. 선포를 위한 도구와 기회를 택하여 자신의 능력과 선하심이 성공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게 하셨다, 고후 4:7.—또한 구속의 적용에서도 나타난다.

1. 구속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상은 우리가 그의 특별한 관심을 받을 것으로 가장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그것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한다, 고전 1:25-31; 딤후 1:13,16.
2. 그들 자신의 죄악된 행위나 고난 또는 이웃의 그것이 적용의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오네시모가 도둑질하고 도망친 일이 그의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을 불러일으켰다, 플레 10-16.
3. 정욕의 격렬한 분노와 극심한 고난조차 적용 수단이 된다, 롬 5:20-21; 롬 7:8-13; 사 33:12-24; 대상 33:11-12; 호 2:7,14; 호 5:15; 욥 33:14-30.
4. 모든 것, 특히 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까지도 택자들과 특히 믿는 이들의 선을 위해 함께 일한다, 롬 8:28; 고후 4:17; 고전 3:22.

Ⅲ.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 본성의 본질적 완전성으로서, 낮거나 죄된 일이 아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다.—능력이 모순을 포함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은 그의 능력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광이다.—예를 들어 불멸의 영혼을 세속적인 것으로 만족시키거나, 죄의 지배 하에 있는 자에게 영적 즐거움을 맛보게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존재에 반하는 일(죽음, 약화, 잠들 등), 도덕적 완전성에 반하는 일(거짓말, 죄 사랑, 자기부인), 혹은 확고한 목적에 반하는 일은 할 수 없다.—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능력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사를 제한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므로 능력은 절대적과 규범적으로 구별되어선 안 된다. 능력 자체는 무한하며, 그 행사도 부적절할 수 없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은 명백하다.

1. 성경의 명확한 선언에서, 창 17:1; 창 18:14; 창 48:3; 신 32:39; 신 3:24; 욥 9:4,10,19; 욥 36:5; 욥 38:22-23; 욥 41:10; 시 45:3; 시 68:34; 시 89:13; 시 72:18; 시 24:8,10; 시 96:2-7; 시 115:3; 시 93:1; 시 62:11; 사 9:6; 사 26:4; 사 40:28-29; 사 63:1; 렘 32:17; 마 19:26; 눅 1:35,37,49; 롬 1:20; 엡 1:19; 엡 3:20; 계 1:8; 계 19:15.
2. 생물, 식물, 짐승, 인간, 천사 등 피조물에게 부여한 풍부한 능력에서, 욥 36-41; 삿 15-16; 삼하 21; 삼하 23; 대상 11; 대상 20; 시 103:20; 살후 1:7.
3. 창조, 섭리, 구속에서 다양하고 놀라운 그의 능력 내역에서.

창조에서 전능하심은

1. 무에서 만물을 창조하심에서, 히 11:3; 창 1; 골 1:16; 롬 11:36.
2. 동시에 수많은 피조물을 창조하심에서, 시 33:6; 골 1:16; 창 1; 시 148; 출 20:11.
3. 동일 무나 부적합한 재료로부터 다채로운 형태를 만드심에서, 창 1; 시 104; 시 148.
4. 단지 그의 말씀으로 가장 큰 용이함으로 창조하심에서, 시 33:6,9; 창 1; 창 2:7; 히 11:3.
5. 어떠한 도구적 원인 없이 창조하심에서, 창 1; 시 33:6,9; 히 11:3.
6. 그의 영광이 허락하는 한 즉시 만드심에서, 시 33:6,9; 창 1; 창 2:7; 출 20:11.

#### 섭리에서 전능하심은

1. 만물의 본성, 형태, 위치, 움직임, 휴식을 보존하심에서, 시 148; 시 136; 시 104; 시 119:90; 골 1:17; 계 4:11.
2. 땅에서 식물을 번식시키고 특히 자궁, 알, 절단된 조각에서 동물을 번식시키는 데서—열과 습기 등을 수단으로, 시 104; 시 147-148; 시 139:14; 욥 10:8-12.
3. 만물의 모든 움직임과 행위를 일으키고 이끄심에서, 시 147:15-18; 시 104:10-14,27,30; 시 135:7; 시 136:5-9; 욥 38-41; 단 3:17; 단 4:17; 단 2:21; 행 17:28; 롬 12:36.
4. 뜻대로 사나운 짐승, 악한 사람, 악마를 억제하시고 다스리심에서, 시 65:7; 시 76:10; 잠 21:1; 계 20:2.
5. 사람들의 성향과 기호를 뜻대로 바꾸심에서, 창 33:4; 창 35:5; 삼상 10:9,26; 삼상 24:17-18; 예 6:1-2; 시 105:25; 시 106:45.
6. 수많은 불규칙한 기호들이 서로 다르고 반대됨에도 불구하고 모두 그의 한 구상을 조화롭게 이루게 하심에서, 출 2-14; 사 10:5-7; 사 27:9.
7. 그의 백성과 하나님 자신의 원수를 그들 최강 시에 멸하시고, 택한 자들을 가장 악하고 고난당할 때 구원하심에서, 신 32:33,35-36,41-43; 사 37:6-7,35; 사 33:10; 사 43:17-18; 사 45:13; 예 3-10; 출 1-14; 출 18:11; 겔 37:1-14; 미 4:10; 단 12:1; 계 11:7-15; 계 20:9.

8. 약하거나 전혀 수단이 없어 보이는 데도 가장 중대한 사건을 이루심에서, 사 41:15-16; 왕상 20:14; 사 6:15; 사 7:2-22; 대상 14:11.—또는 전적으로 우연한 수단으로. 예를 들어 바울의 손에 독사가 물린 일이 말타인들의 회심을 가져왔다, 행 28:3-10.

이스라엘 백성 구원자 모세는 가해자의 딸이 나일강에서 몸을 씻으러 온 덕분에 죽음을 면하고 사역에 적합하도록 준비되었다, 출 2:11.

포위 소식을 전하는 전령은 다윗, 곧 이스라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왕이 사울에게 살해당하는 것을 막았다(삼상 23:26). — 혹은 반대되는 목적을 가진 수단에 의해 대리자가 행한 경우였다. 이와 같이 요셉의 겸손한 몰락은 그가 아버지와 형제들 위에 군림하는 높은 지위로의 승격을 촉진하였다(창 37-47 장). 인류의 타락, 그리스도의 겸손과 죽음은 인간의 영원한 행복,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하였다(롬 5:12-21; 빌 3:6-11). 바벨탑의 건설은 인류가 온 세상으로 흩어짐을 가속화하였다(창 11:9).

인간사에서 극히 빈곤하거나 무력하거나 무활동적인 사람이 부(富), 재능, 권세, 활동이 큰 타인들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도 한다(시 78:71-72; 암 5:9; 행 1-8:10). 또한 악한 자들을 그의 백성과 대의를 위하여 친구가 되게 하시는 일은 육신적인 정치의 모든 원칙과 상반된다. 예컨대 구레스, 다리우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등이 유대인 성전을 재건하거나 예배를 증진하는 데 자신들의 재산 일부를 바쳤다(에스라 1; 4-5; 7; 느 2). 키케로 시대에는 로마에서 금이 성전 장식을 위해 운반되기도 하였다(11 절). 인간의 가장 뛰어난 조연자나 조연마저 놀랍도록 어리석게 되거나 패배하는 현상도 있었다(사 44:25; 33:11; 삼하 17:8; 욥 5:12-13; 시 33:10; 사 8:10).

구약과 신약에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창 7-8; 19:24; 21:1-2; 출 3-20; 민 11; 16-17; 수 3-5; 10; 사 6; 왕상 17-18; 왕하 1-8; 13; 19-20; 마 2:2; 4:24-25; 11:5; 14-15; 17; 20-21; 행 1-20; 28; 롬 15:19; 히 2:4). 죽은 자를 살리고 모든 사람과 악령을 엄위한 심판대 앞에 세워 최종 판결을 받게 하는 일도 이루어졌다(마 25:30-45; 계 20:12,14). 악인을 벌하고 의인을 영화롭게 하며, 각각이 받는 진노나 복의 무게 아래서 견디도록 하는 영원한 형벌의 집행도 있다(살후 1:9-10; 고후 4:17). 마지막 날에는 이 낮은 세계의 끔찍한 대화재와 영광스러운 새신이 일어난다(벧후 3:10,12).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특히 구속 사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엡 1:19-20).

#### 속죄자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전능함

1. 처녀에게서 기적으로 인성의 잉태(사 7:14; 렘 31:22; 눅 1:35; 마 1:20).
2. 실체와 존귀함에서 무한히 다른 두 본성의 기적 이상의 연합과, 그와 동시에 완전한 인간 개성의 배제(요 1:14; 딤후 3:16; 사 9:6; 눅 13:7; 롬 9:5).
3. 그가 행한 기적들(행 10:38; 마 4:21; 막 1-6; 눅 4-20; 요 2-11).
4. 끔찍한 형벌의 가해와 완전한 건담의 지원(눅 13:7; 3:9; 사 53:4-10; 50:6-7,9; 42:1; 시 22; 69; 마 26-27).
5. 고통 중 완전한 자각으로 인내와 체념을 갖게 함(사 53:7; 히 12:2-3; 요 18:11-12,27; 마 26:39,42).
6.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롬 1:4; 6:4; 4:25; 딤후 3:16; 엡 1:19-20,23; 시 110:1-7; 빌 2:7-11; 히 2:8-9; 뱌전 1:20-21).

#### 속죄의 선포에서 나타나는 전능함

1. 육체적 이성, 일반 관습, 깊이 뿌리내린 욕정, 강력히 지지되는 인간 법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교리를 전파함(고전 1:20-24; 3:18; 딤후 3:3; 롬 1:21-32; 3:10-18).
2. 바로 전에 극심한 겁쟁이, 무지, 악행을 드러낸 부적격한 도구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함(마 26; 행 1-9).
3. 세속 권위나 세상적 영향력 없이 단순한 선언만으로 복음을 전파함(고후 10:4-5; 눅 4:6).
4. 수많은 무지하고 난폭하며 완고한 죄인들의 마음과 삶에 놀랍도록 퍼져 확산시키고 회심시키며 성결하게 함(행 2-21; 26:17-18; 롬 1:8; 15:19; 고전 6:10-11; 골 1:5-6; 엡 3:8-9; 고후 10:4-5; 살전 1:5,9; 2:12-13; 딤후 3:3-7).

## 속죄의 적용에서 나타나는 전능함

1. 가장 어리석고 완고하며 편향된 양심을 철저히 확신시킴(요 16:9-11; 롬 3:19; 히 4:12; 시 45:5).
2.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그 안에 사탄과 세상과 내면 욕망의 모든 세력에 대항하는 신적 본성 또는 새로운 습관과 은혜의 원리를 심어 줌(신 30:6; 겔 36:26; 시 100:3; 고후 10:4-5; 눅 8:24; 11:21-22; 엡 1:19; 살전 1:5; 2:1).
3. 끝없는 타락과 죄에 대한 유혹 속에서도 인간 영혼 안의 약한 은혜들을 보존함(벧전 1:5; 유 1).
4. 그리스도와의 연합 시 및 그 후에 수많은 중대한 죄를 용서하고 전능한 영향력으로 이 용서를 적용하여, 두려운 각성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평안케 함(민 14:17-19; 사 43:24-25; 44:22; 45:22,24-25; 57:18-19).
5. 그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거의 전능한 부패를 죽임(롬 8:13; 갈 5:17,24).
6. 믿음으로 그의 백성이 행하거나 행하는 기적적 위업들(빌 4:13; 골 1:10-11,28-29; 갈 1:16; 2:20; 고후 12:7-9; 히 11; 마 17:20; 막 9:25).
7. 죄, 사탄, 세상이 괴롭히고 파멸하려 해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풍성한 위로와 영원한 행복을 부여함(사 65:18; 시 51:10-11; 롬 8:15-18,28-39; 고후 4:17; 시 31:19; 73:23-26; 사 35:10; 45:17; 60:19-20).

## 하나님의 주권

IV.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뿐 아니라 무한한 주권(power of unbounded sovereignty)을 소유하셨다. 이 주권에 따라 어떠한 법이나 힘, 동기, 자신 밖의 영향에도 속박받지 않는 자유자로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형성하고 유지하며 다스리신다(단 4:34-35). 그의 피조물에 대한 주권적 통치는 그의 본성의 무한한 존귀와 탁월성에 기반하며(시 86:8; 89:6-8), 그가 그들을 구상하고 창조하고 보존하며 궁극적으로 그분 자신을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데 근거한다(시 95:3,5; 사 1:2-3; 43:12; 고전 6:19-20; 잠 16:4; 롬 11:36). 이 통치는 천상(사 45:12; 시 103:19-20; 148:1-4), 지상(욥 12:15,18; 시 47:7-9; 24:1; 50:10; 잠 21:1; 학 2:8; 단 4:35; 시 104-106; 147-148), 지옥(시 78:49; 왕상 22:22; 눅 22:31; 계 20:2,7)에까지 미친다. 이는 하나님이 만물에 대해 절대적 주권을 지니심을 명백히 한다.

1. 성경의 명백한 선언에서(출 33:10; 롬 9:16,18-23; 마 20:15; 시 95:3-4; 96:6; 115:3; 135:6; 75:6-7; 22:28-29; 욥 25:2; 단 4:34-37; 2:21; 엡 1:11; 행 17:24,26).

2. 전능자의 군대의 주, 민족들의 왕, 온 땅의 왕, 유일한 주권자, 왕 중의 왕, 주 중의 주, 지극히 높으신 분 등으로 성경에 불리는 명칭들(시 84:12; 80:4,14,19; 47:7; 렘 10:7-10; 뎬전 6:15; 계 17:14; 19:16; 출 18:11; 신 10:17; 창 14:18-22; 시 50:14; 56:2; 83:18).

3. 피조물의 자신 및 타인에 관한 모든 자유, 재산,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행 17:28; 잠 8:15-16; 시 82; 롬 13:1-6; 고전 4:7; 롬 11:36).

4. 그의 주권은 창조, 섭리, 구속의 사역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 창조에서, 동일한 무(無) 또는 동일한 부적합한 물질로부터 매우 다양한 피조물들을 여러 복잡한 관계 속에서 창조하시는 일(창 1 장).

- 섭리에서,

1. 피조물에 제공되는 유지의 정도와 기간이 다양함으로 드러남.

2. 긍정적 법들의 형태, 범위, 지속성과 인간 양심에 대한 구속력의 발현.

3. 법의 선포 방법, 시기, 장소, 대상 및 마음에 새겨지는 방식과,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는 법의 예외 사항들(예: 아브라함의 아들 번제로 드림이나 형의 과부를 아내로 맞는 것).

4. 은총의 대상, 도구, 형태, 정도, 시기 등의 다양성.

5. 징계와 벌의 본성, 시기, 정도, 도구, 대상과 죄에 상응하여 비례하는 점(단 4:35; 시 115:3; 135:6; 마 11:25-26; 20:15).

- 구속에서,



1. 속죄자에게서,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보증인으로 부르시고 빛을 갹게 하시며, 영적 머리가 되게 하시고, 그 지불의 시기, 출생지, 생애와 죽음, 고난의 일부와 형태, 단계, 지속, 그리고 그의 자기와 백성의 행복 속에서 누리는 영화의 형태, 정도, 기간을 정하심(사 42:6; 눅 11:13; 13:32-33; 요 18:11; 히 2:10; 빌 2:7-11).
2. 구속된 자들에게서, 어느 누구를 택할지, 일부를 택하면서 다른 이들을 제외하는 일, 특정 수단, 기회, 시기, 형태, 은사의 정도, 은총, 혼합된 시험, 고난, 구출, 위로 등을 할당하는 일.
3. 구원받지 않은 이들 중 일정 인물을 특정 시기와 개별적인 은사 및 일반 은총의 정도와 형태로 자격 있게 하여, 속죄자의 영광을 증진하고 그의 백성의 회심과 덕 쌓음에 유익하도록 하심(요 6:70; 히 6:4-5; 민 23-24).

## 하나님의 거룩함

V. 하나님의 거룩함은 그 본성의 본질적 완전성으로,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로우며 미워하고, 모든 거룩하고 순결한 것에 대해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신다.

–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시다는 것은 다음에서 분명하다.

1. 성경의 명백한 선언에서(수 24:19; 삼상 2:2; 출 15:11; 시 89:35; 11:7; 99:9; 잠 30:3; 합 1:12-13; 사 6:3; 계 4:8; 요 17:11; 단 9:24; 시 16:10; 행 3:14; 롬 1:4; 눅 1:35). 거룩함은 그의 아름다움(출 15:11; 시 27:4), 위엄(시 89:35; 암 4:2)으로도 표현된다. 40 회 이상 그를 '이스라엘과 야곱의 거룩한 자'라 부른다(합 3:3; 1:12; 사 1:4,10,20; 43:14; 29:23 등).
2.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이 그와 결합되고 일치함으로 인해 거룩하다. — 그의 아들의 인성(눅 1:35; 행 4:27,30), 그 이름(시 111:9; 레 20:3), 그 능력(시 98:1), 그가 나타나는 장소인 천국이나 성전(시 20:6; 사 57:15; 욥 2:4; 99:9; 출 3:4; 계 21:10), 그의 안식일(출 16:23; 사 58:13), 그의 언약과 약속(단 11:28,30; 눅 1:72; 시 105:42), 그의 말씀, 율법, 복음(롬 1:2; 7:12; 딤후 3:15), 그의 사역(시 145:17), 그 천사들(계 14:10; 마 25:31), 그의 선지자들(벧후 1:21; 3:2; 눅 1:70; 계 18:20; 22:6), 그의 사역자들(살전 2:10; 계 18:20), 그의 백성들(출 19:6; 골 1:22; 3:12; 히 3:1; 살전 5:27; 벧전 2:9).

3. 그의 거룩함은 창조, 섭리, 구속의 사역에서 나타난다(시 145:7).

– 창조에서, 거룩함에 합당한 모든 피조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창 1:20,27; 계 14:10 과 유 6).

– 섭리에서,

1. 모든 이성적 피조물에게 마음과 생활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지속적인 거룩함을 요구하는 도덕법을 주셨으며, 가장 강력한 상벌로 뒷받침하셨다(롬 7:12; 마 22:37,39; 롬 12-13; 골 3-4; 엡 4-6; 살전 4-5; 뱀전 1-5; 출 20:3-17).

2. 거룩함 증진에 가장 적합한 수단들을 명령하셨다(창 2:17; 딤후 2:11-12; 마 28:19; 고후 11:23-29). 유대 율법에 따른 모든 제사, 정결례, 징벌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냈다(레 1-23; 민 5-6; 15; 19; 28-29; 레 10:1-3).

그러므로 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조장하지 않고 허용하는 것이다. 함 1:12-13; 시 4:5-6; 렘 44:4; 잠 16:16-19.

4. 죄를 처음 도입한 자나 죄의 특정 형태에 대해 하나님의 혐오를 확고히 표징하시는 데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마귀들, 여성, 가인, 옛 세상, 바벨탑 건설자들, 소돔 주민들, 교회 억압자들, 하나님의 예배를 더럽힌 자들, 그의 정립된 통치에 대한 교만한 반역자들, 약속된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 등이다. 유다서 6; 베드로후서 2:4-5; 창세기 3~4 장; 7 장; 11 장; 19 장; 출애굽기 1~14 장; 레위기 10 장; 민수기 14 장; 16 장; 이사야 5:16.

5. 사람들의 가장 은밀한 죄를 이유로 하여 공개적으로 그들을 혐오하심을 드러내시는 데서, 시 50:21; 시 10:8,11,14; 에스겔 14:3-8; 8:7-18; 사무엘하 12:11-12; 예레미야 16:17-18.

6. 마지막 심판에서 모든 악인을 가장 수치스럽고 멀리 떨어진 모습으로 표징하는 데서, 데살로니가전서 4:16-17; 마태복음 25:33; 시 1:5; 시 138:6.

7. 불경건한 천사와 사람들을 영원히 자기 면전에서 배제하시고 가장 엄청난 혐오의 표징을 붙이시는 데서, 마태복음 25:41,46; 시 9:17; 요한계시록 20:10,15; 14:10-11; 데살로니가후서 1:8-9.

이러한 섭리적 행위들조차 우리가 불순하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완전 거룩하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순종을 시험하시거나 사탄, 악한 사람들, 혹은 그들 자신의 죄된 욕망을 통해 죄에 유혹되도록 허용하신다. 사무엘하 25:1; 마태복음 6:12; 야고보서 1:13-14. 하나님은 단지 그들에게 저주할 기회를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저주하게 하신다. 사무엘하 16:12. 하나님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은혜를 마땅히 거두시고 사탄, 이웃, 혹은 그들 자신의 욕망이 그들을 더욱 무감각하고 완고하게 하도록 허락하시면서 사람들을 죄에 굳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신다. 출애굽기 4~14 장; 이사야 63:17; 6:9-10.

또한 하나님은 자신의 제재하거나 성화하는 영향을 정당히 거두시고, 죄된 부패가 사람들을 악행, 오류, 어리석음으로 미혹하거나 끌어당기도록 허락하시면서 그들을 추악한 정동, 버림받은 마음, 강한 미혹에 넘겨주신다. 로마서 1:24-28; 데살로니가후서 2:9-11; 이사야 66:4; 시 81:12. 하나님이 사람들을 속이심은 곧 그들을 사탄의 시험과 자기 교활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것이다. 예레미야 4:10; 에스겔 14:9; 열왕기상 22:19-22.—이와 같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지혜롭고 거룩하며 공의롭게 죄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신다.—

### 구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구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사람들이 거룩하도록 택하심에 나타난다. 에베소서 1:4; 데살로니가후서 2:13; 베드로전서 1:2; 2:9.
2. 자신의 아들을 죄된 육체의 모양으로, 심지어 저주 아래, 즉 죄의 힘 아래에서 무한한 시험 가운데도 마음과 삶에서 비교할 수 없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거룩함의 본으로 나타내심에, 누가복음 1:35; 마태복음 3:15; 요한복음 8:29; 17:4; 18:11; 히브리서 5:8; 7:26.
3. 자신의 아들에게 죄를 전가하시고 자비 없이 그를 벌하시며, 위로의 미소를 거두고 그의 기도를 가로막으시되 그가 실제 죄인인 것처럼 하심에, 마태복음 26~27 장; 시 22; 69; 89:38; 이사야 53; 로마서 8:3,32; 히브리서 2:10.
4. 아들을 주셔서 사람들을 위한 거룩함을 사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지혜, 의, 성화, 구속으로 만드심에, 디도서 2:14; 베드로전서 1:18-19; 고린도전서 1:30.
5. 복음의 모든 선포, 약속, 초대에 거룩함이 마음과 삶에서 가장 잘 전달되고 격려되도록 구성하심에, 디모데전서 6:3; 3:16; 베드로후서 1:4; 디도서 2:11-12; 고린도후서 7:1; 요한복음 15:3; 17:17; 누가복음 1:74-75; 시 119:9,11,26.

6. 구속 전체 계획을 그렇게 정립하셔서 마음과 삶의 거룩함이 모든 목적임에, 에베소서 1:3-4; 히브리서 13:12; 9:14; 고린도전서 6:11; 디도서 2:14; 3:8,14; 에스겔 36:25-27; 누가복음 1:74-75; 데살로니가전서 4:3,7; 5:23; 로마서 6:14; 7:4-6; 에베소서 4:11-13; 이사야 27:9; 히브리서 12:10-11; 고린도후서 3:18; 요한일서 3:2.
7. 복음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심으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거룩하게 하심에, 고린도후서 3:18; 4:4,6.
8. 독특한 사랑받는 자들을 그들의 거룩하지 못함과, 심지어 다른 죄보다 덜한 죄로도 엄하게 징계하시는 데서, 아모스 3:2; 요한계시록 3:19; 히브리서 12:6-11; 시 99:8; 119:67,71; 89:31-34; 73; 77; 88; 사무엘상 2~3 장; 민수기 12 장; 20:12; 신명기 32:51.
9. 완전한 거룩함을 우리의 영원한 행복의 주요 성분으로 삼으시는 데서, 에베소서 5:25-27; 요한일서 3:3; 유다서 25.

## 하나님의 공의

VI. 하나님의 공의는 그분 본성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자신과 모든 피조물에게 적합하고 공정한 것을 되돌려주시는 성향이다.—하나님이 공의롭고 의로우신 것은 분명하다.

1. 성경이 명확히 선포한다. 시 11:7; 25:8; 7:9; 9:8; 92:15; 99:4; 119:75,137; 출애굽기 9:27; 34:7; 창세기 18:25; 신명기 10:17; 32:4; 유다서 1,7; 사무엘상 3:18; 역대하 19:7; 욥기 8:3; 9:15; 34:10-12,19; 35:6-8; 36:3; 37:23; 예레미야 12:1; 이사야 26:7; 다니엘 9:16; 데살로니가후서 1:6-7; 디모데후서 4:8; 히브리서 6:10; 사도행전 10:33-34; 로마서 3:4,26; 9:13-14.

2. 사람들 사이에 남은 공평의 잔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며 그분께 사랑받는다. 사무엘하 22:26-28; 시 7:9; 11:7; 호세아 14:9; 창세기 18:23,25.

3.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와 공평함이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1. 피조물에게 원래 능력에 맞는 가장 의로운 법을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과 자신에게 완전한 공평을 요구하며, 특히 권세를 가진 자들이 공평의 본보기임을 주장하심. 느헤미야 9:13; 로마서 7:12; 시 119:75,137-138,142; 19:8-11; 호세아 14:9; 이사야 26:7; 마태복음 23:23; 22:37,39; 신명기 16:18-19; 사무엘하 23:3; 역대하 19:6,9; 시 82.

2. 그 법에 알맞은 보상과 형벌 제재를 부가하심. 시 11:5-7; 7:9-14; 9:8,17; 이사야 1:19-20; 3:10-11; 로마서 2:6-10; 데살로니가후서 1:6-10.

3. 사람들의 선한 행위를 적절한 때, 방식, 정도로 보상하심. 시 19:11; 고린도전서 15:58; 요한계시록 14:13; 디모데후서 4:7-8. —악인의 선행 유사함에도 보상하심. 열왕기상 21:29; 열왕기하 10:30; 요나 3 장. —자기 백성의 불완전한 은혜와 행위도 보상하심. 계시록 1:3; 2:7,11,19,26-27; 3:5,12,20,22; 14:13; 22:14; 골로새서 3:24-25; 고린도전서 15:58; 9:24-25; 디모데후서 4:7-8; 마태복음 5:3-10. —그리스도를 담보자로서의 공로로운 봉사를 넉넉히 보상하심. 이사야 49:5-6; 53:10-12; 빌립보서 2:7-11; 히브리서 2:8-10; 12:2; 요한복음 17:4-5; 시 22:27,31.

4. 새 언약의 모든 약속 받은 축복을 가장 추악하고 죄악되며 반역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부어 주심. 로마서 3:24-26; 4:25; 5:6-11,15-21; 8:14,33-34; 고린도후서 5:14-21; 데살로니가전서 5:9-10; 에베소서 1:3-8; 2:1-8,14; 베드로전서 1:18-21; 2:24; 3:18; 히브리서 9:12,14-15; 10:10,14; 요한일서 1:7,9; 2:1-2; 4:9-10; 요한계시록 1:5-6; 5:9-10; 디모데후서 4:8.

5. 자기 백성에 대한 적절한 시기와 엄격하며 균형 잡힌 징계는 그들의 은혜로운 아버지를 범죄한 탓이며, 그들의 성화와 위로를 돕기 위한 믿음의 담보자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다. 욥기 36:7-10; 시 89:30-34; 99:8; 94:12; 잠언 3:12; 히브리서 12:6-11; 요한계시록 3:19.

6. 무죄한 동물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오직 그것들이 죄인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들의 현재 고통이 미래에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로 회복될 때 어느 정도 상쇄될지 알 수 없다. 이사야 24 장; 호세아 4:2-3; 예레미야 12:4; 14:5-6; 욥기 1:16; 로마서 8:20-23; 베드로후서 3:13.

7. 이 세상에서 민족적 죄에 민족적 심판을 반드시 내리시며, 미래의 상태에서는 사회 단위를 심판할 기회가 없으므로 민족의 죄를 심판의 징표로 분명히 하신다. 예를 들어 옛 세상, 소돔 주민, 애굽인, 앗수르인, 갈대아인, 유대인, 로마 가톨릭 등. 창세기 6~7 장; 19 장; 출애굽기 1~14 장; 이사야 33; 37; 예레미야 25; 46~51; 사사기 1~12 장; 열왕기하 17; 25 장; 마태복음 23:32-39; 24 장; 요한계시록 6~20 장.

8. 이 생에서 악인을 죄의 정도에 비례하지 않는 방식과 수준으로 형벌하시고, 자주 다른 죄에 빠지도록 허락하신다. 욥 18; 20; 27; 시 92:7; 37:20; 35:26; 7:10-16; 58:9-10; 에스겔 18 장; 73:18-20; 31:12; 창세기 4 장; 9:25; 이사야 66:4; 63:17; 호세아 4:13-17; 데살로니가후서 2:9-11; 로마서 1:18-32.

9. 악한 천사와 사람을 공개적으로 정죄하시고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하신다. 마태복음 25:41,46; 데살로니가후서 1:8-9; 요한계시록 14:9-11; 20:10,12.

10. 특히 유일하고 무한히 사랑받는 아들로부터 우리 담보자로서 우리가 이행해야 할 율법의 동일한 복종과 만족을 요구하신다. 이는 죄 지은 동일한 본성과 동일한 엄청난 저주 아래에서이다. 마태복음 3:15; 누가복음 24:26; 이사야 53; 시 22; 69; 마태복음 26-27 장; 로마서 3:24-26; 5:6-10; 8:3,32; 이사야 42:21; 히브리서 2:10; 5:8; 고린도후서 5:21; 베드로전서 1:18-19; 2:24; 3:18; 갈라디아서 3:13; 빌립보서 2:7-8.

하나님의 본성은 무한히 거룩하고 공의로워서 죄를 합당한 형벌 없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실 수 없다.

1. 성경은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셔서 죄를 미워하고 혐오하며 그 반감을 명확히 나타내시는 분임을 보여 준다. 출애굽기 34:7; 하박국 1:12-13; 시 5:4-6; 11:5-7; 9:5; 50:21; 예레미야 44:4; 느헤미야 1:23; 잠언 6:16-19; 16:5; 스가랴 11:8;—또한 하나님은 죄인들이 짓밟는 율법의 존엄을 유지하시는 통치자이자 재판관이시며, 죄악으로 상처받은 자신의 무죄한 피조물에 대해 올바르게 행하신다. 이사야 42:21; 데살로니가후서 1:6-8; 로마서 1:18,32; 2:2,6-10; 창세기 18:25.
2. 사람들의 양심도 하나님을 그렇게 거룩하고 공의로운 분으로 여겨 하나님을 범죄할 때마다 책망하고 고통을 주며 희생과 봉사로 그분을 달래려 한다. 사도행전 28:4; 로마서 1:32; 2:14-15.
3. 하나님의 율법은 이 진리를 나타낸다. 대다수 도덕 계명은 하나님의 본성과 통치권의 필수 특권에 근거하며, 그 계명을 어길 때 반드시 적절한 제재가 뒤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모독하는 자들도 가장 경건하고 덕 있는 자들과 똑같이 사랑받는 것으로 나타나 모순된다. 로마서 2:7-10; 이사야 3:10-11; 1:19-20.—의식법은 하나님 공의에 대한 속죄가 없으면 죄 사함이 없음을 드러낸다. 히브리서 9:22. 만약 하나님 본성이 적절한 형벌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의식 제물이 죄를 속죄했을 것이다. 히브리서 10:34 에 반함.
4. 만약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죄를 적절히 벌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의 무한한 자비와 선하심이 어떻게 죄에 대해 형벌을 허락할 수 있겠는가? 불필요한 형벌은 무자비에 가깝다.
5.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존중받으려면,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고 유일한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엄하게 벌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를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주셨다는 성경의 묘사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다. 누가복음 24:26; 로마서 3:25-26;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디도서 2:14; 히브리서 2:10; 베드로전서 1:18-19; 2:24; 3:18; 요한복음 3:16; 로마서 5:6-10; 8:32; 요한일서 4:9-10; 에베소서 5:2; 갈라디아서 2:20; 요한계시록 1:5.

## 반론 예상과 응답

반론을 예상해보면,

1.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는 상충하는 속성이 아니나, 한쪽이 다른 쪽의 존엄을 훼손하도록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2.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효과는 절대적이고 무상이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한할 수 있으나, 공의의 효과는 하나님의 본성과 율법의 존엄, 또는 피조물의 일반 복지를 위한 당연한 채무이므로 정당하게 제한될 수 없다. 창세기 18:25; 신명기 32:4; 시 11:5-7; 119:137; 다니엘 9:16; 데살로니가후서 1:6-9; 이사야 5:10.

3.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는 정당한 형벌의 시기, 장소, 방식을 조절할 수 있으나 형벌 자체는 필수적이다. 치안관이 살인자를 처형할 때 나라와 법, 자신의 명예에 심각한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한 그를 무벌로 놓아줄 수 없는 것과 같다.

4. 하나님은 죄인의 형벌을 완전히 연기할 수 있으나, 연기할수록 그 형벌은 더 두려움이 클 것이다. 로마서 2:4-5; 9:22; 히브리서 10:26-31.

5. 하나님이 자신의 택하신 자들에게 돌아갈 형벌을 대신 지게 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대리로 세우신 것은, 그 형벌을 면제할 수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를 강력히 증명한다. 롬 3:25-26; 고후 5:21; 갈 3:13-14; 히 2:10; 눅 24:26.

## VII.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본질적 속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하고 기뻐하며, 피조물에게 친절하게 행하려는 성향을 말한다.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정동(affections)과 존중과 기쁨, 더 나아가 신성 인격 상호 간에도 그러한 경향을 갖고, 또한 피조물의 복리를 돌보고 증진시키며 기뻐하는 데 기울어질 때, 이를 사랑이라 부른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피조물에 대한 사랑이 그의 모든 행위, 특히 구속 사역에 동기와 활력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요한일서 4:8-10,16,19; 롬 5:8; 요 3:16)

###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대상에 따라 구분된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사랑(사 5:16; 레 10:3; 마 11:27; 요 1:18; 요 3:35),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랑(시 104:31; 창 1:31), 그리고 인류 중 택하신 자들을 향한 구속적 사랑(신 7:7-8; 신 33:3; 요 3:16; 요 15:9-15; 요 16:27; 요 17:23,26; 롬 5:8,21; 롬 8:32; 갈 2:20; 엡 1:3-8; 엡 2:1-9; 엡 4:8-10,19; 계 1:5)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다시 그들이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사랑(롬 9:16,18; 출 33:19; 시 86:15), 선을 행하는 사랑(요 3:16; 롬 8:32-39; 시 5:12; 사 63:7; 사 59:8-10; 엡 5:2; 요한일서 3:1; 요한일서 4:9-10), 그리고 그들 안에서 기뻐하는 사랑(시 147:11; 시 149:4; 시 35:27; 사 62:5; 습 3:17)으로 나뉜다. 이 모든 것은 동일한 사랑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 하나님의 선하심의 다양한 성향

하나님의 선하심이 피조물을 창조하거나 공급하는 성향은, 어느 피조물에게도 존재나 무엇을 당연히 요구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관대하심이라 부른다(시 116:7; 시 119:17; 왕상 3:6). 또한 자격 없거나 부족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성향은 은혜 또는 무조건적인 호의라 일컫는다(롬 3:24; 롬 5:20-21; 엡 2:5,7-8; 엡 1:6-7; 고후 8-9; 시 5:12).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며 돌보는 성향은 긍휼이나 자비라 한다(시 102:8,11-17; 시 86:5,15; 시 89:12,28; 시 111:4; 시 112:4; 롬 9:16,18). 하나님이 구속의 과정에서 이렇게 선하심을 나타내실 때 특이한 기쁨을 누리시므로, 성경에는 수백 차례 자비라 기록되어 있다(시 136; 시 100 등).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며(사 63:7,15; 렘 31:20; 호 11:8), 자비로 충만한 모습으로 묘사된다(시 78:38; 시 86:15; 시 111:4; 시 112:4; 시 145:8).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를 욕되게 한 자들을 일시적으로 벌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경향은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 한다(롬 2:4; 롬 9:22; 롬 15:7; 뱌후 3:9,15; 출 34:6; 시 86:15).

###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성경적 근거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1. 성경은 무수한 구절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선택된 분으로, 친절하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표현한다(시 25:8; 시 36:7; 시 119:68; 시 145:7-9; 마 19:17; 사 63:7; 습 9:17; 시 33:15; 시 107; 시 136;



시 34:8; 시 144:2; 시 63:3-6; 시 40:11; 시 69:16; 욥 2:12-13; 렘 3:13; 엡 2:5,7; 엡 1:6-8; 미 7:18-20; 느 9:17; 벧후 3:9,15; 출 34:6-7).

2. 피조물 가운데 영적인 것이든 무생물이나 이성인 것이든, 모든 선행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한다(롬 11:36; 시 119:68; 약 1:17; 고전 4:7; 창 1-2).

3. 하나님의 선하심은 창조, 섭리,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명확하게 드러난다.

### 창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1. 모든 피조물을 질서 있게 창조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관대함과 친절에 참여하게 하셨다. 하나님 자신은 그 피조물의 존재나 봉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시 16:2).

2. 수많은 피조물을 다양하고 각기 다른 자질과 상태, 질서와 상호 의존성 안에서 창조하여, 전체의 선행이 각자의 유익에 기여하도록 하셨다(창 1).

3. 천사를 매우 많고, 지위가 높으며, 질적으로 탁월하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시 104:4; 시 103:20-21).

4. 인간을 아름답고 정교한 신체로 만드시고 그 몸이 참된 행복에 이르게 적합하게 하셨으며, 영혼에는 하나님을 최고선으로 누릴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부여하시고 영혼과 몸을 경이롭게 결합하셨다. 이를 통해 인간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동시에 누리게 하셨다(창 2:6-7). 또한 하나님의 여러 신격이 특별히 협의하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창 1:26-27; 창 9:6), 인간의 창조 시기가 그가 즉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의 세상이 되도록 맞추셨다(창 1-2).

## 섭리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1. 수많은 피조물을 지속적으로 보존하시어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시 36:6-7; 욥 9:17; 시 104; 시 107; 시 145; 시 148).
2. 모든 피조물을 전체적으로 가장 유익하게 다스리신다(시 119:68; 시 104-105; 시 107; 시 136; 시 145; 시 147-148; 욥 37; 욥 41).
3. 피조물 간에 자신의 선하심을 나누시어 서로 의지하고 맛보게 하시며, 심지어 벌레가 천사와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가르치기도 한다(욥 12:8-9).
4. 천사와 인간이 최초의 상태를 유지할 때 적합하고 행복에 이르는 선한 법을 주시고,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천사와도 대표 없이 언약 관계를 맺으셨을 가능성도 있다(욥 38:7; 창 2:16-17).
5.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것은 주로 무한한 구속적 사랑과 은혜의 보화를 드러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롬 5:8,20-21; 엡 2:1-8; 엡 1:6-8; 창 3).
6. 죄 많은 인간에 대해 놀라운 인내를 보이시며, 죄를 짓는 즉시 벌하지 않고 하나님의 본성의 정당성과 피조물 전체의 선을 위해 진노를 가능한 한 오래 미루신다(창 6:3; 창 15:13,16; 롬 9:22). 벌하거나 징계하기 전에 여러 차례 경고를 반복하셨다(레 26; 신 27-32; 사 2; 왕하 17; 시 78; 시 106; 사 1; 겔 20; 말 4; 마 24; 계 8-20 등).
7. 징계를 단계적으로, 마지못해 행하시며, 많은 도발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누그러뜨리고 은혜를 풍성히 베푸신다(사 9-10; 겔 20; 암 3-4; 암 6; 스 9:7; 욥 1:3; 사 10:16; 사 1:24; 애 3:33; 호 6:4-5; 호 11:8; 시 78:38; 시 103:10; 스 9:13; 욥 11:6; 욥 33:27; 사 57:17-19; 사 43:24-25; 애 3:22,31-32; 마 26-27 와 행 2-9; 딤후 3:3-7).

8. 인류와 국가의 복리를 위해 무수히 많은 경이롭고 기적적인 일을 하신다(출 2-20; 신 32:6; 겔 20; 느 9; 스 1-10; 에 1-10; 마 1-28; 눅 1-24; 요 1-21; 행 1-28; 롬 15:19; 히 2:4). 성경의 역사와 예언은 이를 풍성히 담고 있다.

9. 현재 죄로 더럽혀진 세상도 놀랍게 보살피신다. 무생물(시 145:9; 시 147:8-9; 시 104:11-22; 신 22:7; 신 25:4; 레 22:28), 노예(출 21:2-10,27; 신 23:15), 범죄자(신 21:22-23; 신 25:1-3), 가난한 자·과부·고아(출 23:11; 레 19:13,33-34; 레 25:35,39,47; 시 9:18; 시 10:14,18; 시 12:5; 시 35:11; 시 41:1-3; 시 68:5,10; 시 82:3; 시 69:33; 시 72:4,13; 시 107:41; 시 109:31; 시 132:15; 시 146:9; 출 22:22; 신 14:29; 신 10:18; 신 16:11,14; 신 24:17,19-21; 신 26:12-13; 잠 15:25; 잠 19:17; 잠 23:11,18; 사 1:17,23; 렘 7:6; 속 7:10; 렘 49:11; 호 14:3; 약 1:27), 악인(마 5:45; 겔 20; 행 14:16-17; 욥 3; 욥 4:11; 왕상 21:29; 겔 29:18-20), 그리고 사회(시 107:31-32; 렘 18:9; 롬 13:1-6; 딤후 2:1-2; 딤후 3:1; 벧전 2:13-14,17; 시 82:9)에 대해 보살피신다. 사회에는 적합한 통치 규칙을 주시고 통치자들에게 자신의 권위와 영광을 일부 위탁하셨다.

### 하나님의 은총의 시기 조절

하나님의 은총의 시기를 조절하셔서 특히 구원을 더욱 귀하게 하신다. 구원을 늦추어 극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믿음과 격려를 주기 위함이다(요 11:15-44; 대상 20:7,12; 시 42-43). 극한의 위기 시에 구원을 베푸심으로 새 언약의 특권을 더욱 활용하도록 촉진하신다(시 123:3; 시 44:23-26; 출 15:1-2; 시 103; 시 116; 시 118; 시 40; 시 13; 시 18). 세속적 위로를 끊음으로써 하나님의 영적 은총을 준비케 하신다(시 102:23-24; 시 142:4-5). 또한 미래의 재난을 막기 위해 두드러진 구원을 이루신다.

예를 들어, 이집트인의 멸망과 홍해에서의 이스라엘 구원은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수 9:9-10; 수 2:9-11).

### 구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

구속의 기원, 매입, 그리고 적용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난다.

### 구속의 기원

1.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은혜가 구속의 유일한 근본 원인이다(요 3:16; 요한일서 4:9-10, 19; 롬 5:8, 20-21; 엡 2:4, 7).
2. 구속의 사역이 우리가 멸망하기 훨씬 이전, 무한한 옛날에 이미 시작되었다(엡 1:4-5; 딤후 1:9; 딤후 1:2; 뱀전 1:19-20; 잠 8:23, 31; 마 25:34).
3. 전적인 자유 사랑으로 인해 삼위일체 각 인격이 진심으로 그 계획과 시행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아버지는 은혜를 베푸시고, 아들은 공로를 이루시며, 성령은 구속된 은택을 적용하심으로 일하셨다. 아버지는 크고 귀한 약속을 하시고, 아들은 순종과 죽음으로 이를 확증하고 약속된 것을 취득하며 성령은 약속과 그 안의 복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아버지는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아들은 우리를 신비한 지체로 구속하며,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거하는 집으로 만드신다(잠 8:23-31; 시 40:6-8; 사 48:16; 사 53:10-12; 사 61:1-3; 사 49:1-6).

### 구속의 매입

1. 구원이 창조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고, 비용이 많이 들며 확실하고 기쁨에 찬 일임이 나타난다(엡 1:3-8; 엡 2:1-8; 계 1:5-6; 계 5:9-10).
2. 타락한 천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위엄 있는 존재인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는다(히 2:14, 16; 유 6).
3. 오직 독생자 하나님 아들이 그러한 보잘것없고 죄 많으며 악명 높은 피조물들의 구속자이자 보증자로 되신다(요 3:16; 요한일서 4:9-10).

4. 그가 가장 완전한 순종과 가장 두렵지만 자발적인 고난을 통해 아버지의 법을 영화롭게 하시고 공의를 만족시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길을 열어주신다(히 2:10; 히 5:8; 히 13:12; 히 1:3; 갈 3:13; 고후 5:21; 사 53:4-5,10; 사 42:21; 롬 8:3-4; 롬 10:4).

5. 인간이 4 천 년 동안 끊임없는 무서운 반역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나타내심이 밝힌다(갈 4:4; 창 3-말 4; 롬 3:10-19; 롬 1:18-32; 롬 5:6-10,20-21).

6. 그리스도는 잉태부터 죽음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으셨으나, 성령께서 놀랍게도 그분을 능력 있게 하시고 돕고 감당하게 하셨다(요 3:34; 히 9:14).

7. 하나님께서 이 대리적 만족을 자신의 아들을 통해 받으시고, 그를 우리의 대표자로 의롭다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변호자로 삼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 자신에게 있게 하셨다(롬 3:25-26; 롬 5:6-11,15-21; 롬 8:3-4,32-34; 롬 4:25; 롬 10:4; 사 50:7,9; 사 52:13-15; 사 53:2-12; 요 4:9-10; 요 2:1-2; 엡 5:2; 갈 2:20; 뱀전 1:18-21; 뱀전 3:16; 히 7:25).

이 구속의 적용에 있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 1.

1. 모든 축복이 새 언약의 관리자이신 우리의 장자 형제 그리스도의 손에 거한다는 사실, 골로새서 1:19; 시편 68:18; 마태복음 11:27; 28:18; 요한복음 3:35; 이사야 49:6; 시편 72:17; 21:4.

2.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높임을 받아 엄숙히 우리를 대신하여 영원한 행복의 취득과 소유권을 확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성령을 부으시고, 그분의 구속으로 얻은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사실, 요한복음 14:2-3, 26; 16:7-14; 에베소서 2:5-7; 히브리서 6:19-20; 7:25; 4:14-16; 요한일서 2:1-2.

3.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모든 축복이 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 속에 우리를 위해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선포된다는 사실, 마태복음 22:4; 베드로후서 1:4; 고린도후서 1:20; 이사야 55:1-7; 요한계시록 22:17; 잠언 1:20-23; 8:4; 9:5; 요한복음 6:39.
4. 이 준비된 축복들이 무한히 크고 많으며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 시편 31:19; 36:6-10; 65:4; 68:10, 18-22; 에베소서 1:3-8; 2:4-10; 3:17-19.
5. 복음 안에서 이 축복들의 제안이 가장 악한 자들을 포함한 죄인들에게 특별히 향하고 있다는 사실, 에스겔 36:25-31; 이사야 43:24-25; 46:12-13; 1:18; 55:1-7; 예레미야 3; 마태복음 9:13; 18:11; 디모데전서 1:15.
6. 인간의 수많은 심각한 모욕과 두려운 학대, 경멸,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제안이 허락되고 계속된다는 사실, 사도행전 3:15, 26; 이사야 1:3-18; 57:17-18.
7. 이 구원의 제안이 매우 크고 간절하며 마음을 끄는 것이며, 완전히 자유롭게 겸손하게 주어진다는 사실, 시편 34:8, 11; 50:7; 81:8-10; 잠언 1:20, 23; 8:4-36; 9:1-6; 23:26; 아가 3:11; 4:8; 5:2; 이사야 1:18; 45:22-25; 46:12-13; 49:1-12; 55:1-7; 65:1-2; 스가랴 9:9, 12; 마태복음 11:5, 28-30; 22:1-9; 누가복음 14:16-23; 요한복음 7:37-39; 6:37-40; 고린도후서 5:18-21; 요한계시록 22:17.
8. 이 축복이 제안된 많은 이들, 적어도 대부분이 이전의 외적 환경, 성정, 도덕성 면에서 인간 사회의 가장 천한 계층에 속했다는 사실, 누가복음 19:10; 마태복음 22:9; 9:13; 고린도전서 1:25-31; 디모데전서 1:13, 15-16.
9. 하나님께서 구속의 적용에 큰 기쁨을 갖는다는 사실, 이사야 65:1-2; 62:5, 11; 61:1-2, 10; 예레미야 32:38-41; 31:18-20; 미가 7:19; 스바냐 3:17.
10. 가장 무례한 죄인들도 종종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과 친절의 표시를 받는다는 사실, 누가복음 15:20-22; 7: 23; 요한복음 4; 사도행전 2; 4; 6; 9; 22; 26; 고린도전서 15:8-10; 갈라디아서 1:15-16; 디모데전서 1:13-16.
11. 강한 반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령이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 그분의 은혜를 적용하신다는 사실, 로마서 7:8-25; 누가복음 11:21-22; 시편 110:2-3; 고린도후서 10:4-5.
12. 사람들이 범죄할 때 그분이 자신의 백성을 매우 다정하게 다루신다는 사실, 시편 103:12-13; 이사야 57:17-19; 예레미야 31:18-20; 3; 호세아 6:4; 11:8.
13. 그분이 그들과 밀접히 연합하여, 모든 고난 가운데 동감하며, 그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 가능한 한 빨리 구원하시고,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며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스가랴 2:8; 이사야 63:9; 40:11; 41:10, 14,

17-18; 46:4; 누가복음 18:8; 예레미야 32:41; 33:3; 스바냐 3:17; 62:4-5; 30:18, 21; 58:9; 65:24; 45:11;  
누가복음 11:9; 마태복음 7:7; 시편 50:15; 91:15; 85:6, 8; 아가 2:14; 8:13.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은 택자들에게 주어진 모든 특별한 축복, 곧 그리스도와 연합, 의롭다 하심, 양자됨, 성화, 영적 위로, 영원한 영광뿐 아니라, 모든 은혜의 수단, 일상적이거나 엄숙한 모든 것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에베소서 1:3-8; 2:1-10; 로마서 5:15-21.

### VIII.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의 특성

여기서 하나님의 진리는 그분 존재의 실제성과 무한한 탁월성의 필연적 소유, 곧 참 하나님으로서 이름뿐인 신들과 달리 무한하고 독립적인 완전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본성의 본질적 특성으로서 무한히 거짓과 속임수를 멀리하시고 증오하시는 것을 뜻한다(예레미야 10:10). 이는 성실함, 정직성, 또는 순수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이는 말씀과 행위가 그분의 생각, 성향, 뜻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성 또는 신실함은 그분의 행위가 선포, 예언, 약속, 경고 등과, 그리고 그분이 창조물과 맺는 모든 관계와 정확히 일치하는 데 있다. 하나님이 이 점에서 진실하다는 것은 명백하다:

1. 성경은 그분을 결코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명백히 묘사한다, 민수기 23:19; 사무엘상 15:29; 디도서 1:2; 히브리서 6:17-18; 10:23; 디모데후서 2:13; 데살로니가전서 5:24; 고린도전서 1:9; 10:13; 신명기 7:9; 32:4; 느헤미야 9:8; 시편 33:4; 89:1-2, 5, 8, 14, 35; 36:5; 119:38, 49, 70, 160; 111:7-8; 100:5; 25:10; 31:5; 이사야 25:1; 65:16; 요한복음 17:17; 로마서 3:3-4; 베드로전서 4:19; 요한계시록 1:5; 3:15; 요한복음 14:16-17.

2. 그분의 독립성, 무한 거룩함, 공평성, 권세, 위엄이 그분을 거짓과 속임수의 가능성이나 유혹을 완전히 초월케 한다, 민수기 23:19; 사무엘상 15:29; 히브리서 6:16-21; 디모데후서 2:13.

3. 인간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성실함과 신뢰는 그분에게서 유래한다, 야고보서 1:17; 고린도전서 4:7.

4. 이 성실함과 신실함은 다음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1)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말씀하셨음에도 그 모든 말씀의 자기일관성, 시편 119:30-31, 43, 86-87, 90, 104, 128, 138, 142, 160, 163.

2) 그분의 모든 말씀이 자연의 빛이나 계시를 통해 드러난 그분의 탁월성과 모순되지 않음, 디모데후서 2:13; 신명기 32:4.

3) 그분의 섭리와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분 말씀의 핵심 진리를 확증하며, 출애굽기 34:6-7, 신명기 32:4 와 그분의 역사(창세기 3 부터 에스더 10 까지; 이사야 1 에서 말라기 4 까지; 마태복음 1 에서 요한계시록 22 까지; 시편 78, 103, 107, 136, 145-149; 예레미야 17:9; 로마서 3:10-20; 8:7-8; 1:24-32; 마태복음 5:19 와 인간 역사(창세기 4, 6, 11; 열왕기하 17; 느헤미야 9; 에스겔 16, 20, 23; 이사야 59; 예레미야 2-23; 44 등)를 비교함.

4) 세상에서 모든 주요 섭리 행위는 그분이 영감을 주신 예언의 명백한 성취임.

5)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며 스스로 회피하고자 했던 약속, 경고, 예언들을 이루셨다(예: 그분 아들의 성육신, 고난과 죽음, 이방인의 부르심, 그리고 죄인들의 의롭다 하심, 성화, 영화), 갈라디아서 4:4-6; 이사야 53; 마태복음 1 부터 사도행전 28; 고린도전서 6:9-11; 에베소서 1-3; 로마서 1-11; 골로새서 1-2.

6) 그분의 진리와 신실함은 마지막 심판에서 가장 완전하게 드러나리라.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와 인간의 행위가 그분 말씀과 정확히 대조되고, 천사와 인간의 영원한 행복 또는 멸망에서 나타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12-15; 마태복음 25:31-46; 데살로니가후서 1:6-10; 로마서 2:6-10.

#### 예상되는 반론에 대한 언급

1.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들의 의무를 알리시되 자신의 비밀한 뜻을 반드시 드러내지는 않는다. 그분의 율법은 우리의 의무에 관한 유일한 규칙이며 그분의 목적은 그분 자신의 행위에 관한 유일한 규칙이다, 미가 6:8 및 신명기 29:29; 이사야 8:20; 55:8-11; 에베소서 1:11.

2. 하나님은 자신이나 자신의 행위에는 거짓이 없으면서도 다른 이들이 속임수를 쓰거나 속임을 당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열왕기상 22:22-23; 에스겔 14:9 와 신명기 32:4; 시편 25:8, 10.

3. 약속, 경고, 예언에 명시적이거나 암묵적인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이 먼저 충족되지 않으면 성취를 기대하거나 바라지는 않아야 한다, 마가복음 16:16; 요나 3; 사무엘상 23:11-12; 이사야 38:1.



## 영혼의 묵상과 자기성찰

내 영혼아, 지극히 높으신 이를 묵상하던 속도를 멈추고 그분 임재 앞에서 자신에게 물으라: 하나님이 영이라면, 나는 영적으로 생각하고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하는가? 내 마음에서 그분에 관한 모든 육체적 상상을 증오하며 내쫓았는가?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유일하게 지혜로운 하나님이신가? 나는 언제나 그분의 시선 앞에 벌거벗고 드러난 존재임을 인식하며 행동하는가? 나는 경외하며 그분의 비밀을 엿보려 하지 않는가? 나는 그분의 모든 신탁을 진리와 지혜의 저장고요 근원으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가? 나는 진심으로 모든 그분의 법도를 승인하며 그분의 뜻과 말씀과 행위를 찬탄하는가? 나는 모든 내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여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게 하며, 가장 난처한 경우에도 그분의 지혜와 권능을 신뢰하여 구원을 기대하는가? 그분이 전능하시고 주권자라면, 나는 나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 여전히 부끄러워하며 떨고 있는가? 나는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 반역의 싹이 트는 것을 막으려 애쓰는가? 나는 흔들림 없이 온전히 그분께 내 구원의 모든 짐을 맡기는가? 모든 것이 나에게 반대되는 것 같을 때에도 나는 그분을 기뻐하며 구원을 기대하는가? 나는 죄를 제외한 내 존재와 모든 소유를 그분께 돌리며, 섭리를 통하여 만나는 모든 일을 나의 주님의 행위로 만족하는가? 나는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며 그분이 순수하신 것처럼 순수한가? 나는 그분 앞에서 나 자신과 내 모든 의를 혐오하는가? 나는 특히 그분의 거룩하심을 기뻐하며, 다른 이들이 그것을 경멸할 때조차도 그분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더욱 불타오르는가? 나는 모든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 거룩하심에 대해 깊이 인식하며 행동하려 애쓰는가? 무엇보다도 나는 죄를 미워하는가? 내 죄를, 나의 가장 정제되고 은밀한 죄를? 나는 늘 복음의 거울 속에서 그분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려 애쓰는가, 주님의 성령에 의해? 그분의 공의를 깊이 인식하며 섭리의 모든 처치를 두려워하여, 내 주님께서 의롭고 나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라 여기는가? 나는 그분의 무한한 공평함이 그런 죄인을 살리고 마지막에는 구원한다는 것에 끊임없이 놀라는가? 나는 항상 나 자신의 모든 의로움에서 도망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을 내 영원한 구원의 토대로 삼고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선하시고 사랑이시라면, 나는 놀라움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믿고 내 마음에 적용하는가? 나는 입을 활짝 벌려 그분께서 가득 채우시도록 하는가? 나는 그분의 선하심을 모든 행복의 근원이자 본질로 만족하는가? 나는 모든 것을 그분 손에서 오는 좋은 것으로 여기며, 특히 나를 위한 매우 좋은 것으로 인정하는가? 나는 무엇보다도 영원한 빛진 자요, 그분의 구원의 기적이 되기를 갈망하는가? 그리고 이러한 불타는 마음으로, 나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여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분에 대한 사랑으로 내 마음이 타오르는가?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가? 나를 모욕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가?

그분이 진리의 하나님이사라면, 나는 그분이 그 아들 안에서 나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나의 증거로 삼았는가? 나는 그 약속들을 발견하고 받아들여 그것들이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는가? 나는 그것들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으려는가? 마치 큰 전리품을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하며 그것들을 영원한 유산으로 택했는가?

나의 주위 모든 것—앞과 뒤, 위와 아래 모든 것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이 내 눈과 내 영혼의 모든 권능 속에 영원히 계신가? 그는 나의 구세주, 아버지, 남편, 친구, 주인, 기업, 본보기, 하나님, 나의 전부인가?

###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비길 데 없고 전이 불가능한 완전함들은 다음과 같다.

I. 그분의 자존성과 절대적 독립성으로, 그에 관해 그분의 존재와 본성은 필연적이다. 그분은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전적으로 그분 자신 안에서 존재하신다, 출애굽기 3:14; 요한계시록 1:8; 16:5; 22:6. 그분은 어떤 피조물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나, 모든 피조물은 존재, 본성, 작용에 있어 전적으로 그분에게 의존한다, 시편 102:26-27; 16:2; 욥기 22:2; 35:6-7. 이러한 절대 주권과 통치는 그분에게서 나왔다, 다니엘 4:34-35; 2:20, 22; 마태복음 11:26; 20:15.

II. 그의 절대적 단순성(absolute simplicity)은 그분이 모든 구성 요소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우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임을 의미한다.

1. 그는 단순한 추상 개념으로 표현된다. 예를 들어, 빛(light), 사랑(love), 생명(life), 요한일서 1:5; 4:8,16; 5:20.
2. 독립적이고 절대적으로 최초 존재로서, 그분 안에 복합적인 부분들이 결합할 수 없다(이사야 41:4; 44:6).
3. 부패하지 않고 불변하는 존재로서, 가분적인 부분들로 구성될 수 없다(로마서 1:23; 디모데전서 1:17; 6:16; 말라기 3:6).
4. 무한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어떤 것도 첨가될 수 없다(예레미야 23:23; 열왕기상 8:27).
5. 가장 완전한 상태이므로, 따로 떼어보면 불완전한 것으로 구성될 수 없다(욥기 11:7).

III. 그의 무한성은 그가 가능한 모든 면에서 위대하고 탁월함을 나타낸다. 이는 그의 본성의 한계 없는 탁월함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는 위대하다고 표현된다(신명기 32:3; 역대상 16:25; 에스라 5:8; 욥기 36:26; 37:22; 디도서 2:13; 시편 29).

-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보다 위대함(시편 35:10; 104:1; 86:8; 89:5-8; 다니엘 4:32; 이사야 40:12-22).

- 모든 것과 모든 신들보다 위대함(욥기 11:7-9; 열왕기상 8:27; 시편 86:8; 출애굽기 18:11).

- 모든 가능한 탁월성의 한계를 초월함(욥기 11:7; 시편 145:3; 147:5).

### 하나님의 광대성과 임재

그는 또한 그분의 임재의 한계 없는 광범위함을 포함한다. 그의 본질이 공간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존재할 수 있는 곳에 계시는 것을 그의 광대성(immensity)이라 하며, 피조물이 실제로 있는 곳에 존재하는 것을 그의 편재(omnipresence)라 한다(열왕기상 8:27; 시편 139:7-10; 예레미야 23:23-24; 에베소서 4:6; 고린도전서 12:6).

- 하나님은 특히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다. 아들의 인격 안에 있는 그의 본성은 그의 인성과 연합하여 동거한다(골로새서 2:9; 디모데전서 3:16; 로마서 8:3; 갈라디아서 4:4). 그리고 그는 하나님-인 간재자로서 기쁘게 그 안에 거하신다(고린도후서 5:19).

- 그는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친히 거하시며, 그들의 마음에 은혜롭게 거하시어 특별한 은총과 도움과 위로를 제공한다(요한복음 14:16,23; 고린도후서 13:14; 로마서 8:14-17,26-27; 갈라디아서 4:6; 고린도전서 3:16-17; 6:18-19; 고린도후서 6:16; 요한계시록 21:3; 에베소서 2:19-22; 요한일서 4:4,16; 3:24; 요한복음 17:21-23,26; 시편 39:12).

- 그는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도 계셨으며, 그들의 마음에 진리의 불변의 영감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그의 뜻을 선포하게 하셨다(베드로전서 1:11; 베드로후서 1:21; 사무엘하 23:2; 히브리서 1:1).

- 그는 교회 안에 계시며, 그 권위의 대리자들 안에, 성령의 영향력과 예배의 제도된 법도와 계시(oracle) 안에 계신다(마태복음 18:20; 28:20; 출애굽기 20:24; 요한복음 17:21; 고린도전서 12:12-13,28; 에베소서 4:11-13; 요한일서 1:3,5,7; 베드로전서 1:12).

- 그는 유대 광야의 회막과 예루살렘 성전, 베델, 시나이 등에서 그의 영광과 권능과 은혜의 나타난 상징과 엄숙한 예배 법도 안에 현현하였다(출애굽기 25:8,22; 29:43; 열왕기상 5:5; 8:11; 창세기 28:16-17; 48:3; 출애굽기 3:4; 19:11; 시편 68:17; 132:5; 80:1-2).

- 그는 가장 영광스러운 탁월함으로 천국에 계신다(이사야 66:1; 시편 115:3; 마태복음 6:9; 히브리서 12:23; 빌립보서 3:20; 요한복음 14:2-3; 4:14; 8:1).

- 또한 지옥에 계시는데, 그곳에서 그의 진노가 가장 두려운 방식으로 실행된다(시편 139:8; 데살로니가후서 1:9; 요한계시록 14:10-11; 마가복음 9:44,46).

- 그는 모든 피조물을 관찰하고 지탱하며 통치한다(히브리서 1:3; 4:13; 시편 139:12-13; 예레미야 23:23-24; 골로새서 1:17; 고린도전서 12:6).

IV. 그의 절대적 영원성(absolute eternity)은 시작과 끝, 혹은 지속 기간의 연속성이 없음이며, 이는 사실상 지속성에 관한 그의 무한성(infinity)과 동일하다. 이 방식으로 그가 영원한 존재임은 명백하다.

1. 성경은 명확히 그를 영원하거나 제한 없는 영구적 존재로 묘사한다(창세기 21:33; 신명기 33:29; 시편 9:7; 55:19; 잠언 8:23,25; 이사야 40:28; 57:15; 다니엘 6:26; 예레미야 10:10; 로마서 16:26; 요한계시록 4:8-9; 하박국 1:12). 그는 오직 유일하게 영원하며, 시작과 지속성의 연속성이 없다(시편 90:2,4; 92:8; 102:24-28; 베드로후서 3:8; 로마서 1:23; 디모데전서 1:17; 6:16; 이사야 9:6; 57:15; 야고보서 1:17). 그는 유일한 처음과 마지막이다(이사야 41:4; 44:6; 48:12; 요한계시록 1:8,11; 21:6; 22:13).

2. 피조물에게 해당하는 날과 해, 지속 기간은 그분에게 적용되지 않는다(욥기 36:26; 10:4; 시편 90:4; 베드로후서 3:8; 다니엘 7:9,24; 시편 102:24,27; 욥기 10:5; 이사야 43:13).

3. 영원한 생명, 능력, 자비, 통치, 왕좌 등 많은 영원한 속성들이 그에게 귀속된다(신명기 32:40; 33:27; 요한계시록 4:9; 5:14; 이사야 26:4; 시편 103:17; 136; 다니엘 4:3,34; 6:26; 시편 93:2; 예레미야 애가 5:19; 이사야 51:6-8; 시편 33:11; 135:13). 우리가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연속적인 지속성과 병존하시는 비연속적 영원을 이해하는 것은, 그분의 편재가 모든 물질과 동시에 존재하되, 그 자신에게 육체적 확장이 없음을 이해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다.

V. 그의 불변성은 그의 본성에 속하는 본질적 특성으로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화 없이 항상 동일함을 의미하며, 성경에서 자주 명백히 언급된다(야고보서 1:17; 말라기 3:6; 디모데전서 1:17; 로마서 1:23; 시편 102:24-27; 히브리서 1:11-12; 13:8; 6:18; 이사야 46:4; 57:15; 출애굽기 3:14; 민수기 23:19; 디도서 1:2; 디모데후서 2:13).

그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불변하다.

1. 존재에 있어서, 즉 존재를 멈출 수 없음(디모데전서 1:17; 6:16; 로마서 1:25; 시편 102:24-27).

2. 본질 또는 본성에 있어서, 즉 지혜, 권능, 거룩함, 정의, 선함, 진리 등의 완전에서 벗어날 수 없음(디모데후서 2:13; 이사야 26:4; 신명기 32:4; 시편 103:17; 90:2; 출애굽기 3:14).
3. 실제적 지식에 있어서(고린도전서 2:16; 사도행전 15:18; 히브리서 4:13; 욥기 11:7-9).
4. 뜻과 계획에 있어서(히브리서 6:17-18; 이사야 14:24,27; 46:10; 시편 33:11; 로마서 9:11; 욥기 23:13).
5. 말씀에 있어서—교리, 법, 약속, 경고, 예언 등(민수기 23:19; 사무엘상 15:29; 히브리서 6:18; 시편 119:87).
6. 본질적 임재에 있어서, 즉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올바르게 이동하지 않음(열왕기상 8:27; 예레미야 23:23-24).
7. 지속 기간에 있어서, 더 길거나 짧지 않음. 그는 결코 더 오래 존재하지 않았으며, 더 적은 미래 기간도 갖지 않는다(시편 90:2,4; 베드로후서 3:8).

그가 무에서 피조물을 창조하고 섭리 가운데 피조물의 형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분 자신에게 변화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의 창조하고 보존하고 다스리는 능력과 의지는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와 피조물 사이의 새로운 관계는 그분에게 변화가 아니라 피조물에게 변화를 나타낸다.

VI. 그의 일원성(eness)은 무한한 탁월함 때문에 그와 같거나 대등한 다른 존재가 없고, 있을 수도 없음을 뜻한다. 이는 아리우스파나 소시니안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최고신이 오직 하나이고 하위 신들을 허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트리테이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단일 신적 본성만이 여러 존재에 속한다는 뜻도 아니며, 사벨리우스파가 주장하는 것처럼 한 신적 인격이 여러 이름과 성격으로 나타난다는 뜻도 아니다.

이는 둘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개인적이며, 다른 이들이 말하는 ‘수적 신적 실체’(one individual, or numerical divine substance)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필연적 자존(self-existence), 절대적 영원성, 무한성, 전능성, 주권성은 모든 경쟁자와 공유자를 배제하며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수많은 성경 구절이 이를 명백히 선언한다(신명기 4:35,39; 6:4; 32:39; 33:26; 사무엘상 2:2; 사무엘하 7:22; 열왕기상 8:23; 열왕기하 19:15; 역대상 15:26; 시편 18:31; 35:10; 86:8; 148:13; 89:6,8; 115:4-8; 이사야 43:10-15; 44:26; 45:5,18-22; 예레미야 10:8-15; 14:22; 호세아 13:4; 출애굽기 20:3; 요한복음 17:3; 로마서 3:30; 고린도전서 8:6; 에베소서 4:6; 야고보서 2:19; 4:12; 디모데전서 2:5).

그러나 이 구절들 중 어느 것도 아들 또는 성령을 참되고 최고 하나님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유일한 참 하나님에게 부여된 속성들은 이 두 인격에게도 동일하게 귀속된다. 이사야 44:6 과 요한계시록 1:8,11; 이사야 45:22-23 과 로마서 14:9-10, 빌립보서 2:10-11; 요한복음 17:3 과 요한일서 5:20-21; 로마서 3:30 과 이사야 53:11; 고린도전서 8:6 과 디모데전서 2:5 에서 ‘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중재자와 구별되는 신성 본성을 뜻한다.

신성 안의 구별된 인격들은 유사한 이름, 속성, 계획, 뜻, 사역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이름과 속성, 계획, 뜻, 사역을 가진다(시편 33:6; 이사야 44:24; 로마서 10:12; 누가복음 2:11; 로마서 11:34; 이사야 40:13; 고린도후서 3:18; 신명기 6:4; 시편 83:18; 예레미야 23:6; 에스겔 8:3; 마태복음 15:31; 누가복음 1:16-17; 사무엘하 23:3; 로마서 7:25; 갈라디아서 6:2; 로마서 8:2; 신명기 6:16; 고린도전서 10:9; 사도행전 5:9; 고린도전서 2:16; 로마서 8:27; 데살로니가전서 4:3; 사도행전 22:14; 9:15,17; 베드로후서 1:21; 에스겔 37:3-14; 고린도후서 12:9; 로마서 15:19; 16:26; 요한계시록 22:13; 히브리서 9:14; 요한복음 7:28; 요한계시록 3:7; 요한일서 5:6; 요한복음 14:17; 요한계시록 15:4; 사도행전 3:14; 다니엘 9:24; 요한일서 2:20; 요한복음 14:26; 예레미야 23:24; 에스겔 1:22; 시편 139:7; 신명기 30:20; 골로새서 3:4; 로마서 8:10; 시편 100:3; 요한복음 1:3; 욥기 33:4; 요한복음 5:21; 고린도전서 15:45; 요한복음 6:63; 로마서 8:11; 요한복음 6:45; 갈라디아서 1:12; 요한복음 14:26; 요한일서 1:3; 고린도후서 13:14; 고린도전서 14:25; 고린도후서 13:5; 요한복음 14:17; 고린도후서 6:16; 에베소서 3:17; 로마서 8:11; 빌립보서 3:15; 갈라디아서 1:12; 누가복음 2:26; 히브리서 1:1; 고린도후서 13:3; 마가복음 13:11; 이사야 49:7-8; 사도행전 13:3; 고린도전서 6:14; 요한복음 2:19; 베드로전서 3:18; 이사야 48:17; 요한복음 10:3; 로마서 8:14; 고린도후서 3:5-6; 디모데전서 1:12; 사도행전 20:28; 유다서 1; 히브리서 2:11; 로마서 15:16; 고린도전서 12:16; 골로새서 3:11; 고린도전서 12:11). 약 24 회에 걸쳐 하나님께 속한 것이 뒤따르는 구절에서 아들과 성령에게도 동일하게 귀속된다.

VII. 그분은 세 구별된 인격들 안에 존속하시는데, 첫째는 아버지, 둘째는 아들, 셋째는 두 인격에서 발출된 성령이다. 신성 본성의 독립성, 단순성, 영원성, 불변성으로부터 분명히, 그 본성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든 그 형태는 본성의 필수적 완전성이나 탁월성으로서, 그것 없이는 본성이 존재할 수 없다. 이들 인격들의 개인적 속성은 신성 본성의 존재만큼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각각이 앞서 상호 관련된 것처럼 그 전체 본성을 소유하니, 어느 인격도 다른 인격보다 열등하거나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신비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다룬다.

### 하나님 안에 계신 인격들에 관하여

인격이란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사유하는 실체이다. 또는 다른 것의 일부가 아니며, 다른 것에 의해 유지되지 않는 지성적 행위자이다. 인격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이성적인 이해력과 의지를 가진다.
2. 대명사 '그'뿐 아니라 특히 '나'와 '너'가 은유적이 아니라 가장 명료하고 단순한 언어로 적용 가능하다.
3. 사유, 말하기, 판단, 파견 등 개인적 행위를 할 수 있다.
4. 선지자, 제사장, 왕, 교사, 변호인, 장군 등 개인적 직무나 지위를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신성 본성은 창조된 본성과 무한히 다르며, 신적 인격은 창조된 인격과도 무한히 다르다.

1. 모든 창조된 인격은 서로 분리되거나 분리 가능하지만, 신적 인격들은 실체 면에서 완전하게 하나이며, 서로 안에 동일하다(요한복음 10:30; 14:9-10).

2.

서로 다른 피조된 위격들은 동일한 종류의 본질만을 가질 수 있으며, 동일한 개별적 본질은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신성한 위격들은 각각 동일한 개별적, 즉 수적 본질을 가지며 가져야 한다(요일 5:7; 요 10:30).

3. 모든 피조된 위격은 자신으로부터가 아니라 자신 안에서 또는 자신에 의해 구별되는 존재이다. 그러나 모든 신성한 위격들은 하나의 존재이자 실체가 되어야 한다. 이전에 증명되었듯, 하나님의 무한한 본성은 복수의 위격 안에 공존할 수 있으며, 성경도 이를 명확히 나타낸다.

### 엘로힘(Elohim)과 신적 위격

1. '엘로힘(Elohim)'은 복수형으로서 '하나님들' 또는 '존귀하신 존재들'을 뜻하며, 구약에서 약 2000 회에 걸쳐 참된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종종 단수 동사와 결합되며(창 1:1,3 등), 때로는 복수 동사나 형용사와도 함께

쓰인다(창 20:13; 35:7; 신 4:7; 수 24:19; 삼상 17:26,36; 시 58:11; 렘 10:10; 단 5:18,20). 심지어 시 45:6에서는  
엘로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체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고, 시 45:7에서는 아버지와 성령이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한 구절에서 단일 신적 위격을 뜻한다고 해서 수천 구절에서 그 용어의  
본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천사들, 권관들, 모세, 우상 등도 엘로힘이라 불리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위격들의  
대행자 또는 대표자, 혹은 경쟁자로서 그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시 97:7; 82:1,6; 출 22:28; 7:1; 삿 2:12).

2. 참된 하나님은 종종 둘 이상의 위격으로 표현된다(창 1:26; 3:22; 11:7; 욥 35:10; 시 78:25; 전 12:1; 5:8; 잠 9:10;  
30:3; 호 11:12; 사 45:15; 54:5; 6:8 과 요 12:39; 행 28:25-26; 사 41:21-23; 아 1:11; 아 8:9; 단 4:17, 여기서  
명령하는 감시자들은 지존자와 동일함, 단 4:24; 말 1:6; 요 3:11; 14:21,23; 17:21-22).

3. 여호와 또는 하나님으로 묘사되는 위격이 둘 이상인 구절들도 있다(창 19:24; 시 45:6-7; 68:17-18; 렘 23:5-6;  
33:15-16).

4. 여호와가 천사나 사자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써 우리 구속 사역을 선포하고 수행하기 위해  
보내진 자임을 의미한다(창 16:7-12; 18:12-13,20,26-32; 22:11-12; 히 6:13-18; 48:16; 출 3:2-15; 23:20-21;  
고전 10:9; 속 2:3,5,8,10; 3:1-2).

## 하나님 내의 세 위격

하나님, 즉 신적 본성과 실체 내에 정확히 세 위격이 있음을 다음 구절들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1. 하나님의 만물 창조에 관한 서술(창 1:1-3; 시 33:6 과 엡 3:9; 행 4:24,27; 히 1:2; 요 1:3; 욥 26:13; 시 104:30).
2. 하나님의 인간 창조에 관한 서술(창 1:26; 시 95:6-8; 히 3:6-7; 사 54:5; 전 12:1; 욥 33:4).
3. 하나님의 일반 섭리에 관한 서술(요 5:17; 히 1:3; 시 104:30; 사 34:16).



4.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사건에 관한 서술(사 63:9-10,14).
5.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에 관한 서술(학 2:4-7).
6. 죄와 고난에서의 구속에 대한 일반 계획에 관한 서술(엡 1:3-14; 뵤전 1:2).
7. 우리의 중재자로서 그리스도의 파견에 관한 서술(사 48:16 과 48:12-13,17).
8.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관한 서술(눅 1:35).
9.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그 백성을 기쁨 부으신 것에 관한 서술(사 11:2; 61:1-2; 고후 1:22).
10. 그리스도의 세례에 관한 서술(마 3:16-17; 요 1:32-34).
11.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사역에 대한 지원에 관한 서술(사 42:1; 마 12:18).
12.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에 관한 서술(히 9:14).
13.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부활에 관한 서술(롬 1:4; 8:11).
14. 세례의 제정에 관한 서술(마 28:19).
15. 그리스도가 성령을 제자들과 추종자들에게 약속한 것에 관한 서술(요 14:16-17,26; 15:26; 16:5-15).
16.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와 본성을 변화시키신 것에 관한 서술(롬 8:2-3; 요일 3:20,24; 고평 6:11; 딤후 3:4-7; 뵤전 1:2-3).
17.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에 관한 서술(갈 4:6; 롬 8:14-17).
18. 거룩하게 하는 은혜의 공급에 관한 서술(엡 1:17-20; 고후 1:21-22; 3:14-16; 살전 3:11-13; 살후 3:5).
19.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에 관한 서술(속 12:10; 계 1:4-5; 엡 2:17-18).
20. 신령한 영광과 영화롭게 됨에 관한 서술(요 14:2-3 과 엡 1:14; 고후 1:22).
21. 교회 직분자에게 주어진 은사에 관한 서술(고전 12:3-6).
22. 성경의 영감에 관한 서술(삼하 23:2-3; 베드후 1:17-21).
23. 교회의 연합에 관한 서술(엡 4:4-6).

24. 하나님의 이름이나 칭호가 세 번 반복되는 것에 관한 서술(민 6:24-26; 사 33:22; 단 9:19; 사 6:3; 계 4:8).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명백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25. 신실한 사역자들이 전한 복음과 그 사역에 받은 도움에 관한 서술(요일 4:2; 롬 15:16,19,30; 고전 12:3).

26. 그리스도의 기적 행위에 관한 서술(마 12:28).

27. 복음의 놀라운 능력에 관한 서술(고후 3:3; 살전 1:4-6).

28. 불신앙의 무서운 본질에 관한 서술(히 10:29).

29. 신자들의 열심한 경건훈련에 관한 서술(유 20-21).

30. 신자들의 영적 위로에 관한 서술(롬 8:9; 벧전 4:14).

31. 사도들의 축복에 관한 서술(고후 13:14).

32. 복음 증언에 대한 천상의 인정을 나타내는 서술(요일 5:7).

이 방대한 영감된 본문들에서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또는 주된 행위자로 표현된 위격, 둘째로 ‘말씀’, ‘아들’, ‘종’, ‘천사’,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 ‘열방의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 인류 구원자로 표현된 위격, 그리고 셋째로 ‘성령’, ‘성령 하나님’, ‘주’라는 이름을 가진 위격을 발견한다.

#### 요한일서 5:7 위조 여부 논쟁

사실 소시니우스파, 현대 아리우스파 및 일부 다른 그룹은 요한일서 5:7 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많은 그리스어 필사본에서 이 구절이 빠져 있다.” 그러나 많은 필사본이 다른 본문도 빠져 있으며, 5:7 과 5:8 구절이 매우 비슷해 부주의한 필경자가 한 구절을 누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2. “많은 고대 번역본에서 이 구절이 빠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번역본들은 신약 대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이 문제에 큰 권위를 갖지 못하며, 시리아어본과 제롬의 라틴어본을 제외하고는 거의 권위가 없다.

3. “고대 교부들이 이 구절을 인용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당시 이단과의 논쟁에서 유리한 구절임에도 불구하고 교부들이 부족한 사본만을 가졌거나 반대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구절이어서 인용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추가로 살펴보면,

1. 정통파는 삼위일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었기에 이 구절을 위조할 유인이 없었으나, 반삼위일체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사본에서 제거하려는 강한 유인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이 고의적이라기보다 박해 중 필경자의 성급함 때문일 수도 있다.

2. 약 1400 년 전부터 반삼위일체주의자들이 성경을 훼손하려 했다는 불평이 있으나, 정통파가 그런 일을 했다는 증거는 최근까지 발견된 바 없다.

3. 이 구절은 테르툴리아누스(서기 200 년경), 키프리아누스(약 250 년경), 아타나시우스(또는 그의 이름으로, 350 년경), 제롬(서기 400 년경 그의 번역본에 포함됨)에 의해 인용되었으며, 이후 유케루스와 비갈리우스도 인용하였다. 서기 484 년 아프리카 주교들은 아리우스 왕 후네릭에게 신앙 고백서로 제출할 때 이 구절을 인용했고, 30 년 후 풀겐티우스는 아리우스 국왕의 요구에 따라 세 차례 이 구절을 인용하였다. 800 년경 카를 대왕의 명령으로, 그리고 약 200 년 후 소르본 대학의 명령으로 그리스어 및 라틴어 사본을 참고하여 불가타 라틴어 번역본이 신중히 교정되었을 때도 이 구절은 유지되었다. 아리우스주의에 경향을 보였던 에라스무스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의심하여 그의 신약 초판에서 삭제했으나, 이후 영국의 고서 사본을 근거로 복원하였다. 스테판이 편찬한 16 개 그리스 신약성서 필사본 중 9 권에 이 구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의심할 여지 없이 주요 필사본들 중 많은 부분이 현재 소실되었으며, 인쇄본이 필사본보다 더 신뢰할 만한 근거가 된다. 인쇄본은 사도 시대 이후 약 100 년이 지난 시점에 작성된 필사본보다 더 많은 학문적 연구와 주의를 거쳐 제작되었다.

4. 이 구절을 제외하면 문맥상 결함과 어색함이 발생하므로, 밀과 벵겔리우스도 훌륭한 판본에서 정직하게 이를 보존하였으며, 이 구절에 대한 의문점들도 정당하고 공정하게 고찰하였다.

### '아버지' 위격에 대하여

I.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아버지'라는 명칭은 때때로 모든 신적 위격에 적용되어, 피조물의 창조와 보존을 나타내기도 하나(말 2:10; 히 12:9), 가장 흔하고 분명한 용례는 두 번째 위격과의 관계 내에서 신격의 첫 번째 위격을 지칭하는 것이다(아들의 아버지).

### 아버지의 인격성

아버지가 인격임은 분명하다.

1. 그는 명백히 인격이라 불린다(히 1:3).

2. 그는 스스로 존재하며 자신 안에 생명이 있다(요 5:26).

3. 그는 사고하고 의지하는 주체이다(요 5:17,22).

4. 여러 인격적 관계와 행위가 그에게 귀속된다. 그는 영원부터 자신의 본질을 공유하는 유일한 아들을 낳았다(시 2:7). 그는 구속을 위하여 아들과 상의했다(속 6:13). 그는 아들을 미리 정하시고 중재자로 세웠으며(벧전 1:20; 잠 8:23), 은혜의 언약에 들어갔다(시 89:1-37; 40:5-8; 사 53:10; 49:6-9). 그는 아들을 약속하고 보내어 세상에 오게 하였으며(렘 31:22; 속 3:8-10; 눅 1:35; 히 1:6), 그의 사역을 위해 사명과 능력을 주었다(요 10:18; 20:21; 사 11:2-3; 42:1,6; 49:1-6; 61:1-3; 마 3:16-17; 요 1:32,34; 3:34-35; 골 1:19). 그는 아들의 낮아짐과 포기 가운데 그 곁에

머물며 사랑과 돌봄, 권능과 섭리의 도움과 위로를 주었다(사 42:1-7; 49:2-8; 50:7,9). 그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의 사역을 이루며 증거하였다(히 1:1; 요 2 서 5:19-22,32; 8:16-19; 행 10:38). 그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었고 정한 때에 부활시켰다(롬 8:32; 행 2:23-24; 요일 4:9-10; 뱀전 1:21). 그는 아들을 영화와 존귀로 관 씌우고 자신의 우편에 높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요 17:5; 히 2:9; 시 110:1; 행 2:32-33,36; 빌 2:9-11; 마 28:18; 요 5:22; 엡 1:20-22; 고전 15:24-27). 그는 성령을 약속하고 보내시는데,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출현하여 인간이자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를 기름 부으며 그의 선지자, 사도, 집사 및 백성을 보내고 능력 있게 한다(시 45:7; 요엘 2:28; 눅 24:49; 요 14:26; 15:26). 그는 택한 자들을 영원한 거룩과 행복으로 예정하시고 인도한다(롬 8:28-30; 엡 1:4-5; 눅 12:32; 마 20:23). 그는 아들에게 새 언약을 제안하여 그들의 구원 조건으로 삼으며(사 53:10-12; 시 89:3-4; 히 2:10), 아들의 대속적 의를 받아들이고 구원하여 그를 그들에게 드러내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 그들을 의롭고 화목하게 하신다(렘 31:32-34; 마 11:25; 갈 1:16; 요 6:44-45; 고후 5:18-21; 롬 8:11,14-18; 딤후 3:5-6). 그가 성령으로 믿는 자들을 확증하고 위로하며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한다(고후 1:21-22; 엡 3:20-21; 요 10:28-29; 17:11,24; 14:16-17,21,23; 살후 2:16-17; 히 2:10; 계 6:17).

아버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무신론자들 외에는 결코 부인된 적이 없다. 그리고,

1. 성경은 이를 명백히 선언한다(롬 15:6; 고후 1:3; 빌 2:11; 엡 1:3,17; 히 1:1,3; 뱀전 1:2-3; 요 20:17). 그리고 그는 여호와라 불린다(렘 23:5; 렘 34:15; 시 110:1; 사 43:5-6,8; 사 49:1,4-5,7-8; 사 50:4-5; 사 53:6,10; 사 61:1).
2. 자존(자기존재, 요 5:26), 영원성(계 1:4; 엡 1:4), 절대적 충분성(고전 15:28),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편재성(요일 1:3-7; 요 14:21,23), 전지성(고후 11:31), 전능하심(막 14:36), 절대적 주권성(마 11:25-27; 마 26:53; 요 3:35; 요 10:29; 요 14:28; 고전 11:3; 고전 15:24,27-28; 엡 4:6) 등 신적 완전함들이 그에게 귀속된다.
3. 창조(엡 3:9; 사 42:5), 섭리(요 5:17; 마 11:25), 죄 사함(눅 23:34; 엡 4:32),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죽음에서 살리심(요 5:21; 히 13:20; 롬 8:11) 등 신적 사역이 그에게 귀속된다.
4.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들이 예배한다(요 11:41; 요 12:27-28; 요 14:26; 요 17; 엡 1:17; 엡 3:14; 마 28:19).

## II. 신성에 있는 둘째 위격

둘째 위격은 ‘말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데, 이는 그가 아버지를 완전하게 닮았기 때문이다. 즉 우리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같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위대한 대변자이며, 오래전의 언약과 지속적인 중보기도의 주체이다. 그는 모든 신적 계시의 주제이며 목적이고, 그 계시의 주된 전달자이다(눅 1:2; 벧후 1:16; 행 20:32; 히 4:12; 요 1:1-2,14; 요일 1:1; 요일 5:7; 계 19:13).

— 그는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아 아버지와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시 2:7; 요 1:14; 요 3:10; 롬 8:3,32; 롬 1:3; 갈 4:4).

—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하늘에서 여러 차례 선언되어 아버지께서 증명하셨다(마 3:17; 마 17:5).

— 자신에 의해서도 증거되었다(요 5:16-17; 요 10:30,36; 요 17:11,24-25; 요 19:7; 막 14:61-62; 마 11:25-26).

— 성령에 의해서도 그의 인성 형성과 세례 시 임함으로써 증거되었다(눅 1:32,35; 마 3:16; 요 1:33-34).

— 세례 요한과 사도들 및 성도들에 의해서도 증거되었다(요 1:33-34; 마 16:15-16; 요 6:69; 요 11:27; 행 3:7; 요일 5:5).

— 심지어 악한 영들조차 인정하였고(마 8:28-29; 막 3:11; 막 5:7; 눅 4:41), 아마도 그때 회개한 죄인들도 인정하였다(마 14:33; 막 15:39). 그러나 그의 기적적 잉태와 출생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아니다.

1. 성령은 결코 그의 아버지로 나타나지 않으며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렇지 않으면 신성 내에 두 아버지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셈이다. 태어난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데, 이는 그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에 존재하기 때문이다(눅 1:35).

2. 그는 잉태나 출생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성격과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잠 30:4; 시 2:7; 갈 4:4; 요 3:16-17).

3. 그의 인간 본성 또는 육체에 관해서는 그는 인자의 아들이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4. 여인에게서 태어나심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롬 8:3,32; 갈 4:4).

5. 그의 특별한 잉태와 출생이 그를 유일하신 독생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수는 없다. 그는 그렇게 불리지만(요 1:14; 요 3:16,18; 요일 4:9), 아담은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삭, 야곱, 요셉, 삼손, 사무엘, 세례 요한도 모두 특별한 방식으로 생겨났으나—그리스도의 인성 생성 때와는 매우 다르다.—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하나님의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때문도 아니다.

1. 그는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마 3:17; 마 17:5; 요 5:16-17; 요 10:30,36; 막 14:61-62; 마 16:15-16; 요 6:69; 요 1:49).

2. 만일 그의 부활 때문에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그는 자신을 살렸으므로 자신의 아버지가 되었을 것이다(요 10:17-18; 요 2:19).

3. 그의 부활이 그를 유일한 독생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도 부활했거나 부활할 것이기 때문이다(마 27:52-53; 요 5:28-29; 살전 4:14,16; 계 20:12). 행 13:33 은 그가 부활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부활로 그의 아들 됨이 드러났다는 의미이며 롬 1:3-4 와 비교할 수 있다. 그리고 그의 부활은 공적으로 구원의 말씀, 특히 시 2:7-8 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주어져 성취되었음을 증명한다.

— 그의 중재자 직분으로 인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도 아니다.

1. 특정한 사명이나 직분 임명이 본질적으로 아들 됨을 구성하지 못한다.

2. 그의 아들 됨은 중재자 직분에 임명되거나 그 직분을 수행하기 이전에 나타난다(요 3:16; 갈 4:4; 요일 4:9-10; 요일 3:8; 히 5:8).

3. 그의 중재자 직분은 신성한 아들 됨에서 능력을 얻기에, 그의 아들 됨은 그 직분에 의존하지 않는다(히 4:14).

4. 아버지로부터의 그의 출존으로서의 아들 됨은 중재자 직분 수행을 위하여 보내진 것과 명백히 구별된다(요 7:29).

그러나 그는 필연적이고 영원한 생식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신성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의 형상과 관계로 존재하지 않으면 전혀 존재할 수 없다는 필연성에 의한 것이다.

1. 많은 성경 본문에서 그는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며, 그 성격으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의 백성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나타난다(눅 1:16-17,32,35,46-47), 하늘에서 오시고 모든 위에 계신 분으로(요 3:31; 마 11:27), 믿음과 예배의 대상으로(요 3:18,36; 요 9:35-38; 마 4:33; 마 27:54) 또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히 1:8; 요일 3:8; 딤후 3:16),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마 28:19; 요 5:21) 나타난다.

2. 하나님은 그의 신성한 아들 됨에 대해 가장 엄숙하고 명확한 증거를 주셨다(마 3:17; 마 17:5). 첫 본문은 문자적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며, 다른 본문은 당시 가장 뛰어난 구약 선지자들이었던 모세와 엘리야보다 훨씬 뛰어난 그를 듣도록 명한다. 이는 그가 유다의 하나님이자 주 하나님임을 나타낸다(사 40:9).

— 또한 그가 가르칠 때 결코 다른 이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않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등의 자신의 이름으로 가르친 점은 그 자신이 선지자들이 그 이름으로 메시지를 전한 여호와임을 명백히 시사한다(마 5-7; 요 3; 요 5-8; 요 10 등).

3. 성경은 그를 하나님의 친아들이자 본래의 아들이자 자기 자신에게서 난 아들로 묘사한다(요 1:14,18; 요 3:16,18; 롬 8:3,32; 요일 4:9,12). 이러한 표현이 그를 본질적으로 낯으심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무엇이 그럴 수 있겠는가?

4.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 중재자인 사실은 그의 하나님의 아들 됨과 분명히 구별된다(요 1:49; 요 6:69; 마 16:16; 히 5:8; 요일 4:14).

5. 그가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자처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 것에 대해 신성모독 혐의를 받자, 그는 그들의 해석을 명백히 수용하였고, 자신의 아들 됨 주장이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주장을 함축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지극히 높으신 신성을 추가로 주장하고 입증하였다(요 5:16-29; 요 10:30-36; 요 19:7; 마 26:63-65).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하는 말은 박해 받던 유대인들의 말이 아니라 영감을 받은 복음사가의 표현일 수도 있다(요 5:18).

6.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결론 내린 것은 중재자 직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신적 행위들 때문이었다(마 4:3,6; 마 14:33; 마 27:40,54; 요 1:49).

7. ‘인자의 아들’은 진정한 인성 소유를 암시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고유 아들’, ‘자기 자신에게서 난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 신성 본질과 참되고 지극히 높으신 신성을 소유함을 암시한다.—그가 본성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영원부터 낯으신 영원한 아들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연스러운 것은 최고 수준에서 필연적으로 영원하지 않은 것은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고유한 영원을 “오늘”이라 칭하는 것에 아무 부끄러움이 없으며, 하나님에게는 끝나지 않는 영원이 항상 현재이기 때문이다(시 2:7 과 사 43:13; 미 5:2 참조). 그의 아들의 나심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중재적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앞서고 근본적이므로 예정된 사건으로 나타나지 않는다(시 2:8-9).

##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의 독립된 위격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성령과 구별되는 독립된 위격이다.



1. 그는 이성적 이해력과 의지를 가진 인격적 능력을 소유한다(마 11:27; 요 1:18; 요 5:21; 요 17:2,24).
2. 그는 독자적인 위격으로 존재한다(요 5:26; 히 1:3).
3. 인칭 대명사 '나는', '너는', '그는'이 성경의 가장 명료한 구절에서 귀속된다(마 5; 요 3; 사 49:1-9; 사 42:1-7).
4. 그는 중재자, 보증인, 선지자, 제사장, 왕 등의 인격적 직무를 맡아 수행한다(딤후 2:5; 히 7:22; 행 3:22; 시 110:4; 시 2:6; 마 23:8-10).
5. 그는 무수한 인격적 행위를 수행하는데, 예를 들어 마음을 열어 보이심(렘 30:21), 우리의 본성을 취함(히 2:14), 우리의 의를 대신 이루심(마 3:15; 눅 24:26),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요 2:19; 요 10:17-18), 하늘로의 승천(히 1:3), 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중보기도(히 7:26; 롬 8:34) 등이 있다.

###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1.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외에는 적합하지 않은 이름들이 그에게 귀속된다. 예를 들어 '나는 곧 나는 이다'(출 3:14; 계 1:8), 여호와(출 17:7; 고전 10:9; 사 6:1-9; 요 12:39-41; 사 40:3,9-10; 마 3; 눅 1:16-17,76; 눅 3; 렘 23:5-6; 렘 33:15-16; 고후 5:21; 뱀전 2:24; 뱀전 3:18; 속 12:10; 요 19:19,34,37; 계 1:7; 속 11:12-13; 마 27:9; 속 11:8,11; 사 8:13-14; 뱀전 2:6-8; 눅 2:34; 시 118:22; 마 21:42; 사 44:6; 계 22:13; 사 43:11; 뱀후 1:1; 뱀후 3:18; 시 45:6; 히 1:8; 사 45:22-23; 롬 14:10-12; 빌 2:9-11; 사 25:8-9; 딤후 1:10; 사 35:4-5; 마 11:3,5; 사 7:14; 마 1:23; 딤후 3:16; 요 1:14; 요 20:28; 뱀후 1:1; 유 4 등).

— 마지막 두 본문과 여러 다른 본문에서 '꺄'은 '조차도'(심지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이시며(사 44:6; 사 41:4; 계 1:8,17-18; 계 2:8; 계 21:6; 계 22:6,13,16,20),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요일 5:20-21; 계 1:18; 렘 10:10), 크시고 강하신 하나님(딤후 2:13; 사 9:6),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시 78:56; 고전 10:9; 눅 1:76), 유일하고 지혜로운 하나님(유 4,24-25; 롬 16:27; 딤후 1:16-17), 영광의 하나님(행 7:2), 유일하신 주 하나님(사 44:6; 사 45:15,22-23; 롬 14:11; 유 4), 만복의 하나님(롬 9:5),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출 3:6; 행 7:30-32), 이스라엘의 하나님(눅 1:16-17; 마 3:11; 시 100:3; 요 10:3; 요 21:16-17; 행 20:28; 뱀전 5:2), 만왕의 왕·만주의 주(계 17:14; 계 19:13-16; 딤후 6:14-15), 영화의 왕(시 24:7-10), 만군의 주와 온 땅의

하나님(사 54:5; 요 3:29; 마 9:15; 고후 11:2), 여호와 목자(시 23:1; 요 10:2,16; 히 13:20; 뱀전 2:25; 뱀전 5:4) 등이 그것이다.

2.

###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속하는 속성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속하는 속성이나 특성들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귀속된다. 즉, 하나님의 충만함(골 2:9; 요 16:15),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동등함(빌 2:6; 속 13:7; 히 1:3; 골 1:15; 요 5:18), 아버지와의 일치(요 10:30; 요 14:9-10; 요일 5:7), 영원성(계 1:8, 11; 잠 8:23-31; 미 5:2; 요 1:1; 요 8:58; 요 6:62; 요 17:5; 사 9:6; 히 7:3, 24-25; 롬 16:26; 막 16:15), 불변성(히 13:8; 히 1:12; 시 102:24-27), 전능하신 능력(빌 3:21; 계 1:8; 계 11:17-18; 계 22:12-13, 20; 사 9:6; 사 63:1; 사 49:26), 편재성(마 18:20; 마 28:20; 골 1:17; 히 1:3; 요 1:8; 요 3:13), 전지성(요 1:18; 요 2:25; 요 4:29; 요 6:64; 요 21:17; 마 9:4; 마 12:25; 마 11:27; 계 2:23; 히 4:13; 골 2:3)이다. 그의 겸손의 상태 동안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한 것은 그가 창조된 인성을 가졌기 때문이다(막 13:32). 그는 또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중보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속성을 가져야만 했다(신 18:15-18; 마 17:5; 요 1:18; 히 7:25; 히 9:14; 시 110:4-5; 시 2:6-9, 12).

###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

3.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그에게 귀속되는데, 이는 만물을 예정하심(잠 8:22, 30; 창 1:26; 계 1:8; 요 13:18; 요 15:16), 만물을 창조하심(시 33:6; 요 1:3; 엡 3:9; 히 1:2, 10)이며, 이로써 그는 “하나님의 창조 시작”이자 “모든 피조물 중 만아들”(계 3:14; 골 1:15; 골 1:10)이라 일컬어진다. 또한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며(골 1:17-18; 히 1:3; 요 5:17, 19), 자신의 이름과 사도들을 도덕적 도구로 삼아 직접 기적을 행하신다(마 4:24-25; 마 11:5; 요 5:21, 36; 요 21:25; 눅 6:19; 눅 8:46; 눅 10:9-10; 행 3:6, 16; 행 4:10, 29-30; 행 9:34). 교회를 세우고 그 직분자들을 세우며(히 3:3, 14; 엡 4:11-12; 마 16:18; 마 28:18-20), 성례와 기타 규례를 제정하고(마 28:19; 고전 11:23-29), 죄인들을 속량하며(호 1:7; 사 45:17, 22, 24-25; 마 20:28; 행 20:28; 딤후 2:14), 그의 속량을 적용하기 위해 성령을 보내고(요 14:26; 요 15:26; 요 16:7), 반역하는 죄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며(요 5:21, 25; 요 10:16; 요 15:16), 죄인들을 의롭게 하시고(마 9:6; 사 53:11; 고전 6:11; 골 3:13; 계 1:5), 사람들을 하나님 가족으로 입양하시고(요 1:12; 롬 3:19; 고후 6:18), 그들의 본성과 삶을 거룩하게 하시며(엡 5:26, 29; 히 2:11; 히 13:12; 히 9:14), 은혜의 상태와

본성과 삶의 길에서 그들을 전능하게 보존하신다(요 10:10, 28; 요 14:6; 골 3:3; 유 1). 또한 자신과 다른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요 2:19; 요 10:17-18; 요 5:21, 28-29; 롬 1:4; 벰전 3:18), 세상을 심판하며 성도들에게 영광을 수여하고 악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집행하신다(요 5:22, 28-29; 행 17:31; 히 2:10; 히 7:25; 계 3:21; 살후 1:6-10; 계 14:9-11).

#### 하나님께만 마땅한 신적 예배와 존귀

4.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마땅한 신적 예배와 존귀가 그에게 귀속되는데, 이는 마 8:2 과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와 동일하다(요 5:23). 그에 대한 믿음(요 14:1; 요 17:3; 벰전 1:21; 시 2:12; 렘 17:5), 그에 대한 최고의 사랑(고전 16:22; 요 21:15-17; 엡 6:24; 막 12:30, 32-33), 그에 대한 영혼의 순종과 복종(출 23:21; 시 2:9-12; 시 22:7-31; 시 45:5, 11; 마 17:5), 아버지와 동등하고 하나 된 이름으로 세례를 행함(마 28:19; 행 19:5; 행 10:48; 고전 1:13), 그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와 찬양을 드림(히 1:6; 빌 2:10; 행 7:59-60; 고전 1:2; 살후 2:16-17; 고후 12:8-10; 계 1:5; 계 5:9, 13; 계 7:10-12)이 포함된다.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중재자가 되어 우리 본성을 취했으므로, 그를 하나님보다 열등하거나 하나님에게 보내지거나 상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성경 구절 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어떤 성격이나 일을 수행하는 것으로 묘사된 말씀은 그가 인성과 중재자라는 위상에 있을 때를 가리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거의 평행하는 다른 구절들이 그의 최상위 신성을 증명한다(요 14:28; 고전 11:3; 고전 15:28; 요 10:30; 빌 2:6; 속 13:7; 마 19:17 ["선한 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 막 2:7; 요일 5:20; 유다 4; 골 2:9; 고전 15:24, 28; 눅 1:53; 행 10:42; 행 17:31; 시 50:6; 시 7:8; 행 10:40; 요 2:13; 요 3:16; 엡 5:2, 25; 엡 4:32; 골 2:13; 요 6:38; 요 20:28; 마 23:9-10; 사 9:6; 계 21:7; 눅 20:36; 요 11:25; 막 13:32; 요 21:17; 요 1:18; 요 14:8-9; 고전 15:27; 빌 3:20-21; 마 26:39;[1] 히 5:7-8; 마 28:18; 요 7:16; 요 11:41; 사 42:1; 사 61:1; 사 49:3).

그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공동작업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아버지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일은 전혀 행하지 않는다(요 5:19). 그가 아버지에게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가 아버지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을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아마도 인간 생식의 참된 본질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었거나, 무한한 영의 본성에 대해 부적절하고 신성모독적인 기준인 동물적 본성과 생식을 표준 삼았기 때문일 것이다.

### III. 성령의 신적 인격과 속성

1. 성령에게는 이해력과 의지라는 인격적 능력이 귀속된다(고전 2:10-11; 고전 12:11; 엡 4:3).
2. 그는 다른 두 신적 인격과 함께 예배의 대상이며 축복의 근원으로 제시된다(마 28:19; 고후 13:14; 계 1:4-5; 요일 5:7; 요 14:16-17; 요 15:26; 요 16:7).
3. 헬라어에서는 본래 중성명사인 pneuma 에 남성 관사나 형용사가 붙어 있다(요 14:26; 요 15:26; 요 16:13; 엡 1:13-14).
4. 성령은 비둘기 형상과 불꽃의 갈라진 혀들 형태로 나타났다(마 3:16; 행 2:3-4).
5. 그는 중보자(롬 8:26-27), 증인(요 15:26; 히 10:15), 위로자이자 변호자(요 14:16-17; 요 15:26; 요 16:7), 교사이자 인도자(요 14:16-17, 26; 요 16:13-14)라는 인격적 직무를 수행한다.
6. 성령은 가르치고 말하며(막 13:11; 행 28:25), 증언하고(행 5:32; 행 20:23; 롬 8:15-16), 거주(요 14:17; 고전 6:19; 딤후 1:14), 종을 파송하며(행 13:2-4; 행 20:28; 마 9:38), 적합함을 판단하고(행 15:28), 금지하는 등(행 16:6-7) 수많은 인격적 행위를 수행한다.

성령은 영원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하였고, 특히 우리 구속의 새 언약 계획을 승인하여 그 집행에 적절히 참여하였다. 따라서 시간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과 구별되지만 분리되어 행하지는 않는다. 순서상으로 그는 창조 사역을 완성하였다(시 33:6; 욥 26:13). 모세, 브살렐, 아훈아빔, 웃니엘, 에훗, 바락, 드보라, 기드온과 그의 300 명 군대, 삼손 등에게 비범한 체력이나 지혜, 정신적 용기를 부여하였다(신 34:7; 출 31:3-6; 삿 3:10, 15; 삿 4:9, 14, 21; 삿 6-7; 삿 13-16). 예언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오한 지식을 영감으로 주며(벧전 1:11; 벧후 1:21), 발락과 가야바 및 기타 이들에게 미래 사건의 전망을 주었다(민 23-24; 요 11:50-52; 왕상 13:11-20).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리스도, 사도들과 그 밖의 이들이 행한 무수한 기적을 행하였다(출 4-17; 민 16-17; 왕상 18-20; 왕하 17; 왕하 13; 마 12:22-28; 히 2:4).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그의 신적 인격과 연합한 영혼을 창조하였다(눅 1:34-35). 그의 인성을 거룩하게 하여 가능한 모든 은사와 은혜로 충만케 하였고(사 11:2-3; 요 3:34), 인성의 성장에 따라 은혜도 증가시켰다(눅 2:40, 52). 엄숙하게 기름 부어 그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였으며(마 3:16; 사 61:1-3; 사 11:2-4; 눅 4:18; 요 3:34), 모든 시험을 통해 그를 인도하여 사탄의 시험에서 보호하였다(마 4:1). 기적을 행하는 데 도왔고(마 12:28), 하나님께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데 도왔다(히 9:14). 그를 죽은 자리에서 일으켰으며(롬 1:4; 롬 8:11; 롬 6:4), 우리의 공적 대표로서

그를 의롭다 하였다(딤후 3:16). 그의 인성을 천상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였으며(시 45:7; 행 2:28), 기적과 구원적 영향력으로 그를 온전히 의로운 자로 인정하였고—사람을 위한 모든 일을 완전한 이로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신 분으로서(행 1-19; 눅 24:49; 요 16:7-17; 요 15:26)—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에 부르고 은사와 은혜를 갖추게 하며(행 2; 행 13:2-4; 행 20:28; 마 9:38; 고전 12; 고전 14), 그 일들을 인도하고 도우며 성공하게 하였다(행 16:6-7; 히 2:4; 벧전 1:11-12; 살전 1:4; 행 8:17; 행 10:44; 행 19:6-7; 롬 15:16, 19).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고(요 16:8-9),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깨우치며(요 14:26; 요 15:26; 요 16:13, 15; 엡 1:17-18; 엡 3:17-19; 고전 2:10-12),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한다(요 3:5-6; 딤후 3:5). 그들을 의롭게 하고(고전 6:11), 거룩하게 하며(살후 2:13; 벧전 1:2; 롬 15:16), 위로하고(요 14:16, 26; 요 15:26; 요 16:7; 행 9:31), 인도하고 이끌며 끌어당긴다(살후 3:5; 요 14:16-17; 시 143:10; 롬 8:1, 4, 14; 갈 5:18, 25). 그들의 죄성을 죽이게 하며(롬 8:13), 영적 삶과 용기 가운데 은사를 견고하게 하고(시 51:11-12; 갈 5:18, 25), 새 본성이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며(엡 5:9; 갈 5:22-23; 겔 36:27), 기도에서 인도하고 돕는다(롬 8:15, 26-27; 유 20; 갈 4:6; 속 12:10). 또한 자기 성찰을 돕고, 그들의 영과 더불어 서로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하며, 성령의 내주로 그들을 표징한다(롬 8:9, 16; 요일 3:24). 성령은 구속의 날까지 그들을 보증하며 인치고 봉인한다(엡 1:13-14; 엡 4:30; 고후 1:21-22). 또한 영적 신비를 가르치고(요일 2:20, 27; 고전 2:10-12, 15), 그의 영향력이 존중받지 못할 때 슬퍼하고 근심한다(사 63:10; 엡 4:30; 살전 5:19). 마지막 날에 그들의 죽은 몸을 부활시키는 일 또한 명백하다(롬 8:11).

성령도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한 신적 인격임이 분명하다.

1.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속한 이름들이 그에게 주어진다. 예컨대 여호와(삼상 23:2; 민 12:6; 벧전 1:11; 벧후 1:21; 신 32:12; 사 63:10; 사 6:8-10; 행 28:25; 출 17:7; 히 3:9; 롬 31:31-34; 히 10:15-16; 레 16:2; 히 9:7-8; 하나님 사 61:1; 겔 11:5; 히 1:1; 행 5:3-4; 고전 3:16; 고전 6:19; 딤후 3:16; 벧후 1:21;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시 78:56; 히 3:7, 9; 주님 살후 3:5; 마 9:38; 고후 3:17-18 — 여기서 결론 부분은 “주님께서 성령이시다”라고 읽을 수 있다).

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인 영원성(창 1:1-2; 히 9:14), 편재성(시 139:7; 고전 3:16; 고전 6:19; 딤후 1:14; 롬 8:9; 요 14:17), 전지성(고전 2:10-11; 요 16:13; 벧후 1:21; 벧전 1:11), 전능한 능력과 지존적 통치(사 11:2; 눅 1:35; 행 6:10), 신적 거룩성(사 63:10-11; 롬 1:4)이 그에게 귀속된다.

3.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일들이 그에게도 귀속되는데, 만물을 창조함(창 1:2; 시 33:6; 시 104:30; 욥 26:13; 욥 32:4), 만물을 보존함(시 104:30; 사 34:16), 기적을 행함(마 12:28; 고전 12:4; 히 2:4), 그리스도의 인성을 형성함(눅 1:35; 롬 31:22),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음(사 42:1; 사 11:2; 사 61:1; 시 45:7; 요 3:34; 아마 그를 보내심도 포함됨(사

48:16)), 교회를 다스림(마 9:38; 행 7:51; 행 13:2, 4; 행 20:28; 행 15:28), 특별한 영적 은사를 베풀(고전 12; 히 2:4), 가능성이 있는 미래를 예언함(요 16:13; 행 11:28; 행 20:23; 행 21:11; 벧전 1:11), 사람들의 양심에 가장 깊은 죄를 깨닫게 함(요 16:9), 영적 진리를 아는 데 마음을 밝힘(엡 1:17-18; 엡 3:16-19; 고전 2:10, 12, 15-16),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의롭게 함(딤후 3:16; 고전 6:11),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요 3:5-6; 고전 4:11; 딤후 3:5-6; 살후 2:13; 살후 3:5; 살전 3:12-13; 벧전 1:2; 겔 37:1-14), 성도들을 위로하며 은혜 안에 보존함(요 14:16, 26; 요 15:26; 요 16:7; 엡 1:13-14; 엡 4:30; 고후 1:21-22; 시 51:11-12)이다.

성도들과 교회가 영적으로 심각한 죽음 상태에 있을 때 생기를 불어넣는 일, 요한복음 6:63; 로마서 8:2; 에스겔 37:1-14; 요한계시록 11:11, 그리고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살리는 일, 로마서 8:11; 사도행전 26:8.

4. 하나님만께 적합한 예배가 요구되며 그분께 귀속된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본보기로 제시되고, 아가 4:16; 요한계시록 1:4; 데살로니가후서 3:5 등에서 나타나며, 마태복음 9:38; 사도행전 13:2,4; 16:5,7; 20:28; 고린도전서 12:4-11; 2:4,11-12 에서 명령된다. 엄숙한 간구가 하나님께 제기되며, 로마서 9:1; 신명기 6:13; 예레미야 17:10 에 예시된다. 그의 이름으로 세례가 베풀리며, 마태복음 28:19 에 기록되어 있다. 교회의 판단 기관이 모여 회의하며, 사도행전 15:28; 13:2,4 에서 나타나고, 고린도후서 13:14 에는 엄숙한 축복기도가 선포된다.—그에게 특별히 범해지는 죄는 사면되지 않는 죄로 규정되나, 아버지와 아들에게 범하는 가장 심한 죄는 아니다, 마태복음 12:32; 히브리서 6:4-8; 10:26-31.

이러한 성경 본문들에서, 지성과 영원한 인격에게 적합하지 않은 어떤 것이 성령 또는 거룩하신 영에게 귀속될 때에는, 그의 이름은 반드시 그 자신이 아니라 그의 은사와 영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요한복음 7:39; 요엘 2:28; 사도행전 2:17; 10:44; 19:6; 히브리서 2:4.—또한 그가 아버지나 아들보다 열등하거나 보내심을 받거나 주어진 것으로 표현된 곳은, 우리 구속 사역에서 그의 지위 또는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그는 자신의 선택으로 적용자로 세워졌다, 요한복음 14:26; 15:26; 16:7; 에스겔 36:27; 요한일서 3:24.

성령은 아버지뿐 아니라 아들로부터도 나신다.

1. 그는 아버지의 영이자 아들의 영으로 표현된다, 갈라디아서 4:6; 베드로전서 1:11; 빌립보서 1:19.

2. 그는 아버지뿐 아니라 아들에 의해서도 보내어지고 전해진다, 요한복음 16:7,13-15; 20:22; 잠언 1:23.

다만 그가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아들로부터 나오는지는 알 수 없다.

이 세 신적 인격은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1.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구별된다, 마태복음 28:19; 고린도후서 13:14; 마태복음 3:16-17; 요한일서 5:7; 요한복음 14:16-17.

2. 존재의 순서에 따라 구별된다; 아버지가 첫째, 아들이 둘째, 성령이 셋째이다, 요한일서 5:7; 마태복음 28:19. 그러나 그들의 동등함을 표시하기 위하여 때때로 다른 순서로 언급되기도 한다, 고린도후서 13:14; 요한계시록 1:4-5; 데살로니가전서 3:5.

3. 작용 순서가 다르다. 아버지는 독자적으로, 아들을 통하여, 성령으로 행하며;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 모두로부터 행한다, 요한복음 3:16; 1:1-3; 5:17,19; 15:26; 14:26; 16:7.

4. 존재의 자연스러운 순서와 기쁨에 찬 상응에 따라 자발적으로 우리 구속 사역에서 맡은 서로 다른 직위에 의해 구별된다: 아버지는 채권자, 심판자, 주인, 상급자로서; 아들은 중재자, 보증인, 종, 피고인 등으로서; 성령은 중재자의 제공자, 조력자, 상급자이자 그가 구속한 구속을 적용자 역할로 수행한다, 스가랴 3:8; 13:7; 이사야 13:1, 6-7; 49:1-9; 53:2-12; 요한복음 16:8,15; 에베소서 1:17-18; 3:16-19; 4:30; 에스겔 36:27.

5. 무엇보다 그들의 인격적 속성으로 구별된다.—아버지는 어떤 자에 의해서도 나지 않고 나오는 일도 없으며, 존재 순서상 가장 먼저이고, 아들을 낳으며 성령이 그에게서 나온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낳으며 성령이 그에게서 나온다. 성령은 낳지도 않고 낳힘도 없으며, 아버지와 아들 모두로부터 나온다, 요한복음 1:14,18; 3:16; 14:26; 갈라디아서 4:4-6; 베드로전서 1:11.—

이 속성이 오직 이 신적 인격들에게 인간 구속과 관련하여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사벨리우스 이단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 이단은 아버지, 아들, 성령을 한 신적 인격으로 보며 단지 그 사역 안에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보기 때문이다. 알려진 차이가 없으면 인격들의 진정한 구별도 인정될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속성이 보통 구속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하여 구속 체계에만 속한다고 본다면, 같은 이유로 아들과 성령의 신성을 증명하는 모든 증거를 포기해야 한다. 한편, 이러한 속성들은 너무 신비로워서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독존성, 무한성, 그리고 연속되지 않는 영원성을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만큼 이해할 수 없다.

이 하나의 신성 안에 세 인격이 존재한다는 깊은 신비에 대한 이익을 방지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지적할 수 있다.

1. 이 교리는 오직 계시로 펼쳐졌으므로, 가능한 한 성경에 근거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다루어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을 완벽히 아시나 우리가 모를 수 있으며, 그분이 자신을 표현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정확하고 안전하다; 반면 사람이 지어낸 표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견해나 표상을 초래할 수 있다.
2. 삼위일체 교리는 전적으로 계시에서 유래했으므로, 학식 있는 이들이 무엇이 거짓인지 더 정확히 알 수는 있어도, 적당한 지성을 가진 성경 탐구자들보다 더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어떤 인간 학문도 이 교리에 대한 인식이나 표현을 입증할 수 없다.
3. 성경에서 이 세 인격이 모두 가장 높으시고 유일한 참 하나님임이 분명하므로, 인격적 속성 해석에 있어 어느 하나의 신성 평등이나 절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용어나 문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하위 신성은 신성이 아니며 단지 인간의 환상에 불과하다. 아버지를 신성의 근원 혹은 삼위일체의 근원이라 부르거나 신적 본질이 전달된다거나, 아들과 성령이 생성된다거나, 아버지께 대해 인격적으로는 의존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학자들이 의도치 않게 이 신비를 훼손하고 그 적들로 하여금 모독할 빌미를 제공한 것이다.
4. 낯음·낯함·나옴이라는 인격적 속성을 더 불명료한 용어로 설명하려 하는 시도는 어리석으며, 더 명료한 용어를 찾을 방법도 알지 못한다.
5. 하나님 자신이 자연 세계에서 끌어온 어떤 비유로도 세 인격의 존재 신비를 설명하지 않으셨으므로, 누군가가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은 매우 무모하며 진리를 흐리고 손상시키는 일이다.
6. 성경에 명백히 계시된 것 외에는 이 신비에 대해 알거나 믿는 것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은 자신을 완전히 아시고 거짓을 말씀하지 않으시므로, 이 교리를 성인이 진심으로 믿는 것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교리를 믿지 않고서는 은혜의 언약, 그리스도의 성육신, 죄에 대한 그의 만족, 혹은 구속 사역의 어떤 면도 참으로 알 수 없다.
7. 삼위일체 한 신성 안에 세 인격의 교리는 일부가 주장하듯 단지 사변적인 교리가 아니라, 이 교리를 영적으로 알지 못한다면 경건과 미덕의 동기나 실천을 올바로 이해하거나 실행할 수 없다.—실천 신앙의 전부는 이 신적 인격과 뚜렷한 교제를 포함하며,—아버지와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찬양하고 보답하며 감사, 갈망, 기쁨, 경외, 복종으로 나아가고,—아들과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신인으로서 우리의 머리로 남편이자 구세주로 받아들이며, 그의 의에 안착하고 그가 구속한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며 발전시켜 하나님과 이웃을 그의 이름으로 사랑하게 되며,—성령과는 그의 인격적 임재 및 다양한 은혜의 영향과 함께 준비, 수용, 협력, 발전하여 마음을 성결히 하고 위로하며 진정한 경건하고 유익한 삶을 이루게 된다.



## 성찰

이제 나의 영혼이여,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모든 신비로 가득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인지 깊이 생각하라!—내가 그를 얼마나 적게 알았고 겨우 들어 보았는가!—그가 구원자이며 남편이며 하나님이요 만물의 전부라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미천하고, 비천하며, 흉측하고, 살인자인 내가!—아, 어찌 이 지극히 귀중한 고가의 진주, 한없는 신성의 보배, 무한한 사랑하는 이, 아니 사랑 그 자체를 무가치하거나, 오히려 가치 없고 해로운 어떤 것으로 맞바꾸었는가?—어찌 영원한 사랑을 덧없는 그림자와 담즙과 쓴맛, 허망과 근심으로 경멸하는가?—아, 왜 내 마음이 언제나 그에게서 돌아서고, 내 갈망이 식고 쇠약하며, 내 사랑과 삶이 그분의 변함없는 탁월함과 친절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하는가?—이 무한한 세 위가 언제나 나와 함께하며 나의 전부인 까닭에, 왜 나는 그들의 사랑에 늘 매료되지 않는가?—왜 나는 항상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으며, 마음을 그들의 품에 쏟아내지 않는가?—내 영혼은 앓을 때나 일어날 때 그들과 대화하지 않는가?—이 존귀하며 참되고 신실하며 변함없는 삼위가 엄숙한 맹세로 새 언약의 모든 약속을 확증하여 내가 은혜로 말미암은 강한 위안과 좋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셨는데, 어찌 불신으로 약속에 흔들리며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는가?—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나를 위해, 내 안에서, 내 위하여 모든 것을 맡아 행하시는 새 언약 상태여, 참으로 복된 상태여!—오, 창조의 빛나는 헛것들이 영원히 잊힐 때에, 삼위일체 구속자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전부로서, 영원히 나타나고 알려지며 직접 누려지는 천국이여!

## 하나님의 예정과 뜻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자신을 묵상하고 사랑하며 기뻐하시며, 삼위의 인격들이 서로 알며 사랑하고 기뻐하며 협의하신다, 마태복음 11:27; 요한복음 1:17; 3:35; 골로새서 1:13; 스가랴 6:13; 이사야 48:16. 그러나 이러한 자기 작용에 대한 기록은, 그 결과가 피조물에게 미칠 때를 제외하면, 성경에 거의 드러나 있지 않다.—하나님의 피조물에 관한 작용은 자신의 마음에 행위 계획을 세우는 목적과 예정에 근거하며, 그 계획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실행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행위 계획 전체를 예정하셨다는 것만큼 명백한 사실은 없다.

1. 하나님의 본성의 완전성에 근거한다. 만일 그의 지식이 무한하며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영원부터 시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완벽히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만약 모든 존재와 본질, 형태, 그리고 모든 피조물의 모든 움직임과 행위가 그의 주권적 뜻에 달려 있다면, 그는 자신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그들을 만들고 다스릴 방법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를 추상해 본다면, 그들은 존재했을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이 모습으로, 또는 천 가지 다른 형태나 상태로 존재했을 수도 있다.—어떤 피조물을 가정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 놓아도 특정한 행동을 무오하게 확보할 수는

없다.—하나님을 따르는 천사들 중 일부는 굳게 서 있었으나, 다른 일부는 처음 누리던 완전한 거룩과 행복의 상태에서 타락하였다(딤후 5:21; 시 103:20; 유 6; 뱀후 2:4). 아담과 에서처럼, 같은 태 안에서 동시에 누웠고 동일한 본보기와 교육을 받았지만 그들의 행동과 결말이 크게 달랐던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창 25-28; 롬 9; 히 12:15-17; 말 1:2,4). 만약 하나님이 무한히 지혜로우시다면, 어떻게 우연적인 방식으로 무한히 영광스러운 목적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셨겠는가? 하나님은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그분의 일반적이며 특정한 목적을 촉진하도록 자신의 일을 계획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만약 그분이 결코 바뀌지 않는 한 마음이라면, 그분은 자신의 목적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불변적으로 고정하셨다(욥 23:13).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어떠한 예상되는 반대도 그분을 확고하게 계획을 고정하는 데서 막을 수 없으며, 어떠한 무질서한 자유의지도 그분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

## 창조와 섭리의 질서

2. 무수히 다양한 피조물들의 다채롭고 놀랍고 아름답고 유익한 상호연결과 각자의 목적에 정확히 부합하는 적합성은 물론이고, 창조와 섭리에서 발견되는 무한한 지혜와 능력, 거룩함, 정의, 선함, 그리고 진리의 모든 표징은 이들이 정확히 실행되는 정해진 계획에 의하여 다스려졌음을 충분히 증명한다.

3. 성경은 하나님의 확고한 행위 계획을 여러 이름으로 자주 언급한다: 하나님의 뜻, 명령, 법령, 목적, 예정, 기쁨, 생각, 의논, 예지(Dan 4:35; 엡 1:5,9,11; 계 17:17;—살전 5:9; 뱀전 2:8; 행 2:23; 행 4:28; 눅 22:22,29;—시 2:7; 시 148:6; 단 4:17,24; 슥 2:2; 욥 38:10;—롬 8:28; 9:11; 엡 1:9,11; 3:11; 딤후 1:9; 롬 4:28; 49:20; 사 14:24,27; 46:10;—롬 3:25; 8:29-30; 9:23; 뱀전 1:20; 마 25:34;—엡 1:5,11; 눅 12:32; 빌 2:13; 살후 1:11;—시 33:11; 40:5; 92:5; 사 55:8-9; 14:24; 롬 29:11;—사 5:19; 28:29; 40:13-14; 46:10-11;—롬 8:29; 11:2; 행 15:18; 뱀전 1:2).

4. 신적 법령의 존재를 가장 명확히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무수히 많은 미래 사건들, 심지어 가장 우연적인 사건들조차도 구체적으로 예언하시고 거의 6 천 년 동안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사실이다(암 3:7; 마 8:17; 요 19:36 등).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실행 간 불가분의 연결, 그리고 계획과 실행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요구하는 대로 정확히 일치함을 그분의 말씀과 사역이 분명히 밝힘으로, 누구든지 그분의 법령에 제기할 수 있는 어떤 반대도 창조와 섭리의 실제 사실에도 동일하게 반박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단호한 목적 본성에 대한 반대 논거에 특별히 주목하여 대응해야 한다.

—만약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거나 만연하도록 허락하셨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죽으며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조차 들어본 적이 없이 죽었다면,—하나님이 죄가 이처럼 들어오고 변성하도록 허락하셨다고 부인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또 모두가 동등하게 영생에 예정되었다거나, 그리스도께서 그들 모두를 위해 똑같이 죽어 그것을 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부조리한가?—매일 수천 명이 죽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복 또는 고통의 영원에 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죽음의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아무런 계획도 정하지 않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터무니없는가?—우리가 어떻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무모하고 주먹구구식인 사역을 귀속시켜 모독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의 실행 간 이 불가분한 연결은 또한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피조물, 특히 사랑하는 백성에게 선을 행하는 동일한 목적을 두 영역 모두에서 추진해야 함을 드러낸다(잠 16:4; 롬 11:36; 9:22-23; 8:28,30; 엡 1:6; 사 43:3-4,21; 44:28; 뱀후 3:9; 고전 3:22). 하나님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가장 먼저 좌우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그분의 말씀과 행위를 통해 나타나므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들에 의해 규율되어야 하고 알려지지 않은 목적에 의해 전혀 지배받아서는 안 된다.

창조에서 만들어진 모든 것과 섭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법령 안에서 정확한 형태로 예정되었으며(행 15:18; 17:26; 엡 1:11; 사 46:10-11; 14:24,27), 가장 우연적이고 악한 일들도 예외가 아니다(창 50:20; 45:5,7; 행 2:23-24; 4:27-28). 그래서 많은 일들이 예언되었다(창 3:14-19; 4:12; 6-9; 12:2-3,7; 13:15-17; 15:4-7,13-21; 16:10-12; 17:4-8,16-21; 18:10,14,18; 19:13; 20:12-13; 22:17-18; 25:23; 27:28-29,39-40; 28:13-15; 37:7-10; 40:13,19; 41:25-32; 48-49; 출 3-17; 레 26; 신 28-33; 수 1; 삿 2; 4; 6-7; 삼상 2-3; 8; 13; 15-16; 삼하 7; 왕상 9; 11; 13-14; 16-17; 19; 22; 왕하 7; 10; 13; 21; 시 2; 21-22; 45; 47; 67-69; 72; 46-100; 110; 132; 사 1 부터 말 4 까지; 마 23-25; 뎀전 4; 뎀후 3-4; 뱀후 2-3; 살후 1-2; 계 5).

## 사람의 생명과 예정

모든 사람의 생명 형태와 기간, 죽음의 때와 방식은 하나님의 법령에 정확히 예정되어 있다. 1. 성경은 이것을 명백히 확언한다(욥 7:1; 14:5; 행 17:26,28; 전 3:1-2; 5:17; 9:12; 시 31:15; 139:16; 39:4-5). 2.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이나 죽음의 방식과 시간과 수단을 여러 차례 예고하셨다. 이스마엘의 생명(창 16:12), 이삭(창 17-18), 아굽과 에서(창 25:23), 모세(출 4), 모세 사후 이스라엘 백성(신 28-33), 삼손(삿 13), 사울(삼상 8-10, 13, 15), 솔로몬(삼하 7:12-15), 요시아(왕상 13:2), 고레스(사 44:26-28; 45:1-4, 13; 46:11), 특히 그리스도(사 7:14; 렘 23:5-6; 31:22; 미 5:2; 말 3:1-2 등), 그리고 악한 고대 세상 주민들(창 6:3, 7), 소돔 사람들(창 19:13, 17), 불평하며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민 14: 16), 다윗의 유아(삼하 12:14), 아비야(왕상 14:12), 아합과 이세벨(왕상 22:28; 21:22-23, 29), 아하시야(왕하 1:4), 벨사살(단 5:25-26), 베드로(요 21:18), 바울(딤후 4:6-7), 그리스도(눅 13:32; 18:32-33; 요 7:30; 12:33; 13:1; 18:1, 13; 시 22; 69; 사 53), 에리의 아들들(삼상 2:34), 다윗의 백성(삼하 24:15), 산헤립 군대(사 10: 29-33; 37; 30:27-33), 로마에 의한 유대인들(사 65:12; 신 28:16-68; 레 26; 시 21:8-12; 마 23-24), 로마의 이방 황제들과 그들의 군대(시 110:5-6; 계 6:12-17).—하지만 반대론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을 명심해야 한다. 1. 사람의 생명이 정상적인 길이나 체질이 허용하는 길이에 도달하지 못할 때 ‘생명이 단축되었다’고 말한다(욥 15:32; 17:1; 시 55:23; 102:23-24; 잠 10:27; 전 7:17). 2. 생명의 연장은 단지 오랫동안 생명을 누린다는 뜻일 뿐이며,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정해진 기간이나 한계 이상으로 삶이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왕상 3:14; 출 20:12; 신 4:40; 30:18; 잠 10:27). 히스기야는 치명적인 병으로 죽을 위기에 처했으나 15 년의 생명이 더해졌으나, 하나님의 법령에 할당된 생명 시간의 단 한 순간도 연장되지 않았다(사 38:1, 5).

창조와 섭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1. 영원 전부터 하나님에 의해 예정되었고(행 15:18), 2. 가장 적합하고 중요한 목적과 모든 형태 및 관계가 최선의 방식으로 확정되어 그 목적을 최상으로 이루도록 하였으며(잠 16:4; 롬 11:33-34), 그래서 법령들이 ‘의논’이라 불린다(사 46:10-11; 엡 1:11; 히 6:17). 3.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어떤 피조물의 자유의지나 행위를 목적의 원인으로 삼지 않고 결정하였으며(렘 18:4, 6; 마 11:26; 롬 9:20-21; 엡 1:5, 9; 사 46:10), 다만 사람의 도덕적 행위가 예정 실행의 수단일 때에는 말씀 속 약속과 경고가 종종 조건적 형식으로 나타난다(사 1:19-20; 레 26; 신 4-30; 겔 18; 33). 4.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도 법령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시 33:11; 115:3; 135:6; 잠 19:21; 21:30; 민 23:19; 삼상 15:29; 히 6:17; 엡 1:9, 11; 행 15:18; 마 18:7; 고전 11:19; 행 2:23-24; 4:28; 사 14:24, 27; 46:10).

천사와 사람을 영원한 거룩과 행복 상태 또는 죄와 비참 상태에 예정하고 그 모든 다양한 수단을 확정하는 것이 신적 법령의 주된 내용이다.—성경은 일부, 심지어 많은 특정 천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찬양을 위하여 영원한 거룩과 행복에 예정되었으나, 죄를 짓지 않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거나 구원받지는 않았음을 명확히 증거한다(딤후 5:21; 단 7:10; 계 5:11; 시 103:20-21). 다른 천사들은 제외되어 죄에 빠지고 계속 악에 더욱 빠져 만연하게 허락되었으며, 이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의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공정히 벌받는다(마 25:41). 이 목적과 그들 자신의 죄된

부패와 죄책,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그들은 사슬에 묶여 마지막 심판 때까지 보존된다(유 6; 뱀후 2:4). 그러나 우리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의 예정은 성경에 더욱 완전하게 계시되어 있다.

### 사람 예정에 관한 신학적 관점

신학자들 사이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예정하실 때 어떤 관점으로 보았는지 일치된 견해가 없다.—사람을 창조 가능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로 보았는지, 아니면 창조되어 넘어질 존재로 보았는지, 창조되어 넘어졌으나 회복된 존재로 보았는지, 혹은 거룩함 속에서 죽을 때까지 견뎌낸 존재로 보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마지막 두 관점의 부조리는 이후에 드러날 것이다. 첫 세 관점의 차이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 방식을 하나님의 정확한 본보기로 착각하여 생긴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는 서로 조화가 가능하다. 하나님의 무한한 마음 안에서 그분의 예정 전체 목적은 단 하나의 단순한 생각이며, 우리 한정되고 약한 마음은 이를 다음 네 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1. 하나님 자신의 온전함, 특히 사람에 대한 그분의 자비와 정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 이 점에서 사람은 오직 창조 가능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로 간주된다.
2.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공통의 머리 안에서 넘어지게 허락하신 목적, 즉 그분의 자비와 정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함. 이 단계에서 사람은 창조되어 넘어질 존재로 간주된다.
3. 일부 특정 사람들을 자비의 나타남을 위하여, 다른 이들을 정의의 영광을 나타내는 대상으로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단계에서는 사람을 창조되어 넘어지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로 본다.
4. 전 단계의 자비의 그릇들과 영원하지만 공정한 노함의 그릇들에 적합한 수단을 확정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 관하여, 사람들은 선택된 자 또는 제외된 자로 간주되어야 한다.—이러한 견해에서, 초탈론자(Supralapsarians)는 예정의 대상인 사람을 창조 가능하고 타락 가능한 존재로 보거나, 창조되고 타락할 자로

보며, 탈론자(Sublapsarians)는 사람을 창조되고 타락한 자로 보아 예정의 공식적 대상으로 삼아 두 견해가 진심으로 일치할 수 있다.—하나님의 완전하신 영광이 전체 목적의 궁극적 목적으로 먼저 제시되며, 예정의 법령은 초탈론자가 원하는 것처럼 완전하고 통일된 전체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람들은 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선택되는데, 이는 탈론자의 주장과 같다.—위의 서술은 또한 하나님의 예정 목적을 선택과 배제라는 두 중요한 부분으로 명확히 구분한다.

### 성경에서 나타난 선택의 사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특정한 직무를 위하여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사울, 다윗, 고레스는 왕이 되도록 선택되었다(삼상 10:1,24; 15:17; 16:1,6-13; 삼하 7:8; 시 78:70; 사 44:28; 45:1). 베살엘과 오홀리압은 회막을 만들고 세우도록,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하여 선택되었다(출 31:2-6; 왕상 5:5; 8:19; 대상 17:11-12; 22:9-10).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제사장직에, 레위 사람들은 성막의 직분자로 선택되었다(민 1:49-50; 3-4; 8; 17-18).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등은 사도로서 선택되었다(마 10:1-4; 요 6:70; 행 9:15; 엡 4:11).—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의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으며, 이는 복음 교회와 그의 구속받은 무리의 전형이다(출 19:5-6; 레 20:26; 신 7:6; 16:15; 26:18; 사 48:10; 벰전 2:9; 계 7:9).—나아가 일부 사람들은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신적 선택을 받았다.

### 선택의 구별과 그 의미

1. 어떤 이들은 분명히 가시적 교회 회원 이상으로 선택되었다. 유대 민족이 완전히 교회 밖에 있던 때에도, 일부는 택하신 세대였고, 다른 자들은 하나님의 예정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앞에서 넘어져 영원한 멸망에 이르렀다(벰전 2:8-9; 마 24:22,24,31; 눅 18:7; 롬 9:27; 11:5,7; 사 8:14-16,18). 이 세상에서 가난하지만 믿음이 풍성하여 하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자들도 선택되었다(약 2:5).

2. 복음에 부름받아 외적으로 교회에 속한 많은 이들이 선택받지 못한 반면, 소수만이 선택되었다(마 20:16; 22:14).

3. 하나님은 일부 사람들을 다른 모든 이와 현저히 구별하여 어린양의 생명책에 등록된 자들로 택하셨고, 그들은 천국에 속한 자들이다(사 4:3; 단 12:1; 눅 10:20; 빌 4:3; 계 3:5; 13:8; 20:12; 21:27).—또한 다른 세계나 왕국에 소속되어 분리된 자들로서 나타난다(요 15:19; 17:9,16; 마 13:38; 막 4:11; 민 23:9; 사 43:21; 63:18; 뱀전 2:9; 눅 20:35).—유대인들이 왕국의 자녀로 불렸을 때 그들의 전형이 되는 자들이다(마 8:12).—이들은 다른 뿌리에서 나오고 다른 족속과 친족으로 표현되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요일 4:4-6; 5:19; 요 8:42,44,47). 빛이나 낮에 속한 자들이며(눅 16:8; 살전 5:5), 위로부터 난 자이다(요 3:3,5-6; 8:32).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 다른 머리 아래에 있으며(사 63:19; 마 23:8,10; 요 10:3,26-27; 6:37; 5:40), 정죄에서 완전히 보호받으며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자들이다(롬 8:33-39; 요 10:28-29; 요 13:1; 유 1; 딤후 2:19; 사 49:15-16).—이들은 구원을 위하여 예정되었고(살전 1:4-5; 5:9; 살후 2:13; 딤후 2:9-10,19; 마 20:23; 24:31; 25:34; 눅 12:32), 믿음을 받는 수단으로 부름받았으며, 이 때문에 사람이 영생에 선택되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믿음에 이르거나 이르지 않는다(딤후 1:1-2; 살후 3:2; 행 13:48; 요 10:26-27; 롬 11:7; 8:28-30; 딤후 1:9; 2:19; 살후 2:13; 살전 1:4-5).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 사이에 차이를 두신 것은 단지 후손이나 외적 환경 때문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구원과 관련해 그들의 인격을 근본적으로 구분하셨다. 또한 하나님은 에서의 행위로 야곱과 그의 자손의 영적, 경우에 따라 세속적 행복까지 증진하도록 하셨다(창 25:23-33; 27-28; 32-33; 36:6; 말 2:2-3; 롬 9:11-13).

### 선택의 법령과 하나님의 주권

선택의 법령에서 하나님은 영생에 이르는 조건을 정하여 그 조건을 충족할 자를 선택하지 않고, 구원에 확실히 참여할 특정 인물을 정별하신다.

1. 앞서 밝힌 대로 특정 인물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눅 10:20; 계 13:8; 20:12; 21:27; 사 4:3 등).
2. 일부 사람들은 특별하고 개인적으로 영생을 위해 선택되었다(엡 1:4-6; 마 20:16; 22:14; 요 10:3,26-27; 13:18; 17:9; 6:37; 행 13:48; 18:10; 롬 8:28-30; 9:13,23; 11:5,7; 살전 1:4; 5:9; 살후 2:13; 뱀전 1:2; 2:9; 딤후 1:9; 2:10).

3. 선택과 구속, 영원한 구원 사이의 불변하고 확실한 연결은 실제로 구원받은 자들이 반드시 그 구원을 얻기 위해 선택되었음을 요구한다(시 33:11; 사 14:24,27; 46:10; 롬 8:28-39; 9:11-13,23; 요 10:15-16,27-29).

하나님의 특정 인물에 대한 선택은 전적으로 그의 무한히 지혜롭고 주권적인 뜻과 선하심에서 비롯되며, 예정된 그들의 믿음이나 선행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

1. 성경은 그들의 선택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며 하나님 자신 안에서 계획된 것으로 나타낸다(눅 12:32; 10:21; 마 11:25-26; 롬 9:11-13,16,18; 11:5-6; 엡 1:5,9,11; 신 7:8; 9:4; 10:15; 딤후 1:9).

2. 그들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시는 데 있어 절대적 주권자이시다(창 6:5; 8:21; 단 4:35; 사 57:17-18; 43:24-25; 롬 5:20-21; 9:15-16,18,20-21; 시 115:3; 135:6; 욥 33:13).

3. 하나님은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에게서 구원받을 영광에 이르게 할 도덕적 선행을 미리 볼 수 없었다(창 6:5; 8:21; 시 5:9-10; 14:1-4; 사 59:1-15; 롬 1:21-32; 3:10-19,23; 5:12; 8:7-8; 딤후 3:3; 렘 13:23; 17:9; 엡 2:1-3; 4:17-19; 욥 14:4; 15:14,16; 마 15:19).

4. 하나님의 내주하심에 의해 그들 안에 역사하는 참된 믿음과 거룩한 순종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서도 믿음과 순종을 찾을 수 없다(빌 1:29; 2:13; 엡 2:4-10; 살후 1:11; 약 1:17; 고전 4:7; 고후 3:5; 사 26:12; 시 57:2).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역사가 시간 밖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택하시는 조건이 될 수 없다.

5.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선택의 열매이며, 따라서 그 선택의 원인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행 13:48; 살전 1:4-5; 살후 2:13; 요 8:47; 10:26-27; 엡 1:4; 벰전 1:2).



6. 우리의 믿음과 거룩함은 광범위하게 보아 구원의 일부이며, 우리가 구원의 상태에 있고 그 소유를 시작했음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구원의 올바른 조건이라기보다 오히려 구원을 받고 증진시키며 완전한 누림을 준비하는 수단이다(딤후 3:5-7; 롬 7:4; 6:14). 그러므로 이것들을 하나님의 우리 선택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7.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선한 행위를 미리 아신다는 이유로 선택했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은 성경이 나타내는 것만큼 탁월한 은혜가 될 수 없다(요 3:16; 요일 3:1; 4:9-10,19; 롬 3:19; 31:3; 욥 35:7; 41:11; 신 10:11; 고전 1:29; 4:7; 엡 1:6; 2:7; 롬 9:15-16,18; 5:8,20-21).

8. 우리의 선한 행위가 하나님의 선택 조건이라면, 그 행위를 통해 구원을 획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배반하는 것이 된다(롬 4:4; 11:6; 9:16; 갈 2:21; 5:2,4).

####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구원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대표자이신 머리로서 영생에 선택되었다.

1. 우리의 선택은 명백히 그분 안에서, 새 언약의 머리로서, 그 법령 실행의 주된 수단으로 표현된다(엡 1:4; 3:11; 딤후 1:9; 딤후 1:2).

2. 선택의 모든 결과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데, 구속(엡 1:7; 골 1:14; 고전 1:30; 롬 3:24-25), 능력 있는 부르심(빌 3:14), 의롭다 하심(사 45:24-25; 고전 1:30; 고후 5:21), 입양(갈 3:26), 거듭남과 성화(엡 2:10; 고전 1:2; 행 26:18; 고전 1:30), 은혜 안에서 지킴(유 1; 골 3:3; 요 14:19; 10:28; 15:5,7), 영적 위로(요 14:18; 고후 1:5; 살후 2:16-17), 영광스러운 변화를 포함한다(롬 8:15-18; 엡 2:6; 사 45:17,25; 60:19; 골 3:3-4).

3. 우리의 거룩함과 행복의 근원을 아담에게 두는 것이 선택의 원리로 명확하게 옹호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머리로서의 선택이 전제되어야 한다(롬 5:12-21; 고전 15:21-22).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분을

통해 회복되고, 생명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으며, 거룩하게 된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롬 3:10-26; 요 5:25-26; 행 3:15,26; 롬 8:1-2; 요일 5:12; 14:19; 골 1:19; 2:9-10,13; 엡 2:10; 3:17,19; 히 2:12-16; 고전 6:17; 딤후 3:5).—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그분의 중보 직분과 사역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구원의 원인일 뿐이다.

1. 우리의 선택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서 비롯됨이 입증되었다.—영생에 이르기 위해 어떤 사람이 선택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특정한 이들이 선택된 것은 다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 때문이었다(마 11:25-26; 눅 12:32; 롬 9:11-23; 고전 4:7; 1:25-30).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에서 우리의 머리로 선택되었으며, 그의 중보는 예정 실행의 수단이자 구속과 구원의 매개 및 적용의 원인으로 정해졌다(사 42:1-7; 49:1-6; 뱀전 1:18-21; 요 3:16-18; 요일 3:5,8; 4:9-10).

3. 그리스도는 죄인으로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영생에 선택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는데, 이는 그의 영광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다(마 1:21; 요 10:10,14-15; 15:13; 엡 5:2,23,25; 사 49:3; 42:21).

### 예정과 선택의 불변성

사람들은 그러므로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에 선택되었다.

1. 하나님이 만물을 영원 전부터 예정하셨음이 입증되었다(행 15:18).

2.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택하신 자들의 중보 머리로 세워지셨다(시 2:7-8; 뱀전 1:20; 잠 8:23-31; 미 5:2; 요 17:24).

3. 택하신 자들은 세상 창조 전에 미리 알려져 구원을 위해 선택되었다(롬 8:29; 9:11,23; 엡 1:4; 딤후 1:9; 딤펠 1:2; 마 25:34; 계 13:8; 롬 31:3; 살후 2:13).—그렇다면 하나님께 거짓을 말하며 그분이 오직 그들의 죽음 때 혹은 그 행실에 따라 선택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마나 대담한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인들이 선택된 때를 복음 시대의 시작으로 보는 것은 얼마나 불합리한가!—확실히 그들은 구세주 승천 후 몇 해가 지나서야 복음을 들었다(행 2-17).

하나님의 선택 목적은 불변하며, 선택된 자는 예정된 은혜나 영광을 결코 잃지 않고, 선택받지 않은 자는 그것을 결코 얻지 못한다.

1. 변경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이유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공평이 변할 수 없다(행 15:18; 시 147:5; 사 46:10; 말 3:6; 약 1:17).

2. 성경은 선택된 자들이 반드시 그 예정된 구원을 얻을 것임을 단호하게 선포한다(롬 8:28-39; 살후 2:13; 살전 5:9-10; 4:17; 5:23-24; 엡 1:4; 요 6:37; 17:9,12; 롬 11:7; 행 2:47; 13:48; 딤후 2:19; 사 46:10; 49:14-15; 45:17; 54:8-10; 계 3:4-5; 마 25:34; 눅 10:20; 요 10:27-29; 히 6:17-20).—그러나 예상되는 반론을 막기 위하여 다음을 분명히 한다.

1.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명백히 드러날 수 있다(계 22:19).

2.

사람들은 실제로 지상에서 생명의 책에서, 즉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섭리적 돌봄에서, 그의 교회의 가시적 지체 수에서, 또는 일시적 생명에서 지워질 수 있으나, 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택정의 목적에서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시 69:28; 139:16; 87:6; 겔 13:9; 느 7:64; 출 32:32).

3. 믿음의 빈번하고 강건한 행위, 거룩한 삶, 그리고 공정한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택정을 자신에게 더욱 확실하게 확증할 수 있으며, 이로써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다(벧후 1:4-10; 살전 1:4-5; 엡 1:3-9). 하지만 이것이 불변하는

하나님의 목적로서 택정 자체를 더 확실하고 확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욥 23:13; 시 33:11; 사 14:24, 27; 46:10; 롬 9:11; 히 6:17-18).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정의 결의는 다음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영원하고 불변하며 무한히 지혜롭고 은혜로우며 강력하고 신실하며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완전하심, 특히 권능과 지혜와 주권과 자유 은혜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여(롬 11:33; 엡 3:10; 마 11:26; 20:15-16; 롬 9:15-16, 18-23; 11:35-36; 엡 1:5-6; 뱀전 2:9), 자신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구원과 그 모든 복락을 누리게 하려고 미리 아시고 미리 택하시되(롬 8:29-30; 뱀전 1:2; 딤후 2:19; 요 3:16; 롬 5:8, 21; 9:13; 요일 4:9-10; 사 45:17; 고전 1:30), 인류 중에서 그 수가 적고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을 —죄와 비참 속에 빠지도록 허락하시거나 허락하기로 택하신 자들(마 20:16; 22:14; 딤후 2:19; 요 10:26-28; 13:18; 17:6, 9, 12; 3:16; 15:19; 롬 8:29; 9:16, 18; 5:8, 10)—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누리며 그 본을 따르고 입양되어 공동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시며(엡 1:3-5; 롬 8:29), 이들을 택함에 있어 선천적이든 도덕적이든 그들의 어떤 선견지명된 성품이나 행위에 의해 조금도 움직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유 의지와 주권적 은혜와 기쁘심에 따라 영원부터(마 25:34; 엡 1:4; 딤후 1:9; 계 13:8) 그리스도를 그들의 머리로 삼으셨으며(잠 8:23, 31; 엡 1:4; 딤후 1:9), 무한한 자비와 긍휼 가운데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행복을 그를 통해 불변하게 정하시고 약속하시며(롬 9:11, 15-16, 18, 23; 딤후 1:9; 2:19; 행 13:48; 살전 5:9-10; 4:17; 사 45:17; 롬 11:29),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심으로(눅 10:20; 계 3:5; 17:8; 13:8; 20:12; 21:27; 빌 4:3; 사 4:3) 죄악과 비참 속에 멸망하도록 내버려 둔 나머지 인류와 구별하시며(고전 4:7; 롬 9:11-13; 엡 1:4), 같은 불변하고 확고한 계획 가운데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의 의에 대한 참여, 효과적인 부르심, 믿음, 그리고 거룩함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정하사, 이는 하나님의 철저한 정의와 무한한 자비가 조화롭게 드러나게 한다(요 3:16-17; 요일 3:5, 8; 4:9-10; 요 10:10-11, 15, 26-29; 17:4, 6, 9; 엡 1:4; 5:2, 23-27; 골 1:19; 2:3, 9-13; 딤후 1:9; 2:10, 19; 사 45:17, 22, 24-25; 행 13:48; 살후 2:13; 롬 4:16; 막 16:16; 히 11:6; 12:14).

## 반론 및 답변

### 반론 I

“이런 택정의 도식은 사도행전 10:34; 욥기 34:11, 19; 신명기 10:17-18; 역대하 19:7; 골로새서 3:24-25; 로마서 2:11; 베드로전서 1:17 과 상반되게 하나님을 인격 편애자(participant respecter)로 만든다.”

– 답변 1. 이는 하나님께서 일부 사람을 구원하시고 일부 마귀를 구원하지 않으시며, 일부에게 세속적 특권이나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는 주지 않으시는 실제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격 편애자로 나타내지 않는다.

- 2. 택정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유대인이거나 이방인, 가난하거나 부자, 세상에서 위대하거나 미천한 자임을 이유로 인격 편애를 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주권적 사랑과 자유 은혜에 따라 행하신다.
- 3. 만약 하나님이 사람을 그들의 자유 의지에 따라 택하거나 버리고, 구원하거나 심판한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인격 편애자가 될 것이다.

## 반론 II

“복음의 선언들, 즉 하나님의 택정의 목적을 추출한 말씀들에 따르면, 영원한 구원은 우리의 믿음, 진실한 순종, 그리고 거룩함 가운데 최종 인내에 달려 있다(막 16:16; 요 3:16,18,36; 계 22:14; 2:7,11,17,26-28; 3:5,12,21; 갈 6:9; 마 24:13; 롬 2:7,10; 사 1:19; 3:10).”

- 답변 1. 이 선언들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의 택정 결정의 설립 조건으로서 택정 자체를 나타내지 않고, 단지 그 결과로 맺히는 여러 열매 또는 구원의 부분과 정도 간의 연관성을 보여 줄 뿐이다.
- 2. 믿음, 진실한 순종, 거룩함 가운데 인내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달려 있는 적절한 조건이 아니며, 택정의 필수적 열매이자 행복을 위한 수단과 준비이다. 이들은 택정되어 영화롭게 될 사람들의 특징이다(요 10:27-29; 행 13:48; 살전 1:4-5; 살후 2:13; 벰전 1:2; 엡 1:4; 롬 8:29-30).

## 반론 III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절대적·무조건적·불변의 영원한 행복에 대한 택정은 복음의 전파와 모든 선한 노력들을 무력화하며, 사람들을 나태와 악행으로 이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택함을 받았으면 무엇을 하든 반드시 구원받으며, 택함을 받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하든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 답변 1. 이 결정에서 행복을 위한 수단들이 목적과 함께 확고하게 정해져 불가분하게 연결되었으므로, 목적의 확정이 수단을 불필요하거나 무익하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모순적이다.
- 2. 심지어 일상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불변하게 미리 정하셨다고 믿는 자들은 그러지 않는 자들만큼 정당한 직무에 충실하고 음식, 의복, 주거, 약 등을 공급·사용하는 데 부지런하다.
- 3. 어떤 사람도 복음의 공적·사적·비밀 예식에 부지런히 출석하고, 자신의 능력과 기회에 따라 경건을 온전히 이루려는 열심 있는 노력 없이는 영원한 행복을 기대할 수 없다(롬 10:17; 사 55:1-7; 마 7:7,13-14; 6:33; 눅 13:24; 잠 8:17,34-36; 벰후 1:3-11; 히 11:6; 12:14; 고전 15:58; 고후 7:1).

- 4. 어떤 사람도 거룩함을 적극 연구하지 않고서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임을 증거할 수 없다(벧후 1:3-10; 딤후 2:19; 엡 1:4; 골 1:22; 살후 2:13; 벧전 1:2).
- 5. 우리가 복음 예식에 부지런히 참석하고 믿음과 회개 및 새 순종을 행한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님의 택함을 촉진하지는 않으나,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실제 누림에 있어서 그의 택정이 실행되는 데 강력히 기여한다(빌 2:12-13; 고전 9:24-27; 15:58; 롬 5:1-5; 시 19:11; 84:7,11-12; 욥 17:9; 잠 4:18; 딤후 4:7-8; 계 3:7,12,21).
- 6.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구속과 택정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서는 구원에 대한 성실한 염려와 믿음 및 거룩함의 적극적 연구에 마음 깊이 이끌리고 효과적으로 격려됨을 발견할 수 없다. 무조건적 택정을 지지하는 우리는 상대방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율법 두 조항의 광범위한 법을 판단의 규범으로 인정하기만 한다면, 그들과 실재를 비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살전 1:3-10; 갈 2:19-20; 딤후 1:9; 2:19; 고전 15:10; 살전 2:1-10).

#### 반론 IV

“특정 인류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불변한 영원한 생명에 대한 택정은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 온전성과 어울리지 않는다.”

- 답변 1.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특정 인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면, 그들을 향한 영원한 택정을 그의 본성과 배치된다며 비난하는 것은 부당한 신성모독이다.
- 2. 하나님이 특정 천사들을 택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그의 완전성과 어울린다면, 특정 인간들도 택하여 영원히 행복하게 하는 것이 그와 어울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 3. 사람이 조건적 택정에 놓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지혜와 선하심, 온전성과 명백히 부합하지 않으며 수치스러운 일이다. 하나님 지혜는 무수한 자들을 불변적으로 확실히 구원하는 택정에서 더욱 빛난다(계 7:9). 이는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고, 그들을 위하여 온전히 중보하며, 모든 권면을 베풀고, 성령이 각 사람을 힘껏 유혹해도 헛되이 끝나는, 그들의 행복이 자유 의지의 적절한 발취, 육체적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심히 속이는 마음, 극악무도함에 달린다는 느슨하고 불확실한 방식과 대조된다.
- 하나님은 무수한 사람들에게 불변으로 효력을 행사하실 전능하신 능력과 기타 완전성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영원한 거룩과 행복에 필요한 은혜와 영광을 선사하기로 정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극히 희박하고 심지어 불가능한 행복의 가능성을 단순히 부여하는 것보다 훨씬 자비롭고 은혜롭다. 즉, 극악한 마음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죽을 때까지 거룩하게 순종한다는 조건 아래 행복을 준비하는 것이며, 그동안 거의 백분의 일도 안 되는 이들에게 그의 제안을 던지시 알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의미이다.

- 하나님은 말씀에서 복음으로 부름 받은 많은 사람 중 극소수만이 택함을 받으며, 적은 자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발견하고, 많은 자는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을 걷는다고 솔직히 선언하셨다(마 20:16; 22:14; 7:13-14). 기독교 국가 내에서도 그의 말씀에 기록된 성도의 특징을 갖춘 사람은 극소수이다. 이처럼 그의 말씀과 섭리에 명백한 진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직성에 손해되는가? 복음의 선언에서 그는 사람들이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의무이자 유익임을 확인하는데, 우리가 이 의무 규칙이 그의 섭리적 행위의 규칙이라고 단정하지 않거나, 그가 우리 의무를 알게 하시면서 그의 가장 비밀한 목적을 동시에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정직성을 부정하는가? 우리 자유 의지가 비천하며 극악한 본성을 참된 신성으로 변화시킬 때가 되어야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행위의 규칙을 주장할 수 있다.

## II. 사람들을 버리심과 관련하여 관찰되는 사실들

1. 하나님은 죄를 허락하기로 결정하셨다.

1) 이것은 성경이 명백히 증언한다(창 50:20; 행 2:23-24; 4:27-28).

2) 따라서 하나님은 수많은 악한 행위를 미리 예고하셨다(창 15:16; 신 31:16,20,29; 32:6,15-21; 사 1; 5; 10; 렘 25; 계 6; 8-9; 11-13; 딤후 3:1-6,13; 살후 2:3-12).

3)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실제로도 많은 죄를 허락하셨다(행 14:16; 살후 2:9-11; 창 50:20; 45:5,7; 시 81:12; 롬 1:21-32). 세상에서 있었거나 있는 모든 죄는 그의 예지 없이는 일어나지 않았으며(행 15:18; 사 46:10-11; 시 147:5), 그의 무한한 권능이 죄를 막고 저지하기 위해 할 수 있었던 모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났음을 부정할 수 없다(창 18:14; 렘 32:17,27; 마 19:26).

오히려, 그의 허락은 그의 절대적 주권, 무한한 지혜, 거룩함, 정의의 영광을 드러내며 확립된 천사들과 인간에게 유익하다.

## II. 예정과 미선택

하나님은 예정의 목적 안에서 어떤 사람들을 미선택하여 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두셨는데, 이는 그의 정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1.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선언한다. 잠 16:4(여기서 'pahhhal', '만들었다'는 뜻이 '정하다', '명하다', '준비하다'의 의미를 가지며, 출 15:17, 시 31:19, 막 3:14, 히 3:2 의 'poieo'와 유사함), 뱀전 2:8('넘어지는 것'이 곧 죄짓는 것을 지시), 유 4('krima', 곧 정죄가 정죄의 죄된 원인 혹은 범죄적 상태를 의미함), 요 9:39; 계 13:8; 고후 4:3-4; 롬 9:13-22; 살전 5:9; 살후 2:10-13 을 포함한다.

2. 하나님의 섭리, 곧 그의 법령의 정확한 모사 안에서는(행 15:18; 사 46:10; 엡 1:11; 시 33:11) 다수가 분명히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짐이 드러난다(마 7:13-14; 살후 2:10-12; 살후 1:8-9; 계 13:3,8; 계 17:17; 시 9:17). 수백만의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구원자가 제공되지 않았다(유 6; 뱀후 2:4). 수억의 인간들이 여러 시대 동안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방식을 알지 못했다(시 147:19-20; 잠 29:18; 엡 2:12; 행 14:16; 행 17:30). 복음을 듣거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자들의 대부분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지옥에 익숙해졌다(마 20:16; 마 22:14; 마 7:13-14; 요 10:26; 요 12:39-40; 고후 4:3-4; 사 6:9-10; 행 28:26-27; 빌 3:18-19; 딤후 3:1-5; 계 13:3,8; 계 14:9-11).

### III. 하나님의 버림과 그 교리의 의미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법령에서 특정 개인들을 진노에 정하시고(말 1:2-3; 롬 9:11-18; 살전 5:9; 유 4), 그들을 공허하게 아시지 아니하시며(마 7:23), 영생에 정하지도 명하지도 않으셨다(계 13:8; 계 17:8). 오히려 일부의 선택은 필연적으로 다른 이들의 특정한 버림을 내포한다. 이런 버림의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특정 사람들을 지나쳐 미선택하심(마 7:23; 계 13:8; 계 17:8).
2. 그들을 미리 정죄받고, 그들의 미리 본 죄악의 형벌로서 하나님의 정당한 진노를 입도록 정함(살전 5:9).

그러나 주목할 점은, 사람의 죄가 진노로의 미리 정함에서 정죄와 형벌의 원인으로 선견되고 평가되지만, 그들이 미선택되어 죄 가운데 멸망하도록 내버려진 원인인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 버림받은 자들은 본성상 선택받은 자들보다 더 악하지 않다(고전 1:26-27; 고전 4:7; 요 13:18; 엡 2:1-3).
2. 그들의 행위는 회심 전에 많은 선택받은 자들보다 더 악하지 않은 것으로 미리 보여졌다(고전 6:9-11; 엡 2:1-13; 딤후 1:13,16; 딤후 2:3-6).



3.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악함은 그들의 버림받음의 결과로 표현되나, 고유한 효과는 아니다(고후 4:3; 요 10:26; 요 12:39; 뱀전 2:8-9; 유 4; 계 13:8).

그러므로 버림은 “독립적이고 주권적이며 무한히 지혜롭고 강력하며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단순한 행위이다. 그의 생각은 무한히 높고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길은 알 수 없다(사 55:9; 사 40:13; 롬 11:33-34; 시 92:5; 시 147:5). 그는 영원하고 변치 않는 경륜 안에서(마 25:34,41; 롬 9:11; 약 1:17; 사 46:10; 히 6:17; 엡 1:11; 시 33:11), 자신의 절대 주권과 전능한 권능, 헤아릴 수 없는 지혜, 견딜 수 없는 인내심, 특히 무한한 거룩함과 보복적 정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시며(롬 11:36; 롬 9:11,15-22; 마 20:15; 롬 11:33-34; 롬 2:4; 사 5:4,16; 잠 16:4),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 안에 많은 특정한 사람들을 다른 이들과 본성상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불행의 상태에 떨어지도록 허용하셨다(롬 9:6-7,11,15-18,29; 롬 9:21; 롬 11:20-22; 롬 5:12; 엡 2:3; 마 24:40-41). 또한 그들을 특별한 친밀한 관심으로 아시거나 어떤 선한 의지로 사랑하거나, 효과적인 회복을 위해 긍휼을 베풀거나, 선택·예정·구별하여 영생에 정하거나 명하지 않으시며(마 7:23; 롬 8:29-30; 롬 9:13,15; 말 1:2-3; 요 13:18; 고전 4:7; 행 13:48; 살전 5:9),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도, 양이나 백성, 자녀 혹은 긍휼의 그릇으로 따로 세우지도 않으시며(요 10:26; 롬 9:6-7,23; 호 1:6,9; 말 3:17),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과 화해의 모든 불공평한 은혜, 효과적 부르심, 믿음, 의롭다 하심, 입양, 성화의 은혜를 그들에게서 제한하셨다(요 10:15,26; 요 17:9; 요 12:37-40; 마 11:25-26; 마 13:11,13; 롬 8:28-33; 살후 3:2; 엡 2:8). 그러나 그들에게서 그의 일반적 섭리, 복음의 제도, 영적 은사, 성령의 부르심 등은 빼앗지 않으셨는데, 이는 이들이 그의 선택된 백성에게 유익하도록 하심이다(행 14:17; 행 17:30; 롬 2:4; 롬 9:22; 출 7:16-17; 레 26:3-13; 신 28:1-14; 사 5:4; 마 13:9; 마 23:37; 히 6:4-5; 히 10:26,29; 뱀후 2:20-21; 고전 12:10; 창 6:3; 사 63:10; 행 7:51).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원죄나 실제 죄, 율법이나 복음을 범하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고, 은혜를 오용하거나 멸시하는 자임을 결정하셨다(롬 5:12; 엡 2:1-3,12; 롬 2:12,14-15; 막 16:16; 요 3:18,36; 요 4:40; 롬 2:4-5; 롬 11:7-8; 마 10:15; 마 11:21-22; 욥 8:4; 욥 9:4; 시 81:13; 행 14:16). 그들은 무한히 지혜롭고 주권적이며 의롭고 거룩한 방식으로, 자신의 자유 의지와 반역적 성향에 상응하여(신 32:4; 시 45:7; 뱀 12:1; 약 1:13; 마 23:37-38; 요 5:40; 요 8:12; 행 7:51), 이전에 지은 죄의 형벌로 영적으로 눈이 멀고 마음이 완악해져 강한 미혹들과 천한 정동, 버림받은 감각에 내어주심을 확정하셨으며(롬 9:22; 출 14:4; 요 12:40; 롬 9:15,17; 롬 11:7-8; 롬 1:24,28; 살후 2:11; 사 66:4), 그들이 악행을 지속하고 자기 양심에 의해 최종적으로 회개하지 못함이 명백해져(마 27:4; 눅 16:24; 마 25:25-26,44; 롬 2:14-15; 롬 1:20; 롬 9:19-20; 눅 22:22; 요 5:40), 하나님의 공정한 엄함을 타하거나 자기 무지나 구원의 거부 불능을 변명하지 못하며, 그 죄로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호 13:9; 마 25:41-42; 사 5:11; 겔 18:4; 롬 2:8-9; 롬 6:23; 엡 5:5-6; 골 3:6; 고전 6:9-10; 갈 5:19-21). 그들은 진노의 그릇으로 멸망에 적합하며, 진노의 자녀, 멸망의 자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은 자, 악과 진노에 정하여지고 분리되어

미리 정죄된 자들이다(롬 9:22; 엡 2:3; 살후 2:3; 요 17:12; 애 3:37-38; 말 1:3; 롬 9:13; 잠 16:4; 살전 5:9; 뱀전 2:8; 유 4).”

이 두려운 버림 교리는 인간의 선택 교리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신중함과 거룩한 경외심으로 가르쳐져야 한다.

1. 성령께서 그의 말씀 가운데 이를 명확히 가르치심이 증명되었다(롬 9:11-22; 롬 11:1-7).
2.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적법하게 사용될 때, 사람의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진전시키는 데 이바지한다(롬 15:4; 딤후 3:16-17; 뱀전 2:1-2; 약 1:21; 시 119:9,11).
3. 선택과 버림은 매우 밀접히 연결되고 대조되어 있으므로, 전자는 후자 없이 따로 가르치거나 이해될 수 없다.
4. 모든 사람이 주목해야 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시 107:43; 호 14:9; 사 5:12), 하나님은 악인의 삶과 죽음 가운데 버림의 법령을 그대로 구현하신다(유 4; 뱀전 2:8; 사 46:10-11; 엡 1:11; 시 33:11; 행 2:23; 행 4:27-28; 행 1:16-18,25; 눅 22:22; 빌 3:18-19).
5. 이 법령에 대한 적절한 인식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지혜, 정의, 선하심에 관한 바른 경건한 관점을 증진시킨다(마 11:26; 롬 9:13,22-23; 엡 1:5-6).
6. 버림 교리가 제대로 가르쳐질 때 악인들을 경고하고 그들의 양심을 불안하게 하여 자신이 이 교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적절한 증거를 얻을 때까지 죄를 공포스럽게 여기게 하며,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성찰과 복음적 거룩함의 삶 가운데 구속자 하나님께 생생한 감사를 표하도록 촉진한다(마 25:41; 롬 1:18; 살전 5:9-10; 고후 5:10-11; 시 116:16; 눅 1:74-75).

## 반론과 답변

전체 예정 법령을 가능한 한 혐오스럽게 만들려는 반대자들은 인간의 갱신되지 않은 마음에 매우 불쾌한 버림 교리를 악착같이 펴낸다.

## 반론 I

“하나님의 무한한 완전성은 필연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를 사랑하고 두려워해야 하므로, 하나님은 어떤 이도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무능 상태에 두는 것을 그의 완전성이나 정직함과 일치시킬 수 없다.”

## 답변

1. 하나님의 은혜의 전능한 작용이 사람의 하나님 사랑에 대한 무능 상태를 제거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법령은 어떤 면에서도 그 무능 상태를 강요하거나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들의 첫 조상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러한 상태를 초래했으며, 가능한 한 빨리 개인적으로 승인하고 즐기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그 무능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가 없으며, 특히 그들에게 그것을 남겨두시는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이다.
2.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죄된 무능 상태에 빠지거나 계속 있게 허락하시는 목적은, 마귀들과 인간 모두가 죄에 빠지고 거기에 머물도록 실제로 허락하시는 섭리적 허락보다 그의 완전성과 성실성에 더 반대되지 않는다. 그의 목적과 섭리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상상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는 데 무지하거나 실행에 있어 어리석음, 약함, 변화가 있다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시 50:21).

## 반론 II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하시고 모든 이에게 선하시며, 모든 작품 위에 자비가 넘치고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진리를 알기를 바라시는데(시 103:8; 시 145:9; 겔 33:11; 딤후 2:4; 벧후 3:9), 그가 허락한 내적 부패가 그들을 무능하게 만드는 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굳게 죄에 묶어 두고 그의 구원을 받도록 요구할 수 없다.”

## 답변

1. 이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지성적 피조물을 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관계없이 본래적 거룩함의 상태에 보존하도록 어떤 구속에 묶어 있는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대적인 죄인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어떤 구속에 얽매어 있는가? 죄에 빠진 천사들보다 인간 죄인에게 더 은혜를 베풀도록 묶어 있는가? 그 천사들은 하나님께 속한 지성적 피조물 중 훨씬 높은 등급이다.

2. 만일 그 무한한 자비가 모든 사람(왜 모든 마귀는 제외하는가?)을 영원한 행복에 예정하였으나 그 중 극소수 혹은 아무도 실제로 구원하지 못하고, 그들도 그들의 악한 자유 의지에 달려 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더구나 인류의 백분의 일도 구원의 유일한 방법인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알지 못한다면.

3. 복음으로 적절히 초대받은 인류 중에서도, 많은 이가 하나님의 예정 영향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복음에 대해 승인한 적대감으로 인해 완고하게 복음을 거절한다(요 5:40; 시 81:11; 호 11:2,7; 롬 8:7-8; 렘 17:9; 슥 7:11-12; 슥 11:8; 창 6:5; 창 8:21).

4. 수천만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확실히 담보하는 계획이, 한 사람도 확실히 담보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유 의지, 육체의 마음,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속임을 일삼는 마음과 극도로 악한 마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계획보다 훨씬 자비롭다. 우리는 모든 복음 청취자가 구원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엄숙한 부름과 간청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우리는 믿음의 단 한 행위가 죽을 때까지 신앙과 성결에 있어 끈기의 행위보다 만 배나 적다 할지라도, 그 행위가 사람의 상태를 영원히 불변의 행복으로 만들 것임을 허용한다.—하나님께서 심지어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도 믿음의 행위를 돕기 위해 자신의 영의 일반적인 영향의 가장 큰 분량과 최고 정도를 주시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의 반대자들은 그들의 택자들, 나아가 가장 뛰어난 성도들에게조차 더 많은 것을 인정한다고 감히 주장하지 못한다.—만약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들의 편으로 저울을 기울여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있어서도 구원의 방법이 우리의 반대자들이 어떠한 이에게 적용하는 것보다 천 배는 더 쉽다는 방법을 허용하는 셈이다.

### 반대 논점 III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그분이 도덕적 행위를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호의 또는 혐오 대상을 고정하시는 것과?—또 어떻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주지 않기로 정하신 이들에게 구원의 수단을 지정할 수 있는가?—또 하나님의 불변하는 결정이 그것을 방해하는데, 그분이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회개를 요구하거나 기대하실 수 있는가?”

### 대답

1.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도 오직 그 죄 때문에만 혐오하신다(창 1:31; 시 104:31). 하나님께서 어떤 인류를 그들의 행위를 이유로 택자로 확정하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인데, 왜냐하면 그들의 미회심 상태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일이 아닌 것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시 14:1-4; 롬 8:7-8; 롬 3:10-20; 렘 17:9; 엡 2:1-3; 딤후 3:3).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주권은 가장 희망 없어 보이는 많은 자를 택하심으로써 그의 전능한 능력과 무한한 긍휼이 그들을 자격 있게 하여 자신과 가장 친밀한 교제와 섬김을 누리게 하시는 데서 크게 영광받는다(고전 1:25-29; 딤후 1:13-16; 롬 5:20-21).

2. 하나님은 인류 대다수에게 영원한 구원의 수단을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그들에게 수단을 준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로 한 결정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참된 방법과 이에 순종하여 그것을 이루어야 할 의무를 나타낸다(막 16:16; 행 16:31; 행 2:37-39; 요 3:14-18).

3.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의 회개를 기대하신다고 말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 일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을 부인하는 것이다.

4.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올바른 의무를 요구하시는 것은 택자들을 효과적으로 회개시키는 정해진 수단이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나사로를 부르시고 과부의 아들과 과부 딸을 살리신 것이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살리기 위한 정해진 수단인 것과 같다. 또한 이러한 요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으면 누리지 못할 훨씬 더 유익하고 행복한 상태로 만든다.

#### 반대 논점 IV

“만약 하나님이 자신의 뜻의 비밀스러운 불변 행위로 수많은 인류를 영원한 멸망으로 정하셨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정직과 성실함을 지키며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아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겔 33:11; 딤후 2:4; 벰후 3:9)를 공개적으로 선언할 수 있는가? 자신이 지키도록 모든 능력과 능력을 끊임없이 거부하기로 불변하게 결정한 자들에게 멸망의 벌을 받으라 명령하실 수 있는가? 자신의 불변하는 뜻으로 완전히 불가능하게 된 회개와 구원을 부르면서 진지하고 열심히 할 수 있는가? 자신의 결정으로 반드시 막히는 조건을 앞세워 그들의 복지를 원하거나 영생을 약속할 수 있는가? 혹은 그것을 절대 주지 않기로 굳게 결정한 자에게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가?”

#### 대답

1. 성경은 하나님이 유다, 적그리스도 등 인류 각 개인을 모두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반대로 말한다(요 17:9,12; 살후 2:4,11-12; 롬 9:22). 한 사람이 진노 대상으로 정해졌다면, 그 수가 수천억이라도 그 점에서 하나님의 성실성이 손상되지 않는다.

2. 우리는 모든 민족과 계층, 처지의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다는 점을 기꺼이 인정한다. 성경은 이에 관한 어떤 보편적 진술보다 이것을 더 널리 증언하지 않는다(딤후 2:4; 벰후 3:9; 욥 2:28; 요 12:32; 요 16:9; 계 7:9).

3.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간에, 그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대단히 포괄적인 법은 마귀와 인간 모두를 영원히 거룩함으로, 심지어 거룩함의 완전함으로 묶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죄를 짓지 못할 것이다(롬 4:15; 롬 5:13; 요일 3:4). 그리고 이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시도는 이 생이나 다음 생에서 적어도 처벌이 경감되는 보상을 받는다(마 11:21-24; 마 12:41-42).
4. 보통 경우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결정에 포함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없고, 그 결정이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구속하지도 않으므로, 그들의 내면적 부패와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거나 노력하는 것을 저지할 뿐이다.
5. 하나님께서 인류의 복지를 바라며 순종을 조건으로 행복을 약속하는 구절들은 주로 자기 힘으로 가능한 개혁과 행위에 따라 가나안 땅에서 살던 유대인의 복락과 관련된다. 이는 구원의 은혜의 도움 없이도 가능했다(신 5:29; 신 32:29; 시 81:13; 사 1:19-20; 겔 18:30-32; 겔 33:11; 렘 6:8).
6. 영적 용서와 구원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약속되고 확보된다. 믿음은 구원의 적절한 조건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수단이며, 따라서 선택의 열매이다(살후 2:2,13; 딤후 1:2; 행 2:47; 행 13:48).
7. 복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실 의도가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 중 소수만을 구원하실 뜻임을 명백히 밝힌다(마 7:13-15,23; 마 20:16; 마 22:14).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온전히 구원할 능력이 있고, 그와 그의 구원은 모든 청자의 필요에 똑같이 적합하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과 무한히 자유로운 선물에 따라 그는 인류 전체를 무한히 고려한 공식 구원자이며, 구원을 위하여 그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내치지 않을 것이다. 모든 복음 청자들은 자신이 선택되었을 수 있음으로 이 믿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간절히 반복해 믿음을 시도해야 할 의무와 이익이 있으며, 복음의 선포, 제언, 초청이 성령의 감동 아래 택자들을 그들의 구원 상태로 인도하고, 많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영적 은사를 받아 이 세상에서 택자들의 유익한 동료와 조력자가 될 수 있다.
8. 만약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실제로 모든 사람, 특히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지 않는다면, 문제 제기의 모든 책임은 만약 그것에 무게가 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다.

#### 반대 논점 V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하심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그분이 죄를 허용하시는 결정을 내리셨고, 자신이 불변하는 뜻으로 그들이 거룩해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셨으면서도 ‘너희는 나처럼 거룩하라’ 명령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 대답

1. 반대자들이 죄가 세상에 들어와 마귀와 인간 사이에 오래 퍼져 있는 사실을, 무한한 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설명한다면, 죄 허용 결정에서 모든 그릇된 모순은 저절로 사라질 것이다.
2. 하나님의 저주 결정은 죄에 기울이거나 강요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그 결정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므로, 그것이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거나 죄인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주장이다.
3.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죄가 많다는 사실은, 그분의 무한한 거룩과 본성이 죄와 그 죄로 인한 천사와 인간의 멸망을 완전히 막을 의무는 없으나, 죄가 허용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야 한다는 지혜를 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 반대 논점 VI

“하나님의 공의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무고한 자들을 영원한 지옥 형벌에 정하시고, 그분 자신이 그 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셨는데 그 법을 사람에게 부과하시는가?”

## 대답

1. 하나님은 다만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대가로서 천사와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기로 결정하셨다(호 13:9; 겔 18:4; 롬 2:8-9; 롬 6:23; 롬 8:13; 시 9:16-17).
2.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듯, 하나님은 사람을 죄에 시험에 들게 하거나 기울이거나 강요하지 않으시며, 그의 법으로 죄를 엄히 금하시고 섭리를 통해 죄를 막고 피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스스로 죄에 빠진다면 하나님은 정당하게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
3. 사람이 스스로를 하나님 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종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박탈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며, 그들의 악행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빼앗아 자신들이 독립통치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도 부당하다. 또한 무지, 만성적 음주 등이 신성모독,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증오, 살인, 음행, 절도, 위증 등을 전혀 무죄화하여 책임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 반대 논점 VII

“하나님이 아무 이익도 얻지 못하시는데 자신의 진노나 공의를 드러내시려고 어떤 이성적 피조물을 택하시거나, 아담 범죄를 미리 아셨음에도 그를 인류 대표로 삼으시고 멸망시키려 피조물을 만드셨다는 가정은 충격적이다.”

## 대답

1. 저주는 모든 점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첫 죄를 그의 후손에게 전가하시는 데 근거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보다 선행한다.
2. 하나님이 인간과 만물을 만드신 적절한 목적은 그들의 멸망이나 구원이 아니며, 자신의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불경한가?(롬 11:36; 잠 16:4)
3. 만약 하나님이 영원부터 천사와 인간이 죄에 빠지고 멸망할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그분의 무한한 지식은 어디에 있는가?(시 147:5; 행 15:18; 사 46:10)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예견하고도 창조하셨다면, 그분이 저주 결정보다 조금이라도 더 자비로운 분인가?
4. 천사와 인간 사이에 죄와 멸망이 실제로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 충격적으로 불경한 것이 아니라면, 그분이 그것과 관련해 가지신 목적도 결코 고려할 수 없다.

## 반대 논점 VIII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복음을 믿고 자신의 택자를 확실히 하도록 부르시는데, 이는 어느 누구도 절대 구원받지 못하도록 확정된 상태에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한다.”

## 대답

1. 복음을 듣는 자 중, 아마도 인류의 백분의 일도 안 되는 자들만이 자신의 택자를 확실히 하도록 부름을 받는다(벧후 1:10; 고후 13:5).
2.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택자를 확실히 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일부만이 영생을 위해 택함받았음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것을 굳이 노력해 확실히 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3. 만일 사람의 택함이 끝까지 신앙과 성결을 굳게 지키는 것에 달렸다면, 이는 이 생에서나 어쩌면 내세에서도 확실히 알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천사들은 아담이 옛 땅에서 실패한 것만큼 인내하지 못하였다(유 6; 벧후 2:4).



## 반대 논점 IX

“믿음과 성결이 사람의 영원한 구원의 조건이며, 불신과 회개하지 않은 상태가 멸망의 조건이라면, 이는 반드시 그들의 구원이나 멸망을 확정하는 결정의 조건이어야 한다.”

## 대답

1.

믿음, 회개, 그리고 새로운 순종은 우리의 구원의 적절한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와 그의 구원에 참여함으로써 비롯된다. 이것들은 우리가 시작한 구원을 받고 이를 성장시키는 구원의 첫 열매이며, 하늘에서 완전한 구원을 받기 위해 준비된다(빌 1:29; 엡 2:10; 롬 7:4; 롬 6:14; 롬 8:2).

2. 어떤 목적의 원인과 그것을 실행하는 수단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살해한 것은 그분을 우리의 속죄 제물로 삼는 수단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화목 제물로 세우시려는 목적의 원인인가? (행 2:23-24; 행 4:27-28; 히 2:10; 히 5:8; 눅 24:26; 요 3:16; 롬 5:8; 요일 4:9-10, 19). 바울의 박해의 격노와 오네시모의 절도는 그들의 놀라운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을 이룬 우연적 수단이었다. 그렇다면 이것들이 그들의 영생에 대한 선택의 원인인가?—모든 것, 죄, 악마, 환난 등이 신자들의 영적·영원한 유익을 위해 함께 일한다(롬 8:28; 고후 4:17). 그렇다면 죄와 악마, 환난이 신자들의 영적·영원한 행복에 대한 선택의 원인과 조건인가?—나무에 맺힌 열매가 그 뿌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우물, 그릇, 시내(cisterns, vessels, or streams)의 물이 그 샘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 성찰

이처럼 여호와와 신비한 목적들을 살펴본 후, 내 영혼이여! 내가 낮은 처지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일찍부터 생각하셨다는 그 가정적인 가능성조차도, 내 초기 생애에서 복음의 방식을 통해 내가 이것이 사실임을 확실히 알도록 최선을 다해 힘쓰게 하지 않았던가?—오직 단지 이 세상에서 미래에 존재할 가능성만을 생각했을 때에도, 그 문제에

관해 나는 어떠한 생각과 주의, 노동을 때때로 기울였는가?—그렇다면 무한히 더 중요한 문제들, 곧 영원한 결과를 지닌 문제들에 대해 왜 이리 적고, 그 관심도 이리 미약하며, 이리 생명력이 없었던가?—그러나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늘 생각하고 사랑하셨다! 그런데도 나는 내 짧은 생애 동안 무수한 순간과 시간과 세월을 그분에 대한 깊고 확고하며 마음을 불태우는 생각도 없이, 사랑도 없이, 최고의 사랑도 없이, 그분을 전적으로 삼고 내게 동화시키는 사랑도 없이 보냈는가?—무한하신 여호와께서 온 마음으로 나를 자비의 그릇이요, 보배요, 분깃이요, 친구요, 자녀요, 신부로 택하셨다! 만일 내가 만 개의 마음을 가졌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택해야 하지 않는가?—무한한 아름다움과 사랑이신 그분을 내 구세주, 친구, 아버지, 신랑, 하나님, 내 전부로 택해야 하지 않는가?—수많은 자를 지나쳤으며, 그중 어느 누구도 그보다 나쁘지 않은데, 그가 나만을 자기 것으로 구별하셨다! 그러니 내 영혼이 모든 하찮은 것보다 그분을 우선하지 않을 수 있는가!—나의 무한한 전부 되시는 하나님 이외에 하늘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며, 이 땅에서 내가 감히 바라고 소망할 것이 무엇인가?—그분이 자신의 인격과 속성으로 내 선택과 영원한 구원을 견고히 세우셨는가! 나도 그분과 함께 일하며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히 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그분이 나를 거룩과 사랑에 택하셨다면, 나는 그것을 영원한 축복의 일부이자 수단으로서 힘써 따라야 한다. 그분의 불변하는 목적이 나와 내 영원한 구원을 자신 안에서 굳게 정하셨다면, 나는 견고하고 요동하지 않으며 항상 주의 일을 힘써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혹시라도 멸망에 관한 두려운 목적이 있다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는 것으로 봉괴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내 상태가 불확실하다면 크게 두려워하며 떨고 내 생명을 건져야 한다. 일어나라, 나의 잠든 영혼이여! 네 하나님이며 제공된 구세주이신 분께 힘차게 부르짖어 그가 나를 생각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소서. 내 구원이 등불처럼 밝혀질 때까지, 그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네 하나님이니라”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께 안식을 주지 말자.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였고, 그러므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안에서 내가 진노를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예정되었음을 알았는가? 그러면 나는 영원히 그의 주권적인 자비와 은혜를 찬미하며 경배해야 한다. 수많은 불의한 이들 중, 그들의 죄가 내 죄보다 더 적고 덜 중대한 자들도 멸망하기 위해 내버려 두었으나, 나는 그렇지 않게 하셨다. “오 주 하나님, 주께서 내게 품으신 은혜의 생각이 많아 셀 수 없으며, 내가 그것을 말할 때에도 헤아릴 수 없다.”

#### 하나님의 예정의 창조와 섭리 사역에서의 실행

하나님의 예정의 실행이란 창조 안에서 모든 존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섭리 안에서 그 존재를 유지하며 다스리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주로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처음 6일 동안 이루어졌다. 그분이 도구를 사용하시는 섭리 사역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끊임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예정은 시작이 없으므로 그 실행도 끝이 없다.

I. 세계는 영원히 존재한 것이 아니다. 물질이나 다른 어떤 유한 존재가 무한히 지속되었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다. 유용한 기술의 늦은 발명, 수천 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 기록, 지구상에 더 많은 인구가 살 여지가 있으며 인구가 점점 증가하는 사실, 그리고 빗물 등으로 점차 침식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지표의 높이들은 세계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성경은 세계가 약 5780 년 전에 시작되었음을 가르친다. 상식적으로 세계가 스스로 만들어지거나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으로 형성될 수 없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께서 권능의 말씀으로 6 일 동안 가장 뚜렷하고 질서 있게 만드셨으며, 이 모든 창조물은 각각 매우 선하고 놀랍게 각자의 목적과 상호 연결에 맞게 창조되었다고 증언한다(창 1-2; 출 20:11; 출 31:17; 히 1:2; 히 11:3; 잠 3:19; 골 1:16; 롬 11:36; 욥 9:8-9; 욥 26:10-13; 욥 38; 시 24:1-2; 시 33:6-9; 시 95:1-6; 시 102:25-26; 시 104:3-6,19,24; 시 89:11-12; 시 74:16-17; 시 8:1-4; 시 119:73,89-91; 시 145:8; 시 146:5-6; 시 100:3; 시 148:1-6; 시 136:5-9; 느 9:5-6; 잠 30:4; 잠 16:4; 사 40:12,26; 사 42:5; 사 43:5,15,21; 사 44:24; 사 45:7,11-12,18; 사 48:13; 사 51:12-13; 사 64:8; 렘 10:11-16; 렘 5:22; 렘 22:5; 렘 31:35; 렘 32:17; 암 4:12-13; 스 12:1; 요 1:1-3; 행 17:24-26; 행 4:24; 벧전 4:19; 계 4:11; 히 3:4).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땅에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주요 피조물이다(욥 38:6-7; 시 103:19-21; 시 104:4; 창 1:26-27; 창 2:7,22; 창 5:1).

천사는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시종과 섬기는 자로서 만드신 영적 존재들이다(시 104:4). 이 하늘의 군대는 처음 6 일 동안 창조되었으며(창 2:1; 출 20:11) 그 이전에는 오직 절대적 영원만이 존재하였다(시 90:2; 잠 8:23-24; 엡 1:4; 마 25:34). 그들은 아마 땅의 기초가 놓일 때 하나님을 찬양했으므로 첫째 날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욥 38:6-7). 피조물이므로 그들은 능력과 특성, 존재에 있어 유한하며(막 13:32),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없다(단 9:21-23; 단 10:13-14,20). 그들은 현재 하늘이나 지옥 중 한 곳에 존재한다(마 18:10; 마 22:30; 벧후 2:4; 유 6). 그들은 형태 없는 영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광대한 지성과 자발적 의지를 받았다. 비록 응축된 공기 형태를 취하여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지만(창 18:2; 창 19:1,5; 창 32:1), 어떤 육체도 그들의 영적 본질에 실제로 결합되지 않는다(시 104:4; 히 1:7,14; 엡 6:12; 눅 24:39; 눅 20:35-36; 골 1:16).

그들은 자연적, 습득적, 계시적 지식을 매우 넓게 갖고 있으며(삼하 14:17; 삼하 19:27; 고전 13:1-2; 고후 11:5,14; 왕상 22:23; 단 7-12; 스 1-6; 계 1:1; 엡 3:10; 딤후 3:15; 벧전 1:12), 그 지식은 우리처럼 점진적이며 유한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은 미래 사건이나 신비의 깊은 부분에는 미치지 못한다(사 41:22-23,26; 사 46:10; 막 13:32; 엡 3:10; 벧전 1:12). 또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마음 깊은 내면을 즉각적으로 통찰하지 못한다(왕상 8:39; 시 139:2,4; 잠 16:2; 삼상 16:7; 렘 17:10; 요 2:25; 행 1:24; 고전 2:11; 계 2:23; 대상 28:9; 대상 29:17).

그들의 자유 의지는 하나님께 의존하면서도, 선택 대상에 관해서는 현재 확정되어 있으며, 이는 거룩한 천사의 자발적 복종과 악한 천사의 반역에서 명백히 드러난다(시 103:20; 마 6:10; 눅 15:7; 뱀전 1:12; 요 8:44; 유 6; 뱀후 2:4; 뱀전 5:8; 고후 2:11; 고후 11:3; 왕상 22:22). 그들의 능력은 성경의 명백한 선언들(시 103:20; 살후 1:7; 뱀후 2:11; 엡 6:12; 계 18:1-2)과 주요한 행적들에서 분명하다. 예컨대 한날 밤에 애굽의 모든 만아들을 죽인 일(출 12:29; 시 135:8), 수 시간 만에 7 만 명의 이스라엘인을 죽인 일(대상 21:14-15), 그리고 한밤중에 18 만 5 천 아수르 용사들을 죽인 일(왕하 19:35; 사 37:36; 사 10:34; 대상 32:21)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은 하나님에 의해 제한되며(욥 1:12; 욥 2:6; 마 8:31; 롬 8:31), 아무런 즉각적 영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 없고(잠 16:1,9; 잠 21:1; 시 110:3; 신 30:6), 다만 인상과 제안으로 그들의 행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뿐이다(엡 2:2; 행 5:3; 눅 22:3-4; 요 13:2,27). 또한 그들은 본질적으로 기적을 행할 수 없다(시 72:18; 시 86:8; 시 136:4; 출 15:11).

천사는 매우 수가 많으며(시 68:17; 신 33:2; 마 26:53; 유 14; 단 7:10; 계 5:11; 막 5:9), 그들을 군대, 주권자, 권세, 보좌, 주관자 등이라 부르는데, 이는 그들의 조직적 배열과 아마 위계적 차이를 나타낸다(창 2:1; 골 1:16; 골 2:10; 뱀전 3:22; 엡 1:22; 엡 6:12; 골 2:15). 그러나 그들의 질서와 계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며, 대천사라는 명칭이 그리스도 외 누구에게 붙는지도 분명하지 않다(살전 4:16; 유 9; 단 12:1; 계 12:7). 그리스도는 종종 천사 또는 여호와의 천사로 불린다(창 48:16; 행 7:30; 사 63:9; 말 3:1; 출 23:20-21; 욥 33:23; 창 16:7,9-11,13; 창 18:2,17,22; 창 22:11-12,15-16; 창 32:24; 호 12:3-4; 삿 2:1-4; 삿 6:11-12,14,20-23; 삿 13:3,9,13,16-22; 슥 1-6; 계 7:2; 계 8:3; 계 10:1,5,9).

모든 천사는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창조되었다.

1.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함과 선하심은, 어떤 저주가 임하지 않는 한 모든 이성적 존재가 완전한 도덕적 옳음을 가운데 형성되어야 함을 요구한다(시 119:68; 시 104:31).
2. 완성된 창조물은 모두 매우 선하였다(창 1:31).—그러나 그들은 오류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신을 누리며 행복하게 될 자들 중 다수는 원래의 지식, 의로움, 거룩함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딤후 5:21; 단 7:10; 마 26:53; 계 5:11; 시 68:17; 신 33:2; 유 14; 숙 14:5; 눅 2:13; 히 12:22; 마 25:31; 마 6:10). 그리고 그들은 그분에 의해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확정된다(마 18:10; 마 22:30).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화해가 그들에게는 필요 없으며(엡 1:10; 골 1:20), 그분은 그들의 중재자가 아니라 사람의 중재자이다(사 9:6; 숙 9:9; 눅 2:11; 딤후 2:5; 히 9:15; 히 2:16). 비록 하늘이 그들의 특별한 거처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즉각적으로 누리며 완전한 복을 누리지만, 그들은 종종 땅에서 그분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쓰인다(마 6:10; 마 18:10; 히 1:14; 시 34:7).

### 천사의 역할과 인간의 본성

그들의 일은 다음과 같다:

1. 자신들의 본성과 상태에 맞는 고도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시 148:2; 시 103:20-21; 사 6:3; 히 1:6; 눅 2:14; 계 5:11).
2. 중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봉사하고 시종드는 것(숙 1-6; 마 4:11; 눅 22:43; 눅 2:10,13; 단 7:10; 시 68:17; 시 47:5-6; 딤후 3:16; 행 1:10; 빌 2:9-10; 뱌전 3:22; 계 1:1; 계 22:16; 히 1:14).
3. 성도들에게 봉사하여 보호하고, 경고하며, 구하며, 가르치고, 기뻐하고, 위로하며 그들을 하늘로 인도하고 마지막 날에는 악인들과 분리시키는 일(히 1:14; 시 34:7; 시 91:11; 창 19:12-13; 창 32:1; 행 12:7-10; 왕상 19:5; 창 24:7,40; 행 10:5; 단 7-12; 숙 1:9-14; 숙 2:3-4; 행 27:23-24; 눅 15:10; 눅 16:22; 마 13:41; 마 24:31).
4. 악인들을 억제하고 징벌하는 것(단 10:20; 창 19:11; 출 12:39; 삼하 24:15-16; 왕하 19:35; 행 12:23; 시 35:5-6).

그러나 모든 특정한 성도에게 특정한 수호천사가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천사들이 일반적으로 그들을 돕는다(시 34:7; 히 1:14). 또한 유대인들의 수호천사 관념이나 사도에게 따르는 천사가 있다는 믿음조차도(만약 있었다 해도) 증거가 되지 못한다(행 12:15).

하지만 많은 천사들이 자유의지를 교만이나 어떤 다른 죄로 남용하여 창조된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빠르게 타락하였다(벧후 2:4; 유 6; 딤후 3:6). 그들은 실제 인격체이지, 양심의 공포가 아니다. 첫째, 교활함, 교묘함, 계략 등의 인격적 특성이 그들에게 속한다고 기록된다(엡 6:11-12; 고후 2:11; 고후 11:3,14). 둘째, 그들은 사람들을 시험하고 몰래 노리며 파괴한다(창 3:1-8; 왕상 22:22-23; 마 4:1-10; 벧전 5:8; 요 8:44; 약 4:7; 고전 7:5; 속 3:1-3; 시 109:6). 셋째,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두려워하며 영원히 벌받을 것이다(약 2:19; 마 8:29; 마 25:41).

그들의 벌은 죄를 범한 순간부터 시작되어 하늘에서 쫓겨나 어둠의 쇠사슬에 갇혔으나 지옥에 갇혀 땅에서의 활동을 막지는 않았다(벧후 2:4; 유 6; 왕상 22:22-23; 욥 1:7-12; 욥 2:2-7; 시 78:49; 마 4:1-10; 마 8:29,31; 마 16:18; 엡 6:11-12,16; 고후 2:11; 고후 11:3,14; 눅 10:18; 계 12:7-9; 계 20:1-9). 그 벌은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적 사역, 죽음, 복음 전파, 기독교 교회 설립으로 인해 강화되었으며(창 3:15; 골 2:15; 히 2:14; 요일 3:8; 마 12:43), 마지막 날에 완성될 것이다(마 25:41; 마 8:29; 계 20:10,14).

이 땅에서 타락한 천사 혹은 마귀는 최선을 다해 다음과 같이 활동한다.

1. 특히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빼앗는 일(막 4:15).
2. 성도를 시험하고 고발하며 괴롭히는 일(마 16:23; 고전 7:5; 고후 2:10-11; 고후 11:3,14; 눅 22:31; 계 12:9-10; 속 3:1-3; 살전 2:18; 고후 12:7; 벧전 5:8; 계 2:10; 계 12:7).
3. 악인을 유혹하고 그들의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에 머무르게 하며(요 13:2,27; 행 5:3; 마 12:43), 그들을 오류와 환각 속으로 이끌고(고후 4:3-4; 살후 2:9-10; 계 20:3,8,10),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그들의 몸에 들어가 미치거나 격노하게 한다(출 22:18; 레 19:31; 레 20:6,27; 신 13:1; 신 18:10-11,14; 사 8:19,21; 출 7:11-12,22; 출 8:7,18; 민 24:1; 삼상 28:7-9; 삼상 16:14; 마 4:25; 마 9:32; 마 12:22; 마 15:22; 마 17:15).
4. 폭풍을 일으키거나 질병을 발생시키는 등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엡 2:2; 욥 1:19; 욥 2:7).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 중 좀 더 뛰어난 종류로, 천사적 본성과 동물적 본성이 놀랍게 결합되어 있다(창 2:7; 전 12:7). 아담과 하와는 이 종류의 첫 인간이며 모든 인간의 조상이다(행 17:26; 고전 15:45; 롬 5:12; 창 2; 창 5; 창 10; 대상 1). 그들의 본성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 아래 이 낮은 세상의 주인임을 나타내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곧추선 몸이며, 천상의 것을 관조하도록 자격을 갖추었다(시 139:14-15; 전 12:2-4; 사 64:8; 창 2:7,22).

2. 이성적 영혼이 있는데, 모든 인간 몸에는 하나의 영혼이 결합되어 있다(히 4:12; 살전 5:23; 창 2:7; 마 10:28; 마 16:26; 고전 6:20; 속 12:1; 시 22:20; 시 35:3; 시 19:7; 시 25:1). 영혼은 어떤 면에서도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이다(전 12:7; 사 57:16; 눅 24:39; 마 10:28; 행 17:29). 비유적 표현으로만 손이나 혀 등이 있다고 나타내어진다.

인간의 영혼은 부모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다.

1. 아담과 하와의 영혼은 흙으로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즉시 창조하셨다(창 2:7).

2. 하나님만이 영혼의 아버지이자 창조자로 표현된다(전 12:7; 사 57:16; 시 33:15; 속 12:1; 히 12:9; 민 16:22; 행 17:28-29).

3. 영혼은 생성된 몸과 함께 소멸하지 않는다(마 10:28; 고전 15:42,53; 눅 12:20; 행 7:59-60).

4. 영혼이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영혼의 일부를 자녀에게 전달할 수 없다.

창 46:26 등 여러 구절에서 영혼은 육체와 영혼을 포함한 인간 존재를 가리키거나, 때로 육체만을 의미한다(창 46:22; 레 19:28). 영혼은 육체와 함께 죽지 않으며 불멸이다.

1. 부분으로 구성되지 않아 본질적으로 파괴되지 않는다(마 10:28).

2. 지적 능력은 매우 크나 이 생에서는 작은 발전만 이룬다(잠 30:2-3; 시 73:22; 빌 3:12; 고전 13:12).

3. 사람들, 특히 성도들은 불멸을 간절히 바라며(눅 2:25-30; 고후 5:1-8; 고후 4:17-18; 빌 1:23).

4. 하나님의 공의는 영혼이 미래 상태에서 벌받거나 보상받기 위해 불멸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전 3:16-17).

5. 성경은 영혼이 개인적으로 결합되었던 육체보다 오래 산다고 표현한다(마 10:28; 전 12:7; 눅 23:43,46; 눅 16:22-23; 행 7:59-60; 창 2:7; 고전 15:45; 고전 15:18-19; 뱀전 3:19; 계 6:11; 마 22:32; 고후 5:1-8; 빌 1:21,23).

6. 한 영혼은 온 세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마 16:26).

죽음은 육체와 관련된 면에서 동물의 죽음과 유사하며, 그것이 인간이 사물을 알거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만든다(전 3:17,20; 전 9:5; 시 30:9; 시 115:17; 사 38:18). 그러나 불멸의 영혼은 거주할 수 있는 동안 인격과 몸과 밀접히 연합한다(욥 4:19; 고후 5:1; 빌 1:23; 뱀후 1:14; 행 20:10).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영적 지식, 의로움, 거룩함 가운데서 마음이 적절한 모든 대상을 분별하고, 양심과 의지와 정동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겁주거나 기운다(전 7:29; 창 1:26-27; 창 5:1; 골 3:10; 엡 4:24). 타락 이후에도 인간은 어느 정도 영혼의 영성, 지능, 불멸성에서 하나님을 닮았다(창 9:6; 약 3:9). 그러나 하나님 형상의 본질적 도덕적 지혜, 의로움, 거룩함은 회생하기 전까지 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다(롬 3:23; 롬 8:7-8; 엡 5:8; 엡 2:1-3; 엡 4:23; 골 3:10; 골 2:11; 고후 5:17; 고후 3:18; 행 26:18; 뱀전 1:23; 뱀후 1:4). 이 도덕적 하나님 닮음은 인간 영혼에 필수적이거나 분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며, 창조 시 함께 지어져 그의 본성에 합당하고 하나님 목적에 부합하며 인류 번식과 함께 전달되는 자연적 닮음으로 불린다(창 1:31; 전 7:29). 또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 본질과 작용 면에서 남긴 닮음 역시 자연적이다(롬 2:14; 롬 1:20; 창 9:6; 고전 11:7). 반면, 우리의 악한 정욕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그 본래 의미의 자연적일 수 없지만, 우리의 본성에 감염되었다. 이 도덕적 하나님 형상을 온전하게 지닌 상태로 아담은 결백한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본다면 충분히 믿을 수 있었다(전 7:29). 그리고 불완전하게 회복된 도덕적 하나님 형상을 통해 선택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권능의 날에 그를 믿고 영접할 자격을 갖는다(엡 4:24; 골 3:10).

하나님은 스스로 불멸이시며(딤후 1:17; 딤후 6:16; 사 57:15) 천사와 인간 영혼은 본질적으로 불멸하지 않으나 불멸성을 지니지만, 인간은 처음부터 영혼이 몸과 분리되는 경향도, 몸이 죽음으로 인한 분리를 초래하는 경향도 없이 창조되었다. 아담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필연적으로 죽음을 맞을 수 있었으나 죽음의 씨앗은 품지 않았다. 그러므로 죽음은 성경에서 항상 죄의 열매이자 삶으로 묘사된다(롬 5:12; 롬 6:23; 고전 15:21,56; 겔 18:4; 창 2:17; 창 3:19; 욥 24:19; 요 8:44).

창조 시 인간은 땅의 모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는 주인으로 세워졌으며, 이를 나타내기 위해 모든 동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담에게 나아가 그의 이름을 받았다(시 8:6-7; 창 1:28; 창 2:19-20). 그러나 그 상태에서 음식으로 동물을 죽이는 것이 허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타락 직후 동물들은 약속된 구세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물로 희생되었고, 홍수 후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사람들이 그들의 고기를 먹는 일은 없었다(창 3:21; 창 4:4; 창 9:3-4).



그러나 마귀와 회생하지 않은 영혼이 본성의 영성을 유지하고, 부활 후 정죄된 자의 몸은 불변의 불멸성을 지니며, 악인들이 이 낮은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부분적으로 유지하는 점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질은 자연적 속성이나 권세가 아니라 도덕적 완전성에 진정으로 기초한다는 점이 분명하다(엡 4:24; 골 3:10; 고후 3:18).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가 그의 피조물들을 거의 무한히 다양한 본성, 특성, 용도 안에서 관조할 때 더욱 깊어진다. 예를 들어, 그 신비로운 본성, 광범위한 영역, 적절한 거리, 빠른 운동,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빛과 천상의 광명체들; 고정된 것과 고정되지 않은 것, 가연성과 비가연성을 아우르는 공기, 그 유동성, 무게, 탄력성, 유용성; 유동성, 총만함, 분산, 염도 또는 신선함, 침투성, 비와 이슬, 해양생물 생성과 교역 촉진에 적합한 물; 부착성, 가분성, 형태, 색채, 용도를 지닌 땅, 돌, 금속, 토양; 구조, 성장, 세밀한 부분, 다면적 용도, 거의 무한히 다양한 형태를 가진 식물; 세밀한 부분, 연결된 구조, 생명, 음식에 대한 의존성, 움직임, 본능, 자기 보존에 적합함, 아름다운 형상, 조화롭거나 무서운 소리, 미묘하면서도 다양한 맛을 지닌 동물; 그리고 이와 함께 물질의 무한한 가분성, 인력, 중력, 전기, 자력, 고정된 공기와 고정되지 않은 공기의 법칙, 근육 운동, 신경 영향력, 더 나아가 사고하고 의지하며 기억하고 신체와 사회성을 이루는 이성적 영혼들은 신비로운 본성과 하나님의 다면적 완전성의 존재와 현시의 증거이며, 우리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낸다(롬 11:36).

###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그 의미

2.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기념하는 표상으로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관찰, 영향력을 각인시키는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수단으로 삼는다(렘 32:27; 시 75).

3. 무수한 피조물들을 최상위자이신 하나님의 인격, 완전성, 위상, 관계,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제정된 상징으로 간주한다(호 12:9-10).

4.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가장 주된 영광스러운 구속 사역에 봉사하고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으며, 이에 적합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롬 8:28).

5. 이 모든 바탕 위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적 권리를 취하고, 현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수단으로 삼으며, 그분 안에서 영원히 그분을 누릴 것을 약속하는 보증으로 여긴다(고전 3:21-23; 계 21:17).

6. 이러한 모든 과정의 결과로서, 피조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습관적 묵상과 감탄, 경배, 찬양에 이르게 하는 수단으로 삼고, 우리 자신의 하나님이자 분깃으로 여기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나님의 낮은 성전 또는 성소로 존재하게 한다(시 104:1-34; 시 148).

7.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동산출몰로서 적절히 존중하는 태도를 지닌다. 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 하나님의 지속적 섭리 사역

II. 하나님은 지속적인 섭리의 사역으로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을 유지하고 다스리신다.

1.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무한히 완전하시고 그들을 존재케 하셨기에, 그들을 유지하고 다스릴 확고한 권리와 완전한 적합성을 가지셨다. 모든 특성과 연관관계를 분별하는 무한한 지식, 피조물을 올바른 목적에 인도하는 무한한 지혜, 그들의 힘과 해악성, 충돌하는 정동, 본능, 즉각적인 목표에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통제하는 무한한 능력, 편애나 부당함을 막는 무한한 거룩함과 공의, 자신의 영광과 피조물의 선을 위해 인내하는 무한한 인내, 그리고 각각에 동등하게 가까이 계시는 편재하심을 소유하셨으므로 이 모든 일에 무한히 적합하시다.

2. 하나님의 고유한 완전성은 그가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고 다스릴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독립성은 모든 것을 항구적이고 즉각적으로 자신께 의존하게 한다.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피조물이 그 창조 목적에 부합하도록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의 손으로 이루어진 일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공의로우심은 피조물을 존재하게 하시고 난 뒤에 방치하는 일이 결코 없게 하신다.

3. 피조물 자체의 본성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요구한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 선하심 없이는 한 순간도 존재할 수 없다. 피조물은 주는 자가 아니라 받는 자로 창조되었기에, 그들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가 공급되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 즉 피조물 창조의 궁극적 목적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4. 천체의 규칙적인 움직임, 바다의 규칙적인 밀물과 썰물, 낮과 밤, 계절의 순환, 씨뿌림과 수확; 동물들이 계절에 맞는 장소로 주기적으로 이동하고 은퇴하는 것; 자신을 보호하고 준비하는 동물들의 기민함과 거처 형성, 부화와 양육; 유익한 동물들이 사람에게 가까이 접근하고 해로운 동물은 숲이나 사막, 바다의 깊거나 먼 곳으로 물러나는 현상; 유익한 동물들의 번식이 증대되며 천성적으로 왕성한 해로운 동물들의 과잉 증식은 제한되는 점; 생물과 식물 등 유사해 보이는 것 사이의 놀라운 다양성; 사람 얼굴, 목소리, 기질, 필체의 놀라운 다채로움이 그것들의 질서와 안전 유지에 기여하는 점; 남녀의 일정한 비율; 인간의 가장 기민한 계획이 자주 좌절되고 가장 유망한 시도가 실패하는 현상; 자연법칙에 대한 여러 기적적인 역행; 이밖에도 수천 가지의 이와 유사한 사건들 모두가 신적 섭리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5. 수천 가지, 거의 모든 사건이 개인, 가족, 민족과, 특별히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관련하여 성경의 예언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곧 예언자이며 섭리자로서 만물을 유지하고 다스림을 명백히 입증한다.

6.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자신의 뜻을 통해 모든 피조물을 유지하며 다스리심을 똑같이 명확히 선언한다(요 5:17; 히 1:3; 골 1:17; 욥 33:4; 시 104:30; 단 4:34-35; 롬 11:36; 엡 1:11; 계 4:11; 사 41:4; 사 45:5-6; 사 46:4,10-13; 욥 37:6; 욥 12:9; 욥 38-41; 시 8-9; 시 19:1-6; 시 48; 시 65-66; 시 68; 시 78; 시 103-107; 시 114; 시 135-136; 시 145-148; 겔 9; 겔 20 등). 이 섭리의 사역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그 행위를 유지하고 다스리신다(히 1:3; 롬 11:36; 엡 1:11; 골 1:17; 사 46:10; 계 4:11).

1. 모든 무이성 피조물—생물이든 무생물이든, 크고 작든—(느 9:6; 시 36:6; 시 104:19-21; 단 4:35; 욥 37-41; 시 8; 시 104-107; 시 136; 시 145-148; 호 2:18,21-22; 겔 34:25; 마 6:28-33; 마 10:28-31; 출 8:16-17; 출 10:12; 신 28:28; 욥 2:20,25). 별과 강이 하나님의 군대처럼 싸워 야빈의 군대를 멸하였고(삿 5:20-21), 개구리, 파리, 이가 애굽의 압제자들을 괴롭혔으며(출 8-10), 뱀이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징계하였고(민 21), 말벌이 악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었으며(출 23:28), 쥐가 불경하고 살인적인 블레셋 족속을 괴롭혔고(삼상 5:5), 곰과 사자가 베델의 불경한 조롱자들과 불순종 선지자, 우상숭배 사마리아인들을 징벌하였다(왕하 2:24; 17:25; 왕상 13:24; 20:36), 부정한

까마귀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엘리야에게 깨끗한 음식을 공급하였다(왕상 17:6), 짐승에 대한 공물로 인해 홍수 물을 줄이고 니브웨성을 구원하셨다(창 8:1; 요한일서 4:11).

2. 모든 이성 피조물—거룩한 천사들(시 103:18-21; 시 104:4; 히 1:14), 타락한 천사들(눅 22:31-32; 왕상 22:21-23; 욥 1:12; 2:6; 시 78:49; 마 8:28-32; 12:27-28; 4:24-25; 계 2:10; 12:7; 13:7; 20:2,7-10), 사람과 그의 모든 신체 기관이 섭리의 책에 기록되었다(출 32:32; 시 69:28; 시 139:16; 시 33:13-15; 잠 8:15-16; 16:1,9; 21:1; 단 2:21-22,44,47; 4:35; 욥 12:10; 행 17:28). 하나님은 매우 온화한 야곱과 그의 후손의 운명을 다스렸고(창 28:13-15), 매우 난폭한 이스마엘과 에서와 그들의 운명도 다스렸다(창 16:12; 25:16,23). 또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의 일도 다스렸다(사 42:1-7; 50:4; 49:1-12; 53; 롬 8:28-39; 고전 3:21-22; 고후 4:17; 히 13:5). 그의 섭리는 교만하고 완고한 애굽인, 억압받고 낙담한 이스라엘인, 교만하고 무신론적인 시리아인, 강력하고 격분한 아시리아인, 갈대아인, 페르시아인, 헬라인, 로마인(사 10; 30; 33; 37; 렘 25:1; 51; 단 2-11; 속 6), 사나운 타타르인과 터키인(겔 38-39; 계 7-9; 20), 교활하고 사악한 가톨릭주의자(단 7; 11:36-43; 계 9-19), 나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셨다(사 24; 시 22:27-31). 그의 섭리는 사람들의 탄생(욥 10:3,8-12; 33:4; 시 139:14-16; 22:10; 71:6), 삶의 방식(창 15:13; 16:12; 신 30:9,19-20; 32:10; 욥 12:10; 시 56:8; 139:2; 116:9,12; 71:17-18; 잠 22:2; 16:9; 사 46:3-4; 마 10:29-30), 죽음(욥 14:5; 요 7:4; 시 39:5; 삼상 26:10; 렘 34:4-5; 22:19; 36:30)에도 이른다.

3. 그의 피조물들의 모든 행위와 움직임(사 45:6-7; 애 3:38; 암 3:2,6-7).

— 1. 무생물의 모든 자연적 움직임과 생물의 행위(시 74:16-17; 136:8-9; 104; 창 8:21-22; 사 55:9-10; 렘 31:35-36; 마 5:46; 욥 37-41). 예를 들어, 비옥한 토양과 메마른 토양 사이에 심긴 식물은 모든 뿌리를 비옥한 쪽으로 향하고, 어류와 조류는 정해진 계절에 이익을 위해 이동해 자리를 잡는다.

— 2. 모든 초자연적 움직임. 하나님의 영향으로 물이 땅을 넘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잠기게 한 후 말랐고(창 6-8), 소돔은 유황과 불로 멸망했으며(창 19:24), 애굽은 재앙을 받았고 홍해와 요단강은 갈라졌으며(출 7-14; 시 75:14-15; 89:10; 78:12-14; 77:14-20; 114; 136; 135; 105-106; 78; 수 3-4; 왕하 2),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렸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했으며(출 16-17; 민 11; 20; 시 78:15-28), 고라와 그 무리는 땅에 삼켜졌으며(민 16), 시내산에서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출 19-20; 24:16-17), 해와 달이 멈췄으며(수 10:12-13; 합 3:11), 해가 십 도 뒤로 물러났으며(사 38:8), 사십이 개월간 가뭄이 이스라엘 땅을 말렸고(왕상 17-18; 약 5:17),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깨끗한 음식을 정기적으로 공급했으며(왕상 17:6), 고래가 요나를 삼켜 적절한 곳에 내놓았다(온 1:17; 2:10;), 불타는 용광로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결박을 태우지 않았고(단 3:19-37),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의 고발자들을 먹었다(단 6:22-24).

— 3. 모든 우연한 움직임, 도끼날이 미끄러지거나 제비가 떨어지거나 화살이 갑옷의 이음새에 꽂히는 일 등(출 21:13; 신 19:5; 잠 16:33; 왕상 22:17,28,34; 겔 21:19-27; 렘 51:16; 시 147:15-18; 마 10:29; 창 22:8,13).

— 4. 모두 인간 의지에 따른 자유 행위(잠 16:1,9; 20:24; 21:1; 렘 10:23; 빌 2:13; 창 24:7; 45:5,7; 50:20; 사 46:10-11; 10:5-7; 행 4:28).

— 5. 모든 민사 행위, 심지어 가장 치열한 전투에서의 군대 운용까지(사 10:5-7; 시 47:9; 렘 36:19; 잠 8:15-16; 사 10: 13; 렘 46-51; 미 2:13).

— 6. 모든 도덕적 행위, 선악을 포함하여(사 26:12; 고전 4:7; 빌 2:13; 약 1:17; 고후 3:5; 출 10:1; 신 11:3,6; 삼하 12:11-12; 16:10; 24:1; 왕상 11:14,26; 22:22; 시 81:12; 사 6:9-10; 29:14; 렘 4:10; 겔 14:9; 20:25-26; 롬 1:24-28; 9:17; 11:8,32; 살후 2:10-12).

이처럼 하나님의 피조물과 그 행위에 관한 섭리는 자연적 섭리, 기적적 섭리, 도덕적 섭리, 그리고 특별한 섭리로 구별된다. 하나님의 자연 섭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그분은 모든 피조물을 존재와 개별 형상 안에서, 그리고 그들의 작용, 운동, 또는 정동(affections)의 능력 안에서 유지하신다—그리고 그 행위나 움직임 그 자체 안에서도 유지하신다(욥기 12:10; 히브리서 1:3; 골로새서 1:17; 요한계시록 4:11; 느헤미야 9:6; 시편 36:5-6; 145:15-16; 147:8-9; 마태복음 6:26-30).

## 2. 그분의 다스리심

여기에는,

1. 그분이 천상의 법칙 또는 하늘의 규례, 날과 밤의 언약과 같은 것들을 정하시고, 이에 따라 통상적으로 그의 영향력을 규제하시는 것(예레미야 31:35-36; 33:25; 시편 119:90-91).

2. 그분이 이러한 정해진 법칙들과 자신의 목적에 따라 피조물의 움직임에 협력하고 이끄시는 것(창세기 8:22; 9:11; 이사야 10:15; 예레미야 10:23; 시편 74:16-17; 115:3; 사도행전 17:28; 고린도전서 12:6; 에베소서 1:11; 이사야 46:10-11; 다니엘 4:35).

이 가운데 그는 그의 피조물들이 특정한 대상에 대하여,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하시며(이사야 10:5; 에스겔 21:21-23; 욥기 1:12; 2:6; 사도행전 1:26; 출애굽기 21:12-13; 열왕기상 22:34), 그들을 적절한 목적에 정확하게 이끄신다(잠언 19:21; 16:1, 9; 21:1; 창세기 49:10).

섭리의 통상적 운영에서 하나님은 제 2의 원인들(second causes)에게 충분한 영향력을 허락하시며, 그들의 본성에 맞게 그들을 통해 그리고 그들 안에서 일하신다. 그러나 그의 협력적인 영향력이나 공존(concourse)은 단지 일반적인 수준에서 제 2의 원인들에게 특정한 인상을 고정시키고, 그것들이 스스로 움직이고 행위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개별 피조물마다 구체적이며, 각각의 개별적인 움직임이나 행위를 고유한 형식으로 발생시키신다.

### 하나님의 특별한 영향력

1.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예들을 보여 준다—승리를 주시는 데(시편 33:16; 18:43; 144:1), 인도하심이나 위로를 주시는 데(시편 13:1-5), 요셉을 이집트로 보내시는 데(창세기 45:5, 7; 50:20), 앗시리아인, 갈대아인, 페르시아인들을 그의 몽둥이, 도끼, 망치, 군대로 사용하시는 데(이사야 10:5, 15; 13:14; 예레미야 51:22-23). 때로는 그분의 두려움이 적들에게 임하여 유대인들에게 승리나 구원을 안겨 주기도 하였다(사사기 7:14-22; 역대하 14:11-14; 20:22-23; 열왕기하 7:6). 이 모든 것이 창조 시에 특정 원자들에 가해진 인상 때문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어리석다.

2. 만약 하나님이 처음에 사물들에 단지 일반적인 어떠한 인상만을 가했다면, 현재 모든 것은 그의 뜻과 무관하게 자연의 필연성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인상은 필연적으로 천사와 인간에게 죄를 발생시켰거나, 이들이 죄를 지음으로써 전능하신 그의 영향력을 저항했어야 한다.

3. 이러한 일반적 공존은 피조물들이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계속 의존하도록 허락하면서, 그들의 작용에 있어서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도록 허용한다는 의미이다(사도행전 17:28; 잠언 16:1, 9; 21:1).

그러나 이 신적 협력에 관하여 다음을 주목해야 한다.

1.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힘을 전가하여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의지의 작용으로서 그가 원하고 원하는 시기와 방식에 따라 제 2의 원인들이 행동하도록 하시는 행위이다.
2.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그 위에 행하는 그분의 피조물의 행위는 분리되거나 별개가 아니며, 피조물은 독립적인 능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영향 아래 작동하도록 하신다.
3.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공존 영향력을 자기 뜻대로 결정하지 못한다. 태양빛이 비치는 대상의 본성이 그 빛을 녹이거나 굳히고 태우거나 결실하게 하듯, 대상의 본성이 하나님의 영향력을 결정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렇게 허용되었다면, 하나님의 작용은 피조물의 작용에 종속되고, 피조물은 자신의 행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하게 되며, 하나님은 선의 창조자도 악의 창조자도 아닌 존재가 될 것이다. 또한 어떠한 법령도 그 집행이 확실하지 않으며, 어떠한 예언, 약속, 위협도 성취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4.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본성의 질서에서 하나님의 의지의 작용은 모든 움직임과 행위에서 반드시 피조물의 작용보다 먼저 있어야 한다(로마서 11:36).

### 하나님의 기적적 섭리

하나님의 기적적 섭리는 그의 작용이 제 2의 원인들의 영향력과 그 통상적인 작용 법칙을 초월하거나 반대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태양의 진행을 멈추게 하거나, 바다를 가르고, 죽은 자를 살리거나, 선천적으로 시력을 잃은 이에게 눈을 열게 하는 경우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때 통상적인 섭리보다 더 큰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통의 영향력을 잠시 중단하거나 제 2의 원인들의 자연적인 영향력에 반대하실 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피조물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을 알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도덕적 도구 이상이 될 수 없다.

무한한 지혜와 권능, 거룩함과 공의, 선함과 진리, 위엄을 지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진정한 기적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기대할 수 있다.

1. 도덕적 도구들은 우스꽝스럽거나 불합리한 초월적 권능에 대하여 터무니없는 적용을 하지 않는다. 기적을 행하실 때, 그리스도와 그의 선지자들, 사도들은 단지 몇 마디 적절한 말이나 대상에 대한 지팡이 내밀기 같은 매우 단순한 행동만 행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뜻을 권위 있게 선언함을 의미한다.

2. 하나님이 전능한 행위를 아무 목적 없이 또는 사소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시는 것은 부당하므로, 모든 기적은 중요한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3. 하나님의 지혜와 선함, 무한한 위엄을 나타내기 위한 것만으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부당하므로, 기적은 하나님의 거룩함, 공의, 선함, 진리를 입증하는 데에도 기여해야 하며, 이러한 기적에서 보통 도덕적 도구가 될 자격이 있는 이들은 건전한 종교 원리에 합치되고 거룩하며 덕행 있는 자들이다.

4. 기적은 여러 개수가 많고 공개적으로 드러나서, 친구와 적 양쪽 모두가 그 현실성을 충분히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기적의 모조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행해질 수 있다.

1. 전기, 자연마술 등 일반인의 인지 밖에 있는 제 2의 원인들의 힘을 이용하여.

2. 보는 이의 시각을 속이는 교묘한 손재주를 사용하여.

3. 악마가 물질이나 사람 마음에 인상을 주어 비범한 생각이나 발언을 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사례가 가톨릭 교회의 자랑하는 기적들이다.

그러나 가장 특이한 것은 이집트 마술사들의 기적이었다.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공기를 사탄이 교란하여 관중의 시야를 속였는지, 뱀처럼 보이도록 지팡이를 움직이고 공기를 교란시켰는지, 혹은 지팡이를 몰래 치워 진짜 뱀으로 대체했는지 등. 그러나 이 마술사들의 겉으로 변한 지팡이가 아론의 진짜 변한 지팡이에 삼켜졌으며, 그들의 다른 거짓 기적들은 그들의 나라에 내린 형벌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시켰음은 확실하다.

## 하나님의 도덕적 섭리



하나님의 도덕적 섭리는 그분이 합리적 피조물들의 도덕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성향과 행위를 다스리시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1. 그분의 완전하심과 뜻에 따라 그들 자신과 동료 피조물,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그들의 성향과 행동의 기준이 될 법을 제정하심.
2. 그들의 선악에 관한 성향, 생각, 말, 행위에 대한 그분의 영향력.

이 영향력은 틀림없이 효력을 지니지만 합리적 피조물들의 참된 자유와 결코 충돌하지 않는다.

1. 기적을 제외하고, 하나님은 항상 제 2의 원인들의 본성에 맞게 그들에게 작용하신다.
2. 합리적 존재들의 자유는 선과 악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이 아니라, 강제되지 않고 지식과 성향을 갖고 행동할 능력에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도, 인간도, 천사도 자유를 가진 적이 없었을 것이다.
3. 하나님은 종종 그들의 뜻을 자신이 원하고 명하는 쪽으로 굽히시지만, 결코 그 누구의 뜻에 강요하지 않는다. 사실 의지는 본질적으로 강제될 수 없다.

선한 행위에 있어,

1. 하나님은 인간의 자연적 행위 능력과 그들에게 심으신 은혜로운 성향을 유지하신다.
2. 그들이 행해야 할 선한 행위를 촉진하는 대상들을 그들 앞에 제시하신다.
3. 그 행위를 방해할 여지를 알면서도 그런 대상이나 영향력을 제지하거나 제거하신다.
4. 말씀으로 그들이 특정한 선한 일이나 방식으로 행하도록 명령하고 권장하신다.
5.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불순한 태도를 교정하신다.
6. 선한 행위를 촉진하는 이유 쪽으로 그들의 마음과 정동을 돌리신다.
7. 특정한 행위 방식에서 특별한 기쁨을 느끼게 하신다.

예를 들어 구제에서,

1. 하나님은 사람에게 줄 것을 공급하신다.
2. 그에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제시하신다.
3.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간과하거나 냉정하게 대할 생각을 막으신다.
4. 그에게 성경적 권면과 자선의 동기를 새기신다.
5. 그의 연민과 동정을 강하게 자극하신다.
6. 구제를 결심하고 실행하는 데서 기쁨을 느끼게 하신다.

죄된 행위를 하나님은 허용하시는데, 여기서

1. 그분은 그 행위를 방해하지 않으신다—예를 들어 행위자의 생명, 시력, 이성 등을 빼앗지 않으시며(출애굽기 14:28; 창세기 19:11; 열왕기하 6:18-19), 그 행위를 저지하는 데 필요한 능력이나 경향에 대해 우월한 힘을 행사하지 않으신다. 또한 그러한 죄를 짓는 데 필요한 기회나 도구를 그들의 길이나 손에서 제거하지 않으시며, 죄의 위험성 및 악행에 관한 생각을 경감시키지도 않으신다. 영적 교훈으로 무지를 치유하거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악의를 고치거나, 무관심과 나태를 깨워 두려움과 염려를 일으키지도 않으신다.
2. 모든 합리적 행위에는 자연적, 도덕적, 영향력 있는 요소들이 있으며, 죄된 행위에는 자연적인 요소가 있어 그것이 무(nothing)의 반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한 도덕적 불일치와 행위자나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영향적 경향이 있다. 이 첫 번째와 마지막 요소에서 하나님은 실제로 협력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행위 중 죄된 불일치와 연결된 자연적인 부분을 만드시고, 그 행위가 행위자 혹은 그 대상에게 해를 끼치도록 하신다.
3.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 안에, 본래는 선하거나 무관심한 생각들도 그들의 내적 타락이 그것을 그릇된 목적으로 변형하도록 자극하신다. 예를 들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사랑과 요셉의 꿈에 관한 기억을 그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불태울 재료로 삼았으며(창세기 37), 유대의 지도자들은 그리스도의 성공과 백성 가운데 존경, 라자로의 부활에 관한 생각을 악의와 분노를 고취하고 증대시키는 데 이용하였다(요한복음 11:47-57).
4. 하나님은 거룩하게도 그들에게 죄를 짓도록 기회를 제공하신다. 예를 들어 바벨론 의복과 금 뿔뿔이 아간 앞에 놓였고(여호수아 7:21), 밧세바가 다윗 앞에서 몸을 씻었다(사무엘하 11:2). 이 기회나 대상의 제시는 사람들을 죄 짓도록

강요하거나 기울이거나 묶지 않으며, 하나님이 이것을 제시하는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며, 때로는 이전 악행에 대한 징계 또는 그들의 악한 성향을 자신이나 타인에게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와 같은 허락의 결과로 죄된 행위가 반드시 일어나더라도, 그 죄성은 하나님께 전혀 책임지워지지 않는다. 그 까닭은,

1.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합리적 존재들의 자유의지에 꼭 맞춰 그들을 영향하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은 행위 중 자연적 부분을 창조하지만, 그 행위의 죄성이나 하나님의 법에 대한 불일치는 전적으로 그들이 자유의지를 타락시키거나 잘못 사용한 결과이다. 예를 들어, 미움은 자연적인 정동(affections)으로서 본래 선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그 미움이 하나님께 반대하는 방향으로 향하는 것은 죄이며, 이는 하나님의 허용이나 사전작용 때문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의 타락한 성향에서 비롯된다.
3. 죄는 단지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자 법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이전의 죄성에 대한 정당한 형벌임을 신중히 이해해야 한다.

하나님의 섭리 중 특히 주목할 부분은 죄인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고 완악하게 하시는 허용에 관한 것이다(롬 11:7-8; 고후 4:3-4; 고후 3:14; 살후 2:9-12; 사 63:17; 출 4:21; 출 7:3,14,22). 마음을 눈멀게 하실 때,

1. 하나님은 그들이 오류와 실수에 빠지도록 하는 생각을 품게 하신다.
2. 사탄과 그의 도구들의 현혹에 내어주신다(왕상 22:21-23; 고전 4:3-4; 살후 2:9-12; 행 5:3; 요 13:2,27).
3. 외적 섭리가 마치 시험을 강화하는 것처럼 나타난다(시 73:2-15; 렘 12; 렘 20; 욥 1-3; 살후 2:9-12; 계 11:2; 계 13).
4. 그들이 교훈이나 회개에 이르게 할 모든 것을 오히려 악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요 6:64-66; 요 10:30-40; 행 7:54; 행 22:22; 행 26:24).
5. 내면의 악함이 강력하게 작동하여 그 마음의 통치에 가장 유리하도록 믿거나 믿지 않게 한다(렘 43; 렘 44:6).
6. 그들은 악한 행로에서 만나는 모든 외적 번영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만족하신다는 증거로 여긴다(롬 2:4; 신 32:15-16; 렘 44:17-18).

7. 만약 외적 재난을 만나면 이를 간과하거나 단지 자연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본다(사 26:11; 대상 28:22; 렘 5:3; 사 1:5).

마음을 완악케 하실 때,

1. 하나님은 마음을 부드럽게 할 은혜를 정당하게 거두신다(호 4:17; 계 22:11).
2. 한때 마음을 부드럽게 했던 일반 은혜나 특별 은혜의 일부를 철회하신다(사 63:17).
3. 죄된 욕망이 별다른 제지 없이 무절제하게 발동하도록 허락하신다(시 81:11-12).
4. 악한 동료들 가운데 머무르게 하시어 그들의 본보기와 가르침, 영향력으로 죄에 부추김을 받도록 내버려 두신다(삿 11:4; 왕상 12:10-11; 잠 9:6; 잠 13:20; 잠 28:19,24).
5. 외적인 호의로 교만, 무신론, 죄에 대한 무관심을 오히려 증대시키신다(눅 12:16-20; 눅 16:19; 욥 21:14-15; 겔 16:49; 신 32:15; 눅 18:24-25; 시 73:5-9; 사 5:11-12; 호 13:6).
6. 고통을 가하지 않거나 매우 약하게 가하시거나, 고난의 때와 방식, 도구가 마음으로 하여금 이를 멸시하거나 분노케 하거나 죄를 자극하는 수단이 되도록 하신다(사 1:5; 렘 5:3; 왕하 6:33; 대상 28:22).
7. 사탄이나 기타 영향력으로 양심의 책망을 막거나, 양심이 너무 무지하거나 편향되어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부르게 하신다(창 6:3; 호 4:17; 사 5:18-23; 사 30:10; 겔 13:10,22; 말 2:17; 미 2:11).

### 바로 왕과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눈멀게 하고 완악하게 하시는 예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서 명확히 드러난다.

1. 하나님은 그를 높은 지위에 올려 탁월한 교만을 누리게 하셨다.
2. 마음을 낮추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도록 순종하며 기꺼워하게 하는 은혜의 감동을 거두셨다.

3.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게 하라는 단호한 명령을 주셨는데, 바로가 그들을 자신의 소유로 여기고, 또 그들의 자유를 요구하는 사자들과, 아마도 그들이 하는 과중한 노동 때문에 그의 교만한 마음이 자극되었다.
4. 그 명령이 바로로 하여금 이렇게 따져보게 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다면, 왜 내게 그의 백성 귀환을 청하겠는가? 그가 약하다면, 왜 내 왕국에 대단히 해로운 일에 굴복해야 하는가?”
5.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 사자들에 대한 편견이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게으르거나 미신과 반역적 음모를 품었다 의심케 했다.
6. 모세와 아론이 행한 첫 번째 기적들은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일 뿐 실제 해악이 없었다.
7. 마술사들의 신속한 모조품들은 바로로 하여금 이 모든 일을 마귀의 속임수라 여기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마술사로 판단하도록 유혹했다.
8. 이집트에 임한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재산이 구별되어 보호받은 것은 그의 교만한 마음을 더욱 자극했다.
9. 재앙이 쉽고 갑자기 여러 차례 물러났다가 돌아오는 것은 그의 교만하고 육체적이며 사악한 마음으로 하여금 재앙과 구원 모두를 멸시하게 했다.
10. 마술사들이 흉내 내지 못한 기적이 겉보기에는 이전 기적들보다 사소해 보여, 여호와가 더 심한 재앙을 내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게 했다.
11.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서 그들의 가축 한 마리도 데리고 갈 수 없게 한 단호한 거절이 그의 교만한 영혼을 자극했다.
12.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의 금과 은을 가지고 떠난 것은 그의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부추겨 그들을 추격하게 했다.
13.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곧장 가지 않고 험준한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동남쪽으로 행군한 것은 바로와 그의 신하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이 신적인 또는 합리적인 인도를 받지 못하며 쉽게 노예 상태로 되돌아갈 것이라 여기게 했다.
14. 그 사이 하나님은 그를 그 자신의 부패한 욕망과 사탄의 시험, 그리고 악한 신하들의 여러 반대 주장에 맡겨 두셨다.

#### 하나님의 죄 제한과 다스리심

2. 하나님은 죄된 성향과 행위를 제한하신다(시 76:10).

1. 죄의 정도에 있어 그들이 그만큼 죄악되었을 뿐 더 심하지 않게, 그리고 그만큼 강력할 뿐 더 세지 않게 제한하신다(창 20:6; 렘 3:5).

2. 영향 범위에 있어서도 그 영향이 이만큼 미칠 뿐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하신다(사 10:32; 사 37:29; 시 76:10; 계 20:2).

3. 지속 기간에 있어서도 그들이 죄를 범하는 시간을 일정 기간만 허락하고 그 이상은 허락하지 않으신다(창 6:3; 창 15:13,16; 단 7:25; 계 11:2; 계 13:5).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죄를 제한하신다.

1. 가난이나 병 등으로 인해 특정 죄를 범할 능력이나 기회를 제한하심으로써(대하 21:16-19; 대하 16:10,12).

2. 죄의 길을 걷는 초기에 또는 진행 중에 죽임으로써 그들을 멸절시키시는 방법으로(왕상 16; 왕상 22; 왕하 1-16; 왕하 24; 왕하 25).

3. 엄한 징계나 형벌로 죄에 대해 책임지게 하심으로써(욥 34:31-32).

4. 죄의 악함과 위험을 강력히 깨닫게 하심으로써(삿 2; 삿 10:5).

5.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심으로써(행 2; 행 9; 고전 6:9-11).

3. 하나님은 사람과 마귀의 죄된 성향과 행위를 다스리신다.

1. 자신의 인내와 선하심, 혹은 심판의 정의를 드러내며 영광을 받으시고, 특히 구속 사역을 이루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완전성이 최고의 영광을 받게 하신다(시 76:10; 롬 5:20-21).

2. 자신의 백성에게 유익하도록 죄와 환난을 깨우치고 확신하며 회개와 겸손, 변화와 성화를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롬 7:14-24; 히 3:12-13; 히 12:29; 사 64:6; 벧전 2:1; 히 1:14,25,28; 히 10:24-25; 고전 5:1-5; 롬 5:20-21 과 롬 6:1-2).

###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리스도와 교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란 특히 그리스도(인간이자 중보자)와 그 교회를 대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뜻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모든 섭리적 처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히 누리는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며, 교회가 그 충만이다(엡 1:10,22-23).
2.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 행사되도록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졌다(엡 2:22; 마 11:27; 마 28:18; 요 3:35; 요 5:22).
3. 하나님의 완전성은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난다(엡 3:10,21). 교회는 하나님의 산(시 2:6; 시 87:1), 하나님의 보좌(렘 17:14), 능력의 궁창(시 150:1), 가르침의 학교(엡 3:10; 엡 4:11-13; 시 147:19-20), 하나님의 성전이자 집(엡 2:20-22; 벧전 2:5; 히 3:6)이다. 교회는 마치 샤론의 장미처럼 피어난 그리스도이며 지체로 충만한 그리스도이다. 그 안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충만하다(고전 12:12; 엡 3:21; 눅 2:10-14; 고후 4:6).
4.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있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누이, 친구, 양 떼, 보석, 안식처, 동산, 그리고 후원이다(사 54:5; 사 62:4-5; 아 5:1-2; 겔 16:8-14; 겔 34; 겔 36-37; 요 10; 말 3:17; 시 132:13-14; 아 4:12-16; 아 6:2; 신 32:9; 시 135:4).
5.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를 특별히 존중하며 사랑하고 기뻐하신다(사 45:15,19; 사 41:14; 사 43:4,15,21; 사 44:1,2,6; 사 62:3-5; 렘 32:39-42; 시 87:1-2; 시 147:11; 시 149:4; 시 132:13-14; 습 3:17). 수많은 죄와 도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성도를 온 세상보다 더 사랑하신다(사 57:15-18; 사 66:2; 창 6:8).
6.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임재하신다(고후 5:19; 계 14:1; 겔 48:35; 학 2:4-5).
7.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의 기도가 섭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다(요 11:42; 눅 1:12-15; 계 8:3-5; 계 11:3-6; 사 45:11; 시 106:23; 겔 22:30; 약 5:16-17).

8. 하나님의 섭리 아래 만물이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협력한다(롬 8:28).

이 목적을 위하여 세상은 현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되고(행 17:30; 벡후 3:9), 그리스도와 교회가 현존함으로 완전한 타락과 멸망에서 보존된다(잠 10:25; 시 75:3; 사 6:13; 사 65:8). 자연의 모든 것과 모든 기적적 사건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백성의 유익을 향하여 인도되고 촉진된다(호 2:18-23; 출 3-20; 민 11-12; 민 16-17; 민 20; 수 6; 수 10; 합 3; 왕상 17-18; 왕하 1-7; 왕하 13; 요 2:11; 마 4:24-25; 마 11:5). 모든 민족의 이해관계와 운명이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이 목적을 향해 움직이며 실제로 촉진한다. 그러나 우리의 무지로 인해 그 구체적 작용의 실체를 온전히 알지 못한다(왕하 9:6-7; 왕상 19:15-18; 사 44-45; 렘 46-51; 겔 21:27; 학 2:6-8; 계 6-21). 교회와 관련된 모든 중요한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 모든 신탁과 제도(시 147:19-20; 롬 3:2; 엡 4:11-13; 고전 12:28), 악인들의 선물과 일반 은혜—발람, 가룟 유다, 데마 등(민 22-24; 요 6:70; 마 10; 빌 24), 모든 참되고 영적인 은사와 은혜(골 1:25; 고전 12; 고전 14; 엡 1:3), 모든 거룩한 천사와 성도, 사역자들(히 1:14; 시 34:7; 고전 3:22; 고전 12:28; 엡 4:11-13). 세상의 모든 악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에 봉사하며, 모든 혼란과 파괴적 심판은 교회를 구원, 깨우침, 정화, 준비시키는 데 활용된다(시 29:10-11; 사 46:11-13; 학 2:6-7; 계 11:12-13; 계 16; 계 18-21; 겔 20:36-37; 겔 21:27; 호 2:6-7, 14; 단 11:35; 사 27:9; 미 6:14; 습 3:8-20; 창 49:5; 신 33:10). 교회 내 분쟁은 진리를 견고히 하거나 진리를 확산하는 수단이 되며(행 15:36-37), 박해는 교회를 정화하거나 확장하는 데 유익하다(렘 24:5-7; 빌 1:12; 행 8:3-4; 행 13; 행 16-19).

### 악인의 교회 내 유익

악한 자들도 교회에 크게 유익하게 사용된다.

1. 하나님의 진리 지식을 확산하는 데 쓰인다. 예를 들어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오스 또는 일부 배교 유대인이 구약 성경 일부를 널리 쓰이는 그리스어로 번역하여 복음 전파를 준비했다.
2. 교회와 신자들을 보호하거나 부양하는 데 도움을 준다(창 12:10; 사 16:3-4; 계 12:16).
3. 교회의 주요 수호자와 기둥들을 권세 있는 지위로 올려 교회를 도왔다. 사울과 아브넬이 다윗을, 바로가 요셉을, 또 다른 바로와 그의 딸이 모세를, 느부갓네살과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도왔다(삼상 16; 삼하 3; 삼하 5; 창 41; 출 2; 단 1-6).



아하수어로, 에스더와 모르드개, 에스더 2 장; 에스더 8 장. 아르탁세르크세스, 에스라와 느헤미야, 에스라 7 장; 느헤미야 2 장.

4. 교회를 인도하고 풍성케 하는 데에, 이사야 45:3-4, 13; 이사야 14:11-13.

5. 교회에서 타락한 구성원을 박해의 공포로 혹은 성도들의 피를 빨아내 치유될 때까지 정화하는 데에, 요한일서 2:19; 이사야 27:9; 이사야 31:9; 에스겔 20:38.—심지어 마귀들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함께 역사하게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시기에 많은 이들에게 들어가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메시아 됨에 관한 수많은 기적적 확증을 초래하였다. 그들이 가다라 사람의 돼지 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금지한 이 동물의 섭취를 정당화하고 그 율법 위반자들을 징벌하며,—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과 주권을 나타내고 기적적 치유의 진실성과 중대함을 입증하였다.—나아가 죄 자체도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의 백성의 유익을 증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로마서 5:20-21; 에베소서 1:7; 요한일서 1:7, 9. 사라의 분노는 아브라함의 복된 씨가 이삭으로 한정된 약속의 성취에 기여하였고, 오네시모의 도둑질은 그의 그리스도 회심의 계기가 되었으며, 바울의 성도들에 대한 맹렬한 박해는 그의 변화 시기를 가속화하였다, 빌레몬 10 절; 사도행전 8-9 장; 22 장; 26 장; 갈라디아서 1 장; 디모데전서 1:13. 교황청의 분노, 성직자의 흉악한 불경과 방종은 개신교 종교개혁을 촉진하였고, 헨리 왕의 교만과 방종은 영국 내 그 개혁을 촉진하였다.—유대인들의 그리스도 거부와 살해는 그가 택한 자를 속량하는 데에 수단이 되었다, 이사야 53 장; 마태복음 2-27 장.—그러나,

6.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에 놀라운 배려를 나타내신다.

1. 때로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옹호하기보다 교회에 대한 자비를 우선하여 사악한 범죄자들을 엄히 징벌하기 전에 교회의 안전을 먼저 도모하신다, 이사야 26:20; 요한계시록 7:1-3; 창세기 19:22.

2. 가장 두려운 진노의 집행 가운데에서도 자기 백성에 특별한 돌봄을 베푸신다, 에스겔 9:6; 예레미야 15:11; 39:11-18; 45:5; 아모스 9:9-10.

3. 여러 민족에 대한 두려운 심판의 유일하거나 주된 이유로 자기 백성에게 가해진 해악을 지목하신다, 사무엘상 15:2; 예레미야 48-51 장; 에스겔 25-35 장; 38-39 장; 오바댜 1 장; 마태복음 24 장; 25:41-45; 요한계시록 6 장; 8-9 장; 11-20 장.

4. 세상에서 높은 자들은 언급하지 않거나 불명예와 경멸로 짓누르는 반면, 가장 미천한 자들은 존귀하게 주목하신다. 가인, 이스마엘, 에서 및 그 가문들과 비교할 때 야곱의 역사는 얼마나 크고 존귀한가? 에벤텔렉과 시로페니키아 여인의 역사는 당시의 모든 왕과 제후보다 훨씬 더 영예롭다, 예레미야 38:7-12; 39:15-18; 마태복음 15:22-28. 성막의 못들은 니느웨, 바빌론, 페르세폴리스, 로마 등의 모든 영광보다 더 주목받는다.

5. 섭리 사역을 지체하여 먼저 교회 앞에 계획을 제시하고 승인을 구하신다, 창세기 18:17; 41 장; 다니엘 9-12 장; 출애굽기 32:9-10; 이사야 45:11.

6. 그의 가장 귀한 것들—아들, 말씀, 은혜, 영광—을 오직 교회에만 부어 주신다, 이사야 9:6; 2:5; 시편 147:19-20; 로마서 3:2; 호세아 8:12; 에베소서 4:11-13; 고린도전서 12 장; 시편 84:11.

우리가 받든지 이웃이 받든지 하나님의 섭리적 분배는 주의 깊게 관찰되어야 한다, 시편 107:43; 호세아 14:9; 시편 111:2; 143:5; 145:5, 7; 77:5, 10-11; 이사야 5:12; 63:7.

1. 그것들이 우리의 영혼 상태와 어떻게 시기에 맞게 조응하는지, 시편 126:1; 혹은 우리의 환경과 어떻게 일치하는지, 시편 94:18; 욥기 20:23; 29:18.

2. 그것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시편 130:6; 누가복음 1:66;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복음 2:19, 51; 호세아 6:3; 어떻게 방향을 바꾸거나 전환되는지, 스가랴 14:7; 창세기 41:14; 에스더 6:3-4; 창세기 21:17.—그리고 어떻게 끝나는지, 야고보서 5:11; 욥기 42:10, 12.

3. 그것들이 어떻게 달콤한 것과 쓴 것, 어두운 것과 명백한 것이 혼합되어 있는지, 예레미야애가 3:22, 32; 이사야 27:8-9; 하박국 3:2.

4.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지, 욥기 1-2 장; 42 장; 요한복음 16:33; 전도서 7:14.

5. 그것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미가 6:8-9; 시편 73:16-17; 예레미야 7:7.

6. 그것들이 성경 교리와, 시편 48:8; 고린도전서 1:26; 예레미야 17:9; 마태복음 22:14; 성경 예언과, 디모데전서 1:18; 야모스 3:7; 성경 약속과, 여호수아 21:45; 시편 119:65; 창세기 8:22; 마가복음 10:29-30; 출애굽기 20:24; 잠언 10:9; 16:7; 성경 경고들과, 레위기 10:3; 호세아 7:12; 미가 4:11-12; 사무엘상 2:30; 신명기 32:35; 그리고 성경 본보기와, 시편 143:5; 예레미야 12:1-2; 시편 92:6-7; 전도서 8:14; 고린도전서 4:9; 창세기 47:9 이 조화되는지,—또 그것들이 각 부분과 형태, 목적에 따라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지, 고린도전서 10:13; 베드로전서 4:12; 전도서 1:9-11; 혹은 특정하거나 공통적인 목적과, 신명기 32:4; 전도서 3:11; 로마서 8:28; 성도의 기도와, 창세기 32:24-26; 33:10; 역대상 4:10; 시편 18:4-50; 34:1-6; 116:1-6; 41:11; 미가 7:7-10; 에스겔 36:37; 창세기 24:45; 고린도후서 12:8-9; 시편 65:5; 출애굽기 17:11; 로마서 8:26-27; 다니엘 9-10 장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또 그것들이 징계하는 죄악과 어떻게 시간상, 종류상, 유사성이나 대조성 면에서 대응하는지, 열왕기상 13:4; 사사기 1:7; 창세기 19:24; 레위기 10:1-2; 고린도전서 11:30; 창세기 3:5-6; 시편 49:20; 창세기 30:1; 35:16-19; 27:1, 6-24; 29:23; 요한복음 11:48; 누가복음 19:43-44; 21:24.

## 반성

이처럼 창조와 섭리의 광대한 분야를 두루 살피며 나의 영혼이여 생각하라! 나와 내 주위의 모든 존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끊임없이 그에게 의해 보존되고 통치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렇다면 어찌 나는 스스로를 늘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소로 여기지 않고, 모든 곳을 그의 거처로 여기지 않는가? 어찌 나는 모든 사물 속에서 늘 하나님을 인지하지 않으며, 만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누리지 않는가? 어찌 나는 내 모든 근심과 온 교회의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가? 어찌 나는 모든 사건을 내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내 죄에 대한 그분의 미움의 증거로 여기지 않는가? 어찌 여호와께서 만드시고 유지하며 다스리시는 만물을 천하게 여기느냐? 아, 그분의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지혜여! 전능하신 능력과 놀라운 은혜여! 언약을 오래 기억하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이여! 이 모든 피조물이 그의 영광과 내 유익을 위해 하나 되어 작용하도록! 아, 한 피조물을 내 죄된 욕망의 노리개로 삼는 참혹한 죄책이여!

## 제3권

###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종교적 연합의 언약적 유대에 관하여

#### 행위 언약의 체결, 위반, 그리고 그 파멸적 결과에 관하여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순종을 기쁨으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줄곧 그들과 언약적 연합의 형식으로 섭리하셨다. 히브리어 '베리트(berith)'는 일반적으로 제정을 의미하므로, 하나님과 낮과 밤 사이의 언약(예레미야 33:25)도 언급된다. 그리스어 '디아테케(diatheke)'도, 특히 약정이나 유언에 의한 제정을 뜻한다(히브리서 7:22; 9:15).—실제적인 일반 언약은 특정 조건 하에서 다른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는 합의이다.—필수 요소는 당사자, 조건, 약속, 그리고 어느 한 쪽이 불완전할 경우의 벌칙이다.—하나님이 인류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체결하신 언약은 두 가지, 행위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이다(갈라디아서 4:24; 로마서 3:27; 갈라디아서 2:21; 5:4; 로마서 6:14; 8:2; 빌립보서 3:19 등).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당사자는 그 조건을 자유롭게 거부하거나 인간 동등자들처럼 조건을 제안할 수 없다. 무한히 지혜롭고 거룩하며 선하고 주권적인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제안하는 조건은 완전한 순수성과 일치하여 거부될 수 없다.—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는 제시된 어떤 조건도 거부할 수 없었다. 하나님 아들이로서 거부할 수 없었으며, 아버지의 뜻과 동일했기 때문이다.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무한 권위를 거스르는 것은 불순종이며, 그의 인성도 신성과 긴밀히 연합해 있었기에 조건을 거부하면 죄가 된다.—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이 제안한 조건을 감히 거부하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이 성립되지 않고 단지 법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도 어떤 언약도 맺을 수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된다.—만일 아버지가 아들의 전적 순종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특정 보상을 위해 특정 봉사를 요구하면서 그 봉사 수행에 필요한 양식, 의복, 도구를 제공한다면 아들은 합법적으로 그 조건을 거부할 수 없다. 봉사가 완수되면 아버지는 약속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명백한 현실적 언약이다. 이 이해를 현재 논점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무죄한 아담과 실제적인 언약을 체결하셨음이 충분히 명백하다.

1. 하나님과 아담 간의 거래에는 언약의 필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적법한 당사자들, 적절하고 실질적인 조건, 조건, 약속, 그리고 아담이 불완전하므로 위반 시의 벌칙과 적절한 인장(이는 추후 더 상세히 드러날 것이다), 창세기 2:17; 3:22.
2. 이 거래는 성경에서 명확히 ‘언약’이라고 불린다(갈라디아서 4:24). 여기 두 가지 언약이 있는데 하나는 행위 언약의 파기로 인한 두려운 속박의 언약이며(고린도전서 15:56; 갈라디아서 3:10, 13), 다른 하나는 영적이며 영원한 자유를 가져오는 은혜의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은 분명 구속적 언약으로서 아담 타락 직후 공표되었으며, 앞선 행위 언약의 위반을 전제로 한다(창세기 3:15, 22; 로마서 5:12-21).

호세아서 6:7 에도 이 아담과의 언약이 언급되는데 ‘케아담’이란 단어는 다른 두 군데밖에 등장하지 않는다. 욥기 31:34 에서는 우리 번역에 따라 아담으로 번역되며, 시편 82:7 에서 비슷한 번역을 쓰면 “너희는 한때 존귀했으나 곧 파멸당한 아담 같이 죽으리라”는 구절이 훨씬 강력해진다. 다만 호세아서에서는 이 구절이 다소 평이하게 번역되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아담과 같이 언약을 범하였다”고 번역된다면, 즉 가장 엄숙하고 사로잡는 방식으로 나타난 최고의 권위에 반역하였으며,—가장 강력한 동기 앞에서,—가장 엄숙한 약속을 어기고,—가장 명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가장 사소한 유혹에 넘어가 자신과 후손의 파멸을 초래하였다면,—얼마나 긴장감 넘치고 인상적인가!

3.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으시려는 무한한 선하심이 그를 이끄심으로, 아담에게 긍정적인 명령을 제시하시고 그 명령을 어긴 데에 가장 무서운 죽음을 부과하신 것은, 자연스럽게 그의 순종에 대한 상을 부과하심을 함축한다. 이는 언약 계약의 현실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이다(창 2:17).

4.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들과 맺으신 언약을 확립하거나 확증하는 가시적인 표를 덧붙이신 것을 관찰할 때—예컨대 노아와 맺은 구원의 언약에 무지개 인장, 아브라함과 맺은 특별한 우정과 가나안 약속의 언약에 할례의 인장,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특별한 입양 언약에 유월절과 제사의 인장, 그리고 복음 시대 새 언약 경륜에 세례와 주의 만찬의 인장—우리는 자연스럽게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아담과의 언약 거래에 덧붙여진 인장으로 보게 된다. 전자는 그가 영원한 행복을

시험받고 있음을 나타내며, 후자는 그가 요구된 순종을 완수할 경우 그가 누리던 것보다 더 완벽한 생명과 행복을 얻으리라는 점을 시사한다.

5. 창조 상태의 아담에게 부과된 율법은 반복적으로 언약의 형태로 선포되었으며(레 18:5; 신 27:26; 마 19:17; 갈 3:12; 롬 10:5), 완전한 순종이 이루어진다면 자랑할 수 있는 율법으로 나타난다. 이는 복음에서 드러난 믿음의 율법 또는 은혜의 언약과 정반대되는 것으로—오직 그 언약 형식에서만 그러하다(롬 3:27).

6. 하나님께서 아담과 실제적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가장 명확히 증명하는 것은 그의 첫 죄가 모든 자연적 후손에게 전가되는 사실이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의 보증적 의로움이 그의 모든 영적 자손에게 전가되는 것과 같다(롬 5:12-21; 고전 15:22). 아담이 그들의 자연적 아버지 또는 뿌리라는 사실이 이 전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조상 셋을 낳기 전 그의 모든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단 한 범죄로 죄인으로 지음 받았다(롬 5:18). 게다가 부모 관계가 자녀에게 행위를 전가하는 뜻이라면, 우리 조상 특히 직계 부모의 모든 죄뿐 아니라 선행도 우리에게 전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인으로 규정되었으며 아담 안에서 죽었다(롬 5:19; 고전 15:21-22).

## 언약 계약 당사자

이 언약에 계약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 I.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

인간의 창조주이며 주권자, 소유주, 통치자로 간주된다. 그가 제한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절대적이고 제한 없는 권위를 지닌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단순한 뜻을 법으로 제정하여 최고 형벌을 받게 하고, 원할 때 영생을 분배하는 분.

2. 완전히 거룩하고 행복하게 새로 창조한 아담과 그와 모든 후손이 영원히 더 행복해지도록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지극한 선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

3. 자신의 피조물과 언약을 맺고, 단순한 권위로 요구할 수도 있었던 순종을 언약으로 요구하는 무한한 겸손의 하나님.

## II. 아담

아담은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1. 완전하게 거룩하고 의로운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어떤 순종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고 기꺼이 수행하는 자(전 7:29; 창 1:27; 5:1; 골 3:10; 엡 4:24). 실제로 친절하고 의로운 하나님이라면 그가 할 수 없게 한 순종은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다(마 25:24; 시 119:68; 86:5,15; 신 32:4).

2. 모든 자연적 후손의 공동 대표자, 즉 보통의 공적 우두머리. 그가 모두의 공통된 조상이라는 사실이 이 언약에서 도덕적 대표자 역할을 하도록 적합하게 한다. 그러므로 평범한 생식으로 그에게서 난 모든 사람[WCF 6.3]과 어쩌면 하와도 그의 대리인이 되었다.

—사실 하와는 개인적 죄로 타락했으나, 이는 언약 조건이 완성되고 확증되며 시험 상태가 끝나기 전에 대표받는 자 중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일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영원 전부터 구속 언약에서 자신의 선출된 자손의 대표자로 세워졌고, 인간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며, 타락 이후의 약속에 따라 성령의 초자연적 영향으로 아담에게서 직접 생식으로 난 것이 아니므로(요 1:14; 시 89:3-4,19-20; 사 7:14; 눅 1:35; 창 3:15), 그 언약에서 그에게 대표될 수 없었다.

아담이 진정으로 모든 자연적 후손을 대표하고 묶여 있었던 것은 명백하다.

1.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여러 대표적 언약에서 부모가 후손을 어떤 면에서 대표했다. 예를 들어 노아(창 9:9), 아브라함(창 17:7-8), 다윗(삼하 7:16), 비느하스(민 25:10-13), 이스라엘 백성(사 59:21)이 있다.

2. 이 문제에서 아담은 그리스도와 유사하다고 표현되며(고전 15:21-22, 45-49; 롬 5:12-21), 그리스도와 그의 영적 자손이 야곱, 이스라엘, 그리스도의 동일 명칭으로 불리듯이, 아담의 후손 역시 히브리어 원문에서 약 430 회 그의 이름으로 불린다.

3. 그리스도의 보증적 의로움이 그의 모든 영적 자손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무한히 의로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어긴 아담의 죄를 모든 자연적 후손의 법적 계좌에, 실제 죄를 따르는 삶을 살지 않더라도 전가하셨다(롬 5:12-19).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오직 그들이 아담의 언약 대리자였기 때문이다.

4. 모든 자연적 후손은 단 한 범죄로 인해 죄인이 되고 법적으로 망하였다(롬 5:17-18).

### 언약의 합리성과 필요성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와 아담 안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자비로운 일이었다.

1. 그것은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짧은 길이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기만 하면, 아마도 짧은 기간 동안, 온 인류에게 행복을 확보할 수 있었다. 반면 각자가 자신에게 책임을 졌다면, 행복은 수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오랫동안 미뤄졌을지 알 수 없다.

2. 이것은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다. 아담은 완전한 성인 상태로 창조되었으며, 온전히 거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수행할 능력과 성향을 지녔고, 사탄이 덜 교활했으며 시험의 기회가 적던 시기에 살았고, 자신과 인류의 행복을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 덕분에 자신의 일에 전념하고 노력하며 인내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완전성을 유지하고 순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자신의 자손 어느 누구보다 높았다.

아담은 인류 중에서 언약의 우두머리이자 모든 자손의 대표자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그가 그들의 공통 조상이므로 모두와 균등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는 어떤 자보다도 완전한 순종을 지속할 강력한 동기와 더 좋은 기회를 누렸다. 결국 무한히 지혜롭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그들의 우두머리로 선택하고, 그들을 대표하는 관계를 언약 은총 제안에 포함하셨으므로, 만약 모든 후손이 현장에 있었다면 누구도 하나님에 대한 죄나 자기 파괴적 어리석음 없이 그 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시 119:68; 창 18:25; 신 32:4; 전 3:14; 7:13).

이 언약은 하나님, 위대한 율법 제정자가 새로 창조한 피조물에게 제안하였기에, 종종 율법 또는 행위의 율법으로 불리지만(롬 7:4; 6:14; 3:27 등), 아담은 이 조건에 반드시 동의하였다.

1. 그는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이성적 피조물이므로, 하나님이 제안하는 어떤 조건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은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

—약속을 바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함을 모독하는 행위였다.

—명령을 즉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의 거룩함을 미워하며 권위에 반항하는 행위였다.

—형벌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었다.

—이 중 어느 것도 완전한 무죄와 공존할 수 없었다.



2.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자기애는 그를 자연스럽게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결국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인도하였다.

3. 아담의 순수한 양심은 이 언약의 전반적 내용이 매우 수용 가능하고 자비롭다는 점을 인지하고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최고의 선으로 삼고 그 외 다른 모든 것 위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해야 하며, 가장 쉬운 조건으로 제시된 하나님을 영원히 누리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창조주의 뜻이자 도덕적 완전함의 변형인 법을 기꺼이 받아들여 자신의 성향과 행위의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멸시하고 거룩한 법을 어길 때 자신의 유죄한 머리를 하나님의 공정한 진노에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제안한 약속과 아담의 수락,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약속의 교환이 바로 이 언약의 성립을 이루었다.

아담의 조건 동의는, 우리의 믿음으로 은혜 언약 조건에 동의하여 우리를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입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를 이 언약에 실제로 입장시켰다.

이 행위언약의 구성 요소는 조건, 약속, 형벌이다.

조건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요구한 것으로, 자신과 후손에게 약속된 상급을 얻을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요구 사항이다.

약속은 하나님이 조건을 완수한 대가로 아담과 모든 자연적 후손에게 영생을 베풀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이다.

형벌은 아담과 그의 자손이 조건을 완전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 하나님이 위협하시고 반드시 집행해야 하는 벌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행위언약의 조건이며, 그 법칙과 내용, 실행 방식이 우리의 연구 대상이다.

## 순종의 법칙에 관하여

순종의 법칙에 관해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창조주이자 보존자, 통치자로서의 하나님과 이성적 피조물인 인간 사이의 자연스러운 관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의 행위를 규제할 뿐 아니라 그의 본성의 도덕적 속성까지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도록 필연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 주요 명령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본성을 기초로 하여, 모든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으로 성향과 행위를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했다.
2. 이 법은 오해 없이 지켜질 수 있도록 인간에게 적절히 알려져야 했다. 이는 언약 형태가 제안되기 전 이미 아담에게 드러났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의 본성과 함께 내재되어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창 1:26-27).
3. 간략히 말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마음과 혼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할 것을 요구하였다(마 22:37-40; 막 12:29-33).

## 언약의 목적과 아담의 복종

이 언약의 목적이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보다 더 행복하게 되게 하는 데 있으므로, 인간이 창조될 때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에 어떤 긍정적인 계명이 더해지는 것이 매우 적합하였다. 특히 온전한 조건의 엄격한 이행을 촉진할 수 있는 계명이어야 했다. — 하나님께서 실제로 규정하신 것은 아담이 에덴 동산 한가운데서 거의 항상 시야에 두고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 명령은 특히 다음과 같은 목적에 적합하게 주어졌다.

1. 하나님이 단지 자신의 뜻을 법으로 제정하실 수 있는 최고의 통치자이심을 나타내어, 아담의 밝혀진 양심이 지시하지 않은 점에서 그의 복종을 시험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 복종을 보여 주려 함이었다.
2. 아담의 복종 여부를 더욱 확연히 하여 하나님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상을 주거나 형벌을 내릴 때 가장 공정하신 분으로 나타나도록 함이었다(시 51:4; 롬 3:3-4,8-18,25-26).
3. 아담이 하나님을 자신의 위대한 주인, 소유주, 토주로 여기며, 낙원에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감히 사과를 건드리지 못하고 자신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 상의해야 함을 나타내려 함이었다.
4. 아담에게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지속해서 상기시키고, 영적 적들을 경계하며 완전한 행복과 안식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즉, 심지어 낙원에서도 즐거운 한 나무의 열매가 그에게 허락되지 않은 부족함이 있었고, 참된 최고 행복은 하나님 자신 안에만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만 무엇인가를 바라고 추구해야 함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5. 그의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의 요약으로서, 이 법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뜻과 온 힘으로 사랑하고, 자신과 자손에게 올바른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언약에서 아담에게 요구된 복종의 내용은 자연법이든 긍정법이든 하나님의 온전한 법을 준수하며, 그 신적 권위를 존중하여 정확히 존재하고 행하는 것이었다.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자신의 본성을 본래의 순수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 이것 없이는 그의 생각과 말과 행동 어느 것 하나도 참되고 온전하며 받아들이기 만하게 행해질 수 없었다(전도서 7:29; 딤후 1:5).
2. 거룩한 본성의 모든 능력을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언약의 법에 합당하게 행사하는 것(레위기 27:26; 갈라디아서 3:10,12).

## 복종의 방식과 조건

복종의 방식에 관하여, 아담의 복종은

1. 원리와 동기에서 완전해야 했으며, 법의 모든 계명에 정확히 부합하고 그의 본성—영혼, 몸, 이해, 양심, 의지, 정동, 기억의 모든 부분과 능력—에 맞아야 했다(누가복음 10:27-28). 행위의 내용과 방식, 수단과 목적 면에서도, 그리고 정도 면에서도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야 했다(마태복음 22:37,39; 마가복음 12:29-33).
2. 하나님이 언약 형태로 규정한 법 아래에서 해방시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했다(갈라디아서 3:10; 에스겔 18:24). 복종의 과정을 완수하기 전에는 약속된 상에 대한 법적 청구권이 없었으며,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한 시련 상태에 있었다(갈라디아서 3:12). 이 상태가 영원할 수는 없었는데, 그렇다면 복종의 마지막에 모든 상을 배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그를 이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와 그의 자손을 신자의 상태에 어느 정도 유사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법에 대하여 죽은 자의 상태와 같이 법 아래 두실지—금지된 나무의 열매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인지, 첫 자녀를 얻었을 때인지, 만아가 스스로 행위할 능력이 되었을 때인지—우리는 알지 못한다.
3. 복종은 인격적이어야 했다. 즉 모든 인류가 각각 자신을 위하여 복종하여 각자의 약속된 상에 대한 권리를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만일 아담의 불순종으로 그의 자연적 자손들에게 사망이 내렸다면(롬 5:12-14), 그들은 아직 죄를 짓기 전이라도 언약의 법에 대한 아담의 순종으로 영생을 받았을 것이고, 그 영생은 그들 자신에게 행복한 특권이자 거룩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상태였을 것이다. 그러나 복종은 담보자가 아니라 각 개인이 스스로 행하여 시작하고 완성해야 하는 인격적 행위여야 했다.
4. 복종은 언약 형태로 행해져야 했다. 즉, 아담이 법을 이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 권위 아래 강제로 부과된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이 직접 언약을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된 상을 받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었다. 만약 그렇게 언약을 인식하지 않고 복종했다면, 그는 하나님이 은혜로 세우신 이 법규 전체를 경멸한 것이었다(삿 11:35; 시 119:106; 시 50:14; 민수기 30).

하나님 약속에 의한 생명의 상이 아담의 복종 이행에 부가되었다. 불복종 시 죽음의 위협은 특히 긍정적 계명 위반에 부가된 것으로, 아담이 복종하는 한 생명을 잃을 이유가 전혀 없음을 내포하며, 만일 복종을 지속한다면 죽음과 균형을 이룰 만한 큰 보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시사했다. — 가인의 수용과 정죄에 관한 하나님의 선언과 선악 행위에 따라 심판이 매달려 있는 것, 그리고 인간에게 재발표된 모든 언약들은 완전한 복종에 대한 상의 약속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다(창 4:7; 레 18:5; 느 9:29; 겔 20:11; 마 19:17; 롬 10:5; 롬 2:7,10; 갈 3:12).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의 법을 인생의 규칙으로 불완전하게나마 순종하는 이들에게도 은혜로운 상을 부가하셨다(시 19:11; 고전 15:58; 히 11:6,26). 더불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상으로 보응하시리라는 믿음을 지녔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 언약 생명의 약속

하나님께서 아담이 언약 조건을 이행할 때 약속하신 생명은 다음을 포함하였다.

### 1. 그가 종속적 복종 과정 동안 가진 생명의 계속. 즉,

1) 생명의 물질적 존속인데, 아담의 몸에는 죽음의 본질적인 원리가 없었고, 언약의 법에 대한 계속된 복종이 죽음을 배제했다. 엄격하게 따지면 쇠약이나 쇠퇴 없이 지속되었으며, 비록 노동과 음식과 휴식을 필요로 했으나 무엇 하나 쓴맛 없이 오히려 모든 것이 즐거움을 더했다(롬 10:5; 갈 3:12; 레 18:5; 신 4:40).

2) 반영하는 영적 생명이 지속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그의 영혼 위에 완전하게 머물렀으며, 하나님의 은총과 친절함이 계속되었고, 그 상태에 적합한 모든 예식 가운데서 숨김이나 핑그림 없이 하나님과 인격적 친밀함을 누렸으며, 과거를 양심의 기쁨으로 회상하고 영원한 상을 향한 끊임없는 접근을 유지했다(고후 1:12; 딤후 4:7-8).

### 2. 종속적 복종을 마친 후에는 더 완전한 생명의 즐거움이 기다렸는데,

- 1) 아담과 그의 자손의 몸이 자연적 죽음과 그 어떤 형태나 정도의 접근으로부터 봉인되고 보호되었으며,
- 2)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완전한 자신과의 일치 상태로 불변하게 하셨고,
- 3) 그들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호의 상태에 불변하게 고정되어 법을 규칙으로 하는 명예로운 주체가 되었으며,
- 4) 영혼과 몸의 결합에 어떠한 결함도 없이 하나님이 정한 때에 둘 다 천국으로 옮겨져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즉시 누리며 영원히 복되게 되었다. 거기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자들이 누리는 생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였다.

1. 이성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자손에게 그가 누린 행복보다 더 나은 것을 약속하시며, 그의 종의 상태 후에는 분명히 상의 상태가 올 것임을 암시한다. 에덴 동산이 주로 그의 몸의 잠정적 행복을 증진하도록 설계된 것이므로, 미래의 행복은 그의 고귀한 영혼 본성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2. 단지 긍정적 계명 하나 위반에 처음 부과된 영원한 죽음의 형벌이 지옥에서 시행되는 점은 상의 약속이 천국에서의 영생을 포함함을 강력히 시사한다(마 25:46; 롬 6:23).

3. 우리 구주께서도 천국에서의 영생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에 부가된다고 명백히 가르치셨다(마 19:17).
4. 법과 완전한 순종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누리는 생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롬 10:5; 합 2:4; 롬 1:17; 갈 3:11-12).
5.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법이 줄 수 없었던 영생을 사람들 대신에 사셨다(롬 8:3-4; 갈 3:21; 갈 2:21). 이 법은 원래 천국에서 영생을 부여하는 도구로 정해졌으며, 지상에서 잠정적이고 영적인 생명도 부여하도록 되어 있었다(롬 7:10; 마 19:17).
6. 성경이 이제는 법의 행위들로는 칭의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나, 이는 전적으로 인간이 과거 범한 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여전히 요구되는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다른 원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롬 8:3; 롬 3:19-20; 갈 3:21).
7. 생명나무가 이 언약의 인장으로 첨가된 것은 약속된 상에 더 완전한 생명이 들어 있음을 희미하게나마 드러낸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조건을 충족하는 아담에게 매달린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는 생명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열등했을 것이다.

- 1) 어떠한 죄, 슬픔, 두려움, 고통의 이전 경험으로 달콤해지지 않았을 것이다.
- 2) 우리 본성 가운데 중보자로서 항상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리 한복판에 머무르지 않았을 것이다.
- 3) 우리의 행복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확증되지 않았고, 그들의 특허권이 그의 피로 맺은 새 언약도 아니었다.
- 4) 구속 사역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완전함의 기쁜 표현이 없었을 것이다.
- 5) 하나님과 피조물로서 종과 친구와 자녀로 살았으나, 그분의 구속된 심령의 사랑하는 형제자매이자 신부로서의 지위는 없었다.

#### 복종과 보상의 근거

이 생명의 상과 아담의 복종의 관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므로, 그의 복종 전체는 어떤 보상과 무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었다. 더구나 유한한 피조물의 일시적 복종과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 모든 후손들의 영원한 누림 사이에는 무한한 불균형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보상이 복종과 연결된 전체 관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관대하심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은 아담 자신에게 직접 빚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적 선하심과 약속에 서약한 신실하심에 빚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이 보상의 수여가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선하심에서 비롯한 것인지 단순히 주권적 의지에서 나온 것인지 판단할 수 없다. — 한편으로, 하나님은 아담이 정한 어떠한 완전한 복종 과정을 마치는 즉시에도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실 것임은 명백하다. 완전한 거룩의 과정이 반드시 따르는 보상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대하심을 완전히 드러냈을 것이다(시 19:11; 고후 1:12).

그러나 반면에, 인간은 최고의 선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간절히 열망하는 상태로 창조되었음이 확실하며, 그의 거룩함이나 하나님에 대한 열망에 비례하여 소멸은 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나는 죄가 개입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욕구를 형성하면서도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 상태를 상상할 수 없으며, 또한 하나님이 바로 그 영혼이 자신을 향해 열렬한 욕구와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 소멸시키는 것도 상상할 수 없다. 하나님은 거룩한 피조물을 사랑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 무한한 사랑이 이 거룩하고 사랑받는 피조물에게 자신을 누리기를 바라던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상상하지 못하며, 또한 그의 사랑을 행하는 그 피조물을 그 최고 수준의 거룩함과 사랑을 간절히 추구하는 바로 그 행위 중에 소멸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죽음은 행위 언약에서 위협된 형벌이었다(창 2:17). 만일 죽음이 긍정적 명령 하나라도 위반한 데 부가되었다면, 더욱이 인간 마음에 새겨진 자연법을 위반하는 데 부가되지 않을 수 없었다(롬 6:23; 겔 18:4; 롬 2:8-9; 사 3:11; 요일 3:4). 위협의 강조된 표현인 “죽을지니라”는 그 죽음의 필연적 확실성, 형언할 수 없는 심각성, 두려운 본질을 내포하였다(창 2:17). 일반적으로 그 죽음은 다음과 같다.

1. 법적 죽음으로,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위반자의 머리 위에 구름처럼 드리워 있고,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죽음의 올가미가 단단히 묶여 그에게 곧바로 임하는 저주이자 법률 위반에 따른 판결을 의미한다(갈 3:10; 요 3:18,36).
2. 실제적 죽음으로, 이는 죄를 범하는 첫 순간부터 그 저주받는 판결이 실제로 집행되는 것을 뜻한다.

#### 세분된 죽음의 유형

이를 다시 세분하면,

1) 영적 죽음. 죄와 그로 인한 저주가 인간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우호와 교제에서 분리시키므로 인간은 필연적으로 허물과 죄 가운데 죽게 된다(사 59:2; 엡 2:1). 아담의 첫 죄 행위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① 영혼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되고 그 자리에 무지, 교만, 허영, 거짓과 속임수에 취악한 태도 등 모든 형태의 죄악된 부패가 잇따르며(창 1:26-27; 롬 1:28-31; 롬 3:10-18; 롬 8:7-8; 롬 7:8,24; 롬 17:9; 마 15:19; 막 7:21-23; 딤후 3:3; 창 6:5; 창 8:21),

이해력에는 무지와 교만, 허영, 거짓과 속임수에 취악함이 있고,

양심에는 맹목, 둔감, 편견, 무질서가 있으며,

의지에는 선에 대한 약함, 악에 대한 경향, 완고함,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자기 계시, 말씀, 예배, 백성, 그리고 그의 형상을 지닌 모든 것에 대한 적대감이 있으며,

정동에는 대상과 정도에 대한 속세적이고 무질서한 경향이 있고,

기억에는 모든 선한 것을 배반적으로 잊어버리면서 사소하고 죄된 것을 집요하게 붙잡는 경향이 있다.

② 하나님과의 모든 우정과 교제의 완전한 단절과 그 대신 정기적인 분노, 진노, 혐오, 은폐, 꾸밈음이 잇따른다(시 5:4-6; 엡 2:3,12).



영적 죽음의 진행에서는,

① 죄된 욕망이 점점 강해지고 죽은 행위의 수와 심각성이 증가한다(딤후 3:13).

② 하나님께서 의로이 내리시는 진노가 영혼에 수많은 두려운 치명적인 고통으로 나타나는데, 일부는 슬픔, 고난, 불안, 괴로움, 공포, 절망으로 체감되며, 다른 일부는 마음의 사법적 맹목, 마음의 완고함, 양심의 무감각, 심한 미혹, 버림받은 정신, 타락한 정동, 사탄의 노예 상태 등으로 체감되지 않는다(고후 7:10; 마 27:3-4; 창 4:14; 신 28:65-67; 렘 20:4; 눅 21:26; 사 33:14; 잠 18:14; 사 17:11; 히 10:26-31; 엡 4:18; 고후 4:3-4; 고후 3:14; 사 63:17; 사 42:25; 딤후 4:2; 롬 11:8; 사 66:4; 살후 2:9-12; 시 81:12; 롬 1:26-31; 딤후 1:15-16; 딤후 3:8; 시 109:6).

2) 자연적 또는 시간적 죽음은,

① 죄인의 자신의 몸속에서 내적인 것인데, 죄를 처음 범하던 순간 인간은 자신의 구성체 중에 죽음을 가지게 되었고, 죽음에 종속되었으며 그 씨앗이 심어졌다. 공포와 불안이 그의 혈액과 생명력에 치명적인 움직임을 일으켰다(창 2:17; 창 3:16,19). 이 죽음은 여러 병들로 진행된 것이며(전 3:20; 창 3:19; 신 28:22,28-29; 마 4:24), 저주 아래에서 영혼과 몸의 분리로 완성된다(창 3:19; 렘 34:18).

② 외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인간의 자연 생명이나 건강에 의존하는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친다(호 2:21-22). 이는 인간 죄의 결과로 하위 창조물의 비이성적 부분이 부패의 노예가 된 것으로 시작되었다(롬 8:22). 이로 인해 동물들은 서로 그리고 특히 사람에게 적대하며, 들판은 불모화되고, 공기는 전염병 가스로 오염되며, 바다는 폭풍에 휘몰아치고, 바람은 차갑고 거칠며 폭풍우 치는데, 모두가 인간 죽음을 촉진하도록 적절히 조정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 대홍수 이후 땅이 훨씬 불건강해졌고, 공기의 오염이 심화되었으며 인생은 단축되었다. 또한 땅은 지진과 화산으로 더욱 황폐해졌다. 인간 수명은 과거의 약 14 분의 1 로 줄어들었다(시 107:33-35; 시 90:7-10; 시 102:26). 이것은 이 하위 세계의 현재 구조가 해체되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로 녹으며 땅과 그 안의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질 때 완성될 것이다(시 102:26; 벧후 3:10).

3) 영원한 죽음은 자연적 죽음과 영적 죽음이 결합된 것으로, 형벌이 가장 극단에 이르러 두 번째 죽음이라 불린다(계 20:6,14). 이 죽음은 행위 언약의 형벌 규정에서 나오며, 모든 좋은 것이나 기쁜 것, 땅과 하늘과 신성을 막론하고 완전히 상실하고(눅 12:20; 계 21:8; 계 22:15; 마 25:41), 죄에 대한 무한한 만족이 이루어질 때까지 영혼과 몸에 가장 끔찍한 고통이 끊임없이 지속된다(마 25:41; 막 9:49; 계 14:10-11; 시 90:11; 눅 12:58-59). 한정되고 죄 있는 피조물 위에 임하는 이 죽음은 하나님의 형상과 은혜를 회복할 수 없으며(호 9:12; 시 77:7-9; 히 10:26-27), 끊임없는 구원 절망과 가증한 정동들(교만, 시기, 악의 등)의 완전한 지배하에 놓이는 상태를 포함한다(막 9:44-45,48-49; 계 16:10-11,21; 살후 1:7-9; 계 14:9-11; 마 25:41,46; 사 33:14).

이 행위 언약의 깨어짐에 따른 형벌은 하나님의 자연적 완전성으로부터 나오며, 단지 언약 체결이라는 하나님의 임의적 행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1. 언약자 하나님 자신의 위엄이 무한하므로, 언약 법에 대한 모든 불순종 행위는 무한한 존엄성과 선하심에 대한 반역이며, 무한한 권위에 대한 경멸과 반란이자 무한히 소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무한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 죄는 객관적으로 무한하므로, 그 죄책을 상쇄하거나 그 오염을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피뿐이며, 따라서 그 형벌은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엘 카네(EI Kane),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해치는 자에게 분노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범죄자에게 반드시 보복하셔야 한다. 죄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짓밟으며 자신을 하나님에 대적하는 왕좌에 앉히려 할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위엄을 숨기지 못하시며, 온 땅이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야 한다(출 20:5; 사 51:4; 사 5:16; 민 14:21).

2. 하나님의 본성의 거룩함이 죄에 이러한 형벌을 부과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님이 무한히 거룩하시므로, 죄로 더럽혀지고 노예가 된 인간을 자기와 교제하게 할 수 없고, 또한 자신의 저주가 임한 자들에게 거룩한 본성을 부여하여 자격을 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영혼에게 가증한 것을 기쁘게 보지 아니하시며, 그 가증함이 사랑받고 다스리는 자를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시 5:4-5; 시 11:6-7; 합 1:12-13; 렘 44:4; 잠 16:5; 잠 6:16; 속 11:8).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과 정반대인 죄를 무시하지 못하시며(시 50:21), 죄에 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다(레 10:3; 겔 38:16; 사 5:16; 수 24:19).

3. 이미 증명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그가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함을 포함하며, 하나님은 영원히 각자에게 그에 합당한 상을 자신에게 직접 주거나 그 대리자 및 보증자를 통해 주시지 않고서는 의로울 수 없다(롬 1:32; 롬 2:2; 뱀 5:5,7,9; 창 18:25; 시 11:6-7). 하나님의 심판이 '이질적인 행위'나 '이상한 일'이라 불리는 것은 그분의 선하고 자비로운 본성에 반해서가 아니라, 지상에서 자비로운 섭리보다 훨씬 덜 자주 나타나기 때문이다(사 28:21). 하나님은 피조물의 죽음이나 비참을 본질적으로 기뻐하지 않으나(겔 33:11; 겔 18:32; 애 3:33; 호 11:8), 자신의 완전성을 변증하는 것으로 그것을 기뻐하며(신 32:35-36,41-43; 사 1:24; 호 10:10), 그것으로 스스로를 새롭게 하신다(암 5:9).

## 언약의 인장과 파기

이 언약의 인장은 약속과 위협을 확증하는 표지였는데,

1.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순종과 불순종을 시험하기 위해 세우셨고,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인간은 잃어버린 선과 범한 악을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 이는 노아 언약의 무지개 인장처럼 단지 바라볼 수 있었으며, 언약 법을 지키면 영원한 행복을, 어기면 무한한 비참을 확증하였다(창 2:17).

2. 생명나무의 열매는 아마도 인간의 육체를 강화시켰으나 확실히 언약 조건 이행의 효과로서 영원한 생명의 징표였다(창 3:22; 창 2:9). 그래서 하늘에서 누리는 그리스도는 이 이름으로 불린다(계 2:7; 계 22:2).

마음이나 삶에서 불순종이나 언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법의 위반을 제외하고는 어떤 것도 이 언약을 깰 수 없었다(요일 3:4; 롬 4:15; 롬 5:13).

그러나 이미 이 언약이 깨졌음은 명백하다.

1. 수많은 형태의 죄가 온 세상에 만연하여 지배하고 있다(창 6:5; 창 8:21; 창 13:13; 왕하 17:7-23; 시 14:1-4; 시 53:1-4; 사 59:1-15; 사 5:5-23; 미 7:1-5; 마 15:19; 막 7:21-23; 롬 1:28-32; 롬 3:10-18; 고전 6:9-10; 갈 5:19-21; 엡 2:1-3,12; 엡 4:17-19; 엡 5:5-6; 빌 3:18-19; 딤후 3:3; 벧후 2; 계 17).
2.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빛과 범죄의 죄수이다(사 42:6-7; 사 61:1-2; 욥 9:11-12).
3. 모든 인간은 언약 파기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롬 1:31; 시 78:10,37,57; 사 48:8).
4. 이 세상은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를 갖고 있다(롬 1:18; 창 7; 창 19; 출 7-14; 수 6-12; 사 1; 사 24; 사 34; 렘 1-52; 눅 19; 눅 21; 마 24; 계 6-20).
5.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새로운 구속 언약이 있다(사 42:6-7; 사 49:1-12; 사 53:10-12; 렘 31:33-34; 히 8:10-12; 시 40:6-8; 시 89:3-4; 창 3:15; 창 17:7).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이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깨졌고, 그 죄 안에서

1. 그는 위협과 그에 연관된 하나님의 완전성과 진실성을 의심하였다.
2. 의식이 어두워지고 정동과 의지가 그 열매에 대한 욕망을 품어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상상하였다.
- 3.

그는 그 열매를 실제로 취하여 먹음으로써 그의 범죄를 완성하였다(창 3:3-6). — 그의 이 첫 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한다.

1. 끔찍한 불신(불신앙), 즉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하나님에 반하여 믿어졌다는 것(요일 5:10; 창 2:17; 창 3:4-6).
2. 교만, 야망, 대담하고 건방진 호기심(창 3:5; 사 14:13-14). 우리의 첫 조상들은 낙원에 있었고 이 하층 세계의 주인이었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알고 누렸으나 모든 것의 지식과 향유를 탐했다.
3. 충격적인 배은망덕과 불만족. 그들은 유용하거나 즐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마귀들의 질투 대상이었고, 천사들의 동료였으며, 동물들과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었지만 단 하나의 나무만은 제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자 은혜의 주인께 그 자신만을 위한 작은 소유물을 인색히 여겼다(창 2:7, 25; 창 3:5, 8).
4. 하나님에 대한 경멸적 배신과 공개적인 반역. 그들은 하나님의 우정의 언약을 버리고, 그의 모든 권위에 굴복하거나 의존함을 공식적으로 부인하였다(시 2:3; 창 2:16-17; 창 3:3-6).
5. 하나님의 전체 율법이 이 한 행위에서 깨졌다. 그 율법의 근본인 하나님의 권위가 짓밟혔으며, 그 율법의 완성인 사랑은 무시되었고 적대감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도덕 율법을 요약하고 보호하는 긍정적 명령이 경멸받고 명시적으로 위반되었다. 더 나아가 이 죄 현상 안에서 도덕 율법의 개별 명령 각각이 여러 면에서 어겨졌다.

### 아담의 첫 죄의 가중 요소

아담의 첫 죄, 즉 언약을 깬 죄는 매우 가중되었다.

1. 하나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되어 완벽하게 거룩하고 의로웠으며 그렇게 계속할 능력이 있는 자가 범한 죄다(창 1:26-27; 창 5:1; 전 7:29).
2. 아담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던 중요치 않은 열매에 의해 유발되었다(삼하 12:1-14).
3. 하나님이 자신의 봉사에 특별히 따로 떼어 놓은 것을 침해함으로써 신성모독적 강탈이 되었다(말 3:9).
4. 모든 즐거움과 복종에 대한 매력이 있었던 낙원에서 저질러졌으며,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처럼 거주하시고 모든 것이 인류에 대한 무한한 친절을 선포했던 곳이었다(신 32:15; 호 13:6).
5. 창조된 날 또는 그 직후에 저질러졌다(시 49:12).

6. 단 하나의 미미한 유혹만으로 저질러졌다(창 3:3-6).
7.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과 가장 명확한 위험 경고에 반하여 저질러졌다(창 2:17).
8.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직후 거의 즉시 저질러졌다.

## 아담의 첫 죄와 의지 자유

아담의 이 첫 죄에서,

I.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의지 자유(freedom of will)에 맡기셨다. 이 의지 자유는 하나님, 거룩한 천사들, 영광 받은 성도들이 가진 불변하지만 자발적인 선의의 부착과 같지 않았으며, 믿는 이들이 가진 것처럼 마음 안의 한 원리가 선에 기울고 다른 원리가 악에 기울어 있다는 것도 아니었고, 악마나 악한 인간이 가진 불변한 악에 대한 기울임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선과 악에 대해 동등한 기울임도 아니었다. 인간은 올바르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전 7:29; 창 1:26-27; 창 5:1). 그러나 자유 의지는 그가 선을 향해 기울어 있으나 악으로 유혹받을 수 있음을 뜻했다. 하나님은 그를 완전한 거룩함으로 창조하였고, 자연법과 긍정법 모두를 지키며 모든 유혹을 이길 능력을 주셨다. 그는 완전히 선한 것에만 기울어진 마음을 받았으나 그것은 변화 가능했으며, 오직 그 자신의 의지와 행위에 의해서만 변화할 수 있었다. 본디 거룩함과 선함에서의 불변은 신성의 고유 특성이기에 아담에게는 그 특성을 부여할 수 없었다(말 3:6; 시 102:26-27; 약 1:17). 은혜의 행위로 확립된 천사나 영광 받은 성도들처럼 거룩함에서 불변하도록 만드는 것은 그와 맺은 언약의 정신과 어긋났으며, 그를 종의 신분과 존귀한 상의 신분으로 혼동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아담은 실제로 변화 가능했으며, 하나님은 그를 강제하거나 유혹하거나 변화를 향해 기울이지 않고, 오직 그를 온전히 자신의 의지 자유에 맡겨 그 스스로만이 자신 의지와 선택을 선에서 악으로 바꿀 수 있었다.

## 사탄의 교묘한 유혹

II. 사탄은 매우 교묘하게 그를 악으로 유혹했다.

1. 그는 유혹의 도구로 뱀 형상을 한 미묘하고 단순한 생물을 선택했는데, 어쩌면 천사로 오해받을 만큼 아름답기도 했다. 또한 인류를 정복한 승리를 표시하려 뱀을 숭배하는 수많은 종족들이 오늘날까지 존재하도록 만들었다.
2. 남편이 없는 틈을 타, 아마 언약 조건을 아담에게서만 들었던 이브를 유혹했다.

3. 그는 지식의 나무 열매 금지에 관한 의문을 모호하게 제기하여, “하나님이 정말 그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가?”, “그렇게 훌륭한 열매를 금지한 이는 참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혹은 “그런 금지는 가혹한 주인의 행위인가?”라는 뜻인지 구분되기 어렵게 만들었다.
4.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자, 그는 경고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들려 애썼다.
5. 그는 지식과 행복을 증진하려는 것처럼 가장하며 나무의 이름과 모습을 이용하여 유혹을 강화했다.
6. 아마도 그는 자신도 그 열매를 먹음으로써 다른 짐승들보다 뛰어난 지식을 얻었다고 가장했으나, 확실히 하나님의 경고에 명백히 반하는 주장을 엄숙한 호소로 삼아 그 열매의 유용성을 강조했다.
7. 이브를 유혹하는 데 성공하자, 그녀를 통해 아담을 유혹했다. 아담은 그녀가 열매를 먹고 즉시 죽지 않는 것을 보고 더 쉽게 속았음이 분명하다.

#### 아담의 자유 의지와 죄의 결과

III.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의지 자유에 맡기셨기에, 아담은 그것을 남용하여 사탄의 유혹에 굴복했다. — 이 굴복은 전적으로 그의 고유한 행위였다. 하나님께서 그가 유혹을 이기도록 실제로 도우시는 은혜를 충분히 주지는 않았지만, 올바르게 사용했다라면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을 만큼의 은혜는 주셨다. 무한히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은 죄짓도록 그를 강요하거나 기우이거나 유혹하지 않으셨다. 그의 의지는 완전히 그 자신의 지배 아래 있었기에, 사탄이나 이브도 그를 강제로 죄 짓게 할 수 없었다.

#### 언약 파기의 다면성

아담의 이 한 죄로 언약의 행위가 여러 면에서 파기되었다.

I. 언약 율법이 모든 부분에서 완전하게 범죄되었으며, 이는 인간 본성과 행위의 죄성에 관한 것이다(창 3:11; 창 2:17; 요일 3:4; 마 19:17). 아담이 우리 언약의 머리로서 범죄했기에, 그의 죄 자체가 그 결함과 법적 형벌을 정당화하는 죄책으로서 실질적으로 우리 것이며,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에 의해 법적으로 우리에게 전가되고 고발된다.

1. 성경은 이 죄가 그의 모든 자연 후손들에게 전가됨을 분명히 밝힌다(롬 5:12-19).

2. 모든 사람은 아담의 첫 죄로 인해 정죄 형벌 아래 있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전 15:22; 롬 5:15-19; 엡 2:3; 롬 8:1-4, 33-34; 갈 3:13).

3.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영적 죽음의 권세 아래 있으며 그 구성 요소 모두에 속한다(창 6:5; 창 8:21; 시 14:2-3; 시 53:2-3; 시 51:5; 시 58:3; 욥 14:4; 욥 15:14-15; 렘 17:9; 요 3:6; 마 15:19; 막 7:21-23; 롬 5:12; 롬 8:7-8; 롬 3:9-23; 고전 2:14; 엡 2:1-3; 딤후 3:3).

4. 경험은 인류 보편의 부패를 확실히 증언한다. 오직 그리스도만 제외하고 모든 시대와 장소의 인간은 자신의 능력과 기회가 허락하는 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크게 도덕적 악에 빠졌으며 점점 더 악한 상태로 나아갔다. 그들의 악에 대한 성향은 조기에 보편적이며,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엄격한 법, 섭리의 경고와 제지, 가장 엄숙한 맹세와 약속과 선서, 가장 정직한 결단, 심지어 큰 은혜의 부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능한 악한 말을 하고 행함으로써 마음, 양심, 의지, 정동, 기억이 심각하게 감염되어 몸의 지체들이 불의의 악한 도구가 되었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거룩과 미덕보다 훨씬 더 많고 큰 죄의 정도와 양, 수가 존재한다. 하나님과 인간이 악을 막고 제거하며 미덕을 증진하기 위해 쓴 모든 수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하고 자주 노골적으로 사악했고, 가장 선한 사람들조차 매우 결함이 많았다. 아담의 첫 죄에 찬성하듯 인간은 죄 많은 호기심, 금지된 것에 서둘러 뛰어들고, 유혹에 쉽게 귀 기울이며, 육체의 눈이나 감각으로 마음을 가리며, 영혼을 희생해 육체를 돌보고, 현재 처지를 불만스럽게 여기며, 악한 충고에 선한 충고보다 더 쉽게 흔들리고,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해 자신을 돕고 변명하며,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숨으며, 죄를 인정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려 하며, 자신의 죄를 축소하고 변명하고, 특히 죄의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한다.

5. 인간을 태어날 때부터 죄책과 하나님 정죄 아래 창조되었다고 여기지 않으면, 무한히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 원죄 없는 상태로 영혼을 창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본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죄에 오염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만약 책임과 저주 아래 있지 않다면, 왜 최악된 타락이 막히지 않고 거룩함이 심겨지지 않는가?

6. 모든 시대 아기들의 비참과 죽음, 특히 홍수, 소돔 및 주변 도시의 멸망, 여러 도시와 민족의 파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죄책을 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한히 공허하신 하나님이 가장 훌륭한 그의 작품들을 일찍이 격노로 멸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7. 아담과 그리스도의 평행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율법을 성취해 생명을 얻은 것과 달리,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율법의 범법자로 세워져 죽음을 맞았음이 분명해진다(롬 8:4; 갈 2:20; 고전 15:21-22, 45-49; 롬 5:14-19; 롬 7:4).



II. 아담이 자신과 그의 모든 자손을 대표하여 언약의 율법을 이렇게 범함으로써, 그들은 언약의 영생 약속으로부터 복종에 대한 모든 격려를 잃었다. 그의 죄로 인해 약속이 완전히 무너졌고, 그 속에 담긴 상에 대한 모든 전망과 희망, 그리고 그 약속에 따른 청구권 획득 능력은 영원히 완전히 상실되었다(롬 3:23; 롬 8:3, 7-8).

III. 언약 축복을 잃고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며 율법 행위로서의 영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언약의 저주 또는 정죄 형벌이 범법자들을 덮어 죽음에 묶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의 죄짓는 첫 순간에 즉각 내려졌으며(창 3:16-19), 그들의 후손에게도 개인적 존재 첫 순간 또는 예정된 시점에 가장 비참한 상태로 존재하게 하는 것까지 포함해 그들을 덮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롬 5:12-14; 엡 2:1-3; 갈 3:10).

IV. 언약의 대표성은 해체되었고, 인류 각 개인은 스스로 자신에 관한 책임을 지게 되었다.

아담은 이제 법적으로 죽었고 영적 죽음이 시작된 통치 아래 있었으므로, 본래 생명을 위하여 제정된 언약에서 더 이상 다른 이들의 머리이자 대표자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를 언약의 머리직에서 배제하는 것은 은혜 언약이 즉시 시행될 수 있게 하고, 그와 하와 및 그들의 자손이 가장 이르고 방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그 언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했다. 그럼에도 행위 언약은 완전히 폐지되지 않았다. 그 도덕적 본질에 관한 법은 여전히 변함없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무한한 만족을 요구하는 것이 원래의 완전한 순종 요구에 추가되어, 영생의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조건이 되었다. 이 언약의 자연법은 하나님과 그분의 이성적 피조물로서 인간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세워졌으므로, 그 관계가 지속되는 한 계속되어야 했다. 하나님 본성에서 흘러나오며 그분이 인간을 피조물로서 다스리는 관계에 부합하는 형벌은 법 자체만큼이나 불변이다.

1. 인간의 죄는 하나님이 그분의 정당한 주권적 지배를 잃게 하거나 인간에게 마땅한 순종의 의무를 면제하지 못한다(시 83:18; 단 4:35; 욥 35:6,8).

2. 성경은 이 언약적 법이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어떠한 암시도 주지 않으며, 이를 불변의 것으로 나타낸다(마 5:17-18; 마 19:17; 롬 10:5; 롬 3:31; 롬 8:3-4; 갈 3:10,12-13).

3. 성경은 우리가 법을 성취할 능력이 없으며, 따라서 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이유가 생명의 약속이 수행자와 분리되었기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롬 3:10-20; 롬 8:34; 갈 3:10,12,21).

4. 신자들이 생명의 상태에 들어서거나 이 법 또는 행위 언약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들이 담보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성취했기 때문이다(롬 8:3-4; 롬 7:4; 롬 10:4; 롬 3:31; 빌 3:9; 고후 5:21).

### 하나님과 인간 관계 및 행위 언약

하나님과 인간이 우호적인 언약에 있지 않다는 주장은 헛되며, 하나님이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주장 또한 무의미하다. 죄인이고 저주받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옳지 않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과 모든 우호적 연결을 상실했으나,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성적 피조물이다. 인간이 순종할 자격을 잃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순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사람이 반역한다고 하나님께서 권위를 상실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무능한 피조물에게도 지혜로운 목적을 위해 순종을 요구할 수 있으니, 그것은 그들이 죄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그 형벌을 자신의 양심으로 인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사람들 앞에 적합한 구원자로 제시된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옥에 영원히 갇힌 자들조차 하나님의 탁월한 성품에서 비롯된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다.

### 모든 인간과 행위 언약의 관계

모든 인간은 본성상 행위 언약 아래 있다.

1. 성경은 이들을 분명히 그 언약 아래에 있다고 보여 준다(갈 3:10,12; 마 19:17; 롬 3:19; 롬 7:8-9).
2. 오직 그리스도의 작은 무리만이 행위 언약 또는 법에서 해방되고 죽은 자로 제시되며, 이는 그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까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요 3:18; 롬 8:1-2,4; 롬 7:4; 롬 6:14; 갈 2:19-20; 갈 3:13; 갈 4:4-5; 골 3:3).

전도 대상인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행위 언약의 명령 아래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자신의 행위로 의를 추구하라고 요구해야 하며 동시에 복음에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받으라고 요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 그러나

1. 아담은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의를 구하라는 요구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수용과 보상을 기대하며 순종을 수행하라고 요구받았다.
2. 비록 행위 언약이 아담에게 자신의 완전한 순종으로 의를 구하라고 요구했더라도, 그것이 인간에게 행위로 의를 구하거나 기대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최고의 행위조차 주님께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이다(사 64:6; 잠 15:8; 잠 21:24,27; 잠 28:9).
3. 행위 언약은 지금 인간에게 그들의 행위로 의를 구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심지어 무한히 귀중한 순종도 이미 범한 죄에 대한 완전한 만족 없이는 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히 9:22; 롬 3:24-26; 롬 5:6,8,10; 요일 4:9-10).
4. 행위 언약의 법은 하나님이 계시하는 모든 것을 믿고 받고자 요구한다. 따라서 그 언약을 스스로 완성할 능력이 없는 모든 복음 수용자는 복음의 기록을 믿고, 복음에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영화롭게 하는 의를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더욱 엄중한 죄책과 형벌을 받는다(요 3:18,38; 요일 3:23; 요일 5:10,12; 히 10:29).

사람들은 본성상, 그리고 갱신되지 않은 한에서는 신자들도 행위 언약 아래에 있기를 원하며 자신의 의나 그 조건에 의지하여 행복을 얻고자 한다.

1. 이것은 모든 종류의 종교, 신분, 직업, 교육, 생활 방식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롬 9:31-32; 롬 10:3; 욥 1:16; 마 19:16; 요 6:28; 행 2:37; 눅 15:19).
2. 행복을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거나 고통을 감내하는 것은 부패한 본성의 교만에 부합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부채자로 여기게 만든다(롬 10:3; 롬 7:9,13; 요 5:45; 사 58:3). 법에서 벗어나는 것은 죽음의 고통과 같다(롬 7:4,9; 갈 2:19).
3. 법의 광범위하고 엄격한 요구와 자신들의 완전한 무능함을 깨닫지 못하거나 이를 축소하고 자신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법 아래 있고자 하는 열망을 증가시킨다(롬 7:9-13; 롬 10:3; 갈 4:21).
4.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구속 방식,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재 사역 및 희생 사역에 대하여 적대감을 품는다. 그래서 법적 방법으로 행복을 얻으려 함으로써 구속의 영예를 반대하고자 한다(롬 8:7; 요 15:24; 롬 10:3; 롬 9:32; 롬 5:21; 갈 2:21).

## 법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하나님의 성령은 죄인의 양심을 깨우고 확신하며 조명하는 데 있어서 깨어진 법을 사용하며, 그 법 자체도 죄인에게 다면적인 권능을 가진다.

1. 그 법은 여전히 연합된 명령 권세를 유지하여, 가장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며, 가장 작은 범죄에 대해서도 무한한 형벌을 예고한다. 이는 이들에게 영적 능력을 제공하지 않고 내주하는 죄의 지배 아래에 두면서 이루어진다(눅 10:27-28; 갈 3:10).

2. 그 법은 배제 권능도 지녀, 불가능한 완전 순종과 죄에 대한 무한 만족 조건을 완전하게 충족하지 않으면 행복이나 견고한 소망에서 인간을 제외한다(마 19:17; 갈 3:10,12,21; 갈 4:24; 롬 10:5; 미 6:7-8). 그 법은 그 어떤 낮은 조건으로도 그리스도를 의롭다고 하지 않았다(마 3:15; 눅 24:26; 히 5:8; 히 2:10). — 법이 인간 양심에 미치는 확신과 고통은 이러한 명령적이고 배제적인 권능에서 비롯된다.

3. 법은 자극 권능도 지녀, 그 명령과 위협이 인간 양심에 작용해 점점 더 악하게 만든다. — 말벌 동지를 건드리면 더 격분해 쏘는 것과 같고, 뱀을 자극하면 해로움이 더해지며, 햇볕이 동무더기 위에 쏘이면 악취가 심해지는 것과 같다(롬 7:5,7-13; 행 7:54; 마 7:6; 호 11:2). 이 자극 권능에 관해 다음이 관찰된다.

1. 법의 명령과 위협이 죄인 양심에 밀착 적용되어 두려운 구속 아래 두며, 채찍 든 엄한 주인처럼 명령을 내린다(갈 3:10; 사 3:11; 겔 18:4; 롬 2:8-9).

2.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한이나 명령 준수 불능을 해결하지 않고, 저주로 인해 사람들을 내주 죄의 지배 아래 고정시킨다(갈 3:22; 고전 15:56; 롬 6:14; 롬 7:4; 롬 8:2; 요 1:17).

3. 내면 욕망의 구속이 느껴질 때마다 법과 입법자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며, 이는 엄격한 계명과 무서운 형벌 탓이다(롬 4:15; 롬 7:5,7-13). 악 아래 머무는 한, 내적 욕망은 저항으로 인해 점점 더 세져, 사나운 말이나 들소가 제어될수록 더 폭주하는 것과 같다(롬 7:5; 호 4:16,18; 시 81:11-12).

4. 법의 엄격하고 광범위한 명령과 무서운 형벌을 바라보며, 부패한 마음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비밀스런 절망에 굳어, 채찍에도 반응하지 않고 주인을 물어뜯는다(렘 2:25; 겔 37:11).

5. 그 결과 하나님과 그의 법의 거룩함에 대한 내적 분노, 빈번한 악행 포기,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기 위한 심각한 고난 활용이 뒤따른다(잠 29:1; 잠 1:29; 롬 1:26-32; 대상 28:22; 사 1:5; 렘 5:3; 사 42:25).

4. 깨진 법은 또한 유지 권능을 갖는다. 저주와 자극 영향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들을 법의 지배와 영향 아래 둔다. 영원한 행복을 개인 맞춤 의와 연결시키는 것이 이들의 교만과 맞아떨어지므로, 다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법 아래 있기를 원한다.

가장 무서운 요구도 이 욕망을 꺾지 못하며, 다만 완화를 바랄 뿐이다(갈 4:21; 롬 9:31-32; 롬 10:3; 마 19:16-17; 미 6:6-7; 호 5:6).

5. 법의 명령 권세가 짓밟히면, 법은 범죄자에 대해 저주하거나 징죄하는 권능을 발휘한다(갈 3:10,13; 잠 3:33; 사 34:5; 신 27:15-26; 요 3:18,36). 이제 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은

1. 세상의 위대한 주권자이자 입법자이며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정당한 보복 진노 아래 있음(요 3:36; 시 7:11; 엡 2:3; 마 25:41; 신 29:20),

2. 분노한 하나님께서 보복 정의 아래 고통 중에서 짓밟 완전 만족을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엄중한 형벌을 내리시는 상태(히 10:31; 살후 1:7-9; 눅 12:58-59; 마 5:25-26),

3. 모든 행복이 파괴되고 무한한 진노의 화살과 재앙의 표적이 되어 악에 속함(시 7:12-13; 시 37:20,22; 시 94:23)을 뜻한다.

## 그리스도와 언약의 저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인간은 이 깨진 행위 언약의 저주 또는 징죄 판결 아래 있다.

1. 죄는 하나님 법과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완전성에 반하여 충분히 저주받을 만하다(시 119:128; 딤후 2:12; 창 18:25; 살후 1:6; 시 119:142; 시 11:5-7; 롬 6:23; 롬 2:2,8-9; 롬 1:32; 사 3:11).

2. 이 언약 위반에 대한 징죄 판결이 부과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 집행을 반드시 감독한다(창 2:17).

3. 아담이 언약 조건을 성취했다면, 그와 그의 모든 후손은 의롭다 함을 받고 약속대로 영생을 누렸어야 한다(레 18:5; 롬 10:5; 갈 3:12; 마 19:17). 그러므로 불이행 시 신적 징죄가 따라야 한다(창 2:17; 요 3:18,36; 막 16:16; 창 3:7).

4. 심지어 하나님 아들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이 언약 아래에 놓였을 때 담보자로서 저주를 받으셨으며, 이는 모든 죄에 대한 저주가 그에게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이들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다(갈 3:13; 갈 4:4-6; 고후 5:21; 롬 10:4; 롬 8:1,3-4,33-34; 고전 1:30; 사 45:17,24-25).

저주를 받은 자들의 상태는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다. 이는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함, 정의, 신실하심, 능력을 반드시 작동시키기 때문이다. 1. 그들에게서 모든 진정한 선을 거두어 가신다(사 59:2; 렘 2:17, 19, 25). 2. 그들에게 모든 진정한 악을, 그 형태와 방식, 시기, 수단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복의 분노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는 방식으로 임하게 하신다(겔 18:4; 사 1:20, 24; 사 3:11; 롬 2:8-9; 살후 1:7-9; 계 14:9-11; 계 21:8; 계 22:15). 3. 선한 것도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서로 연합하여 그들의 비참함을 증진시키는 데 작용하도록 만드신다(신 28:15-18; 전 1:18; 사 6:9-10; 롬 11:32-33; 롬 11:8; 뱀전 2:8). 그리고 실제로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데 있고, 그 형벌의 본질은 그 형벌을 당하는 자 위에 저주가 임하는 데 있음을 본다. 4. 때와 영원 중 모든 기회를 붙잡아 그들의 영혼과 육체, 천천히 진노를 실행하신다(시 37:22; 뱀후 2:3). 이 저주를 실행하는 것이 깨어진 행위언약의 주요 관리이다.

## I. 이 생에서 저주의 작용과 그 영향

이 생에서 율법의 저주는 사람들에게 작용하여 그들의 상태를 두려울 정도로 최악되고 비참하게 만들며, 그들의 탄생 이전에 이미 고통으로 가득하여 저주받은 조상 아담과 자연적으로 연합된 미래의 존재를 확보한다(롬 5:12). 전쟁, 질병, 위험으로 조상의 죽음이 그 존재를 막지 못하며, 경건함도 저주의 참여를 막지 못한다(창 4:11, 14, 17-24; 창 6:4-5; 창 6:3; 시 51:5). 저주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는 각 아담의 예정된 대표 후손에게 저주를 고정하기 위한 준비를 항상 한다. 따라서 가장 극악한 죄인들도 종종 살려지고 번성한다(시 17:14; 욥 21:11; 욥 27:14). 태내 형성을 위한 시점에 고정되어 있을 때, 저주는 마치 존재로 그들을 맞이하며 끔찍한 무게를 싣고 불길한 영향을 심어 준다(엡 2:3; 신 28:18). 그 결과 저주는 계속하여 그들의 영혼과 몸과 인격, 관계된 일들에 작용한다.

### 1. 저주가 영혼에 작용하는 방식

1. 저주는 그들의 영혼에 작용한다.

1.1. 그 영혼을 하나님과의 은혜롭고 행복한 교제에서 분리시키는데, 하나님과의 은혜로운 교제에 삶이 있고, 하나님의 호의 속에 생명이 있음에도 그렇다(시 30:5; 신 29:21; 사 59:2; 시 5:4-6; 암 3:3). 하나님이 그들에게 저주 아래서 형성하시면, 그들은 아무런 거룩한 은사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죄가 전가된 상태에서, 저주가 당연히 돌아오는 어린아이는

원죄의 의가 없다(요 3:6; 욥 14:4; 시 51:5; 엡 2:1-3). 그들의 육체 기질이 내면의 부패를 특정한 욕망으로 형성하는 데 어떤 영향이 있든 상관없이, 죄된 부패가 우리가 형성된 바로 그 순간에, 또는 아담의 본성 전체가 순간에 급속히 퍼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주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는 모든 전달을 막고, 그들을 악한 양심과 죄의 지배에 처하게 한 별로 작용한 결과임을 아는 것이다. 어른이 되어도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거나 들어도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요 5:37). 기도해도 죄인은 듣지 않으신다(요 9:31). 하나님의 예배 질서 곧 지혜의 문 앞을 지켜도 하나님과는 멀다(엡 2:13).

2. 영혼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영적 죽음이 그 영혼을 파고들어 그 영혼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빼앗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혼이 가졌어야 할 영광을 막는다. 원죄받은 영혼에는 어떠한 영적 지식, 거룩함, 의도 들어오거나 머무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첫 부모의 영광이 저주의 무화과나무처럼 얼마나 빠르게 쇠퇴했는가를 본다(창 3:7-8). 저주받은 영혼의 모든 능력은 살아 있으면서도 죽은 상태이다. 이해의 눈은 닫히고 유령같이 흐릿해지며, 진실한 기도와 찬양의 말은 묻히고,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정동이 멈추며, 모든 영적 감각이 닫혀 내적으로 차갑고 딱딱하며 마치 돌 같다(롬 1:21-32; 엡 4:17-18; 겔 11:19; 겔 36:26).

3. 이 죽음의 결과로 저주받은 영혼의 모든 능력은 가장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심각하게 감염된다. 저주의 벌의 중요한 부분으로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참된 지식, 의, 거룩함이 결여되어 모든 능력이 서로를 부패시킨다. 저주받은 땅과 공기의 자연구조가 악화된 것처럼, 저주받은 영혼의 도덕적 면도 마찬가지이다. 이해력, 즉 영혼의 눈과 지도력은 무지, 미혹, 의심, 불신, 헛됨, 교만, 거짓말 경향으로 가득 차 있다(고전 2:14; 엡 5:8; 전 3:18). 아무리 중요한 교훈이라도 그 위에서 자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저주를 거두는 길로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실 수 있다(사 48:17; 갈 1:16; 갈 3:13; 갈 2:16-30). 양심,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영혼을 감시하는 자는 둔감하고, 침묵하며, 오류에 빠지고,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부른다. 편견에 치우치거나 부패하여 자기에게 이름거나 타인에게 편애적이며, 때로는 광포하고 냉혹하며 절망적인 상태이다(삿 21:25; 요 16:2; 사 5:20-22; 마 11:18-19; 히 10:26-27; 사 33:14-15; 마 27:4; 렘 2:25). 의지, 영혼의 지배 권력은 선한 것에 대한 능력이 약하고 완전히 거부하며, 하나님에 대해 화해할 수 없는 원한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원한은 하나님의 존재, 속성, 영, 말씀, 질서, 섭리에 미치며, 특히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와 행복을 통한 자유로운 은혜의 선물에 대한 특별한 원한으로 나타난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나 복음에서 죄인에게 무상으로 주어진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구속 은혜가 나타날수록 원한은 더 강해진다(롬 8:7; 롬 1:30; 롬 10:3; 롬 9:32; 요 15:18, 24). 게다가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비틀려서 하나님보다 사소하고 경멸할 만한 것들에 집중하며, 그 저주가 제거될 때까지 지옥의 공포나 천국의 기쁨도 그 의지를 꺾거나 녹이지 못한다(호 11:2, 7; 숙 7:11-12; 사 48:4; 사 1:5; 렘 5:3; 겔 11:19; 겔 36:26; 행 7:51). 정동(affections), 즉 영혼의 팔과 다리는 하나님께 매우 느리고 거부적이며

그분이나 그분의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받기를 담아버리고, 모든 영적 대상에 대해 완강하다. 그러나 육체적이고 죄된 것들을 굶주린 까마귀나 독수리처럼 급히 날아가 움켜잡고 그것들을 전부로 삼는다(시 4:6; 겔 33:31; 잠 23:5; 빌 3:19; 롬 8:5). 기억, 영혼의 저장고이자 기록은 사소하거나 죄된 것을 강력히 기억하여 부패를 조장하지만, 진정 선하고 중요한 것은 기억하지 못하거나 배신한다(렘 2:32; 신 32:18; 호 13:6). 이 세 가지 면에서 아담의 본성은 죄를 범한 첫 순간부터, 그리고 어린아이의 영혼은 형성된 순간부터 타락하였다.

4. 영혼이 이 혐오스럽고 무서운 상태로 떨어졌을 때, 저주는 영혼이 스스로를 회복하거나 다른 곳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기율임, 관심, 능력을 차단한다. 사람들을 믿음 없음에 갇혀 감옥이나 무덤과 같이 가두며(갈 3:22-23; 롬 11:32; 사 61:1; 사 42:6-7; 겔 37:12-13; 숙 9:11-12), 이렇게 죄악된 부패 속에 묻히면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봉인하여 계속 그 상태에 있게 하신다(시 81:11-12; 사 66:4; 살후 2:10-12). 그 저주를 거두시는 길 외에는 희망의 문이 없으며, 다른 길로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는 그들의 끔찍한 상태를 더욱 공고히 할 뿐이다. 복음을 들어도 그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향기'가 되어 마음을 가리고 완악하게 한다(고후 2:16; 호 6:5; 사 6:9-10; 사 13:19-20, 25; 롬 11:7-9). 기도해도 주님께는 가증한 행위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른다. 가장 값비싼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신다(잠 28:9; 잠 15:8; 잠 21:27; 사 1:11-15; 사 65:13; 호 5:6; 미 6:6-7).

5. 이렇게 죄 속에서 죽고 묻힌 저주받은 영혼은 부패가 날로 심화된다(딤후 3:13; 딤후 2:16; 마 12:45; 벴후 2:20). 그 안에 거하고 다스리고 활동하는 본성의 죄악은 육체와 영의 각종 특정한 정욕들로 구체화되는데, 이는 그들의 육체적 체질과 조상 또는 부모의 음주, 음탕, 격한 분노 등으로 인해, 또는 그들의 특수한 상황, 기회, 유혹에 따라 달라진다(고후 7:1; 롬 6:12; 벴전 2:11; 벴전 4:3; 벴후 2:18; 엡 2; 갈 5:19-21, 24; 롬 8:13; 롬 13:14). 이 정욕들은 옛 사람이나 죄의 몸의 지체이며(골 3:5; 롬 1:29-30), 사탄의 유혹의 불꽃과 맞먹는 내적 인화물이다(요 14:30; 잠 28:26). 더럽고, 죄악의 부끄러운 담즙을 모으는 물질이다(약 1:14; 마 15:19; 막 7:21-23; 렘 4:14; 렘 6:7). 그리고 어떤 선한 것이 들어오거나 나가려는 것을 끊임없이 방해한다(갈 5:17; 롬 7:23-24). 이들은 다양하게 묘사되는데, 그 이유는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이다(딤했 3:3). 경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하나님 본성과 율법, 하나님 사랑과 경외에 반하며(유 18; 요일 2:16), 사탄에 의해 도입되고 지탱되어, 사탄의 형상이자(요 8:44), 하나님의 섭리, 성령, 은혜와 사람의 영혼에 대적하며 심지어 그들 사이에서도 싸운다(약 4:1; 갈 5:17; 롬 7:23; 벴전 2:11). 세상적이며, 세상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며 세상을 그들의 본분과 본보기로 인도한다(딤했 2:12). 만족할 줄 모르며(사 57:10; 전 1:8; 속이고(엡 4:22), 해로워서 많은 근심을 찌르고(딤했 1:9-10), 그들을 불태우고(롬 1:27), 멸망에 빠뜨린다(딤했 6:9). 이 정욕들은 저주의 결과로 율법이 주는 지배권과 죄인의 선택에서 지배권을 받아, 계속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활동하고 나타난다. 이는 손질되지 않은 정원에서 가시와 엉겅퀴와 켄기풀과 다른 해로운 잡초들이 자라는 것과 같다(마 15:19; 막 7:21-23; 롬



1:21-32; 롬 3:10-18; 갈 5:19-21; 고전 6:9-10; 엡 2:1-3, 12; 엡 4:17-19; 잠 24:30-31). 이 정욕들은 점점 더 강력해져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될 때까지 성장한다(딤후 3:3; 벧후 2:13-14, 22). 그리고 사람의 본성, 지위, 환경으로부터 가장 쉽게 휘둘리며 그들의 행동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특정 정욕이 그들의 지배적인 정욕이라 불린다(히 12:1; 시 18:23).

6. 악행이 진행됨에 따른 정당한 형벌로서, 하나님은 저주를 실행하시면서 추가적인 재앙을 내린다. 이 재앙들 중 일부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 본성상 끔찍하며 이전 악행에 상응하고 사랑받으며 기뻐한다(사 6:9-10; 시 81:11-12; 사 1:5; 렘 5:3). 하나님 말씀이나 양심의 빛을 받지 않고 반역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적 마음의 소경을 허락하신다(요 3:18; 욥 21:14; 엡 4:18; 살후 2:10-11; 고후 4:3-4).

이사야 6:9-10; 이사야 42:19-20, 25; 마태복음 13:11; 사도행전 28:27; 요한복음 12:40; 로마서 11:7-10.—진리 사랑을 받지 않고 불의 가운데 간직한 것을 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강한 미혹과 비열한 행실에 내어주신다(살후 2:10-12; 이사야 66:4; 시편 81:11-12; 호세아 4:17; 롬 1:18-32).—죄에 자신을 굳어지게 하는 것을 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적 마음의 완고함에 내어주셔서 그의 말씀이나 섭리가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하신다(롬 9:18; 이사야 63:17). 또한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시고(신명기 29:4),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수단인 그의 규례들을 파괴하신다(호 4:17; 롬 11:8-9; 사 6:9-10). 그들을 시험에 노출시키시고(신명기 2:30; 시편 109:6; 계 20:7-8), 그들이 악행 가운데 변성하도록 허락하신다(시편 73:2-12; 욥기 21:7-15; 신명기 32:15-18; 예레미야 12:1; 44:17; 말라기 3:15; 시편 37:35).—양심의 경고와 알림, 책망을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을 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졸음의 영과 뜨거운 쇠로 지진 듯한 마비된 양심에 내어주셔서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양심이 느끼지 못하고 책망하지 않게 하신다(롬 11:8; 딤후 4:2; 창세기 6:3).—정동(affections)에서 비열함을 탐닉하며 양심의 분투에 거스르는 것을 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끔찍한 부도덕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끄는 비열한 정동에 내어주신다(민수기 1:26-27; 엡 4:19; 엡 5:12; 고전 6:9; 갈 5:19; 벧전 4:3; 벧후 2:14; 유다서 7).—상식과 합리적 확신에 대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타락한 마음이나 감각에 내어주신다(롬 1:27; 딤후 3:8; 딤후 1:16).—사탄의 시험에 쉽게 굴복하는 것을 벌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사탄이 그들의 오른편에 서서 그들을 그의 특별한 노예로 삼도록 권능을 주신다(시 109:6; 딤후 2:26).—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시는 다른 영적 재앙들은 고통을 주는 종류로, 하나님의 평화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그들의 영혼에 쇠로 굶는 듯한 불만을 일으켜 인내심 없고 안절부절못하며 사소한 일에도 불평하게 한다(유 16; 시 37:1-7; 에스더 3:5; 5:13; 6:12; 골 3:15; 빌 4:17).—이 내면의 굶아먹는 굶주림과 행복에 대한 고통스러운 갈증은 저주가 그들에게서 그것을 금하는 동안 내면의 진노와 분노를 낳는다. 이것은 칼이나 화살처럼 그들을 심장 깊이 찌르며 그들의 가슴에 불과 같다(욥 5:2; 사 48:21).—그들의 영혼을

고문하는 마음의 불안은 마치 텐터 후크에 영혼을 늘이는 것처럼 괴롭히며 내면의 욕망들의 다툼으로 인해 그들이 갈기갈기 찢기고(에스더 5:13; 눅 8:14; 시 7:14), 영적 혹은 영원한 상태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받게 한다(행 2:37; 16:30; 히 10:27, 27; 사 33:14).—세상의 슬픔은 일시적 상실과 실망, 고난 때문에 발생하며(고후 7:10), 다른 이의 변역에 대한 시기에서 비롯되기도 하며(욥 5:2; 골 3:5), 죽음과 지옥에 대한 노예 같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율법적 슬픔도 있다(마 27:3-4; 사 33:14).—다가오는 고통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마음의 공포(창 4:14; 신 28:65-67; 렘 17:17; 20:4; 눅 21:26; 히 10:26-27, 31; 사 33:14),—죄책감에 관한 엄숙한 깨달음에서 비롯된 양심의 공포, 이미 당한 하나님의 진노 형벌이나 그 진노가 반드시 신속히 다가오리라는 인식에서 생겨난다(사 33:14; 38:14; 잠 18:14; 히 10:26-27). 이것은 헤롯처럼 더욱 혼란스럽기도 하고(마 14:1-2), 빌립처럼 일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며(행 24:25), 유다처럼 지속적이고 격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마 27:3-4).—끝으로 절망이다(사 17:11; 히 10:26-31; 사 33:14; 겔 37:11; 렘 2:25; 왕하 6:34).

2. 한때 영혼의 영광스러운 거쳐였던 인간의 몸은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죽음을 받아 삼키고 갑자기 저주받게 되었다(신 28:16, 18-19). 그러므로,

1. 원래 행복한 구조에서 벗어난 흉측한 변화가 자주 일어나는데, 귀먹음, 실명, 절름발이 등이 그것이다. 모든 몸이 이러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공화에 의한 것이다(고전 4:7; 요 9:3).

2. 그 동물적 구조는 연합된 영혼의 죄된 욕망에 상응하는 것으로 변하며, 그래서 천한 몸과 죄된 육이라 불린다(빌 3:21; 롬 8:3). 그리고 영혼에 의해 부패되어 덮이 되어 수많은 더러운 욕망, 음주, 폭식, 음란을 일으키며, 이성적 능력이 오염된 육과 피의 진흙 속에 빠져드는 듯 약해진다(롬 7:14, 23-24).

3. 이렇게 변한 인간의 몸은 저주의 영향 아래 불명예의 그릇이 된다. 술취한 자는 그것을 공동 하수구나 하수구장처럼 만들고, 식탐자는 더러운 술공장과 같은 곳으로 만들며, 탐욕스러운 자는 수고와 피로에 지친 짐승으로 만들고, 성급한 자는 불타는 진흙 구덩이, 불과 유황 못으로 만들며, 음란한 자는 사나운 군마, 음탕한 개, 혐오스러운 돼지로 만들고, 싸움꾼은 보복을 쫓듯 내뿜는 저주받은 뱀으로 만든다(롬 3:9-18; 롬 1:26-28; 고전 6:9-10; 갈 5:19-21; 딤후 3:3; 벧전 4:3; 렘 5:7-8; 신 23:18; 벧후 2:2, 22). 이와 같이 몸은 여러 형태의 잔인하고 억압적인 욕망들의 노예가 되어 겉으로는 영혼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벧후 2:19).

4. 저주는 공기, 땅, 바다, 짐승, 인간, 선하고 악한 천사들 모두로부터 독이 담긴 화살을 쏘아 사람 몸에 재앙을 쌓아 올리며, 기근, 전쟁, 역병, 질병, 황폐, 포로, 투옥, 위험, 상처, 타박상, 고통 등을 일으킨다(신 28:15-68; 레위기 26:14-39; 왕하 1:2; 7:29; 역대하 21:19; 행 12:23).

5. 저주받은 몸 자체가 불행의 씨앗밭이며, 특히 외적 환경과 맞물릴 때 그 내부 부패는 수많은 질병으로 발전하여 세상을 일종의 병원으로 만든다(신 28:22; 레 21:18-20; 마 4:24).

6. 이렇게 감염된 인간의 몸은 영적 수련이나 행복 추구의 모든 시도에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 몸의 약함이나 피로는 예배 중 졸음, 수면, 불편을 초래하며, 몸의 복지나 명예에 대한 관심은 영적이거나 영원한 것에 대하여 진지한 관심과 사색을 막는다. 건강과 병은 각기 다른 형태로 참된 영원한 행복에 대한 관심을 방해한다(말 1:13; 마 26:40, 43; 마 6:26-34; 눅 10:40-41; 12:16-20).

3. 사람의 인격과 그 모든 관계된 사정도 이 저주의 영향을 받는다.

1. 그들 자신, 영혼과 몸이 이로 인해, 또 스스로 선택하여 사탄의 주제이자 노예가 되며, 그의 합법적이고 확실한 포로로서 미혹과 괴롭힘, 고역에 시달린다(딤후 2:26; 사 49:24; 61:1). 사탄의 추가적인 사술과 짐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와 전능한 능력,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속 9:11; 사 49:24-26; 마 12:29).

2. 저주받은 그들의 모든 관련된 것이 그들 자신을 위하여 저주받아 있다. 그들의 인격은 수치와 불명예로 저주받아 세상에서 높아질수록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시 57:4; 욥 5:2; 신 28:27; 시 22:6; 시 69:19-20).—그들의 정신과 손의 활동은 저주받아 헛되거나 해로운 결과를 낳으며(신 28:17; 학 1:6-7; 전 1:13)—그들의 재산은 저주받아 그 손을 피해 도망치려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진노의 비밀 불꽃에 소모되거나 하늘로 올라가 남용하는 자를 증언한다(롬 8:21; 욥 10:26; 잠 23:5; 호 2:9).—그들의 외적 운명은 반영하듯 고통받든 저주받아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거나 쫓아낸다(욥 21:8-15; 신 32:15-18; 호 13:6; 눅 12:16-20; 잠 1:32; 역대하 28:22; 왕하 6:33; 욥 35:10; 사 1:5; 렘 5:3; 43-44).—하나님의 말씀과 규례, 은혜와 구원의 수단, 모든 참석 기회가 그들에게 저주되어 해로우며(고후 2:16; 롬 11:9; 시 69:22-23; 사 6:9-10; 살후 2:11-12; 벨후 2:20-22; 요 15:22, 24; 마 11:21-23; 고후 4:3-4)—그들의 관계마저 저주되어 여러 형태로 불행을 증대시킨다. 치안관은 억압자이자 양심의 얽매는 자이며 악인들의 칭송을 받지만 선한 자에게는 두려움이 된다. 목사는 불성실하고 경계하지 않으며 무기력하거나 실패하거나 속이기도 한다. 이웃은 불공평하고 이기적이며 해롭다. 불평등한 명예로 찢겨진 남편은 말을 꺼낼 수 없는 벨리알의 아들이며, 아내들은 끊임없는 불화와 부패로 함께 살기 어렵다. 자녀는 부모에게 수치와 슬픔이며 마음을 찢는 화살이자 재산을 축내는 도둑이다. 딸들은 아름다운 조각 궁전 같고 가족을 잇는 귀중한 모퉁이돌 같으나, 부모의 머리에 떨어져 지출과 고통으로 그들을 짓누른다(삼상 8:11-17; 잠 29:2-16; 겔 13-14; 사 9:15-16; 렘 6:13-14; 미 2:11; 3:11; 고후 2:14; 삼상 25:17; 말 2:11-16; 잠 19:13; 27:15; 21:19; 25:24; 12:4; 10:1, 5; 15:20; 17:2, 25; 13:1; 19:26; 28:7, 24; 호 4:13-14; 미 7:5; 창 34; 37-38; 삼하 13; 15; 16:21-22).

3.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불행보다 더한 재앙을 영원히 당할 위험에 늘 처해 있다. 하나님의 칼날과 진노의 복수심이 그들을 기다리며(계 3:17; 요 3:18, 36; 렘 20:3-4; 시 7:11-14; 욥 18; 20), 곳곳에 덫이 놓여 있다.

4. 감옥에 갇히고 힘이 없는 그들은 도망칠 수 없으며 결국 미끄러져 떨어지고 갑자기 자리에서 쫓겨나 악행으로 내몰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폭풍과 홍수에 휩쓸려 지옥에 빠진다(신 32:35; 잠 1:26; 14:32).

## II. 저주의 사후 작용

1. 이 생명을 마친 후에도 저주는 더욱 무서운 방식으로 인간에게 작용한다.

1. 영혼과 몸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인해 죽음에 이르러 저주는 그들 사이에 불행한 분리를 만든다. 이는

1.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가장 파괴적인 일격이다.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깨진 행위의 언약에 맡길 때, 저주는 그들을 곧바로 진노의 손에 떨어뜨린다(욥 18:18; 히 10:31).

2.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계약의 최종적인 파기다. 죽음은 하나님과 그들 간에 넘지 못할 깊은 틈을 고정시키고, 영원한 전쟁 선포에 그의 도장을 찍으며, 끊을 수 없는 저주를 두르고 끔찍한 뱀처럼 영원히 그들을 짓누른다(눅 16:26).

3. 모든 위안의 종결로서 그들과 위안 사이에 움직일 수 없는 장벽을 세우고, 그들의 불꽃을 끄며 모든 빛을 꺼서 어둠이 그들의 장막에 영원히 거하도록 한다(눅 16:25; 욥 18:17-18).

4. 죽음은 두려움의 왕으로서 죄로부터 얻은 모든 힘으로 무장한다. 죄책감 아래 죽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이 그를 영원한 불로 몰아낸다. 욕망의 지배와 오염 아래 죽는 이는 고문자로서 그와 함께 가장 밑바닥 지옥까지 동행해야 한다(욥 18:14; 잠 14:32).

5. 영원한 비참으로의 두려운 여정이다. 죽음은 죄인들 아래에 함정을 열어 그들이 무저갱에 떨어지고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의 심연에 삼켜지도록 한다(눅 16:22-23).

2. 죽음 직후, 인간의 영혼은 저주의 권능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 영원한 정죄의 구체적 판결을 받는다(히 9:27; 전 12:7; 마 25:41). 이 심판에서

1. 그들의 모든 죄가 밀봉된 자루에서 나오듯 드러난다. 그 안에 조심히 보존되어 있었다(호 13:12; 암 8:7; 욥 14:16-17).

2. 모든 죄는 그 뒤에 저주를 이끌어낸다. 아, 이 수많은 정죄의 끈들이여!(갈 3:10; 롬 6:23).

3. 더 이상 은혜의 보좌나 아버지께 변호자가 없으므로, 율법 아래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 아래 멸망해야 하며 악을 행하는 자로서 영원한 불에 들어가도록 지정된다(눅 13:25-28; 시 11:5; 마 7:23; 잠 14:32; 사 33:14).

4. 정죄받은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에 의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확증된 저주의 권능으로 지옥에 머문다(눅 16:23).

1. 그들의 영혼은 마지막 심판을 위해 감옥 같은 곳에 머문다(벧전 3:19).

2.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찌꺼기가 저주의 영향으로 짜내어져 그 안에 쏟아질 것이다(시 75:8).

3.

다른 저주받은 영혼들과 함께 확정될 것이다. 마 25:41 에 의하면, 이들은 같은 저주로 영원한 멸망에 바쳐진 자들이다.

4. 사소하거나 더 나쁜 것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이 잃어버린 행복은 이제 그 가치를 완전히 드러내어 고통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눅 16:23, 25-26.

5. 완전히 깨어 다시는 잠들지 않는 양심은 저주받은 영혼에 이전 죄악에 대한 가장 끔찍한 자각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단단히 붙들게 한다. 막 9:44, 46, 48.

6. 그들의 영혼의 모든 힘은 최악된 욕망과 그들과 함께하는 교만, 슬픔, 질투, 분노, 고통, 절망이라는 고문하는 정동(affections)들 아래에서 제한 없이 놓이게 된다. 잠 14:32; 마 22:13; 마 8:12; 계 16:10, 21; 사 8:21.

7. 악인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동안, 그들의 수단으로 인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죄에 끌려든 모든 사람의 죄는 최후의 심판까지 이 땅에서 계속 증가할 것이다. 미 6:16; 왕하 10:29, 31.

4. 한편, 그들의 몸은 저주 아래 묻혀 있는데,

1. 무덤은 의인들의 몸과 달리 그들에게 편안한 안식처나 은신처가 아니다. 사 57:2; 계 14:13. 오히려 저주는 저주받은 자로서 그 몸을 무덤에 감금하여 최후의 심판까지 감옥에 가둔다. 시 49:14.

2. 죄와 죄책은 제거될 가능성 없이 여전히 몸에 남아 있다. 욥 20:11; 겔 32:27.

3. 저주의 영향으로 무덤에서 부패한다. 욥 24:19.

5. 행위 언약의 계명과 형벌에 대한 빛을 전혀 갹지 않은 채, 악인의 몸은 최후의 날 그 저주 아래 다시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1. 이 정죄하는 판결의 효력에 의해, 그들은 범죄자로서 영원한 형벌을 위하여 소환되어 나타날 것이다. 요 5:29; 계 20:13; 단 12:2.

2. 이전 생애에서 불의의 도구였던 그들은 이제 죄로 표징된 부정한 그릇으로 표시될 것이며, 아마 각자 지배적인 욕망으로 각인될 것이다. 사 66:24.

3. 영혼과 몸 사이의 결합은 양쪽 모두에게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갹신될 것이다.

4. 영혼의 고통과 하나님의 진노의 직접적인 인상이 이 몸에 얼마나 끔찍한 모습을 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계 6:16-17; 사 33:14; 사 13:8; 사 8:21-22.

6. 최후의 심판에서 죄인들은 저주의 권세 아래, 그리스도의 법정 앞에서 저주받은 죄인으로 나타날 것이다.

1. 그의 좌편 자리는 부끄러움과 치욕과 함께 그들을 저주받은 자로 표시할 것이다. 단 12:2; 마 25:33.

2. 그와 그들 사이에 개입하는 저주는 그리스도의 출현을 가장 무섭게 만들며—사나운 사자처럼—불타는 불처럼 나타내는데, 더 많은 저주가 개입할수록 그분의 출현은 더욱 무서울 것이다. 계 1:7; 계 6:16-17; 시 50:22.

3. 저주의 무한한 공평을 드러내기 위해, 공개 선언과 영원한 집행 과정에서 악인의 모든 죄된 성품, 생각, 말, 행위 및 그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 안에서 조장하거나 승인한 것들이 그들의 책임으로 분명히 기록될 것이다. 전 12:14; 롬 14:12; 고후 5:10; 계 20:12.

4. 이로 인해, 저주는 그리스도에 의해 엄숙히 선언되고 즉각적인 완전 집행으로 명령될 것이다. 마 25:41-46; 계 20:12-13.

7. 정죄 판결이 완전히 집행될 시기에, 거룩한 천사들은 그들을, 그리고 악마들은 끌고 가면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몰아낼 것이다. 마 13:41-42; 마 22:13. 이로 인해 지금까지 이 하늘 아래 세계를 감염시켰던 저주는 전 세계를 불길로 휩싸이게 하여 죄인들에게 마지막이자 끔찍한 작별을 선사한다. 이로써 땅과 바다와 공기는 저주에서 해방되고, 오랫동안

그것들을 감염시켰던 헛됨과 부패는 그것을 일으킨 악인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복수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모든 죄와 고통은 이후로 지옥에 갇힌다. 벵후 3:10, 13; 살후 1:8-9; 시 50:3; 롬 8:21-23; 계 20:14-15.

8. 지옥에서 이 행위 언약 깨어진 저주는 악인의 결합된 영혼과 몸을 최대한의 힘으로 영원히 괴롭힐 것이다. 시 75:8; 계 14:10-11.

1. 저주로 인해 받은 지옥 구덩이는 입을 닫고 뜨거운 화덕처럼 그들을 가둘 것이다. 민 16:32; 마 13:30; 시 21:9.

2. 두려운 경계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의 모든 행위가 영원히 그들에게서 차단될 것이다. 마 25:41; 호 9:12.

3. 따라서 모든 성화와 죄 제재의 영향력이 영원히 그들에게 중단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욕망의 완전한 분노에 내어버린다. 이들은 욕망을 만족시킬 어떠한 것도 가지지 못한다. 마 22:13; 계 16:21.

4. 주님의 숨결로서, 이것은 그들의 위에 하나님의 분노의 불꽃을 영원히 부채질하고, 진노의 독화살을 그들 안에 깊이 꽂을 것이다. 사 30:33; 계 14:11.

5. 이 저주는 그들의 고통을 영원히 연장하고, 끔찍하게 그 고통을 건디게 하며, 아마도 영원히 점점 더 괴롭게 만들 것이다. 계 14:11; 눅 12:59; 마 5:26; 마 25:41-46; 살후 1:9; 막 9:44, 46, 48; 사 33:14.

비록 성도의 죽음 상태와 악인의 죽음 상태 및 그에 앞선 상태가 겉으로는 종종 유사하나, 성도가 경험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행위는 그분의 사랑과 의롭다 하심의 선고에서 비롯된다. 죄된 고통은 악인들의 즐거움이나 다름없으나, 믿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부담이다. 롬 7:14-24; 시 38:4; 시 40:12.

## 성찰

여기까지 불타는 산을 에워싸고 정죄의 길을 헤아렸으니, 내 영혼이여, 믿고 떨었는가? 하나님의 이 두려움을 알고 있는가,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나는 아직도 이 저주 아래 있는가? 아니면 이 깨어진 언약, 이 두려운 저주에서 벗어났는가? 언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이 저주와 그 모든 끔찍한 결과를 제거하였는가? 언제, 어떻게 그분께서 나를 타오르는 불길에서 건지시고, 그 피로 깨끗이 씻기셨는가? 내 몸에서 내 구주께로, 그리고 그를 통해 내 죄에 이 저주가 옮겨져 멸망에 이르게 된 경험은 무엇인가? 세 번이나 두렵지만 마음을 녹이는 생각, 예수님,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멈추어라, 내 영혼이여, 가장 두려운 방식으로 그분께 자신을 바쳐라. 들으라, 천사들이여, 온 우주를 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여, 나는 오직 그분 것임을 동의한다—완전히 그분 것임을—영원히 그분 것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으로서 그분 것임을 고백한다. 만일 내가 이 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를 저주하소서, 마라나타.

쓴 썩과 꿀물을 맛보지 않고서는, 곧 그의 피를 통해 얻는 구속과 풍성한 은혜에 따른 죄 사함을 경험하지 않은 채로, 감히 이 거룩한 일을 시작하지 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무서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을 다루는 이 엄청난 임무가 얼마나 두려운가! 얼마나 깊은 긍휼과 간절한 기도와 간구, 그리고 눈물 어린 부르짖음이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드러져야 하는가! 얼마나 끈질기고 멈추지 않는 수고가 필요한가! 얼마나 복음의 단순함과, 그리스도가 그들의 영혼 안에 형성되기까지 겪는 고난의 여정이 여기서 요구되는가!

[1] 이 본문은 아마도 은혜 언약의 두 시대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루면서도 두 언약 자체와도 연관지어 해석한다. 한쪽에는 하갈이라는 여종이 있는데, 그녀는 아브라함 가족 내에서 처음 임신했으나 결국 아들과 함께 쫓겨난다. 이는 법적 제도적 속박과 율법 행위에 강한 경향을 지닌 상태로, 처음에는 하나님께 자녀를 낳는 체제를 나타나 결국은 교회와 백성의 마음에서 추방된다. 시내산은 가시밭이 우거진 척박한 산이며, 한때 천둥과 번개로 두려움을 주었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행위 언약과 법적 시대를 상징한다. 이는 사람들의 양심을 죄책감으로 찌르고 선포된 명령과 저주로 위협하지만, 복음적이고 천상 안식에 들어가기에 부적합하다. 이스마엘은 유대인과 다른 율법주의자들을 상징한다. 이들은 공개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어지나, 여전히 영적 속박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결국 그들의 교회에서 추방된다. 자유 여인 사라는 늦게, 초자연적으로 임신하여 출산하였으며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 가족 안에 머문다. 이는 자유롭게 늦게 태어났으나 하나님께 자녀를 초자연적으로 낳으며 하나님의 교회에 끝까지 남는 복음적 은혜 언약과 시대를 예표한다. 시온산은 쾌적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처로, 가나안 한복판 근처에 있으며, 매우 즐겁고 아름답고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로 축복받아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언약과 시대를 나타낸다. 이삭은 마지막 순서인 그리스도인 및 다른 신자들을 상징하는데, 영으로 태어나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롭게 되었고,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에게 박해받으나 하나님의 가족에 영구히 속하며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은혜 언약의 제정과 집행에 대해 말하자면, 인간의 타락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며, 그의 멸망은 무한히 정당하므로 그의 회복이 어떤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수 없었다. 하나님은 본래 선하시고 자비로우나, 악의 원수들을 위해 무한히 값비싼 영원한 구속을 나타내실 필요는 없었다. 그는 무한히 거룩하고 의로우며 신실하시기에 모든 죄인 피조물을 영원한 멸망으로 벌하실 수 있다(시 11:5). 스스로 무한하고 독립적으로 복되시기에 그들의 멸망이 그의 행복을 해치지 않는다(출 3:14; 요 5:26; 딤후 6:15-16; 딤후 1:11). 그럼에도 인류 전체가 영원히 멸망하였다면, 그분의 창조에서의 지혜와 선하심이 그렇게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성적 존재 전체를 창조하였으나 그들 중 어느 하나도 형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지 못하였다면, 또는 그 전체에 관하여 하나님 자신의 직접적인 목적이 좌절된 것으로 보였다면, 이는 최소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무한한 지혜를 설득력 있게 나타내지 못했을 것이다. —만일 그들 중 어느 한 명도 그분의 영원한 호의를 누리지 못하였다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의 나타남은 얼마나 희미했을 것인가?— 이와 같은 경우 하나님이 곧바로 아담과 하와를 지옥으로 쓸어버려 수백만 명의 정죄를 막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헛된 것이다. —아담과의 행위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은 그 속에 표현된 모든 개별 인격들을 염두에 두셨으며, —만약 그 조건들이 충족되었다면, 각각이 약속된 상의 몫을 받기 위해 존재하게 함이 그분의 공의와 신실함에 의해 요구되었다; —은혜언약 또한 그리스도로 대표된 자들에 관하여 동일함을 보장한다(사 53:10; 시 2:8; 시 22:27-31; 시 89:4). —마찬가지로 이 행위언약이 깨졌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함은 저주 아래 표현된 모든 자들의 존재를 보장하여 그들이 합당한 형벌을 받도록 하셨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 자비와 은혜 가운데 자기 스스로 멸망한 인류의 일부를 회복시키려 하셨다면, 그는 행위언약을 갱신하거나 그들과 직접 당사자로서 어떤 다른 언약에 들어가실 수 없었을 것이다.

1. 죄인으로서 그들의 치욕스러운 성품은 하나님이 그들과 직접 관계를 맺으시는 데 불명예스러웠다.
2. 그들이 언약을 위반함으로써 행위언약의 조건들 자체가 완전히 불가능해졌으며; 모든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고, 무한히 죄 지은 위반에 대해 충분한 만족을 제공할 수 없었다. —이 모두는 어느 유한한 자에 의해서도 이행될 수 없었다(갈 3:10; 시 49:7).
3. 부분적으로는 어긴 법의 저주가 죄의 권세로서 그들의 양심 위에 놓여 있으며, —부분적으로는 타락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모든 인간이 타락한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선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고, 도덕적으로 악한 것을 그만둘 능력도 전혀 없다(고전 15:56; 롬 8:7-8; 욥 14:4; 렘 17:9; 마 15:19; 마 19:24; 엡 2:1-3, 12).
4. 행위언약의 전체 구조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상, 그분의 거룩함과 공의, 신실함이 그 언약 영예를 보존하는 데 깊이 관여하였다. 무한한 거룩함은 아담에게 주어진 거룩하고 선한 명령이 무분별하게 위반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합 1:13; 렘 44:4; 롬 7:12). 무한한 정의는 그러한 중대한 죄를 처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창 18:25; 신 32:4; 시 11:5-7). 무한한 신실함은 위협으로 두 번이나 명시된 죽음을 집행하는 것을 면제할 수 없었다(창 2:17; 딤후 1:2; 민 23:19; 삼상 15:29; 딤후 2:13).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의 구속을 위한 어떤 언약도, 무오류하게 확보함과 동시에 동일 본성 가운데서 죄 값을 온전히 지불할 수 있는 신적 인격과 체결되어야만 했다(시 40:6-8; 사 53:4-5, 10-12; 롬 8:3-4; 살전 5:9-10; 갈 2:20; 행 20:28; 딤후 2:14; 히 2:10-11, 14, 16; 히 7:22; 히 9:15; 마 20:28; 고후 5:21; 벧전 2:24; 벧전 3:18; 벧전 1:18-19; 계 1:5; 계

5:9).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스스로 빠져든 그 불행이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새롭게 체결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전 7:29; 창 3:1-19; 호 13:9; 엡 2:1-10; 엡 1:7; 롬 3:9-20, 23; 롬 8:3, 7-8; 롬 5:12-21; 딤후 3:3-4). 그러나 그 원인과 근원은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사랑과 주권적 은혜였다(시 40:5; 시 136:23; 렘 31:3, 20, 33; 사 54:8-10; 사 63:7; 요 3:16; 요일 4:9-10, 19; 눅 2:14; 엡 1:6-7; 엡 2:4-8). 이 때문에 이 언약은 일반적으로 은혜언약이라 불린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되어 두 신적 인격 사이에 성립된 이 언약은 영원 이전부터 시행되었다.

## 은혜언약과 그 성립

그러므로,

1.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나오심을 받았으며 속칭 '오래전부터 나셨다'고 표현되고, 세상 창조 이전에 예정되었음이 묘사된다(미 5:2; 잠 8:23; 벰전 1:20).
2. 은혜와 영생은 세상 창조 이전에 약속되고 주어졌으며, 천국은 인류를 위해 예비되었고, 그들의 이름은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알려진다(딤후 1:9; 딤후 1:2; 마 25:34; 롬 9:23; 계 13:8).

이 은혜언약은 '두 번째 언약'이라 불리는데, 비록 먼저 체결되었지만, 행위언약이 먼저 깨짐으로 인해 나중에 실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영원한 안정성과 탁월성 때문에 '새 언약'이라 불린다(히 8:6-13; 렘 31:31-34). 이 언약은 세 신격 모두에게서 동등한 무한성으로 비롯되었으며, 세 인격이 모두 동등하게 관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였다(요 3:16; 갈 2:20; 롬 15:30). 성령도 이에 확실히 관여하였다.

1. 그의 뜻은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하다(요일 5:7; 신 6:4).
2. 비록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사역자이지만, 그는 이 언약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보내어졌으며, 그 소식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인성을 형성·기름부으며 지지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스리며, 그리스도가 사신 축복을 각 사람과 그 본성에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행한다(벰전 1:11-12; 벰후 1:21; 눅 1:35; 사 11:2-3; 사 61:1; 히 9:14; 행 13:2-4; 행 20:28; 요 16:7-14; 고전 6:11; 롬 8:2, 13; 롬 15:16, 19; 엡 1:13-14, 17-18; 엡 2:21-22; 엡 5:9; 갈 5:22-23; 갈 5:18, 25).

성령은 이 언약 체결에 관여하였으므로, 그는 믿는 자들의 마음에서 이 언약의 축복을 위해 중보자 역할을 할 권리가 있다(롬 8:15, 26-27; 갈 4:6). 그러나 이 은혜언약은 특히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중보자로 하여 사람들과 체결하신 언약이다.

1.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언약하시는 것을 명백히 묘사하는데, 시 89:34, 19-36의 언어는 다윗과 맺은 이스라엘 통치 언약보다 훨씬 강력하여 그리스도와와의 언약에 더 적합하다. 그 통치 언약은 전형적인 것으로서, 시 40:6-8; 눅 22:29; 사 53:10-12; 속 6:13의 본문에 근거한다. 또한 이 언약의 완성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기예(히 8:22; 히 7:6; 히 9:15),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나은 언약이 결합되었음을 읽으며(갈 3:16-17; 딤후 1:2), 그 약속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임을 본다.

2.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자 머리와 주인, 심판자로 묘사되며, 그를 주고 보내며 도우시고 상하게 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이시다(시 22:1; 시 45:7; 요 20:17; 엡 1:3; 뱀전 1:3; 고전 11:3; 요 3:16; 롬 8:32; 롬 8:3; 요일 4:9-10; 사 48:16; 사 13:1; 사 50:7-9; 사 53:10; 히 2:10; 히 13:20; 뱀전 1:21; 엡 1:20-23; 빌 2:9-11).

3.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종, 보내심 받은 메신저로 묘사된다(사 13:17; 사 49:1-9; 사 61:1-2; 요 6:27, 29; 요 10:36), 보증인으로(히 7:22; 시 119:122), 율법 아래에 태어난 자로(갈 4:4, 9; 롬 8:3-4), 순종하게 된 자로(마 3:15; 빌 2:7-8; 히 5:8; 요 8:29; 요 10:18; 요 14:31; 요 17:4; 롬 5:19; 시 40:7-8), 죄로 여겨진 자로(고후 5:21; 사 53:6, 11-12; 뱀전 2:24), 저주를 받은 자로(갈 3:13), 우리를 위해 고난받은 자로(뱀전 1:19; 뱀전 2:24; 뱀전 3:18; 계 5:9; 엡 5:2, 23, 25-27; 마 20:28; 눅 24:26; 사 53:4-5, 10; 고후 5:14-15; 롬 3:24-26; 롬 5:6-11), 그리고 자신의 사역의 상을 받는 자로 묘사된다(시 2:8; 시 21:1-7; 시 22:27-31; 시 110; 사 53:10-12; 사 49:3-9; 눅 24:26; 요 17:4-5; 빌 2:7-11; 히 2:9-10).

4. 하나님과 그의 아들 사이의 약속을 엄숙히 확인하는 맹세와 인장이 주어진다.—그분의 무한한 중요성과 무오류한 확실성, 그리고 선언된 진리의 필연적 믿음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맹세하였고(시 110:4; 시 89:3-4, 35; 히 7:17, 21, 28), 그리스도는 화목 제사장과 희생 제물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는 마음과 영혼을 걸었다(렘 30:21).—하나님은 은혜언약 두 시대에 걸친 인장을 그리스도에게 부여하였고, 그리스도는 이를 수락하였다. 그리스도는 이 행위를 아버지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서, 또한 가시적 교회와의 연합을 엄숙히 선포하며, 그 사역을 기꺼이 수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그리고 자신의 인성에 주어진 은혜를 자극하고 강화하는 수단으로 행하였다. 그러나 이 인장들은 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의 인간 구속과 관련된 계약을 확인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예컨대 할례를 통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의 약속된 씨로 인정하고 인치셨으며, 그를 통해 인류가 복을 받을 것이고, 그가 피 흘림과 죽음으로 끊어질지라도 신비한 몸은 보존되고 하나님과 교제함을 얻게 될 것이며, 그들의 영적 할례는 그에게서부터 유래하리라는 점을 선포하셨다(창 22:18; 창 17:10-14; 골 2:11-13).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는 하나님 율법을 전부 이행할 빛진 자임을 확인하고, 우리를 보존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 머리이자 육신의 일부로서 피 흘리는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당할 준비가 되었음을 선언하였다(갈 5:3; 시 40:6-8; 요 8:21, 23-30).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인격과 직무에서 받아들이심을 엄숙히 인정하였으며,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위해 성령 충만을 보장하였고, 알맞은 때에 그가 모든 고난의 물 위에서 구원받으리라 밝혔다(마 3:15-17).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권능과 구원을 확신하며 신속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연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었음을 자백하였다(마 3:15; 사 50:7, 9; 눅 12:50; 마 20:22).

—유월절을 베푸실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흠 없는 어린양으로 인정하셨으며(고후 5:21; 히 7:26; 사 53:7), 그가 죽음과 그것의 적용을 통해 모든 성령의 자손을 위한 구원과 위로를 확보하리라 선언하셨다(사 53:10-12; 히 9:28; 출 12; 신 16; 민 9).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해 가장 끔찍한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받겠다고 고백하였다(시 40:7-8; 요 18:11; 눅 22:15).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백성의 영원한 양식과 위로가 됨을 인치셨으며, 그 고난과 그 효력이 세상 끝날까지 땅의 백성 가운데 기억되고 경험되며, 하늘에서도 영원토록 그러할 것을 인치셨다(사 53:10-12; 시 45:17; 시 22:27-31). 그리스도는 자신의 마지막 고난과 죽음을 즉시 시작하겠다고 엄숙히 다짐하며, 그 백성을 자신과 한 신비로운 몸으로 연합시킴을 나타내었다(마 26:26; 고전 10:16-17).

따라서 하늘 편 당사자는 하나님의 신격적 위엄과 권위를 지키는 아버지의 인격으로 본질적으로 간주된다. 그는 여기서,

1. 인간의 죄에 의해 심히 범죄하신 분으로(시 14:2-3; 시 5:4-6; 렘 44:4; 합 1:13),
2. 인류 일부 구속에 자신의 은혜 풍성을 드러내려 하시는 분으로(딤후 1:9; 뢰 1:2; 시 136:23; 렘 31:3, 20),
3. 무한히 공의롭고 거룩하여 죄에 마땅한 보응을 주지 않을 수 없으며, 율법을 영화롭게 하고 정의를 만족시키며 거룩함을 옹호하는 방법 외에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분으로(창 18:25; 신 32:4; 시 11:5-7; 출 34:7; 사 5:16; 사 42:21; 마 5:18) 나타난다.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편 계약 당사자로서(딤후 2:5-6; 사 7:14; 사 9:6),

1. 구속 사역에 필요한 무한한 완전성과, 우리 구속을 위한 충분한 지혜, 능력, 거룩함, 정의, 선함, 진리를 갖춘 인격으로 고려되고(시 89:19; 사 9:6; 계 1:4; 빌 2:6; 속 13:7),
2. 원하시면 우리를 구원할 권리가 있는 정당한 주인으로, 자신의 작품에 대해 부드러운 관심과 연민을 가진 분으로(시 100:3; 롬 9:20-23; 사 43:21; 사 54:5),
3. 그의 모든 택한 자들, 곧 그의 영적 씨를 대표하는 공적 머리로서 간주된다(엡 1:3-4, 6-7; 딤후 1:9; 시 89:3-4; 사 53:10-12).

그것이 그와 함께 그의 영적 자손의 대표로서 체결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1. 그것의 모범적(typical) 또는 상징적(emblematical)인 모든 언약들은 부모가 자녀들의 대표자로서 체결하였다. 예컨대 노아와 체결한 홍수로부터의 보존 언약(창 9:9), 아브라함과 체결한 특별한 우정과 관계의 언약(창 17:7), 비느하스와 체결한 제사장직 언약(민 25:12-13), 다윗과 체결한 왕권 언약(삼하 7:11-19), 이스라엘과 체결한 가나안 소유 및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언약(출 19:5-6; 출 24; 신 5:2; 신 29:11,15)이 있다.
2. 그리스도는 특별히 우리 대표 아담과 행위 언약에서 비교되며, 그의 택하신 지체들과의 연관에서 비교된다(롬 5:12-21; 고전 15:21-22,45-49).
3. 그리스도와 그의 영적 자손은 같은 이름인 이스라엘로 불리는데(사 49:3; 롬 9:6; 갈 6:16; 사 45:17; 사 44:23; 시 24:6; 사 41:14; 고전 12:12; 갈 3:16), 이는 그가 그들의 머리이며 그들은 그의 지체임을 분명히 함이다(엡 5:30; 엡 4:13,15-16; 골 1:18; 골 2:19).
4. 인간에 관한 이 언약의 약속은 모두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으며(갈 3:16-17), 그들의 존재 이전에 주어졌다(딤후 1:2; 딤후 1:9). 그래서 때때로 그것들은 그들에게 속한 다른 인물에게 향해지기도 한다(히 8:9-12). 실로 첫 번째 약속은 사탄을 향한 경고로서 발표되었다(창 3:15).

5. 그리스도는 이 언약의 보증인으로서(히 7:22; 히 8:6; 히 9:15; 시 119:122) 언약의 조건을 대표받은 이들 대신에 완수해야만 했다(사 53:4-12; 고후 5:21; 엡 5:2,25-27; 마 20:28; 뱀전 1:19; 뱀전 2:24; 뱀전 3:18; 계 5:9). 이 언약은 반드시 우리 대표로서 하나님의 아들과 체결되어야 했다.

### 언약 체결의 필요성과 대표성

1.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이룬 시기부터, 즉 택하신 자들이 아직 존재하기 전부터 영원에서부터 발산하기 위해서이다(렘 30:21; 렘 31:3; 단 1:2; 뉁후 1:9; 잠 8:23-30). 그때 이미 그리스도는 그들의 영원한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어 그들은 대리로서 그와 혼인하였다(사 9:6; 요 17:6).
2. 만약 이 언약이 우리 대표로서 신성을 지닌 인물과 체결되지 않았다면 전혀 체결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구원이 의도된 자들은 오직 악하고 악한 존재들로만 여겨졌으며, 하나님에 대한 원수됨과 반역 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 생명의 어떠한 조건도 충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롬 8:3,7-8; 렘 17:9; 시 14:1-4; 엡 2:1-3; 단 3:3; 마 15:19; 막 7:21-23). 한편 율법은 완전한 순종과 무한한 죄값의 만족을 요구하였고, 이는 오직 신성한 인격만이 수행할 수 있었다(갈 3:10,13; 롬 6:23; 겔 18:4; 히 9:22).
3. 이 언약은 우리에게 매우 풍성하고 전적으로 자유로운 은혜의 언약이 되도록 체결되었다(엡 2:7-9; 엡 1:6-8; 롬 4:4,16; 롬 5:20-21; 롬 3:24).
4. 행위 언약이 죄와 죽음을 간절하게 전달한 것처럼, 의와 생명도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표자로서 아담과 생명 언약을 체결한 일이 그의 완전성을 의롭다고 하셨다(롬 5:15-21; 고전 15:21-22,45-49).
5. 이 언약의 약속들이 택하신 모든 이에게 확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롬 4:16). 자비가 영원히 굳건히 서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하늘 가운데 굳어지도록, 대표자는 강력하여 실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며 사탄에게 미혹되지 않는 자여야 했다(시 89:2,19,22,28-29,33,36).

### 언약의 상대와 그 성격

이 언약에 계약된 상대는 영원한 생명으로 택하신 인류였다.

1.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만이 그에게서 복을 받는다(엡 1:3-4). 그들의 택정에서 그와 그들은 한 몸으로 간주되며, 그가 머리고 그들이 지체이다(히 2:11; 사 42:1,6; 엡 5:23,30).
2. 그리스도가 대표한 모든 이들은 천상의 사람들이다(고전 15:47-49; 골 3:1-4; 엡 1:4; 엡 2:6).
3. 그를 위해 책임을 지는 이들은 마땅한 때에 거듭남으로 다시 낳은 그의 영적 씨로 나타난다(갈 3:16; 시 89:3-4; 시 22:30-31; 사 53:10-11; 약 1:18; 벧전 1:23).
4. 그가 대표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다(롬 9:6; 갈 6:16; 히 2:16).

### 대표 관계의 고려 사항

이 대표 관계에서 다음과 같이 고려된다.

1. 행위 언약의 파기로 자신 안에서 잃어버리고 멸망한 죄인으로서(호 13:9; 눅 19:10; 마 18:11; 마 9:12-13; 롬 5:6,8,10).
2. 스스로 도울 수 전혀 없는 존재로서(롬 5:6; 롬 8:7-8; 고후 3:5; 요 15:5; 롬 13:23; 엡 2:1; 골 2:13).
3.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에 따라 세상 나머지와 구별된 자들로서(마 20:23; 딤후 2:19; 요 17:6,12; 엡 1:4; 살전 5:9).
4.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구속 사랑의 대상자로서(요 17:23; 요 17:6; 요 13:18; 요 15:15-16; 엡 5:21,25; 요 4:9-10,19; 요 3:1).

그러므로 대표할 때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일반적 성격을 지니는 것에 그치지 않고 특별히 다음의 인격이어야 했다.

1. 우리의 친족 구속자로서(욥 19:25; 사 48:17), 주린 인간 본성과 거룩한 율법을 혼인하고, 좋은 인물과 행위의 자손을 그들에게 세우며(눅 3:38; 창 3:15; 히 2:11-16; 마 3:15; 눅 24:26; 롬 7:4; 시 22:30-31; 요 12:24), 율법 파기의 노예 상태와 죄, 사탄,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며(갈 4:4-5; 갈 3:13; 롬 7:4; 롬 6:14; 롬 8:2; 벧전 1:18-19; 딤후 2:14; 히 2:14-15; 딤후 2:25-26; 사 49:24-26; 갈 1:4; 갈 6:14), 담보로 잡힌 영원한 행복의 유산을 되찾으며(살전

5:10; 엡 1:14; 요 10:10; 계 5:9), 죄와 사탄과 죽음이라는 살인자들에게 우리 피를 갚는다(요 8:44; 히 2:14; 고전 15:56; 롬 5:12; 단 9:24; 요일 3:5,8; 호 13:14; 사 25:8).

2.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의무를 더 확실하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에 대한 보증인은 아니다(히 6:17-18). 또한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우리의 빚을 갚는 것만을 보는 보증인도 아니며, 주채무자들과 함께 속박된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빚만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롬 5:6; 롬 8:7-8; 롬 1:28-32; 롬 3:9-18; 벧후 2:14).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 회개, 새 순종의 보증인도 아니며, 이것들은 언약의 약속들에 속한 특권으로서 그 이행에 대해 아버지가 관여한다(시 22:27-31). 또한 그리스도가 이러한 의무 이행의 보증인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그것들을 언약 조건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이는 언약의 은혜를 흐리거나 오히려 해체하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빚을 혼자서 지고 파기된 율법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온전한 빚을 갚겠다고 약속한 우리의 보증인이다(갈 4:4-5; 마 5:17-18; 마 20:28; 마 3:15; 사 53:6,10; 고후 5:21; 롬 4:25; 롬 5:19; 벧전 1:18-19; 벧전 2:24; 벧전 3:18; 눅 24:26; 엡 5:2,25; 살전 5:10; 딤후 2:14; 계 5:9).

3. 우리의 희생 제사장으로서. 택한 죄인들의 율법 파기의 형벌을 만족시키는 보증인이 된 후,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그들의 죄책에 대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 필요했다(히 7:22,26; 히 5:1; 히 9:14,28; 히 10:5,10,14; 사 53:시 22; 시 69; 엡 5:2).

### 은혜의 언약 체결

1. 하나님의 아들은 둘째 아담으로 정해지며 우리 본성을 취해 참 인간이 되는 데 동의했다. 따라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실질적 중재자가 되어 우리에게 요구되는 율법에 복종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빚을 갚으며 동일 본성으로 죄에 대해 고난을 당할 수 있었다(시 40:6-8; 창 28:12; 요 1:51).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는 공식적 중재자이자 머리이며 그의 택한 자들의 대표자가 되었다(사 42:1,6; 시 89:19; 고전 15:47; 딤후 2:5-6; 히 8:6; 히 9:15).

2. 영원한 생명을 위해 택한 모든 인류는 여호와와의 위엄에 합당한 방식으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스도가 받아들이며 생명책에 등재하였다(요 17:6,9,12; 엡 1:4; 빌 4:3; 계 3:5; 계 13:8; 계 21:27; 눅 10:20; 사 4:3).

3. 이들의 구원과 관련한 모든 조건과 사항(어떤 대가가 얼마에, 어떠한 형태와 때에 지급되어야 하는지, 보증 서비스 수행의 장비, 도움, 보수가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부여될지, 은혜와 영광이 그와 그의 지체들에게 시간, 방식, 정도와 관련해 어떤 조건으로 주어질지 등)이 완전히 확정되었다(사 53:10-12; 사 49:1-12; 시 40:6-8; 시 22:27-31; 시 139:16; 시 2:6-9). 그리고 우리의 구속 계획 수행에 있어 아버지는 아들과 구원받는 자들을 주권자이자 재판관 역할로 행하고(사 50:4-9; 사 52:13-15; 사 42:1-7; 사 49:1-9; 히 2:10; 속 13:7), 아들은 중재자로서(겸손하면서도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종의 역할을 행한다)(딤후 2:5-6; 사 49:3; 사 52:13-15; 사 53; 사 61:1-3; 시 110; 시 72; 시 119; 시 2), 그리고 성령은 언약 선언의 선포자(벧후 1:21; 벧전 1:11-12; 삼상 23:2), 그리스도의 조력자 및 보상자(사 11:2-4; 사 61:1-3; 시 14:7), 그리스도와 아버지께서 언약을 성취하는 증인, 그리고 택한 자들에게 언약의 복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자로서 역할한다(히 2:5; 행 2-19; 요 14:16-17,26; 요 15:26; 요 16:7-14).

## 조건에 대한 이해

조건(condition)이 부적절하게, 단지 약속된 복을 누리기 전 자연적 순서로 선행해야 할 특정 행위 정도로만 의미가 취해지면, 많은 것이 조건이라 불릴 수 있다. 예컨대 거룩함은 영원한 행복보다 앞서야 하며(히 12:14), 진정한 죄 회개도 하나님의 아버지 같은 용서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잠 28:13; 요일 1:9). 그리고 이 언약이 공적으로 복음의 전지에서 특히 믿음을 요구하고(행 16:31; 막 16:16), 하나님께서 복을 전달하는 지정된 수단이며 우리가 복을 받는 도구(요 1:12; 사 45:22; 마 11:28; 롬 5:1-2; 엡 2:8)인 까닭에 신학자들은 이를 언약의 조건이라 자주 부른다. 확실히 이는 연결 조건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조건이 엄밀히 약속된 상급을 청구할 권리를 약속자에게 부여하는 사항으로 이해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의(righteousness)만이 허용될 수 있다. 이는 행위 언약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것이다.

1. 그리스도는 택하신 세상의 모든 빛을 떠맡으셨다. 이는 그들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는 대가이며(롬 6:23; 살전 5:10; 마 20:28; 벧전 3:18; 계 5:9),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격을 지니게 한다(마 19:17; 마 3:15; 마 5:17-18; 롬 5:19,21). 따라서 이 언약의 적절한 조건으로서 그들이 수행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다(단 9:24; 고후 5:21).

2. 하나님의 본성의 온전성은 타락한 인간 회복을 위한 어떤 언약 조건도 행위 언약의 파기 조건일 것을 요구함이 증명되었다. 하나님의 진리와 의가 실패하지 않는 한 그 벌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한다(창 2:17). 죄는 무한한 위엄과 완전함을 지닌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속죄되어야 하므로 결코 죄인을 무죄 방면할 수 없다(출 34:7). 거룩한 계명은 완전한 순종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갈 3:12; 마 5:18; 마 19:17). 이 높은 요구에 부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뿐이다(마 3:15; 롬 8:3-4).

3. 성경은 그리스도의 모든 의의 완성이 파기된 율법 또는 행위 언약의 명령과 벌에 해당하고, 이는 그의 영적 씨들이 영원한 행복에 이를 적합한 조건으로서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사 53:10-11; 눅 22:20; 마 3:15; 마 20:28; 눅 24:26; 히

2:10; 빌 2:8; 빌 3:9; 고후 5:21; 롬 4:25; 롬 5:10,15-21; 롬 3:24-26; 뱀전 1:18-19; 뱀전 2:24; 뱀전 3:18; 뱀후 1:1; 계 5:9; 엡 5:2; 딤후 2:14; 살전 5:10).

4.

오직 그리스도의 의로움에만 믿는 자들이 그들의 간구와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세웠으며, 엡 1:6-7; 골 1:14; 빌 3:8-9; 롬 3:20-22; 롬 5:21; 갈 2:16; 갈 5:4,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도 그의 계속적인 중보를 세우셨다(요 17:4; 요일 2:1-2; 계 8:3-4).

## 5. 언약의 조건과 영생 채무

이 언약의 조건으로서 우리의 보증인이신 그리스도의 의만이 언약자 또는 언약자들에게 영생을 채무로 만들 수 있으며(롬 4:4-6), 이로써 우리의 영원한 구속은 그의 공로에 근거한 그리스도에 대한 채무인데, 이는 내재적이고 언약적이며,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자 이 언약의 조건을 성취한 자이신 그가 근거이다(사 53:10-12; 시 40:6-8; 행 20:28).

## 6. 믿음, 회개와 순종의 역할

우리의 믿음, 회개, 새 순종은 결코 깨어진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은혜 언약의 적절한 조건이 아니라 이 언약이 성취된 조건 위에 약속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이익들이다(빌 1:29; 시 22:27,31; 행 5:31). 이들은 그것들이 있는 모든 이가 이미 그 언약 안에 속해 있음을 전제한다—이들 중 어느 것도 저주나 정죄의 행위 언약 아래서 수행될 수 없다(갈 2:19; 갈 3:10; 고전 15:56; 롬 7:4; 롬 6:14; 롬 8:2). 법으로서가 아니라 삶의 규범으로서 수행된 의무들이기에 언약적 공로가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 그의 의에 대한 소속감, 그리고 영생에 대한 완전한 청구권에 기초한다(눅 1:74-75; 히 12:28). 심지어 믿음조차도 은혜 언약의 조건이라 부를 수 없는데, 마치 아이가 아버지의 수고에 대한 품삯을 받고 착용하는 것이 그 품삯을 받을 자격을 주는 조건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과 같다(사 53:10-12; 히 2:10-16; 시 22:30-31).

## 7. 은혜 언약의 자량 배제와 조건 성취

은혜 언약은 모든 자량을 배제하지만(롬 3:27; 롬 5:20-21; 딤후 3:3,5), 우리의 믿음, 회개, 새 순종이 그 적절한 조건이라면 그러할 수 없다; 이 은혜들이 율법의 저주와 죄의 지배 아래서 최소한으로 활동하는 것조차도 아담이 무죄 상태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행한 것보다 더욱 자량거리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완전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의로움의 조건이 행위 언약의 깨어짐과 별도로 명확히 진술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셨으므로(마 5:17-18; 롬 8:3-4; 갈 4:4-5), 이 조건에는 반드시 다음이 포함된다.

1. 그의 인성의 거룩함은 부분과 정도에서 절대적으로 완전하며 그의 낮아진 생명이 끝날 때까지 유지되었다(히 7:26; 눅 1:35). 행위 언약 아래서 사람은 창조 시 부여받은 그 본성의 완전을 반드시 유지해야 했고, 적절히 개선하며 강화해야 했기에, 그리스도는 그를 통하여 구원받는 자들을 대신하여 그것을 제공해야 했다. 하나님의 율법이 이 본성의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원죄의 결핍과 따라서 본성의 정반대인 부패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법이 없으면 범죄도 없기 때문이다(롬 4:15; 롬 5:13). 그리고 그리스도의 본성의 거룩함이 그의 보증 의로움에 포함되어 우리에게 전가된다고 해서 우리의 본성의 거룩함이 불필요해지는 것이 아니며, 그가 생애 동안 보인 순종이 우리의 거룩한 순종을 불필요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본성의 거룩함은 그리스도의 본성과 생명의 거룩함으로 구매된 우리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이다(롬 5:10,15-21).

2. 그의 생애 동안 지극히 완전한 거룩한 순종이 부분과 정도에서 최고로 완성되어 그의 죽음까지 지속되었다(요 8:29; 히 5:8; 마 3:15; 마 5:17-18; 빌 2:8; 시 40:8; 갈 3:10,12; 롬 10:4-5; 롬 5:19; 마 19:17; 레 18:5; 신 27:26). 그리스도가 그의 본성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이 거룩한 순종을 견뎌낸 것은 우리가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저주 아래 계속 있었기에 무한히 어려웠다(갈 3:13; 고전 15:56).

3. 인간의 죄로 인한 깨어진 율법의 형벌에 대한 완전한 배상—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과 동일한 벌을 자발적으로 감당함으로써 모든 본질적 요소에서 이행되었다. 첫째, 그는 법적 사망이나 우리 죄에 대한 저주에 복종하였다(갈 3:13; 신 21:23).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정당히 진노하셨다(시 89:38; 시 22:1-2). 그는 진노의 정의의 손에 맡겨져 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함으로 모든 죄에 대한 온전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었다(속 13:7; 사 53; 롬 8:32). 또한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한 진노의 모든 화살과 파도의 과녁으로 세워졌다(요 18:11; 시 69:1-2,14-15).

둘째, 그 저주 또는 정죄의 형벌이 깨어진 율법의 영혼, 육체, 인격에 무한히 집행되었으며, 저주에서 비롯된 그 일시적이고 영적인 죽음에 포함된 모든 것에 미쳤다(창 2:17; 갈 3:10,13; 눅 24:26; 사 50:6; 사 52:14; 사 49:7; 사 53:2-12; 시 22:1-21; 시 69:1-21; 시 40:2,6-8,12-13,17; 요 12:27; 행 20:28; 히 2:10; 히 5:7; 히 13:12; 계 5:9; 엡 5:2; 뱀전 1:19; 뱀전 2:24; 뱀전 3:18; 고후 5:21; 마 20:28; 마 26-27; 막 14-15; 눅 22-23; 요 5; 요 8; 요 10; 요 18-19). 욕망의 내주, 죄의 오염, 그리고 영벌의 영원성은 율법의 저주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므로, 무한히 거룩하고 합당한 인격에게 내려졌을 때 이러한 형벌에 해당하지 않았다. 그의 무한한 능력과 거룩함이 죄의 모든 감염을 막았다(고후 5:21; 사 53:7). 그의 인격의 무한한 존귀함은 법의 요구에 부합하는 무한한 가치를 지닌 일시적 고난을 만들었으며(요 18:11; 행 20:28; 롬 1:17; 롬 5:17-18; 고후 5:21), 하나님의 외아들로서 이 저주를 자발적으로 받고자 온 그는 아버지의 필연적 지원이나 때때로 미소를 받는 것을 막지 않았다(사 42:1; 요 3:34; 마 3:16-17; 마 17:1-5; 마 4:11; 눅 10:21; 눅 22:43; 요 12:28). 지혜, 권능, 거룩함, 정의, 선함, 진리에서 무한하고 영원하며 변함없는 인격과 연합된 이 언약은 그가 맡은 일을 실패할 수 없게 하였기에 파기의 벌을 남기지 않았다(시 89:19,22; 사 9:6; 사 42:4; 히 7:25).

그리스도가 조건을 성취했으므로 그가 대표하는 자들에게 적절한 벌이나 처벌은 가해질 수 없다. 그들이 겪는 징계는 그들의 죄에 따른 것이지만 파멸을 촉진하려고 주어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구속 사랑에서 비롯되고 예수의 피로 구매되었으며 그들의 인격과 본성과 연결되어 언제나 유익하다(롬 8:1,33-39; 시 89:30-35; 시 119:67,71; 히 12:6-11; 계 3:19; 시 94:12; 잠 3:12).

그러나 이 언약의 약속은 그 안에서 무한한 중요성을 지녀 '약속의 언약'이라 불린다(엡 2:12).

## 1. 약속의 연속성과 집합

1. 우리를 향해서 이것은 연속된 약속 혹은 약속들의 집합, 별자리와 같다. 그 전체 경륜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의무는 없으며, 하나님은 이 언약에서 이를 우리 안에서 이루시고, 우리로부터 받아들이시며, 상으로 보상하실 것을 약속하신다(겔 36:26-27,31; 사 60:7; 롬 15:16; 사 3:10; 고전 15:58). 심지어 그리스도의 조건 성취조차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온다(창 3:15; 단 9:24).

2. 이 언약의 조건은 그리스도에게 많은 약속을 동반하였다. 그가 이 조건을 성취한 것은 아버지에게서 약속받은 장비와 도움을 받음에서 나오며, 약속된 인정과 상을 받음으로 이어진다(사 42:1-6; 사 50:4,7,9; 사 52:13-15; 사 49:1-9; 사 53:10-12; 시 22:27-31; 시 72; 시 110). 약속의 즉각적 적용에서 어떤 은혜 언약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그의 택자들의 머리로서, 다른 약속들은 택자들 자신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극심한 일체감과 관련성이 있어 그에게 이행된 모든 약속은 그들의 유익으로, 그들에게 이행된 모든 약속은 그의 영광과 기쁨으로 귀결된다(시 22:27-31; 사 53:10-12; 사 42:1-7; 사 49:1-12).

## 2. 그리스도에게 직접 이행된 약속들

그리스도 자신에게 직접 이행된 약속들은 주로, 때로는 전적으로 그에게 주어졌다. 그중 그의 사역을 위한 장비 약속, 즉 거룩한 인성이 그에게 형성되고 성령이 풍부히 부어졌다는 약속은 겸손한 그의 사역 수행 전에 이행되었으며,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과 우리 택함에 근거한다(히 10:5; 사 49:1-9; 사 42:1-6; 사 61:1; 사 11:2-4; 사 50:4,7,9; 시 89:21; 마 3:16; 요 3:34).

그러나 그의 사역 인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들, 곧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약속(시 16:10; 히 13:20), 영 안에서 그의 의인 결정을 약속하는 것, 즉 그가 택자들을 위해 지불해야 할 모든 빚에서 완전히 면책받았다는 약속(사 50:8; 딤후 3:16; 롬 4:25; 히 9:28; 요 16:10),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하실 약속들, 여기에는 하나님과 그의 소유로서 중재자적 지위, 하나님과 모든 것의 상속권(시 89:26-27; 히 1-2; 롬 8:17; 요 20:17; 시 45:7; 시 16:11)이 포함된다. 또한 이 언약 조건의 성취로 인한 하나님의 최고 대신관과 교회에 관한 모든 일의 감독직 위임(행 2:36; 시 110:1-7; 시 72; 시 21; 시 22:27-29; 사 49:8; 사 52:13; 단 7:14; 마 28:18; 마 11:27; 요 3:35; 요 5:22; 엡 1:22; 빌 2:8-11; 사 9:6-7; 사 32:1),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영적 자손들과 그 안에서 가장 크게 복받은 영원한 복(사 53:10-12; 시 89:4,29,36; 시 22:30; 시 72:17; 사 45:17), 그리고 그의 모든 원수와 그의 백성의 모든 원수에 대한 완벽한 승리(시 110:1-2,5-6; 시 89:23; 시 22:27-28; 시 45:5-6; 미 4:3; 미 2:13; 미 5:4-5; 스 9:9-10; 스 12:9; 스 14:12; 시 18; 시 21; 시 72)가 이 행위에 달려 있다.

## 3. 택자에게 이행되는 약속과 결론

모든 택자에게 즉시 이행되는 약속들은 우선 그리스도 자신에게 주어졌다.

1. 성경은 이를 명백히 선언한다(갈 3:14,16-17; 시 89:4,28-36).

2.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위대하고 최초의 상속자이며 신적 약속도 예외가 아니다(히 1:2; 시 89:27; 요 20:17; 롬 8:17).

3. 이 약속들은 그가 모든 의를 성취하는 조건으로 주어졌으며, 이는 그에게 약속된 상의 일부이다(사 53:10-12; 시 22; 시 69; 히 2:8-10; 히 12:2; 빌 2:8-11).

4. 이 약속들과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 택자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을 때 주어졌다(딤후 1:2; 딤후 1:9).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론지어진다.

1. 이 언약의 어떠한 조건부 약속도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의 의로 옷 입은 자들에게만 영적 복을 부여하며, 이는 이 언약의 조건이다(사 1:19; 사 3:10; 고전 15:58; 계 14:13; 계 22:14).

2. 은혜의 시작은 약속을 통해 택자들에게 전달된다(벧전 1:23; 야 1:18; 겔 11:19; 겔 36:26; 신 30:6).

3.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은 약속들에 대한 실제적인 소유와 시작된 점유를 부여하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속인으로서이다(고전 1:30; 고후 1:20).

4. 우리는 약속을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해야 한다(요 14:13-14; 요 16:23-24; 창 12:3; 창 22:18; 시 72:17; 엡 1:3).

5. 우리는 어떤 약속도 실패할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약속이 주로 주어진 그리스도를 건드렸어도, 그리스도는 결코 하나님께 이 약속들을 어기도록 도발하지 않았고, 오히려 무한하고 영원한 약속 이행의 근거와 원인이 되었다.

선택된 자들과 직접 관련된 약속들은 일반적으로 영생을 포함한다. 이는 시간 안에서 그리고 영원토록 모든 참된 행복과 그 모든 수단을 의미한다(Titus 1:2; 1 John 2:25; Isa 45:17). 또한 이것은 깨어진 율법, 곧 죄와 세상에 대한 죽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Rom 7:4; Rom 8:2; Rom 6:2-14; Col 3:3-4; Col 2:20; Gal 1:4; Gal 2:19-20; Gal 6:14). 더 나아가, 화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원인이 되어 그분을 지탱하는 힘으로 삼고, 은혜로운 동반자로 함께하며, 하나님을 최고의 마지막 목적으로 삼는 끝없는 생명이기도 하다(Ps 27:1; Ps 142:5; Ps 73:24, 26; Col 3:3-4; Rom 7:4; Gal 2:19; 1 Cor 6:20; 1 Cor 10:31).

### 영생의 시기 구분과 단계별 약속

이 영생은 세 가지 시기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즉,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기 이전, 그 연합의 순간부터 죽음까지의 기간, 그리고 영원한 상태에 있는 시기다. 첫 번째 시기에는 영생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으나 그들 자신에게는 권리도 소유도 없다. 두 번째 시기에는 영생에 대한 완전한 권리는 있으나 소유는 불완전하다. 세 번째 시기에는 완전한 권리와 소유를 모두 가진다. 이 기간들을 통틀어서 보면 영생의 약속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항목들로 나눌 수 있다.

1. 영생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있다는 안전에 관한 약속, 즉 그들이 자연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다(Isa 53:10). 저주는 곧바로 그들을 타락한 아담의 자녀로 몰아가지만,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분을 통해 선택된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비밀리에 생명으로 이끌어 그들의 구속에 참여하게 한다. 또한 수많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연 생명이 그리스도와 결합하는 예정된 순간까지 지켜질 것이라는 약속(Matt 24:22; Ezek 16:6, 8; Isa 65:8), 영적 죽음 아래 묻히는 무덤돌이 놓이지 않아 은혜의 날을 지나치거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Mark 3:29),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서 겪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 및 사랑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증진시키는 기회와 수단으로 관리하신다는 약속(Ezek 20:36-37; Hos 2:6-7, 14; Job 33:14-30; Luke 15:11-13; Acts 9:1-18; Acts 22; Acts 26; Philem 10-19; 2 Chron 33:11; John 4:6-29; Luke 23:39-43)—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예비와 준비, 그리고 그분의 몸이 무덤 속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보존된다는 약속(Isa 7:14; Isa 11:2; Ps 16:10)에 기초한다.

2.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언약 안에서 사랑이 확정된 순간에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 약속(Isa 53:10; Isa 54:5; Hos 2:19-20; Ezek 16:8). 이 약속은 성령께서 그들의 영혼을 확신시키고, 부르며, 붙잡아 정복하고 소생시키시며, 그리스도의 일을 보여 주어 믿음을 일으키고 그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일을 포함한다(Isa 44:3-5; John 16:7-14; Ps 110:3; Ps 45:4-5; Ezek 36:26-27; Ezek 37:5, 9, 14; John 6:37, 44-45, 65; Ps 22:31; Rom 15:12; Isa 11:10; Phil 1:29; Eph 2:4-10).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과 진정한 인성을 하나로 하셨으며, 부활 때 그 영혼을 몸과 다시 연합시키신 약속(Eph 2:5-6; Isa 26:19; Hos 6:2; Phil 3:10; Phil 2:3)과도 긴밀히 연결된다.

또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선택된 자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자유롭고 완전하며 돌이킬 수 없고 영원한 의롭다 하심의 약속도 포함된다. 이는 그리스도가 언약의 조건을 성취하셨고, 그 완성된 의가 개인에게 전가되었으며, 이 의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제공되고, 그리스도를 보증이자 남편으로 하는 친교에 의해 확증된다(Isa 45:24-25; Isa 53:11; Isa 42:21; Dan 9:24; Rom 5:16-19; Rom 1:17; Rom 3:22; Phil 3:9; 2 Cor 5:21).

이 약속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에 대해, 특히 율법을 어긴 범죄로서의 죄에 대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사면의 약속(Heb 8:12; Eph 1:7; John 5:24; Isa 54:9; Isa 1:18; Isa 43:25; Isa 44:22; Jer 50:20)과, 하나님과의 호의로운 상태로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은혜 안에서 시작하여 천상 영광 가운데 완성될 실제 영생에 대한 완전한 권리의 약속(Eph 1:6; Rom 5:19; 2 Cor 5:21; Isa 45:24-25)도 포함한다. 이러한 약속들은 그리스도께 이루어진 완전한 의롭다 하심의 약속(1 Tim 3:16; Isa 50:8; Rom 4:25; John 16:10)에 근거한다.

4. 하나님과 화목한 친구로서의 새 언약 관계에 관한 약속(Ezek 37:26; Rom 5:10; 2 Cor 5:19), 양자로서의 아버지(Hos 1:10; Gal 4:4-5; Rom 5:1-2; John 1:12; 1 John 3:1; 2 Cor 6:18; Jer 3:4, 14, 19, 22) 그리고 하나님이자 분깃이며 전부로서의 관계에 관한 약속(Exod 20:2; Ps 50:7; Ps 81:8, 10; Jer 30:22; Jer 31:33; Ezek 37:23, 27; Ezek 11:20; Heb 8:10; Gen 17:7; Rom 8:17; Gal 4:7)—이 모든 약속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중재자 직분과 만유의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데 근거한다(2 Cor 5:19; Eph 1:6-7; John 20:17; Rom 8:17).

5. 그리스도와 연합에서 비롯된 그들의 본성과 삶의 거룩함에 관한 약속(Ezek 11:19; Ezek 36:26-27, 29; Ps 110:3; Ps 22:30; 1 Thess 5:23-24)—이는 그리스도와 연합(1 Cor 1:2, 30; Eph 2:10; 2 Cor 3:18; 2 Cor 5:17; Gal 3:26-27; Gal 6:15),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의롭다 하심(Heb 8:10, 12; Heb 13:12),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구, 아버지, 하나님으로서의 관계(1 Thess 5:23; Rom 8:29-30; Gal 4:6; Gal 5:17, 24; Ezek 16:8-9; Jer 32:38-40)에서부터 나온다.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은혜의 완전한 보물이 있으며(Col 2:10; John 1:14, 16), 믿음으로 마음에 거하는 성령께서 점차 모든 죄에 대한 사랑과 실천에서 죽게 하시고, 의에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여 점진적으로 온전함에 이르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삶을 이루도록 이끄신다(2 Cor 3:18; Col 2:10-11; Col 3:10-11; Phil 4:13; Jer 17:7-8; Ps 28:7-8). 이 약속은 태중에서 그리스도의 인성이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사실(Phil 3:10-11; Rom 6:1-12; Rom 7:4; Col 2:11-12; John 1:14, 16)에 근거한다.

6. 그리스도를 남편이자 의의 주님, 영향의 머리로 하여 그분과의 연합 상태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는 약속, 그리고 그 속에서 선택된 자들이 인내하며 심겨진 은혜를 소유하고 행사하는 약속(Job 17:9; Prov 4:18)—이를 위해 성령의 지속적인 거하심과 영향력(Ezek 36:27; John 14:16-17; John 16:13-14; Isa 27:3; Hos 14:7; Col 2:19)과, 매일의 연합함에 대한 믿음과 회개의 반복에 따라 받는 아버지 같은 용서(Jer 33:8; John 13:10; Isa 43:25; John 1:7, 9; John 2:1-2; Mic 7:18-19)가 약속된다. 이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증 의로움을 성취하고 영원히 확고히 하신 약속(Isa 42:4; Ps 89:22)과 그의 영원한 천상 생명에 관한 약속(Ps 21:4; John 14:19; Col 3:3-4)에 근거한다.

7.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적 확신, 양심의 평화, 성령 안의 기쁨으로 이루어지는 영적 위로의 약속(Isa 40:1-2; Isa 44:23; Isa 49:10; Isa 61:2; Isa 57:18)—이들은 아버지와 함께하신 그리스도의 충만한 기쁨에 관한 약속(Ps 16:11; Ps 17:15; Acts 2:28; Rom 8:29)에 근거한다.

8. 실제적 약에서 보호받고, 모든 선한 것을 공급받는 새 언약적 세속 유익의 약속(Ezek 36:28-29; Hos 2:18, 22; Isa 33:16; 1 Tim 4:8; 1 Tim 6:8; Ps 37; Ps 112; Ps 127-128; Ps 91:3-13; Zech 2:5; Ps 1:3-4; Ps 41:1-4; Job 5:19-22; Isa 49:11; Ps 121:6; Rev 7:16; Ps 34:10; Ps 84:11; Ps 85:12; Ps 38:3, 19; Prov 3:2-24; Matt

6:30-33; Isa 65:21-23; Rom 8:32)—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만유 상속자 되심에 근거한다(Ps 89:26-27; Heb 1:2; 1 Cor 3:22-23).

9. 쏘임이 무장 해제된 행복한 죽음의 약속(Hos 13:14; Ps 23:4), 성화되고 달콤한 죽음의 약속(1 Cor 3:22; Phil 1:21, 23; Luke 2:29-30; 2 Cor 5:1-5),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로 인해 죽음이 파괴되는 약속(Isa 26:19; Isa 25:8; 1 Cor 15:54)—이 약속들은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안전과 승리, 그리고 그 부활에 관한 약속(Ps 16:10; John 11:25; Isa 26:19; 1 Cor 15)에 근거한다.

10. 마지막 날에 존귀한 심판에 관한 약속(Ps 50:1-6; Ps 96:13; Ps 98:9; Matt 25:31-40)—이 약속은 천국의 총리이자 만유를 다스리는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1 Thess 4:15-17; Col 3:4)에 근거한다.

11. 죽는 순간 영혼에서 시작되고(Isa 35:10; Isa 57:2; 2 Cor 5:1-7; Phil 1:23; Luke 23:43; Rev 14:13), 마지막 날 영혼과 몸 모두에서 완성되는 영원한 행복의 약속(Isa 51:11; Isa 53:10; Dan 12:2-3; John 5:28-29)—이 약속은 아버지 우편에 영구히 앉으신 그리스도의 높임과 영광에 관한 약속(Rev 3:21; Ps 16:11; Ps 110:1, 5, 7)에 근거한다.

### 은혜 언약의 통합적 이해

이와 같은 은혜 언약의 당사자, 체결자, 구성요소에 관한 개략적 설명에 비추어 볼 때, 이 언약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쪽은 그리스도와 맺은 구속 언약, 다른 한쪽은 선택된 자 각자와 맺은 은혜 언약으로 분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1. 성경은 인간의 영원한 행복과 관련하여 두 언약만을 언급한다. 그중 하나가 속박을 낳는 행위언약이므로, 다른 하나는 구속 언약이어야 한다(Gal 4:24). 이 두 언약은 '옛 언약'과 '새 언약'(Heb 8:6-13), '율법'과 '은혜'(Rom 11:6; Rom 6:14), '행위의 법'과 '믿음의 법'(Rom 3:27)으로 불린다.

2. 그리스도의 피는 반복해서 ‘언약의 피’라고 불리지만, 결코 복수형인 ‘언약들의 피’라고 불리지 않는다. 이는 구속 언약의 조건이며 은혜 언약의 근간인 단 하나의 언약이 있음을 입증한다(Exod 24:8; Zech 9:11; Heb 9:20; Heb 10:29; Heb 13:20).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의 언약에 달려 있으며, 그리스도와 그 백성은 동일한 언약으로 영원한 영광을 누린다.

3. 일부가 주장하는 별도의 구속 언약을 분리하면, 선택된 자들과는 제대로 된 언약이 전혀 남지 않고 단지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함을 무상으로 부여주고 약속한 귀중한 약속들의 묶음만 존재한다. 또한 한 약속에 명백한 조건으로 제시된 것이 다른 약속에서는 절대적으로 약속된다(Isa 55:1-3; Acts 13:34; Rev 22:17; Ezek 36:25-31; Isa 1:18; Isa 43:24-25; Isa 57:17-18; Jer 3:19; Jer 31:33-34; Heb 8:10-12).

4. 새 언약을 둘로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은 행위언약도 아담과 그의 자손에게 별도로 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만큼 근거가 없다(Rom 5:12-21; 1 Cor 15:21-22, 45-49).

### 하나님의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집행 사역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이 이 은혜 언약을 체결하신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자신의 완전한 성품—지혜, 능력, 거룩함, 정의, 진리, 특히 극히 풍성한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것(Isa 49:3; 2 Cor 4:6; Eph 1:6-8; Eph 2:7; Eph 3:20-21; Rom 5:20-21; 1 Pet 4:11)

2. 선택된 자들을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건져내어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Luke 2:10-14; Luke 1:74-75; Hos 13:9; John 3:14-18; Isa 55:2-3, 7; Isa 45:17, 22-25)

이 은혜 언약의 집행, 즉 선택된 자들이 약속된 축복과 구속된 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으며(1 Cor 15:45; Isa 49:3-9; Isa 42:1-7; Isa 61:1-3; Isa 52:13, 15; Isa 53:11-12; Mic 5:4-

5; Zech 9:9-10; Matt 11:27; Matt 28:18; John 3:35; John 5:22), 그는 영원히 이를 집행할 것이다(Heb 1:8; Heb 13:8; Luke 1:32-33; Isa 9:7; Isa 45:17; Dan 7:14; Hos 2:19-20; Jer 32:39-41).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 그가 완전히 치유된 죄인들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지 않으시고, 그러나 그의 거룩, 공의, 긍휼, 사랑이 그들의 본성 안에 있는 중보자이신 그의 아들을 통해 영원히 빛나게 하시기 위함이다(고후 4:6; 욥 9:33; 시 84:9).

2. 이 죄인들의 구속에 응답하고 그 구속을 달게 하며, 시간과 영원에 걸쳐 그들과 하나님 사이의 모든 교제가 형제이자 하나님이신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함이니(요 1:14; 요 10:7,9; 요 14:6; 엡 2:18; 엡 3:12; 히 4:14-16; 히 10:19-22; 벧전 2:5; 벧전 4:11).

3. 구속자 그리스도에게 명예로운 상을 주사 그가 거둔 수많은 구속된 자들과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이 영원히 그에게 의존하게 하려 함이다(빌 2:7-11; 엡 1:20-22; 사 53:10-12; 사 52:13,15; 시 21:5; 시 89:27; 시 72:17,19).

### 은혜 언약의 일반적 관리

은혜 언약은 여러 면에서, 택자나 거부자라는 구분 없이 일반에게 무한하게 관리된다.

1.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한 그의 규례로서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일반적이고 제한이 없다(요 3:14-17; 민 21:8).

2.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관리하는 위임도 그의 아버지로부터 일반적이고 제한 없이 주어졌다(사 61:1-3; 사 49:1-9; 마 11:27; 마 28:18; 요 3:35; 요 17:2).

3. 그리스도는 죄인들에 관한 그의 위임을 가장 일반적이고 제한 없이 실행한다(잠 1:22; 잠 8:4; 잠 9:4-5; 사 45:22; 사 55:1-7; 마 11:28; 마 22:4-5; 마 28:19; 막 6:15-16; 눅 14:23; 계 22:17).

4. 비록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택자들만 구원하지만(엡 5:23), 그는 신적 명령과 허락, 직무에 따라 세상의 구세주로서 모든 죄인에게 적합하며, 모두가 그에게 구원을 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장하였다(요 4:42; 요일 4:14). 그의 구원은 공통된 구원이며(유 3), 그의 복음은 은혜로서 모든 사람이 듣는 이에게 구원을 제공한다(딤후 2:11; 딤후전 1:15).

5. 만약 그리스도의 새 언약 관리가 이처럼 일반적이고 무한하지 않다면, 어떤 사람들은 마귀들처럼 복음을 듣거나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막 16:15-16; 요 7:37-38; 요 6:37; 계 22:17; 잠 1:22; 잠 8:4; 잠 9:4-5; 사 55:1-7; 사 45:22; 사 46:12-13). 또한 그 불신앙으로 회개하지 못해 정죄받을 수도 없었을 것이다(요 3:18,36; 막 16:16; 계 22:8; 잠 8:36).

## 언약 관리의 근거와 목적

하나님이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인류 구원을 위한 규례로 일반 허락하고 언약을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가 언약의 조건을 완수한 것은 그 자체로 무한히 가치 있고, 본질적으로 고려할 때 모든 사람에게 충분한 대속물이다(행 20:28; 행 3:15; 고전 2:8; 고후 5:21; 빌 2:6-8).
2. 이 완성은 모든 사람과 동등하거나 유사한 인간 본성 안에서 이루어져 모든 필요에 동등하게 부응한다.
3. 무한하게 고려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대상인 불의하고 경건치 않으며 죄인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등의 도덕적 특성을 내포한다(벧전 3:18; 롬 5:6-10). 또한 언약의 절대 약속과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성품들도 동일하다 — 완고하고 의에서 멀리 떨어진 자, 경건치 않은 자, 죄 많은 자, 잃어진 자, 자기 파멸된 자 등(사 46:12-13; 히 8:10-12; 눅 19:10; 호 13:9; 렘 3:1-2,5,14).

그리스도가 이 언약을 관리하는 목적은

1. 죄인들을 이 언약의 결속으로 이끌기 위함(사 55:3-5; 사 49:6; 마 23:37; 눅 14:22-23).
2. 이 언약에 들어간 자들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함이다(벧전 2:25; 사 40:11; 겔 34; 겔 37). 이들은 의롭다 하며(마 9:2,6), 자녀로 삼고(요 1:12), 거룩하게 하며(요 13:8; 행 5:31; 엡 5:26), 돌보고(벧전 5:7), 동행하며(겔 46:10), 다스린다(시 2:6; 겔 34:23-24; 겔 37:24). 또한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므로(요 17:9,12-24; 히 7:25; 롬 8:34), 그들은 모두 그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출 23:21; 신 18:18-20; 마 17:5; 계 1:1,3; 갈 6:2; 고전 9:21).
3. 그들의 영원한 천국 기쁨을 완성하며(엡 5:26-27; 유 24), 신앙을 완성하고(히 12:2), 죽음을 안전히 통과하게 하며(시 23:4; 계 1:18), 영광에 이르게 하고(히 2:10; 요 14:2-3), 천상의 보좌와 면류관을 주기 위함이다(계 3:21; 딤후 4:8).

따라서 택자들만이 이 언약의 보다 특별하고 중요한 관리를 받는 대상이라는 점이 분명하며, 다른 이들에게는 그들의 구원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만 관리된다(고전 12; 고전 3:21,23; 엡 4:11-13).

### 언약 관리의 형태와 순서

이 언약의 관리 형태와 순서 안에서,

1. 그리스도는 신탁 관리자로서 이 언약의 모든 구속되고 약속된 복을 죄 많은 인류의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2. 그 복을 모두 소유한 수증인으로서 죄인들에게 유증한다.
3. 그의 유언 집행자로서 중보하는 제사장, 가르치는 선지자, 관대한 전능한 왕으로서 그의 유산을 택자들에게 귀속시킨다.

I. 그리스도는 아버지로부터 은혜 언약의 신탁 관리자로 임명받아 모든 축복이 그의 손에 맡겨졌다(골 1:19; 요 3:35; 마 11:27; 시 68:18). 이는 영원부터 이루어져 아담이 범죄한 그 날 바로 그리스도의 관리가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창 3:5-15). 그러나 그가 온전히 그에게 맡기신 혜택의 값을 지급하신 부활과 승천 때까지 그 높은 직위에 정식 취임하는 엄숙한 절차는 지연되었다(시 68:18; 마 28:18).

그가 위탁받은 축복은

1. 선택자들이 미개화 상태에 있을 때까지 그들을 보존하는 언약의 보이지 않는 보호(겔 16:6; 사 65:8).
2. 언약을 연합시키고 생명을 주는 영(계 3:1; 롬 8:2; 요 5:25-26).
3. 언약의 의롭게 하는 의(렘 23:6; 렘 33:16; 사 45:24-25; 사 54:17; 사 46:12-13; 사 61:10; 고전 1:30; 고후 5:21).
4. 친구요 아버지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골 2:9-10; 엡 2:14; 고후 5:19; 미 5:5; 시 89:26-27; 요 1:12; 요 20:17; 롬 8:17).

5. 언약의 성화 영향력(골 1:19,22; 골 2:2,6-7,10-13,19; 요 1:14,16; 요 6:63; 고전 1:30; 행 5:31).

6. 언약의 견고하게 하는 은혜(유 1; 요 14:19; 골 3:3; 갈 2:20; 고후 1:21; 골 2:7; 마 16:18).

7. 언약의 위로(사 51:7,12; 눅 2:25; 요 16:33; 고후 1:5; 살후 2:16-17).

8. 언약의 세상적 좋은 것들(마 28:18; 마 11:27; 학 2:8; 시 24:1; 고전 10:25-26).

9. 죽음과 무덤에 대한 모든 능력(계 1:18; 호 13:14; 사 25:8).

10. 언약의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사 45:17; 히 7:25; 요 10:28; 요 17:2).

즉, 언약의 모든 빛과 생명, 자유, 존귀 등이 그의 손에 있다(요 1:9; 요 9:5; 눅 2:32; 요일 1:1; 요일 5:11,20; 요 8:12,36; 롬 8:2; 고후 3:17; 잠 8:18-21; 골 1:18,27-28; 골 2:10,19).

II. 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이 축복들을 손에 받으신 후, 그리스도는 죽는 구세주 또는 수증인으로서 그 복을 자신의 죽음으로 확정하고 그들에게 유증한다(눅 22:28-29; 히 9:15,17; 고전 11:25; 마 26:28). 아담이 범죄하기 전까지 그의 유산은 필요하지 않았기에 그때까지 진정한 수증인은 아니었고, 그 날 낙원에서 그의 유언을 형성하고 공포하기 시작했고, 이후 약 4100년 동안 점차 그의 혜택을 더욱 명확하고 상세히 유증하였다.

그의 유언은 처음에는 말로 전달되었고, 이후 우리의 성경에 기록되었다(벧후 1:21; 롬 15:4; 히 2:3; 눅 1:3; 요 20:31 등). 그의 육신 오심 이전에 출판된 구약은 죽는 구세주의 선언으로서 무한한 부를 죄인들에게 자유롭게 유증하는 선언이며, 수많은 희생과 제물로 그의 전형적인 죽음에 의해 확증되고, 할례와 유월절의 성례로 봉인되었다(히 9:20; 롬 4:11; 고전 5:7; 눅 16:16). 그리스도 육신 오심 후에 출판된 신약은 그가 실제로 죽으면서 은혜와 영광의 무한한 부를 죄인들에게 자유롭게 유증하는 죽는 선언이며, 그의 개인적 죽음으로 확증되고 침례와 성찬의 성례로 봉인되었다(고후 3:6; 고전 15:3; 마 28:19; 고전 11:23-29).

이 유언들은 시기, 명료성, 완전성, 효력, 최초 출판 범위, 예배의 용이성과 영성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고후 3:6-16; 히 1-10; 행 15:6-11),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여 같은 새 언약을 나타내며, 같은 구세주와 구원을 제공하고(히 13:8; 행 15:11; 롬 4), 영원한 구원에 대한 동일한 권리와 확신, 실제 누림을 부여하며(시 103:1-6; 시 116-117; 시 18:1-3; 시 32:1-2;

시 73:24-26; 욥 19:25-27; 갈 2:20; 딤후 1:13-16; 딤후 1:12; 딤후 4:7-8), 수혜자에게 동일한 신앙, 회개, 사랑, 새 순종의 의무를 요구한다(시 2:12; 호 14:1; 렘 3:1,4,14,22; 시 97:10; 시 31:23; 신 12:32; 행 16:31; 요일 3:23; 계 2:5,16; 계 3:19; 고전 16:22; 요 21:15-17; 마 28:20).

이 유언 안에서 역사와 행위 규칙이 유산을 설명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를 잘 활용하도록 인도한다. 또한 거룩함의 의무를 특권과 연결하기 위해 많은 조항들이 조건문 형식을 취하나, 이는 모두 무조건적인 약속으로 환원되어 하나님께서 이 의무 수행을 무조건적 특권으로 약속하신다(행 16:31; 롬 15:12 등).

그리스도가 구입한 축복을 유증하는 것은 그의 관리의 근본 행위이며, 이 축복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것이 이에 달려 있기에 — 죄인들이 무한하게 고려되어 그의 유언 수혜자가 되어야 하며, 복음의 제안 안에서 축복을 배분받는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죄인은 믿음으로 그의 유증된 복을 청구하고 차지할 완전한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그의 유언에서는 이들이 본명, 직업, 지상 거주지에 따라 구분되지 않고, 오히려 일반적 표식을 통하여 구분되는데, 이는 그들의 성향, 상태, 하나님 앞 행실을 묘사한다 — 사람, 죄인, 잃어진 자, 자기 파멸된 자, 완고하고 의에서 먼 자, 불결한 자, 악한 자, 반역한 자 등(잠 8:4; 잠 1:22; 잠 9:4-5; 행 2:39; 계 22:17; 요 6:37; 요 7:37-39; 딤후 1:15; 고후 5:20; 마 9:12-13; 마 11:28; 마 18:11; 눅 19:10; 눅 2:10-11; 호 13:9; 사 46:12-13; 사 55:1-7; 사 65:1-2; 사 1:18; 렘 3:1-5,14,19,22).

언약의 모든 절대 약속은 위와 같은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으며, 택자의 대리자는 이 유언상의 상태를 각성하여 알고 그에 따라 약속된 복을 청구하고 차지한다. 그리고 수많은 거부자들도 택자의 영적 유익에 유용하게 된다(딤후 1:17,19; 마 7:22; 엡 4:11-18).

그리스도가 그의 유언으로 유증하는 유산은 죄 많고 비참한 자들의 회복과 영원한 행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롬 8:32; 시 84:11; 시 85:12; 빌 4:19). 특히,

1. 그 자신을 남편으로, 능력 있는 구세주로, 기업으로, 그리고 다스리는 머리로 주신다(사 42:6; 사 9:6; 고후 9:15; 요 3:16).
2. 그 안에서 의롭고 완전하며 영원한 의를 생명의 의로 주신다(롬 5:17; 롬 1:17; 롬 3:22; 사 46:12-13; 사 54:17; 사 61:10; 사 45:24-25).



3. 하나님과 화목된 친구로, 사랑의 아버지로, 충분하신 하나님으로서 새 언약의 이익을 주신다(사 57:19; 고후 6:18; 호 1:10; 히 8:10).

4.

모든 은혜의 성령은 우리의 본성과 생명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신다(잠언 1:23; 요한복음 7:37-38; 에스겔 36:26-27; 스가랴 12:10; 요한복음 16:7-14; 요한복음 14:16-17, 26; 요한복음 15:26; 데살로니가후서 2:16-17).

5. 이 생애의 좋은 것들을 적당하게 나누어 주심(시편 37:3,16; 마태복음 6:33).

6. 탐욕 없는 달콤한 죽음(요한복음 8:51; 이사야 25:8; 호세아 13:14).

7. 하늘에서의 영원한 생명(요한복음 6:40-58; 요한복음 10:28; 요한복음 17:2).

### III. 그리스도의 변호자, 예언자, 왕으로서의 직무

죄인들에게 그 헤아릴 수 없는 부를 돌이킬 수 없이 유산으로 물려주신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배제하지 않으면서, 복되신 성령과 협력하여 변호자, 예언자, 왕의 지위로 선택받은 자들에게 언약된 축복을 효과적으로 수여하며 자신의 유언을 집행한다.

#### 1. 변호자로서의 그리스도

1. 그의 유산 상속자인 선택받은 자들은 무가치함, 죄책, 무지 때문에 모든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에 변호자이며 언약의 중보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선택된 자들의 사정을 관리하며, 그들의 대신 완성된 의를 근거로 능숙하고 담대하게 변호하여, 예정된 은혜의 때에 언약된 축복들이 그들에게 수여되도록 한다(요한일서 2:1-2; 로마서 8:34; 히브리서 7:25; 히브리서 9:24; 요한복음 17 장). 그리하여 그리스도는:

1. 선택받은 자들을 자신과의 새로운 언약적 연합과 교제, 하나님과의 평화 및 호의의 상속 상태로 효과적으로 인도한다(요한복음 17:20-21).
2. 선택받은 자들의 이름으로 새 언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실제로 취득하신다(히브리서 6:20; 골로새서 2:10; 에베소서 2:6; 요한복음 14:2-3).
3.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새 언약의 평화와 우정을 유지하시며, 그들에게 가해진 모든 고소를 물리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실제 분쟁을 제거하신다(로마서 8:33-34; 요한일서 2:1-2; 이사야 54:9-10; 이사야 27:4; 이사야 57:18-19).
4. 그들의 남아 있는 무가치함, 무지,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다(에베소서 2:18; 에베소서 1:6; 로마서 12:1; 베드로전서 2:5; 요한계시록 8:3-4; 요한계시록 7:14).
5. 죽음과 최후 심판 때에 그들이 하늘에 풍성히 입장하도록 하시고 그 행복한 상태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요한복음 17:24; 히브리서 7:25; 시편 110:4).

## 2. 사자, 통역자, 증인으로서의 그리스도

2. 선택받은 자들이 자신의 무지와 언약함으로 인하여 언약과 유언의 신비를 스스로 깨달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책—사자, 통역자, 증인—으로 그것을 계시하신다.

1. 그 유언의 진리가 먼 나라에서 오는 희소식이므로, 언약의 사자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인격과의 결혼, 그리고 그 피를 통한 우리의 의롭다 하심, 입양, 성화, 영원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우리가 이 베풀어진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권유하신다(말라기 3:1; 이사야 61:1-3; 시편 40:9-10).

2. 우리가 언약의 신비로운 진리와 축복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에, 독보적인 통역자로서 언약의 조항과 유언의 내용을 설명하신다(요기 33:23; 요한일서 5:20; 요한복음 6:45-46, 63; 히브리서 5:2; 이사야 42:6-7; 이사야 49:6; 이사야 48:17; 이사야 60:1; 이사야 61:1; 누가복음 24:27, 45; 요한복음 8:12; 요한복음 9:5; 에베소서 5:8, 14).

3. 우리는 특히 타락한 자기 사랑과 부패한 양심의 요구에 반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데 더디므로, 그리스도는 언약의 신실하고 참된 증인으로서 그 진리들을 선포하신다(이사야 55:4; 요한계시록 1:5; 요한계시록 3:14; 요한복음 8:18; 요한복음 18:37; 고린도후서 1:20).

—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요한복음 20:31; 로마서 15:4, 8),

— 엄숙한 서약과 맹세로 확증하시며(요한복음 3:3, 5; 마태복음 26:63-64; 히브리서 6:17-18; 요한계시록 10:6-7; 이사야 45:23),

— 자신의 인격과 사역에서 본을 보이시고(요한복음 1:14; 요한복음 14:6; 고린도후서 1:20),

— 고난과 죽음으로 인준하시며(히브리서 9:16; 요한복음 18:37; 로마서 15:8),

— 성례로 그것들을 인장 찍으신다(마태복음 28:19; 고린도전서 11:23-29).

### 3. 예언자로서의 그리스도

#### 3. 이 세 직책으로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예언자로서

1. 말씀으로 언약의 제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초대하여 개인적인 소유가 되게 하신다. 이때 천사, 예언자, 사도, 목사, 교사, 부모, 스승 등 여러 대리인과 도구를 사용하신다(다니엘 9:21-27; 누가복음 1-2 장; 마태복음 1:20-21; 사도행전 10:13; 고린도후서 5:19-20; 히브리서 10:25; 히브리서 12:25; 신명기 6:7; 시편 78:4-6; 이사야 38:19; 창세기 18:19).

2. 성령으로 택하신 자들을 계몽하고 회심시켜 이 제안을 효과 있게 하신다(베드로전서 1:12; 데살로니가전서 1:5; 요한복음 15:26; 요한복음 14:26; 요한복음 16:7-14).

3.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지상 생애 동안 가르치며 인도하신다(시편 25:9, 14; 시편 32:7-8; 시편 73:24; 이사야 54:13; 이사야 48:17; 요한일서 2:20, 27; 에베소서 1:13, 17-18; 에베소서 3:16-19).

4. 그들의 천상 상태에서는 즉시 빛과 지식을 주신다(시편 16:11; 시편 17:15; 이사야 60:19-20; 요한계시록 21:23; 요한계시록 7:17; 요한일서 3:2; 고린도전서 13:12).

#### 4.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4. 선천적으로 반역하고 무질서하며 노예 상태에 있고 불행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언약의 왕으로서 강력히 유산된 축복들을 수여하신다.

섭리 왕국이 그에게 맡겨져 자신의 교회, 즉 그의 고유 왕국을 위해 사용되는데(요한복음 5:22; 마태복음 11:27; 마태복음 28:18; 잠언 8:15-16; 에베소서 1:22-23; 이사야 43:14; 요한복음 18:36; 시편 2:6), 그는

1. 죄인들을 새 언약 상태로 인도하고 그 상태를 세우기 위하여 규례와 직분자를 임명한다(사도행전 7:38; 이사야 33:22; 에베소서 4:11-13).

2. 왕의 칙령을 내리며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자신과 연합하여 언약의 모든 축복을 온전히 그리고 영원히 누리라고 부른다(마가복음 16:15-16; 로마서 10:17; 마태복음 11:28; 이사야 55:1-3, 6-7; 잠언 1:22-23; 잠언 9:4-5; 잠언 23:26; 요한계시록 22:17; 요한계시록 3:20; 이사야 1:18-19; 이사야 46:12-13; 이사야 65:1-2; 예레미야 3:1,4,14,19,22; 예레미야 4:14; 예레미야 6:8; 스가랴 9:9, 12; 요한복음 7:37-39; 사도행전 2:38-39; 고린도후서 5:19-20).

3. 말씀과 성령으로 택하신 자들을 자신께 효과적으로 복속시켜 완전한 권리와 축복의 일부 소유를 얻게 하신다(시편 110:3; 시편 45:3-5; 요한계시록 6:2; 골로새서 1:13; 사도행전 26:17-18).

4. 그들의 개심한 택하신 자들을 다른 신자들과 함께 가시적인 교회 상태로 모아, 그들의 처지와 불완전함에 맞는 규정으로 다스려 자신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이루신다(창세기 49:10; 마태복음 16:18; 마태복음 18:15-20; 마태복음 28:19-20; 이사야 9:6-7; 창세기 17 장; 출애굽기 12 장부터 신명기 31 장; 고린도전서 4 장 16 절; 에베소서 4-6 장; 골로새서 2-4 장; 데살로니가전서 2-5 장; 디모데전서 1 장부터 디도서 3 장; 히브리서 1-13 장 등).

5. 특별한 방식으로 언약의 참되고 자발적인 신하들을 언약의 조건에 따라 다스리며 자신의 고유 권리를 보전하고 나타내며 그들의 특권을 확고히 보장한다(이사야 33:22).

— 의롭다 하심과 입양을 통하여 그들에게 언약의 모든 행복에 대한 완전한 법적·자녀적 권리를 부여한다(마태복음 9:2, 6; 사도행전 5:31; 사도행전 13:39; 이사야 53:11; 예레미야 3:19).

— 도덕법을 언약의 법으로 주어 생명의 규례로 삼게 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마음에 글씨를 새기게 하신다(히브리서 8:10; 예레미야 31:33; 에스겔 36:26-27).

— 순종할 때, 그들의 선한 행위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이 신원자로서 본래 받아야 할 상급을 그들과의 연합과 수락에 따라 상급으로 주신다(시편 19:11; 요한복음 14:21-23; 요한계시록 2:7, 11, 17, 26-28; 요한계시록 3:5, 12, 21; 고린도전서 9:24; 고린도전서 15:58).

— 불순종할 때에는 몸의 고난, 비방, 가난, 가족이나 친족의 환난, 또는 영혼에 대한 버림, 시험, 내면 부패의 확산, 양심의 불안과 같은 은혜로운 징계를 행하시는데, 이는 그 자체로 그들의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자 유언의 위협에 포함되나, 그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 사랑으로 다스려 그들의 성화와 행복을 위해 그의 죽음으로 값 있게 구속된 긍휼로 삼으시며,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로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자비가 된다(고린도전서 11:30, 32; 시편 38:4-8; 시편 13:1-4; 에베소서 6:16; 이사야 63:17; 시편 89:30-34; 히브리서 12:5-11; 요한계시록 3:19; 이사야 27:9; 시편 119:67, 71, 75).

— 그의 사법적 용서 선포를 반복하고, 회개와 갱신된 믿음에 근거한 부정적 사면을 베푸신다(요한복음 5:22; 누가복음 7:48; 사도행전 5:31; 이사야 44:22; 이사야 43:25).

— 언약의 보호를 제공하신다(시편 89:18; 요한일서 4:4; 로마서 7:24-25; 고린도후서 12:7, 9).

— 죽음과 마지막 날에 약속된 영원한 행복을 공개적이고 권위 있게 수여하신다(요한계시록 1:8; 요한계시록 14:13; 사도행전 7:59; 마태복음 25:34-40, 46; 요한계시록 20:12; 요한계시록 22:12, 14).

— 그리고 영원히 하늘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영화롭게 하신다(이사야 9:7; 요한계시록 7:17; 요한계시록 3:21).

6. 그는 자신과 자신의 백성들의 원수를 억제하고 정복하며, 이성적 행위자라면 그들을 벌하신다(시편 76:10; 시편 110:5-7; 시편 18:41-46; 데살로니가후서 1:6-9; 요한계시록 20:10, 15).

## 은혜 언약에 관한 요약

위에서 은혜 언약의 제정과 집행에 관한 단서들을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은혜 언약이

1. 모든 면에서 잘 정돈되어 있다는 점(사무엘하 23:5),
2. 시간과 영원에 필요한 모든 축복들로 풍부하게 채워져 있다는 점(사무엘하 23:5; 이사야 55:1-3; 이사야 25:6; 고린도전서 1:30; 골로새서 3:11; 골로새서 2:10; 골로새서 1:19; 빌립보서 4:19),
3. 전적으로 자유로운 은혜와 자비에 근거한다는 점(로마서 5:20-21; 시편 89:1-4, 28; 시편 40:5),
4. 결코 깨어질 수 없는 확실한 약속임을(사무엘하 23:5; 이사야 55:3, 10; 이사야 54:8-10),
5. 영원한 언약임을(사무엘하 23:5; 히브리서 13:20; 예레미야 10 장; 예레미야 12:40; 에스겔 37:26),
6. 행위 언약과 본질적으로 매우 구분되며, 계약 당사자, 관리자, 본성, 조건, 약속, 순종의 순서와 하나님의 수락, 집행, 목적 및 효과에 있어 더 우월하다는 점이다(히브리서 8:6-13; 로마서 5:12-21).

비록 그리스도가 은혜 언약을 무한히 집행하심에도, 자신의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채택으로 실제 그 언약에 임명되는 자는 극소수이다(마태복음 20:16; 마태복음 22:14; 마태복음 7:13-14; 누가복음 12:32; 누가복음 13:24; 요한일서 5:19; 로마서 9:27; 로마서 11:5; 예레미야 3:14).

성숙한 자들만이 자신의 죄악과 불행의 깊이 깨닫고 언약의 피난처를 찾아 달려가며(로마서 9:6; 히브리서 6, 18; 시편 142:4-5; 사도행전 2:37-39),

언약의 온전한 계획을 진심으로 승인하고(사무엘하 23:5; 마태복음 11:5; 고린도전서 1:23-24; 사도행전 9:6; 디모데전서 1:15; 이사야 55:3),

언약을 세운 하나님을 감사히 사랑하며(요한일서 4:19; 요한일서 5:3; 고린도후서 5:14-15; 시편 73:25-26; 시편 4:6-7; 시편 18:1; 시편 84:12; 시편 42:1-2, 5, 9, 11; 시편 43:4-5; 시편 116:1; 시편 103:1-6),

언약 안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호세아 1:11; 갈라디아서 2:20; 빌립보서 3:7-9),

자신의 구원을 전적으로 언약의 조건에 의지하며(고린도전서 2:2; 빌립보서 3:3, 9; 갈라디아서 6:14; 이사야 45:24-25),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기쁨으로 받아먹으며(사무엘하 23:5; 시편 7:10; 시편 19:10; 시편 119:72, 97, 113, 127, 162, 167),

언약의 성령이 거룩하고 자유롭고 순수하며 공감적 심령으로 그들 안에 거하시고 역사하시며(로마서 8:1, 4, 9, 15, 26-27; 갈라디아서 4:6; 갈라디아서 5:16, 18; 갈라디아서 6:10; 시편 69:9; 시편 119:136, 139; 스가랴 8:23; 스가랴 12:10),

끝으로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언약의 법을 승인하고 즐기며 순종하고(로마서 7:12, 14-25; 시편 119:5-6, 18, 26, 128; 시편 139:23-24; 시편 43:3-4; 시편 143:10; 갈라디아서 5:17; 마태복음 6:22; 디도서 2:11-12; 고린도후서 1:12; 빌립보서 3:3; 요한복음 3:21; 욥기 34:32),

알지 못하는 부분은 배우기를 소망한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대표자로서 영적으로 연합함으로써 이 언약에 실제적이고 개인적으로 임명된다(이사야 54:5-17; 에스겔 16:8; 호세아 2:18-20; 고린도전서 1:30; 고린도후서 11:2). 이 영적 혼인 연합을 통해,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인격과 직분과 관계 속에서 우리 것이 된다(아가 2:16).

요한복음 20:28; 빌립보서 3:7-9;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의 조건을 완성하셨고, 우리는 율법적 계산으로 그 조건을 충족함이 인정된다(고린도후서 5:21; 로마서 8:4; 5:19; 이사야 45:24-25; 61:10; 예레미야 23:6; 빌립보서 3:9). 그리고 이 언약의 모든 복이 율법상의 권리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린도전서 1:30; 3:22). — 그리스도는 우리 남편이시며, 우리의 의로우신 주님,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는 머리로서 우리와 은혜롭게 연합하시어 이 언약의 결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호세아 2:19-20; 에스겔 16:8; 이사야 54:5, 17; 46:12-13; 61:10; 예레미야 3:4, 19; 31:10, 20; 고린도전서 1:30; 에베소서 2:10; 고린도후서 6:17).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언약의 결속 안에 들어간다(사도행전 16:31; 이사야 55:3; 마가복음 16:16; 요한복음 3:14-18). 이 믿음은 언약의 모든 복을 거저 받아 언약의 은혜를 보존하고(로마서 4:4-5, 16; 에베소서 2:4, 9; 1:6-7), 그리스도라는 대표자와 연합함으로 언약의 통일성을 지킨다(요한복음 10:9-10; 에베소서 3:17). — 이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에 근거하여 이 언약 또는 유언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믿는 것과, 특히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해 진심으로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디모데전서 1:15; 사무엘하 23:5). — 즉, 복음에서 우리에게 제공된 그리스도를 오직 구원의 근거로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과 구속으로 주신 분으로 받아들이며 그분 안에 안식하는 것이다(요한복음 1:12; 3:16-17; 6:40; 고린도전서 1:30). 율법과 복음은 이 언약과 유언의 경륜 안에서 각기 역할을 맡았으므로, 두 가지 모두를 우리 자신에게 특별히 적용하여 믿어야 한다.

율법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 양심에 새겨진 근거로서, 자신의 죄책, 더러움, 정죄, 그리고 자신의 회복을 위한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절대적 무능함을 완전히 확신한다(로마서 3:9-20, 23; 시편 51:5; 욥기 14:4; 갈라디아서 3:10; 로마서 5:6; 8:7-8; 예레미야 17:9; 13:23, 27). 이 확신, 즉 믿음은 성령께서 속박의 영으로 강력히 이 깨진 언약의 계명과 저주를 우리에게 새기시는 역사를 통해 생겨난다(요한복음 16:8-10; 로마서 7:9; 3:20; 갈라디아서 3:24). 이 법적 믿음은 우리 의지에 반하여 강제로 우리 영혼에 덧씌워지며,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지 못한다. 또한 이 믿음과 동반된 법적 회개 역시 우리를 그분께 나아가게 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능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영의 손길 안에서,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도망하게 한다—그분께로 도망가기도 전에 모든 다른 것으로부터 도망치게 한다(사도행전 2:37; 16:29-30).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확신하며, 복음에서 그분께 초대받는 비참하고 불명예스러운 특징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인식한다(디모데전서 1:13, 15; 로마서 7:9-13; 요한복음 4:29). —

복음의 선언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 아래, 그리스도가 모든 인간 죄인 중 가장 악한 자까지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한 구세주임을 진심으로 확신한다(에베소서 3:8; 히브리서 7:25; 이사야 32:2; 45:22; 63:1; 고린도전서 6:9-11; 디모데전서 1:13, 15-16; 디도서 3:3-7).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로서 죄인들,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자유로운 선물로 진심으로 제공되었음을 믿는다(이사야 55:1-4, 7; 요한계시록 22:17; 잠언 8:4; 9:4-5; 이사야 9:6; 42:6-7; 49:6, 8). 복음에서 그분을 받음으로써 그분과 구속의 모든 유익이 실제 소유는 아니지만 장차 소유할 하나님의 자유 선물로 우리 것이 되어, 우리의 구원 모든 목적에 사용된다(요한일서 4:13-14; 요한복음 3:27; 4:42; 4:10, 14; 사무엘하 23:5; 22:3; 누가복음 1:47; 8:12; 이사야 46:12-13; 시편 27:1; 요한복음 6:32; 3:16; 고린도전서 1:30; 이사야 9:6; 42:6-7; 로마서 5:17; 요한일서 5:10-11). — 이 확신에 근거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 특별히 그분을 신뢰한다(사도행전 16:31; 시편 2:12; 37:3; 로마서 15:12; 갈라디아서 2:16, 20; 사도행전 15:11; 데살로니가전서 2:13; 고린도전서 2:5). — 이러한 신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은 실로 죄와 진노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며(로마서 10:10; 7:24-25), 자신이나 어떤 피조물에 대한 모든 구원의 신뢰를 포기한다(빌립보서 3:3; 예레미야 16:19; 3:23; 17:5; 잠언 3:5; 사도행전 2:37; 마태복음 5:3). — 또한 무한히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특별한 필요에 완전히 적합한 새 언약 방식의 구원을 진심으로 인정한다(고린도전서 1:23-24; 2:2; 마태복음 9:12). —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언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모든 사역에 의지하며(요한복음 6:35, 40, 68-69; 히브리서 6:18; 사도행전 8:37), 우리의 구원을 전적으로 그분과 그분의 의에 맡긴다. 이는 하나님이 복음에서 선포하시고 성령이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증언에 근거해, 그분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우리 것을 맡아 모든 구원적 직무를 완수하고 새 언약의 모든 관계를 이루며 복음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것임을 굳게 확신하는 것이다(요한복음 3:16; 히브리서 3:6, 14; 10:38; 이사야 28:16; 25:9; 50:10; 26:3-4; 45:22-25; 베드로전서 2:6; 로마서 10:10-11; 시편 112:7; 디모데후서 1:12; 야가 8:5; 역대하 14:11; 16:8; 20:20; 히브리서 11:13; 디모데전서 1:15). — 이 확신은 성령, 곧 그리스도 안에 계신



생명의 영께서 복음의 선언과 약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분을 우리 마음에 전달하심으로써 생겨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의, 거룩함, 구속으로 그분 안에 나타나신다. — 이러한 사역 안에서,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 성령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습관적인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분별하고 받으며 그분 안에 안식할 수 있도록 하신다(데살로니가전서 1:5-6; 2:13). 이런 까닭에 성령은 ‘믿음의 영’이라 불린다(고린도전서 4:13).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때로는 명확하거나 뚜렷하거나 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의 진리와 하나님 약속의 진실성에 관한 설득력 있는 확신 또는 확신감을 포함한다. 또한 자신에 관하여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든 인격과 직무와 관계에 관하여 확신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확신의 정도에 따라 우리는 그분과 그분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증언 위에 그분을 믿음으로서 그분께서 언약의 모든 충만을 우리에게 주심을 실질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1. 이런 확신은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 은유적 혹은 명백히 설명된 모든 표현에 포함되어 있으며, 예컨대 설득, 바라던 것의 실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신뢰, 기쁨, 의지, 수용, 안식 등으로 묘사된다(히브리서 11:1,13; 시편 31:14; 18:2; 이사야 26:3-4; 12:2; 50:10; 아가 8:5; 요한복음 1:12; 시편 37:3,5,7). 이에 따라 믿음은 의심, 두려움, 흔들림, 비틀거림, 불안정과 대비된다(마태복음 14:31; 마가복음 5:36; 야고보서 1:6,8; 요한복음 14:3; 로마서 4:20; 히브리서 10:23,25).

2. 성경은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강력히 권장하고 격려한다(히브리서 10:22; 3:6,14,18; 10:35; 로마서 4:18-24; 마가복음 11:24).

3.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날도록 최적의 방식으로 복음 약속을 주셔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모든 관계에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신다(사도행전 2:39; 3:26; 13:34; 로마서 10:10-11; 11:26; 요한복음 3:14-17; 7:37-39; 6:37, 39-40; 예레미야 3:4,19; 3:14,22; 호세아 2:19-23; 요한일서 5:10-12; 출애굽기 20:2; 시편 50:7; 예레미야 30:22; 스가랴 8:8; 13:9; 에스겔 36:25-32; 디모데전서 1:15; 히브리서 6:16-18; 10:23; 데살로니가전서 5:23-24; 디도서 1:2; 민수기 23:19). —

의심과 두려움은 참된 신자들에게서 신앙의 연약함에 비례하여 나타나며, 믿음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다. 때로 그러한 의심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과거 혹은 현재 하나님의 능력 경험에 관한 것이어서, 오히려 감각에 기반한 확신과 대비되며 믿음의 확신과 대립된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약속에 담긴 진리와 신실함에 관한 의심을 꾸짖고 대적한다면,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되 완전하지는 않은 확신을 가진 상태이다(마태복음 14:29-31; 갈라디아서 5:17; 시편 42:5,11; 43:5; 77:10).

이러한 확신의 믿음으로 우리는 대리자로서 언약의 조건을 우리 대신 충족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신실한 관리자 되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맡긴다. 우리는 죄인되고 더러워진 자로서 전능한 구세주 되신 그분께 자복하며, 가난하고 빈 자로서 무한히 자비로운 친구이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만족시키는 분으로 그분을 의지한다. 또한 완악하고 무익한 자로서 현명하고 은혜로운 주님께 자신을 드리니, 그분은 우리를 형성하여 그분의 찬양을 나타내게 하실 수 있다(이사야 44:5; 시편 119:94; 142:4-5; 116:16; 로마서 5:20-21; 빌립보서 4:19; 이사야 43:21; 디모데후서 2:21). — 이를 ‘하나님과의 개인적 언약’이라 부를 수 있다. 그 누구도 새 언약의 상태에서 떨어질 수 없다(사무엘하 23:5; 시편 89:28-35; 이사야 54:8-10; 히브리서 13:5).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부지런히 그것을 영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1. 그리스도께 계속 의지하여 복음의 약속을 통해 그분 충만함에서 모든 필요한 위로와 은혜를 받는 것(역대하 20:20; 사도행전 11:23; 갈라디아서 2:20; 하박국 2:4; 고린도후서 4:7).

2. 언약의 경륜을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예식을 부지런히 참석하며, 그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고린도전서 11:2,23; 신명기 4:2; 5:32; 12:32; 잠언 8:34; 시편 84:1-12; 마태복음 28:19-20; 고린도전서 11:23-29).

3. 언약 관리에 따른 모든 법을 감사히 순종하며 진정한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것(갈라디아서 5:6,22-23; 디도서 2:11-12; 3:8,14; 신명기 12:32).

4. 인내와 열심으로 언약의 영원한 복락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디도서 2:13; 히브리서 6:12; 고린도후서 4:18; 디모데후서 4:7-8; 베드로전서 1:13-15; 베드로후서 1:4-8; 디도서 2:11-14).

묵상. 이제, 오 내 영혼이여, 이 언약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완전한 성품이 얼마나 놀랍게 드러나는지 깊이 숙고하라! — 무한한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가! — 무한한 지혜는 어떻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는가! — 무한한 위격들이 어떻게 서로 연합하는가! — 이 모든 무한한 완전성이 죄인된 인간, 곧 죄인된 나를 구속하기 위해 어떻게 일하는가! — 하나님께서 참으로 나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고, 모든 면에서 온전하게 정하시고 확증하셨는가! — 내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고, 이 언약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 내가 지금 이 언약을 되돌아보며, 살아 계셔서 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을 찾았는가? —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주신 그분을? —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신 그분을? — 하나님의 언약 구원의 뜻과 그 마음을 사로잡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히 준비되었는가? —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만진 생명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 선포할 준비가 되었는가? — 아니면, 두렵고 끔찍한 생각이지만, 내가 이 놀라운 언약의 경이로운 기원과 당사자, 내용, 관리를 설교하되 그 복을 누리지 못할 것인가? — 이 무한히 은혜로운 언약을 여러 번 심사숙고한 후에도 내가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죄인들이 율법 행위로 의와 구원을 얻으라 꾀한다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저주받고 천사와 성도들에게 미움받으며, 마귀들에게 조롱받고 모든 육체에게 혐오받는 자가 되지 않겠는가?

제 4 권.

은혜 언약의 중재자에 관하여, 그의 인격, 직분, 그리고 상태에서

#### 그리스도의 중재 인격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은혜 언약을 맺고 성취하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다양한 역할과 지위, 그리고 관계들이 그를 명백히 중재자로 드러내는데, 이에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였다.

1. 중재 인격의 구성: 양 당사자의 본성을 모두 가진 중간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둘 모두에게 손을 얹어 화목케 할 자격을 갖추어야 했다(딤후 2:5-6; 욥 9:33).
2. 중재 직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향하는 모든 필요한 일을 관리할 권위와 자격을 가져야 했다(잠 8:23; 히 9:15; 히 8:6).
3. 중재 상태: 그의 처지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사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부합해야 했다(눅 24:26; 빌 1:7-11; 히 2:9-10).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인류의 일부를 구속할 의도가 없었다면, 그의 아들은 결코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1. 이 은혜로운 계획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성육신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가치 있는 목적이 없었다.
2. 성경은 언제나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의 파송과 성육신의 원인으로 제시한다(요일 3:16; 롬 5:6-18; 요일 4:9-10).
3.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다른 목적은 전혀 언급하지 않으며, 오직 인간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뿐이다. 또한 인간이 스스로 멸망하기 전까지는 성육신의 어떤 징후도 나타나지 않았다(창 3:15; 마 1:21; 눅 1:67; 눅 2:34; 요 1:29; 마 9:12-13; 마 18:11; 마 20:28; 갈 4:4-5; 딤후 1:15; 히 2:14; 요일 2:1-2; 요일 3:5,8).
4. 그의 종재자, 구속자, 보증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모든 직분은 타락한 인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는 그런 자들만 교육하고 회개를 촉구한다(사 61:1-3; 마 9:13; 히 5:2). 그런 자들을 위하여만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딤후 2:5; 사 53:4-12; 요일 2:12; 요 17; 히 7:7,25; 롬 8:33-34). 그런 자들만 그는 다스리고 보호한다(시 110:3; 롬 8:2; 요 10:27-28; 겔 34,36).

하나님의 자연적 선하심이 그의 아들이 인간 본성을 취하게 한 것은, 천사 본성을 취하게 한 것만큼 필요하지 않았다. 죄 없는 피조물들은 하나님 자신이 적절한 주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중에 최초로 나신 자라고 불리지 않는다. 이는 인간이 성육신한 그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모든 피조물이 형성되기 전부터 영원토록 난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탁월함과 지배권을 가졌기 때문이다(골 1:15).

그러나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속할 뜻이 있었다면, 신적 인격이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했다.

1. 하나님의 공의와 다른 속성들이 요구하기를, 죄인은 무한한 대속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으며—율법이 완성되고 죄를 범한 그 본성에서 죄가 반드시 벌받아야 한다(히 9:22; 행 20:28; 마 20:28; 엡 1:7; 골 1:14-15; 겔 18:4).
2. 만일 어떤 하위 수단이라도 구속을 이룰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하심이 그의 아들을 그렇게 낮은 복종과 엄청난 고난에 내어 맡기지 않았을 것이다(히 2:10; 애 3:33).

###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사역 준비 과정

세계 창조로부터 약 4,000 년경, 예정된 때가 충만하여 세상이 가장 적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러나 그 준비 과정은 계속 진행 중이었다.

1. 이 일이 필요한 계기는 아담의 타락과 그로 인한 인류 전체의 파멸이었는데, 이는 영원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이다(행 15:18; 시 136:23).
2. 하나님은 가장 놀랍고 주권적인 사랑으로 타락한 인류 가운데 일부를 그 죄악과 비참한 상태에서 회복시키기로 작정하셨다(살전 5:9; 살후 2:12-13; 엡 1:4).
3.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부터 그들의 중재자로 세워졌으며, 그 안에서 택함 받은 수많은 이들이 영생에 이르게 되었다(시 89:19-20; 잠 8:23-30; 뱀전 1:20; 엡 1:4-5; 딤후 1:9; 딤후 1:2).
4. 이에 따라 그는 중재자의 영광에 들어가 당대 상황에 맞는 처지를 가지며, 인간의 아들과 거주할 땅에서 특유의 기쁨을 누리고 그들과 서로 교통하였다(요 17:4-6; 잠 8:31). 그의 장래 인성에 대한 기쁨과 인간과의 관계는, 부활한 영혼들이 죽은 육체에 갖는 존귀한 애착과 부활의 재결합 소망과 유사하되 무한히 뛰어났다.
5. 그의 육신으로 오심이 연기된 것은 적절하였다. 세상을 개혁하는 수단으로서의 필연성이 충분히 드러날 때까지—무지와 학문, 의식의 결핍과 과다, 그리고 종교 내 수많은 의식들—외적 은총과 심판이 모두 효과 없음을 입증할 때까지—그의 성격을 시험할 충분한 표지가 여유 있게 제시될 때까지—그를 향한 인간의 갈망이 크게 고양되어 그의 성육신이 더욱 존귀해질 때까지—진정한 신앙의 냉혹한 적들이 그를 박해하고 죽일 때까지—그의 사역, 죽음, 부활을 증언할 증인과 그의 선한 기적과 복음의 권능을 경험하는 이들이 충분할 때까지였다.
- 그러나 아담이 죄를 범하고 자기 자신과 모든 후손을 파멸시킨 직후, 하나님의 아들은 자비와 사랑을 알리려는 간절한 뜻으로 인간이 되어 구속을 위한 고난을 받으려는 뜻을 나타내셨다(창 3:8-15).
6. 그의 마음이 중재 사역에 크게 집중되어, 수많은 예언적 약속을 통해 성육신, 고난, 부활, 그리고 많은 인생을 모으는 일을 공개적으로 알렸다. 그의 출현과 사역, 성공에 관한 주요한 어떤 사실도 누락되지 않았다(눅 24:25,27,44-47; 요 1:45; 행 10:43; 행 13:27; 행 26:22; 롬 3:21; 뱀전 1:11-12; 고전 15:3-4).
7. 사람들이 듣는 둔함과 마음의 완고함으로 말에 담긴 암시를 깨닫거나 믿지 못할 때, 그는 자신의 실체와 구속 사역을 다채로운 실제적 전형을 통해 특별 백성의 감각에 호소하였다(골 2:17; 히 10:1; 히 9:9-10).
8. 그의 기쁘고 간절한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그는 종종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호수아, 보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기드온, 마노아와 그의 아내, 다니엘, 스가랴 등과 교제하였다(창 18:2; 창 26:2,24; 창 32:24; 수 5:13; 삿 2:1-4; 삿 6:11-22; 삿 13:2-19; 단 10:5; 눅 1:8).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인간의 신체 부위와 정동이 자주 부여된 것은, 아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미래 성육신을 끊임없이 기억케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9. 그가 상징한 많은 인격들이 아버지의 동의하에 땅뿐 아니라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었고, 그중 두 사람은 몸과 혼까지도—택한 자의 첫 열매이자 하나님 보좌 가운데 앉을 장차 인자로서의 보증으로—허락받았다(히 11:13; 창 5:24; 히 11:5; 왕하 2:11).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오래전에 사람이 되었다.

1. 유다 지파와 그 자손에게 이어질 것이라 예언된 왕권, 지파 수장권, 또는 최고 통치권은 이미 오래전에 떠났다(창 49:10). 여기서 약속된 '시로'는 메시아 외의 누구도 될 수 없으며, 유다 지파가 아닌 모세가 아니고 그 권력을 받지도 않았다. 사울은 시로에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라마에서 받았으며, 그의 왕권은 길갈에서 확증되어 유다 지파의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넘어갔다(삼상 9-11; 삼상 13; 삼상 15-16; 삼하 1-5). 여로보암도 시로에서 왕관을 받지 않고 세겜에서 받았다(왕상 12:12; 대상 10 장). 유다 지파에서 왕권이 당대나 몇 세기 후에도 떠난 것은 아니다(대상 10-37 장). 여기서 '세벳' 즉 '왕권'은 압제의 지팡이를 뜻하지 않는다. 이는 입법자와 연결되며, 유다에 대한 영광과 축복으로 지속됨을 말한다.

억압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에 항상 있었던 것도 아니다. 다윗,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웃시야, 히스기야, 시몬 막대우, 요한 후르가누스 등 통치 기간에 유다는 권력과 부귀를 누렸다. 그러므로 이는 대략 세계 창조 4,000 년경까지 유다 지파가 유지했던 뛰어난 통치 권한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유다 지파는 가장 많았고,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선봉에 섰다. 가나안 땅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널리 정착하였다. 하나님의 지시로 남은 가나안 주민들과 반역한 벤야민 지파에 대한 전쟁 공격을 이끌었다(삿 1:1-2; 삿 20:18). 약 500 년 동안 다윗부터 스테락야까지,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을 통해 권위를 부여한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유다 지파 출신이었다. 바벨론 포로 기간에도 그 왕권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이 통치하였고, 요야킨은 다른 포로들 위에 높임을 받았다(단 1-3; 단 5-6; 왕하 25:27). 바벨론에서 돌아온 뒤에는 스룹바벨, 느헤미야, 막대우, 산헤드림이 나라의 통치권을 쥐고 있었다.

유다 지파의 왕권은 기원전 60 년경 폼페이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부터 점차 쇠퇴하였다. 기원후 10 년경 아겔라우스가 폐위되고 유다가 로마 속주가 되었을 때 더욱 쇠퇴하였다. 기원후 70 년 티투스와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주변 도시를 황폐화시켰을 때 왕권은 완전히 떠났다.

2. 다니엘의 70 주 예언, 즉 메시아가 나타나고 죽임을 당할 때까지의 기간은 이미 오래전에 종료되었다(단 9:24-27). 이 70 주는 해의 주간(하루가 1 년을 의미하는 계산법)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안식년과 희년 제도와 연관된다(에스겔 4:5-6; 단 7:23; 단 12:12-13; 계 11:2-3; 계 12:6; 계 13:5; 레 25 장 참고). 70 일은 이런 엄중한

예언 기간으로는 너무 짧다. 어떤 중요한 사건도 70 주의 끝에 발생하지 않았다. 예루살렘과 성전의 멸망, 그리고 땅의 황폐함은 70 주 직후에 예고되었다(단 9:23-27).

이 70 주는 490 년으로, 고레스나 다리오의 명령서가 아니라 아르타크세르크세스 왕의 재위 7 년 또는 20 년째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라는 명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스 1; 스 6-7; 느 2). 그리고 기원전 4036 년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으며, 직후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예루살렘과 성전 및 주변 지역이 오늘날까지 황폐하게 되었다.

3.

스룹바벨이 세운 유대인의 성전은 메시아가 나타나 그의 임재와 사역으로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 예언되었으나, 몇몇 중요한 장식품이 결여되어 있었고(학 2:6-9; 말 3:1), 이미 오래전에 폐허가 되었다.

4. 메시아는 유다 지파와 다윗 가문이 구별되어 고유의 족보를 보존하는 동안에 오셔야 했는데, 이는 약 1700 년 전부터 더 이상 그렇지 않다(창 49:10; 사 11:1; 렘 23:5-6).

5. 메시아가 육신으로 오신 뒤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유대인 대신 교회로 받아들이시고 우상 숭배를 폐지하실 것이었으며(창 49:10; 사 53-55; 속 13:2; 사 2:18,20), 이러한 사건들은 1700 년 이상 전에 두드러지게 시작되었다. 나사렛 예수는 참된 메시아이다.

## 메시아의 예언과 일치

1. 메시아의 모든 특징은 그 선구자에 관한 예언과 정확히 일치한다(말 3:1; 말 4:5; 사 40:3-6; 마 3:3-14; 눅 1; 눅 3; 요 1:19-34; 요 3:23-36). 그의 지파와 가문(창 49:10; 사 11:1-2; 마 1; 눅 1:26-36; 눅 2; 눅 3:22-38), 오시는 시기(창 49:10; 단 9:24; 학 2:6-7; 말 3:1), 출생지(미 2; 마 2; 눅 2), 그리고 탄생 방식(사 7:14; 렘 31:22; 마 1:18-25; 눅 1:26-35)과도 정확히 부합한다.

2. 메시아의 인격, 즉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양성적 본성(사 9:6; 사 7:14; 눅 1:16-17,35; 롬 1:4; 롬 9:5)과 그의 직무(신 18:15-18; 행 3:22; 행 7:35,37; 마 11:5; 마 17:5; 마 5-7; 마 13; 시 110:4; 히 4:14; 히 5; 히 7; 히 9-10; 마 26-27; 시 2:6; 시 89:3-4,19-20; 겔 34:23-24; 사 9:6-7; 사 32:1; 렘 23:5-6; 렘 30:21; 단 7:14; 요 2:13-22; 요

18:36; 마 21:12; 마 10; 마 16:18-19; 마 28:18-20; 빌 2:8-11; 엡 1:22,34; 엡 4:11-12), 그리고 그의 상태(시 22; 시 69; 사 53; 눅 24:26; 히 1:3; 히 2:8-10; 고전 15:3-4; 빌 2:7-11; 뱀전 1:19-21)는 모두 완전히 부합한다.

3. 그의 교리와 사역은 예언자들이 메시아에게 귀속시킨 그것과 완전히 일치하며, 메시아에게 가장 적합하다. 그의 교리는 얼마나 신비롭고 거룩하며 하늘 같고 신성한가. 또한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성향과 얼마나 정반대인가! 얼마나 단순한 방식과 예상치 못한 도구로 선포되고 전파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능력 있게 이방 민족들을 회심시키는가! 그의 기적들은 얼마나 수많고 공공적이며 자비로운가(사 2:2-4; 사 48:17; 사 52:15; 사 54:13; 미 4:2-3; 미 5:3; 말 3:2-3; 마 5-10; 마 12-15; 마 17-19; 눅 4-19; 요 2-18).

4. 약 1740 년 동안 이방인들이 그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모였다(시 2:8; 시 22:27-31; 시 45:9; 시 47; 시 67; 시 68:22; 시 100; 시 117:2; 시 72; 창 49:10; 사 42:6-7; 사 49:6-12; 사 11; 사 54-55; 마 2; 요 4; 요 12:20; 행 2; 행 10-20; 롬 15:16,19; 엡 3:8-9). 다만 주목할 점은, 메시아 왕국의 영적 복락이 종종 육적인 상징으로 예고되었으며 이는 유대교 제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높은 집이나 성전(사 2:2; 미 4:1), 큰 평화(사 11:6,8; 호 2:18), 큰 빛(사 30:26; 사 9:19-20), 영광스러운 도시와 성전(겔 40-48), 가나안의 큰 행복(렘 3; 렘 30-33; 겔 34; 겔 36-37) 등이 그러하다.

###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증명

나사렛 예수가 신성이 있으신 하나님이며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이심은 이미 증명되었다(제 2 권). 또한 이것을 부인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여러 모순으로부터 모든 공인된 그리스도인에게 더욱 명백히 증명할 수 있다.

1. 만약 그리스도가 지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자신을 믿고 경배하도록 격려한 것은 신성모독과 우상숭배를 조장한 것이며, 온 세상의 만물이 아닌 창조자 숭배를 폐지하려는 무함마드교보다 기독교가 훨씬 열등할 것이다.



2. 만약 그리스도가 유일하고 참된 지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유대인들이 그를 신성모독적인 악명 높은 거짓 선지자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가 참 하나님임을 공개적이고 완강히 주장하며 구약의 수많은 예언으로 증명한 제자들을 박해한 것은 정당하다.

3. 그가 지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의 여러 주요 예언은 오류이거나 무의미하며, 복음의 신비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 죽게 하신 사랑은 성경이 묘사하는 탁월한 덕과 능력이 없다. 그의 죽음은 은유적인 속죄에 불과하여 우리의 영혼 구속에 아무 효력이 없다.

4. 그리스도가 지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성경이 그에게 부여한 이름, 완전함, 사역, 예배 등은 매우 불명확하고 현혹적이며 불경하고 터무니없다. 예언자들이 그에 관한 내용을 오해했거나, 사도들이 그를 참 신으로 증명할 때 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음이 틀림없다.

5. 그리스도가 지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기독교는 단지 미신의 체계이자, 창조물이 임명한 사기극이며, 오직 진정한 지존 하나님 행세를 하는 자가 거짓 등장하는 희극일 뿐이다. 모든 기적, 신비, 예언이 마술적 속임수나 마귀의 속임수로, 단지 피조물에 대한 믿음과 경배를 조장하기 위한 것이다.

## 그리스도의 인성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참된 인성을 취하셨다. 이는 인간의 영혼과 동정녀 마리아의 물질로 이루어진 참된 육체이며, 하늘에서 즉시 창조되거나 내려온 것이 아니다.

1.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는 우리가 진 빛진 율법이 죄를 지은 바로 그 동일한 본성 안에서 성취되어야 하며, 우리의 구속자가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어야 구속권이 그의 인성에까지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겔 18:4; 눅 1:71; 롬 7:4; 엡 5:23).

2. 그는 매우 자주 '사람'과 '인자'라고 불린다(시 80:17; 단 7:13; 속 6:12; 속 13:7; 마 8:20; 마 9:6 등).

3. 성경은 그를 여자의 후손(창 3:15), 아브라함의 씨(창 12:3; 28:18; 22:18), 이새의 자손(사 11:1), 다윗의 씨와 그의 허리에서 난 열매(롬 9:5; 롬 1:3; 눅 1:32), 마리아의 씨로 나타내며(눅 1:31-32,35; 갈 4:4), 그녀의 태에서 나왔다. 이 점을 부인하면 그의 이중 족보는 무효이며 거짓이고 미혹적이다(마 1:1-17; 눅 3:23-38). 성경은 그를 요셉의 아들이라 단 한 번만 언급하는데, 이는 요셉이 그를 인정하고 교육했기 때문이다(눅 2:41,44; 눅 3:23).

4. 만약 그가 하늘에서 육체를 받거나 즉시 창조되었다면, 그는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지 않았고 죄만 제외하고도 우리와 동등하지 않았으며(히 2:17), 우리와 친족 관계가 없었고 메시아 족보의 예언적 특징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창 3:15; 22:18; 49:10; 사 11:1,10; 렘 33:15-16; 사 7:14).

5. 성경은 그가 참된 인간 영혼을 가지셨음을 명백히 밝히며(사 53:10; 시 22:21; 마 26:38; 요 12:27), 그 영혼은 유한하고 제한된 이해력(눅 2:52; 막 13:32)과, 신성을 구별하면서도 신성에 복종하는 의지를 지녔다(마 26:39). 그는 참된 인간 육체(마 26:26; 눅 24:39)를 가지셨으며, 육과 피를 나누셨고, 먹고 마시며 배고픔과 목마름, 졸음과 피곤을 경험하셨고, 눈물을 흘리고 피 땀을 흘리기도 하셨다(히 2:11,14,16; 마 11:19; 마 4:2; 요 19:28; 요 4:6; 요 11:35; 눅 19:41; 눅 22:44).

## 성령과 인성 형성

그리스도의 인성을 형성하실 때, 성령은 자신의 본질 일부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인성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러나

1. 성령은 동정녀의 본질 일부를 그 인성의 몸으로 형성하셨다.

2. 그 인성의 영혼을 그 몸과 가장 밀접하게, 그리고 신성과 연합하여 만드셨다.

3. 이 인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성령은 그 인성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당시 상태에 적합한 선물과 은혜로 그의 영혼을 충만케 하셨다(사 7:14; 렘 31:22; 마 1:20; 눅 1:35).

그리스도의 인간 영혼이 세상 창조 이전에 창조되었다는 생각은 성경에 근거가 없고, 그의 인성을 형제들의 인성과 달리 만들며, 구약에서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통해 증명되는 그의 참된 신성에 관한 증명을 회피하려는 시도이다.

### 그리스도의 인격적 연합

하나님의 아들은 이 인간 본성을 자신의 신성한 인격 안에 취하셨다. 성경은 그를 하나님과 인간이 한 인격 안에서 계신 분으로 나타낸다. 곧 육신이 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요 1:14; 갈 4:4; 롬 8:3), 하나님 형상과 동등하나 사람의 형체를 취하셨다(빌 2:6-7; 히 4:14-15; 히 5:7-8). 또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고(딤후 3:16), 다윗과 조상의 씨로 만들어졌으나 동시에 하나님 아들이시며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이시다(롬 1:3-4; 롬 9:5).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벧전 3:18).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행 20:28),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동역자이시며(숙 13:7), 여호와이면서도 다윗의 뿌리에서 난 가지(렘 23:5-6; 렘 33:15-16), 탄생한 아들이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사 9:6; 미 5:2), 임마누엘이면서도 여인에게서 나신 분(사 7:14; 사 4:2; 마 1:23)이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즉 그의 중보적 인격의 구성은 두 가지 신적 행위로 이루어진다.

1. 형성과 결합의 행위로, 그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격에 즉시 형성되어 연합된 것이다. 이 인성의 인격에의 연합은 그것이 별도의 인격을 갖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영혼이 아담과 같은 언약 파기 대표자와 관계 없이는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 신적 행위는 모든 신적 위격이 동참하였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 안에서 이를 행하셨다(히 10:5; 히 2:14; 사 7:14; 렘 31:22; 렘 23:5; 렘 33:15; 숙 3:8; 눅 1:35).

2. 취하심의 행위로, 오직 아들만이 인성을 그의 신적 인격에 취하여, 신성이 인성을 영원히 내재하거나 입은 듯 머물게 하셨다(히 2:14; 요 1:14; 빌 2:6; 롬 8:3; 갈 4:4).

아버지가 인성을 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은데, 존재의 차례상 첫 번째 위격으로서 아버지는 아들과 성령에 의해 보내지지 않았고 중보자로서 행하지 못했으며, 하나님 내에서 아버지이고 인성에서 아들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이 인성을 취하는 것 역시 적합하지 않은데, 존재의 차례상 뒤이어 오는 신적 위격이 없어 자기 구속을 적용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들이 사람이 되시는 것은 무한히 적합하다. 하나님 내에서 중간 위격인 아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가 되며, 하나님 내에서 아들이신 분이 인성으로 동정녀의 아들이 되며, 유일하게 낳으시고 사랑받는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며 본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만들며, 아버지의 말씀 되신 분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즉 그의 중보 인격의 구성은 이 두 행위에 의해 형성된다. 이 연합은 두 본성 간의 영구적 관계로서, 인성을 취한 신성과 취해진 인성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 연합은

1. 인격적이다. 이는 두 인격, 곧 신성과 인간 인격 두 개가 결합된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간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그 인격이 동시에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임을 의미한다(골 2:9; 사 7:14; 사 9:6; 렘 23:5-6; 렘 33:15-16; 숙 13:7; 미 5:2; 요 1:14; 요 3:13; 롬 1:3-4; 롬 9:5; 눅 1:16-17,35; 빌 2:6-7; 히 4:14-15; 히 9:14; 행 3:15; 고전 2:8; 딤후 3:16; 벧전 3:18).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 인격 자체를 취해 그것이 계속 인간 인격으로 남는 것은 할 수 없었다.

어떠한 유한한 실체도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주체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유한한 인성은 그의 인격(person)과 그 자체 인격성(personality)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었다. 만약 그리스도에게 인간 인격이 있었다면, 그는 모든 인간과 동등하게 관계를 맺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저주라는 무게 아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도 없었고, 우리에게 마땅한 무한한 형벌의 짐을 짊어질 수도 없었다. 또한 그분의 순종과 고난이 우리를 대신하여 깨진 율법에 대해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그 율법을 견고하게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그리스도는 인간 인격을 취하셨는데, 그 인간 인격이 그분께 취해지는 순간 소멸된다는 개념은 성경에 근거가 없다. 죄인이 이전에 소유했거나 또는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했던 인간 본성은

하나님 아들과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다. 원죄 없이 인간 인격이 형성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그러나 다음 사항이 주목되어야 한다.

1. 하나님의 아들 신적 인격은 그분의 신성만큼 불변하며, 파괴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히 13:8; 말 3:6; 약 1:17; 출 3:14).
2. 그리스도의 인성은 형성되는 순간부터 신적 인격과 연합되어, 독자적인 인격이나 특별한 실체를 가질 수 없었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다. 연합 행위를 통해 인간 인격 대신 신적 인격을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무한한 유익으로 충족된 인간 인격의 부재는 인성의 완전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인성은 혼과 몸의 결합에 의해 완전한 인간 본성을 이룰 뿐, 존재 양식(mode of subsistence)이 완전성을 좌우하지 않는다.
3. 그리스도의 인성은 그 신성과 절대적인 의미에서 직접 연합한 것이 아니라, 아들의 인격에 의해 특성화되고 유지되는 신성과 연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는 아버지와 성령 안에 존재하는 신성과 인격적으로 연합된 것이 아니다(롬 8:3; 갈 4:4; 요 1:14).
4.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 무한성에 있어서 인성을 무한히 초월하지만, 인성은 한 순간에 한 공간에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신성은 영적 존재로서 모든 곳에 온전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인성과 연합하여 거한다(딤후 3:16; 사 9:6; 사 7:14; 요 1:14; 골 2:4).

2. 이 연합은 합성적이지 않아서 두 본성은 각자의 본질적 속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다음과 같은 속성을 귀속시킨다.

- 1) 무한히 다른 본성들(롬 1:3-4; 롬 8:3; 롬 9:5; 뱀전 3:18; 히 9:14; 요 1:14; 딤후 3:16; 빌 2:6-7; 사 9:6; 사 7:14; 갈 4:4).
- 2) 서로 다른 지성과 의지—모든 것을 아는 지성(요 2:25; 요 21:17)과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는 지성(막 13:32); 아버지과 하나인 의지(요 5:19; 요 10:30; 요 14:9-10; 요일 5:7)와 아버지와 다른 의지(눅 22:42).
- 3) 상반되는 상황이나 속성, 예컨대 인성으로서 세상을 떠남(요 16:7,28)과 신성으로서 항상 세상 안에 있음(마 28:20; 마 18:20); 태어난 아가이면서도 영원한 아버지(사 9:6); 전능자이면서 약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힘(창 17:1; 사 9:6; 고후 13:4).

3. 이 연합은 해체될 수 없는 영원한 연합이다.

1) 그리스도가 인성을 벗을 의도가 있었다면 겸비한 사역을 마친 후 그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도 인성을 유지한 것은 확실하다(행 1:10-12; 행 3:20-21; 계 1:7).

2) 그리스도는 한때 죽었던 인성에 관해 영원히 산다(계 1:18; 시 21:4).

3) 중보자로서의 영원한 직분의 지속은 인성의 영속적 보유를 요구한다—어린 양으로서 영원히 하늘의 빛이 되고(계 21:23),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시 110:4; 히 7:25; 롬 8:34), 영원한 왕으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야 한다(눅 1:32-33; 사 60:7).

4) 모든 신자는 그의 지체로서 몸이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이며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빌 3:21; 살전 4:17).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성이 존재를 잃거나 위상이 하락한다고 볼 수 없다.

5) 인성과 신적 인격의 영원한 연합은 공정하게 자신에게 합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즉, 연합 상태에서 행한 굴욕적인 순종과 고난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받기 위함이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증명하고 우리와 친밀한 지식, 사랑, 교제의 수단으로 남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 연합으로 인해 인간 본성에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과 같은 신적 속성이 실제로 전달되지는 않는다.

1) 그리스도의 신성이 절대적으로 단순하므로 그 본질적 속성들은 인성에 모두 전달되거나 전혀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그의 인성이 무한한 영원성을 가지거나, 자존성이 있거나, 절대적으로 독립적이거나, 최고신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2) 구별되는 어떠한 속성도 전달될 수 없다. 만약 두 개 이상의 본성에 공통으로 주어진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구별되는 속성이 아니다.

3)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실제적이고 밀착된 연합 상태에 있으므로, 신성의 속성이 인성에 전달될 수 있는 정도는 인성의 유한함, 의존성, 연약함 등의 속성이 신성에 전달될 수 있는 정도와 같다.

4) 각 본성이 상대 본성의 속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속성의 교환은 본성들을 합성하여 하나의 본성을 만드는 일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는 유티키우스파가 무리하게 주장한 바와 달리 타당하다.

5) 특히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과 같은 신적 속성은 인성에 전달될 수 없다. 편재성은 물질적 몸의 본질과 명백히 모순된다. 편재하는 존재는 결코 잉태되거나, 태어나거나, 죽거나, 묻히거나, 무덤에서 부활하거나, 하늘로 승천하거나, 심판을 위해 돌아올 수 없으며, 실제로 그리스도가 장소를 이동하였다는 사실도 부인될 수 없다(눅 2:1-7; 마 26-28; 요 20-21; 요 6:24; 요 11:15; 요 16:28; 요 17:11; 막 6:6; 막 16:19; 눅 24:51; 행 1:9-11; 행 3:21; 히 4:14; 살전 4:14,17). 또한 그리스도는 전지하지 않았다. 지혜가 성장하였고(눅 2:40,52), 지상에서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알지 못했다(막 13:32). 전능하지도 않았으며 피곤하고 놀라며 매우 무거워했고, 혼란스러워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으며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했다(요 4:6; 마 26:38; 요 12:27; 히 5:7; 사 50:7,9; 사 42:1).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그리스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롬 4:17; 뱀전 3:18; 요 6:63; 시 36:9; 행 26:8).

그러나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인격적 연합이 낳는 참된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서로에 대한 상호 관심의 교제(요 12:27; 시 16:10).

2) 연합적 기름부음으로, 신성 측면에서는 그를 보내심과 그의 신성 거처인 인간 본성의 준비를 포함하며(갈 4:4; 사 48:16), 인성 측면에서는 실제로 필요한 모든 은사와 은혜의 수여를 뜻한다. 이런 은사들은 연합은 동일하나 시기와 인성의 상태 변화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되었으며, 즉각적 신성보다는 인성에 거하는 성령으로부터 그 종대 능력과 낮아짐 혹은 높임의 상태에 맞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눅 2:52; 막 13:32).

3) 모든 중보적 성질, 직분, 행위의 교제—즉, 개별 본성이 직접 행하거나 공통받았음에도 신인 인격은 이 모든 행위와 고통을 자기 행위로 여긴다. 그는 율법을 준수하였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으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였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오는 분으로 여겨진다(마 5:17; 고후 5:21; 롬 1:3-4; 살전 4:14,16).

4) 두 본성의 속성이 신인 인격에 귀속되며, 때로는 한 본성의 속성이나 그와 관련된 것이 다른 본성의 이름으로 언급될 때도 그것이 적용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죽고 다시 살았다’, ‘영광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행 20:28; 롬 8:3; 고전 2:8)고 말한다. 또한 ‘인간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며, 모든 것을 알고, 어디에나 있으며, 전능하다’(속 13:7; 요 21:17; 요 3:13; 사 9:6)라고 말한다.—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전체 또는 양 본성에 모두 적용되지는 않지만, 신인 인격 전체에는 적용된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긴밀한 연합은 두 본성의 사역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온전한 신인 인격의 행위로 신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 우리를 속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창조자이자 가까운 친족인 신인만이 완전한 구속권을 가질 수 있었다.

구속의 대가를 치를 수 있거나 우리를 실제 소유하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그분뿐이다.—더욱이, 모욕받은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될 이는 양 본성을 모두 나누어 가져야 했다.—양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양쪽의 이익을 주의 깊게 살피고, 양쪽을 영구하고 우호적인 화해로 이끄는 데 적합해야 했다.—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관계를 가져야 했으며,—우리를 위해 적합하고 충분한 대속물을 지불할 능력이 있어야 했고,—우리와 적절한 공감을 나누며, 구속을 구매하고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존엄과 권능을 갖추어야 했다.—그분이 우리의 보증자이자 희생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이시므로 자신의 인격, 순종, 생명을 절대적으로 주관하는 분으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당하게 약속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우리가 하나님 법과 정의에 진 모든 빚을 완전히 납부할 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자발적 죽음으로 세상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법과 정의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행해야 하며; 그 순종과 고난에 무한한 가치를 더할 수 있어야 했다; 또한 만족시킨 각 개인과 그에 관한 모든 사정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힘으로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해야 했다.—인간으로서, 우리가 따르던 깨어진 법이 요구하는 모든 순종과 하나님 및 이웃에 대한 사랑, 고난의 요구를 그 본질과 형태대로, 우리가 진 빛과 동일한 방식으로 철저히 완성해야 했으며,—빛을 갚는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적으로 느끼고, 우리에게 거룩한 순종과 인내하는 고난의 완전한 본모습을 보여 주어야 했다.—그분이 우리의 변호자이자 중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도, 하나님이시므로 대속의 상태에서 명예로운 중재의 자리로 옮겨야 했으며; 적절한 존엄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해 나타나야 했고; 영원히 하나님의 보좌 곁에 앉아 우리의 영원한 평화와 교제의 충분한 담보가 되며, 우리의 이름으로 하늘 유업을 수여받아야 했고; 자신 백성의 모든 필요와 내면의 소원을 알며; 그들의 무자격함, 죄책감, 그리고 기도의 간절함 부족을 자신의 존엄과 충만한 공로, 그리고 간절한 열망으로 능히 상쇄해야 했다.—인간으로서는, 우리 본성을 온전한 의의 수행자로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느끼는 자비로운 형제로서 중재해야 했다.—그리스도 안에 신성과 인간 본성의 결합은 그분이 예언자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다.—하나님이시므로 매 시대 모든 제자와 함께 계시며(마 28:20), 모든 신적 진리와 우리의 교훈 필요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고(요 1:13; 골 2:3), 그 가르침의 거룩함과 무오성, 신적 권위를 완전하고 위로스럽게 증명하며(마 17:5), 자신의 능력으로 행한 기적으로 이를 확증하고(요 5:36; 요 10:38), 성령을 통해 그의 가르침에 협력케 하여(요 16:7-14; 잠 1:23), 백성의 확신, 계몽, 거듭남, 성화, 위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한다(고후 4:6; 고후 3:18). 인간으로서 형제와 같은 애정으로 우리의 연약함에 맞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자신의 인격과 삶, 죽음으로 교리와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본모습이 되어야 했다(마 11:29-30).—왕직 수행에 있어서도 필수적이었는데, 하나님이시므로 구속받은 백성을 창조 당시보다 더 낮은 지위에 두지 않고(호 1:10-11),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백성을 가까이서 다스리고 정복하며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시 110:2-3; 시 72:8-9; 시 28:9; 시



29:11; 속 9:10; 사 9:7), 지옥과 땅의 모든 권력과 정치적 책략에 맞서 싸울 능력이 있어야 하며(마 16:18),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다스리고(엡 1:22), 택한 자의 마음을 설득, 정복, 새롭게 하며 위로하고 성화시키고 지배하며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시 45:3-5; 요 14:1; 요 15:3-5; 요 6:63; 빌 4:19). 또한 인간에 대한 적대적인 모든 독불장군 같은 적들, 마귀와 인간의 완강한 마음을 다스리고(잠 21:1; 시 76:10; 계 17:17), 행동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행 16:31; 계 20:12).—인간으로서, 그분은 사랑하는 형제들을 자신보다 높이 여기지 않고 겸손하며 다정한 태도로 대하며(속 2:8), 자신이 제정한 법에 순종하도록 자신의 본보기를 보이고, 그 법에 따라 마지막 날 천사와 인간의 영원한 상태를 가시적으로 결정한다.—그분이 아버지, 남편, 친구, 목자 등으로서 이루는 모든 구원적 관계들도 이로 인해 완성된다.—그 관계들은 인간 됨으로써 인간에게 가깝고 즐겁고 자연스러운 것 같으며, 하나님 됨으로써 무한히 능력 있고 위로가 된다(아 5:9-16; 시 23:1-6; 시 18:1-3; 사 9:6; 사 63:16; 사 54:5).—겸손과 영화의 상태에도 필수적인데, 인간 됨이 그것들을 가능하고 실제적이며 우리에게 적절한 본보기로 만들고, 하나님 됨이 그 겸손의 깊이를 무한히 심오하고 놀랍도록 존엄하게 하며, 그 수고 자체를 진정하고 내재적인 공덕으로 만들고, 영화의 높이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이며, 비할 데 없는 영광을 견디고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하며, 우리에게 무한한 위로와 능력을 제공한다(고후 8:9; 고후 5:21; 히 2:17-18; 히 4:14-16; 히 6:18-20; 히 10:19-22).—그리스도의 중재적 인격의 은혜와 관계적 영광은 매우 두드러진다.

### 그리스도의 인격적 은혜

그 인격적 은혜는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연합의 은혜로서 인간 됨이 은혜롭게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 가운데 그 높은 존속 상태로 높아진 것(요 1:14; 딤후 3:16; 롬 8:3; 히 2:11,14). 둘째, 기름부음의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중재적 사역에 임명하시고, 인간 본성에 그 사역을 위한 은사와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신 것(요 10:36; 요 6:27,29; 요 3:34; 사 11:2-4; 사 61:1; 사 42:1). 셋째, 교제의 은혜로서 그의 본성 연합과 성령의 기름부음에서 비롯된 풍성한 열매들(고전 1:30; 골 1:19; 골 2:3,10,19).

즉, 그의 인격적 은혜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인간 본성 안에서 그 일을 수행하도록 임명된 분으로서 그 사역에 적합한 능력(골 2:9; 요 3:16; 딤후 3:16; 요 1:14). 2. 그 백성을 공급하기에 충분한 은혜의 총만함(골 1:19; 골 2:10; 빌 4:19). 3. 사랑받을 만한 탁월성—그는 자신의 인격과 직무, 관계와 사역에서 우리 불멸하는 영혼의 이해와 양심, 욕구, 필요에 전적으로 부합한다(아 5:10-16; 골 2:10; 골 3:11; 고전 1:30).

## 그리스도 하나님 인격의 상대적 영광

그리스도 하나님인 인격의 상대적 영광은 그가 하나님의 본성, 완전성, 목적, 언약 및 계시된 진리와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는 데 있으며, 신자들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구원의 모든 은혜와 그 실행,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합당한 예배와 새 순종과도 연관된다.

첫째, 본성에 관하여: 1.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다—신적 본성에서(요 10:30; 요일 5:7), 완전성과 존귀, 사역과 예배에서(요 5:16-29; 요 17:9-10; 요 14:9-10), 뜻에서(시 40:8), 정동에서(요 14:21,23; 살후 2:16), 이해관계와 통치에서(요 17:2,9-10; 요 16:15; 요 14:2,9-10)이다. 2.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시며 동일한 사역에 협력한다(요 5:17,19; 요 14:23; 살후 2:16; 잠 8:27-30); 인성을 떠받들고 도우시며(행 10:38; 사 42:1,6; 사 49:2; 사 50:7,9); 사랑과 호의를 베풀고(요 17:24; 마 3:17; 마 17:5); 동일한 영광을 나눈다(계 3:21; 계 22:1). 3.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인격의 신비로운 공존으로(요 14:10-11,20; 요 17:21,23); 놀랄 만한 안식과 만족과 기쁨으로(사 42:21; 고후 5:19; 시 80:17). 오직 그분 안에서만 죄로 망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사 66:1-2; 고후 5:19-21; 엡 2:18; 엡 3:12).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자비, 정의, 진노의 완전성이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나—;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불법과 죄악을 용서하시면서도 결코 죄인을 면죄하지 않는 모순된 이름들(출 34:6-7); 악인의 의롭다 하심을 증오하시면서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모순된 진술들(출 23:7; 잠 17:15; 롬 4:6; 사 43:24-25; 사 45:24-25; 고후 5:21); 율법에 죽은 자를 만들면서도 마음에 율법을 기록하시는 모순된 일(갈 2:19; 롬 7:4; 롬 8:2; 롬 31:33; 히 8:10). 4.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일도 죄인들에게 적합하고 명확하며 충분하며 구원을 주고 만족시키는 하나님 모습을 온전히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이면서도 우리 본성 안에 독립적인 인격이므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완전한 대리자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빛깔이며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다(히 1:3; 요 14:9-10). 하나님과 인간 중재자로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표 이미지이며(골 1:15; 고후 4:4,6), 이를 통해 하나님의 속성들이 가장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마음을 사로잡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광휘로 빛난다.

1. 그의 영성은 세상적인 것이 아닌 언약, 왕국, 백성을 세우는 데 나타난다(삼하 23:5; 요 18:36; 뱀전 2:5). 2. 그의 무한성은 우리 구속을 위한 무한히 중요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며, 자신의 무한한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기꺼이 내주고, 그분이 남편이자 능력 있는 구세주요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한 데서 드러난다(고후 9:15; 요 3:16). 3. 그의 영원성은 엄청난 영원에서 영원까지 뱀는 언약과 직무를 세우는 데 나타난다(삼하 23:5; 잠 8:23; 시 110:4; 사 9:7). 4.

그의 불변성은 그리스도와 관계하는 모든 무오한 목적과 섭리에 있어, 우리의 무수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출현과 일을 변화시키지 않으며, 그 본성과 인격의 영원한 연합을 우리의 수락과 행복의 변치 않는 증거로 담보한다(말 3:6; 렘 3:5,19; 렘 23:5-6; 렘 31:3; 렘 32:40; 사 54:8-10). 5. 그의 독립성은 자신의 아들을 인간됨에 개인적으로 결합하였고, 그 새 형상 안에서 창조된 인간이자 중재 봉사자로서 그를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는 데 있다(렘 31:22; 사 7:14; 사 42:1; 렘 23:5; 렘 33:15). 6. 그의 절대 주권은 유일하게 낳은 아들을 중재자이자 보증자로 삼아 지옥에 합당한 죄인들을 위해,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 모든 인간이 다 가치 있고 필요하나 어떤 이들만을 위해 허락한 데 있다(시 89:19-20; 히 9:14,16; 고전 1:26; 마 11:25-26; 마 20:15). 7. 삼위일체의 인격으로 현존하심은 그리스도의 사명(사 48:16), 기름부음(사 61:1), 세례(마 3:16-17), 죽음(히 9:14), 부활(롬 8:11; 롬 1:3-4), 중보 사역(요 14:16-17,26), 그리고 구속 적용 사역(요 15:26; 요 16:7-15; 벰전 1:2)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8. 그 신적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을 충만히 부여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살리고 위로하며 영원한 행복과 영광에 이르게 한다(요 5:25; 요 11:25; 롬 8:2; 엡 2:1-10). 9.

그의 무한한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구속이라는 무한히 고된 일을 수행할 적합한 인물을 찾고, 그를 가장 알맞은 시간과 장소와 방식으로 세상에 보내며, 가장 적절한 도구들을 갖추게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악 중의 악에서부터 하나님께 최대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죄를 벌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며, 사탄이 완전한 승리를 거둔 듯한 상황을 그의 복잡한 파멸의 계기로 삼고, 그리스도를 가장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에게 지혜로 삼으신다.

10. 그의 무한한 능력은 그리스도의 두 본성을 한 인격 안에 결합시키고, 우리 인격들을 그에게 연합시키는 데 있으며, 그리스도께 가장 엄청난 고통을 가하시며 그가 이를 견디게 하시고, 무한한 진노와 저주라는 압력 속에서 그분의 인성이 거룩함 안에서 성숙하도록 하신다. 또한 고난과 죽음을 통해 그가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고 탁월하며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그에게 베푸신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분의 백성을 의롭다 하시고 보존하며 위로하고 영화롭게 하신다(고전 1:24).

11. 그의 무한한 거룩함은 저주 아래에서도 그리스도의 인간 본성이 지닌 상상할 수 없는 순결함에 있으며(눅 1:35), 그에게 내재한 죄나 그가 범한 죄가 아니라 단지 그에게 전가된 죄 때문에 자신을 그에게 숨기시며(마 27:46), 죄를 멸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시는 데 있다(단 9:24; 요일 3:5,8).

12. 그의 무한한 정의는 우리 죄에 대한 모든 복수를 그의 외아들이며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차 없이 집행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죄인들을 영원한 은혜와 영광으로 상급하시는 데 있다(롬 8:32; 롬 3:24-26; 사 53:10-11; 요일 4:9-10,19; 요일 1:9; 롬 5:21; 롬 6:23).

13. 그의 확실한 진리는 자신의 인격 구성과 인간을 만족시키고 구원하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약속과 위협을 이루시는 데 있다(고후 1:20; 창 3:15; 창 2:17; 살전 5:18; 뱀전 3:18).

14. 그의 무한한 위엄과 위대하심과 권위는 자신의 무한히 동등한 분을 우리 본성 가운데 보내시고 명하시며 별하시고 상주시는 데 있다(사 42:6; 사 48:16; 마 3:15; 요 10:18; 요 14:31; 빌 2:6-11; 속 13:7; 사 57:10-12; 엡 1:20-23).

15.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와 선하심과 사랑에 있다(요 3:16; 요일 1:8-10,16,19).

## II. 하나님의 목적들과 그 실행은 그리스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그의 인격인 하나님 인간은,

1. 그 목적들의 기초이다(골 1:17).

2. 그 목적들이 모두 즐겁게 만나는 중심이다(엡 1:10).

3. 그 목적들의 영광이며, 그의 두 본성의 연합은 하나님의 주된 계획과 작품이다(렘 31:22; 딤후 3:16).

4. 그 목적들을 이루고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는 주요 수단이다(히 11:3; 히 1:2-3; 사 49:8).

5. 그 목적들의 큰 범위와 최종 목표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 구원과 연결된다(계 5:11-13).

6. 하나님 마음이 그의 목적들과 일에 머무르고 기뻐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는 위대한 매력이다(시 104:31; 습 3:17).

### III.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에 관하여, 그리스도는 그의 인격과 직분 안에서

1. 그 진리가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근원이다(요 1:18; 계 1:1; 삼하 23:3; 마 5-7; 요 3:3,5; 롬 1:16).

2. 그 진리의 기초이다(요 14:6; 사 28:16; 고전 3:11).

3. 진리의 내용 그 자체이며, 그것들이 온전히 연결될 때 그렇다(딤후 3:16; 고전 1:24; 고전 2:2,6-7; 골 1:25-27; 골 3:11; 요 14:6).

4. 그 진리들이 안전하게, 영예롭게, 신비롭게 저장된 곳이다(요 1:14; 골 2:3; 사 11:2; 사 61:1; 엡 4:20-21; 고후 1:20).

5. 그 진리들이 모든 선이 질서 있게 만나는 중심이다(행 10:43; 롬 10:4; 롬 3:21-22; 고전 1:20; 눅 22:20; 눅 24:27,45; 요 1:45; 행 26:22-23; 고전 15:1,3-4; 딤후 3:16).

6. 그 진리들의 위대한 선생이자 해석자이다(말 3:1; 사 48:17; 사 50:4; 사 54:13; 욥 33:23; 롬 15:8; 아 2:9-15; 요일 5:20; 눅 24:27,45; 미 4:2; 미 5:4).

7. 그 진리들의 증인이며, 나아가 그것을 확증하는 분이다(계 1:5; 계 3:14; 사 55:4; 요 3:3,5; 시 50:7; 겔 33:11; 히 6:16-18; 고후 1:20).

8. 그 진리들이 하나님이나 인간, 죄나 비참, 거룩함이나 행복, 율법이나 복음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항목의 모범이다(엡 4:20-21).

9. 그 진리들의 빛과 영광이다(갈 1:16; 고후 3:8,14,16,18; 고후 4:3-4,6).

10. 그 진리들의 생명, 권능, 능력이다. 그것들을 효과 있게 하는 하나님의 모든 완전성, 목적, 능동성이 그 안에 있다. 그로부터 분리되어 알게 되면 진리가 과소평가되고 소홀히 다뤄지며 왜곡되어 죽은 상태가 되고, 심지어 죽음으로 향하는 냄새이며 죽이는 글자요, 사망의 직분이다(고후 2:16; 고후 3:6-7).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진리는 생동하고 능력 있게 된다(히 4:12; 롬 4:17; 요 5:25; 요 6:63; 요 11:25; 롬 8:2; 시 119:50).

11. 진리가 사람 마음에 적용되는 것은 그의 인격 적용에 달려 있다. 그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진리도 올바르게 인식되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떤 진리도 사랑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 안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신성한 진리에 안심할 수 없다. 그의 자아 연합적 접촉을 경험하지 않으면 구원하는 진리의 능력을 느낄 수 없다(롬 7:9; 롬 8:2). 그러나 그가 우리의 영혼 안으로 들어오면 신성한 진리는 적용되어 결코 우리에게서 빼앗기지 않는다(사 54:13; 갈 1:16; 딤후 3:15; 고후 1:24; 엡 5:8; 엡 4:24; 고후 3:3,18; 엡 1:18-19; 엡 3:16-19; 롬 31:32-34; 시 119:11; 롬 15:16).

#### IV. 하나님의 언약들도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이 노아, 아브라함, 비느하스, 다윗, 이스라엘과 맺은 특정 언약들은 그가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나타내도록 구성되었다(창 9; 창 17; 창 22; 민 25; 삼하 7; 출 19:5-6; 출 24; 신 5:2; 신 29). 그리스도는 초기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의 실제적 최종 목적이자 대표자를 통한 그 언약의 온전한 확증이다(롬

5:12-21; 고전 15:21-22,45-49). 그리스도는 자신의 택자를 대신하여 이를 성취하고 선명히 하시는 이다(롬 10:4; 롬 8:3-4; 사 42:1,21; 사 53:4-6,10). 그리고 그로 인해 언약은 타락한 인류에게 무해하고 유익하며 즐거운 것이 된다(롬 8:1-4; 롬 7:5; 갈 2:19-21; 갈 3:24).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계약자, 중재자, 보증인, 희생 제사장, 조건 충족자, 관리자, 수탁자, 유언자, 집행자, 대언자, 예언자, 왕이다(사 13:6; 사 49:6; 시 89:3; 히 9:15; 히 7:22; 히 10:10,14; 롬 5:16-21; 요 17:2; 시 68:18; 히 9:16; 사 45:4; 사 49:8-9; 요일 2:1; 행 3:22; 시 2:6). 언약의 모든 축복은 그의 인격 안에 있으며, 그와 연합할 때에만 얻어진다. 즉 택정(엡 1:3-4), 성령(롬 8:2; 딤후 3:6), 칭의(사 45:24-25), 하나님과의 새 언약 관계(고후 5:19; 갈 3:20; 요 20:17; 롬 8:17), 거듭남과 성화(엡 2:10; 고후 5:17; 갈 6:15; 고전 1:30; 고전 6:11), 영적 위로(요 16:33; 눅 2:25), 은혜 안에서의 인내(유 1; 갈 2:20; 골 3:3), 행복한 죽음(계 14:13; 살전 4:14,16), 그리고 영원한 영광(사 45:17; 사 60:19) 등이 모두 그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이 모든 혜택의 원인, 본질, 목적이다. 택정은 우리 근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동행자이자 머리 되시는 그와 함께, 그를 수단 삼아, 또 그에게 양분을 얻는 영생을 위한 다른 이들로부터의 분리이다(엡 1:4). 구속은 우리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의와 획득된 총만함이다(엡 1:3,8; 골 1:14; 계 5:9). 칭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여겨 주셔서, 그분의 거룩함과 순종과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정죄에서 자유로우며 호의를 입고 영생에 합당하게 되는 것이다(사 45:24-25; 고후 5:21; 롬 5:15-21). 입양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분의 권리 안에서 모든 행복과 영광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가족에 입성하는 것이다(요 1:12; 롬 8:17,29). 거듭남과 성화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거하는 것에서 비롯된 그의 산 형상이다(갈 1:16; 고후 3:18; 엡 3:17-19; 엡 4:12-16; 골 2:6-7,19; 갈 2:20). 위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총만함이 우리의 영혼에 보장되고 우리에게서 누려지는 즐거운 인식과 맛이다(고후 2:14; 갈 6:14; 빌 3:3; 빌 4:4; 시 149:2; 눅 1:47). 그리스도는 우리가 가진 영원한 생명의 무한한 대가이자 끊임없는 중보자로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돌보시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인내하도록 하신다(롬 5:21; 요 14:19; 골 3:3).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획득된 것이며, 그의 중보로 얻어진 것이고, 그의 은혜로 준비된 것이며, 땅에서 그를 누림으로써 담보된 것이다. 또한 그 영생은 그의 영광에 가까이 가고 마음을 끌어당기며 동화되며, 하나님 인간이신 그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계 5:9; 호 13:14; 히 6:20; 히 7:25; 요 14:2-3,6; 요 17:21,24; 요 10:7,9; 고후 3:18; 빌 4:19; 시 17:15; 시 16:11; 시 73:24,26; 사 35:10; 사 60:19-20).

이 언약의 집행은 말씀과 규례,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그리스도의 제정으로서 그분 자신이 사람들에게 제시되고 적용되는 것이다(고후 1:20; 고전 1:23-24; 고전 2:2; 롬 10:4; 롬 1:16-17; 롬 8:2).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은 새 언약 공동체 곧 교회의 설립자, 기초, 사도, 머리, 통치자, 소유자이며, 참된 교회 모든 지체의 영적 아버지, 남편, 생명이시다(마 16:18; 히 3:1; 엡 2:19-20; 엡 4:11-12; 사 9:6; 사 54:5; 갈 2:20; 골 3:1,3-4).

## V. 모든 신자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의 인격 안에서 및 그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교제하며, 이것이 교제의 수단이자 중심이다. 그분을 통해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의 선취적이고 자유로우며 무한하며 구별하는 영원한 사랑을 내비치신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랑을 믿으며, 결과적으로 감사하고 최고의 열매를 맺는 사랑으로 그분께 되돌려 드린다. 그분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고 기쁘게 인정받는다(요일 4:8-10,16,19; 고전 15:58; 히 6:10; 히 12:28).

아들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과 우리가 그를 남편이자 구원자, 주로 택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우리와의 교제가 성립한다. 또한 그가 우리를 존중하고 기뻐하며 동정하고 후하게 대하심과, 우리가 그를 존중하고 기뻐하며 정결한 정동과 즐거운 순종으로 응답함에도 교제가 있다. 아울러 그의 의를 우리의 구원의 대가로, 그의 종보를 구원의 원인으로, 그리고 그것들의 복된 효과인 칭의, 입양, 하나님께 대한 자유와 담대함, 죄에 대한 징계, 성화, 영적 위로, 그리고 영원한 행복의 권리에 있어서도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인간의 인격과의 연합과 그의 인격을 바라보며 누림에 달려 있다.

성령과의 교제도 이에 달려 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영이며, 그에 의해 보내지고 그 안에 거하며, 그의 규례 가운데 역사한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계몽하고 감격시키며 열어 주고, 그리스도와 그의 충만함을 나타내고 전하며, 우리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 준다. 우리의 심령과 더불어 증언하며, 구속의 날까지 우리에게 인치고, 성화와 위로의 권능을 통해 우리의 영원한 유업의 보증이 된다. 이러한 모든 사역을 통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괴롭히거나 대항하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오히려 성령의 감동에 순응하고 보살피며 그의 유익과 위로를 소중히 여기고 기대하며 준비한다(요 16:7-15; 롬 8; 엡 4:20-30; 갈 5:18-26).



## VI. 신자들의 은혜로운 성품과 그 실행 역시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결된다

그리스도의 의는 하나님 인간의 의로서, 그들의 새 본성을 모든 다양한 은혜로 구매하였다(딤후 2:14; 히 13:12; 히 9:12,14; 히 10:10,14). 그들의 마음에 심긴 모든 은혜는 본질적으로 그 안에 있으며, 그를 통해 그들에게 전달된다(요 1:14,16; 골 1:19; 골 2:3,19; 골 3:11).

그가 자신을 의롭다 함을 받은 소생하게 하는 머리로서 그들과 연합하는 것은 그들의 본성이 하나님 형상대로 새롭게 되는 기초이자 원인이다(갈 4:19; 갈 6:15; 엡 2:10; 고후 5:17; 고전 4:15). 그들의 내면 정동(affections)을 작동시키는 것은 그가 부활이시며 생명이시므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거하심에서 비롯된다(엡 3:17; 갈 2:20; 골 2:19; 엡 4:16). 이 모든 은혜는 어떤 면에서 그를 대상으로 삼는다(요 17:3; 히 12:2; 속 12:10; 고전 16:22). 그리고 오직 그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만 그들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엡 1:6; 롬 12:1; 벧전 2:5; 고후 5:9,19). 더욱 구체적으로,

### 1. 영적 지식과 구원의 근원으로서의 그리스도

1. 모든 참된 영적 지식은 그를 그 근원이며 수단이자 핵심 대상으로 삼는다(고전 2:2; 빌 3:8). 모든 구원의 지식은 오직 그를 통해서만 얻어진다. 용서의 자비와 같은 어떤 신적 완전성은 오직 그 안에서만 나타난다(고후 5:19). 지혜, 능력, 거룩함, 정의, 선함, 진리와 같은 다른 신적 완전성들도 죄인인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 증진을 위해 명확하고 안락하게 인식되고 드러나려면 오직 그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후 5:19; 창 15:1; 히 7:25; 빌 4:19).—모든 구원하는 죄에 대한 지식은 오직 그의 인격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 얻어진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 넘치도록 허락하신 목적을 인식한다(롬 5:20-21). 그의 특별한 잉태 안에서 우리는 죄의 부패가 아담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에게 전해진 것을 인식한다(눅 1:35; 시 51:5; 욥 14:4; 요 3:6).—그의 중보적 사명과 소생시키는 능력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복하거나 영적으로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깨닫는다(롬 8:2-3; 롬 7:8; 롬 5:6-8; 미 6:6-8). 그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죄의 무서운 본질, 정당한 형벌, 그리고 죄를 파괴하는 참된 방법을 확인한다. 이는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적용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롬 6:34,14; 롬 7:4).—모든 구원하는 의로움에 대한 지식은 그 안에서 얻어진다. 그의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인격을 보고, 율법 아래 있되 그 보증 의무를 이루는 그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가 무엇이며 그것이 결코 줄어줄 수 없음을 인식한다(갈 4:4-5; 롬 8:3-4; 마 3:15; 눅 24:26; 히 2:9-10; 히 5:8; 고후 5:21). 그리고 오직 그 안에서만 우리를 위한 율법을 영화롭게 하는 의가 있음을 안다(사 45:24-25; 사 46:12-

13; 사 53:4-5,11; 사 54:17; 사 61:10; 사 42:21; 렘 23:6; 렘 33:16).—모든 구원하는 심판에 관한 지식 역시 오직 그 안에서, 그를 통해서만 얻어진다. 그의 죽음은 심판의 확실성, 공정성, 그리고 두려운 본질에 대한 엄숙한 증거를 제공한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의 친구들의 안전과 무자비한 원수들의 불가피한 멸망을 본다. 그가 사탄을 이긴 것에서 우리는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의 영원한 파멸을 예견한다.—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 알 만한 모든 것을 안다(갈 1:16; 고전 2:2; 마 11:25; 요 17:3; 요일 5:20; 눅 24:45; 빌 3:8; 살전 4:9; 렘 31:33). 우리는 최선의 몫을 택하도록 인도받으며(애 3:24; 시 27:4; 시 142:4-5; 시 91:2; 시 119:57), 최선의 길을 선택하며(시 119:30; 골 2:6; 빌 3:8-9), 최선의 방법으로 이를 실행하도록 인도받는다(엡 6:10; 딤후 2:1; 빌 4:8,13; 속 10:12; 미 4:5; 시 27:4; 시 71:14-18; 빌 3:3,7-15,20; 골 3:17; 갈 2:20; 갈 6:14; 고후 5:7; 히 11) 그리고 최선의 목적을 향해 나아간다(빌 1:20-21,23; 벧전 4:11; 고전 10:31; 고전 6:19-20; 사 43:21; 벧전 2:9).

## 2. 믿음과 그의 인격의 관계

2. 참된 믿음의 모든 행위는 그의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인격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다(시 9:10; 고후 4:4,6). 그 선포들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그를 바라보고 받고 붙든다(사 45:22; 요 1:12; 행 11:23). 믿음으로 우리는 그의 인격 안에 성취되고 머무는 그 의를 받는다(사 14:24; 고후 5:21). 믿음으로 우리는 그의 말씀을 통하여 곧 그 안에서 그의 인격에 의지하여 생명과 능력, 거룩함, 위로의 모든 필요한 공급을 끌어낸다(갈 2:20; 빌 4:13,19; 딤후 2:1; 고전 16:13; 벧전 1:8; 벧전 5:9).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본성, 섬김, 필요, 환난, 짐을 오직 그의 인격과 중보를 통해 하나님께 드린다(히 4:14-16; 히 10:19-24). 그의 인격과 충만은 믿음에게 모든 것임으로, 아마도 그가 믿음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이다(갈 3:23,25). 그의 인성은 오직 그 보이지 않는 신성이 잉태, 취하심, 연합, 충만, 사역에 연관되고 나타날 때만 믿음의 대상이 된다(요 1:14; 딤후 3:16; 고후 3:18; 고후 4:4,6).

## 3. 구원의 소망과 그리스도

3. 모든 구원의 소망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있는 그의 인격과 그 안에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완전성, 그리고 그의 피로 확정된 새 언약의 약속에 기초한다(딤후 1:1; 골 1:27; 시 119:81).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어 소망을 작동시키며, 우리가 기대하는 온전한 누림의 보증이자 확증이다(골 1:27). 그의 인격과 충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 천국에서

즉각적이고 영원히 누릴 대상이며(고후 4:17-18; 요일 3:2-3; 시 17:15), 그러므로 그는 우리 소망이라 불린다(딤후 1:1; 골 1:27; 롬 14:8; 롬 17:7).

#### 4.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격

4.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모든 참된 사랑은 그의 인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서 생기고 이끌어낸다(갈 5:6). 그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분으로 사랑받으며, 하나님은 그 안에서 사랑받는다(요 1:14; 뱀전 1:8; 요일 4:9-10,16,19). 은혜와 위로, 성경과 예식, 진리와 성도들이 그와 연합되고 그에 순응하므로 사랑받는다(뱀후 1:3-8; 시 119; 시 84; 시 26:8; 시 119:63; 시 16:3).

#### 5. 복음적 회개와 그리스도

5. 모든 참된 복음적 회개는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신 하나님이자 인간 된 그 인격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한다. 이는 죄의 악함과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최고의 증거이다(속 12:10).—그 안에서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불의를 용서하시고 죄와 범죄를 사하시는 분으로 인식되므로, 우리는 죄에서 안전하고 편히 돌이킬 수 있다(고후 5:19; 출 34:6-7; 호 14:1,4). 그의 의는 우리 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위한 보증이며, 우리에게 전가되어 율법과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죄의 권세를 깨뜨리며, 우리가 화평한 아버지이자 친구이자 주님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한다(고후 5:14-15,19-20; 히 10:19-22; 사 44:22; 롬 3:1,4,14,22; 호 14:1,4).

#### VII. 예배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의 역할

모든 성도의 참되고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는 예배는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밀접히 관련된다. 그의 인격은 단순히 하나님으로서 예배의 참된 대상이며, 그의 신성은 예배의 근거 이유이다(시 45:11; 시 2:12; 요 5:23; 사 42:8; 갈 4:8). 그의 인성과 증보는 예배의 큰 동기이자 수단이다(엡 2:18; 엡 3:12). 그의 의와 증보가 예배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한다(뱀전 2:5; 계 8:3-4). 또한 성도들은 고난과 궁핍과 악함, 임종의 순간에 그들의 본성 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부르며 의지할 수 있음을 크게 위로받는다(고후 12:7-8; 계 5:3-4,6; 사 63:9; 눅 17:5; 살후 2:16-17; 행 7:56-59).

## VIII. 순종과 그리스도의 인격

믿는 자들의 모든 새로운 순종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서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밀접히 연결된다.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아버지의 율법과 규례가 그 안에서,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의 길이 된다(요 14:6; 골 2:6; 히 10:20; 사 35:8; 시 119:1,30; 호 14:9).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조화, 즉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화평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암 3:3; 단 9:24; 골 2:14; 고후 5:19-20; 롬 5:10; 골 1:20; 엡 1:10). 하나님 사랑과 그의 약속된 은혜에서 비롯된 모든 동기 역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요일 4:9-10,16,19; 고전 15:58). 이 행보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가 그 안에 있다(요 5:37; 요 1:18; 요 17:3; 요일 5:20; 고전 1:30; 롬 31:33-34). 모든 힘도 그 안에 있으며(사 40:29-31; 속 10:12; 요 15:5; 빌 4:13; 딤후 1:1; 엡 6:10), 이 행보를 위한 모든 확신도 오직 그 안에서 얻어진다(히 10:19-22; 히 4:14-16; 시 27:1-3; 시 118:6-17). 하나님을 인도자이자 동행자로 삼는 것과 관련한 모든 뜻의 조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행위가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받아들여짐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골 3:17; 롬 7:25; 사 43:21; 고전 6:20; 고전 10:31; 벧전 2:5,9; 벧전 4:11; 롬 12:1). 모든 관계상의 의무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근원이 되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져야 하며, 그의 사랑은 우리의 본보기와 동기가 되고, 그의 권위는 우리의 이유와 규칙이며, 그의 영광은 우리의 목적이 된다(롬 16:2-3,7-13; 고후 10:1; 엡 5:2,22,24-25,29; 엡 4:32; 엡 6:1,4-7,9; 빌 2:1-5; 골 3:16,18,20,23-24; 골 4:1,17).

## 성찰

나는 이 무한히 사랑스럽고 쓸모 많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었는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셨는가?  
나는 믿음으로 이 위대한 신성의 비밀, 이 땅에 새로 창조된 새 일—육신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았는가? 나는 이 위대한  
광경, 불꽃처럼 타오르되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려 옆길로 돌았는가? 나는 육신이 되어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 내 안에  
거하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을 보았는가? 나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아버지들도 보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가?—그리스도에 대해 나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는 누구의 아들이며 누구의 구원자인가?—그는 나에게 무엇인가?—그는 만 천 중에 으뜸가는 흰 옥인가?—  
그는 전적으로 사랑스럽고 나의 사랑하며 친구인가?—주님의 영광을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바라보면서 성령에 의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는가?—내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이 되기를, 나를 위해 무엇을,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내 영혼아, 내가 이 거룩한 체계, 곧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된 지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충분히 읽기 전까지는 결코 설교 하나도 하지 말라!—오 얼마나 탁월한 생각들, 계획들, 발명들이 여기 있는가!—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가!—그분이 어떻게 의로운 통치에 반역하는 지독한 원수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가!—은혜가 어떻게 더욱 넘치고 의를 통해 영생에 이르기까지 왕 노릇 하는가!—자비와 진리가 어떻게 만나며 의와 평강이 서로 입맞춤 하는가!—강한 자의 포로가 빼앗기고 정당한 포로가 놓임받는가!—생각들, 얼마나 많은가!—얼마나 깊고 은혜로운가!—얼마나 굳건하고 유효한가!—얼마나 기쁘고 귀한가!—이 모든 생각이 내 마음에 심어지는 데 있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마치 새로운 인격, 직무, 관계의 형성물과 주형으로 부여지는 것 같다!—어떤 새롭고 놀라운 신적 지혜와 지식의 나타남들이 뒤따르는가!—어떤 신성의 신비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여호와와 죄인, 특히 죄인인 나와는 은혜로운 관계에 관한 강의들!—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긴다. 그러므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탁월함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해로 여기며, 그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땅에서 원하는 모든 천국은 그의 사랑을 맛보는 것이고, 하늘에서 바라는 모든 천국은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오! 그 영원, 그 영원, 그때에 그리스도 하나님이자 인간이 나의 스승이 되시고, 그리스도 내 체계가 되며, 그리스도 내 성경이 되고, 그리스도 내 만유가 되리라!

#### 예수 그리스도의 일반적·특별 직무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성 안에 세워 중보자로 삼기 위해, 그는 신적으로 부름받고, 그 일에 임명되었으며, 그를 수행할 힘으로 준비되었다(히 5:4-5,10; 사 42:6; 사 49:1-9). 히브리 왕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때로는 선지자들이 직무에 취임할 때 머리에 부음을 받는 관례에 비추어(시 133:3; 출 29:7,9,21; 삼상 10:1; 삼상 16:13; 왕상 1:34; 왕하 11:12; 왕상 19:16), 그의 직무 임명과 준비 또한 '기름부음'이라 불리며, 그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 곧 기름부음 받은 자라 부른다(단 9:24-25; 마 16:16; 요 6:69; 요 1:41; 눅 9:20; 행 2:36; 행 8:37; 시 84:9; 삼상 2:10). 그의 기름부음은 광범위하게

1. 우리 중보자로서 그를 거룩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엄숙한 지정을 포함한다. 이는 그가 모든 영원에서부터 그 직무에 지정되었음을 의미한다(잠 8:23; 뱀전 1:20; 시 2:7-8; 엡 1:4).

그의 잉태와 탄생 시에 천사들에 의해 선포되었고(눅 1:33; 눅 2:10-11; 히 1:6), 그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때 아버지께서 선포하셨으며(마 3:17), 죽음 직전에도 다시 선포되었다(마 17:5; 요 12:28; 사 49:3).

###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위임과 권한

2. 하나님께서 그에게 중보사역을 수행할 확정된 위임과 권한을 주셨으며, 이로 인해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히 5:4-5,10; 사 42:6; 사 49:1),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요 5:38; 요 6:29; 요 7:28-29; 요 8:26,29,42; 사 48:16),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종이며 그의 명령을 완수하는 자(사 42:1; 사 49:3; 요 10:18; 요 14:10-11,31; 요 6:27)로 묘사된다. 이 위임은 태초부터 그에게 주어졌고(사 42:6; 잠 8:23), 세례와 변모 사건에서 확증되었으며(마 3:16-17; 마 17:5), 그의 부활과 승천에서는 명예로운 사역에 관한 위임이 갱신된 것처럼 보인다(벧전 1:21; 엡 1:20-22; 행 2:36; 마 28:18; 단 7:14).

3.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 수행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셨다. 여기에는 흠 없는 인성을 마련하신 것(히 10:5; 롬 31:22), 그 인성에게 적합한 은사와 은혜를 형성 시점과 잉태 시에 부여하신 것(눅 1:35; 히 7:26), 성장 과정에서 이를 확장시키는 것(눅 2:40,52; 사 11:2-4; 사 42:1; 사 61:1), 세례 때 성령이 임하사 공적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마 3:16; 요 1:32; 요 3:34; 요 6:27), 사역과 고난 중에 받은 추가적 도움(사 42:1,6; 사 50:4,7,9; 미 5:4), 그리고 부활과 승천 시에 받은 모든 충만한 기쁨(시 45:7-8; 행 2:28)과 새 언약의 충만함이 그의 손에 맡겨져 행정자로서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신 것(시 68:18; 골 1:19; 마 11:27; 요 3:35; 요 17:2)이 포함된다.

### 그리스도의 중보자 직책과 구원자 성격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본성 안에서 이와 같이 기쁨 부음을 받아 수행한 일반적인 직책은 중보자이며, 그의 구원자와 속량자의 성격도 이에 귀결된다(요 9:33; 딤후 2:5; 히 8:6; 히 9:15; 히 12:24). 중보자로서 그의 사역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범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존귀하고 행복한 합의를 가져오는 것이다(딤후 2:5-6; 히 9:15; 히 12:24; 요 9:33).

그 과정에서 그는 그의 순종과 만족을 통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법적 적대감과 그 실제적 결과를 제거하며, 그의 자비와 사랑을 인간에게 베풀 수 있는 존귀한 통로를 열고 중재한다(롬 5:8-10,19,21; 딤후 2:6; 마 20:28; 히 7:25; 롬 8:34). 또한 그는 우리의 죄 된 무지, 죄책, 오염과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을 제거한다(딤후 2:11-12,14; 사 42:6-7; 사 49:8-12,24-26).

따라서 그리스도는 대속적 의로움의 대가와 그의 중재, 영적 계몽, 정복, 통치, 보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속량자 혹은 구원자이다(마 20:28; 행 20:28; 계 5:9; 딤후 2:14; 뱀전 1:18-19; 뱀전 2:24; 뱀전 3:18; 사 42:6-7; 사 61:1-3; 사 49:6,8,24-26; 시 110:2-3; 시 22:27-31).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중재하는 자, 구원의 방법을 드러내는 자,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교리를 확증하는 자, 거룩한 순종의 본을 보이는 자에 그치지 않는다.

1. 성경은 그를 자신을 인류의 대속물로 내어준 중보자(딤후 2:6; 마 20:28; 행 20:28),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자(골 1:20; 엡 2:14; 뱀전 1:19; 히 12:24; 히 13:12), 새 언약의 보증자로서(히 7:22; 시 119:122; 사 38:14), 피로 우리를 영원한 속량에 이르게 하는 자로 묘사한다(히 9:12-15; 히 10:14-18; 계 5:9). 이는 범법자를 위해 흘려진 희생의 피에 빗대어 '뿌림의 피'라 불린다(히 12:24; 뱀전 1:2).

2. 그가 하나님과 중보한 대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미움받는 자들로, 그들을 대신하여 화해를 위한 대속물이 필요했다(롬 1:30; 롬 8:7-8; 시 5:4-6; 숙 11:8; 잠 16:5).

3. 만약 그리스도가 교훈, 본, 중재로서만 중보자라면, 디모데전서 2:5 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될 수 없다. 선지자, 사도, 설교자, 특히 순교자들도 같은 역할에서 유익했기 때문이다(행 20:17-24; 딤후 4:16; 딤후 2:10).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간성 두 본성에 근거한 중보자다. 물론 그의 기적 행위는 전적으로 신성에 기인하고, 먹고 마시고 우는 행위는 인성에 속한다. 그러나 그의 중보 행위는 어느 한 본성에서 나온다 해도 하나님-인간 인격의 행위로 간주된다.

1. 성경은 그리스도의 중재를 어느 한 본성에 귀속하지 않고 그 인격 자체에 귀속시킨다(마 20:28; 행 20:28; 고전 2:8; 히 9:14; 딤후 2:14; 갈 1:4; 계 5:9; 뱀전 2:24; 뱀전 3:18).

2. 그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여 중보 사역을 수행하였으며, 두 본성을 혼합하지 않고 육신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행위와 고난은 하나님-인간 인격의 행위와 고난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갈 4:4-5; 요 3:16; 요일 4:9-10; 롬 8:3-4).

3. 그의 모든 직무 수행에는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 이미 입증되었다(사 48:17; 히 9:14; 엡 5:2; 시 110:2-3).

4. 특히 그는 신성에 근거하여 중보자이어야 했다. 신성으로서 그는 스스로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취했으며(빌 2:6-8), 성육신 이전에도 어느 정도 중보자 역할을 수행했다(속 1:8-12; 속 3:2-4; 창 3,12,15,17,22,28). 인간만으로는 우리의 구속, 용서, 영생을 얻거나 이루지 못한다(사 45:17,22,24-25; 사 43:25; 사 53:11; 요 17:2-3; 요일 5:20).

#### 그리스도와 천사들 간의 관계 및 중보자 역할 구분

그리스도는 오직 인간을 위한 중보자로 임명되었다. 거룩한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한 상태를 확증받는 것은 사실이나(히 1:3; 골 1:17),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상속자들에게 섬기는 영으로 주신 것은 그들의 거룩함과 행복이 지속됨을 보장한다(히 1:14; 엡 1:21-22; 뱀전 3:22). 그의 구속 사역을 통해 드러난 신성의 위대함은 그들의 행복을 확장한다(뱀전 1:12; 엡 3:10). 그러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확인 중보자가 아니다.

1. 성경은 그를 천사의 확인 중보자로 묘사하지 않고, 인간의 구원자 중보자로 묘사하며(딤후 2:5-6), 그는 천사들을 붙잡지 않았다고 명시한다(히 2:16).

2.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사이에는 갈등이 없으므로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다.

3. 그리스도는 천사의 본성을 취한 적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천사 사이를 중재할 자격이 없다.



4. 거룩한 천사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속죄나 속죄에 기반한 중보가 필요하지 않다. 이 둘은 그의 중보 사역의 필수 요소다(딤후 2:6; 요일 2:1-2; 히 9:15; 히 12:24; 히 7:22,25; 롬 8:33-34).

5. 만약 그리스도가 천사들의 중보자라면, 그는 행위 언약의 중보자도 될 수 있었다. 무죄한 아담도 그들만큼 필요했기 때문이다.

6. 확인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창조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것과 같다. 하나님은 피조물을 완전하게 거룩하게 함과 동시에 행복하게 보존할 수 있다.

- 실제로 천사들은 교회의 머리인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만, 짐승과 악마, 모든 피조물도 복종한다(골 2:10; 뱀전 3:22; 엡 1:21-22; 시 8:4-7).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해시키고 모으신 대상은 선택된 인간, 곧 유대인과 이방인, 싸우는 성도와 승리한 성도이다. 이들은 한때 흩어져 하나님과 다투었으나 화해되어야 한다(엡 1:10; 골 1:20).

그들이 반역에서 돌아와 하나님과의 우호와 거룩의 상태에 들어가면, 거룩한 천사들은 그들을 적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행복한 가족으로 대한다(히 1:14; 시 34:7; 계 19:10; 계 22:9).

###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인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

1.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직 하나의 중보자만 있음을 명백히 밝힌다(딤후 2:5; 마 19:17; 엡 4:6; 롬 3:10-11; 딤후 3:2,12). 성경은 그가 유일한 1 차 중보자나 구속의 중보자임을 암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는 유일한

중보자로 묘사한다. 그러나 가톨릭 신자들은 미사에서 그리스도의 가상적 희생과 인간의 행위나 고통을 죄에 대한 만족으로 받아들이 자신들의 사제와 성인들을 구속의 중보자로 만든다.

2. 성경은 그를 죄인인 인간을 위한 하나님 앞의 유일한 변호자이자 그의 변호가 인간의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과 불가분하게 연결된 것으로 묘사한다(요일 2:1-2; 히 1:3; 히 8:4,6; 히 9:12-24; 롬 8:33-34).

3. 죄와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행 4:12; 요 14:6; 요 10:7,9; 엡 2:18; 엡 3:12; 히 4:14-16; 히 10:19-22; 요이 9). 그리스도는 다른 중보자 없이 직접 자신에게 나아올 것을 요구한다(사 45:22; 잠 1:22-23; 잠 9:4-5; 마 11:28; 요 6:37; 요 7:37-38).

4.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으며, 그보다 더 적합하고 능력 있고 겸손한 중보자는 없다(히 7:25; 히 2:14-18; 히 4:14-15).

5. 성도나 천사는 죄인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로서 필요한 어떤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필요나 생각, 욕망을 알지 못하므로 중보 기도의 중보자로 적합하지 않다(사 63:16; 렘 17:9-10; 계 2:23).

6. 가톨릭이 주장하는 성도와 천사의 중보는 이교도의 우상 숭배에서 유래했으며, 이교도들은 주요 신과 자신들 사이에서 중재하는 2 차 신들을 인정했다.

7. 죽은 성도는 성경에서 어떤 특정 인물을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반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환난 중 동료로서 서로의 필요를 알고, 서로를 위한 기도가 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교회 교제의 일부이다.

### 그리스도의 삼중 직무

그리스도의 일반 중보 직무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세 가지 특정 직무를 포함하며, 각 직무는 존귀한 지위와 책임을 수반한다.

1. 성경은 이 세 직무를 분명히 그리스도에게 귀속한다(신 18:15-18; 행 3:22; 행 7:37; 시 110:4; 히 3:1; 히 4:14; 히 9:11; 히 10:21; 시 2:6; 마 28:18; 사 9:6-7; 단 7:14).

2. 그에게 전형이 된 이들의 기름 부음, 지위, 사역은 그가 수행할 세 직무를 상징한다. 모세,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세레 요한 등은 그를 선지자로 상징했고, 멜기세덱과 아론 및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으로, 다윗과 그의 후계자들은 왕으로 상징했다. 하지만 어떤 인물도 그의 모든 직무를 정기적으로 모형으로 보여주지는 못했다.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이었으나 선지자는 아니었고, 다윗은 왕과 선지자였으나 제사장은 아니었으며, 모세와 사무엘은 일정한 선지자이자 민사 지도자였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다(출 24; 출 29; 삼상 7:9-10; 삼상 16:2-3; 시 99:6).

3. 우리의 삼중 고난인 무지, 죄책, 속박은 그리스도의 세 직무 수행을 요구한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본성과 뜻을 가르치고, —제사장으로서 죄책을 제거해 하나님과 평화와 친밀함에 이르게 하며, —왕으로서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과 닮고 행복하게 만든다(엡 5:8; 요 1:18; 롬 3:19-26; 마 20:28; 벰전 1:18-19; 계 5:9; 사 49:24-26; 고전 1:2; 계 3:4,21).

4. 우리의 구원 본질상 그를 세 직무에 임명했는데, 제사장으로 구속을 사야 하고, 선지자로 계시하고 제안하며, 왕으로 구원을 부여하고 적용하기 위함이다(히 9:12-15; 히 2:3; 시 110:2-3).

그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선지자적 설득과 계몽이 제사장적 의로움 적용보다, 그리고 그 적용이 왕으로서 영혼의 복종보다 선행한다(욥 33:23-24; 고후 5:14; 히 12:28).

그러나 그 직무들의 자연적 순서에 따라,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이 먼저 선다.

1. 우리의 구원은 설명되거나 제시되거나 적용되기 전에 반드시 구입되고 확보되어야 한다(시편 22 편). 여기서 그리스도는 고난당하는 제사장으로서 먼저 구원을 구입하시고, 예언자로서 그것을 선포하시며, 마지막으로 왕으로서 구원받은 이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분이 그 피로 길이 되시는 것은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보다 선행한다(요한복음 14:6; 히브리서 10:19-20).

2. 그분 제사장직의 희생적 사역은 그분과 맺은 새 언약의 조건을 성취하는 데 속한다. 반면 그분의 예언적이며 왕적 사역은 언약의 집행에 속하며, 이는 그 봉사의 보상이다. 더욱이 그분의 중재 사역조차 그분이 예언자와 왕으로서 우리에게 부여하는 모든 빛과 생명의 원인이다(이사야 53:10-12; 히브리서 7:25; 로마서 8:33-34; 요한복음 16:7-15; 요한복음 17 장).

3. 그리스도께서 예언자와 왕의 직무를 수행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과 관계하여 그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실 때에는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과 관계하신다(에베소서 5:2; 히브리서 5:1; 9:24, 28; 시편 22 편; 이사야 53 장). 은혜 언약의 형식을 적절히 고려하면, 그리스도의 이 직분들이 복음 약속의 직접적인 근원이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한 수단임이 분명히 드러난다(디도서 1:2; 디모데후서 1:9).

#### I.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중보적 예언자이다.

1. 성경은 그분을 명백히 예언자로 나타낸다(신명기 18:15-18; 사도행전 3:22; 7:37; 요한복음 1:45; 이사야 61:1-3; 누가복음 4:17; 요한복음 6:14; 7:40-41; 누가복음 24:19; 마태복음 7:29).

2. 천사, 언약의 사자, 통역자, 증인, 상담자,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직분 사도, 가르치는 스승, 세상의 빛, 의의 해, 밝은 아침별 등의 은유적 표상들은 그분이 예언자임을 드러낸다(이사야 63:9; 말라기 3:1; 욥기 33:23; 이사야 55:4; 9:6; 잠언 89; 고린도전서 1:24, 30; 히브리서 3:1; 이사야 2:2-3; 마태복음 23:8, 10; 17:5; 미가 4:2-3; 요한복음 3:2; 8:12; 1:9; 9:5; 12:35; 이사야 42:6; 9:2; 60:1, 19-20; 말라기 4:2; 요한계시록 22:16; 2:28).

3. 유대인의 회막과 성전의 등잔 불, 은 나팔의 불기, 특히 많은 전형적 인물들, 특히 예언자들은 그분의 예언자 직분을 상징하였다(창세기 5 장부터 말라기 4 장까지; 누가복음 1 장; 3 장; 요한복음 1 장; 3:4). 우리의 구속 신비를 효과적으로 계시하여 무지를 제거하기 위해 이 직분은 필수적이었다(마태복음 11:27; 요한복음 1:18; 로마서 10:14-17).

하나님이 우리의 본성 안에 계시기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위대한 예언자가 되기에 무한히 적합하다.

1. 그분은 모든 것의 본질과 속성, 환경을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포괄적으로 아신다(요한복음 1:18; 21:17; 2:25; 골로새서 2:3; 히브리서 4:13; 잠언 8:12, 14).

2. 무한한 인내와 친절, 자비로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관심을 기울이시면서도 인간 양심 위에 절대적인 권세를 지니신다(야고보서 4:12; 마태복음 7:29; 17:5).

3. 절대 무오하시고 진리 자체이시며, 충실하고 참된 증인이시기에 속이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히브리서 13:8; 요한복음 14:6; 요한계시록 1:5; 3:14).

4. 모든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교사들에게 설비와 권위를 주신다(고린도전서 12:28; 에베소서 4:11-12; 마태복음 16:19; 28:19-20; 마가복음 16:15-16; 요한복음 20:21, 23; 사도행전 1:8; 마태복음 10 장; 누가복음 10 장).

그리스도는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로운 가르침과 설비를 얻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신 적이 없다.

1. 성경은 그분이 단 한 번, 부활 후에만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이는 그분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고 장사되어 무덤에 내려가신 후의 일임을 나타낸다(히브리서 9:12; 8:1; 1:3; 에베소서 4:9; 요한복음 6:38; 16:28).

2. 그리스도의 신성은 땅에 나타나시는 동안에도 이전과 같이 하늘에 머물렀으며(요한복음 3:13; 1:18; 7:34; 12:26; 17:24), 인성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에(요한복음 3:34; 이사야 42:1-4; 61:1-2; 11:2-4; 골로새서 2:3), 지식이나 설비를 위해 하늘에 오를 필요가 없었다. 실로 공적 사역 훨씬 전부터 성전에서 드러내신 지혜는 모든 이를 놀라게 하였다(누가복음 2:46-47).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 직후 첫 약속을 선포하시고, 죄의 악영향을 특별히 알리며 희생 제사를 드리는 법을 가르침으로써 예언자 직분을 즉시 수행하기 시작하였다(창세기 3:14-21). 구약 시대 동안 그분은 여러 차례 다양한 방식으로 풍부한 교훈과 예언을 내놓았다(창세기 6 장; 9 장; 12 장; 15-18 장; 21-22 장; 26 장; 28 장; 출애굽기 3-34 장; 레위기 1-27 장; 민수기 5-6, 8, 10-12, 14-15, 17-19, 28-29 장; 여호수아 1 장; 6-7 장; 사사기 2 장; 6 장; 13 장; 스가랴 1-6 장).

그분은 지상에서의 공적 사역 중 하나님의 도덕법을 수정하거나 확장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행하였다.

1. 도덕법의 명령을 설명하고 강화함(마태복음 5-7 장; 15 장; 23 장; 누가복음 6 장 등).

2. 복음의 진리를 선포함(그리스도의 교훈이라 불리고, 사도행전 13:12, 요한이서 9, 디도서 2:10; 그리스도의 증거, 고린도전서 1:6;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9-16; 구원에 필요한 신적 진리들, 삼위일체 교리 및 구속 계획과 은혜 언약의 체결·당사자·집행에 관한 진리들을 포함하며, 계시 없이는 알 수 없는 진리임)(마태복음 28:19; 13 장; 20-21 장; 25 장; 누가복음 8-19 장; 요한복음 3-17 장; 18:36-37).

3. 미래 사건들 예언: 자신의 고난과 죽음(마태복음 12:40; 16:21; 17:9, 22-23; 20:18-19, 28; 21:38-39; 26:2), 유다의 배반(요한복음 6:70; 13:21, 27; 마태복음 26:21-25), 베드로의 부인(요한복음 13:36-38; 마태복음 26:34-35), 다른 열 제자들의 실망과 떠남(마태복음 26:31; 요한복음 16:32), 자신의 부활과 영광(요한복음 2:19; 마태복음 16:21, 27; 17:9; 19:28; 26:32, 64), 제자들의 박해와 그에 대한 위로(마태복음 10 장; 20:23; 24:9-10; 16:24; 19:29; 요한복음 15:20; 16:20, 22, 33; 15:26-27; 16:7-15; 누가복음 24:49; 사도행전 1:5, 8), 복음의 확산, 의식법 폐지, 이방인 부름(사도행전 1:8; 마태복음 26:13; 8:11-12; 21:41, 43; 22:1-13; 28:19; 요한복음 4:21-24; 10:16; 12:23-24; 누가복음 24:47; 마가복음 16:15-16), 유대 민족의 거절, 멸망, 흠어짐(마태복음 3:10; 8:11-12; 12:38-45; 21:33-44; 22:1-13; 23-24 장; 누가복음 11:42-51; 14:16-24; 17:20-37; 19:12-27, 41-44; 21 장; 요한복음 8:21), 최후 심판의 형식과 절차(마태복음 24-25 장; 요한복음 5:28-29; 19:28-29) 등을 포함한다.

부활 후 그분은 제자들을 위로하며 복음교회의 형태와 규례를 가르쳤다(마태복음 28:19-20; 마가복음 16:15-18; 누가복음 24 장; 요한복음 20-21 장; 사도행전 1:2-8).

승천 후에 사울, 아나니아, 요한에게 가르치심이 있었다(사도행전 9 장; 22 장; 26 장; 요한계시록 1-3 장; 6 장; 10 장; 22 장).

천상 상태에서 그분의 직접적 인격적 나타남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드러낸다(이사야 60:19-20; 요한계시록 21:23).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의 직접 집행에 있어서,

1. 그리스도는 권위 있고 담대하며 완전하게 신적 진리를 선포하였다(히브리서 1:1; 2:3; 마태복음 7:29; 요한복음 7:46). 그분은 자주 비유를 사용하여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시편 49:1-2; 68:1-2), 자신의 내면의 영성을 나타내며 우리로 하여금 평범한 사건에서도 영적 교훈을 얻도록 하였고(요한복음 3:12-13), 유대인들을 효과적으로 책망하되 그들을

분노하게 하지 않았으며(마태복음 21:28-46), 주의 깊고 사려 깊은 이들에게 기쁘고 기억하기 쉬운 방식으로 신적 진리를 가르쳤다(예레미야 13 장; 18-19 장; 에스겔 4-5 장; 12 장; 15-17 장; 19 장; 23 장; 이사야 48:17; 50:4; 57:18; 호세아 12:10). 또한 그 가르침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눈멀고 멸망을 정당하게 초래하였다(마태복음 13:10-15).

2. 그분은 자신과 삶의 본보기로서 가르침을 구현하였다(에베소서 5:2; 베드로전서 2:21; 데살로니가전서 1:6).

3. 기적과 죽음, 성례를 통해 그분의 교리를 입증하였다(요한복음 5:36; 10:38; 18:36-37; 마태복음 28:19; 26:26-28).

4. 그 교리와 법, 약속과 위협을 사람들의 양심에 효과적으로 적용하였다(이사야 48:17; 요한복음 6:63).

그리스도는 또한 예언자 직분을 간접적으로 집행하시는데, 천사, 예언자, 사도, 목사, 교사, 부모, 스승 등을 세워(히브리서 1:1; 에베소서 4:11-12; 6:4; 창세기 18:19; 이사야 38:19),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성령으로 그 사자들을 자격 갖추게 하며, 가르침을 설명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적용시키게 하신다(베드로후서 1:19-21; 히브리서 12:25; 사도행전 7:38, 54; 신명기 32:10; 누가복음 2:25, 32; 베드로전서 1:11-12, 23; 데살로니가전서 1:5; 2:13; 사도행전 2-6 장; 요한복음 16:7-14; 이사야 59:21).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 교사들을 뛰어넘는다.

1. 하나님의 지혜로서 신적 진리 전체와 청중들의 영적 상태를 포괄적으로 아신다(잠언 8 장; 골로새서 2:3; 히브리서 4:13; 요한계시록 2:23).

2. 스스로 모든 지식을 갖추셨기에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다(요한복음 1:18; 2:25; 3:32; 8:38-40).

3. 사람들의 이해를 열어 가르침을 영적으로 깨닫고 적용하게 하신다(누가복음 24:45; 요한일서 5:20; 사도행전 16:14).

4. 자신의 인격과 삶으로 그 가르침을 완전하게 구현하였다(고린도후서 4:4, 6; 골로새서 1:15; 마태복음 17:5; 요한복음 8:29; 고린도후서 5:21; 베드로전서 2:21-22).

5. 여호와가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교리를 전하며 그것을 자신의 신탁으로 선포하였다(요한복음 3:3, 5; 6 장; 8 장; 10 장; 마태복음 5-7 장; 13 장; 20 장; 23-25 장).

6. 자신의 이름과 권능으로 기적을 행하여 사명과 교리를 확증하며, 기적을 위해 신적 권능을 구하는 기도를 한 적이 없다(요한복음 10:32, 38; 마태복음 11:5).

7. 죽음은 그 교리를 확증하는 동시에 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는 제물로 봉사하였다(마태복음 20:28; 디도서 2:14; 베드로전서 2:24; 3:18; 요한계시록 5:9).

그리스도의 예언자 직분 집행은

1. 외적 선언에 의해 신적 진리에 대한 합리적 지식을 산출한다.

2. 외적 선포에 각성하는 고난과 성령의 일반적인 역사들이 수반되어 경험적이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지식을 낳는다(히브리서 6:4-5; 마태복음 13:20, 22; 이사야 58:2; 베드로후서 2:20).

3. 성령의 특별하고 효과적인 영향력과 적용을 통해 구원에 이르고 마음을 정복하며 성화하는 지식을 일으킨다(요한복음 6:44-45, 65; 디모데전서 3:15-17; 데살로니가전서 1:5; 2:13; 데살로니가후서 2:13, 16-17; 3:5).

**II.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는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들의 영원한 구속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제사장이다.**

1. 그분은 성경에서 여러 차례 명백히 제사장이라 불린다(시편 110:4; 스가랴 6:13; 히브리서 2:17; 4:14; 3:1; 5:5-6, 10; 6:20; 7:3, 17, 21, 26; 8:4; 9:11; 10:21).

2.

제사 드림과 중보 기도는 제사장의 직무에 속하며 그리스도에게 귀속된다(엡 5:2; 히 9:14; 7:24, 27; 10:7, 10, 14; 9:24; 7:25; 롬 8:34). 그의 제사장직은 계시에 의해서만 드러나며 다른 직무들의 기초가 된다. 특히 회개하지 않은 마음에 의해 불신과 혐오를 당하고, 희생 제사라는 직무상 특별한 격려가 필요했기에 하나님 맹세로 그 직무에 세워졌으며, 멜기세덱, 아론과 그의 아들들 등과 같은 인격적인 유형과 희생 제물, 예물 등 실제적 유형들에 의해 미리 보여졌다(창 14-15; 22; 레 1-16; 민 15; 17; 28-29; 히 5-10; 시 110:4). 레위 제사장들은 신적 소명, 준비, 필수적 정결과 완전성,



인간 죄를 위한 제사 드림과 하나님 은총을 위한 중보 기도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했다(출 28-29; 레 21-22; 1-9; 16; 히 5-10). 그러나 그분은 인격의 존엄과 거룩함, 엄숙한 부름, 유일한 제사장직과 하나님의 직접적인 접근자임, 희생 제물의 내용과 효력 및 통일성, 무한한 중보 기도, 영원한 제사장직의 지속성에서 무한히 뛰어나다(히 5-10). 그리스도는 땅에서 겸손할 때에도 제사장이었고 하늘에서 영원히 제사장으로 계속된다.

###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

1. 그는 땅에서 제사장 직무의 두 측면을 모두 수행했다. 자신을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드렸으며(엡 5:2, 23-27; 히 1:3; 7:27; 9:25, 28; 10:10, 14), 중보 기도를 하였다(히 5:7; 요 17).
2. 전형적 제사장들 중 어느 누구도 성소에 들어감으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제물을 드리기 전에 이미 제사장이었다(히 5:1; 8:3; 9:11-12). 제사장과 왕으로서 그리스도의 두 직무는 그 유형, 사역, 목적과 경향이 너무 달라서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하다.

그리스도의 자기를 드리는 희생 제물은 단지 고난만이 아니라 율법을 깨뜨린 전체 조건, 즉 습관적이고 능동적 또는 수동적인 전적인 순종—즉 은혜 언약의 전 조건 전체를 완성한다. 그 희생은 잉태 때 시작되어 전 생애에 걸쳐 지속되었고 십자가와 무덤에서 완성되었다.

### 그리스도의 만족과 희생

1. 성경은 그의 십자가 고난에만 만족을 국한하지 않고, 그의 모든 고난과 본성의 거룩함, 순종의 삶을 포함하여 나타낸다(사 53:2-5, 10; 뱀전 1:18-19; 2:21, 24; 3:18; 마 16:21; 히 5:7-8; 10:8-9; 롬 5:19; 5:17-18; 빌 2:6-8). 갓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은 그의 고난 중 특별한 부분이다(마 26:38; 눅 22:44). 속 3:9 은 그의 만족 제공과 완성을 하루로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산에서 하루는 종종 한 기간 전체를 뜻한다(욥 24:1; 시 37:13).

2. 그리스도는 죄 있는 육체의 형상을 취하셨으나,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본성의 거룩함과 삶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이 죄벌로서 내리시는 모든 고난을 견디는 것—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게 하셨다(롬 8:3-4).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였다(빌 2:8; 시 40:8; 요 17:4; 10:18; 14:31).

3. 그리스도의 만족은 온전히 보면 우리를 대신하여 져야 할 모든 의무, 즉 율법 깨뜨림에 대한 순종과 죄에 대한 고난 모두를 포함한다(갈 3:10, 12-13). 그는 율법을 성취하려 오셨으니, 우리는 그의 만족을 믿음으로 받아 그 안에서 율법을 완벽히 이룬다(마 17-18; 롬 3:31; 8:4).

4. 그의 희생 또는 만족은 곧 그의 의이다(롬 1:17; 3:21-22; 5:18; 빌 3:9; 단 9:24; 사 45:24-25; 렘 23:6). 여기에는 율법 깨뜨림에 대한 순종과 죄에 대한 벌 받음 모두 포함된다(마 3:15; 시 40:8; 히 5:8; 빌 2:8; 눅 24:26). 따라서 우리는 의롭게 되어 그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우리 죄가 그에게 전가된 것처럼) 그의 의한 자질과 행위뿐 아니라 고난마저 우리에게 돌려진다(롬 5:19; 고후 5:21; 사 53:6; 벧전 2:24; 3:18).

5.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고난에 대한 대가로서가 아니라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서 영생을 약속하거나 수여한다(레 18:5; 마 19:17; 롬 10:5; 갈 3:12).

#### 반대 의견에 대한 선험 논증

1. 그리스도 인성의 거룩함, 삶의 순종, 자발적 고난은 각각 완전하나 모두 결합되어 율법 깨뜨림에 상응하는 완전한 만족을 이룬다(마 3:15; 눅 24:26; 빌 2:7-8).

2. 영원한 구속이 그의 피나 죽음에 근거한다 할 때, 이는 그의 전체 의를 지칭하며 특히 율법을 수행하는 기간 중 경험한 법적 죽음으로, 그의 죽음과 피 흘림은 그 의의 가장 현저하고 완성된 요소이다.

3. 그리스도는 온전히 우리를 위해 율법 깨뜨림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인간이 되었다. 그 자신을 위하여는 어떠한 순종도 율법에 빚지지 않았으므로, 그가 율법 아래에서 행한 모든 행위는 우리를 위한 만족이다(갈 4:4-5; 롬 8:3-4).  
아담의 자기 순종 빛은 완성되었더라면 그의 후손에게 법적 의로 전가될 수 있었다.

4.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율법 깨뜨림과 저주 아래서 완전한 방식으로 본성의 거룩함이나 생활의 순종을 수행할 의무가 없다(롬 8:1; 7:4; 6:14; 갈 3:13; 2:19; 고전 9:21). 또한 영생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완전한 의로 의도한 바이다(롬 5:21; 6:23). 그러나 신자의 본성과 삶의 거룩함은 구입된 구원과 영생의 중요한 요소이다(빌 3:8-14; 살전 5:23).

그리스도의 희생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인격으로서 그분은 제사장이며, 인성은 드러진 제물이고, 신성은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를 제물로 드린 것으로 표현된다. 비록 그의 인성만이 순종하고 고난을 받았지만, 이는 신성과 인격적으로 연합된 상태였다(딤후 2:14; 갈 1:4; 마 20:28; 행 20:28; 엡 5:2, 25; 벧전 2:24; 3:18; 고후 5:21; 갈 3:13).

### 죄에 대한 적절한 만족

우리의 죄에 대한 만족을 설명할 때, 죄를 하나님께 갚아야 할 부채로, 하나님과 양속 관계인 원수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죄인 범죄로 생각할 수 있다(마 6:12; 골 1:21; 롬 1:30; 8:7; 속 11:8; 롬 3:19; 욥 9:2; 시 130:3).

적절한 만족은 하나님 법과 정의에 대한 부채를 갚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서 제거하며, 우리를 하나님께 화목하게 하여,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자발적으로 짊어지고 완전한 속죄를 이룬다. 이에 부응하여 그리스도의 의는 속량의 대가이며 화목 제물이자 만족 형벌로 간주될 수 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무한한 부채를 지급하기 위해 무한히 귀한 자신을 내어주었다(마 20:28; 딤후 2:5-6);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를 제거하였다(골 1:20-21; 고후 5:19, 21); 제사장이자 우리를 위한 제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속죄를 이루었다(벧전 2:24; 3:18; 사 53:5, 6, 10-12; 갈 3:13).

그리스도가 우리의 적절한 만족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1. 우리의 죄가 단죄된 동일한 본성을 취하셔야 했다(히 2:14, 16; 시 40:6-8; 히 10:5-9).
2. 완전한 거룩함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할 죄가 없어야 했다(히 7:26; 고전 5:21; 뱀전 3:18).
3. 자발적으로 동의하여 우리의 죄를 위한 만족을 이루어야 했다(히 10:9; 시 40:8; 렘 30:21).
4. 충분한 가치와 효능을 지녀 완전한 만족을 이루고, 부활할 능력으로 자신을 훼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어야 했다(딤후 2:13-14; 엡 5:2; 요 10:18).
5. 자신의 생명을 절대적으로 주관하여 원할 때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어야 했다(출 3:14; 요 10:18).

이러한 조건들이 전제되면 그의 만족으로 인해 아무에게도 손해가 없다.

- 인류 구원 방식을 계획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완전하심이 크게 영화롭게 된 하나님께는 손해가 없다(눅 2:14; 엡 1:6; 2:7).

- 하나님의 거룩한 법은 손상되지 않으며, 오히려 더욱 존귀하고 존중된다(사 42:21; 마 5:17-18).

- 자발적으로 이 사역을 수행하고 곧 영광스러운 상을 받은 그리스도에게도 손해가 없다(눅 24:26; 빌 2:6-11).

-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세상은 소유한 자를 잃지 않았으며 그분은 신속히 부활했다(계 1:18).

- 죄인들이 용서받음으로 인해 손해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은 성화되고 이 땅에서 복된 존재가 된다(딤후 2:14; 사 6:13).

그리스도의 하나님 법과 정의에 대한 만족은 죄인 구원 획득에 절대적이다.

1. 이 필요성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손상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기부정하거나 악인과 같아지거나 그들을 사랑하지 못할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별반는 상황과 대상 가운데 충분히 나타내시지만 만족 없는 죄인의 면제는 허락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 거룩함이 너무 커서, 그 연결 고리인 거룩한 법과 언약이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통해 성취되고 존귀히 여겨져야만 죄인과 교제할 수 있음을 뜻한다. 또한 그의 본성 공평성이 너무 커서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죄를 전가하였을 때라도 완전한 만족 없이는 무죄를 선언할 수 없다. 하나님 위엄의 크기로 인해 자신에 대한 경멸과 모독을 불처벌로 보낼 수 없다. 그의 지혜는 인간 구원의 신비한 방법을 고안·실행하였으며,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구속을 위하여 독생자를 자발적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롬 8:32; 요 3:16; 요일 4:9-10).

2. 이미 증명되었듯이, 징계하는 정의는 하나님 본질에 필수적이며, 율법 깨뜨림의 조건은 반드시 은혜 언약 조건이기도 하다(시 5:5-6; 11:5-7; 119:137; 창 18:25; 단 9:7; 합 1:12-13; 수 24:19; 롬 1:18, 32; 출 20:5, 7; 34:7; 롬 2:6, 8-9; 6:23).

3. 인류가 죄에 대해 희생 제사 등으로 속죄를 시도하는 전 세계적 관행은 만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제시한다. 설령 희생의 본래 목적과 의미가 신적 계시에 의해 제시되었음에도 그 목적을 상실했더라도, 인간의 양심은 하나님을 만족시키려 했다(히 10:1, 4, 11; 롬 3:19-20; 미 6:6-7).

4.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신 것을 그의 사랑의 놀라운 결과라 표현한다. 만일 더 쉬운 방식으로 죄에 대한 온전한 만족 없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면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다(요 3:16; 요일 4:9-10; 롬 5:8, 21; 엡 5:2; 고후 8:9).

5. 하나님의 법과 율법 깨뜨림 언약의 형벌적 구속은 죄에 대해 온전한 만족을 명백히 요구한다(창 2:17; 신 27:26; 겔 18:4; 롬 1:18, 32; 6:23). 피 흘림 없이는 죄 사함이 없으며(히 9:22), 속죄 제물 없이는 무서운 불의 진노를 기다리는 것뿐이다(히 10:26-31).

이제 특정한 위협이 맹세로 확증되지 않는 한 조건적일 수 있으나, 일반적인 위협은 결코 그러하지 않다(사 3:11; 롬 2:8-9).

6. 하나님께서 택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았다면 그의 독생자를 이처럼 극심한 모욕과 고난에 내어 맡기지 않으셨을 것이다(애 3:32-33; 미 7:18-19; 사 53:10; 롬 8:32; 히 2:10). 오히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죄 사함에서 그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롬 3:24-26; 요일 1:9).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난을 통해 완전한 구원의 대장으로 만드시는 것이 마땅했다(히 2:10). 다음과 같은 주장은 헛되다.

## I. 하나님 권리 감면 주장에 대한 반박

I.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해 사람들처럼 종종 그 권리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주장.

1. 사람들은 살인 공소처럼 모든 경우에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민 35:31-32). 죄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살인을 의도하고 시도하는 것이다.

2. 하나님은 그의 영예와 위엄이 모욕당하고, 그의 법이 경멸과 위반을 당하며, 그의 통치 아래 있는 피조물이 해를 입거나, 만일 가능하다면 죄에 유혹받거나 죄에 완고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죄에 대한 정당한 처벌 권리를 포기할 수 없다.

## II. 만족과 자비 양립 주장에 대한 반박

II. “죄에 대한 만족이 자비로운 용서와 양립할 수 없다”라는 주장도 헛되다.

1. 죄는 단순한 돈 빛이 아니라 엄격한 법 아래 범죄자 본인이 처벌받아야 하는 범죄이다.
2. 하나님의 자비는 그의 아들의 피를 통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무한히 더 빛난다. 만약 아무 대가 없이 구원했다면 그의 자비는 덜 빛났을 것이다(딤후 3:5-7; 요 3:16; 롬 5:8,21; 롬 3:24; 요일 4:9-10,16,19; 엡 5:2,25; 고후 8:9; 갈 2:20-21).
3.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로부터 우리를 위해 만족을 제공하고 받아들이신 것은 무한한 자비와 은혜의 행위이다. 우리가 그 만족을 만드는 데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받으시는 데도 마찬가지이므로, 우리에게 관해 그의 죄 사함은 만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완전하고 자유롭다(롬 3:24-26; 엡 1:6-8; 엡 2:7).

### III. 구약 믿음과 회개 그리고 복음 언약 관련 주장에 대한 반박

- III. “하나님께서 많은 죄를 만족과 무관하게 용서하셨고,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달렸으며, 아함은 회개 때문에 용서받았고(왕상 21:29), 구약 아래서는 믿음과 회개만이 용서의 조건이었으며(신 30:1-3; 렘 3:12-14,22; 18:7-8; 겔 18: 33:11,14; 왕상 8:33-50; 레 26:40-45), 복음 언약은 더 은혜로워서 아무 조건도 없이 죄 용서를 준다(렘 31:31-34; 히 8:10-12; 마 18:27,35; 눅 7:41-48; 골 2:13; 엡 1:7; 엡 4:32; 행 5:31)”라는 주장도 헛되다.
1. 반대 주장에서 언급된 대부분의 구절들은 즉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일시적 형벌을 제거하신 하나님의 행위와 관련되며,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법이나 의에 대한 필수 만족으로 여기지 않는다.
2. 아벨이나 다른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지 달래진 것은 아니다.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들 대신 이루어진 의로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롬 3:24-25; 갈 2:16; 빌 3:9).
3. 복음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만족하셨다고 나타내므로 다른 만족을 요구하지 않는다. 복음의 전파는 용서의 직접 조건으로서 믿음과 회개를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만족으로 취득된 구원을 받는 수단으로 요구한다(사 53:6,8,11; 히 10:14; 9:12-13; 요일 2:1-2; 요 14:6; 요 1:29; 뱀전 1:18-19; 눅 1:74-75; 겔 16:62-63; 36:25,31).
4. 새 언약에 따르면 믿는 자들은 두 언약 아래에서 자신이 만든 만족 없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만족 없이는 죄의 은혜로운 무조건 용서를 받는다. 그러므로 은혜로써 자유롭게 용서받거나 구원받으면서도 큰 값으로 속량되었다고 표현된다(롬 3:24; 엡 1:7; 엡 2:8; 엡 5:2,25; 빌 1:29; 행 20:28; 마 20:28; 고전 6:19-20; 갈 1:4; 갈 2:20; 갈 3:13-14; 딤후 2:14; 뱀전 1:19; 3:18; 계 5:9; 롬 5:8,21).

#### IV.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죽음에 관한 주장에 대한 반박

IV.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 아들을 보내기 전에 사랑하셨다면,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그분이 복종과 죽음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헛되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사랑하셨지만, 그들과의 교제는 그들의 죄를 파괴하는 길로만 가능했고, 이는 적절한 만족 없이는 불가능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품위 있는 방식으로만 표출될 수 있었다. 판사가 벌하지 않고 범죄자를 사랑할 수 없듯이.

#### V. 그리스도의 고난과 만족에 관한 주장에 대한 반박

V. “만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한 순간이라도 줄일 수 있었다면, 두 순간도 줄일 수 있고, 결국 전체 형벌이 사라졌을 것”이라는 주장도 헛되다. 살인자의 처형 순간이나 그 밖의 상황이 단축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 본질에서 벗어난 부분은 면제될 수 없다.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법과 의에 참되고 올바른 만족을 이루셨다.

1. 성경은 그를 우리의 죄에 대해 법적으로 책임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짊어진 보증인으로 묘사한다(히 7:22; 욥 9:33; 시 119:122; 사 53:6,4-5,8,10-12; 요 1:29; 고후 5:21; 뱀전 2:24; 3:18; 요일 2:1-2; 4:9-10; 롬 3:24-26; 4:25; 5:6-11,16-21).

2. 그는 순종과 고난의 대가인 값으로 우리를 속량하는 분으로 묘사된다(욥 33:24; 사 53:5,10-11; 마 3:15; 20:28; 26:28; 고전 6:20; 고후 5:15,21; 롬 5:6-8; 8:32-34; 갈 1:4; 3:13-14; 4:4-5; 엡 1:7; 5:2,25; 골 1:14,20; 살전 5:10; 딤후 2:14; 뱀전 1:18-19; 2:24; 3:18; 요일 2:1-2; 계 5:9; 요 10:11,15). 그리고 이 그리스어 본문에서 hyper 와 anti 는 ‘~대신에’를 올바르게 의미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3. 그의 순종과 죽음은 그 자연스러운 필연적 결과로, 사람들을 구속(행 20:28; 고전 6:20; 딤후 2:14; 계 5:9; 갈 3:13; 4:4-5), 죄를 속죄하고 정결케 하며(히 1:3; 9:14; 10:22; 요일 1:7,9; 계 1:5), 죄에 대한 화목과 속죄를 이룸(욥 33:24; 롬 3:24-26; 5:11; 히 2:17; 요일 1:7; 2:2; 4:10), 하나님과 화목케 하며(롬 5:10; 고후 5:18-21; 엡 2:16; 골 1:20-21), 죄와 저주 및 언약으로서의 법에서 해방시키며(딤후 2:14; 요 1:29; 요일 3:5,8; 엡 1:7; 5:25; 갈 3:13; 롬 8:1-2,33-34; 7:4; 6:14; 갈 4:4-5; 갈 2:19-20), 건강과 평화를 가져다준다(사 53:5; 뱀전 2:24; 미 5:5; 엡 2:13-14).

4. 그의 순종과 죽음은 죄에 대한 희생 제사로 표현된다(사 53:10; 요 1:29; 롬 4:25; 3:24-25; 엡 5:2; 고전 5:7; 히 9:14,26,28; 7:27; 8:3; 10:1,12,14). 모든 희생 제사, 특히 속죄제사는 범죄자를 대신하는 의식적 만족이었으며, 하나님이 피조물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한 전형적인 것이었다. 이를 위해 범죄자의 죄가 희생 짐승에게 손을 얹음으로 전가되었고 그 짐승은 희생으로 죽임을 당했다(레 1-7; 16; 민 7; 28-29; 출 29 등). 모든 제사는 그리스도의 제사를 전형하며, 그의 죽음 후 곧 중단되었다(히 7:11-25; 10:4-5,14,18; 13:10).



5.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에는 죄인들을 위한 만족에 필요한 모든 요구가 충족되었으며, 자기 자신에 관한 요구는 전혀 없었다. 그는 율법 아래에 두심을 받았고(갈 4:4), 종으로서 저주받은 십자가의 죽음에 복종했다(빌 2:7-8). 그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하며 의를 완성하였다(마 3:15; 5:17; 히 5:8; 단 9:24; 요 8:29). 그의 백성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되어 죄가 되었고(고후 5:21; 사 53:6; 뱀전 2:24), 저주받았다(갈 3:13). 그러므로 하나님과 피조물에게 현저한 범죄자로 취급되었다(사 52:14; 50:6; 49:7; 53; 시 22:1-21; 69:1-20; 롬 8:3,32; 마 26-27; 요 18-19; 히 2:10).
6. 그는 우리를 위해 다른 누구도 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고전 1:13), 법적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했다. 만일 그가 단지 우리를 위해 죽었다면, 이는 바울과 다른 이들이 교회 유익을 위해 수고하고 고난당한 것에 불과했을 것이다(골 1:24; 고후 1:6; 빌 2:17; 딤후 2:10; 3:10-11; 4:6-7; 요일 3:16).
7. 그의 순종과 고난이 우리를 위해 이루어지고 인정됨으로써 우리는 법률상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며(롬 5:16-19; 8:3-4; 고후 5:21; 빌 3:9; 사 45:24-25), 본성상 진노의 자녀임에도 법적으로 그와 화목케 된다(롬 5:7,10; 고후 5:18-21; 골 1:20-21; 엡 2:2,11,14).

#### 반대를 막기 위한 명확화

반대를 막기 위하여 다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1. 각 사람이 자신의 죄를 담당한다는 구절들은 우리가 대신하여 무죄하고 거룩한 아들로부터 만족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와 충돌하지 않는다. 겔 8:4-30; 33:20; 사 3:11; 롬 2:8-9의 구절들은 주로 그곳에서 언급된 악한 유대인과 관련되거나 완고한 죄인의 확정된 멸망을 나타낸다. 자녀들은 종종 부모의 죄 형벌로 고통받았다(출 20:5; 왕하 10; 시 137:8-9; 호 13:16; 사 13:16; 렘 47:3; 레 26:39; 눅 23:28-29). 또는 우상 치리자들의 형벌로 인해 백성들도 고통받았다(삿 9; 삼상 2-4; 13; 15; 28; 31; 역하 13; 21; 33; 왕상 11:22). 더욱이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지고 보증인으로서 고난당하지 않았다면, 특히 것처럼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결코 고난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로지 또는 주로 교리를 확증하거나 경험을 얻거나 우리와 동정심을 느끼거나 완성된 미덕의 모범을 남기거나 영생을 자신을 위해 사기 위해 고난당했다고 암시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죄를 속죄하기 위해 고난당했다. 이로 인해 다른 부차적 목적들이 방해받지는 않는다.
3. 그리스도의 만족적 순종과 고난은 하나님의 법과 의를 만족시키는 목적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모방할 수 없으나, 그 내용과 방식에서는 탁월한 본보기이며, 하나님 영광과 사람 유익을 위해 의도되었다(엡 5:2; 요일 2:6; 뱀전 2:21).

4. 그리스도는 죄에 대한 형벌의 모든 자연스러운 요소를 감당하였으나, 저주로부터 및 저주의 형벌적 효과에서 기인하는 요소들, 즉 유한하거나 죄 있는 피조물 위에 임하는 지배(죄의 지배와 형벌의 영구성)는 감당하지 않았다. 만일 그가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면, 만족을 이룰 수 없었을 것이다.

5. 판사는 범죄에 대한 만족을 요구하면서도 스스로 그것을 제공할 수 있다. 그리스도는 모든 신격의 위격들이 똑같이 분개했으나, 아버지는 우리의 구속 사역에 있어 특별히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6. 그리스도의 만족은 죄를 조장하지 않고 죄에서 효과적으로 해방시킨다(딤후 2:14; 뱀전 1:18-19; 마 1:21; 롬 6:10-12). 그의 의가 양심에 적용됨으로써 죄의 세력과 지배로부터 실제로 해방된다(롬 7:4; 6:14; 갈 2:19; 고전 15:56). 그것에 대한 믿음의 관점은 그들을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사랑하며 실천하도록 가장 강력히 결단케 한다(롬 6:10-12; 고후 5:14-15; 시 119:32; 116:16; 눅 1:74-75; 히 12:28).

7. 우리의 은혜의 순종과 인내의 고난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거나 영원한 행복을 구매하지 못하지만 여러 면에서 매우 유익하다(시 19:11; 사 3:10; 고전 15:58; 계 14:13; 3:21; 22:14).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은 하나님의 법과 의의 모든 요구에 대한 완전한 만족이며, 우리의 영원한 구속을 위한 충분한 값으로서, 아무것도 더할 수 없다.

1.

그렇듯 그리스도의 인격이 지니는 무한한 존엄성은, 그가 깨진 율법을 완성함으로 택자 전체의 모든 빛, 나아가 수많은 죄악된 세계들의 빛까지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골로새서 2:9; 이사야 7:14; 9:6; 예레미야 23:6; 스가랴 13:7; 디도서 2:13-14; 사도행전 20:28.

### 하나님의 확증과 그리스도의 만족

2.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만족이 완전함을 명백히 나타내시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의 우편에 높이 올리시며 교회에 관해 만물 위에 머리로 삼으셨다. 로마서 1:4; 빌립보서 2:6-11; 히브리서 2:8-10; 요한복음 16:10; 이사야 42:21; 53:10-12.

3.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스스로 자신을 드리신 것은 그의 만족의 절대적 완전함을 나타낸다. 히브리서 7:27; 9:25-28; 10:1-14,18; 로마서 5:15-19; 고린도후서 5:21; 베드로전서 3:18.

4.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의롭다 하시고, 그와 화목하게 하시며, 모든 악에서 구속하여 온전하고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만족이 직접적으로 가져오는 결과로서 그 만족의 완전함을 입증한다. 이사야 45:24-25; 로마서 8:1,33; 3:24; 10:16-21; 고린도후서 5:21; 골로새서 1:20-22,28; 2:10; 요한일서 1:7,9; 히브리서 1:3; 9:12,14; 10:10,14,18; 2:10.

### 필연적 결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된다.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실 때는 택자 전체를 대신할 어떤 부분이나 그보다 더 가치 있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일은 결코 없으며 있을 수도 없다. 이사야 53:4-12; 고린도후서 5:21; 이사야 45:24-25.

2. 믿는 자들의 가장 뛰어난 행위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자로서 조금도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듯, 그리스도의 무한한 완전성은 그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만족을 제공할 여지를 전혀 남기지 않는다. 이사야 64:6; 빌립보서 3:8-9; 고린도후서 5:21; 사도행전 20:28; 요한계시록 5:9.

### 반박에 대한 주목점

반박을 막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죄의 잘못에 대한 유죄책임과 그 벌에 대한 유죄책임을 구분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만족이 우리의 죄에 대한 징벌 책임을 제거한다면, 징벌에 대한 의무가 남을 수 없다. 로마서 8:1; 이사야 54:9; 요한계시록 5:9.

2. 택자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까지 법적 진노 상태에 있더라도,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과 아버지 사이의 언약 속에서 영원 전에 확정되어 있기에, 저주 아래서 겪는 모든 일조차 그들의 행복을 위한 도입으로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지므로 그것이 그들이 죄에 대해 빚진 만족의 일부일 수 없다.

3. 그리스도와 연합한 상태에서 믿는 자들이 겪는 모든 고난은 오직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아버지의 징계일 뿐이며, 그들의 의로 구속하신 아버지의 새 언약 약속으로 보호되므로 율법 언약이 깨졌을 때의 형벌에 대한 만족일 수 없다. 골로새서 1:24; 베드로전서 4:13; 고린도후서 1:7; 히브리서 11:26-27; 12:6,11; 요한계시록 3:19; 디모데후서 1:8; 시편 119:67,71,75.

4. 하나님의 자비와 진리는 악행과 그에 따른 일시적 심판을 막거나 심지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를 드러내지만, 결코 죄에 대한 만족이나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절대적인 면제를 구매하지 않는다. 다니엘 4:27; 잠언 16:6; 히브리서 9:22; 데살로니가전서 1:10; 사도행전 4:12.

5.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신과 봉사를 드리는 것은 결코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봉헌이다. 로마서 12:1; 빌립보서 2:17; 디모데후서 4:6; 히브리서 13:15-16; 베드로전서 2:5,9; 호세아 14:2; 시편 66, 116, 103, 145-146.

### 예수 그리스도의 만족을 통한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필연적이고 참된 완전한 만족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들이 나타난다.

1. 하나님의 완전성이 가장 밝고도 감동적인 방식으로 드러난다.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신 아들을 죄인들의 의와 구원을 위해 정당하게 벌하시는 무한한 지혜, 하나님 인자를 종으로 삼으신 무한한 위엄과 권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신 사랑하는 외아들을 엄정히 벌하시는 불변의 정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진노하시고 버리시는 거룩함, 죄 있는 육체의 형체를 입으시고 저주 아래서 섬기며 죽으신 하나님의 신실함, 우리 죄 많은 적들을 위해 몸과 영혼에 고난을 참으신 놀라운 은혜가 드러난다. 누가복음 2:14; 고린도후서 4:6; 요한복음 12:27; 13:31; 요한일서 4:9-10; 에베소서 5:2.

2. 택한 세계의 무한한 빛이 온전히 갹혔으며 그들을 위한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영광이 획득되었고, 머리로서 그분도 그들에게 대한 새로운 권리를 얻으셨다. 마태복음 20:28; 요한계시록 5:9; 데살로니가전서 5:10; 베드로전서 3:18; 이사야 53:4-12; 빌립보서 2:7-11; 디도서 2:14; 사도행전 20:28; 베드로전서 1:19; 2:9; 고린도전서 6:19-20.

3. 이 만족은 본질적으로 무한히 탁월하며 인간에게 공통된 본성 안에서 이루어져 모든 사람의 경우에 공평하게 적용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이며 무한한 초대의 충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각 사람이 택자와 연합한 정도에 따라 많은 은사, 직분, 외적 편의도 받는다. 이사야 55:1-7; 35; 마태복음 24:22; 에베소서 4:11-12. 다만 멸절받은 자들은 이것들을 그리스도의 죽음에 따른 결과로 얻을 수 있으나, 엄밀한 열매로서 누리지 않는다.

4. 복음의 가장 효과적인 성결의 근원이 열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고귀하고 불변하는 권위, 광대하며 놀라운 범위, 무한한 거룩함과 선함과 공평함으로 나타났고, 죄의 끔찍한 본성은 여호와와 생명을 해치려는 시도이자 우리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실제로 죽인 죄악이며, 이 죄는 영원한 멸망을 초래하는 범죄임이 드러났다. 이는 오직 하나님의 피로만 속죄될 수 있다. 스가랴 12:10; 요한복음 16:9; 히브리서 10:29. 이 만족이 사람들의 양심과 심령에 적용되면, 율법과 그 저주, 곧 죄의 권세가 제거되고 선한 행위의 영원한 생명 원리인 은혜가 전달된다. 갈라디아서 3:13; 고린도전서 15:56; 고린도후서 5:17,21; 골로새서 2:13; 베드로전서 1:23.

5. 이 만족 안에서 가장 완전하고 감동적인 거룩함의 본보기가, 극심한 가난과 버림받음, 시험, 비방, 핍박이라는 가장 불리한 환경 속에서도 드러나며, 구속 사랑의 가장 강력한 동기와 그 복된 열매가 나타나 모든 종류의 거룩함을 위해 사람들을 고무하고 촉진한다. 빌립보서 2:5-8; 에베소서 5:2; 마태복음 11:29; 베드로전서 2:21-22; 로마서 6; 고린도후서 5:14-15; 요한일서 4:9-10,19; 시편 116; 119; 누가복음 1:74-75; 히브리서 12:28.

6. 사탄과 그의 악한 일들은 효과적으로 무너졌다. 히브리서 2:14; 요한일서 3:5,8; 창세기 3:15; 골로새서 2:14-15; 다니엘 9:24.

그리스도의 만족은 신성한 인격의 순종과 고난으로서 본질적 가치에 관하여 모든 인류의 속죄로 충분하며, 인간 본성 안에서 이루어져 모든 인간의 필요에 동일하게 적합하다. 그러나 그의 뜻과 아버지의 의도에 의하면, 그것은 택자들을 대신하여 지불되고 받아들여졌으며 그들의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함이다.

1.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많은 자들을 위해서만 죽으셨고,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7:22; 이사야 53:6,8; 고린도후서 5:21; 베드로전서 3:18; 로마서 8:3-4; 10:4; 디도서 2:14.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사랑하시어 그에게 주신 그의 자녀이며, 그분은 그들을 기쁨과 행복으로 보시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화롭게 될 것이다. 이사야 53:10-11; 45:24-25. 또한 그들은 그의 생명력을 영혼 안에서 체험하고 그의 형상을 닮아 그를 섬기며 하늘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 고린도전서 15:45,49; 시편 22:30-31.

2.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자들은 성경에서 '많은 자'로 표현되고, 마태복음 20:28, 16 장, 23:14; 택된 자로서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들로 묘사된다. 로마서 8:32-39; 그리스도의 교회와 몸으로 사도행전 20:28; 에베소서 5:23,25; 반드시 영생을 누릴 양으로서 요한복음 10:10,15-16,27-29; 거룩하게 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히브리서 13:12; 마태복음 1:21; 하나님과 화목한 친구로서 요한복음 15:13; 로마서 5:10; 골로새서 1:20-21;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로 부르며 거룩하게 하는 자녀로서 요한복음 17 장, 11:52, 17:9; 이사야 53:10; 히브리서 2:9-10, 11-16.

3.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은 사람들을 단순한 구원의 상태에 들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낮은 조건에서 구원에 응하시도록 능력과 자유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을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고 악한 세상에서 속량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마태복음 18:11; 누가복음 19:10; 디모데전서 1:15; 마태복음 1:21; 요한일서 4:9; 히브리서 9:15-16; 에베소서 1:7; 5:23-27; 디도서 2:14; 로마서 11:26; 요한복음 17:19; 10:10; 갈라디아서 4:4-6; 3:13-14; 1:14; 6:4; 고린도후서 5:21; 히브리서 2:9-10,14-15; 베드로전서 3:18.

이 모든 목적들은 실제로 성취된 것으로 나타난다. 히브리서 1:3; 9:12,14; 베드로전서 1:18-19; 2:24; 다니엘 9:24; 갈라디아서 3:13; 골로새서 1:20-22; 에베소서 2:13-16; 사도행전 20:28; 로마서 5:8-11,16-21; 6:6; 8:32-34; 이사야 45:24-25; 54:17; 61:10; 고린도후서 5:15; 고린도전서 1:30; 11:10,19-20; 빌립보서 1:29; 요한계시록 1:5-6; 5:9-10; 요한복음 6:33; 10:15,28-29; 디모데후서 1:10; 2:10; 히브리서 10:14; 베드로전서 1:2-4.

4. 하나님께 대한 율법과 정의에 대한 만족은 그 성질상,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고 고난받으신 모든 사람에 대해 다시 하나님의 요구가 있기란 상상할 수 없는 심각한 부당함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다. 이사야 53:4-12;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3. 특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위해 만족하셨기에 더욱 그러하다. 요한일서 1:7,9; 2:7; 이사야 53:6; 4-5,8,10; 레위기 16:21; 다니엘 9:24; 에베소서 1:2; 사도행전 13:38-39; 베드로전서 2:24. 그러므로 불신앙이나 그 밖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혼을 정죄할 수 없다. 로마서 8:1,33-34.

5.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단순히 죄 사함을 위한 희생 제물뿐 아니라 헤아릴 수 없는 은혜의 값진 대가로 묘사한다. 이사야 53:5,10; 사도행전 20:28; 마태복음 20:28; 26:28. 우리의 죄 사함, 하나님과의 화목, 그분의 호의, 죄의 권세와 오염으로부터의 자유, 본성과 생명의 거룩함, 마귀와 죽음에 대한 승리, 영원한 행복의 부활과 소유가 이를 따른다. 로마서 5:10; 에베소서 1:7; 3:24; 히브리서 2:14-15; 6:10-11,14; 이사야 25:8; 요한계시록 5:9-10; 데살로니가전서 1:10; 베드로전서 3:18.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 복을 구입한 사람에게서 누구도 이를 박탈할 수 없다. 창세기 18:25; 신명기 32:4; 요한일서 1:9; 로마서 3:26.

6. 그리스도의 만족은 그 대상이 된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는 데 있어서, 아담의 불순종이 그들을 정죄하는 것과 동등하거나 그보다 더 효과적임을 나타낸다. 이는 모든 만족의 대상자가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의롭다 인정받고 영원한 행복 가운데 주권을 누리게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는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사람이 그 불순종으로 죄인 되었고 사망과 진노의 상속자가 된 것과 같다. 로마서 5:12-21; 고린도전서 15:22.

7. 그리스도는 중보 기도에서 오직 자신의 택한 자들을 위해 간구하시며, 그의 중보 기도 범위는 속죄의 범위와 동일하다. 요한복음 17:9; 요한일서 2:1-2. 상식적으로도 중보하지 않는 자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8.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와 아버지가 그들을 향해 지니는 사랑의 놀라운 증거로서 항상 나타낸다. 요한복음 15:13; 에베소서 5:2; 고린도후서 8:9; 갈라디아서 2:20; 로마서 5:6-8; 8:32; 요한일서 4:9-10, 16, 19; 요한복음 3:16. 그러나 그가 죽은 대상 가운데 대다수가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하고 그 죽음을 알지도 못하며 오히려 경멸하는 자들에 의해 지옥에서 조롱당한다면 이는 불가능하다.

9.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 혹은 택하지 않고 실제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동등하게 죽었다는 견해는 가장 명백한 모순과 불합리를 수반한다.

비교적 소수의 인간만이 실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 구속이라는 주된 사역에서 그 목적을 상당히 상실하셨다는 뜻이다. 즉,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하여 계획을 매우 잘못 세우셨거나, 지혜·능력·자비가 부족하여 인간의 타락한 성향에 맞서서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아들을 죽이신 많은 악인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을 권능의 날에 순종하게 하거나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지 못할 대부분 인류를 위해 무한히 귀중한 생명을 헛되이 버리셨고, 당시 지옥에 있어 모든 자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수많은 이들, 구속의 소식을 결코 알지 못하거나 믿으라는 부름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이다(욥 18; 욥 20; 시 9:17; 뱀후 2:5-6; 유 7; 시 147:19-20; 롬 10:14-17).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자들에게 복음의 믿음과 회개를 권하지 말라고 명하시기까지 하셨다(마 10:5; 행 16:6-7).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모든 희망 없이 버려졌다(행 4:12; 엡 2:12; 요한이 2:9; 잠 29:18).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 반하여 무한히 초월하는 죄를 진실로 믿고 회개한다는 조건 하에 죽으셨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모욕하는 자로, 그 아들의 죽음을 희롱하며 그 모든 효력과 열매를 극히 희박하고 불가능한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하는 자로 묘사하는 것이다.

## 반론 I.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모두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아담 안에서 정죄받고 죽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고 산다(딤후 4:10; 딤후 2:4,6; 고후 5:14-15; 히 2:9; 뱀후 3:9; 롬 5:18-19; 고전 15:22)."



## 답변 1.

성경에서 '모든'과 '각각'이라는 용어는 종종 많은 수 혹은 온갖 종류를 뜻한다. 이를테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유대인이 나왔고 모든 사람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다고 하나(마 3:5-6; 마 21:26), 실제로 많은 사람, 심지어 유대인들조차 요한과 예수를 멸시했다(마 11:18-19; 눅 7:30). 이집트 땅의 모든 가축이 죽었다고 했지만, 밭에 있던 가축은 죽지 않았다(출 9:6; 출 9:3,19). 우박이 모든 풀과 나무를 내리쳤으나 이후 메뚜기에게 파괴된 풀과 나무도 많았다(출 9:23; 출 10:15).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귀걸이를 주었지만, 실제로는 금귀걸이를 가진 자만 그 짓에 가담했다(출 32:3,26; 고전 10:7). 예호아긴과 함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의 모든 백성이라 하지만, 왕비와 귀족, 군인 등 일부만 포로로 잡혔고 나머지 다수는 스데기야 왕 통치 아래 남아 있었다(왕하 24:14-15; 왕하 25). 느부갓네살과 그의 후계자들이 모든 민족을 다스렸다 했지만, 실제로는 바빌론 근방 반경 5~6 백 마일 이내의 일부 민족만 그에게 복종하거나 의존했다(렘 27:7; 렘 25:18-26; 단 4:11-12). 니느웨 폐허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머물렀다고 하나 많은 종류만 있었다(슥 2:14). 요셉 때 기근이 모든 땅을 강타했고(창 41:17), 다윗과 솔로몬의 이름이 모든 땅에 알려졌다(왕상 4:31; 왕상 18:10). 오순절에 하늘 아래 모든 나라에서 사람들이 베드로 설교를 들으러 왔다고 했지만, 유대 근방 약 13 개 민족만 모였다(행 2:5-11). 맹인이 모든 사람을 토렷이 보았다는 말은 가까운 이들만을 뜻한다(막 8:25).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되었다 했지만(고전 9:19-22) 이는 모든 종류의 사람을 의미할 뿐 모든 인류라는 뜻이 아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육체가 짐승에게 먹혔다는 것은 적그리스도 교인들만을 의미한다(계 19:19).

때로 '모든'과 '각각'은 해당 대상의 성격이나 조건에 따라 제한된다. 종은 모든 일에 주인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해야 하는데, 이는 '모든 합법적인 일'을 뜻한다(딤후 2:9; 골 3:22; 골 3:20). 주님은 쓰러지는 모든 사람을 붙드시고 구부러진 모든 이를 일으키시는데, 이는 그를 신뢰하고 붙잡힌 자를 가리킨다(시 145:14).

이처럼 '모든'과 '각각'의 다양한 명백한 제한에 따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 곧 모든 종류와 계급—높고 낮음, 부자와 가난한 자, 종과 자유인, 유대인과 이방인—를 위해 죽으셨고, 그를 믿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보증인으로 대신 죽으셨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 답변 2.

반론에서 인용된 구절들은 어느 하나도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증명하지 않는다. 딤후 4:10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서 여러 고난과 위험에서 구원하신다고 말한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보증인이 아니라 새 언약의 관리자이며, 모두가 영원한 구원을 구할 정당한 권리를 지닌 공식적인 구세주이다(요일 4:14; 요 4:42). 다음 네 구절에서 ‘모든’과 ‘각각’은 문맥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모든 종류와 계층의 사람들(딤후 2:4,6; 딤후 2:1-2), 성결케 되고 영광에 이르는 자녀들(히 2:9-11,13),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고후 5:14-15,17,21), 하나님의 예지에 따라 택함을 받고 귀한 믿음을 얻어 치유받는 자들(벧후 3:9; 벧후 1:1; 벧전 1:2; 사 53:5-6; 롬 8:32-33).

또한 하나님은 율법으로 모든 사람과 마귀까지 온전히 거룩할 것을 명령하시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완전한 행복에 이르리라 하셨으나(벧전 2:16; 마 22:37,39), 그들 모두를 거룩하거나 행복하게 하실 의도는 결코 없으셨다. 많은 사람이 마귀와 거의 다름없는 복음적 회개나 지식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엡 2:12; 시 147:19-20; 잠 29:18).

반론의 마지막 두 구절은 그리스도가 대표하신 모든 영적 자녀가 그를 통해 의롭다 함과 생명을 받는다는 것만을 증명한다. 이는 그리스도가 대표하신 아담의 자연적 자녀가 그로 인해 죄와 사망을 받았다는 점과 같다. 첫 구절은 죄와 사망의 대상과 의와 생명의 대조라기보다, 그리스도의 의가 사람을 구원하는 효력이 아담의 죄가 멸하는 능력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증거한다(롬 5:18-19; 고전 15:22).

## 반론 II.

"그리스도는 세상을 위해—모든 세상, 온 세상(요 3:16-17; 요 1:9,29; 요 4:42; 요 6:51; 고후 5:19; 요일 2:2; 요일 4:14)—죽으셨다."

## 답변 1.

이 구절들은 대부분 또는 전부가 모든 사람이 실제로 구원받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 만약 인간이 모든 이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고 주장한다면, 그리스도 죽음에 관한 성경 증거만큼, 모든 인류의 영혼이 정죄받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증거도 충분하며(골 2:28; 요 16:9; 시 22:27; 시 72:17; 요 12:32; 눅 16:16; 골 1:28; 고전 4:5 참조), 왜 에베소서 1:10 과 골로새서 1:20 의 말씀으로 모든 마귀도 그리스도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증명하지 않는가?

## 답변 2.

성경에서 '세상'이 가장 넓은 의미로 쓰일 때는 모든 마귀뿐 아니라 모든 사람도 포함해야 한다.

## 답변 3.

성경에서 '세상'이 사람을 가리킬 때는 때로 로마 제국과 그 백성(행 11:28; 롬 1:8; 행 17:6; 눅 2:1), 유대인과 구분된 이방인(롬 11:12-13), 아주 적은 수의 유대인(요 12:19), 세상 악인들(요일 4:4-5; 요일 5:19; 요 15:18-19; 요 7:7; 고전 2:12), 또는 가톨릭 교도(계 13:3,8,16)를 의미할 때가 있다.

## 답변 4.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필요에 적합한 공식적 구세주이며, 각 사람은 합당히 그분께 영원한 구원을 구하러 나아갈 수 있다(요일 4:14).

## 답변 5.

반론에서 인용한 구절 중 일부에서 '세상'은 유대인과 달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함받은 이방인을 가리키며(요 4:42; 요일 2:2; 요일 4:14), 다른 구절에서는 본질적이고 더 뛰어난 부분인 택자를 가리킨다(사 6:13). 복음 아래에서는 주로 이방인 가운데서 모아져, 문맥에 따라 빛을 받아 죄를 사함받고(요 1:9,29), 하나님께 사랑받고 정죄받지 않고 구원받으며(요

3:16-17), 영생을 얻으며(요 6:51,54), 죄가 계산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 자들로 한정된다(고전 5:19,21).

### 반론 III.

"그리스도는 영원히 멸망할 많은 이를 위해 죽으셨다(롬 14:15; 고전 8:10-11; 벧후 2:1; 히 10:29)."

### 답변

앞의 두 구절은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는 지옥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세에서 당하는 해, 슬픔, 고난, 혹은 걸림들에 관한 것이다. 베드로가 말하는 구절은 영적·영원한 구속이 아니라 이교 무지와 우상숭배로부터 구원받음과 신명기 32:6 에서 언급한 일반 은혜의 수여에 관한 것이다. 또한 거기서 말하는 주가 그리스도인지, 신약 전반에서 사용되는 'despotes'라는 명칭인지 확실하지 않다.

히 10:29 에서는 악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이 언약의 피로 성결함을 받았으며(요 17:19; 히 2:10 참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영원한 구속을 위해 흘려지지 않았더라도 겉으로는 그 피로 구속받거나 성결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 반론 IV.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지 않으셨다면, 선택된 자 외에는 누구도 복음을 믿어야 할 의무가 없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확신이 없으면 믿으라는 권면을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거나 믿지 않는 데 대해 비난받을 수 없다."

### 답변 1.

사람이 복음에 제시된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의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분명히 드러난 구원의 제안과 그것을 받으라는 명백한 명령을 근거로 한다(신 29:29; 사 45:22-25; 사 55:1-7; 계 22:17; 마 11:28; 요 3:16-17; 행 2:38-39; 행 3:26; 행 16:31; 요일 3:23; 요일 5:10-12; 요 6:27-29).

### 답변 2.

누구도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자기 보증인으로서 특별히 자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직접 부름받지 않는다. 오히려 각 개인은 자신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필요를 믿고, 그리스도의 풍성함과 구원 능력을 신뢰하라고 부름받으며,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한 구세주로 세우고 제공하셨다는 것을 믿으라고 부름받는다. 또한 믿음과 영원한 구원의 불가분한 연결성, 복음 초대에 응답하는 자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약속, 복음 초대가 누구에게나, 심지어 자신에게도 명확하고 특별히 향해 있음을 믿고 어떤 의도나 죽음의 범위에 대한 의문 없이 받아들이라 부름받는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에 따라 복음을 신뢰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선택된 자들은 하나님의 친절한 의도에 대해 어떤 확실한 지식도 갖지 못하며,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을 믿고 그의 은혜의 영적 영향력을 자기 영혼에서 느낄 뿐이다(벧후 1:4,10; 살전 1:4-5; 갈 2:19-20; 롬 8:28-30).

### 답변 3.

자연법은 구원이 제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의 죄 많은 회개하지 않음에 대해 금지하고 정죄할 것이다.—복음을 듣는 자들은 거짓이나 불확실한 것을 믿지 않음으로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서 명백히 선포되고 제시된 것을 믿지 않음으로 정죄받는다.

4. 만일 우리 반대자들이 인정해야 하듯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아 정죄받지 않는다면(롬 10:17),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함이라는 그의 의도보다 복음 안에서 그에 대한 계시가 우리의 신앙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야 한다.

## 반대 의견과 답변

### 반대 의견 V

"복음을 듣는 자들도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전에는 충분한 구원의 수단이 없다."

#### 답변

1. 따라서 우리 반대자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들어본 적 없는 이방인들도 충분한 구원의 수단이 있다고 더 이상 주장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복음의 계시와 예식들은 그 자체의 불충분함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무관심 또는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해 무익해진다.
3.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반드시 효과적으로 작용하게 하실 의무가 없으며, 결핍된 자 모두에게 그 복음을 반드시 베푸실 의무도 없다.
4.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것이나 도달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그들의 본성과 행위로 인해 정죄받으며, 그들은 자신들의 참된 거룩함의 결핍을 승인한다(요 5:40; 속 7:11-12).

### 반대 의견 VI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지 않고 일부만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 선함, 긍휼에 대해 심히 부정적인 이미지—즉,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인류를 구속하는 데 동일하게 능히 적용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의 의도가 비우호적으로 그 효력을 소수에게 제한한 것으로—를 준다."

#### 답변

1. 그리스도의 죽음은 소수의 대용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 아마도 수십억 인류를 위하여 의도되었다(계 7:9; 21:24).
2. 누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응답하려 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죄인에게도 긍휼을 베풀 의무가 없으며, 원하시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원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출 33:19; 롬 9:16-23).
3.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었다. 마귀들에게도 그러하였듯이;—그 누구도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 죽었다고 주장할 수 없다(히 2:16; 유 6).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하더라도 인류 대부분 혹은 전부가 지옥에 갈 수 있고, 그들 상당수는 그리스도의 죽음 소식을 듣지 못했으며, 이를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성령을 받지 못했으니, 그가 그들을 위하여 그렇게 죽음에 어디에 공훈이나 사랑이 있는가?—저들이 자신의 속임수 가득하고 극악무도한 마음이 스스로 돌아서서 믿고 회개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모두를 위하여 죽는 것에서 어디에 공훈이나 지혜가 있는가? 그가 구원받은 자와 영원히 정죄받은 자 모두에게, 그리고 자신의 죽음 당시 지옥에 있던 수십억 및 그의 죽음으로 인해 영적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는 많은 자에게 행한 것 이상을 하지 않았을 때, 구별된 공훈과 사랑이 어디 있겠는가?—그가 무조건적으로 수천만 명을 위하여 죽어 영원한 구원이 완전 확실하게 됨에 있어 공훈은 얼마나 더욱 위대한가!

## 반대 의견 VII

"그리스도가 일부 사람을 위해 무조건적으로 죽으셨다는 교리는 모든 경건과 덕성, 모든 중보기도와 모든 사람을 위한 감사, 그리고 깨어진 양심에 대한 모든 견고한 위로를 파괴한다.—그러나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동일하게 죽으셨다는 교리는 이러한 것들에, 그리고 모든 성스러운 의무에 매우 힘을 준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를 무한히 사랑스럽고 매력적인 자비의 본보기로 나타내며, 모든 복음 청원의 믿음과 회개에 믿을 수 없는 힘을 주며, 가장 악명 높은 죄인들에게도 회개한다면 희망의 근거를 준다."

## 답변

1. 특정 속죄를 옹호하는 자들은 하나님 법이 심판의 기준으로 인정될 경우, 언제든지 그 반대자들과 경건과 덕성, 모든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와 감사,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모든 면에서 비교를 감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2. 특정 속죄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아니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살아 있는 자든 이후에 살 자든 간에 중보기도를 하도록 요구한다(단, 성령에게 대하여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 확실히 알려진 자는 제외)—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중보기도이다(딤후 2:1-2; 요일 5:14,16). 감사는 사람들이 받은 선한 것, 권리가 있는 것, 또는 희망할 근거가 있는 것에 대해만 한다. 수천만이 무조건적이고 확실히 영생을 얻을 것이 확실하다는 사실은, 모든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조건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타락한 자유의지가 올바르게 행동할 경우에만 가질 수 있는 극히 희박한 행복의 가능성보다 훨씬 더 큰 감사의 이유이다. 우리의 반대자들에 따르면, 최고의 성인도 가장 타락한 악인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갈 확신이 없다. 또한 천국의 성인들도 지옥에 있는 정죄받은 자들보다 감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모두를 위하여 동일하게 죽었기 때문이다. 또 성령도 그들의 복지를 위해 동일하게 힘을 썼을 수 있다.
3. 특정 속죄는 하나님을 그분의 원수들조차도 효과적으로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는 자로 나타내며—가장 고귀한 자비의 본보기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갱신하고 거룩함에 끝까지 견디는 극도로 불가능한 조건을 육체적 마음의 악, 즉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의 능력으로 수행하지 않는 한 아무 쓸모 없는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다면 그분의 매력적인 자비의 본보기는 어디 있는가? 게다가 그리스도의 죽음이 인류의 일부분에게만 알려졌기에, 모든 사람이 보편적인 자비의 본보기를 식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일반 섭리에서일 수밖에 없다(마 5:45; 시 145:9).

4. 알미니안 설교자가 청중에게 솔직히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다; 그러나 그와 아버지는 전혀 무관심하거나 사람들을 구원하는 목적을 이 방법으로 이루는 데 무능하다: 그들은 인류의 백분의 1 에게도 이 사실을 거의 알리지 않는다; 그가 죽으신 이를 위한 다수가 영원히 정죄받는다: 하나님 자신도 그들이 자유의지를 올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한 도울 수 없다. 심지어 무소불능보다 뛰어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의 저주와 그분에 대한 내면의 적대감의 지배 아래에서라도, 당신이 회개하고 믿으며 완전한 거룩함 안에서 오래 건딘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 당신의 자유의지가 잘못 움직인다면 당신은 확실히 영원한 고난에 빠질 것이다.” 이런 말이 복음의 청원과 약속에 어떤 힘을 실어 주겠는가?—그러나 특정 속죄의 설교자는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청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이 자유롭고 간절히 하나님께 의해 그들에게 제안되었으며, 그들이 간절히 믿으려 시도할 때 그는 참된 믿음을 그의 자유 선물로써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아무리 약해도 그 첫 행동으로 그들이 되돌아갈 수 없이 그와 그의 영원한 구원에 속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확신시킨다(사 45:22,17,24-25).

5.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기 전 지옥에 있던 유다와 수천만과 동일하게 자기들을 위해 달리 죽지 않았으며, 그들 자신의 악한 마음이 스스로 돌아서고 참된 거룩함과 덕성 안에서 죽을 때까지 건디지 않는다면 반드시 정죄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은 괴로운 영혼들에게 적은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완전하고 자유로운 제안—중생과 믿음을 포함하는—에 의해 진정한 위로와 안도가 주어진다(사 55:1-7; 사 1:18; 사 45:22; 사 46:12-13; 잠 1:22-23; 잠 9:4-5; 잠 23:26; 마 11:28; 요 6:37,44-45,63; 요 7:37-38; 고후 5:19-20; 히 7:25; 롬 8:1-2,32-39).

## 그리스도의 중보기도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는 그의 제사장 사역의 다른 부분으로서, 본래 그의 동포들에 대한 인간적 동정을 포함하지 않는다(눅 19:41-42); 또한 아마 그의 살인자들에 대한 기도를 부분적으로 포함하지 않을 수도 있다(눅 23:34). 이는 대신에 변호인으로서의 청원, 기도, 간청,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항 제사를 드림으로 나타난다(시 2:8; 요 14:16; 요 17:9; 히 9:24; 히 7:25; 롬 8:34; 요일 2:1; 계 8:3-4). 그는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며, 그 구함은 오직 그 백성의 유익에 관련된다(요 17). 그는 오직 택한 자들만을 위해 중보하며(요 17:9; 요일 2:1; 계 8:3-4), 각각과 모든 사정을 위해 중보한다(요 17:9-24; 히 7:25; 눅 22:31-32; 계 8:3-4). 사탄의 고발(계 12:10; 속 3:1), 우리의 죄와 부족함의



무수함(요일 2:1), 그리고 하나님 앞에 즉시 나아가거나 자신의 사정을 재판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무가치함이 그리스도의 중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준다. 그것이 성소에서 변론하는 것(히 9:24-25), 금 제단에서 향을 드리는 것(계 8:3-4), 그리고 그의 화목 제사 위에서 변론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의 제사장 직임에 속함을 입증한다. 그의 신성은 자신의 고난 제사에 자신을 내어줌과 그의 중보와 전혀 모순되지 않으며, 그의 인성도 그가 높은 왕권을 갖는 것과 모순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가 인성을 입기 전에도 현재와 같은 방식은 아니었을지라도 그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였다(속 1:12; 어쩌면 욥 33:24). 온전한 인격으로서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중보를 계속할 것이다(시 110:4; 히 7:24-25).

### 그리스도의 중보의 현재 기능

1. 우리 본성으로서, 완성된 속죄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제시하며 택한 자에게 은혜 언약에 따라 필요한 모든 복을 주는 근거가 된다(히 9:24).
2. 구매하신 복이 신약 언약 및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적용되기를 의지 내지 가끔 언어로 표시한다(요 17; 눅 22:31-32; 속 1:12; 계 8:3-4).
3. 사탄, 세상, 혹은 양심에 의해 제기되는 모든 고발에 응답하며 거짓을 반박하고, 자신의 완성된 속죄를 이유로 정당하게 지적된 모든 것에 대해 용서를 간청한다(요일 1-2; 속 3:1-3).
4.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와 섬김을 하나님께 제시하고 자신의 의로 그것을 받아들여지게 한다(계 8:3-4; 뱀전 2:5).

그리스도의 위엄, 희생 공로, 그리고 간절한 기도의 지혜와 열정이 항상 효력을 발휘하여(요 11:42; 요 17:24; 롬 8:34; 히 7:25) 택한 자에게는 신약의 모든 복을 제때 질서 있게 이루게 하며, 미신자에게는 성령 선물, 중생, 의롭다 하심, 입양을 준다(요 10:16; 요 17:20; 시 2:8). 신자들의 성숙과 은혜 안에서 견디며 양심의 평안과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권리,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영광—그들이 날마다 범죄함에도 불구하고—도 제공한다(요일 2:1; 요 14:13-14; 요 17:17; 히 4:16; 히 6:19-20; 요 17:24). 또한 그의 중보는 사탄과 그 모든 세력을 효과적으로 대적한다(눅 22:31-32; 속 3:1-3; 속 1:12).

### 그리스도의 중보적 통치권

III. 아버지와 성령과 동등한 자연적 우월성과 만물에 대한 통치권 외에, 그리스도는 또한 중보적 통치권 또는 왕국을 갖는다.

1. 이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대가로 아버지께 받았다(시 2:8; 마 28:18; 빌 2:6-11; 사 53:10-12; 사 52:13-14; 벧전 1:21; 눅 22:29; 단 7:14).

2. 하나님 인간으로서 그에게 귀속된다(사 9:6-7; 요 5:22-27).

3. 주로 그의 교회를 위한 것으로서, 참 신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촉진하기 위해 관리된다(엡 4:11-14).

1. 수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에게 주권과 통치권을 부여한다(창 49:10; 삼상 2:10; 삼하 7:16; 시 2; 시 21; 시 45; 시 72; 시 89; 시 96-100; 시 110; 시 132; 시 47; 시 145-149; 시 22:27-31; 시 68:17-35; 시 24:7-10; 시 118:22; 사 9:6-7; 사 11:4-5; 사 32:1-2; 렘 23:5-6; 렘 33:15-16; 렘 30:21; 겔 17:22-23; 겔 21:26-27; 겔 34:23-24,29; 겔 37:24-25; 겔 43:3; 겔 46:10; 단 2:44-45; 단 7:13-14).

단 9:25; 단 12:1; 호 3:5; 호 13:9-10; 미 5:1-6; 미 2:13; 스 6:9-13; 스 9:9-10; 마 2:2; 마 25:34,41; 마 28:18; 요 1:49; 요 18:36-37; 딤펴전 1:17. 그리고 그가 십자가 위에서도 그의 왕권이 세 언어로 기록되었다, 요 19:19.—

## 왕적 칭호와 상징

2. 많은 왕적 칭호들이 그에게 부여되었다,—

창조된 주님으로서, 행 2:36; 고전 8:6; 엡 4:5;

생명의 주, 행 3:15;

성도의 왕,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 계 15:3; 계 17:14; 계 19:16;

교회의 머리, 엡 4:15-16; 엡 5:23; 엡 1:22; 호 1:11; 골 1:18; 골 2:19;

반석, 고전 3:11; 사 28:16; 엡 2:20-22;

모퉁이돌, 시 118:22; 스 10:4; 엡 2:20;

통치자, 심판자, 지도자, 사령관, 삼상 23:3; 미 5:1-2; 사 33:22; 사 55:4;

여호와 군대의 대장 및 구원의 대장, 수 5:13; 히 2:10;

목자, 겔 34:23; 사 40:11-12; 뵤전 2:25; 뵤전 5:4; 히 13:20.

3. 많은 왕권의 상징들이 그에게 귀속된다,—

왕의 기름 부음, 시 45:7; 시 2:1-3; 시 89:19-20;—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서 시작된 왕적 취임, 시 2:6-9;

탄생과 잉태 시 천사들에 의해 고지됨, 눅 1:31-33; 눅 2:10-11;

그리고 그의 죽음 시 그 자신과 타인에 의해 인정받음, 요 18:33-37; 요 19:12-19; 마 26:64; 눅 23:42-43;—

부활, 승천 후,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심으로 엄숙하게 왕권을 취임함, 마 28:18; 행 2:36; 뵤전 3:22; 엡 1:20-22; 빌 2:9-11;—

그의 원수들이 씌운 왕관, 마 27:29; 요 19:2-3;

그의 교회가 씌운 왕관, 아 3:11;

그의 아버지가 씌운 왕관, 히 2:9; 빌 2:9-11; 시 21:3;—

왕좌, 시 110:1,5; 시 45:6; 히 1:5; 히 8:1; 계 3:21; 마 19:28; 마 26:64;

지팡이, 이것으로 그는 자신의 백성을 모으고 다스리며, 히 1:8; 시 45:6; 시 110:2; 시 2:9; 계 2:27; 계 19:15 에서 자신의 불가침 적들을 멸한다;

왕의 법, 사 2:3; 롬 3:27; 고전 9:21; 마 11:29-30; 갈 6:2; 잠 8:15;—

왕의 종 혹은 대사들, 고후 5:20; 고후 3:6; 고전 4:1-2;—

왕의 경호원이나 시종들, 슥 14:5; 합 3:3-7; 신 33:2; 유 14; 마 4:11; 마 26:53; 단 7:10; 시 68:17; 시 47:5-6; 마 13:41,49; 마 25:31;

왕의 재정, 시 96:8; 시 45:11;—

영적 갑옷의 창고, 엡 6:10-19;—

심판, 무죄 선고, 정죄의 왕적 권능, 요 5:22; 막 2:5-11; 마 25:31-46.

#### 그리스도의 왕직 예표와 중재적 왕국

4. 그는 그의 왕직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 예슈룬의 왕 모세, 가나안 정복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왕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유다 왕들 모두에 의해 예표되었다, 히 7:1-24; 히 3; 렘 30:9,20; 아 3:6-11; 마 12:42.

그리스도의 중재적 왕국은

1. 매우 광대하여, 정복된 적들, 사역자, 통치의 도구 혹은 충실한 신민으로서 만물을 포괄하며, 마 28:18; 행 10:36; 시 110:13,5-6; 시 8:6-8; 히 1:14; 엡 4:11-12; 고전 6:11; 딤후 3:5-7; 엡 5:25-27,30;

모든 세대, 민족, 지위의 사람들에게 미치며, 시 2:8; 시 73:10-14; 시 22:27-28; 갈 3:28; 골 3:11;

몸과 영혼 모두에 이른다, 빌 2:10-11.—

그러나 그리스도는 중재자로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능력을 가지나, 엡 1:22; 요 17:2; 마 28:18; 잠 8:15-16; 삼상 8:15,

하나님 나라 밖의 사람들을 도덕적으로 통치하지는 않는다.

1. 성경은 그를 이방인의 중재적 도덕 통치자로 묘사하지 않고, 시온의 왕(슥 9:9; 시 2:6), 야곱 집의 왕(눅 2:33), 자신의 집의 왕(히 3:6)으로 표현한다.

그의 왕국에는 다수가 더해지되지만, 사람들은 본래 그의 왕국의 구성원이 아니며 은혜로 들어온다, 시 110:2-3; 계 11:15; 옅 21; 골 1:13.

2. 교회 밖에는 그의 중재적 법이 없으며, 그의 중재 권위를 선포한 기록도 없다, 롬 2:14; 엡 1:12; 사 2:3; 사 63:19; 시 147:19-20.

3. 그리스도는 늘 하나이므로, 그가 먼저 중재적 선지자나 교사가 되지 않으면 이방인의 도덕적 통치자가 될 수 없다, 시 147:19-20; 엡 2:12; 행 14:16; 행 17:30.

4. 또한 그리스도는 이방인들이 은혜 언약 아래 있거나 구원 수단을 소유하지 않으면 그들의 중재적 도덕 통치자가 될 수 없으며, 확실히 그들은 그러하지 않다, 엡 2:12; 잠 29:18; 요한이서 9.

## 그리스도의 중재적 왕국의 영적 성격

II. 그리스도의 중재적 왕국은 영적 성격을 지닌다, 눅 17:20-21; 요 18:36.

그러므로 신약에서는 하늘의 왕국 혹은 하나님의 왕국이라 부르며, 이것이 그 기원, 본질, 통치, 특권, 방향이 하늘적이고 신성함을 나타낸다, 마 3:2; 마 4:17; 마 22; 마 25.

1. 유다 지파와 다윗 집안에서 세속적 통치가 떠난 때부터 찬란한 모습으로 시작되었다, 창 49:10; 단 9:24-27.

2. 이 왕국은 유대인의 세속 정부로 예표되므로, 더 탁월하며 영적 성격을 지닌다, 히 11:40; 히 10:1; 히 9:10-11.

3. 왕국에 속한 모든 것은 영적이다.

왕은 온유하며 겸손하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로서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려 왔으며, 통치자의 종으로서 세속적 통치의 모든 외형을 거부하였다, 슥 9:9; 사 11:5; 사 53:2; 사 49:7; 마 20:28; 요 6:13; 눅 12:13-14;

또한 소생시키는 영이다, 고전 15:45.

그의 아버지 오른편과 백성의 마음에 있는 그의 왕좌는 영적이다, 시 110:1; 히 1:3; 계 3:21; 엡 3:17; 골 1:27.

그의 지팡이는 영적 말씀으로서 사람들을 구원하거나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사 2:3; 사 53:1; 시 110:2; 롬 1:16; 요 6:63; 히 4:12; 고후 10:4-5; 시 45:4-5; 시 2:9; 고후 2:16; 호 6:5; 계 2:12,16; 계 19:15,21.

그의 법은 영적이다, 롬 3:27; 롬 8:2; 롬 7:12,14.

그에게 드리는 예배와 경배도 영적이다, 요 4:24; 롬 12:1; 벧전 2:8-9; 빌 3:3.

그의 참된 신하는 영적인 사람, 자발적인 백성이며, 마음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며, 위로부터 난 자로서 육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이다, 고전 2:15; 시 110:2; 롬 12:2; 엡 4:23; 요 1:13; 요 3:5-6; 약 1:18; 벧전 1:2,23; 벧전 2:5; 갈 4:19.

그들의 거처와 행실도 하늘과 영적이다, 엡 2:6; 빌 3:20; 골 3:1-2.

그의 통치는 영적이며, 슥 4:6.

그의 사역자, 주요 원수, 갑옷, 전쟁, 주요 징벌과 상급도 모두 영적이다, 뱌전 3:22; 히 1:14; 시 103:19-21; 엡 4:11-12; 엡 6:10-20; 고후 10:3-5; 요 14:27; 요 16:33; 롬 14:17; 고후 4:18; 살전 1:6-10.

4. 그가 그의 왕국을 세운 목적은 영적이다.

즉 마귀의 권세와 일과 왕국을 멸하고, 인간의 영원한 구원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요일 3:5,8; 골 2:13; 창 49:10; 시 72:17; 사 45:17; 엡 1:3; 뱌전 4:11; 눅 12:14; 엡 3:21.—

이 영적 왕국이 흔히 예언자들에 의해 세속 왕국에서 차용한 형상으로 표현되는 것은 유대 국가를 암시하거나 인간 연약함에 대한 배려이다, 신 30:4-5; 겔 34; 겔 37; 단 7:27; 미 4:6-8; 시 2; 시 72; 시 21; 시 45.

## 그리스도의 왕국의 영원성

III. 그 왕국은 영원하다.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이 왕국에 임명되었으며, 시 2:6-8; 잠 8:23; 미 5:2.

그는 타락 직후 즉시 왕직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창 3:8-19.

구약 시대 전반에 걸쳐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교회 상태로 부르며, 창 3:24; 창 4:3-4; 창 9; 창 12-28;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에게 율법을 제정하고(출 15 부터 신 31 까지), 솔로몬 성전의 형식과 제사를 정한 것(대상 17; 대상 22-26; 왕상 5-9)을 포함한다.

그의 성육신 때 그는 왕으로 태어났으며, 마 2:2.

동방 박사들에 의해, 마 2:1-2,11;

나다니엘에 의해, 요 1:49;

시로페니케 여인에 의해, 마 15:22;

맹인들에 의해, 마 9:27; 마 20:30-31;

선원들에 의해, 마 8:27;

십자가의 강도에 의해, 눅 23:42;

빌라도에 의해, 요 19:19;

천사들에 의해, 눅 1:31-33; 눅 2:10-11;

그리고 아버지께 의해, 마 17:5

왕으로 인정받았다.

그의 겸비 상태에서 그는 교회의 왕으로서 율례를 제정하고 직분자를 임명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렸다(마 10; 마 16:18-19; 마 18:15-20; 마 26:26-28; 마 5-7; 눅 6; 눅 10).

마귀를 쫓아내고, 마 4:25; 마 12:28 등;

유대 성전을 매매하는 자들로부터 여러 차례 청결케 했으며, 요 2:13-17; 마 21:12-13;

승리하며 당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마 21; 요 12; 눅 9:9),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정복하고 승리했다(골 2:14-15; 창 3:15).

부활 이후에는 더욱 엄숙히 왕권을 수여받았으며, 마 28:18-20; 빌 2:8-11; 행 5:31; 행 2:36; 뱀전 1:21; 뱀전 3:18,21-22; 엡 1:20-23; 시 47:5-7; 시 24:7-10; 시 68:18; 시 110:1-7.

높은 지위에서 그는 신약 교회의 형식과 법을 제정했고, 요 20:21-22; 마 28:18-20; 행 1:3-4,8; 막 16:15-18; 고전 12:28-29; 고전 11:23-29; 엡 4:11-12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다스릴 것이다(마 28:20; 시 89:37; 삼상 7:13; 사 9:7; 고전 11:23,26).

마지막 날 그는 세상을 심판하고 그 후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시 50:2-6; 마 25:31-46; 계 20:11-15; 시 45:6-7; 시 89:37; 삼상 7:13; 단 2:44; 단 7:14,27; 눅 1:33; 사 9:7; 살전 4:17).

세상 끝에 그는 아버지께 자신의 시간대 통치 관리를 보고하고, 구속받은 모든 자를 온전한 성결과 행복 속에 제시하며, 현재의 통치 형태를 변화시키나(고전 15:24-28), 왕권은 영원히 유지된다.

그때 적들은 모두 정복되어 그의 발 아래 있기에 그를 폐위시킬 수 없으며(요 16:33; 골 2:15; 히 2:18; 사 25:8; 시 110:5-6; 고전 15:25),

그의 신민들도 그를 폐위하려 하지 않고(사 54:9-10; 사 61:10; 사 26:2; 렘 32:39-40),

그의 아버지조차 시도하지 않으며(시 45:6; 히 1:8; 시 89:3-4,28),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그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도 그가 구속한 영광을 누리는 동안 독특한 상급의 영예를 박탈당하지 않을 것이다.

### 그리스도의 중재자적 왕국의 구분과 통치 방식

그리스도의 중재자적 왕국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1. 권능의 왕국: 이 안에서 그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늘과 땅의 만물을 주관한다, 마 28:18; 마 11:27; 요 3:35; 요 5:22; 엡 1:20-22; 빌 2:9-11; 뱀전 3:22; 고전 15:25.—

다윗이 정복한 이방 민족들에 대한 통치는 이의 예표였다, 삼상 8:14; 삼상 22:44; 시 18:43-44.

2. 은혜의 왕국: 그 외적 형식은 사람들이 직분자와 명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함께 고백하고 예배하며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종종 사람들은 표면적으로만 그에게 복종하는 척하며 결국 쫓겨날 것이다, 시 18:44; 마 8:12; 마 13:47; 마 21:43.

내적 형식은 참된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남편이자 구주요 주님으로 영적으로 복종하며, 성령 안에서 의와 평화와 기쁨에 거하는 것이다, 눅 17:20-21; 사 44:3-5; 사 45:23; 롬 14:17; 빌 3:3; 딤후 2:14.

3. 영광의 왕국: 아버지의 왕국으로도 불리며, 구속된 자들에게 주어지고, 명령과 교회 직분이 폐지되며, 그리스도가 사람과 중재자로서 아버지께 보다 직접 복종하는 면이 드러난다, 마 25:34; 마 13:43; 고전 15:28.

그리스도가 그의 권능의 왕국을 다스리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천사와 사람, 모든 피조물을 임명하거나 세워 그의 교회, 특히 참 신자들이 군사적 상태에서 함께 유익을 이루도록 하는 것, 히 1:14; 시 34:7; 시 78:49; 롬 8:28; 뱀전 3:13.



2. 악한 천사들과 그 도구들의 시험과 박해를 허락하는 것, 고후 12:7; 엡 6:12; 살전 2:18; 계 2:10; 계 12-13; 계 20:7-9.

3. 그들의 분노와 증오를 그 열정, 기간, 결과 면에서 억제하고 제한하는 것, 계 2:10; 계 12:10,12; 계 20:1-3; 시 76:10.

4.

모든 시험과 그의 백성에 대한 괴로움을 그의 영광과 그들의 유익을 위해 돌이키심에 있어서, 시 76:10; 롬 8:28; 고후 4:17; 시 119:67, 71; 시 119:65; 히 12:10-11; 빌 1:12-14; 고전 11:19; 미 7:9, 14; 사 27:9.

5. 그의 적들과 그의 백성의 적들을 심판하고 벌하심에 있어서, 시 2:9; 시 21:8-12; 시 45:5; 시 72:9; 시 110:1, 5-6; 고후 15:25; 특히 그의 유대인 반대자들, 마 24:29-51; 마 21:44; 마 22:7; 로마 제국의 박해하는 이방인들, 계 6:12-17; 적그리스도적 가톨릭 신자들, 계 9; 계 11; 계 13; 계 14-19; 살후 2:8; 그리고 마지막 날의 모든 악한 천사들과 사람들, 살후 1:8-9; 계 14:11; 계 20:12-15; 마 25:31-46.

6. 그의 백성과 그의 이익에 우호적이었던 자들을 상으로 보상함에 있어서, 특히 마지막 날에 천사들을 가장 영광스럽게 사용하심, 마 25:31; 유 14; 살후 1:7; 그리고 이 하늘 아래 세상을 영광스럽게 새롭게 하심, 롬 8:21; 뱌후 3:13.

####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 다스림: 외적 형태

그리스도는 그의 은혜의 왕국을 외적인 형태로 다스린다.

1. 그의 교회를 초기 상태나 성숙한 상태로 세우고 보존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거나 더 엄숙한 여러 예배 제도를 제정하심, 창 4:4-5; 창 17:10-14; 출 12-40; 레 1-27; 민 3-6; 민 15; 민 17-19; 민 28-29; 신 4-32; 마 5-7; 마 10; 마 16:18-19; 마 18:15-20; 마 28:19-20; 막 16:15-18; 고전 11:23-29; 고전 14; 딤후 2-6; 딤후 1-3.

2. 그의 교회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이고 특별한 직분들을 세우며, 자격을 갖춘 자들을 파송하심, 대하 36:15; 히 1:1; 엡 4:11-14; 고전 12.

3. 그의 성령을 주시어, 일반적이고 특별한 영향력을 통해 그가 선포하는 진리를 따르게 하고, 그의 직분자들과 교리를 증명하며, 그의 백성들을 모으고 보존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의 규례와 법을 준수하게 하심, 사 32:15-18; 사 44:3-5; 사 59:21; 율 2:28-29; 요 16:7-14; 요 15:26-27; 요 14:16-17, 26; 요 7:37-39; 요 3:5-6, 8; 요 20:22; 겔 36:27; 잠 1:23; 행 1:5, 8; 행 2:1-47; 행 4:31; 히 2:4; 살전 1:5; 요일 2:20, 27.

4. 내적으로는 잘못된 교사들이나 불량한 신자들로, 외적으로는 공개적 박해자들로부터 교회가 파괴되지 않도록  
섭리적으로 보호하심, 속 2:5; 사 63:9; 계 6-7; 계 11-12; 계 14:1-5.

5. 유대인, 이방인, 적그리스도적 적들로부터 그의 교회를 확장하심, 시 110:2, 5-6; 단 2:44; 계 12:10; 계 11:15; 사  
49; 사 54-55; 미 4-5; 속 8-14; 속 2:11.

#### 그리스도의 은혜의 왕국 다스림: 내적 형태

그리고 그 왕국을 내적으로 다스리신다.

1. 그의 택한 자들을 능력 있게 부르시고, 그들의 상태와 본성을 변화시켜 그들을 자신께로 인도하시며, 이로써 그들을  
율법을 어긴 상태, 죄, 사탄, 세상,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심, 시 110:3; 시 22:27-31; 사 27:12-13; 사 44:3-5;  
사 45:24-25; 사 49:25-26; 롬 8:2; 롬 6:14; 롬 7:4; 요 3:5-6, 8; 요 5:25; 요 8:32, 36; 고전 6:11; 딤후 3:3-7; 골  
1:13; 벧전 1:2-3.

2. 복음으로 선포된 말씀과 그들의 마음에 그의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그들을 다스리시는데, 성령은 그들의 조명자,  
인도자, 생명 주는 자, 위로자임. 또한 여기에 종속되어 섭리를 통해 불순종을 징계하거나, 그들이 새롭게 행하는 믿음과  
회개에 따라 용서하심, 시 147:19; 시 119:11, 18; 요 14:16-17, 26; 요 15:26; 요 16:13-15; 갈 6:8; 갈 5:18, 22-  
23; 엡 5:9; 시 89:30-35; 시 94:12; 벧전 1:6-7; 미 7:14, 18-19; 시 119:67, 71; 시 99:8; 사 38:16; 사 44:22; 사  
57:17-19; 호 2:6-7, 14; 렘 31:18-27; 히 12:5-11; 계 3:19.

3. 그들을 율법의 위반으로 인한 파괴적인 영향과 죄, 사탄, 세상, 죽음의 재속박으로부터 보호하심, 골 3:3; 유 1; 벧전  
1:5; 요 10:28-29; 시 41; 사 46:4; 사 63:9; 사 25:8; 호 13:14; 히 2:15; 시 23:4.

#### 그리스도의 영광의 왕국 다스림

그리스도는 그의 영광의 왕국을 다스리신다.

1.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백성들에게 그 왕국에 대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권리를 주시고, 그 행복의 일부 맛을 미리  
경험하게 하심, 고후 5:1-7; 고후 12:1-6; 벧전 4:14; 벧전 1:8.

2. 그들의 죽음이 예정된 순간에 대비하여 하늘을 마련하시고, 또한 그들 자신도 준비시키심, 요 14:2.

3. 그들의 떠난 영혼들을 기꺼이 하늘의 처소로 들이심, 행 7:59; 눅 23:43; 눅 2:29; 벧후 1:11; 계 3:21; 계 14:13; 사  
57:2; 빌 1:21, 23.

4.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세상을 공의롭게 엄숙하게 마지막 날에 심판하심, 요 5:28-29; 단 12:2; 계 20:11-12; 마 25; 딤후 4:7-8; 딤후 2:13.
5. 교회나 국가에서 임시로 행사되던 모든 권력과 권위를 무너뜨려 만물을 하나님의 더 직접적인 다스림 아래 두심, 고전 15:24, 28.
6. 모든 구속받은 백성을 한 몸으로 그의 아버지께 완전한 거룩함과 행복으로 엄숙히 제시하심, 고전 15:24; 히 2:10, 13.
7. 천상에서 그 성도들을 끊임없이 다스리고 축복하시어 하나님을 온전히 즉각적으로 누리게 하심, 살전 4:17; 사 60:19-20; 고전 15:28.

## 반성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직무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속에 있거나 이를 위해 일하는 자들은 얼마나 복된가! — 그가 무한히 경이롭고 쾌적하며 강력하고 유익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그들의 마음을 밝히고 이끌며 새롭게 하고 황홀하게 하며 거룩하게 할 때, 그들은 얼마나 복된가! — 죄와 죄악의 더러움, 무능력, 그리고 기도에 대한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 죄를 속하는, 항상 효과적으로 중보하는 대제사장이 계심이 얼마나 복된가! — 그들은 얼마나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이며, 시온의 높은 곳에서 노래할 수 있는가, 마치 그들의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물 준 동산과 같을 때처럼! — 그의 백성은 얼마나 복된가, 그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며 자유의 완전한 법이고, 그의 통치는 지혜와 정의와 겸손과 친절로 가득한 사랑 그 자체임을! —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친히 가르치시기 전까지 감히 남을 가르치지 말아야 하며, 그의 보혈로 나를 씻기고, 그의 의로 나를 입히고, 그의 중보 사역에 온전히 참여하기 전까지 거룩한 것을 감히 다루지 말아야 한다. — 감히 예수님의 대사로 임명받기 전까지 내 마음속 적의를 정복하고 명백한 사명을 받아야 한다. — 만일 내 목회 사역이 오직 다섯 번째 갈비밀에서 내 구속자를 찌르는 것이거나, 율법적이고 생명 없는 설교, 또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행위로 그를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유다와 같은 일이라면, 하나님이 막으시길 바란다.

##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화의 상태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과 인간이신 그는 그의 두 상태인 겸손과 영화 상태 가운데 나타나며, 그의 직무들이 수행된다. 그는 반드시 먼저 겸손의 상태를 거쳐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야 했다. 첫째 상태에서는 그가 공로의 사역을 완성하였고, 마지막 상태에서는 영화로운 상을 받는다, 눅 24:26; 빌 2:6-11; 시 22; 사 53.

그가 단지 인성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무한한 겸손을 나타내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겸손의 일부로 보지 않으며, 그 인성은 영화 상태에서도 계속 유지된다, 행 3:21; 행 7:56; 계 1:7-18.

그러나 그는 최악되고 천한 혈통으로부터 육체를 취하시고, 낮고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잉태되고 출생하며, 생애를 보내고 죽고 장사되는 가운데 실질적으로 겸손을 경험하였다, 빌 2:6-8; 사 53:2-12; 시 22; 시 69; 마 12:40; 마 1 부터 요 19 까지.

이 겸손의 여러 국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점은, 그가 우리를 위한 보증인으로서 율법 아래에 놓여 그 모든 요구를 조금의 자비나 감면 없이 완전히 이루어야 했다는 것이다, 갈 4:4; 마 3:15; 마 5:17; 눅 24:26.

영원 전부터 그는 우리를 위한 빛을 지기로 작정하였지만, 단지 하나님이셨을 때는 율법이 그에게 빛을 요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인성을 취한 순간부터 율법이 그를 붙들어 그의 잉태를 종의 형상과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만들었고, 빌 2:7; 롬 8:3.

그는 사법 율법 아래에 있어 일찍이 다윗의 후손으로 등록되었으며, 제사 율법 아래 있었기에 초기 할례를 받고 성전에 봉헌되었고, 성스러운 축제에 참석하였으며, 나병 환자를 고친 뒤 그들에게 의식적 정결례를 행하도록 요구했다, 눅 2; 마 8:4; 눅 17:14.

그러나 그는 보다 직접적으로 도덕 율법 아래, 즉 깨어진 언약의 산하에 놓였으며, 이 산하 아래에서 택하신 자들을 본래 그러한 상태에서 구속하기 위해 그들을 대신해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구속하셨다, 롬 3:10-20; 롬 8:2-4; 롬 10:4; 롬 7:4; 롬 6:14; 갈 4:4-5.

그는 사법과 제사 율법 아래에도 있었지만, 이는 오직 도덕 율법에 접목되어 있을 때에 한한다.

1. 지고 높으신 하나님, 위대한 입법자이시고 만물의 주님께서 이 깨어진 율법의 명령 아래 두셔서, 완전하고 개인적이며 영구한 순종을 그에게 요구하였으며, 그 무한한 저주의 무게 아래 두셨다, 마 5:17-18; 마 3:15; 히 5:8; 요 8:29; 사 42:21; 단 9:24.

2. 무한히 행복하시고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은, 이 깨진 율법이 죄인들이 그의 대리인으로서 그에게 지운 저주 아래 두셨다, 갈 3:13.

이 저주는

1) 그를 법적 사망의 권세 아래 두었으며, 그의 겸손한 사역이 끝나 부활로 의롭다 함을 받을 때까지 그 권세 아래 붙들었다.

2) 저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치실 수 있는 모든 영역과 종류의 수단을 통해 그의 진노를 받게 하셨다.

그는 이 저주의 집행을 다음과 같이 받았다.

1. 그의 영혼에 있어서, 사 53:10. 그는 자주 시험받았으며, 마 4:1-11; 요 14:30; 히 2:17-18; 히 4:15; 자기에게 던져진 비난과 타인의 죄와 고통으로 인해 괴로워했고, 시 69:19-20; 시 22:6-7; 히 12:3; 막 3:5, 21; 마 11:19; 마 12:24; 마 26:59-74; 마 27:29, 39-49; 요 8:48, 52; 눅 19:41-42; 요 11:35; 아버지의 얼굴 가리심과 진노의 두려움과 임재로 인해 고통과 고뇌를 받았다, 마 27:46; 마 26:39; 눅 22:43; 히 5:7; 요 12:27; 시 22:1-2, 14, 21; 시 69:1-2.

2. 그의 몸에 있어서—할례, 눅 2:21; 고난, 막 6:3; 배고픔, 마 4:2; 목마름, 요 19:28; 피로, 요 4:6-7; 반복되는 죽음의 위험들, 마 2:16; 눅 4:18-29; 막 3:6-7; 눅 13:31; 요 5:16; 요 7:1, 32, 44; 요 8:59; 요 10:39; 요 11:53-54; 피 땀을 흘림, 눅 22:44; 체포와 결박, 마 26:50; 마 27:30; 비열한 자들의 침 뱉음, 사 50:6; 사 52:14; 마 26:67; 마 27:30; 매맞음, 채찍질, 머리카락 뽑힘, 사 50:6; 미 5:1; 마 26:67; 마 27:30; 요 19:1; 가시관 씌움과 피 흘린 몸에서 옷이 찢김, 마 27:29, 34-35; 요 19:2; 쓴 나무 술을 마심, 시 69:21; 마 27:34, 48; 그리고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광범위한 십자가형 죽음, 눅 23:28; 요 19:17; 시 22:17; 막 15:24-25.

3.

그의 평판에 관하여 그는 가장 심한 비난과 중상모략을 받았다(마 11:19; 마 12:24; 요 8:22,24,48,52; 요 7:20; 요 10:33; 막 3:7,21; 막 14:63-64; 시 49:19-20; 시 22:6), 가장 거짓된 비난을 받았으며(마 26:59-67; 마 27:12; 눅 23:2; 요 19:7), 가장 수치스러운 조롱을 받았다(시 22:6-8; 시 40:15; 시 69:7,12; 마 26:68; 마 27:47; 눅 15:2; 요 7:35).

#### 4. 그의 외적 처지에 관하여

그는 매우 타락한, 그러나 한때 왕가였던 가문에서 태어났다(사 11:1; 사 53:2). 신분이 낮은 여인에게서 잉태되었으며(눅 1:27-28), 악명 높고 악한 도시인 나사렛에서 자랐다(요 1:46; 요 7:52). 또한 보잘것없는 곳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미 5:2; 마 2:1-6), 마구간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우리 원래의 하나님 대신 짐승에게 귀 기울이고 계속 짐승을 따르는 본성을 징계하기 위함이다(눅 2:7). 그는 잠시 이집트 땅, 잔인한 속박의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였고(마 2:14-15), 타락한 나사렛에서 천한 목수로 오랫동안 거하며 노동하였다(마 2:23; 눅 2:51; 막 6:3). 특히 복음을 전하며 모든 병을 고치는 일을 할 때는 가난에 시달렸다(고후 8:9; 마 8:20; 눅 9:58; 시 69:29; 시 40:17).

## 5. 그의 신성은 어떠한 고난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그의 인격은 저주 아래 있었기에(갈 4:4; 갈 3:13) 신성의 영광은 죄 많은 육체의 모습을 통하여 감춰졌으며(롬 8:3), 인간성과 인격적으로 결합하여 고난에 계속 영향을 받았고, 이로 인해 가장 천한 경멸과 모욕에 노출되었다(행 20:28; 행 3:15; 고전 2:8; 시 22:6). 율법 언약의 깨어진 저주가 그에게 임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표적이 되었고, 사방으로부터 고난이 임하였다. 무한히 사랑하는 아버지는 우리를 대신한 보증인으로서 공의로써 심판관의 역할을 행하시면서 그를 버리셨고, 그의 얼굴을 숨기셨으며, 노하시며 직접 그리고 악마들, 사람들, 기타 피조물들을 도구로 삼아 그에게 정당한 형벌을 내렸다(사 53:2-12; 마 27:46; 눅 13:7; 요 18:11; 요 19:11; 행 2:23-24; 행 4:27-28). 저주로 인해 거룩한 천사들도 멀리 물러났고, 악마들은 이를 허락하고 권능받은 듯 그를 시험하고 괴롭혔다(마 4:1-11; 요 14:30). 사람들 중에서는 친족들이 그를 비난하고 배척하며 괴롭혔고(막 3:21; 요 7:1-10), 나사렛 이웃들은 그를 죽이려 시도하였으며(눅 4:28-29), 그의 청중들은 그의 말씀을 비난하고 욕되게 하였다(눅 11; 눅 14; 막 3; 막 5; 요 5-10). 제자들은 무지, 불신, 건방짐, 다툼, 야망, 무관심으로 그를 괴롭혔다(눅 5:8; 요 14:5-9; 요 16:31; 마 14:31; 마 16:22-23; 마 17:4,17; 눅 22:23,46).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가롯 유다는 가장 배신적인 방식으로 한 톨의 보상으로 그를 팔았다(시 41:9; 시 55:13-15; 시 109:4; 마 26:15,21,25,47-48). 가장 엄숙한 약속과 달리 베드로는 사소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그를 부인하며 저주하고 맹세하였다(마 26:33,35,69-74). 나머지 열 명은 그를 버리고 도망갔다(마 26:31,56; 요 16:32). 그의 공개적인 원수들은 모든 형태로 그를 박해하였다. 헤롯 1 세는 그의 유아가 때 그를 죽이려 시도했고, 베들레헴 근처의 모든 어린 남자아이를 죽였다. 헤롯 2 세 역시 그가 전도자로 있을 때 그를 죽이려 하였으며, 군인들과 함께 그를 학대하고 멸시하였다. 수년간 박해한 후 유대의 통치자,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를 체포하고 십자가 처형을 주도하며, 처형하는 동안 가장 천한 방법으로 모욕하고 학대하였다. 그 직전까지 그를 메시아로 열렬히 칭송했던 일반 민중은 가장 악명 높은 강도와 살인범을 그보다 더 선호하였고, 그의 십자가형을 요구하며 십자가 아래에서 그를 욕보였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그를 유죄 판결했고, 이교도 병사들은 그를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시 2:1-4; 시 22:6-21; 시 69:1-22; 마 2; 마 26-27; 눅 13:31-32; 눅 23:7-11; 막 3; 요 5; 요 7-8; 요 10-11; 요 18-19; 눅 22-23). 중상모략으로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를 무덤에 가두려 시도하였다(마 27:63-66).

## 그리스도의 겸손은 필수적이었다

1. 하나님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언약적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행 2:23-24; 행 4:27-28; 시 40:6-8).
2. 구약의 여러 예표와 예언들을 이룩하기 위함이었다(레 1-16; 민 15; 민 19; 민 28-29; 시 22; 시 69; 사 53; 눅 9:9; 눅 13:7). 아벨, 이삭, 야곱, 요셉, 욥, 모세, 다윗 그리고 모든 제물과 낫뱀 들기 사건은 이를 예표하였다(골 2:17; 히 10:1).

3. 깨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키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획득하기 위함이었다(사 53:4-6,8,10-12; 히 9:12,15; 히 10:10,14; 뱀전 1:18-19; 뱀전 2:24; 뱀전 3:18; 계 5:9).

4. 구속 받은 자들에게 고난 가운데서 흠 없는 거룩함과 인내의 본보기를 주기 위함이었다(뱀전 2:20-24; 엡 5:2,25).

### 성찰

내 지옥처럼 굳은 마음아, 벗어나라, 그리고 이 장대한 광경을 보라. 여호와와 진노 불꽃 속에서 타오르면서도 꺼지지 않는  
예수의 인간성 떨기나무를 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원한과 증오의 힘을 보라. 사람들이 이처럼 그의 독생자요  
구주를 미워하고, 욕하고, 죽였으니, 그의 가르침은 얼마나 교훈적이었으며, 그의 삶은 얼마나 덕망 있었으며, 그의 무수한  
기적들은 얼마나 은혜로웠는가! 이 끔찍한 형벌과 그 속에 드러난 죄의 악독한 본성을 보라! 물에 잠긴 세상, 불타는 소돔,  
재앙 당한 이집트, 열리는 지옥, 멸망받는 자들의 모든 고통이 무엇인가? 이것과 비교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았고, 영혼은 괴로워 말할 것도 모른 채 놀라고 무거웠으며, 죽음에 이르도록 슬펐고, 아버지의 얼굴이 가려진 채로  
울부짖으며, 진노의 무게로 신음하며 죽었다! 두려움 속에서 보라. 내가 만일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으로 남는다면,  
은혜 없는 설교자가 된다면 내 형편이 얼마나 심각할 것인가! 사탄과 세상, 그리고 내 자신 배신적인 마음에게  
배신당하였고, 뜨거운 율법에 고발되며, 매서운 죽음에 잡히고, 하나님께 정죄받고 무한한 진노의 표적이 되며, 사악한  
천사와 인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내 부주의한 사역, 육신적이거나 경솔한 교제와 불감한 본보기로 악인들을 지옥으로  
이끈 이들의 저주로 질책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 영혼이여, 들으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상처와 신음, 눈물, 피 한 방울  
한 방울로써 나를 불러와 구원하라 간청하고 계시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자신을 내어준 그분의 부르심을  
거절하거나 거역할 수 있겠는가! 보라! 내 모든 빛이 완전히 갇혀졌고, 내 행복이 사서,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확증되었다! 완전한 의, 끝난 범죄, 끝난 죄, 무효화된 저주, 정복된 죽음, 사라진 지옥, 성취되고 높임받으며 만족하는  
율법, 하나님과 결혼한 상태! 모두 내 위함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께 진 빛진 사랑을 얼마나 크게 갚아야 하는지  
보라! 내가 십분의 은 삼십에 팔린 그분을 천상의 수만 배보다 귀히 여기자. 한때 버림받았던 주님을 온 마음으로 붙들자. 세  
번 부인한 구속주를 담대히 고백하자. 머리 둘 곳 없던 그분을 내 마음과 영혼에 모시자. 최고로 찬양하며, 한때 멸시받고  
욕되었으나 이제 영광받으신 그리스도를 찬양하자. 내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자. 내가 너를 잊으면, 오 예수여! 내  
오른손이 솜씨를 잃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게 하소서! 그러나, 아, 나의 죄들이여! 수치스럽고 미운 십자가에 못 박혀  
멸망하라! 오히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이 아닌 더러운 이익을 위해 따르거나 전한다면 내 영혼이 미움과 혐오를  
받으리라!

## 그리스도의 극심한 겸손에도 불구하고 여러 존귀한 사정들이 수반되었다

1. 천사가 그의 탄생을 여러 차례 예고하였다(눅 1:26-36; 마 1:20-21).
2. 그의 선구자 요한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태중에서 그가 다가움을 느끼고 뛰었다(눅 1:41).
3. 많은 천사가 큰 찬송으로 그의 탄생을 선포하였다(눅 2:10-14).
4. 천사가 그가 사생아라는 의심을 막고, 유아 생명을 보호하여 보존하게 하였다(마 1:19-20; 마 2:13,19-20,22).
5. 그가 성전에 드러졌을 때 시므온과 안나는 신적 영감으로 그가 참된 메시아임을 선포하였다(눅 2:25-38).
6. 특이한 별이 동방 박사들을 그의 탄생지로 인도하여 경배하게 하였다(마 2:2,9-10).
7. 아직 어린 시절 그는 가장 박식한 율법학자들과 논쟁하였다(눅 2:40-50).
8. 아버지는 하늘의 음성으로 여러 차례 그의 신성한 아들 됨을 증언하였다(마 3:17; 마 17:5; 요 12:28).
9. 성령은 그의 세례 때 눈에 보이게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다(마 3:16; 요 1:33-34).
10. 요한은 여러 차례 그를 메시아로 선언하였다(요 1:29-36; 요 3:24-36; 마 3:11-14).
11. 광야에서 마흔 날 금식하며 사탄의 유혹을 이겼고, 천사들이 그를 돌보았다(마 4:1-11; 눅 4:1-10).
12. 그의 몸은 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화되었고, 두 영광 받은 성인 모세와 엘리야와 교제하였다(마 17:1-14; 눅 9:28-36).
13. 하늘의 음성이 임박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그를 격려하였다(요 12:27-29).
14. 고뇌 중에 천사가 나타나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였다(눅 22:43-44).
15. 십자가 처형 며칠 전 예루살렘에서 아이들과 무리가 엄숙하게 호산나를 외쳐 그를 메시아로 선포하였다(마 21; 요 12).
16. 그의 십자가 처형에는 초자연적인 어둠이 임하였다(마 27:45).
17. 빌라도 부인의 꿈이 그의 무죄를 증명하였다(마 27:19).
18. 빌라도는 그를 유죄 판결했으나 여러 차례 무죄를 선언하였으며, 십자가에는 세 차례나 그의 참된 메시아 됨을 확실히 표시하였다(요 18:38; 요 19:4; 눅 23:4,14-15,22; 마 27:23-24; 요 19:19-22).



19.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와 주변에 있던 백부장은 회개하며 공개적으로 그가 참된 메시아임을 인정하였다(눅 23:40-47; 마 27:51).

20. 그가 숨질 때 지진이 바위를 갈라놓았고, 성전 휘장과 예루살렘 주변 무덤들이 열렸다(마 27:51-52).

21.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그동안 숨기고 있던 그의 메시아 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새로 판 무덤에 그를 장사하였다(요 19:38-42; 사 53:9). 부자와 함께 무덤을 치고, 이전에 갈바리에서 악인들과 함께 장사되기로 정해진 곳이었다.

22. 그는 무덤에 머물러 율법의 형벌을 완전히 수행하였고(창 2:17; 창 3:19), 옛 예표와 예언을 성취하며 진실로 죽었음을 증명하였다. 성령은 그의 피 흘리고 상한 몸을 부패로부터 보호하였다(시 16:10; 행 2:27,31; 행 13:35,37).

23. 그의 원수들이 그를 무덤에 가두려 한 시도는 오히려 그의 부활을 더욱 영광스럽고 분명히 나타나게 하였다(마 27:66; 마 28:4,11).

24. 그의 놀라운 가르침과 설교, 대화가 있었다(마 5-7; 마 13; 마 20-25; 눅 4-21; 요 2-16).

25. 거의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기적이 있었다(마 4:25; 마 11:5; 마 14:35-36).

그의 기적들은 공개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졌으며, 그의 능력을 나타내었다. 즉, 마귀들에 대해서는 사람들로부터 그들을 몰아내고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여 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였다(사도행전 10:38; 마태복음 8:16; 9:33; 12:22-28 등).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를 잡으려 온 격분한 무리가 그의 말씀에 의해 뒤로 물러나게 하였으며(요한복음 18:6), 병에 대해서는 가장 만성적인 나병, 중풍, 수종, 열병, 혈루, 실명, 위축과 마비, 절름발이, 절단, 정신 이상 등을 고치셨다(누가복음 4:40; 마태복음 8 장; 마가복음 1-3 장; 5 장; 7 장; 9-10 장; 누가복음 14 장; 요한복음 5 장; 9 장). 죽음에 대해서는 아이로의 죽은 딸, 나인의 과부의 관 속 아들, 나사로(사흘 동안 죽어 묻힌 자)를 살리셨다(마가복음 5:36-42; 누가복음 7:11-15; 요한복음 11:38-44). 무정한 피조물에 대해서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마태복음 21:19), 떡과 물고기를 늘리셨으며(마태복음 14:15-21; 15:31-38), 그물을 가득 채운 물고기떼를 불러 모으셨고(누가복음 5:4-7; 요한복음 21:6-8), 조세를 낼 돈을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까지 준비하셨으며(마태복음 17:27), 바다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그 위를 걷게 하셨으며(마태복음 14:25-29), 말씀으로 무서운 폭풍을 진정시키셨다(마태복음 8:26; 14:32).

그가 행한 기적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행한 기적과 달랐다. 첫째, 그는 자신의 권능과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을 행하였으며(요한복음 5:17; 11:11), 그들은 그의 이름과 권능으로 기적을 행했다(사도행전 3:6-13; 4:11; 9:34). 둘째, 그의 기적 능력은 항구적이었으나, 그들의 능력은 기도에 의한 간헐적이고 제한적이었다(마태복음 4:25; 11:5; 열왕기상 17-18; 열왕기하 1-4; 사도행전 3 장). 셋째, 그는 이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었으나, 그들은 아무에게도 이 능력을 전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행한 기적을 통해 그는 다음과 같이 자신을 드러내었다. 첫째, 우리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나타내어, 자신의 신적 권능으로 기적을 이루되, 말씀이나 손길 등 인간성에 관련된 방식으로 이루었다(마태복음 7:33-34; 요한복음 9:6,17). 둘째, 자신 안에 참 메시아의 특출한 표징을 나타내었다(이사야 35:5-6; 29:18; 마태복음 11:5,7). 이는 700 년 넘게 성지에서, 약 600 년 이상 온 세상에서 기적이 없던 상황에서 그의 참 메시아 됨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또한 성전, 곧 하나님의 집에서 기적을 행한 이는 오직 그뿐이었다(마태복음 21:14). 셋째, 그의 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확증하였다(요한복음 5:36; 10:38; 14:11; 누가복음 11:20; 마태복음 12:28-29). 넷째, 모든 피조물 위에 있는 자신의 최고의 권세를 드러내었다(마태복음 28:18; 에베소서 1:21; 시편 24:1). 다섯째, 사람들에게 대한 그의 연민과 친절, 병 고침과 영혼의 필요 채우기를 향한 준비성을 증언하였다(요한복음 6:37; 누가복음 9:56).

그의 사적인 생애 동안에는 전혀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고, 부활 후에는 단 한 번만 행하셨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마귀들이 그의 기적 능력을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여 그들과의 어떠한 공모도 의심받지 않게 하셨다(마가복음 1:24-25). 고대 예언을 성취하고, 무리들의 성가신 군중을 피하며, 자신의 겸손을 나타내고, 유대인들을 시기적절하지 않은 음모로 이끌지 않고, 지나친 기적으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기 위해 간혹 고침을 받은 이들에게 이를 알리지 말라고 금지하시기도 하셨다(마태복음 8:4; 9:30; 12:16). 그러나 이방인들이 자신에게서 경험한 바를 알리는 것을 막지 않으셨는데, 이는 아마도 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실 것을 예표한 것이다.

##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 사이의 겸손과 영화

II. 구세주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그의 겸손과 영화가 결합되었다. 그의 겸손은 몸이 무덤에 누워 죽음의 권세 아래 있었으며, 영혼과 몸 사이의 연합이 끊어진 상태로 지속되었다. 그의 영화는 하늘의 처소에서 분리된 영혼의 행복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가 그곳에 갇음은 분명하다. 첫째, 그는 떠나는 영혼을 화목케 하신 아버지의 손에 맡겼다(누가복음 23:46). 둘째, 그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서 그가 죽은 바로 그날 회개한 강도의 영혼과 함께 있었다(누가복음 23:43). 셋째, 가톨릭

교회의 조상이나 유아의 림부스, 연옥은 완전한 허구이며,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넷째, 성경과 상식 모두 그가 죽은 후 영혼이 지옥으로 가는 어떠한 목적도 인정하지 않는다. 희생의 한 부분이 그의 죽음에서 완성되었으므로(요한복음 19:30; 히브리서 10:14),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다. 십자가에서 마귀 위에 승리하였으며, 부활과 승천으로 더욱 영광스럽게 승리할 예정이므로(골로새서 2:15; 시편 68:18), 그곳에 갈 필요가 없었다. 또한 영원히 은혜의 시기가 종료된 저주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이 없었으므로(히브리서 3:7,13-15; 누가복음 16:26).

오히려 그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시기는 노아의 시대였다. 그때 죄인들의 영혼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의 감옥에 있었고, 죽은 후 지옥의 감옥으로 갔다(베드로전서 3:19-20). ‘스올’ 또는 ‘하데스’라는 말은 때때로 저주받은 자의 장소를 의미하기도 하나(시편 9:17; 누가복음 16:23), 그보다 더 자주 무덤이나 죽은 자의 분리된 상태를 뜻한다(욥기 21:13; 창세기 37:35; 42:38; 열왕기상 2:6; 시편 141:7). 때때로, 끔찍한 타락과 고난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이사야 14:9,11,15,19-20; 시편 18:5; 116:3; 요나 2:2).

이제, ‘네페쉬(nephesh)’나 ‘프쉬케(psuche)’가 어떤 본문에서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몸 전체는(레위기 19:28; 21:1,11; 민수기 5:2; 누가복음 6:9) 스올 또는 하데스에 남겨진 것이 아니라, 죽음과 무덤에서 부활하였다(마가복음 16:6,9; 고린도전서 15:4,20). 또한 그의 영혼은 끔찍한 타락 상태에 남겨진 것이 아니며, 몸과 분리되지 않고 다시 연합되어 영광스럽게 높임받았다(시편 16:10). 그리스도가 내려간 땅의 낮은 부분은 하늘보다 낮은 이 세상이었으며, 그의 모태(자궁)도 포함된다(에베소서 4:9; 이사야 55:9; 시편 139:15). 무덤에서는 땅의 중심, 즉 마치 두로가 바다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해안 근처에 있는 것과 같았다(마태복음 12:40; 에스겔 26:4).

그리스도의 무결점 영화는 죽음에서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이 네 단계에서 그의 인격인 하나님 인간이 영화롭게 되었으나, 영광의 가증은 오직 그의 인성에 부여된다. 그의 겸손에서 인자로서 인격이 낮아진 것처럼, 영화 중에는 인자로서 인격이 높아졌다. 겸손 가운데 그의 신성의 영광은 인성의 고난에 가려졌으나, 영화 중에는 인성의 은혜를 통해 밝게 빛난다(빌립보서 2:6-11; 히브리서 2:8-10; 이사야 53:2-12; 52:13-15).

##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

I. 그리스도의 사흘째 되는 날의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복음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이었으며, 예언자들에 의해 예고되었다(요기 19:25; 시편 16:10-11; 22:19-21; 110:7; 이사야 53:8; 25:8; 55:3; 사도행전 13:34; 스가랴 3:8; 호세아 6:2). 또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사건, 요셉의 감옥에서 석방, 삼손이 가사의 문을 가져간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온 사건, 나병 환자의 산 새가 동료 피에 잠긴 뒤 날아간 사례, 속죄양의 제물 배출 등으로 상징되었으며(창세기 8; 41:14; 사사기 16:3; 다니엘 6:23; 레위기 14:6-7; 16:21-22), 이삭이 세 번째 날에 죽음에서 구원된 사건, 히스기야가 세 번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간 사건, 요나가 세 번째 날에 고래 배에서 나온 사건 등을 통해 상징되었다(창세기 22; 히브리서 11:19; 열왕기하 20:5; 요한복음 2:10; 1:17; 마태복음 12:40; 고린도전서 15:4).

이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여러 명백한 증거가 있다. 첫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지진이나 돌을 굴린 천사들로 인해 놀라 흩어졌고, 그날 예루살렘에서 그의 부활과 그와 관련된 기이한 일들을 알렸다. 그들의 유대 지도자들은 이를 부정하기 위하여 온갖 거짓말을 꾸며냈으나, 이는 극명한 허위였다(마태복음 28:11-15).

II. 거룩한 천사들이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그의 부활을 알렸다(마태복음 28:6-7).

III. 부활한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다(마태복음 27:53).

IV. 그리스도 자신이 열한두 차례에 걸쳐 여러 친구들에게 나타나 부활의 진실을 입증하였다.

1.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마가복음 16:9; 요한복음 20:11-18).

2.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자들에게(마태복음 28:9-10).

3. 엠마오로 가는 클레오파와 동반자에게(누가복음 24:13-31).

4. 시몬 베드로 혼자에게(누가복음 24:34; 고린도전서 15:5).

5. 예루살렘의 마감 방에서 열 명 사도에게(누가복음 24:36-48; 요한복음 20:19-23) — 모두 부활한 당일에.

6. 부활 후 8 일째에 열한 사도에게(고린도전서 15:5; 요한복음 20:26-29).

7. 티베리아스 호수에서 일곱 사도에게(요한복음 21:1-21).

8. 갈릴리 산에서 열한 사도에게(마태복음 28:16-20).

9. 한꺼번에 500 명 이상의 형제들에게(고린도전서 15:6).

10. 승천 직전 열한 사도에게(사도행전 1:4-11; 누가복음 24:49-51).

11. 야고보에게(고린도전서 15:7).

12. 승천 후에는 스테반에게(사도행전 7:56), 바울에게(고린도전서 9:1; 15:8; 사도행전 9:3-17), 그리고 밧모에서 요한에게 나타났다(요한계시록 1-3; 5; 10; 22).

V. 열두 사도는 수차례 그를 목격하고 긴 시간 교제한 후, 육적 이익과 반대되는 모든 여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그가 처형된 지 몇 주 만에, 그를 죽이려 했던 그 무리 앞에서 그의 부활을 가장 담대하고 확고하게 선포하였다. 그들의

적들이 가진 권력과 학문, 교활함, 분노, 악의로도 이들을 반박하지 못했고, 위협과 투옥, 살인만 행하였다(사도행전 2-8; 12 장).

VI. 성령은 사도들에게 기적적으로 임하여, 이들이 배우지 않은 언어로 설교하게 하고, 영을 분별하며, 기적을 행하게 하였으며, 그들의 증언이 가장 사악한 반대자들의 마음에도 놀랍도록 전파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하게 증언하였다(사도행전 2-6; 요한복음 14:16-17,26; 15:26; 16:7-14; 20:21; 사도행전 1:5-8).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세 위격의 협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였다.

1. 아버지께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는 특히 그에게 귀속된다(사도행전 2:24; 3:15-16; 4:10; 10:40; 17:31; 로마서 10:9; 6:4; 8:11; 베드로전서 1:21; 에베소서 1:20; 히브리서 13:20). 이에 따라 그는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받고, 낮은 종의 섬김 때처럼 영화로운 보상을 받았다(디모데전서 3:16; 히브리서 5:4-5). 또한 택자를 위하여 자신의 완전한 만족을 선언하고 머리로서 정당함을 확증하기 위해 천사가 무덤을 열게 하였다(이사야 53:8; 마태복음 28:2).

2. 아들에 의해 이루어졌다(요한복음 2:19; 10:17-18; 로마서 1:4; 베드로전서 3:18; 요한복음 5:21; 11:25).

3. 성령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로 인해 성령은 아마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생명의 영이라 불린다(로마서 8:2,11; 6:4).

아버지는 완전한 만족을 이룬 심판관으로서 그를 옥에서 풀어주셨고, 아들은 자신의 겸손한 사역을 완성한 뒤 영혼과 몸을 재연합시켜 인격에 계속 연합시켰으며, 성령은 그들 모두 안에 거하여 그들의 자연스러운 연합을 회복시켰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그가 죽기 전 가졌던 바로 그 몸이 본질적 모든 특성을 지니고 다시 일어났다(누가복음 24:39; 요한복음 20:20,27).

2. 그는 주간 첫째 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였으며, 이는 그가 새벽의 념, 아침별, 위로부터 오는 빛, 의의 해임을 상징한다(시편 22 제목; 요한계시록 2:28; 22:16; 누가복음 1:78; 말라기 4:2; 마태복음 28:1; 마가복음 16:9; 창세기 1:5).

3. 그는 육일째 일부분과 일곱째 날 전체, 그리고 첫째 날 일부 동안 죽음에 누워 있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였다(마태복음 12:40; 고린도전서 15:4). 부활이 너무 이르면 죽음의 실재가 의심받을 수 있고, 너무 늦으면 추종자들이 절망하며 부활 소식이 시기적절하게 전파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4.

그는 매우 신중하게 다시 살아나셨다. 이는 그의 몸이 도둑맞지 않았으며 다시는 죽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무덤옷을 단정하게 모아 잘 놓아두셨다(요 20:5-7).

5. 그는 거룩하고 엄숙하게 부활하셨다. 지진이 땅을 흔들었고, 천사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치웠으며 돌 위에 앉았다. 두 천사는 그의 무덤에 머물렀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와 함께 일어나 아마도 그의 전령으로 하늘에 올라갔다(마 28:2; 마 27:53; 막 16:4-6; 요 20:12).

6. 그는 택하신 세상을 대표하는 공적 인물로서 부활하셨으며, 부활하심으로서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빛을 완전히 탕감받고 그들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취득하였다(롬 4:25; 엡 2:6).

7. 그는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 부활하셨다(롬 6:9; 골 1:18; 고전 15:23,37-38). 그리고 한때 제자들과 식사하기도 하였으나, 그때는 자연적인 식욕이 아니라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기 위함이었다(눅 24:42-43; 행 10:41).

## II.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인간성으로 하늘에 오르셨다

예녹과 엘리야가 혼과 몸을 함께 하늘로 옮긴 것,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다니엘의 고난과 위험 이후의 높임, 제사장들이 성막 또는 성전의 지성소에 의식용 궤를 놓은 일, 그리고 피와 향을 성소나 지성소에 가져간 일은 모두 이를 예표하였다(창 5:24; 왕하 2:11; 히 11:5; 창 37-48; 출 2-신 34; 수 1-24; 삼상 16-30; 삼하 1-24; 대상 11-29; 단 6; 출 40:21; 출 30:7-8; 왕상 8:8-10; 레 4:7,18; 레 16:12-16)—또한 선지자들도 예언하였다(시 24:7-10; 시 47:5-6; 시 68:18; 미 2:13; 시 8:1; 겔 1:26-27; 겔 10:18; 뵤전 3:22).

1. 제자들은 그가 하늘로 오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행 1:9-10).
2. 두 거룩한 천사가 그가 하늘로 오르심을 증언하였다(행 1:11).
3. 스테반, 바울, 요한이 그의 승천 후의 상태를 보았다(행 7:55-56; 행 9:3-4,17; 행 22:6-21; 계 1:10-19; 계 5:6; 계 12:5).
4. 놀라운 성령 강림과 그 영향은 그가 승천하셨음을 입증하였다(요 16:7-14; 행 2:33).
5. 유대 민족의 끔찍한 멸망과 흠여짐은 그의 승천에 대한 확고한 증거이다(마 26:64; 요 8:21).

그리고 이 승천에서,

1. 그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시고, 그를 택하신 자들을 위한 올곧은 의의 완전한 성취자로 드러내시려 하늘로 올리셨다(빌 2:9; 눅 24:51; 행 1:11,22; 행 2:33; 행 5:31; 엡 1:20; 뤡전 3:16; 뵤전 1:21).
2.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그의 백성을 위해 구매하신 영광을 더하심에 있어 하늘로 올라가셨다(요 20:17; 엡 4:8-10; 요 14:2-3,28; 요 16:7,28; 행 1:10-11; 막 16:19; 시 47:5; 시 68:18).

그리스도의 승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관찰할 수 있다.

1. 그는 부활 후 사십 일 만에 승천하였다. 부활 후 여러 날 동안 지상에 머무르신 것은, 추종자들에게 여러 차례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고(행 1:3), 제자들에게 구약 의식 폐지와 신약 교회의 형식, 질서, 예배에 관해 충분히 가르치기 위함이었다(행 1:3; 막 16:15-18; 마 28:18-20). 또한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며, 그의 영광스러운 영생 탄생과 하늘 성전 입성 사이에, 겸손한 탄생과 유대 성전 출현 사이의 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두었다.



그리고 그의 물세례와 신성한 아들임의 증언, 공적 사역 시작 사이에 시간차를 두셨는데(마 3:14-17; 마 4:1-17), 이 기간들은 아마도 모세와 엘리야의 긴 금식을 상징한다.

2. 그는 감람산에서 승천했는데, 아마도 고난 중 혈투를 겪은 바로 그 장소였을 것이다.—그곳에서 자신의 권능을 나타내며 인간의 약함이 가장 두드러졌던 곳, 그리고 어둠의 세력과의 치열한 대결에서 승리한 승리자로 떠났다(행 1:12; 눅 24:50).

3. 그는 제자들에게 엄숙히 축복하던 중 떠나셨는데, 이는 그가 지상에서의 구속 사역을 마지막 순간까지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그는 참으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아브라함의 진정한 씨임을 나타내며, 축복을 남기고도 여전히 더 많은 축복을 베풀 것을 예고한다(행 1:9; 눅 24:52).

4. 무수한 천사들이 찬양과 환호 속에 그를 수행하였다(시 68:17; 시 47:5-6; 단 7:9-14).

5. 그의 승천은 그가 악마를 포로로 삼아 이기고, 죄인들을 위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증진하고 확보함을 의미한다(시 68:18).

### III. 하늘로 승천하신 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는 가장 영예로운 지위이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의미한다(고전 15:27; 시 110:1,5; 히 1:3; 히 4:14; 히 8:1; 빌 2:9; 사 52:13; 엡 1:20-21; 뱀전 3:22).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겸손한 섬김에 따른 보상으로 그를 오른편에 앉히셨고(엡 1:20; 행 2:31,33), 그리스도 자신도 영광스러운 상을 차지하며 그 자리에 앉으셨다(막 16:19; 히 1:3; 히 8:1; 속 6:13). 그의 오른편에 앉으심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그의 인간성에 이룰 수 없는 영광과 행복이 충만히 임한 것(행 2; 시 16:11).

2. 주인의 특권으로서 앉는 존귀한 위치를 취한 것이다. 주인은 앉는 자이며(단 7:9; 왕상 2:19; 에스 1:13; 욥 29:25), 종은 서 있는 자이다(왕상 17:1; 단 7:16; 속 3:7; 시 134:1; 잠 22:29). 따라서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쓴 우리의 중보자로서 앉아 계시지만, 행동과 도움, 내주를 위하여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 오른편에서 서 계신 모습으로도 묘사된다.—또 가난한 자의 오른편, 혹은 너희 마음의 문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그려진다(행 7:55-56; 시 109:31; 계 3:20).

3. 완료된 사역 후의 충만한 안식이다(히 4:10; 시 110:1; 미 4:4).

4. 그의 사법적이며 왕권적인 권세와 권능이다(마 19:28; 눅 6:13).

5. 그의 행복과 존귀, 안식과 권위가 영원히 변치 않고 지속됨이다(고전 15:25; 시 110:1,5; 시 45:6; 히 1:8).

#### IV.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의 세상 심판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의 세상 심판은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신 것보다 더 높은 단계의 높임이 아니며, 어떤 이들은 이를 포함시킨다. 그러나 이는 그의 영광을 더 공적이고 엄숙하게 나타내는 것이며, 우리는 그 준비, 심판 그 자체, 그리고 판결 집행으로 나누어 고찰할 수 있다.

I. 최후 심판 준비에는 그리스도의 직접 출현, 죽은 자의 부활, 심판 대상자들의 소집과 분리가 포함된다.

1. 그리스도는 자신의 영광과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가장 영예롭게 나타나며,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크고 흰 보좌를 세운다.—그리고 두렵고 엄숙하게 모든 사람이 심판석에 나올 것을 명한다(계 1:7; 계 20:11-12; 마 24:24,29-31; 마 26:64; 요 5:28; 살전 4:15; 살후 1:7-10; 시 50:1-6).

2.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일어난다. 이는 죽은 동안 몸의 주요한 모든 입자가 보존되고 영혼은 생명 유지됨을 전제로 한다.—이것은 이 입자들이 각자의 영혼이 거할 새로운 몸으로 다시 형성되고, 그 영혼들이 새 몸과 재결합되어 인간 생명이 회복되는 것을 포함한다.—모든 인류의 죽은 자가 이렇게 부활한다.

1. 자연에는 이 부활을 암시하는 여러 상징이 있다. 밤 뒤에 낮이 오고, 겨울에 겉보기에는 죽은 듯 보이는 식물들, 뱀, 제비, 기타 동물들이 봄에 다시 살아나며, 인간과 짐승 모두가 잠에서 깨어난다.

2. 이성 은 하나님 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이 입자를 보존하고 인체로 다시 형성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 준다.—또한 이성 은 인간이 생전에 행한 바에 따라 이 생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 반드시 미래에 보상이 있는 상태가 존재해야 하며, 그곳에서 영혼과 함께 선악에 참여했던 몸도 감각적 행복 또는 고통을 맛보야 함을 분명히 시사한다(전 3:16-17).

3.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요구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몸을 입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므로, 우리의 몸도 그 형제적 은혜에 영원히 참여해야 한다.—그분이 몸과 영혼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의를 이루셨기에, 우리 몸도 죽음에서 해방되고 그분이 구매하신 영생에 참여해야 한다.—우리 몸이 언약의 표를 적절히 받은 것이라면, 그 안에

봉인된 영원한 행복도 누려야 한다.—우리 몸이 그리스도와 그의 영의 전실이며, 그분의 피로 씻겼다면, 영원한 파멸에 머물지 않는다(히 2:11-15; 히 10:5,22; 마 26-27; 마 28:19; 고전 10:16-17; 고전 11:24-26; 고전 6:19-20; 롬 8:11).

4.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죽은 자 부활의 담보를 주셨다.—사렙다 과부의 아들 부활(왕상 17:21), 순남 여인의 아들 부활(왕하 4:35), 엘리사 무덤에 던져졌던 자 부활(왕하 13:21), 야이로 딸 부활(눅 9:49-56), 나인의 과부 아들 부활(눅 7:15), 나사로 부활(요 11:44), 그리스도 부활 시의 많은 성도 부활(마 27:53), 도르가 부활(행 9:40), 에우티쿠스 부활(행 20:10)—특히 그리스도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고전 15:13-28; 골 1:18; 고후 4:14; 살전 4:14; 롬 8:11; 벤티전 1:3; 계 1:5).

5. 성경은 선악 모두의 미래 총체적 부활을 풍부히 증거한다(출 3:6; 마 22:31-32; 신 32:39; 삼상 2:6; 욥 19:25-27; (욥의 말씀은 단지 일시적 구원을 의미하기엔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으며 욥 자신도 그러한 희망은 갖지 않았다(욥 6:8-9,11; 욥 7:7-8; 욥 10:20,29; 욥 6:22; 욥 17:1,15; 욥 19:10)); 시 16:11; 시 17:15; 사 25:8; 사 26:19; 단 12:2; 호 13:14; 눅 14:14; 요 5:28-29; 요 6:39-40,44,54; 요 11:24-26; 요 14:19; 행 4:2; 행 17:18,31; 행 23:6; 행 24:15; 행 26:8; 고전 6:14; 고전 15; 고후 1:9; 고후 4:14; 살전 4:14-16; 딤후 4:1; 히 6:2; 계 20:12; 겔 37:1-14). 눅 14:14; 눅 20:26; 고전 15:23; 빌 3:11; 요 6:39-47; 살전 4:14에서는 악인이 행복한 부활에서 제외되나 고통스러운 생명 회복에서는 제외되지 않는다.—모든 사람이 같은 마지막 날에 부활하지만, 의인과 순교자는 먼저 부활한다.—그리고 같은 인간의 몸이 그 핵심 부분 모두로 다시 일어난다.

1. 같은 몸이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가 될 것이다.

2. 하나님의 공의는 선악의 행위에 참여한 같은 몸이 각각 상벌을 받도록 요구한다.

3. 부활의 모범이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혼과 다시 결합하셨다(요 20:20,26-27; 눅 24:39; 롬 8:11).

4. 죽어 잠든 바로 그 같은 몸이, 한때 죽고 부패하며 약하고 수치스러웠으며 무덤에 누워 벌레에 먹혔던 바로 그 몸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단 12:2; 고전 15:42-54; 빌 3:21; 요 5:28-29; 욥 19:25-27).

어떤 입자의 혼합도 동일한 몸을 부활시키는 일을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지혜, 능력에 어렵게 하지 못하며, 아마도 인간 몸의 본질적 입자는 다른 어떤 동물의 몸과 결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부활된 몸은 이제와는 매우 다른 속성을 지니며, 영원한 상태의 행복이나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적합하게 될 것이다(고전 15:42-44, 52, 54; 고전 6:13).

3. 의인과 악인은 천사들에 의해 완전히 분리될 것이니, 의인은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악인은 아마도 그들의 가장 두렵한 범죄에 따라 분류되어 땅에 모여 있을 것이다(계 20:12; 살전 4:17; 마 13:41, 49; 마 24:31; 마 25:32-33).

## II. 모든 인류에 대한 일반 심판의 준비와 실현

1.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의 행위에 따라 벌하거나 상을 주지 않으시는 점은 장차 있을 미래의 일반 심판의 확실성을 강하게 시사한다(전 3:16-17; 살후 1:6-8).

2. 이방인의 양심이 미래의 심판을 시사하는데(롬 2:15), 여기에서 에악스, 미노스, 라다만투스가 다른 세계에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전설이 유래한다.

3. 성경은 미래의 일반 심판의 실재를 풍부히 증언한다(시 50:1-6; 96:11-13; 98:7-9; 전 12:14; 유 14-15; 행 17:31; 마 12:32, 36-37; 13:41; 16:27; 26; 롬 14:10; 고후 5:10; 딤후 4:1; 계 20:11-15; 요 5:27-29; 히 6:2). 사람들을 늘 깨어 있고 일반 심판을 위해 준비하게 하기 위하여, 심판에서 그들의 속성과 행위가 철저히 시험되며 영원한 행복과 불행이 공개적으로 결정됨에도 하나님은 정확한 그 때를 완전히 숨기셨다(막 13:32-38).

그러나 유대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파괴적 진노와 로마 제국의 이방 박해, 적그리스도 및 고그와 마곡에 대한 진노는 그 전주곡이다(시 21:8-12; 110:5-6; 마 24:29-51).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그리스도께 회심하고 그의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것은 이보다 더욱 즐거운 전조이다(살후 2:11-13; 계 11; 16-20; 롬 11).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할 것이며(전 12:14; 시 50:6; 롬 2:15-16), 그리스도 하나님이니면서 인간이신 분이 하나님의 중재 대리자로서 이 일을 즉시 담당하실 것이다(마 25:31-46; 19:28; 요 5:22; 행 17:31; 10:42; 롬 2:16; 14:10; 고전 4:4-5; 고후 5:10; 살전 4:16; 살후 1:7-9; 딤후 4:1; 계 1:7). 이를 통해 그가

받은 치욕은 공개적으로 씻겨지고, 원수들에 대한 그의 승리가 나타나며(계 1:7; 마 26:64), 사람들이 가장 엄한 상황에서도 자신이 타인들을 심판하는 율법을 완성한 분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계 1:7; 마 3:15; 5:17-18; 눅 24:26; 갈 4:4; 3:13; 요 8:29; 사 42:21).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도와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으나, 다른 이들을 심판한다. 첫째,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이미 그 안에서 부활하여 함께 앉아 있다(엡 2:6). 둘째, 그들의 선행은, 특히 마지막 심판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될 때 악마와 사람의 사악함을 해석적으로 정죄한다. 셋째, 그들은 아마도 엄숙한 함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악한 천사와 사람들에게 내릴 판결을 승인할 것이다(고전 6:2-3).

사도들이 열두 보좌에 앉아 열두 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들이 가르친 교리와 법에 따라 심판받으며, 땅에 있을 때 교회에서 누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최고의 교제를 누리게 됨을 뜻한다(마 19:28).

### 그리스도의 심판의 대상과 절차

그리스도는 다음을 심판할 것이다.

1. 모든 악마들(유 6; 벡후 2:4; 마 25:41; 8:29), 그리고 모든 사람, 선악 모두(고후 5:10; 계 20:12; 행 10:42; 딤후 4:1). 그러나 신자들은 정죄의 심판에 들지 아니한다(요 3:18; 5:24; 롬 8:1, 33-34). 악한 자들도 심판에서 서지 않으며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한다(시 1:5).

2. 이 악마들과 사람들의 모든 성품, 생각, 말, 행위(고전 4:5; 롬 2:15-16; 마 12:36-37; 고후 5:10; 전 12:14; 마 25:34-45)를 심판하시면서, 그리스도는 원인을 조사하고 판결을 선포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심판에서의 원인 심리는 다음과 같다.

1. 매우 쉬울 것이다. 판사가 무한한 지식, 지혜, 능력, 공정성, 위엄을 지녔으며, 심판받는 자들의 양심이 온전히 깨어 있고 공정하여 모든 고발을 기꺼이 증명하기 때문이다(고전 4:5; 히 4:13; 롬 2:15; 요일 3:20-21).

2. 매우 정확할 것이다. 마치 책이 펼쳐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모든 자질, 생각, 말, 행위에 관한 완전한 기억의 책(시 139:16; 56:8; 말 3:16), 법이 심판의 기준이며 모든 자질, 생각, 말, 행위를 신성하게 기록한 사람들의 양심의 책(롬 2:15-16; 요일 3:20-21; 행 24:16; 고후 1:12), 심판이 이 선언에 따라 진행될 성경의 책(심판받는 자는 이를 근거로 심판받고, 그렇지 않은 자는 자연법에 의해 심판받음(롬 2:12; 눅 12:47-48)),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의 책(선택의 목적에 발견되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고 은혜가 심겨져 영원한 행복에 판결받으며, 그렇지 않은 자는 지옥에 징죄받음(계 20:12; 22:12))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

3. 매우 공개적이다. 모든 천사와 사람이 모든 심판 과정을 목격하거나 참여하니, 이로 인해 하나님이 이생이나 죽음에서 사람을 심판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계 20:11-12; 마 25:31-45).

4. 매우 질서정연하다. 의인이 먼저 심판받으며 이는 그들이 먼저 부활한 자들이고 다른 이들의 심판에 엄숙히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이 자비와 은총의 행위를 진노보다 더 기뻐하심을 보이기 위함이다(마 25:34-45).

5. 매우 엄숙하다. 상상할 수 없는 위엄과 장엄함으로 행해진다(계 20:11-12; 1:7; 살후 1:7; 마 25:34-45).

이 심리의 결과로 선고되는 판결은 무한히 공정하고 적절하며, 각자는 법에서 재는 자기 행위의 본성이나 자격에 따라 판결받는다(계 20:12; 22:12; 롬 14:12; 고후 5:10; 마 12:36-37).

악인들은 그 본성과 행위의 죄성 때문에 징죄받으며, 특히 가난한 성도들에게 무정함으로 징죄받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멸시하고 미워함을 드러낸 것이다(마 25:41-45).

신자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대신하여 율법을 성취한 공로로 영생에 판결받으며(롬 8:34; 빌 3:9), 판결은 그들의 은혜로운 자질과 행위의 본성에 부합하지만 그 공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특히 가난한 성도에 대한 친절은 공개적으로 언급되어,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님의 자녀 된 관계, 은혜로운 상속자 됨, 그리고 천국을 부지런히 구함을 나타낸다(마 25:34-40).

그러나 그들의 죄가 마지막 심판에서 공개적으로 언급될지는 명확하지 않다.

한편으로,

1. 그들의 어느 죄도 심판 절차에서 언급되지 않는다(마 25:34-40).
2.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를 자기 등 뒤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신다(사 38:17; 43:25; 미 7:18; 렘 31:34; 5:20).
3. 그들의 심판자이자 화목 제사이며 변호자인 그리스도는 그들의 죄를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롬 4:25; 요일 2:1-2; 잠 10:12; 17:9).
4. 죄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부끄러움으로 그들을 괴롭게 하며, 흠 없고 주름 없는 상태로 그들을 제시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다(엡 5:27).

반면에,

1. 사람의 모든 행위는 선악을 막론하고 심판에 넘겨진다(전 12:14; 고후 5:10).

2. 하나님의 공의는 양측 주장이 제시되고 청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창 18:25).
3. 그들의 많은 죄가 성경에 공개적으로 지적되어 있다.
4. 죄의 공개적 언급은 그리스도의 피의 의롭다 하심을 명료하게 드러낼 것이다(행 13:39).
5. 그들의 많은 죄가 악인들의 죄와 연결되어 있어 하나를 언급하지 않고는 다른 하나도 말할 수 없다.
6.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난다는 믿음은 이 생에서 신중하게 살도록 크게 유용할 수 있다.
7. 그 죄의 공개적 언급이 그들에게 불쾌한 수치심이나 혼란을 주지 않으니, 위안과 영광은 그들의 무죄가 아니라 예수와 그의 의이기 때문이다(엡 1:7).

### III. 일반 심판의 결정과 그리스도의 영화로움

III. 이 판결은 즉시 집행되어, 악인은 영원한 형벌로 떠나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마 25:46; 살후 1:8-10; 단 12:2; 요 5:28-29; 계 20:13-15; 살전 4:17; 롬 2:6-10; 사 3:10-11).

거룩한 천사들이 악인을 지옥으로 몰아내고 성도들을 영광스럽게 하늘로 인도하는 동안(마 13:41-42, 49-50), 이 하늘 아래 세상은 전 우주적 불로써 모든 죄의 결과에서 정화되고, 그 현재의 모습은 매우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욥 14:12; 시 102:26-27; 사 65:17-18; 66:22; 계 20:12-15; 21-22; 벧후 3:7-13; 롬 8:19-21).



그리스도의 영화로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

## I. 그의 아버지에 관한 측면에서

1. 중재자로서 그에게 합당한 상과 약속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그의 신실함과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시 19:11; 사 53:10-12; 52:13; 시 21; 22:27-31; 사 9:6-7; 40:9-10; 49:1-12).
2. 마음속 사랑받는 자로서 그를 택하신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그 높은 명예와 친밀한 교제를 무한히 기뻐하는 분임을 보이기 위함이다(사 51:13; 42:1; 마 3:17; 17:5; 시 91:14-16).
3. 지극히 높으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너무나 높아 하나님의 인간 중재자가 여전히 그분께 복종하는 상태임을 보이기 위함이다(요 20:17; 고전 15:27-28).
4.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자신의 아들과 인격적으로 연합해 인간 본성을 영화롭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상태에 맞게 바라보고 받으며 경배하게 하려 함이다. 따라서 그의 영화로움은 선물로 표현되기도 한다(빌 2:9).

## II.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측면에서

1. 눈부시게 겸손한 이후 그의 영예가 온전히 확립되고 두드러지게 하기 위함이다(요 17:5).
2. 그의 인성은 신성과 인격 연합으로 큰 영광을 누릴 권리가 있음에도, 겸손한 봉사의 대가로서 그의 대속의 완전성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심의 공적이고 영원한 표지로서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사 49:3-4; 40:10; 53:10-12; 빌 2:6-11; 요 16:10).

3. 새 언약 집행에서 명예롭게 세 직분을 수행하고 영생을 차지하며 백성을 위한 천국을 준비하고, 중보자 되심과 말씀, 성령으로 그들을 준비시키며 마침내 온 세상 앞에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요 14:2-3, 19; 히 6:20).

4. 교활하고 불화하는 내적 원수들을 효과적으로 정복·억제·멸망시키고 승리하기 위함이다(시 21:8-12; 68:18, 21; 110:1, 5-6; 고전 15:25).

5. 옛 언약의 그림자와 예언이 성취됨을 통해 참된 약속의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다(고전 15:4; 눅 24:26-27; 히 8:4).

### III. 그리스도의 택하신 자를 위하여

1.

그의 부활에서 그는 그들의 생명 있는 신비적 지체로서 자신과의 연합을 확보하였고, 그들의 의로움을 확보하여 그들의 이름으로 엄숙한 면책과 수락을 받았다(딤후 3:16; 롬 4:25). 또한 그들의 거듭남과 성화를 확보하였다(골 2:11-12; 골 3:1; 엡 2:5-6; 롬 6:4-6; 빌 3:10; 갈 2:20). 그리고 그들의 영생을 위한 부활을 확보하였다(살전 4:14; 고전 15:12-13, 22-23; 골 3:3-4; 롬 8:11, 13, 29). 그의 승천에서 그는 그들의 이름으로 하늘을 점령하였고,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준비하며,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 주시고, 자신이 떠난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그들의 정동(affections)을 떼어내어 그가 계신 위의 것들로 그들을 끌어당기신다(요 14:2-3; 고후 5:5; 요 16:7; 요 12:32; 골 3:1-2). 그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그들의 관계적 영화이며, 때가 이르면 그들의 높임을 확보한다(엡 1:20-23; 계 3:21). 이는 그들의 행복을 완성하기 위한 그의 중보의 영구적 효력을 나타내며, 그들의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장한다(히 1:3; 히 8:1-2; 고전 15:24; 시 2:4; 시 97:1-5). 그에게 거룩한 경외심을 가르치고(시 2:12; 시 45:11; 계 1:13-17), 그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마음을 그에게 내어 보이는 준비 태도(시 24:7-10), 세상적인 것에 대한 경멸과 그들의 머리아시며 가장 높이 올라가신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늘의 것들에 대한 존중과 간절한 열망을 가르친다(엡 1:18-20). 그의 심판 때에 그는 그들에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워 줄 것이며, 성령의 비밀스러운 사면과 위로 및 증언 대신에 모든 천사와 사람 앞에서 그들을 자신과 그의 아버지의 의로운 사랑받는 자녀이자 양자로 공개 선포할 것이다.

성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토록 높이셨다면, 왜 내 마음속에 그보다 더 높은, 훨씬 더 높은 위치가 없는가? 왜 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를 높이는 데 합치되지 않는가? 왜 내 모든 삶과 대화가 천국에 있지 않은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끊임없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곳에? 왜 나는 항상 불경건과 세속적 정욕을 부인하며, 이 현재 세상에서 절제 있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며, 위대하신 구원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함을 바라지 않는가?

#### 제 5 권 은혜 언약의 주요 복들에 관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 의롭다 하심; 양자됨; 성화; 영적 위로 및 영원한 영화

##### 그리스도와의 연합 및 효과적 부르심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그의 겸손을 통해 취하고 그의 높임 안에서 베푸시는 일반적 유익은 우리의 구속 또는 구원으로, 이는 깨어진 율법과 죄, 사탄, 세상, 죽음, 지옥으로부터의 온전한 해방과 은혜와 영광에 대한 완전한 권리와 영원한 소유를 포함한다. 즉,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영적 상태 변화와, 그의 피를 통한 의롭다 하심과 그의 가족으로의 양자됨이며, 이는 첫 순간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또한 거듭남, 성화, 위로, 영원한 영광에서의 본성 및 상태 변화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롬 8:30).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구속을 사신 것은, 그 구속의 효과적 적용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유익하다.

1. 유형적 표상들이 이를 증명한다. 정결의 물은 부러지지 않으면 율법의 오염을 제거하지 못하며, 피와 물의 혼합도 나병환자의 살에 바르지 않으면 정결하게 하지 못했다(민 19; 레 11; 15-16; 14; 뱀전 1:3; 히 10:22; 12:24).

2. 옷(롬 13:14; 사 61:10), 음식(요 6:53; 사 25:6), 약(사 53:5; 계 22:2) 등 그리스도와 그의 복을 상징하는 표현도, 적용되지 않으면 유익하지 않음을 증명한다. 복음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자신과 그의 복을 사람들에게 넘겨 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창 17:7-8; 사 25:6; 55:2-3; 행 13:34; 겔 36:25-27).

3. 만약 이 적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면, 구속의 값어치가 무한하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합하므로 만인의 영원한 행복은 같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요 13:18; 행 8:21,23; 마 7:13-14 와 모순된다.

4.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례, 그리고 다른 제정된 구원의 수단들은 구속이 영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을 분명히 드러낸다(고후 5:18-21; 눅 10:21; 갈 3:27; 고전 10:16-17).

성령은 우리에게 구속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자이며,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아버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성인의 경우 말씀과 성례를 통하여 중개적으로, 유아와 천상의 상태에서는 즉시 직접적으로 적용한다(사 44:3-5; 요 16:7-14; 겔 36:27; 사 59:21).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모든 복의 보증인, 수탁자, 관리자, 근원이자 핵심이시므로, 그와의 연합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유익이며, 그리스도 안에 내재한 다른 모든 복의 직접적 토대이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와 가시적 교회 모든 지체들 사이에 분명한 연합이 있다. 이는 그들이 그에게서 받은 공동의 은사와 영향력으로 형성되며, 그의 진리와 섬김을 공개적으로 고백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는 쉽게 끊어질 수 있다(요 15:2,6; 마 8:12). 또한 믿는 자들과 그리스도 사이에는 상호 애정에 기초한 도덕적 연합이 있는데, 이는 더 적절히 교제라고 한다(요 14:21).

그러나 우리에게 그의 복의 누림이 달린 그 연합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1. 우리와 같이 유죄이며 스스로 멸망한 채무자와 범죄자인 우리와, 보증인으로서 그리스도와의 법적 연합. 이는 우리를 그 안에서 택하신 영원 전부터 형성되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은혜언약이 그것의 유대이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계좌에 돌리고, 그가 그 죄를 속죄한 사실이 법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계상되는 것이 그 결과이다(히 7:22; 엡 1:4; 고후 5:21; 롬 5:19).

2. 그리스도의 인성과 결합된 인격적 연합. 이는 적절한 때에 이루어져, 우리와의 법적 연합이 그에게 요구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다(히 2:11-16; 요 1:14; 사 7:14; 롬 8:3-4; 갈 4:4-5).

3. 거듭나는 순간에 성령으로 형성되는 영적 또는 신비적 연합.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된 신부로서, 그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받아들임으로써 그를 우리 남편이자 영향력의 머리로 모신다(고전 1:30; 고전 6:17; 요 17:26; 엡 2:21-22; 엡 3:17).

성경은 그리스도와 믿는 자 사이 이 연합이 실제임을 증명하며,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계시고 그들이 그 안에 있음을 나타낸다(요 14:20; 요 6:56; 요 15:4-5,7; 요 17:21,26; 골 1:27; 요일 5:20; 고후 5:21; 사 45:17). 또한 그가 그들의 생명이며(요일 5:11-12; 갈 2:20; 골 3:3-4), 그와 연합함으로 참여자임을 보여 준다(히 3:14).

이 영적 연합은 본질상 매우 신비로우며 성경은 이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한다. 어떤 비유들은 이 연합을 초월하고, 어떤 비유들은 이 연합에 의해 초월된다.

1. 하나님의 위격들 간의 연합에 비유되지만(요 17:21; 요 14:20; 요 6:57) 이것은 훨씬 미치지 못한다. 이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나 자율적인 것이 아니며,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을 하나의 개인적 실체로 만들지 않는다.

2.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연합에 비유된다.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인성을 잉태하셨듯이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난다(마 1:20; 눅 1:35; 요 3:5-6,8; 벧전 1:3,23; 요일 3:9; 5:18). 그리스도는 주권적 행위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또 다른 행위로 우리 인격을 파악하신다(히 2:14,16; 빌 3:12). 그의 인성 안에 하나님의 총만한 영광이 거하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총만함으로 채워진다(골 2:9-10; 엡 3:19). 그는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가 그와 연합되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다(요 1:14; 계 2:13; 엡 2:21-22; 엡 3:17).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이시며 연합과 기름부으심과 머리 되심의 은혜를 가지셨고, 우리는 그와 연합된 자로서 은혜로운 연합과 기름부으심과 지체 됨을 가진다(요 1:14,16; 골 2:19; 골 1:18). 그러나 우리의 영적 연합은 그의 두 본성의 연합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그와 우리가 한 인격이 되지 못하며, 또한 일정 기간 죄 없음을 보장하지 않는다(갈 5:17; 롬 7:14-25; 롬 8:13). 그러나 그의 자기 연합 행위가 우리 안에 만드는 새 본성으로 인해, 그가 우리의 영혼과 교제하며(벧후 1:4; 고후 5:17; 갈 6:15), 그의 은혜로운 영향력으로 우리의 내적 부패를 죽여 완전히 폐할 때까지(롬 8:2,13; 갈 5:17,24; 롬 7:14-25) 교제한다는 점에서는 진실하다.

3. 왕과 신하 사이의 연합에 비유되기도 한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형제로서 권한 아래 우리를 돌보고 다스리며 보호하고,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에게 복종하며, 그의 무한한 지혜, 능력, 긍휼, 존귀에 우리의 영원한 행복을 의존한다(계 15:3; 마 25:34-40). 그러나 이 연합은 훨씬 더 영적이고 긴밀하며 영속적이다.

4. 상호 지식, 선택, 엄숙한 자기 헌신을 내포하여 상호 사랑, 기쁨, 이해관계로 이어지는 결혼 연합에 비유된다(엡 5:30,32; 사 54:5; 겔 16:8-14; 솔 2:16; 솔 6:3). 여기서도 훨씬 초월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믿는 자들이 한 영이 되고 결코 해체되지 않기 때문이다(고전 6:16-17; 빌 2:5; 벧후 1:4; 골 3:3; 호 2:19-20).

5. 그들의 행복한 결속, 지지,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건물과 그 기초 혹은 모퉁잇돌과의 연합에 비유된다(사 28:16; 고전 3:9,11,17; 시 118:22; 벧전 2:4-5; 엡 2:20-22). 그러나 여기서도 훨씬 초월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이 가까우며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이다(벧전 2:5; 갈 2:20; 요 14:19; 요 11:25).

6. 연합을 통해 모든 지지와 생기, 아름다움, 결실의 영향력을 받으므로 나무 뿌리와 가지의 연합에 비유된다(요 15:1-7; 골 2:7). 그러나 여기서도 훨씬 초월하는데, 그리스도는 우리 뿌리로서 모든 가지에게 똑같이 가까이 계시며, 어떤 가지도 완전히 시들거나 열매 없거나 떨어져 나갈 수 없다(롬 7:4; 롬 6:14; 롬 8:35-39; 요 10:28-29).

7.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깨우침을 받고 다스림을 받으며 존귀와 영적 양분과 생명호흡을 얻는다. 이로 인해 우리 머리와 몸의 다른 지체들 사이의 연합에 비유된다(엡 4:15-16; 고전 1:12; 골 1:18; 골 2:18-19). 하지만 이 연합은 훨씬 초월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에게 똑같이 가까워 어느 지체도 그로부터 끊기거나 완전히 무감각해지거나 죽지 않는다(요 14:16,19; 골 3:3-4; 갈 2:20; 사 26:19).

8.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에 들어와 삶 자체가 되시므로, 우리의 영적 연합은 우리 영혼 혹은 음식과 몸 사이의 연합에 비유된다(요 6:56-57; 골 3:4). 그러나 훨씬 더 밀접한데, 그리스도는 결코 우리로부터 분리되거나 우리를 움직이는 것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엡 4:16; 골 2:19; 갈 2:28).

우리의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은 아담과의 연결에서 더욱 명확히 설명될 수 있다. 행위 언약으로 형성된 그와의 법적 연합의 결과로, 그가 저주 아래 타락한 그 순간에 그의 모든 후손도 함께 끌려갔다. 그리고 깨진 율법의 위협 속에 놓인 상태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진노의 잔을 우리에게 쏟으려 준비되어 있다. 또한 실제 존재로 우리를 이끄는 데 있어서도 불길한 영향을 끼치지만, 우리가 그와 자연적 뿌리 또는 부모로서 연합하지 않는 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고리를 붙여 우리를 규정하지는 않는다.—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의를 이루신 결과로 그분은 우리의 법적 머리이자 남편으로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그 의롭다 하심은 복음의 약속 속에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나,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영향력의 머리로서 연합하지 않고는, 그분의 의와 은혜에 실제로 참여하지 못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인격적 연합으로부터도 더 분명히 설명할 수 있다.

####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법적·영적 연합

1.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법적 연합의 구성에서는, 우리의 본성이 그의 신성 인격과 연합되는 정확한 순간이 정해졌는데, 이는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그에게 부과된 빛이 요구되고 취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갈 4:4; 롬 8:3-4).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의 목적에서는 우리 인격들이 그분에게 영적으로 연합되는 정확한 순간이 정해져, 우리 대신 이루어진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 효과가 우리에게 전달된다(겔 16:8; 시 110:3).

2. 그리스도는 모든 영원에서부터 깨진 율법 아래 우리가 진 빛을 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그 빛이 요구되기 전까지 아버지의 품에 머물렀고, 정해진 때에 우리의 본성을 취하였다. 비록 그 빛이 이미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이 오랜 전에 만족을 이루었지만, 우리는 그분 안에서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때에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깨진 율법 아래 진노의 자녀이다(엡 2:2-3; 겔 16:5-8).

3. 세상 창조 시점부터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아들로부터 그가 맡은 만족을 요구하시기 위해 끊임없이 준비하셨으며, 아들은 실제로 우리의 본성을 취하기 전에도 여러 번 우리 본성으로 나타났다. 또한 택한 자들이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진노 상태에 있을 때조차 하나님은 항상 사랑의 때에 그들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시고, 그분의 영의 일반적인 역사(작용)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과의 겉보기 연합을 만들어 내신다(계 3:20; 마 13:20; 히 6:4-5).

4. 우리의 빛이 깨진 율법 아래에서 그리스도에게 법적으로 연합함으로써 전가된 것은 그분이 실제로 우리의 본성을 취한 동기가 되었으나, 만족의 요구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 본질상의 순서로, 그 본성을 취한 후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 즉 보증인으로서 우리와 법적으로 연합하여 이루신 의가 하나님이 우리 인격을 영적으로 연합시키는 기초이자 공로의 원인임에도, 그 의를 우리 인격에게 정식으로, 실제로, 그리고 법적으로 계산하여 우리를 법적으로 의로운 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닌 본질적 순서로서, 우리 인격이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결과이다(고후 5:21; 롬 8:1; 롬 7:4; 사 45:24-25).

### 영적 연합의 신비와 효과적 부르심

유아에게 이 신비적 연합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지혜와 의, 성결과 속량으로 적용하심으로써 형성되며, 이로써 그들에게 믿음과 사랑, 회개 및 기타 모든 구원의 은혜를 포함하는 새 본성을 형성한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영혼의 자연적 능력에 상응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때가 되어 작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요 3:5-6, 8; 막 10:14). 그러나 이성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연합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사역에서 형성되며,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을 자신에게 초청하고 몰아내며 이끌고, 복음이 능력 있게 적용된 선포와 제안 속에서 자신과 은혜를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한다.

이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역이며(롬 9:24; 롬 8:30; 롬 11:29; 살전 4:7), 아버지에게 귀속되며(고전 1:9; 딤후 1:9), 아들에게도 귀속되고(롬 1:6; 벡후 1:3), 특별히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신 성령에게 귀속된다. 성령은 우리에게 속량을 적용한다(롬 8:2; 고후 3:6; 계 2:7; 요 16:7-13; 겔 36:26-27; 사 44:3-5). 이 효과적 부르심은 은혜 언약의 복으로서(렘 31:33; 렘 32:40; 겔 36:26-27; 호 2:14, 18-20; 딤후 1:9), 보증으로서 그리스도의 피로 성취되었으며(딤후 2:14; 갈 3:13-14; 벡전 1:18-21; 벡전 2:24; 벡전 3:18; 계 5:9), 택한 자 모두, 오직 택한 자만이 그에 참여하고(롬 8:28-30; 딤후 1:9; 벡전 1:2; 벡후 1:10), 그것은 그들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각기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다(마 20:1, 5-6; 딤후 3:15; 고전 15:8; 눅 7:37; 눅 23:42-43).

이 하나님의 효과적 사역을 ‘부르심’이라 이름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본성상 그리스도와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합리적 피조물로서 확신과 깨달음과 설득을 통해 그리스도께 인도되는 것을 뜻한다. 이를 통해 그들은 죄와 진노와 어둠과



세속적인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와 복된 성령과 교제하는 상태, 즉 하나님의 나라, 놀라운 빛과 사랑과 자유와 거룩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된다(롬 8:30; 롬 8:1-2; 엡 2:1-13, 19-22; 엡 5:8; 뱀전 2:9; 요 15:9; 요일 1:3, 7; 고후 13:14; 고전 7:22-23; 요 8:32, 36; 살전 2:12-13; 딤후 6:11-12; 뱀전 1:16; 뱀전 5:10; 뱀후 1:3-10).

###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반론과 답변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의 행위에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은, 만일 사람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청에 합리적으로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다. 고난은 이 주의 진지함을 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많은 인류는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위한 외적 부르심을 받지 못하였다.

1. 그들은 하나님의 율례가 없고 그분의 심판을 알지 못하며(시 147:19-20), 외형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호 1:9; 호 2:23; 롬 9:25-26; 롬 10:19), 약속 언약에서 낯설며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없고 미래의 모든 행복에 대한 희망이 없으며(엡 2:12), 비전이 없어 멸망하고(잠 29:18), 스스로 파괴적인 길을 걷고(행 14:16; 행 17:30; 사 53:6; 사 55:7),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전 1:20; 롬 1:21-23).

2. 구원의 교리는 이방인 세계로부터 숨겨져 있다(엡 3:8-9; 골 1:26; 롬 16:25).

3. 하나님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파를 금지하였다(마 10:5; 행 16:6-7).

4. 광범위한 세계 경험은 인류 대부분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함을 명백히 보여 준다.

반론 I: “복음의 부르심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딤후 2:11; 딤후전 2:4; 골 1:6; 막 16:15; 눅 2:10).

답변:

복음은 모든 종류의 사람들—유대인과 이방인, 부자와 가난한 자 등 모든 신분—에게 확장되었으나, 모든 개별 인격체에게 확장된 것은 아니다(계 5:9; 계 7:9). 모든 곳에서 전파하라는 허가가 실제 모든 곳에서 전파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론 II: “자연이 내는 음성은 모든 사람을 부르며 회개와 덕을 요구한다”(시 19:1-5; 롬 1:18-21; 롬 2:14-15; 행 14:17; 행 17:27).

답변:

자연의 음성은 사람을 창조주이자 보존자로서 하나님께로 부르지만,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힌트를 제공하지 않는다.

반론 III: “모든 인간은 아담과 이브에게 주어진 첫 약속과 노아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에서 두 차례 복음을 계시받았다”(창 3:15; 창 9).

답변:

모든 인류가 이 두 선포를 현장에서 듣거나 이해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마치 모든 인간이 에덴동산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렸거나, 방주에서 막 나와 거의 마르지 않은 세상에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반론 IV: “많은 이방인이 뛰어난 선함과 덕을 가졌다.”

답변:

1. 그들은 창조주이자 보존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두드러진 은사를 받았으나, 구원의 은혜는 받지 못했다. 오히려 그들의 교만과 이기심, 또는 특정 악행의 탐닉은 그들의 겉보기 선함의 악함을 분명히 드러낸다.
2. 그들이 어떤 선함을 지녔든 그리스도 없이 구원은 없으며(행 4:12), 성인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으면 그와 구원의 연합이 없고(요 17:3; 엡 3:17; 요 3:18, 36), 그리스도를 알거나 믿지 못하면 복음도 듣지 못한다(롬 10:14, 17; 잠 29:18; 엡 2:12).

반론 V: “멜기세덱, 욥과 그의 친구들, 그리스도가 칭찬한 백부장, 시로페니키아 여인, 고넬료와 많은 이방인은 참되고 구원을 이끄는 믿음을 가졌다. 어느 곳에서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받아들임을 받는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분이 존재하시고 부지런히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뿐이다”(창 14:18; 욥 1-42; 마 8:5-13; 마 15:22-28; 행 10; 롬 10:12; 행 10:34-35; 히 11:6).

답변:

1. 언급된 인물들은 신적 계시가 결여되지 않았다. 멜기세덱, 욥과 그의 친구들은 노아 전승이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아브라함과 직계 후손들도 그러했다. 두 백부장과 시로페니키아 여인은 유대인의 계시와 예배에 접근할 수 있었다.
2.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실제로 선행 행위는 현세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상을 주신다(왕상 21:29; 욥 3; 막 10:21).
3. 복음 아래서 하나님은 혈통, 민족, 외형적 지위와 관계없이 사람을 받아들이시나,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의를 행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참된 믿음도 없다(벧후 1:1; 빌 1:29; 엡 3:17; 눅 17:5; 요 14:1; 요 6:35, 44-45; 엡 2:18; 엡 3:12). 그리고 새 언약의 축복이나 수용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약속된다(고후 1:20; 시 72:17).

반론 VI: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모순되게 많은 인류를 구원의 필수 수단 없이 내버려 두는 것은 부당하다.”

답변:

1. 우리는 이미 유신론자들과의 논쟁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완전성과 모순 없이 그렇게 행하셨음을 증명하였다.
2.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수단을 주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더 뛰어난 피조물인 마귀들에게도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도록 강요받지 않는다(유 6; 벧후 2:4; 마 25:41).
3. 성경은 구원의 자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베풀어진다고 암시한다(고후 5:19; 엡 1:3; 시 103:17; 시 31:19; 시 25:10; 시 72:17).

반론 VII: “모든 이방인은 충분한 구원의 수단을 가져야 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배를 요구한다면 올바른 법과 동기를 제공해야 하고, 불멸의 영혼을 주셨다면 영원한 행복에 이르는 올바른 길을 인도해야 한다. 알려주지 않은 조건을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함에 맞지 않는다. 영원한 상과 벌을 분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기회와 능력, 동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가장 작은 달란트의 충실한 사용도 영생의 보상을 얻을 것이다”(요 20:29; 눅 12:47-48; 마 25:14-29).

#### 답변

1.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경배의 대상에 관한 일부 지식을 주었으나 구원의 길에 관해서는 주지 않으셨다. (롬 1:19-20; 엡 2:12; 롬 10:10-17; 행 4:12; 요 14:6; 요 10:7,9)

2. 하나님은 마귀들을 불멸의 영으로 만드셨으나, 그들이 타락한 이후로 결코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유 6; 뱀후 2:4; 마 25:41)

3. 자연의 빛에 대항하는 죄는 충분히 중대하여 사람들을 영원히 불행하게 할 죄악이다. (겔 18:4; 롬 6:23; 롬 1:18-32; 롬 2:4-10; 롬 3:9-20,23) 비록 이러한 죄들이 복음의 빛에 대항한 죄만큼 심각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영적 사물에 대한 무지는 자체로 죄이므로 죄된 것을 결코 무죄하거나 덕 있게 만들 수 없다.

4. 하나님은 질서와 덕을 격려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겉으로 선한 행위를 일시적인 복으로 보상하시지만, 그 행위들은 하나님의 영적이고 매우 넓은 법에 의해 심사될 때 영원한 행복으로 보상받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잠 15:8; 잠 21:4,27; 잠 28:9; 시 14:2-4; 롬 3:9-20)

성경에 담긴 복음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제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온전한 구원을 그 안에서 받도록 부름받는다. 우리의 죄악과 위험을 드러내며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하고, 그리스도의 계시에 근거하여 그를 믿도록 우리를 묶는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겔 33:11; 롬 3:10-20; 갈 3:10,24; 요 6:29; 요일 3:23)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나타내고 제시하여 듣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로 받아들이도록 초대한다. 이 초대는 수신자가 잘 준비되었든 그렇지 않든, 택자든 버림받은 자든 상관없다.

1. 그리스도의 의는 본질적으로 무한히 귀중하며 인성이 완성되었고, 율법의 요구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충족시킨다. 그가 구입한 모든 복과 이들의 상태, 본성, 조건의 변화에 관한 복은 모두에게 충분하고 적합하다. (행 20:28; 갈 4:4-5; 고전 1:30; 겔 36:25-27; 딤후 2:14; 히 9:12,14)
2.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듣는 모든 사람에게 무한히 제시되며, 하나님으로부터의 절대적 은사의 선물이자 인류의 공식 구원자로 제공된다. (시 68:18; 롬 11:26-27; 요일 4:14; 요 3:14-17; 요 4:42; 요 6:32,39-40; 딤후 1:15; 히 7:25; 사 42:6-7; 사 49:6,8)
3. 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무제한적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으라고 부른다. (사 45:22-25; 사 55:1-7; 잠 8:4; 마 11:28; 요 7:37-39; 요 6:37; 계 22:17)
4. 배제될 가능성이 가장 큰 사람들조차도 잃은 자, 멍청한 자, 어리석은 자, 지식을 미워하는 자, 조롱하는 자, 악명 높은 범법자, 완강한 마음을 가진 자, 의로움에서 멀리 떨어진 자, 반역자, 극도로 죄를 범한 자, 자만하는 자, 자신의 죄악과 불행에 깨닫지 못하는 자 등으로 명백히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받으라고 초대받는다. (마 18:11; 눅 19:10; 호 13:9; 잠 1:21-23; 잠 9:4-5; 사 1:18; 사 46:12-13; 사 55:7; 사 65:2; 렘 3:1,4-5,14,22; 마 9:13; 딤후 1:15-16; 계 3:17-18)
5.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유일한 참 하나님이자 그들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도덕법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제공하는 범위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리고 그 도덕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으로 다섯 번 부여하심이 관찰된다. (출 20:2-17; 신 5:6-21, 신 30 대조)
6. 만약 복음의 제안과 부름이 듣는 모든 이에게 일반적으로 향하지 않았다면, 자격이 확실할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수록 자존심, 사악함, 게으름, 불성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그리스도에 대한 불가치함, 그를 받아들일 부적합함을 더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철저히 확신한 사람, 특히 사탄의 유혹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에게서 복음을 통해 제시된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만큼의 성실성, 감수성, 의지를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 이의 제기 및 답변

### 이의 제기 1

“오직 목마른 자, 기꺼워하는 자, 무거운 짐 진 일꾼들만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받도록 초대받았다.” (사 55:1; 요 7:37; 계 22:17; 마 11:28)

**답변:** 사 55:1 에서 ‘목마른 자’는 단지 그리스도와 그의 의와 복을 열심히 갈망하는 자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 55:2 에는 그들이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쓰고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위해 일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이는 어떤 형태든 행복을 원하는 자를 가리킨다. 계 22:17 의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초대와 보편성을 나타내며 초대받은 자의 조건을 의미하지 않는다. (요 6:37; 요 7:37) 마 11:28 에서 ‘무거운 짐 진 일꾼’은 죄의 길에서 자신을 지치게 하고 죄책감과 죄의 노예 상태에 잠긴 자를 포함한다. (사 57:10; 히 2:15; 딤후 3:6)

## 이의 제기 2

“악을 범하다가도 어떤 변화가 있기 전에는 거룩하신 예수님께 가까이 가거나 그를 받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

**답변:**

1. 하나님은 그들을 새 피조물로 만드셔야 하나님을 받을 수 있으나, 새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그를 받아 구원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요구하신다. (마 9:13; 마 18:11; 딤후 1:15)
2. 심히 병든 자가 거의 낫기 전에는 능숙한 의사에게 가까이 가거나, 깨끗해지기 전에는 정화의 물에 담기거나, 거의 배부르기 전에는 건강한 음식을 받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가? (출 15:26; 호 14:4; 겔 36:25; 속 13:1; 사 1:18; 행 3:26; 롬 11:26-27; 잠 9:5; 사 55:1-3,7; 계 22:17) 무지한 자가 유일한 참 교사에게 직접 가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가? 죄인들이 자신들의 의로 만드신 주를 받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가? 앎은 자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구세주께 오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가? (사 48:17; 사 45:17,22,24; 눅 19:10; 호 13:9)
3.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기 전에는 진정한 성실, 겸손 또는 마음의 개혁을 이룰 수 없다. (욥 14:4; 잠 20:9; 시 51:5; 엡 2:1-3,10; 롬 8:7-8; 롬 8:2; 요 15:5; 롬 17:9; 롬 13:23; 딤후 1:15; 딤후 3:7)
4.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으로 삼으셨기에 그를 받을 때 우리는 죄를 계속 지닌 채로 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정화하고 파괴하기 위해 그를 받는다.

## 이의 제기 3

“하나님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중 많은 이가 버림받은 자임을 알기 때문이다.”

**답변:**

1. 하나님이 누구를 죽음으로 멸하려 하신다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적절한 음식이나 약, 따뜻함을 거부하거나 자기 목에 칼을 찌르는 행위가 용서될 수 있겠는가?

2.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거짓을 믿으라고 부르지 않고, 그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행하라고 부르지 않는다.

#### 이의 제기 4

“버림받은 자는 믿을 수 없으므로 그들을 믿으라 부르는 것은 완전히 터무니없고 무익하다.”

#### 답변:

1. 그들은 실제로 믿을 수 없고, 더 나쁘게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요 10:26; 요 5:40; 사 65:2; 마 23:37)

2. 목회자는 누가 택자이고 누가 아닌지 전혀 모르므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 만물을 아시는 성령께 맡겨 택자가 믿어 구원받도록 하신다.

3. 복음의 일반 초대에 의해 많은 버림받은 자가 공동의 은사와 은혜를 받고, 많은 죄를 예방하고, 일시적 행복을 누리며, 택자들에게 현저히 유익을 끼친다. 신비적 연합 이전의 사람들, 특히 복음 청취자들은 자연적 또는 시민적으로 선한 것과 심지어 종교 의무의 범위에서 행할 수 있으며, 성령의 일반적 역사 아래 영적 선함을 닦은 것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복음의 부름에 진심으로 응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믿거나 진정으로 거룩하고 영적인 방식으로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다.

#### 원죄와 인간의 부패

1. 우리는 앞서 사람 모두가 타고난 죄로 인해 율법의 저주 아래 있으며, 이것이 죄의 세력이 된다고 증명했다. 이 저주는 그들을 원죄 의로부터 결핍된 상태에 가두고, 그 상태에 머무르게 한다.

2. 성경은 모든 사람이 불결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더러움에 물들었음을 선언한다. (욥 14:4) 경건한 부모의 자녀인 다윗조차 죄 중에 잉태되고 형성되었으며(시 51:5), 하나님의 유대인들도 태에서부터 악한 범법자였다. (시 58:3; 사 48:8) 본성적으로 모든 사람이 내재한 부패로 인해 영적으로 선한 일을 전혀 할 수 없음을 선언한다. (창 6:5; 창 8:21; 시 14:2-4; 시 53:2-3; 잠 20:9; 렘 17:9; 요 3:6; 요 15:5; 롬 5:6; 롬 8:7-8; 엡 2:1-3,12; 딤후 1:15; 딤후 3:3; 고후 3:5; 고전 4:7; 마 15:19)

3. 만약 사람이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하려는 자연적 경향이나 능력이 있다면, 수많은 강력한 미덕 동기가 있고 악으로 이끄는 동기가 전혀 없는데도, 왜 어디서나 사람들이 그토록 악한 생각과 말, 행위를 하는가? 특히 가장 거룩한 사람들도 악에 대한 성향과 영적으로 옳은 일을 행하는 데 따른 어려움을 겪는다. (시 14:1-4; 시 53:1-4; 롬 1:21-32; 롬 3:9-19; 막 7:21-23; 롬 7:5-25; 약 3:2; 요일 1:8,10)

## 이의 제기 1

“자의 자유와 영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으면 영원한 행복이나 불행에 대해 적절한 시험 상태에 있지 못하며, 그런 존재는 악마나 완성된 천사의 상태에 있거나 둘 중 하나여야 한다.”

### 답변:

1. 믿는 자는 지상에서 완성된 천사가 아니며, 그들의 본성과 사역, 상태가 불완전하다. 악인도 악마와 같지 않고, 하나님의 공회 시대 아래 있으니, 이는 많은 사람의 영원한 구원으로 이끈다. (롬 7:14-25; 딤후 1:13-16; 요 4; 눅 7:36-50; 고전 6:9-11; 딤후 3:3-7; 엡 2:1-22; 엡 3:8-9; 행 26:17-18)

2. 아담의 타락 이후 어느 누구도 영원한 행복을 위한 적절한 시험 상태에 있지 않았다.

3.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태에 확고히 정해져 있다. 이에 없이는 인내나 영광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 성립할 수 없다. (롬 8:28-39; 롬 32:39-40; 사 54:8-10; 사 45:17; 요 10:27-29; 요 14:19; 골 3:3-4)

4. 만약 모든 사람이 영원한 행복을 위한 시험 상태에 있다면, 모두에게 동등한 은혜의 수단과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나, 이는 분명 그렇지 않다. (엡 2:12; 잠 29:18; 시 147:19-20; 행 14:16; 행 17:30)

5. 그런 시험 상태는 사람의 영원한 행복을 자신의 성향과 행위에 달리게 하여 하나님의 자유 은혜에 반한다. (고전 4:7; 마 11:25-26; 롬 9:16,18; 롬 11:6)

6.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당시 가나안에서의 일시적 행복을 위한 시험 상태에 있었으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시험 상태에 있지 않았다. (사 1:19-20; 신 8:2; 신 13:5; 삿 2:21-22; 삿 3:1,4; 출 16:4; 출 20:20)

7. 믿는 자는 은혜의 발휘와 증거를 촉진하기 위해 유혹과 고된 봉사, 고난으로 많은 시험을 받지만, 그들의 영원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되어 있으며 행위에 달려 있지 않다. (고전 3:13; 고후 8:2; 벰전 1:7; 벰전 4:12; 약 1:3,12; 계 2:10; 계 3:10,19; 시 66:10; 단 11:35; 단 12:10; 숙 13:9; 골 3:3-4; 요 14:19; 요 10:27-29)



성경에는 많은 경고와 권면, 약속과 험박이 죄인들에게 주어지는데,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참으로 기쁘신 일을 행할지를 시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통해 자신의 상태가 변화되기를 바라게 하려는 것이다(행 26:17-18; 골 1:13; 엡 2:1-6).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구원의 상태에 합당하게 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다(골 2:6-7; 고전 15:58; 롬 32:39-40; 히 12:28-29; 빌 1:27; 골 1:10; 눅 1:74-75; 고후 7:1; 엡 4-6; 골 3-4).

## 반대 주장 II 및 답변

반대 주장 II. “사람에게 선과 악을 차별 없이 선택할 자유의지가 없고, 그에 따라 행할 능력이 없다면, 그들의 성품과 행위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므로 미덕이나 악덕일 수 없으며, 칭찬이나 상벌을 받을 자격도 없다.”

답변 1. 그렇다면 하나님께는 선택의 자유가 없고 자유로움도 없는가? 그의 무한하고 변하지 않는 본성의 완전함이 어떻게 그가 저속하거나 죄된 일을 할 수 없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속성과 행위가 칭찬받지 못할 수 있는가? 거룩한 천사들과 영화로운 성도들, 특히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행위가 신적으로 선을 향해 결정된 의지에 근거함에도, 그 행위들이 결코 미덕이나 칭찬받을 만하지 않다는 말인가? 마귀들의 행위가 그들의 성향이 악에 굳게 고정되어 있으므로 죄가 아닌란 말인가? 이 모든 행위가 그 의지가 선이나 악에 불변하게 기울어진 상태임에도 자발적인 행위일 수 없다는 뜻인가?

2. 내면의 거룩함이 클수록 그의 선한 행위가 덜 미덕적이고 칭찬받을 만하며, 악에 굳건하고 악한 성향이 클수록 그 악한 행위가 덜 악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터무니없다. 좋은 뿌리가 열매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나쁜 뿌리가 열매를 더 좋게 만든다고 하는 논리와 같다(마 7:16-18; 마 12:33-35).

3. 인간의 의지는 결코 선과 악을 동등하게 기울인 상태에 있지 않았다. 무죄 상태에서는 오직 선을 향해 기울어 있었으나, 악에 기울어질 가능성도 있었다(전 7:9; 창 1:27; 창 5:1). 타락한 상태에서는 오직 악을 향해 기울어져 있다(창 6:5; 창 8:21; 롬 17:9; 롬 8:7-8; 딤후 3:3). 회복이 시작된 상태에서는 새 본성은 오직 선을 향해 기울어 있고, 회복되지 않은 옛 사람은 오직 악에 기울어 있다(롬 7:14-25; 갈 5:17, 19-24). 천국 상태에서는 온전히 선을 향할 것이다(요일 3:2; 엡 5:27).

### 반대 주장 III 및 답변

반대 주장 III. “사람들이 선과 악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타고나지 못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은혜 언약 전체와 복음의 모든 약속 및 부르심과 모순된다. 복음은 사람들이 믿고 회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답변 1. 새 언약의 약속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하고 돌같이 단단하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선을 선택하여 행할 능력을 갖게 하시는 절대적 필요성을 분명히 전제한다(겔 11:19-20; 겔 36:26-27; 렘 31:33).

답변 2. 복음의 부르심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영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전제를 두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언약함과 악함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며, 영적 능력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얻어진다(요 6:37,44-45,63,65; 요 7:38-39; 빌 4:19; 측 10:12).

### 반대 주장 4 및 답변

반대 주장 4. “의지가 선과 악에 동등하게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사람은 어떤 도덕 법 아래에도 있을 수 없다.”

답변. 그렇다면 그리스도, 거룩한 천사들, 영광받은 성도들, 심지어 마귀들과 영원히 정죄받은 자들이 선과 악에 동등하게 기울어진 의지가 없으므로 도덕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후자의 신성모독과 살인적 악의가 오히려 전자의 사랑과 활기찬 봉사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다는 소리인가(롬 4:15; 롬 5:13; 요일 3:4).

### 반대 주장 5 및 답변

반대 주장 5. “성경은 이방인들이 적절한 은혜의 수단을 누렸다면 회개하고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증언한다(겔 3:6; 마 11:20-23).”

답변. 그들이 진실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복음적인 방식으로 주님께 돌이켜 영원히 구원받았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그들이 일시적인 멸망을 피하도록 그 정도로 돌이키게 될 것이며, 이는 특별한 은혜 없이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다(욥 3; 왕상 21:29).

## 반대 주장 VI 및 답변

반대 주장 VI. “사람들의 의지가 선과 악에 동등하게 기울어져 있지 않고 자연적으로 영적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무신론자 흄스와 고대 이방 스토아 철학자들의 교리를 명백히 채택하는 것이다.”

답변 1. 사탄과 그의 사자들이 사악한 목적을 위해 같은 진리를 수용한다 해도, 우리는 안전하고 명예롭게 그 진리를 받아들이 수 있다(약 2:19; 마 8:29; 마 16:16; 막 1:24; 요일 5:5; 행 16:17; 고전 4:1).

답변 2. 흄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간의 의지를 결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은 인간의 선한 행동뿐 아니라 악한 행동에도 손을 대지 않으며, 유아에게는 원죄가 없고 법 아래 있지 않아 잘못이 없으며, 인간 마음의 첫 움직임은 죄가 아니고, 선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 악한 생각은 사탄에게서 오며, 인간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도 성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참된 메시아임을 단순히 믿는 것으로도 구원받으며, 구원 받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인간 자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며, 믿음과 순종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의지를 행위로 간주했다. 많은 고대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 본성이 원죄로 타락하지 않았으며, 올곧은 이성이 최고의 행복을 준다고 믿었으며, 인간은 거의 또는 전혀 악을 행하지 않고 도덕적 선에 완전히 순응할 수 있다고 하고, 미덕 있는 자가 어떤 면에서는 신들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했다. 이는 그들이 자연의 필연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과 노력으로 완전하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미덕의 성향을 획득한 후에는 그것을 완전히 잃을 수도 있다고 했다. 따라서 반대자들에게 그들을 자신들의 사상적 조상과 형제로 삼도록 허용하자.

## 하나님의 자유 은혜와 인간 부르심

사람들의 영원한 행복이 자유의지에 달려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와의 교제 상태에 효과적으로 부르심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 은혜에 따른다.

1. 성경은 이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 은혜에 돌린다(약 1:17-18; 엡 1:3-8; 엡 2:1-10; 롬 5:16-21; 롬 9:16,18; 롬 11:6; 롬 3:24; 롬 6:14; 딤후 3:3-7; 딤후 2:11-12; 딤후 1:9; 딤후 1:13,15-16).

2. 이 부르심은 인간을 죄와 고통의 극히 참혹한 상태에서 맞이한다(딤후 3:3; 롬 1:21-32; 롬 3:10-20,23; 롬 8:7-8; 엡 2:1-3,12; 고전 6:9-11; 욥 14:4; 욥 15:14,16; 창 6:5; 창 8:21; 렘 3:1-5; 시 14:1-4).

3. 하나님은 때로 가장 무도한 자들도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마나세, 막달라 마리아, 사마리아 여인, 죽어가는 강도,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 박해자 사울 등이 그 예이다(대하 33:11-13; 눅 7:36-50; 요 4; 눅 23:42-43; 행 2; 행 6; 행 9; 딤후 1:13-16).

4. 그들이 효과적인 부르심을 받기 직전, 그들의 마음은 법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다(롬 7:5,8-13).

5.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을 존중하여 사람들이 율법을 따를 때 자주 은혜를 베풀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인의 가장 진지한 순종에 대해 특별하고 구원하는 은혜를 약속하지 않았다. 사람이 은혜를 받을 때 그것은 그들의 순종에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수단을 사용한 결과이다.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내밀 때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 강에서 일곱 번 씻은 나아만은 치유되었으며, 베데스다 못에 처음 들어간 자들이 효과적으로 치유되었다. 마른 팔을 뻗으려 시도한 병자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은 맹인은 눈을 떴다. 이 모든 일이 그들의 행위의 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된 수단 사용의 결과임을 보인다(출 14:16-22; 왕하 5:10,14; 요 5:4; 요 9:7; 막 3:5).

## 반대 주장 1 및 답변

반대 주장 1. “그렇다면 사람들이 극악하게 죄를 지을 때도, 가장 진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만큼이나 효과적인 부르심의 길에 스스로 나아가는 것인가?”

답변 1. 가장 버림받은 자들만이 은혜가 풍성하므로 죄짓는 것은 아니다(롬 6:1-2; 롬 2:4-5; 유 4).

2.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순종으로 스스로를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 준비시키지는 못하지만, 그 순종은 하나님께서 자주 그들을 돌이키시는 귀하고 사랑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마치 거지들이 왕의 명령으로 왕이 자주 지나가는 길에 자신을 두고 구휼을 받는 상황과 같다(잠 8:34-36; 사 55:1-3).

## 반대 주장 II 및 답변

반대 주장 II. “많은 조건적 약속들이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의 선한 노력에 주어졌다(약 4:8; 계 3:20; 마 7:7-8).”

답변. 이 말씀들은 신실히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문을 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림이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입증될 수 없다. 복음의 외적 부르심과 함께 전능하고 불가항력적인 성령의 내주하심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리하여 그 부르심이 사람의 마음에 적용되어 그들을 죄와 고통의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제하는 상태로 옮긴다.

1. 인간의 자연적 연약함과 영적 선에 대한 깊고 뿌리 깊은 적대감 때문에 그러한 전능한 영향력이 필요하다(고후 3:5; 요 15:5; 롬 5:6; 롬 8:7-8; 롬 17:9; 딤후 3:3). 자연적 부패 외에도, 인간은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여러 추가적인 장애 영향력 아래 있다. 그들은 죽음과 최후 심판의 확실성, 두려움과 무한한 결과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고(신 32:29; 시 10:13; 전 11:9; 전 12:14), 죄의 성질과 수, 악화 원인도 심각히 생각하지 않으며(렘 2:35; 8:6-7,12), 지옥 형벌의 무서움과 확실성, 영원성 및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무시한다(마 10:28; 16:26; 22:13; 눅 10:22-

26).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획득하신 구원의 필요성과 영성, 범위, 탁월함, 적합성, 영원함도 무시하며, 쉽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헛된 생각에 빠지거나 반대로 경솔과 절망으로 이끈다(벧전 4:18; 롬 2:25; 겔 37:11). 그들은 영원한 것에 대한 걱정을 미루고 때로는 임종 순간에 하려고 마음먹으며(행 24:25; 잠 24:33-34; 6:9-11; 1:22-28), 악인들과 밀접히 연대하여 그들을 모범과 동료로 삼으며(시 49:11-20; 잠 13:20; 9:6),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과 다양한 욕망에 사로잡혀 노예가 되고, 아마도 세속 일에 분주하다(약 4:4; 눅 10:41-42; 12:16-20; 엡 4:18-19; 롬 1:21). 육체의 돌봄과 만족을 영혼의 구원보다 앞세운다(마 16:26; 롬 13:14; 엡 4:18-19). 그들은 다양한 오류를 품고 무한히 자비로운 하나님이 매우 적은 경건, 특히 교회 직분에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거의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한다.

2. 성경 여러 구절은 죄인을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데 전능한 영향력이 필요함을 명백히 밝히며, 이를 하나님의 능력의 극진한 작용, 창조와 같은 일, 죽은 자의 부활로 묘사한다.

엡 1:18-19; 갈 6:15; 고후 5:17; 사 65:17,19; 사 66:19; 엡 2:5,9-10; 엡 4:24; 골 3:10; 요 1:13; 요 3:5-6; 요 5:25; 고전 2:12,14; 고후 3:5; 고후 4:6; 롬 31:18,33; 요 6:37,44-45,63,65; 요 15:5; 빌 2:13; 롬 32:40; 겔 36:26-27; 겔 11:19-20; 겔 37:1-14; 시 51:12; 신 30:6; 야 1:4; 행 11:18; 행 5:31; 행 16:14; 행 26:17-18; 벧전 1:23; 골 1:13; 골 3:1; 롬 4:17; 롬 8:2; 히 13:20-21; 고전 1:26-31; 벧후 1:4. 따라서 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능력의 지팡이요 주의 팔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불린다(시 110:2-3; 사 53:1; 롬 1:16; 고전 1:24).

3. 이 사역에서의 성령의 영향력이 무적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믿음, 회개, 그리고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효과 있게 하는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기인해야 하며, 이는 엡 2:8; 고전 4:7; 사 26:12; 빌 2:13; 롬 9:6,16,18; 딤후 3:3,5와 모순된다.

4. 하나님께서 이 사역에서 사람들에게 그러한 수단과 기회와 영향력을 제공하는 이상을 넘어, 그들의 자유의지가 기분에 따라 그것을 올바르게 활용하거나 하지 않도록 허락하셨다면, 이 두 번째 인과자는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작용하지만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의존하게 되어, 이는 고전 3:5-7; 살전 1:5; 요 6:63과 충돌된다.

5. 하나님의 영향력이 사람의 상태와 본성을 변화시키는 데 전능하고 무적이지 않으며, 그 효능과 성공이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면, 하늘의 영화로운 성도들도 지옥의 멸망받은 자들만큼이나 그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근거가 없게 되고, 그 원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자유의지이므로 계 5; 계 9; 계 7:10,12 와 상충된다.

6.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전능하고 무적이지 않다면 우리는 영원한 행복에 대해 위로되는 확신을 가질 수 없으며, 심지어 하늘에서도 수백만 천사의 자유의지가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었다(벧후 2:4; 유 6; 마 25:41; 딤후 3:6).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세상 창조 전부터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으며(엡 1:4; 마 25:34), 그리스도는 사람이 되어 우리를 위해 순종하고 고난받으며 죽고, 우리 의를 위해 다시 살아나 중보하시며 온 능력으로 구원하시고(갈 4:4-5; 롬 3:25; 롬 4:25; 롬 8:3,33-34; 히 7:25-26), 복음은 모든 유리한 환경에서 우리에게 선포되고(히 2:3-4; 벧전 1:11-12; 살전 1:5; 롬 1:16-17; 딤후 2:11-14), 성령은 은혜 상태에 들어가게 하고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나,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성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인도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영향력에 의해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과 지혜와 능력과 피와 기도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능가하여 구원의 진전을 이루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 반론 및 답변

### 반론 I

“하나님께로의 인간 회심을 신적 권능의 결과로 표현하는 이 성경 구절들은, 단지 그들이 보고 들은 기적들이 복음 진리를 믿도록 결정하거나 자극했다는 것일 뿐이다(고전 4:19; 살전 1:6; 롬 1:16).”

답변. 해당 구절 어디에서도 ‘권능’이 기적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적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아니며(고전 1:24), 바울도 반대자들의 기적을 알기를 요구하지 않았고, 기적은 사람들의 선택의 증거가 아니다(살전 1; 살전 4:5; 마 7:22-23).

### 반론 II

“영감된 약속과 권면 등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끝까지 힘쓰셨으나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며(사 5:4: ‘내 포도원에 앞으로 무엇을 할까’라 해석 가능), 그가 그들의 부르심에 응하길 원했으나 그들이 따르지 않았고(요 1:7,9; 요 5:34,40; 요 12:32-40), 그의 제도의 효력이 그들의 선택과 애씀과 주의에 달려 있음을 보여 준다(신 32:29; 신 4:29; 신

8:2; 신 30:19; 신 10:16; 시 81:10-14; 잠 1:22-30; 마 33:37; 눅 19:41-44; 사 1:16-20; 사 30:15; 사 55:1-7; 사 45:22; 사 46:12-13; 창 4:7; 렘 4:4,14; 렘 6:8; 겔 18:30-32; 겔 24:13; 겔 33:11; 욥 2:13; 욥 9:12; 마 3:2; 마 4:17; 마 7:7-8; 눅 13:24; 행 2:38; 행 3:19; 빌 2:12; 딤후 2:11-12; 엡 5:14; 약 4:8; 계 3:19-20; 마 25:14-29; 눅 19:12-27).”

답변

1. 사람들은 타락한 상태에서는 영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없지만, 기도하거나 성경을 읽고 듣거나 묵상하는 등 물질적으로 선한 행위는 할 수 있으며, 이는 성령의 중생과 소생의 수단이 된다. 하나님은 그들의 저주받고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된 수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나, 자신의 제도를 존중하여 그들과 그 수단을 통해 은혜롭게 만나실 수 있다. 자연스러운 간절함으로 구원을 찾는 자들과는 반드시 은혜롭게 만나신다.
2. 하나님의 순종 요구는 사람들의 수행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무능함을 자각하여 그리스도께 의와 능력을 구하도록 하며,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 대해 영원한 멸망의 고통 아래서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를 보여 준다.
3. 하나님은 구원의 외적 수단을 베푸는 데 가능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으나(사 5:1-4), 그의 영적 영향력 행사까지 모두 다 하시는 것은 아니다(고전 2:4-5; 롬 1:16; 살전 1:5; 살전 2:13).
4. 반론에 언급된 많은 구절은 하나님이 친근하게 법을 선포하는 모습이며, 일부는 자신을 파멸시킨 유대인을 향한 그리스도의 인간적 동정을 나타내고, 또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누릴 세속적 행복을 위한 의무와 능력을 말한다.
5. 이 구절 중 일부는 그리스도께서 효과적으로 계몽하여 택자들을 이끄시고, 다른 일부, 특히 마지막에 인용된 구절들은 성령이 거하시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중생자를 가리킨다. 최소한, 비유 속 한 달란트와 데나리온은 실제 은혜가 아니라 교회 직분자나 기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반적 재능과 기회를 뜻한다.

### 관찰 III

“사람들이 은혜의 성령을 슬프게 하고 괴롭히며, 거역하고, 꺾고, 저항하며, 대항하고 모욕을 준다(엡 4:30; 사 63:10; 살전 5:19; 창 6:3; 행 7:51; 히 10:29; 암 2:13; 겔 16:43).”

답변

성령이 거하시는 자이거나 그와 사역하는 자들 가운데서 죄를 용납하는 것은 그를 거역하고 슬프게 하며 괴롭히는 행위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대가 그의 가장 강력한 노력에 실제로 승리한다는 뜻은 아니다. 선지자와 사도의 선포에 나타난



성령의 영향력과 증거, 그리고 일반적 역사적 작용은 저항받고 꺼지고 모욕받을 수 있으나, 그의 특수하고 구원하는 영향력은 결코 저항당하지 않는다(시 110:3; 고후 10:4-5; 살전 1:5-10; 살전 2:13; 고전 6:11).

2. 신자들은 성령의 영향을 보살피기보다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성령을 슬프게 하고 괴롭히며 반역하고 어느 정도 그 영향을 꺼버린다.

#### 반론 IV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회심할 때 성령의 전능하고 무적의 영향력은 말씀의 모든 도덕적 설득 수단을 배제한다.”

답변

1. 하나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할 때 단순한 도덕적 설득에 의해서만 작용했는가(창 1; 시 33:6,9; 히 11:3)?
2. 우리가 말하는 전능한 영향력은 사람 영혼의 본질에 완전히 부합하며, 무한히 강력하게 설득하는 도덕적 영향력을 갖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달될 수 있다. 사람이 사람의 말로는 저항할 수 있으나, 성령이 구원적으로 적용할 때는 저항할 수 없다.

#### 반론 V

“사람들이 회심을 위해 성령의 전능한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믿으면, 이 영향력을 확실히 느끼기 전에는 마음과 행실의 개혁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다.”

답변

1. 사람들은 이 전능한 영향력 경험 없이도 겉으로 행실을 개혁할 수 있다(빌 3:6; 왕상 21:27-29; 막 6:20; 사 58:2; 벧후 2:20).
2.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의무의 준칙이다(사 8:20; 신 4:2; 신 5:32; 신 12:32; 마 28:20).
3. 스스로 죄됨을 깨닫고 스스로 개혁의 시도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과 삶의 개혁을 구하지 않는 자는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다(잠 23:26; 겔 36:26-27; 렘 31:3,18,33; 딤후 3:3-7; 행 26:17-18; 요 3:14-18,36; 사 45:22; 사 55:1-7).

## 반론 VI

“도덕적 설득에 의한 사람들의 효과적 부르심, 중생, 회심은 하나님의 모든 완전성을 극대화한다. 그는 무한한 지혜로 이성적 인간들과 그들의 이성적 능력에 맞는 명령, 약속, 위협으로 다루며, 흠 없는 정직함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으라 부르고, 무한한 공평함으로 피할 수 있던 죄에 대해서만 벌한다. 이로써 모든 선한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모든 악한 죄의 죄책과 부끄러움은 오직 죄인에게 있다.”

## 답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그분 전능한 손이 묶여서 자유의지—하나님을 대적하며 가장 거짓되고 극악한—가 중생과 성화의 사역에서 돕거나 성공하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을 위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표현되어야 하는가? 그분께서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데도 그들의 자유의지로 인해 모독의 신성모독과 끊임없는 멸망 또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결과가 결정된다면, 어떻게 모든 선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는가?

2. 사람들의 회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능하고 무적의 영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진실하고 큰 영광이다. 그분의 제도는 예정된 대로 택자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며, 많은 자를 땅에서 유익하게 한다(사 55:10-11). 이는 자신의 연약함과 악함을 깨달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능한 권능과 은혜에 의한 본성의 철저한 변화를 기대하고 구하도록 격려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장 정중하게 사람들을 대하시며, 그 말씀에 따르는 전능한 영향력으로 마음을 밝히고 새롭게 하며 자신께로 이끈다(시 110:2-3; 빌 3:12; 갈 1:15-16; 살전 1:5; 살전 2:13). 이로써 복음의 모든 조건적 선언과 택자만의 구원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행 10:43; 행 5:31; 사 53:10-12). 또한 버려진 자들은 자유의지를 온전히 가지고 있으며, 우리 반대자들이 인정하는 모든 인간 구원의 가능성 범위 내에서 구원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가장 악한 믿음의 행위 하나가 반드시 영원한 구원을 확보한다고 인정한다(요 3:16,18; 요 6:39-40; 막 16:16).

하나님 법에 대한 불순종, 즉 죄의 본질에 속하는 부분만이 처벌받으며, 죄를 고집하여 행함으로써 죄가 더욱 악해지고 추가적인 형벌을 가져온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믿거나 회개할 능력이 없어서 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불능력이 스스로 정당화한 — 즉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을 행하지 않은 — 결과일 뿐이다.

성령께서는 설득력 있고 매력적이면서도 저항할 수 없는 영향으로 복음을 누리는 자들,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전에 있는 선택된 자들을 다루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과 언약 안에서 정하신 사랑의 때에, 성령께서는 전능하고 무적의 영향으로 율법의 선포를 그들의 양심에 적용하여, 선택된 자들로 하여금 그 율법의 신성한 권위, 필수적인 의무, 영성, 거룩함, 의로움, 선함, 그리고 그 명령문의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함과 위협의 의미와 공정성, 신실함을 효과적으로 확신시키신다. 이로써 그들로 하여금 마음과 삶의 죄를 깨닫게 하고, 자신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의 공평성, 확실성,

두려운 성격, 영원한 지속성을 확신케 하여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채우며, 자신의 선한 행위로 얻을 행복에 대한 모든 희망을 끊어버리게 한다. 또한 율법이 그들에게 부여한 불명예스러운 표징을 고정시켜, 복음 약속과 선언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초대받는 그 표징 아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믿음을 촉구한다(사 55:2,7; 사 46:12; 잠 1:22; 잠 9:4; 눅 19:10; 마 9:13; 딤후 1:15; 호 13:9; 겔 36:25-27).

### 성령의 작용과 그리스도와의 연합

동일한 전능하고 무적의 영향으로, 복음의 선포와 약속, 초대가 그들의 마음에 적용되거나 각인될 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그의 인격, 직무, 관계, 의로움, 그리고 구속으로서 나타내시며, 그리스도를 무한히 탁월하고, 충분하며, 그들의 상황에 정확히 맞는 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제시하신 분으로 드러내신다. 율법이 그들에게 부여했던 바로 그 불명예스러운 표징 아래 나타내시면서, 성령은 약속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그의 충만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전달한다. 이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예언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지혜가 되어 그들의 이해를 영적 빛과 지식으로 충만케 하시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움으로 그들의 깨달은 양심을 정결케 하고 안식케 하시며,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함과 구속으로 그들을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시키고, 그들 의지를 순종시켜 새롭게 하시며 다스리신다. 아울러 그리스도는 무한히 사랑스럽고 은혜로우며 필요하고 적합한 남편이자 구원자로서 그들의 정동(affections)을 변화시키고, 사로잡아 영원히 묶어 준다(갈 1:15-16; 요 6:39-40). 이와 같이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충만함에 참여하며, 그분께 붙잡혀 연합된다(히 3:14; 롬 7:4; 호 2:19-20; 사 54:5; 빌 3:12).

성령께서 이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충만함을 우리의 영혼에 나타내고 전달하는 행위는 동시에 연합, 칭의, 입양, 중생의 행위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치 그리스도의 혼인 서약이자 칭의의 선언, 입양의 증서, 새 생명의 씨앗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지극히 큰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수단이다(엡 1:18-20; 엡 2:4-10; 시 110:3; 딤후 3:5-7; 마 16:17; 요 1:13; 요 3:3,5-6,8; 요일 3:1,9; 요일 5:18; 뱀전 1:3,23; 골 3:11-12; 겔 11:19-20; 겔 36:25-27; 렘 32:40).

### 그리스도와의 교제와 변화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성령의 이 연합 행위의 즉각적인 결과이며, 우리의 효과적인 부르심 가운데 있다(히 3:14; 아 2:16). 이 교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간과 그 소유에 관한 이해관계의 공유(아 2:16; 사 54:5; 속 13:9; 고전 3:22). 둘째, 서로에게 주고받는 상호 의사소통(요 1:14,16; 잠 23:16; 시 55:22; 벧전 5:7). 셋째, 상호 교류(아 2:14; 아 8:13; 시 50:15; 시 91:15; 시 85:8; 시 118:28; 사 58:9; 사 65:24; 빌 4:6; 속 13:9).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로 인해 우리의 상대적이고 실재적인 상황은 한순간에 완전히 변화된다. 그는 의로우신 주로서 우리와 연합하시어 우리에게 칭의를 주시고, 율법과의 모든 관계는 깨진 언약으로서 우리에게 대한 구속력이 완전히 해제된다(사 45:24-25; 행 13:38-39; 롬 3:21-22,24; 롬 6:14; 롬 7:4; 롬 8:1,4,33-34; 롬 10:4; 갈 4:4-5; 갈 3:13; 갈 2:16-20; 고후 5:21). 그분이 영원한 아버지이자 장로의 형제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우리는 입양을 얻으며(사 9:6; 히 2:13; 갈 3:26; 롬 8:17; 요 1:12; 요 20:17; 롬 3:4,19),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독생자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생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속으로 만드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심으로 우리는 종생, 새 창조, 영적 부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새로움을 얻게 된다(요 11:25; 요 1:14,16; 고전 15:45-49; 고전 1:30; 고후 5:17; 갈 6:15; 엡 2:1,5,10; 골 2:11-13; 골 3:10-11).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양심을 설득하고, 마음을 밝히며, 뜻을 새롭게 하는 전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복음에서 제시된 그리스도께 의지하도록 사람들을 준비시키신다. 그분과 그의 충만함이 그들의 마음에 전달되므로, 그들은 그분께 붙잡히고 소생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증거와 약속에 따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신 바를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며, 복음에서 제공된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연합시킨다(요 16:9-12; 사 55:1-7; 요 6:37,44-45,63,65; 요 7:37-38; 고후 5:14-21; 행 26:18; 롬 31:18; 빌 1:29; 빌 2:12-13).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 또한 점진적으로 변화되고 완성된다. 우리를 소생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머리로서 그와의 연합과 교제로 본성과 삶에 걸친 점진적 거룩함을 얻는다(고전 1:2; 요 1:16; 행 26:18; 고후 3:18; 골 2:10,19; 엡 4:15-16). 또한 그와의 연합과 교제로서 의의 주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매개체이자 모든 복의 보화이신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영적 위로를 누린다(히 4:14-16; 히 10:19-22; 요 14-16; 사 11:10; 사 12:1-6; 빌 3:3; 빌 4:4; 롬 5:1-11).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구세주와의 연합과 교제를 통해 영원한 영화에 이른다(계 1:18; 계 14:13; 호 13:14; 사 25:8; 사 60:19-20; 사 26:19; 요 14:2-3,19; 요 17:24; 롬 8:1,11,17; 골 3:3-4; 계 3:21).

성찰하라. 과연 내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거룩하고 높으며 천상의 소명에 합당하게, 극히 귀중한 구속자와 영적으로 연합되었는가? 내가 스스로 그리스도를 나의 사랑하는 이로서, 내가 그분의 것임을 자신 있게 증언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소유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거나 전하지 않기를 간구한다. 하나님의 아들과의 연합이 나에게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 구속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뿌리이자 기초가 되어야 한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럼에도 살아 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가? 내가 육신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인가? 아, 놀라움이며! 놀라움이며! 놀라움이며! 하나님께서 약혼자가 되시고, 나는 흥하고 악하며 무가치한 신부가 되었도대!

### 칭의에 관하여

성경에서 칭의는 사람을 본질적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법정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의롭다고 선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1. 이 의미에서 히브리어 *hatsdik* 와 헬라어 *dikaioun*(칭의하다로 번역된 단어)은 다음 본문들에서 그러한 뜻으로 사용된다(출 23:7; 신 25:1; 잠 17:15; 왕상 8:32; 사 50:8; 사 53:11; 사 45:24-25; 시 143:2; 욥 27:5; 삼하 15:4; 시 82:3; 창 44:16; 눅 10:29; 눅 16:15; 눅 18:14; 마 12:37; 롬 2:13; 롬 3:4,20,24,28,30; 롬 4:2,5,25; 롬 5:1,9,16,18; 롬 6:7; 롬 8:30,33-34; 갈 2:16-17; 갈 3:11,24; 갈 5:4; 딤후 3:7; 마 11:19; 딤후전 3:16; 요 16:10; 약 2:22-25).

칭의가 정죄와 대조되거나 악인을 칭의하는 것이 범죄로 여겨지며, 신격체들이 칭의된다고 할 때 그 의미는 그들을 거룩하거나 경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간주하거나 선포하는 것이다. 목회자들은 복음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칭의 선고를 전파하고, 선한 행위를 통해 칭의를 드러내도록 권면하면서 많은 사람을 칭의한다(단 12:3; 히)—마치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과 같이(딤후전 4:16; 고전 9:22; 약 5:20; 고전 7:16). 계시록 22:11 은 “의로운 자는 계속해서 의롭게 행하라” 혹은 “계속 칭의 상태를 유지하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칭의된 상태에 굳건히 머물며, 선한 행위로 하나님과 자기 양심 앞에서 점점 더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요일 2:29; 요일 3:7; 약 2:22-25).

2. 칭의 또는 그 주요 요소인 죄 사면에 관한 성경 묘사에서도 이러한 의미가 나타난다. 그것은 화목, 속죄의 수용(롬 5:3-11), 심판이나 정죄에 이르지 않음(요 5:24; 롬 8:1-33), 하나님께서 죄를 지워 주심(사 43:25; 사 44:22; 시 51:9; 욥 33:24; 사 43:25; 시 32:1-2; 시 85:2 등), 분노를 거두시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며(미 7:18-19; 사 38:17; 사 1:18; 겔 36:25; 계 1:5 등), 죄를 보거나 기억하지 않으시며(민 23:21; 렘 50:20; 렘 33:8 등), 용서하고 덮으며 제거하고 정결케 하시는 것을 뜻한다.

3. 칭의와 관련된 모든 것은 법정의 재판 형태로 묘사된다. 여기에는 심판(시 143:2), 심판관(사 50:7,9), 심판석(히 4:16; 사 30:18), 유죄 피고인(롬 3:19), 율법과 양심, 마귀의 고발(요 5:45; 롬 2:15; 시 109:6; 속 3:2), 우리에게 대한 고발장 또는 기록(골 2:14),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은혜의 변호(롬 3:24-25; 단 9:24; 엡 1:6-7; 엡 2:7; 롬 5:16-21), 이 변호만을 의지하는 피고인(욥 9:2-3; 11:4; 42:5-9; 시 130:3-4; 사 53:4-6; 눅 18:13; 롬 3:24-26; 롬 5:11,16-21; 롬 8:1-4,33-34; 히 9:12-15; 히 10:1-14; 뱀전 2:24; 뱀전 3:18; 요일 1:7,9), 하나님 앞에서 이 변호를 주장하는 중보자(요일 2:1-2), 그리고 이 변호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고(욥 33:24; 시 32:1-2; 롬 3:21-26; 롬 8:1,33-34; 고후 5:21; 갈 3:13-14; 갈 2:16) 등이 포함된다.

칭의를 광범위하게 이해할 때는 다음 두 대상을 포함한다. 첫째, 특정 행위 또는 행위 일체가 무죄 또는 의롭다고 선언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욥이 자신을 친구들보다 더 의롭다고 표현한 것을 칭의하시고(욥 42:7-8), 비느하스가 두 무례한 간음자를 열심히 처단한 것을 의로 인정하셨다(시 106:31; 민 25:11-13). 다윗은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온전함이나 의로 심판해 줄 것을 청하였다(시 7:8; 시 18:24). 이스라엘 자손은 유다보다 덜 악하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칭의하였으며(렘 3:11), 유대인들은 자신들보다 더 악한 소돔 사람들을 칭의하였다(겔 16:51,62). 둘째, 사람들을 가리키며, 이는 다음 중 하나이다. 1) 악마의 고발에 맞서 신자들을 무죄로 선포하는 의로운 자들, 혹은 2) 그들이 실제로 가진 선한 마음과 삶의 상태를 인정하여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다. 예컨대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셨고(욥 1:8; 2:3), 모세를 인정하셨으며(민 12:7),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마다 받아들이셨다(행 10:34-35; 요일 3:7; 눅 1:6).

### 의롭다 하심과 그리스도인의 상태

이런 의미에서, 선한 행위는 사람들을 의롭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선포한다(야고보 2:21, 24; 창세기 22:12, 16). 만약 아담이 요구된 순종을 완수했다면, 그는 더욱 공식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것이며, 언약의 행위 조건을 완전하게 이행한 자로 선언되어 자신과 모든 자손이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로마서 2:13; 갈라디아서 3:12;

레위기 18:5).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그의 보증인 의로움을 완수한 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즉, 하나님께서 그를 사법적으로 선포하시어 그가 선택된 자들이 깨진 행위 언약에 대하여 빚진 모든 순종과 만족을 완벽하게 이루었음을 알리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그 안에 연합된 자들은 모든 빛에서 해방되어 각자 영생의 권리를 가진다(이사야 50:8; 디모데전서 3:16; 로마서 4:25; 고린도후서 5:21). 또는, 두 번째로는 죄를 자신의 안에 지닌 자들이 보증인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이사야 45:25; 이사야 53:11; 고린도후서 5:21; 로마서 3:24-26; 로마서 5:16-19; 로마서 8:3-4, 30, 33-34). 이러한 의롭다 하심은 선택된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던 영원한 시초에 비롯되었으며, 그들의 깨진 행위 언약에 대한 빚이 그리스도의 계정에 기재되어 오직 그에게만 청구되게 설정되었다(에베소서 1:4; 히브리서 7:22; 이사야 53:6). 그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죄를 완전히 끝내시고 깨진 율법의 모든 요구에 합당한 영원한 의를 이루신 데 있다(다니엘 9:24; 베드로전서 2:24; 이사야 53:4-12).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선택된 자들의 공적 머리이자 대표자로서 엄숙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정된 사랑의 시기에 의롭다 하심의 선고가 확장될 준비가 되어 있다(로마서 4:25; 고린도후서 5:21; 디모데전서 3:16; 이사야 50:8). 이 의롭다 하심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의 인격에 약속과 하나님의 행위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전된다(로마서 7:4; 로마서 8:1-2; 갈라디아서 2:16; 고린도후서 5:20-21). 또한 이후 복음의 능력 있게 적용된 말씀 안에서 그들의 양심에 암시된다(이사야 43:25; 이사야 44:22; 마태복음 9:2, 6). 그들의 선한 행위로 양심과 세상에 더욱 분명히 나타나며(야고보서 2:21, 24), 마지막 심판에서 가장 공개적으로 선포될 것이다(사도행전 3:19).

### 의롭다 하심의 본질과 삼위일체의 역할

의롭다 하심은 엄격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로서, 오직 우리에게 전가되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그리스도의 의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무료로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행위”이다(SC 33). 이는 아버지, 아들, 성령 세 위격이 행하는 행위이며(로마서 3:26, 30; 로마서 8:30, 33; 갈라디아서 3:8; 누가복음 5:21), 최고 주권자이자 법 제정자이며 심판자로서 죄로 인해 진노하셨으나 만족을 얻으신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창세기 18:25, 30; 신명기 32:39; 야고보서 4:12; 이사야 33:22; 히브리서 12:23; 시편 51:4, 6; 마태복음 6:12; 마태복음 18:23-34; 이사야 42:21; 이사야 43:25; 이사야 44:22; 로마서 3:24-26; 로마서 8:32-34; 마가복음 2:7).

의롭다 하심은 아버지께 귀속되는데, 아버지는 우리 죄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대신으로 받아들이며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전가하시고 무죄로 인정하며 받아들이신다(로마서 8:29-30; 고린도후서 5:21). 또한

그리스도께 귀속되는데, 그분은 자신의 피로 그것을 구속하시고 중보 기도하시며 신약 언약의 행정자로서 의롭다 하심의 선고를 내리신다(마태복음 20:28; 요한일서 2:1-2; 사도행전 5:31; 마태복음 9:2, 6; 이사야 53:11). 성령께서도 귀속되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우리의 인격과 양심에 적용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의 선고를 알리며 우리 마음에 인치고 확증하신다(고린도전서 2:10-11; 고린도전서 6:11; 디도서 3:7; 로마서 8:15; 고린도후서 1:22; 고린도후서 5:5; 에베소서 1:13; 에베소서 4:30).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와 사랑만이 죄인들을 의롭다 하심으로 내적으로 움직이신다(로마서 3:24; 로마서 5:20-21; 에베소서 2:8; 디도서 3:5-7). 하나님은 우리의 보증인을 제공하시고 그 값을 치르셨으며, 우리 대신 그것을 받아들였다. 또한 복음 안에서 그것을 자유로이 제안하고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의 인격에 전가하시고 그것을 받는 믿음을 주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다(요한복음 3:16; 디모데후서 1:9; 로마서 5:20-21; 빌립보서 1:29; 에베소서 1:6-8; 에베소서 2:4-8).

모든 선택된 자들만이, 그리고 오로지 그들만이 각기 하나님의 예정된 사랑의 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들은 자신들이 불경건하고 영원한 진노를 받아 마땅한 자들로 간주된다(이사야 53:4-6, 8, 10-11; 로마서 5:19; 로마서 8:28-34; 로마서 4:5-6; 로마서 5:6, 8, 10).

구약 시대에 살았던 자들도 신약 시대의 이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1.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 언약의 일반 약속은 완전한 의롭다 하심을 명확히 포함하고 있다(창세기 17:7; 시편 33:12; 민수기 23:21; 이사야 1:18; 이사야 28:16; 이사야 43:25; 이사야 44:22; 이사야 57:17-18; 예레미야 31:34; 예레미야 33:8; 에스겔 36:25; 미가 7:18-19; 출애굽기 34:6-7).

2. 구약 시대의 여러 신자들은 아무 제한 없이 명백히 의롭다 함을 받은 것으로 기록된다(로마서 4:3; 야고보서 2:25; 사무엘하 12:13; 시편 32:1-2; 시편 65:3; 시편 85:2-3; 시편 103:3, 12; 이사야 38:17; 미가 7:18-19).



3.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며 전가하지 않고 보지 않으시며 용서하고 지나가시며 덮으시고 속죄하시고 들어 올리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지워 버리시며 죄를 등에 던지시는 다양한 표현들은 그들의 용서가 완전했음을 증명한다(미가 7:18-19; 이사야 43:25; 이사야 44:22; 시편 32:1-2; 시편 85:3; 시편 103:12; 민수기 23:21; 출애굽기 34:6-7, 9). 이러한 용서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이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aphesis 와 paresis 라 불린다(마태복음 6:12, 14; 마태복음 9:2; 마가복음 1:4; 누가복음 7:47-48; 사도행전 10:43; 로마서 4:6; 히브리서 9:22).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 심판자에 관한 한 가장 단순한 행위이지만, 깨진 율법의 명령과 형벌 및 우리의 상태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죄 사함과 하나님 은혜 안에서의 받아들임으로 구분될 수 있다.

죄 사함은 깨진 율법의 형벌에 관한 것으로, 죄의 죄책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만족스러운 고난으로 인해 당해야 할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받음은 그리스도의 인성의 거룩함과 깨진 율법의 명령에 대한 순종에 근거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 법을 완수한 자로 세우며,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하고 영생에 대한 권리와 판결을 받게 한다. 이 영생에 대한 권리는 사람이 자신의 구입한 재산에 대해 가지는 법적·사법적 권리와 같으며, 입양에서 받는 권리는 아버지의 아들이자 상속자로서 가진 유산에 대한 권리이다.

이 영생에 대한 이중 권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는데, 그리스도는 순종하는 종으로서, 그리고 인간의 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영원한 영광에 온전한 권리를 가진다.

우리의 의롭다 하심 선고에 포함된 죄 사함과 받아들임은 우리의 인격, 곧 하나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상태와 안전 그리고 행복에 관한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그것은 우리를 깨진 행위 언약에 대한 모든 죄책과 의무의 청구에서 해방시키며, 복음적 회개가 언제나 선행되기보다 뒤따른다(로마서 8:1, 33; 로마서 5:16-21; 에베소서 1:6; 요한일서 5:11-12; 에스겔 16:62-63; 에스겔 36:25, 31).

가정적 용서와 받아들임은 의롭다 하심에 근거하나 포함되지 않는다. 이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고, 다만 우리의 영적 상태와 위로를 변화시키며, 우리가 죄를 범하고 회개하며 믿음의 순종을 행할 때마다 수시로 주어진다. 참된 복음적 회개가 이들과 선행하거나 뒤따른다.

가정적 용서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율법의 규율에 대한 위반임을 사함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보복하는 진노가 아니라 아버지의 진노와 징계에 노출시킨다.

가정적 받아들임은 우리의 인격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한 봉사를 대상으로 삼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의 미소와 은총을 누리게 한다(사무엘하 12:13; 마태복음 6:12; 요한일서 1:7, 9; 시편 32:5; 로마서 5:10; 시편 23).

우리의 사법적 사면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하는데, 이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행위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를 포함한다.

1. 성경은 이러한 모든 죄가 우리의 의롭다 하심 안에서 완전히 용서되었다고 명백히 선포한다(이사야 1:18; 이사야 43:25; 이사야 44:22; 예레미야 31:34; 예레미야 33:8; 히브리서 8:12; 에스겔 36:25; 골로새서 2:13-14; 사도행전 13:39; 민수기 23:21; 예레미야 50:20; 시편 85:2-3; 시편 103:3, 12; 이사야 54:9; 로마서 8:1, 33).

2. 새 언약의 성례들은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한꺼번에 확증한다(베드로전서 3:21; 마가복음 1:14; 사도행전 2:38; 사도행전 22:16; 마태복음 26:28). 만약 세례가 오직 과거의 죄에 대한 용서만 확증한다면, 그것은 마치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세례를 미루어야 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28:19, 마가복음 16:16, 사도행전 2:38, 22:16의 말씀에 반한다. 사법적 사면은 무한히 자유로운 선물로 주어지므로 조건부로 확증될 수 없다(로마서 3:24; 로마서 5:16-21; 디도서 3:7).

또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사법적 사면이나 화해의 약속이 별도로 주어지지 않는다. 이들은 이러한 은혜를 이미 온전히 누리고 있다고 가정된다(로마서 8:1-4, 15-17, 33-34; 갈라디아서 3:26).

3.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통해 언약으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한 것으로 법적으로 산정되며(로마서 10:4; 로마서 8:3-4, 33-34; 로마서 5:6, 8, 16-21; 로마서 7:4; 로마서 6:14; 갈라디아서 2:19-20; 고린도후서 5:21; 이사야 45:24-25),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로 간주된다(로마서 6:10-11; 갈라디아서 2:20).

4. 일단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한 순간도 그와 분리될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서 우리의 죄 어느 것도 우리에게 죄책으로 적용될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에서 일부 빛을 남겨 두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이사야 53:6; 히브리서 9:12, 14; 히브리서 10:10, 14, 18; 고린도후서 5:21; 로마서 8:1-4, 33-34; 로마서 10:4).

5. 하나님의 구속하는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처럼 그 호의 안에 확고히 자리 잡은 자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복수하는 진노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예레미야 31:3, 20; 예레미야 32:39-40; 이사야 54:8-10; 로마서 8:28-39; 스바냐 3:17; 요한복음 13:1; 요한복음 15:9-10).

6. 만약 신자들의 이후 죄가 의롭다 하심 안에서 용서되지 않아 모든 법적 전가가 방지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신자들은 동시에 율법 언약 아래에서는 죽은 존재로 여겨지고 은혜 언약에 따라 영원한 생명에 선고된 자로 간주될 것이다(로마서 7:4; 로마서 6:14; 로마서 8:2; 요한복음 6:40; 요한일서 5:10, 12).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죄를 범하며 율법 아래에 속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된다(에스겔 18:4; 로마서 2:8-9; 로마서 6:23).

7. 신자들이 법적 죄책에 관하여 모든 죄를 한 번에 완전하게 용서받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행위 언약 아래에서 옮겨진 것과 일치하며, 그들의 미래 믿음이나 회개에 용서의 일부를 조건으로 두지 않은 하나님의 자유 은혜를 높이며, 동시에 그들의 가장 열심 있고 지속적인 복음적 거룩함 추구를 강력히 격려한다(누가복음 7:42-47; 누가복음 1:74-75; 시편 116:16; 시편 119:32; 고린도후서 7:1; 히브리서 12:28).

## 반론과 답변

반론 1. “신자들의 이후 죄는 그들이 범해지고 기록되며 기억되기 전까지 지워질 수 없고, 기억되지 않을 수도 없다.”

답변 1. '기억함'은 때로 현재나 미래에 관한 것을 포함한다(전도서 11:8; 전도서 12:1). 2.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범해지기도 전에 그리고 범한 후에도 억만의 죄에 관해 정죄를 받고 처벌받고 면책되었다면, 죄도 범해지기 전에 용서될 수 있지 않겠는가?(베드로전서 2:24; 다니엘 9:24).

반론 2. "용서는 명백히 과거의 범죄에 제한된다(예레미야 33:8; 에스겔 18:22)."

답변: 과거의 죄가 특별히 언급된 것은 범죄자의 겸손을 위함이나, 용서는 과거에만 제한되지 않는다.

반론 3. "죄 고백과 회개, 그리고 필연적으로 죄를 범한 후에 따르는 겸손이 죄 사함에 선행해야 한다(역대하 7:14; 잠언 28:13; 요한일서 1:9; 사도행전 3:19)."

답변 1. 이 구절들은 죄의 사법적 사면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외적 심판의 제거, 아버지의 용서, 또는 마지막 날 공적 사면 선언과 관련된다. 2. 이후 증명할 것은, 죄에 대한 분노나 하나님께서 끔찍한 형벌을 연관시키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법적 사면에 선행할 수 있으나, 참된 복음적 회개나 겸손은 선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반대논점 IV. "신자들의 칭의 후에 지은 죄가 사법적으로 용서된다면, 그들은 마태복음 6 장 12 절과 누가복음 11 장 4 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지시하신 대로 자신의 죄 사함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

답변 1. 칭의를 받았으나 이를 명확히 확신하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의 죄 사함을 일반적으로 기도해야 하며, 어떤 종류의 사함이 적절한지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답변 2. 모든 칭의 받은 사람은 양심에 대한 사법적 사함에 대한 보다 명료하고 강력한 확증을 매일 구해야 하며, 이는 야고보서 2 장 21~25 절에서 칭의의 현시를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과 같이 사함으로 불릴 수 있다.

답변 3. 모든 칭의 받은 사람은 매일 자신의 일상적 연약함에 대한 아버지의 사함을 기도해야 한다(야고보서 3:2; 요한일서 1:8-10; 전도서 7:20; 이사야 64:6).

반대논점 V. "우리가 칭의 후에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사함받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

답변 1.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법적 사함에 따른 진심 어린 용서는 반드시 먼저 그들이 우리에게 행한 상처를 용서함으로써 뒤따르며, 또한 거기서부터 비롯된다(마태복음 18:32-33; 에베소서 4:31-32). 그러나 그 사함에 대한 위안 어린 감각은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서 다른 이를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 후에 자주 따른다(누가복음 6:37; 11:4).

답변 2. 우리는 아버지의 사함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마태복음 18:35).

반대논점 VI. "교회로부터 정기적으로 파문된 신자들의 최악스러운 스캔들은 천국에서 단속되어 있으며, 즉 용서받지 못한다."

답변 1. 파문은 그들의 지상 교회에 대한 가시적 회원 자격을 박탈하지만, 그들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 파문의 승인도 그들을 복수나 영원한 진노에 묶을 수 없다.

답변 2. 만일 파문받은 신자가 징계의 원인인 스캔들에 대해 깊이 회개한 채로 죽었으나 교회적 면제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면, 그러한 교회적 면제의 결여가 그를 천국에서 배제할 수 있겠는가? 분명히 그렇지 않다.

반대논점 VII. "그리스도께서 그의 끊임없는 중보로 매일 그의 백성에게 죄 사함을 얻게 하신다."

답변.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사함에 한한다(요한일서 2:1-2; 요한복음 13:10; 골로새서 2:13-14). 그러므로 신자들의 일상적인 죄가 매우 중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를 정당히 받을지라도(로마서 6:23),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동안 아버지의 징계를 받게 할지라도(시편 99:8; 89:30-35; 히브리서 12:6-11; 요한계시록 3:19), 그것들이 그들을 하나님의 복수하는 진노나 적절한 형벌에 묶지는 않는다.

1.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인격에 대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것과 모순되는 위협은 그들의 죄에 대해 어떠한 것도 가할 수 없다(시편 89:28-35; 이사야 54:8,10; 호세아 14:4; 히브리서 12:6-11).

2. 신자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복수하는 진노에 정죄당할 수 있는 어떤 법 아래에 있지 않다(로마서 7:4; 6:14; 8:2; 갈라디아서 3:10,13-14; 2:19-20; 5:4-5,18).

3.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에게 남아 있는 정죄는 없다(요한복음 3:18; 5:24; 로마서 8:1,33-34; 고린도후서 5:21; 이사야 45:24-25).

4.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복수하는 진노에 처할 수 없는데, 이는 그가 이미 그리스도를 대신해 완전하게 치르신 만족을 다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를 상상하는 것은 가장 터무니없고 신성 모독적이다(로마서 5:1,21; 8:33-34; 창세기 18:25; 신명기 32:4; 로마서 2:2; 3:5-6).
5.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을 만한 의를 그 안에 가졌다(로마서 8:3-4; 고린도후서 5:21; 이사야 45:24-25; 갈라디아서 4:4-5; 로마서 6:10-11; 3:22,24-26; 5:16-21). 그러므로 그러한 의로 둘러싸인 자가 어떻게 잠시라도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 있겠는가?
6. 만약 신자의 죄가 그를 하나님의 복수와 영원한 진노에 묶는다면, 그들이 자신이 선하고 합법적이라고 여긴 죄를 붙잡고 죽으면 영원히 멸망해야 할 텐데(베드로전서 1:5; 요한복음 10:27-29; 14:19; 6:40 에 반함), 그들의 새 본성에 새겨진 가상적 회개가 그들을 지옥에서 보존하는 데 그보다 더 효과적일 수 없으며, 모든 멸망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그들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하다.
7. 그들의 사법적 사함의 근거가 된 의는 무한히 완전하고 영원하므로,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근거 위에 두신 사함 역시 완전하고 중단됨 없으며 영원하다(로마서 11:29; 8:1,33-34; 이사야 45:17,24-25; 54:8-10).

#### 반대논점 및 답변: 신자들의 회개와 죄 사함

반대논점 I. "신자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회개해야 한다."

답변. 그렇다, 그것은 법적 또는 사법적 사함의 더 완전한 현시를 받거나 아버지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이지, 결코 사법적 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윗이 회개함으로 자신의 죄가 사함받은 것(사무엘하 12:13)은 그가 하나님의 복수 진노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아니며, 오히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책임을 제거하셨고, 다윗에 대한 아버지의 징계가 그의 자연적 생명 박탈까지 확장되지 않을 것임을 뜻한다. 신자들이 아버지의 사함으로 죄가 지워질 때에도 정당한 징계의 일부는 종종 그들에게 내려진다(시편 118:18; 99:8; 106:43).

반대논점 II. "만약 신자들의 회개하지 않은 죄가 하나님 복수 진노에 책임이 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중보는 필요 없다."

답변. 그리스도의 의를 신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변호하심이 그런 진노에의 책임을 전부 막으며(요한일서 3:1-2; 히브리서 7:25), 사법적 사함에 대한 더 많은 현시를 확보하고, 아버지의 징계와 그 적절한 소멸을 이루게 한다. 나아가 중보는 천국에서도 그들을 위하여 필요할 것이다.

반대논점 III. "신자들의 죄가 하나님 복수 진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면, 이는 그들이 육체적 안일과 방종에 빠지도록 강하게 격려한다."

답변 1. 이에 반대하는 주장은 그들의 거룩함을 열심히 추구하는 데 심히 낙담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약하고 변하기 쉬운 정동으로만 사랑하시며, 결국 사소한 실수로 멸망하는 자들로 묘사하기 때문이다.

답변 2. 신자 안에서 새 본성의 진정한 경험이나 성경에 대한 존중이 있는 자라면, 은혜가 풍성하다는 이유로 죄짓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극도로 사탄적인 악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로마서 5:20-21; 6:1-2,5,10-11,14; 고린도후서 5:14-15; 6:17-18; 7:1,6; 요한일서 3:2-3; 4:9-10,16,19; 누가복음 1:74-75; 시편 103:1-6; 116:16; 119:32,166; 히브리서 12:28-29).

답변 3. 하늘에서 난 영혼에게 죄로 인해 내재한 욕망의 일시적 지배, 마귀의 분노, 하나님의 얼굴 가림과 찡그림, 기타 아버지의 징계를 경험하는 것은 가장 무서운 일이다(로마서 7:14-24; 고린도후서 12:7-8; 시편 13:1-4; 88; 77:1-10; 73:2-19; 42:9-10; 116:3; 143:1-7; 욥 6:4; 9; 10:16-17; 잠언 18:14; 시편 3; 7; 10; 35; 38; 42; 54-60; 64; 102).

### 신자의 칭의와 그 관련 교리

신자의 칭의는 그들이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에 들어가는 첫 순간부터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돌이킬 수 없다.

1. 칭의는 차등을 용납하지 않는 사법적 행위이다(사도행전 13:38-39; 로마서 8:1,33,54; 6:14; 7:4; 골로새서 2:13; 예레미야 31:34; 33:8; 이사야 1:18; 43:25; 44:22).

2. 칭의는 무한히 완전하며 영원한 의로움의 대가에 근거한다(다니엘 9:24; 로마서 5:16-21; 이사야 45:24-25; 예레미야 23:6; 고린도후서 5:21; 사도행전 20:28; 베드로전서 1:18-21; 2:24; 3:18; 요한계시록 1:5; 5:9).

3. 칭의 받은 모든 자는 율법을 언약으로서 완전히 면제받았다(로마서 7:4; 6:13; 갈라디아서 2:19; 4:4-5; 5:18).

4.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없다(로마서 8:33; 예레미야 50:20; 민수기 23:21).

5. 그들에게 남아 있는 저주나 정죄가 없다(로마서 8:1,33-34; 요한복음 5:24; 갈라디아서 3:13; 시편 72:17; 에베소서 1:3,6-7; 이사야 45:17).

6. 하나님은 그들에게 쏟아낼 사법적이거나 복수하는 진노가 없다(이사야 27:4; 54:8-10; 57:17-18; 예레미야 31:18,20; 호세아 14:4).

7. 그들은 무한히 완전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자리 잡혀 있다(이사야 54:8-10; 46:3-4; 시편 37:24,28,33; 89:24,28,33; 136; 말라기 3:6; 로마서 11:29; 5:10,21; 8:28-39; 데살로니가후서 2:16-17).

반대논점 1. "신자들이 행위 언약의 율법 아래서 자유롭게 되지 않고서는 죄 지을 자유를 얻지 못한다."

답변.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규칙으로서 도덕법에 더욱 묶여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극악함과 별,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위, 계명의 탁월성과 권위를 훨씬 더 풍요롭고 감동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을 때보다 더 강력한 동기와 돕는 힘을 가지고 거룩한 순종에 나아간다(고린도전서 9:21; 로마서 6 장; 7:1 절 이하).

반대논점 II. "칭의를 받은 신자들도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계속 있다. 우리의 첫 조상들이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저주가 선언되었으며, 사람들은 모든 시대에 생활을 위해 고생하고, 여성들은 고통 속에 아이를 낳는다. 그들의 고난은 형벌이라 불리며 하나님의 진노나 분노에서 비롯되며, 죽음은 그들에게 적대적이다."

답변 1. 우리는 첫 조상들이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하기 전에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가 없으며, 또한 첫 조상들에게 인격에 대한 저주가 선포된 바 없다(창세기 3:16-19).

답변 2. 신자들의 고난은 악인들의 고난과 본질이 같고 종종 함께 겪으며, 항상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발생하면서 동시에 그 죄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형벌이라 할 수 있으나, 신자 개인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구하신 매우 유익한 훈련이다(히브리서 12:5-11; 요한계시록 3:19; 로마서 8:28; 고린도후서 4:17-18; 이사야 2:7; 호세아 2:6,14; 시편 119:67,71,75; 94:12; 잠언 3:12; 욥 5:17).

답변 3. 신자에게서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의 인격에 대한 사랑을 근본 원천으로 한다(히브리서 12:6,10; 요한계시록 3:19).

답변 4. 죽음은 신자에게 불친절하게 보이나,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데려가는 실제적 복이다. 그러므로 더 성숙한 신자들은 죽음을 간절히 원하는 경우가 많다(누가복음 2:29; 빌립보서 1:21,23; 고린도후서 5:4).



이 칭의의 선언은 앞서 설명한 행위 언약의 깨진 저주와 정반대이며, 우리를 은혜 언약 안의 법적 생명으로 세우고, 그 언약에서 약속한 우리의 일시적·영적·영원한 생명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 선언은 또한 우리를 실질적으로 새 언약의 생명으로 선고하며, 하나님의 전능함을 결박하여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을 베풀게 한다.

따라서 우리가 경이로움으로 관찰해야 할 것은, 저주가 그리스도께 작용한 그것이 신자들에게는 정반대 효과, 즉 이 칭의 선언이 실행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과 시간 및 영원 중의 심판은 저주의 실행이지만,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그들에게 내린 칭의 선언의 실행이다.

보다 일반적으로,

1. 그리스도께서 저주 아래서 모든 의를 완성하시고, 우리의 공적 머리로서 칭의 판결을 받으셨으며(디모데전서 3:16; 이사야 53:8-9; 로마서 4:25; 8:33-34), 이 판결은 귀중한 축복으로 충만하여 그와 연합된 택자의 영적·영원한 구원을 확실히 보장한다(이사야 53:4-6,8,10-11; 로마서 5:10,15; 요한복음 10:10).

2.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대표자로서 이루어지는 이 가상적 칭의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과 그를 통한 중생에 효과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방지한다(Ezek 16:6,8; Acts 9; Philem 11,15-16).

3. 이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불가피하게 작용하여, 그의 섭리가 우리의 영적 연합을 준비하고 촉진하는 데 협력하게 한다(Hos 2:6-7,14,18-20; Ezek 20:37).

4. 이 판결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해 우리 자신에게 옮겨짐으로써, 우리는 가장 기쁜 상태에 놓인다.

—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짊어지셨기에(Ps 89:38; Isa 53:10), 우리는 그의 무한하고 영원한 은총 가운데 확실히 자리 잡았으며(Rom 5:2,10; Col 1:20-21; Isa 54:8-10; Isa 57:19; Isa 27:4-5; Ps 5:12; James 2:23), 그가 아버지의 법과 정의를 온전히 만족시키셨으므로(Luke 24:26; Isa 53:10; Heb 2:9-10; Heb 5:7-8; 1 Pet 3:18; 1 Pet 2:24; Matt 20:28; John 17:4), 우리는 무한한 자비의 손에 엄숙히 맡겨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촉진하는 데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Ps 5:7-8; Ps 23:6; Ps 61:7; Ps 31:19; Deut 33:27-29; Isa 63:7).

—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진노의 표적이 되어, 우리가 받을 죄의 모든 진노를 다 감당하셨고(Isa 53:6; Isa 53:4-5,10; Zech 13:7; Acts 2:23; Acts 4:27-28),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적이 되어, 그 모든 축복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향하고 주어지게 된다(Ps 68:18-19; Ps 72:17; Eph 1:3-14; Eph 2:4-10; Rom 5:17-18,20-21; Titus 3:5-7).

— 그리스도는 저주로 인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하게 되셨고(2 Cor 8:9; Matt 8:20), 우리가 칭의를 통해 그분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부와 하나님의 충만을 확보하였다(Ps 85:10-12; Ps 84:11; Ps 103:4-5; Ps 34:8-12; Phil 4:19; Eph 3:8,19).

— 저주로 인해 모든 악이 그리스도를 쫓았으나(Ps 69:1-2,14-15; Isa 53:4-5,8,10; Ps 22:1-21), 우리의 칭의는 모든 실제적인 악으로부터 우리를 확실히 보호하고 모든 방향으로부터 축복을 끌어당긴다(Ps 91:10; Ps 103:3; Ps 34; Ps 37; Job 5:15-26; 1 Pet 3:13; Job 1:10; Rom 8:28-30).

— 저주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빼앗고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고통스럽게 만들었으나(John 19:11; Mark 3:21; John 7-8; Matt 26:69-7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칭의의 판결로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이고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작용해야 한다(Rom 8:28; 2 Cor 4:17; 2 Cor 12:7-10; Phil 1:16,19; Ps 119:71; Isa 27:9; Mic 7:14; Heb 12:6-11; James 1:3,12; 1 Pet 1:7).

## 현생에서의 칭의의 작용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생애에서,

### I. 칭의는 우리의 영혼에 작용한다.

1. 저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아버지와의 많은 위로의 교제를 잃었으나(Ps 22:1-2; Matt 27:46), 칭의는 모든 신적 위격과 가장 친밀한 교제로의 자유로운 접근을 연다(Heb 10:19-22; 1 John 1:3,7; Eph 2:18; Eph 3:12; John 10:7,9; 2 Cor 13:14). 따라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의 재생적 영향력이 우리의 영혼 속으로 흘러들어가, 모든 능력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하며, 사탄, 세상, 우리의 내적 부패가 아무리 방해하려 해도 불구하고 그러하다(Rom 5:12,15,20-21; Rom 6:14; Rom 7:4; Gal 2:19; Gal 6:15; 2 Cor 5:17-18).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과 거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저주 아래에서도 인성을 완전 거룩하게 보존하였기에, 우리는 칭의의 판결 아래 그분과, 그의 아버지와 성령과의 교제로 원초적인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회복한다(Ezek 16:8-14; Ps 45:11,13-14; Song 1:15; Song 2:14; Song 4:1-5,7; Song 6:4-5; Song 7:1-6).

2.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 있고 죄로 정죄받으며 저주를 받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죄의 더러움에서 벗어나 거룩함 가운데 번성하였으므로(2 Cor 5:21; 1 Pet 2:22; Isa 53:9), 우리도 칭의를 받아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거룩함이 우리의 영혼의 모든 능력을 점차 채우고 다스리며 왕노릇한다(Rom 6:14; Col 2:13; John 3:6; 2 Cor 5:17). 우리의 이해는 주 안에서 빛을 받고(Hos 2:20; Eph 5:8; 1 Cor 2:15), 양심은 순결하고 민감해지며(Heb 9:14; 2 Kings 22:19; 1 Tim 1:5; Heb 10:22), 의지는 모든 선한 일에 기울며(Deut 30:6; 2 Cor 5:19; Ps 110:3; Phil 3:7-9), 정동(affections)은 본래의 질서와 성향을 회복하고(Luke 7:47; Ps 18:2; Ps 116:1; Rom 5:5; Rom 7:24; Ps 139:17,20), 기억력은 선을 기억하고 모욕과 사소한 일은 잊도록 강해진다(Heb 8:10-12; Ps 42:6; Gen 48:3).

3.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그를 겸손한 상태에 가두었고 새 언약의 모든 조건을 온전히 이루도록 하였으므로(Luke 24:26,46; Heb 2:9-10; Heb 5:8), 칭의는 우리를 그분이 사신 복된 상태로 영원토록 굳게 세워, 그의 구속 받은 축복이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의 감사하고 거룩한 봉사가 완성되도록 보장한다(Rom 5:8,10; Rom 8:33-39; 1 Pet 1:5). 사탄은 유혹할지라도 패배하고(1 Cor 10:13; Heb 2:14-15), 세상은 아첨하거나 눈살을 찌푸릴지라도 극복되며(John 16:33; 1 John 5:4), 죄는 투쟁하면서도 결코 지배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에 이르지 않으며 결국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Rom 7:23,25; 1 John 3:8-10; Mark 3:29; Ps 103:3; Mic 7:19).

4. 저주 아래 그리스도의 고난이 커졌으나 그분은 지혜와 은혜 안에서 자라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고(Luke 2:40,52; Isa 42:4; Isa 11:2; Heb 5:8), 우리의 칭의 판결의 영향 아래 우리의 심겨진 거룩함도 자라나며, 비록 본질상 단순하지만(Eph 5:8; John 3:6) 여러 특정한 은사와 기독교적 성품으로 형성되어 선한 행위에서 연습된다(Rom 5:1-5; Gal 5:22-23; 2 Pet 3:18; 2 Pet 1:4-8; Ps 84:7; Job 17:9; Prov 4:18). 그 가운데 하나가 보통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우세하며, 이는 저주 아래 특정한 죄의 욕망이 우세한 것과 같다(Rom 4:20; Num 12:3; James 5:11; 1 Kings 4:30; Heb 12:1; Ps 19:13; Ps 18:23).

5. 인성의 거룩함이 커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봉사가 점점 더 성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애 말기에 저주로 그분의 고난도 더욱 심해졌다(1 Pet 3:18; 1 Pet 2:24; Phil 2:8; Heb 5:7-8,26; Heb 2:10; Heb 12:23; Matt 4-27; Luke 4-23; John 2-19). —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에 대한 믿음의 진보를 칭찬하여, 칭의의 판결은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며(Matt 13:12; Matt 25:29; Isa 64:5; Ps 19:11; Isa 3:10), 말씀을 기꺼이 받음에 대한 상으로 더욱 밝은 빛을 약속하며(Isa 32:3; John 8:32; Hos 6:3), 마음의 운유와 부드러움에 대한 대가로 부드러운 영향력을 베풀고(Isa 57:15; Prov 3:34),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으로 깨끗하게 하는 영향을 더하며(Matt 5:8; 2 Cor 3:18; Rev 3:4), 양심을 범죄 없이 지키고 신중한 행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더 준다(Dan 2:21; John 7:17; Prov 1:5; Prov 9:8). 유혹을 충실히 견디는 자에게는 그것을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심과 구원을 보장한다(Rev 2:10; 1 Cor 10:13).

6. 저주가 그리스도의 영혼을 극심한 슬픔과 고통으로 채웠으나(Isa 53:3-4,10; Matt 26:37-39; Luke 22:44; Mark 3:5; John 11:35; John 12:27), 칭의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모든 권리를 주어 우리의 형편에 만족하게 하고(Phil 4:11-12,18), 평화가 마음을 지배하며(Phil 4:7; Col 3:15; Rom 15:13; Rom 5:1), 기쁨이 마음 가운데 퍼지고(Rom 5:1-2,11; Phil 3:3; Phil 4:4; Ps 33:1; Ps 149:2), 영생에 대한 확신이 온전히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Rom 15:13; 2 Tim 4:8; Ps 23:6; Ps 73:26; Ps 16:5-11; Ps 17:15; 2 Cor 5:1-2; 2 Tim 1:12).

## II. 칭의는 우리 육체에 작용한다.

1. 저주 아래서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여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을 취했으나(Rom 8:3), 칭의 받은 우리는 주를 위하여 우리의 몸을 드리고(1 Cor 6:13,15,19-20), 육체가 점차 영혼의 거룩한 직분 수행에 부적합하지 않도록 굴복당한다(1 Cor 9:27; Rom 13:11-14), 마지막에는 모든 죄된 불결함에서 벗어난다(Phil 3:21; 1 Cor 15:44).

2. 저주 아래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몸은 형체도 아름다움도 없었고 그의 얼굴은 사람보다 더 상하였다(Isa 52:14; Isa 53:2-3); 칭의를 통해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기고 거룩하게 되며(Heb 10:22; 1 Thess 5:23), 더 이상 죄 된 육체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지체들은 의의 도구로 헌신된다—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은 그분의 행하심을 보고, 손은 그분의 일을 위해 일하며, 발은 그분의 길을 걷고, 입은 그분을 찬양한다(Rom 6:11-12; Phil 1:20; 2 Cor 4:10-11; 1 Cor 6:20).

3. 저주 아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두려운 고통을 받았지만(Isa 53:5,7; Isa 52:14; Isa 50:6; Ps 22:14-15), 칭의는 우리의 몸을 모든 불행한 고통에서 해방시키며 만나는 고통조차도 유익하게 만든다(Heb 12:10-11; 2 Cor 4:17; Isa 27:9; Job 5:17; Ps 94:12; Ps 119:67,71,75; Prov 3:12).

## III. 칭의는 우리의 전체 인격과 관계망에 작용한다.

1. 저주 아래서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적 위격 안에 거하면서도 종살이와 억압에 시달렸으나(Gal 4:4; Gal 3:13; 2 Cor 5:21), 칭의를 통해 우리는 영적 적들의 지배와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어 그들의 권세가 점차 줄어든다(John 8:32,36; Gal 1:4; Luke 1:74-75; Rom 6:14; Rom 8:23,15,37; Heb 2:15).

2. 저주가 그리스도를 극도의 위험과 곤궁 속에 몰아넣었으나(Matt 2:16; Mark 3:6-7; Luke 4:29; Luke 11:54; Luke 13:31; John 5:16; John 8:59; John 10:31,39; John 11:53-54), 칭의는 믿는 자들을 모든 실제적 위험과 해악으로부터 확실히 지킨다(1 Pet 1:3-5; 1 Pet 3:13; Rom 8:38-39; Ps 91:4-5,7; Deut 33:26-27).

3. 저주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욕됨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분의 수고를 실패나 해악으로 만들었으며 생필품과 위로를 빼앗고 심지어 성례 안에서 아버지와의 즐거운 교제를 잃게 하며 그분의 친구들을 적으로 돌렸으나(Matt 11:19; Ps 22:6; Ps 69:20; Isa 49:4; Matt 13:14; Matt 8:20; Matt 27:36-46; Ps 69:19; Heb 5:7,13; Ps 22:1-2; Luke 5:8; Ps 41:9; John 16:32), 칭의는 우리를 존귀하게 하며(Job 5:21; Prov 10:7; Zeph 3:20), 우리의 손의 일을 번창케 하고(Ps 127:2; Ps 128:2; Ps 90:17; Deut 28:6; Deut 16:15; Deut 24:25), 우리의 외부 형편을 안전하게 하며 우리의 바구니와 보물을 축복한다(Ps 37:16; Matt 6:33; Isa 33:16; Job 1:10). 복음의 제도들은 우리에게 세움을 주며(Isa 12:3; Ps 84:9-10), 우리의 관계는 편안하며 우리의 원수마저도 유익하게 한다(Ps 128:1-3; Ps 144:12; Ps 132:16; Prov 10:7; Rom 8:28; 1 Pet 3:13).

### 칭의의 판결 후의 작용

이 삶 뒤에 칭의의 판결은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작용한다.

1. 죽음 안에서. 저주로 인해 죽음이 그리스도에게 진노의 일격이 되었으나(Isa 53:10; Zech 13:7), 칭의 받은 우리에게는 사랑의 소식이다(Ps 37:37; Luke 2:29; Phil 1:22-23). 저주가 그리스도의 죽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의 임재를 배제하였으나(Ps 22:1-2; Matt 27:46), 칭의는 그분의 지지하며 위로하지 않더라도 임재와 영향력을 확보하여 우리의 영혼을 그분과 즉각적인 교제로 이끈다(Ps 23:4; Ps 48:14; Rev 21:22-24; Ps 43:4; 1 Cor 15:28). 저주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온 힘을 다해 힘을 행사하며 그를 신적 진노의 무서운 압박 아래 숨지게 하였으나(Isa 53:4-8,10; Ps 40:12; Ps 22:14; Zech 13:7), 칭의는 죽음을 통해 우리 몸과 마음의 모든 고통을 끝내고 상상할 수 없는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Rev 21:4; Rev 14:13; Isa 60:20; 2 Cor 5:4; Isa 57:1-2; Ps 73:24).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주로 찔림을 받았기에 그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맞섰지만(Matt 26:38; Matt 27:46; John 12:27; Heb 5:7), 우리의 죽음은 칭의 판결에 의해 무장 해제되고 달게 되어 담담히 기쁨으로 맞을 수 있다(Ps 23:4; Luke 2:29-30; 2 Tim 4:6-8).

2. 영혼이 영원한 상태로 옮겨짐에 있어서, 저주가 그리스도를 도살장으로 이끌고 아버지의 법정 앞에 모든 택한 자의 죄를 짊어지게 하였으나(Isa 53:6-7), 칭의는 그날 우리의 죄를 덮고 믿음의 불완전한 순종을 나타나게 하며 받아들여지게 할 것이다(Rev 14:13; Matt 25:34-40).

저주 아래서,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모든 죄는 그에 따른 형벌을 동반하였다(사 53:4-6). 의롭다 하심은 복음에 따른 순종의 모든 행위에 은혜로운 상급을 부여할 것이다(마 25:21, 23). 저주가 그리스도의 영혼을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고

영원한 의를 세우기 전까지 구원하지 못하게 했으므로(마 26:39, 42; 눅 24:26, 46), 그분의 속죄와 중보를 통한 의롭다 하심은 우리 영혼의 영원한 복지를 보장하고, 하늘이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한다(요일 2:1-2; 롬 5:17, 21; 요 14:2-3).

### 3. 우리 영혼의 분리된 상태에서

저주로 인해 그리스도는 끔찍한 구덩이에 빠졌고(시 40:2; 69:1-2), 의롭다 하심은 떠난 우리 영혼을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할 것이다(요 14:2; 요 12:26; 계 3:21). 저주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졌으므로(마 26:39, 42; 요 18:11; 요 12:27; 시 110:7; 사 53:3-4), 의롭다 하는 선고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영원한 기쁨과 환락으로 충만할 것이다(시 17:15; 16:11; 사 60:19-20). 저주가 그리스도를 악인들과 마귀들 속에 머물게 하고 그의 무덤을 악인과 함께 정하였으나(시 22:12; 사 53:9), 의롭다 하심은 우리 영혼을 거룩한 천사들, 온전해진 의인의 영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있는 신성한 인격들과 자리하게 할 것이다(히 12:22-24; 빌 1:23; 요 17:24).

### 4. 죽은 몸의 상태에서

저주가 그리스도를 무덤 속 감옥에 가두었으나(사 53:8; 시 40:2; 69:14), 의롭다 하심은 우리의 무덤을 하나님이 안전과 안식을 위해 준비하시고 향기롭게 하신 장소로 만든다(사 57:1-2; 욥 14:13). 죄의 일부 결과는 저주로 인해 그리스도의 무덤에 계속 남아 있었다(사 53:9, 12; 마 27:65-66). 그러나 의롭다 하심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가 지워지고 그분의 영원한 의로 감싸진 채 무덤에 눕게 될 것이다(미 7:19; 사 26:19-20). 저주 아래서도 그리스도의 몸은 무덤에서 썩지 않았다(시 16:10; 행 2:27, 32; 13:34-35). 의롭다 하는 판결 아래 우리의 몸은 정결함과 영화로운 부활을 위해 무덤에서 흩어질 것이다(고전 15:36, 42-45; 욥 19:26-27).

### 5. 부활에서

저주 아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보다도 훼손된 얼굴로 우리의 모든 채무를 갚고 모든 율법적 의무를 완수하였다(사 52:14; 53:2-3; 단 9:24; 뱀전 2:24; 3:18; 마 20:28; 딤후 2:14; 엡 5:2). 우리는 의롭다 하는 선고를 통해 영광 중에 일으켜져 상을 받게 될 것이다(고전 15:41-44; 빌 3:21; 시 17:15; 16:10-11; 단 12:2-3; 마 25:21, 23; 골 3:4). 저주 아래서 그리스도는 버림받음과 치욕을 견뎌내셨으나(마 27:46; 사 50:5-6; 52:14; 53:3-4, 7; 마 26-27),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우리를 그의 속량된 지체로서 탁월한 존귀함에 두게 할 것이다(마 25:33-34; 살전 4:17; 골 3:4).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중보하는 저주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무서운 위엄으로 나타나셨으므로(시 89:38; 슥 13:7), 그리스도 우리의 심판자도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실 것이다(욥 19:25-27; 살후 1:10; 히 9:28; 딤후 2:13).

저주가 그리스도에게 치욕과 고난의 가장 뚜렷한 흔적을 찍었으므로(갈 3:13; 마 26-27), 의롭다 하심의 거룩한 열매들은 우리와 예수님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구속 사역에서 선포될 것이다(마 25:34-40). 저주로 인해 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정죄당하고 처형되었으므로(갈 3:13; 뱀전 3:18; 히 13:12; 요 18-19), 우리를 의롭게 하는 판결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천사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포되고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집행될 것이다(마 25:34, 46).

## 6.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에서

저주가 그리스도를 잠시 동안 슬픔과 애통과 고통 가운데 가두었으나(사 53:2-3, 10),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는 심판대에서 노래와 영원한 기쁨을 머리에 쓰고 돌아와 가장 높은 행복에 변함없이 고정될 것이다(계 3:12; 살전 4:17). 저주가 잠시 동안 그리스도를 아버지의 면전과 미소로부터 막았으나,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통해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며 있는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다. 이는 온전히 우리의 것이다(살전 4:17; 요일 3:2; 고전 13:12; 15:28). 저주가 그분에게 붙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상하게 하는 데서 기쁨을 삼게 하였으므로(사 53:10; 속 13:7),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엄청난 영광의 무게를 주심으로 온전히 실행될 것이다(롬 5:17, 21; 6:23; 시 16:11; 31:19; 속 3:17; 사 60:19-20; 고후 4:17; 계 2:7, 17; 3:4-5, 12, 21).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공의와 신실하심을 고려할 때, 우리의 의롭다 하심이나 의로운 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선고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것뿐임을 결론지어야 한다(롬 2:2; 신 32:4; 속 3:5; 창 18:25; 롬 3:24-26; 5:21). 그러나 사람들의 율법적 성향과 하나님의 구속 은혜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재에 대한 완고한 반대가 그들로 하여금 죄인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 교리를 훼손하려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만들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의 기초석으로 놓으신 한 돌이 너무 좁거나 약하여 이를 지지하기 위해 많은 거름, 불순물, 모래, 짚, 나무가지 등을 수집한 것과 같다. 이제 우리는 이것들을 제거해야 한다.

## I.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 시 우리 안에 심겨지는 새 본성은 우리 의롭다 하심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은 항상 불완전하다(왕상 8:46; 전 7:20; 약 3:2; 요일 1:10; 롬 7:14-24; 고전 13:12; 갈 5:17).
2. 설령 완전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율법의 온전한 요구에 부합하지 않아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마 19:17; 갈 3:10, 12; 롬 10:5; 6:23; 히 9:22). 아담은 완전한 거룩한 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의해 의롭다 되지 못했으며, 율법 요구가 현재보다 훨씬 낮았던 시절에도 마찬가지였다. 그리스도도 완전한 거룩한 본성을 가졌지만 순종과 고난의 여정을 완성하기 전에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다(히 2:10; 5:8; 딤후전 3:16; 요 17:4; 사 42:21).

3. 우리의 본성 형성에서 저주는 어떤 면에서 선행하여 우리를 원죄 의로부터 결핍하게 하므로, 그 저주를 제거하는 의롭다 하는 선고는 순서상(시간이 아니라 본성상)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함보다 먼저여야 한다. 거룩함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으로 판결받은 참된 영생의 시작이다.

4. 우리의 의롭다 하는 의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다(빌 3:9; 고후 5:21; 사 45:24-25; 54:17; 렘 23:6; 33:16).

## II. 믿음은 습성(habitus)이나 행위로서도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의 의로 전가될 수 없다.

1. 믿음이 거룩한 습성이거나 선한 행위라면 그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다(요일 3:23; 요 6:29). 그러나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율법 행위에 의한 의롭다 함과 직접적으로 반대된다(롬 3:27-28; 4:4-5).

2. 믿음의 영구적 습성도 일시적 행위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의가 될 수 없다(롬 3:21-22).

3. 만약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 습성이나 행위가 의롭다 하심의 의로 전가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데에 어찌 공의로우시며 뛰어난 정당성을 가지겠는가? 자량이 어떻게 배제되었는가(롬 3:26-27; 요일 1:9)?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실 수 있고, 상이 채무가 아니고 은혜에 의한 것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롬 4:4-5)?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롬 1:17)이며, 은혜로 주어지는 의의 선물이라는 점(롬 5:15-21)과 어떻게 합치하는가?

4. 만약 우리의 믿음이 의롭다 하심의 의라면, 왜 그것이 우리 자신의 의와 심지어 우리 믿음 자체와 구별되어 '하나님의 의'라고 불리는가(빌 3:9; 고후 5:21; 롬 4:24; 3:22; 10:10; 1:17)? 한 사람의 순종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가(롬 5:19; 사 45:24; 렘 23:6)?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전가되는가(롬 4:22-24)?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입히는 의란 점은 어떻게 설명하는가(사 45:24-25; 61:10)?

5. 만약 우리의 믿음 습성이나 행위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의라면, 하나님은 율법의 요구 중 만분의 일도 충족하지 못하는 의를 의로운 의로 인정해야 한다.—매우 불완전한 일부의 의가 무수한 죄 사함과 영원한 행복의 충분한 기초가 되어야 한다.—우리는 불완전하여 용서받아야 할 것을 근거로 의롭다 되어야 한다.—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의롭다 하는 의를 받아야 하며, 의롭다 하심은 행위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하며 적어도 은혜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사람들은 스스로를 자랑할 수 있다.—이는 성경과 명백히 상반된다.



**반론: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심의 의로 전가되었다(창 15:6; 갈 3:6; 롬 4:3, 9).”**

답변 1. 이 구절들을 믿음의 습성이나 행위가 의롭다 하심의 의로 전가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사도의 의도와 명백히 모순된다. 사도는 의롭다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려는 것이다.

2. 아브라함은 창세기 15 장에 나오는 믿음의 행위 이전에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창 12:2-3; 히 11:8; 롬 4:3).

따라서 그 행위는 그의 의롭다 하는 의가 될 수 없다.

3.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는 의는 율법의 행위로 상속을 받는 것을 배제한다(롬 4:13).

4.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것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므로, 만약 이것을 그의 믿음 행위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 행위로 그를 인류의 구원자로 삼는 것이다(롬 4:11, 22-24). 그러나 그것은 그의 믿음의 대상인 약속 곧 그리스도와 그 의미며, 때로는 믿음이라 불리기도 한다(갈 3:23, 25; 딤후 1:1; 골 1:27; 롬 14:8; 17:7).

**III. 참된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서 필요하다. 믿음의 열매이며, 시작된 구원의 일부이고 완전한 구원을 위한 준비이다(막 1:15; 눅 12:10; 갈 5:6; 눅 13:3, 5).**

회개는 사법적 사면을 누리는 수단이며 그것을 받았다는 증거가 된다(시 66:18; 겔 16:62-63; 36:25, 31).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사면을 받고 징계를 면하는 데 필요하다(사 27:9; 요일 1:9; 롬 3:18-20; 3:12-13; 잠 28:13).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의 근거로서 사법적 사면을 받는 데는 필요하지 않다.

1. 모든 복음적 회개의 근원인 믿음은(눅 12:10; 겔 16:62-63) 그 첫 행위 혹은 형성 과정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여 그 안에서 의롭게 된다(엡 3:17; 고전 6:17; 롬 8:1; 고후 5:21; 사 45:24-25).

2. 복음적 회개와 하나님 사랑은 사법적 사면의 명확한 암시보다 앞서며, 회개와 모든 선행은 사면의 열매이지 조건이 아니다(눅 7:47-48; 겔 16:62-63; 36:25-31; 호 14:1, 4, 8; 사 44:22).

3. 회개를 의롭다 하심의 조건이나 근거로 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엄한 드러남을 훼손한다(롬 3:24; 5:15-21; 엡 2:7-8; 1:6-7).

4. 만약 회개가 사법적 사면의 조건이라면, 우리 회개가 진정 은혜로운 것임을 완전히 확신하기 전에는 복음이 제시하는 회개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롬 14:23; 시 50:16). 믿음은 어떤 필요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오히려 사면의 수용과 적용 그 자체이다.

5. 아무도 율법이 갖는 죄의 힘 아래 있을 때 복음적으로 회개할 수 없으며(고전 15:56),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온전히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사 55:7; 호 14:1-3, 8; 롬 3:4-5, 12-14, 22; 출 34:6-7).

**반대 주장 I. "우리는 죄 사함을 얻기 위하여 돌이켜 회개하라는 부름을 받았다(예레미야 3:12-14, 22; 이사야 55:7; 요한계시록 2:4-5; 3:19; 시편 32:4-5; 사도행전 2:38; 3:19; 8:22)."**

답변. 앞에서 언급된 두 본문과 이와 유사한 본문들에서는 돌이킴이 적어도 구속받아 죄 사함을 받는 믿음이나 나아감을 포함한다(예레미야 3:22; 이사야 55:1, 3, 7). 다음 세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관련되며, 오직 하나님의 부성적인 용서만을 필요로 한다. 사도행전 2:38 은 성인이 된 이들이 세례라는 사함의 인을 받기 위해 회개가 필요함을 나타낸다. 사도행전 3:19 에서 회개는 마음의 변화만을 뜻할 수도 있는데, 그 뒤에 회심이 덧붙여져 있다. 혹은 회개와 회심을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이는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적 행위를 의미할 수 있다. 또한 여기 언급된 사함은 마지막 심판에서 선포되는 선언적 사함을 뜻할 수도 있다. 실제로 그 말씀은 "그러므로 너희 죄가 지워짐을 인하여 회개하라"고 번역되기도 하였다. 사도행전 8:22 에서 회개는 죄에 대한 슬픔과 미움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한다.

**반대 주장 II. "성경의 많은 약속과 경고가 참된 회개를 조건으로 우리의 죄 사함을 보류한다(열왕기상 8:47-50; 역대하 7:13-14; 잠언 28:13; 누가복음 13:3, 5; 요한일서 1:9)."**

답변. 이들 본문 중 마지막 것은 신자와 부성적 용서에 관한 것으로, 요한일서 2:12-14 를 보라. 나머지 본문들은 즉각적으로 유대 민족의 외적 행복과 관련되며, 그들의 선행에 크게 좌우되었음을 기꺼이 인정한다. 잠언 28:13 과 누가복음 13:3, 5 에서는 죄 사함이 언급되지 않고, 단지 회개가 재난을 막고 복을 받는 탁월한 수단임이 암시될 뿐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최종적인 회개하지 않음과 두려운 멸망 사이의 불가분의 연관성을 밝힌다. 우리의 악한 행위들이 확실히 멸망을 초래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선행이 반드시 구원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로마서 5:21; 6:23; 레위기 26; 신명기 28; 아모스 1-4; 에스겔 18).

#### **IV. 우리의 어떤 선행도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의가 될 수 없다.**

1. 성경은 의롭다 하심의 근거에서 선행을 명백히 배제한다(욥기 9:2-3; 시편 130:3-4; 143:2; 로마서 3:19-20, 28; 4:4-6; 갈라디아서 2:16, 21; 5:4; 빌립보서 3:8-9).
2. 최선의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율법 요구에 완전히 부응하지 못하므로 전혀 충분하지 않다(열왕기상 8:46; 전도서 7:20; 야고보서 3:2; 이사야 64:6; 시편 14:1-4; 53:1-4; 로마서 3:10-20, 23). 설사 완전하다 해도 이미 범한 죄를 속하기에는 부족하다(로마서 6:23; 히브리서 9:22).

3. 우리 의롭다 하심은 죄 사함을 포함하며 전적으로 은혜에 의한 것이기에 인간의 행위를 그 근거로 완전히 배제한다(디도서 3:3-7; 에베소서 1:7; 골로새서 1:14; 로마서 5:17-21; 3:24; 11:6).

**반대 주장 I. "다윗, 히스기야, 느헤미야 및 기타 성도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였다(시편 7:8; 이사야 38:3; 느헤미야 5:19; 13:14, 22)."**

답변 1. 이들 본문은 인격적 의롭다 하심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랫동안 완성된 의롭다 하심 이후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열국의 왕이자 특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의 무죄 혹은 선행을 드러내고 일시적 은혜로 보상하시기를 바라는 것이다.

2. 이들 당사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위대한 자비에 의지한다(시편 130:4; 느헤미야 13:22; 이사야 38:17).

**반대 주장 II. "아브라함, 라합 및 기타 이들은 선행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야고보서 2:21-25)."**

답변 1. 의롭다 하심을 주장하는 야고보와 행위에 의한 의롭다 하심을 부정하는 바울은 동일한 행위를 언급한다. 야고보는 참되고 생생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음속에 나타내는 행위를 다룬다(야고보 2:14-25). 바울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의로운 행위, 즉 하늘에서 주어진 선행을 의미한다(디도서 3:5; 로마서 3:20, 28; 갈라디아서 3:10-11; 에베소서 2:10).

2. 그들은 매우 상이한 종류의 믿음을 의미한다. 바울은 의롭다 하심을 논할 때 하나님의 택자들이 그리스도와 그 의를 입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구원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보편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말한다(디도서 1:1; 로마서 13:14; 갈라디아서 2:20; 빌립보서 3:9; 에베소서 3:17; 2:8; 갈라디아서 5:6; 디모데전서 1:5). 반면 야고보는 죽은 믿음, 즉 명목상의 믿음만 가진 세상 사람들의 믿음을 가리키며, 이는 선행을 전혀 낳지 않는다.

3. 의롭다 하심의 대상 또한 다르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롭다 하심만을 말한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은총 안에 들이며 영원한 행복에 대한 법적 권리를 주는 것이다. 그의 목적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죄인들에게 참된 의롭다 하심을 얻는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의 의롭다 하심을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야고보가 언급한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약 60 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라합이 정탐꾼을 접대한 것은 믿음으로 행한 것이며(히 11:31), 그녀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후의 일이다.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인간이 세상과 자신의 양심 앞에 자신들의 의롭다 하심을 나타내는 것, 즉 믿음의 시현으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후 12:9). 또한 자비와 자선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거나 드러내는 것(눅 6:35)이다. 히브리어

‘tziddek’은 자신을 의롭다고 나타낸다는 뜻이고, ‘tzaddik’은 자신을 의롭다고 드러내는 자를 의미한다. 수많은 히브리어 제3 종형 동사 또는 그리스어 중간태 동사들이 이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야고보의 의도는 자기 자만하고 죄에 탐닉하는 신자들에게 오직 선행을 통해 그들 자신이 참된 신자이거나 의로운 상태임을 나타내야 함을 설득하는 데 있다.

### 반대 주장 III. "회개와 선행이 우리의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의 조건은 아니지만, 두 번째 혹은 계속되는 의롭다 하심의 조건이다."

답변 1. 우리의 의롭다 하심은 이 생에서, 죽음에서,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서 반복해서 암시된다. 그러나 성경이나 신자의 경험 모두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이나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의 가변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2. 성경은 첫 번째 의롭다 하심에 매우 많은 것을 귀속시켜 두 번째 의롭다 하심을 위한 자리를 남기지 않는다(로마서 4:6-7; 5:1-2, 9-11, 17-19; 8:1, 4, 33-34; 10:4; 히 10:10, 14, 18; 단 9:24; 고후 5:21; 행 26:18; 13:39; 골로새서 2:10, 13; 요 5:24; 엡 1:3, 6-7).

3. 성경과 경험은 첫 번째 의롭다 하심의 근거 외에 다른 근거를 허용하지 않는다(롬 1:17; 갈 2:20-21; 빌 3:9; 요일 1:7; 2:1-2; 엡 1:3, 6-7; 골 1:14).

4. 에스겔 18 장과 33 장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의 의롭다 하심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가나안 내 세속적 행복을 다룬다. 요한계시록 22:11 은 반복적인 의롭다 하심이나 점진적 지속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의롭다 하심의 불가역성과 증거를 늘려간다는 의무를 나타낸다.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와 특권(계 22:14)은 천국의 행복에 대한 권리와 자격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에 불과하다.

### 우리 의롭다 하심의 근거에서 배제된 선행들은 단지 의식법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1. 의식법 자체와 그에 대한 모든 순종은 성령께서 죄인의 행위에 의한 의롭다 하심을 강하게 부인하시던 시기에 이미 소멸되고 있었다(롬 1-10; 갈 2-6).

2. 만약 이 행위들이 단지 의식법 행위라면, 이방인들에게 말씀한 성경이 그 의식법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 의롭다 하심 문제에서 강하게 책망하고, 유대인 자랑자들에게는 그 의식을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롬 2-10; 갈 2:5; 약 2:14-26).

3.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유죄로 만드는 그것이며, 행위하는 자가 의롭다 함을 받고, 탐욕을 정죄하며 죄를 알게 하고,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행되었고, 완전한 이행 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으로,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저주받는 율법이다(롬 3:19-20; 2:13; 3:27-28, 31; 4:13; 갈 3:5-6, 10).

4. 만약 의식법 행위만 의롭다 하심에서 제외된다면, 왜 성령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여러 면에서 자연법을 범했음을 깨닫게 하여 의롭다 하심 교리를 도입하셨는가(롬 1-3)?

5. 의식법 행위를 부정하는 이유는 인간의 다른 행위에 대한 부정과 다르지 않다. 단지 외적인 행위나 믿음 없이 행한 행위만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1. 의롭다 하심은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 그 순간 완성된다(롬 5:1; 3:28; 갈 2:16).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와 의롭다 하심 이후에 따르는 행위가 의롭다 하심의 조건일 수 없다. 이는 마치 도둑이나 살인자가 유죄 판결 후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과 같다.

2. 신자의 최선 행위조차 도덕법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지 못한다(사 64:5-6; 요일 1:8-10; 왕상 8:46; 전 7:20; 약 3:2; 롬 7:14-25).

3. 신자는 믿음의 순종을 행할 때 율법에 따른 의롭다 하거나 정죄받는 계약 아래 있지 않다(롬 7:2, 4; 6:13; 8:2; 갈 2:19; 4:4-5; 5:18).

4. 새롭게 된 마음의 영을 가진 신자는 자신들의 행위가 의롭다 하심에 어떤 지위도 가질 수 없음을 고백한다(시 130:3-4; 143:2; 욥 9:2-3; 40:4; 42:5-6; 사 64:6; 고전 4:4; 갈 2:16; 빌 3:8-9).

5. 성경에 언급된 유명한 의롭다 하심 사례들은 모두 믿음으로 받은 것이며 모든 인간 행위에 반대된다(롬 4:1-6, 13; 시 143:2; 130:3-4; 25:11).

6.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 특히 신자가 믿음으로 행하는 선행은 의롭다 하심의 의에서 배제된다(롬 3:19-20; 10:3-10; 엡 2:8-10; 딤후 3:5).

7. 마음의 거룩함이나 믿음으로 행한 행위가 의롭다 하심의 의라면, 어떻게 율법 없는 의가 의롭다 하심에서 전가될 수 있겠는가(롬 3:21-22, 24-26)? 혹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행위 없이 의를 전가하실 수 있겠는가(롬 4:5-6)? 혹은 약속이 행위에 반대되는 믿음으로 주어져 모든 후손에게 확실히될 수 있겠는가(롬 4:16)? 혹은 신자들이 믿음으로 행한 선행 조건을 완성하기 전에 마음의 평안이나 영원한 행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겠는가(롬 5:1-5, 10-11; 15:13; 딤후 1:12)? 혹은 누가 의롭다 하심 교리가 문란함을 조장한다고 생각하겠는가(롬 6:1-2; 유 4)?

8. 왜 성령은 믿음 없이 행하는 단지 외적인 행위를 그렇게까지 철저히 배제하는가?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충분한 의롭다 하심으로 주장하지 않기 때문이다(롬 14:23; 잠언 15:8; 21:4, 27; 28:9).

의롭다 하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담이 타락 이전에 행한 완전한 행위만이 아니다.

1.

## 본문

왜 성령께서 땅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이토록 힘써 부인하시는가, 역대상 8:46; 전도서 7:20; 잠언 20:9; 야고보서 3:2; 이사야 64:6; 이사야 6:5; 로마서 7:14-25; 갈라디아서 5:17; 빌립보서 3:12?

2. 만약 불완전한 행위만이 사람을 의롭게 한다면, 왜 성령께서 우리의 행위가 그 불완전함에 비례하여 정죄받는다고 설득하기 위해 애쓰시는가, 이사야 1:11-15; 이사야 29:13?

3. 율법의 계명을 완전하게 이행하는 완전한 행위를 배제하고, 불완전하여 율법을 깨뜨리는 불완전한 행위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의 의로 삼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로마서 2:2?

4. 바울과 다윗 및 다른 성도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매우 불완전하다고 믿기에 그것을 그들의 의롭다 하심의 의로 여기는 것을 포기하였다, 빌립보서 3:8-9; 로마서 7:14-25; 시편 143:2; 시편 130:3-4.

5. 어떻게 불완전한 의가 하나님께 속한, 곧 여호와 안에 있는 의, 순수하며 깨끗하고 흰 세마포 같은 의가 될 수 있으며, 사람을 흠 없고 책망할 데 없이 하나님의 눈에 온전하게 만드는가, 고린도후서 5:21; 이사야 45:24; 요한계시록 19:8; 아가 4:7; 골로새서 1:22?

6.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무가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심(그 공로에 근거하지 않고, 자량을 제하여)의 진리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자기 행위의 불완전한 의로서 의롭게 하심을 어떻게 화합시킬 수 있는가, 로마서 4:4-6; 로마서 3:27?

불완전한 순종 아래 절단된 율법 아래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히 영광스러운 행위일 것이다, 고린도전서 15:56. 인간 행위의 공로나 그것에 대한 사람들의 자만만을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의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것은 더없이 어리석다.

1.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 자유 은혜의 나타남을 전부 배제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아마 없었을 것이다.

2. 어떤 행위도 적어도 언약상 공로가 있다고 가정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의로 인정될 수 없다.

3. 하나님의 무한히 지혜로운 영은 인간 행위의 단순한 공로나 자만심을 배제하는 듯 보이지도 않으며, 항상 행위 자체가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의가 되는 것을 명백히 부인한다, 로마서 3:20,26; 갈라디아서 2:16; 갈라디아서 3:10; 갈라디아서 5:2-4.

4. 어떻게 동일한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으며, 율법의 행위이면서 믿음의 의가 될 수 있는가, 그 행위에 공로의 자만이 부착되었든 아니든?

5.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는 것은 교만한 공로심이 아니라 법에 대한 순종, 곧 우리를 경건하게 나타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받은 선한 행위들이며, 이 행위들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의에서 제외된다, 로마서 4:5; 에베소서 2:8-10.

그러나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 의, 즉 그의 인성의 거룩함과 삶의 순종, 만족스러운 고난과 죽음은 따라서 우리의 구원의 원인이자 대가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그 의로서 반드시 되어야 한다. 이는 다음에서 명확해질 것이다.

#### 율법과 복음의 관계

첫째, 우리는 오직 그 법, 곧 오직 그 법에 의해 혹은 그 법에 따라 의롭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원래 십계명의 법 아래 있었으며, 당연히 그러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사람이 그의 이성적 피조물이자 신하로서 맺는 도덕적 관계의 규칙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에 근거하고 인간 본성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보전자이시며 통치자이신 한, 그리고 사람이 이성적 피조물이자 신하인 한 변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모든 요구에 충족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갈라디아서 3:10; 마태복음 19:17. 이 법은 폐지되지 않았으며 폐지될 수 없다.

1.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폐지하려는 어떠한 수단도 사용하지 않으셨다. 어떤 법도 처음에 의무로 요구된 것을 죄로 만들지도 않고, 처음에 죄로 금지된 것을 합법적으로 선언하지도 않는다.

2.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려 오셨다, 마태복음 5:17-19; 마태복음 3:15; 누가복음 24:26,46; 로마서 8:3-4; 로마서 10:4; 갈라디아서 4:4-5; 히브리서 10:5-10; 시편 40:6-8.

3. 복음은 율법을 무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립한다, 로마서 3:31; 로마서 8:4; 로마서 10:4; 이사야 42:21; 이사야 45:24.

4. 형벌을 건달 의무가 있다고 해서 율법의 명령에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가 의무를 해제하거나 범죄자가 도덕적 주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게 된다고 상상하는 것,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해친 것이 그들을 계속하여 더 해치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여기는 것은 가장 어리석다. 이 도덕법에는 어떠한 감면도 없으며, 순종의 질과 정도에 관한 요구도 완화될 수 없다.

1.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감면 및 완화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이다, 마태복음 5:17-20,48; 마태복음 22:37-40; 베드로전서 1:15-16; 로마서 3:31; 로마서 8:3-4; 로마서 10:4.

2. 이 법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과 의로움을 인간에게 나타내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동일하신 한 완화될 수 없다.

3. 만약 이 법이 덜 엄격하고 범위가 축소된다면, 의의 기준은 남지 않는다. 이것을 성실함으로 낮춘다면, 그것은 적어도 신자의 환경에 따라 변경 가능하여 모든 종교의 기준이 유동적이 되고, 동일한 지위에서 어떤 것은 한 사람에게는 선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되며, 사람들의 의무 수준이 그 내면의 기질에 따라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4. 무엇이 하나님의 법을 완하시킬 수 있겠는가? 시간이 흐르거나 사람들이 스스로의 탓으로 더 악해짐으로써 하나님이 한때 사랑하던 것을 미워하거나 한때 죄로 여겼던 것을 사랑하게 만들거나, 죄 된 성향에 맞추어 법을 폐할 수 있겠는가?

5. 만약 그런 완화가 가능하다면, 왜 하나님은 처음에 무죄한 창조물 아담과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이렇게 쉬운 법 아래 두지 않으셨는가?

6. 앞서 증명하였듯 이 법의 언약적 형태는 변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그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의 어려운 순종과 두려운 고난으로 이를 확증하셨다, 로마서 8:3-4; 로마서 10:4; 고린도후서 5:21; 갈라디아서 3:10,13; 갈라디아서 4:4-5; 베드로전서 1:18-20; 베드로전서 2:24; 베드로전서 3:18; 다니엘 9:24,26; 이사야 53; 스가랴 13:7.

나아가, 그 법은 완전한 이행 대신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는 것을 받는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다.

1. 하나님은 항상 진리와 공의에 따라 판결하신다, 로마서 2:2; 창세기 18:25; 신명기 32:4.

2. 그러한 사실을 그는 우리 보증인 되신 아들에게 요구하심으로 완전히 보여주셨다, 로마서 8:3-4,32; 마태복음 3:15; 마태복음 5:17-18; 누가복음 24:26,46; 히브리서 2:10; 히브리서 5:8.

3. 하나님은 완전한 의를 위하여 죽은 누더기 같은 더러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빌립보서 3:8-9; 이사야 64:6.



만약 갠 율법이 그 규례와 벌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하는 의가 아니면 아무것도 의롭다 하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님 자신의 의, 곧 우리 안에 계시는 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 로마서 3:19-22,24-26; 로마서 8:3-4; 로마서 10:4; 이사야 42:21; 이사야 45:24-25; 예레미야 23:6; 예레미야 33:16; 다니엘 9:24,26; 고린도후서 5:21; 마태복음 20:28; 마태복음 5:17-18; 에베소서 5:2; 사도행전 20:28; 갈라디아서 2:20; 갈라디아서 3:13; 갈라디아서 4:4-5; 베드로전서 2:24; 베드로전서 3:18; 요한계시록 5:8-9.

복음이 새로운 율법이라고 터무니없이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나, 거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중보로 인해 사람들에게 믿음과 회개, 진실한 순종을 조건으로 구원을 약속하고 제공하며,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복음적 의롭다 하심의 의가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실제로 복음은 율법이라 불리고, 신앙의 율법이라 하며, 하나님 권위로 표징되어 우리에게 주어져 교훈이 되기 때문이다, 이사야 2:3; 미가 4:2; 로마서 3:27.

그러나 율법은 언제나 적절한 주권자가 그의 신하들에게 마땅한 순종을 요구하는 선언된 뜻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적 은혜와 부패가 율법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로마서 7:23,25; 로마서 8:2. 그리고 복음이 주장하는 그와 같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1. 복음은 죄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인데, 만일 그것이 단지 그들의 능력을 초월하고 기호에 반하는 조건에서 행복을 제시한다면 좋은 소식일 수 없다.

2.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하심을 나타낸다. 아버지를 원수들을 향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분으로 나타낸다, 요한복음 3:16-17; 요한 1 서 4:9-10,16,19; 요한 1 서 3:1; 에베소서 1:3-8; 에베소서 2:4-9; 이사야 42:6-7; 이사야 49:1-12.

복음은 아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으로, 그의 인격과 은혜의 이름들, 직분과 관계, 사역과 충만함 안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나타내며—그의 겸허함을 대가로, 영원한 구속의 직접적 원인으로—그의 영화(영광)를 보여 준다, 마태복음 20:28; 베드로전서 1:18-20; 이사야 53:10-12; 이사야 52:13-15.

죄인들에게 그와 그의 충만함 모두를 하나님의 자유롭고 헤아릴 수 없는 선물로 제시하는 약속이 풍성하다, 디모데전서 1:15; 이사야 42:6-7; 에스겔 36:25-31.

또 그들을 그와 그의 충만함을 받아들이도록 광범위한 무한한 초대와 격려로 충만하다, 이사야 55:1-7; 마태복음 11:28; 고린도후서 5:18-21; 요한계시록 22:17; 잠언 1:22-23; 잠언 8:4; 잠언 9:4-5.

3. 복음은 율법을 언약과 삶의 규칙으로서 영광스럽게 완성하도록 하며, 우리의 특권을 하나님의 은혜를 존귀히 여기는 우리의 의무와 연결한다, 로마서 3:31; 이사야 45:24; 히브리서 9:14-17; 고린도전서 1:30; 고린도후서 5:14-17; 디도서 2:11-14; 누가복음 1:74-75; 시편 116:16; 시편 119:32,166; 고린도전서 6:19-20; 고린도후서 5:14-15; 고린도후서 6:18; 고린도후서 7:1; 요한 1 서 4:19; 요한 1 서 3:2-3; 로마서 5:21; 로마서 6:1; 디도서 2:11-14; 디도서 3:8,14; 히브리서 12:28.

그럼에도 율법과 복음에 의한 영생의 청구는 정면으로 상반된다, 요한복음 1:17; 히브리서 3:5-6; 히브리서 12:18,24; 로마서 3:20,24; 로마서 4:4-5; 로마서 5:15-21; 로마서 6:23; 로마서 11:6; 갈라디아서 2:16-21; 갈라디아서 5:2,4.

4. 만약 이 새 율법이 옛 율법과 동일한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하다. 만약 다른 순종을 요구한다면, 하나님 율법 하나가 다른 율법에 대립하며, 한 율법이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것을 다른 율법이 완전하다고 여기는 셈이다.

5. 만약 새 율법이 진실한 순종만 요구한다면, 그 순종은 불완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만큼 완전하다.

6. 이 새 율법을 여기는 자에게 내려질 저주나 형벌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3:13; 시편 72:17; 시편 89:28-35; 시편 94:12; 이사야 54:8-10; 히브리서 12:6-11; 요한계시록 3:19; 잠언 3:12.

7. 만약 새 율법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두 율법에 상응하는 두 종류의 의가 필요하며, 그 중 옛 율법의 요구를 충족하는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 자신의 새롭고 구원을 주는 율법을 완성하는 의 아래 종속되어야 하니, 이는 빌립보서 3:8-9; 이사야 45:24-25; 이사야 64:6 과 배치된다.

8. 새 율법이 사람들의 자연적 능력에 따라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오직 절망적 악과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만 요구할 것이다, 예레미야 17:9; 로마서 8:7-8. 그렇지 않으면 은혜로운 속성을 주는데, 왜 완전한 거룩함을 행할 능력까지 주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율법적 의가 한 종류 상품만큼 다른 것도 구원한 것은 확실하다.

9. 복음 시대에는 단순한 진실함이 아니라 거룩함의 완전함을 강력히 요구한다, 고린도후서 13:11; 야고보서 1:4; 마태복음 5:48; 베드로전서 1:15-16; 골로새서 1:28.

가장 복음적 신자들조차 자신들의 진실함을 확신하면서도 그 완전함이 부족함을 깊이 탄식한다, 로마서 7:14-25; 빌립보서 3:12-14; 시편 65:3; 시편 19:11-13; 이사야 64:6; 이사야 6:5.

10. 그렇다면 이 새 율법이 개·고양이·부추·양파·매춘부·나무토막·돌·축성된 물·형상·유물 숭배 혹은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을 죽이고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행위들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의 의로서 진실하게 인정할 수 있겠는가? 요한복음 16:2; 사도행전 26:9-10.

11.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한한 거룩하심과 일치하도록, 어떻게 진실함으로 일관되는 모든 죄의 정도를 묵인하는 율법을 세울 수 있는가? 하박국 1:12-13; 시편 5:4-5; 시편 11:6-7.

12. 그리스도가 그런 죄를 관용하는 새 율법을 가능케 하려고 죽으셨겠는가? 그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구원자이며, 하나님의 율법이 오래도록 반대해 온 죄를 위한 구원자이며, 죄를 위한 순교자여서 한때 죄라 여겨졌던 것을 더는 죄가 아님으로 만들었던 말인가?

율법이 없으면 범법도 없느니라, 롬 4:15; 롬 5:13.

—13. 그리스도의 중재가 어떻게 죄를 용인하는 율법을 마련할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이 그로 하여금 옛 율법의 조건을 준수하게 요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중재 목적이 어떻게 그 공의와 거룩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그로 하여금 사람의 능력에 맞추어 조건을 낮추도록 요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중재 목적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당한 것에 매이지 않게 구속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14. 이 새 율법은 사람들의 거룩을 크게 낙담시키고 그들의 영적 위로를 방해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정성의 정확한 기준에 도달했는지 알기 얼마나 어려운가—그 기준 없이는 우리는 정죄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그 기준을 넘어섰다면, 누가 우리의 불필요한 초과 공로에 관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 II. 은혜 언약과 칭의

이전에 증명된 바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과 맺은 은혜 언약이 동일하다면, 그의 그 조건 이행은 그들에게 귀속되어 하나님을 심판자로 하는 새 언약 상태에서 그들을 의롭게 한다, 갈 4:24; 출 24:8; 욥 9:11; 마 26:28; 히 9:20; 히 13:30; 롬 5:12-21; 고전 15:21-22, 45.

이미 증명되었듯, 이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필요로 할 모든 것이 약속되고 맡겨졌으며, 이 언약의 모든 약속이 우리와 관련하여 형식상 또는 본질상 절대적이며, 믿음, 회개, 진실한 순종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 약속되었고 조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겔 36:25-31; 렘 31:32-34; 렘 32:38-41; 호 2:19-20; 엡 2:4-9; 행 5:31.

—우리의 행위나 어떤 자질을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은 행위 언약과 대립되므로 그 전체 형식과 은혜를 파괴한다, 롬 11:6; 엡 2:4-9; 엡 1:3,6-8; 딤후 3:5; 사 55:1-4; 롬 3:24; 롬 5:17-21.

—또한 죽은 영아는 결코 믿음, 회개, 진실한 순종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더욱이,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과 회개를 주신다면, 왜 우리에게 행할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온전한 영생의 축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만약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들어간 후에 그것들을 얻는다면, 그것들이 우리의 입언 조건이 될 수 없다.

—성경은 은혜 언약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입되거나 근거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나타낸다. 또 죄인인 인간에게 믿음, 회개, 진실한 순종의 조건으로 영생을 약속하는 언약이 하나님께 영광스러울 수 없고, 그들에게 유익할 수 없으며, 그 죽음이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렘 17:9; 롬 8:7-8; 창 6:5; 마 15:19.

—하나님께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그들이 그 언약 안에 개인적으로 설치되고 붙잡으며 언약의 전체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렘 31:31-34; 렘 32:38-41; 삼하 23:5.

### III. 그리스도의 보증인 됨과 의의 귀속

새 언약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은 법적 계산상 한 사람이니, 그는 그들의 보증인이며 그들은 그의 법적 대표자이다, 고전 12:12; 히 7:22; 롬 8:3-4,29,32-34; 엡 1:3-7; 요 17:4,6; 갈 1:20; 갈 4:4-5.

히브리어 hhereb(보증인)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섞거나 법적으로 그들의 집을 조심스럽게 함께 지는 사람을 뜻한다, 창 43:9; 창 44:32-33; 느 5:3; 잠 6:1; 잠 17:18; 잠 20:19; 렘 30:21. 그리스어 engyos 는 손을 내밀어 남을 대신하여 자물을 약속하는 자를 의미한다, 히 7:22.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증인이 되셨기에, 우리가 행위 언약의 파기에 대해 진 빚을 모두 그분에게 청구하였다, 시 40:6-8; 갈 4:4.

—우리 죄들 자체,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하는 형벌의 의무뿐만 아니라 모두 그분에게 놓였다.

1. 성경은 이를 분명히 고백한다, 사 53:6,11-12; 벰전 2:24; 요일 3:4-5.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셨고, 선택된 자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 고후 5:21.

2. 그분을 상징하는 옛 제물들은 희생되기 전에 범죄자들이 손을 얹음으로 그들에게 범죄자들의 죄를 부여받았다. 심지어 속죄제와 죄제는 각각 asham(범죄)와 hataah(죄)라는 이름이 부여되었다, 출 29:14,36; 출 30:10; 레 4:3,8,14,21,24,26-27,29,35; 레 5:7,8-12; 레 6:4,17-18,25,29,36; 레 7:1-2,5-7,18,37; 레 8:2; 레 9:2-3,7-8,10,15,22; 레 10:16-17,19; 레 12:6,8; 레 14:3,13,17,19-31; 레 15:15,30; 레 16:3,6,9-10,21-22,25,30,34; 레 23:19; 민 6:11-12; 민 8:11; 민 23:9,22; 민 19:9,17; 민 7; 민 28-29 등. 사 53:6,10; 사 53:4-5,8; 단 9:24; 롬 8:3; 고후 5:21.

3.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쾌해하신 바로 그 근본 원인이 그리스도에게 놓여 대속하는 희생으로 제거되었는데, 이는 단순한 형벌의 의무가 아니라, 그들의 불법한 율법 위반, 즉 죄들이다, 고후 5:18-21; 사 53:6; 사 53:4-5,8,10-12; 단 9:24; 벰전 2:24.

4.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을 때 제거되는 그 죄가 곧 그리스도에게 법적 보증인으로 놓인 죄이며, 우리를 형벌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히 9:14; 히 10:18; 시 32:1-2; 미 7:18-19.

5. 만일 우리의 죄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법적으로 청구되지 않았다면, 그는 법적 계산상 무죄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의로우신 아버지가 그를 처벌할 수 있는가? 또는 그가 많은 사람을 대신해 생명을 내어 줄 수 있었겠는가, 사 53:5,10; 마 20:28; 딤후 2:6; 고전 6:20; 롬 3:25-26; 히 10:5,10,14; 롬 8:3-4,32-34; 고후 5:19-21; 뱀전 1:18-20; 뱀전 2:24; 뱀전 3:18; 엡 5:2; 계 5:9?

하지만 이와 같이 우리 죄를 법적으로 청구한 것이 그를 신성모독자나 죄인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는 채무를 보증인에게 청구한다고 해서 그가 그 부채를 탕진한 장본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의 죄는 계속 우리 소유이며, 범죄자로서 우리에게 속해 있고, 그분의 것은 법적 청구를 통한 만족을 위해서만 존재한다.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 성실 순종의 새 법을 우리가 이행하는 조건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만족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1.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런 조건에 따라 사람을 위한 만족을 이룬다고 전혀 암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분이 만족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한다, 요 10:10,14,26-29; 요일 1:7; 히 10:10,14; 히 2:9-10; 사 45:17.

2. 그리스도는 선행 증명된 선택의 조건적 법령 아래가 아니라, 조건 없는 법령에 기초해 우리의 죄에 만족하였다, 행 13:48; 롬 8:30; 롬 9:15-23.

3. 만약 그리스도가 조건적으로 만족했다면, 그 조건은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그것은 진정한 조건이 아니라 자유롭게 주어지는 축복이 선행하는 또 다른 축복에 불과하거나, 우리의 본질적으로 타락한 능력에 의해 산출된 것이어서 틀림없이 죄악이다, 롬 8:7-8; 롬 14:23; 롬 17:9; 창 6:5; 창 8:21; 욥 14:4; 잠 20:9; 마 15:19; 막 7:21-23; 딤후 1:15; 딤후 3:3; 엡 2:1-3; 갈 5:19-21.

4. 만약 우리의 칭의의 시작이 우리가 행한 어떤 조건 수행에 달려 있다면, 그것 또한 같은 근거에서 계속되어야 하고, 만약 자유의지가 나중에, 아마도 천국에서도 의심한다면, 우리는 다시 무의롭게 되어 영원한 진노에 처해질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자체를 청구당하고 그 죄에 의존하지 않고 만족하였다면, 그의 의로움이나 만족 자체, 즉 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1. 만약 그의 의로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칭의, 화목, 양자됨, 성화, 영화 및 다른 어떤 효과도 얻을 수 있겠는가? 만약 우리의 죄악이 여전히 우리 개인과 양심에 대하여 하나님께 청구되고 있다면, 즉 그의 죄 제거 의로움 그 자체가 대위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가?

2. 만약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그 효과 안에서만 우리에게 귀속된다면, 그것은 칭의에서뿐 아니라 성화와 영화에서도 단지 유일한 공로의 값일 뿐이다.

3. 만약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자체가 귀속되지 않는다면, 어찌 귀속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의 의로움의 효과인 하나님과의 화평, 성화, 영적 위로, 영원한 영화는 단지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적이고 법적이 아니라 실제로 거룩하고 행복하다.

4. 만약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면, 무한히 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적절한 근거가 되는 다른 의로움이 귀속되어야 한다, 롬 2:2.

5. 만약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자체가 우리가 범죄자로 붙들린 파기된 율법의 요구를 충족했다면, 그 의로움 그 자체가 귀속되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자로서 우리에게 만족하실 수 있어야 한다, 롬 8:3-4; 롬 10:4; 갈 4:4-5.

6. 만약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자체가 그의 대속적 중보기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론하는 근거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변론한다면, 그 의로움 그 자체가, 그 효과가 아니라, 우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계 8:3; 요일 2:1-2; 히 9:24; 히 7:25; 히 10:10-22.

7. 만약 아담의 죄 자체가 우리에게 귀속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귀속되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우리에게 청구된 모든 죄를 상쇄한다, 롬 5:12-21; 고전 15:21-22, 45-49.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보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파기된 율법 앞에서 우리와 하나이고, 우리의 죄 자체가 그에게 청구되어 조건 없이 만족되었으며, 그분의 의로움 그 자체가 우리에게 귀속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칭의 의가 되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하는 그 율법의 모든 요구에 완전히 합당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칭의 의로서 다른 어떤 여지도 남기지 않는다, 롬 5:16-21; 고후 5:21; 겔 23:6; 겔 33:16; 사 45:24.

#### IV. 성경적 증거: 의의 유일한 근거로서 그리스도

성경은 무수한 본문에서 우리가 대신하여 파기된 행위 언약을 따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유일한 칭의 의로 나타낸다, 욥 33:23-24; 사 45:24-25; 사 53:4-6, 8, 10-12; 사 42:21; 사 46:12; 사 54:17; 사 61:10; 겔 33:6; 겔 23:16; (항상 “그녀를 부르는 자, 곧 여호와 우리의 의”로 읽어야 한다), 단 9:24, 26; 슥 3:4; 마 20:28; 마 26:28; 요 1:29; 롬 1:17; 롬 3:21-26, 31; 롬 4:6, 11, 25; 롬 5:10-11; 롬 5:12-21; 롬 8:2-4, 32-34; 롬 9:31-32; 롬 10:3-4; 고전 1:30; 고후 5:21; 갈 2:16, 20-21; 갈 3:3, 14; 갈 4:4-5; 갈 5:2, 4; 엡 1:7; 엡 5:2, 25-27; 빌 3:8-9; 딤후 2:14; 히 1:3; 히 9:12, 14-15, 28; 히 10:10, 14, 18-22; 히 13:12; 벧전 1:18-20; 벧전 2:24; 벧전 3:18; 벧후 1:1; 요일 1:7; 요일 2:1-2; 요일 4:9-10; 계 1:5-6; 계 5:9; 계 3:18; 계 19:8.

그의 인간 본성의 거룩함과 생애의 순종도 죄를 위한 고난보다 우리에게 덜 귀속되지 않는다.

1.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 데 필요한 파기된 언약으로서 율법은 죄에 대한 고난뿐 아니라 그것들을 요구한다, 롬 2:13; 갈 3:12; 히 9:22; 마 3:15; 눅 24:26, 46.



2. 영생은 단순한 고난에 따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품과 봉사에 따라 부여된다, 갈 3:12; 마 19:17; 롬 10:5; 롬 2:13; 레 18:5; 겔 20:11,21.

3. 단순히 형벌을 건디는 것은 율법의 명령에 부합하지 못하므로 결코 의가 아니며, 저주받은 천사와 인간에게는 하나님 율법에 대한 기쁜 마음이 없으므로 만족도 전혀 되지 않는다.

4. 아담의 불순종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되어 우리를 법적으로 의롭게 한다, 롬 5:19; 빌 2:6-8; 빌 3:9; 엡 1:6; 단 9:24.

5.

그리스도는 결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았으며, 자신을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순종을 다하였고, 그 순종은 우리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그는 우리의 대리로서 그것을 이루셨다(갈 4:4-5; 롬 8:3-4).

6.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의로 옷 입혀졌으므로, 깨어진 언약으로서 율법에 대하여 순종할 의무가 없고 다만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생명의 규례로서 율법에 순종할 뿐이다(롬 6:14; 롬 7:4,6; 롬 8:2; 갈 2:19-20; 갈 5:18).

## 반론과 답변

### 반론 1: 마음과 삶의 거룩함 문제

“그리스도의 깨어진 율법에 대한 이룩심이 우리에게 의로 귀속된다면, 우리의 마음과 삶의 거룩함이 불필요해진다.”

답변. 마음의 거룩함과 선한 행위는 우리의 칭의의 필수 열매이자 증거이며, 또한 구원의 필수 부분이다. 이는 이후에 증명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칭의나 구원 상태에 들어가는 필요조건은 아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많은 유아가 어떤 선행도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칭의, 심지어 천국에 들임을 받는다(막 10:14).
2. 진정한 선한 행위는 구원 상태에 실제로 들어가야만 행해질 수 있다(롬 7:4,6; 엡 2:10; 고전 15:56).
3. 성경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하나님의 자유 은혜에 근거하며, 구원은 우리가 구입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유산으로 나타낸다(엡 2:7-8; 엡 1:7,11,14; 롬 6:23; 롬 5:21; 롬 8:16-17; 요 10:9-10,15-16,26-29; 딤후 3:3-7; 갈 3:18,29; 갈 4:30-31).
4. 만일 우리의 칭의나 구원이 선한 행위에 부분적으로라도 의존한다면, 결국 전적으로 의존해야 할 것이다(갈 5:2,4; 갈 2:21; 롬 11:6; 롬 4:4,14).
5. 모든 믿음으로 행하는 선한 행위는 그리스도의 의를 통한 이전의 완전하고 영원한 칭의와 영생 상속권을 전제하며, 인간이 영원한 행복을 판결받는 율법 아래서 행해지지 않는다(롬 7:4,6; 롬 6:14; 롬 8:2; 갈 2:19-20; 갈 5:2,4,18; 고전 9:21).

## 반론 2: 복음 요구와 인간의 의

“그리스도의 귀속된 의가 깨어진 언약으로서 율법의 요구에 따라 우리를 칭의하지만, 복음의 요구에 합당한 우리의 의가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신과 최종적 회개 없음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답변

1. 이미 복음은 인간에게 의무를 요구하는 새로운 율법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2. 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가 없으니(롬 4:15; 롬 5:13; 요일 3:4), 복음에 대한 불신이나 회개 없음은 무엇이겠는가? 그것 역시 율법에 대한 죄가 아니겠는가? 하나님의 법은 복음보다 불신이나 회개 없는 태도를 더 용납하지 않는다(요일 3:23; 겔 33:11).
3. 그리스도는 택하지 않은 자의 다른 모든 죄뿐 아니라 최종 불신과 회개 없음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않았다(요 10:11,15; 사 53:5-6,8,10-11).
4. 그러나 그리스도는 택한 자들의 모든 죄와, 비록 최종적일 수 있는 불신과 회개 없음까지도 제외하지 않고 온전히 만족하였으며, 그의 피가 그들의 양심에 적용되어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한다(사 53:6; 벰전 2:24; 단 9:24; 요일 1:7,9).

그리스도의 연대책임적 의는 그의 본성과 이름과 대리자로서 우리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은 복음 약속 가운데 그것을 우리와 그리스도 자신 안에 나타내고 주신다(사 45:24; 사 46:12; 사 54:13,17).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법적 행위 속에 귀속되며, 오직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받는다(사 61:10; 고후 5:21; 빌 3:9; 갈 2:16).

### 귀속(imputation)의 개념과 법적 근거

귀속(imputation)은 어떤 속성, 행위, 고난을 어떤 사람의 계정에 계산하는 법적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이 적절히 다뤄진다. 이것은 그가 실제로 행하거나 겪은 것(창 30:33; 시 106:31; 삼하 19:19; 행 7:60; 레 17:4), 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왕상 1:21), 또는 자신의 대신 행하거나 겪은 다른 사람의 것을 포함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과 왕들의 죄악을 짊어졌듯이(민 14:33; 출 20:5), 어떤 이들은 부권적 정치적 관계에 기초해 귀속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하위 존재들이 부모나 통치자의 죄의 마땅한 결과를 공유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범죄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진정한 귀속이라 할 수 없다.

모든 적절한 타인의 행위나 고난에 대한 귀속은 행위자 또는 당사자와 귀속 받는 자 사이에 법적으로 하나의 인격으로 간주되는 관계에 기초해야 한다. 따라서 채무, 죄, 의가 귀속되면 귀속된 자는 법적으로 채무자, 범죄자, 또는 의인이 된다(몬 18; 창 43:9; 창 44:32; 롬 5:12,19).

따라서 명백한 것은,

1. 무한히 공정한 판사이신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그것이 온전하거나 불완전한 것이든, 진실한 것만을 귀속하신다(롬 2:2; 창 18:25).
2. 자신이 행하거나 겪은 것에 대한 귀속은 단순히 법적 부과이고, 그러나 타인이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거나 겪은 것의 귀속은 그것을 법적으로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3. 우리가 본질상 전적으로 소유했던 것의 귀속과 아담의 최초죄 귀속은 엄정한 정의를 포함하지만,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귀속하여 대속케 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귀속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 은혜이며 정의의 영광을 드러낸다.

4. 정당한 귀속에서는 충분한 법적 근거 없이 죄인이나 의인으로 판결되는 자가 없다.

5. 귀속은 귀속받는 자의 본성에 죄나 의를 주입하거나 그에 대한 상급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며, 단지 그 빛과 죄와 의를 우리에게 법적으로 부과하여 그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한다.

이러한 귀속의 결과로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내리시고, 그가 획득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사 53:6; 사 53:4-5,8,10-11; 엡 1:3,6-7).

### 칭의와 믿음의 순서 및 관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귀속하는 행위와 우리가 그 의를 믿음으로 받는 행위는 시간적으로 완전히 동시에 이루어지나, 본질적 순서로 어느 쪽이 먼저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양측 견해 모두 어려움이 있다. 나의 미약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는 깨어진 행위 언약의 정죄 아래 있을 동안에는 은혜의 습관이나 믿음의 행위를 가질 수 없으며, 완전한 거룩함이나 행복도 있을 수 없다(고전 15:56; 롬 6:14; 롬 7:4; 롬 8:2; 엡 2:10; 갈 3:10,13; 갈 4:4-5).

2.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할례하시고 율법을 기록하시는 것은 죄 사함의 결과이다(히 8:10-12; 골 2:13).

3.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듯,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택한 자 모두가 생명 얻으며, 즉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 귀속은 우리 마음에 은혜를 심는 것이고, 아담의 죄 귀속은 본래 의를 거두고 영혼 형성과 후속 타락에 영향을 미친다(고전 15:22).

4. 우리의 실제적 영원한 생명의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모두 그리스도의 의 귀속에 달려 있다(요일 5:12).

5.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을 받으며(빌 1:29), 구주 하나님의 의로 귀중한 믿음을 얻는다(벧후 1:1).

6. 그리스도의 의 귀속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믿음 존재나 작용에 앞설 수 있으며, 이는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시키는 행위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행위가 믿음보다 본질적으로 먼저라는 점과 같다(벧 3:12; 엡 2:10; 고후 5:17).

7. 칭의는 하나님의 행위로서 본질적 순서상 믿음보다 앞서고, 우리의 믿음은 칭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양심 속에서 종결하는 행위로서 그 앞선다고 말할 수 있다.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음이 확실하다(롬 3:22,28,30; 롬 5:1; 갈 2:16; 빌 3:9; 롬 4:24).

유아의 칭의에는 믿음의 습관만 관여하지만, 성인의 칭의에는 믿음의 행위 또한 포함된다. 사람들은 칭의를 받을 때 양심에 세워진 하나님 심판석 앞에서 떨어져 서서, 자신의 죄성과 비참함을 깊이 깨닫고, 믿음의 행위가 혼란스럽고 다양하며, 어떤 이는 구속의 자비에, 다른 이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중보에, 또 다른 이는 복음 약속에, 또 다른 이는 약속된 사면과 영생에 집중한다. 하지만 항상 구원의 전 과정을 마음에 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비로우신 분으로 인식되고, 그리스도는 약속된 자비요 우리의 의로 간주되며, 약속들은 그의 인격과 의와 그를 통하여 주신 사면과 영생을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무료 선물로 나타내고 받아들이м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의 적용에 대한 진심 어린 확신 속에서 한 행위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 전체를 승인하고, 죄인되고 불쌍한 자신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의와 칭의와 영생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료 선물로 받는다.

이 믿음은 칭의를 위한 준비 조건이나 가장 낮은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1. 율법과 그 저주 아래 있을 동안에는 존재할 수 없으며, 믿음의 습관과 행위 또한 칭의에 선행하지 않고 구원의 시작에서 형성된다(갈 2:16; 엡 2:8-9; 빌 1:29; 뱀후 1:1).

2. 만약 믿음이 처분 자격이나 조건이라면, 그것은 율법의 행위가 되어 하나님의 자유 은혜를 훼손한다.

그러나 믿음은 복음 말씀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수용적 수단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의 의요 칭의가 됨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부응하는 습관이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의와 칭의를 수용하는 성격이나 작용으로서 칭의한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가 그의 전능한 적용으로 우리 영혼에 들어오는 문이며, 우리를 칭의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와 칭의와 중생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도구라 불리는 것이 더 적절하며, 우리가 약속을 신뢰하여 한 행위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와 칭의를 받는 믿음은 우리의 도구다(갈 2:16; 롬 5:11; 행 26:18).

## 양자됨에 관하여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친밀한 교제를 허락받고, 하위 피조물 위에 권세를 갖기에 하나님의 아들로 불린다(욥 38:7, 그리고 아마도 욥 1:6; 욥 2:1).

그러나 일부는 마지막 두 본문을 공언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한다(창 6:2; 마 8:12). 이와 유사하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눅 3:38),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을 본질적으로, 필연적으로, 따라서 영원히 생성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적용한다(시 2:7; 요 1:14; 요 3:16).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첫째, 그들이 하나님께 창조되고 보존되기 때문이며(말 2:10; 행 17:25,28; 히 12:9), 둘째, 특히 전형적 의미에서 민정(民政) 정부 내에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다(시 82:6; 요 10:34-36), 셋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은 그분의 백성 혹은 교회 구성원으로서 연관되었기 때문이다(창 6:2; 마 8:12; 출 4:22; 신 14:1; 신 32:10-11; 롬 9:4).

믿는 자들은 매우 고귀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그 근거는 첫째,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그리스도와의 영적 혼인 연합을 통해 그분의 독생자와 하나가 되기 때문이며(시 45:10-11; 요 1:12; 출 21:9), 둘째,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영적으로 잉태되고 태어남으로써(요 1:12-13; 요 3:3,5-6; 약 1:18; 벧전 1:3,23; 벧전 2:2; 요일 3:9; 요일 5:18), 셋째, 본래 사탄의 자녀요 불순종과 진노의 자녀였던 자들이, 예수의 의가 그들에게 전가되어 칭함을 얻은 결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성령의 일치되고 절대적인 은혜의 작용을 통해 그분의 가족으로 입양되기 때문이다(요일 3:1; 롬 3:4,19; 고후 6:18; 엡 1:5; 요 1:12; 롬 8:16; 갈 4:6). 모든 택함 받은 자만이 사랑의 때에 이렇게 입양된다(엡 1:5; 갈 3:26).

구약 시대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였다(욥 34:36; 시 103:13; 사 63:16; 롬 3:4,14,19; 롬 31:20).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으로(호 2:19-20; 사 54:5; 시 45:9-14), 거듭남으로(겔 36:26; 겔 11:19-20; 시 51:10), 입양과 영적 상속의 관계로(갈 4:1; 시 16:5-6; 시 17:15) 하나님과 교제하였다(창 5:22,24; 창 6:9; 창 15:1; 창 17:1; 애 3:24; 시 73:23-26,28; 시 143:10; 히 11:10). 그들의 입양은 복음 시대의 우리 것과 마찬가지로 완전하였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을 미성년 자녀로 다루셨다. 그들에게 자연적인 양식과 접촉 가능한 것을 규정하셨으며(레 11; 신 14; 골 2:21), 자신을 많이 숨기셨으며(사 45:15; 마 13:17),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제사적 표징의 변별을 매년, 매월, 매주, 매일 반복하셨다. 가나안은 그들의 천상 유산의 모호한 표징에 불과했으며, 그들은 기도 속에서 그것을 잊지 않았으나 때로 추방되기도 하였다.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우리의 빛을 갹으셔서, 우리 어린 동생들을 율법주의적 의식과 세상의 구걸하는 요소들에서 해방시키신다(요 8:32,36; 골 2:16,20). 그분은 더 영적이고 합리적인 봉사로 부르시며(롬 12:1-2; 뱀전 2:5; 히 9:10-11; 말 1:11; 마 11:30; 호 11:4), 자신과 아버지와의 더 깊은 친밀함과 지식을 허락하신다(아 8:1-2; 요 1:18; 요 14:9-10; 요 15:15; 뱀 31:34; 요일 2:20,27; 사 54:13; 사 48:17; 엡 2:18; 엡 3:12; 요일 1:37). 또한, 그분은 하나님께 더욱 담대히 나아가도록 허락하시며, 전 세계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하신다(히 10:19-22; 히 4:14-16; 히 7:19; 히 11:40; 요 10:7,9; 요 14:6; 롬 5:1-3; 엡 2:18; 엡 3:9,12; 사 19:19; 사 45:22; 사 54:5; 시 24:1; 시 2:8). 그분은 성령을 더욱 충만히 부어주시며(롬 8:15-17; 갈 4:4-6; 사 44:3,5; 욥 2:28; 행 2; 고전 12), 우리를 우리의 영적 유산으로 더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인도하신다(눅 22:29).

###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입양

하나님의 가족으로의 입양은 다음을 포함한다.

I. 큰 존귀함으로의 격상. 하나님은 자기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 사탄의 가문에서 자신의 가문으로 우리를 옮기시니,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새 언약의 아버지로,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 및 성도들을 영적 형제로 얻는다(요일 3:1; 뱀 3:19; 요 20:18; 롬 8:29; 히 2:11-12).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성령으로 기쁨 부음을 받는다(요일 2:20,27; 고후 1:21-22; 뱀전 2:9; 계 1:5-6; 계 5:10).

- 선지자로서 우리는 신적 비밀이나 미래 일을 아는 지혜로 빛나며(시 25:14; 시 73:24-26,28; 시 43:5),

1.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와 그 진리를 고백하고(고후 4:13; 롬 10:10; 마 10:32), 이웃과 성스러운 교제와 영적 가르침으로 교류하며(엡 4:29; 엡 6:4; 빌 2:16; 아 4:11; 아 5:10-16; 아 7:9), 하나님을 찬양한다(엡 5:19-20; 골 3:16-17; 삼상 10:5; 삼상 19:24-25; 대상 25:1-2,5).

2. 거룩하고 교육적이며 모범적인 삶을 연구하며(마 5:11; 빌 2:16; 뱀전 2:12,15; 뱀전 3:1),

3.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증언한다(계 2:10; 눅 14:26; 마 16:25).

-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영적 제사와 중보기도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롬 12:1-2; 골 3:5; 히 13:15-16; 빌 2:17; 딤후 4:6; 말 1:11; 계 8:3-4; 벧전 2:5; 고전 15:58; 히 10:25; 히 12:28).

- 왕으로서 우리는 관대하고 고귀한 마음을 지닌다(시 51:12; 단 5:11-12; 아 1:3; 슥 10:3; 고후 4:17-18; 빌 3:8-9; 히 11:26-27),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왕실 보물을 소유하며(시 119:11,72; 욥 23:12; 렘 15:16; 약 2:5),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경받으며 해를 입히기 어려운 존재가 되고(사 43:4; 사 49:23; 사 60:14; 아 6:4,9; 계 3:9), 영적으로 죄와 사탄과 싸워 이기고 세상과 우리 자신의 영혼을 다스린다(갈 5:17,24; 엡 6:10-20; 롬 7:14-25; 롬 6:10-14; 롬 8:37; 롬 16:20; 계 12:11; 고전 6:1-2,12; 요일 5:4; 계 2:26-27; 사 45:11; 잠 16:32).

II. 입양은 하나님의 가족 특권 전부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1. 새 이름(렘 14:9; 고후 6:18; 계 3:12; 사 56:6; 사 62:12).

2. 입양의 새 영, 성령으로서 우리를 위로하고 구속 날까지 인치심(롬 8:9,15; 갈 4:5-6; 엡 1:13-14; 엡 4:30; 고후 1:21-22; 고후 5:5).

3. 아버지의 동정심(시 103:13; 슥 2:8; 사 63:4-5,7,9,15).

4. 아버지의 보호(잠 14:26; 대상 16:9; 신 33:27-29; 사 46:4; 사 4:5-6; 사 26:20; 시 121:2-8; 시 41:1-3; 슥 2:5,8).

5. 천사들의 보호와 인도(히 1:14; 시 34:7).

6.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새 언약의 공급(시 34:8-10; 마 6:30-33; 벧전 5:7; 빌 4:6,19; 시 84:11; 시 85:12).

7. 사랑 어린 징계로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한 지혜로운 징계(히 12:6-11; 잠 3:12; 시 94:12-13; 시 84:28-35; 시 119:67,71,75; 사 27:9; 미 7:14; 호 2:14; 슥 13:9; 롬 8:28; 고후 4:17).

8. 불변하는 견고함으로서 입양된 상태와 관련된 모든 행복한 관계(애 3:31-32; 시 37:24,28; 렘 32:40; 롬 8:35-39; 삼상 23:5).

9. 깨진 언약으로서 율법의 권세와 죄, 사탄, 세상,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로움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에 거룩한 즐거움을 누리(요 8:32,36; 고후 3:17; 호 11:4; 갈 1:4; 갈 4:4-5; 시 116:16; 시 119:32,45,166).



10.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 담대한 친밀함(히 10:19-22; 히 4:16; 욥 23:3; 시 63:3-8; 아 1-8).

11. 믿음으로 드린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받아주시며 응답하심(시 65:2; 시 50:15; 시 91:15; 시 116:4-8; 시 34:4,6,15; 요 16:23-24; 마 7:7-11; 사 57:9; 사 65:24).

12. 영적 일과 거룩한 삶에서 아버지의 가르침과 인도(사 47:17; 사 54:13; 시 73:23-24; 시 32:8; 호 11:4; 호 14:2; 렘 3:19; 시 48:14; 살후 3:6; 잠 3:5-6).

13. 모든 역경 속에서 아버지의 위로(살후 2:16-17; 고후 1:3-19; 습 3:17; 렘 31:13-14,25; 사 51:7,12; 사 66:13-14; 사 65:18-19; 사 57:18-19).

14. 약속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 생명의 은혜 상속자, 구원의 상속자, 세상과 왕국과 천국 유업의 상속자,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까지 포함하는 모든 시간적·영원한 행복에 대한 완전하고 무효할 수 없는 권리(렘 3:19; 히 6:17; 히 11:7; 히 1:14; 시 119:111; 뱀전 1:4; 뱀전 3:7; 롬 4:13; 약 2:5; 롬 8:17; 시 16:5-6; 시 73:26; 애 3:24).

또한 입양으로 얻는 유업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시간적 선물의 행복한 누림, 즉 이 땅이 우리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한 모든 것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맛보는 것(고후 8:9; 시 37:16; 잠 17:1).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시자 구속주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한다(시 104:24; 시 36:7; 시 92:4-5; 시 8:3-4; 시 107:43; 호 14:9; 호 2:6-7,14). 하나님의 인도 아래 그들은 우리를 위해 선을 도모한다(롬 8:28; 고후 4:17; 고후 12:7-10; 시 91:11). 땅 또한 우리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보존되고 새로워진다(사 6:13; 사 65:8; 마 24:22; 뱀후 3:10,13; 사 65:17; 사 66:22).

2. 우리의 영적 왕국(눅 22:29; 눅 17:20-21), 그 안에는 인간 중에서의 탁월함(시 16:3; 잠 12:26), 죄와 사탄과 세상에 대한 승리와 지배(롬 6:14; 롬 16:20; 요일 5:4; 갈 6:14), 은사와 은혜의 풍성한 보물(시 45:12-14; 계 2:9; 약 2:5; 사 54:11-12), 그리고 성령 안에서 내적 질서와 평화, 정결, 기쁨(잠 16:32; 롬 14:17)이 포함된다.

3. 하나님 자신, 우리의 전부로서, 모든 사악함으로부터 우리의 확고한 보호자이며(시 23; 시 41; 사 43:1-2; 사 41:10,14-16), 가능한 모든 행복의 근원과 본질이다(시 73:25-26; 시 84:11; 고전 15:28).

모든 택함 받은 자는 영원 전부터 입양될 자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가족의 미래 일원으로 생명책에 기록된다(엡 1:5; 계 13:8; 마 25:34).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그분의 형상으로의 거듭나는 순간 실제로 입양된다. 그리고 믿음은 도구적

원인으로서 하나님의 입양 행위를 받아들이고 동의하는 것으로, 복음의 마음 새롭게 하는 진리 속에 암시되어 있다(렘 3:4,19; 요 1:12-13; 갈 3:26-27; 뱀후 1:4).

이 입양은 거룩하고 하늘적인 삶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백성 및 세상의 관심사에 대한 사랑을 드러낸다(마 5:44-48; 눅 6:27-36; 뱀전 1:13-17; 뱀후 1:4-8; 요일 1:1-5). 그리고 최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자신의 형제로 인정하심으로써 공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마 25:34-40,45).

### 반성 촉구

반성하라. 내 혼아, 너는 너의 상태가 두 번 변화된 것을 경험하였는가? 곧, 한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아버지께 대적하였던 내가 이제 그분의 피로 씻기고 그분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았는가? 오랫동안 마귀의 자녀요 지옥의 상속자였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주 안에서 빛과 사랑이 되었는가?

- 하나님 앞에 그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받아들이거나 기뻐하지도 않은 은혜로운 칭의를 감히 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나와 무관한 은혜로운 입양을 설교해서도 안 된다.

- 아마도 합법적 직분에서 가장 적게 이러한 복된 변화를 체험하는 이들은 설교자일 것이다.

사람들이 자신을 더럽히고 신성한 직무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그들을 영적 죽음에 넘겨, 그들이 읽고 생각하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구원의 말씀 모두가 자신들의 마음을 굳게 만드는 결과가 되게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다. 설교자들이 개인적인 기쁨이나 내적 열정을 품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관한 기도나 대화를 하는 일도 자주 발생한다. 복음의 교리와 제언, 영향에 대해 감정적이고 모방적인 변주를 통해, 그들은 유다처럼 보이지 않게라도 지옥의 심연으로 스스로 내닫는 경우가 얼마나 빈번한가?

그러나 내가 의롭다함과 입양을 받은 자라면, 왜 항상 믿고 놀라며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도록 크고 깊게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셨지 않았는가?

그리고 내가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겠는가? 그리고 내가 그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손해와 오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발견되며, 기꺼이 수고와 비용과 명예와 건강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쳐 영혼들을 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겠는가?

## 성화에 대하여

성경에서 성화(성결)란,

1. 거룩함의 인정 또는 나타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시거나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가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그에 의해 움직인 다른 사람들이 그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선포할 때이다(레위기 10:3; 이사야 5:16; 마태복음 6:9; 베드로전서 3:15).
2. 사람과 물건을 거룩한 봉사에 따로 구별하는 것이다(이사야 13:3; 예레미야 1:5; 창세기 2:2; 요한복음 17:19). 따라서 제식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출애굽기 29:1, 27, 44).
3. 제식적인 부정에서의 정결, 또는 심각한 우상숭배, 오류, 불경건함에서의 자유를 의미한다(히브리서 9:13; 고린도전서 7:14).
4. 죄의 죄책에서의 해방이다(요한복음 17:19; 히브리서 1:3; 10:14; 13:12; 에스겔 36:25).
5. 그리고 더욱 적절하게, 하나님의 자유 은혜의 그 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인적으로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도록 능력 받는 것이다(고린도전서 6:11; 데살로니가전서 4:3).

이 성화는 그 자체로 표현할 수 없이 중요한데,—그리스도의 모든 직무의 목적이기 때문이다(마태복음 1:21; 디도서 2:11-12, 14; 히브리서 2:10-11; 9:14; 10:19-22; 13:12; 시편 110:1-3). 또한 그의 겸손과 영화의 목적이며(디도서 2:14; 베드로전서 1:18-20; 2:21-22; 에베소서 5:1-4, 25-27), 성령의 모든 사역, 곧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위에 행하시는 사역의 목적이자(요한복음 16:7-14; 14:16-17; 15:26-27; 디도서 3:5-6; 에스겔 36:26-27),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약속, 규제, 섭리의 목적(마태복음 22:37-40; 고린도후서 7:1; 요한일서 3:2-3; 로마서 2:4; 이사야 27:9), 그리고 우리의 택하심, 구속, 효과적 부르심, 칭의, 입양, 영적 위로의 목적이기도 하다(에베소서 1:4-5; 고린도전서 6:19-20; 디도서 2:14; 디모데후서 1:9; 로마서 6:14; 7:4, 6; 8:2; 고린도후서 6:18; 7:1; 요한일서 3:1-3; 히브리서 12:28; 로마서 5:21; 6:12).

---

### 성화에 대한 두 가지 관점

성화는 두 가지 관점에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1.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구매된 우리의 무한한 특권으로서(히브리서 13:12; 에베소서 5:25-27; 디도서 2:14), 약속 가운데 자유롭게 제시되고 제공되며 주어진 것이며(에스겔 36:25-27; 데살로니가전서 5:23-24), 그의 의 전가로 굳건히 확보되어 있고(로마서 5:1-5, 10, 21; 6:14; 7:4, 6), 그의 전능한 능력과 성령의 은혜로운 사역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고린도전서 6:11; 시편 110:3).

2. 하나님의 율법이 규칙으로 요구하는 우리의 포괄적 의무로서(히브리서 12:14; 마태복음 5:48; 베드로전서 1:15-16; 데살로니가전서 4:3), 기쁜 본보기가 되는 그리스도의 모범 안에서(마태복음 5:44-48; 에베소서 4:31-32; 5:1-2; 마태복음 11:29; 베드로전서 2:21-22), 그를 대신하는 사랑에 의해 효과적으로 강제된다(요한일서 4:9-10, 16, 19; 고린도후서 5:14; 갈라디아서 2:20; 시편 116:12-16; 103:1-6).

우리는 그의 전능한 은혜로운 영향력에 의해 이에 적합하게, 자극받고 도움을 받아 이를 연구하며(갈라디아서 2:20; 빌립보서 2:12-13; 4:13; 스가랴 10:12; 요한복음 15:2-7),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베드로전서 2:9; 4:11; 마태복음 5:16; 시편 116:16; 디도서 2:10; 요한복음 15:8; 로마서 7:4, 6),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며(디도서 3:8, 14; 베드로전서 3:1, 5, 16; 빌립보서 2:16; 고린도전서 7:16; 디모데전서 4:16), 우리 자신에게 자유롭고 영광스럽고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한다(시편 19:11; 고린도후서 1:12; 고린도전서 15:58; 요한복음 14:21, 23; 갈라디아서 6:8, 16; 디모데후서 4:7-8; 요한계시록 2:7, 10, 17, 26; 3:3, 5, 12, 20-21; 22:14).

성화는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권리의 근거나, 그의 의에 대한 우리의 권리 주장, 하나님의 사법적 호의나 영원한 행복에 대한 권리의 기초로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이사야 55:1; 요한계시록 22:17; 마태복음 9:13; 18:11; 누가복음 19:10; 요한복음 3:14-17; 디도서 3:5; 갈라디아서 2:20-21; 빌립보서 3:8-9; 로마서 5:1-2, 15-21). 그러나 시작된 구원의 일부로서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며(마태복음 1:21; 로마서 11:26), 우리의 행복이 연합하는 신적 인격의 본성과 일치해야 하며(레위기 11:44-45; 요한일서 4:8, 16, 19; 히브리서 12:28-29),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즉 택하심, 구속, 효과적 부르심, 칭의, 입양, 영적 위로, 영화와 일치해야 한다(에베소서 1:4; 디도서 2:14; 요한복음 17:15, 17; 에스겔 36:25-31; 사도행전 26:18).

또한 성화는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시며 구속주이신 분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서 필요하다(출애굽기 20:2-17; 신명기 5:6-21; 마태복음 22:37-40; 로마서 6 장; 12-15 장; 에베소서 4-6 장; 골로새서 3-4 장; 히브리서 10-13 장; 야고보서 1 장부터 유다서까지; 마태복음 5-7 장).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서 필요하다(누가복음 1:74-75; 로마서 6:1-2, 15; 시편 100:2-4; 116:16). 그리고 성화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분의 의의 전가에 의한 칭의의 열매이자 증거로서 필수적이다(골로새서 2:6; 야고보서 2:17-24).

더욱이 성화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빛나게 하며,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 이끌고 세상에서 유익하고 편안한 삶의 방식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하다(디도서 2:10; 베드로전서 2:9; 3:1-2; 고린도전서 6:20; 7:16). 또한 현재 삶의 행복과 위로를 위한 수단으로 필요하다(고린도후서 1:12; 요한일서 1:6-7; 시편 119:6, 165; 잠언 3:17; 3-4 장; 16:7). 마지막으로, 천상의 즐거움과 영적 훈련을 준비하는 데 필수적이다(요한일서 3:2-3; 로마서 2:7, 10; 8:6, 9, 13; 히브리서 12:14; 갈라디아서 5:22-23; 요한계시록 22:14).

---

### 칭의와 성화의 구별과 연관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돌리거나, 그리스도의 의를 대신할 우리의 성품과 행위를 자기 자리에 두거나, 우리의 상태를 감정에 따라 잘못 판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칭의와 성화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관찰해야 한다.

1. 본질에서.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법적 상태를 변화시키나, 성화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삶을 변화시킨다(로마서 8:1, 4).
2. 순서에서. 칭의가 먼저이고 성화가 열매와 증거로 뒤따른다(로마서 6:14; 7:4, 6; 고린도후서 5:14-15).
3. 내용에서. 칭의를 위한 그리스도의 보증적 의가 우리의 칭의 의이나, 성화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작용하며 행사되는 것이다(로마서 5:19; 요한복음 1:16).
4. 형식과 속성에서. 칭의는 행위로서 처음에 완전하며 모든 신자에게 항상 평등하다. 그러나 성화는 과정으로서 신자마다, 때로는 한 사람 내에서도 시간에 따라 차이가 나며, 죽을 때까지 결코 완전하지 않다(로마서 8:1, 35; 사도행전 13:39; 잠언 4:18; 욥 17:9).
5. 적절한 의의 주체에서. 칭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에게 옷처럼 입혀지나, 성화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며 우리 안에 새 본성과 삶으로 존재한다(이사야 45:24-25; 61:10; 로마서 3:22; 베드로후서 1:4; 고린도후서 5:17; 에베소서 2:10).
6. 목적과 범위에서. 칭의는 우리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양심에 영향을 준다. 성화는 우리의 전인적 갱신이다(히브리서 9:14; 10:19-22; 데살로니가전서 5:23).
7. 성분에서. 칭의는 하나님의 탁월함과 그리스도의 탁월함, 특히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나, 성화는 우리 안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거룩한 본성과 삶을 나타낸다(로마서 3:24-26; 5:19-21; 에베소서 5:1-5).
8. 인지 가능성에서. 칭의는 가장 비밀스러운 행위이나, 성화는 자신을 드러내며 또한 그것 위에 기초한 칭의를 드러낸다(요한계시록 2:17; 고린도후서 13:5).
9. 죄와의 관계에서. 칭의는 죄책, 곧 형벌의 문제를 제거하며, 성화는 약으로서 죄의 더러움과 권능을 제거한다(골로새서 1:14; 2:13; 고린도후서 5:21; 7:1).
10. 하나님의 율법과의 관계에서. 칭의는 율법을 깨진 언약으로부터 자유케 하지만, 성화는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덮게 한다(로마서 7:4, 6; 8:2, 4, 13; 갈라디아서 2:19-20; 고린도후서 1:12; 빌립보서 4:8; 고린도전서 9:21).
1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칭의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자유롭게 하며 그의 호의에 들어가게 하나, 성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덮게 한다(로마서 8:1, 33; 5:19; 5:10-11; 골로새서 3:10; 베드로전서 1:15-16; 에베소서 4:24, 32; 5:1-2; 마태복음 5:48).

12. 그리스도의 직분과의 관계에서. 칭의는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무의 희생 사역에 즉시 근거를 둔다. 성화는 그의 예언자적 가르침과 왕의 권능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보호하는 사역에서 즉시 진행된다(로마서 8:1-4, 33-34; 10:4; 이사야 61:1-3; 시편 110:2-3).

13. 우리에게 효용에서. 칭의는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자유롭게 하고 천국에서의 행복을 누릴 자격을 준다. 성화는 우리의 정욕의 더러움과 종노릇함에서 해방시키며 천국을 준비케 한다(로마서 5:21; 8:30; 골로새서 1:12; 고린도후서 5:5).

또한 칭의와 성화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신중히 관찰해야 한다.

1. 하나님의 목적에서(로마서 8:28, 30; 부르심과 영화가 성화를 포함함).
2. 그리스도의 중보 직분과 사역에서(디도서 2:11-14; 고린도전서 1:30; 에베소서 5:25-27).
3. 복음의 교리와 약속에서(누가복음 1:74-75; 7:47; 에스겔 36:25-31; 히브리서 8:10-12; 사도행전 5:31).
4. 하나님의 율법 사용에서(로마서 8:1-4).
5. 모든 신자의 경험에서(고린도전서 6:11; 베드로전서 1:2; 로마서 8:30; 골로새서 2:13).

마지막으로, 칭의는 성화의 근원이자 기반으로서 강력히 그것을 촉진한다.

1. 칭의는 행위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우리가 죄악된 욕망의 통치 권력과 가증스러운 종노릇함 아래 얽매어 있음을 확실히 끊어 준다(고린도전서 15:56; 갈라디아서 3:13; 로마서 6:13-14; 7:4, 6).
2. 우리의 칭의 선고에서 하나님의 의로움, 거룩함, 사랑, 자비, 신실함, 지혜, 능력이 법적으로 약속되어, 우리가 마음과 삶의 거룩함을 주로서 부여받고, 그 선고로 말미암아 우리가 판결받은 영생의 주요 부분이 된다(요한일서 1:9; 로마서 5:21; 7:4, 6; 6:14; 디모데후서 4:7-8).
3. 그리스도의 칭의 의가 양심에 적용되어 실제적이고 효력 있게 죽은 행위에서 깨끗하게 하여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디모데전서 1:5; 히브리서 9:14; 10:22).
4. 하나님의 증거와 증거에 따른 확고한 칭의 선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강제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 위대함, 거룩함을 지각하며, 하나님의 율법의 선함, 거룩함, 공의성을 깨닫고, 삶의 규범으로서 고귀하고 절대적인 의무를

인식한다. 또한 죄의 무한한 천박함과 엄청난 형벌과 위험, 복음의 거룩함의 아름다움, 존귀함, 유익함, 그리스도 안에서의 즐거운 실천 본보기와 필요한 힘, 은혜로운 상급을 알게 된다. 이로써 우리는 육신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주를 경외하면서 거룩함을 이루도록 효과적으로 능력과 자극을 받는다(고린도후서 5:14; 갈라디아서 3:13-14; 마태복음 3:15; 5:17; 스가랴 10:12; 12:10; 이사야 45:24-25; 40:29-31; 고린도후서 7:1; 누가복음 1:74-75; 히브리서 12:28).

성화는 새 언약의 특권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하나님만의 사역이다(레위기 20:8; 에스겔 37:28; 20:12; 36:26-27; 빌립보서 2:12-13; 데살로니가전서 5:23-24; 신명기 30:6). 성화는 아버지께 귀속되며(요한복음 17:17; 에베소서 2:5; 베드로전서 2:5; 1:2-3; 유다서 1), 아들에게도 귀속된다(에베소서 1:1; 5:25-27; 히브리서 2:11-14; 13:12; 10:10, 14; 고린도전서 1:2, 30; 2:17; 갈라디아서 6:15; 에베소서 2:10; 골로새서 1:2, 12; 2:6-7, 10-13, 19; 3:4; 갈라디아서 2:20; 요한복음 6:33; 11:25; 14:6, 19; 고린도전서 15:45-49). 그러나 성화는 특별히 성령께 귀속되며,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통해 성화를 이루신다(데살로니가후서 2:13; 로마서 15:16; 고린도전서 4:21; 디도서 3:5; 스가랴 12:10; 고린도후서 3:18; 로마서 8:12-13; 에베소서 1:18-19; 2:22; 시편 143:10; 요한복음 6:63; 16:13-14; 3:5-6; 베드로전서 1:2; 에스겔 36:27; 이사야 44:3-5). 오직 하나님의 자유 은혜만이 우리를 내면에서 성화시키도록 움직인다(에베소서 2:4-5; 5:25-26). 그리스도의 보증적 의는 성화의 유일한 공로적 원인, 즉 대가이자 조건이다(요한일서 3:5, 8; 베드로전서 1:2, 18-19; 2:24; 요한복음 17:17, 19; 히브리서 9:12, 14; 10:10, 14; 13:12; 계시록 1:5-6; 5:9; 고린도전서 1:2). 이 의는 우리 마음에 적용되어 죄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하며 새 언약의 은혜를 도입하고, 우리를 강력하게 거룩함의 연구에 일으킨다(로마서 7:4, 6; 히브리서 9:14; 10:22; 고린도후서 5:14-15; 시편 116:16; 119:32, 166; 누가복음 1:74-75). 그리스도의 증보는 성화의 취득 원인이다(요한복음 17:9-26; 17:15, 17, 21).

### 성화의 의무와 목회의 역할

성화를 우리의 의무로 간주할 때, 성화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이다(아가 1:4; 베드로후서 1:3-8; 로마서 12:1-2; 베드로전서 1:15-16, 22; 마태복음 5:48; 고린도후서 7:1; 에베소서 4:22-24, 31-32; 5:1-2, 5; 데살로니가전서 4:3; 요한일서 3:3; 히브리서 12:1, 14, 28). 이 두 관점에서 모두 목회자는 성화를 촉진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복음을 통해 이 특권을 전달하며 성화를 의무로 연구하도록 지도하고 격려한다(고린도전서 3:9; 고린도후서 6:1; 11:2; 디모데전서 4:16).



## 성화를 촉진하는 수단

하나님의 말씀과 제도들은 성화를 촉진하는 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무엇이 죄인지, 그 혐오스럽고 해로운 본성을 드러내며, 무엇이 합법적이고 거룩한지, 그리고 성화를 연구하고 이루기 위한 동기와 수단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말씀과 제도는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전달되는 수단이다(요한복음 15:3, 7; 17:17; 시편 119:9, 11; 야고보서 1:18, 21; 베드로전서 1:23; 2:2; 에베소서 5:26; 로마서 1:16-17; 사도행전 13:26, 34; 히브리서 2:3-4; 데살로니가후서 2:13; 갈라디아서 2:20; 3:2; 로마서 6:4; 요한복음 6:31-32). 복음의 선포, 약속과 초청은 마음속에 거룩함을 전달하고 유지하며 증가시키는 수단이다(에스겔 36:26-27; 이사야 2:35). 그리스도의 손에 의한 율법은 거룩함의 추구를 지시하고 제약한다(베드로전서 1:15-16; 마태복음 22:37-40; 로마서 12-15; 갈라디아서 5-6; 골로새서 3-4; 데살로니가전서 3-5; 히브리서 10-13; 마태복음 5-7; 출애굽기 20).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제도가 스스로 성화를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시는 구원적 영향력으로 이를 효과 있게 하신다(고린도전서 6:11; 로마서 8:13; 갈라디아서 5:17-18, 22, 25). 하나님의 섭리, 특히 고난과 같은 어려움은 말씀과 제도에 종속되어 성화를 위한 기회적 촉진자로 작용하는데, 이는 우리를 각성시키고 매혹하며 진지한 연구와 활용으로 이끈다(시편 119:67, 71, 75; 이사야 27:9; 38:16; 욥기 33:16-30; 에스겔 20:36-37; 호세아 2:6-7, 14; 이사야 48:10; 미가 7:14; 다니엘 11:35; 12:10; 히브리서 12:6-11; 잠언 3:12; 시편 94:12; 계시록 3:19).

## 율법과 거룩함

하나님의 율법은 온전히 삶의 규범으로서 성화의 조절 기준이다(마태복음 28:20; 요한복음 14:15; 15:10, 14; 요한일서 3:3-4; 5:3; 야고보서 2:8; 신명기 12:32; 5:32; 4:2; 5:6-21; 출애굽기 20:2-17). 이 생애에서 어떤 성도도 절대적 완전을 이루지 못하지만, 율법은 질과 행실 양면에서 이를 엄격히 요구한다(마태복음 22:37, 39; 5:48; 고린도후서 13:11; 베드로전서 1:15-16).

1. 하나님의 본성의 무한한 완전성은 불완전한 거룩함과 덕만을 요구하는 법을 제정하실 수 없게 한다(디모데후서 2:13).

2. 그의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그들을 최고도의 거룩함에 묶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기며, 이는 동시에 행복과 그 수단이다(요한일서 3:1-3; 요한복음 15:9-10).
3. 우리가 성화에서 더 완전해질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이 돌려진다(요한복음 15:8; 고린도전서 6:20; 10:31; 15:58; 베드로전서 4:11).
4. 이 완전성 요구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의 교제를 더욱 간절히 열심히 추구하게 하는 데 필요하며, 그리하여 거룩함을 넘치게 한다(요한복음 15:3-10; 골로새서 2:6, 19; 에베소서 4:16; 요한복음 1:14, 16; 고린도전서 1:30).
5. 이는 우리가 이미 이룬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룩함과 덕을 구하도록 촉진한다(빌립보서 3:12-14; 베드로후서 1:5-8; 3:18; 에베소서 5:9; 갈라디아서 5:22-23).
6. 이것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 자기 부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의 매일의 능력을 더욱 누리는 데 필요하다(빌립보서 3:8-9, 11-12; 요한일서 1:7, 9).

과거와 현재 성도들의 본보기는 거룩함을 연구하는 데 율법에 따른 자극과 규범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히브리서 6:12; 12:1-2; 13:7; 고린도전서 11:1).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본보기는 우리가 모방해야 할 거룩함의 유일하고 완전한 모범이다(히브리서 12:1-2; 요한일서 2:6, 29; 3:7; 빌립보서 2:1-7, 15; 에베소서 4:32; 5:1-2; 베드로전서 2:21-22; 4:1; 1:15-16; 마태복음 5:44-48; 11:29; 16:24). 그리스도의 본보기는 우리가 따르는 규범인 율법 아래서,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매우 유사한 환경에서 주어졌기에 특별히 적절하다.

1. 아버지께 대한 확신에 찬 신뢰(이사야 50:7, 9; 시편 16:1; 22:8-10).
2. 순종의 보편성(요한복음 15:10; 8:29; 마태복음 3:15; 5:17; 빌립보서 2:8).
3. 엄숙하고 강렬한 헌신(마태복음 4:2; 11:25-27; 누가복음 6:12; 22:41-44; 요한복음 17; 11:41-42; 12:27-28; 히브리서 5:7).
4.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마태복음 26:39; 요한복음 18:11).
5. 사람들에게 대한 이타적 사랑(고린도후서 8:9; 에베소서 5:2; 요한복음 15:9-12; 갈라디아서 2:20).
6. 비할 데 없는 겸손과 온유함(마태복음 11:29; 요한복음 13:14-15; 빌립보서 2:1-7).

7. 고난 중에 지키는 끈기와 인내(베드로전서 2:21-24; 이사야 50:6; 53:7; 히브리서 12:2-3).
8. 진실성, 솔직함, 정직함(베드로전서 2:22; 이사야 53:9).
9. 상처를 용서하고 악에 대해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즉각적 준비(누가복음 23:34; 골로새서 3:13).
10. 가장 악한 원수에게도 지속적으로 선을 행할 준비(사도행전 10:38; 누가복음 22:50-51).
11. 영적인 마음과 일상적인 사물에서 영적 교훈을 도출하는 준비(요한복음 4: 6; 10; 마태복음 5-7; 13; 17; 20-25; 누가복음 4-20; 요한복음 2-16).

### 믿음과 거룩함 성장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심령에 은혜를 심는 수단이 될 수 없지만, 거듭남의 행위로 형성되어 성령의 영향 아래—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인격, 의, 총만함, 본보기, 그리고 그 안에 나타나고 제시된 하나님의 완전들을 감화하며 증진하는—거룩함 성장의 주요 수단이다.

1.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됨을 받아 거룩함과 덕의 적절한 기초를 놓는다(요한복음 15:1-10; 로마서 7:5-6; 갈라디아서 2:19-20; 골로새서 2:6-7, 10-11).
2. 하나님의 선포를 믿고 그 본보기를 바라보며 죄의 혐오성과 범죄성을 강하게 마음에 일깨우며 거룩함의 본성, 탁월함, 동기를 심는다(요한복음 15:3; 17:17; 에베소서 5:26; 데살로니가전서 2:13; 2:13).
3.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그분들의 성품대로 은혜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신뢰하여 죄의 죽임과 거룩함의 증진을 위한 능력을 끌어낸다(골로새서 2:19; 에베소서 4:16; 예레미야 17:7-8; 시편 92:13-15).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성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믿음은:

1. 죄인인 우리와의 다면적 연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그분의 총만함을 통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 적절한 심리를 형성하고 적합한 실천을 동기화하며 그에 맞게 준비시킨다(요한복음 1:14, 16).

2. 우리의 인격과 봉사를 오직 그리스도의 의와 중보로 하나님께 받으심을 얻기 위해 제시한다(골로새서 3:17; 에베소서 3:21; 5:20; 베드로전서 4:11; 2:5, 9; 로마서 12:1).

일상에서 거룩함을 증진시키는 데 믿음은:

1. 모든 외적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셨으며 그분의 자유 은혜의 선물로 받게 한다(창세기 32:10; 33:5).
2. 모든 것을 손해와 부패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그의 영적 축복을 얻는 데 헌신하며 그분을 위해 기꺼이 포기한다(빌립보서 3:7-9; 사도행전 20:24; 21:13).
3. 세상 일의 성과를 그리스도의 새 언약적 돌봄에서 찾도록 한다(베드로전서 5:7; 빌립보서 4:6; 시편 37:3-9; 마태복음 6:26-33).
4. 외적 것을 하나님과의 교제 수단으로 활용하는데, 번영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분의 더 총만한 누림에 대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역대하 17:5-6), 역경은 우리 정동을 세상에서 떼어내어 온전히 하나님께 두도록 한다(하박국 3:17-18; 시편 142:4-5; 호세아 2:6-7, 14).
5. 하나님의 구속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원한 총만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가진 모든 세속적 재산을 겸손히 그리고 즐겁게 그분의 섬김에 사용하도록 이끈다(로마서 15:27; 고린도전서 9:11; 역대상 29:14; 이사야 23:18).

영혼의 명령적 태도에 있어 믿음은 특별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데,

1. 그 믿음이 집중하는 대상은 적절히 활용될 때 보편적 효력을 가진다.
2. 믿음이 활용하는 하나님의 증언과 권위는 매우 강하고 결정적이다.
3.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성령 다음으로 믿음을 우리의 기독교 행위의 주도 원리로 정하셨다.
4.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분의 성품과 약속에 따라 은혜와 힘, 그리고 인정받음을 위해 항상 그분께 의지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도, 성령의 역사 및 그의 작용에 대한 믿음으로 촉진된 성화는 그의 율법, 형상, 그리고 모범에 합당하게 다음을 포함한다:

1. 본성의 성화, 즉 우리의 온전한 인간인 영혼과 몸과 영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롭게 되는 것(에베소서 4:23-24).
2. 삶의 성화, 즉 죄에 대해 점점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는 데 점점 더 능력 있게 되는 것(베드로후서 1:3-8; 3:18; 로마서 6; 12-14; 갈라디아서 5-6; 에베소서 4-6; 골로새서 3-4; 데살로니가전서 5; 히브리서 12-13; 베드로전서 1-5; 요한일서 1-5; 야고보서 1-5; 유다서 20-25).

또는 은혜의 습관이 심겨지고, 기독교적 기질이 획득되며, 거룩한 실천이 수행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화는 거룩하고 은혜로운 원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심어지는 거듭남을 포함하며(디도서 3:5; 에베소서 2:10; 베드로전서 1:3, 23; 2:2; 에스겔 36:26; 11:19; 요한복음 3:3, 5-6), 엄밀한 의미의 성화는 이 은혜로운 원리들이 지속되며 강화되고 증가되어 거룩하고 덕 있는 행위로 실천되는 것이다(요기 17:9; 잠언 4:18; 베드로후서 1:4-8; 3:11-12, 14, 18). 그리고 본성에 관하여 성화는 계속되는 새 창조이며, 거듭남이 완성에 이르는 과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개혁자들과 그 직계 추종자들은 이 과정을 거의 백 년간 '거듭남'이라 불렀다.

우리 본성에 내재한 습관적이고 영구적인 죄됨에 대립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중생이나 효과적 부르심에서 초자연적인 습관 또는 은혜와 거룩함의 생명 원리를 창조하시고 주입하시며 심으시는데, 이것은 성화라 엄밀히 일컫는 과정에서 계속되고 강화되며 증가하여 영광 중에 완성된다. 이 습관은 모든 믿음이나 순종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선행하여 존재하고, 성령의 작용하는 영향 아래 이러한 행위들을 준비시키고 가능케 한다.

## I. 모든 행위에는 생명과 능력이 선행한다

I. 하나님도, 그분의 어떤 피조물도, 그에 상응하는 생명과 능력, 즉 작동 원리를 먼저 지니지 않고는 어떤 행위나 움직임도 하지 않는다(마 7:17-18; 마 12:33-35). 그러므로 어떤 믿음이나 거룩함의 행위도 그에 대응하는 은혜롭고 영구적인 원리 없이는 말하거나 행하거나 믿거나 순종할 수 없다.

II. 아담과 천사들은 거룩한 행위를 할 자격을 갖추도록 거룩함의 생명 원리 또는 습관과 함께 창조되었다(창 1:26-27; 창 5:1; 전 7:29; 골 3:10; 엡 4:24; 유 6; 시 103:19-21). 이 습관이나 원리에는 하나님이 알려시는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성향과 능력,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것을 믿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신성의 충만함을 육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을 무한히 받으셨으나, 그의 인성 내에도 운동과 훈련에 의해 강화되고 확장될 수 있는 피조된 거룩함의 원리나 습관이 있었으며, 이것이 그분으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의 행위를 하도록 능력 있게 하였고, 이는 우리의 원래의 의로움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 우리에게 전가된다(눅 1:35; 눅 2:40,52; 히 7:26; 히 5:8).

## II. 타락과 초자연적 습관

III. 범죄 이후 모든 인간 안에는 끊임없이 불신, 하나님에 대한 증오, 불순종 행위로 기울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자연적인 악의 습관 또는 원리가 있다(창 6:5; 창 8:21; 욥 14:4; 시 51:5; 고전 2:14; 요 5:40; 요 12:39-40; 엡 4:18; 엡 2:1-2; 딤후 3:3; 롬 8:7-8; 마 15:19; 롬 17:9). 그러므로 만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반대되는 초자연적 습관이나 은혜의 생명 원리가 심겨지지 않는다면, 새 언약의 치료는 우리의 죄악된 질병에 부합하지 않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조차 우리로 하여금 단 하나의 믿음, 회개, 거룩한 순종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없다(롬 8:7-8; 롬 12:33-35; 눅 6:43-45). 악마가 우리를 향한 악의를 표시하고 그 자녀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죄된 습관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시면서 그의 자녀에게 영구적인 거룩함의 습관이나 원리를 초자연적으로 심으시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신의 인격을 연합시키고 그 의를 지체들에게 전가하시며 그의 성령을 그들 안에 두심으로 마음의 성품에 영구적인 그분의 형상을 이루지 않겠는가?(골 2:19; 엡 4:16; 고전 6:17).

IV.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회복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의 행위 형식들(엡 2:6-7; 요 5:21,25; 골 2:13; 요 4:14; 롬 6:4-5; 롬 8:2), 소경에게 보게 하심(행 26:18; 고후 4:6; 사 42:7; 사 61:1; 사 35:5; 사 29:18), 마음에 그 자신을 사랑하게 하는 할례를 베푸심(골 2:11-12; 빌 3:3; 롬 2:29; 신 30:6), 신령한 형상대로 새롭게 하심(딤후 3:5; 엡 4:24), 선한 행위를 위하여 창조하심(엡 2:10; 엡 4:24; 골 3:10)은, 명백히 초자연적 습관 또는 거룩함의 생명 원리인 영구적인 무언가를 창조하셨음을 증명한다.

V. 하나님이 중생하는 이들에게 주신 것에 대한 성경의 영감된 묘사들은 그것이 영구적인 습관이나 원리임을 분명히 밝힌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으로, 선한 행위를 위해 지음 받은 것이지 그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엡 2:10). 이는 죄악된 부패의 습관과 정면으로 대조되는 새 마음, 새 영, 육의 마음, 순결한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서 오래되고 돌 같으며 완고하고 더럽고 거짓된 마음을 대신한다(겔 11:19; 겔 18:31; 겔 36:26; 딤후 1:5; 히 10:22). 새로운 피조물이자(고후 5:17; 갈 6:15), 옛 사람이나 마음의 죄악된 부패와는 정반대되는 영적 능력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 무지 대신 지식, 영적 죽음 대신 생명, 무능력 대신 능력, 불신 대신 믿음, 적대 대신 사랑을 가지고 있다(골 3:9-10; 엡 4:23-24; 엡 5:8-9; 엡 2:15; 딤후 1:5; 신 30:6; 요일 3:17). 이는 날마다 새롭게 되는 내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여 따르며 모든 힘으로 강건해진다(고후 4:16; 롬 7:22; 엡 3:16). 부패하지 않는 심령의 감추어진 사람이다(벧전 3:4). 이는 신성한 본성이며(벧후 1:4),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함과 아담이 창조된 본질적 모든 요소에서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하여 그의 인성의 영구적 거룩함에 따라 형성된 형상이다(롬 8:29; 고후 4:4; 엡 4:23-24; 골 3:9-10; 고후 3:18).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난 영이며(요 3:5-6,8), 마음의 죄악된 부패와 정반대되는 영으로서(갈 5:17), 성령의 영향 아래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다(갈 5:22-23; 갈 6:8; 엡 5:9). 그 안에서 믿는 이들은 견고 살며, 불의한 사람들이 그들의 본성 안에 있는 부패와 함께 견고 머무르는 것과 같다(롬 7:1,4; 갈 5:18,25). 이것은 은혜이며, 자유로 주어지고 창조되어 심어진 영구적인 아름다움이다(속 12:10; 고후 4:13; 딤후 2:1; 히 13:9; 벧후 3:18). 이는 생명이며, 영구하는 생명이다(갈 2:20; 요일 5:12; 요일 3:15; 엡 4:18; 요 4:14). 이는 할례로서 우리의 새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영구적인 표적이며, 우리의 죄된 욕망과 정면으로 대립한다(골 2:11-13; 빌 3:3; 롬 2:29). 또한 마음의 율법으로서 우리의 내재적 부패와 싸우며(롬 7:23,25),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우리 마음의 육체적 판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고후 3:3; 롬 31:33; 히 8:10).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접붙임 받은 내면의 뿌리나 줄기이며(욥 19:28; 약 1:21), 많은 선한 행위를 산출한다(마 13:8,23; 눅 8:15). 이는 성경을 통해 성인들에게 전해진 부패하지 않는 씨앗이며(벧전 1:23), 모든 성도와 유아, 성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앗이다(요일 3:9). 이것은 행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묘사된다.—이 모든 것을 거룩함의 영구적인 내재 습관이나 원리를 뜻하지 않고 단지 믿음의 행위로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성경이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 능력의 모든 효과가 단지 인간 행위에 불과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VI. 믿음, 사랑 등의 개별 은사들도 습관, 성질, 생명 원리로 표현된다. 믿음은 얻어지는 것으로(벧후 1:1), 소유되는 것이며(살후 3:2; 약 2:14,18), 지켜지고(딤후 4:7), 머무르며(고전 13:13), 우리 안에 거하고(딤후 1:5), 우리가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악한 사람들이 육체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후 13:5; 롬 8:8).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엡 3:17), 이를 통해 우리가 지켜진다(벧전 1:5). 믿음은 결코 쇠하지 않으며(눅 22:32; 요 4:14), 자라서 크게 성장한다(살후 1:3; 벧후 3:18). 믿음은 증가하며(눅 17:5; 고후 10:15), 마음을 채우고(행 6:5; 행 11:24), 일하며(갈 5:6; 약 2:22), 강하고 활기차며 진실하다(롬 4:19-20; 약 2:17,20,26; 딤후 1:5; 딤후 1:5). 사랑은 우리 안에 거하고(요일 3:17), 머무르며(고전 13:8,13), 아마도 충만히 부어지며(롬 5:5), 다양한 형태로 작용한다(고전 13:4-7). 그러나 믿음과 사랑의 행위는 때때로 그 행위가 비롯된 습관의 이름으로 불린다.

VII. 믿는 이들의 마음에 심겨진 거룩함의 내재하는 은사, 초자연적 습관이나 생명 원리를 부정하는 것은 진정으로 성령의 모든 사역에 반대하며 모든 실천적 종교를 훼손한다. 만일 중생 때 우리의 영혼 안에 이러한 내재하는 영구적 생명 원리가 창조되지 않는다면, 1. 우리의 자유 의지, 즉 타락한 의지는 초자연적인 원리에 의해 제어받지 않고 마음 안에서 군림하며 결코 그리스도 아래서 그의 대리자로 행할 수 없다(롬 8:7-8; 롬 17:9). 2. 그리스도께서 가장 엄숙하고 명백히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듭나거나 성령으로 난 것 없이도 믿음, 회개, 새 순종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요 3:3,5). 3. 만약 사람들이 그 안에 창조된 초자연적인 믿음과 회개의 습관 없이 믿음이나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중생의 의미와 필요는 무엇인가? 중생은 단지 우리의 믿음 행위인가? 4. 만일 중생에서 은혜의 습관이 심겨지지 않는다면, 복음을 듣거나 믿을 수 없는 모든 유아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며 죽을 때 모두 멸망하거나 내면에 거룩함이 전혀 없이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히 12:14; 히 11:6). 5. 초자연적 은혜 습관을 포기하면, 우리는 원죄를 완전히 부인하거나, 마음이 거짓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영향 아래 스스로 모순되는 행위를 하며 구원적으로 믿고 회개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밖에 없다. 6. 믿는 이들에게 심겨진 초자연적 습관이나 은혜의 원리를 포기하면, 새로운 피조물의 형성과 보존, 완성에 대한 성령의 모든 사역을 부인하는 것이다.—그 결과 성령의 사역은 단지 단순히 자연적이거나 죄로 부패한 우리의 영혼 능력에 작용하여, 상응하지 않고 반대되는 원리에서 나온 믿음과 복음적 거룩함의 행위를 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된다. 7. 은혜의 내재하는 습관이 없으면 그리스도와와의 영적 연합도 불가능하다. 생명 주시는 성령이시며 부활과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적 생명이 없고 죄와 허물로 죽은 채 여전히 마귀의 지체인 이들과 단일 영이 될 수 없다(요 14:19; 요 11:25; 고전 15:45-49; 고전 6:17). 8.

만약 심겨진 습관적 은총이 없다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한, 본성의 거룩함의 일부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보증자 의의의 귀속(imputation)은 있을 수 없다. 우리 마음 안의 습관적 거룩함은 아담의 첫 죄의 귀속으로부터 우리의 본성에 원래부터 없는 의로움의 결핍과 부패가 생겨나듯, 반드시 그리스도의 의의 귀속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9. 신성하게 심어진 거룩함의 습관이 없이 하나님 가족에 입양(adoption)됨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속에 사탄이 자신의 온전한 형상과 권세를 지니도록 허락하면서 아버지가 되실 수 없다.

10. 만약 믿는 자에게 심겨진 본성의 고유한 거룩함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규칙으로서 거부해야 한다. 하나님은 내재적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는 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그런 법을 줄 수도 없고, 모든 순종 행위가 거룩한 성품과 성향에서 나와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이다(벧전 1:15-16,18; 딤후 1:5; 마 7:17-18; 마 12:33-35).



11. 내재한 거룩함의 습관이 없으면 그리스도나 그분의 아버지와 교제가 있을 수 없다. 그를 닮음도 없고, 그를 향한 성향도 없으며, 그의 방문을 맞이할 적합함도 없고, 그와 교제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암 3:3; 고후 8:14).

12. 내주하는 은혜의 습관이 없으면 성령과 그분의 살아 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 거할 수 없다. 죽은 시체나 악취 나는 소름 같은 곳에 성령이 거할 수 있는가? 은혜의 뿌리나 대가 전혀 없는 곳에 그의 말씀이 접붙여진 열매가 될 수 있는가? 새 본성의 육체라는 속죄할 표면에 기록되지 않고 불의 가운데 갇혀 있을 수 있는가?

13. 하나님의 법이 내면의 거룩함을 요구한다면, 그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는 것도 그것을 반드시 포함한다. 법이 내면의 거룩함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거룩함의 부족과 법에 반대되는 본성의 부패는 죄가 될 수 없으며, 슬픔이나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정화를 구하는 근거도 되지 못한다.

14. 심겨진 은혜의 습관이나 원리가 없으면 영적 싸움도 존재할 수 없다. 즉, 마음의 법이 육체의 법을 대적할 저항력이 없고, 영이 육체나 내면의 부패를 향해 갈망하지 않는다. 사랑의 행위와 적대의 행위, 믿음의 행위와 불신의 행위, 교만과 겸손의 행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자극되었든 아니든 간에 동일한 부패한 습관의 산물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분이 악한 원리를 자극하여 영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다.

15. 내재적 습관적 거룩함 없이는 영적으로 선한 행위가 존재할 수 없다. 아무런 창조된 원리로부터 나오지 않고 그런 행위가 존재할 수 있다고 상상하는 것은 터무니없으며, 극히 악한 원리에서 비롯된다거나 상상하는 것은 더욱 어리석은 일이다(마 7:17-18; 눅 6:43-45; 롬 8:7-8).

16. 내재한 은혜의 습관이나 원리가 없으면 영적 체험도 불가능하다. 우리는 성령께서 양육하고 위로하며 격려할 적합한 대상이 아니며, 그분의 영향력을 분별하고 느낄 능력이 없다.

17. 내재한 은혜의 습관이나 원리가 없으면 성화의 작업, 곧 하나님 형상대로 온전하게 갱신되는 일도 없으며, 따라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능력도 없다.

18. 지속적인 은혜의 습관과 생명력 있는 원리 없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상태의 검토도 불가능하다. 내주하는 생명이 발견되지 않고, 굳건한 믿음도 없으며, 성도와 죄인을 확연히 구분할 만한 차이도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터무니없는 뿌리 없는 일시적 믿음의 행위만 있을 뿐이다. 더욱이 성경은 선한 행위를 우리의 은혜 상태의 표지로 결코 나타내지 않는다. 아무리 많더라도 선한 행위는 내재한 은혜와 관련되고 그로부터 나오지 않는 한 은혜의 증거가 될 수 없다.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참된 차이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하는 습관에 있다. 사람의 선한 행위가 그들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재한 은혜가 심겨져 그들로 하여금 내면의 갱신에서 비롯된 선한 열매 즉 선한 행위를 맺게 하고, 은혜 상태가 존재함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이다.

19. 내재하는 은혜의 습관 없이는 은혜의 인내도 불가능하다. 하나님이 보존하거나 우리가 견딜 은혜의 성질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실제로 믿음이나 회개의 행위에 참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진짜 은혜 안에 있거나 밖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0. 내재적 거룩함의 습관이나 원리 없이는 주의 만찬이나 죽음을 위한 준비도 할 수 없다. 습관적 준비는 명시적으로 배제되며, 그것 없이는 부패한 원리로부터 나온 실제적인 준비밖에 없다.

21. 심겨진 거룩함의 내재적 습관 없이는 시간 속에서 은혜가 성장하거나 죽음 때 완성에 이르는 일도 불가능하다. 행위는 전적으로 일시적이어서 이미 행해진 후에는 더 생기 있고 활기차거나 거룩해질 수 없다. 오히려 은혜의 원리에서 나오지 않는 행위는 어떤 면에서도 발전될 자격이 없다.

22. 그러므로 거룩함의 습득된 습관들이 우리를 천국에 적합하게 만들거나, 하나님께서 이전에 결코 하지 못하셨고 하시지도 않을 은혜의 습관을 우리에게 심으시든가, 아니면 고유한 은혜로부터 나오지 않는 터무니없는 믿음의 행위들로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습관적 은혜와 거룩함이 부족하여 우리 모두를 멸하셔야 한다.

---

이 습관적 은혜는 성령에 의해 중생할 때 심겨지며, 우리의 마음을 편견 없이, 일관되고 균등하며 지속적인 상응하는 행위들로 기울게 하고, 그것들을 적절한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능숙하게 수행하도록 능력을 부여한다. 그리고 우리의 내주하는 부패가 육신과 영의 여러 욕망으로 나뉜 하나의 죄된 습관으로 볼 수 있듯이, 심겨진 내재 은혜 역시 하나의 단순한 거룩함 또는 은혜의 습관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 영혼이 거하는 능력에 따라 또는 대상에 작용하는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뉜다.

### 심겨진 은혜의 내재적 습관

1. 우리의 마음 또는 이해력은 거룩한 진리의 성령의 전능한 계시를 통해 새로워져, 영적인 일들을 올바르게 영적이며 마음을 사로잡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인식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계획하고, 탐구하며,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숙고할 수 있는 시야, 빛, 지혜, 지식으로 덧입혀졌다(고후 3:13-14; 사 54:13; 롬 31:33-34; 요 6:44-45,65; 히 10:32; 롬 8:5-6; 갈 1:16; 엡 1:17-18; 엡 3:17-19; 고전 2:10,12,15-16; 롬 7:23-24; 롬 8:28-39; 고전 15:8,58; 요일 2:8,13; 마 16:17,25-26; 고후 3:18; 고후 4:6,18; 골 3:10).
2.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된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진 위엄으로 인해 두려워하며, 밝아지고, 올바르게 인도되고, 생기를 얻고, 평안하며, 온유해지고, 신실하며, 공정해졌다(히 9:14; 히 10:19-22; 딤후 1:5; 시 86:11; 욥 31:14,23; 빌 1:9-10; 시 25:4-5,7; 엡 1:7; 엡 5:14; 행 24:16; 고후 1:12; 히 13:18).
3. 그리스도와 그 안의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탁월성과 사랑과 충만함에 사로잡힌 우리의 의지는 성향, 선택, 기쁨, 목적에 있어 새로워졌으며, 영혼을 다스릴 힘과 영적 감동을 받을 준비를 갖추었다(신 30:6; 시 110:3; 롬 31:33; 히 8:10; 겔 36:26-27; 겔 11:19-20).

4. 그리스도와 그 안의 하나님의 나타난 사랑과 아름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정동(affections)은 그 대상, 순서, 정도에 관해 새로워지고 바로잡혔다(갈 5:17,24; 시 18:1-3; 시 31:21-22; 시 84:1-2,10; 시 42:1-2; 시 119:122,136; 시 35:17,27; 시 73:25-26).

5. 성령에 의해 깨끗하게 되고 중요하고 영원한 것들에 끌리는 우리의 기억력은 상처, 잘못, 하찮은 것을 잊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에 따른 감동을 간직할 능력을 갖추었다(눅 2:51; 애 3:20-21; 창 48:3; 렘 31:3; 시 119:49,52,93).

6. 우리의 몸은 새롭게 되었고, 새로워진 마음에 의해 다스려져 악을 행하려는 평소의 준비성에서 거룩한 행위를 위한 준비성으로 바뀌었다(고전 6:13,19-20; 고전 9:27; 시 141:3; 욥 31:1,8; 롬 12:1; 롬 6:13,19).

이 새 본성, 즉 중생에서 심겨져 시작된 성화와 점차적으로 완성되는 성화는, 다양한 대상에 관해 작용하는 여러 영구적 습관 또는 은혜인 지식, 믿음, 사랑, 소망, 회개로 구분되며, 이들은 새 인간 곧 신성한 본성의 구성원이다.

1. 이 심겨진 초자연적 습관 또는 새 본성은 죄된 무지, 어리석음, 우둔함에 대치되며, 의무와 영원한 행복과 관련된 대상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영적 지식이자 보는 눈, 듣는 귀, 이해하는 마음이다(엡 1:17-18; 딤후 3:15; 신 29:3-4). 이 지식에는 우리 자신에 관한, 즉 영혼의 가치, 하나님 앞의 우리 상태, 성품과 성향, 행위의 원리·동기·방식·목적, 마음의 온갖 속임수와 부패에 관한 지식(고후 13:5; 렘 17:9; 히 3:12; 왕상 8:32), 그리스도의 인격·본성·직분·관계·자격·사역·충만함에 관한 지식(갈 1:16; 고전 2:2; 빌 3:7-9; 요 1:14), 하나님에 관한 지식, 곧 그의 완전함·인격·목적·사역·교리·법·약속·위험과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관련되고 계시된 것에 관한 지식(렘 9:23-24; 출 34:6-7; 렘 31:34; 요 1:18; 고후 4:4,6)이 포함된다.

2. 이 새 본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증언을 믿고 확신하도록, 그리고 복음 안에 계시되고 약속되고 제공되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도록 능력을 준다. 이것을 믿음이라 한다(히 11:13; 딤후 1:15; 요 1:12; 빌 4:6; 뱀전 5:7). 기적을 믿는 믿음, 즉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가 우리나라 우리의 요청에 나타날 것을 확신하는 믿음(행 14:9; 고전 13:2; 눅 17:6; 마 17:20; 8:10; 9:2; 요 11:40), 역사적 믿음, 즉 하나님의 선언의 진리를 우리 자신께 적용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믿음(요 12:42; 행 26:27; 약 2:19 및 일부 롬 14:22-23), 일시적 믿음, 즉 복음 진리에 대한 일시적 확신과 약간의

정서적 적응이 수반된 믿음(마 13:20-21; 막 6:20; 요 5:35; 히 6:4-5; 히 10:26; 벧후 2:20; 사 58:2; 겔 33:31)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택자들의 진정한 구원 믿음, 즉 진실하고 귀중하며 가장 거룩하고 마음을 정화하고 사랑을 낳는 믿음이 아니며, 이 진정한 믿음이 새 본성에 포함되어 있다(약 2:26; 딤후 1:5; 딤후 1:5; 벧후 1:1; 유 20; 행 15:9; 갈 5:6; 히 10:22; 딤후 1:1; 살후 3:2; 요 1:12; 막 16:16). 구원 받는 믿음의 전 과정에는 하나님의 선언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확신은 서로 다른 성도들 사이, 그리고 같은 성도 안에서도 때때로 강하거나 약하고, 의심과 불신과 다소 섞여 있다(롬 4:19-20; 마 14:30-31). 확신이 강하고 완전할 때에는 하나님의 증언에 반대되는 모든 의문을 무시하며(롬 4:19-20; 대하 20:20), 그리스도를 높이 평가하고 확신하며(시 73:25; 욥 13:15), 큰 어려움을 기쁘게 견디며(고후 12:7-10; 욥 1:21-22; 2:10; 행 5:41; 시 112:7), 하나님과 겸손하면서도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고(히 4:16; 히 10:22; 빌 3:20; 갈 4:6; 롬 8:15-16), 두려운 은폐와 냉담 속에서도 그분의 구속 사랑에 대한 확신을 굳게 지키며(갈 2:20; 롬 8:32-39; 시 22:1; 88:1; 42:9-11), 그분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고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가 매우 반대되는 듯 보여도 확신은 흔들리지 않는다(롬 4:19-20; 히 13:5; 히 11:11,17-19; 욥 13:15; 시 138:7; 71:20-21; 합 3:17-18).

이런 강하고 완전한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하고(롬 4:19-20; 마 15:22-28), 믿는 자를 눈에 띄게 지지하고 위로하며(시 27:1-3,13-14; 118:5-18), 실천적 경건을 크게 촉진한다(갈 5:6; 딤후 1:5; 눅 1:74-75).

### 3.

새 본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바라보게 하며 간절히 기대하고 그 복들을 누리기를 기다리게 하므로 희망이라 한다(시 119:81; 롬 8:24; 고후 4:18; 히 6:18-19). 믿음은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모든 선언에 굳게 고정하며 그 진리를 특별히 주목한다(히 11:3,13; 행 8:37). 그러나 희망은 오직 미래의 좋은 약속들에만 고정한다(롬 8:24; 히 6:11,18-19).

4. 새 본성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및 그와 관련되거나 그의 영광을 위한 모든 것에 대해 바라고 달라붙으며 기쁘하게 하므로 사랑이라 한다.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는 그 탁월함과 관계, 우리에게 대한 친절 때문에 사랑받으며, 율례와 성도 등도 그들을 위하여 사랑받는다(아 1:2-4; 아 5:10-16; 시 115:1-3; 시 104:34; 시 139:17-

18; 시 37:4,7; 시 18:1-3; 시 42:1-2; 시 84:1-2,10; 시 103:1-6; 시 116; 시 119; 엡 4:30; 살전 5:19; 시 119:63; 시 51:18; 시 102:13-22; 시 137:5-7; 시 122; 시 132; 빌 1:21; 고후 5:1-7).

5. 새 본성은 또한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의 죄됨에 대해 온화한 슬픔과 증오를 품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진실한 회개의 결심과 새 순종을 향한 노력과 힘을 갖게 하므로 회개라 한다(행 5:31; 행 11:18; 고후 7:11; 롬 3:18-19; 롬 3:13,21,23). 이 회개의 행위는 하나님 법과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본성과 법에 대한 반대이며, 그리스도 우리 구주에 대한 살인 행위이며, 불멸의 영혼을 더럽히고 파괴하는 것으로 참되게 깨닫는 데서 비롯된다(스 9:6,15; 욥 40; 욥 4; 욥 42:5-6; 시 51:1-5; 사 64:6; 사 6:5; 욥 12:10; 롬 7:14-24).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피로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음으로 적용할 때 생긴다(겔 16:62-63; 겔 36:25,31-32; 롬 3:18-20; 욥 12:10; 행 2:36-38). 그 본질은 우리의 죄에 대한 진심 어린, 경건하며, 보편적이고, 비례된, 극진한, 확고한 슬픔에 있다(롬 2:19; 애 3:28; 시 6:6; 시 51:3,5; 시 32:5; 롬 7:24). 또한 죄 자체를, 모든 모습들 속에서 은혜롭고 자기를 미워하며 항상적이고 보편적이며 비례되고 극진하며 목표에 있어 완전한 미움으로 미워하는 데 있다(시 119:104,113; 롬 7:14,23-24; 갈 5:17-24; 욥 42:5-6; 겔 36:31; 시 139:21-23). 그리고 기쁨의 대상으로서 죄에서 겸손하고 진실하며 간절히 돌이켜,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에 있다. 우리의 분깃이자 주인이며 벗이자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진정한 복음적 순종을 그 기초와 원칙과 동기와 방식과 목적에서 새롭게 하려는 완전한 결의와 노력과 함께 이루어진다(롬 3:18-20; 눅 15:18,20; 호 14:1-3,8; 행 11:23; 삿 24:15; 시 119:59-60).

### 복음적 회개와 법적 회개의 구별

이 복음적 회개는 구속받지 못한 자들의 법적 회개, 즉 죄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 분노와 현격히 다르다.

1. 순서에서. 법적 회개는 깨진 율법에 대한 법적 신앙에 이어 나타나나, 복음적 회개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믿음에 따른다(행 16:30; 욥 12:10).

2. 원인에서. 법적 회개는 하나님의 보복적 진노를 두려움으로 여기며 이는 하나님의 위협과 심판에서 나타난다(창 4:10-14; 마 27:3-4; 출 9:27). 반면 복음적 회개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보복적 진노와 모든 죄에 대한 자유롭고 완전한 용서를 인식하는 데서 나온다(사 6:5; 단 9; 스 9; 속 12:10; 겔 16:62-63).

3. 대상에서. 법적 회개는 주로 죄의 거친 행위와 그에 따른 형벌로 인해 두려워하지만(창 4:13-14; 마 27:4), 복음적 회개는 비밀스럽고도 사랑하는 죄와 하나님께 미움 받으며 영혼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 가장 깊이 탄식한다(시 51:4-5; 롬 7:14,23-24).

4. 결과에서. 법적 회개는 사람을 거친 죄 행위에서만 돌이키게 하여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 내면의 분노를 품게 하며 때로는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다(왕상 21:27,29; 창 4:13; 마 27:4-5; 고후 7:10). 그러나 복음적 회개는 모든 죄에 대한 사랑에서 돌이키며 구원과 영생을 가져온다(고후 7:11; 시 119:104,113; 행 11:18).

5. 하나님의 사면과의 관계. 법적 회개는 영적 유익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사면과 직접적 연관이 없으나, 하나님은 종종 그것을 사면의 관문으로 사용하신다(행 2:37; 롬 7:8-13). 반면 복음적 회개는 의롭다 하심에 의한 하나님의 사법적 사면의 필수적 열매이자 증거이며, 또한 자녀 삼으심의 아버지 같은 사면과 죄에 대한 징계 제거에 관한 추가 계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다(사 44:22; 렘 3:12,14-15,21-23; 호 14:1-3,8). 그리고 사람을 멸망시키고 죄의 권세에 종속시키는 법적 죄책 아래에서는 불가능하지만(고전 15:56; 롬 7:5,8-13), 진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진노에 묶인 죄책 아래에서는 가능하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한다(렘 3:1,12-14,22; 렘 31:18-20; 호 14:1,8; 히 12:6-11; 시 94:12; 잠 3:12; 계 3:19).

### 복음적 회개의 필요성

우리의 죄에 대한 복음적 회개는 가장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이다.

1. 하나님은 여러 차례 명백히 그것을 요구하셨다(겔 33:11; 사 1:16-18; 사 55:7; 사 44:22; 렘 3; 호 14:1).

2.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함과 그리스도의 인격과 의의 안에서 확증된 모든 약속들이 회개를 크게 권면한다(출 34:6-7; 사 55:7; 사 1:18; 미 7:18-19; 호 14; 렘 3).

3. 그리스도의 모든 직무 수행과 그에 관한 구원적 계시들이 크게 촉진한다(막 1:14; 행 3:26; 행 5:31; 롬 11:26; 슥 12:10; 사 6:5,7).

4. 하나님의 섭리적 은총과 징계뿐 아니라, 우리 양심의 자각과 압박 또한 회개를 촉구한다(롬 2:4; 렘 6:8; 호 2:6-7,14; 호 5:15; 행 2:38; 행 3:19).

5. 모든 성도들의 본보기는 강력히 초대하며 자극한다(히 12:1; 욥 7:20; 욥 40:4; 욥 42:5-6; 삼하 24:10; 사 64:6; 사 6:5; 렘 3:21; 렘 16:19; 렘 31:18-20; 스 9; 시 51; 시 38; 단 9).

그리고 회개의 지체는 극히 위험하다. 현재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잠 27:1; 눅 10:20; 눅 13:3,5). 죄를 계속 짓는 것은 이전의 모든 죄에 새로운 가중을 더하는 것이며, 마음을 더욱 굳게 하고 내면의 부패를 증가시키며 회개를 어렵게 한다(롬 2:4; 시 95:7; 히 3:7-8,13,15). 하나님을 노하게 하여 우리의 회개 은혜를 거부하게 만들고(호 4:17; 창 6:3; 시 81:11-12; 시 95:11),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거룩함과 위로를 증진할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시 78:33; 시 90:9).

4000 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예를 본 경우는 거의 없으며, 하나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며 사탄을 이기실 때조차 단 한 사례뿐이다(눅 23:42-43).

**영적 은사의 나타남과 열매**



이 은사들은 우리의 영적 행위에서 함께 나타난다. 예컨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의 영적 지식은 그리스도를 분별하며 그분께 우리의 권리를 밝히고,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며 그분을 구원의 모든 목적에 합당하며 능력 있고 기꺼이 응답하실 분으로 믿는다. 우리는 정동(affections)으로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원하며 만족해하며, 자신을 죄인되고 더럽고 비참한 자로 부끄러워하고 미워한다. 이 때문에 몇몇 신학자들은 사실은 다른 은사에 속하는 것을 특히 믿음이라는 은사 하나로 귀속시키기도 한다.

이러한 은사들이 내재하고 적절히 행사됨으로써 우리는 많은 즐거운 기독교적 기질과 은혜로운 습관, 즉 성령의 능력 아래 새 영의 열매들을 맺는다(갈 5:22-23; 엡 5:9). 예를 들어,

1. 기독교적 지혜와 신중함—적절한 행위 목적을 세우며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고 가장 알맞은 장소와 때와 방식과 도구를 통해 실행하게 한다. 가장 위험한 적이 누구인지,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게 하는 최선의 방책이 무엇인지, 가장 적절하고 유익한 친구나 동료가 누구인지 알게 하며, 그들과의 친분을 최대한 이롭게 활용하는 법을 분별하게 한다. 언제 어떻게 친구나 이웃과 대항하거나 굽히며,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일이 우리와 그들에게 가장 유익한지 분별하도록 돕는다. 하나님의 율례에 주의 깊게 임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최대한 활용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과 이웃에게 유익하게 하는 법을 분별하며, 굽은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부드럽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한다(잠 1:3-4; 마 10:16-17; 엡 5:15-17).

2. 마음의 영성—영적인 것들을 심사숙고하여 귀중히 여기고 선택하는 데 드러나며, 영적인 것들에 대한 고정되고 마치 타고난 듯한 정동과 습관적 사고 집중, 이들을 추구하는 경계와 능동성 및 모든 세상적 관심사보다 즉각적으로 우선시하는 태도에서 나타난다(롬 8:5-6; 고전 2:15).

3. 경건—하나님의 증거를 쉽게 받아들이며(욥 23:12; 시 60:6; 렘 15:16; 시 85:8; 살전 2:13), 하나님을 확고히 신뢰하고 두려워하며(시 62:8; 시 89:7; 계 15:4), 하나님을 극진히 사랑하고 복종하며(마 22:37; 히 11:8), 하나님의 뜻에 진심으로 순종하고(마 6:10; 삼상 3:18; 삼하 16:11-12),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에 힘쓴다(벧전 1:15-16; 마 5:48; 눅 6:35-36; 롬 16:10; 딤후 2:15; 골 1:10).

4. 마음의 청결—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이 깨끗해졌으며(히 9:14; 히 10:22; 딤후 1:5), 죄와 죄로 유혹하는 모든 것에 내면적으로 미움과 혐오함이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특히 육체적 정욕으로 향하는 죄에 대하여 그러하다(마 5:8,28-31; 롬 7:24; 롬 12:9; 딤후 2:16,19,22; 벰전 2:11; 살전 5:22). 또한 과거의 부정함이나 내재한 부패에 대해 영구적인 슬픔을 갖는다(욥 40:4; 롬 7:14-24).

5. 성실성—모든 행위에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려는 단일 목적을 포함하며(딤후 2:15; 골 1:22), 의무 전체를 알고자 하는 공평한 열망과 노력, 그리고 아는 것을 열심히 행하는 모습을 가진다(욥 34:32; 시 119:5,27,33-34; 시 119:58-60). 내면과 외면 행동이 정확히 일치한다(고후 1:12; 행 23:1; 행 24:16).

6. 겸손—자신의 지식을 낮게 평가하며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탁월함과 거룩한 행위 없는 지식의 무가치를 겸허히 인정한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빌린 선한 모습에 대해 낮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무가치하며 기회에 비추어 충분하지 않고 일부 믿는 이들의 선함에 비해 훨씬 부족함을 인지한다. 하나님과 가장 미천한 피조물에게까지 의존함을 겸손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미천하고 죄와 반역, 은총 남용에 대해 자각한다. 따라서 특별한 자비를 감사히 받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모든 복음 은혜를 무자격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계명을 준행한다. 또한 이웃에게 겸손히 대하며, 사랑과 존중으로 그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의 미천함, 실수, 약함을 업신여기지 않는다. 온유하게 잘못을 책망하고 책망을 받아들이며 잘못도 인정하고 수정한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남을 우위에 두거나 아첨하는 것을 혐오하며, 은혜를 감사히 받고 모욕을 분노 없이 견디며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쁘게 섬긴다(약 4:6,10; 벰전 5:5-6; 빌 2:3; 눅 14:10; 눅 18:14; 고후 10:13-14).

7. 온유—하나님의 말씀 권위에 영혼을 기꺼이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섭리에 즐겁게 맡기고, 괴롭힘에도 내적 평정을 유지하며 사람들에게 입은 상처를 기꺼이 용서한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세상과 종교적 상황에서 겸손하고 점잖게 처신하며, 모든 이에게 온화하고 부드럽게 대한다(갈 5:23; 딤후 2:23; 딤후 6:11; 벰전 3:4; 습 2:3).

8.

인내는 사람들에게서 받는 지속적인 상처를 온유하게 견디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무겁고 다양한 고통을 선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은혜를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을 포함한다(시 27:13-14; 시 37:1-8; 시 62:1,5; 시 130:5; 시 123:1-4; 욥 35:14; 사 30:18; 사 28:16; 약 1:4; 약 5:7-8,11).

9. 평화로움은 무고한 실망이나 원한을 주거나 받지 않도록 진지하고 신중하게 조심하며, 평화가 있을 때 이를 유지하고 잃었을 때는 상처받은 이를 만족시키고 가해자를 확신시키며 용서함으로써 평화를 회복하는 것을 포함한다(히 12:14; 시 34:14; 마 5:9; 롬 12:18; 롬 14:19; 갈 5:22).

10. 마음의 부드러움은 영적인 것들에 대한 민감한 감각, 신적인 영향에 대한 내면의 유연성, 알려진 의무에 진심으로 참여할 준비, 그리고 하나님께 손상된 영광과 인간들의 실패 및 고통을 애통해하는 것을 포함한다(왕하 22:19; 엡 4:32).

11. 용기, 인내 혹은 덕은 임박한 재앙에 대한 노예 같은 두려움을 억제하는 능력, 정당한 결심에 대한 확고한 용기, 가장 어려운 기독교적 실천에도 두려움 없이 활발히 몰두하는 태도, 그리고 선한 목적과 충실한 노력의 집행에 있어 일정한 꾸준함을 포함한다(벧후 1:5).

12. 열정은 악한 것에 대한 진지한 혐오와 선한 것을 지키고 촉진하려는 열망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우리가 악한 것으로 아는 것에 대해 열심을 내고, 선한 것으로 아는 것에 대해 열심인 데에서 올바르게 규범화되며, 사물의 중요성에 비례하고, 거룩함과 덕을 진지하게 연구하도록 이끄는 것이며, 그 실행에 있어서는 타인에 대한 불관용을 피하고, 진리나 경건의 진전을 위하여 부적절하거나 우리의 위치에 맞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시 69:9; 시 119:139; 갈 4:18).

13. 절제는 우리 몸이 영혼에 복종하고 섬기는 데 적합하지 않거나 외적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 음식, 음료, 육체적 쾌락을 일정하게 기피하는 것이며, 시간을 낭비하거나 이성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고, 불규칙한 욕망을 조장하며, 영혼에 잘못된 경향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부적합하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외적 재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빼앗는 일을 포함한다(벧후 1:6; 눅 21:34; 갈 5:23).

14. 공평함 혹은 정의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 이웃에게 그들의 적절한 권리를 확고히 돌려주려는 경향이며, 세상적 요구에서 이웃을 해치기보다 자신을 더 희생하는 것을 포함한다(롬 13:7-8; 마 22:19,21,37,39; 마 7:12).

15. 자비는 위험, 고통, 가난에 처한 이들과의 부드러운 공감과 연민에서 비롯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포함한다(시 41:1; 시 18:25; 마 5:7; 골 3:12; 벧전 3:8; 벧전 4:8).

16. 진리, 솔직함, 성실함은 모든 형태와 정도의 속임수나 거짓을 확고히 멀리하며, 모든 적절한 때에 진리를 진지하게 유지하고 촉진하며, 우리의 성품, 관계, 신뢰, 의무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행하려는 경향을 포함한다(시 15:2-3; 눅 16:10-12).

#### 성품과 은혜의 일치

이 모든 성품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하려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영으로부터 유래한 은혜로운 덕으로, 그리스도와 일치된 마음 속에서,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권위에 따라 실행되고,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여 맺혀야 한다(벧전 1:4-8; 갈 5:22-23; 갈 2:20; 딤후 2:1; 고후 1:12; 빌 4:13).

앞서 언급한 내재된 은혜들과 습득된 성품들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음과 의에 대한 생명에서 실천된다. 이 점진적인 죄에 대한 죽음은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우리가 이 생애에서 죄된 부패를 완전히 정결케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신자들은 죄의 지배와 노예 상태에서 자유로우며(롬 6:7,11,14,18; 롬 8:2; 요 8:32,36),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음으로써 온전하다(골 2:10). 그리고 그들은

1. 건강하고 솔직하며 성실해서 알려진 죄에 빠지지 않는다(욥 1:1,8; 창 6:9; 사 38:3).

2. 모든 영적 기능과 본성의 능력이 부분적으로 새로워진다(살전 5:23; 고후 5:17; 갈 6:15).

3.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목표로 한다(눅 1:6; 빌 4:8; 빌 3:14-15).

4.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온전하다(창 6:9).

더욱이 어떤 신자들은 다른 신자보다 은사와 은혜에서 더 온전하다—구약 시대 신자보다 신약 시대 신자가 그렇다(고전 2:6; 갈 4:1-3; 빌 3:15; 히 5:13-14; 요일 2:13-14).

그러나 이 생애의 누구도 마음속에 남아 있는 부패의 오염과 작용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는다.

1. 성경은 그들 모두가 죄에 오염되었고 죄의 책임을 지고 있음을 묘사한다(요일 1:8,10; 약 3:2; 잠 20:9; 전 7:20; 시 142:2; 시 130:3; 왕상 8:38,46; 갈 5:17; 롬 15:14; 롬 25:4).

2. 아무도 하나님의 법의 멍에를 견디며 율법 아래 의롭게 될 수 없으며, 도덕법에 완전한 순종하는 것은 제사법보다 훨씬 어렵다(행 15:10).

3.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죄 사함을 위해 매일 기도하도록 배운다(마 6:12; 눅 11:4).

4. 성경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성인들도 주요 은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죄에 대해 책망받는다: 노아, 아브라함, 욥, 모세, 다윗,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요한, 야고보, 바울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창 9:21; 창 12:13,19; 창 20:2; 욥 3; 욥 9:3,20,28; 욥 15:5; 욥 7:20; 민 11:15,22; 민 20:10,12; 시 106:33; 시 32:6; 시 25:11; 시 51; 시 130:3; 시 143:2; 삼하 11, 24; 왕상 11; 사 6:5; 사 64:6; 렘 12:1; 렘 20:7-18; 단 9:6; 요일 1:8,10; 약 3:2; 롬 7:14-25).

이 마지막 구절은 거듭나지 않은 자를 가리킬 수 없다.

1. 바울은 당시 자신의 상태에 대해 가장 명료하게 말한다.

2. 바로 전 구절들에서 그는 과거에 자신이 어떠했는지를 말했으나 여기서는 현재형으로 바뀌어 죄의 강력한 영향 아래 있음을 나타낸다.

3. 이 구절은 선한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동의하고 즐거워하며, 내면의 죄성과 싸우고 마음에는 죄가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4. 이 구절에는 바울이 경건과 덕의 뛰어난 예로서 적합함을 해치는 내용이 없다(빌 3:12-14; 고후 1:12; 행 24:16).

## 반론과 정당성

예상되는 반론을 미리 막기 위해 다음을 지적한다.

1. 그리스도의 멍에는 쉽고, 그의 짐은 가볍고, 그의 계명은 신자에게 괴롭지 않다. 신자들은 그 안에서 기뻐하며, 그분의 능력으로 허용 가능한 불완전한 순종을 실행하며, 그의 피가 그들의 결점을 덮는다(마 11:30; 요일 5:3; 시 119:97; 롬 7:22; 사 40:31; 슥 10:12; 빌 4:13; 계 7:14; 계 19:8).

2. 신자는 법적 죄책, 지배, 노예 상태에서 자유롭고, 죄를 짓지 않으며 죄를 즐기거나 거래하지 않는다.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으므로 율법을 범하지 않으며, 그들의 새 본성은 하나님께서 낳으셨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요일 3:9; 요일 5:18; 요 8:34).

3.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믿음의 기도로 진정한 유익을 위한 모든 것을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운명을 변화시키는 모든 상황을 인내할 수 있다(막 9:23; 빌 4:13).

하나님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된 부패가 계속되고 자주 우세하는 것을 허락하신다.

1. 과거 죄를 꾸짖기 위함이다(시 81:11-12).

2. 은밀한 죄악의 풍성함과 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시 19:12-13; 롬 7:14-25).

3. 죄의 속임수와 심각한 악함을 드러내고 죄를 더욱 미워하게 하기 위함이다(히 3:12-13; 롬 7:14-24; 시 51:4).

4.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의와 능력임을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마 9:12-13; 사 45:24).

5.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 의, 성결, 구속이 되셨음을 의지하며, 친밀한 교제를 위해 기도에 힘쓰게 하기 위함이다(히 12:1-2; 사 45:24; 시 25:2; 고후 12:7-9).

6. 그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다(고후 12:7; 사 6:5; 사 64:6; 빌 3:8-9; 롬 7:14-25; 딤후 1:15).

7. 죄 죽임에 더욱 경계하고 활발하도록 자극하기 위함이다(막 13:37; 막 14:38; 벧후 2:1; 벧전 5:8; 히 12:12; 약 1:21; 골 3:5).

8. 그리스도의 미약한 따름자들에게도 사랑과 교제를 확장하도록 이끌기 위함이다(히 10:24-25; 롬 14:1).

9. 그들의 정동(affections)을 이 세상의 것에서 떼어내어 천국의 순수함과 행복을 갈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창 49:18; 빌 1:21,23; 고후 5:1-7; 딤후 2:12-13).

10. 다른 경우들처럼 점진적으로 큰 효과를 내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들 대다수 목적은 다른 방식으로도 달성 가능하므로, 아마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주로

1. 우리 죄에 대한 죽음이 그리스도의 죄를 위한 점진적 고난 또는 죽음과 닮게 하는 것(갈 2:20; 롬 6:4-6; 롬 8:29),

2.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기 위함일 것이다. — 용서하는 죄가 많고 심각할수록 예수의 피와 은혜의 능력이 더욱 드러나고,

— 죄가 본성에 깊이 뿌리내릴수록 은혜가 그 죄를 뿌리 뽑는 데서 더욱 높이 찬양받으며,

— 우리의 연약함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충과 지원과 승리에 있어 풍성하게 나타나고,

— 구원의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자유 은혜가 구원을 완전케 하는 데서 더욱 나타난다.

우리 본성의 죄된 부패, 즉 오래된 자(old man)는 그 오래됨과 교활함, 신자 안에서 죽어가고 있음으로 불리며(엡 4:22; 롬 6:6), 회원들의 법, 즉 죄와 죽음의 법은 다양한 형태로 우리를 더럽히고 멸망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다(롬 7:23,25;



롬 8:2). 육체는 그 더러움과 세속성, 육체를 통해 발휘하는 영향력으로 구성된다(롬 8:1,4; 갈 5:17,24), 욕망은 죄된 행위로 향하는 끊임없는 경향이다(엡 2:2).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 생애 동안 각 신자에게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 마음에는 무지, 교만, 허영, 거짓이 있고,

— 양심에는 어리석음과 편파, 악을 선이라 부르고 선을 악이라 부르는 경향이 있으며,

— 의지에는 선에 대한 무력감과 혐오, 하나님과의 적대, 올바른 목적에 대한 왜곡이 있으며,

— 정동(affections)에는 속세적이고 무질서하며 과도한 성향이 있고,

— 기억에는 경솔과 배신이 있으며,

— 신체의 부분들에는 불의에 동참하려는 경향이 있다(롬 7:14-25; 사 64:6).

이 내주하는 부패의 힘은 거듭남에서 약화되고 그 지배는 파괴되지만, 성화 과정에서는 점차 죽여야 한다(롬 8:2,13; 갈 5:24; 골 3:5; 엡 4:22). 이 남아 있는 죄성의 죽임은 그것을 숨기거나 욕망을 다른 쪽으로 돌리거나 자연적 능력을 키워 대항하거나, 깨달음이나 위험, 고난의 때에 일시적으로 일부 욕망을 이기는 것이 아니며, 이 생애에서 완전히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1. 죄의 부리를 파괴하기 위해 예수의 피를 우리의 양심에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때때로 더럽히는 모든 죄책을 제거하고자 진지하게 노력하는 것이다(히 9:14; 히 10:19-22; 요일 1:7,9).

2.

그것에 대한 복음주의적 고통, 그것에 대한 증오와 혐오, 그리고 그것의 모든 행위들에 의해 살아나며, —그것에 반대하여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말씀, 성령의 진지한 적용을 통해 그 권능과 충만함을 줄이려 힘쓰고, 그의 충만함에서 점점 더 많은 은혜를 받아 우리 영혼의 여러 힘에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한다, 롬 7:14-24; 욥 42:5-6; 겔 36:31-32; 시 143:12; 빌 3:9-14; 엡 4:22-24; 엡 5:15; 엡 5:14; 롬 13:14; 롬 6:6; 롬 8:13; 골 3:5, 9-10.

3. 우리 죄에 대한 사랑이 점차 줄어들고, 그에 대한 증오가 증가하며, 모든 죄의 외형에 대한 증오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써 생겨난다, 롬 5:5; 롬 7:24-25; 욥 40:4; 욥 42:5-6; 시 119:104, 113.

4. 죄의 첫 움직임과 모든 시험에 대해 진지하게 깨어 있음으로써,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죄의 작용을 줄이고, 죄에 대한 우리의 성향을 감소시키며, —그리스도와 그 성령에 의해 강화되고 활동되는 내면의 은사를 통해, 잠언 4:23; 롬 6:12; 롬 8:13; 엡 6:10-19; 빌 4:13; 고전 16:13; 골 3:5; 갈 5:17, 24. 여기서 믿는 자들의 내재하는 은혜와 죄의 부패 사이에 끊임없는 싸움이 따른다, 야 6:13; 롬 7:23; 갈 5:17; 엡 6:12. 이 내적 싸움은 단지 그들의 성향과 양심 사이, 또 심한 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재생받은 성향들이 재생받지 못한 성향들과 싸우며, —심지어 가장 은밀한 죄에 관해서도 그러하다, 롬 7:24-25; 시 19:12-13.— 이 싸움에서 우리의 내재하는 부패는 사탄과 세상의 모든 유혹의 협력으로 속임수와 폭력으로 종종 내면의 은혜를 이겨 내 생각, 말, 행위로 죄를 짓게 만들며, 롬 7:14-29; 사 64:6; 약 1:14; 약 3:2; 이러한 죄의 우월성은 우리의 영혼을 죄의 지배로 굴복시키려는 본성적 경향을 지닌다, 롬 7:23.—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행위의 언약 아래서 완전하게 해방시키고, 죄의 힘인 저주를 제거하시며, 그의 중보, 말씀, 피, 성령, 섭리를 통해 우리의 은혜를 능동적으로 도우셔서 이 무서운 죄의 움직임을 제어할 뿐 아니라, 우리가 빠진 죄를 회개하고 극복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롬 8:2; 롬 7:4, 6, 14; 시 51; 시 38.

## 영적 전쟁과 자기부인

이 영적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강력한 실천이다. 이 실천에서 우리는 동시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다, 마 16:24. 이 실천을 통해 자연적, 사회적, 종교적, 또한 죄된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버지, 복된 성령이 우리 마음과 삶에서 차지할 자리를 빼앗는 정도까지 포기한다, 마 16:24; 눅 14:26; 딤후 2:12. 우리는 참된 행복으로

인도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받아들이며, 그분의 말씀과 성령을 우리의 교사이자 인도자로 삼는다, 잠 3:5-7; 고전 1:24, 30; 살후 2:13. 우리는 우리의 자격과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거나 희망의 근거, 행복의 조건이 되기에 전혀 부적합함을 인정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의만을 온전히 받아들여 순종한다, 사 64:6; 빌 3:9. 우리는 자기 자신을 모든 탁월성, 관계, 누림으로서 우리 몫이 될 수 없는 것으로 포기하며, 우리의 최고 행복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다, 빌 3:19-20; 살후 3:5; 골 3:1-2; 시 73:25-26; 시 16:5-6; 시 142:5; 애 3:24; 마 10:37-38; 마 19:29. 우리는 자기를 전적인 목적이나 어떤 목적도 될 수 없으며 하나님 아래에서 복종하며, 모든 행위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돌린다, 고전 10:31; 고전 6:19-20; 골 3:17; 뱀전 4:11; 엡 3:21; 시 118:28; 출 15:1.— 우리의 영혼의 자연적 부패한 성향과는 반대로, 합법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에 대한 모든 관심과 기쁨을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에 종속시킨다, 마 6:33; 요 6:26-27; 고후 4:18; 눅 10:41-42.— 자기 뜻을 거부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자 통치자로 삼아 그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율법에 복종한다, 롬 7:12,14; 롬 14:8-9; 고전 6:19-20; 신 4:2; 신 5:32; 신 12:32; 마 28:20.— 자기 선택을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의 소유자로서 기쁘게 내리시는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욥 1:21; 삼상 3:8; 시 39:9; 마 20:15; 빌 4:11-13; 행 21:14; 마 26:39, 42; 요 18:11.— 우리 자신과 모든 피조물을 신뢰하지 않고, 근심 없이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의지하여 그분이 가장 적절한 때와 장소, 방식으로 우리에게 참된 선과 최선을 베푸시기를 기다린다, 렘 17:5-8; 시 84:11-12; 시 4:6-7; 시 34:8-10; 시 85:12-13.

## 의로운 삶과 행위의 조건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점점 더 내면의 거룩함과 그로부터 나오는 선한 행위에의 사랑과 충만함이 증가하는 것이다, 욥 17:9; 잠 4:18; 시 92:13-14; 고전 15:58.— 좋은 목적만으로 우리의 행위가 좋다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1. 사람은 하나님 율법이 금하는 일을 선한 의도로 행할 수 있으며, 요 16:2; 행 26:9; 2. 하나님의 율법인 행위 기준을 제대로 알지 못해도 일종의 좋은 의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롬 10:2-3; 롬 14:15; 딤후 1:7-8; 3. 우리의 의도뿐 아니라 전체 본성과 행위도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제한되고 규제되어야 한다, 신 4:2; 신 12:32; 마 22:37,39.—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요구된다는 것만으로 행위가 선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올바른 원칙과 동기에서 비롯되어 적합한 방식과 목적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율법상 요구된 행위를 진정 복음적이고 새 순종으로 만들려면,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며, 자유 은혜에 근거해 그리스도의 의가 왕 노릇하고, 거룩한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의 법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스려야 한다, 요 8:32; 요 13:17; 약 1:21; 살전 2:13.

행위는 생기 있는 복음의 원칙에서 비롯되어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 기업, 주님으로 아는 지성의 조명, 그의 율법을 증거하는 피로 정결해진 양심, 그의 내재하신 성령에 의해 새롭게 되고 활동되는 의지와 정동(affections)이 이끌어야 한다, 마 7:17-18; 마 12:33-35; 눅 8:15; 갈 1:16; 히 9:14; 딤후 1:5; 겔 36:25-26.

행위는 복음적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아야 하는데, 곧 하나님의 구속 사랑, 우리 하나님으로서의 그의 권위가 그의 율법에 나타남, 그리스도의 본으로서의 예와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 아버지의 본, 그리고 확고한 영생의 희망이 그것이다, 고후 5:14-15; 요일 4:19; 살전 4:3; 엡 5:1-2; 히 12:12; 고전 15:58.

행위는 복음적인 태도로 행해져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의이자 능력으로 믿는 신앙을 실천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하는 사랑과 큰 겸손으로, 하나님 은혜에 무한한 빛진 자임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가장 작은 것에도 못 미친다고 겸허히 여겨야 한다, 딤후 1:5; 갈 2:19-21; 빌 4:13; 스후 10:12; 시 116:16; 미 6:8; 눅 17:10; 창 32:10.

행위는 복음적 목적을 지녀야 하는데, 우리를 구원자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고, 우리 창조자이자 구속자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그를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께 인도하며, 우리가 하나님과 자유롭게 온전하며 영원히 교제함을 누리게 준비시킨다, 눅 6:27-36; 고전 6:19-20; 벰전 1:15-16; 벰전 2:9; 벰전 3:1; 마 5:16; 고전 7:16; 계 3:21; 계 22:14.

진정한 은혜가 있고 진실로 선한 행위를 한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우리는 항상 점점 더 증가하여 풍성해야 한다, 벰후 1:4-8; 벰후 3:11,13,18; 딤후 2:11-14; 딤후 3:8,14; 빌 3:12-14; 빌 4:8; 히 12:1-3; 고전 9:24; 욥 17:9; 잠 4:18.

내재한 부패와 그 조력들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참된 신자들은 심겨진 은혜의 정도와 강도, 그리고 생기에서 점점 더 성장하며, 거룩한 생각과 말과 행위에서 더욱 열심히 정확해진다, 시 92:13-14; 시 84:7; 욥 17:9; 잠 4:18. 그러나 그들은 모든 때와 모든 면에서 항상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삼하 11; 왕상 11; 마 26:69-7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그들의 유익을 위해 협력시키시기 때문에, 때로 그들은 더 나빠진다고 느낄 때조차 자신에 대한

인식과 겸손이 늘어난다; 이는 마치 추위와 폭풍이 나무의 성장을 촉진함에도 방해하는 것처럼 일어난다, 롬 8:28; 고후 4:17; 롬 17:8; 미 7:14; 호 2:7,14; 사 27:9; 시 119:67,71,75; 히 12:6-11; 잠 3:12.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인간의 행위나 자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호의도 받을 자격이 없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최고의 행위도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을 받을 뿐이다.

1. 그들은 진정한 선함의 모든 구성 요소가 결여되어 있다. 그 행위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롬 14:23; 딤후 1:15; 딤후전 1:5; 또한 하나님의 율법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 신 12:32; 롬 8:7-8; 욥 7:5.

2. 그들의 가장 유익한 행위조차 죄로 간주된다, 잠 15:8; 잠 21:4,27; 잠 28:9; 사 1:11-15; 사 58:3. 오히려 한 점에서 죄를 지으면 전체 율법의 범법자가 된다, 약 2:10.

3.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어리석고 무신론자이며 가장 악독한 자들로 묘사된다, 시 14:1-4; 엡 2:1-3,12; 딤후 3:3; 롬 1:29-32; 롬 3:9-20.

4. 은혜의 심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유 선물이다, 롬 9:16; 엡 2:4-10; 딤후 3:3-7; 고후 3:3,5; 고후 4:7; 롬 11:26,35.— 적절한 공로란 공로를 쌓는 행위가 완전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행해져야 하며, 하나님께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넘어서야 하며, 받는 상급과 가치가 같아야 하므로, 성도나 천사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공로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 왜냐하면

1. 우리는 그의 율법에 대해 가능한 모든 순종을 빚지고 있다, 시 95:6-7; 시 100:2-3; 마 5:48; 마 22:37,39; 눅 6:27-36; 롬 8:12.

2. 우리가 진정 선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 은혜의 산물이다, 약 1:17; 빌 2:13; 고후 3:5; 고전 4:7.

3. 우리의 어느 행위도 하나님의 율법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다, 롬 17:18; 갈 5:17-18; 사 64:6.

4. 유한한 피조물의 선한 행위와 영원한 행복 상급 간에 동등한 비례가 없다, 롬 8:18; 고후 4:17; 롬 6:23; 롬 4:4; 롬 11:6.— 오히려 성도의 선한 행위도 약속된 공로로 영생 상급을 구입할 수 없다.

1. 그들의 지상 행위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율법에도 완벽히 부합하지 않는다, 마 5:48; 마 22:37,39; 뱀전 1:15-16; 마 7:12; 사 64:6; 전 7:20; 왕상 8:38,46; 약 3:2; 요일 1:8,10.

2. 그들이 속한 그리스도의 율법은 완전한 자유의 법으로서 어떤 계약상의 공로도 인정하지 않는다, 약 1:25; 약 2:12; 고전 9:21.

3.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는 계약상의 공로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롬 5:16-21; 히 10:10,14; 히 9:12; 엡 2:4-9.

4. 그들의 선한 행위가 나오는 믿음과 사랑의 원칙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온전히 소유하고 새 언약의 모든 은혜와 영광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전제로 한다, 고후 5:14-15,21; 롬 3:24,31; 갈 2:16,19-20.— 실제로 성도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다. 그러나,

1. 이 상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 은혜이다, 롬 5:21; 롬 11:6; 롬 6:23.

2. 이는 성도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안에서 인정받았기 때문에 주어진다, 고전 15:58; 사 45:17; 시 72:17.

3.

그들의 선한 행위와 은혜로운 상급 사이에는 단순한 순서상의 연결만 있을 뿐이다. 즉, 거룩한 부지런함의 복이 현저한 행복에 앞서 주어지며, 뒤따르는 복들은 차등을 허용하는 그러한 선행들에 비례하여 주어진다(계 2:7,17,26; 계 3:5,12,21; 눅 19:16-19). 올바른 개념을 촉진하고 거룩함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규칙들을 신중히 준수해야 한다.

1. 거룩함(성화)의 참된 본질과 그 다양한 구성 요소를 최대한 주의 깊고 세심하게 배워야 한다(잠 19:2; 렘 5:4; 호 4:1-2,6; 사 27:11). 많은 이들이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외적인 고백, 사람들 앞에서의 흠 없는 행위, 하나님에 대한 형식적인 헌신, 심지어 가톨릭적 또는 이교도의 미신까지도 진정한 거룩함으로 오해한다(마 19:20; 갈 1:14; 롬 7:9; 빌 3:5-6; 사 58:2; 마 15:1-9). 거룩함의 본질과 구성 요소는 규범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롭고 은혜로운 특권으로 제공하는 은혜의 언약으로부터,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에 따른 우리의 상태로부터 배워야 한다(사 8:20; 사 34:16; 요 5:39; 사 55:3; 삼상 23:5; 벧전 5:8; 엡 6:10-20; 엡 4-6; 골 3-4).

2. 참된 거룩함의 본성과 실행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을 최대한 정확하고 부지런히 배워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거룩함의 모든 내용, 방식, 목적을 규정하고 조절하는 하나님의 법은 영적이며 매우 광범위하여 제대로 이해하기 쉽지 않다(롬 7:14; 시 119:96). 그럼에도 참된 거룩함을 추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온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약 2:10; 마 22:37-40; 마 7:12; 딤후 2:12).

2) 본성적으로 우리는 참된 거룩함을 연구하는 적절한 방법을 알지 못하며 그 능력도 없다(엡 5:8; 엡 2:13; 롬 8:7-8; 롬 5:6; 요 15:5-6; 요 6:44; 고전 2:14).

3) 죄인들이 참된 거룩함에 이르는 적절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다(롬 2:14-15; 딤후 3:15-17; 요 5:39; 사 8:20; 신 12:32).

4) 어떤 성인이라 하여도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참된 거룩함을 얻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행 26:17-18; 벧후 1:2-4; 롬 6:6,17-18; 엡 6:10-19).

5) 죄인의 성화를 위한 참된 방법은 종교의 큰 신비 중 하나이므로 성경에서도 쉽게 배워지지 않는다(딤후 3:16; 고전 1:19-24,30; 고전 2:14; 시 119:5,18; 시 143:10; 살후 3:5).

6) 참된 성화의 방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오류에 맞서 복음 진리를 굳게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하다. 만약 어떤 교리가 보편적 거룩함을 증진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진리이다(딤후 6:3; 요 17:17-18; 마 7:15-16). 또한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거룩함 연구를 견디게 한다(사 64:5; 딤후 2:5,15).

7) 참된 거룩함에 이르는 올바른 방법을 알지 못해서 많은 이가 단지 거룩함의 그림자에 만족하거나 심지어 그것조차도 소홀히 한다. 그리고 적지 않은 이들이 처음에는 종교에 진지하게 열중하다가 갑자기 중단하며 불경하게 되거나 심지어 자살에 이른다.

3. 참된 거룩함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먼저 내면에 그에 대한 성향(정동)이 갖추어져야 한다. 즉,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진실한 확신, 그분의 순종과 죽음으로 인한 영생에 대한 확고한 희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의무 행함을 받아들여지게 하실 것이라는 진심 어린 믿음이 필요하다.

#### I. 마음과 삶에 거룩함에 대한 성향(정동) 심기



1)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쁨, 마음과 혼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함,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함 등의 율법적 의무는 이러한 성향 없이는 수행될 수 없다(시 40:8; 마 22:37,39; 딤후 1:5; 눅 8:15; 갈 5:16-17,24; 욥 23:12; 시 19:10; 시 42:1-2; 시 63:1-2; 시 84:2).

2) 아담과 그리스도는 거룩함 연구를 위해 이러한 성향을 지니고 창조되었다(전 7:29; 창 1:27; 눅 1:35; 히 7:26).

3) 그러나 우리는 본성적으로 이와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마 12:33; 마 15:19; 롬 8:7-8; 롬 17:9).

4) 모든 신자는 이 성향이 거룩함 연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식한다(시 51:10; 시 119:36-37).

5) 하나님은 거룩함 실천을 위해 이 성향을 요구할 뿐 아니라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겔 36:26; 겔 11:19-20).

## II. 하나님과 화목하였음을 확신하고 확고한 희망을 가지기

1)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에 따라 그분과 새 언약 안에서 친구로서 화목하였음을 확신해야 한다.

1) 아담은 하나님과의 높은 호의를 입고 거룩함 연구를 위해 창조되었으며(창 1:26-27; 창 2:16-17),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자 그분의 깊은 호의를 받았다(마 3:17; 마 17:5; 사 42:1; 골 1:13).

2) 철저히 확신된 양심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유 은총으로 우리를 능력 있게 하시지 않으면 영적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한다(고전 15:10; 고후 3:5; 빌 2:12-13; 살전 5:23).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노 아래 놓는 저주를 제거하심으로써 가능해진다(갈 3:13; 롬 6:14; 롬 8:2; 롬 7:4,6).

3) 법이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확신 없이는 수행할 수 없다(마 22:37,39; 요 4:16-19).

4) 양심은 죽은 행위에서 깨끗해져 산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히 9:12,15; 히 10:1-2,4,14,17,22; 딤후 1:5). 죄가 양심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저주하게 된다(욥 1:5).

5) 하나님은 자신이 화목하시다는 사실을 나타내어 보통 거룩함을 격려하고 자극한다(렘 3:14,22; 호 14:18; 사 44:22; 겔 16:62-63; 겔 36:25-31). 그의 산입 성례는 화목을 상징한다(창 17:7-14; 행 2:38-39).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그분이 화목하신 하나님임을 선포하며 율법을 공포하기 시작하셨다(출 20:2,5,7-8,12; 출 19:5-6; 출 24:1-8). 모든 유대 제사장과 레위인은 희생과 세척을 통해 거룩한 봉사에 임직되었으며 이는 화목을 의미한다(출 29; 레 8-9; 민 8). 유대인들은 매일, 매월, 매년을 하나 이상의 신성한 화목 축제로 시작하였다(민 28-29; 레 23). 우리의 기독교 주일 또한 신성한 축제와 화목의 성례 잔치로 시작된다(행 20:7; 요 20:20,26; 고전 11:23-26; 고전 10:16).

6) 하나님과의 화목은 복음 거룩함 연구의 모든 진정한 출발점이다(엡 4:31-32; 엡 5:1-2; 요일 2:12,15; 히 12:28; 시 119:32; 시 116:16; 눅 1:74-75; 고후 5:14-15,19; 고후 6:18; 고후 7:1; 딤후 2:11-12).

3)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며 영원한 행복에 대한 확고한 희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거룩함의 올바른 조건이자 대가이다.

1) 특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라는 우리의 의무 본성이 이것을 요구한다(요일 3:1-3; 요일 4:9-10,19).

2) 타락 이래로 하나님은 이 희망을 거룩함을 향한 격려로 늘 제시해 왔다(히 12:1-2; 고후 4:16-18; 히 10:34-35; 히 11:26; 고전 15:58; 시 119:166; 딤후 2:12-13; 벧후 3:11,14,18).

3) 영원한 행복에 완전한 거룩함이 주요 성분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희망은 더욱 효과적으로 거룩함을 촉진한다(요일 3:2-3; 시 119:166; 호 11:4).

4)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꺼이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능력과 의지를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

1) 우리는 본성상 그렇게 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다(엡 2:1; 롬 5:6; 롬 8:7-8; 롬 17:9; 고후 3:5; 요 15:5).

2) 참된 거룩함 연구는 매우 어렵고 수많은 적들이 존재한다(갈 5:17,24; 엡 6:10-20; 롬 7:14-24; 롬 8:13; 골 3:5; 마 15:23-28; 마 16:24; 마 19:29).

3) 하나님은 누구도 자기 힘만으로 싸우도록 보내지 않으셨다. 아담(창 1:27; 전 7:29), 모세(출 3-4), 여호수아(수 1; 수 5:13-14), 사도들(마 28:20; 요 20:21-22; 행 1:8; 행 26:17-18), 그리고 그리스도(사 42:1; 사 49:1-2; 사 50:7,9; 사 61:1; 사 11:2)에게도 마찬가지이다.

4)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거룩함 연구에 필요한 능력과 의지를 확보하도록 하셨다(롬 6:13-14; 엡 6:10-11; 요일 2:13-14; 빌 2:12-13; 빌 4:13).

5) 복음 거룩함 연구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과 교제를 통해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아야 한다(요 14:20; 요 17:22-23,26; 요 15:4-5).

1) 새 언약 은혜의 모든 충만함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골 1:19; 골 2:10-13,19; 엡 1:3; 고전 1:30; 고후 1:20; 시 72:17; 갈 2:20; 요일 5:11-12). 특히 앞서 언급한 준비들이 포함된다(롬 8:14-15; 고후 5:17-21; 롬 5:19,21; 롬 8:33-39; 골 1:27; 스후 10:12; 사 45:24).

2)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경의 여러 비유는 다음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분이 아버지께서 사시는 것같이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하며(요 6:57), 아담에게서 죄와 죽음을 받듯 그분에게서 생명을 받으며(롬 5:12-21; 고전 15:22,45), 우리 몸이 머리로부터 감각과 영양분을 공급받듯 그분에게서 영향력과 양육을 받아야 하며(골 2:19; 엡 4:16),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합법적 자녀를 낳듯 그분 안에서 선했던 열매를 맺으며(롬 7:4,6), 가지가 뿌리에서 생명과 양분을 받듯 그분에게서 받으며(요 15:4), 몸이 음식으로 영양을 얻듯 그분에게서 양육을 받고(요 6:51-56), 돌들이 기초석과 모퉁잇돌과 연결되어 건축되듯 그분 안에서 영적 성전이 된다(벧전 2:4-6; 엡 2:20-22).

3)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음, 부활의 목적은 그분 안에 거룩함의 보물을 이루어 우리에게 연합과 교제로 나누어 주는 데 있다(요 1:14,16; 빌 3:10-11; 고전 15:45-49; 롬 6:4-6). 그리스도는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어 하나님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움을 받게 하셨다(마 1:23; 골 2:9-10; 벧후 1:4; 엡 3:19; 요 1:14,16). 그분의 삶으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사셨고(롬 5:10,17-19,21; 단 9:24), 죽음으로 죄의 저주에서 자신과 우리를 해방시키며 내면의 부패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롬 6:2-4,6,10-11; 빌 3:10-11; 요 12:24; 사 53:10). 부활에서는 합법적·영적·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대신하여 취득하셨다(롬 4:25; 롬 6:4-5,10-11; 롬 7:4,6; 엡 2:6; 시 21:4).

4) 모든 성화의 영향력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내주하심으로 이루어진다. 다만 성령은 먼저 그리스도 위에 거하시며 그분의 것을 취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실 때에만 성화 사역을 한다(롬 15:16; 갈 5:25-26; 사 11:2; 요 1:32; 요 3:34; 고전 12:13; 롬 8:2,9-10; 요 16:13-14; 갈 4:5-6).

### III. 인격의 의롭다 하심과 본성의 갱신

6) 우리의 인격에 대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과 본성의 갱신이 거룩함 연구의 시작과 전 과정을 반드시 선행하므로, 우리는 복음에서 제시된 그리스도의 모든 직분을 받아들여야 한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그의 충만함은 죄 많고 궁핍하며 비참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 제시되고 제공된다(사 9:6; 행 3:26; 행 13:26,34; 롬 16:26-27; 엡 3:8). 이것이 바로 성령과 의의 직분이라 불린다(고후 3:6,8; 롬 10:6-8; 갈 3:2-5). 그리고 믿음으로 단순히 복음의 진리에 동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 받아들인다(요 1:12; 요일 5:11-13; 고후 1:20; 뱀전 1:21; 요 14:1).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며(갈 2:20; 엡 3:17; 요일 5:11-13; 요 6:56; 롬 8:1),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의 살을 먹으며 그의 피를 마신다(골 2:6-7; 갈 3:14,26-27; 행 26:18; 요 6:54-57; 요 7:37-39). 또한 하나님의 자유 선물로 충만한 구원을 받는다(엡 2:8-9; 롬 3:24-25; 행 10:38,43; 롬 11:6).

그리고 그리스도를 받는 믿음은 거룩한 행위의 기초이자 원천, 혹은 뿌리로서 그를 세우는 데 특별한 적합성을 지닌다. — 이 믿음은 세상을 죄의 빌미로서, 우리 영혼에 대한 거짓된 분배물로서, 또는 새 언약 이외의 어떤 유용한 통로로서 제거한다. — 그리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한다(요일 5:4; 갈 6:14; 빌 3:7-9; 호 14:3; 대상 20:12; 시 73:25-26, 28; 시 143:9; 시 57:1; 사 26:34; 사 50:10; 시 25:1; 시 37:5; 시 55:22). 그리고 그에게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준비물을 공급받아(롬 6:2, 4, 6; 갈 5:22-23; 시 31:14; 시 65:3-4; 사 45:24-25; 빌 4:13) 우리의 영혼이 모든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도록 촉구한다(골 1:11-12; 요일 5:12; 요일 2:6; 요일 4:19; 요일 3:1,3; 고후 5:14-15; 갈 2:20).

그러나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 1. 그리스도 없이 진정한 거룩함 불가

1. 거룩에 필요한 모든 준비물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전달되고 생성된다(고전 1:30; 엡 2:10; 엡 3:17-19).
  2. 우리의 육체 또는 자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롬 8:8; 요 3:6; 엡 2:1-3), 죄와 죄책, 그로 인한 저주 아래에 있으며(엡 2:3; 롬 8:1,7), 사탄에게 눈멀고 종노릇하는 상태이다(고후 4:3-4; 딤후 2:26).
  3. 거룩을 배우고 실행하려면 우리의 전체 인격과 본성이 변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새롭게 되고 거듭나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되어야 한다(엡 4:21-24; 엡 2:10; 롬 13:14; 골 3:10-11; 골 2:10-12; 고후 5:17-21; 갈 6:15).
- 그리스도는 우리의 자연 상태를 바로잡기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며, 옛 사람을 고치려 하시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멸하셨다(갈 3:13; 갈 4:4-5; 롬 6:2, 6, 10-11, 14; 롬 7:4, 6; 갈 5:24).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저주받은 중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원과 해방을 얻는다(고후 13:5).

4.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되어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깨어나 새 사람으로 거듭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됨을 목적한다(골 1:28; 고후 3:6; 고후 10:4-5; 요 5:25; 살전 1:5-6). 마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가 죽음이나 병의 상태에 있는 이들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과 같다(막 5:41; 요 11:43-44; 마 9:6; 막 3:5).

## II. 율법적 행위와 거룩함

1. 구원을 얻기 위한 권리의 기초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의 기초로서 성실한 순종을 행하려는 모든 시도는 가장 율법적이며 악하다.
2. 이것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 명백히 정죄받는다(롬 9:31-32; 갈 5:2,4; 갈 2:21; 눅 18:11-13).
3.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은 우리 자신의 행위에 의해 얻으려는 모든 시도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갈 3:12; 갈 5:2,4; 갈 2:16,19; 롬 4:4-5; 롬 10:3-8; 롬 11:6).
4.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더러운 누더기와 같음을 아시기에 복음이 그의 법을 모독하는 데 쓰이길 원하지 않고, 오히려 완전하고 초월적으로 영광스러운 성취에 의해 세우고 높이기를 원하셨다(갈 4:4-5; 갈 3:10-14; 마 3:15; 마 5:17-19; 롬 3:21-27,31; 롬 4:5; 롬 8:3-4; 롬 10:4; 사 42:21; 고후 5:21; 벰후 1:1).
5. 좋은 행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추천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권리 획득 시도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직무를 집행하심에 반하며,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이전에 일부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롬 10:3; 갈 5:2,4; 갈 2:21; 마 9:13; 마 18:11).

## III. 율법과 죄의 관계, 그리고 거룩함

1. 하나님의 은총 앞에 우리 자신을 내세우거나 구원 권리를 얻기 위해 거룩한 의무를 수행하려는 모든 시도는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더 악하게 만들 뿐이며, 결코 거룩함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2. 율법은 언약으로서 타락 이후 사람들에게 준 적이 없으며, 그들에게 순종하도록 하기보다는 죄를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롬 5:20; 갈 3:24).
3. 율법은 깨진 언약으로서 사람들에게 생명도 순종 능력도 부여하지 않으며, 오히려 죄를 자극하고 강화하는 죽음의 사역이다(겔 18:4; 고후 3:6-14; 롬 10:5; 롬 7:5,7-13; 고전 15:56).
4. 따라서 율법을 이런 의미로 순종하려는 모든 시도는 저주를 공고히 하여 우리의 지식과 누리는 은혜 및 거룩함의 모든 수단을 파괴한다(갈 3:10; 롬 9:31-32; 롬 11:8,10).
5. 이런 시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경멸케 하고 무익하고 죄된 것으로 만들며, 그의 모든 구원적 영향력을 우리에게서 배제하고 새 언약 약속을 무효화하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원한의 작용일 뿐이다(롬 10:3; 갈 2:21; 갈 5:2,4; 롬 9:30-32; 마 9:13; 눅 19:10; 롬 4:14; 롬 8:7).

## VI. 그리스도와 의 연합을 통한 거룩의 학문

1. 참된 거룩의 학문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는 본성과 행위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고, 죄 많은 비참한 인간으로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된 하나님의 지혜와 의, 거룩함과 구속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
2.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으며, 율법은 죄의 세력이자 복음의 거룩함 학습을 위한 모든 전제 조건들을 배제한다(롬 7:4; 고전 15:56; 갈 3:10).
3.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순종을 조건으로 믿음을 요구하지 않고, 최악의 사람까지도 특별히 부르심을 받아 있는 그대로 직접 그에게 이르러 필요한 지혜와 의, 거룩함과 구속을 받으라고 초청한다(잠 23:26; 잠 1:20-23; 잠 8:4; 잠 9:4-6; 사 1:18; 사 46:12; 사 55:1-7; 렘 3:1,4,13-14,22; 마 11:28; 마 9:13; 고후 5:19-20; 딤후 1:15; 계 22:17; 계 3:17).
4.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는 자격 근거나 근거로서 요구되지 않는데, 이는 회개가 그분을 통한 하나님께로의 전환이기 때문이다(호 14:1; 사 44:22).
5. 하나님의 법에 대한 자발적 복종도 요구되지 않는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의 결과이기 때문이다(시 116:16; 눅 1:74-75).
6. 죄에 대한 겸손도 요구되지 않고,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적용하심의 열매이다(겔 36:25, 31; 빌 3:7-9).

7. 마음의 청결도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행 15:9).
8.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심에서 온다(요일 4:19; 딤후 1:5).
9. 하나님에 대한 자식 된 두려움도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우리가 왕국을 받은 결과이다(히 12:28).
10. 기도도 선한 행위로서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롬 10:14; 히 13:10,15).
11. 우리가 받은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하는 것도 요구되지 않으며, 이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의 열매이다(엡 4:30-32).
12. 이 모든 것들은 본질적 순서에 따라 첫 습관과 행위인 믿음에서 비롯된다(요 6:29; 갈 5:6; 롬 14:23).
13. 중생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그분을 받는 우리의 근거나 권리는 아니다(엡 2:10; 고전 4:15).
14.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이전에 어떤 진정한 거룩이나 덕을 이룰 수 있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그를 믿을 권리와 접근을 배제하며, 그가 찾고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리고 부르시는 잃어버린 죄인들 가운데 우리가 없음을 입증할 것이다(눅 19:10; 마 18:11; 마 9:12-13; 딤후 1:15; 사 55:7).

## VII. 복음의 거룩함과 신실한 믿음

1. 복음의 거룩함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해야 하며, 이는 우리 구원의 필수적이고 주요한 부분이며,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의 피로 말미암은 의롭다 하심, 그리고 그의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 누리게 된다. 간절히 구해야 할 대상이며, 중요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이며, 우리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있게 될 준비이자 보증이다(고전 1:30; 요 13:8; 롬 8:1-4; 히 12:14; 벧후 3:11,14,18; 벧후 1:3-10; 딤후 2:11-14; 계 22:14).
2.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작용하며 거룩함의 진보를 갈망한다(갈 5:6; 시 143:10; 시 51:10; 시 119:5,11; 렘 31:18; 롬 7:14-24). 또한 이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간절히 구해야 한다(마 1:21; 딤후 3:5; 엡 2:10; 갈 5:10,14; 롬 7:4,6; 롬 11:26). 복음은 우리의 영적 연합, 의로움,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수반적 결과로서 정당한 순서에 따라 구해져야 한다(요 15:4-5; 히 9:14; 갈 5:18,25).



## VIII. 복음의 위로와 율법 순종

1. 처음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우리는 율법을 삶의 규범으로 순종하게 할 복음의 위로를 늘 받아야 한다.
2. 거룩을 행하기 위한 네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영적 평화와 기쁨, 소망은 좋은 행위의 효과적인 원천인 반면, 노예 같은 두려움과 억압된 슬픔은 방해한다(시 4:7-8; 살전 5:23; 느 8:10; 요일 3:3; 요일 4:18; 시 116:16; 시 119:32,166; 암 3:3; 눅 1:75).
4. 성령은 위로함으로 사람들을 모든 좋은 말씀과 행위에 굳게 세운다(살후 2:16-17; 롬 5:17-21; 롬 6:1-2,10-12,14; 롬 7:4,6; 롬 8:1-2,9,11,13; 엡 4:30-32; 엡 5-6; 고후 5:14-21; 고후 6:1,18; 고후 7:1,11; 골 3:1-4; 히 13:5). 심한 고난과 두려움에 처한 자들은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특별히 이러한 위로가 필요하다(눅 10:5; 행 2:37-39; 행 3:26; 행 5:31; 행 13:26,34,38-39; 행 16:30-31).
5. 이러한 지속적인 위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온전히 헌신하지도 못하며, 모든 근심을 그분께 맡기거나 자기 부인을 하거나 고문과 죽음도 감내할 수 없다(마 16:24; 마 19:29).
6.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위로를 통해 종들을 적절히 준비시키는 방식을 사용하셨다. 예로서 아담(창 2), 다윗(시 116:16; 시 119:32-166), 히브리 백성(호 11:4), 안디옥교회(행 13:47-48), 데살로니가 교회(살전 1:4-6),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도(시 16:8-9; 사 13:1-7; 사 49:1-2; 마 3:16-17; 마 17:1-5)가 그러하였다.
7. 어떤 다른 형태나 방식, 순서로 거룩을 실천하려는 모든 시도는 무감각하고 부담스러우며 성경적이지 않다(말 1:13; 말 3:14; 사 58:3; 암 8:5; 눅 2:10-11; 요 14:16-17; 요 15:11; 사 64:5; 잠 3:13-18).

## IX. 확신 속에서의 복음 수용

1. 참된 거룩함을 배우기 위해 우리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복음의 선언과 약속에 담긴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특별히 제공하고 주시는 그분을 받아야 한다(롬 9:25-26; 요일 5:11-13; 고전 1:30).
2.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구원을 소유하고 있다는 감각적 확신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실질적이며 진심 어린 확신 없이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우리 본성과 삶을 정결하게 하는 데에서 그를 발전시킬 수 없다(갈 2:20; 갈 5:6,24-25). 동일하게, 영적 의심이나 두려움은 하나님 복음에 대한 확신 있는 믿음의 실제적 실천을 게을리할 때 해소될 수 없다.

3. 하나님이 복음에서 하신 선언과 약속, 제안을 가장 굳게 믿은 성도들이 거룩함에서 가장 뛰어났다. 예컨대 욥(욥 13:15; 욥 1:1,21-22; 욥 2:3), 아브라함, 이삭, 야곱(히 11:8-21), 모세(히 3:2, 5; 히 11:24-29), 다윗(시 18:1-3, 23; 행 13:22, 36), 사도들과 초기 기독교인들(롬 8:15, 38-39; 갈 4:6; 살전 1:5-6; 히 10:32-34)이 그러하였다.

## X. 신실한 믿음의 실행과 성장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서 위로와 은혜를 누리며 그 위로로 복음의 거룩함을 배우는 일이 시작되고 계속되며 점점 더 성장하도록, 우리는 이 신실한 믿음을 올바른 방식으로, 부지런히 그리고 간절하게 행하며 점점 더 풍성히 해야 한다.

### 1. 신실한 믿음의 실행

1. 우리는 이 신실한 믿음을 큰 부지런함과 간절함으로 실행해야 한다.
2. 복음의 목적은 그런 부지런함을 격려하는 데 있다(롬 1:5; 딤후 3:15; 롬 10:4; 롬 15:4; 요 20:31).
3. 불신앙의 게으른 실행이나 방임조차도 가장 범죄적이고 위험하다(히 10:29,31; 요 3:18,36; 살후 1:7-9).
4. 참된 믿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의 부지런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히 4:11; 히 6:11-12; 엡 1:17-19; 엡 3:16-19).
5. 우리가 스스로 진정 믿을 수 없지만, 믿으려 노력하는 것이 필수적 의무이며,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도록 자극하신다(빌 2:12-13; 롬 10:17). 성령께서 언제 그 일을 역사하실지 알지 못하므로, 우리는 항상 의무로서 믿으려 시도해야 한다(요 3:8; 대상 22:16; 시 110:3).
- 6.

선택된 자 외에는 누구도 복음을 참으로 믿지 않으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적용하여 믿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선택되었음을 아는 자는 오직 그들이 자신들의 본성과 삶의 성화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만 알 수 있다(요 3:6; 요 6:37,40; 시 106:4-5; 시 110:3).

## II. 복음의 선언과 약속을 믿음

II. 우리는 복음의 선언과 약속을 지체 없이 부지런히 믿어야 한다. 불신과 불경건의 상태를 단 한 순간이라도 지속하는 것은 극히 악하고 위험하기 때문이다(잠 27:1; 히 3:7-8,12,15; 히 6:18; 고후 6:2; 시 119:59-60; 시 18:44).

## III. 확신 있는 믿음의 올바른 행위

III. 우리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을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 그것은 거짓 없고 생명력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딤후 1:5; 약 2:14,19,26). 또한 완전해야 하며, 하나님의 오류 없는 증거에 근거한 확신을 포함해야 한다. 즉, 우리가 온전히 죄인이고, 더럽고, 비참하며,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자라는 확신(롬 3:19-20; 갈 2:16; 요 16:9-11),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이 우리에게 무한히 탁월하고 충분하며 적합하다는 믿음(요 1:14; 요 3:16; 요 6:33-34,68-69; 빌 3:8-9; 요일 1:7,9; 히 7:25; 시 89:19-20; 딤후 1:15; 고전 6:9-11; 사 28:16; 마 9:13; 마 12:31; 뱀전 2:4,7), 그리고 하나님의 자유롭고 온전한 약속과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제안이 우리의 상황에 무한히 적합하다는 믿음(행 4:12; 요 14:6; 요 10:7,9; 롬 2:13,22-23; 롬 3:23; 롬 16:19)—(롬 9:30-32; 눅 19:10; 딤후 1:15; 고후 6:2; 롬 4:5,25)—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여 그분의 약속을 믿으라 요구하신다는 믿음(요일 3:23; 막 10:49; 마 23:37; 계 22:17; 사 55:1-7; 겔 33:11)—과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물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며(사 55:1-3,7),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께서 그들의 새 언약적 성품과 약속에 따라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딤후 1:12; 히 10:22; 히 6:18-19; 히 10:35; 롬 9:33; 사 28:16)을 포함한다.

IV. 우리는 이 확신 있는 믿음을 지속할 뿐 아니라 더욱더 부지런히 행해야 한다(골 1:23; 골 2:6-7; 히 3:6,14; 히 10:35; 빌 3:12-14). 이는 영적 적들에 대한 더 큰 승리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영향력으로 거룩함의 성장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출 17:11; 뱀전 1:5; 엡 6:10-20; 속 10:12; 속 12:10; 요일 2:1-2; 눅 22:32; 골 2:6-7,19; 엡 3:16; 요 1:16).

## XI.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에 따른 믿음의 행위

XI. 우리는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상태에 적합한 방식으로만 이 확신 있는 믿음을 행하여 그에 따라 거룩함을 증진시켜야 하며, 결코 율법적이거나 자연 상태에 따라 행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거룩함은 믿음으로 걷고 싸우며 사는 것이기 때문이다(고후 5:7; 갈 5:6; 요일 5:4; 엡 6:16; 고후 10:3; 합 2:4; 갈 2:20).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것이며(골 2:6-7; 벧전 3:16; 빌 3:10-14), 은혜 가운데 걷는 것이며(딤후 2:1; 고후 1:12; 고전 15:10; 히 12:28),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이며(롬 8:1,4; 갈 5:18,24-25),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엡 4:21-24; 골 3:9-10).

### 거룩한 행위에 관한 권고

따라서 우리는,

1. 언제나 우리 본성과 행위에 남아 있는 부패함을 깊이 인식하며 살아야 한다(막 9:24; 엡 4:13; 고전 3:1; 빌 3:8-14; 갈 5:5; 롬 8:9,13; 롬 7:14-25).
2.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노력들을 돕는다는 신뢰에 결코 만족하지 말아야 하며, 온전히 자신의 힘과 최선의 노력에 대한 불신에 근거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여 그분이 그의 영광과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도록 해야 한다(사 26:12; 사 40:11; 사 46:3-4; 사 63:9; 시 57:2; 롬 8:26,37; 갈 2:20; 갈 5:24-25; 살전 5:23-24; 살후 2:16-17).
3. 결코 하나님의 심판적 용서, 은혜, 혹은 영생의 자격을 얻기 위해 어떤 의무도 행해서는 안 되며, 이미 용서받고 받아들여져 영생의 자격을 얻었으며 그분의 영광과 복음의 위로를 소유한 자로서 의무를 행해야 한다(롬 7:4; 롬 6:14; 갈 5:18; 갈 3:2-3; 갈 4:6; 골 2:10,19; 엡 4:16).
4.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나 우리에게 대한 권세, 천국의 행복, 지옥의 고통에 관한 어떤 고려도 어떤 특정한 의무를 바로 적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우리 영혼에 적용해야 한다(속 10:12; 딤후 2:1; 엡 6:10; 시 57:2; 딤후 2:14; 딤후 3:8,14; 히 12:28; 겔 26:27).

5.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누릴 굳건한 희망이 모든 거룩한 행위를 자극하고 힘을 북돋아야 한다(시 16:8-11; 시 17:15; 시 73:24-28; 롬 6:4,6,11-12; 롬 8:17-18; 고후 4:16-18; 요일 3:1-3).

6. 새 언약의 유익 중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죄에 대한 싸움, 거룩한 의무에 대한 부지런함,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신뢰, 환난 속의 인내,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 등은 특별히 그 목적을 위해 더욱 값지게 활용되어야 한다(요일 4:18-19; 요일 1:3; 고전 6:11,15,19; 갈 5:25; 엡 2:10; 살전 5:14-24; 롬 5-6; 골 3:1-5; 빌 3:12-14; 빌 1:23-24; 히 10:19-25; 뱌전 5:7; 시 55:22; 시 84:11-12; 고후 4:16-18; 고후 12:8-10; 고전 10:13; 고전 6:19-20; 요일 1:7,9; 딤훂 2:11-14; 히 12:28).

## XII. 새 언약에 따른 복음적 예식의 참여

XII. 우리는 새 언약 상태에 상응하여 우리의 상태에 맞는 모든 복음적 예식을 부지런히 참석하고 유익을 얻어야 하며, 그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안에서 교제를 누리며 우리 본성과 삶의 성화를 위하여 교제해야 한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 자기 성찰, 묵상, 기도, 찬송, 성례전 참여, 금식, 서원, 교회 교제, 신앙적 교제를 포함한다(요 5:39; 행 17:11; 사 55:3; 고후 13:5; 습 2:1; 시 1:2; 시 105:5; 시 119:11,97; 요 16:23-24; 마 6:1-13; 골 3:16; 엡 5:19; 마 28:19; 고전 10:16-17; 고전 11:23-29; 마 9:15; 마 6:14-17; 시 76:11; 시 119:106; 히 10:25; 시 87:1-2; 말 3:16; 눅 24:23; 아가 5-6).

## XIII. 복음적 거룩함 연구에 대한 숙고

XIII. 그러한 진지하고 복음적인 거룩함 연구를 자극하기 위해 우리는 이 방법의 특별한 탁월함과 장점을 신중히 숙고하고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1. 이 방법은 하나님의 모든 완전함과 그리스도의 모든 직무와 관계를 높인다(뱌전 4:11; 골 3:3-4,11; 골 2:10,19; 히 13:7-8).

2. 이 방법은 원죄, 특정 선택과 구속, 그리스도와 의 연합, 그분의 보혈로 인한 의롭다 하심, 양자됨, 성도의 오류 없는 인내와 같은 모든 성경적 교리와 완전히 부합한다.

3. 이 방법만이 마음과 삶의 참된 거룩함을 낳으며(사 50:10-11), 가장 즐겁고 존귀하며 쉽고 명확하고 평화롭고 사랑이 넘치며 유쾌하고 값비싸지만 자유롭고 매우 높임 받은 길이다. 우리는 이 길에서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 상태를 이루고 하나님과 호의를 누리며, 그분과 친밀하게 친구와 자녀와 신부로서 영원한 완전과 영광을 향해 걷는다(렘 6:16; 잠 3:17; 사 35:8-11).

## 성찰

나는 과연 이처럼 내 마음의 영으로 새로워졌는가? 평화의 신실하신 하나님에 의해 내 영혼과 몸과 영이 온전히 성화되었는가? 약속된 은혜, 그리스도의 기질, 육체에 대한 영적 갈망, 성령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룩하고 덕 있는 행위들이 내 안에 있는가? 복음적 규칙들이 내 마음에 새겨져 내 삶에서 실천되어 내가 하나님께 죄짓지 않도록 하고 있는가? 거룩함의 교리와 의무를 연구하고 설교할 때 신적 지시와 영향력, 뚜렷한 경험의 필요성이 이보다 크고, 또한 많은 설교자들이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심각하게 잘못 인도한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 제 5 장 영적 위로에 대하여 —성도의 무오류한 보존과 인내를 포함하며; 전능한 위로자로서 성령의 내주; 하나님의 사랑과 우정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안; 그리고 성령 안의 기쁨

I. 하나님의 성도들을 은혜의 상태와 행위 가운데 불변으로 지키심과 그로부터 나오는 인내는 형식상 그들의 영적 위로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그 영적 위로의 직접적이고 주된 근거이다. —내주하는 부패와 그 보조 세력들의 권능과 교활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스스로 내버려 두신다면 그들은 곧 은혜의 모든 소유와 실천을 상실하게 되고, 실제로 그들은 두려운 정도와 행위의 죄에 빠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므로,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와의 연합 상태나 그를 통해 얻은 의롭다 하심과 양자의 지위를 조금도 상실하지 않는다. 또한 결코 영적 생명이나 구원의 은혜의 소유와 실천에서 완전하거나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1. 성경은 그들이 견고하게 세워졌으며, 영원한 기초 위에 서 있고, 시온 산처럼 움직이지 않으며, 바위 위에 지은 집이나 바위에 비유되고, 하나님의 보배로서 잃지 않으며, 마르지 않는 샘이나 시들지 않는 나무처럼 묘사한다(잠 10:25; 시 125:1-2; 마 7:24-25; 마 16:18; 말 3:17; 사 58:11; 사 61:3; 렘 17:8; 시 37:24; 요일 2:17,19; 요일 3:9).

2. 하나님의 무오류한 약속들이 그들의 은혜의 상태와 행위 가운데 보존과 인내를 확보한다(신 31:8; 히 13:5; 사 45:17; 사 46:4; 사 54:8-10; 사 59:21; 렘 32:39-40; 호 2:19-20; 요 10:27-29; 시 37:24,28,33,37; 시 92:13-14; 시 94:14).

3. 많은 성경 구절이 그래서 그들이 은혜의 상태와 행위 가운데 완전히 보존되고 인내함을 명확히 증언한다(욥 17:9; 잠 4:18; 시 84:7; 빌 1:6; 살전 5:23-24; 살후 3:3; 살후 2:16-17; 골 3:3-4; 요 6:35,39-40; 요 17:9,12,24; 롬 8:28-39; 롬 11:2,29; 고전 1:8-9; 고전 10:13; 요일 2:19; 히 10:38-39).

4. 믿는 자들이 은혜의 상태와 행위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성과 전혀 양립할 수 없다. 변함없는 하나님이 어찌 한 번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 자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렘 21:3; 요 13:1) 무한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서 죄에 대한 완전한 속죄를 요구하시고도 그들을 영원히 지옥에 벌하실 수 있겠는가?(욥 33:24; 딤후 2:14; 롬 3:24-26; 갈 3:13-14; 벰전 1:18-19; 벰전 2:24; 벰전 3:18) 무한히 지혜롭고 능력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시작하시고도 그것을 완수할 능력과 의지가 없을 수 있겠는가?(눅 14:28-30; 빌 1:6; 살후 1:11-12; 벰전 1:5) 무한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과 맹세로 자신을 구속하셨으나 수행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을 수 있겠는가?(민 23:19; 딤후 1:2; 삼상 15:29; 살전 5:24; 고전 1:9; 히 10:23; 히 6:14-18; 신 33:27-29).

5. 믿는 자들이 은혜의 상태나 행위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중재자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고 그분 안에서 믿는 자들을 향한 불변의 목적과 새 언약적 사랑과 전면적으로 상충된다(사 46:10; 사 14:24,27; 시 33:11; 잠 19:21; 딤후 1:10; 살전 5:8-9; 히 6:17-18; 롬 8:28-30; 롬 9:11; 롬 11:29; 사 53:10-12; 시 22:27-31; 시 89:4,28-35).

6. 믿는 자들이 은혜의 상태와 행위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삼위일체 모든 위격의 존엄과 새 언약적 성품과 전면적으로 상반된다.

그들을 택자로서 아버지의 영광과 일치하지 않으며, 종보자의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상으로 그리스도께 주신 분으로서도 그러하다(롬 8:29; 요 17:6; 시 2:8; 사 53:10-12; 고전 6:19-20; 뱀전 1:18-19; 롬 5:9-10; 롬 8:32; 계 5:9). 또한 그들의 변함없는 친구로서(사 54:8-10; 렘 32:40; 습 3:17), 그들의 전능한 보존자이자 보호자로서(요 10:29; 뱀전 1:5; 골 3:3; 시 91; 신 33:26-29)도 일치하지 않는다. 자기 피로 그들을 속량하고 사신 아들의 영광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딤후 2:14; 뱀전 1:19; 롬 5:9-10; 계 5:9; 마 20:28; 고전 6:19-20; 딤후 2:6; 살전 5:9-10). 그분은 그들의 변호자로서 항상 중보하시며(요일 2:1-2; 요 17:11,15,20,24; 시 2:8; 시 21:4; 요 11:42; 히 7:25), 자신을 위해 교회나 성전으로 함께 세우시고(히 3:3,6; 마 16:18), 그들 안에 생명과 영광의 소망으로 계시며(갈 2:20; 요 14:19; 계 1:18; 골 3:3-4; 골 1:27), 그들의 머리, 남편, 왕, 목자 등 되신다(골 1:18; 골 2:19; 엡 4:16; 사 54:5; 사 62:4-5; 호 2:19-20; 고후 11:2; 사 33:22; 시 2:6; 시 23:1; 요 10; 뱀전 2:25; 뱀전 5:4; 히 13:20; 사 40:11; 겔 37:24-28) — 그분께서 그들이 멸망하거나 파멸당하도록 허락하실 수 없다. 또한, 성령님이 위로자로서 그들 안에 거하시며(요 14:16-17; 롬 11:29; 요일 2:27), 생명력 넘치는 영원한 활력의 샘으로(요 4:14; 롬 8:2,10; 요 14:19), 선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일꾼으로(엡 5:9; 엡 1:17-19; 엡 2:21-22), 기름부음과 확증으로(요일 2:20,27; 고후 1:21-22), 그리고 그들을 영원한 행복으로 확증하는 인치심으로서(엡 1:13; 엡 4:30; 고후 1:22; 고후 5:5) 거룩하신 분의 영광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 7. 신자의 불패성 논증

신자가 은혜의 상태나 행사에서 전적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하는 것은 그들 심겨진 은혜의 본성에 일치하지 않는다. 그 심겨진 은혜들은 부패하지 않는 씨앗이기 때문이다(뱀전 1:23) — 그들은 그들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앗이다(요일 3:9). 그들의 믿음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갈 5:24), 세상을 이기며(요일 5:4), 실패하지 않는다(눅 22:32; 고전 13:13). 그들의 소망은 부끄럽게 하지 않으며(롬 5:5; 롬 8:24; 히 6:18-19), 그들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전 13:8,13). 그러나 그 은혜들의 불패성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와 그 성령과의 연합에서 비롯된다.

## 반론 I



“많은 성경 구절이 신자들이 은혜의 상태와 행사에서 전적으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명백히 전제하며, 이에 깨어 경계할 것을 경고하거나 인내에 대한 큰 상급을 약속한다(시 125:3; 겔 18:24,26; 겔 33:12-19; 마 5:13; 마 24:13; 롬 14:15; 고전 8:11; 고전 9:27; 고전 10:12; 고후 6:1; 고후 11:3; 히 12:12-13,16; 히 10:38; 유 12,21; 계 2:7,11,17,26; 계 3:5,12,21; 갈 6:9; 벧후 1:4-11).”

1. 의인의 타락 가능성을 단순히 전제하는 것은 그들이 실제로 타락할 수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며, 이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서약의 히브리어 형식에서도 명백하다(시 89:35; 암 8:7).
2. 외형상 거룩한 자들은 흔히 그 거룩함의 모든 외양을 잃고 타락하기도 한다(마 13:21-22; 왕하 12).
3. 신자들은 은혜의 성향과 행위 중 상당 부분을 잃고 심각한 죄와 징벌에 빠질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전적으로 은혜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
4. 자기 자신을 살피고 시험에 대비하며 깨어 있음은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의 성향과 행사에서 보존하시는 복된 수단이다(엡 6:10-19; 벧전 5:8; 막 14:38; 고전 16:13).

## 반론 II

“다윗, 솔로몬, 베드로, 알렉산더, 히메나오, 데마 등 여러 존귀한 성도들도 실제로 은혜의 상태와 행사에서 타락하였다(삼하 11; 왕상 11; 마 26:69-74; 딤후 1:19-20; 딤후 2:17-18; 딤후 4:10; 히 6:4-5; 히 10:26-30,38; 벧후 2:20-22).”

1. 다윗의 타락은 전적인 타락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남아 있었으며(시 51:11),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자비가 그에게서 떠나지 않았다(삼하 12:24). 또한 그의 전도서는 회개를 명확히 보여 준다(전 2:10-11,17; 전 5:10,12; 전 7:2-3,26-27). 베드로 또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눅 22:32).
2. 알렉산더, 히메나오, 데마 등이 유다(요 6:70; 마 7:22-23)보다 실제 은혜를 가졌다는 증거는 없다.

### 반론 III

“신자의 불패 인내에 대한 주장은 그들이 죄를 짓게 만들며, 특히 노아, 아브라함, 야곱, 아론, 다윗, 솔로몬, 삼손, 베드로 등 여러 성도의 경우가 그렇다.”

1. 성도의 죄된 타락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경고를 위해서이며,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살피고 시험에 대비해 저항하라는 뜻이다.

2. 스스로 성도라 여기는 자들은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방종으로 변질시키지만, 참으로 거듭난 마음은 받은 은혜를 거룩함에 대한 강력한 동기로 반드시 사용한다(빌 2:13; 롬 6:1-2,12; 고후 6:16,18; 고후 7:1; 뱀전 1:3,5,13,15; 요일 3:2-3; 시 119:32,166; 시 116:16; 눅 1:74-75; 히 12:28). 놀라운 일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굳게 믿는 이들이 거룩함으로 이끄심을 받는데, 그 사랑이 변함없고 영원히 지속됨을 믿는 것이 죄를 조장해야 하는가?(고후 5:14-15)

- 참된 믿음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니(행 15:9), 믿음의 확실한 연속성이 마음을 더럽힐 이유가 있는가?

- 복음적 영원한 행복의 소망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하게 하는데(요일 3:3), 그 소망의 확고한 지속성이 그들을 악마보다 못한 자로 만드는가?

-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 성령을 닳고 성령에 의해 형성된 새 본성(요 3:5-6)이 그 은혜의 풍성한 드러내심과 적용에 의해 하나님께 대한 심한 반향으로 나아간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 자연적인 일에서도, 어머니가 자녀를 붙들고 도우며 걷도록 가르쳐서 넘어지고 목을 부러뜨리도록 격려하는가? 다리 난간이나 건물 성벽이 그 위를 지나는 자들이 뛰어내려 익사하거나 몸을 부수도록 부추기겠는가?

### 반론 IV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함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원한 호의와 행복을 확신시키는 일은 허락할 수 없는데, 이는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약화하고 무효화하기 때문이다.”

1. 하나님 자신이 반복하여 반대의 입장을 선언하셨다(시 89:28-35; 사 54:8-10; 사 57:17-18; 히 12:5-11,28; 롬 8:28-39; 롬 5:21; 롬 6:1; 고후 6:18; 고후 7:1).

2.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확실한 의가 하나님과의 영원한 우정과 그분을 온전히 누리는 행복의 새 언약 기초이다(요일 1:7,9; 요일 2:1-2; 계 5:9-10; 롬 5:10,16-21; 히 9:14; 히 10:14).

## II. 전능한 위로자로서 성령의 내주

성령은 단지 영향력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신자의 마음에 거하신다(겔 36:27; 갈 4:6; 롬 8:9; 요 14:17; 고전 3:16-17; 고전 6:19; 딤후 1:14). 무한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기에, 동시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본질로 거하실 수 있으며, 그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성령은 그리스도에게 본질로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한 신비한 몸의 지체들이다.

— 위로자로서,

1.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 곧 그리스도의 탁월함, 적합성, 격려하는 성품과 복을 말씀으로 친절히 설명하시고 드러내어 신자들이 기쁨으로 복음의 신비를 분별하고 묵상하게 하신다(요 14:26; 요 15:26; 요 16:13-14; 마 13:11; 고전 2:10,12,15; 시 19:7-10; 시 119:72,103,126,162; 렘 15:16; 아 5:10-16).

2. 그들을 구속의 날까지 인치시어, 신성한 빛과 정결, 생명, 의, 평화, 기쁨을 부어 특유한 백성임을 표시하고, 자신을 위해 온전하게 보존하며 영원한 생명 약속 안에서 구원받은 권리를 확증한다(엡 1:13-14; 엡 4:30; 고후 1:21-22).

3. 그들의 영원한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서, 정해진 때에 그 유업을 확실히 받게 하며 즐거운 맛보기로 누리게 한다(엡 1:14; 고후 1:22; 고후 5:5; 롬 8:23). 여기에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고, 그들의 죄 사함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셨고 앞으로 행하실 일을 확증하며, 그리스도를 그들의 신랑과 숨은 만나로 하는 기쁨의 교제를 허락하심이 포함된다(롬 5:5; 아 2:3-5; 계 2:17).

4. 큰 위로가 되며, 믿음과 회개의 실행을 통해 사탄과 그들 안에 내주하는 부패를 그들 발 아래 밟게 하신다(롬 16:20; 롬 7:25; 롬 8:2,13; 미 7:19).

5. 그들 안에서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보다 친밀하고 분명하며 간절하게 하도록 격려하고 인도하며 능력을 부여한다(롬 8:15,26-27; 사 63:16; 사 64:8; 욥 34:36; 렘 3:4,19,22; 갈 4:6).

6. 그들의 영과 함께 증거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한다. 그 증거 가운데,

1)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됨을 더욱 선명하게 나타내도록 복음 약속을 새롭게 생생하고 활기차게 영혼에 적용하게 하는 능력을 준다(딤후 1:15; 렘 3:22; 시 31:14; 시 142:45; 애 3:24; 스 13:9).

2) 때로 이전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밝히고 그가 참되고 구원하는 분임을 보여 준다(요 15:26; 요 14:26; 겔 43:1-3).

3)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상태와 체험을 점검하게 하며 —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음, 마음의 정결, 심령의 가난, 그리스도와 그분의 형상을 가진 모든 사람과 사물을 사랑함 등 은혜의 적절한 표지를 가리키고(엡 4:24; 엡 5:1-2; 마 5:3,8,44-48; 사 64:6; 왕상 8:38; 요일 4:19-20; 요일 3:14; 시 84:1-2,10; 시 26:8), 은혜의 표지를 반영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게 하며(고전 2:12), 내면의 은혜를 복돋아 모든 부패의 잔재 가운데서도 분별 가능하게 하고(요일 3:14,22,24; 고후 1:12; 빌 3:3), 양심으로 성경에 확립된 은혜의 표지와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게 한다(롬 8:16; 요일 3:20-21).

4) 복음 약속의 일부를 새롭게 마음에 적용하여 자신들의 은혜가 실제임을 확증한다(출 20:2; 시 50:7; 시 81:10; 사 54:5-6; 렘 3:14,19,22; 렘 31:3; 호 14:1; 스 13:9; 말 3:17; 고후 6:18). 그의 선언에 따르는 위엄 있고 강력하며 자신을 낮추고 성화하며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영향들은 참된 신성의 증거이다(요 14:17; 요 10:4; 욥 42:5-6; 아 2:8-15; 아 8:6-7).

### III.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적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적 확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호의 안에 있으며, 약속과 새 언약적 성품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실제적이고 영원한 복락으로 인도하기 위해 모든 완전하신 속성을 발휘하실 것이라는 잘 근거된 확신이다. 이 감각적 확신은 믿음의 본질에 포함된 확신과 크게 다르다. 믿음에 기초한 확신의 근거는 전적으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밖에 있으나, 감각적 확신의 근거는 부분적으로 우리 안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우리 마음에 미치는 은혜로운 작용에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 특히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사실을 확신한다. 또한 이를 통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참으로 은혜롭고 구원하는 일임을 확증받으며, 하나님의 증언에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정성을 믿는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의 시작된 소유를 형성하셨다는 것이다.—이 감각적 확신은 실제로 성경에 나타난 은혜의 표징들의 올바름과 확실성에 대한 믿음을 포함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활동하게 하시는 전능한 영향력에 대한 우리의 감각적 인식과, 그의 영향이 우리 은혜의 성품과 행위에 나타난

명백한 결과에 근거한다(아가 2:3-5,8-15; 요한일서 3:14,22,24; 마태복음 5:3-10; 갈라디아서 5:22-23). 이러한 감각적 확신은 신자들이 이 생에서 얻을 수 있다.

1.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영혼에 행하시는 일이 이를 나타낸다. 성령께서는 그들의 양심에 증거하시며(요 15:26; 요 16:14; 롬 8:16),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마음에 법을 기록하신다(렘 31:33; 히 8:10; 고후 3:3). 성령께서는 그들을 속량의 날까지 인치시며(엡 1:13; 엡 4:30), 영생을 담보로 보장하시고(고후 1:22; 고후 5:5; 엡 1:14; 롬 8:23; 요 4:14), 그들을 위하여 연고와 같은 기름부음으로 준비시키신다(요일 2:20,27; 고후 5:5; 골 1:12; 살후 1:11).

2. 거룩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자아 점검을 많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각적 확신을 얻도록 꾸준히 새기시는 행위이다(벧후 2:5-8,10; 고후 13:5; 고전 11:28; 속 2:1).

3. 성경에는 우리 은혜 상태를 점검하고 알 수 있도록 많은 은혜의 표징들이 나타난다(마 5:3-10; 요일 1-5; 요일 1:4; 요일 5:13).

4. 많은 성도들이 실제로 이 확신을 얻었다. 욥, 야곱, 모세, 다윗, 아삽, 헤만,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하박국, 시므온, 마리아, 도마, 바울 등(욥 19:25-27; 창 48:3; 창 49:18; 출 15:1; 시 18:1-3; 시 31:14; 시 91:2; 시 73:23-26; 시 88:1; 사 63:16; 렘 31:3; 단 9:4,18-19; 단 10:11; 합 3:17-18; 합 1:12; 눅 2:25-28; 눅 1:47; 요 20:28; 갈 1:16; 갈 2:19-20; 고후 5:1; 빌 3:8-9; 행 27:23; 딤후 1:12; 딤후 4:7-8; 요 1:14; 요일 3:14; 사 61:10; 살전 1:4-6).

5. 신자들의 내적인 평안과 확신, 거룩한 자라는 그들이 이 확신을 가졌음을 나타낸다(요 16:22,33; 롬 5:1-2,11; 히 6:11; 엡 3:12; 벧전 1:8).

이 우리 상태의 행복과 은혜의 진리라는 감각적 확신을 얻으려면 다음이 필요하다.

1. 죄인인 우리에게 향한 복음의 선언에 대한 강건하고 반복적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한다(딤후 1:15; 사 7:9; 약 1:6-7).

2.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친교를 간절히 탐구해야 한다(요일 1:37; 아가 1:4).

3. 마음과 삶의 보편적이고 복음적인 거룩함을 부지런히 연구해야 한다(눅 1:6; 눅 6:27-36; 마 5:44-48; 요 15:14).

4. 우리 영과 함께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주의 깊게 간직해야 한다(엡 4:30; 살전 5:19).

5. 자신을 자주, 신중하며 공정하고 열심히 점검해야 한다(고전 11:28; 고후 13:5; 속 2:1). —이 과정에서 우리는 외형적인 종교 고백, 행동의 결점 없음, 성령의 일반적인 영향 체험 또는 구원 은혜 없이 있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은혜의 표징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마 7:21-23; 빌 3:6; 히 6:4-5; 사 58:2). 또한 강한 은혜의 징표를 은혜의 진리의 구별된 표징으로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롬 4:19-20; 합 3:17-18; 욥 13:15; 마 14:31). 우리의 마음의 간사함을 자각하며, 성령의 강력한 확증을 간절히 구해야 한다(시 139:23; 시 26:1-2; 시 17:3).

한편, 이러한 일들을 게을리하거나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엄한 징계를 경험하면 많은 참된 신자들이 이 확신을 얻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때로는 잠시 잃기도 한다(히 2:15; 시 73:2-15; 시 77:1-10; 시 88).

#### IV. 양심의 평안

양심의 평안은 하나님과 은총과 교제, 순종하는 상태에 있다는 우리의 감각적 또는 믿음의 인식에서 비롯된 내면의 쾌적하고 평온한 영혼의 상태이다(롬 5:9-10; 롬 14:17; 고후 5:19; 사 54:5,8-10; 사 57:18-19; 요 15:14-15; 요 14:27; 잠 3:17; 시 119:165; 고후 1:12; 히 12:28). 이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쁨으로 묵상하게 하며(시 139:17-18; 시 63:1-8; 시 16:5-8; 시 103; 시 145-146), 하나님과 담대하고 친밀하며 겸손하게

교제하게 한다(아가 2:14; 아가 8:13; 히 4:16; 히 10:19-22). 또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 대한 애정과 평화로운 태도를 낳는다(시 16:3; 시 119:63).

이 평안은 예수님의 보혈로 뿌려지고 우리의 온 존재가 거룩해짐으로써 얻어지며(사 54:8-10; 겔 37:26; 호 2:18-20), 그 근원이나 상태에서는 항상 동일하지만, 그 감각은 때때로 상당히 상실되거나 중단된다. 평안이 중단되는 기간에 사탄과 그의 도구들이 악한 손길로 우리의 영혼을 유혹하고 괴롭히며(마 24:24; 뱀전 5:8),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여 양심을 괴롭히는 죄를 범하거나, 종교적 의무를 형식적이고 게으르며 자만하여 행하는 죄악에 빠진다(시 51:1-14; 렘 2:17,19; 사 63:10; 신 32:15-27; 아가 5:3-5; 시 30:6-7).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시고(단 4:34-35), 우리의 죄성을 교정하시며(렘 2:17,19; 렘 6:19), 우리 은혜를 연단하시며(뱀전 1:6-7), 간절한 기도를 자극하시며(시 22:1-2; 시 84:2; 시 130:1), 그런 고난 중이나 후에 사랑을 나타내시며(사 57:16-19), 은총의 감각을 증진시키도록 가르치신다(롬 5:3) — 이 모든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기시고, 중간적이든 직접적이든 우리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이유이다(사 8:17; 사 45:15; 시 10:1; 시 13:1-4; 시 77:1-10; 시 80:4-5; 시 88; 욥 13:24; 고후 12:7).

이 평안은 예수님의 보혈을 반복하여 양심에 적용함으로써 회복하고(요일 1:7), 죄에 대해 진지하게 회개를 새롭게 하며(애 3:40; 렘 31:18-20), 하나님께서 사랑을 반복하여 나타내실 때(사 57:16-19; 요 16:22) 얻는다.

또한 이 평안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습관적으로 양심에 적용하고(요일 1:7; 히 10:22),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운 탁월함과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으로서, 은혜 언약의 근원과 내용과 적용을 매일 경건하게 묵상하며(시 104:34; 삼하 23:5; 요 14:21),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지속하고(사 64:4-5; 시 63:1-8; 시 65:4; 아가 1:4; 아가 2:3), 전체적인 거룩함을 성실히 연구하며 사랑하는 욕망을 경계하고(사 32:15,17; 사 64:5; 행 24:16; 히 12:1; 시 119:165; 시 18:23), 자녀 된 죄의 책임을 신속히 씻고 평안을 훼방하는 죄를 회개하며(시 51:6-14; 렘 3:22; 렘 31:18), 우리 자신과 사정을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에 온전히 맡김으로써 이룬다(빌 4:6-7; 뱀전 5:7; 시 55:22; 시 112:7).

## V. 성령 안에서의 기쁨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속에 거하며 그와 함께 행함으로써 생기는 영적 즐거움으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고 영향하실 때 생긴다.

이 기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시 18:1-3; 시 34:1-4; 시 103:1-5; 시 118:28; 합 3:17-18; 합 1:12; 요 20:28; 시 23; 시 27; 시 47; 시 91; 사 12).

2.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사 61:10; 시 71:14-24; 시 103; 시 136; 시 145; 롬 5:1-11; 고후 1:12).

3. 그분의 약속과 성품이 우리를 위하여 확보하는 것들(시 42:11; 시 43:5; 롬 8:28-39; 딤후 1:12; 딤후 4:8; 시 73:24-26).

이러한 기쁨은 보통 다음과 같은 때에 가장 충만하다.

1. 회심 후에 두드러진 슬픔이 있을 때(사 61:2-3; 사 57:16-19; 사 66:2; 요 20:20,28; 행 2:37,46).

2. 버림받음, 시험, 곤란의 어두운 밤 이후에(사 54:6-12; 사 57:16-19; 시 16:10-11; 시 13; 시 116; 시 40:1-5).

3. 많은 고난 중에, 특히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가운데서(행 5:41; 행 16:25; 뱀전 4:13-14).



4. 하나님께서 교회에 특별한 구원을 베푸실 때(출 15; 삿 5; 사 42:10-11; 사 65:17-19; 사 66:10; 렘 31:12-14; 계 7:9-12; 계 12:10; 계 11:15,17; 계 15:3; 계 14:1-4; 계 19:1-6).

5. 거의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삼상 2:1-10; 눅 1:45-77).

모든 영적 위로는 믿음에 근거한 확신과 참된 평안, 거짓된 기쁨과 달리, 크게 마음을 낮추며(창 18:30,32; 창 32:10; 고전 15:10), 보편적 거룩함을 즐겁고 적극적으로 연구하도록 촉진하며(시 116:16; 시 119:32,166), 죄를 점점 더 미워하게 하고(롬 7:14-24; 시 119:104,128; 고후 7:1,11; 창 39:9),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추구하게 하며(욥 23:3; 욥 29:2; 시 42:1-2; 시 63:1-8; 시 27:4; 시 84:2,10; 시 45:1; 고후 3:18; 요 16:22), 공정한 자기 점검에 이르게 한다(요 3:21; 시 26:1-2; 시 139:23-24; 시 17:3).

이 위로는 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베풀어진다.

1. 각자에게 적합한 사역을 수행할 자격을 주기 위해(느 8:10; 사 64:5).

2. 사역 중이거나 마친 후에 상을 주기 위해(시 19:11; 고전 15:58).

3.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그의 백성의 위로로 나타내기 위해(눅 2:25; 고후 2:14).

4. 하나님의 구속 은혜의 풍성함과 종들의 변영에서 그가 기뻐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엡 2:7; 시 35:27).

묵상하라.

내 영혼아, 너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이자 영원한 영광의 담보를 네 안에 가졌는가? 성령께서 너 안에 거하시고 지키시며 증거하시고 확신케 하시며 평온케 하시고 말할 수 없이 충만한 영광의 기쁨으로 채워 주셨는가?—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 확신이 근거 없는 공상인지, 내 내면의 평온이 단지 잠이거나 양심의 착각인지, 내 기쁨이 단지 평범하고 육체적이며 율법적이거나 거짓된 기쁨은 아닌지 주의하자.—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린 지 오래 되었지만, 그리스도인의 체험에 대해 너무 무지했음을!—오랫동안 학생이자 설교자였음에도 하나님의 이 깊고 위대하며 달콤한 일들을 잘 몰랐음을!—영원에 이처럼 가까이 있으면서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지를 거의 시험하지 못했음을!

## 영광화의 시작과 완성

영광화는 일반적으로 신자들의 시간과 영원에서의 모든 존귀함과 기쁨을 포함한다.

I. 이 생에서의 시작은 앞서 다룬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그리스도의 배우자이자 지체이며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안에서 친구, 총애자, 자녀, 왕,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우리의 높은 존귀함(고전 1:30; 고후 5:21; 엡 1:3-7; 요일 3:1; 계 1:6).

2.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계시와 지식(시 27:4; 시 68:24; 시 63:2; 히 11:1,27; 고후 3:18; 고후 4:18).

3. 마음과 삶의 거룩함에서 하나님께 합당하게 답아가는 우리의 존귀함(고후 3:18; 출 15:11; 뱀전 1:15-16; 마 5:48).

4.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그 교통 속에서의 교감(시 144:15; 시 33:12; 시 16:5-6; 시 34:8; 시 36:6-9; 시 65:4; 시 25:14; 시 84:11; 시 85:12).

5. 현재와 장래 행복에 관한 확실한 인식에서 비롯된 영적 위로(시 32:2; 시 103:1-5; 시 23; 시 104:34; 시 31:19; 히 6:17-18; 사 40:1-2; 사 51:7,12; 사 60:19-20).

II. 죽을 때, 신자들의 영혼은 완전한 존귀함과 행복을 누리기 시작한다.

1. 그들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된 덕분에 고통이 없으며(호 13:14; 사 25:8), 그는 유언으로 우리의 가장 귀중한 유산으로 그것을 남기셨고(고전 3:22; 사 51:11), 우리를 위하여 그의 무한히 자비로운 중보기도로 그것을 보증하셨다(요 17:24).

2. 영혼은 몸과 함께 죽지 않고(마 10:28), 죽음을 사모하며(눅 2:28-30; 빌 1:23; 고후 5:1-8), 떠나는 영혼을 그리스도께 맡긴다(시 31:5; 행 7:59).

3. 떠나는 순간, 영혼은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고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을 닮으며(히 12:23; 계 21:4,27; 요일 3:2; 엡 5:25-27; 유 24; 고전 13:12),

4. 육체와 분리되어 천사들에 의해 즉시 천상 상태로 옮겨지며, 그 상태에서 말할 수 없이 활동적이고 행복하다(눅 16:22-23; 눅 23:42-43; 행 7:59; 고후 5:1-8; 요 17:24; 계 14:13; 빌 1:23).

이 성경 구절들, 그리고 미래 상태 또는 그로 가는 길에 대한 두 가지 형태만을 언급하는 구절들(마태복음 7:13-14; 로마서 2:7-10), 혹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의 죄를 완전하게 속량하셨음을 증명하는 구절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나 중간 상태가 없음을 분명히 나타낸다.

### III. 최후의 날에

1. 믿는 자들의 몸은 그리스도와 의 지속적인 연합을 통해 모든 죄와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무덤에서 안식한 후(요한계시록 14:13; 데살로니가전서 4:16; 이사야 57:2), 이 연합과 그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 강하고 불멸하며 영광스럽고 영적인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이사야 26:19; 욥기 19:25-27; 로마서 8:11-23; 빌립보서 3:21; 고린도전서 15:42-49).
2. 그들의 온전한 인격은 그리스도에 의해 모든 천사와 사람 앞에서 그의 구속된 신부, 귀한 자녀, 사랑받는 친구, 순종하는 백성으로서 공개적으로 인정받으며, 그들에게 씌워졌던 모든 거짓 비난에서 벗어나고 또한 모든 실제 허물에서 사면받을 것이다(누가복음 12:8; 마태복음 10:32; 25:34-40; 디모데후서 4:7-8).
3. 그들은 하나의 집회 혹은 몸으로서 공개적이고 엄숙하게 심판받고 초청받아 아버지께 축복을 받으며 그분이 미리 예비하신 왕국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히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시편 96:13; 98:9; 마태복음 25:34).
4. 그리스도 머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의 수반을 받아 그들은 자신의 천상 상태에 입장하고, 그들의 즐거운 관상의 대상을 넓히기 위해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될 것이다(마태복음 25:40; 시편 45:15; 이사야 35:10; 베드로후서 3:10, 13).

### IV. 영원토록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며 완전한 복을 누릴 것이다

(시편 31:19; 고린도후서 4:17)

1. 어떠한 악한 것, 죄, 슬픔도 결코 그곳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요한계시록 20:14-15; 21:4, 8, 25, 27; 22:3, 5, 15; 이사야 35:10; 51:11; 60:20).
2. 진정한 행복을 증진시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누려질 것이다(요한계시록 7:17; 이사야 35:10; 60:19-20; 고린도전서 15:28; 고린도후서 4:17). — 그들의 거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기쁘며, 더 좋은 나라, 도시, 성전, 하나님이 터를 닦아 지으신 집, 새 예루살렘, 시온, 하나님의 나라, 궁전, 보좌, 낙원, 헛간, 곡식 창고, 아브라함의 품, 제삼천국 등으로 불린다(히브리서 11:16; 11:10; 요한계시록 21; 22:1-5; 마태복음 13:43; 5:34; 시편 45:15; 이사야 66:1; 누가복음 23:43; 고린도후서 12:2, 4; 요한계시록 2:7; 3:21; 마태복음 3:12; 13:30; 8:11; 누가복음 16:22; 고린도후서 5:1; 요한복음 14:2). — 그 거처에서의 그들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상태는 가장 영광스러우며, 보물, 기쁨, 평화, 쉼, 영광, 넘치는 영광, 주님의 기쁨, 빛, 생명, 부패치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 그리스도와 흰 옷을 입고 동행함,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거나 화려한 잔치에 참여함을 포함한다(마태복음 6:20; 이사야 57:2; 시편 73:24; 고린도후서 4:17; 마태복음

25:21, 23; 골로새서 1:12; 마태복음 19:17; 시편 16:11; 베드로전서 1:4; 요한계시록 3:5, 21; 2:26; 7:17; 마태복음 8:11). — 그들은 천사들 및 온전한 성도들과 가장 기쁜 교제를 나누며(마태복음 8:11; 히브리서 12:22-23; 요한계시록 5:9-13), 또한 그리스도를 장자 형제로 삼아 교제하며(요한복음 12:26; 14:3; 17:24; 시편 22:22; 히브리서 12:24; 데살로니가전서 4:17),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본성의 모든 탁월함 안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물 안의 만물로서 누릴 것이다(히브리서 12:24; 시편 43:4; 73:26; 고린도전서 15:28).

###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그들의 이해의 눈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직접 바라보는 것(요한일서 3:2; 고린도전서 13:12; 시편 17:15; 요한복음 17:24-25; 14:10; 고린도후서 4:6) — 육안으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과 성도들의 몸을 본다.
2.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최고의 충만함으로 경험하는 것(요한계시록 7:17; 이사야 60:19-20; 고린도전서 15:28).
3. 하나님의 탁월함에 완전하게 닮으며(모방할 수 있는 탁월성), 하나님의 흥내 낼 수 없는 완전함과 마음이 합치되는 것(시편 17:15; 요한일서 3:2).
4.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위해 주변 모든 이에게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는 것(고린도전서 13:8, 13).
5.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끊임없이 열광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노래에 의해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를 통하여 드린다(요한계시록 7:17; 5:9-13; 시편 16:11; 17:15; 43:4; 이사야 35:10; 60:18-20). — 이 모든 복락은 하나님과의 그러한 교제의 마음을 넓히는 영향으로 인해 영원토록 지속되거나 끊임없이 증대될 것이다(데살로니가전서 4:17; 마태복음 25:46; 이사야 60:19; 51:11).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언약, 그리스도의 의의 영원한 공로, 그리고 그분의 중보 기도의 능력이 이 영원을 보장한다(예레미야 31:3; 이사야 54:8-10; 사무엘하 23:5; 다니엘 9:24; 히브리서 9:12; 10:14; 7:25). — 이 행복한 상태 안에는 그들의 성화 정도에 따라 은혜롭게 비례하는 다양한 영광의 등급도 있을 것이다.

1. 그들의 상태가 여러 영광의 등급으로 표현된다(요한복음 14:2; 고린도전서 15:41-42; 3:8, 14-15; 고린도후서 9:5-6; 마태복음 19:29).
2. 지옥에는 사람들의 죄악에 비례한 여러 고통의 등급이 있을 것이다(마태복음 11:22, 24).

## 성찰

그러나, 오 내 영혼이여,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고 부활하며 영원히 살 것인가? 나는 확실히 주 안에서 죽을 것인가? 그가 나타날 때 나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인가? 나는 영원히 그와 함께 있을 것인가—영원히 그를 보며 그와 닮을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지 않거나, 되었다 하더라도 그분 안에서 나의 영원한 유익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하지 아니하리라. 그의 친구들을 그 높은 복의 처소로 인도하고 나서, 내가 영원한 어둠과 끝없는 고통의 구렁이로 떨어진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불의를 행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쫓겨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던져진다면!—그러나 내가 참되고 경험 있는 신자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목회 사역의 부름을 받은 자라면, 나의 모든 힘과 기도와 수고와 관심을 다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얼마나 누리고 닮으며 섬길 수 있을지 힘쓸 것이다.—내가 그분을 진심으로 따르고 전하며 그 가운데 있더라도 내 처지가 아무리 가난하고 괴로워도, 그리스도 내 구주 되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피와 임재와 영향으로 인해 모든 것이 의미 있다.—나는 차라리 만 번이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며 망하겠노라, 천하의 황제들과 함께 다스리기보다.—그러나, 내 주의 기쁨에 들어가 그의 생명과 함께 다스리고 영원히 구속자 삼위일체 하나님을 무한한 만물 안의 만물로 갖는 것이 어떠하랴!—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전부이니!—분명히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복되다!

## 제 6 권 하나님 언약의 외적 경륜에 관하여, 말씀과 제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새 언약 집행과 우리에게 그 복을 부여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 가지 요소가 연합한다.

1. 언약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선포하시며, 이것은 율법과 복음으로 구분된다.
2. 언약의 제도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가 하나님과 상호작용하여 말씀과 그 안에 제시된 복을 효과적으로 적용한다.
3. 언약의 성령으로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제도가 언약에 실제로 효력을 발휘하여 우리를 언약 안으로 인도하고, 복의 실제 참여자가 되게 하며, 그 복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장하게 한다.
4. 믿음으로서 우리가 자격을 갖추고 활성화되어 말씀, 제도, 성령, 언약 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다.—성령과 믿음의 역할은 이미 여러 차례 언급되었고 이 언약의 외적 경륜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여기에선 다루지 않는다.

## 하나님 율법에 관하여, 그 표명, 내용, 형태 및 인간에 대한 용도에 관하여

I. 하나님 율법은 전체 말씀(시편 1:2; 19:8-9), 또는 구약성경 전체 책(요한복음 10:34; 고린도전서 14:21), 또는 모세의 오경(누가복음 24:44; 로마서 3:21; 요한복음 1:45), 또는 새 언약의 예식 제도(요한복음 1:17), 혹은 은혜 언약과 대비되는 행위 언약(로마서 6:14; 7:4; 8:2; 갈라디아서 3:10, 12-13)을 의미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율법은 복음과 구별되는, 무한히 높은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나타난 뜻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지시하고 구속하는 것이다. 율법의 두 본질적 구성 요소는 명령과 의무이다. 형벌의 제재는 피조물이 실제로 타락했을 때에만 부가되고, 약속의 제재는 율법이 언약으로 형성되었거나 언약 안에 포함되었을 때에만 부가된다.

계시된 하나님의 율법은 보통 도덕법, 의식법, 사법법으로 구분된다.

의식법은 구약시대 예배의 규례로, 주로 도덕법의 두 번째 및 네 번째 계명에 덧붙여졌으며, 그 의식은 그 의도된 의미에서 희미한 복음이었다(골로새서 2:17; 히브리서 10:1; 3-10).

사법법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정과 관련하여 진영, 이동, 전쟁, 상속, 결혼, 형벌, 지배자 등의 문제를 다스리도록 지시한 것이며(출애굽기 21-23; 민수기 1-2; 10; 27; 34-36; 레위기 18; 20; 신명기 17; 19-25), 이는 도덕법의 상응하는 규정으로 환원 가능하고, 도덕적 정의가 요구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유대인의 국가적 제도에만 구속력을 가졌다.—

도덕법은 하나님이 모든 시대와 장소의 사람들에게 그분, 자신, 이웃에 대한 모든 의무를 명령하고 구속하는 하나님의 뜻의 선포이다.—이 율법의 주요 조항들은 하나님 본성에서 비롯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자이자 보존자이며 통치자로서 관계 맺은 데 근거하여 완전히 불변하며 필수적이다(말라기 5:17, 19; 로마서 3:31; 13:8-9; 디도서 3:8, 14; 야고보서 2:8, 10). 그리고 그 열 가지 계명 전체는 신약에서 어느 정도 직·간접적으로 가르쳐지고 있다.

첫 번째 본질은 요한복음 3:19; 5:42; 베드로후서 1:5-8; 3:18; 데살로니가후서 1:8; 요한일서 3:23; 4:19; 마태복음 4:10; 사도행전 2:38; 마태복음 22:37; 베드로전서 2:17; 히브리서 12:28; 로마서 3:18; 고린도후서 1:6; 디모데전서 4:7; 6:17 에 그 본질이 있으며, 두 번째 본질은 요한복음 4:23-24; 5:39; 요한계시록 1:3; 로마서 12:1-6; 데살로니가전서 5:17; 골로새서 3:16; 에베소서 5:19; 야고보서 5:13-14; 고린도전서 10:14; 요한일서 5:21 에 있고, 세 번째 본질은 마태복음 5:34-37; 15:9; 6:7; 야고보서 1:23; 5:12; 요한복음 4:24; 고린도전서 14:15 에, 네 번째 본질은 마가복음 16:2, 9; 요한복음 20:19, 26; 사도행전 20:7; 고린도전서 16:2; 요한계시록 1:10 에, 다섯 번째 본질은 에베소서 6:1-9; 5:22-33; 4:32; 골로새서 3:18-25; 4:1; 디도서 2:3-10; 베드로전서 2:18; 3:1-8; 데살로니가전서

5:12-14; 디모데전서 3:6 에 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계명은 마태복음 19:18-19; 로마서 13:9; 갈라디아서 5:14; 야고보서 2:8-11 에 반복적으로 함께 강조된다.

## 도덕법의 본성과 기원

도덕법의 조항 중에서 하나님의 본성이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직접 유래하지 않는 조항은 하나님의 특정한 경우를 예외로 할 수 있으나, 그 외에는 예외가 없다. 예컨대 아담의 가족에서는 형제들이 합법적으로 자기 자매와 결혼했으며, 하나님은 자녀 없는 형제의 과부를 결혼하도록 요구하실 수 있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아들을 희생하라고 요구하신 경우도 있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1. 모든 사람의 마음에 부분적이지만 불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로마서 2:14-15; 1:19-20, 32). 2. 십계명 안에 간략히 요약되어 있음(출애굽기 20:3-17; 신명기 5:6-21). 3. 성경 전체에 걸쳐서, 모든 신적 명령과 금지에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풍부하게 제시되고 설명됨(신명기 4-31; 마태복음 5-7; 에베소서 4-6; 골로새서 3-4; 로마서 12-15; 빌립보서 2-4; 데살로니가전서 5; 히브리서 10-13; 야고보서 1 부터 요한계시록 3 까지).

도덕법은 아담에게 그 본래의 요구가 마음에 기록되었고(창세기 1:26-27; 2:16-17), 그 긍정적 요구는 계시되었다. 또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태도로 선포되어, 언약으로서 그 아래 있는 자들의 위험을 나타냈다(출애굽기 19-20; 신명기 4-5; 히브리서 12:28-29). 도덕법은 돌판에 기록되어 그 영원한 의무를 표상하며, 완고한 사람의 마음 위에 성령께서 그것을 기록하심을 상징한다(출애굽기 24:12; 34:1, 28). 모세가 후판을 새긴 행위는 우리가 언약으로서 법에 의해 먼저 확신되어야 비로소 삶의 규범으로 마음에 기록될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다.

도덕법이 엄숙히 선포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본래 자연법을 확증하기 위해. 2. 사람들이 그 요구에 대해 오해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3. 자연법에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4.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중재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임을 확신시키기 위해(갈라디아서 3:19-20).

##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도덕법 선포 및 순종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은 도덕법을 다시 선포하고 더욱 상세히 설명하며, 유대 율법학자들의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그것을 변호했지만 결코 확장하지 않았다. 1. 도덕법은 오랫동안 완전하였으며(신명기 4:2; 5:32; 12:32; 시편 19:7-8; 119:96), 그것을 수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혜와 공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2. 그리스도는 옛 도덕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성하러 오셨다(마태복음 5:17-18). 3. 그와 사도들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가르친 것 외에는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았다(마태복음 22:37-40; 7:12; 로마서 1:3; 사도행전 26:22).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 본질에 있어 오래된 계명이자 처음부터 있었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과 복음의 명확한 공표로 추가적 강화가 이루어졌을 뿐이다(요한일서 2:8; 요한복음 13:34).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신구약 모두에서 요구되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나는 데에서 자기를 부인했고(창세기 12; 히브리서 11:8), 경건한 레위인은 우상 숭배하는 형제들을 처단했으며(출애굽기 32:27-28),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고(욥기 1-2), 모세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통을 선택하였다(히브리서 11:25-26). 거의 모든 예언자와 경건한 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삶을 살았다(사무엘하 16:5-11; 열왕기상 17; 역대하 24:20-22; 다니엘 3; 6; 느헤미야 2; 5).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한다(시편 115:1; 고린도전서 6:19-20; 베드로전서 4:14).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므로, 그가 당시에 지니셨던 신적 탁월함을 본받는 것은 구약에서도 요구되었다(레위기 11:44; 19:2; 20:7). 그리스도는 처음 세 계명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다. 그가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는 이전에 오래도록 요청되어 온 것 외에 다른 것은 포함하지 않았다(이사야 63:16; 시편 72; 57:11; 143; 119; 잠언 30:8; 25:11; 16:1; 17:2). 그리스도와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구약에서도 행해졌다(시편 2:12; 15:11; 97:7; 히브리서 1:6; 출애굽기 23:21; 창세기 18:23; 48:16; 다니엘 9:17; 84:9). 사람들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우상을 세우거나 우상 숭배 성전을 드나드는 것이 금지되었고(출애굽기 23:24; 신명기 12:23; 7:2-3; 시편 16:4), 경솔하거나 불경하게 맹세하는 것 또한 금지받았다(신명기 6:13; 10:20; 전도서 9:2; 이사야 65:16; 예레미야 4:2; 5:7; 마태복음 5:34-37; 야고보서 5:12).

네 번째와 다섯 번째 계명에 관하여는 도덕적으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죄된 분노, 형제에게 해를 끼치는 것, 사적 복수, 음란한 눈빛이나 말, 불필요한 이혼과 일부다처제는 그리스도 이전에도 금지되었고 이후에도 금지된다(창세기 4:6; 27:41, 43; 31:24; 45:8; 49:7; 욥 29:16; 31:1; 열왕기하 5:13; 신명기 5:20-21; 17:5; 24:1; 말라기 2:14-15; 레위기 19:8).

## 도덕법의 성질과 순종

도덕법의 성질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1. 보편적이다.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의 모든 태도, 생각, 말과 행위에 미친다(로마서 2:14; 3:19-20; 4:15; 5:13). 2. 완전하다. 모든 선한 태도와 행위를 가장 완전한 정도로 요구하며, 모든 형태와 정도의 죄를 금한다(시편 19:7; 119:96, 128). 3. 영속적이다. 시간과 영원을 통틀어 사람을 인도하고 구속한다(누가복음 16:17; 마태복음 5:18). 4. 거룩하다.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함을 반영하여 사람에게 완전한 거룩함을 요구한다(로마서 7:12). 5. 공의롭다.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게 당연히 베풀어야 할 것만 요구하며, 아담 안에서 우리가 원래 행할 능력을 가졌던 것을 요구한다(로마서 7:12; 시편 19:8; 119:7, 128). 6. 선하다. 본질적으로 선하고 모든 사람의 행복 증진에 적합한 것을 요구한다(로마서 7:12; 2:7, 10; 시편 19:11; 119:165). 7. 영적이다. 사람 영혼의 모든 능력에 이르며, 모든 순종이 영적 원리에서 출발해 영적 방식으로 행해지고 적실한 영적 목적을 향해 함을 요구한다(로마서 7:14). 8. 대단히 광범위하다. 그 요구와 금지를 모든 순간과 장소와 상황의 무수한 일들에까지 펼친다(시편 119:96).

II. 이 법에 대한 순종은 그 신성한 권위를 높이 존중하여 그 법의 요구와 금지에 합당하게 우리의 존재와 행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즉, 도덕법의 내용을 우리의 규범으로 삼고, 하나님의 권위를 그 전체 행위의 이유로 삼는 것이다. 순종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진실하고 솔직해야 한다(시편 18:23; 히브리서 11:17; 민수기 14:40-44). 2. 상태나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이어야 한다(시편 119:44). 3. 가장 작은 악의 기미도 피하는 데 까다로워야 한다(데살로니가전서 5:22; 사사기 2:5; 에스겔 6:9). 4. 기꺼이 준비되며 기쁨이 있어야 한다(시편 18:44; 갈라디아서 1:16; 히브리서 11:8). 5. 모든 계명에 대해, 모든 점에서, 모든 권능으로 보편적이어야 한다(시편 119:6). 6. 다른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한 뜻에 의해 절대적이어야 한다(히브리서 11:8; 마태복음 23:8-10; 사도행전 4:19; 5:29). 7. 가장 작은 결함도 없이 완전해야 하고, 거룩함의 가장 높은 요구를 충족해야 한다(마태복음 5:48; 레위기 11:44; 베드로전서 1:13, 15-16). 8.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기원, 원인, 동기, 본, 목적의 근거와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디모데전서 1; 5; 로마서 1; 5; 고린도후서 10:5; 에베소서 5:2; 골로새서 3:17; 베드로전서 4:11).

##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도덕법이 요구하는 일반적인 순종 의무이다. 1.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법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근원 또는 뿌리이며(요한복음 14:15, 21-24), 순종의 주된 줄기이자 포괄적인 본질이다(고린도전서 13: 로마서 13:10). 우리는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마태복음 22:37). 이 사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참되고 영적인 앎, 2) 그분을 최고의 선으로 진심으로 선택함, 3)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이자 모든 것인 양 굳게 붙잡음, 4) 그분의 모든 존재와 행위를 깊이 높이 평가함(아가 5:10; 시편 35:10; 출애굽기 15:11; 시편 8:1, 9; 36:7; 104:34; 139:17-18; 스가랴 9:17), 5) 친밀한 교제를 간절히 바램(시편 27:4; 42:1-2; 84:2; 63:1-8), 6)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아가 1:13; 시편 37:4; 149:2)이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지혜롭고(마가복음 12:33), 진실하고 온전하며(잠언 23:26), 순수하고 절대적이며(그분의 탁월성과 우리에게 대한 자비 때문, 아가 1:3; 시편 36:7; 요한일서 4:19), 강렬하고 열정적이며(아가 8:6-7), 다른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을 훨씬 뛰어넘고(누가복음 14:26), 거룩한 실천 가운데 표현되어야 한다(요한일서 3:18; 로마서 13:10; 14:6, 8-9).

2.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성적 존재로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고 섬길 수 있는 영혼을 가졌기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점에서, 피조된 무생물보다 말로 다할 수 없이 중요하다(마태복음 16:26).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구체적 자연형상을 겸손히 받아들이고(시편 100:3; 139:14-16), 자신의 진정한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을 혐오하고 피하며(로마서 12:9; 시편 119:104; 사도행전 16:28),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자신의 온 정성과 지식과 능력과 기회를 다해 자신의 거룩함과 존귀와 안전과 위로를 증진시켜야 한다(마태복음 6:33; 요한복음 6:27; 로마서 2:7, 10; 디모데전서 4:8).

3.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쓸모를 마땅히 인정하고 사랑해야 하며(베드로전서 2:17; 빌립보서 2:3; 로마서 12:10; 베드로전서 3:8; 4:8),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기쁨에 종속된 가운데 그들을 기꺼이 사랑하고 즐거워해야 한다(시편 16:3; 119:63; 베드로전서 1:22). 우리는 그들을 자신처럼 사랑하며, 유사한 상황에서 그들이 우리에게 해주기를 합당히 기대하는 모든 일을 그들에게 행하고, 그들의 인격에 대한 진실한 사랑에서 그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풀어야 한다(마태복음 7:12; 요한일서 3:17-18; 베드로전서 1:22; 3:8; 4:8).

전체 도덕법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모든 행위를 규율하며, 십계명에 담겨 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시하며, 예배의 대상과 수단과 방식과 특별한 시기를 정한다. 나머지 여섯 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사회적

관계, 생명, 정절, 재산, 명예, 내면적 태도에 따라 지시한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의무는 하나님과의 관계 및 하나님께 대한 의무에 기초한다(출애굽기 20:3-17; 신명기 5:6-21).

십계명이 적은 말로 많은 뜻을 담고 있으므로, 이를 이해하고 설명할 때 다음 규칙들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한다. I. 의무가 요구될 때는 반대되는 죄가 금지되고, 죄가 금지될 때 반대되는 의무가 요구된다. II. 죄가 금지될 때는 그와 같은 종류의 모든 죄와 원인, 기회, 표지도 금지되며, 의무가 명령될 때는 그와 같은 종류의 모든 의무와 그것을 수행하는 수단도 요구된다. III.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신의 지위에 따라 다른 이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고 행하게끔 최선을 다해야 한다. IV. 금지된 것은 절대 행하지 않아야 하며, 요구된 행위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만 행해야 한다. V. 동일한 죄와 동일한 의무가 여러 계명에서 서로 다르거나 혹은 모든 계명에서 다양한 측면으로 금지되거나 요구된다. VI. 더 큰 죄를 피하기 위해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나, 어떤 의무는 다른 의무에 양보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자연적 의무는 사람에게 대한 자연적 의무보다 우선되어야 하며(사도행전 4:19; 5:29), 하나님의 긍정적 예배는 때때로 인간에 대한 필요와 자비의 자연법적 의무에 양보해야 한다(호세아 6:6).

I. 첫 번째 계명은 일종의 전 율법, 특히 첫 번째 법판의 기초 혹은 모퉁잇돌과 같아서, 모든 계명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나 불순종 속에서 그대로 순종되거나 불순종된다.—특별히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I. 하나님을 그 존재, 완전성, 위격, 목적, 그리고 사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으로 아는 것(역대상 28:9; 요한복음 17:3; 요한 1서 5:7,20; 시편 107:43).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출애굽기 34:6-7,9; 고린도후서 5:18-21). 이는 단순한 사변적 지식이 아니라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형상에 맞추는 실제적인 지식이다(고린도후서 3:18; 요한복음 13:17; 에베소서 4:32; 5:1-2; 베드로전서 1:15-16).

II.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 1. 마음속으로

1) 하나님 자신이 증거하시는 모든 것을 믿는 것(요한복음 20:31; 데살로니가전서 2:13).

2)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하나님께 이르는 길로 믿으며, 그분 안에서 영원한 기업과 주님으로 삼는 선택(요한 1 서 3:23; 시편 16:2; 142:5; 31:14; 91:2; 118:28).

3) 모든 우상을 의식적으로 버리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남편이자 왕으로 엄숙히 바치는 것(마태복음 5:29-30; 호세아 14:3,8; 예레미야 3:16,19; 여호수아 24:15).

4) 언약 관계와 하나님과의 약속에 끊임없이 신실하며, 마음을 하나님께만 두어 우리 모두를 가장 사랑하는 대상을 삼는 것(잠언 4:23; 시편 73:23-26; 아가 4:12).

5) 내주하는 욕망과 죄된 행위를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며 죄를 슬퍼하고 미워하며, 새 순종을 향한 전적인 결심과 노력을 다하는 것(사도행전 20:21; 예레미야 3:13-14,21-23; 31:18-19; 호세아 14:1-3,8).

6) 우리의 내면 정신 상태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덕성들과 일치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섬기고 예배하는 것(요한복음 4:24; 로마서 1:9; 8:5; 고린도전서 14:15). 우리의 마음을 넓혀 무한하신 하나님을 포용하고 즐기며(시편 81:10; 이사야 26:8-9), 일시적인 것 대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고린도후서 4:17-18), 겸허히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아가 8:5).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을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붙들며 본받고(말라기 3:6; 시편 89:34; 신명기 4:4; 10:20; 여호수아 23:8; 사도행전 11:23; 잠언 24:21; 욥기 2:3; 고린도전서 15:58), 항상 그분의 임재와 전지전능한 감시 아래 생활하는 것(시편 16:8; 창세기 16:13; 예레미야 23:24). 아버지로서 두려워하고 신뢰하며(히브리서 12:28-29; 욥기 6:14; 13:15), 그분의 흠 없는 거룩함을 기쁘게 따르고(베드로전서 1:15-16; 레위기 11:44; 마태복음 5:48), 그 선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이고 감탄하며 기뻐하고(예레미야 31:12; 창세기 32:10), 진리와 성실함을 신뢰하고 본받는 것(역대하 20:20).

7) 하나님 말씀과 사역에 상응하는 정동(affections)을 나타내는 것, 즉 말씀에서 그의 탁월하심을 드러내는 정동—말씀을 탐구하고 믿으며 사랑하고 기뻐하며 구원의 말씀으로 삼아 섭취하는 것(시편 119; 창세기 32:9-12; 사무엘하 7:25; 욥기 23:12; 예레미야 15:16; 사도행전 13:26; 디모데전서 1:15; 2 티모데 3:15-17).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서—창조에 있어 무한히 영광스럽고 지혜롭고 능력 있으며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을 분별하고 찬양하며(시편 8:3; 136:5), 고난 중에도

공의롭고 지혜롭고 전능하며 신실하고 자비로우시기에 인내와 겸손과 감사로 감당하고(욥기 1:21; 2:10; 시편 119:67,71,75),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미소 짓는 섭리 가운데서 사랑과 경이와 감사로 반응하며(창세기 32:10; 데살로니가전서 5:18; 빌립보서 4:4,6; 골로새서 3:17), 구속에서 무한히 지혜롭고 전능하며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승인하고 세상과 영원한 행복을 전적으로 그분께 맡기는 것(사무엘하 23:5; 빌립보서 3:8-9).

## 2. 공개적 인정과 실천

2. 또한 우리는 공개적으로 그분을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과 그 진리를 확고히 고백하고 그에 합당한 실천을 해야 한다(베드로전서 3:15-16; 히브리서 4:14; 10:23; 에베소서 4-6; 골로새서 1-4; 데살로니가전서 1-5; 로마서 12-15; 6).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빌립보서 1:20; 누가복음 9:26), 이웃을 세우고(빌립보서 1:12-13; 디도서 3:8,14), 자기 자신의 영적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마가복음 8:35,38; 로마서 10:10; 누가복음 12:8).

## III. 하나님 예배와 영화롭게 하는 행위

III. 하나님을 하나님이자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

1. 마음속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떠올리며(말라기 3:16; 시편 63:6; 139:17-18; 104:34), 존중하며(출애굽기 15:11; 시편 135:10; 8:1,9; 36:7; 73:25), 신뢰하는 것(출애굽기 14:31; 데살로니가전서 2:13).

- 양심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두려움을 품고(시편 44:20-21; 욥기 31:14,23), 그분께 전적으로 복종하며(마태복음 23:8-10; 4:10; 야고보서 4:12), 그분의 율법을 무한한 권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이사야 8:20; 5:20; 마태복음 6:22-23), 그리스도의 피를 끊임없이 묵상하며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히브리서 10:19-22), 복음에 기초하여 자신을 의무로 고무시키고(누가복음 1:74-75; 시편 116:12,16; 103:1-5), 우리의 상태와 행실, 율법의 내용에 따라 책망하거나 위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로마서 2:15; 시편 65:3; 130:3-4).

- 의지 안에서, 거룩한 결단과 반복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며(여호수아 24:15; 시편 16:2; 73:25; 119:57; 191:2; 142:5; 예레미야 애가 3:24), 모든 일에 하나님을 궁극적 목적으로 삼고(고린도전서 10:31; 베드로전서 4:11; 로마서 14:8), 자연적·사회적·종교적 자아를 그분을 위하여 거부하며(마태복음 16:24; 누가복음 14:26; 17:10), 그분의 명령과 섭리적 뜻에 순종하고(로마서 6:17; 창세기 22:1-18; 누가복음 24:26; 시편 47:4; 39:9; 119:71,75), 고난의 징계도 인내하며(시편 39:9; 사무엘상 3:18; 사무엘하 16:10-11; 애가 3:22,39; 미가 7:7-10; 이사야 53:7).

- 감정 안에서, 무한히 탁월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신명기 6:5; 시편 18:1-3; 116:1), 그분을 더 온전히 누리고자 갈망하며(이사야 26:8-9; 빌립보서 1:23; 고린도후서 5:4,8), 그분과 그분의 행위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시편 32:11; 149:2; 61:10; 하박국 3:18; 60:6; 누가복음 1:47), 그분께 상처를 입힌 일에 슬퍼하며(스가랴 12:10; 시편 119:136),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워하며(이사야 8:13; 호세아 3:5; 시편 36:1; 119:120; 마태복음 10:28), 세상에서 그분의 영광과 이익을 위한 신중하며 절제된 열정을 갖고(시편 69:9; 119:139),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 자신을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에스겔 16:63; 36:31-32; 욥기 42:5-6; 이사야 6:5; 64:6; 예레미야 31:18; 로마서 7:14-24).

- 기억 안에서, 말씀과 행위에서 체험한 그분의 계시를 기쁘게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시편 119:11; 36:6-7; 103-107; 116; 136; 145-150; 요한복음 2:17; 욥기 36:24).

- 온 영혼으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남편, 아버지이자 하나님이심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사야 26:4; 시편 130:7-8; 119:49,81).

- 겸손히 그분께 나아가 우리 자신이 무지하고 약하며 부적합함을 깊이 인식하며 모든 일에 그분께 자문하고 우리 안에 선한 모든 것에 그 영광을 돌리며(잠언 3:5-6; 이사야 40:6; 고린도후서 3:5; 고린도전서 15:10; 시편 115:1), 그분이 부르시는 가장 낮은 봉사도 자원하며(사도행전 21:13), 우리 자신의 위치에 맞는 범위에서 삶을 제한하고(시편 131:1; 고린도전서 7:20,24), 내면의 기도와 찬양에 힘쓰는 것을 포함한다(빌립보서 4:6; 출애굽기 14:8; 시편 119:58; 45:1; 108:1).

2. 겔으로는, 정해진 예배 규례에 충실히 참석하며(마태복음 28:20; 고린도전서 11:2), 하나님 권위를 존중하여 우리 자신과 타인에게 지는 모든 의무를 마땅히 수행하는 것이다(마태복음 5:16; 고린도전서 10:31; 베드로전서 4:11).

## 첫 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

I. 무신론. 무신론은 사변적(추상적) 무신론과 실천적 무신론으로 나뉜다. 사변적 무신론은 하나님 존재, 완전성, 섭리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것(시편 14:1; 53:1; 에베소서 2:12; 요한 1 서 2:23; 에스겔 8:12; 시편 10:11)이다. 사람들은 종종 변명하거나 극악무도함, 혹은 경건한 자들에게 내리는 특별한 고난 때문에 유혹을 받지만, 실제로는 양심의 명령과 여러 증거에 반하는 이러한 입장을 스스로 정착시키려 하기보다는 억지로 자신을 몰아넣으려 할 뿐이다(잠언 30:9; 1:32; 예레미야 2:5,25; 말라기 3:13-14; 1:13; 시편 73:13).

- 실천적 무신론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믿음, 선택, 사랑, 영적 사유나 거룩한 소망이 전혀 없으며, 하나님을 향한 정동도 없고 말씀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을 분별하거나 그를 섬기지도 않는 상태이다. 몰래 죄를 즐기며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실 것이라 바라며 타인을 죄에 부추기고(시편 14:1; 에베소서 2:2,12; 36:3; 미가 6:16), 종교적 고백이나 하나님 예배에 무관심하게 살거나(예레미야 10:25), 외적으로 신앙 고백이 있으나 실제로는 악행을 일삼거나(빌립보서 3:19; 디도서 1:15-16; 디모데후서 3:2-5), 한번 가진 신앙과 예배 행위를 포기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요한복음 6:66; 호세아 6:4-5; 히브리서 6:4-6).

## II.

경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 데 있어서의 불경함(profaneness)은, 우리의 마음속에 자연적이거나 게으르거나 의도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것들에 대한 무지가 포함된다(호 4:1,6; 사 27:11; 살후 1:8; 욥 21:14). 하나님에 대한 오해(행 17:23,29; 롬 1:21; 고전 1:23), 그분을 생각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부하는 것(시 10:4; 롬 1:28), 또한 하나님에 대해 경건하지 않은 생각이나 천한 생각을 품는 것(사 53:3-4; 시 10:13; 시 50:21; 겔 8:12), 하나님 말씀의 선언들과 반하는 의심, 불신 및 오류(왕하 6:33; 7:19; 신 29:19; 행 26:9; 갈 5:20), 하나님 대신 다른 이들의 무분별한 맹신(요일 4:1; 요 5:43; 살후 2:11-12)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우리의 양심 속에는 육체적 안일함(습 1:12), 눈멀음과 잘못된 정보(사 5:20), 무활동, 어리석음, 무감각(딤후 4:2; 엡 4:18-19), 부분적으로 덜 중요한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거나 주로 다른 사람들의 죄악을 반대하는 태도(마 7:1-4; 23:23)가 포함된다. 또한 하나님을 가장하는 척 하면서 뇌물에 의해 왜곡된 경건 행세(겔 13:19), 율법의 행위로 의로움을 추구하도록 부추기는 율법주의(롬 9:31-32; 10:2-3; 7:9), 하나님의 권위 대신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는 태도(고전 3:4-5; 호 5:11; 미 6:16) 역시 포함된다.

우리의 의지에서는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기를 거부하는 것(호 11:2,7; 시 81:10-12; 히 10:26,29),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최고의 목적으로 삼지 않는 태도(엡 2:12; 호 10:1; 슥 7:5), 위선적 헌신(미 3:11; 호 8:2), 엄숙한 약속을 무시하는 것(렘 5:4-5; 시 50:16-17; 78:10,57), 하나님과 그분의 이익에 반하는 내적 언약(전 5:6; 호 5:11; 고후 13:8), 하나님의 말씀이나 행위에 대한 불만과 원망(욥 34:33,37; 유 16; 시 37:1-8; 렘 12:1; 20:7-18), 거룩하지 않은 안주—즉, 한 피조물에서 찾을 수 없는 만족을 다른 데서 찾거나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신의 처지에만 만족하는 것, 게으르고 무모하며 어리석고 우둔한 인내로 고난을 견디며, 그 고난이 정의롭다 하더라도 선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매우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태도(사 42:25; 39:8; 시 119:71) 등이 포함된다.

우리의 정동(affections)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망, 기쁨의 결핍 또는 연약함, 하나님과 그의 형상을 지닌 것들로부터의 혐오와 증오(롬 1:30; 시 14:1; 욥 34:9),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의 죽음과 권태(말 3:13; 말 1:13; 암 8:5), 영적인 것들에 대한 미온적 무관심(계 3:16), 부패하고 무분별하며 맹목적이고 열정적인 열심이 그 대상의 중요성에 맞지 않거나 주로 다른 이들의 죄악에만 집중됨(롬 10:2; 마 23:23; 7:1-4; 창 38:24; 삼하 12:5), 교만하고 이기적인 관점에서 동기에 맞지 않는 행동이나 진정한 불쌍히 여김 없이 처벌을 행하려는 태도(삼하 6:6; 왕하 10:16; 눅 9:54; 고후 2:7; 살후 3:6-7) 등이 포함된다. 하나님에 대한 자녀된 경외심 부족, 하나님 앞에서의 경솔함과 불경건한 마음(시 89:7; 전 5:1),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무관심(암 3:8; 렘 5:22; 사 5:19),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건방진 반항(시 36:1; 겔 12:27; 렘 43:1-2; 44:15-16; 23:17,33), 죄에 대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신 29:19; 시 10:11,13), 죄에 대한 완고한 회개의 부재—즉 죄책을 부인하거나 경시하거나 변명하거나 남에게 전가하는 것, 하나님의 비밀을 무모하게 탐구하려는 대담하고 호기심 많은 성향(신 29:29),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지하실 것이라는 건방진 확신, 인내심 테스트나 심판 행사를 하나님께 시험에 드리는 행위(마 4:7; 시 95:9; 말 3:15), 두려움 없는 마음, 불안과 절망(렘 2:25; 마 6:34; 창 4:13; 겔 37:11)도 포함된다.

기억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를 잊어버릴 준비가 되어 있고, 대신 하찮고 악한 것을 붙잡는 경향(렘 2:32; 시 50:22; 신 32:18)이 포함된다. 온 전 영혼에 있어서 교만(시 138:6; 합 2:4; 잠 30:12-13), 자신의 연약함과 죄됨을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함(렘 2:31; 8:6,12; 고전 10:12; 마 7:2-3), 사명이나 의무에 대한 경멸 또는 능력이 부족하여 마음이 기울지 않는 것(삼상 2:30; 왕하 5:11-12), 자신의 능력이나 처지를 넘어섬(시 131:1-2; 민 16:1), 종교적 의무에서 마음이 뜨겁지 못하거나 분산됨(살전 5:19; 엡 6:19-20; 롬 12:11),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음과 죄안에서 성공함을 감사하는 태도(신 8:17; 속 11:5), 하나님과 그의 법을 내면적으로 경시하고 그분의 성령을 거스르며 근심하게 하는 것(시 50:17; 신 32:15; 사 63:10; 행 7:51; 엡 4:30; 히 10:29; 마 12:31-32)—더 나아가 우리의 내적 상태와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탁월성과 그분의 새 언약적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롬 1:21).

외적인 면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지 않거나(딤후 3:2-5; 딤후 1:15-16), 그 고백에 합당한 행실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포함된다.

### III. 우상숭배(idolatry)

우상숭배는 하나님께만 마땅히 드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다른 어떤 것에 돌리는 것이며, 보다 거칠거나 세련된 형태일 수 있다. 거친 우상숭배에서는 이방인들이 태양, 달, 별, 왕, 영웅, 은인, 기술 발명가, 심지어 개, 고양이, 악어, 뱀, 파, 양파, 창녀 등에 이르기까지 경배하였다(렘 44:3,8,18; 왕상 11:2; 2 왕 17:29-33; 롬 1:21-25). 로마 가톨릭 신자들은 천사, 교황, 그리스도와 성인의 진짜 유물이라 주장하는 것들, 축성된 성체 등을 경배한다. 이러한 경배의 최악성과 부조리는 명백하다.

1. 어떤 피조물도 우리의 경배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들은 최고로 보아도 우리보다 조금 우월하거나 오히려 열등하며, 약하거나 적어도 유한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렘 17:5; 사 2:22; 롬 10:14). 가장 고귀한 피조물 역시 우리의 경배 의도의 내적 진실이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계 2:23; 렘 17:10),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거나 외적 복에 축복을 베풀 수도 없다(출 23:25).

2.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에게 기도하거나 숭배하는 것을 명령, 약속, 또는 모범으로도 주지 않으셨다.

3. 하나님은 오직 자신만을,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숭배받아야 하며(출 20:2-3; 마 4:10; 신 6:13; 10:20; 삼상 7:3; 사 42:8; 롬 1:23; 갈 4:8), 다른 모든 우상의 종교적 숭배를 정죄하신다.

4.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경배의 대상이며, 중보자로서 믿음으로 영접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선물이다. 그분의 중보는 신자들이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그분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도록 고무한다. 그러나 인자이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유한한 본성이 신성과 동등한 영광을 공유하지 않거나, 그분에게 종속적이면서도 최고인 경배가 함께 주어진다면 이는 모두 모순적이다.

‘라트레이아(latreia)’라는 경배가 오직 하나님께만 귀속되고, ‘돌레이아(douleia)’라 불리는 숭배가 피조물에게 주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 왜냐하면 돌레이아 역시 하나님께 드려지며(갈 4:8; 살전 1:9; 마 26:24; 행 20:19; 롬 12:11; 14:18; 엡 6:7), 인간에 대한 시민적 존경 역시 라트레이아로 불리기 때문이다(신 28:48; 레 23:7).

더 세련된 우상숭배는 우리가 참 하나님보다 혹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을 믿고, 선택하고, 신뢰하며, 사랑하고, 존중하고, 열망하며, 기뻐하고, 두려워하며, 생각하고, 부재를 슬퍼하고, 열심을 내거나 기쁘게 하거나 무언가를 얻으려 하는 데서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주로 다음과 같이 숭배한다.

1. 사탄—그와 언약을 맺거나 점복, 주술, 마술을 행하거나 장려하며(신 16:9-12; 레 19:31; 20:6; 출 22:18; 사 8:19; 단 2:2), 그의 거짓 교리를 받아들이거나(딤후 4:1-2), 그의 가짜 기적을 숭배하며(살후 2:9-10; 계 13:13; 19:20), 그의 법을 따르며(렘 7:23; 미 6:16; 호 5:11), 그의 유혹에 귀기울이고(행 5:3-10; 왕상 22:22-23; 요 13:27; 대상 21:1), 그의 종살이에 복종하는 것(고후 4:4; 딤후 2:26; 사 49:24-25).

2. 세상—영혼의 분량이나 자신을 위한 세상의 즐거움을 하나님께 이끄는 길로 삼지 않고 추구하며(시 17:14; 골 3:1-2; 롬 8:5-6; 빌 3:19; 약 4:4; 요일 2:15-16; 3:17; 계 1:7), 세상의 풍속과 유행을 신앙과 행위의 기준으로 삼고(롬 12:1-2; 벧전 1:14,18), 육신적인 사람들의 교제를 즐기거나(시 15:4; 119:115; 잠 9:6; 13:20; 약 4:4), 죄를 통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갈 1:10; 롬 15:2; 고전 9:19-22; 살전 2:4).

3. 자신—자연적, 시민적, 종교적 자아에 과도한 존중을 가지거나(잠 26:12,16; 사 58:3; 롬 10:3),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거나(딤후 3:2; 눅 14:26), 너무 많이 혹은 모든 행동의 최종 목표로 자기 자신을 추구하는 것(왕하 10:16; 잠 21:4; 15:8; 속 7:5-6; 빌 2:21; 3:19).

4. 죄—어떤 형태나 정도로든 죄를 관용하거나 실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정면으로 대립하며(렘 44:4; 합 1:12; 요일 3:4), 죄가 우리 안에서 통치하거나 성행하는 상태는 모든 행위를 죄를 섬기며 경배하는 것으로 만든다(사 1:11-12; 66:3; 잠 15:8; 28:9; 21:4,27).

5. 은사와 영적 위로—그 자체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간절히 원하고 기뻐하는 것(요일 5:21; 고후 12:7).

이 계명에 덧붙여진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신론, 불경함, 우상숭배를 특별히 주목하시며, 이는 아무리 겉치레가 아름답다 해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시 44:20-21; 겔 8:7-12).

2. 하나님께서는 특히 우상숭배에 대하여 크게 노하시며, 그 불쾌함을 성경 속에 드러내셨다(고전 6:9-10; 갈 5:19-21; 계 21:8; 22:15; 14:10-11). 이방인, 유대인, 적그리스도인 가운데 우상숭배가 주요한 이유로 멸망하지 않는 민족은 거의 없다(왕하 17; 렘 25; 46-51; 계 9; 13-14). 하나님은 종종 사람들의 우상을 제거하여(삿 17-18) 그들이 우상이나 그들의 종교생활 중 하나를 포기하게 하시거나(창 35:2), 엘리와 다윗의 우상숭배 자녀들처럼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삼상 2-4; 삼하 13-18; 왕상 1), 유다(마 26:15), 데마(딤후 4:10)처럼 부끄럽게 우상숭배를 드러내게 하셨다.

## II. 두 번째 계명: 종교적 경배의 수단

두 번째 계명은 종교적 경배의 수단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도 하나님의 피로 구속받았으며(행 20:28; 고전 6:19-20), 몸도 영원한 행복을 기다리고 있다(고전 15; 마 10:28). 우리의 입은 마음의 해석자이자 행위자이며(마 12:34), 외적 경배는 내적 경배를 증진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계명을 심지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도 즉각적으로 외적 경배의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제정하셨다.

이 외적 경배는 엄격히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제정된 것으로, 하나님은 자기 경배에 대해 특출난 열심을 가지시며, 사람들이 자신의 발명을 도입하려는 경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두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이 다른 모든 계명보다 더 자세히 규정되고 권고된다.

타락 이후 우리의 모든 하나님 경배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할 때에만 예외이다(잠 15:8; 21:27; 28:9; 사 66:3; 1:11-15; 골 3:17; 뱀전 4:11; 엡 3:21).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참된 형상과 모형이신 그리스도는 중보자로서 우리의 경배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다(골 1:15; 고후 4:4,6; 요 14:6,9-10). 그리고 경배는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분을 인격적 하나님이자 중보자로서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해져야 한다. 또한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며, 그의 의와 중재를 통해 아버지께 드려져 합당한 경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요 14:6; 10:7,9; 엡 2:18; 3:12; 골 3:17; 뱀전 4:11; 2:5,9).

하나님과의 경배와 교제에 있어 그리스도를 존중하며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말씀 안에 다양한 예식을 제정하셨으며, 특히 다음과 같다. 1.

기도는 비밀히,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드려야 하며(마태복음 6:6; 예레미야 10:25; 말라기 3:16; 사도행전 2:46),

2. 시편, 찬송, 영적 노래를 비밀히,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불러야 한다(야고보서 5:13; 골로새서 3:16; 에베소서 5:19; 시편 33:1-2; 142; 96-100; 103; 105; 107; 134-136; 145-150).

3.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요한복음 5:39; 사도행전 17:11; 15:21).

4. 복음을 전하고 듣는 일(베드로전서 3:19; 1:12; 느헤미야 8:8; 열왕기하 4:23; 마가복음 16:15; 디모데후서 4:2; 로마서 10:14-15,17).
5. 성례의 집행과 수령(창세기 17:9-14; 출애굽기 12; 민수기 9; 28-29; 고린도전서 10:1-4; 마태복음 28:19; 고린도전서 10:16-17; 11:23-29).
6. 종교적 금식과 감사는 비밀히,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행해야 한다(마태복음 6:17-18; 9:15; 스가랴 12:12-14; 고린도전서 7:5; 요엘 2:13; 출애굽기 15; 역대상 16; 역대하 20:26).
7. 교회 정부와 권징에는 상설 사역과 그 유지가 포함된다(출애굽기 25-31; 레위기 1-16; 민수기 3-4; 8; 15; 17-18; 히브리서 3:5-6; 마태복음 16:18-19; 20:25-26; 18:15-20; 고린도전서 12:28; 에베소서 4:11-14; 요한복음 18:36; 사도행전 1-20; 디모데전서 5:17; 데살로니가전서 5:12; 히브리서 13:7,17; 고린도전서 9:14).
8. 어린이, 종,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교리 교육과 기타 교육(창세기 18:19; 신명기 6:6-9; 갈라디아서 6:6).
9. 영적 교제와 공동 기도는 정기 또는 임시 사회 모임에서 이루어진다(말라기 3:16; 아가 1:4; 5:8-16; 7:1-3; 7:13; 4:11; 7:9; 3:7-11; 시편 66:16; 누가복음 24:14-32).
10. 하나님 섬김에 대한 자기 헌신의 서원은 개인적이거나 사회적이며(이사야 44:4-5; 시편 116:16; 76:11; 119:106; 전도서 5:4-5; 민수기 30; 레위기 27; 신명기 5:2; 29:2; 여호수아 24:15,25; 역대하 15:12-13; 23:16; 29:10; 34:31,34; 느헤미야 9-10; 에스라 10:3; 이사야 19:18,21; 고린도후서 8:5).
11. 서약은 선언적, 약속적, 경고적 성격을 가지며, 우리가 선포하거나 약속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엄숙히 증인으로 부르며, 거짓말하거나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거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청원하는 것이다(신명기 6:13; 예레미야 4:2; 히브리서 6:16; 이사야 45:23; 65:16; 로마서 9:1-2; 고린도후서 1:23; 11:31; 갈라디아서 1:20; 데살로니가전서 5:27).
12. 제비 뽑기는 인간의 지혜로 평화롭게 결정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결정하시도록 엄숙히 호소하는 행위이다(잠언 16:33; 18:18; 레위기 16:8; 민수기 34:13; 여호수아 7:13-18; 15-21; 사무엘상 10:19-24; 14:41-42; 역대상 24-26; 느헤미야 11:1; 사도행전 1:24-26).
13.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은 우리의 소유 중 일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마태복음 6:1-5; 고린도전서 16:1-2; 갈라디아서 2:10).

이 모든 규례는 이 계명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원칙과 공개적인 고백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이 신성하다는 것을 마음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의지로 받아들여야 한다(미가 4:5).
2.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요구대로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마태복음 28:30; 시편 27:4; 63:2; 84:2,10).
3. 인간의 첨가 없이 순수하게 지켜져야 한다(고린도전서 11:2; 시편 16:4; 사도행전 17:16-17,22; 신명기 7:5; 12:23; 출애굽기 23:24; 골로새서 2:4,8,16-23; 마태복음 15:2-3,9).
4. 감손 없이 온전하게 지켜져야 한다(신명기 4:2; 5:32; 12:32; 요한계시록 22:19).

이 계명은 다음을 금지한다.

#### I. 종교 예배 수단에 관한 불경함

1. 하나님의 규례를 교황, 공의회, 왕, 부모, 교사로부터 전달된 것으로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호세아 8:12; 이사야 29:13).
2. 이를 비밀, 개인, 공적으로 준수하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출애굽기 4:24-25; 예레미야 10:25; 히브리서 10:25; 요한계시록 2:4).
3.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준수를 타인에게 떠넘기는 것—예컨대 목회자가 여러 교구를 겸임하며 대리 목사를 고용하거나, 가장이 가정의 종교 관리를 사제로 전적으로 맡기는 경우(열왕기상 12:31; 사사기 17:5,12-13).
4. 부분, 시간, 횟수 면에서 규례를 축소하는 것(아모스 8:4-5; 말라기 1:13; 3:7-9,14).
5. 이를 멸시하여 소홀히 하거나 경외심 없이 행하는 것(전도서 5:1; 말라기 1:12-14).
6. 즐겁거나 부주의하게 참석하는 것(사도행전 20:9).
7. 규례를 멸시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것(욥기 21:14-15).
8. 교회 직분, 권징, 결정, 성례를 상품으로 삼는 것(사도행전 8:18; 로마서 2:22; 요한복음 2:16; 마가복음 11:15-17).
9. 조롱, 지나치고 부적절한 세속적 사업, 부주의하거나 해로운 목회자의 난입, 불의한 법의 제정이나 시행, 양심의 자유를 위한 박해 등으로 하나님의 규례 자유 준수를 방해하는 것(이사야 28:22; 베드로전서 3:7; 사무엘상 2:17; 미가 6:16; 열왕기하 18:13; 사도행전 4-28).

## II. 예배 수단에 관한 우상숭배

1.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형체화하여 생각하는 것(요한복음 4:24; 로마서 1:23).
2. 신격을 형상으로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거나 그것들이 지시하는 바를 숭배하는 것(사도행전 17:29; 로마서 1:23; 신명기 4:14-15; 하박국 2:18; 로마서 11:4; 레위기 26:1).
3. 신격상이나 거짓 신의 형상을 집 장식 등으로 보존하는 것(신명기 7:5; 출애굽기 23:24; 시편 16:4).
4. 무지한 자의 교육을 위하여 교회 내에 형상을 전시하는 것(출애굽기 23:24; 열왕기하 18:4).

—이러한 형상의 유용성을 주장하는 것은(마태복음 28:20; 누가복음 16:29,31; 이사야 8:20 과) 상반되며, 하나님께서 말씀과 규례에 충분한 교육 수단을 주시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상들은 무한한 영이신 하나님을 유한하고 물질적인 존재로 모독적으로 표현한다. 그리스도의 신격과 연결된 몸이나 영화로운 상태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한다(이사야 40:18; 46:5; 예레미야 10:8,14-15; 하박국 2:18; 스가랴 10:2).

하나님은 자신을 육체적으로 묘사하는 자와 성인, 천사, 교황, 유물, 형상 숭배자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로마서 1:23-24; 사도행전 10:25-26; 요한계시록 19:10; 22:8-9; 13:4,8,15; 9:20-21).

심지어 이러한 우상숭배에 대해 로마교회의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선고받았다(요한계시록 14:9-11).

## III. 미신, 즉 하나님의 예배 규례에 덧붙이거나 변경하는 것

1. 하나님이 죄나 의무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으나 그렇게 주장하는 것(마태복음 15:5-6,9; 잠언 30:6; 골로새서 2:16-23).
2. 예배의 덕이 장소, 자세, 악기, 횃수에 따른다고 믿는 것(말라기 1:11; 요한복음 4:20-22 에 반함).
3. 출생 시 별자리 위치, 아침에 만나는 사람, 새의 비행 등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낸다는 생각(이사야 44:25; 47:8,13; 예레미야 10:2).
4. 성경에 명시되지 않은 제의, 제한된 시기, 교회 직분, 성례, 외경 등을 예배에 첨가하는 것(신명기 12:32; 4:2; 5:32; 이사야 1:12; 마태복음 15:3,9; 골로새서 2:16-23; 갈라디아서 4:10-11).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이러한 죄와 우상숭배에 가담한다.

1. 이를 고안함으로(민수기 15:39; 열왕기상 12:28-33).
2. 권장하거나 유혹함으로(신명기 13:6-8).
3. 명령함으로(호세아 5:11; 미가 6:16).
4. 사용함으로(열왕기상 11:33).
5. 승인하거나 용인함으로(요한계시록 2:14-15).

이 계명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이유는

1. 하나님의 주권에 기인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예배 규례를 정할 권한이 있다(예레미야 7:31; 32:35).
2.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자녀, 종, 신하로서 소유하시기 때문이다(이사야 33:22).
3. 하나님의 자신의 예배에 대한 열심으로, 이 계명과 다른 계명을 어긴 자를 벌하시고 지킨 자를 보상하신다(레위기 10:1-3; 이사야 9:7).

### III.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1. 고유 이름—본질적 이름인 여호와, 야훼, 나는 존재하는 자, 주님, 하나님(출애굽기 6:3; 3:14; 시편 68:4; 84:11), 또는 인격적 이름인 아버지, 아들,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 등.
2.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는 관계를 나타내는 칭호 예: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자 아버지(에베소서 1:3; 베드로전서 1:3), 높고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사야 57:15; 49:7), 자비와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시편 59:10; 베드로전서 5:10; 로마서 16:20), 구원의 하나님(시편 68:20), 모든 위로의 하나님(고린도후서 1:3), 영광의 하나님이자 왕(사도행전 7:2; 시편 24:8,10), 신 중의 신(여호수아 22:22), 만왕의 왕이자 만주의 주(요한계시록 17:14; 19:16),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출애굽기 3:6), 히브리인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출애굽기 5:3; 시편 72:18), 온 땅의 하나님(이사야 54:5), 자비의 아버지(고린도후서 1:3), 영광의 아버지(에베소서 1:17), 영들의 아버지(히브리서 12:9; 민수기 16:22), 창조주(이사야 40:28), 인간의 보존자 및 감시자(욥기 7:20), 왕, 심판자, 입법자(이사야 33:22; 야고보서

4:12), 구원자(이사야 45:15,22), 대속자(이사야 48:17; 49:26; 예레미야 50:34; 욥기 19:25), 위로자(이사야 51:7,12; 요한복음 15:26; 고린도후서 1:4; 7:6).

3. 닮을 수 있고 닮을 수 없는 속성들, 무한성, 영원성 등.

4. 예배의 규례(미가 4:5; 누가복음 1:6).

5. 말씀, 율법과 복음(시편 138:2).

6. 창조, 섭리, 구속의 역사(시편 19:1; 9:16; 사도행전 14:17; 에베소서 3:10,21; 고린도후서 5:18-21).

이 계명은 우리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I.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색하며

(시편 104:34; 139:17-18), 말씀하며(시편 105:1-3; 107; 136; 145-147), 행함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되, 이에 상응하는 행위로 꾸며야 한다(베드로전서 3:15-16; 로마서 10:10; 요한계시록 14:1; 히브리서 4:14; 10:23; 마태복음 5:16; 빌립보서 2:15-16; 4:8).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필수적이며,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의 탁월성과 유용성을 숨기고 묻으며 부인하는 결과가 된다(고린도전서 10:31; 레위기 10:3).

—우리에게도 유익한데,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속성들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거룩하게 하며 위로하는 명약이며, 그 규례는 영적 양육의 젖줄이고, 그 말씀은 꿀보다 달고 금과 은 천금을 능가하는 유업이며 비교할 수 없는 교사이다(아가 8:6; 시편 19:10; 119:72,103,111; 97-100,105).

—하나님의 행적은 지혜, 권능, 자비, 선함의 기적을 드러내는 전망경이다(로마서 1:19-20; 시편 19:1-5; 103-107; 136; 145-147; 92:4; 에베소서 1:3-10; 2:4-10).

—또한 다른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그들을 그리스도, 구원,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데 필요하다(마태복음 5:16; 요한복음 17:26).

—이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 고백은 신중해야 하며,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로마서 10:10; 잠언 4:5-7; 사도행전 17:11).

—정직하여 마음의 믿음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로마서 10:10; 시편 116:10; 고린도후서 4:13),

—완전하여 모든 진리를 포함해야 하며(빌립보서 3:16; 사도행전 20:20,27),

—명확하여 애매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이 없어야 하며(갈라디아서 2:11-12; 5:1-4; 고린도후서 1:12),

—온유하며(베드로전서 3:15; 마태복음 11:29; 디모데후서 2:24-25),

—담대하고 열정적이어야 하며(시편 119:46,139; 사도행전 2:14-36; 3:12-26; 4:10-13,19-20; 5:29,32; 6:15; 7:51-53; 에베소서 6:20),

—끝까지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베드로전서 3:15; 베드로후서 3:17-18; 요한계시록 2:10; 3:11).

## II.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고 경외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 이름에 대해 성령 안에서 앎을 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믿음을 지니며(시편 9:10; 히브리서 11:6; 4:2; 로마서 14:23),

뜨거운 사랑으로(시편 69:36; 이사야 26:8), 온유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말라기 4:2; 신명기 28:58; 시편 89:7; 요한계시록 15:4),

진실한 마음과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시편 96:7-8).

## III.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도록 협력해야 하며

세상과 우리의 마음에서 무신론, 무지, 우상숭배, 불경 등 그 이름을 모욕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게 하고, 국가, 교회, 개인의 모든 일을 하나님 영광이 최상의 이익이 되도록 인도하게 해야 한다(마태복음 6:9; 시편 108:5; 82:8; 57:5,11; 72:19).

이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당연히 높여야 할 사안과 방식에서 소홀히 하거나, 무지하게 그 이름을 경솔하거나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남용하는 것(신명기 32:51; 민수기 27:14; 사도행전 17:23; 19:13-14), 미신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궤를 들고 나간 경우, 사무엘상 4:3-5), 일상 대화에서 불필요하게 하나님이나 그 대신인 피조물을 맹세 대상으로 삼아 사용하는 것(마태복음 5:34-37; 야고보서 5:12), 화가 나거나 장난삼아 자신이나 타인을 저주하거나 악마, 해악 등에 바치는 것(열왕기상 19:2; 열왕기하 6:31; 민수기 22:11; 사사기 17:2), 거짓 맹세하여 허위 사실을 증언하거나 맹세한 것을 지키려 하지 않는 것(스가랴 5:4; 말라기 3:5; 마태복음 5:33; 호세아 4:2; 호세아 10:4), 하나님을 신성 모독적으로 욕하거나 다른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로마서

2:24; 사도행전 26:11; 디모데전서 6:1; 사무엘하 12:14; 이사야 51:5), 그리고 하나님의 규례, 말씀, 행위,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와 닮음이라는 이유로 욕하는 것을 금지한다(디모데전서 6:1; 디도서 2:5; 고린도전서 4:13; 마가복음 3:30).

또한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특성을 부여하거나, 하나님께 참되고 명예로운 것을 부인하며 그것을 피조물에게 돌리는 행위(욥기 36:19-25; 시편 73:9; 94:7; 에스겔 8:12; 9:9; 스바냐 1:12; 사도행전 12:22), 하나님에 대해 악의적이고 격렬하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욥기 2:5,9; 출애굽기 5:2; 열왕기하 6:33; 7:2,19), 그리고 우리 양심에 대한 하나님의 영의 명백하고 강력한 증언을 경멸하고 악의적으로 반역하는 것(마태복음 12:23-24,31-32; 히브리서 6:4-5; 10:26-29)을 금한다.

#### 하나님의 이름과 규례에 대한 신성 모독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 직함, 속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내적 원리에 의해 사유되고 선포되지 않는 경우, 또는 내면의 불신앙이 그와 반대 작용을 할 때 신성 모독된다(로마서 14:23; 히브리서 11:6; 디모데전서 1:5; 열왕기하 7:2,19; 에스겔 8:12; 9:9; 스바냐 1:12; 시편 10:11,13; 50:21; 77:8-9; 94:7; 예레미야 15:18; 20:7). 또한 이들을 미워하며(로마서 8:7-8; 1:30; 시편 139:20), 올바른 목적이 아니라 악을 조장하는 데 사용할 때도(말라기 1:6; 전도서 8:11; 이사야 43:24; 로마서 2:4-5)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의 규례는 그 본질과는 다르게 자기사랑, 교만, 인간의 법이나 관습에 근거한 동기에서 사용되거나(디모데전서 1:5; 고린도전서 12:3), 교만하고 부주의하며 위선적이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행하거나(빌립보서 3:3; 요한복음 4:24; 이사야 58:3; 29:13; 히브리서 4:2), 죄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이용될 때 또한 신성 모독이다(마태복음 2:16; 23:14; 로마서 10:3; 9:31-32).

#### 종교적 행위와 신앙생활에서의 신성 모독

기도는 자신이 처한 필요를 깊이 살피고 육체적인 염려를 비우며 그리스도의 중보와 약속을 성찰해 잘 준비하지 않고 기도할 때(시편 10:17; 에베소서 6:18), 무지하거나 교만하며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부주의하고 방황하며 불신앙적인 태도로 기도할 때(이사야 29:13; 누가복음 18:11-12; 야고보서 1:6-8; 요한복음 16:24), 부적절한 내용이나 악한 목적을 위해 간구할 때(누가복음 9:54; 야고보서 4:3), 그리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되는지 여부와 방법을 살피지 않을 때에도 신성 모독된다(시편 5:3; 123:1-4).

시편 찬송은 경솔하게 부르거나(시편 108:1), 겉으로만 하는 경우(시편 111:1), 찬송하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고린도전서 14:15), 적절한 정동과 자기 상황의 적용 없이 행해질 때도 신성 모독된다(에베소서 5:19; 골로새서 3:16).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것은 적절한 준비 없이(베드로전서 2:1-2; 야고보서 1:21),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에스겔 33:30; 잠언 28:9; 사도행전 8:30), 졸리거나 게으르게 들을 때(아모스 8:5; 말라기 1:13), 주의의 촛불과 같이 마음을 열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시편 85:8; 데살로니가전서 2:13; 데살로니가후서 2:10-11), 따뜻하게 믿거나 감동받지 않으며(히브리서 4:2; 이사야 66:2), 영적으로 묵상하고 신중히 기억하지 않으며(시편 1:2; 10:4; 119:11), 거룩하고 신중한 실천으로 옮기지 않을 때(에스겔 33:31; 예레미야 25:4-7), 또는 하나님의 진리를 설교자에 대한 애정처럼 대할 때에도(에스겔 33:32; 열왕기상 22:8) 신성 모독된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지 않은 자가 하거나(예레미야 23:32; 로마서 10:15; 히브리서 5:4), 불신앙적이고 게으르며 무정동적이고 불분명하고 분쟁적이며 불성실한 태도로 행하거나(이사야 56:10,12; 로마서 16:17-18; 빌립보서 1:16; 에스겔 13:17-19), 자신을 높이고 육적인 이익을 위하여 행할 때 신성 모독된다(고린도후서 4:5; 데살로니가전서 2:4-6).

성례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자가 집행하거나(고린도전서 4:1-2; 11:23), 적절하지 않은 자에게 주거나 육적인 동기에서 행할 때(마태복음 7:6; 고린도전서 11:27-29), 하나님의 규정에 없는 의식을 덧붙일 때(이사야 1:12), 그리고 정당한 준비 없이 받거나 성례 안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위한 적절한 마음가짐과 이에 상응하는 실천 없이 받으면 신성 모독된다(고린도전서 11:27,29; 사도행전 4:13; 로마서 12:1-2).

종교적 금식은 다툼과 논쟁을 위하여 하거나 악한 목적을 위해 행할 때(이사야 58:4; 열왕기하 21:9-13), 인정하는 은혜와 자백하는 죄와 탄식하며 두려워하는 심판에 진정으로 깊이 감동되지 않을 때(호세아 7:14; 이사야 58:4), 죄를 자백하며 그 죄와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벗어나길 애원하면서도 죄에 집착할 때(이사야 58:4-6; 미가 3:11), 자신을 존귀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 할 때도 신성 모독된다(마태복음 6:16; 스가랴 7:5; 누가복음 18:12; 이사야 58:3).

교회 치리는 국가의 형식을 본떠 조직하는 경우(요한복음 18:36; 마태복음 20:25-26),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지 않고 공회, 의회, 교황, 왕 등의 칙령으로 규제할 때(이사야 8:20; 마태복음 23:8-10; 미가 6:16; 요한계시록 13), 사람, 특히 권세 있는 이들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이를 행할 때(갈라디아서 1:10; 데살로니가전서 2:4-5), 징계가 민사적 처벌로 가해지거나 경멸과 반대 대상이 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교육 증진을 위한 제도로써 복종받지 않을 때 신성 모독된다(사도행전 15; 고린도전서 5:5; 데살로니가전서 5:12-14; 데살로니가후서 3:6,14; 히브리서 13:7,17).

종교적 서원은 무분별하고 무지하며 부주의하며 불법적이고 위선적인 태도로 행할 때(사사기 11:30-40; 신명기 5:27-29; 예레미야 42:5,20), 죄되고 사소하거나 지킬 수 없는 것을 서원할 때(열왕기하 6:31; 열왕기상 19:2), 서원에 자랑스러워할 때(요한복음 8:41; 잠언 7:14), 정당한 서원 뒤에도 신속하며 최대한 신중하고 부지런하게 이행하지 않을 때 신성 모독된다(민수기 30; 사사기 11:35; 시편 61:8; 78:8,57; 전도서 5:4-6; 잠언 20:25).

맹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툼을 종식시키는 정당한 맹세를 거부할 때(히브리서 6:16; 신명기 6:13; 10:20), 허락되지 않은 부름 없이 맹세할 때(야고보서 5:12; 마태복음 5:34-37), 본질적으로 불법하거나 의문스러운 또는 실행 불가능한 맹세를 주거나 받거나 할 때(마가복음 6:22-23; 사도행전 23:14,21), 우상숭배적이고 미신적으로 피조물을 맹세 대상으로 삼거나 복음서를 입맞춤하며 맹세할 때(시편 16:4; 마태복음 15:9), 진실하지 않고 확신 없거나 거짓임을 알면서 혹은 위선적으로 맹세할 때, 판단 없이 맹세할 때(맹세의 성격, 내용,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을 옹호하거나 그것을 증진하기 위해 맹세할 때(예레미야 4:2; 스가랴 5:4), 가볍고 무분별하게 맹세할 때(전도서 9:2), 뜻을 모호하게 하거나 요구자의 의사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게 맹세할 때, 맹세가 하나님 영화와 사람 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법률 준수나 세속적 지위·이익을 위한 수단일 때, 그리고 맹세의 정동이 사라져 게으름, 부주의, 악의, 그럴듯한 핑계로 맹세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도 신성 모독이다(여호수아 9:18-19; 사무엘하 21:1; 역대하 36:19; 에스겔 17:12-19). 또, 맹세 의무를 이유로 죄 된 행위를 하거나(마태복음 14:9), 특별한 사유 없이 같은 시기에 반복하여 맹세할 때도 신성 모독이다(출애굽기 20:7).

제비뽑기는 사소하거나 인간의 지혜로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쓸 때(시편 22:18), 중요한 일에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지 않고 쓸 때(잠언 16:33; 18:18; 사도행전 1:24-26), 미래 사건의 지식 획득을 위해 쓸 때(신명기 29:29), 그리고 이방인들의 불길한 사고와 같이 불길한 징조로 여기며 사용할 때(예레미야 10:2; 이사야 44:25), 또는 카드 나누기, 주사위 던지기 등에 사용하는 행위는 최악이 현저하다. 이는 하나님께 적대적인 악인들이 즐기는 것으로, 종교적 실천에 부적합하고 매혹적으로 도리어 멀어지게 한다. 특히 은혜 없는 자들과 친밀해지게 할 뿐이다. ‘운’과 ‘우연’은 그저 상상에 불과하여, 카드나 주사위 결과에 호소한다면 그 대상은 하나님이거나 그 대신 마귀여야 한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은 대단히 거만하고 신성 모독이며, 마귀에게 호소하는 것은 매우 끔찍하다. 이는 사람들을 이방인화하여, 어떤 사건은 운명에 맡겨졌다고 믿게 하며, 행운이 편을 바꾸고 일부는 운이 좋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는 이방적 원리를 따르게 한다. 또한 ‘행운’, ‘우연’, ‘좋은 운’ 같은 이방적 언어를 사용하며, 운에 의해 기뻐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는 정동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섭리를 경멸하며 이방적 관행에 몰두하게 한다(사무엘상 6:9).

종교적 신앙 고백은 종교에 대한 악의와 증오를 품거나(스가랴 11:8), 조롱하거나(이사야 28:22; 시편 1:1; 열왕기하 2:23; 시편 22:7-8; 69:10-12), 위선적으로 가장하거나(디모데후서 3:5; 디도서 1:16; 이사야 33:14), 신앙 고백을 악의, 방탕, 탐욕 같은 악한 동기의 은폐물로 사용할 때(마태복음 23:14; 에스겔 33:31-32; 미가 3:11; 베드로전서 2:16; 디도서 1:15-16; 데살로니가전서 2:5),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끄러워하거나(마가복음 8:38), 경솔하고 무관심하며 불안정하고 열매 없는 부정적인 행위로 신앙을 모욕하는 경우(빌립보서 3:18; 3:11,19; 디모데후서 3:1-6; 빌립보서 1:27; 에베소서 5:15; 골로새서 4:5; 이사야 5:4; 로마서 2:4-5,22,25), 그리고 신앙을 배반하는 경우에도 신성 모독이다(요한복음 6:66; 갈라디아서 3:3; 1:6; 디모데전서 1:19-20; 디모데후서 4:10; 2:16-17; 1:15; 베드로후서 2:20-22; 요한일서 2:19).

하나님의 말씀은 경솔하고 오만하게 하거나 조롱과 웃음거리로 변질시키고(사도행전 17:18,20; 26:24; 2:13; 예레미야 23:33,36), 오류와 죄악을 지지하기 위해 왜곡하며(베드로후서 3:16; 디모데전서 6:4; 디모데후서 2:14), 자신의 상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해석하여 덧붙이고(베드로후서 1:20; 마태복음 5:21,33,43), 악한 자를 격려하고 경건한 자를 낙담시키는 데 적용하며(에스겔 13:22), 주술, 우상숭배적 입맞춤, 영적 문제에 대한 복권책으로 사용하거나(사도행전 19:13),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찾고 믿으며 실천하지 않을 때에도 신성 모독된다(요한복음 5:39; 데살로니가전서 2:13).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 자신을 분별하지 않고 사랑하며 감탄하지 않고(로마서 1:18-20; 에베소서 3:10,2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활용하지 않고 자신의 탐욕과 죄된 욕망을 충족하는 데 사용할 때(베드로전서 4:11; 호세아 13:6; 신명기 32:14-15; 로마서 2:4-5; 13:12-14; 유다서 4; 베드로전서 2:8), 불평하거나 마음을 완악하게 할 때 신성 모독이다(고린도후서 10:10; 유다서 16; 예레미야 5:3; 이사야 1:5; 역대하 28:22; 스가랴 7:12; 예레미야 25:4-7).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신성 모독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첫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너무 낮게 생각하여 그 이름에 합당한 존경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출애굽기 5:2; 시편 50:21). 둘째, ...

그의 이름이 크게 남용되어도 거둬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를 분별하지 못하기에 그들의 마음은 단지 불경건함으로 굳어진다(시 36:1-2; 스가랴 7:5-6).

3. 죄된 관습들은 많은 이들로 하여금 수많은 경우와 형태의 불경함을 정당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마 5:37).

4. 교회나 국가의 법률 어느 것도 많은 형태의 불경함에까지 이르지 못한다(전 8:11; 삼상 16:7).

5. 많은 목회자와 관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도 존중도 너무나 부족하여 가장 심하고 공공연한 모독조차 거의 죄로 여기지 않는다. 그들이 이에 대해 제정한 법은 결코 집행되지 않는 단지 허울뿐인 것에 불과하다.

6. 목회자와 관리들의 모범, 죄된 불필요하며 애매하고 의심스러운 맹세의 강요, 선거나 소송에서 너무 부주의하고 경외심 없이 맹세하는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불경함이 크게 조장되고 확대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의롭고 가장 두려운 심판에서 이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왜냐하면,

1. 이 죄는 하나님의 본성과 뜻에 정면으로 반하여 행해지기 때문이다(시 73:8-9).

2. 하나님께 대한 가장 극렬한 증오를 나타내기 때문이다(시 139:20).

3. 하나님께 거룩한 두려움과 외경을 촉진하는 신적 계시의 전체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잠 1:7; 시 111:9,16; 딤후 3:15-17).

#### IV.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 예배의 적절한 시간을 규정한다



하나님의 단순한 뜻에 의존하는 정기적이며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는 정확한 시간과 그 부분을 정하는 이 계명은 이를 지킬 것을 기억하라는 엄숙한 명령으로 도입되며, 긍정적·부정적으로 모두 표현되고 다각적인 이유로 권고된다. 자연법은 인간이 영혼과 몸을 가진 사회적 존재인 이상 하나님을 외형적이면서도 사회적인 방식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정기적이며 엄숙한 예배에 관해 어느 정도의 비율이나 정확한 시간을 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중 7 분의 1 을 이 목적을 위해 정하셨으므로, 이 계명은 보편적이며 영속적인 도덕적 구속력을 지닌다.

1.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은 어떤 예식적 의식들 이전에 인류에게 낙원에서 부과되었다. 창세기 2:1-2 에서 모세가 안식일을 언급한 사실은 세계 창조를 2500 년 앞서 예견하며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하다.
2. 안식일의 지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엄숙히 선포하시고 두 돌판에 새기신 도덕법의 한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의식적 규정과는 다르다(출 20:8-11; 출 19:20; 출 24:12; 출 34:28).
3. 이 계명에 부가된 모든 이유는 도덕적 본성을 갖추어 모든 시대와 장소의 모든 사람에게 강력한 의무를 가지므로,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인과 함께 주간 안식일을 지켜야 했다(출 20:9-11).

### 창조 직후 안식일의 지정과 의미

세계 창조 직후 하나님께서는 한 주의 일곱째 날을 주간 안식일로 정하셨다.

1.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6 일 만에 완성하시고 7 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시며 그날을 성결히 하여 자신을 위한 안식일로 삼으셨다는 모세의 선언보다 명확한 것은 없다(창 2:1-2).
2. 이 계명에 부가된 모든 이유는 창조 직후에도 동일하게 강제를 지녔다(출 20:10-11).
3. 안식일은 시내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정해졌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이를 잘 알고 지켰다(출 16:23).
4. 히브리서 4:3-10 에는 세 가지 명확한 안식일이 언급되는데, 하나는 세상 창조 시점부터 시작된 것으로 일곱째 날 안식일 외에는 달리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시작된 의식적 안식일이며,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의 영광스러운 안식 입성의 기념 안식일이다. 또한 고대 이방인들도 주간과 일곱째 날 구분을 인지하고 있었는데, 이는 당시 거의 가나안 밖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열시받는 유대인들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다. 아담부터 모세까지 이어진 2500 년의 안식일 준수가 몇 페이지로 요약된 역사서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특히 역사 기록자가 일상적이고 규칙적인 준수 사항은 시작 부분 외에는 보통 기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약 480 년간의 보다

방대한 역사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여행 둘째 해부터 다윗 시대까지 주간 안식일에 관한 언급이 없다. 또한 이삭부터 세레 요한까지 팔일째에 할례가 이루어진 예가 전무하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표징으로 주셨다는 것은 그 법이 엄숙히 선포되어 주어졌고, 원래의 도덕적 용도에 예식적 표징이 추가되었음을 의미한다(겔 20:12; 느 9:14; 출 31:17).

### 안식일 지정의 융통성과 예식적 표징

그러나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지정하신 것은 엄격히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1. 하나님의 지정과는 별개로 일곱째 날인지 여부는 단지 환경적 상황에 불과하다.
2.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이 아닌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출 20:11).
3.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간의 유익을 위해 날짜 변경이 필요하다면 바뀌어야 한다(막 2:27-28).
4. 안식일을 처음 일곱째 날로 정한 것은 창조 완성을 기념하기에 매우 적절했으나, 더 중대한 사건이 다른 날에 나타났다면 본질적으로 그 날로 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5. 일곱째 날 안식일이 예식적 표징을 부가받았으므로, 다른 예식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히 폐지되었다(출 31:13,17; 겔 20:12,20; 골 2:16-17).

### 그리스도 부활과 안식일 변경

그리스도의 부활 날에 주간 안식일이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된 점은 매우 적절하다.

1.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므로 부활에 따라 안식일에 관한 그의 주권을 나타내는 것이 옳다(막 2:28).
2. 그의 부활은 완성된 구속 사역에서 안식으로 들어감이므로 창조 완성 기념보다 더욱 기념할 가치가 있다(엡 1:19-21; 롬 1:3-4; 롬 4:25; 고전 15:20; 골 1:18; 계 1:5).

3.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특수한 시기와 성격이 그의 구속 완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적절하다. 그의 탄생일은 안식일로 기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데, 그 날은 그의 수고와 고난이 시작된 날이며, 그의 죽음일 역시 고난의 절정기에 해당하므로 적합하지 않다. 그의 승천일도 안식일이 될 수 없는데, 그 날은 안식에 들어간 날이 아니라 그 안식으로 나아간 날이기 때문이다.

4. 은혜 언약이 명백히 나타났을 때, 언약의 내용에 따라 사람들의 종교적 안식은 노동에 앞서야 하며, 이는 마치 일곱째 날 안식일에서 노동과 안식의 순서가 행위 언약 안에서 의무와 특권의 순서에 부합하는 것과 같다(눅 1:74-75; 갈 3:12; 마 19:17).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 때 주간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첫째 날로 변경하셨다.

1. 하나님께서는 주간 첫째 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될 것임을 예언하셨다(겔 43:27; 시 118:24).

2. 이 날은 '주의 날'로 명시되었는데, 유대인의 안식일에 병 고침 이외의 행위를 한 날들은 한 주간의 어느 날에도 특별히 연관되거나 불리지 않았으며, 부활만이 그 이유이고, 하나님이 이 날을 특별히 거룩하게 하여 공적 예배일로 구분하지 않았다면 그 날이 '주의 날'이라 불릴 이유가 없다(계 1:10).

3. 그리스도께서는 그 날에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고 그 날에 놀라운 성령 강림이 있었다(요 20:19,26; 행 2; 레 23:16; 민 28:26).

4. 신약 교회 관련 모든 계시를 주님에게서 받았고 성령의 인도로 모든 진리를 깨달은 사도들은 첫째 날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켰다. 그 날에 성도들이 모여 주의 만찬을 나누었으며, 바울은 트로아에서 7일간 머문 뒤 주간 첫째 날에 설교하고 주의 만찬을 베풀며 자정까지 계속했다(행 20:7). 이들은 또한 그 날에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을 걷도록 권면하였다(고전 16:2; 고전 11:2,23). — 사도들은 유대인의 안식일에 자주 설교했으나, 이는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이 그 날 회당에 모였기 때문이었다(행 13 등).

### 그리스도인의 안식일 시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은 자정 이후 아침에 시작된다.

1. 그리스도께서는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마 28:1; 막 16:2,9).

2. 그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이 끝나는 시점인 첫째 날이 밝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마 28:1,3).

3. 안식일 다음 날 저녁 또한 그 안식일에 포함된다(요 20:19).

### 경건일과 안식일에 관한 주의사항

사람들이 죄 없이 경건일을 임의로 정할 수 없다.

1.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령과 말씀에서 주간 안식일에 특별한 존귀를 부여하셨다. 그러나 사람이 경건일을 정하면 그 존귀를 훼손하게 된다. 사람이 정한 경건일이 많이 지켜지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주간 안식일이 크게 모독된다(출 20:8; 겔 43:8).

2. 하나님은 자신의 예식적 경건일을 폐지하시고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다른 날을 대신 정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다(골 2:16-23; 갈 4:10-11).

3. 경건일을 축복하고 그것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며, 사람에 의해 정해진 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는 근거는 성경에 없다(출 20:11).

4.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간 6 일을 세상 일에 종사하도록 허락 혹은 요구하므로, 이 계명은 사람 정한 모든 경건일을 배제한다(출 20:8-9). 6 일을 세상 일에 허용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하며(갈 5; 갈 1; 고전 7:23; 마 15:9), 만약 경건일 준수를 요구받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사람에게 순종해서는 안 된다(행 4:19; 행 5:29). — 금식과 감사의 날은 대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정해지며, 이를 지키는 것은 그 날 자체에 거룩함이 있다고 전제하지 않는다(욥 1:14; 욥 2:15; 행 13:2; 행 14:23; 마 9:15).

### 주간 안식일의 거룩한 준수

주간 안식일은 다음과 같이 거룩히 지켜져야 한다.

1. 육체 노동, 발갈기, 씨뿌리기, 거두기 같은 노예적 노동뿐 아니라 매매 같은 시민적 일, 과학 연구나 학문 같은 자유로운 일, 사교적 오락과 여가 활동 등 다른 날에 허용되는 모든 세속적 행위를 온전히 중단하는 거룩한 휴식이어야 한다(출 20:9;

사 58:13; 느 13; 고전 7:5). 우리의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큰 영적 기쁨과 마음의 경건함을 동반해야 한다(계 1:10; 사 58:13).

2. 긴급하거나 자비로운 사역에 필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온종일 공개적·사적·비밀적 하나님의 예배 행위에 드러져야 한다(계 1:10; 눅 23:54; 시 92; 막 1:35-39; 행 2:42; 행 13:14-15,44; 행 16:13; 행 20:7; 행 17:11; 눅 24:14,17).

## 안식일의 더러움과 위반

안식일은 다음과 같이 더럽혀진다.

1. 전체나 일부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그 도래 전에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공개적·사적·비밀적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예배 의무와, 방문·치료·가난한 자 구제·가족 먹이기와 같은 필수적·자비로운 행위조차 생략하는 경우(느 8:12; 막 3:3-5; 눅 13:16; 눅 14:1-4; 마 12:7-12).
2. 요구된 의무를 피상적이고 육체적이며 무심하며 지루하게 수행하는 경우(마 15:7; 암 8:5; 말 1:13).
3. 불필요한 수면, 쓸데없는 말, 헛소문, 게으른 휴식(마 20:6).
4. 죄된 행위나 악을 예배 장소에 들이는 경우(렘 44:4; 속 11:8; 겔 20:21; 겔 22:26).
5. 불필요한 세상일과 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생각, 말, 행동(사 58:13; 암 8:5).

(출 16:23-30; 민 15:22-36; 마 24:20; 느 13:16-17) 이 계명의 순종을 촉구하는 부가 이유들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원래 소유자로서, 세속적인 일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일곱 날 중 여섯 날을 허락하셨는데, 이는 우리의 세속적인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며, 이를 통해 지치게 하여 안식일의 영적 쉼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게 한다(출애굽기 20:9; 출애굽기 31:15).

2. 우리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특별한 소유권을 주장하셨으므로, 이를 빼앗는 것은 신성모독적이며,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파멸적인 행위가 될 것이다(출애굽기 20:10; 출애굽기 31:15; 신명기 5:14).

3. 하나님의 본보기는 가장 존귀하고 구속력이 있으므로, 안식일을 속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보기를 모방할 가치가 없는 것이라 경멸하며, 창조와 구속의 일들을 기억할 가치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다(출애굽기 20:11; 출애굽기 31:17).

4.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하시고, 이를 하나님의 공적 예배를 위한 특별한 영광의 날로 구별하시며, 그분의 백성에게 영적 복을 주시고 심지어 이 세상에서의 행복까지 증진시키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무시하지 않고, 이를 준수하고 거룩히 지켜야 한다(출애굽기 20:11; 이사야 56:2,4-7; 레위기 25:20,22).

## V. 다섯 번째 계명과 상대적 의무

다섯 번째 계명은 상대적 의무를 규정하며 매우 많은 실천적 종교를 포함하고, 이 점에서 다음 다섯 계명의 기초가 된다. 이들은 모두 이 계명의 준수 정도에 따라 순종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현재 부패 속에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인간을 서로 우월자, 하위자, 혹은 동등자 위치에 두셨다; 그리고 상대적 의무가 어떤 온정 어린 정동(affections)으로 수행되어야 하는지를 표시하기 위하여, 자연 부모뿐 아니라 남편, 주인, 목사, 치안관, 그리고 그 밖에 존귀, 연령, 은사 혹은 은혜에 있어 상위에 있는 자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 불리며, 아내, 종, 백성, 신민 및 모든 하위자는 자녀로 비유된다.

이런 모든 관계에 맞는 의무를 가장 정확히 수행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필요하다.

1.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하여(출애굽기 20:12; 에베소서 4-6; 골로새서 3-4; 디도서 2-3; 로마서 12-15; 데살로니가전서 2-5; 베드로전서 2-3).

2.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기 위하여(에베소서 4:24-25; 베드로후서 1:7,9).

3.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한으로서(요한일서 2:6,29; 에베소서 5:25; 누가복음 2:51).

4. 하나님과 그 종교를 존중하기 위하여(디모데전서 6:1; 디도서 2:10; 마태복음 5:16-17,27; 마태복음 22:16-21; 창세기 5:22,24; 창세기 18:17,19; 베드로전서 3:6,16).

5.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이끌어 좋은 본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베드로전서 3:1-2; 고린도전서 7:16; 디모데전서 4:12; 빌립보서 2:15-16; 마태복음 5:16).

6. 자신의 수치를 방지하고, 개인적 거룩함을 증진하며, 관계가 우리에게 축복과 존귀가 되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를 찬양하게 일으키기 위하여(시편 119:6; 히브리서 12:14; 욥기 31:17-20; 갈라디아서 6:10; 룖기 3:1; 예레미야 35:4; 고린도후서 9:11-14; 욥기 29:13).

## 부모와 자녀의 의무

부모가 자녀에게 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태중에 있을 때 세심히 보호하기(사사기 13:14).
2. 생명이 생기는 즉시 간절히 기도하기(창세기 25:21-22; 사무엘상 1:11), 특히 자녀가 죄나 죽음의 위험에 처했을 때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기(욥기 1:5; 사무엘하 12:15-16; 시편 22:10).
3. 자녀가 언약 안에서 태어나도록 열심히 돌보며,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엄숙하고 자주 언약을 부여잡기(이사야 44:3; 창세기 17:7-9).
4.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빌기(누가복음 1:67; 시편 127:3-5; 시편 128:3).
5. 많은 엄숙함 속에 은밀히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후, 공개적으로 언약의 표인으로 헌납하기(출애굽기 4:24; 누가복음 1:59).
6. 특히 영아기와 어린 시절에 그들을 따뜻한 애정과 돌봄으로 보살피기(이사야 49:15; 호세아 9:14).
7. 적절한 음식과 의복을 공급하기(디모데전서 5:8; 고린도후서 12:14; 전도서 2:18-19).
8. 선한 예절을 교육하고(잠언 31:28; 베드로전서 3:8), 학교 교육을 맡기며(디모데후서 3:14), 유익한 직업도 익히게 하기(창세기 4:2; 룖기 3:11; 잠언 22:29).
9.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인 것들을 탐구하도록 격려하며, 세례 서약을 자주 상기시키기(열왕기상 18:12; 잠언 2-4; 잠언 6-7; 잠언 31; 디모데후서 3:15; 출애굽기 12:25-27; 출애굽기 13:14-15; 신명기 6:6-7, 20-21).

10. 심각한 경고와 온유하며 적합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징계로 악을 삼가게 하기(사무엘상 3:13; 에베소서 6:4; 잠언 29:15; 잠언 13:24; 잠언 22:15; 잠언 23:13-14).

11. 좋은 본과 친절한 격려, 상으로 선행을 북돋기(시편 101:2; 잠언 4:4; 역대상 28:9,20; 역대상 22:16).

12. 자녀의 처지, 성품, 동의와 시대적, 특히 영적·영원한 복지를 고려한 적절한 시기에 결혼을 주선하기(룻기 3:1; 고린도전서 7:36; 창세기 24; 창세기 28).

13. 자녀의 이익을 위한 세속적 사안을 신중하게 관리하며 적시에 정리하여 자녀 사이에 다툼과 불화를 예방하기(고린도후서 12:14; 이사야 38:1).

14. 죽을 때 엄숙히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하고 격려하며, 언약의 하나님께 자녀를 축복하고 맡기기(창세기 27-28; 창세기 49; 예레미야 49:11).

자녀가 부모에게 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다정한 사랑과 애정(창세기 46:29; 로마서 1:31).

2. 자녀로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레위기 19:3).

3. 부모에 대한 존중하는 태도(레위기 19:32; 말라기 1:6; 창세기 31:35; 열왕기상 2:19).

4. 정당한 명령에 즉각 복종하기(골로새서 3:20; 창세기 27:13; 누가복음 2:51; 에베소서 6:1).

5. 부모의 지도, 훈계, 꾸중, 징계에 진심으로 복종하기(잠언 1:8; 잠언 13:1; 히브리서 12:9).

6. 직업, 결혼, 또는 중요한 다른 일에 관한 합리적인 조언을 기꺼이 따르기(신명기 7:3; 예레미야 29:6; 고린도전서 7:37-38; 창세기 24:34; 창세기 21:21; 창세기 28:1-2; 창세기 29:19).

7. 부모의 친절에 애정을 담아 보답하며, 부모가 나이가 들어 연약해질 때 부양하기(디모데전서 5:4; 마태복음 15:4-6; 창세기 47:12; 요한복음 19:27).

8. 부모를 존경하고 그들의 좋은 충고와 본을 따르며, 그들의 가르침과 재산을 올바르게 관리하고, 정당한 빚을 갚아 부모의 명예가 되게 삶을 살아가기(시편 45:16; 시편 127:3-5; 시편 128:3).



## 부부 간의 의무

부부가 서로에게 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주 안에서만 결혼하며,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결혼하며, 하나님께 깊이 상담하고 엄숙히 결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주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 결혼하기(고린도전서 7:39; 고린도후서 6:14; 신명기 7:3-4; 고린도전서 10:31; 베드로전서 4:11).
2. 서로에게 매우 다정한 결혼 사랑을 베풀기(에베소서 5:21,28).
3. 평화롭고 애정 어린 동거를 이루기(베드로전서 3:7; 고린도전서 7:5,10,15; 창세기 12:11).
4. 서로를 기쁘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기(창세기 27:9; 고린도전서 7:33).
5. 서로에게 쾌활하게 행동하기(전도서 9:9; 잠언 5:19).
6. 서로를 존경하기(고린도전서 11:7; 베드로전서 3:4; 잠언 31:11,28; 창세기 16:6; 창세기 18:12).
7. 가장 다정한 동정심을 가지고 서로의 고통, 부담, 슬픔, 근심, 기쁨 등을 함께 나누기(갈라디아서 6:2; 로마서 12:16; 히브리서 13:3).
8. 죄를 범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서로의 약점을 숨겨 주기(잠언 10:12; 베드로전서 4:8; 사무엘상 25:25).
9. 영혼, 몸, 명예, 재산에 관해 서로에게 신의와 충실을 다하기(베드로전서 3:7; 히브리서 13:4; 잠언 14:1).
10. 서로의 영적 복지를 깊이 걱정하며, 서로를 돌보면서 기도하고, 다정하게 권면하며, 본으로써 행하기(베드로전서 3:7; 열왕기하 4:1,9-10; 고린도전서 7:16; 사무엘상 1:8; 고린도후서 13:9-10; 욥기 2:9-10; 전도서 4:9-10; 디모데전서 5:1; 레위기 19:17).
11. 가정을 함께 돌보고 경건하게 다스리기(디모데전서 5:8; 창세기 18:19; 여호수아 24:15).

남편이 아내에게 지는 특별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다정하게 보살피고 보호하기(룻기 3:9; 사무엘상 30:18; 창세기 16:6).
2. 생활을 부양하기(디모데전서 5:8).
3. 아내를 지도하기(잠언 2:17; 베드로전서 3:7).

아내가 남편에게 지는 특별한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복종하며, 남편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기(디모데전서 2:11-12; 에베소서 5:22,24; 골로새서 3:18; 베드로전서 3:1,5).
2. 기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중하기(베드로전서 3:2,6; 에베소서 5:33).
3. 남편에게서 배우고자 할 때 기꺼이 배우기(창세기 3:16; 디모데전서 2:11; 고린도전서 14:35).
4. 가정에 제공된 것을 검소하게 관리하기(잠언 31:29; 잠언 14:1; 디도서 2:5-6; 베드로전서 3:3-4).

## 주인과 종의 의무

주인이 종에게 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악한 종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저주를 가족에 들일 수 있기에 채용 대상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시편 101:6; 창세기 39:3-4).
2. 종의 능력을 신중히 고려하여 일거리를 적절하게 분배하기(시편 112:5; 창세기 29:14-15).
3. 일에 관해 적절한 지시를 내리기(잠언 31:27).
4. 일에 대해 적절한 양식과 품삯을 주기(잠언 27:27; 야고보서 5:4; 레위기 23:43; 신명기 24:14-15).

5. 교만해지지 않도록 친근함, 권력, 음식 등에서 적절한 지위를 유지하기(잠언 29:21).
6. 온유하게 대하며, 종이 변명하거나 정당화할 때 기꺼이 들어주기(골로새서 4:1; 욥기 31:32; 열왕기하 5:13).
7. 종에 관한 나쁜 소문을 듣는 것을 꺼리기(잠언 29:11).
8. 병들거나 연약한 종을 보살피기(마태복음 8:6; 사무엘상 30:13).
9. 특히 성실하고 부지런한 종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베풀기(신명기 15:13-14,18; 신명기 25:17).
10.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기도록 부르셨으므로 종들을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훈련하는 데 힘쓰는 일(여호수아 24:15; 창세기 18:19).

종이 주인에게 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함께 일하려 애쓰기(잠언 3:33; 예레미야 10:25).
2. 마음속으로 주인을 존경하고 존중하기(베드로전서 2:18; 말라기 1:6; 에베소서 6:5).
3. 외적으로 주인을 공경하기(말라기 1:6; 디모데전서 6:1-2).
4.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성실히 일하기(창세기 24:34-41; 창세기 39:8-9; 미가 7:6).
5. 할당받은 양식, 품삯, 휴식을 엄격히 지키기(창세기 30:33; 잠언 31:15,18).
6. 꾸중과 징계에 온유하게 순종하기(디도서 2:9; 베드로전서 2:18-20; 창세기 16:9).
7. 맡은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쾌활하며, 신실하게, 준비되어, 부지런히 수행하기(디도서 2:9-10; 시편 123:1-2; 골로새서 3:23-25; 창세기 29:20; 마태복음 24:45; 누가복음 16:6; 열왕기하 5:22; 창세기 31:6,38; 잠언 18:9; 잠언 22:29; 로마서 12:11).
8. 가족 예배에 성실히 참석하고, 가족 교육에서 유익을 얻도록 힘쓰는 일(잠언 4:7).

## 목사와 백성의 의무

목사가 백성에게 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역을 위한 적절한 준비를 확실히 갖추기(요한일서 1:1-3; 고린도후서 4:13).
2. 적절한 부르심을 받아 백성 가운데 확립되기(베드로전서 5:3; 예레미야 23:21-22,32; 로마서 10:15; 히브리서 5:4).
3. 백성의 성품과 영적 상태를 현명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게 사역을 조절하기(빌립보서 2:19-20).
4. 가장 다정한 사랑으로 영혼을 돌보고 보살피기(데살로니가전서 2:7-8).
5. 백성의 상태—가난한 이, 병든 이, 악인 등—에 맞게 신실하고 공정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기(디모데후서 4:2; 데살로니가전서 2:3-4).
6.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백성의 행동을 감시하기(히브리서 13:17).
7. 습관적으로 그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기(에베소서 1:15-19; 에베소서 3:14-19).
8. 자신의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생생하고 빛나게 본보이기(히브리서 13:7-8; 디도서 2:7; 디모데전서 4:12; 데살로니가전서 2:1-10).

백성이 목사에게 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자로서 특별히 존경하기(고린도후서 5:20; 고린도전서 4:1-2; 요한계시록 1:20).
2. 그들의 수고를 사랑하고 깊은 정을 보이기(데살로니가전서 5:12-13; 갈라디아서 4:14-15).
3. 그들을 위하여 및 그 사역의 성공을 위하여 많이 열심히 기도하기(로마서 15:30-31; 에베소서 6:19-20; 데살로니가전서 5:25).
4. 그들이 집행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성례에 부지런히 참석하기(히브리서 10:25; 누가복음 10:16; 열왕기하 4:22-23).

5. 그들을 그리스도의 대리인으로서 권고, 꾸짖음, 징계에서 복종하기(히브리서 13:17; 마태복음 10:40).

### 치안관과 신민의 의무

치안관이 신민에게 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선한 법을 제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스가랴 8:16; 역대하 19; 시편 72; 시편 82).
2. 지혜와 공정함과 애정을 가지고 통치하기(역대하 1:10).
3.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신민의 정당한 권리와 특권을 보호하기(디모데전서 2:2; 잠언 28:16).
4. 좋은 본과 의로운 법으로 참된 종교만을 증진하기(이사야 49:23).
5. 악인을 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격려하기(로마서 13:3).

그리고 신민이 치안관에게 지는 의무는, 1.

하나님의 대리인, 형상, 제도로써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롬 13:1-6; 시 82:6; 삼상 26:16-17; 잠 24:21).

2. 그들의 행위를 가능한 한 자비롭게 이해해야 한다(삼상 26:19; 출 22:28; 전 10:20; 뱌후 2:10; 유 8).

3. 그들의 정당한 법률에 복종해야 한다(롬 13:5; 딤후 3:1-2; 살전 2:4).

4. 정당한 세금을 기꺼이 납부해야 한다(롬 13:6-7; 눅 20:25).

5. 그들을 적들로부터 방어해야 한다(삼하 18:3; 삼상 26:15).

6. 그들을 위하여 성실하고 열렬하게 많이 기도해야 한다(딤후 2:1-2).

7. 그들 및 타인에게 명예와 위안과 복이 되도록 그들의 통치 아래에서 성실히 살고자 힘써야 한다(사 6:13; 사 65:8).

연장자, 은사, 은혜에 있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거룩하고 모범적인 행실로 그 우위를 드러내는 것(딤후 2:2).
2. 그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길을 권면하고 경고할 모든 기회를 잡는 것(고전 2:2).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마땅한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것(레 19:32).
2. 그들의 권고와 교훈을 간절히 구하고 즉시 복종하는 것(벧전 5:5).
3. 선한 점에서 그들을 열심히 본받는 것(고전 11:1).

평등한 자끼리 지는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서로에게 가장 정다운 사랑과 평화를 기르는 것(살전 3:13; 히 12:14; 롬 12:9-18; 롬 14:19; 고후 13:11).
2. 서로를 존경과 명예에서 앞세우는 것(롬 12:10; 빌 2:2-3).
3. 공손하고 친절하며 서로의 복지를 증진하고 기뻐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벧전 3:8; 벧전 4:8; 롬 12:10,15; 롬 14:19; 고전 10:24).
4. 충실히 서로를 경고하고 책망하는 것(레 19:17; 살전 5:14).
5. 고난 중에 서로에게 부드럽게 동정하며 앞서 나아가는 것(갈 6:2; 히 13:3; 롬 12:15).
6. 서로를 사랑과 거룩하고 신중한 행위로 자극하는 것(히 10:24; 엡 4:31-32).

이러한 관계에 반하는 죄는 위에 언급한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정반대로 행동하는 데 있으므로, 별도로 자세히 다루지 않겠다. 이 계명은 둘째 돌판에서 첫째일 뿐 아니라, 유일하게 독특한 약속, 곧 올곧은 자에게 장수와 번영이라는 약속이 붙어 있다(출 20:12; 엡 6:2).

장수는 복이다.

1. 사람이 나이와 함께 은혜 안에서 자랄 때(시 92:14).
2. 이성이 온전히 작동하고 신체적 활력이 적절할 때(신 34:7).
3.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유익을 줄 때(수 24:25-29).

이러한 상황에서 노년은 존경받을 만하며(잠 16:31; 레 19:32),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경험이 더해지고(요일 2:13), 사탄이나 세상의 유혹에 저항하는 능력이 증대되며(딤후 2:13; 뱀전 5:9),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이를 세우며 영원한 행복을 위해 익어가게 하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욥 5:26; 고후 9:6; 빌 1:23-24; 수 24:31).

관계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자 중 일부는 오래 살고 외적인 번영을 누리지만, 이는 은혜의 약속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려운 저주로 인한 것이다(신 27:26; 갈 3:10). 그러므로 그들은 참된 위로를 얻지 못하며, 누리는 모든 것이 지옥을 위한 익는 과정이다(신 32:15; 호 13:6). 반면, 관계의 의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하는 일부는 일찍 죽거나 고난을 당한다. 하지만 이는 그들의 수행에 하나님의 앞에서 뚜렷한 결함이 있거나, 고난이 매우 복되게 작용하여 이후 하늘에서 생의 여분을 누리기 때문이다(시 99:67,71,75; 히 12:5-11; 욥 5:17; 잠 3:12; 시 94:12; 계 3:19; 사 27:9; 사 57:1; 빌 1:23; 롬 8:28; 고후 4:17).

## VI. 여섯 번째 계명: 생명의 보존과 증진

여섯 번째 계명은 일시적인 생명을 보존하고 영적 생명을 증진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자신의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다음과 같이 증진해야 한다.

1. 영생의 말씀인 성경과 그것을 이루는 복음 제도를 신중히 연구함으로써(요 5:39; 사 34:16; 사 8:20; 잠 8:34-36).

2.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이요 생명으로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여,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을 잉태하고 유지하며 완전하게 함으로써(요 6:27; 요 11:25; 뱀전 2:1-4).

3. 죄와 그 모든 유혹 및 외형을 피함으로써(잠 11:19; 잠 4:23; 잠 8:36; 잠 5:8; 살전 5:22; 막 14:38; 막 13:31,37; 뱀전 5:8; 고전 16:13).

우리는 자연 생명을 다음과 같이 보존해야 한다.

1. 새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고 공고히 함으로써(시 119:94; 시 16:1; 시 17:8; 삼상 25:29).

2. 생명을 해치려 하는 자들로부터 정당하고 필요한 방어로 지킴으로써(눅 22:30; 눅 6:29).

3. 적절한 음식, 약품, 노동, 의복, 휴식, 오락으로 몸을 다스림으로써(엡 5:29).

4. 서서히 생명을 파괴하는 음주, 폭식, 음란함을 피함으로써(눅 21:34; 잠 5; 잠 7; 잠 6:26,32; 잠 23:26-35; 잠 9:18).

5. 내면의 정동(affections)을 온유, 평화, 인내, 겸손이라는 적절한 상태로 유지함으로써(잠 17:20,22; 잠 15:13,15; 잠 18:14).

우리는 이웃의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증진해야 한다.

1.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복음의 거룩함이라는 매력적인 본을 보여 줌으로써(마 5:16; 고전 7:16; 뱀전 3:1-2; 속 8:23).

2. 자기 지위에 맞는 성실한 가르침과 믿음·거룩함에 대한 자극을 주며, 열렬한 기도를 함께 함으로써(살전 5:14; 창 43:29; 사 2:3,5).

3. 그들이 죄를 범하거나 유혹에 빠지는 것을 막고자 힘씀으로써(유 23; 살전 5:14).

또한 우리는 이웃의 자연 생명을 보존해야 한다.



1. 불법적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함으로써(시 82:3-4; 잠 24:11-12).
2. 공의 및 자선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생필품을 제공함으로써(잠 3:27-29; 잠 27:27; 잠 31:15; 잠 20:27; 잠 19:17; 약 2:15-16; 요일 3:17).
3. 그들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모든 선을 행하려는 마음의 정동을 가지며, 그들이 우리에게 끼친 상처를 능히 용서하고, 가장 친절한 행위로 그들의 삶을 편안하게 함으로써(엡 4:31-32; 롬 15:1; 고후 13:5,7; 골 3:12-13; 마 5:42,44; 행 16:28).

그러나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결코 거짓말하거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부인하거나, 불법적 직업에 종사하거나, 죄된 책락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어떤 하나님의 계명도 다른 계명과 결코 충돌해서는 안 된다(롬 7:12).
2. 선을 위해 악을 행하는 자는 정당한 심판을 받는다(롬 3:8).
3. 사람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복종해야 한다(눅 14:26; 마 10:28; 행 5:29; 행 4:19).
4. 육체를 살리려고 영혼을 죽여서는 안 된다(마 16:25-26).
5. 양심적으로 죄보다 죽음을 택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위한 진정한 순교자이다(계 2:10).

또한 본 계명은 가족에 대한 불인도함도 금지한다(잠 12:10; 민 22:27-29; 출 23:5,12,19; 신 22:4-7; 눅 13:15; 눅 14:5).

## 자기 살인과 이웃에 대한 살인

더 나아가, I. 자기 살인, 즉

1. 하나님의 구원의 수단을 소홀히 하여 영혼을 죽이는 것(잠 8:34-36),
2. 하나님의 성령의 직간접적인 역사에 반대하는 것(잠 29:1; 행 7:51; 사 63:10; 히 10:26-31,38; 벧후 2:20-22),
3. 계속되는 불신앙, 회개하지 않음, 죄의 진행으로 인해 영혼을 죽이는 것(겔 18:31-32; 렘 4:14; 렘 13:23,27; 렘 6:8; 롬 2:4-5),

또는

4. 직접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육체를 죽이는 것으로, 이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특권을 침해하며 극도의 교만과 불만, 조급함, 절망을 드러내고, 본질적으로 지옥 불길로 우리를 몰아가며(삼상 31:4-5; 삼하 17:23; 마 27:4-5),
5. 우리 자연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예: 생명을 해치려는 생각이나 계획, 욕 7:15; 질투와 분노, 욕 5:2; 잠 14:30; 고난 중 조급과 불만, 시 37:1,8; 히 13:5; 잠 15:13; 잠 17:22; 과도한 세상적 슬픔, 고후 7:10; 삼상 1:15; 세상 걱정에서 지나치게 집착, 마 6:31,34; 시 4:6; 음식·의복·약·휴식·오락을 미신, 부주의, 탐욕, 심술, 분노, 사탄의 유혹으로 소홀히 하는 것, 골 2:23; 전 10:8; 전 6:2; 왕상 21:4; 과음, 폭식, 음란, 빌 3:19; 잠 20:1; 잠 23:1,21; 잠 23:9-35; 잠 5:10; 잠 7:22,27; 잠 9:18; 눅 21:34; 눅 16:19; 눅 17:27; 사 22:12-14; 롬 13:13-14; 벧전 2:11; 과도한 노동, 전 7:22-23; 불필요한 위험 노출, 삼하 23:16-17; 마 4:5-7).

## II. 이웃에 대한 살인인데,

1. 그들의 영혼을 죄악되고 무분별한 모범으로 죽이는 것(마 18:6-7),
2. 그들의 죄를 예방하거나 회개하게 도우려 하지 않는 것(겔 3:18; 삼상 3:13; 레 19:17; 요일 3:15),
3. 그들과 죄에 동조하거나 권하고 자극하며 가르치고 돕거나, 죄를 기쁘게 여기는 것(호 5:11-12; 삼하 13:5; 왕상 21:25; 잠 7:10-27; 시 50:18; 행 8:1; 롬 1:32; 시 49:13; 잠 14:19),
4. 그들의 죄로 인해 마음을 완악하게 하거나 슬퍼하지 않으며, 그들이 닥칠 위험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애 1:8,17; 애 5:16-22; 겔 9:4; 스 9:5-15; 단 3:19-20; 렘 9:1-21),
5. 그들의 육체를 부당하게 죽이는 것으로, 합법적 전쟁(수 6-13; 민 31; 삼상 15)이나 필요한 자위, 살인·간음·우상숭배·신성모독·중대한 안식일 모독에 따른 정당한 형벌이 아닌 경우(이 경우 하나님이 각자의 지위에 따라 공의로운 복수를 행하기 위해 사람의 손에 칼을 쥐게 하셨다),
6. 법 없이 또는 법의 외관을 빌려 부당하게 살인하는 것(창 4:8-11; 삼하 11:15; 왕상 21:1-12),

7. 부당한 전쟁이나 사적 결투로 살인하는 것(합 2:12; 롬 12:19; 잠 16:32; 잠 25:28; 마 5:39,44),
8. 마음으로 죄된 분노, 진노(마 5:22; 엡 4:26-27; 골 3:12-13,21), 질투(잠 14:30; 잠 27:4), 증오, 악의(요일 3:15; 딤후 3:3), 복수심, 원한, 기쁨(마 6:15; 잠 24:17-18), 이웃의 고통에 무관심한 태도(잠 12:10; 욥 10-14; 암 6:6)로 살인을 행하는 것,
9. 말로서 다툼, 거친 욕설, 모욕적·경멸적 비웃음, 분노 어린 저주(잠 23:29,33; 갈 5:15; 고전 5:11; 시 64:3-4; 시 52:2; 시 57:4; 시 140:3; 시 22:6,16; 시 109:18; 잠 12:18; 잠 15:1; 엡 4:31; 삼하 16:5,7; 벧전 3:9; 마 5:22; 히 11:33; 요 19:3; 왕하 2:23-24), 거짓 고발(눅 23:2; 행 24:5),
10. 화난, 뚱한, 격분한 표정으로 악의적이거나 해를 즐기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창 4:5; 욥 12; 행 7:54),
11. 행위로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을 거두는 것(눅 10:31,32; 약 2:15-16; 욥 31:26; 마 25:42),
12. 육체, 노동, 재산을 해쳐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것(출 21:18,22; 겔 22:7; 사 3:14-15; 미 3:3; 마 24:9-10; 사 5:8) 등이 이에 해당한다.

## VII. 일곱 번째 계명은, I.

우리 자신의 마음, 말, 행동에서 정절을 지키는 것, 욥기 31:1; 골로새서 4:6; 베드로전서 3:2; 그리스도와,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새 언약의 결혼 관계에 우리 온 인격을 자리 잡도록 힘쓰는 것, 이사야 54:5-10; 예레미야 32:38-41; 그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 이사야 44:3-4; 에스겔 36:27; 로마서 8:9,13; 그리고 그의 말씀, 피, 그리고 은혜로운 영향력을 매일 간절히 적용하여 내면의 욕망을 죽이고 참된 거룩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 요한복음 15:3; 요한복음 17:17; 시편 119:9; 히브리서 9:14; 히브리서 10:22; 로마서 8:13; 고린도후서 7:1; 잠언 2:1-19;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도록 습관적이고 빈번하며 열렬하게 자신을 맡기는 것, 시편 16:1; 시편 17:8; 시편 19:11-13; 이식된 은혜를 생생하게 운동하는 것, 베드로후서 3:18; 베드로후서 1:5-8; 고린도후서 7:1; 마음, 눈, 귀에 대한 경계, 잠언 4:23; 시편 18:23; 욥기 31:1; 사무엘하 11:2; 창세기 39:7; 잠언 7:21-22; 잠언 19:27; 음주와 음식, 여가생활에 절제함, 누가복음 21:34; 방탕하고 부정한 무리 피하기, 잠언 2:16; 잠언 9:6; 잠언 5:8-9; 합법적 직무에 부지런함, 로마서 12:11; 사무엘하 11:2; 창세기 34:1; 에스겔 16:49; 부정에 대한 유혹이나 그 기회에 신속하고 간절히 저항하는 것, 창세기 39:1-9; 고린도전서 6:18; 잠언 5:8; 적절할 때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 고린도전서 7:2,9,39; 그리고 께짝 동료와 부드러운 사랑과 정동(affections)으로 함께 사는 것, 베드로전서 3:7; 잠언 5:19-20; 전도서 9:9.—

## II. 이웃의 정절 증진에 힘쓰

이웃의 마음, 말, 행동에서 정절을 지키도록 돕는 것, 그들을 올가미에 빠뜨리거나 더럽히는 어떤 행위도 삼가며, 창세기 38:14-15,26; 디모데전서 2:9; 본을 보이고, 교육하며, 경고하고, 책망하며, 기도함으로 그들의 정절을 증진하고 보존하도록 힘쓰는 것, 잠언 2; 잠언 5; 잠언 7; 잠언 9.

### 금지하는 행위:

#### I. 부정한 완성 행위들

비자연적, 동물적, 사탄적, 자기중심적, 소돔적인, 근친상간적인 더러움들, 레위기 18 장; 레위기 20 장; 창세기 38:9,18; 유다서 8; 로마서 1:26-27; 에베소서 5:12; 고린도전서 5:1.—간음은 다처제를 포함하나 결혼과 이전 결혼 서약 위반의 위증보다 훨씬 덜하며 죄를 성화하지 못함, 호세아 4:18; 창세기 2:18-24; 첩 관계, 열왕기상 11:1,3;—미혼자 간 간음, 골로새서 3:5-6; 에베소서 5:5; 고린도전서 6:9,15;—여성에 대한 강간 또는 폭력적 더러움, 신명기 22:25;—기혼자 간 부적절하고 때 이른 친밀함, 데살로니가전서 4:3-4; 히브리서 13:4; 레위기 15:10; 레위기 18:18; 고린도전서 7:5.—

#### II. 부정한 행동으로 향하는 모든 것

그 모든 접근들—내면에 거하는 욕망, 부정한 상상, 생각, 욕구, 마태복음 5:28; 마태복음 15:19; 부정한 표현을 말하거나 듣거나 쓰거나 읽는 것, 에베소서 4:29; 잠언 7:18,21; 부정한 시선, 유혹을 마음에 받아들이거나 다른 이를 유혹하는 것, 베드로후서 2:14; 이사야 3:16-26; 가볍고 부적절한 행동, 이사야 3:16; 잠언 7:13; 음란한 포옹과 희롱, 잠언 7:13;—이 모든 것에 자극이 되는 것들, 가령 연극, 음란한 그림, 에스겔 23:14-21; 부적절한 옷차림, 잠언 7:10; 헛된 사람들과의 교제, 창세기 34:1; 잠언 5:8-12; 게으름, 에스겔 16:49; 과음과 과식, 잠언 23:30; 예레미야 5:8; 로마서 13:13; 야고보서 5:5; 베드로전서 4:3; 부적절한 결혼 지연, 고린도전서 7:7-9; 부당한 이혼, 마태복음 5:32; 고린도전서 7:12-13; 마태복음 2:16; 부부 사이의 불친절, 고린도전서 7:5; 평생 독신서약, 결혼금지, 마태복음 19:10-11; 디모데전서 4:3;—불법적 결혼 인정, 마가복음 6:18;—성매매 허용, 신명기 23:17; 히브리서 13:4.—

우리가 삼가야 할 모든 부정행위다. 이유는,

1. 하나님을 심히 모욕함, 창세기 39:9; 시편 51:4; 고린도전서 3:17; 고린도전서 6:18; 욥기 31:11.
2. 다른 죄의 형벌로 자주 그릇됨, 잠언 22:14; 로마서 1:26-27; 호세아 4:14; 아모스 7:17.
3.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적고, 매우 어렵게 회개함, 잠언 2:19; 잠언 22:14; 잠언 23:27-28; 전도서 7:26; 사도행전 24:25.
4. 육체를 모욕하고 종종 죽음, 고린도전서 6:18; 잠언 5:11-12; 잠언 7:22.
5. 인격에 영구적인 오명을 씌, 잠언 6:33.
6. 재산을 격분껏 소멸함, 잠언 5:10; 잠언 6:26; 욥기 31:12.
7. 두려운 방식으로 영원한 파멸을 확보함, 잠언 6:32; 잠언 7:26-27; 잠언 9:18; 히브리서 13:4; 고린도전서 6:9-10; 갈라디아서 5:19,21; 요한계시록 21:8; 요한계시록 22:15; 골로새서 3:5-6; 에베소서 5:5-6.

---

#### 여덟 번째 계명: 재물과 외적 재산의 증진

이 계명은 우리 자신과 이웃의 재물과 외적 재산을 증진할 것을 요구한다. 이 명령은 인간의 시간적인 재물에 대한 특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시민 재산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의 임박한 멸망을 염려하여 기회가 있을 때 그 재산을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성도들의 부양에 드리는 경향이 있었다. 어쩌면 소유권 자체보다는 그 재산의 사용을 공유한 것이다, 사도행전 2:44-45; 사도행전 4:34-37.

#### I. 우리 자신의 재물과 외적 재산을 증진시켜야 한다

1.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상속자인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통하여 새 언약의 권리를 가지는 것, 고린도전서 3:22; 히브리서 1:2; 마태복음 6:33.
2. 새 언약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기도하여 필요한 것과 적절한 것을 베풀어 지켜주시도록 구하는 것, 신명기 8:18; 시편 127:1; 시편 128:1-2; 잠언 30:8; 마태복음 6:11.
3. 우리의 지위와 능력에 맞게 모든 것을 신중히 준비하고 돌보는 것, 디모데전서 5:8.
4.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과 이웃에 이익이 되도록 적절한 직업이나 사업에 능력과 자본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 창세기 2:15; 창세기 4:2; 에베소서 4:28; 잠언 14:8; 잠언 13:4; 잠언 10:4; 잠언 22:29; 이사야 28:26; 창세기 9:19-20.
5. 정당한 수고의 결실을 적절히 누리는 데 기꺼이 허락하는 것, 전도서 3:12-13; 전도서 2:24; 전도서 9:9; 시편 128:2.
6. 재산을 낭비하지 않고 쓸모없는 데 허비하지 않으며 유익한 것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재산 관리자로서 자산을 절약하고 신중히 관리하는 것, 이사야 55:2; 요한복음 6:12; 잠언 11:24; 잠언 21:20.
7. 불필요한 소송 및 외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거나 직업적 명예를 더럽히는 일을 삼가는 것, 마태복음 5:40; 고린도전서 6:1-8.
8.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부드러운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웃과 그 가족을 외적으로 곤란하게 하지 않고,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추구하는 것, 신명기 25:1.
9. 모든 세상의 즐거움을 우상화하지 않고 절제하는 것, 디모데전서 6:17.
10. 빨리 부자가 되려는 성급함과 정당한 재산에 불법한 이득을 섞어 저주가 되게 하는 모든 것을 조심하는 것, 디모데전서 6:4; 잠언 28:22; 야고보서 5:4.
11. 가난한 자와 경건한 목적을 위한 관대한 그러나 신중한 기부, 잠언 19:17; 잠언 3:9-10.—

## II. 이웃의 재산을 증진시켜야 한다

1. 그들과 그들의 재산이 하나님과 새 언약의 관계 안에서 안전하게 보존되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것, 야고보서 5:16; 빌립보서 2:4.

2. 그들의 손실과 피해를 막도록 주의 깊게 힘쓰는 것, 신명기 22:1; 출애굽기 23:4-5.
3. 정직한 거래로 자신 재산보다 이웃 재산을 해치지 않는 것, 마태복음 7:12; 시편 15:2,4; 스가랴 7:9-10.
4. 발견하거나 부당하게 취한 것을 반드시 돌려주는 것, 신명기 22:23; 레위기 6:2-5; 욥기 20:10,18; 에스겔 18:7; 누가복음 19:8; 민수기 5:6-8; 적절한 주인을 찾을 수 없으면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 하며, 이는 모든 것의 주님을 위한 청지기 역할이다.
5.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무이자 또는 서로의 곤란을 돕기 위한 대부를 기쁘고 신중하게 제공하며, 빌립보서 5:42; 누가복음 6:35-36; 신명기 23:20; 레위기 25:34;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 자신이 무절제하거나 게으른 탓이 아니라면, 열왕기하 4:1.
6. 진정으로 우리 소유인 것을 자비로 돕고,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경건한 사역을 증진하는 데 기부하는 것, 누가복음 11:41; 누가복음 16:9; 갈라디아서 6:10; 디모데전서 5:8; 에베소서 4:28; 전도서 11:1; 요한일서 3:17; 잠언 3:9; 잠언 19:17.—

이 기부는 하나님께 대한 빚진 자로서 양심적으로 해야 하며, 잠언 3:9; 마태복음 6:1-2; 기쁜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7; 비밀적으로, 다만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공표가 필요할 때는 제외, 마태복음 6:3-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례하여—일상적 경우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은 되게; 고린도전서 16:2; 시편 112:5,9; 창세기 14:20; 창세기 28:22;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의 가난한 지체들, 곧 인류 형제자매를 존중하여 행하는 것, 고린도전서 11:22; 갈라디아서 6:10.—

이렇게 드린 기부는,

1.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청지거나 세입자로 간주하므로 가장 합리적이며, 의로 여겨지는 것, 누가복음 16:10-12; 디모데전서 6:17-18; 시편 112:9; 잠언 10:2; 잠언 3:27.
2. 하나님을 본받아 가장 영예롭고, 사도행전 20:35; 누가복음 6:35; 고린도후서 8:9.
3. 우리와 자손을 위한 필요한 것을 확보하고 부유하게 하며, 심지어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데 가장 도움이 됨, 잠언 28:27; 잠언 19:17; 전도서 11:1-2; 시편 37:25-26; 잠언 3:9-10; 잠언 11:24-25; 시편 112:3.

4. 고난을 예방하거나 고난 중에 위로를 확보하는 데 가장 주목할 만한 수단, 다니엘 4:27; 시편 41:1-3.

5. 마지막 심판 때 그리스도께서 가장 명예롭게 선포하실 것, 마태복음 25:34-40.

6. 천국에서 영원히 풍성하게 은혜로 보상받을 것, 마태복음 5:7; 마태복음 6:4; 누가복음 16:9.

## 금지하는 행위

### 1. 자신의 재물을 방해하는 것

1. 게으름, 사업 없이 살거나 사업에 수고하지 않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3:10-11; 디모데전서 5:13; 데살로니가전서 4:11-12; 에스겔 16:49; 창세기 3:19.

2. 부주의와 나태, 잠언 28:19; 잠언 14:1; 잠언 13:4; 잠언 23:21; 잠언 6:10-11; 잠언 24:30-34.

3. 모든 세속적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신명기 8:18; 시편 107:38.

4.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경솔히 낭비하는 것, 잠언 21:17; 잠언 28:7; 누가복음 15:13,30.

5. 소송과 보증에 무모하게 연루되는 것, 마태복음 5:40; 고린도전서 6:1-8; 잠언 6:1-5; 잠언 18:18; 잠언 22:26-27; 잠언 25:9-10.

6. 수도원, 과잉 재단, 필요 없는 사람, 게으름뱅이, 낭비자, 무모한 대출자, 무책임한 계획자, 낭비하는 자 등에게 어리석게 기부하는 것, 시편 112:5.

7. 세속적 물건을 얻거나 유지하는 데 불신앙적 근심에 빠지는 것, 마태복음 6:31,34; 잠언 28:22; 전도서 4:8.

8. 재물을 제대로 누리거나 자신의 일에 적절한 지출을 하지 못하는 심술궂고 비인격적인 태도, 전도서 6:1-5.

9. 도박꾼, 배우, 꼭두각시 공연자, 덩기장수, 전당포업자, 밀수업자 등 불법 직업에 종사하거나 과도한 이익만 탐하는 행위로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는 것, 스가랴 5:4; 호세아 5:12; 학개 1:6.



2. 이웃의 재물과 외적 재산을 방해하는 행위는, 특정 인물, 국가, 교회의 인원이나 물건을 직접 도둑질하거나 약탈하는 것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간접적 방법으로도 일어난다.

1. 그들의 재산을 욕심내는 마음 상태, 히브리서 13:5; 골로새서 3:5.

2. 게으름, 에베소서 4:28; 데살로니가후서 3:10-12; 데살로니가전서 4:11-12; 마태복음 20:6.

3. 불필요한 구걸로 관대한 자와 진정한 가난한 자 모두가 자기 몫의 자비를 잃게 하는 일, 에베소서 4:28.

4. 부정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 사도행전 19:24-25; 이 가운데는 도박, 음주 경주, 조야한 결혼식 등이 포함됨, 하박국 2:15; 잠언 13:15.

5. 영적 은사, 면죄부, 교회 직분, 성례, 징계 등 성스러운 것들을 금전, 호의 등으로 사고파는 시몬행위, 사도행전 8:20; 욥기 15:34.

6. 남편, 아내, 자녀, 종들의 가족 사기, 디모데전서 5:8; 잠언 31:22; 잠언 28:24; 디도서 2:9-10; 시편 50:18.

7. 이웃의 무지나 필요를 악용해 사고팔 때 부당 이익을 취하는 것, 마태복음 7:12; 레위기 19:11.

8. 판매 물품을 부당하게 과대광고하거나 구매 물품에 대한 불리한 평판을 퍼뜨리는 일, 잠언 20:14.

9. 상품을 희석하거나 다른 종류의 물품을 팔면서 제공하는 일, 아모스 8:5-6.

10.

상품에 거짓된 추나 또는 측량기를 사용하는 것, 미가 6:10-11; 아모스 8:5; 잠언 11:1; 레위기 19:36.

11. 빛을 불성실하게 갚는 것, 조기에 갚지 않거나 전액을 갚지 않거나 현재 통화로 갚지 않는 것, 시편 15:4; 사도행전 5:1-9; 창세기 23:16; 로마서 13:8.

12. 부정직한 동업, 우리가 재고나 노동에 덜 참여하면서도 이익의 같은 양 또는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6; 마태복음 7:12.

13. 나쁜 이웃 관계, 경계석을 옮기거나 그들의 곡물, 풀, 재산, 편의를 해치는 것; 그들의 하인이나 고객을 유인하거나; 그들의 사업이나 농장 등에 끼어드는 것, 잠언 22:28; 잠언 23:10; 이사야 5:8; 예레미야 9:6; 미가 2:2; 미가 7:2-4.

14. 신뢰에서의 부정직, 특히 가난한 자, 고아, 과부에게 부정직한 행위, 잠언 23:10-11; 누가복음 20:47; 또는 청지기, 감독, 중매인 등에서의 불성실, 누가복음 16:1-10.

15. 대출에서의 부정직, 약속된 시기에 갚을 능력이 전혀 없으면서 빌리거나; 빌린 물건을 더 나쁜 상태로 반환하거나; 필요할 때 부지런한 가난한 자에게 빌려주기를 거부하거나 감당할 수 없는 자에게 고리대금을 요구하는 것, 출애굽기 22:14,25-27; 마태복음 5:42; 시편 15:5; 누가복음 6:35.

16. 부정직한 부채 계약, 성실한 의사나 적절한 갚을 능력의 표시 없이 약속하는 것; 불필요한 부채를 지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 로마서 13:8; 마태복음 7:12; 약속한 시기에 정당한 임금이나 빚을 갚지 않는 것, 잠언 3:27-29; 시편 37:21; 정당한 빚을 갚기를 꺼리면서 한편으로는 다른 이들에게 즉시 현금을 주는 것; 채권자를 법정에 소송하도록 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찾게 하거나, 빚을 보증인에게 떠넘기는 행위, 이사야 58:4; 데살로니가전서 4:6; 이사야 59:14.

17. 사기성 파산, 낭비, 교만, 게으름, 부주의, 무모함 또는 불법적인 사업 추진으로 돌이킬 수 없이 빚을 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중단하거나; 채권자에게 재산 일부를 숨기거나; 약속한 빚의 일부나 전부를 갚을 의지가 없는 것, 누가복음 15:13; 예레미야 9:4-6.

18. 자선을 베풀지 않는 재산 사용, 필요한 상품을 독점하거나 시장을 선점하거나 공공지를 부당하게 점유하거나 마을을 말소하는 행위 등, 야고보서 2:13; 잠언 11:26; 이사야 5:8; 미가 2:2.

19. 억압, 우월한 부, 권력 또는 영향력으로 이웃을 누르거나, 성가신 소송, 담보물 보유 등, 미가 3:2-3; 에스겔 22:7; 말라기 3:5; 야고보서 2:6; 고린도전서 6:1-6; 마태복음 5:40-41; 출애굽기 22:26-27; 신명기 24:6.

20. 강탈, 소유자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통치자가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거나, 종들이 임금을 속이거나, 대부업자가 고리대금을 부과하는 행위, 고린도전서 5:11; 고린도전서 6:10.

21. 도둑과의 동조, 그들을 도둑질하도록 유혹하거나, 훔친 것을 은닉하거나, 힘이 있음에도 도둑질을 제대로 단속 또는 처벌하지 않는 행위, 시편 50:18; 잠언 29:24; 이사야 1:23.

22. 가난한 자에게 무자비한 태도는 진정한 도둑질이며, 에베소서 4:28; 하나님께 대한 불성실한 배은망덕, 마태복음 24:41-45; 마태복음 18:23-35; 누가복음 16:10; 가난한 자를 죽이는 행위, 요한일서 3:15; 야고보서 2:16-17—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결핍됨을 나타내며, 요한일서 3:17; 마태복음 25:41-43;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대하시는 원인이 되고, 야고보서 2:13; 잠언 21:13; 야고보서 5:4; 무심코 우리의 재산을 낭비하며, 잠언 11:24-25; 야고보서 5:2-3; 계속되면 결국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 마태복음 25:41-43.

23. 사역자, 학교, 기타 경건한 용도로 소득에 상응하는 지원을 거부하는 것, 느헤미야 13:10; 느헤미야 10:32,34; 학개 1:4; 말라기 3:9.

24. 선한 본보기, 종교적 교육, 열렬한 기도 및 이웃의 현세와 영원한 이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기타 유익을 결핍하여 신성모독하는 행위, 로마서 13:8; 히브리서 10:24.

## IX. 아홉 번째 계명은 자기와 이웃의 명성 및 이에 연결된 진리에 관한 것으로,

### I. 사람과 사람 사이 진리의 유지 및 증진에서,

1.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실제 상태에 따라 진리만을 말하는 것, 시편 15:2; 데살로니가후서 2:11.
2. 모든 적절한 때에 진실을 선언하는 것, 스가랴 8:16,19.
3. 법정에서 필요할 때 진실만을 자유롭게 명확하며 완전하고 성실하며 편견 없이 증언하는 것, 잠언 14:5; 잠언 19:5; 사무엘상 19:4-5; 요한복음 7:19; 역대하 19:9; 사무엘하 14:16-20.

### II. 자기 자신의 좋은 명성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서,

1.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옮겨줘서 그의 새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의 인격에 보증케 하는 것, 요한계시록 3:12; 이사야 56:5; 이사야 62:4,12; 예레미야 32:40.
2. 이성적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지체, 하나님의 친구로서 자신의 존엄을 뚜렷하고 확실하며 감동적으로 자각하는 것, 시편 100:3; 고린도전서 6:15,17,19-20; 고린도전서 3:16-17,23; 에베소서 4:30; 에베소서 5:30; 예레미야 3:4,14,19,22.
3. 진리와 우리의 인격에 영예로운 생각만을 품는 것, 빌립보서 4:8.
4. 자신에 대해 칭찬이나 비난을 막론하고 오직 사실인 진리만 말하며, 정당한 필요가 있을 때만 이를 행하는 것, 잠언 25:14; 잠언 26:16; 잠언 27:2; 사람에게 고백할 신적 부름이 없는 비밀 죄와 약점은 신중히 숨기는 것, 잠언 25:9-10; 부당한 공격에 직면했을 때 온유하게 자신의 인격을 방어하는 것, 요한복음 5 장; 7~8 장; 10 장; 사도행전 22 장; 24 장; 26 장; 고린도후서 10~11 장; 고린도전서 9 장; 갈라디아서 1~2 장; 여호수아 22 장; 사무엘상 22:15; 24:9-15; 26:18; 꾸짖음을 받을 때 슬픔과 부끄러움 가운데 솔직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잠언 28:13; 야고보서 5:16.
5. 행동에서 모든 최악이나 경솔함과 그 모든 모습, 그리고 모든 선하고 자신의 지위에 부합하는 모든 것을 지속해서 따르는 것을 삼가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22; 전도서 10:1; 빌립보서 4:8; 골로새서 1~4 장; 에베소서 4~6 장; 데살로니가전서 1~5 장; 로마서 12~15 장; 베드로전서 1~5 장; 베드로후서 1:4-8; 3:11,14,18.

### III. 이웃의 좋은 명성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데에서,

1. 그들이 하나님의 친구와 자녀라는 명예로운 인격을 갖도록 성실히 힘쓰는 것, 갈라디아서 4:19; 야고보서 5:19-20; 잠언 10:12; 베드로전서 4:8; 로마서 10:1.
2. 그들을 자비롭게 존중하는 것, 고린도전서 13:8; 빌립보서 2:3; 로마서 12:10.
3. 그들의 약점을 친절히 덮어주는 것, 베드로전서 4:8; 야고보서 5:20; 잠언 10:12.
4. 그들의 은사, 은총, 선한 행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것, 고린도전서 13:4-7; 고린도전서 14:5,7; 고린도전서 16:15-18; 고린도후서 8:16-24; 빌립보서 2:19-30; 골로새서 4:12.
5. 부당하게 공격받을 때 그들의 인격을 방어하는 것, 사무엘상 22:14.
6. 그들에 관한 좋은 이야기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들의 명예를 해치는 이야기는 듣기를 꺼리는 것, 고린도전서 13:6-7; 시편 15:3; 사무엘상 22:14-15.
7. 험담하는 자,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를 진심으로 막으며, 이들이 합당한 불명예와 처벌을 받도록 힘쓰는 것, 시편 101:5; 잠언 25:23; 고린도후서 12:20.
8. 진정한 사랑에서 이웃을 돌보고 적절한 권고, 경고, 책망으로 이끌어 주는 것, 레위기 19:16-17; 마태복음 18:15-17; 데살로니가전서 5:14; 데살로니가후서 3:14.

### 이 계명은 다음을 금지한다.

#### 1. 진리를 해치는 모든 것,

1) 사법 절차에서 당사자, 증인, 변호인, 판사가 하는 말이나 행위, 출애굽기 23:1-7; 신명기 19:15-19; 레위기 19:11-16; 잠언 19:5,9; 잠언 25:18; 이사야 59:13-15; 예레미야 9:3-6; 미가 7:3; 말라기 3:5. 이 경우의 거짓과 속임수는 특히 하나님의 심판권 아래,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를 받아 판사들이 그분의 대리인으로 엄숙히 선서하며 행하는 판단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특별히 중대한 죄이며, 사람들의 양심과 이익에 치명적이다.

2) 사법 외 상황에서,

1. 성실하지 않음, 약속을 경솔히 하거나, 그 약속을 전제로 하는 지위나 관계에 임하며, 기억하고 이행하려는 적절한 관심이 없는 것, 로마서 1:31; 디모데후서 3:3; 예레미야 9:3-6; 누가복음 16:10; 신명기 32:20.
2. 부당한 침묵, 죄악을 스스로 책망하거나 통치자에게 고발하지 않는 것, 레위기 19:17; 5:1; 신명기 13:8; 마가복음 8:38; 에베소서 5:7,11; 마태복음 18:15-17.
3. 부적시하거나 악의적으로 진리를 말하거나, 진리를 왜곡하는 행위, 전도서 3:7; 잠언 29:11; 시편 52:2-4; 사무엘상 22:8-9; 사도행전 16:16-17; 마태복음 26:60,67.
4. 이중적 표현, 즉 상대가 이해할 뜻과 다른 의미로 말하거나, 마음속에 일부 단어를 숨겨 표현의 뜻을 다르게 하는 것, 창세기 3:3-4; 20:2,12; 26:6-7.
5. 위선 또는 위장, 실제와 다르게 보이거나 행하는 것, 마태복음 23:13-30; 디도서 1:16; 디모데후서 3:5; 이사야 29:13; 이에 포함되는 문서 위조, 위조 화폐 등이 있다.
6. 단순 거짓말, 실제로는 거짓이나 자신은 진실이라 믿고 말하는 것, 스가랴 8:16,19.
7. 성급한 판단, 적절한 확실성 없이 사실을 단정하거나 부정하며, 근거 없는 부연 설명을 하는 것, 고린도전서 13:6.
8. 심각한 거짓말, 거짓임을 알면서 이웃을 속일 의도로 말하는 것, 호세아 4:2; 예레미야 9:3,5; 이사야 59:13. — 모든 거짓말은 농담이든, 호세아 7:3; 이익을 위한 것이든, 욕기 13:7; 열왕기하 5:22; 로마서 3:8; 죄를 숨기기 위한 것이든, 창세기 18:15; 열왕기하 5:25; 사도행전 5:3,8; 위험 회피를 위한 것이든, 창세기 12:11-13; 20:2; 26:7; 마가복음 14:68-71; 해를 끼치기 위한 것이든, 잠언 6:19; 예레미야 9:3,5; 사도행전 6:11,13; 24:5; 누가복음 23:2; 또는 단순 습관과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이든, 사무엘하 13:30; 시편 129:29—그리고 모든 속임수는 마귀의 것이며, 요한복음 8:44; 하나님의 본성에 반하며, 신명기 32:4; 사무엘상 15:29;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저주받고, 하나님께 혐오스럽고 영원히 인간에게 파멸적이다, 시편 5:4-6; 잠언 6:17,19; 잠언 14:5; 잠언 19:5,9; 잠언 29:12; 에베소서 4:25; 골로새서 3:9; 요한계시록 21:8; 22:15.

그러나 사람들이 드러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을 숨기거나, 비유적 표현 및 정당한 사유에 따른 행동이나 태도의 변화는 속임수나 거짓을 뜻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16:2,5; 열왕기하 6:19; 예레미야 38:24-27; 요한복음 15:1; 아가 2:1-3; 열왕기상 18:27; 22:15; 전도서 11:9; 창세기 19:2-3; 고린도후서 1:17; 요한복음 3.

## II. 자기 자신의 좋은 명성에 해가 되는 모든 것,

1. 마음속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높이거나 낮게 생각하여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에 대한 빛을 덜 진 것으로 여기는 것, 로마서 12:16; 잠언 25:14; 26:12,16; 출애굽기 4:10,14.

2. 말에서 자신을 부당하거나 부적절하게 비난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진리를 부인하거나 거짓을 확인하거나, 헛된 자랑으로 자신을 내세우는 것, 잠언 25:9,16; 욥기 27:56; 잠언 28:13; 열왕기상 5:25; 사도행전 5:8; 창세기 18:15; 사무엘하 1:10; 누가복음 18:11; 잠언 25:14; 27:2; 누가복음 16:15; 디모데후서 3:2.

3. 행실에서 최악이나 경솔한 일을 행하거나, 악명 높은 육체적 동료와 어울리거나, 자신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해가 되는 위치와 상황에 자신을 내세우는 것, 사무엘상 2:24; 잠언 5:8-9; 열왕기하 8:13.

## III. 이웃의 좋은 명성에 해가 되는 모든 것,

1. 마음속에서 부당한 의심이나 악의적인 추측을 품거나, 디모데전서 6:4; 자비롭지 못하고 성급한 판단을 하거나, 마태복음 7:1-4; 고린도전서 13:7; 사도행전 28:4; 자신을 다른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삼거나, 로마서 14:3,10; 그들의 양심, 상태, 의도를 하나님인 양 판단하거나, 로마서 14:3-4; 그들의 목적, 말, 행동을 오해하거나, 느헤미야 6:6; 로마서 3:8; 시편 69:10; 그들을 은밀히 멸시하거나, 사무엘하 6:16; 누가복음 18:9-11; 그들의 정당한 명예를 시기하거나, 마태복음 21:15; 민수기 11:29; 요한복음 3:26; 그들의 불명예를 기뻐하거나, 예레미야 48:27; 또는 그들을 과도하게 칭찬하는 것, 고린도전서 4:6; 유다서 16.

2.

우리의 말에서,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하려는 의도로 진리를 말함으로써(눅 15:2; 막 6:3), 불필요하게 그들의 약점을 폭로함으로써(창 9:22), 그들의 실제 결점을 심하게 부각시킴으로써(마 7:3-5), 이미 회개하였고 잊혀진 이전의 타락에 관한 악명을 되살림으로써(삼하 16:7), 그들의 비밀을 누설함으로써, 특히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생긴 경우에(잠 17:9; 16:28; 10:12; 25:9; 딤후 3:4), 그들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감소시키려 시도함으로써(스 4:12-13; 마 12:22-24), 그들에 관한 거짓 소문을 만들고 퍼트리거나 받음으로써(출 23:1; 느 6:6; 시 15:3; 렘 18:18; 20:20), 그들을 거짓으로 비방함으로써(시 50:20; 히 10:33; 시 22:6; 69:7,20; 42:10), 권세자 앞에서 그들에 대해 거짓되거나 악의적인 고발을 함으로써(눅 23:2; 행 24:5; 렘 38:4), 그들이 없는 자리에서 뒷담화하며 헐뜯고 그들의 인격을 훼손함으로써(롬 1:29,38; 시 35:15-16; 15:3; 69:10-13; 잠 25:23; 고후 12:20), 서로 다른 가문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을 퍼뜨림으로써(레 19:16; 잠 11:13; 20:19; 18:8; 26:20,22; 살후 3:11; 딤후 5:13), 헐담꾼, 비방자, 중상자들을 격려함으로써, 적어도 그들이 합당한 치욕과 처벌을 받게 하지 않음으로써(잠 29:12; 25:23), 경멸적인 조롱을

함으로써(갈 4:29; 시 22:7-8; 35:16,19; 욥 30:9; 히 11:36), 욕하고 나쁜 이름으로 부르며(마 5:22; 고전 6:10; 5:11), 열렬한 비난과 말다툼을 일삼음으로써(시 52:2,4; 64:3; 렘 9:23; 유 9-10; 딤후 3:3).

3. 우리의 행동에서, 의심스럽거나 경멸적인 몸짓으로(시 22:7; 잠 6:12-13), 충분한 근거 없이 그들을 악명 높은 자로 여겨 등을 돌림으로써(갈 2:12; 딤후 1:15; 4:10), 그들이 죄되고 경솔한 일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거나 막지 않음으로써; 그리고 조언, 격려 또는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 그들의 인격에 해를 끼침으로써(삼상 3:13; 2:13; 겔 33:6,8).

#### IV. 진리와 우리 자신 및 이웃의 좋은 명성을 동시에 해치는 모든 행위

1. 모임에서 지나치게 말하기 쉬운 태도; 이는 우리 마음이 경박하며 교만함을 드러내어 우리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로 나타내는 것이다(전 5:2-3; 10:14; 잠 14:23; 10:19; 12:23; 13:3,6; 15:2,14; 17:27; 29:11,20).

2. 시민적 혹은 종교적 선을 이루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잡담(마 12:36; 엡 5:4).

3. 지나친 농담(엡 5:4).

4. 아침은 주는 자에게 많은 저속함, 거짓, 속임수, 배신을 포함하며, 받는 이에게도 많은 저속함과 자만을 드러낸다(시 12:3; 36:3; 행 12:22-23).

#### X. 열 번째 계명과 그 요구 사항

열 번째 계명은 우리 마음의 가장 내밀한 성향과 관련되며, 특히 두 번째 계명들과 맞닿아 나머지 계명들을 지키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 이 계명은 다음을 요구한다.

I. 모든 피조물의 즐거움으로부터 마땅히 떼어놓는 마음가짐, 시 131:1-2; 평소에 마음이 그것들에 무관심한 상태 유지, 눅 14:26; 하나님께서 그것들 안에 두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음, 시 4:6-7; 사 57:10; 17:10; 풍족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 자신에게서 온전히 위로를 얻음, 시 18:46; 삼상 2:1-10; 눅 1:47; 시 142:4-5; 합 3:17-18; 모든 것을 덧없고 일시적인 것으로 봄(고전 7:29), 그리고 이에 대한 탐욕스러운 욕망의 모든 정도를 죽임(마 24:38; 눅 21:34; 갈 6:14; 약 4:4; 요일 2:16).

II.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혜, 직무, 명예, 부, 쾌락 등과 관련한 처지에 대한 완전한 만족, 히 13:5; 딤후 6:6; 빌 4:11. 이 만족은 우리의 죄악됨을 혐오함을 배제하지 않으며, 우리의 고난과 부족을 겸손히 탄식하고, 우리 처지를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들기 위한 정당한 모든 노력에 열심을 다함을 포함한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유일하고 보편적인 규범으로서 우리의 처지의 형태와 정도를 조절하는 데 진심으로 화목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혜롭고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며 극히 자비로운 뜻에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외적인 위로가 거부당하여도 내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우리의 처지를 선하고 매우 선하며, 나아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긴다(마 16:24; 삼상 3:18; 빌 4:6,11-12; 미 7:9; 시 39:9; 119:67,71,75; 애 3:27-39; 욥 1:21; 2:10; 합 3:17-18; 고후 12:10; 삼하 15:25-26; 16:10-12).

—이 완전한 만족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1.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 안에서 발견되는 모든 선의 무한한 근원이자 총합으로서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분깃으로 받아들이고, 매일 그분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한다(시 81:8-10; 73:23-26; 142:4-5; 16:5-11; 23:18; 91; 116-118; 144-146).

2. 새 언약의 하나님이자 친구, 아버지, 남편이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한다(욥 34:33). 그분이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처지를 주관하심을 깨달아야 한다(마 10:30; 6:30; 사 52:7; 46:3-4; 삼하 16:10-12; 삼상 3:18; 시 39:9; 스가랴 13:8-9; 3:9; 롬 8:28-32; 고후 4:17; 신명기 32:4; 33:26-29; 욥 35:14; 사 30:18; 50:10). 또한 그분의 은혜와 자비로만 살아감(창 32:10; 애 3:22; 사 63:7; 46:3-4; 시 36:6-7), 외적 고난과 부족이 영혼에 가장 유익한 부분임을 인식함(애 3:27,29,32-33; 고후 4:17; 시 119:67,71; 욥 33:17-30;



사 27:9; 겔 20:37; 호 2:6-7,14; 5:15; 6:1-2; 미 7:14; 계 3:19; 히 12:5-11; 잠 3:12; 시 94:12; 욥 5:17), 세상의 즐거움이 항상 매우 헛되고 때로는 해롭다는 사실을 깨달음(전 1-12; 1:2,14,17; 잠 23:5; 1:32; 신명기 32:15; 호 13:6), 우리의 시험과 부담, 섬김, 최후 심판이 우리의 소유에 비례함을 믿음(마 25:15-30; 눅 19:13-26; 12:47-48),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길을 보여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심을 확신함(사 63:9; 46:3-4), 죽음과 영원, 곧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는 곳이자 고난의 행복한 열매를 거둘 곳이 가까이 있음을 깨달음(마 16:25; 19:29; 딤후 4:6-8; 행 14:22; 요 16:33; 롬 8:17-18,37-39; 고후 4:17-18; 딤후 2:10-12; 계 2:7,17,26; 3:5,12,21).

III. 이웃과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르고 자비로운 마음가짐—하나님을 위하여 그 인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소유를 특히 하나님을 위하여 친절히 존중하며, 그의 현재적·영적·영원한 복지를 간절히 바라고 진심으로 기뻐함(롬 13:9-10; 신 22:1; 롬 12:15; 히 13:3; 시 35:13-14; 빌 2:4).

IV. 완전히 거룩한 마음가짐(롬 7:7; 벧전 1:15-16; 레 11:44; 마 5:48; 22:37,39).

## 금지하는 것들

이 계명은 금지하는 바가 다음과 같다.

I. 자신의 처지에 대한 모든 불만족, 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내적 반항을 포함함(호 4:16; 13:6), 우리 처지에 대한 초조함이나 슬픔(왕상 21:4; 고후 7:10), 하나님이 정하신 처지의 형태나 상황에 대한 내적 불쾌감(욥 18:4), 하나님이 불공정하거나 잔인하게 우리 처지를 정하신 것처럼 내적으로 비난하는 행위(욥 9:17-18; 10:16; 30:12).

II. 이웃의 은사, 은혜, 관계, 부, 명예, 즐거움 등에 대한 질투와 슬픔, 초조함(욥 5:2; 요 3:26; 고전 13:4; 시 37:1,7-8; 약 3:14,16; 렘 12:1; 시 73:2-15; 엡 4:4-5,11; 갈 5:21,26; 잠 3:31; 24:1,19).

### III. 창조된 즐거움에 대한 탐욕.

1. 자신이 가진 것에 대한 지나친 욕망으로 마음이 고정되어 그것 자체를 위하거나 잘못된 목적으로 또는 최고선으로 바라며, 과도한 열의로 필요한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그것에 사로잡힌 듯 사용함(골 3:5; 눅 14:18-21; 12:21; 고전 6:12). 또한 영혼에 해가 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함(약 4:3-4; 고전 10:31; 호 10:4).
2.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 하나님이 분별하여 우리 권한 밖에 둔 것을 탐하는 것(삼하 23:15; 수 7:21),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또는 불법적 목적을 위해 얻을 수 있는 것을 탐하는 것(약 4:3; 왕상 21:2-15; 렘 17:11; 욥 17:10-18), 지나치게 열망하여 그것을 얻기 전까지 마음이 불안하고, 얻지 못하면 초조해함(창 30:1; 왕상 21:4; 시 4:6; 17:14; 딤후 6:9-10).

### IV. 이 모든 죄의 욕망이 나오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부패한 성향.

이 악한 욕망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마음에 존재하나 동의하지 않은 상태(롬 7:14-24).
2. 본질적으로 동의하나 욕망의 실행에는 동의하지 않은 상태(마 5:28; 전 6:9).
3.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실제로 죄를 모의·설계·행함(약 1:15; 마 15:19; 막 7:21-22).
4. 사악한 행위를 실행 직전까지 모의 준비하는 상태(삼상 23:26; 에스더 3; 5-6; 행 16:27; 21:31-32; 23:10,12-24).

## 성찰

잠시 멈추라, 내 영혼이여!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 내가 그분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그분께서 나를 심판하고 내 영원한 상태를 정하실 엄격하고 광범위한 기준은 어떠한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언할 수 없이 죄인인가! 오랫동안 여러 형태와 더욱 심각한 방식으로 이 모든 계명을 어겨왔는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신 법에 반대하는 죄악은 얼마나 끔찍하고 혐오스럽고 범죄적인가!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기 위해 우리 본성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이 율법의 모든 고소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표현할 수 없는 영원한 행복에 이르게 하시는 자비는 얼마나 크고 무한한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내적 성향의 변화는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빌미삼아 이 율법을 짓밟으려는 배신자들은  
얼마나 비열한가! 그러나 내 양심은 그 의가 나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 의와 은혜와 영광을 적용하도록 인도함을 알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며 하루 종일 나의 기쁨 어린 목상 대상인가? 나는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그분의 구속 사랑으로 살아가며 매일 이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 III. 십계명의 세 가지 고찰 형태

I.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어떠한 언약 관계 이전에 존재하는 자연법으로서,

1. 창조자이자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과하셨다.
2.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에 새겨져 인간 창조 시 마음에 기록되었으며, 이를 온전히 지킬 능력도 포함한다(창 1:26-27; 전 7:29).
3. 긍정적 계명은 없었으나,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모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도록 의무화했다(신 12:32).

4. 마음과 삶이 완전히 거룩하게 확증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이를 어기는 자가 무한한 형벌을 받는다고 명시한다(롬 6:23).

5. 무죄한 사람이 아무런 공로 없이 온전한 순종을 한다 해도 영원한 행복에 대한 약속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사람들이 이 법 아래서 미래에 쉽게 즐거운 삶의 규칙으로 확고히 될 것이라 약속되지 않았다(욥 22:23; 롬 6:23).

6.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겔 18:4; 롬 6:23).

7. 모든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로서 이 법의 대상이다(롬 2:14-15).

## II. 행위의 언약으로서,

1. 절대자 하나님이 거룩하고 완전한 인간과 우정을 맺으시고 동맹과 친교를 맺으시면서 이 법을 부과하셨다(창 2:17).

2. 자연법의 모든 명령뿐 아니라 몇몇 구체적 제도를 포함한다(창 2:16-17).

3. 위반한 자에게 무한한 형벌을 선고할 뿐 아니라, 완전히 지킨 자에게는 영원한 행복을 약속한다(갈 3:10; 신 27:26; 겔 18:4; 마 19:17; 갈 3:12; 롬 10:5).

4. 이 법은 하나님의 주권자로서 일방적으로 부과된 것일 뿐 아니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수용하여 준수할 것을 약속한 언약이다.

5.

원래의 범위와 목적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롬 7:10; 롬 8:3; 롬 10:5, 6).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모든 요구에 부합하는 순종 외에는 어떤 순종도 받지 않으시기에(갈 3:10,12), 완수자의 인격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의 순종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었다(마 19:17; 마 5:18; 롬 10:5).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 율법 언약을 맺으셨으므로, 그의 모든 자연적 후손들은 복음의 청취자로서 은혜 언약의 외적인 배분 아래 있더라도, 자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 아래 있다(엡 2:3; 롬 9:30-32). 그러나 모든 참된 신자들은 그들의 보증인으로서 대신하여 이를 완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완전하게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죽었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진노를 견디게 하지 않고, 그들의 거룩한 성품과 행위는 영원한 행복을 얻는 어떤 권리도 주지 않는다(롬 6:14; 롬 7:4; 롬 8:1-4,33-34; 갈 2:19-21; 갈 3:13; 갈 4:4-5; 갈 5:18; 빌 3:9; 딤후 1:9).

### III. 그리스도의 율법 또는 생명의 규칙으로서

이 형태에서,

1. 그것은 창조주이자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의 전권위뿐 아니라 구속주로서 그에 구속력을 부여한다. 하나님 본성은 모든 죄된 것과 절대적으로 양립할 수 없으므로, 그의 거룩함의 사본인 율법은 여전히 본래의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벧전 1:15-16; 레 11:44; 마 5:48).
2.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자 인간이시며 중보자이신 그분으로부터 직접 나오며, 또한 그 안에 화목하고 거하시는 창조주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전 9:21; 갈 6:2; 고후 5:19-21).
3. 그 계명들은 행위 언약의 것과 동일하며, 동일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마 22:36-37; 마 5:48; 벧전 1:15-16; 빌 4:8).
4. 율법의 대상자들은 하나님께 확고히 선포되고 영생의 권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갖고 있으므로, 사법적 상벌의 제재는 없다(요일 3:14; 요 5:24; 롬 5:21; 롬 8:1,33-34). 그러나 그들의 상태, 성향, 행위가 변할 수 있으므로, 율법은 은혜상 보상과 영적 고통의 자유, 하나님과의 위로 있는 교제, 순종에 따른 영광이라는 상과 불순종에는 아버지의 징계가 따른다(시 19:11; 사 64:5; 사 3:10; 고후 1:12; 고전 15:58; 딤후 4:7-8; 딤후 4:8; 히 10:35; 히 12:6-11; 계 3:19; 시 89:30-34; 시 99:8). 이 제재는 신자들의 영적 상태에 부합하며, 그들의 복된 새 언약 상태에 근거한다.

5. 하나님께서 율법을 생명의 규칙으로 주신 목적은, 사람이 그 순종을 통해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호의를 얻거나 영생의 권리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이 이미 확고히 얻은 칭의를 발전시키고, 영생의 시작된 소유를 온 마음으로 감사하며 완전한 구원을 준비하도록 인도하고 결속시키며 격려하는 데 있다. 그리하여 그들의 순종은 최고의 관점에서는 이 땅에서의 행복의 일부이며 하늘에서도 그러할 것이다(시 116:16; 눅 1:74-75; 롬 7:4,6; 갈 2:19; 히 12:28; 딤후 2:14; 뱀전 2:9).

6. 율법은 모든 대상자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힘과 동기와 격려를 가진 것으로 전제한다.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승인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완전히 받아들여짐의 열매로서 우리의 불완전한 믿음의 순종을 인정한다(엡 1:6; 고전 15:58; 히 13:16; 뱀전 2:5; 롬 12:1; 살전 4:1).

7. 모든 신자들만이 이 그리스도의 율법의 대상자이며(고전 9:21; 갈 6:2), 이는 복음 아래서 그들을 구속한다.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추가적 강제력을 더해 이를 강조했다(마 5-7; 마 22:37-40; 롬 12-15; 엡 4-6; 골 3-4; 살전 4-5; 딤후 2-3; 히 10-13; 약 1-계 3). 그리스도와 그 안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의 남편, 아버지, 친구, 모범으로서 계속된 의무를 요구한다(갈 2:19-20; 뱀전 2:4-5,9; 마 28:20; 마 5:44,48). 그리스도와의 연합, 칭의, 입양, 종생, 성화, 영적 위로, 영원한 영화라는 새 언약의 모든 축복은 그들의 계속된 복종을 요구한다(롬 7:4,6; 고후 6:18; 고후 7:1; 딤후 2:11-14; 딤후 3:8,14; 시 116:16; 시 119:32,166; 빌 2:12-16; 뱀전 1:13-16; 뱀전 2:5,9; 갈 5:24-25; 히 12:1-2,14,28; 갈 6:7-8; 롬 8:23; 빌 3:14,20-21).

#### IV. 도덕율은 한 가지 이상의 이러한 형태로 유용하다.

##### I.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유용하다.

1. 하나님, 자신, 이웃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로 이를 결박한다(미 6:8).
2. 하나님의 본성과 일하심이 거룩하고 공정하며 선하다는 것을 드러낸다(롬 7:12).
3. 죄에서 제지하고 미덕으로 격려하는데, 그에 대한 접근이나 유사한 것도 일시적 불행에서의 자유와 지상 행복, 또는 지옥에서 더 큰 형벌을 면하는 것으로 보상받는다(시 19:11; 겔 18; 사 1:19; 신 4-30).
4. 그들의 죄성과 그로 인한 비참함 및 계명을 지킴으로 자신을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한다(롬 3:19-20; 롬 7:8-13).
5. 그리스도, 그의 의와 은혜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영혼에 적용하도록 자극한다(갈 3:24).

## II. 무신론자들에게 유용하다.

1. 그들의 양심을 확신시키고 깨어나게 한다(롬 3:19-20; 롬 7:9; 갈 2:19).
2.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여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갖게 한다(롬 3:19; 롬 2:8-9; 롬 6:19,23).
3. 그들의 욕망의 분노를 억제한다(딤후 1:9).
4. 자기 죄성과 비참, 스스로 회복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능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 이끌리게 한다(갈 3:24; 롬 10:4).
5. 그들 양심에 사람들이 특별히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을 받도록 초대받는 바로 그 죄성과 비참의 성격을 깊이 인식하게 한다(딤후 1:15; 사 46:12; 사 1:18; 사 55:2,7; 사 65:1-2; 마 9:13; 마 18:11; 마 11:28; 잠 1:22; 잠 9:4; 렘 3:1,4-5).
6.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더욱 심한 저주를 받는 곳으로 넘겨준다(요 3:18,36; 히 2:3; 히 10:26-31; 마 11:20-24).

## III. 신자들에게 유용하다.

1.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여 그들을 대신해 행하시고 고난을 받으셨음을 보여준다(갈 4:4-5; 갈 3:13; 롬 8:3-4).
2. 그들의 거룩함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부족함을 보여주어 겸손하게 하고, 스스로의 의를 버리며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천국을 사모하게 한다(빌 3:8-9; 빌 1:23; 롬 7:24; 고후 5:4).
3.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께 감사의 봉사를 해야 하며, 항상 지향해야 할 거룩함의 완전을 가르친다(빌 3:12-14; 딤후 1:5; 고후 7:1; 벰전 1:13-16; 벰후 1:4-8; 마 5:48).
4. 그들의 시작된 성화를 증명하고, 내면에 심겨진 은혜에 따라 주의 율법을 행하는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들을 위로한다(고후 1:12).

## 성찰

내 영혼아,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으로서와 그리스도의 손에 있는 생명의 규칙으로서의 광대하지만 잘 인지되지 않은 차이를 주의 깊게 연구하라. 이를 명확한 체험적 지식 없이 나는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올바르게 분별하거나 실천할 수 없다. 나는 이 거룩한 율법이 갖는 여러 용도를 얼마나 강력히 체험했는가? 내 자신과 타인을 영원한 멸망의 근원과 인장으로 삼게끔 설교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 복음에 대하여—그 내용, 용도, 율법과의 차이점과 연결성

성경에서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한 진리의 전체 체계(막 1:14), 그리스도의 탄생, 생애, 죽음, 부활, 승천의 역사(막 1:1), 은혜 언약의 신약 배분(딤후 1:10), 그리고 특히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설교, 그의 자유로운 구원의 제안(고전 9:14)을 일컫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복음은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하고 자유로운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마 11:5; 눅 2:10-11). 의, 용서, 수용에 대한 하나님의 자유롭고 간절한 제안, 진노의 상속자로서의 입양, 죄 가운데 죽고 더럽혀진 자들을 위한 성화, 가장 비참하고 노예 된 자들을 위한 구속, 잃어버린 자들을 위한 구원—이 반역자들에게 주어진 선물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이 모든 것은 복음이며, 가장 정당하게 '기쁜 소식'이라 불린다(고전 1:30; 행 5:31; 눅 19:10; 시 68:18).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생애 역사는 복음이라 불리는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써 여성으로부터 태어나 율법 아래에 있었고, 우리 대신 순종하고 고난을 받음으로 구원을 구입하였으며,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고 적용하기 위해 하늘에 오르셨음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의 일반적 배분은, 전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목적으로, 그를 우리를 위한 지혜, 의, 성화, 구속으로 만드셨다는 점에서 복음이라 불린다. 신약 배분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죄인들에게 보다 완전하고 명확하며 광범위하고 능력 있게 선포하고 적용하므로 복음이라 불린다(막 16:15; 롬 15:19).

### I. 복음은 엄밀히 말해 다음을 포함한다.

1. 인간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교리적 선언—선택의 목적과 은혜 언약의 기원, 당사자, 체결, 부분, 행정, 중보자의 인격, 직분, 상태, 그리고 그 축복인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칭의, 입양, 성화, 영적 위로, 영원한 영화에 관한 것들(롬 1-11; 갈 2-5; 엡 1-5; 골 1-3; 빌 2:6-11; 딤후 3:16; 사 40-66 등)—이 선언이 명백하거나 비유적이든(출 12; 출 14; 출 16-17; 출 24-30; 레 1-16; 레 23; 레 25; 레 27; 민 15; 민 17; 민 19; 민 28; 히 3-10; 갈 3:8; 히 4:2) 무관하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직분, 관계, 총만함과 하나님 자신이 새 언약 약속 안에서 죄인들에게 완전한 자유의 선물로 주어진 것을 솔직하고 간절히 제안하는 것(요 3:16; 사 42:6-7; 사 55:4; 렘 3:19; 렘 31:31-34; 렘 32:38-41; 겔 11:19-20; 겔 36:25-32).
3. 다양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어,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주시는 그 선물을 특정하게 자신에게 적용하도록 간절히 청하는 하나님의 애정 어린 초청(시 34:8; 시 81:8,10; 잠 1:22-23; 잠 8:4; 잠 9:4-5; 잠 23:26; 속 9:12; 마 9:13; 사 1:18; 사 45:22; 사 44:22; 사 46:12-13; 사 55:1-3,6-7; 렘 3:1,4,14,22; 호 14:1; 겔 33:11; 마 11:28-30; 요 6:37; 요 7:37-39; 고후 5:19-21; 계 3:17-18,20; 계 22:17). 이러한 초청은 의무 수행을 요구하는 측면에서는



복음 위에 확장된 율법으로 환원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려는 의지와 준비, 간절함을 나타내며 그들이 자신에게 받도록 보증하는 면에서는 복음에 속한다. 이 선언, 제안, 초청은 구별되면서도 성경 구절 안에서 종종 한 문장으로 함께 나타나며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복음의 어느 교리 선언도 올바르게 믿지 못하며, 그 선언을 믿는 행위 자체에서 하나님이 초대하신 그대로 제안된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II. 그러므로 이 선언, 제안, 초청의 용도는

1. 그리스도를 그의 인격, 직분, 사역, 충만함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화목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며(고전 2:2; 고전 1:24; 고후 4:3-4,6; 고후 5:18-21; 딤후 3:16),
2.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그의 충만함을 제시하며 제공하고, 그와 교제하도록 애정 어린 초대와 촉구를 하는 것이다(고전 1:9; 잠 9:4-5; 사 45:22; 사 55:1-3,6-7).
- 3.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리스도와 그의 충만함을 우리 마음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우리의 상태와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시편 110:2-3; 고전 1:30; 고후 5:17)

4.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거듭난 마음에 그리스도와 그의 충만함을 더욱 적용하여 우리의 거룩함과 위로를 계속 완성하는 것(요한복음 1:14,16; 20:31; 시편 27:13-14; 갈라디아서 2:20; 에베소서 3:17-19; 2:20-22)

5. 많은 정죄받은 자들의 지식을 넓히고 기질을 부드럽게 하여 외적인 행실을 개혁하는 수단으로서, 그들을 택하신 자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것(히브리서 6:4-5; 베드로후서 2:20; 마태복음 13:19-22; 빌립보서 1:15-18; 민수기 23, 24).

## III. 엄격히 말한 복음은 율법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

1.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이성적 피조물이며 피지배자로서 원래 온전하게 순종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창조된 자로 간주하며, 따라서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과 자신, 이웃에 대해 마땅히 행할 의무로서 올바르게 행사할 것을 명령하고 구속한다(마태복음 22:37-39). 이에 비해 복음은 우리를 죄 많고 스스로 망한 자로 보며,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자비와 은혜에 따라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고 준비하셨으며 주시고자 하시는지를 선언한다(이사야 42:6-7; 49; 53-55; 시편 22; 68; 72; 146). 그러므로 복음의 제안과 초대는 믿는 자들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계속되며, 더 이상은 아니다.

2. 본질적인 모든 점에서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반면, 복음은 그 내용과 표현 모두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자비와 은혜, 즉 선의에서 흘러나온다. 인간 구속에 나타난 그의 자비는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의 발휘만큼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에베소서 1:3-8; 2:4-9; 디도서 3:4-5; 로마서 5:20-21).

3. 율법은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나타내지만(갈라디아서 3:12; 로마서 10:5; 시편 19:11; 이사야 3:10; 1:19), 복음은 본질상 죄인이고 유죄로 판명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으로 나타낸다(로마서 5:5-10,20-21; 이사야 46:12-13; 43:24-25; 55:2,7; 1:18; 44:22; 예레미야 3:4,14,19,22; 시편 68:18; 에스겔 36:25-27,31; 호세아 13:9; 마태복음 9:13; 18:11; 누가복음 15:19,10; 디모데전서 1:15).

#### IV. 율법과 복음의 조화는 서로에 대한 적합성과 보조성에 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율법이 어떤 형태로든 요구하는 모든 것을 약속하고 제안하며 제공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의로움을 마련해 줌으로써 율법이 깨진 언약으로서 요구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확장하며, 율법을 규칙으로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순종의 효과적인 기초를 놓는다. 나아가 복음은 율법이 규칙으로 요구하는 모든 의무에 대한 준비, 도움, 은혜로운 상을 약속하는데, 다음과 같은 본문들이 이를 분명히 증명한다.

| 율법 | 복음 |

| --- | --- |

| 레위기 11:44; 20:7; 베드로전서 1:15-16; 레위기 20:8; 21:23; 22:32; 마태복음 5:48 | 이사야 29:23; 62:12; 히브리서 9:14; 13:12; 에스겔 37:28; 데살로니가전서 5:23 |

| 에스겔 18:31; 예레미야 4:4; 로마서 12:1-2; 에스겔 11:19; 36:26; 예레미야 24:7; 골로새서 3:9-10 | 예레미야 32:39-40; 고린도후서 5:17; 요한계시록 21:5; 신명기 30:6 |

| 이사야 1:16; 야고보서 4:8; 예레미야 4:14; 에스겔 36:25,29; 스가랴 13:1; 요엘 3:21; 이사야 4:3-4 | 신명기 12:32; 야고보서 1:19; 예레미야 7:23; 에스겔 36:27; 11:20; 시편 110:3; 출애굽기 23:21; 마태복음 28:20 |

| 예레미야 31:33; 32:39-40; 출애굽기 20:3; 요한일서 5:21; 고린도전서 30:22; 예레미야 31:33; 32:38; 24:7; 에스겔 37:23,28; 스가랴 8:8; 13:9 | 역대상 28:9; 요한복음 5:39; 베드로후서 31:34; 고린도후서 4:6 |

| 역대하 20:20; 이사야 26:4; 사도행전 16:31; 요한일서 3:23; 요한복음 14:1; 시편 22:27,31; 요한복음 6:37;  
빌립보서 1:29; 베드로후서 1:1; 요한복음 5:25 | 이사야 1:16-17; 55:7; 예레미야 6:8; 에스겔 36:31; 사도행전 5:31;  
호세아 14:8 |

| 예레미야 3:14,22; 호세아 14:1; 이사야 44:22; 10:21; 시편 68:22; 이사야 27:13-14; 에스겔 33:11; 18:30 |  
야고보서 4:10; 베드로전서 5:5-6; 예레미야 13:18 |

| 이사야 2:11,17; 에스겔 16:63; 36:31; 스가랴 3:11 | 야고보서 4:8; 시편 50:15; 이사야 55:6; 시편 91:15; 65:2,4;  
스가랴 12:10; 아모스 5:8; 시편 105:4; 마태복음 7:7 |

| 이사야 58:9; 65:24; 고린도전서 16:13; 에베소서 6:10; 디모데후서 2:1 | 이사야 41:10,14; 40:29,31; 스가랴  
10:12 |

등등 등등 등등 등등 등등.

#### 율법은 언약으로서 복음에 보조적이다.

1. 거울과 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성과 비참함을 보여 주어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제시된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한다(로마서 3:19-20; 7:9).
2. 복음의 약속과 초대와 부합하는 이 매우 불명예스럽고 비참한 특징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오류 없는 증인으로 보여 주며, 그 약속과 초대가 거기에 향한다는 것을 드러낸다(로마서 5:20-21; 3:9-18; 1:28-32; 요한계시록 3:17-18; 잠언 1:22; 9:4; 이사야 1:18; 43:24-25; 46:12-13; 55:2,7; 65:1-2; 예레미야 3:1,45,19; 호세아 13:9; 14:1; 스가랴 9:12; 마태복음 9:13; 11:28; 22:9; 누가복음 14:23; 19:10).
3. 우리의 양심을 죄책감과 진노의 위협으로 채찍질하여 모든 거짓된 피난처에서 내쫓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와 구원의 근거로 삼게 하기 위함이다(로마서 7:7-13; 갈라디아서 3:24).
4.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서 제시된 구주 그리스도를 즉시 영접할 것을 명하는 엄중한 명령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주권자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의 필수적이고 주된 부분이며, 무한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고,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의 주도적 행위로 명령한다(요한복음 3:18; 요한일서 3:23; 로마서 10:3-4; 7:4; 8:3-4).

5. 복음의 신비들에 대한 엄숙한 주석으로서, 하나님의 구속 사랑의 놀라운 본성과 구속의 엄청난 대가, 그리고 율법 밑에서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의 놀라운 행복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요한일서 4:9-10; 마태복음 3:15; 20:28; 누가복음 24:26; 갈라디아서 3:10,12-13; 4:4-6; 히브리서 12:18-24; 다니엘 9:24).

6. 율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는 자들의 영원한 행복에 대한 오류 없는 신적 보증이다(로마서 8:1-4,32-34; 5:19,21).

7. 사람들이 율법을 높이는 순종과 고난 대신 자기의 가증스러운 자기 의를 율법 위에 내세움으로써 율법에 대한 모욕을 행할 때, 그 결과로 복음과 그 안의 하나님의 구속의 피와 은혜에 대한 경멸과 상처를 불신과 거절로 갚는 것을 무섭게 징벌한다(말라기 1:13-14; 히브리서 2:3; 10:26-29; 12:25; 요한복음 3:18,36; 마가복음 16:16).

#### **율법은 그리스도의 손에 든 삶의 규칙으로서 복음에 보조적이다.**

1. 믿는 자들이 복음의 은혜로운 특권을 더욱 순종적으로 받아 더 완전하고 활력 있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베드로후서 3:18; 1:4-8; 에베소서 6:10; 디모데후서 2:1).

2.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 복음의 풍성한 은혜를 그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교훈적 명령이다(디도서 2:10; 빌립보서 1:27; 2:15-16).

3. 복음의 축복으로서 마음에 새겨진 율법은 우리가 다른 순수하고 영적인 축복을 더욱 맛보고 갈망하며 만족하게 한다(고린도전서 9:21; 예레미야 31:33).

4. 거울로서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 거룩함의 본성을 보여 주며, 이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으로 약속되고 부여됨을 확인시킨다(베드로전서 1:15-16; 마태복음 5:48; 에베소서 4:32; 5:1-2; 요한일서 4:8,16,19).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은 언약이자 규칙으로서 모든 면에서 사람들을 복음과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의 의와 은혜로 몰아내고 막으며 유인한다.

반면 복음은 놀랍게도 율법의 명예를 증진시킨다.

1.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의에 관한 복음의 묘사는 율법의 엄중한 요구에 대한 기쁜 해설이다(로마서 8:3-4; 10:4; 다니엘 9:24; 이사야 42:21).

2.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의 무한한 중요성과 오류 없는 안정성에 관한 가장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한다(갈라디아서 4:4-5; 마태복음 3:15; 5:17-18; 20:28; 누가복음 24:26).

3. 율법에 우리 의를 제시하기 적합한 의로움을 제시, 제공, 전달하는데, 이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히 고귀한 만족이다(로마서 3:21-22,24-26,31; 고린도후서 5:21; 이사야 42:21; 45:24-25; 54:17; 예레미야 23:6; 33:16).

복음은 또한 율법의 규칙으로서의 명예를 증진시키는데,

1. 순종을 촉진하는 모든 본보기, 동기, 능력, 도움, 보상과 관련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제시, 제공, 전달한다(에베소서 5:2; 요한일서 4:9-10,19; 호세아 2:19-20; 로마서 7:4; 6:14; 8:4; 에스겔 36:15-27; 빌립보서 2:12-13; 스가랴 10:12; 고린도전서 15:58; 히브리서 12:28).

2. 복음의 강력한 영향으로 율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된다(히브리서 8:10-12; 예레미야 31:31,33).

율법이 삶의 규칙으로서 복음에 보조적임을 설명하고자 할 때, 복음의 서문인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라”의 강력한 영향력이 모든 명령에 대한 순종을 구속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거룩한 순종은 율법 제정자이신 여호와, 즉 우리의 하나님이자 구속자이신 그의 성품에 기초한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가 자신과 만물을 위해 필연적 존재이며,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요 약속 성취의 전능한 주체임을 나타낸다.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이심은 그가 복음 안에서 모든 총만과 영광으로 아버지, 남편, 주인, 기업 등 여러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되고 전달됨을 뜻한다. 이 사실은 시내산에서 수여된 율법에서 다섯 차례 반복되어 나타난다(출애굽기 20:2,5,7,10,12).

그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자기를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은 구속의 대가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칭의, 입양, 성화, 영적 위로, 영원한 행복 등 다양한 유익을 우리에게 소개한다. 이 모든 점은 각 율법 조항을 순종하게 만든다. 그가 여호와시라면, 그것은 첫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최고의 사랑의 대상임이 분명하다(마가복음 12:30,33). 그가 여호와로서 새 언약의 여러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우리 영원 구속의 대가를 제공했다면, 그 자체로 그분을 향한 최고도의 사랑의 강력한 동기이자 모범이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 대체 불가능한 은혜를 받으면, 이러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대로 사랑하도록 강력히 요구하며, 또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여 두 번째 계명을 순종하게 한다.

여호와이신 율법 제정자는 무한히 영광스럽고 최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그의 피조물은 그 탁월성에 비례하여 사랑받아야 한다. 그가 그들의 존재 창조자라면, 피조물은 그의 자녀로서 그 안에서 사랑받고, 그의 형상을 닮음에 따라 사랑받아야 한다. 그가 무한한 친절로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다면, 그 존재는 가능한 한 행복하게 하고, 그의 공동 자녀로서 그와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여 살아야 마땅하다. 새 언약의 은혜 안에서 그가 여러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와 연결되어 거기에 따라 행하신다면, 우리의 부당한 행위로 그의 무한한 은혜의 본보기를 모독하고, 그의 대표자들, 특히 땅 위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을 베풀려는 의지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시편 16:2-3; 베드로전서 3:8; 4:8; 로마서 12-15; 에베소서 5-6; 골로새서 3-4).

예수께서 우리 구속의 무한한 대가를 치르신 것은 인류에 대한 가장 감동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의 본보기이자 동기이다(요한복음 13:14; 15:12; 에베소서 5:2). 만일 그 대가가 치러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뿐 아니라 인류를 사랑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적용되었다면, 우리는 그 영향력에 의해 강력히 제약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그 안에 있던 정신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에베소서 4:21; 빌립보서 2:5; 베드로전서 2:21).

만약 우리의 셀 수 없는 크고 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상으로 의롭다 하신다면, 왜 우리를 해치는 형제들에게 사랑과 친절을 베풀지 않겠는가? 특히 그들이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 더욱 그렇다(엡 4:32; 마 18:23-35). 만약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의 가족 안으로 들여 그의 자녀들 가운데 두셨다면, 왜 우리가 이전의 악의와 시기로 살며 그것을 붙들어야 하는가? 왜 그의 집의 영광을 위해 그의 아들과 딸들의 심성을 내뿜어 서로 사랑의 행위를 하지 않는가(요일 3:11,14; 딤후 3:3)? 만약 우리가 새롭게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받았다면, 왜 그분과 그분이 우리 안에 심으신 새 본성에 대항하여 해를 행하려 하겠는가(벧전 1:3,22-23; 갈 5:22; 엡 5:9; 롬 13:8)?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있다면, 왜 그것을 사랑의 행위로 타인에게 위로를 주는 데 사용하지 않는가(골 2:2)? 만약 우리가 사랑이 영원히 완전하게 다스리는 하늘나라를 기대한다면, 왜 그것을 이 땅에서 현재 우리의 심정과 삶의 과제로 삼지 않는가?

## I. 하나님을 알며 예배하는 데서 비롯하는 요구들

더욱 구체적으로,

I. 이러한 이유들은 우리가 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나아가 우리 하나님으로 알고 인정하며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며 첫 계명에 순종하여 모든 무신론, 불경건, 우상숭배를 피하고 혐오해야 함을 강력히 요구한다.—만약 그분만이 여호와라면, 다른 상상의 존재이거나 기껏해야 일시적이고 의존적이며 사라질 피조물에게서 행복을 찾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Ps 83:18; Ps 102:26-27; 사 42:8; 렘 10:10-11; 히 13:5,8; 시 48:14; 시 73:25-26). 만약 그분이 전능하신 여호와라면, 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신뢰, 기쁨, 자랑, 예배를 오직 그분께만 집중하지 않는가(렘 2:13; 18:14-15; 고후 1:5; 삼상 2:8)? 만약 그분이 독립된 주권자 여호와라면, 왜 그분의 높은 보좌에서 그분을 끌어내려 하찮은 피조물이나 심지어 그 자리에 세우려 하는가(사 40:12-26; 시 89:6-8; 35:10; 36:7)? 만약 그분이 우리의 존재에 대한 유일한 창조자이자 보존자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가(시 100:3; 시 95:6-7)? 만약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이자 유지자, 통치자라면, 그분은 모든 피조물이 가진 탁월함을 훨씬 뛰어난 정도로 지니고 있어야 하며, 그분께서 그 탁월함을 나누시지 않는다면 피조물들은 하찮고 무가치한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그러므로 왜 그분 대신에 피조물을 택하고 사랑하며 신뢰하고 경배하겠는가?—만약 그분이 무한한 은혜로 우리에게 간절히 자신을 하나님이자 무한한 전부로서 주시겠다고 하신다면, 왜 그분을 거절하고 무가치하고 가증하며 해로운 것을 쫓는가(시 81:10-13; 렘 3:1,9; 16:19-20; 사 44:9-20)? 만약 그분이 낮아지시고 고난을 감내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려고 애쓰셨다면, 왜 모든 경쟁자를 버리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즐기지 않는가(시 45:10-11; 시 118:28; 시 18:1-3)? 만약 그분이 너그럽고 친절하게 우리에게 자신과 그 충만함을 주셨다면, 왜 그분의 약속과 초청을 의심하여 그분이 인색하게 모든 것을 자신에게 붙들고 있다 여기겠는가? 만약 그분이 엄숙한 말씀의 선포와 성령과 섭리의 수많은 애씀으로 우리를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셨다면, 왜 그분의 권위와 신실함, 긍휼을 밟고 우리 구원의 자격과 누림을 옮기려 하는가? 만약 여호와가 우리의 친절하며 영원한 아버지라면, 왜 그분을 인정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는가(말 1:6)? 왜 그분에게서 돌아서는가(신 32:6)? 만약 그분이 우리의 자애로운 남편이라면, 왜 우리와 그의 백성을 슬프게 하면서 간음하듯 그를 버리고 마귀와 죄 된 욕망을 그 자리에 들이겠는가(요 6:68)? 만약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 친구가 되셨다면, 왜 그분을 모르고 부인하며 미워하고 불신하며 불쾌하게 하겠는가(요일 4:19; 잠 17:17; 18:24)? 만약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사셨으며 우리의 모든 섬김을 이미 보상하셨고 무한한 은혜의 상급을 예비하고 계시다면, 왜 그분을 떠나 우리를 해치는 자들의 종이 되겠는가(말 1:6)?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하심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모든 완전함이 가장 매력적으로 드러난 것을 본다—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모든 약속과 은혜를 아들의 피로 확증하셨으며—우리 죄 많은 상태에 적합한 가장 감미로운 접근과 청구를 허락하셨고—그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결코 거두지 않을 것임이 완전하고 명백한 증거와 함께 있음을 보았다(고후 4:6; 5:19-21; 1:20; 히 10:19-22; 8:10-12; 롬 8:32). 그러므로 왜 우리가 악하게 그분을 무시하거나 받기를 거절하며 섬기지 않는가(눅 1:74-75; 창 39:9)? 왜 그분의 무한한 자비, 새 언약 축복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을 강력하게 끌어당겨 영원히 그에게 의존하고 경배하게 하지 않는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왜 그 혼인을 끊고 그를

내어버리며 우상과 교제하게 하는가(고후 6:14-15; 요일 5:20-21)? 만약 우리가 의롭게 됨을 받았다면,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정죄하고 밟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면, 왜 죽은 우상을 그분보다 더 좋아하겠는가? 만약 그분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입양하셨다면, 왜 그 가족의 공급으로 살아가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여 그 머리와 성도들로서 영광을 위해 힘쓰지 않는가? 왜 우리의 은혜로운 입양자를 파괴하고 우리 자신과 형제 자매의 생명과 위로를 끊으려 하는가(렘 2:13)? 만약 우리가 중생과 성결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살아있는 형상이 되었다면, 왜 우상을 그분의 거룩한 처소에 들여와 그분의 존귀한 형상을 마음과 손과 이마에 악마의 표로 더럽히겠는가? 왜 탁월하고 은혜롭게 심어진 새 본성의 원리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불경건하고 불의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겠는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위로를 맛보았다면, 왜 만물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버림으로 우리의 행복을 훼손하겠는가(골 2:2; 고후 1:3-5)? 만약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자비, 지혜와 능력과 신실함을 많이 경험했다면, 왜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무시하겠는가? 만약 우리가 영원한 행복에 대한 권리와 확고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왜 그것을 배제하는 우상숭배를 하겠는가? 만약 우리가 여호와를 영원한 전부로 기대한다면, 왜 이 땅에서 그분 안에서 만족하지 않는가? 만약 우리가 하늘의 행복을 원한다면, 왜 그 행복의 준비자이자 인도자를 버리고 우상을 따르겠는가? 왜 하나님과 교제가 결핍된 삶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지옥처럼 만들려고 하는가?

## II. 예배의 법도 준수와 우상숭배 배격

II. 이와 같은 이유들은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에 제정하신 모든 법도들을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형상 예배나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삼가도록 권고한다.—만약 율법 제정자가 무한히 영광스러운 여호와라면, 육체적 상상과 외형적 형상의 모든 인간 생각이 그분을 얼마나 심히 왜곡하고 격하시키는가! 만약 그분이 우리와 모든 피조물의 창조자라면, 왜 우리가 그분을 거짓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묘사하며 칭송하겠는가? 만약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왜 그분의 법도만이 그분을 누르고 예배하는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며 그 외의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하는가? 만약 그분이 절대 주권자라면, 왜 그분의 법도를 버리고 사람의 발명품을 따르는가(골 2:16-23)? 만약 그분이 우리 신성한 아버지라면, 왜 그분 가족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가? 만약 그분이 우리의 남편이라면, 왜 그분을 모든 면에서 기쁘게 하지 않고 그분을 비방하며 그분이 예배의 모든 수단을 정하는 권한에 침해하는 것을 미워하지 않는가? 만약 그분이 우리 친구라면, 왜 그분의 법도를 버리고 사탄과 세상의 법도와 바꾸거나 섞는가? 만약 그분이 우리 주인이자 소유자라면, 왜 그분의 법도와 예배를 받지 않는가? 만약 그분이 우리의 유업이라면, 왜 그분을 누리는 유일한 수단에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가(겔 37:26-27; 시 84:10-12)?



만약 우리가 우리 구속의 값을 치르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하기 위해 여호와와 아들 자신을 그 대표 이미지로 삼으셨다면, 왜 우리 죄 많은 상태에 맞는 하나님을 사람의 상상이나 형상으로 보려 하여 그분을 쓸모없고 불충분하다 여기며 버리는가(골 1:15; 고후 4:4,6; 요 14:9-10)? 만약 인류 구원을 위해 우상을 폐지하게 하셨다면, 구원받은 자들이 왜 그분의 성육신과 사역과 죽음의 목적과 영향을 방해하려 하는가(속 13:2-7)? 만약 그분이 자신의 피로 이 법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입한 축복으로 채우셨다면, 왜 우리는 그 언약의 피를 짓밟으며 경홀히 여기고 부패시키며 변질하거나 바꾸려 하는가(엡 2:14-18; 1:3)? 만약 그분이 자신의 피로 중재 권세를 취득하고, 이 법도들이 효과 있게 하도록 성령의 임재와 사역을 구입하셨으며, 우리를 무한한 죄악과 비참함에서 구속하여 우리가 그것들을 열심히 지킬 수 있게 하셨다면, 왜 우리는 그것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며 소홀히 하는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을 통해 살고자 한다면, 왜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과의 교제 수단인 그분의 법도 안에서 그분을 활용하지 않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면, 왜 그분의 법도를 의롭다 하며 우리의 영적 생명을 얻고 더하는 수단으로 삼지 않는가? 만약 그분이 우리를 가족으로 입양하셨다면, 왜 그분 예배에 지옥의 법도나 땅의 규례를 들여와 그분과의 교제를 방해하겠는가(마 15:2-3,9)? 만약 우리가 거룩함과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형상으로서 그의 거울을 주의 깊게 바라보며 그 형상을 바라봄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면(고후 3:18), 왜 상상이나 나무 기둥에 얽드려 우리의 거룩함을 격하시며(고전 8:4; 사 44:10-20), 우리 자신에게 마땅한 하나님의 형상을 더럽히겠는가? 만약 새 언약의 위로가 있다면, 왜 그 위로가 만물의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법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전달될 것을 기대하지 않는가(사 66:11-12)? 만약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소망한다면, 왜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으며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가(잠 8:34)? 만약 하나님이 모든 축복의 주관자로서 이 법도들을 그분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수단으로 제정하셨다면, 우리 태만과 미신으로 인해 그분의 선한 뜻을 좌절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잠 8:34,36; 마 15:9)?

### III.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 법도의 거룩한 사용 촉구

III. 세 번째 계명에 따라, 이러한 이유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들, 속성들, 법도들, 말씀과 사역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용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그것들을 모독하거나 악용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한다.—만약 그분이 무한히 영화로운 여호와라면, 그분의 이름에 대한 모든 경멸과 남용은 무한히 죄악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만약 그분이 전능하시다면, 그분의 영광과 기쁨을 빼앗으려는 시도는 얼마나 미치고 불경한가? 만약 그분이 모든 존재의 창조자라면, 그분이 만드신 것이나 세우신 것에 대한 모든 남용은 결국 그분에게 향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분이 독립된 주권자라면, 왜 그분께 가장 깊은 경외를 나타내지 않는가?—만약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며 아버지이며 남편이며 친구이며 주인이며 유업이라면,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배은망덕이며 불경이고 자기파괴인가? 그리고 우리의 새 언약의

본성을 모독과 욕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얼마나 충격적인가?—만약 우리 구속의 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순종하고 고난당하시며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달게 하시고 우리 구원의 영광스러운 표지로 삼으셨으며, 우리의 영혼과 몸을 그 이름을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 자로 사셨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 이름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게 하도록 하셨다면, 왜 우리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이름을 모욕하는가?—만약 그 이름이 우리 새 언약 특권의 근원과 보증이라면, 왜 그 이름을 밟아 무시하고 찢는가?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왜 우리의 신성하고 가장 친한 친척을 욕하고 모독하는가? 만약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면, 왜 자비롭고 높으신 심판관을 욕하고 모독하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되었다면, 왜 그 가족 안에 지옥의 어둠과 행실을 들이려 하는가? 만약 우리가 중생하고 성결에 참여했다면, 왜 거룩함에 대한 우리의 증오를 나타내고 우리 형상을 지닌 존귀한 하나님을 욕하겠는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위로를 받았다면, 왜 그분의 은혜에 가장 충격적인 모욕과 악용으로 보답하겠는가?

만일 우리가 영원히 그를 즐기고 찬양할 것을 기대한다면, 왜 그러한 일에 스스로 자격을 박탈하고 불경함으로 스스로 영원한 저주를 준비하는가?

#### IV. 거룩한 시간과 안식일 준수의 의무

이러한 이유들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서 정하신 거룩한 시간을 지키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특히 일주일 중 하루를 그 자신을 위한 거룩한 안식일로 지키는 것을 더욱 강조한다.—만일 그가 무한히 영광스러운 여호와시라면, 시간을 그를 공경하고 그의 영광을 목상하는 데 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어디 있겠는가? 만일 그가 만유를 충분히 충족시키시는 분이라면, 그와 교제하며 그의 충만을 받는 데 쓰는 시간은 얼마나 유익한가! 만일 그가 존재의 창조자라면, 그가 행하신 놀라운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기념하고, 그가 요구할 때 기꺼이 시간이나 그 밖의 모든 것을 그의 섬김에 드리는 것이 얼마나 당연한가! 만일 그가 절대 주권자이시라면, 그가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는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만일 그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남편, 친구, 주인이시며 기업이라면, 그가 요구하는 어떤 것도 거절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리고 이러한 새언약 관계 안에서 그와 교제하고 그를 즐기는 데 적절한 시간을 쓰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 유익하며 존귀하고 신실한 일인가!—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순종과 죽음으로 우리를 죄와 지옥에서 하나님께로 구속하셨다면, 그의 구속 완성을 엄숙히 기념하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가! 만일 그가 그의 죽음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와 그 즐거움을 얻으셨고, 성령의 적용적 영향력으로 그 교제를 증진시키셨다면, 왜 이 교제의 특별한 시기와 수단을 멸시하거나 더럽힐 수 있겠는가?—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그의 부활한 날에 깨어서

그가 우리에게 빛을 주시도록 해야 하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면,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의롭다 하심 판결을 받은 그 주간의 날을 기념하지 않는가?—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거나 암시하는 날을 왜 귀히 여기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양자 된 자라면,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머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의 큰 탄생을 왜 기념하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성화되었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점진적 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왜 즐거워하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위로의 성령을 받았다면, 위로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 매주 엄숙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왜 즐거워하지 않는가? 만일 언약과 약속, 하나님의 맹세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확증되었다면, 왜 주간적인 이를 맛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안식일을 기쁨이라 부르지 않는가?

#### V. 다섯째 계명과 관계적 의무의 엄수

이러한 이유들은 또한 다섯째 계명에서 요구되는 모든 관계적 의무를 신중히 실행하게 하며, 그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경계하게 한다.—만일 무한히 영광스럽고 온전히 충분하며 독립적이고 만물을 창조·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인간 사이 다양한 관계들과 거기서 요구되는 의무 속에 나타나신다면, 왜 이러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의 대표자 안에서 그의 성품을 모독하고, 그의 제도를 거역하며, 우리 자신이 그보다 더 우리의 지위를 정하고 그 관계에서 의무를 규정할 수 있다고 여기면서 행동하는가?—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새언약의 복된 관계들(아버지, 남편, 친구, 주인, 기업 등) 안에서 계시다면, 우리는 얼마나 풍족하게 준비되고 굳건히 얽매이며 강력히 자극받아 사람들에게 대한 모든 관계적 행동에서 그를 존귀하게 나타내야 하는가 (엡 5~6 장; 골 3~4 장; 벧전 2~3 장; 롬 12~15 장)!—만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값을 치르시면서 자녀, 종, 신하, 주인, 친구, 아버지 등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그가 섰던 모든 의무를 이루셨다면 (마 3:17; 요 8:29; 눅 2:51; 사 49:3; 사 52:13; 사 53:11; 요 14:28,31; 요 10:18; 요 17:4; 요 13:1~10; 요 15:13~14; 요 10:10~11,15; 마 23:8,10; 사 53:10; 사 9:6; 엡 5:25~27), 왜 그의 본을 따르지 않는가? 만일 그의 순종과 고난으로 인해 인간 관계를 우리에게 거룩하고 유익하며 편안하게 만드셨다면, 왜 우리는 그 관계에 속한 의무를 수행함으로 그를 공경하지 않는가(엡 5:23,27)?—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왜 그가 걸으신 대로 우리도 걸지 않는가(요일 2:6; 엡 5:2; 벧전 2:21; 고전 11:1)? 만일 우리가 용서받고 영생에 받아들여졌다면, 왜 심지어 우리를 해치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친척에게 온유하게 대하지 않는가(마 5:44; 엡 4:32)?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가족이라면, 왜 세상 앞에서 우리의 선행을 본보이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새롭게 되고 성화되었다면, 왜 거룩의 아름다움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각자의 지위에서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더욱 견고히 하려 하지 않는가? 만일 우리가 영적 위로를 누렸다면, 왜 모든 대인관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그 위로로 남을 위로하지 않는가(고후 1:4,6)? 만일 우리가 천국 상태를 기대한다면, 왜 사회 질서와 행복에서 이 세상을 가능한 한 천국과 비슷하게 만들지 않는가(벧후 3:11,14)?

## VI. 여섯째 계명과 생명 보존의 명령

이러한 이유들은 또한 여섯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인간 생명의 보존을 강력히 명령하며, 그와 반대되는 모든 것을 금지함을 촉구한다. 만일 여호와께서 인간 생명의 창조자, 보존자, 소유자라면, 그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은 얼마나 교만하고 무모한 일이자 그의 권능과 소유를 흠치는 죄악이며, 동시에 우리의 생명을 그의 공정한 진노에 노출하는 일인가! 만일 그가 무한히 영광스러운 절대 주권자라면, 왜 그의 무한한 영광과 위엄을 생각하여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온유하지 않는가! 왜 우리가 생명과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그와 겨루거나, 그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 다루는 생명을 빼앗으려 하는가?—만일 그가 우리의 충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편, 친구, 주인이시라면, 왜 마귀처럼 스스로나 이웃을 망쳐 더 행복해지려 하는가?—만일 그가 무한한 자비로 우리의 원수인 우리와 관계를 맺으셨다면, 왜 우리는 그의 은혜롭고 존귀한 행위를 본받아 모든 합법적 수단으로 우리 원수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영광을 위해 유익하게 쓰실 수 있는 생명에 사랑을 가지고 행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모든 행동에서 그를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는 분으로 세상에 나타내지 않는가? 만일 그가 그 무한히 귀한 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사셨다면, 왜 사람 생명을 파괴함으로써 그의 죽음의 목적을 방해하는가?—왜 우리가 이웃에게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주어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는가? 왜 그가 배신자와 살인자의 복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증진시킨 본을 따르지 않는가?—왜 우리 자신의 영혼이나 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증진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진지하고 희망차게 사용하지 않는가?—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왜 그분의 지체를 잔혹함, 증오, 살인의 도구로 만드는가? 만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 판결을 받았다면, 왜 모든 살인적 성향을 죽이지 않는가? 혹은 왜 우리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지 않는 듯 행동하며 우리의 행복한 판결을 무효화하거나 다른 이를 의롭게 하실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으려 하는가(엡 4:31-32; 마 18:23-33; 요일 3:15; 단 12:3)?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라면, 왜 우리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가(요일 3:16)? 만일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고 위로하는 영향력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왜 우리 이기심을 모두 정화하시고 모든 선함과 사랑으로 풍성케 하시는 그를 허용하고 기쁘시게 하지 않으며, 그를 노하게 하거나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피하지 않는가?—만일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과 권능과 피의 대가로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면, 왜 스스로를 처음부터 살인자였던 마귀처럼 만드는가? 만일 그가 자비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면, 왜 악의로 남을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려 하는가? 만일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기대한다면, 왜 영원한 행복에 적합하지 않은 정동을 허용하여 그것에 부적합함을 드러내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폭력적인 자들이 땅에서 반쪽도 못 살게 하신다면, 왜 그들이 천국에서 영생을 기대하겠는가?

## VII. 일곱째 계명과 순결의 엄수

이러한 이유들은 또한 일곱째 계명에 따라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지키는 일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시며, 우리 몸과 마음 둘 다의 창조자이시라면, 두 부분 모두 그의 영광을 위하여 깨끗이 지켜야 한다. 만일 그가 영원한 팔에 안겨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들고 다스리시는 분이라면, 왜 그것들을 더럽히는가? 만일 그가 충분하신 분이라면, 왜 불법적이고 짐승 같은 쾌락을 우리의 불멸하는 영혼 대신 찾아 해매는가? 만일 그가 무한히 영광스러운 분이라면, 왜 그가 우리 안에 새기신 그의 형상을 역겨운 더러움으로 더럽히는가? 만일 그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남편, 친구, 주인이며 기업이라면, 그와 가장 친밀하고 즐거운 교제보다 수치스럽고 파괴적인 쾌락을 더 선호하는 일이 얼마나 불필요하고 불명예스럽고 어리석으며 도발적인가?—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무한한 피의 값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셨다면, 왜 그와 그의 아버지를 둘 다 영광스럽게 하지 않는가? 만일 그가 육체와 영의 더러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면, 왜 그의 죽음 목적을 좌절시키고, 아무 대가 없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사탄의 거친 노역에 넘기는가? (고전 6:19,29; 딤후 2:14; 벧전 1:18-19) 만일 그가 우리의 구속값을 치르면서 감각 쾌락을 경멸하는 마음을 나타내셨다면, 왜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지 않는가? (벧전 4:1-3)—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왜 그의 지체인 우리 몸과 마음을 음녀의 지체로 만드는가? 만일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아 율법의 매임에서 벗어났다면, 더 이상 육체를 따라 살 채무자가 아니다(롬 6:13-14; 롬 8:12). 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의 무한한 은혜로운 판결을 반복하도록 시험하는가? (히 13:4; 벧후 2:10) 혹은 왜 우리의 새언약 증거와 그의 새 용서 암시를 방해하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한 자녀라면, 왜 우리의 역겨운 음행으로 그와 그의 가족을 모독하는가? 만일 우리 안에 그의 성화하는 성령과 성화된 본성이 있다면, 왜 짐승 같은 정욕의 방종으로 그의 성전을 모독하고 그의 사역을 낮추며 거스르는가? (살전 4:3-4; 엡 5:3-6; 고전 6:19; 갈 5:22-23)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우리 마음에 그의 사랑이 부어진다면, 왜 육체적 쾌락을 마치 가장 필요한 보충물이나 그보다 더 나은 것으로 남용하는가? 만일 우리가 천상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권리와 기대가 있다면, 왜 지상에서의 육체적 더러움으로 그 즐거움에 부적합하게 만드는가? 만일 예수와 그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가까워진다면, 왜 방탕과 음란을 버리지 않는가? (롬 13:11-14) 만일 우리가 그가 우리 몸을 그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들 것을 기대한다면, 왜 지금 우리 몸을 짐승보다 더 더럽히는가?

## VIII. 여덟째 계명과 보편적 공평

이러한 이유들은 또한 여덟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보편적 공평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하나님께서 만물의 절대 소유자라면, 그가 각 사람에게 할당하신 것을 도둑질하는 것은 얼마나 사악한 일인가? 만일 그가 존재의 창조자라면, 부정직한 모든 행위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강도 행위이며, 그의 배분을 뒤엎으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만일 그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남편, 친구, 주인이시라면, 왜 그를 신뢰하지 않고, 마치 도둑질한 물건을 숨겨 주는 자처럼 여기며 모독하는가? 만일 그가 우리 만유의 기업이라면, 왜 그의 무한한 충만함보다 도둑질한 사소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만일 예수께서 우리의 구속값을 지불하실 때 하나님의 무한한 공평에 대한 깊은 관심을 분명히 드러내셨다면, 왜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확증된 법을 어기는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모든 세상적 선물에 대한 새언약상의 권리와 소유권을 사셨다면, 왜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을 도둑질하는가? 만일 그가 중재자로서 만유에 대한 권리를 구매하셨다면, 왜 우리의 부정직으로 그가 죽음의 대가로 받은 상을 훼손하거나 빼앗으려 하는가? (히 2:8-9; 학 2:8)—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왜 그의 지체인 우리 마음과 손을 부정직에 사용하겠는가? 만일 우리가 용서받아 영생 판결을 받았다면, 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정죄하여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사탄에게서 살아갈 방안을 얻어야 한다고 여기며 행동하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면, 왜 그의 자녀의 얼룩이 아닌 부정직함으로 우리의 성품에 흠집을 내겠는가? 또 왜 도둑질을 묵인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장상 형제, 동료 성도들을 욕되게 하겠는가? 만일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성전이라면, 왜 약탈의 재물로 우리 자신을 저속하게 만들겠는가(사 33:15-16)?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는다면, 왜 그 위로를 사기와 폭력의 치욕스러운 열매와 섞거나 그것으로 인해 잃어버리겠는가(히 13:18; 눅 16:1)?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확실한 상속자이며 영원한 부와 영광을 기대한다면, 왜 이 땅의 것들 가운데서 부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겠는가?

## IX. 진리와 명예를 존중함

이러한 이유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우리 자신의 명예, 그리고 이웃의 명예를 가장 엄격히 존중하도록 강력하게 촉구한다. 율법 제정자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이며 그의 모든 말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면, 왜 거짓이나 중상을 좋아하거나 말하거나 부추기겠는가? 만일 그가 만물의 창조주라면, 왜 그의 손으로 지으신 피조물을 거짓의 아버지이자 대적자인 사탄의 일에 사용하겠는가? 만일 그가 우리의 절대적인 주권자라면, 왜 우리의 마음과 혀가 마치 마귀에게 속한 것인 양 행동하겠는가? 만일 그의 이름과 본질이 무한히 영광스럽다면, 왜 그의 형상과 이름이 특별히 새겨진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그를 욕되게 하겠는가? 만일 그가 전능하시다면, 왜 중상과 거짓을 그의 정당한 찬양과 높은 찬송보다 선호하겠는가? 만일 그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남편, 친구, 주인, 분량이라면, 악을 피하거나 유익을 얻기 위해 왜 중상과 거짓말에 유혹되겠는가? 그리고 사탄을 본받아 혀 밑에 독사를 품고 독을 퍼뜨리려 하면서 왜 그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욕되게 하겠는가?

만일 구속의 대가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죽음 안에서 자신의 약속과 경고의 진리에 대한 무한하고 불가침한 존중을 나타내셨고, 아담이 거짓을 받아들여 창조주를 욕되게 한 것을 혐오하셨다면, 그 속죄에 참여하고 새 언약으로 확증된 모든 이에게 거짓말과 비난의 입술이 왜 가증한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진실하고 충실한 증인이신 그리스도 자체와 하나가 되었다면, 왜 그의 신비한 몸—그에게 눈동자와 같은 몸—에 특히 치욕을 끼치는 중상과 거짓의 도구가 되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자비롭게 우리의 수많은 죄를 지워주시고 의롭다 하셨다면, 왜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들의 악명에 기뻐하지 않고 영원히 증오해야 하겠는가? 그리고 왜 특히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의 부끄럼이 될지 모를 이들의 행실에 대해 가장 자비로운 판단을 하지 않겠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다면, 왜 사탄의 자녀들처럼 행동하며 진리의 영이 거짓과 중상을 꾸미고 말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돕는 것처럼 하겠는가?

만일 진리의 영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며 거룩하게 하여 우리 마음속에 진리를 심었다면, 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지 아니하겠는가(엡 4:15)? 그리고 우리 거룩한 혀가 선택된 은과 같아 많은 사람을 양육하게 하지 않고 오히려 악의와 어리석음을 토해내겠는가? 만일 하나님의 율법이 마음에 기록되었다면, 왜 모든 간계와 악의, 험담을 멀리하지 않겠는가(벧전 2:1; 약 1:18, 21; 4:11)? 왜 같은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겠는가? 만일 우리가 성령의 위로를 누리고 있다면, 왜 그것을 내쫓고 거짓과 중상이라는 지옥의 즐거움을 들여오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피로 인봉하신 크고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왜 그토록 악명 높고 험한 악행으로 그 약속들에 미치지 못하도록 노력하겠는가? 만일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거나 기대하고 있다면, 왜 거짓과 중상으로 인해 지옥에 이를 길을 스스로 익히겠는가(계 21:8; 22:15)?

## X. 만족과 자비의 마음가짐에 대한 권고

이러한 이유들은 열 번째 계명에서 요구하는 만족과 자비로운 마음가짐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거스르는 모든 것을 단념하도록 권고한다. 만일 하나님이 무한히 영광스러우시고 전능하시며 독립적인 존재의 주권자라면, 왜 불만과 시기, 탐욕, 또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그분의 영광과 마음 속 적절한 자리를 빼앗겼는가? 만일 그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남편, 친구, 주인이시며 우리의 분량이라면, 왜 그분의 돌봄과 새 언약 아래 주시는 누림에 불평하며 불만족하겠는가? 또 왜 우리는 그의 자리를 천하고 더럽고 헛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허무한 것으로 채우려 하는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의 원수로서 행복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 가난과 치욕, 곤경과 죽음을 기꺼이 선택하셨다면, 왜 우리는 저주받을 것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첫 권세를 버린 마귀들을 본받겠는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면, 왜 그분께 불쾌하고 치욕스러운 성품을 방임하겠는가?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롭다 하심 안에서 수많은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 중 가장 적은 것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못한 존재인가! 그러므로 왜 우리는 이처럼 크고 많은 자비에 만족하지 않고, 그분이 우리에게 정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따르기를 거부하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라면, 왜 그분의 충분하고 즐거운 공급에 불평하며 돼지가 먹는 쪽정이를 먹으려 하는가? 만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면, 왜 우리를 육신적이며 죄에 매인 자로 만드는 악한 정욕을 방임하겠는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롭게 위로받았다면, 왜 날마다 불만과 시기, 탐욕으로 우리 영혼을 불의하게 괴롭히겠는가? 만일 우리가 영생의 상속자라면, 왜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복락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에 집착하겠는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 끌어 올리신다면, 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땅에 달라붙는가?

## 반성

그러나 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과 그 놀라운 영향력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 선언을 이해하고 믿었으며,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 초대에 순응하였는가? 나는 법과 율약으로서 그리고 규범으로서 복음이 갖는 차이점과 조화, 종속성을 체험적으로 분별하고 느꼈는가? 내 마음이 이 은혜와 평화의 복음으로 충만하고 불타며, 허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었는가? 그 마음 정화와 확장, 활력의 영향 아래서 나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고 지금도 그러한가? 여기서 나의 지식이 정확하고 경험이 강하고 분명하기를 바란다. 사소해 보이는 한 가지 실수라도 내 영혼의 삶이나 그리스도 전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 은혜 언약의 제정된 규례들에 관하여

은혜 언약의 제정된 규례들, 그리고 구약과 신약 아래의 규례들 간의 조화와 차이에 관하여. 이 신성하게 제정된 규례들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올 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어떤 규례들은 덜 직접적인 것이고 어떤 것은 더 직접적인 것이며, 혼자 드리는 예배도 있고 사회적 예배도 있으며, 혼자이면서 사회적인 예배에 모두



해당하는 것도 있다. 어떤 규례들은 임시적이고 어떤 것은 정기적이며 영속적인 예배에 관한 것이다. 어떤 것들은 구약 시대 은혜 언약에 속하며, 어떤 것은 신약에 속하거나 양자에 속한다. 어떤 것은 성도와 죄인 모두에게 해당하며, 봉인하는 성격을 가진 것은 오직 성도에게만 속한다. 어떤 규례들은 모든 교회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어떤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된다. 이 규례들의 목적은, 미개종 죄인들에게는 그들을 가르치고 설득하며 회개시키기 위함이며,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통해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거룩함과 위로 가운데 세우기 위함이다(요 20:31; 엡 4:11-14).

이 규례들은 다음과 같다.

I. 비밀스럽고 개인적이며 공개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요 5:39; 행 17:11; 느 9:3). 연령상 능력 있는 모든 사람은 성경을 읽어야 한다.

1. 하나님이 명백히 그럴 것을 허락하셨다(신 4:6-7; 11:19; 17:18-19; 31:11-12; 렘 36:6; 요 5:39; 마 22:29; 눅 16:29,31; 사 8:20; 34:16; 계 1:3; 골 4:16; 막 13:14).

2. 교회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항상 그렇게 해왔다(느 8:3-4; 9:3; 눅 4:16; 행 15:21; 8:28; 17:11; 시 119:24; 눅 10:26; 딤후 3:15).

3.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기록하여 읽히도록 정하셨다(합 2:2; 사 8:1; 30:8; 렘 30:2; 36:2,6,28; 계 1:3,11; 딤후 3:15-17; 롬 15:4).

4. 특히 신자들을 포함한 땅 위의 하나님의 자녀이자 선지자, 제사장으로서의 그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에 친밀한 친숙함을 요구한다(롬 1:16-17; 3:21-22; 약 1:18,21; 벰전 1:23; 2:2; 요일 3:1; 시 105:15; 계 1:5-6; 고전 2:15).

성경 읽기는 다음과 같이 행해야 한다.

1.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높이 공경하며(시 19:10; 119:72; 느 8:3; 9:3; 출 24:7; 대상 34:17; 사 66:2).

2.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굳게 믿으며, 영원한 구원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구원적으로 이해시키실 수 있음을 확신하며(벰후 1:19-20; 눅 24:45; 고후 3:13-16).

3.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양심을 열어두고, 그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온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간절한 열망과 함께(살전 2:13; 신 17:18-20; 시 119:18; 85:8).

4. 말씀의 내용과 목적, 그리고 각 구절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며(요 5:39; 행 17:11; 8:30,34; 눅 10:26-28).
  5. 읽은 말씀을 특별히 자기 자신에게 간절히 적용하며(잠 3:1,4; 대상 34:21; 렘 15:16; 골 3:16; 시 119).
  6. 읽은 말씀에 대하여 그 효과적인 축복을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자기 부인을 실천하며(잠 3:5; 2:1-7; 시 119:18).
  7. 읽은 말씀을 진심으로 체험하며 지속적이고 간절히 실행하는 것(요 13:17; 수 1:7-8; 뱀전 2:2).
- II.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과 연결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묵상(시 1:2; 119:48,97; 105:5; 111:2,4). 하나님의 말씀과 행위에 관해 묵상할 때
1. 우리의 마음은 한 곳에 고정되어야 한다(시 108:1; 139:18).
  2. 깊은 감동을 받아야 한다(시 104:34; 45:1; 139:17).
  3. 이 묵상을 습관으로 삼아야 한다(시 119:97; 139:17-18; 63:6).
  4. 묵상의 결과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지며 변화되어야 한다(고후 3:18).
  5. 묵상의 대상과 방식에 다양성을 두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질서 있게 진행해야 한다.
- III.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 곧 그의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며 청중의 양심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가장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그들을 설득하고 회개시키며 거룩하게 하고 위로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설교되어야 한다:
1. 정기적이어야 하며, 자격을 갖추고 부름받은 이들에 의해서만 설교되어야 한다(딤후 3:2-6; 딤후 2:2,4; 엡 4:8-11; 말 2:7; 고후 3:6; 렘 14:15; 23:21,32; 롬 10:15; 히 5:4; 고전 12:28-29; 딤후 3:10; 4:14; 5:22).
  2. 건전하고 올바르게 행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만 설교하며, 그 말씀의 상호관계에 맞게 설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인간을 낮추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딤후 2:1,8; 딤후 2:7; 딤후 4:2-3).
  3. 복음적으로, 율법과 복음의 차이점과 조화를 바르게 배열하여 설교해야 한다(딤후 2:15; 롬 1:16-17).
  4. 부지런히, 설교를 준비하고 실행할 모든 기회를 열심히 찾아 영혼들의 덕을 위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힘써야 한다(딤후 4:2; 히 13:17; 행 18:25; 16:31; 골 1:28-29).

5. 분명하고 단순하게, 인간의 지혜의 매혹적인 말로 하지 말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하며, 성령의 권능과 증거로 함께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간단하고 성경적인 언어와 명확한 구조, 명백한 증거와 강조로 모든 이의 양심에 전달해야 한다(고전 14:19; 2:4,13; 고후 3:12; 4:2,13; 11:3; 합 2:2; 사 30:8).

6. 신실하게, 다양한 성도와 죄인들의 상태와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말씀을 전해야 한다(렘 23:28; 고전 4:1-2; 2:1-2; 11:1-2; 행 20:27; 겔 3: 33; 13:19-23; 마 24:45; 고후 4:1-2).

7. 지혜롭게, 교리와 설교 방식이 청중의 이해력과 환경에 맞아야 한다(골 1:28; 딤후 2:15; 고전 3:2,10; 히 5:11-14; 눅 12:42; 요 16:12).

성실하게, 세상적 찬사나 이익, 또는 육체적 목적을 위함이 아니라, 확고한 신앙과 진리의 깊은 인상에서 비롯되어, 직접적이고 주로 영혼의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복음의 더 중요한 진리를 주로 강조하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즉각 대적하는 진리를 드러내고 확증하는 것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고전 2:17; 고전 4:2; 살전 2:4-6; 요 7:18; 고전 9:19-22; 고후 12:19; 엡 4:12-14; 딤후 4:16; 행 26:16-18; 벧후 1:12; 계 3:10).

9.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중하면서도 열렬한 열심과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깊은 연민을 품고 진지하고 다정한 태도로 나타낸다(행 18:25,28; 고후 5:11,13-14; 빌 1:15,17; 골 4:12; 고후 12:15; 갈 4:19-20; 살전 2:1-10).

#### IV.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설교하는 것을 듣는 것(사 55:3) — 이에 필요한 것:

1. 듣기 위한 준비로서,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에 대한 두려운 인상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시 89:6-7; 행 10:33; 사 66:2), 마음에서 모든 합법적인 세상적 근심을 몰아내는 것(마 13:7; 창 22:4-5), 우리 죄책과 하나님과의 모든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의 피를 적용하는 것(암 3:3; 시 26:6; 계 4:6), 마음을 부패한 욕망과 정동에서 정화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영적 열망으로 일으키는 것(벧전 2:1-2; 약 1:21).

2. 목사와 자신, 그리고 타인을 위한 성령의 충만으로 인한 건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살후 3:1; 엡 6:19-20; 시 119:18; 아 4:16; 겔 37:9; 벧전 1:12).

3. 읽거나 설교하는 말씀에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에게 닿는 모든 들음의 기회를 부지런히 기다리며, 그것을 죄인과의 약속으로 여기며(딤후 4:13; 잠 8:34), 말씀에 귀와 마음을 진지하고 차분하게 기울이는 것(사 55:3; 눅 4:20; 잠 2:1-2), 들은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성경으로 판단하며(막 4:24; 눅 8:18; 행 17:11),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연구하는 것(행 16:14; 시 85:8).

4. 하나님의 진리임을 확신하며 그것을 특별히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갈망하고 즐거워함으로써 겸손하고 기민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히 4:2; 살후 2:10; 엡 4:21; 약 1:21; 벰전 2:2; 행 17:11; 살전 1:5; 살전 2:13).

5. 그 진리를 귀중한 보물로 마음속에 숨기고,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지식과 사랑으로 간직하는 것(시 119:21,72,103,139,140; 욥 23:12; 골 3:16; 사 42:23; 잠 2:1; 잠 3:1,3).

6. 들은 말씀에 대해 진지하게 묵상하고 신실하게 서로 나누는 것(눅 9:44; 히 2:1; 눅 24:14-32; 신 6:6-7).

7. 들은 말씀을 실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위의 규칙과 이유로 삼으며, 그에 따라 거룩함 가운데 풍성히 행하는 것(눅 8:15; 약 1:22-23,25; 계 1:3; 요 13:17).

#### V. 영적 교제(신앙 교제)에 해당하는 것:

1. 자신의 마음과 교제(시 4:4), 자신의 상태와 성향, 행위에 관해 양심에 진지한 질문을 던져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고 조정하는 것(고후 13:5; 습 2:1),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책임을 물으며(시 103:1-5; 104:1,35; 42:5,11; 43:5), 중요한 사실들을 되새기는 것(시 16:2).

2. 이웃과의 영적 교제, 때때로 또는 정기 모임에서; 또는 가정 문답에서(눅 24:13-32-49; 신 6:6-7; 말 3:16; 골 3:16; 아 5:8-16; 아 6:1-3; 창 18:19).

3. 목회자가 사람들과 가정, 병든 자를 방문하여 문답하는 것, 이 또한 설교에 포함된다(갈 6:6; 행 20:20,31).

이러한 교제에서,

1. 주된 내용은 신성한 진리의 가장 중요한 요점이어야 한다(마 23:23; 고전 2:2; 딤후 1:5-6; 딤후 1:11-14).

2.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의 건축을 간절하고 주된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골 3:17; 벧전 4:11; 고전 14).

3.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행위에 대해 조속히 하나님께 회계할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들어야 한다(시 16:8; 전 12:14; 고후 5:10-12; 마 12:36-37).

## VI. 기도에 관한 내용

기도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른 예식을 통해 주시는 축복을 스스로 끌어당기는 것과 같다. 기도는 때로 몸의 자세에 따라 특징지어진다. 예를 들어 숙이기, 무릎 꿇기, 손 뻗기 등이 있다(시 95:6; 121:1; 28:2). 또는 명상, 간구, 마음을 쏟아 붓기, 영혼을 들어 올리기 등으로 불리며 이는 기도를 수행하는 현명하고 간절하며 겸손한 방식을 나타낸다(시 5:1-2; 6:9; 62:8; 25:1).

기도는 개인이 홀로, 정한 시간에 하거나 상황에 따라 다른 일을 하는 중에도 할 수 있다(마 6:6; 시 55:17; 느 2:4-5; 삿 15:18; 삿 16:28).

또한 가정이나 자발적 모임에서 사회적으로 혹은 공적 집회에서 행한다(렘 10:25; 수 24:15; 행 10:2,30; 행 20:36; 마 18:19-20; 왕상 8:22-54; 대상 20:5-13; 행 14:23).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를 부르며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무한한 탁월하심을 지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우리의 미천함과 죄악, 필요를 고백하는 것, 두려워하거나 실제로 받은 심판을 피하고 간구하는 것, 간청을 합리적 근거로 변호하는 것, 자신을 하나님과 그분의 섬김에 헌신하는 것, 받은 은혜나 기대할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지니신 속성 때문에 그분을 축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1. 우리의 죄 — 원죄와 실제 죄, 생각·말·행위 속의 죄와 그 중대성을 고백하는 것(욥 33:27; 시 32:5; 38:18; 사 6:5; 64:6; 렘 3:13; 롬 7:14-25; 단 9; 스 9).

모든 사람은 지상에 있는 동안 자신의 죄로 인해 죄인임과 부패함을 깊이 인식해야 하며(롬 3:19-20,23; 겔 16:62-63), 하나님의 긍휼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용서받음을 확신하고(시 130:3-4; 65:3; 잠 28:13), 죄를 혐오하며 회개하고자 해야 하며(렘 31:18; 삼하 24:10; 사 64:6; 사 6:5; 욥 40:4; 욥 42:5-6), 스스로 낮아지고 죄에 대해 슬퍼해야 한다(욥 42:5-6; 시 6; 38; 70; 51).

2. 받은 은혜, 주어진 은혜, 확신한 은혜에 대해 감사드리며, 시간적·영적·영원한 은혜뿐 아니라 고난의 가벼움, 짧은 기간, 유익함, 그리고 고난에서의 구원을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해 감사한다(시 95-100; 103; 105; 107; 116-118; 135-136; 145-150; 엡 5:20; 빌 4:6; 창 32:10; 시 36:6-7; 119:67,71,75; 고후 4:17).

3.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그분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법으로 요구되거나 약속에 포함된 것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시간적 공급과 죄 사함, 죄에서 보존됨을 구한다(마 6:9-13).

고백은 우리의 죄책과 부패를 전제로 하며, 감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인정하고, 간구는 우리의 결핍과 필요를 나타낸다.

고백과 간구는 오직 지상에서 행해지나, 감사는 하늘에서도 영원히 행해진다.

기도는 인간이 준수해야 할 신성한 예식이다.

1. 성경에서 자주 명령된다(마 7:7-14; 엡 6:18; 빌 4:6; 롬 12:12; 골 4:2; 마 26:41; 약 5:13). 또한 기도의 대상, 내용과 방식에 관한 수많은 본문이 있다.

2. 신적 인격들의 특성은 기도를 요구하고 격려한다. 하나님은 은혜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출 34:6-7; 사 63:7,15; 마 7:7-11; 시 65:2; 50:15; 91:15; 사 58:9; 65:24; 9:18; 10:17; 102:17). 그리스도는 친절하며 효과적인 중보자이고, 아버지께 가는 길이며 만유를 포괄하는 구원자다(히 4:14-16; 10:19-22; 7:25; 9:24; 롬 8:34; 계 8:3-4; 엡 2:18; 3:12; 요 14:6; 시 110:4; 68:18; 요일 2:1-2). 성령은 입양의 영이며 간구의 영이며, 우리 안에 계신 중보자다(갈 4:6; 속 12:10; 엡 2:18; 6:18; 유 20; 롬 8:15,26-27).

3.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이 드린 다수의 신뢰받는 기도 본보기가 있다(마 14:23; 19:15; 26:39-45; 눅 6:12; 9:29; 요 16; 창 18:25-32; 25:22; 32:9-12,24-28; 출 32-34; 신 9; 민 12; 14; 신 33; 수 7; 왕상 8; 대상 14; 20; 스 9; 느 1; 9; 시 3-144; 단 9; 행 1:14; 2:42; 12:5; 13:3; 14:23; 6:4; 롬 1:9-10 등).

4. 신자들의 새 본성과 하나님과 새 언약 관계는, 그들이 지상에서 거하는 동안 계속 기도를 요구한다. 그들의 죄, 필요, 적, 고난, 베풀고 약속된 은혜, 수행해야 할 의무 등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행 2:42; 갈 4:4-5; 롬 8:15,26-27; 뱀전 2:5; 시 116:12,16-17; 119).

5. 우리가 속한 지상의 교회와 국가, 관리, 목회자의 현 상황 역시 기도를 요구한다(마 6:9,19; 계 22:20; 시 72:15,19; 살전 5:25; 살후 3:1; 엡 6:18-20; 딤후 2:1-2; 단 9:20; 마 5:44).

6. 기도 소홀은 심각한 죄로 고발된다(사 43:22; 64:7; 호 7:7; 단 9:13; 시 10:4; 렘 10:25). 이는 하나님에 대한 실제적 부정, 경멸, 강탈이며, 중보자 그리스도와 그를 통한 구속의 모든 방법과 축복에 대한 부정과 경멸이고, 성령을 거역하고 끄는 것이며, 시간과 영원에 걸쳐 우리 자신과 이웃을 의도적으로 멸망시키는 행위다.

기도와 모든 다른 종교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1. 기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요구되며, 다른 이들을 배제한다(마 4:10; 신 6:13; 10:20).

2. 하나님만이 모든 기도의 신앙의 대상으로 적합하다(롬 10:14; 렘 17:5).

3.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게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인지 분별할 수 있다(렘 17:10; 계 2:23; 시 66:18).

4.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죄를 용서하고 모든 필요한 은혜를 베푸시며 응답하신다(시 65:2; 50:15; 91:15; 미 7:18-19; 시 20; 102; 사 58:9; 65:24; 63:16).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필요를 알고 계시며, 언제 어떻게 그의 은혜와 심판을 베풀지에 관한 불변의 뜻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기도는 그분의 뜻과 약속을 이루고 은혜를 얻으며 심판을 막는 지정된 수단이다(겔 36:25-37; 시 91:15; 50:15; 렘 33:3; 시 45:11; 막 10:24).

모든 사람은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기도를 그들의 주요한 일로 삼는다(고전 1:2; 시 24:6; 눅 11:1-13; 18:1-7; 마 7:7-11; 요 16:24,26; 아 2:14; 8:13; 7:5).

악인들도 기도해야 한다.

1. 기도는 단지 자연의 빛에 의해 요구되는 의무다(욥 1:5-6,14; 행 17:26).

2. 그들이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매우 최악적이라 묘사된다(시 10:4; 14:4; 79:6; 렘 10:25; 롬 1:21; 호 7:14; 단 9:13; 욥 36:13).

3. 주기도문에 언급된 모든 내용은 악인들도 구해야 할 적절한 것이다(마 6:9-13).

4.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명백히 기도를 요청하시며, 그들의 기도에 종종 응답하셨으나 결코 받아들이지 않으셨다(행 8:22; 시 107:6,14,19-20,29; 창 21:17; 욥 3).

그들의 기도는 방식과 목적에 있어 하나님께 혐오스러운 것일지라도(롬 14:23; 잠 15:8-9; 28:9; 21:4,27; 시 109:17), 그 내용이 선하기에, 기도를 소홀히 하는 것은 더 큰 혐오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즉각적인 의무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상태와 본성을 새롭게 하여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마태복음 7:13; 누가복음 13:24), 그 갱신을 위한 신성하게 제정된 수단으로서 기도를 간절히 사용해야 한다(사도행전 8:22).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해서는 안 되는데, 그들의 상태와 처지는 불가역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누가복음 16:22-27; 사무엘하 12:21-23). 또한 성령을 거스르는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 혹은 확실히 그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서도 안 된다(요한복음 5:16). 그러나 땅 위에서 현재 살고 있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종류의 사람들—기독교인, 유대인, 무슬림, 이방인, 귀천을 막론하고—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디모데전서 2:1-2; 요한복음 17:20; 사무엘하 7:29; 시편 90:14-17) 우리와의 관계, 그들의 지위와 중요성,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어려움에 따라 그들에 대한 기도에 충만해야 한다(창세기 32:9-12; 시편 3-6; 고린도후서 12:7-9; 이사야 38:14). 특히 그리스도의 교회(에베소서 6:18; 시편 28:9; 51:18; 122:6; 아모스 6:1,6), 목회자들(데살로니가전서 5:25; 로마서 15:30-31; 골로새서 4:3; 데살로니가후서 3:1; 에베소서 6:19-20), 관원들(디모데전서 2:1-2; 시편 72:1, 20; 잠언 21:1), 우리가 속한 나라와 지역(예레미야 29:7), 고통받는 자들(시편 35:13-14; 야고보서 5:14; 사도행전 12:5), 가족과 친구, 친척들(욥기 1:5; 42:10; 야고보서 5:16; 에베소서 1:16-20; 3:14-19; 사무엘하 12:16; 창세기 17:18; 24:12; 열왕기하 6:17),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원수들까지(마태복음 5:44; 누가복음 23:34; 사도행전 7:60; 시편 35:11-14)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또한 과거 세대의 공적 죄를 자백하고 그들의 자비에 감사하는 것뿐 아니라 현재 세대의 죄와 자비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한다(에스라 9; 느헤미야 9; 다니엘 9; 레위기 26:40; 시편 78; 105-106; 136).

## 기도의 방법

기도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1. 하나님의 영의 감화 아래 우리의 마음이 깊이 관여하여(에베소서 6:18; 유다서 20; 빌립보서 3:3; 고린도전서 14:15; 예레미야 29:13)
2. 신중하게(시편 5:1; 전도서 5:1-2)
3. 자신의 죄책감, 부패, 연약함, 필요와 그리스도의 인격, 직무, 충만과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분 안에 계심을 온전히 알고, 기도의 진정한 목적과 내용, 방식을 지혜롭게 분별하며(시편 51; 38; 65:2; 고린도전서 14:15; 에베소서 1:17)
4.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 거룩함, 권능, 자비, 공의, 선하심, 진리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경건하게(시편 89:7; 하박국 1:12-13; 창세기 18:25-30; 출애굽기 34:6-7; 민수기 14:18-19)

5.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성, 필요를 깊이 깨달아 겸손하게(창세기 18:27; 32:10; 누가복음 15:17-19; 18:13-14; 시편 10:17; 102:17)

6.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그분의 인격에 연합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은혜의 능력으로, 약속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응답하시는 근거인 그분의 의로움과 중보에 의지하여(요한복음 15:7; 16:23-24; 히브리서 4:14-16; 골로새서 3:17; 베드로전서 2:5; 마태복음 21:22; 요한일서 2:1-2; 히브리서 7:25; 10:19-22; 에베소서 2:18; 3:12; 요한계시록 8:3-4, 34; 요한일서 5:14)

7. 하나님의 약속과 완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를 믿고, 우리의 간청이 반드시 받아들여질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시편 62:8; 야고보서 1:6-7; 마가복음 9:23; 11:24; 마태복음 21:22; 로마서 10:14-15; 히브리서 11:6)

8.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 기쁨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이를 향한 애정 어린 마음으로(갈라디아서 4:6; 이사야 63:15-16; 디모데전서 2:8)

9. 마음에 깨어짐과 넉넉함이 넘치는 상태로(시편 51:17; 62:8; 빌립보서 4:6; 사무엘상 1:10, 15)

10. 고백과 간구, 감사에 부합하는 진실함과 내적인 참됨, 솔직함으로(시편 17:1; 104:18; 히브리서 10:22; 66:18; 44:18-22)

11. 담대함과 친밀감을 가지고(히브리서 4:16; 욥기 23:3; 로마서 8:15; 갈라디아서 4:6)

12. 간절한 간구를 통해(야고보서 5:16; 누가복음 11:8; 18:1-7; 마가복음 10:47-48; 마태복음 15:22-28; 창세기 32:26; 출애굽기 32-34; 신명기 9; 민수기 14)

13. 우리가 구하는 자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때, 방식, 정도에 겸손히 복종하며(시편 10:17; 누가복음 18:9-14; 마태복음 26:39; 요한복음 12:27; 로마서 8:26-27; 고린도후서 12:7-10)

14. 깨어 있고 인내하며(에베소서 6:18; 누가복음 18:1-8; 11:5-13; 이사야 62:1, 6-7; 마태복음 7:7-11)

15.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비 간구에 은혜롭게 응답하시거나 더 적절한 것을 자신의 때와 방식에 따라 주실 것을 희망하며 기다린다(시편 85:8; 5:3; 미가 7:7-9; 이사야 8:17; 30:18; 욥 35:14; 시편 27:13-14; 130:5-6; 히브리서 10:36; 6:11-12).

이러한 복종, 인내, 깨어 있음, 겸손한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적절한 때에 응답하실 것임을 나타낸다(시편 6:9; 56:8; 20:4; 50:15; 91:15; 이사야 58:9; 65:24).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우리의 격려자이자 지도자이다. 말씀의 명령과 약속, 그리고 기도의 성공 기록들을 통해 우리는 기도하도록 격려받는다. 또한 그 교리, 법, 역사, 예언, 약속, 경고, 기도 형식들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내용, 방식을 가르치고 인도한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형식은 탁월한 모범으로서 기도에 대한 우리의 격려와 방식, 순서를 간결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이 거의 모든 경우에 정해진 형식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된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복음서 저자들은 이를 다르게 기록하는데, 마태복음에서 가장 완전하게 기록된 이 기도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할 것을 요구할 뿐이다. 그리스도와 제자들은 이것을 정형화된 형식으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상황에 따라 적절히 다른 말로 기도하였다. 또한 이 기도는 명백히 고백이나 감사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복음적인 기도 형식은 아동이나 매우 무지한 이들을 돕는 데 유용할 수 있으나, 사람을 기도 형식에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1. 그것은 우리의 열망을 억제하여 신성하고 지속적인 도우미인 성령을 소멸시킨다(로마서 8:26-27).
2. 그것은 기도의 올바른 순서를 뒤집어 우리의 욕망이 우리의 말들을 통제하지 않고 말들이 욕망을 통제하게 만든다(시편 62:8).
3. 그것은 우리 이해력과 내면의 능력 행사를 제한하며, 우리가 필요로 하든 아니든 묵발에 의지하여 견도록 만든다.
4. 그것은 본질상 단순한 입술의 예배로 이끌어, 특히 기도를 낭독할 때 우리의 마음을 냉각시키고 무기력하게 한다.
5. 그것은 우리가 섭리를 관찰하거나 우리의 상태와 죄악, 필요, 자비를 돌아보거나, 기도의 인도를 위해 성경을 탐구하거나, 우리의 은사와 은혜를 깨우거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데 게으르게 만든다.
6. 그 어떤 기도 형식도 온나가 고래 속에 있을 때나 다니엘이 사자 굴에 있을 때와 같이 모든 영혼이나 육체의 상황에 맞출 수 없다.
7. 자연조차도 이런 제한의 부조리를 가르친다. 어떤 아이도 부모와 대화하거나 음식과 의복을 구할 때 책이나 형식의 낭독이나 반복이 필요 없다. 벌거벗고 배고프거나 곤경에 처한 거지도 그들의 구제를 요구하는 데 형식이 필요 없다.
8. 우리와 타인의 필요, 하나님의 약속과 간구에 대한 꾸준한 인식과 고려는 특히 대언자의 입장이 된 자들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기도 형식에 대한 강제적 제한은 없으며, 공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이들은 성령과 그들의 판단에 의거하여 상황에 맞게 간구를 드렸다(열왕기상 8:22-54; 역대상 29:10-19; 역대하 20:5-12; 느헤미야 9; 사도행전 1:24-25).

## 성령의 기도 돕는 사역

성령은 기도하는 자들을 다음과 같이 도우신다.

1.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탐구하도록 이끄시고, 경건하고 점잖으며 질서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말할 준비가 된 기도의 은사를 부여하신다. —이 은사는 때때로 반신자에게도 주어진다.
2. 또한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데, 이는 죄로 인한 불행함을 솔직히 고백하고,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필요한 은총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의 습관적 태도 및 능력이다. 이 은혜는 오직 믿는 자에게 주어지며, 그들이 자신의 필요를 깨닫고 그 공급을 요청하도록 격려하며, 적합한 것을 믿음과 뜨거운 마음으로 구하고 최선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도록 마음을 인도하신다.

### 공적 예식에서의 축복

VII. 공적 예식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보내는 사역은 단순히 신성한 은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로 하나님의 선의를 엄숙히 선언하는 의식이다. 이는 신성한 규례이며(민수기 6:23-26; 고린도후서 13:14; 요한계시록 22:21), 이 구절들에서 모든 시대를 통하여 사람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소원되고 선포된다. 이 엄숙한 축복은 다음과 같이 행해지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1. 큰 경외심으로(시편 89:7; 레위기 9:22; 히브리서 12:28-29)
2. 축복이 선포하는 내용과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깊이 이해하며(호세아 4:6; 잠언 19:2)
3. 간구되고 제공되는 축복들이 실제적이고 영원히 필요함을 겸허히 인식하며(에베소서 5:15,17)
4. 축복의 실제적이고 영원한 누림에 대한 강렬한 갈망으로(시편 42:1-2; 84:2,10)
5. 이 축복과 관련된 모든 이를 향한 열렬한 사랑으로(고린도후서 13:11, 13)
6. 하나님께서 우리와 타인에게 이 모든 축복을 온전히 허락하실 것이라는 확신 어린 믿음과 희열에 찬 소망 속에서(역대하 20:20; 마가복음 9:23; 11:24; 이사야 7:9)

### 시편 찬양

VIII. 시편을 공적으로, 사적으로, 은밀히 부르는 것은(역대상 16; 출애굽기 15; 이사야 52:7-9; 사도행전 16:25; 마태복음 26:30; 시편 118:15; 야고보서 5:13) 도덕적 의무이다.

1. 그리스도와 천사, 사도들의 본보기가 있다(마태복음 26:30; 욥기 38:6-7; 누가복음 2:13-14; 사도행전 16:25)
2. 신약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이 있다(시편 47:1-6; 골로새서 3:16; 2:16-17; 에베소서 5:19; 2:14-15)
3. 이 명령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적용된다(시편 67:4; 66:1-2; 117:1-2)
4. 그것은 의식적 예배와 구별되고 대립된다(시편 69:30-31)
5. 시편 찬양은 모세 율법 대부분이 주어진기 전부터 행해졌고, 율법이 폐지된 후에도 여전히 행해지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출애굽기 15:1-22; 이사야 26:19; 요한계시록 14:3; 5:9; 15:3-4; 19:1-2).

우리는 시편을 다음과 같은 태도로 불러야 한다.

1. 그 뜻을 이해하며(시편 47:7; 고린도전서 14:15)
2. 성령의 감화 아래 우리의 정신을 고정시키며(고린도전서 14:15)
3. 주님께 드리며(골로새서 3:16; 에베소서 5:19)
4. 내면의 기쁨으로(야고보서 5:13; 누가복음 1:47)
5.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골로새서 3:16-17; 베드로전서 2:5, 9)
6. 부르는 시편에 맞는 정동(affections)과 함께(시편 45:1; 108:1)

## 서원

IX. 서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증진하기 위해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행하거나 금지하겠다고 엄숙히 약속하는 것이다. 서원은 단지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미치는 의무를 인정하거나, 하나님 명령 중 어느 하나에 더 직접적으로 복종하거나, 그 법과의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나 주인, 관료, 혹은 인간 간의 세속적이거나 성스러운 계약과는 별개로 우리 자신에게 새롭고 독립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1.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께서 권위 있는 명령으로 우리를 구속하신다. 서원에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로 맺는 약속으로 우리 자신을 구속한다(민수기 30).

2. 하나님의 법 의무는 그 의미와 범위를 알기 위해 늘 탐구되어야 하나, 모든 서원은 그 내용과 방식이 합법적이고 구속력이 있는지 알기 위해 하나님의 법에 의해 시험되어야 한다(이사야 8:20).

3.

하나님의 율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사람을 구속한다. 서원은 오직 그것을 한 자와 그 행위에서 대표되는 자만을 구속한다(신명기 5:3; 29:14-15; 민수기 30 장).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거룩함의 절대적 완전성에 구속한다. 우리의 서원은 절대적 완전성에 구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실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하고 열심인 노력에 구속한다(시편 44:17).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영원히 이 완전성에 구속한다. 우리의 서원은 오직 이 현재 생애에 적합한 것에만 구속한다. 그러나 모든 합법적인 서원은 하나님과 그 율법으로부터 유래한 자신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올바르게 행사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그 의무는 그의 권위와 율법에 대한 순종 행위에서 성립되고, 그 내용의 최고 규칙과 기준으로 그의 율법을 가지며, 그의 영광을 위한 보다 완전한 율법 준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그것을 승인하고 가장 엄중한 별 아래 정확한 이행을 요구한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은

1. 자연의 빛에 의해 정당화된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옳게 구속하여 전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인 일이 없다(요나 1:16).

2. 성경은 명백히 그것을 명령한다(시편 76:11).

3. 하나님은 이에 관해 명확한 지시를 주신다(레위기 7; 27; 민수기 6; 30; 신명기 12; 23).

4.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행할 경우 서원을 분명히 인정하고 받으신다(창세기 28:20; 31:13; 민수기 21:2; 사무엘상 1:11-12; 시편 56:12; 61:5; 119:106; 132:2; 이사야 19:18,21; 시편 44:5; 45:21,24; 고린도후서 8:5).

5.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원을 주의 깊게 살피고 정확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신다(창세기 31:13; 신명기 23:21-23; 욥기 22:27; 전도서 5:4-5; 느헤미야 1:15; 시편 50:14; 잠언 20:25; 시편 22:25; 61:8; 66:13; 116:14,18; 119:106; 요나 2:9).

우리가 서원으로 구속하는 내용은

1. 하나님께서 율법 안에서 명령하신 의무이어야 한다(시편 119:106; 역대하 15:12-13; 34:31; 느헤미야 10:29-31).

또는

2. 우리 처지에서 거룩함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렇다고 인정되는 한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민수기 6:30; 레위기 27; 창세기 28:20; 사무엘상 1:10-18).

3. 하나님의 은혜가 도우실 때 우리가 감당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민수기 30; 전도서 7:20; 야고보서 3:2; 요한일서 1:8,10; 갈라디아서 5:17; 로마서 7:14-25).

이런 내용을 다루는 서원은

1. 마음속에서 내면적으로 행해질 수 있고(사무엘상 1:10-18),

2. 성례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자신에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표시로 행해질 수 있으며(갈라디아서 5:3; 베드로전서 3:21; 고린도전서 10:16-17; 11:23-26),

3. 동의하거나 말로 선언하거나 기록하거나 맹세하는 형태로 행해질 수 있다(이사야 44:5).

서원은

1. 개인적일 수 있다. 이 경우 한 사람이 자신을 무지하고, 죄인이고, 더럽고, 텅 비고, 거역하며 하나님 안에서 교사, 용서자, 성화자, 공급자, 분량, 주인으로서 쓸모없다고 엄숙히 내어 맡기고, 은혜 언약의 조항에 따라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으로 만유한 거룩한 순종, 때로는 특별한 부분이나 수행 수단에서 자신의 감사를 나타내는 데 헌신한다(이사야 44:5; 19:18,21; 45:23-24; 시편 119:106; 66:13-14; 116:10-19; 61:5,8; 56:12; 창세기 28:20).



2. 사회적일 수 있다. 이 경우 어떤 민족 또는 교회의 일부나 다수가 함께 엄숙히 주님께 자신을 바친다(여호수아 24:15; 이사야 19:18,21; 출애굽기 24:7-8; 19:5-6; 신명기 5:2-3; 26:16-19; 29:1-15; 24:24-25; 역대하 15:12-13; 23:16; 29:10; 34:30-32; 에스라 10:3; 느헤미야 9-10; 예레미야 34:8-10; 고린도후서 8:5).

모든 서원은

1. 신중하게 해야 한다(전도서 5:2,6).
2. 본성과 내용을 알고 현명하게 해야 한다(예레미야 4:2).
3. 진실하게, 그것을 반드시 이행하겠다는 결심으로 해야 한다(예레미야 4:2).
4. 의로이, 서원 내용이 본질적으로 합법이고 자신의 신분과 형편에 맞는지 완전히 확신하며 해야 한다(예레미야 4:2).
5. 겸손하게 해야 한다(시편 116:16; 누가복음 17:10; 하박국 2:4).
6. 복음적으로 해야 한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과 우리 행위로 구매하거나 보답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자신을 죄인이고 합당치 않은 자로 하나님께 드리며, 그 은혜와 거룩함 자체를 자유의 특권으로 받아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로 삼아 행하는 것이다(시편 116:16; 119:32; 이사야 44:3-5; 누가복음 1:74-75; 히브리서 12:28).
7. 서원이 이루어진 후에는 신속하고 주의 깊게 이행해야 한다(신명기 23:21-23; 전도서 5:4-5; 잠언 20:25; 시편 56:12; 61:8; 119:106; 66:13-14; 116:14,18).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행되는 서원은 유익하다.

1.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받는 제정된 수단으로서(이사야 19:18,21; 44:4-5; 45:23-24; 56:4,6).
2. 하나님 섬김에 더욱 철저한 주의와 엄격함을 요구하는 계기로서(시편 116:12-19; 욥기 13:15).
3.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 실천에 대한 사랑과 확고한 고수를 증거시키는 데(여호수아 24:15; 시편 119:106; 빌립보서 1:27-28).

4. 유혹에 대한 죄된 순응을 막아 우리를 굳건히 하는 데(유다서 3,20-21).

#### X. 종교적 금식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1. 자연의 빛도 금식을 요구한다(요나 3 장).

2.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직접적으로 명령하신다(레위기 23:27; 요엘 2:12; 야고보서 4:9; 마태복음 9:15).

3. 하나님은 사람들이 금식을 행하도록 격려하신다(요엘 2:15-17; 스가랴 12:10-14).

4. 금식하는 방법을 가르치신다(요엘 2:15-17; 마태복음 6:16-18).

5. 금식은 기도와 밀접히 연관되며, 기도는 신앙 생활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의무 중 하나이다(마태복음 17:21; 사도행전 13:3; 14:23; 고린도전서 7:5).

6. 금식의 많은 승인된 성공적인 사례들이 있다(사무엘하 12:16; 시편 35:13; 고린도후서 11:27; 신명기 9; 여호수아 7; 사사기 20; 사무엘상 7; 열왕기상 21:27-29; 역대하 20; 에스라 9-10; 에스더 4-10; 다니엘 9-10; 요나 3; 마태복음 4; 사도행전 10).

금식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1. 엄숙한 헌신을 촉진하기 위한 부분적 또는 전면적인 음식 절제(요나 3:7; 다니엘 10:3; 사무엘하 12:16-17).

2. 진지하게 마음을 살피고 행위를 숙고하는 것(스바냐 2:1; 고린도후서 13:5; 학개 1:5; 예레미야 애가 3:40).

3. 죄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깊이 겸손해지는 것(요엘 2:12-13; 이사야 64:6; 욥기 40:4; 다니엘 9; 에스라 9).

4. 죄를 솔직히 인정하는 것(느헤미야 9:3; 다니엘 9:20-21).

5. 하나님을 향한 복음적 회개(요엘 2:12-13; 예레미야 3:12-14, 21-25; 에스겔 16:63; 36:31-32).

6. 죄 사함과 정결, 고난에서의 해방, 필요한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에스라 8:21; 9-10; 느헤미야 9; 다니엘 9).

7. 하나님과 엄숙하고 복음적인 언약을 체결하는 것(예레미야 50:4-5; 느헤미야 9:38; 신명기 26:17-18; 시편 116:16-19; 이사야 44:3-5; 56:4,6).

종교적 금식은

1. 개인적(사무엘하 12:16; 누가복음 2:36-37; 다니엘 10:2-3; 사도행전 10:30; 마태복음 6:16-18; 고린도후서 11:27),
2. 가정 내(스가랴 12:12-14),
3. 공적(회중, 교회, 국가 단위)(고린도전서 5:2; 사무엘상 7:6; 역대하 20:5)

로 구분된다.

하나님의 섭리 하에 우리는 금식에 다음과 같이 부름받는다.

1. 하나님이 현저히 모욕을 당하셨을 때(사무엘상 7:6; 고린도전서 5:2).
2. 특별한 은총이 필요할 때(다니엘 9:1-3; 사도행전 6:6; 13:2; 14:23; 에스겔 36:37; 마태복음 17:21).
3. 무서운 심판이 임박했을 때(요나 3:4-7; 사무엘하 12:16; 열왕기상 21:27).
4. 우리나라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뚜렷한 징표 아래 있을 때(야고보서 5:13; 시편 35:13; 느헤미야 1:3-4; 요엘 1-2; 이사야 22:12; 마태복음 9:15).

그러나 금식의 특정 날짜나 시간은 사람에게 맡기셨다. 모든 것은 사랑과 단정함과 질서 안에서, 세움을 위한 유용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는 일반 규칙에 따라 정해야 한다(고린도전서 16:14; 14:26,40; 10:31).

각 개인은 자신의 비밀 금식이나 엄숙한 감사의 정확한 시간을 정할 권한이 있다. 가정의 우두머리는 각 가정의 금식이나 감사 시간을 정해야 한다. 사회는 최소한 다수의 상호 합의로 금식 시간을 정해야 한다(스가랴 12:12-14). 목사와 장로는 회중 금식의 시간을 정해야 한다(사도행전 14:23; 13:3).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일반 금식을 정할 권한이 있다(요엘 1-2). 세속 권력자, 즉 정치 공동체의 우두머리로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청지기로서 공공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국가 금식을 정할 권한이 있다(사무엘상 7:6; 역대하 20:1-13; 에스라 8:21; 10; 느헤미야 9; 예레미야 36:6; 요나 3:5-7).

모든 종교적 금식은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켜져야 한다(스가랴 7:5).
2.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켜져야 한다(다니엘 9:19; 스가랴 12:10-14).
3. 마음이 부서지고 연약한 마음으로 지켜져야 한다(고린도후서 7:9-13; 다니엘 9; 에스라 9; 느헤미야 9).
4. 슬퍼하는 죄의 깊고 생생한 자각과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적극적으로 풍성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깊은 겸손에 뒤따라야 한다(누가복음 18:13; 시편 51:2-3; 마태복음 3:8).

이러한 종교적 금식의 목적은

1. 하나님의 완전성과 섭리를 존중하는 것이다(스가랴 7:5; 여호수아 7:19; 예레미야 13:16).
2.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죄와 결점, 고난을 애통하며 양심과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것이다(다니엘 9; 에스라 9; 느헤미야 9; 역대하 30:22; 예레미야 3:13,21-25; 에스겔 7:16).
3. 우리의 몸과 그 행위를 죽이는 것이다(고린도전서 9:27; 로마서 8:13).
4. 간절한 간구의 열기를 돋우는 것이다(다니엘 9; 요나 3:5).

5.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촉진하는 것이다(요엘 2:12; 예레미야 50:4-5).

#### XI. 하나님께 영적 또는 물질적 은혜에 관해 엄숙히 감사하는 것은

1. 자연의 빛에 의해 정당하다.
2.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에 의해 정당하다(시편 50:14).
3. 성도들의 승인된 본보기에 의해 정당하다(출애굽기 15:1-22; 사사기 5; 사무엘상 2:1-10; 역대하 20:26).
4.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목적 중 하나이다(시편 106:4-5).
5.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심히 노하게 하여 은혜를 거두고 저주를 덧붙이게 한다(호세아 2:8-9).

감사는 개인적(사무엘상 2:1-10; 사무엘하 22; 누가복음 1:46-47 등), 가정적(사사기 5), 또는 공적(출애굽기 15; 역대상 16; 역대하 20:26)일 수 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인지하고(시편 116; 18; 103; 105; 107; 137-138; 145-150), 이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시편 36:6-7; 116:12,16; 창세기 32:10) 하나님께 엄숙하게 찬양을 드리는 것을 포함한다(시편 100; 103-105; 107; 136; 출애굽기 15; 역대상 16).

감사는 다음과 같이 행해져야 한다.

1.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로마서 14:5-6).
2. 무엇을,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감사하는지 알고 현명하게 해야 한다(시편 103:1-8).
3. 육적인 기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고린도전서 14:15; 야고보서 5:13; 시편 108:1).
4. 은혜에 대하여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으로 복음적으로 해야 하며, 이것을 보답하려는 의도가 없어야 한다(시편 116:12-19).
5.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에베소서 5:20; 골로새서 3:17; 베드로전서 2:5; 히브리서 13:15).

6.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한다(사사기 5:12).

7. 적절한 목적을 따라야 하는데, 즉

-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무조건적 은혜에 찬양을 돌리는 것(시편 50:23),
- 2) 자신의 영적 복리를 증진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이 감동받아 낙담을 굳세게 하고 순종을 더욱 넉넉히 하는 것(시편 42:5-6; 호세아 2:14-15),
- 3) 종교의 공적 평판을 증진하는 것이다(이사야 2:4-5; 스가랴 8:20-23).

이외에 새 언약의 명백한 제도 외에도,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상징적 의미를 지닌 비유적(형상적) 제도가 있다. 이는 주로 구약 시대에 적용되었으며, 당시 미래의 일을 예표하는 전형적 제도였으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인치고 적용하는 성례적 제도이기도 하다.

이 전형적 제도들은 특별한 성례를 포함하는데, 노아의 방주(히브리서 11:7; 베드로전서 3:21), 무지개(창세기 9:12-18; 이사야 54:9-10; 요한계시록 4:3; 10:1), 구름과 불기둥(출애굽기 13:20-22; 고린도전서 10:1-2),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 통과(출애굽기 14:15; 고린도전서 10:1-2), 만나(출애굽기 16; 고린도전서 10:3; 요한복음 6:31-56), 물을 내는 반석(출애굽기 17:2-8; 고린도전서 10:4), 제사(창세기 4:4; 8:20)와 보통의 성례인 할례와 유월절(창세기 17; 여호수아 5; 출애굽기 12; 민수기 9)을 포함한다.

#### 구약과 신약의 성례 일반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으로서,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은혜가 신자들에게 나타나고 확증되며 적용되며, 신자들은 엄숙히 그의 섬김에 헌신된다. 모든 성례의 물질은 감각적인 표식이며, 그 표식이 나타내는 영적 사물이다. 그리고 형태는 그리스도의 권위, 제정, 약속에 의해 표식과 표상된 사물 사이에 이루어진 연합이다(고전 10:16; 출 12; 고전 5:7). 성례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성례가 사람들을 구원의 상태로 만들지 않고 이미 그 상태에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성례에 참여하지 않고도 구원받았다(롬 4:11; 고전 11:28; 막 16:16).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성례를 제정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은 합당하다.

1. 우리의 몸뿐 아니라 영혼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았으므로, 그의 구속의 은혜가 부분적으로 육체적 표식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합당하다.
2. 우리의 현재 어린아이 같고 연약한 상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로 구속의 기초와 그 안에서 우리의 권리를 나타내는 언약의 표를 감각적으로 주시는 것이 적절하다.
3.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의 가시적 확인을 통해 인간 사회에서 다른 일에 사용하는 표식들과 유사하게 만드신다.
4. 영생을 상속받을 몸이 거룩한 것으로 성별되는 것이 합당하다.
5. 교회 구성원은 다른 이들과 구별되어야 하며, 그들의 원리와 상태, 믿음과 소망을 반영하는 가시적 표지로 서로를 세워야 한다.

그러나 단순히 성례의 집행이나 참여만으로는 받는 이에게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는다.

1. 성례의 본질은 내적 은혜를 포함하거나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시는 은혜를 상징하고 확증하는 것이다. 무지개가 두 번째 대홍수에 대한 하나님의 완전한 보증을 주었으나, 비가 내리거나 물이 불어나는 것을 막지 못한 것과 같다. 왕의 특허장이나 증여장에 붙은 봉인이 무언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봉인된 문서의 왕실 허락을 확증하는 것과 같다.
2. 성례가 스스로 내적 은혜를 부여하거나 발생시킨다면, 그것은 감각 표식들의 자연적 힘이나 거기에 주입된 영적 힘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둘 다 불합리하다.
3. 상식은 물질적 표식이 혼을 정화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4. 성경은 단순히 성례 표식을 받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확보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다(롬 2:25-29; 갈 6:15; 갈 5:6; 벧전 3:21; 고전 11:27-29).
5. 성례를 통해 신자들에게 확증되는 모든 축복은 외적 표식의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귀속된다(사 1:18; 사 43:25; 겔 36:25-31; 빌 2:13).
6. 성례를 구원에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막 16:16; 고전 11:27-29).

## 성례의 유용성과 기능

그럼에도 성례는 단순한 기독교 고백의 표시나 영적 은혜의 표식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유용성을 지닌다.

1. 우리의 영적 묵상을 돕는다(고전 10:16).
2.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확증하고 적용하여, 이 축복들을 나타내고 약속을 우리에게 지시하며 그 안에 담긴 것을 전달한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에게 엄숙한 권리 투자와 상속권을 부여하며, 표식과 함께 완전한 축복이 주어질 때의 보증으로서 첫 열매를 주신다(롬 4:11; 고전 10:16).
3.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증가시켜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한다(히 6:17-18).
4. 우리의 영적 체험을 생산하고 고양시킨다.
5. 그리스도와 아버지, 성령께 우리가 진 빚으로서 감사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새기며 진심으로 그분께 헌신하도록 한다(엡 5:2; 시 116:12,16).
6. 교회 구성원을 다른 이들과 구별 짓고, 그 차이의 근원을 표시한다(갈 3:27).
7. 신자들 사이에 공동 고백과 상호 사랑의 공적 유대로 기능한다(고전 10:16-18).

신약의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으로, 폐지된 할례와 유월절 성례를 대체하며 세례와 성찬 두 가지가 있다. 두 성례는 제정자, 시대, 일반적 의미, 엄숙함, 집행자, 대상 등이 동일하나, 즉각적 목적, 그리스도와 은혜의 표현의 충만성, 반복 가능성, 그리고 유아가 세례는 받을 수 있으나 성찬은 받을 수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에 가톨릭은 안수, 혼인, 견진, 고해, 종부 성사를 추가하였으나, 어느 것도 하나님 말씀에 따른 성례로서 정당성이 없고, 특히 후자의 세 가지는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방식에 전혀 근거가 없다. 안수는 교회 직분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다. 혼인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허락된 특권이나, 가톨릭은 자신의 성직자와 헌신자들을 불순한 상태로 간주하여 혼인에서 제외한다. 복음 전하는 목회자 외에는 그리스도의 성례 집행 권한이 없다.



1. 그리스도께서는 집행자들에게 오직 그들에게만 성례 집행 권한을 허락하셨다(마 28:19; 고전 11:2,23; 고전 4:1-2; 히 5:4).

2. 사도 시대에 성례를 집행한 모든 이는 평범한 혹은 특별한 소명으로 목회직에 임명되었다(눅 1; 눅 3; 고전 12:28-29; 엡 4:11-12).

성례 집행자의 진실한 의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필수적이나, 받는 이에게 이 예식들이 참되고 실제적인 성례가 되게 하는 데는 필요하지 않다.

1. 목회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종에 불과하므로, 그들의 의도가 신적 예식의 본질이나 효력을 더하거나 감소시키지 못한다(고후 4:5,7).

2. 설교된 말씀의 효력은 설교자의 의도나 중요성에 달려 있지 않다(빌 1:18; 고전 3:6).

3. 만약 집행자의 의도가 성례의 본질이나 효력을 결정한다면, 악한 성직자가 임의로 하나님의 언약 표식을 빼앗거나 부적합한 자들에게 부여할 수 있었을 것이다.

4. 그럴 경우 누구도 자신이 참된 세례나 성찬을 받은 것인지 절대적으로 알 수 없게 된다.

가톨릭에서는 세례에 필요한 집행자의 의도가 부족하다면 거의 모든 이가 세례받지 않은 채 멸망 상태에 있을 수 있다.

성찬에서도 그 의도가 부족하면 요소가 성별되지 않아 단순한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 자신으로 경배하거나 받는 오류가 발생한다. 안수에서는 그 의도가 없으면 거룩한 직분이 부여되지 않아 수백 년간 사제들이 평신도에 불과했을 수 있다.

혼인에서는 이 의도 부재로 인해 당사자들이 간통의 삶에 들어가게 할 수 있다. 고해에서는 죄 사함이나 죄로 인한 고통의 해방이 없을 수 있다. 종부 성사에서는 이 의도 부재로 죽는 이를 악마와 그의 천사들에게 넘기는 일에 불과할 수 있다.

가톨릭 교리상, 이러한 의도 부재로 인하여 언제부터 그들 사이에 참된 기독교인이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 세례에 관한 신학

I. 세례는 성례로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여지고 은혜 언약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주님의 종이 됨을 상징하고 확증한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할례 부상 치유 후에 개종자들을 씻거나 세례하는 관습이 있었다. 그러나 세례가 하나님의 언약 제도로 정립된 것은 세례 요한, 곧 우리 주님의 선구자 때부터이다(마 3). 우리 구세주는 직접 물로 세례를 베풀지 않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셨으며, 성령이 물로 상징되었다(요 4:1-2; 마 3:11). 그러나 구세주의 활동 기간 동안에 그분은 열두 제자를 세례 집행자로 세워 다수에게 세례를 베풀게 하였고(요 3:26; 요 4:1-2), 승천 직전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라는 영구적인 위임을 주었다(마 28:19).

요한의 세례는 그리스도가 아직 현현하지 않으셨고(행 19:4), 삼일일체의 세 위격 신비를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독교 세례와 다르다. 그러나 물 표식, 믿음과 회개의 전제 조건(눅 3:3,8-14; 행 2:38), 죄 사함과 거듭남의 의미(막 1:4; 행 2:38; 딤후 3:5) 등은 일치한다. 이에 우리 구세주도 신약 교회의 회원이 되고자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다(마 3:13-17). 세례의 외적 표식은 그 목적에 맞게 엄숙히 축복된 단순한 물이다(마 3:11; 행 8:36,38; 행 10:47; 벰전 3:20-21). 이 물은 온 몸을 잠기게 하거나 얼굴 등 신체 주요 부위에 뿌림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성경에서 세례와 관련된 'eis Hydor'는 '물'로, 'Ek Hydatos'는 '물에서'로 해석된다.
2. 안논과 같이 많은 물이 있는 곳이나 간수에게 세례를 베풀 가사에서는 대중이 전신을 담글 만한 연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요 3:23; 행 8:26,36).
3. 예루살렘에서 세례받은 다수가 연못에서 전신을 담갔다는 것은 가능성이 낮고, 빌립보의 간수와 가족이 한밤중에 감옥을 나와서 몸을 담글 연못을 찾으러 갔다는 것도 불확실하다(행 16:33).
4. 성경에서 'baptize'라는 단어가 반드시 물에 담그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막 7:4,8; 눅 11:38; 고전 10:2; 히 9:10).
5. 세례가 상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며(벰전 1:2; 히 10:22; 히 12:24; 사 52:15; 겔 36:25), 이는 세례가 단순한 물 의식이 아니라 복음적인 의미를 지님을 보여준다.

세례는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1. 성례에 단순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참여자가 되지 않는다(벧전 3:21; 고전 11:27,29; 롬 2:28-29).
2. 세례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사람은 세례를 주거나 거두어들이므로써 타인을 자유롭게 구원하거나 멸망시킬 수 있어야 한다.
3. 세례가 새 언약과 의로움의 믿음의 확증인 본질은, 사람이 이미 그 언약에 참여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4. 바울(갈 1:16), 고넬료(행 10:35,44-45,47), 베드로의 제자들(행 2:41)처럼 많은 이들이 세례를 받기 전부터 이미 진정한 은혜를 받았고 구원의 상태에 있었다. 태중에서 거듭난 자들도 세례를 받을 능력이 생기기 전에 이미 구원의 상태에 있다. 회심한 강도는 세례 없이 천국에 들어갔다고 추정된다(눅 23:43).
5. 반면 시몬 마술사처럼 세례받고도 거듭나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행 8:13,20-23; 요일 2:19).
6.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은 세례의 부재가 아니라 믿음의 결핍이다(막 16:16). 본 문장은 세례가 명백히 생략된 경우이며, 사람들이 세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세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하다.

1. 그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교회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야 할 예식이기 때문이다(마 28:19-20).
2.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통상 수단이며, 그로부터 은혜를 받고 세상 앞에서 그를 공경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롬 6:3-5).

세례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행하는 물 씻음은 다음을 나타내고 확증한다.

1.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에 성원으로 엄숙히 입회함을 나타내나, 이것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 일에서 삼일 하나님과 그의 사역 대리인들이 엄숙히 우리를 회원으로 인정하며, 참석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형제로 인정한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연합된 사회로서 세상과 구분되어 하나님의 섬김을 위한 존재임을 고백한다(고전 12:12-13; 행 2:41).

2. 그리스도와 영적 연합을 통해 우리의 접붙임을 나타내는데, 그분은 우리의 뿌리이자 머리며 남편이시다(갈 3:27; 롬 6:3-4).

3. 은혜 언약의 복, 특히 그리스도의 의와 그로 인한 의롭다 하심의 엄숙한 참여를 나타내며(롬 6:4; 행 2:38; 행 22:16),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고 그분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관계(갈 3:26-27; 고후 6:18; 행 2:38-39),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태어남(딤후 3:5; 벰전 3:21; 롬 6:3-5; 골 2:11-13; 요 3:3,5-6),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행복으로의 기쁜 부활(롬 6:4-5; 고전 15:29)을 의미한다.

4. 복음이 아버지, 아들, 성령에 관해 선포하는 신앙의 엄숙한 고백과 새 언약적 관계에서 우리의 이해관계, 그리고 우리 자신과 모든 소유를 그들의 재산으로 헌신하여 언약의 내용에 따라 그들이 원하시는 대로 처분하고 사용하도록 엄숙히 내어맡김을 나타낸다(요 4:1; 롬 6:4; 사 44:3-5; 행 2:39; 고전 6:19-20; 엡 4:1; 엡 5:1-2,11; 고전 12:12-14).

## 세례받을 권리

거듭난 자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을 권리가 없다.

1. 성령과 신앙, 회개가 세례의 필수 전제 조건이다(행 10:47; 행 8:36-37; 행 2:38).

2. 성례는 확증하는 규례로서 세례받는 자가 이미 은혜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음을 전제로 하며, 표징이기에 공백 상태에 신성하게 주어질 수 없다(롬 4:11; 골 1:11-12; 갈 3:27). — 진정으로 거듭난 자만이 세례받을 권리를 사람들 앞에서 가진다.

1.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만 세례받을 권리가 있다면, 교회 앞에서는 성도의 겉모습을 가진 자만 세례받을 권리가 있다.

2.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아야 한다(마 7:6; 잠 26:11; 벨후 2:18,20,22; 시 14:1-4).

3. 세례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며(요 4:1; 마 28:19), 오직 아버지에게서 듣고 배워 선행 행실로 지식과 신앙을 나타내는 자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는다(요 6:44-45; 마 7:20-21; 딤후 1:16; 딤후전 5:8).

4. 성경은 성도의 겉모습을 가진 이들이 세례받는 모습을 보여 준다(마 3:6; 행 2:41; 행 8:12-13,37-38; 행 9:18; 행 10:47-48; 행 16:14-15,32-33; 행 18:8).

5. 명백히 악한 자의 입회는 표징 규례를 심각하게 모독하는 행위다(레 10:8-10; 겔 22:26; 겔 44:9).

## 유아 세례의 권리

가시적 성도인 부모 중 한쪽 이상이 있는 경우 그 유아는 교회 앞에서 세례받을 권리가 있다.

1.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모든 민족에게 세례 베풀을 명령할 때 유아도 포함된다(마 28:19; 막 16:15-16). ‘세상’과 ‘민족’은 유아 할례가 시행되던 유대인과 대비되며, 유아가 민족에 포함됨이 확실하다.

2. 신자의 자녀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므로(창 17:7; 행 2:38-39) 그들에게 적합한 언약의 표를 누릴 수 있다. 이는 피험자에 대한 사전 조사 없이 주어지며, 먹거나 마시는 의식도 필요 없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주요 복—그리스도와의 연합, 의롭다 하심, 입양, 거듭남, 영생으로의 부활—을 상징한다.

3. 유대교에서는 유아가 할례받았는데, 이는 세례와 대략 같은 의미를 지닌다(창 17:10-14). 그리스도는 교회의 특권을 축소하려 온 것이 아니라 확장하려 왔으므로, 유아는 할례만큼 세례받을 자격이 있으며, 세례는 할례의 실체로 표현된다(골 2:11-12).

4. 유아는 그리스도께서 품에 안을 수 있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다(마 19:13; 막 10:14). 만약 그들이 구성원이라면, 왜 구성원의 첫 표를 거부하겠는가?
5. 한쪽 이상 신앙인의 부모에게서 난 유아는 혈통상 정당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께 구별되어 섬김을 받기에 연합적으로 거룩하다(고전 7:14).
6. 누가의 가정과 빌립보 감옥 간수의 가정(행 16:15,33), 고린도 스테바나의 가정(고전 1:16) 등에서 전 가족이 세례받은 사례가 여럿 있으며, 이는 당연히 유아가 포함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7. 초대 교회 시대 모든 신앙인의 유아가 세례받았다. 심지어 펠라기우스—학식이 높고 광범위한 여행 경험으로 유아 세례를 부인하는 교리적 압력에도 불구하고—도 유아 세례 부인 사례를 들어본 적 없으며, 그 부인 소문을 악의적인 중상이라 했다.

#### 유아 세례에 대한 반대 및 답변

##### 반대 1.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

- 답변 1. 하나님은 유아를 할례하라 명하셨고, 세례 또한 할례만큼 정당한 이유가 있다(창 17:10-14; 골 2:11-12).
2. 민족들에게 세례를 명했는데, 유아도 민족에 속한다(마 28:19).
  3. 신앙인의 유아에게 주어진 새 언약 약속이 있다(행 2:39; 행 13:46).
  4. 유아 세례에 대한 명확한 명령이나 이유가, 기독교 안식일 준수나 여성의 주의 만찬 참여에 대한 것보다 부족하지 않다.

## 반대 2. “약 30 년간 교회 역사에 유아 세례에 관한 명확한 기록이 없다.”

답변 1. 아브라함부터 세례 요한까지 약 2000 년간 유아가 팔일에 할례받았다는 기록이 없다고 해서, 그 기간 동안 유아가 할례받지 않았거나 팔일째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안디옥, 이고니온, 로마, 데살로니가, 골로새 교회에서 세례받은 기록이 없다고 성도 중 누구도 세례받지 않았는가? 일반적 사실에 대한 개별 사례를 역사가가 기록하지 않는 것은 흔하다.

2. 반대자는 믿는 부모의 자녀가 자신이 서약할 수 있을 때까지 세례를 거부당한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 반대 3. “유아는 세례로부터 아무 유익도 얻을 수 없다.”

답변 1. 부모가 세상 유산을 물려줄 수 있으면, 하나님이 천국 복을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이 세례로 상징되는 모든 복을 주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2. 유아가 할례로 유익을 받았다면, 세례로도 받을 수 있다. 그들은 할례뿐 아니라 세례를 통해 하나님 섬김에 의무를 진다(갈 5:3).

## 반대 4. “신앙과 회개 및 그 고백이 세례의 필요조건이다.”

답변 신앙과 회개 습성을 지닐 수 없다 해도 유아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고백은 성인에게 요구될 뿐이다. 유아는 직계 부모에게 세례 권리를 받는다.

1. 만약 유아가 중간 조상으로부터 세례 권리를 얻는다면, 모든 이교도와 무함마드교도 자녀도 경건한 조상으로부터 권리를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와 언약에서 소외된 이방인으로 그리스도 없고 희망 없으며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산다(고전 7:14; 엡 2:12).

2. 만약 유아가 중간 조상으로부터 세례 권리를 얻는다면, 가장 먼 조상에게서 권리를 획득해야 하고, 따라서 모든 유아가 경건한 노아나 예녹의 후손이므로 세례받아야 한다. 또는 권리 계승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성경에는 없다. 만약 천 세대까지라면 모든 이교도 유아도 세례받을 권리가 있다. 악인의 자손에게 제 3, 제 4 대까지 저주가 내림을 어찌 설명할 것인가? 또한 거의 60 대 후손에 달하는 유대인이 교회 밖에 놓였던 일은 어떻게 되는가?

3. 뛰어난 경건을 지닌 조상에도 불구하고 사도 시대 유대인의 유아는 부모와 함께 교회 밖에 있었다. 이는 바로 부모의 죄 때문이었다(롬 11:16,20).

4. 자녀는 직계 부모의 신앙으로 연합적 거룩함을 받는다(고전 7:14).

5. 악인의 자녀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로 선언된다(신 28:18). 저주받은 자녀가 약속과 복의 표를 가질 수 없다.

#### 직접 부모의 신앙과 세례 권리

가시적 신자인 직접 부모 가운데 적어도 한쪽 이상으로부터 난 유아만이 교회 앞에서 세례받을 권리가 있다.

1. 권리를 부모에게서 직접 얻는다면, 그것이 부모의 세례 때문인지 가시적 신앙 때문인지 분명해야 한다. 만약 세례 때문이라면, 부모가 악하면 세례가 무효가 되어 권리가 없다(롬 2:25). 단지 할례가 율법 준수 없이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함과 같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주장은 어리석다(갈 3:10; 갈 2:16; 롬 3:20).

2. 부모의 주의 만찬 참여 권리와 그 유아의 세례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제한적으로 불경건한 행실이 드러난 교인의 권리는 유지되나, 회복까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불경건한 자는 권리가 없으며 그 자녀도 권리가 없다. 부모가 명백히 악하다 해도 성령이 그 유아의 마음에 들어간다 해도, 그 유아의 세례 권리는 스스로 고백하고 행할 때까지 드러나지 않는다.

3. 악인의 자녀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이며(신 28:18), 그런 자녀를 세례 때 복된 자로 선언할 수 없다(약 3:10-11).



4.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예컨대 악인 부모의 자녀는 세례의 표를 가질 권리가 없다. 설령 부모가 세례받았다 하더라도 그 세례가 그들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자녀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5. 부모에게 신앙과 회개가 있어야 자녀가 연합적으로 거룩하며 세례에 적격하다(고전 7:14; 행 2:38-39).

6.

눈에 보이는 신자 외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 자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아무런 표지가 없다(창 17:7; 렘 31:33).

7. 명백히 불경건한 부모의 자녀가 세례 받을 진정한 권리가 있다면, 교회는 그들에게 세례를 허락해야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과연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그 부모는 자녀를 기독교적으로 양육할 능력이 없다. 그들의 행실이 꾸준히 세례의 서약과 모순되는 상황에서, 그 자녀들을 그러한 서약 아래 두는 것은 하나님을 엄숙히 조롱하는 것일 뿐이다. — 또 자녀들을 권위 아래 두지 못하거나 두려 하지 않는 대보자에게 서약을 맡기는 것도 다를 바 없다.

8. 명백히 악한 부모의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 엄숙한 성례를 완전히 통속화시키며, 눈에 보이는 성도가 아닌 교인들을 공인하는 결과가 되어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공동체가 되지 못하게 한다(요 18:36; 뱀전 2:5,9; 엡 2:12,19-20; 요일 5:19; 롬 9:29 에 반함).

9. 악한 부모가 스스로 세례 받을 권리가 없고 자녀가 권리를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라는 사실이 증명되었으므로, 그러한 부모의 자녀들도 세례 받을 권리가 없다.

10. 악한 부모의 유아를 세례에서 충실히 배제하는 것은 복음의 목적을 증진하는 데 현저한 효과가 있다. 복음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불경건과 세속적 정욕을 부인하고 근신하며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부른다. 부모들은

부당하게 세례라는 봉인 성례에 임함으로써 악행에 더 완고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이도 단지 세례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려 유혹받지 않을 것이다. 복음 청취자들도 자녀들이 세례받는다는 희망 때문에 무지나 악행에 빠져들도록 유혹받지 않을 것이다. 세례는 주의 만찬처럼 엄숙하게 여겨질 것이며 보통사물로 모독되지 않을 것이다.

## 이의 제기와 답변

### 이의 제기 I. “모든 그리스도인의 유아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답변. 그렇다면 명백한 하나님 적대자이며 이름뿐인 그리스도인과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빛의 천사’로 불리긴 하지만 사탄과 연합을 맺으셨는가?

### 이의 제기 II. “자녀는 부모의 죄로 인해 결코 고통받아선 안 된다.”

답변

1. 그렇다면 이방인의 유아들 역시 그리스도인의 유아들만큼 무죄하게 태어났는가? 그들 역시 세례받아야 하는가?
2. 부모의 죄로 인해 어느 자녀도 교회 입교에서 배제되어선 안 된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모세와 다윗 시대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어야 한다.
3.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경우에 부모의 죄악을 자녀에게 임하게 하신다(출 20:5).
4. 악한 부모의 유아에게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그 유아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권리가 없는 것을 주지 않는 것으로, 만약 준다면 도리어 해가 될 뿐 유익이 되지 않는다.
5. 만약 관리들이 반역죄를 범한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처벌할 수 있다면 — 아버지의 계속되는 반역 때문에 — 왜 하나님께서도 악한 부모의 죄악 때문에 자녀를 원죄에 따라 정당하게 징벌하실 수 없겠는가?
6. 모든 자녀,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자녀도 권리가 없거나 방탕하게 탕진된 유산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가? 정말 어리석고 부당한 주장이다!

### 이의 제기 III. “악한 부모의 이단과 불경이 결코 그 자녀를 할례에서 제외하지 않았다.”

답변

1. 만일 이단이 세례에서 사람을 제외하지 않는다면, 무신론 또한 제외하지 않을 것이다(요일 2:22).
2. 이단이나 불경이 세례에서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는다면, 왜 요한 세례자와 사도 베드로는 세례 전 ‘회개’를 요구했는가(마 3:2,6,8; 눅 3:3,7-14; 행 2:38; 3:19).
3. 악명 높게 불경했던 히브리인의 유아들이 할례에 허용되었다는 증거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백성 중에서 베어내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게 하지 않았는가(신 17:12; 민 15:30,35-36)? 불경하여 약속의 땅을 경멸한 이들의 유아에게는 성인이 되어 자기 권리로 할례 받기 전까지 할례가 허락되었는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단자나 불경한 자를 할례시킨 증거는 어디에 있는가(민 14; 수 5)?

### 이의 제기 IV. “요한은 세례를 청하는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다.”

답변

1. 그렇다면 모든 이방인과 무슬림도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2. 요한은 진정한 회개가 입증된 자에게만 세례를 주었음이 분명하다(마 3:2,6-12; 눅 3:3,7-14).
3. 그는 불경한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다(눅 7:30).

### 이의 제기 V.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유대인의 자녀들을 그분의 자녀라 부르신다(겔 16:20).”

답변. 그 자녀들이 첫 태생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였을 수도 있고(출 13:12-13; 민 3:13; 8:17), 또는 은과 금, 곡식과 포도주, 아마와 양모처럼 하나님의 것으로 비유적 의미에서 ‘자녀’라 불렸을 수도 있다(학 2:8; 겔 16:17-19; 호 2:5,8-9).

### 이의 제기 VI. “눈에 보이는 신자의 유아만 세례를 허락하면, 온 가족과 교구가 이교화될 것이다. 더구나 누가 눈에 보이는 신자인지 규정할 규칙조차 없으니 많은 그리스도인의 유아가 세례를 받지 못할 것이다.”

답변

1. 공개적으로 불경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 여겨지는 것은 그리스도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2.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와 불경한 자를 분별하는 충분한 규칙이다(딤후 3:15-17).

3. 실행에 믿음의 징후가 없는 이는 누구도 눈에 보이는 신자가 될 수 없다. 참 그리스도인은 열매로 알 수 있다(마 7:17,20; 갈 5:16-24).

#### 이의 제기 VII. “부모가 악하고 비난받을 만해도 그들은 세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답변. 부모의 단일한 비난거리가 반드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음을 뜻하지 않으므로 그 자녀가 세례 받을 권리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습관적으로 은혜가 없음을 드러내면, 그들이 한 번 세례받았다 해도 그 혜택은 자녀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는 방탕한 자의 자녀가 아버지가 한때 부유했다는 사실로 혜택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 세례 집행과 활용

세례는 다음과 같이 집행되어야 한다.

1. 물로,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단순한 방식으로(고전 11:2,23).
2.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 위격이 한 본질이며 능력과 영광에서 동등함을 명확히 하여(마 28:19).
3. 반드시 직전에 복음 선포가 이루어져야 한다(마 28:19; 막 16:15-16).
4.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이며, 또한 복음 선포가 뒤따르므로 그리스도의 청지기 혹은 사역자만이 집행해야 한다(고전 4:1-2; 롬 10:15; 마 28:19).
5. 복음 선포가 동반되어야 하며, 세례는 눈에 보이는 교인임을 엄숙히 선언하는 의식으로 효과적이고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이들이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도록 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개인 집행은 교황주의자들처럼 세례를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믿게 하여 무분별하게 되는 위험이 있으므로 공개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마 28:19).
6. 엄숙하며 진지하고 미신적이지 않은 경건한 태도로 집행되어야 한다(시 87:7).

세례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이 세례를 활용해야 한다.

1. 세례의 본질과 용도, 목적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기 위해 노력할 것.

2. 세례가 나타내고 약속하는 은혜와 서약을 진지하고 깊이 기억할 것.
3. 세례에서 행한 서약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성실히 이행할 것.

## 주의 만찬

II. 주의 만찬은 그리스도의 명에 따라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으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고, 합당한 자가 육체적·감각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 및 그 모든 은혜에 참여하여 영적 양육과 은혜의 성장을 누리는 성례이다. 즉, 주의 만찬은 영적 양육의 성례로서, 신성하게 지정된 떡과 포도주를 사용해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은 영화롭게 되신 구세주와 성도들이 은혜와 영광 가운데 교제함을 나타내고, 확증하며 적용한다. — 이 성례는 주의 만찬이라 부르며(고전 11:20), 축복(고전 10:16; 마 26:26), 감사제(마 26:27; 고전 11:24), 주의 식탁(고전 10:21), 떡을 떼는 것(고전 10:16; 행 2:42,46; 20:7),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교제(고전 10:16)로 불린다. 이 성례의 외적 표시는 어떤 종류의 떡인데, 그리스도께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셨기 때문이다. 포도주는 어떤 종류나 색깔이어도 무방하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본과 명령 안에서 항상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된다(막 14:23; 고전 10:16; 고전 11:26). 떡과 잔의 분리된 언급이 잔만 떡보다 버리라는 뜻은 아니다. 분리 접촉사가 종종 연결 접촉사 역할을 하는 것과 같다(롬 4:12; 고전 13:8; 마 5:17; 엡 6:8). 그리고 이 성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피 또는 죽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잔은 죄 사함을 상징한다. 교황주의자들은 성직자들도 평신도들도 죄 사함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주의 만찬의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하지 않는다.

1. 그러한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은 우리의 감각 증언에 반하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계시를 확증하는 모든 기적 증거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나아가 세상의 거의 모든 확신을 무너뜨린다.
2. 그러한 화체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같은 몸이 동시에 살아 있고 죽어 있으며, 하늘에 있으면서도 지상 수천 수만 곳에 동시에 존재하고, 사고가 없이 본질만 남으며 본질 없이 사고만 존재해야 하며 —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 개와 나방의 먹이가 되고, 악한 성찬자와 함께 지옥 불 속에 빠진다는 것은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에 반하는 완전한 모순이다.
3. 이런 화체설은 이 성례의 목적에 위배되며, 이 성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지 육체적으로 임재시키려는 것이 아니다(고전 11:24-25).

4. 또한 성경에도 반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한 것으로, 그의 피를 혈관 안에 흐르는 것으로 묘사하며, 그가 이 성례를 처음 집행할 때 떡이 깨지고 포도주가 마셔졌음을 기록한다(마 26:26-30; 고전 10:16-17; 고전 11:23-29). 그리고 그리스도의 인간성이 마지막 날까지 하늘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선언한다(행 3:21).

#### 이의 제기 I. “하나님은 전능하시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답변. 전능은 모순과 무의미를 행할 수 없다.

#### 반대 논증 및 답변

##### 반대 논증 II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주의 만찬에서 단지 빵과 포도주만 받는다."

##### 답변

1. 우리는 세례에서 그의 성령과 피를 영적으로 받는 것처럼 그의 몸과 피도 영적으로 받는다. 세례에서 실체 변용이 주장되지 않는 것과 같다.
2. 비록 그리스도가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 인간 중재자(메시아)로서 그는 상징적이며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

##### 반대 논증 III

"그리스도께서 명백히 그 빵을 자기 몸이라 부르셨다."

##### 답변

1. 유대인들은 'am, is, are, to be'라는 동사를 단순히 의미하거나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이 존재 동사의 그러한 의미는 그들에게 매우 일반적이었다. 예를 들어, 할례가 하나님의 언약이라 일컫고(창 17:10), 곡식 이삭과 소들이 풍년과

홍년의 해라 하며(창 41:26-27), 유월절 어린 양이 패스오버(천사의 행위)라 하며(출 12:11), 물을 내는 반석이 그리스도라 하며(고전 10:4), 안식일이 주의 언약이라 하며(출 31:13,17), 그리고 그리스도가 장미, 백합, 포도나무라 하였다(아 2:1; 요 15:1).

2. 구세주께서는 빵과 포도주가 단지 그의 몸과 피를 나타내고, 확증하며, 적용한다는 것 이상을 뜻하지 않았음을 명백히 시사하였다. 그의 말씀인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를 비유를 허용하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의 피가 새 언약으로 변한다는 또 다른 실제 변용을 의미하게 되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결과가 된다. 루터파의 주장, 그리스도의 물질적 몸과 피가 빵과 포도주 안과 아래에 몸소 현존한다는 것은 결코 덜 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1. 한 몸이 동시에 보이고 보이지 않을 수 있으며, 만져지고 만져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하늘과 땅 수많은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히 2:14; 눅 24:39; 행 3:21)
2. 그리스도께서 이 성례를 집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시는 동시에 어떻게 그의 몸이 함께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기억하며 받는 빵과 포도주 안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고전 11:23-26)
3. 그가 영광 받으신 지금, 어떻게 그의 몸이 깨지고 피가 흘려질 수 있겠는가?
4. 성경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이 낮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나타낸다(행 3:21; 히 1:3; 히 8:4; 요 12:8; 요 14:28; 요 16:7,28; 요 17:11).

### 주의 만찬과 그리스도의 희생

주의 만찬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드러지지 않는다.

1. 성경은 이 안에 어떠한 제사도 이루어진다고 암시하지 않는다.
2. 이러한 제사의 제물 드림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기념하고 그와 교제하기 위한 이 성례의 선언된 목적과 양립할 수 없다(고전 11:24-25; 고전 10:16).
3. 그리스도의 제사장직과 희생의 유일성에 반하며, 그는 홀로 자신을 드렸다(요 10:18; 히 7:24; 히 9:28; 히 10:10,14; 딤후 2:5; 히 9:14-15).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드러진 제물은 한 번뿐이다(히 7:27; 히 9:12,28; 히 10:10,14).

4. 그리스도 자신을 온전히 드리셨기에 그의 희생의 절대적 완전성은 반복을 허용하지 않는다(히 10:1-14; 히 9:12-15,28; 히 1:3; 히 13:12; 벧전 1:18-20; 벧전 2:24; 벧전 3:18; 계 5:9; 고후 5:21; 롬 5:9-11,16-21; 롬 8:3-4; 롬 10:4; 단 9:24).

5. 이 성례에는 제사 드림과 같은 것이 없다. 제단이 아니라 식탁이며(고전 10:21), 눈에 보이는 제물도 없고, 죽음도 없으며, 단지 이전에 이루어진 일을 기념하는 것뿐이며,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드리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 예상되는 반대에 대한 답변

1.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지친 군대를 위해 빵과 포도주를 내놓았으나 제물로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창 14:18).
2. 유월절 어린 양은 이 성례의 표상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낸 것이다.
3. 새 언약 아래 일상 제사는 주의 만찬이 아니며, 기도와 찬양, 선한 행위이다(말 1:11).

### 주의 만찬 참여 의무와 조건

모든 신자가 이성을 갖춘 연령에 이르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주의 만찬에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규칙적으로 참여할 자격이 없으면 죄이다.

- 오직 참된 신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참여 권리가 있다.
- 자기 자신을 살피고 실제로 믿음과 사랑을 행하는 참된 신자만이 이 특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전 11:23-29).

주의 만찬에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해 세 가지가 필요하다.

1. 남편이자 아버지, 의로움, 힘으로서 그리스도와의 합당한 연합 상태
2. 성령의 모든 은혜(지식, 믿음, 회개, 사랑 등)를 실제로 행사하는 합당한 마음 상태
3.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혼에 영적 양식을 받는 합당한 목적(고전 10:26-31; 고전 11:23-29).



이 규례의 전체 본질과 그리스도께서 그것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것을 볼 때, 이를 시민 직무의 조건이나 자유의 조건으로, 혹은 충성의 시험으로 강요하거나 받는 것은 가장 끔찍한 신성모독임이 명백하다.

## 성찰

나의 영혼이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고 성화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단과 감화를 베푸셨는가! 그럼 왜 나는 그분을 붙잡는 데에 움직이지 않는가? 어느 규례에서, 어느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시어 복 주셨는가? 언제 어디서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에 먹이셨는가? 언제 이 문살 사이에서 내 왕을 보았고 이 전각들 사이에서 붙들었는가? 아!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자비의 연못 앞에만 누워 있고도 들어가지 못했는가! 얼마나 자주, 옥이나 나귀처럼 생명의 샘 앞에 누워 살 수 있는 물을 마시지 못했는가!

## 은혜 언약의 구약과 신약 경륜

은혜 언약의 구약과 신약 경륜은 다음에서 합치한다.

1. 그 창조자, 즉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히 1:1)
2. 내용물: 율법과 복음은 항상 양쪽의 본질(시 147:19; 갈 3:8; 딤후 2:11-14; 딤후 3:8; 갈 5:6)
3. 제공되고 부어지는 복들: 그리스도와의 연합, 의롭다 하심, 입양, 중생, 성화, 영적 위로, 영원한 영광(욥 19:25; 욥 33:24; 사 63:16; 겔 36:26-27; 시 86:3; 시 63:2-7; 시 73:24-26; 고전 1:30; 고전 3:22; 롬 8:29-30)
4. 동일한 목적과 믿음, 회개, 사랑, 새 순종의 동일한 행위를 규례 참석에 요구함(사 55:1-7; 시 96:6-8; 시 89:7; 마 11:28-29; 히 10:22)
5. 그 규례는 스스로는 사람을 구원하는 영적 효력이 없으며, 가장 잘 집행될 때조차도(모세, 이사야, 그리스도, 바울에 의해) 종종 가장 효과가 적음(신 29:4; 사 6:9-10; 사 49:45; 사 53:1; 행 17:22-32)
6. 같은 수단, 곧

1. 그리스도의 축복;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이 규례들을 택하시고 전능하신 영향력으로 그것들을 그렇게 만드심(출 20:24)
2. 그리스도의 성령의 작용; 사람들이 이 규례들을 준비하고 참석을 돕고 그 본문의 인상을 고착시키고 올바른 활용에 기울이고 능력 주심(고전 3:6-7; 고전 12:13)
3. 그리스도와 성령의 영향에 부합하는 참된 믿음의 행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언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제안을 받고 하나님의 나타내심, 선언, 선물을 활용하여 그가 요구하는 거룩한 순종을 촉진함(히 4:2; 히 11:6)

### 구약 경륜의 폐지 이유

구약 경륜의 전형적 의식은 더 암울하고 육체적이며 한정적이고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켰으며, 그리스도의 성육신까지 계속되었다; 그 고난 기간 동안, 특히 공적 사역 중에 쇠약해졌으며; 죽음과 부활 이후에는 죽은 것으로 되었고; 복음이 완전히 선포되고 유대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는 치명적이고 해로운 것이 되었다(히 7-10; 갈 2-5).

그것들이 지금 폐지된 것은 다음과 같다.

1. 많은 명백한 성경 선언에 의함(행 15:18,28; 갈 5:2,4-5,13; 갈 4:11; 골 2:14,17; 히 7-10)
2. 여러 성경 예언에 의함(사 66:3; 렘 3:16; 렘 31:32; 단 9:27; 말 1:11; 시 110:4)
3. 이 의식들의 본질 자체에 의함; 그것들은 본래 좋지 않았으며, 그리스도가 이미 오신 분이 아니라 오실 분을 가리켰으며, 이방인을 교회에서 제외시켰다(히 10:1; 골 2:17; 갈 3:24; 갈 5:1; 엡 2:12,14-15)
4. 유대 민족의 상태에 의함, 지난 1700 년 넘도록 예루살렘이나 가나안에서 이 의식들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했다(눅 19:43-44; 눅 21:20,24; 롬 11:7-15,20)

### 반대 논증 및 답변

#### 반대 논증 I

"여러 규례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정해졌다(창 17:13; 출 12:24)."

## 답변

1. '영원히'와 '영구히'는 종종 특정 상태의 긴 시간 또는 전 기간을 의미한다.
2. 이 의식들은 실제 상징체계(antitypes)에서는 영원히 지속된다.

## 반대 논증 II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모세 의식에 크게 신경을 썼다."

## 답변

다만 약한 유대인들이 기독교 예배 형태로 개종하는 데 필요한 만큼, 그리고 잠시 그렇게 했다(행 15; 롬 14; 고전 8; 갈 2; 갈 5; 히 7-10).

## 반대 논증 III

"제사장, 희생, 성전 등이 새 언약 교회에 나타날 것이라 예언되었다(겔 40-48; 말 1-2 등)."

## 답변

이러한 전형적 용어들은 복음 경륜의 본성에 맞게 영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벧전 2:5; 히 13:15-16; 롬 12:1).

## 새 언약 경륜의 특권

더 완전하고 명확하며 영적이고 광범위하며 영원한 새 언약 경륜의 독특하고 뛰어난 특권은 다음과 같다.

1. 이미 성육신하여 고난을 통해 완전해지고 영화롭게 높임받은 메시아의 전시(요 1:14; 히 2:9-10; 히 5:9; 시 97:1; 시 99:1; 시 110:1-7; 히 7-10).

2. 새 형태로 전파된 복음; 그리스도와 그 안의 완성된 구속을 계시하고 제공하며(고전 2:7-10), 그와 그의 복을 명확히 보여 줌(고후 3:6-16; 골 1:25-26; 롬 16:25-26; 딤후 1:10), 모든 가혹함의 겉모습조차도 없애고 가장 즐겁고 위로되는 형태(고후 3:9; 고전 2:9; 고전 15:3-4; 사 52:7; 사 40:1-2; 사 61:1-3; 사 66:10-12), 그리고 복음이 사람들 안에 풍성하게 거함(롬 10:8,18; 골 3:16-17).

3. 이방 민족들이 기독교 교회로 부름받음; 유대인 교회와 국가가 멸망한 가운데, 믿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의식에서 떠나 메시아 됨과 복음을 견고히 하도록 함(고전 2:4-5; 고후 10:4,7; 사 66:7-8; 롬 10:18-19; 롬 11:11-12; 롬 16:26; 행 13:46; 마 24:14; 마 26:13; 마 28:19; 막 16:15-16; 엡 3:8-9; 골 1:23; 계 5:9; 계 7:9).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거의 보편적으로 한 복음 교회로 연합될 것이다(롬 11:12-16,26,30-32; 계 11:15; 시 72; 시 98:2-3).

4.

성령님의 임재와 영향하심 안에서 훨씬 더 풍성하고 안락한 체험, 습 12:10; 욥 2:28; 사 44:3-5; 요 7:38-39; 요 14:16,26; 요 15:26; 요 16:7-14; 행 2; 행 8; 행 10; 고전 12.

5. 더욱 두드러지는 은사들—더 명확하고 분명한 신비의 통찰, 사 11:9; 사 54:13; 렘 31:34; 요일 2:27—더 뛰어난 거룩함, 사 29:24; 사 33:24; 사 35:9; 사 60:12,21-22; 사 62:12; 습 10:5,12; 습 12:8; 사 54:11-12; 사 66:12-14; 습 14:20-21—더 풍성한 위로, 요 14:16,26; 행 9:31; 엡 1:13; 고후 1:22; 고후 5:5; 살후 2:16-17—하나님과의 훨씬 더 큰 담대함과 친밀함, 갈 4:6; 롬 8:15-16; 히 4:14-16; 히 10:19-20—사도들과 다른 이들에게 주어진 기적적인 은사들, 행 2; 행 8; 행 10; 행 16:19; 행 21:8; 고전 12; 고전 14.

6. 복음주의적 자유, 곧 깨진 행위언약의 지배와 죄와 마귀로부터 성도들이 자유함을 보다 분명히 이해하는 것, 롬 8:1; 롬 6:14; 골 1:13—그리고 하나님 예배에 있어 모든 인간의 강제에서의 자유, 약 4:12; 고전 7:23; 마 15:9; 골 2:18-23—또한 의식법과 유대민족의 사법법에서 완전한 해방, 그 법에 종속된 한도 내에서, 행 15:10; 갈 5:1-25; 갈 4:5,26; 딤후 1:15; 골 2:20-21; 고전 10:25.

7. 과거의 것과 관련해서는 세상 끝날까지 변함이 없다, 마 28:20; 고전 10:25,28.

**제 7 권. 언약 사회에 대하여, 이를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이를 위해, 언약이 분배된다.**

## 제 1 장. 기독교 회중의 본질, 형성 및 교제에 대하여.

다른 곳에서 구약의 전형적 교회와 그 규례들을 제시한 바 있으며, 현재의 논점은 즉시 신약 교회를 다룬다. 헬라어 단어 *ecclesia* 를 ‘교회’라 번역하는데, 이는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사업을 위해 모인 모든 집회를 의미한다, 행 19:32-39. 그러나 새 언약의 대상으로서 의미할 때는,

1.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고려된 모든 선택된 자의 전체 몸, 지상에 있는 자들은 ‘싸우는 교회’로, 하늘에 있는 자들은 ‘승리하는 교회’로 불린다, 엡 1:22; 엡 5:25; 마 16:18; 히 12:23.

2.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에게 순종하는 남녀와 그 자녀, 딤후 3:15; 엡 4:11-12; 고전 12:12-13,28.

3. 특별 교제를 위해 서로 연합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특정 집회로, 서로를 세우며 각기 지도자에게 복종한다, 행 8:1; 행 15:41; 행 20:17; 계 1:11,20; 계 2:1,7-8,11-12,17-18,29; 계 3:1,6-7,13-14,22; 고후 1:1; 갈 1:13,22; 살전 1:1.

4.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며 그분의 규례를 존중하는 특정 회중으로, 영적 지도자들과 구별된다, 행 14:23.

5. 일반적으로 복음의 규례 집행을 위해 한 장소에 모이는 그리스도의 공개된 추종자들의 특정 집회로,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 중에 있다, 행 9:31; 행 15:41; 고후 8:1; 갈 1:2,22; 딤후 1:5; 고전 14:34; 행 20:7; 골 4:15; 롬 16:5; 빌 2.

6.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성된 교회 지도자들의 모임으로, 그들이 맡은 일을 질서 있게 처리하며, 이는 종종 ‘교회 대표회’라 불린다, 마 18:17; 행 15:3; 행 18:22; 행 21:20.

교회는 오직 계시에 기초하여 세워졌으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자와 줄로 온전히 규제되어야 한다, 엡 2:20; 겔 43:11-12; 히 8:5; 계 11:1; 계 21; 겔 40-48.—지상에 보이는 교회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서 부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믿음 있고 거룩한 자들의 공동체이다, 고전 12:12; 행 2:41,47; 히 3:1,6; 고전 1:9; 고전 12:6-28; 엡 2:19-22; 골 1:13; 뱀전 2:5,9.—

## 교회 공동체의 성격

이 공동체는,

1. 거룩하다, 히 3:1; 요 3:3,5; 엡 2:21; 겔 43:12; 뱀전 2:9.
2. 성령으로 형성된 영적인 공동체이며, 영적 성격을 띤 규례와 봉사를 통하여—영적 존재들로 이루어진—영적 복을 받은 자들이며, 영적 양식 위에 살며, 하나님을 위한 영적 성전을 쌓아 올린 자들이다, 엡 2:22; 고후 10:3-5; 요 6:63; 고전 2:15; 고전 10:3; 엡 1:3; 요 6:27-57; 계 2:17; 뱀전 2:5.
3. 모든 인간의 지혜와 권위에서 독립되어 있다, 사 33:22; 마 23:8-10; 시 2:6; 히 3:1.
4. 질서 정연하다, 고전 12; 고전 14.
5. 가시적이다, 마 7:16,20; 마 18:15-17.

진정한 성도 됨이 지상에 보이는 이 가시적 교회 회원들의 구별 기준은 아니다. 물론 그것이 없으면 정직하게 교제에 자신을 내놓을 수 없지만, 단지 그것의 부재만으로 입회를 거절할 수 없다.

1.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판단하신다. 기만자들은 성도 됨을 위조할 수 있고, 종종 신자들 자신도 진정한 은혜를 의심하거나 부인한다, 삼상 16:7; 계 2:23.

2. 하나님은 마음이 거룩하지 않은 자들도 유대교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신 29:3-4,13; 요 6:70.

3. 세례를 위하여 세례자 요한과 사도들은 믿음과 회개의 외적인 모습만 요구했다, 마 3:5,7; 행 2:38; 행 5:1-10; 행 8:13-23.

4. 유대 교회, 고린도, 빌립보, 라오디게아, 사데 등 여러 교회에 입회된 많은 이들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다, 행 5:1-10; 행 8:13-23; 고전 5; 고전 11; 고전 15; 빌 3:18-19; 계 3:5,15-17.

5. 그리스도께서 복음교회를 거자씨와 섞인 겨,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섞인 그물, 밀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밭으로 비유하셨다, 마 3:12; 마 13:24,47.

그러나 교회 교제에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을 고백하며, 겉으로는 거룩해야 한다.

1. 어떤 악에도 지속적으로 기울지 않아야 한다, 고전 6:9-11; 고전 5:11; 딤후 3:2-5.

2. 세상의 정욕으로 인한 부패에서 벗어나 이웃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의 책망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마 18:15-17; 레 19:17; 잠 29:1.

3.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진리를 알고 나서 그것을 존중하고 사랑함을 고백해야 한다, 엡 1:1; 행 8:12; 약 2:14-26.

4. 그들의 생활 형태와 일치되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권위에 양심을 복종시키고 모든 제도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명백하고 신중하게 고백해야 한다, 시 15; 시 24:3-5; 사 33:15-16; 히 3:1; 딤후 2:11-13; 롬 10:9-10; 딤후 2:19.

이러한 이들이 교회 교제에 참여하는 목적은,

1. 건전한 원칙들의 체계를 유지하고 나타내는 것, 딤후 1:13; 딤후 3:14; 딤후전 6:3-4; 롬 6:17; 고전 8:5-6; 엡 4:21; 골 2:2; 계 2:13-15,20; 계 3:2-3,10,15-16; 갈 1:6; 잠 23:23; 히 2:1.

2. 순수하고 단순한 복음 예배의 규례를 유지하는 것, 신 12:31-32; 롬 15:6.

3. 공평한 교회 정부와 징계의 실천, 히 12:15; 히 10:24-25; 갈 6:1; 딤후 2:24-26; 딤후 4:2; 딤후 3:10; 고전 5; 딤후전 5:20-22; 약 3:17; 약 2:1-10; 계 2.

4. 모든 대화에서 거룩함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 빌 1:27; 빌 2:15-16; 벡후 3:11; 미 6:8; 고후 7:1,10-11; 딤후 2:10-14; 딤후 3:8,14; 빌 4:8.

교회 교제 입회 조건은 오직 진정한 신적 진리만을 수용하고, 평화와 거룩함, 그리고 질서를 증진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고후 13:8; 고전 13:6; 고전 14:32,40; 요일 2:23; 요이 9; 롬 14:19; 히 12:12-14; 시 93:5; 겔 43:10,12.

이런 토대 위에서 교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상호적이고 신중하며 공정한 언약으로 구성된다,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맹세와 함께 혹은 없이, 복음의 믿음을 공동으로 고백하고, 각자가 그 위치에서 성도답게 복음의 질서 안에서 행하는 것, 딤후전 6:3-4; 유 3,20; 빌 1:27; 골 2:2; 롬 15:5-7; 엡 2:12-22; 엡 4:1; 고후 8:5; 빌 1:27; 골 1:10-11.



이는 분명히 다음에서 드러난다.

1. 교회가 몸, 롬 12:4-5; 집, 엡 2:19-22; 성, 히 12:22; 왕국, 골 1:13; 민족, 뱀전 2:9 으로 묘사된다.
2. 교회 교제에 들어가는 것을 주께 합류하고 교회에 더하여짐이라 하며, 거기 머무르는 것을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함께 힘쓰는 것으로 표현한다, 고전 6:17; 행 2:47; 행 5:3,14; 빌 1:27.
3. 이 관계는 결혼에 비유되기도 한다, 사 56:4; 사 62:5.
4. 교회 정부의 피통치자는 오직 교회 교제 안에 있는 자들이다, 고전 5:12; 고후 6:14-16; 마 11:29.
5. 이러한 언약은 교회 내에서 존재하는 친밀한 교제를 세우는 데 필수적이다, 엡 4:16.
6. 지난 1700 년 동안 모든 기독교 교회에서 신조와 신앙고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강력한, 비록 부차적인, 입증 근거이다.

기독교 교회의 연합과 교제는 중대하다.—진정한 신자들은 성령과 믿음의 불가침한 유대로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으며, 함께 그분과 하나 됨으로써 그분의 보이지 않는 교회, 즉 신비적 몸에서 분열이나 분리가 있을 수 없다, 고전 12:25-27; 엡 5:30; 요일 3:14.—지상에 보이는 보편적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모든 이와 그 자녀들을 포함하며, 그리스도를 단 하나의 머리로 인정하고, 동일한 근본 진리를 고백하며, 동일한 주요한 거룩한 의무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연합되어 있다, 고전 1:2; 엡 4:3-6; 눅 9:49-50.—특정 교회 성도들은 교리, 예배, 훈계, 정부에서 동일한 복음의 신앙과 질서에 대한 공동 고백에 의해 연합된다, 행 2:41; 엡 4:6; 행 4:32; 롬 15:5-7.

기독교 교제는 교회 회원들이 믿음과 실천 안에서 결합하고, 하나님의 예배와 봉사의 모든 규례 안에서 함께 걸어가며, 실제적이고 능력 있는 그리고 성실한 종교 생활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서로의 위로와 안녕을 도모하는 것이다.—이 기독교 교제를 유지하기 위해,

I. 개인의 거룩함과 신앙심이, 순수함과 올곧은 행실을 동반하여, 세심히 추구되어야 한다, 딤후 2:10-14; 딤후 3:8,14; 고후 1:12; 행 24:16; 딤후 4:8; 딤후 6:11-12; 딤후 2:22; 빌 4:8.

II. 가족이 정기적으로 조직되는 것은 교회의 모형으로서, 교육, 예배, 훈계, 질서, 덕을 세우는 본보기에 관해 가족 종교생활이 세심하게 장려되어야 한다.

1. 자연의 빛은 가족 종교를 하나님께 대한 정당한 빛이자 가정 세움의 주된 목적이며 모든 가정 내에서 큰 유익으로 나타낸다. 이 때문에 이방인들도 가정신을 모셨다.

2. 하나님은 가족 종교에 특별한 충성을 명령하셨다, 골 4:2; 뱌전 3:7; 엡 6:18.

3. 여러 성도들의 증명된 모범이 이를 권장한다, 창 18:18-19; 욥 1:5; 수 24:15; 삼하 6:20; 롬 16:5; 고전 16:19; 골 4:15; 행 10:2.

4. 그에 따르는 유익이 많고 방치로 인한 해가 많다, 시 30; 시 101; 렘 10:25.

그리하여, 결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정기적인 가족 기관을 설립하는 것, 가족 종교의 태만이나 빈번한 생략, 가정 가장들의 죄된 수줍음, 하나님을 위한 열심 부족, 교제와 세상일의 과도한 강박 등으로 인해 가족 예배와 적절한 관련 활동이 매우 소홀히 여겨진 것은 애석하다.

III.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영적 교류를 위한 사적인 모임에 합류해야 한다.

1. 성도들 간의 관계는 이를 요구한다. 엡 2:19; 빌 2:25; 계 6:11; 갈 6:16; 롬 8:17; 마 23:8,10; 고전 12:12; 롬 12:5.

2. 하나님은 이러한 사교적 모임을 매우 기뻐하신다. 말 3:16-17.

3. 성경은 이러한 모임을 적극 권장한다. 전 4:9-12; 갈 6:2; 마 8:19-20; 골 3:16; 히 3:13; 히 10:24-25.

4. 성경에는 이러한 모임의 승인된 본보기들이 있다. 시 55:13-14; 아 1:7-8; 단 2:17-18; 에스 4:16; 요 20:19,26; 행 16:13.

5. 이러한 사교적 모임은 올바르게 운영된다면 매우 유익하다.

— 신적 진리의 지식을 증진하는 데, 골 3:16; 시 111:2;

— 기독교적 동정을 증진하는 데, 갈 6:2; 롬 12:15;

— 성결의 길에서 서로 격려하고 확신시키는 데, 히 10:24-25; 에스 4:15-16; 히 3:13;

— 서로의 은사와 체험을 나누는 데, 벧전 4:10-11; 시 66:16;

— 서로를 감시하고 권면하는 데, 살전 5:14; 히 3:13;

— 서로의 기도와 찬송을 복돋우는 데, 마 18:19-20;

— 타인에게 종교를 추천하는 데, 마 5:16; 빌 2:15-16;

— 하늘에서 성도들의 즐거운 교제를 미리 경험하는 데, 히 12:22;

— 육적인 대화, 음주, 쓸데없는 오락 등으로 악인이 벌이는 사교 모임을 부끄럽게 하는 데.

### 교회 교제의 의무

교회 교제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성령의 하나 됨을 평화의 띠로 지키기 위한 열심 있는 노력, 엡 4:3; 빌 2:2-3; 빌 3:15-16.
2. 서로의 집을 함께 지는 것, 갈 6:1-2.
3. 넘어질 이유가 생기지 않도록 꾸준하고 진실하게 힘쓰는 것, 고전 10:32-33; 고전 11:1; 롬 14:13; 뱌전 3:15-16; 요 3:21; 빌 2:15-16; 약 2:18; 약 5:16; 마 18:15-17; 레 19:17.
4. 함께 복음의 믿음과 예배에 굳건히 머무르는 것, 행 2:42; 빌 1:27; 빌 4:1; 고전 11:2; 히 10:25; 아 1:8; 잠 8:34; 잠 9:5.
5. 관련된 의무들을 엄격하고 양심적으로 수행하는 것, 이는 교회의 질서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 고전 7:24,39; 뱌전 3:7; 딤펢전 5:1-3; 엡 5:22,25; 엡 6:1-9; 대상 23:3; 롬 13:1-7; 히 13:7,16-17; 딤펢전 5:17; 행 6:1-3; 롬 12:6-16; 빌 2:3-4.

이러한 의무들은 다음을 통해 우리에게 부과된다.

1. 올바르게 이해된 자연의 빛에 의해.
2.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엡 4:1-6; 시 122; 시 133; 아 1:7-9; 빌 1:27; 히 10:25.
3. 일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필요하거나 이기적이거나 해로운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교제는 많은 해악을 막고 큰 유익을 가져온다.

#### 교제의 구체적 유익

구체적으로,

1. 개별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신앙을 고백하고 실천하도록 격려한다.
2. 이를 통해 많은 이들이 동시에 교육받으며, 경건함이 일어나고 기도가 더욱 효과적으로 된다.
3. 모든 신자가 서로에게 본보기이자 안내자, 감시자, 책망자가 되어 배교와 죄로 인한 실족을 크게 예방한다.
4. 서로 연결되고 친밀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의무 수행을 더 잘 도울 수 있다.

5. 우리를 천사 및 성도와와 천상 교제에 대비하게 한다.

6.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인 하나님을 크게 영화롭게 한다, 요 17:11,21,23.

교회 내 분열 혹은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주로 개별 교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연합과 교제에 관한 문제이다. 분열은 본질적으로 교회 구성원들 간의 불관용과 정동의 이탈이며, 대체로 구성원들은 서로 교회 교제를 유지한다, 고전 1:10,12; 고전 11:18; 고전 12:15.

또는 분열은 교회 구성원들이 최악된 열정과 상호 기독교적 사랑의 결핍으로 종교적 논쟁을 계속하는 데 있다, 고후 12:20. 이는 교만, 자기애, 질투, 증오, 비방 등에서 비롯된다, 약 4:1.

이는 자아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엄격히 따름으로써 막아야 한다, 마 16:24; 빌 2:1-5; 고후 13:11; 롬 14:19; 롬 15:5-7; 롬 16:17-18; 행 4:32; 엡 4:31-32; 엡 5:1-2; 마 18:21; 막 11:25-26; 롬 14:13; 롬 15:12; 고전 13:4-7; 갈 6:1-2; 롬 6:3-5; 딤후 2:16-17,22-24; 딤후 3:9; 요일 4:1.

## 교회 분리의 원리

보편 교회(가톨릭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진정한 신앙의 근본 원리와 실천을 포기함으로써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개별 교회로부터의 분리는, 그 교회 대다수가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교회의 교제 기준으로 확립하신 신앙과 실행 체제에 진심으로 순응하려 애쓰는 것으로 보일 때, 보편 교회 내에서의 분열이며 죄이다, 유 19.

2. 교회의 대다수가 성경적인 신앙, 예배, 치리 규율이나 교회 정부 체계에 본질적인 교제 조건으로서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 이 경우 대다수당이 진정한 분리파이며, 그들의 교제에서 떠나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멀어지는 사람들이 진정한 교회 신자이며,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하는 한도 내에서만 공개 예식에서 죄를 범하는 형제들과의 교제를 자제하는 자들이다.

명백한 악행에 완고한 개인이 교회 교제에서 추방되어야 하듯이, 교회 대다수가 신학, 예배, 치리, 교회 정부 등에서 획득한 개혁 상태에서 완고히 배교할 때에만 특정 교회로부터의 분리가 합법적이다.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도 등 교회들은 여러 부패로 물들었으나 완고하지 않았기에, 주님은 그들로부터 분리를 명령하지 않으셨다, 고전 1; 고전 3; 고전 5; 고전 8; 고전 10-11; 고전 14-15; 갈 1:6; 갈 3:1; 갈 4:11; 갈 5:7; 계 2-3.

이 완고함은 이전에 받아들이신 신앙, 순종, 복음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데 드러나며, 종종 온건하지만 충실한 항변자에 대한 엄한 명령이나 징계가 뒤따르는 교정 불가능한 질책 거부에 나타난다.

또는 특정 교회와의 공개 교제를 지속할 수 없고, 그것이 최악적인 행위를 따르거나 중요한 의무를 누락하는 것을 요구할 경우, 특정 교회로부터의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경우 분리의 죄는 교회로부터 떠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자들에게만 귀속되며, 떠나는 자들의 행동 방식에 대한 책임은 그가 잘못 처리한 한도 내에 한한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분열과 정당하지 않은 분리, 혹은 어떤 조건을 최악으로 만들어 타인을 교회 교제에서 강제로 배제하는 행위는 심각한 치욕과 범죄이다.

#### 교회의 연합과 권세

1.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회의 연합과 평화를 증진하기 위해 죽으시고 중보하시며 성령과 은혜를 부어 주신다, 엡 1:10; 엡 2:15-16; 골 1:20; 요 14:16-17,27; 요 17:21,23; 롬 32:39-40; 겔 11:19; 겔 37:15-27.

2. 하나님은 교회의 평화와 연합 증진을 강력히 명령하고 권고하신다, 롬 12:9-10,16,18; 롬 15:1-6; 롬 14; 롬 16:17-18; 고전 1:10; 고후 13:11; 엡 4:2-6,23,31-32; 엡 5:1-2,30; 빌 1:27; 빌 2:1-5; 빌 4:2; 골 2:2; 골 3:12-15; 살전 5:13-14; 시 122; 시 133; 속 8:19.

3. 분열과 죄된 분리는 비열한 욕심에서 비롯되며, 하나님께 큰 불명예를 끼치고 인간에게는 해를 끼친다, 잠 13:10; 잠 15:1; 잠 10:12; 약 4:1; 약 3:15-16; 고전 3:1-4; 막 3:24; 롬 15:1-2; 롬 14:19; 유 19; 사 65:5; 사 66:5.

## 교회의 권세와 그것이 거하는 주체들, 머리와 직분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유일한 머리라는 것은 다음에서 드러난다.

1. 성경의 명백한 선언들, 요 18:36; 골 1:18; 골 2:19; 엡 1:22; 엡 4:15-16; 사 9:6-7; 눅 1:32-33; 미 5:2-5; 마 28:18-20; 요 3:35; 요 5:22; 빌 2:9-11; 고전 15:25-26; 계 3:7.

2. 그의 권위를 나타내는 성경적 왕권 칭호들: 주인, 행 2:36; 행 10:36; 고전 8:6; 입법자, 사 33:22; 약 4:12; 왕, 시 2:6; 시 24:7,9; 시 72:1; 아 1:4,12; 아 3:9,11; 아 7:5; 총리, 겔 34:24; 겔 46:10; 통치자, 예레 30:21; 미 5:2; 사 9:6; 심판자, 미 5:1; 사 33:22; 사 2:4; 사 11:3-4; 목자, 사 40:11; 겔 34:23; 겔 37:24; 히 13:20; 벤전 2:25; 영혼의 주교, 벤전 2:25; 스승, 마 23:8,10; 요 20:16; 머리, 골 1:18; 호 1:11; 사도이자 고백의 대제사장, 그의 집에 대한 아들, 히 3:1-6.

3. 교회 내 최고 권한의 행위, 즉 법과 규례를 제정하는 권한이 그에게만 있으며, 그의 주요 직분자들에게도 전가된다, 갈 6:2; 고전 9:21; 행 1:2; 막 16:15-16; 마 10:7; 마 28:19-20; 요 1:33; 고전 3:5; 마 16:19; 마 18:18; 마 5-7.

그는 모든 직분자의 자격과 부름 방식을 규정하며, 직무 내용과 수행 방식을 지정한다, 엡 4:7-8,11; 고전 12:28; 요 20:21-23; 고후 10:8.

또한 그의 이름으로 모든 교회 규례가 집행된다, 마 18:20; 마 28:19; 행 19:5; 요 14:13-14; 골 3:17; 고전 5:4; 고전 11:23.

이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교회 치리에 특정한 형태를 제정하셨음을 의미한다.

1.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혼란의 근원이 아니라 질서와 평화의 근원이다, 고전 14:33.

2. 성경은 특별하거나 일반적인 규칙으로 모든 선한 말과 행위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한다, 딤후 3:15-17.

3. 왕으로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내적 영향뿐 아니라, 사절, 회의, 법과 규례의 임명 등 외적 수단을 통해서도 교회를 다스리신다, 엡 4:11; 마 18:20; 마 28:18-20; 고전 11:23-29; 고전 12:28; 요 20:21-23; 고전 5:4-5.

4. 교회 권세의 본래 목적은 단순한 겉치레가 아니라, 사람들의 영적 덕을 세우고, 건고히 선 자들을 확증하며, 넘어졌던 자들을 회복시키고,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데 있다, 딤후 5:20; 딤후 1:20; 고전 5:5; 유 22-23.

5.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유대교회에 특정한 치리 형태를 정하셨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교회는 더 명백한 형태가 필요하며, 중보자로서 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관심은 더 크다. 오늘날 인간의 발명품은 과거만큼 현명하거나 거룩하지 않으며,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도 예전과 다르지 않다, 히 3:1-6; 마 15:1-9.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후, 악함이 충만한 인간의 상상에 교회 치리의 형성과 방식을 맡겼다는 생각은 어리석다, 창 6:5; 창 8:21.

6. 성경에 기록된 교회의 제도, 직분, 절차는 특정한 치리 형태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

7. 거의 모든 공인된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자신들의 특정 교회 치리 형태를 지지하려 함으로써, 그리스도께서 특정 치리 형태를 정하셨다는 믿음을 드러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 통치를 위하여 부여하신 모든 권능은 그분의 왕국 본성에 상응하는 영적 본성이다(요 18:36).

1. 그 권능의 근원과 주관자는 생명을 주는 성령으로서 그리스도이시다(마 28:18-20; 마 16:19; 마 18:15-20; 요 20:21-23; 고전 15:45).

2. 그 권능의 규칙은 육적인 인간 법칙이 아니라 성령의 영적 계시이다(딤후 3:14-15; 딤후 3:15-17; 사 8:20).

3. 그 내용 역시 영적이다: 질서와 통치의 열쇠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 왕국의 열쇠이다(마 16:19). 선포되는 교리는 인간 학문과 관계된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신성하다(벧후 1:19-21; 딤후 3:15-17; 딤후 2:10; 히 5:12; 히 6:5; 엡 1:13; 엡 4:21; 엡 6:17; 고후 10:4-5; 고전 2:2; 고전 1:23-24; 롬 1:16-17).

성례는 오직 영적 특권을 확증하며(롬 4:11; 롬 6:4-5; 고전 10:16-17; 고전 11:23-29), 징계는 몸이나 재산이 아니라 영혼과 양심에 미치는 영적 징계이다(마 16:19; 마 18:15-20; 고전 5:4-5,13; 고후 2:17; 요 20:21-23).

4. 이 권능의 대상은 영적이며, 사람을 세상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의 영적 지체로 보며, 그들의 행위는 세속적이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갈 6:1; 고전 2:15; 고전 5:11-13; 고후 13:8).



5. 그 권능의 지향 역시 영적이며,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죄를 소멸시키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다(엡 4:11-13; 고전 5:5).

모든 교회 권능은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모든 지체의 유익을 위하여 부여되며(엡 4:11-13; 고후 13:8,10; 고후 10:8; 행 26:17-18; 뱀전 3:21; 롬 4:11; 고전 10:16-17; 마 18:15-17; 딤후 5:20; 딤후 1:20; 딤후 1:13; 고전 5:5,7,13; 고후 2:7), 각 지체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영적 유익을 위하여 활용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시험할 권한이 있다(요일 4:1; 행 17:11; 살전 5:21).

그러나 교리, 예배, 통치, 징계에 관한 공적 의식을 집행하는 직분 권능은 그리스도께서 신앙 공동체 전체에 부여하지 않으셨다.

1.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직분자를 임명하고 죄인을 책망하거나 사면할 권한을 가진 이는 공동체 전체가 아니라 특정한 통치자들이다(롬 10:15; 히 5:4-5; 고전 4:1; 막 16:15-16; 딤후 4:14-15; 행 14:23; 행 6:3,6; 딤후 1; 딤후 3; 딤후 5:20; 딤후 1:20; 마 18:18; 마 16:19; 고전 5:4; 고후 2:6; 딤후 3:10).

2. 교회 직분 수행에 필요한 은사는 어디에서도 신자 전체에게 약속되거나 부여된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 직분자에게만 약속되고 부여되었다(마 28:19-20; 마 16:19; 요 20:21-23; 고전 12:7-8; 딤후 3:2; 딤후 2:2; 엡 4:11-12).

3. 성경 어디에도 모든 신자가 아니라 특정 직분자만이 권위의 표징들을 지닌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신자들은 양 떼, 가정, 몸, 신자로 묘사되며, 장로·감독·통치자·인도자·정부로서 직분자들을 공경하고 순종하며 복종하라는 명령을 받았다(행 20:17,28; 살전 5:12; 딤후 5:17; 히 13:7,17; 고전 12:28).

4. 모든 성년 신자가 교회 통치에 참여한다면 심대한 불합리와 혼란이 생긴다. 모두가 통치자가 된다면 누가 다스림을 받을 것인가? 모두가 하나님의 신비를 자기와 타인을 위해 청지기로 삼는다면 누가 그것을 배분할 수 있겠는가? 게다가 남성임이라는 영적 근거 없이 모든 교회 권한을 남성에게 귀속시킨다면, 교회 내에서 말하는 것을 금하는 여성도 남성과 같은 통치 권한을 가져야 할 것이다(고전 14:3-4; 딤후 2:12).

또한 모든 성년 신자가 목사 임명과 이단 심판을 동등하게 행한다면 막대한 업무 태만과 무질서가 일어날 것이다. 장로나 집사가 범죄하면 그들의 영적 제자와 자녀가 그들을 심판하고 교정해야 하며, 만일 전체 회중이 오류와 스캔들에 빠진다면 누가 그들을 회복시킬 수 있겠는가?

행정 관료인 시민 관료들은 교회를 격려하고 보호해야 하며, 이 역할에서 부모와 주인과 유사한 태도로 행할 수 있다. 그들은 공적 권력을 적절히 행사하여 공공선을 위해 박해, 신성모독, 우상 숭배, 미신, 이단 및 하나님께 순수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예방하고 제거해야 한다(사 49:23; 사 60:3,10,16; 롬 13:3-4; 딤후 2:2; 대하 15:8,16; 대하 17:3-10; 대하 31:1; 대하 33:15; 왕하 18:4; 왕하 23).

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영적 권능의 충만함을 보존해야 하며, 목사와 교사들을 위한 교육 장소와 생활비를 마련하고, 법 제정을 촉진하며, 모범을 보임으로써 복음 의식의 집행과 참석을 장려해야 한다(대하 15:9-16; 대하 20:7-9; 대하 17; 대하 29-31; 대하 34-35; 신 17:18-20; 대상 22-25; 느 13:10-14).

가정의 가장이 가정 내에서 건전한 신앙과 거룩한 실천을 증진해야 하듯이, 행정 관료도 그들의 관할지에서 교리, 예배, 징계, 통치의 개혁을 촉진·확립하여 자기 백성의 복리를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회 직분자 회의를 소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교회의 사정을 결정하고 통치하게 할 수 있다(출 32; 수 23-24; 왕하 18:4-7; 왕하 12; 왕하 22-23; 대하 15; 대하 17; 대하 34-35; 삼상 7:6; 대하 20:3; 온 3:7; 스 8:21).

그들은 정당한 정치 권한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정당화된 교회 법이나 헌법을 집행해야 하며, 이는 국가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통치자와 교인들이 복음에 부합하는 모든 방법으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자극하며, 하나님의 법을 공공연히 위반하는 자들을 각각의 범죄로 처벌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분의 대리자인 행정관에게 불명예를 안기고 국가에 재앙을 가져오는 행위이다(대하 15; 대하 30-31; 대하 34-35; 느 13; 단 3:28-29; 단 6:26-27; 신 21:18-21; 창 9:6; 민 35:30-32; 민 15:30-36; 욥 31:9,11; 레 20:11-25; 출 22:1-15; 신 19:16; 신 13:1-6; 신 17:1-8; 레 17:2,8; 대하 15:13,16; 욥 31:26-28; 레 24:15-16; 롬 13:3-4; 뱀전 2:13-14; 히 10:28).

## 반대 의견 및 답변

### 반대 의견 I.

"그들이 종교 문제에 관할할 때에는 행정관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한다."

**답변.** 왜 그리스도인 됨과 권력 행사를 분리하는가? 모든 부모와 주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전에 가진 권력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더 잘 행사할 의무가 있지 않은가? 행정관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직무 집행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행할 수 없을 이유가 없다. 두 경우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권력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권력을 더 잘 행사하게 할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다.

#### 반대 의견 II.

"위의 증거들은 대체로 유대인 행정관에 관한 것인데, 그들은 교회 통치자였고, 그들의 민족은 교회 국가였다."

**답변.** 유대인 행정관은 지상 국가의 최고 왕이신 하나님 아래 대리자였지만, 회중 입문자와 입문인이 유대인과 똑같이 교회와 국가의 권리를 공유했다거나, 교회 교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이 세속 특권에서도 동일하게 배제되었다거나, 범죄자를 벌금, 화형, 석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제례 의식으로서 출교와 동일한 것이라는 점, 또 사법법과 제례법에 구별이 없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유대 행정관들이 교회 통치자였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 반대 의견 III.

"만약 행정관들이 종교에 관한 이런 권한을 가진다면, 그들은 벌금, 투옥, 사형 등으로 자신이 믿는 참된 종교를 국민에게 강제하고, 자연권인 자유를 박탈하는데, 그 자유를 행정관들이 보호해야 한다."

**답변 1.** 부모와 주인은 자신이 맡은 자를 굶기거나 해치지 않고서도 가정 내에서 참된 종교를 증진할 수 있다.

**답변 2.** 행정관과 국민의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그들의 행위 기준이 된다.

**답변 3.** 행정관이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방법이나 종교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참된 종교를 전파하지 않는다.

**답변 4.** 모든 자유,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므로, 우상 숭배, 신성모독, 악명 높은 이단, 안식일 모독처럼 하나님께 반역하고 민족에 재앙을 끼치는 행위를 보호하지 않는다. 이들은 반역, 살인, 도둑질을 보호하지 않는 것과 같다.

#### 행정관과 교회의 영적 권능

그러나 그리스도는 시민 행정관에게 어떠한 영적 권능도 주지 않으셨다.

1. 그리스도께서 행정관에게 그러한 권능을 주신 흔적은 없으며, 오직 교회의 직분자인 사도들과 그 후계자에게만 주셨다(마 16:19; 마 18:18; 마 28:18-20; 요 20:21-23). 또 복음 교회를 세울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유대 민족의 세속 권력은 막 소멸되어 가던 상황이었기에 행정관에게 그 권능을 줄 수 없었다.
2. 약 300년 동안 기독교 교회의 모든 권능은 그 지역 행정관들이 이방인이고 잔혹한 박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행사되었다. 말씀은 선포되고 성례가 집행되었으며, 무질서한 자를 권고하고, 스캔들 행위를 책망하며, 완고한 자를 출교하고, 회개자들을 사면하였으며 장로와 집사들이 임명되고, 총회가 소집되어 교회 법령을 제정하였다(행 4:2; 딤후 3:16; 행 20:7; 고전 11:17-29; 행 2:41-42; 행 8:12; 행 13:1-3; 행 14:23; 딤후 4:14; 딤후 1:5; 행 6:1-6; 딤후 5:20; 딤후 1:20; 고전 5:4-5; 고후 2:6-8; 행 15-16:4).
3. 행정관은 성경에 기록된 교회 직분자의 명단에 나타나지 않는다. 더구나 어린이, 여성, 이방인들이 기독교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는가? (롬 12:6-8; 고전 12:28; 엡 4:11-12; 고전 14:34; 엡 2:12).
4. 교회 통치는 세속 정부와 전적으로 독립적이다. 교회 직분자는 국가에 의해 세워지지 않고, 주님에 의해 세워진다(행 20:28; 고전 4:1-2; 고전 12:28; 살전 5:12; 엡 4:11).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행하고 영적 징계를 부과하거나 사면하는데, 이는 행정관이 할 수 없다(롬 10:15; 대하 26:18-19). 그들은 행정관의 동의 없이 오히려 행정관 명령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행 4:19; 행 5:29; 고전 5:45; 마 18:17-18; 딤후 3:10; 계 2-3). 영적 사안에 관한 교회 결정에 행정관에게 항소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않다(마 2:7; 신 17:8-10; 고전 14:32; 행 14; 행 16:4). 왕이라 하더라도 교회 질서에 반하는 교인이라면 교회 직분자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한다(살후 3:6; 마 18:15-18).
5. 세속 권력과 교회 권력은 여러 점에서 현격히 다르다:
  1. 그 기원의 본질에서, 세속 정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민족의 보존자 및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만, 유대 신정주의 체제를 제외하고 그것의 구체적 형태는 인간 제도이다(롬 13:1-4; 뱀전 2:14; 롬 27:12; 눅 12:13-14). 모든 교회 권력은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마 16:19; 마 28:18-20; 엡 4:11-12; 고전 12:28).
  2. 그 적용 대상의 본질에서 교회는 영적 사회이며 그리스도의 몸이자 신부이다. 행정관 권력의 대상인 국가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사회이다(엡 1:22; 엡 5:25; 엡 4:8-11; 고전 12:28; 행 6:3-4; 행 13:1-4; 행 14:23; 딤후 4:14; 고전 4:12; 고전 5:20; 요 18:36; 롬 29:7; 롬 27:7,17).
  3. 그들이 행사하는 영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정치 권력은 세속적이며 세속적인 보상과 처벌을 수반하는 시민법의 제정 및 집행에 행사된다. 교회 권력은 영적이며, 복음 전파, 성례 집행, 그리고 영혼의 유익을 위한 치료적 징계의 행사에 사용된다(고후 10:4-5,8; 히 13:17; 살후 2:3-4; 요삼 9-10; 딤후 3:5; 고전 14:5,34; 고전 12:28; 고전 5:13).

#### 4. 권력 행사 방식에 있어서

시민 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인간법에 따라 판결하며, 대리인을 통해 또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행동할 수 있다. 시민적 보상이나 처벌로 복종을 강제해야 하며, 회개만으로는 범죄자를 면제하지 못한다. 반면 교회 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법을 만들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한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하며, 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고, 한 사람이 단독으로 통치를 행사할 수 없으며, 복종을 강제할 때에도 영적 성질의 것 이외에 다른 어떠한 수단도 사용할 수 없다(마 28:18-20; 마 18:17; 행 26:17-18; 고전 5:4-5).

#### 5. 직접적인 목적에 있어서

치리는 로마서 13:1-4, 딤후 2:1-2 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외적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집행된다. 교회 권력은 에베소서 4:12, 사도행전 26:17-18, 딤후 4:16 에 나타난 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의 교회의 지체인 사람들의 영적 구원을 증진하는 데 집행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강단에서 설교하는 장로들을 다스리는 교구 감독들의 손에 교회 권력을 맡기지 않으셨다.

#### 1. 군림하는 지배 금지

성경은 교회 내에서 모든 군림하는 지배를 명백히 금지한다(요삼 9; 벰전 5:3; 눅 22:25-26; 마 20:25-26). 여기서 금지하는 것은 온화하다 할지라도 군림하는 지배로, 폭군적 지배가 아니다. 이 개념을 표현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구약

70 인역의 창세기 1:28, 시편 72:8, 110:2 등에서 지배를 나타내며, 이를 폭군적이라 주장하는 이는 없다.—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위해 폭군적 권력을 그리스도에게 요청했다는 상상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가! 또한 가이사사의 권위를 인정한(마 22:21)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방 통치자를 폭군으로 표현하셨겠는가!

## 2. 감독과 장로의 동일성

감독과 장로는 성경에서 동일한 직책으로 나타난다. 에베소에는 여러 감독 혹은 감리자가 있었고, 모두 장로로 불렸다(행 20:17,28). 빌립보 교회에서도 여러 감독이 교회를 다스렸으며, 빌립보는 대도시가 아니고 부제 외에 하급 관리가 없었다(빌 1:1; 딤후 3:3). 장로나 감독이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감독이 흠이 없어야 하며, 이는 두 직책이 동일함을 나타낸다(딤후 1:5-6). 장로는 하나님의 양 떼를 돌보는 감독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벧전 5:2-3). 유다는 감독 직분을 가졌으며(행 1:20), 베드로와 요한도 열등한 사도가 아니라 장로로 기록된다(벧전 5:1; 요이 1).

## 3. 목사 안수 권한과 장로 공회

교구 감독들이 자신들의 특권으로 주장하는 목사 안수 권한은 성경에 의하면 어느 고정된 교회 직분에도 속하지 않고, 장로들이 모인 공회에 속한다. 심지어 장로가 임명된 곳에서는 사도들도 단독으로 목사를 임명하지 않고 장로 공회의 일원으로 참여했다(딤후 1:6; 딤후 4:14).

반론이 예상되므로 다음 사항들을 관찰해야 한다.

1. 그리스도께서 죽기 전에 복음 전파를 위해 임명한 열두와 칠십 제자 모두가 동등한 권력과 권위를 가지며, 임시 사명이었다(마 10; 눅 10:1-21).
2. 부활 후 수여된 평생 사도직은 특별한 직책으로 후임자가 없었다.

3. 디모데와 디도는 고정 교구 감독이 아니라 사도들과 동행하거나 사도로부터 파송받아 그 역할을 대신하는 순회 전도자였다(살전 1:1; 살후 1:1; 롬 16:21; 히 13:23; 골 1:1; 빌 2:19; 고후 1:1; 고전 4:17; 고전 16:10; 고후 1:19; 고후 3:2; 딤후 1:3; 딤후 4:9-10,12; 갈 2:3; 고후 2:13; 고후 7:6-7; 고후 8:16,23; 고후 12:18; 딤후 3:12).
  4. 아시아 교회의 천사들은 교구 감독이 아니라 해당 교회의 총괄 목사였다. 그래서 한 천사가 때로 여러 사람으로 호명되기도 한다(계 2:10,24).
  5. 초대 기독교 300 년 동안, 자기 교회 재판을 주관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저명한 회중을 둔 자들이 종종 감독이라 불렸고, 후자의 경우 다른 안수받은 전도자들을 두어 투옥이나 사망 시 보조하거나 집례하게 했다. 그러나 어떤 교구 주권자를 확증하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 또한 로마의 주요 목회자들 외에는 그러한 우위를 얻기 위해 치열하게 싸운 이가 거의 없다.
  6.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개신교 교회는 정통적 의미의 교구 감독에 의해 통치되지 않으나, 스웨덴과 덴마크의 거의 이름뿐인 감독들은 되고자 한다.
  7. 거의 모든 저명한 초대 교부들은 교구 감독제가 성경적 근거가 없다고 인정한다.
  8. 교구 감독제를 지지하는 거의 모든 논거는 다른 학식 있는 주교들에 의해 효과적으로 반박되었으며, 그들은 이를 부정하지 않으면 교황제 통치를 반박할 수 없다.
  9. 교구 감독은 교회에 명예나 통일의 중심이 된 적 없으며, 오히려 교황적 폐단을 도입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해왔다.
- 그리스도께서 신자 공동체, 행정관, 또는 교구 감독들에게 교회 권력을 맡기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자기께서 정하신 직분자에게 맡기셨음이 분명하다(마 16:19; 마 18:18-20; 고후 10:8; 히 13:7,17; 딤후 5:17; 살전 5:12). 이들 중 일부는 복음교회의 초창기 설립을 위해 특별히 임명되었다.

## 1. 사도직

사도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명을 받아 모든 민족에 평등하게 복음을 전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행하였다. 그들은 교리의 무류성을 특권으로 가졌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끊임없이 기적을 행하며, 배우지 않은 언어를 말하는 능력을 가졌으며, 성령의 기적적 영향력을 타인에게 부여하고 전도자를 파송하며, 스스로 장로와 집사를 임명하는 권한도 가졌다(막 16:15-20; 행 1~21 장).

## 2. 전도자

전도자들은 사도들의 교회 개척과 목회에 협력하며, 그 지시에 따라 장로와 집사를 임명하고 신생 교회에 심판 조직을 세웠다.

## 3. 선지자

선지자들은 성경의 난해한 구절을 설명하고 때로는 미래 일을 예언했다(고전 14:29-32; 행 11:28; 행 21:10-11).

## 4. 일반적 교회 직분

기타 일반적 직분으로는 감독, 장로, 집사가 있다. 감독이나 장로는 다시 말씀과 교훈에 힘쓰는 목사와 단지 잘 다스리는 장로로 나뉜다. 감독 또는 감리라는 명칭은 타인을 감독하고 살피는 권위를 의미하며, 장로 또는 장로라는 호칭은 위엄, 신중함, 경험을 뜻하며, 예수 그리스도 아래 종속적 통치자로서 그분의 법을 선포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나타낸다.



따라서 교회 직분은 목사, 다스리는 장로, 집사의 세 가지로 구별된다. 첫째 직분의 권한에는 둘째와 셋째 직분의 권한이 포함되며, 둘째 직분은 셋째 권한을 포함하지만 첫째 직분의 고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 집사 직분에는 앞의 두 직분에 고유한 권한이 없다.

## 1. 목사 직분

목사 직분은 기독교 교회와의 영적 관계로서 복음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며 교회 성도들의 통치에 참여할 권한을 부여하는 직분이다. 그 신성한 제정은 명백하다.

1.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 교사, 감독을 마련하여 세우신다(고전 12:28; 엡 4:11; 행 20:28; 롬 12:6-8).
2. 이 직분자들의 자격은 신성하게 규정되어 있다(딤후 3:1-8; 딤후 5:21-22; 딤후 1:5-9).
3. 성령께서 이들에게 목사, 교사, 통치자, 청지기, 설교자, 전령, 사자, 감독으로서 권위와 소명을 표시하는 성품을 부여하신다(엡 4:11; 고전 12:28; 딤후 5:17; 고전 4:1-2; 눅 12:42; 롬 10:15; 고후 5:19-20; 행 20:28; 벧전 5:2-3; 계 1:20; 살전 5:12; 골 1:7; 엡 6:21; 마 9:38).
4. 교회의 부름과 장로회의 안수에 의한 직분 취임 방식이 신성하게 정해져 있다(행 1:15-26; 행 14:23; 딤후 4:14).
5. 이 직분에 속한 사역이 신성하게 규정되어 있다(벧전 5:2-3; 딤후 4:14-16; 행 6:2,4; 딤후 4:2; 딤후 2:25-26; 고후 12:15; 고전 14:9,16-17; 겔 34:2,4; 히 13:17; 행 26:17-18; 마 28:19-20; 고전 11:23-26; 딤후 2:2; 고전 5:4,13; 딤후 3:10; 고후 2:6-7).

6.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보여야 할 태도가 하나님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살전 5:12-13; 딤후 5:17; 히 13:7,17; 갈 6:6; 고전 9:7-19; 살후 3:1).

7. 하나님은 목회자들에게 직무 수행 중 격려와 상급을 약속하셨다(고후 3:3,5-6; 계 2:1; 마 28:20; 마 16:19; 요 20:23; 마 10:40-42; 눅 10:16; 요 13:20; 딤후 4:7-8).

복음 사역 직분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영구적 직분이다.

1. 하나님은 이 직분의 대체물을 마련하지 않으셨으며, 성령의 주어짐으로도 사도 시대보다 이 직분이 배제된 적이 없다(행 1~21; 행 26:17-18; 히 11:40).

2. 이 직분의 필요성은 계속된다. 모든 시대에 사람은 무지하고 부패하며, 사탄은 활발히 활동하고, 이단과 오류는 창궐하거나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복음의 신비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죄인의 회개, 성도의 견고함, 반대자의 침묵이 계속 필요하다(딤후 4:1-3; 딤후 3:1-7; 살후 2:3-12; 행 26:17-18; 엡 4:12-15; 딤후 1:11).

3. 복음 사역의 폐지는 심판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유대인 예식 폐지와 마찬가지로 영구적 지속이 필수가 아니면 있을 수 없다(계 2:5).

4. 하나님은 이교도와 적그리스도의 파괴적 분노와 박해 가운데서도 놀랍게 복음 사역을 보전하셨다(계 6; 계 11-12; 계 14).

5. 복음 사역과 연관된 신성한 예식들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도록 정해졌다(엡 4:11-13; 마 28:19-20; 고전 11:26; 딤후 6:14).

복음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가르치기에 적합한 능력, 즉 신적 진리의 합리적이고 체험적인 지식과, 이를 청중의 마음을 밝히고 양심을 감동시키며, 정동(affections)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설명하고 주입할 수 있는 능력(엡 4:7-11; 고전 9:7; 고전 3:8; 고전 6:19-20; 딤후 3:2; 고전 12:8; 골 4:3-4; 고전 4:19; 고전 2:2,4,6-7,13; 고후 2:14; 고후 4:2,5; 딤후 2:15; 사 50:4; 사 49:1-2; 사 58:1; 미 3:8; 고전 14:24-25; 행 24:25).

2. 흠 없고 거룩하며 덕스러운 행실(딤후 3:1-8; 딤후 2:2,21-22; 딤후 1:5-9).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증진에 대한 특별한 열심과 영혼에 대한 부드러운 긍휼(계 3:19; 시 69:9; 시 119:139; 갈 4:18-19; 고후 2:14-15; 살전 2:8; 벰전 5:2; 유 22).

모든 가정주부, 청소년 교육자, 심지어 이웃들도 개인적으로 자신이 책임진 이들에게 복음 진리를 가르쳐야 한다. 그러나 정식으로 부름받지 않은 자는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목사 직분의 어떤 부분도 행사해서는 안 된다.

1. 성경은 직분의 은사와 소명을 명확히 구분한다(요 20:21,23; 사 6:6-7,9).

2. 공적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름이 반드시 필요함을 명백히 선언한다(롬 10:15; 히 5:4,6; 렘 23:21,32).

설교자, 선포자, 사자, 청지기, 파수꾼, 천사, 전달자 등의 직분은 본질적으로 신성한 부르심을 포함한다(고전 9:17; 고후 5:20; 고전 4:1-2; 히 13:17; 계 1:20).

4. 복음 사역자의 자격, 선출, 임직에 관한 규칙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구속력을 가진다고 선언된다(딤후 3:1-8; 딤후 5:21-22; 딤후 6:13).

5. 하나님은 거룩한 직무에 간섭한 고라, 사울, 웃사, 웃시아, 스게바의 아들들을 엄하게 징벌하셨다(민 16:3-11, 32-38, 40; 삼상 13:8-14; 대상 13:9-10; 대상하 26:16-18; 행 19:13-16).

6. 적절한 부르심 없이 사역 직분에 성급히 나서는 것은 그 직분의 무서운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모순되며(고후 3:5-6; 고후 2:16; 겔 3:17-21; 겔 33:1-20; 롬 1:1; 갈 1:15-16; 요 3:27-28; 히 13:17; 히 5:4-5), 난잡한 무질서와 오류를 초래한다(갈 2:5).

7. 그리스도께서 이 직분과 가지시는 다양한 관계 — 그 직분의 창시자로서(엡 4:11-12), 교회의 많은 질서와 교훈을 그것에 의탁하시고(행 20:28; 벡전 5:1-3), 직분에 권세와 권위를 포함시키시며(마 16:19; 마 18:18), 사역자들에게 중요한 신임을 맡기시고(골 4:17; 딤후 6:20), 교인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시며(딤후 5:17; 히 13:7,17), 충실한 직무 수행에 현재의 도움과 장차의 은혜로운 보상을 약속하시는 것(마 28:20; 벡전 5:4)은 이 직분에 대한 신적이고 정기적인 부르심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

## 목회자의 부르심과 자격

평범한 목회자의 직무에 대한 부르심은 두 가지여야 한다.

1. 신적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겸손한 태도로 내부적으로 이끌고 정기적인 수단을 통해 하시는 부르심으로, 종종 다른 길을 차단하는 섭리의 조짐이 뒤따른다.

2. 교회적 부르심: 그가 섬길 기독교인들의 선출과 장로회의 임직을 포함한다.

성인이 된 신자들이 목사를 선택할 권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명백하다.

1. 교회가 자발적인 공동체이므로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강요하는 자는 목사로서 관계되지 않는다.

2. 교인들 자신만큼 그들의 영적 성장에 최적화된 은사를 판단할 수 있는 이는 없다.

3. 사람이 종이냐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왜 신자들이 영혼의 종과 보조 의사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4. 성경은 일반적인 경우에서 성인이 된 신자들에게만 목사의 선출을 허락한다(행 1:15-26; 행 6:1-6; 행 14:23).

5.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이 영을 분별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할 능력과 가장 적합한 자를 선택할 권한, 부적합한 자를 거부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한다(요일 4:1).

6. 어떠한 형태든 후원권을 통한 목사 임지는 가톨릭에서 비롯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자유케 한 사람들의 양심에 대한 폭정을 세우고, 성직에 불경하고 게으른 자들이 채워지게 하며, 매매, 신성모독, 위증을 조장하고, 세상의 왕국 형태를 따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왜곡하는 결과를 낳는다(겔 34:2-4; 사 56:9-12; 요 18:36).

임직은 교인의 권한이 아닌 장로회의 권한이다(딤후 1:14; 딤후 1:6; 딤후 2:2; 행 13:1-3; 행 14:23; 딤후 5:21-22).

### 목사의 직무

목사가 임직 받은 후 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청중의 영혼에 대한 깊은 동정과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필요에 따라 공개적·사적 설교, 강론, 교리문답, 권면, 병 중 방문 등을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먹이는 일이다(벧전 5:3; 고후 5:11; 고전 9:16; 빌 1:17, 24-25; 딤후 6:20; 딤후 3:15; 딤후 4:15-16; 딤후 4:2; 갈 6:6; 히 5:11, 13; 고전 3:1; 행 20:20-21, 27-28, 31, 35; 행 26:17-18; 겔 34:1-16; 겔 3:17-21; 겔 33:1-20; 골 1:28-29; 사 40:11; 사 50:4; 살전 2:2-12; 살전 5:12; 약 5:14; 고후 11:28-29).

2. 적절한 자들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성례를 집행하는 일이다(마 28:19-20; 마 7:6; 고전 11:23-29).

3. 공정함과 열정, 온유함, 신중함으로 교인을 다스리며, 범법자를 징계하고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는 일이다(히 13:17; 딤후 5:20-21; 딤후 1:20; 딤후 3:10-11; 계 2:2, 14, 20; 고전 5:4-5; 고후 2:6-7).

4. 가난한 자를 돌보고 지원하는 일이다(갈 2:9-10; 딤후 6:17-18; 고후 8-9).

5. 일반적인 교회와 특히 자기 관할 교회를 위해 열렬히 효과적인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일이다(행 6:2, 4; 엡 3:14-19; 엡 1:15-20; 갈 4:19; 골 4:12).

6. 온화하고 겸손하며 거룩하고 교훈적인 생활로 교리와 권면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살전 2:10; 딤후 4:7-8, 12, 16; 딤후 6:11-12; 딤후 2:1, 15-16, 21-23; 딤후 3:14; 딤후 1:7-9; 딤후 2:7-8; 마 5:16-48).

## 교회 통치자와 통치 장로

II. 성경의 선언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임명되지 않은 교회 통치자도 세우셨다(롬 12:7-8; 히 13:7,17). 다양한 은사가 가르침과 통치를 위한 직분에 적합하다(엡 4:7). 이러한 통치자들은 목사를 보조하는 데 필수적이다(갈 2:9-10; 행 6:2-4; 출 18:17-23). 모든 그리스도인 교회는 여러 장로를 필요로 한다(행 20:17-38; 행 14:23). 기독교 교회에는 유대교 교회와 유사하게 파문 권한을 가진 법정이 있으며, 이는 회중 대표로서 장로들이 다스린다(마 18:15-17; 민 35:24; 신 19:12; 수 20:4, 6; 출 12:3, 21). 여러 본문을 대조하면 회중이 통치자를 뜻함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28:17 에서 사용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칠십인역에서 유래한 교회라는 뜻의 단어이다.

그러나 통치 장로의 신적 임명은 더욱 명백하다.

1. 롬 12:5-8 에서 복음 교회의 한 몸 안에 예언이 있으니, 이는 가르침과 권면을 포함하여 교사와 목사에 대응할 수 있고, 또한 봉사를 포함하는데, 봉사는 교회의 자선을 배분하며 병자와 갇힌 자를 방문하는 집사에 해당한다. 그리고 부지런히 다스리는 장로에 대응한다. 여기서는 유익을 이루도록 주어진 다양한 은사가 다양한 직임을 함의한다(엡 4:7-11; 고전 12:7-8). 여기 '다스리는 자'는 다양한 은사와 다른 직무로 특징지어진다.
2. 고전 12:28 에서 '통치자들', 즉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교회에 세우신 자들임을 본다. 이들은 도우미나 집사와 구별되며(행 6:1-6), '통치자'라는 명칭은 그들의 직무가 주로, 아니면 전적으로 통치에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교회 재정 관리자보다 교인들의 통치자를 더 적합하게 가리킨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모든 통치자를 다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일부만 세우셨다.

딤후 5:17 에서 일부 장로는 단지 잘 다스린 것만으로도 이중 존귀를 받을 만하나, 다른 이들은 말과 교훈에도 수고하여 더욱 이중 존귀를 받는다. 이 장로들은 모두 교회에 속한다(딤후 1:19; 딤후 4:14; 딤후 3:15 참고). '코피온테스(수고하는 자)'는 비범한 수고가 아니라 모든 복음 사역자들의 일반적 의무를 의미한다(고전 3:8; 살전 5:12; 요 4:38).

'말리스타(특히)'는 신약에서 같은 일반 범주의 사람이나 사물을 구분할 때 사용된다(행 20:38; 행 23:26; 행 26:3; 갈 6:10; 빌 4:22; 딤후 4:10; 딤후 5:8; 딤후 4:13; 뢰 1:10; 빌 1:6; 뵤후 2:10).

대부분 주요 교부들은 통치 장로를 지지하며, 그들을 비난하는 가톨릭과 성공회조차도 그들의 총장, 공무원, 대리인, 관장 등에서 통치 장로의 그림자를 갖는다. 목양에 책임이 없는 주교들은 본질적으로 평신도 장로이다. 독립교단도 교인들 소수로 대부분 회중의 업무를 처리한다.

통치 장로의 필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진정한 경건(딤후 4:12; 딤후 2:21-22).
2. 사건을 판결할 능력(대상 12:32; 신 1:13; 왕상 3:5-15; 사 11:2-5; 민 11:16-17).
3. 지혜와 신중함, 정직한 행동 및 타인의 좋은 평판(딤후 3:1-8; 시 101:2-8).

그들의 임직은 교사 장로나 목사 임직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그들의 일반적인 임무는 바르게 다스리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1. 교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합성 판단 — 성령과 자신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이는 원칙이나 실천상의 논쟁점에 대해 사법적으로 선언(행 15:28-29; 행 16:4; 계 2:2; 행 20:17-31).
2. 적합한 자를 교회 교제에 받아들이는 일(마 16:19).
3. 그리스도의 법을 준수하도록 교인들을 인도하고 격려하는 일(히 13:7,17).
4. 모든 복음 예식을 순결하고 완전하게 잘 보존하도록 주의하는 일(마 1:7-8).
5. 교인들의 도덕적 행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필요시 가르치고 권면하며 위로하거나 책망하는 일(히 13:17).
6. 병든 자나 마음이 괴로운 자를 방문하는 일(약 5:14).
7. 가난한 자와 교회의 영적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기타 지출을 위한 준비를 하는 일(행 11:27-30).
8. 범법자와 회개하는 자의 사건을 판결하여 전자를 징계하고 후자를 용서하는 일(마 18:15-18; 마 16:19).
9. 금식, 감사예배, 주의 만찬 등의 예식을 규제하는 일(고전 14:26, 40).

## 집사의 직무와 임명

III. 기독교 교회에 집사의 신적 임명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행 6:1-6; 딤후 3:8-11; 롬 12:8; 고전 12:28; 빌 1:1). 집사는 정직한 평판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이어야 한다(딤후 3:8-10; 행 6:3). 그들의 선출과 임직 방식은 장로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행 6:1-6). 그들의 직무는 가난한 자, 사역자, 주님의 식탁과 관련된 교회의 세속적 사정을 관리하는 일이다(행 6:2; 고전 12:28). 성경에 집사의 직무에 다른 임무가 포함된 적은 없다. 따라서 첫 일곱 집사 중 일부가 전도자로 되어 설교와 성례를 집행했을지라도, 집사 직분 자체로는 그러한 권리를 갖지 못한다.

통치 장로와 집사의 직분은 임시적인 것이 아니며, 두 직분 모두 모든 교회와 시대에 관한 도덕적 근거와 필요에 따라 임명되었다. 이들에 관한 규칙은 세상 끝날까지 지켜져야 한다(딤후 6:13-14). 그러므로 어떤 회중도 집사를 폐지하는 데 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임을 질 수 없으며, 통치 장로를 폐지하는 것과 동일하다.

## 제 3 장: 회중, 장로회 및 총회에서 교회 권력의 사회적 행사

복음 전파와 성례 집행에 있어서, 사역자들은 개인으로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회원의 입회 허락, 직무자의 안수, 범법자의 징계, 또는 회개자의 사면에 관한 모든 관할권은 사회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치리자가 구성된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즉, 치리회(Sessions), 장로회(Presbyteries), 총회(Synods)에서 이루어진다.

### I. 치리회

치리회는 특정 교회의 치리자들로 구성된 교회 법정이다. 그리스도의 임명은 명백하다.

1. 자연의 이성이 작은 문제는 하위 법정에서 결정하도록 가르친다(출 18:17-23).



2. 성경은 작은 문제를 하위 법정에서 심판하는 것을 승인한다(출 18:17-26; 마 5:22; 마 18:17-20).
3. 그리스도가 규정한 추문 처리 절차에는 유대인의 회당이나 회중 집회의 법정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다(마 18:15-18).
4. 유대인의 회당에 따라 각 그리스도인 교회는 하나님의 권한으로 여러 장로를 배정받았다(막 5:35-38; 눅 8:41; 눅 13:14; 요 9:22; 행 13:15; 행 18:8,17; 행 14:23; 딤후 1:5).
5. 실질적 필요가 그러한 법정을 요구한다. 모든 적절한 문제를 교회에서 심판하거나 모두 장로회와 총회로 옮기는 것이 불가능하다. — 치리회의 임무는 교회 회원들의 영적 상태와 신자 성품을 조사하고, 회원을 입회시키거나 성례 참여를 정지시키며, 범법자를 권면·책망하거나 회개할 때 사면하는 것이다.

## II. 장로회

장로회는 여러 교회의 목사들과 치리자로 구성된 교회 법정이다. — 이러한 법정은 그리스도에 의해 정당화된다.

1. 목사의 심사와 안수, 미묘한 이단 심판, 치리회 내의 분쟁 조정 및 여러 교회 간 분쟁 해결 등 교회의 여러 사안은 이런 법정을 필요로 한다(롬 14:19; 고전 14:26,40).
2. 그리스도 안의 신비적 한 몸이라는 그리스도인들의 긴밀한 연합은 그들의 교제의 단합이 가능한 한 멀리까지 이어지도록 요구한다(롬 12:5; 엡 4:3-6; 고전 12:12,27).
3. 디모데의 안수 때 장로회의 명확한 언급이 있다(딤후 4:14).
4. 성경에는 한 장로회가 여러 교회를 통치하는 여러 사례가 나타난다.

(1) 예루살렘에서는 당시 형성 중인 교회의 백이십 명에 삼천 명이 더해졌고, 계속해서 많은 이들이 더해졌다(행 1:15; 행 2:41,47). 이후 오천 명이 추가되어 열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해 자선 행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늘어났다. 이들 모두와 많은 유대 제사장, 그리고 신앙에 순종하는 이들이 있었다(행 4:4; 행 5:14; 행 6:7). 이들이 모두 합쳐도 최소한 만 단위였을 것이다. 수차례의 박해에도 불구하고(행 8; 행 12) 이들은 여전히 수만 명에 달했고(행 21:20), 사도들과 여러 교사들이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여러 언어로 전파했다. 이 거대한 교회 공동체가 단일한 회중으로 복음성찬을 함께 먹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행 2:41-42; 행 4:31-37; 행 6:2; 행 8:14; 행 15:2; 행 2:5-12).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교회로 여겨졌고 그 치리자들이 함께 모여 치리를 행했다(행 11:27,30; 행 15:2; 행 6:1-6; 행 21:18).

(2) 안디옥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고 이후 주님께 많은 사람들이 더해졌다(행 11:24,26). 많은 교사들이 있었다(행 11:20,23,26; 행 13:1-3; 행 15:35). 박해가 있는 가운데 그렇게 많은 인원이 복음성찬에 참여할 공적 장소와 다수의 교사가 한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한 교회로 불렸다(행 13:1-3; 행 15:35).

(3)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성장했다. 많은 마술사도 믿으며 마법 서적을 은 오만 냥에 달하는 값으로 태웠다(행 19:10,17-20; 고전 16:8-9). 바울과 다른 열두 교사들이 동시에 예언했으며 상당한 수의 장로 또는 감독이 있었다(행 19:1-10; 행 20:17,28,36). 그러나 이 모두가 단일 교회에 속했으며 그 처리자는 한 천사로 상징되고 영적 문제들을 심판하기 위해 모였다(계 1:11; 계 2:1; 행 20:17,28).

(4) 고린도에서도 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의 백성이 많았다(행 18:8-10). 다양한 언어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상당한 수의 교사들이 있었다(고전 14:20,26,29,32,34).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고린도 그리스도인들은 한 교회였고 처리자들이 모여 교회 운영을 했다(고전 1:2; 고전 5:4,13; 고후 2:6,9). 이들 어느 곳에서도 지방 감독이 처리하는 통합적 수장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 III. 총회

총회는 여러 장로회로 구성된 교회 법정으로, 필요 시 장로회의 판결을 검토하며 장로회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여러 장로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조정한다. 총회의 신적 권위는 다음에서 확인된다.

1. 유대인의 산헤드린 교회 법정으로서 정치와 출교에 최고의 권한이 있었다(대하 19:11; 마 18:18).
2. 광범위한 협의가 더 큰 안전성을 제공한다(전 4:9; 잠 11:14; 고전 14:32).
3. 전체 장로회나 그 신도들이 오류나 추문에 몰들었거나, 여러 장로회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필요법칙에서 비롯된다.
4. 교회의 일치를 기초로 한다(마 16:18; 딤후 3:15; 엡 4:4-12; 고전 12; 고전 10:32).
5. 사도적 총회의 본보기(행 15). 이는 안디옥 장로회에서 해결할 수 없던 분쟁이며, 시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뿐 아니라 권위 주장자들이 터전으로 삼은 예루살렘 교회에까지 관련된 분쟁이었다.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시리아와 길리기아 교회에서 파견된 이들과 함께 총회 구성원으로 소집되어 동등한 위치에서 판결을 내렸다(행 15:2,6,22-36; 행 16:4). 예루살렘 신자 전원이 총회에 참석한 것은 불가능하므로, 그 역사 기록에 언급된 '형제들'은 설교 장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나, 행사에 참여했던 일반 신자들도 동의와 공감을 표시하며 총회 서신을 전달할 대의원 선출에 투표했다. 이 총회에서는 사실과 특히 성경에 근거한 논의로 사안을 준비했고, 판결 시 교회 총회의 전 권한을 행사했다. 참된 교리는

엄숙히 선포되었고, 오류는 공개적으로 낙인 찍혔으며, 질서와 체제가 확립되었다. 총회 결정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권위 있는 판결이었고, 관련 교회들이 기꺼이 이를 수용했다(행 15:28,31; 행 16:4-5; 살전 5:12; 고전 16:16; 히 13:7,17).

치리회가 장로회에, 장로회가 총회에 종속됨은 다음에서 명백하다.

1. 작은 자가 큰 자에게 종속됨을 요구하는 자연의 이성에서.
2. 범법자 제거를 위해 그리스도가 정한 단계적 법칙에서(마 18:15-18).
3. 시리아와 길리기아 교회들이 예루살렘 총회에 사건을 회부한 실례에서(행 15:4).
4. 부정 시 부정에서 초래되는 불합리함에서, 예컨대 교회 다수에게 상처를 입어도 치리 절차상 구제책이 없고, 교회 다수를 회복하거나 회중 간 일치를 증진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점 등.
5. 장로제 정부가 가진 고유한 장점에서.
  - (1) 성직자의 교만을 가장 잘 제한한다.
  - (2) 백성에게 자유와 평화를 가장 잘 보장한다.
  - (3) 범법자를 적절히 징계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 (4) 오류 정화에 가장 효과적으로 응답한다.
  - (5) 분열과 분리를 가장 잘 예방한다.

현 기독교회의 불완전한 상태에서는 범법이 종종 발생한다(마 18:7). 범법 또는 추문은 교회 회원이 공개적으로 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행위로서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며, 그 행위가 타인을 죄로 이끄는 경향이 있거나 영적 위안을 훼손하는 것이다(사 27:11; 호 4:1-2,6; 고전 5:11; 고전 6:9-10; 갈 5:19-21; 살후 1:8; 살후 3:6,14; 살전 4:1-8; 롬 14; 고전 8; 고전 10; 고전 14; 마 6:5,16; 사 48:5). 이러한 추문은 본질과 결과가 매우 나쁘나 하나님이 필연적으로 허락하시며(마 18:1-9),

1. 위선적 종교 자들을 징벌하기 위해(살후 2:8-12).

2. 참된 성도들에게 영적 축복을 주기 위해(사 8:11-12; 롬 14:18-19; 고전 11:19).

3. 복음 전파가 확장되도록 하기 위해(행 15:37-41; 빌 1:12-14; 롬 11:20-22).

추문 제거에는 신중함과 질서뿐 아니라 충실함과 열정이 요구된다.

1. 추문 소식을 아는 자가 한두 명일 때는 비밀리에 책망해야 한다(레 19:16-17; 시 141:5; 잠 27:5-6; 엡 5:3-11; 마 18:15).

2. 만족스러운 해결이 없으면 책망에 도움을 줄 친구 한두 명을 데려와 증인이 되게 한다(마 18:16).

3. 고집스럽게 행동을 옹호하거나 반증되는 내용을 부인하면 교회 법정에 회부한다.

4. 교회 재판의 권고와 결정을 무시하면 교회 교제에서 출교하고 이교인과 세리로 여기며 대한다(마 18:17-18).

추문 관련 모든 절차에서 교회 법정의 목적은 무고한 자를 보호하고 범법자를 정죄하며 관련 모두를 덕케 하는 것이다(신 25:1; 롬 14:19; 고전 14:26; 고후 13:8,10; 고후 10:8). 이를 위해 절차는

1. 솔직하고 개방적이어야 한다(고후 1:12; 딤후 2:15).

2. 규칙에 맞아야 한다(고전 11:13-14; 고전 14:40).

3. 온화하고 부드러워야 한다(빌 4:5; 눅 9:51-56; 딤후 2:24-25; 살전 2:7-8; 마 10:16; 골 3:12-14).

4. 인내심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한다(잠 18:13; 엡 4:2,32).

5. 신중해야 한다(엡 5:15; 전 3:1-11; 잠 10:5).

6. 공평해야 한다(잠 17:15; 마 28:20; 계 2:2; 계 3:2; 대상 23:3; 눅 17:1-12).

7. 편견 없이 처신해야 한다(약 2:1-14; 약 3:17; 딤후 5:21).

8.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케를 증진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한다(시 69:9; 고전 10:31; 고전 14:26; 고전 10:8; 고후 13:8,10; 벰전 4:11).

교회 재판이 영적 권세에서 행하는 모든 징계는 필연적으로 영적 성격을 지니며, 신체나 재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들의 주된 징계인 출교는 두 가지로 나뉜다. 소출교는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받는 것에서 교인들을 사법적으로 일시 정지시키는 것이며(살후 3:6, 14-15; 롬 16:17), 대출교는 회개하지 않는 한 교회 교제를 완전히 차단하여 세상, 곧 사탄의 왕국으로 내던지는 것이다(고전 5:4-5, 13; 딤후 1:20; 딤후 3:10-11; 마 18:17). 이러한 출교의 근거는 단순한 인간 권위 불복종이 아니며(약 4:12; 사 66:5; 요 16:2-3),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행위도 아니고(롬 14:5-6),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도 아니며(롬 14:1), 단순한 인간 연약함에서 비롯된 실수도 아니다(약 3:2; 갈 2:11). 출교의 근거는 복음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오류를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완고하게 고수하는 경우(딤후 3:10-11; 딤후 1:20),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명백히 정죄된 고집스러운 추악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이다(고전 5:4-5, 13). 이 판결은 하나님께서 확증하시는 바 매우 엄중하므로(마 18:17-18; 요 20:23), 어떤 사람에게도 그들의 추악한 오류나 행위가 충분히 입증되고, 올바른 시간을 부여하여 그들의 행위와 이 엄중한 제도의 성격과 취지를 숙고하게 하기 전에는 내려져서는 안 된다(딤후 3:10-11).

### 출교의 목적과 권한

출교의 목적은 첫째, 범죄자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그 죄 안에 머무르거나 죽는 것을 두려워하여 간절히 회개하고 구원을 원하게 하는 것이다(유 22-23; 살후 3:14; 딤후 1:20; 고전 5:5). 둘째, 다른 이들이 그들과 함께 죄를 공유하거나 유사한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막는 데 있다(딤후 5:20; 고후 7:12). 셋째, 그리스도와 그의 종교 및 교회의 명예를 확립하는 것이다(고후 6:14-18; 고후 7:1, 11; 고전 7:13). 교회 회원에 대한 출교 권한은 권위적이며, 오직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속한다(마 18:17-18; 마 16:19). 또한 다수 또는 탁월한 신자들에게도 권한이 주어진다(고후 2:6; 히 11:4; 눅 11:31-32). 이러한 엄중한 징계를 가하는 근거는 첫째, 천국의 열쇠가 그들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이고(마 16:19), 둘째, 그리스도께서 이를 명백히 명령하셨으며(마 18:17-20; 딤후 3:10-11), 셋째, 사도에 의해 인도된 고린도 교회에서 그리고 그 사도의 직접적인 집행에서 이 징계가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어느 경우에도 특별한 동기, 사안, 방식, 결과 또는 목적은 발견되지 않는다(고전 5; 딤후 1:20).

### 출교 절차와 윤리

교회 지도자들이 이 판결을 내릴 때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도로 매우 엄숙하고 간절히 임해야 한다(약 5:16). 둘째, 깊은 겸손과 애통함으로 임해야 한다(고전 5:2; 고후 12:21). 셋째,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후 5:10-11; 마 18:18). 넷째, 범죄자들에 대해 큰 온유함과 긍휼함을 가져야 한다(유 22-23). 출교받은 자들에 대한 자연스럽고 당연한 도덕적 의무의 수행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며(고전 7:12-13),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대로 교회 지도자들이 그들을 설득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모든 교인들은 가능한 한 그들과의 친밀한 세속적 교제를 피해야 한다(고전 5:11; 마 18:17).

어느 누구도 그들이 공평하고 탐구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만족시킬 만큼 회개의 증거를 고백과 삶에서 보이기 전에는 이 징계에서 풀려나거나 교제에 회복되어서는 안 된다(고후 2:6-10).

## 성찰

이제 깊이 생각하라, 내 영혼이여! 나는 산 하나님 교회의 참된 지체인가, 아니면 시들어져 영원한 형벌로 내던져질 가지인가?—하나님 진리의 체계적인 관점에서 나는 마지막으로 이 출교의 엄중한 선고와 그로부터의 용서를 주목했는가? 지금 내가 요해와 앞에서 어느 심판 아래 놓여 있는지, 내가 무엇을 준비하거나 준비 중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재림 때 내게 무엇을 주실지를 생각하라.—어쩌면 나는 이 일을 마무리하는 바로 그 마음 상태로 그의 두려운 심판대 앞에 설지도 모른다—이 페이지 작업을 끝내는 바로 그 상태로.—내 영혼이여, 내가 검토한 이 수많은 진리가 나에게 무슨 증거를 제공하는지 듣고 있느냐?—아, 나는 이토록 귀중하고 구원의 진리들을 검토했으나 그 영광을 보거나 그 능력을 느끼지 못하였는가?—아, 만일 베일이 아직 남아 있고 이것들이 모두 내게 죽음을 가져오는 법률, 죽음의 담당자, 죽음의 향기라면 내 마음은 이미 지옥처럼 굳어졌음이라! 복음의 기름을 가슴에 품고 영원한 불길로 뛰어드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이 엄중한 사건을 막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나는 다음과 같이 나의 일을 맺는다. 나는 나 자신을, 가난하고 견줄 데 없는, 무지하며 죄악되고 더럽혀졌으며 노예가 된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혜와 의와 성화와 구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온 마음으로 내어 맡긴다. 내 양심과 천사들과 구속하시는 삼위일체께서 증언하시리니, 나는 진심으로 동의하여 예수와 그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 되게 하며 내가 영원히 그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그리고 내 안의 중대한 죄인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그가 참으시는 인내와 은혜의 풍성함을 드러내시게 하소서. 내 영혼이 이 주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는 저주받아 멸망하며 그의 재림 때 저주를 받을 것이라.